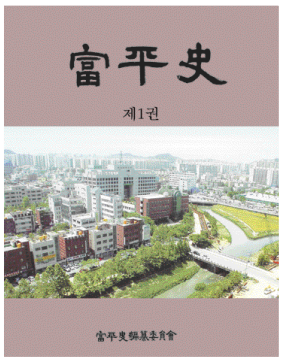
富平史

제1권



富平史編纂委員會



題 字 : 동곡(東谷) 김재화(金在化)

발간사



허 문 명
부평사편찬위원장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정리한 『부평사』의 발간을 57만 부평구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평사』는 부평지역과 부평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1997년 『부평사』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정리한 『부평사』는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현황과 부평구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기록사진들을 대폭 수록하여 부평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부평사』를 통해 부평구민들이 내 고장의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부평구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더욱 완성된 『부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롭게 편찬된 『부평사』가 부평지역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부평구의 역사로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부평구민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 그리고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주신 편찬위원들과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



박 윤 배

부평구청장

『부평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평구는 1995년 출범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현재 인구 57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경제와 문화 · 예술 · 사회복지 ·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평사』가 발간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발굴과 현장조사를 통해 『부평사』를 완성한 허문명 부평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997년 『부평사』가 발간되어 부평지역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0년의 성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간된 『부평사』는 부평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평사』가 널리 활용되어 부평구민들에게 부평지역의 역사를 잘 알려주는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평사』 발간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권 상 철

부평구의회의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인천발전을 선도해 온 우리 부평의 발자취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부평사』가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발간된 것을 57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평사』 발간을 위해 자료수집 등 편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허문명 부평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장 부평은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터전 속에서 예로부터 인천지역과는 달리 고유의 권역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57만이 거주하는 인천 최대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만월산, 원적산을 축으로 정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애향의 고장으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을 향한 발전 잠재력이 큰 고장이기도 합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부평사』는 부평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밝은 미래를 자세하게 담아냄으로써 구민 모두가 부평의 이모저모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부평사』가 부평의 역사를 대변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부평사』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허문명 부평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의 상징물

◆ 구의 마크

- 비둘기를 형상화하여 평화롭고 살기좋은 부평을 상징
- 부평의 「P」자와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 자연의 조화, 구민의 화합과 무궁한 번영을 상징
- 타원은 최첨단 산업요람 및 웅비하는 부평을 상징
- 희망 · 전진의 청색, 젊음의 녹색으로 조화를 이룸



◆ 구 캐릭터 - 부디(남) · 부니(여)

- 몸통은 듬직한 모습으로 부평구의 저력을 나타냄
- 머리의 헤드셋은 부평의 첨단화를 상징
- 의상은 풍물의 전통 복장을 입혀 축제의 도시를 상징
- 손동작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부평을 의미



◆ 구의 나무 - 은행나무

- 특징 : 병충해에 강하고 곧게 자라는 경제 수목
- 상징 : 안정과 화합 속에 힘차게 발전함을 상징

부평구의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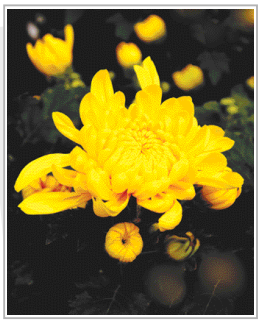
◆ 구의 새 - 비둘기

- 특징 : 전통적인 텃새로서 높은 나무에서 서식
- 상징 : 순하고 소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구민의 성품과 희망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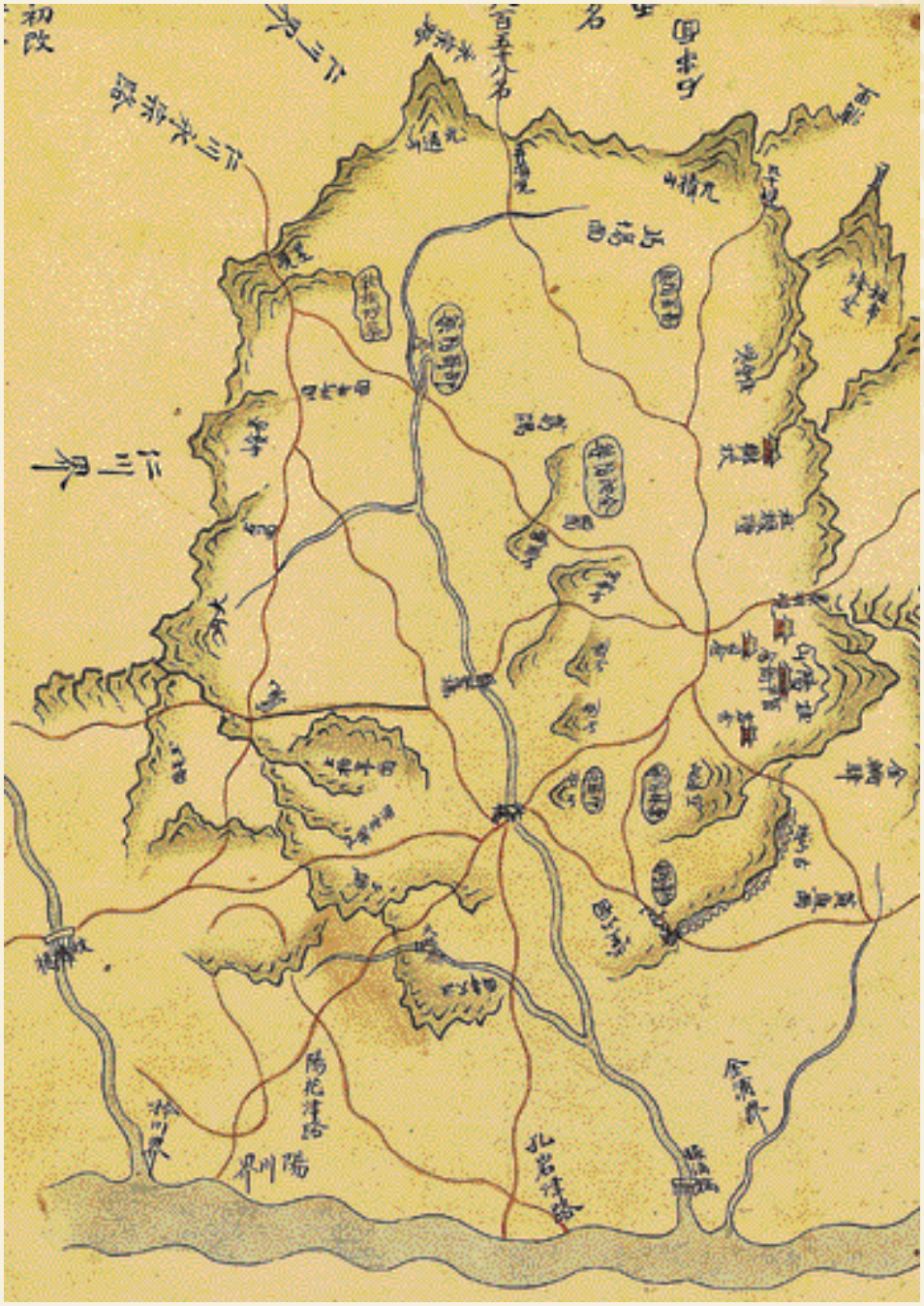
◆ 구의 동물 - 백마

- 상징 : 건강한 부평구민과 힘차게 발전하는 부평구의 기상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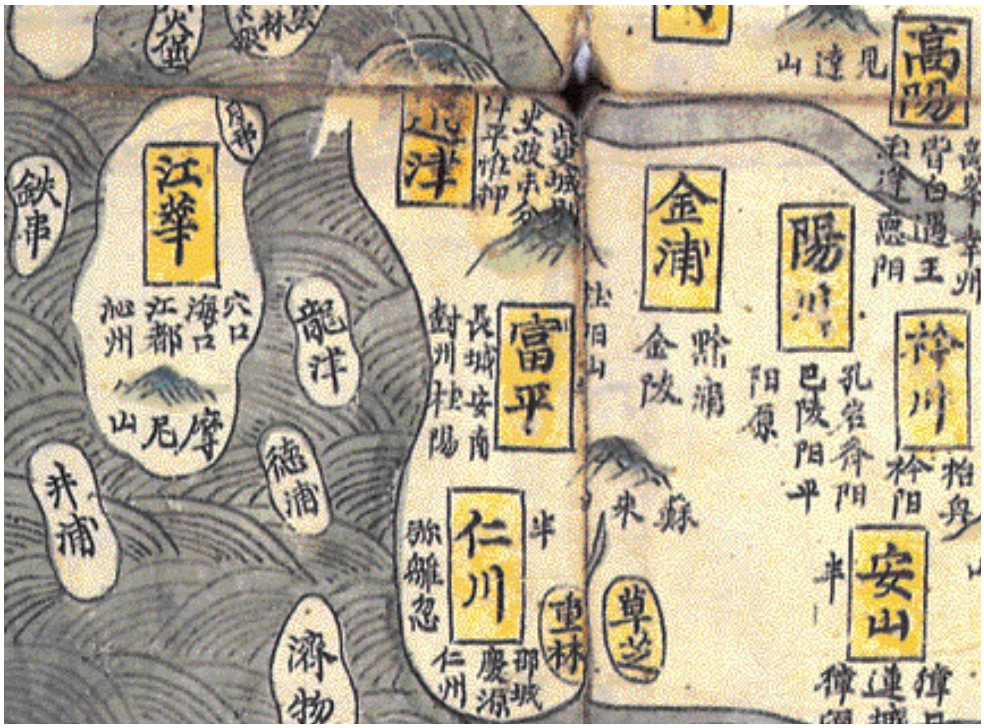


◆ 구의 꽃 - 국화

- 특징 : 풍토에 강한 가을 화단의 대표적인 꽃
- 상징 : 다정하고 끈기있는 구민을 상징



『해동지도』 중 부평부(富平府). 1760년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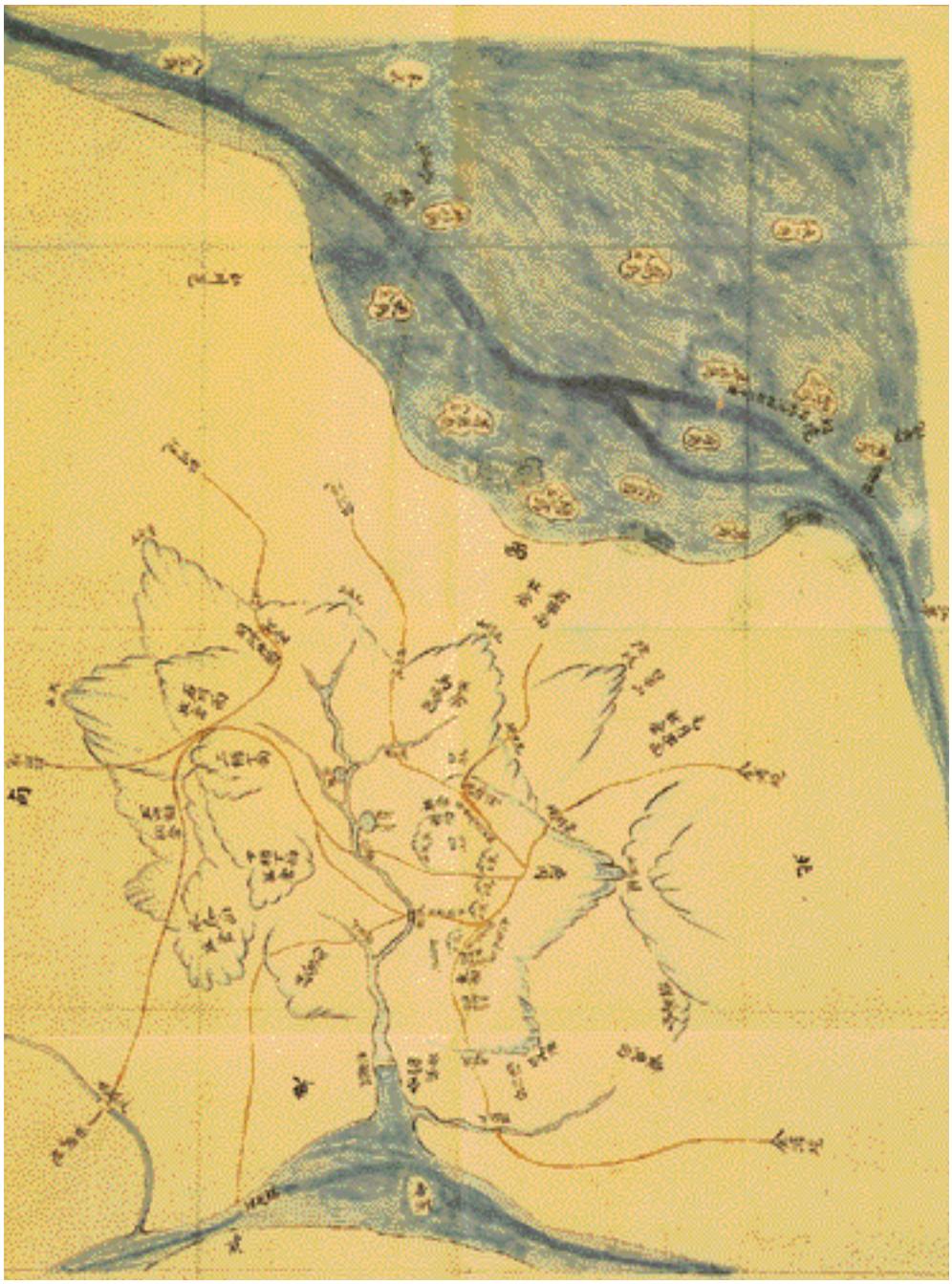


1 『팔도지도』에 나타난 부평지역과 그 주변. 17세기 초 제작.
2 『동여도』에 그려진 부평도호부의 영역. 1860년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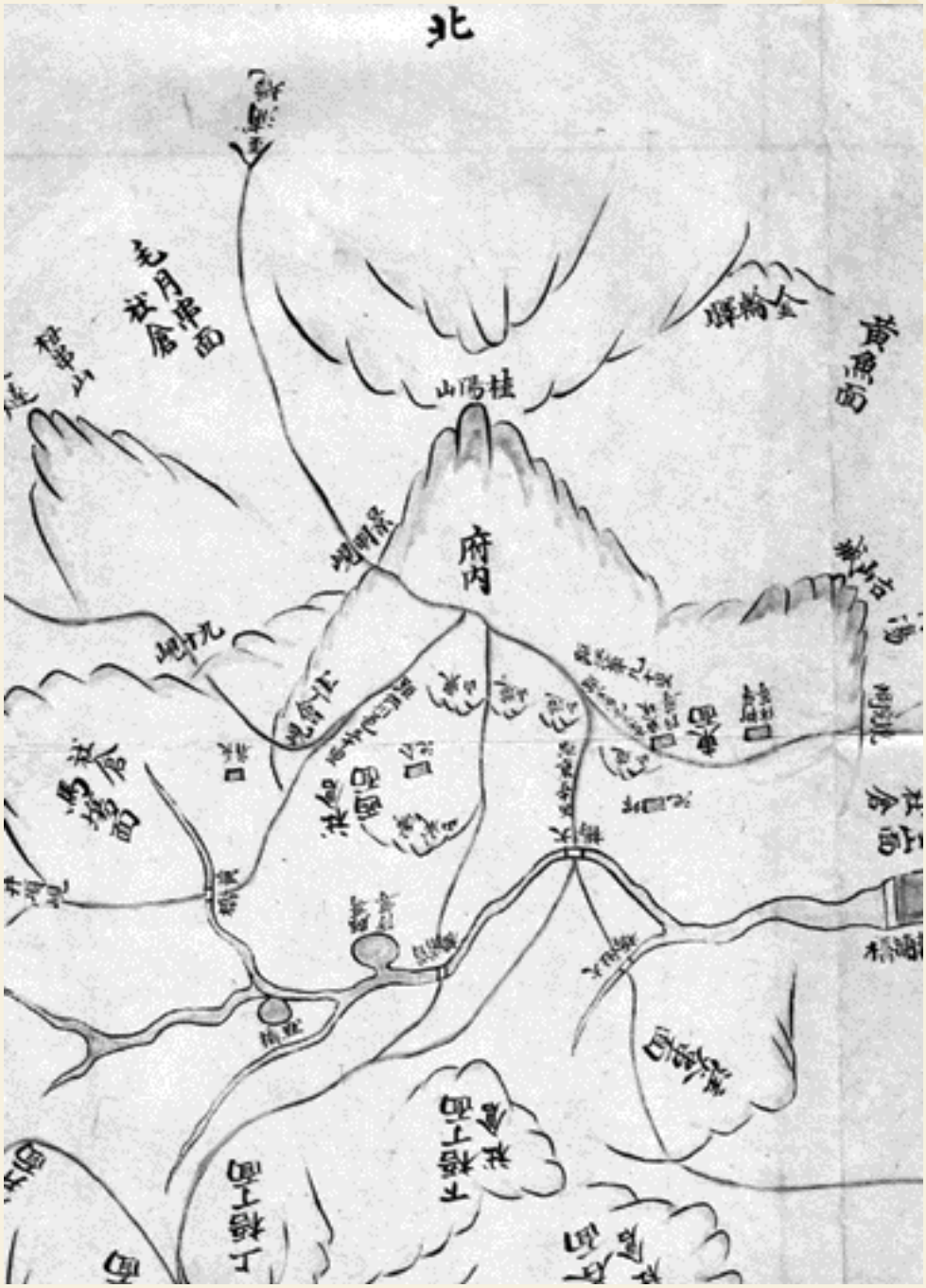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중 부평도호부. 1861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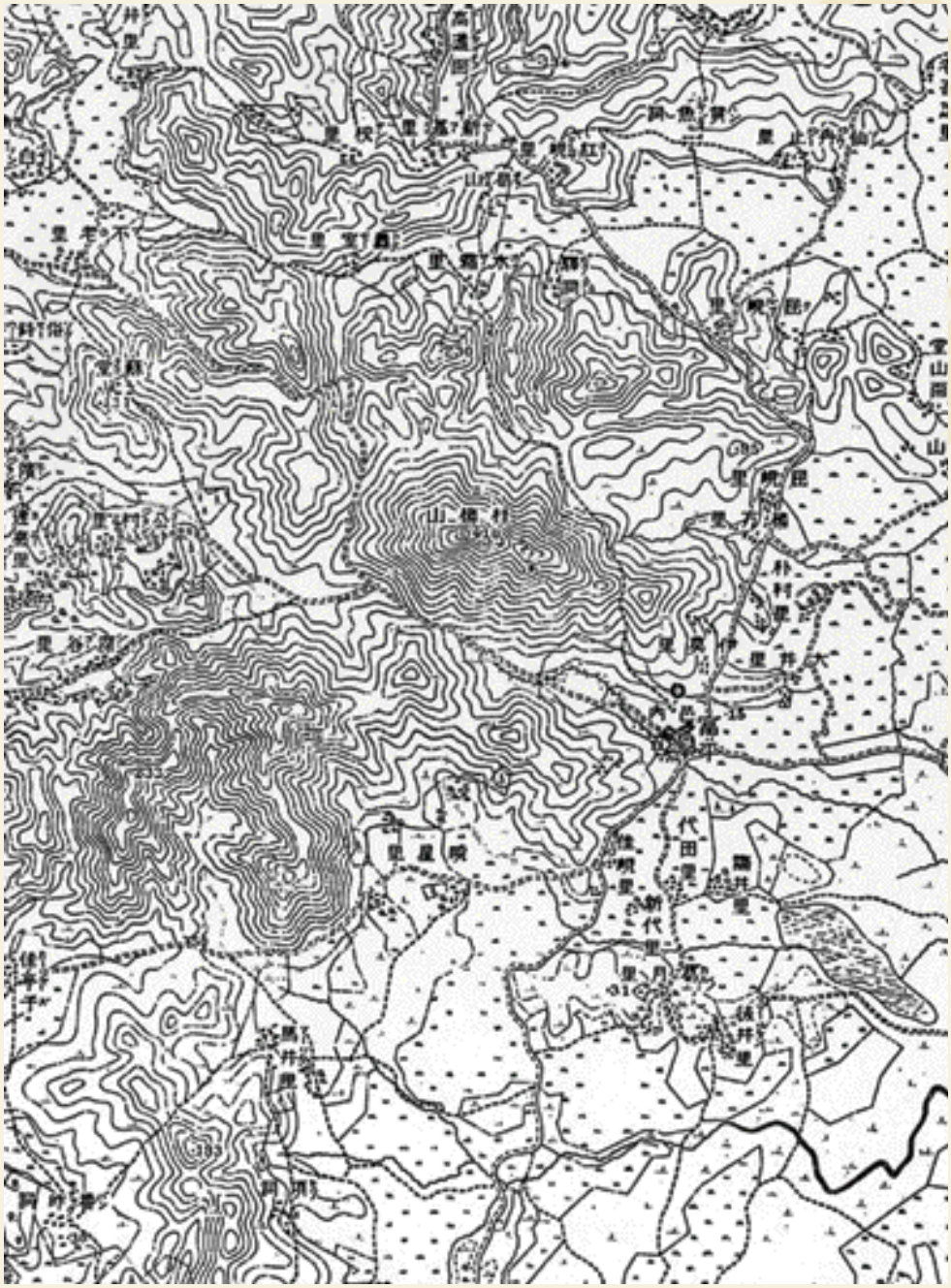
『부평부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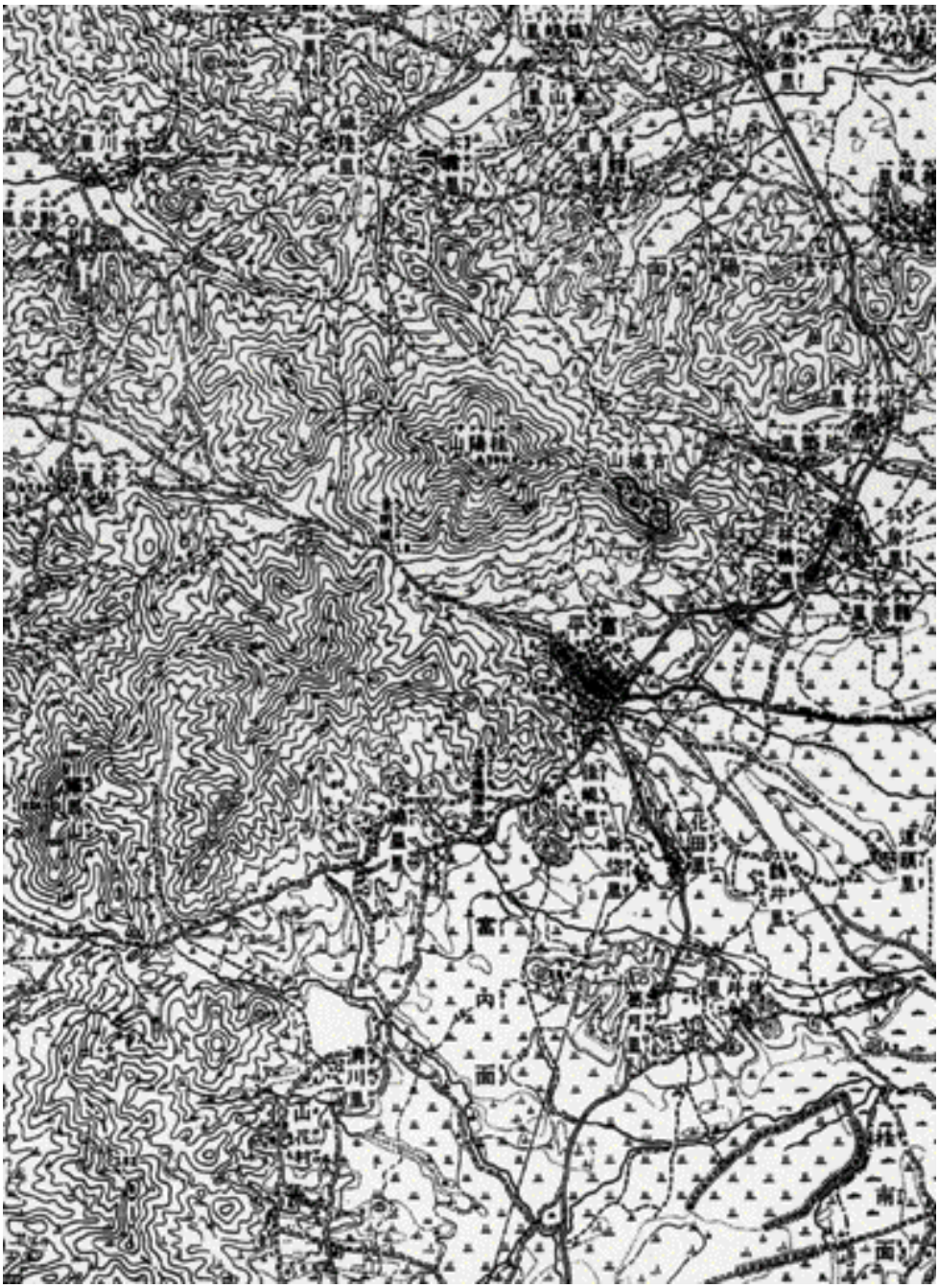
『부평부지도』. 1872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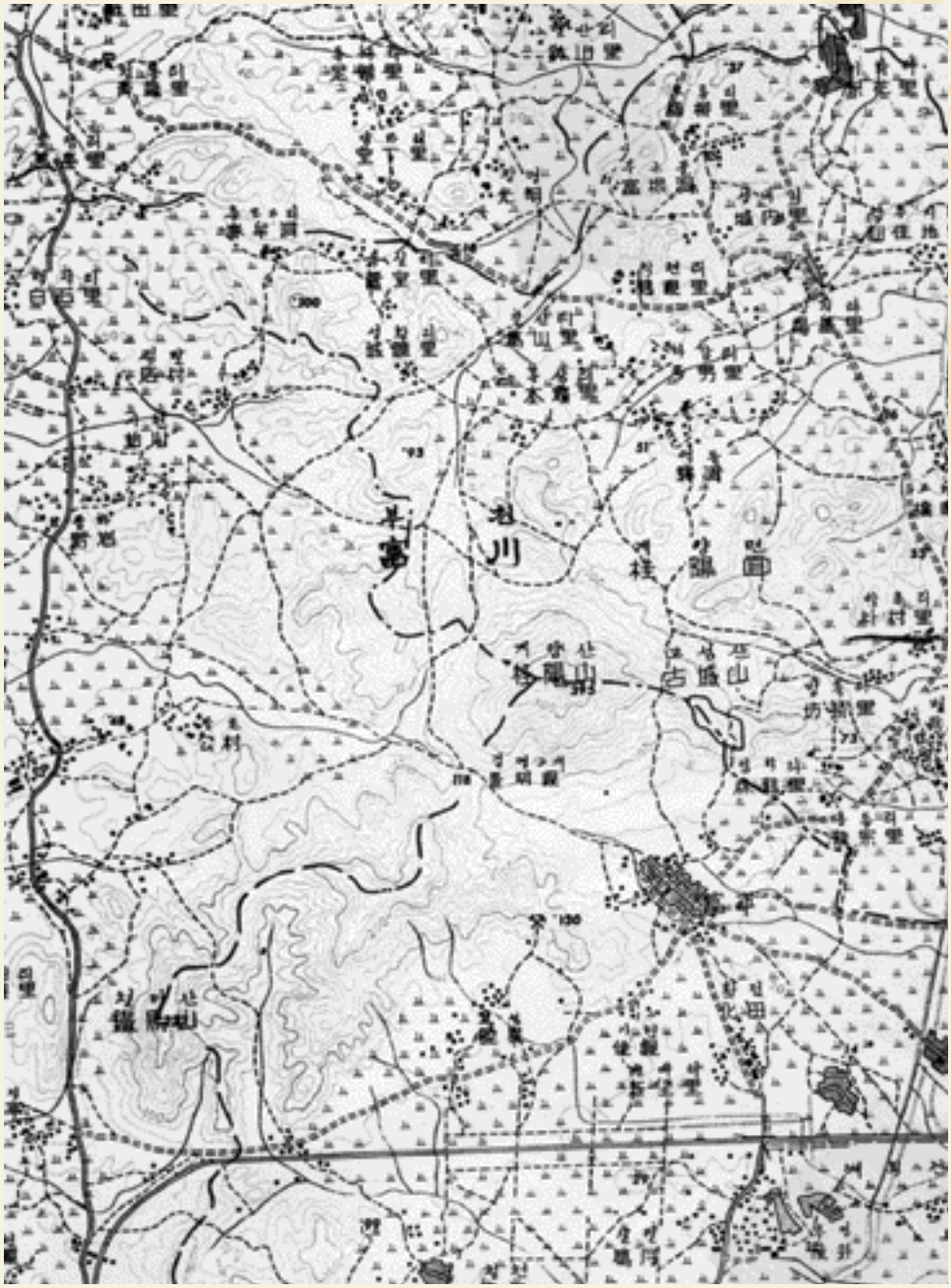
『부평부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제작.



1895년 부평지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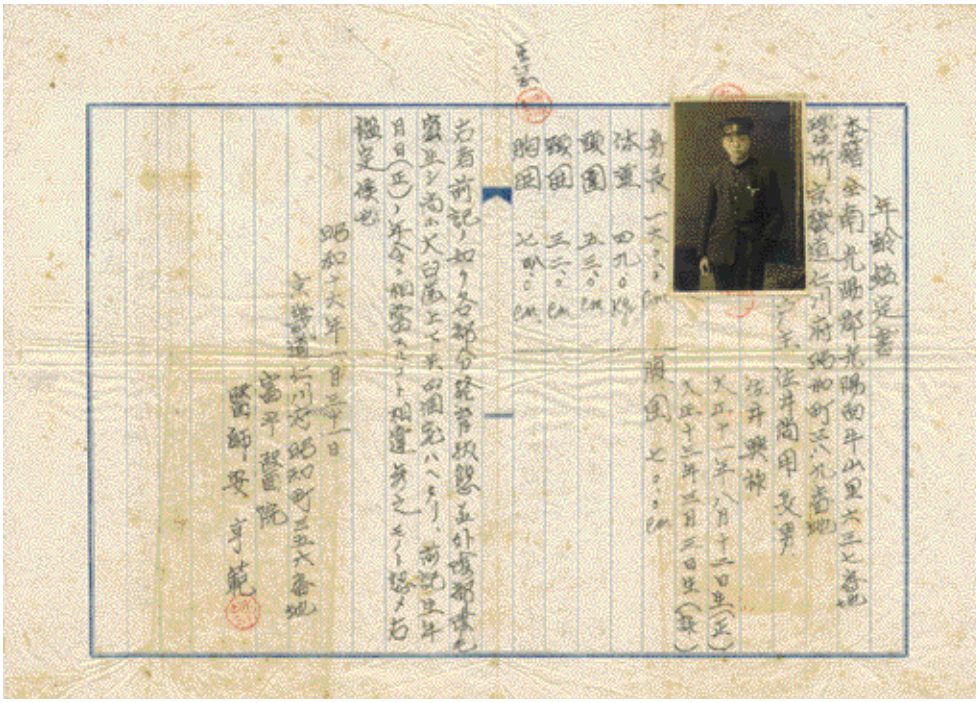


1917년 부평지역 모습



1954년 부평지역 모습





1 1960년대 초 산곡동 주민들
2 부평의원에서 1931년 발행한 연령감정서





1 1960년대 초 부평 미군부대 앞 풍경
2 1960년대 초 부평 미군부대 부근





1 1960년대 초 부평 미통신부대 입구
2 1960년대 초 부평 미군부대 모습





1 부평출장소 직원들. 1953년 촬영.
2 1960년대 초 부평 미군부대 인근 거리 풍경







1 초기 애스컴(ASCOM) 모습
2 건설 중인 부평공업단지 일대
3 1960년대 부평역 앞



1 철마산 관통도로 공사 현장(1970)
2 1971년 부평시장 풍경
3 1971년 부평시장 풍경











1 2 3

1 1971년 부평시장 풍경
2 북구종합청사 기공식(1971)
3 부평경찰서 신축 청사 준공식(1982)

부평구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이 책은 부평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록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부평의 정체성」, 제2권은 「부평의 오늘과 내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평'에 포함되는 인적 · 자연적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수집, 검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평구민들이 거주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 '향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서술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를 포괄하여 서술하였다. 서술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2006년 이후의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다.

3. 내용

1) 제1권은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3편 부평현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 부평의 공간과 자연 : '부평'이란 명칭의 연혁과 공간의 역사적 변천과정, 자연환경 등을 서술하였다.
- 역사 속의 부평 :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부평지역의 역사를 최근의 지표조사 · 발굴조사 및 학술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

· 부평현대사 : 해방 직후 혼란기와 한국전쟁기 부평지역의 상황 및 경제재건 과정, 정치 현황, 시민사회의 성장과 문화운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제2권은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평의 오늘과 내일 : 주로 부평구가 출범한 199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부평구의 변화상을 기록하였다.

· 자료편 : 구술증언자료, 설화, 문학자료, 사진, 연표, 신문기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4. 본문 서술

1)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한자를 같이 써야 할 경우 괄호안에 병기하였다. 단, 표나 출처 등은 예외로 하였다.

2)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왕력을 먼저 표기한 경우도 있다.

3) 구술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4) 책 전체의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과 첨삭을 가하였다.

5) 집필위원은 해당 절의 좌 · 우 여백에 기재하고, 참고문헌은 제2권 말미에 수록하였다.

6) 본문 중 '부평구'는 현재 행정구역상 부평구를 지칭한다. 그 외 '부평지역'은 경우에 따라 부평구를 포함한 계양구, 서구 등 과거 부평도호부, 북구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부평'은 관념적 · 문화적 의미를 내포할 때 사용하였다.

富平史

총 목 차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1장 '부평'과 그 공간
제1절 명칭과 연혁
제2절 부평의 인문지리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기후와 기상재해
제2절 지형과 지질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1장 전근대시기
제1절 선사시대
제2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제3절 고려시대
제4절 조선시대

제2장 부평의 근대
제1절 개항 이후 부평지역의 변화
제2절 일제시대 부평지역의 사회경제
제3절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의 항일운동

제3편 부평현대사

제1장 해방 후의 부평
제1절 해방과 일제 잔재의 청산 운동
제2절 공장자주화 운동과 조병창
제3절 좌우대립과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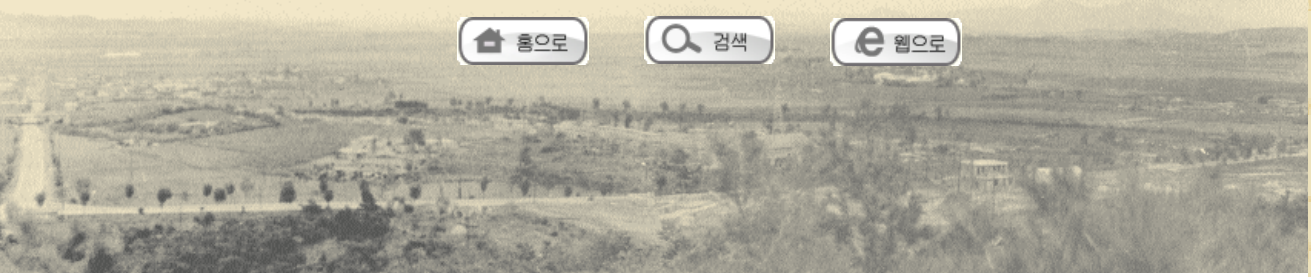
제2장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
제1절 한국전쟁과 부평
제2절 정치와 행정의 재정비
제3절 경제재건

제3장 1960년대의 부평
제1절 5 · 16과 지방자치제
제2절 부평의 산업과 수출공단의 조성
제3절 구제 실시와 북구의 탄생

제4장 1970년대의 부평
제1절 고도성장기의 부평
제2절 도시화와 사회적 변동
제3절 경인전철과 부평

제5장 상업의 발달과 부평지역의 민주화 운동
제1절 상업의 현대화
제2절 자동차산업과 부평경제
제3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제4절 전철역사의 확충과 주거 및 상권의 재편

제6장 경제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제1절 시민사회
제2절 문화운동과 부평풍물축제
제3절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평경제



2

Contents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1장 부평구의 주요현황
- 제1절 행정조직
- 제2절 인구
- 제3절 교육
- 제4절 의료 · 복지

제2장 정치와 경제
- 제1절 정치 현황
- 제2절 산업구조
- 제3절 지역사회와 기업활동

제3장 부평구민의 사회참여
- 제1절 시민사회의 변화
- 제2절 환경운동
- 제3절 체육활동
- 제4절 구호자원봉사활동

제4장 문화와 생활
- 제1절 문화자원 현황
- 제2절 문화공간의 현황과 이용실태
- 제3절 문화행사의 현황과 참여

제5장 부평의 미래상

자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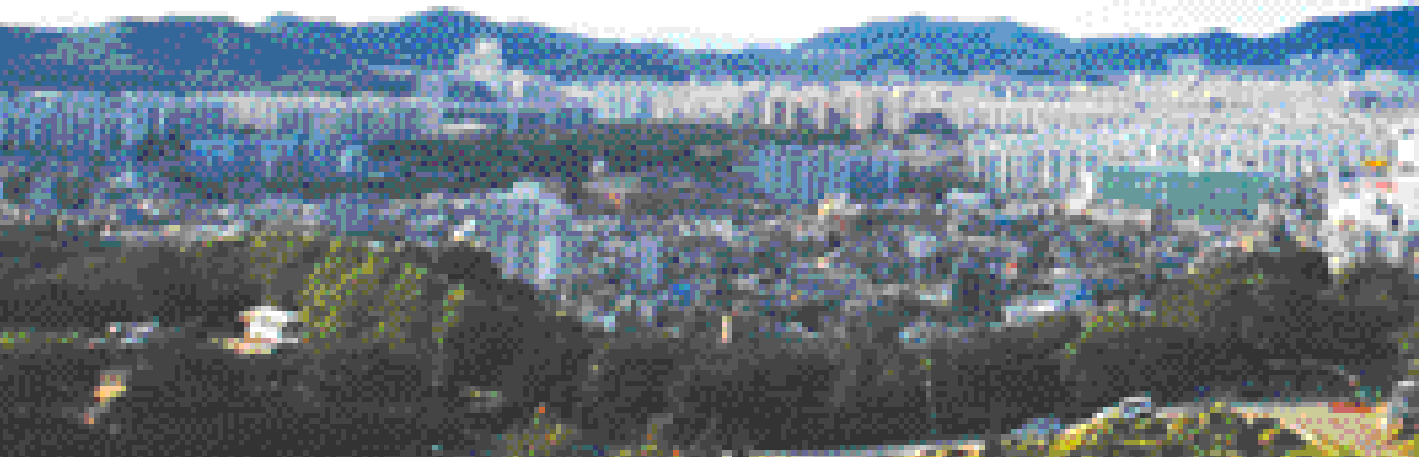
구술증언자료
- [좌담] 부평 상인들이 말하는 부평의 상업활동
- 3대에 걸쳐 부평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이호현 씨
- 허허벌판에서 일군 이시경 할아버지의 삶
- 한평생 흙과 함께 한 삼산동 이상열 할아버지의 삶
- 부평구의 "노른자위" – 부평 미군기지
- 이석재 옹의 제2의 고향 부평구 신촌
- 1990년대 이후 부평의 공업 활동과 부평 사람들
- 부평 상인들의 삶
- 부평의 농업과 농민

부평지역의 설화

문학자료
- 부평문학사 자료선

부평 옛 고을 이름의 유래와 변천사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부평
신문에 기록된 부평의 근현대사
연 표

Contents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1장 '부평'과 그 공간

35 • 제1절 명칭과 연혁
59 • 제2절 부평의 인문지리

제2장 자연환경

89 • 제1절 기후와 기상재해
102 • 제2절 지형과 지질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1장 전근대시기

147 • 제1절 선사시대
162 • 제2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184 • 제3절 고려시대
198 • 제4절 조선시대

제2장 부평의 근대

231 • 제1절 개항 이후 부평지역의 변화
246 • 제2절 일제시대 부평지역의 사회경제
297 • 제3절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의 항일운동

제3편 부평현대사

제1장 해방 후의 부평

311 • 제1절 해방과 일제 잔재의 청산 운동
328 • 제2절 공장자주화 운동과 조병창
342 • 제3절 좌우대립과 혼란

제2장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

365 • 제1절 한국전쟁과 부평
386 • 제2절 정치와 행정의 재정비
407 • 제3절 경제재건



제3장 1960년대의 부평

429 • 제1절 5 · 16과 지방자치제
456 • 제2절 부평의 산업과 수출공단의 조성
475 • 제3절 구제 실시와 북구의 탄생

제4장 1970년대의 부평

483 • 제1절 고도성장기의 부평
515 • 제2절 도시화와 사회적 변동
526 • 제3절 경인전철과 부평

제5장 상업의 발달과 부평지역의 민주화 운동

555 • 제1절 상업의 현대화
562 • 제2절 자동차산업과 부평경제
582 • 제3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610 • 제4절 전철역사의 확충과 주거 및 상권의 재편

제6장 경제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635 • 제1절 시민사회
648 • 제2절 문화운동과 부평풍물대축제
686 • 제3절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평경제

713 • **색인**







부평사 편찬위원회

위 원 장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편찬위원	권영준	부평구청 문화공보과장	이덕주	부평구의회 의원
	김경남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장	이도경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김종봉	부평구새마을금고연합회장	이동현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이범호	부평구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진	부평동초등학교 교감	이원규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김효배	부평구 체육회 수석부회장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
	노재철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장	이필주	부평사랑회 대표
	박영복	경북문화재연구원장	이희재	㈜우성아이비 대표
	박종혁	부평구의회 의원	임남재	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빈종구	㈜부건산업 대표	장관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서세양	전 부평구청 문화복지국장	전운영	부평구 예술인회 회장
	신동국	전 부평구청 문화공보과장	정재홍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신정환	부평구 노인회장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심갑섭	부평구 구정발전자문위원	최백경	㈜경인 대표
	안용석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최정애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오순부	인천시민연대 대표	한도훈	부천시 향토사 연구위원
	윤승준	인하대 사학과 교수	홍순민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감수위원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		
	문용식	전주대 연구교수		
	박덕유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서영대	인하대 사학과 교수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유세준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창남	전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영태	인하대 정외과 교수		
	최원식	변호사		
	홍순민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교정·교열위원	권미영			
	김민성			
	김창문			
	류수연			
	박성준			
	윤미란			
간 사	조성돈	부평문화원사무국장		
서 기	윤지원	부평문화원사무과장		
상임연구원	김현석			
연구보조원	전아람, 박정미			

부평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위　원	안용석	『부평사람들』편집위원
	윤승준	인하대 사학과 교수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신동국	전 부평구청 문화공보과 과장
	권영준	부평구청 문화공보과 과장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석	부평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부평사 집필위원

견수찬	인하대박물관 학예연구사
고건배	전 부평구청 자치행정과장
곽경전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미옥	인천시청 문화관광체육국 전문위원
김번욱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욱	인천대 국문과 교수
김상태	인천사연구소 소장
김석훈	영선고 교사
김영경	사진작가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훈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종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
김진석	전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김현석	부평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남달우	인하대 강사
범선규	경상대 사회교육학부 조교수
안용석	『부평사람들』편집위원
양윤모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상근연구원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승준	인하대 사학과 교수
윤용구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갑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현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이명운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교수
이범호	부평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세기	시인
이영민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원규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이창남	전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
이해선	소설가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현주	국가보훈처 연구관
이희환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임고은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원
임학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
전종한	경인교대 지리학과 교수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진대현	인하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홍명진	소설가
홍인기	소설가
황규상	인하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외래교수

1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1장 '부평'과 그 공간

제2장 자연환경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1장 '부평'과 그 공간

제1절 명칭과 연혁

1. '부평'의 명칭과 행정구역의 변화

부평이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 부평구로서의 역사는 1995년에 새로 시작된다. 부평구는 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확대될 때 북구가 제1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계양구(桂陽區)와 부평구(富平區)로 분구되면서 탄생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부평이라는 명칭은 이제 십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부평의 명칭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면 부평구의 전신은 인천시 북구이고, 북구의 전신은 부천군이며, 부천군의 전신은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이다. 이 중에서도 18세기부터는 소속 면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면간 통폐합 등의 변동사항이 나타나므로 조선후기의 부평도호부는 부평구의 명칭과 연혁을 이해하는 데에 출발점이 된다.

부평은 한자로 풍성할 부(富)자와 평평할 평(平)자를 쓴다.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은 어렵지 않지만 어떤 연유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부평의 지명연원을 찾아내는 데에 지명사전이나 옛 지리지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특히 각 지리지의 연혁조에는 부평지역의 시작과 중간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부평의 의미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김종혁(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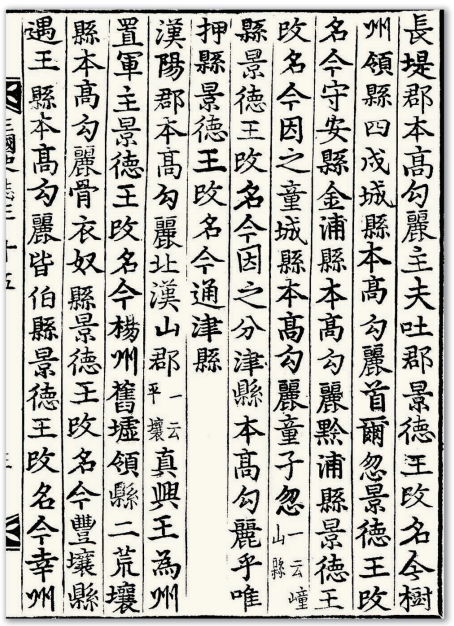
1) '부평'이라는 이름의 등장

역사적으로 부평이라는 이름은 1310년(고려 충선왕 2)에 길주목이 부평부로 바뀌면서 군현명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 사실은 『고려사』 이래 『여지도서』나 『대동지지』 등 조선후기에 편찬된 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리지에 빠지지 않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고려사』 세가 충선왕조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없다. 부평이라는 이름이 『고려사』에 처음 나타나지만 그 전신은 주부토군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1145년)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장제군(長堤郡)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수주(樹州)이다. 영현이 넷이었다. 수성현은 본래 고구려 수이홀(首尒忽)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수안현(守安縣)이다. 김포현(金浦縣)은 본래 고구려 검포현(黔浦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동성현(童城縣)은 본래 고구려 동자홀현(童子忽縣)[또는 동산현(嶂山縣)이라고도 하였다.]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분진현(分津縣)은 본래 고구려 평유압현(平唯押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통진현(通津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삼국사기』 지리지 장제군 부분


長堤郡本高句麗主夫吐郡景德王改名今樹州領縣四戍城縣本高句麗首爾忽景德王改名今守安縣金浦縣本高句麗黔浦縣景德王改名今因之童城縣本高句麗童子忽一云嶂山縣景德王改名今因之分津縣本高句麗乎唯押縣景德王改名今通津縣漢陽郡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平壤真興王爲州置軍主景德王改名今楊州舊墟領縣二荒壤縣本高句麗骨衣奴縣景德王改名今豐壤縣遇王縣本高句麗皆伯縣景德王改名今幸州

고구려 주부토군이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장제군으로 바뀌었으며,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시점인 고려시대에는 수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수주는 수안·김포·동성·통진 등 네 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안현이 오늘날 부평·계양구 및 부천시에 해당한다. 김포현은 현재 김포시 (구)김포읍을, 동성현은 김포시 하성면을, 통진현은 김포시 통진읍 일대를 일컫는다. 즉 고구려의 주부토군과 통일신라의 장제군, 그리고 고려시대의 수주는 오늘날 김포시와 부평·계양구 및 부천시 일대를 관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상황에서 이 지역은 통진현·김포군·부평도호

부에 편입되어 있었다. 수주에 대한 연혁은 『고려사』(1454)에 좀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樹州)

본래 고구려의 주부토군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고쳐 장제군(長堤郡)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수주(樹州)로 고쳤고 성종(成宗) 14년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 8년에 이를 폐지하였으며, 현종(顯宗) 9년에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 의종(毅宗) 4년에 다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삼았으며 고종(高宗) 2년에 또 고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삼았고 충렬왕(忠烈王) 34년에 길주목(吉州牧)으로 올렸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에 여러 목(牧)을 폐지함에 내려 부평부(富平府)로 삼았다. 여섯 개의 현(縣)이 속해 있다.

- 금주(衿州). 【금(衿)은 금(黔)으로도 쓴다.】본래 고구려의 잉벌노현(仍伐奴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이름을 곡양(穀壤)으로 고쳐 율진군(栗津郡)의 영현(領縣)로 삼았고 고려(高麗) 초에 지금 이름으로 갈아 성종 14년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이를 파하였으며 현종 9년에 내속(來屬)하였고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별호(別號)를 시흥(始興)【성종(成宗) 때에 지정한 것이다.】이라 한다. 양화도(楊花渡)가 있다.
- 동성현(童城縣). 본래 고구려의 동자홀현(童子忽縣)【일명 당산현(幢山縣)이라고도 하고 구사파의(仇斯波衣)라고도 한다.】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장제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다가 공양왕(恭讓王) 3년에 통진 감무(通津監務)를 두어 현(縣)을 이에 소속시켰다.
- 통진현(通津縣). 본래 고구려의 평회(平淮)【회(淮)는 유(唯)로도 쓴다.】압현(押縣)【일명 북사성(北史城)이라고도 하고 또 별사파의(別史波衣)라고도 함.】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분진(分津)이라고 고쳐 장제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 이름으로 갈아 그대로 소속시켰다.
- 공암현(孔巖縣). 본래 고구려의 제차파의현(齊次巴衣縣)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율진군(栗津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현종(顯宗) 9년에 내속(來屬)하였는데 충선왕(忠宣王) 2년에 고쳐 양천현(陽川縣)으로 삼고 영(令)을 두었다.
- 김포현(金浦縣). 본래 고구려의 검포현(黔浦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장제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현종 9년에 그대로 소속시켰다가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고 신종(神宗) 원년(元年)에 왕의 어태(御胎)를 현(縣)의 북

쪽에 묻었으므로 올려 현령관(縣令官)으로 삼았다.

- 수안현(守安縣). 본래 고구려의 수이홀(首爾忽)로 신라 경덕왕이 이름을 수성(戍城)으로 고쳐 장제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소속하였는데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으나 공양왕 3년에 처음으로 통진 감무(通津監務)를 두면서 현(縣)이 이에 속해 있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고구려 때 이름이 주부토였던 부평지역은 고려시대에 들어 940년(고려 태조 23) 에는 수주, 1150년(의종 4) 에는 안남도호부, 1215년(고종 2) 에는 계양도호부, 1308년(충렬왕 34) 에는 길주목으로 이름이 바뀌어왔다. 안남도호부는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지방행정기구로서 936년(태조 19) 에 전주에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안남도호부는 고부와 영암으로 이전하였다가 1150년에 수주, 즉 지금의 부평 일대로 옮겨왔다. 인종 때 제정된 외관록(外官祿) 에 따르면(『고려사』 식화지, 녹봉 외관록) 안남소도호부사는 120석, 부사(副使)는 86석 10두, 판관은 40석, 법조는 16석 6두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서경유수가 200석이고, 동경과 남경의 유수가 166석 10두이었으므로 안남도호부는 그 읍격이 꽤 높은 편에 속했다. 이어서 안서·안북대도호부사, 안변소도호부사, 8목의 부사(副使)가 안남소도호부사와 함께 120석을 받았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속현(屬縣) 또는 영현(領縣)이 많았다. 속현이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군현으로서, 지방관이 파견된 가까운 중심 군현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부평은 그 가운데 속현을 거느리는 주현의 위치에 있었다. 『삼국사기』에 4개의 속현을 둔 반면, 『고려사』에서는 수주에 지주사를 두기 시작한 1018년(현종 9) 에 금주현과 공암현을 더하여 모두 6개의 속현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데, 금주현은 성종 때 시흥이라는 별호(別號)를 갖게 되었다고 하므로 지금의 서울시 영등포구와 금천구 일대로 비정되며, 공암현은 1310년(충선왕 2) 에 양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므로 지금의 서울시 양천구 일대를 가리킨다.

2) 행정구역과 읍격의 변화

고려말 1310년에 부평부라는 이름이 시작된 이래 부평은 약간의 읍격에 변동을 겪으면서 1914년까지 부평도호부의 이름으로 유지된다. 조선 개국 후 태종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1413년(태종 13)에 8도 체제를 갖춘다. 이때 전국의 군현 수가 330여 개로 확립되었고, 이는 1914년까지 대세에 변동이 없었다. 부평은 최초 조선의 행정구역이 확립된 1413년에 부평도호부가 된다. 도호부의 읍격은 부(한성부 · 부 · 유수부 · 대도호부)와 목 다음으로 종3품관이 파견되었다.

『경국대전』(1485)에 44읍이었던 도호부의 수는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여 『속대전』(1744)에 75읍으로 기록되었다. 도호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겪은 후 국방 개념이 해안 방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주로 해안 지역의 군과 현이 도호부로 승격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부평의 경우는 조선초기부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도호부의 읍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1413년에 도호부가 된 부평은 25년이 지난 1438년(세종 20)에 현령으로 강등되었고, 8년 후인 1446년에는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건치연혁). 1505년(연산군 11)에 환관 김순손 사건으로 말미암아 군읍 자체가 혁파(革罷)되었다가 이듬해 복구되었으며(『여지도서』, 부평도호부 건치연혁), 1698년(숙종 24)에 다시 현감으로 강등되었다가 9년 후인 1707년(숙종 33)에 도호부로 복승(復陞)되었다(『대동지지』, 부평도호부 건치연혁).

부평지역의 명칭과 연혁

내 용	삼국	고려	세종	신증	동국	여지	여도	대동	비 고
1. 고구려때 주부토, 4개의 영현	◉	◉	◉	◉	◉	◉	◉		현 부평구
1.1 영현 1/4:수성현-고구려 수이홀, 수안현	◉	◉						◉	현 김포시 대곶면 일대
1.2 영현 2/4:김포현-고구려 검포현, 김포현	◉	◉						◉	현 김포시 김포읍 일대
1.3 영현 3/4:동성현-고구려 동자홀현, 동성현	◉	◉						◉	현 김포시 하성면 일대
1.4 영현 4/4 분진현-고구려 평유압현, 통진현	◉	◉						◉	현 김포시 통진면 일대
2. 신라 경덕왕이 고쳐 장제군으로 삼음		◉	◉	◉	◉	◉	◉	◉	대동:신라 경덕왕 16년(757)
3. 고려초에 수주(樹州)로 고침		◉	◉	◉	◉	◉	◉	◉	대동:고려초→태조 23년(940)
3.1 성종 14년(995)에 단련사를 둠		◉	◉	◉		◉	◉	◉	
3.2 목종 8년(1005)에 이(단련사)를 폐지함		◉	◉	◉		◉	◉	◉	
3.3 현종(顯宗) 9년(1018)에 지주사(知州事)		◉	◉	◉		◉	◉	◉	
4. 의종 4년(1150)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	◉	◉	◉	◉	◉	◉	
5.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	◉	◉	◉	◉	◉	◉	
6. 충렬왕 34년(1308)에 길주목(吉州牧)		◉	◉	◉	◉	◉	◉	◉	
7. 충선왕 2년(1310)에 목폐지령에 따라 부평부		◉	◉	◉	◉	◉	◉	◉	
8. 6현(縣)이 속해 있다.		◉							
8.1 금주-별호 시흥		◉						◉	현 서울시 금천구/ 대동:금천
8.2 공암-충선왕 2년에 양천현		◉						◉	현 서울시 양천구
9. 태종 계사(1413)에 도호부(都護府)			◉	◉		◉	◉	◉	
9.1 사방:양천12, 대해10, 인천 10, 김포10리			◉						
10. 세종 20년(1438)에 현령				◉		◉		◉	
11. 세종 28년(1446)에 (도호부로) 복구				◉		◉		◉	
11.1 사방: 금천34, 양천15, 안산48, 인천15, 대해14, 김포17, 통진36. 서울까지 55리.				◉					
12. 본래 백제 미추홀					◉				
13. 본조 공정왕 13년(1413) 도호부					◉				
14. 장헌왕 20년(1438) 부평현 심복(尋復) 도호부					◉				
15. 연산 11년(1505) 혁파(김순손 풍간사건), 1년후 복구						◉		◉	대동:중종 원년(1506) 복구
16. 숙종 11년(1687) 영 설치						◉			
17. 숙종 24년(1698) 현감, 9년 후 복구						◉		◉	대동:숙종 33년(1707) 복승(復陞)
18. 백제 주부토								◉	
19. 영현 4: 개진, 김포, 동성, 술성								◉	
20. 태종14년(1414) 김포현 병합. 16년 환석지								◉	

출처 : 삼국-『삼국사기』, 고려-『고려사』, 세종-『세종실록지리지』, 신증-『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동국여지지』, 여지-『여지도서』, 여도-『여도비지』, 대동-『대동지지』

부평의 속현들을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다시 정리하면, 북쪽에서부터 한강 수로의 남쪽 연안을 따라 김포시 하성면 · 통진읍 · 대곶면 · 구 김포읍, 서울시 양천구 · 영등포구 · 금천구로 이어진다. 한강 최하류 유역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한강 본류와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하는 봉성포천 · 걸포천 · 굴포천 · 안양천 등의 지류가 만든 충적지의 핵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른바 김포평야로 불리는 이곳 충적지는 남쪽에서 문수산–수안산–가현산–계양산–수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한강 수로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한남정맥은 산체가 노년기 지형에 속하는 데다 그나마도 정맥의 말단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일대의 지세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평하다.

부평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이처럼 부평 일대의 지형 속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부(富)'는 '넉넉하다', '많다'의 뜻이며, '평(平)' 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평평하다'의 뜻을 지닌다. 한강 하류 지역의 어느 특정한 곳에 주현 규모의 중심지가 자리를 잡았고, 이 중심지가 관할하는 땅이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점에서 부평이라는 이름이 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이 속현에까지 지방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표방하자 부평의 속현들은 각기 통진현 · 김포군 · 양천현 · 금천현 등으로 독립하였고, 부평도계양산 아래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부평도호부는 전술했듯이 세종, 연산군 그리고 숙종 대에 잠시 현으로 강등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도호부로 회복되었으며, 세조 때 실시된 진관(鎭管) 체계 상으로는 수원진(水原鎭)에 속하였다. 한편 1895년에 실시된 23부제에서 부평도호부는 인천부 소속의 12개 군의 하나로 부평군이 된다. 이때 조선의 부 · 목 · 군 · 현 읍격 체제는 모두 군으로 통일된다. 이후 부평군은 1914년에 부천군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주지하듯 부평의 '부' 자와 인천의 '천' 자를 하나씩 따와 만든 이름이다.

고려 말 1310년에 처음 사용된 군현 단위의 이름인 부평은 1914년에 부천으로 이름을 바꿀 때까지 600년 이상 유지되었고, 1940년에 원 부평도호부의 중심지였던 당시 부천군 부내면이 인천부 부평출장소로 개칭되면서 다시 부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였다. 부평출장소는 1968년에 서곶출장소와 함께 인천시 북구로 명명됨으로써 다시 원 이름을 잃었다가, 1995년에 북구가 계양구와 부평구로 분구되면서 부평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속의 부평구

여기서는 부평구의 연혁을 시기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본 뒤, 영역의 변동에 초점을 맞춰 각 변화상을 기술하고, 이를 지도화하고자 한다. 지도화 과정은 부평구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평도호부의 영역을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된다. 부평구는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를 모태로 하면서 인천군과 통합되어 부천군이 되는 1914년, 인천부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부평구가 인천부로 편입되는 1940년, 그리고 북구에서 부평구가 독립되는 1995년에 명칭과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우선 부평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조선후기 부평도호부의 영역을 복원해보자.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이 있었다. 이들은 각기 수 개에서 수십 개의 면으로 편제되었는데, 조선시대의 군현은 비록 읍격의 승강은 매우 빈번했으나 영역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있을 경우 변동 사례는 대부분 면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500여 년을 유지해오던 조선시대의 군현제는 1914년에는 전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의 요체는 전국의 군 수를 330개에서 220개로 통폐합시킨 것이다. 일제가 이를 단행한 기본적인 목적은 군 수를 줄임으로써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군이 이웃하는 군과 병합하여 새로운 군이 되거나 이웃군에 흡수되었다. 이때 없어진 군들은 대체로 면으로 편입되었으며 군명 또한 면명으로 격하되었다. 우리는 이때 소멸한 읍들을 '구읍(舊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옛 부평도호부의 치소는 계양구 계산동에 있었다.

1914년에 없어진 군들로 경기도에서는 김포로 편입된 통진과 양천, 시흥으로 편입된 안산과 과천, 안성으로 편입된 양성과 죽산, 용인으로 편입된 양지, 파주로 편입된 적성, 포천으로 편입된 영평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914년은 부천군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1914년 부천군의 탄생은 앞의 사례와 달리 두 군의 사이가 흡수한 군과 흡수된 군의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합병한 경우에 속한다. 인천군 소속면 가운데 개항장 일대에 해당하는 주내면과 그 주변 지역이 인천부(仁川府)로 승격하는데, 이때의 부는 오늘날 시(city)의 개념과 거의 같다. 결론적으로 부평군과 인천부로 떨어진 지역을 제외한 인천군이 1914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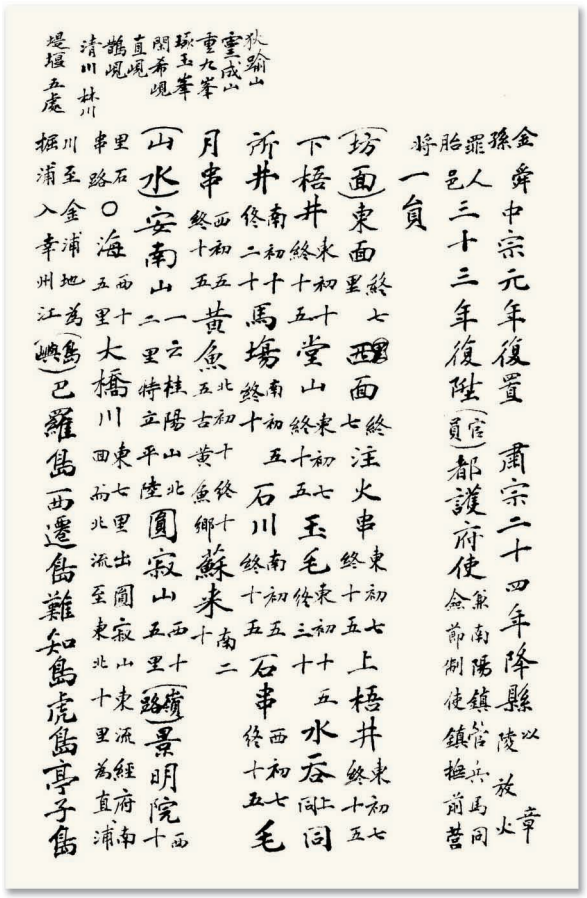
부천군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부평도호부와 일제시대의 부천군이 오늘날 부평구로 명맥을 잇고 있으므로 부평구의 연혁은 그 원형을 부평도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부평도호부는 오늘날 부평구의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지세 · 인구 · 토지 · 산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당시의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일은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특히 전근대 부평구의 읍세를 알려주는 각종 통계자료가 부평도호부 및 그 하위의 면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도 행정구역 복원은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부평부의 영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부평부뿐 아니라 부평부와 접경하고 있는 이웃 군현들의 소속면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조선시대 군현의 영역은 1914년에 대대적인 변동이 있었으므로 1914년은 조선시대 군현 경계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복원 도달점은 조선의 군현 행정구역이 전 시기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환기하면, 그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시점의 행정구역이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도착 시점을 설정하는 데에 관건이 되는 것은 복원에 필요한 자료가 얼마나 풍부한가에 달려있다. 한편 복원 도달 시점을 결정하는 데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면 상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면 이속에 대한 변동 사례를 시계열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과 조건을 고려한 결과 최적의 도착 시점으로 1861년이 선택되었다. 1861년은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판각을 완료한 시점이다. 전근대에 제작된 전국도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지도에는 군현 경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

『대동지지』 부평, 방면조



기인 1864년에 편찬된 『대동지지』 방면조(坊面條)에는 전국의 면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기 앞서 1834년에 『청구도』와 1850년대에 『동여도』를 완성하는데, 이들 지도에도 군현 경계와 면명이 수록되어 있어 『대동여지도』를 기준한 행정구역 복원은 일종의 보정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복원을 위한 출발점을 1914년으로 하고 도달점을 1861년으로 잡았으면, 다음 수행할 작업은 두 시점 사이의 행정구역 변동을 알려주는, 즉 면 상황이 기재된 자료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1872년의 행정구역 조정과 1895년의 23부제 실시, 1896년의 13도제 실시에 따라 약간의 군현 간 행정구역 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후의 면 단위의 변동 사항은 1909년 민적법 제정에 따른 전국의 인구조사 결과인 『민적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905년과 1906년 등의 시점에서도 일부 지역에 행정구역 변동이 포착된다. 그러나 부평의 경우에는 『대동지지』 단계와 1914년 사이에 행정구역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의 면 이속과 1914년 당시 부천군의 관할 면

군현	면수	1750s	1789	1864	1895	1909	1914	비고
부평도호부	1	府內面	邑內面	?	郡內面	–	富內面	군내,서,마장,동소정
	2	東面	–	–	–	–	桂陽面	동,당산,황어
	3	堂山面	–	–	–	–	계양면	
	4	注火串面	–	–	–	–	오정면	
	5	上梧亭面	–	上梧井面	上梧亭面	上梧丁面	오정면	
	6	下梧亭面	–	下梧井面	下梧亭面	下梧丁面	吾丁面	주화곶,상오정,하오정
	7	水呑面	–	–	–	–	계남면	
	8	玉毛面	玉山面	玉毛面	–	玉山面	계남면	
	9	石川面	–	–	–	–	桂南面	수탄,수곡,옥산,석천부
	10	同所井面	東所井面	同所井面	–	–	부내면	
	11	西面	–	–	–	–	부내면	
	12	馬場面	–	–	–	–	부내면	
	13	石串面	–	–	–	–	西串面	모월곶,석곶
	14	毛月串面	–	–	–	–	서곶면	
	15	黃魚面	–	–	–	–	계양면	
				蘇來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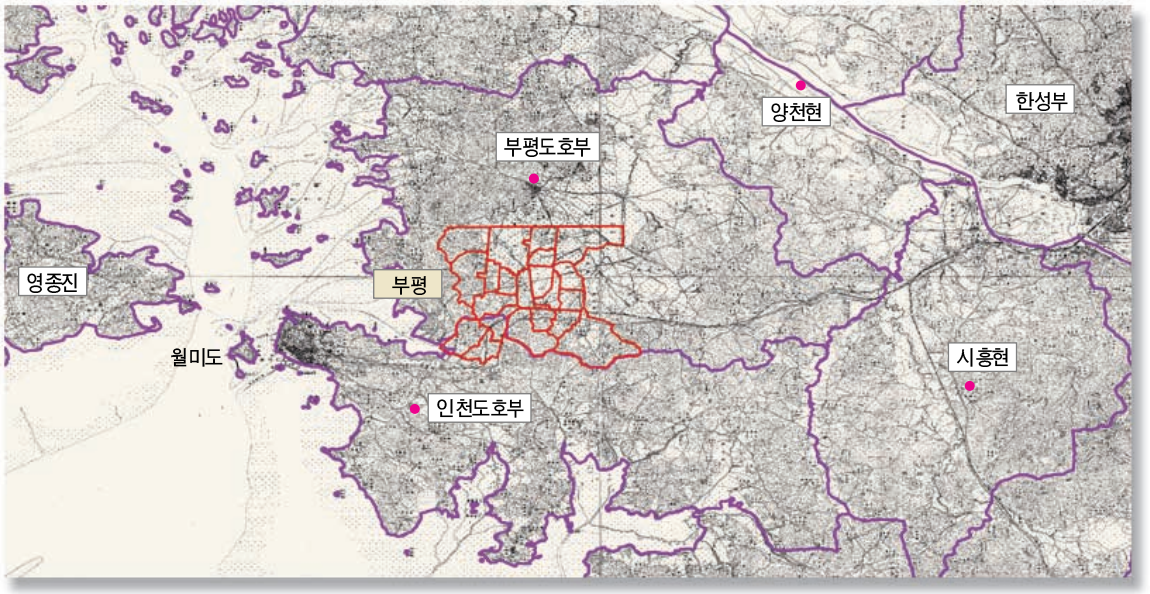
군현	면수	1750s	1789	1864	1895	1909	1914	비고
인천도호부	1	州內面	府內面	–	–	–	(인천부)	
	2	烏洞面	–	–	–	–	南洞面	인천부 남촌, 조동
	3	新峴面	新古介面	新峴面	–	–	蘇來面	인천부 신현, 전반, 황등천
	4	田反面	–	田返面	田反面	–	소래면	
	5	黃等川面	–	–	–	–	소래면	
	6	遠又介面	–	遠又爾面				
	7	多所面	–	–	–	–	多朱面	인천부 다문, 주안
	8	朱岸面	朱安面	朱雁面	朱安面	–	다주면	
	9	梨浦面	–	–	(월경지)			
	10		南村面	–	–	–	남동면	
	11		永宗營下面	永宗浦鎭	永宗面	–	永宗面	인천부 영종
	12		德積鎭	德積島鎭	德積面	–	德積面	인천부 덕적
	13				舊邑面	–	文鶴面	인천부 구읍, 서
	14				西面	–	문학면	
	15						龍流面	인천부 용유
	16						北島面	강화군 북도
	17						大阜面	남양군 대부
	18						靈興面	남양군 영흥

출처 : 1750s : 『여지도서』, 1789: 『호구총수』, 1864: 『대동지지』, 1909: 『민적통계표』, 1895: 『한국지명총람』 부천 및 인천 연혁조, 1914: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조선시대에 전국적인 규모에서 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알려주는 최초의 자료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이다. 1789년에 발간된 호구자료인 『호구총수』에도 면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부평부는 조선후기 이래 1914년까지 부내면 · 동면 · 석천면 등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면을 관할하였다. 15개의 면 가운데 『대동지지』 단계에서는 부내면이 사라지고 소래면이 등장하는데, 『대동지지』에 소래면이 부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두 면이 동일 면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부내면의 소멸과 소래면의 갑작스런 신설이 동일 시기에 진행된 것인지도 정확치 않으며, 다른 면들에 대해서는 부의 치소로부터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리 수와 끝나는 지점까지의 리 수를 부기한 것에 반해 소래면만 단순히 '남이십(南二十)'이라고 적어 놓은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어쩌면 두 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대동지지 단계에 부천도호부 읍내면은 동면과 서면으로 분할 · 병합된 것으로 추정됨.

2) 1914년 한자로 기입된 면은 조선시대의 면 가운데 1914년 당시 면사무소가 소재한 면을, 한글로 기입된 면은 조선시대의 면 가운데 1914년 당시 면소재지면에 병합된 면을 의미함.



조선후기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의 영역 및 오늘날 부평구의 영역

1914년의 통폐합 상황은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이라는 책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1914년에 새로 태어난 부천군은 문학면 관교리에 있던 옛 인천도호부의 치소를 그대로 군청으로 쓰면서 관내에 15개의 면과 148개의 리를 두었다. 당시 부천군의 영역은 인천군 및 부평군뿐 아니라 강화군의 일부(북도면-장봉도 · 신도 · 시도 · 모도)와 남양군의 일부(대부면-대부도 · 선감도, 영흥면-영흥도 · 자월도 · 대이작도) 지역을 아울렀다.

15개 면 가운데 남동면 · 소래면 · 다주면 · 문학면 · 영종면 · 덕적면 · 용유면 등의 7개 면이 옛 인천도호부 땅에 속한다. 18세기 중반에 인천도호부는 모두 9개의 면을 관할하였는데, 이중 이포면은 현재 화성시 신외동 · 장전동 · 문호동 일대와 비봉면 유포리 · 삼화리 일대의 지역으로서 인천부의 월경지였다.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월경지는 1906년에 관할군이 아닌 소재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소멸되는데, 이포면도 이때 수원군으로 편입된다. 1914년 당시 부천군 관내의 15개 면 가운데 7개 면이 인천군에서, 1개 면이 강화군에서, 2개 면이 남양군에서 온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나머지 부내면 · 계양면 · 오정면 · 계남면 · 서곶면 등 5개 면이 옛 부평도호부의 땅에 속한다. 부내면은 1914년 통합 직전까지 주내면 · 동소정면 ·

서면 · 마장면(4)으로, 계양면은 동면 · 당산면 · 황어면(3)으로, 오정면은 주화곶면 · 상오정면 · 하오정면(3)으로, 계남면은 석천면 · 수탄면 · 옥산면(3)으로, 서곶면은 석곶면과 모월곶면(2)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부평군의 면 수는 1914년을 기점으로 15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군보다는 면에서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부평도호부의 1914년 부천군 소속 면리

1914년 개편 후		1914년 개편 전		현재의 위치
부대면	부평리	군내면	부평리	
	하리		하리	
	가현리	서면	가현리	
	신대리		신대리	
	화전리		화전리	
	작천리		작천리	
	도두리		도두리	
	후정리		후정리	부평구 삼산동
	갈월리		갈월리	부평구 갈산1,2동
	효성리	마장면	효성리	
	청천리		청천리	부평구 청천1,2동
	산곡리		산곡리 일부	부평구 산곡동
	마분리	동소정면	마분리	부평구 부개1동
	대정리		대정리	부평구 부평동
	항동리		항동리	부평구 일신동
	구산리		구산리	부평구 일신동
계양면	박촌리	동면	박촌리	계양구
	병방리		병방리	
	용종리		용종리	
	방축리		방축리	
	임학리		임학리	
	동양리	당산면	동양리	
	귤현리		귤현리, 황어면 노오지리 일부	
	상야리		상야리 일부	
	하야리		하야리	
	평리		평리, 상야리 일부	
	노오지리	황어면	노오지리 일부	
	선주지리 (仙住地里)		선주지리(일명 仙舟之里)	
	장기리		장기리	
	이화리		이화촌,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일부	
	오류리		오류리,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일부	
	갈산리		갈산리, 김포군 노장면 당하리 일부	
	다남리		역동	
	목상리		목상리	

1914년 개편 후		1914년 개편 전		현재의 위치
계양면	뚝실리	황어면	뚝실리	
	오쇠리	주화곶면	오쇠리	부천시 오정구
	오곡리		오곡리, 내존	
	대장리		대장리	
	도당리	상오정면	도당리	
	약대리		약대리	
	삼정리		삼정리	
	내리		내리	
	오정리		오정리	
	원종리	하오정면	원종리	
	고강리		고강리	
	작리		작동	
	여월리		여월리	
서곶면	고척리	수곡면	고척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개봉리		개봉리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오류리		오류동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궁리		궁리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온수리		온수동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천왕리		천왕리	
	표절리	옥산면	표절리	
	조종리		조종리	
	벌응절리		벌응절리	
	항리		항동	
	괴안리		괴안리	
	소사리		소사리	
	범박리		범박리	
	구지리	석천리	구지리	
	상리		상리	
	중리		중리	
	심곡리		심곡리	
	가정리	모월곶면	가정리	인천시 서구 일대
	신현리	석곶면	신현리	
	포리		포리(자치도,웅치도,황산도), 율도(율도,목도,육도), 세어도(대문지도,소문지도)	
	고작리		번작리,고작리	
	고잔리		고잔리(이도,흡도), 난지도, 청라도(청라도,영관도,일도,장도)	
	가좌리		가좌동, 마장면 산곡리 일부	
	백석리		백석리	
	검암리		검암리	
	시천리		시천리	
	공촌리		공촌리	
	연희리		연희리	
	심곡리		심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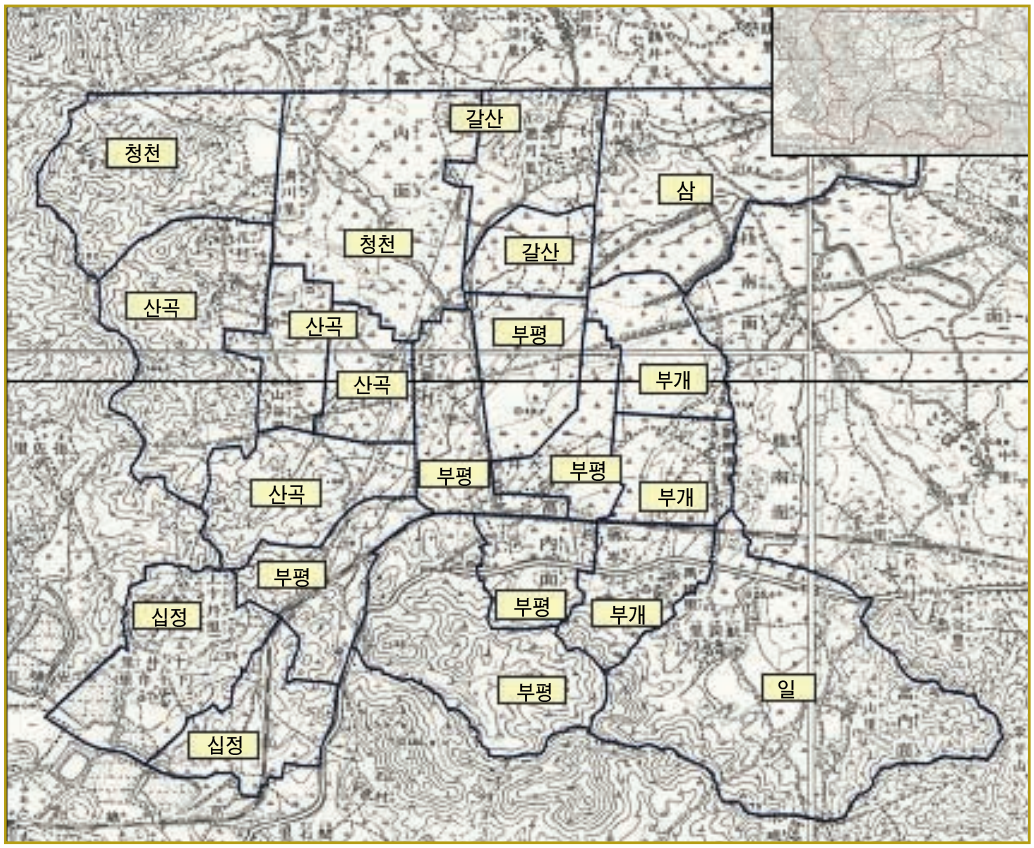
출처 :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1) 1914년에 부평군 석곶면 장구도,호도,공암도가 영종면 영북리에 편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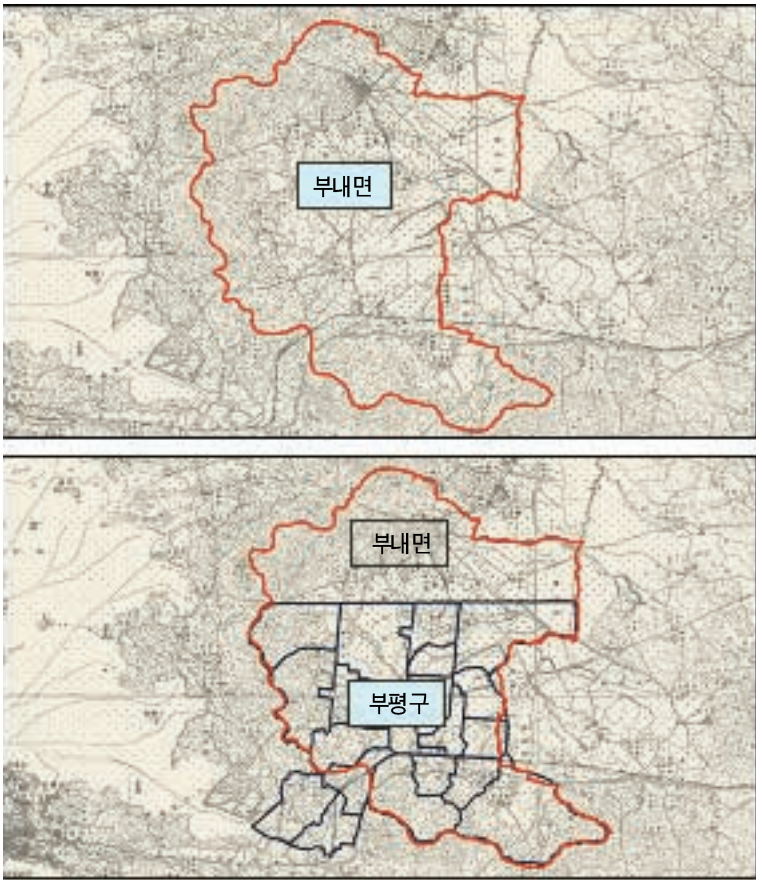
2) 1914년에 부평군 석곶면 응도,소응도,거첨암도가 영종면 중산리에 편입됨.

정리하면, 부평도호부 관할구역의 범위는 오늘날 인천시 서구 · 계양구 · 부평구 및 부천시 전역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부 및 구로구 일부, 그리고 광명시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다. 부평구는 현재 22개의 행정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마장면 · 동소정면 · 군내면 · 황어면 · 주안면 등에 편재되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청천1 · 2동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마장면 청천리를 근거지로 발달한 취락이며, 갈산1 · 2동은 서면 갈월리, 삼산동은 서면 후정리, 산곡1~4동은 마장면 산곡리, 부평1~6동은 동소정면 대정리, 부개동은 동소정면 마분리, 일신동은 동소정면 항정리와 구산리, 그리고 십정동은 인천도호부 주안면 상십정리와 하십정리를 기반으로 한다.

3. 일제시대 부천군 속의 부평구



오늘날 부평구의 1914년 지역경관



일제시기 부내면과 오늘날 부평구의 영역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가 1914년에 병합되어 부천군이 될 때, 십정동을 제외한 오늘날 부평구 영역은 모두 부내면(富內面) 소속이었다. 부내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평도호부 시절의 4개 면이 합쳐진 것으로, 오늘날 부평구의 중심지를 이루는 부평역 부근의 부평5동은 옛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대정리를 기반으로 발달한 취락이다.

1940년에 부평구에 해당하는 지역, 즉 부천군 부내면은 인천부에 편입된다. 일제는 1914년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만을 인천부로 독립시켰으나 중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과 맞물려 인천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부역의 확장을 꾀하였다. 그 결과 인천부는 일제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관할구역이 넓어지는데, 1차 확장은 1936년에 구 인천도호부의 치소였던 문학면 학익리 · 관교리 일대와 다주면 일대를, 2차 확장은 1940년에 서곶 · 문학 · 남동 · 부내면을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내면에 부평출장소가 개설되면서 결국 1940년에 오늘날 부평구 지역은 부천군에서 인천부로 관할이 바뀌었다. 2차 확장 때 편입된 서곶면과 부내면은 부평도호부 땅이었으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되었던 인천과 부평은 이때부터 서서히 옛 인천도호부가 옛 부평도호부의 영역을 잠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이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된 것은 단순한 행정관할 이속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부평구 지역이 일본인 거주민이 많았던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본래의 리 이름이 일본식의 ○○정(町)으로 개명된 것이다. 즉 대정리는 용운정으로, 후정리(현 삼산동)는 소립정으로, 갈월리(현 갈산동)는 길야정

으로, 청천리는 천상정으로, 산곡리는 백마정으로, 마분리(현 부개동)는 명치정으로, 항동리와 구산리(현 일신동)는 각기 향취정과 이등정으로, 십정리는 대도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4. 해방 후 부평구의 연혁

1940년에 부여된 일본식 지명은 해방과 더불어 1947년에 일본식 지명 개정 방침에 따라 옛 이름이 회복되거나 한국식 한자 지명으로 바뀌었다. 이에 용운정이 용동(지금의 부평동)으로, 소립정이 삼산동으로, 길야정이 갈산동으로, 명치정이 부개동으로, 향취정이 일신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천상정·백마정·명치정·대도정은 각기 청천동·산곡동·부개동·십정동으로 옛 이름을 다시 찾았다. 한편 인천부의 2차 확장 시 개설된 서곶·부평출장소는 1968년에 통합되어 북구가 되었다.

1) 부평동의 연혁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평구 연혁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분동(分洞)에서 찾을 수 있다.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동이 나뉜 곳은 부평동이다. 부평동은 조선후기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대정리를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해 오다가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고, 1940년에는 부천군에서 인천부에 소속되었다. 부평동은 1962년에 처음으로 분동을 경험한 후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1977년까지 6개의 동으로 분화되어 오늘에 이른다. 우선 부평동은 1962년에 부평1·2·3 세 개의 동으로 나뉜다. 1968년에는 부평1동이 '부평1동 동부동'과 '부평1동 중부동'으로 갈렸으며, 2년 후인 1970년에는 '부평1동 동부동'에서 '부평1동 서부동'이 갈라져 나왔다. 이 해에는 '부평2동 동부동'이 부평2동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였다. 1947년에 일본식 동명을 버리고 옛 이름을 회복한 부평동은 1970년 상황에서 부평1동 동부동·부평1동 서부동·부평1동 중부동·부평2동·부평2동 동부동·부평3동 등 모두 6개의 행정동으로 분화된 셈이다.

부평동의 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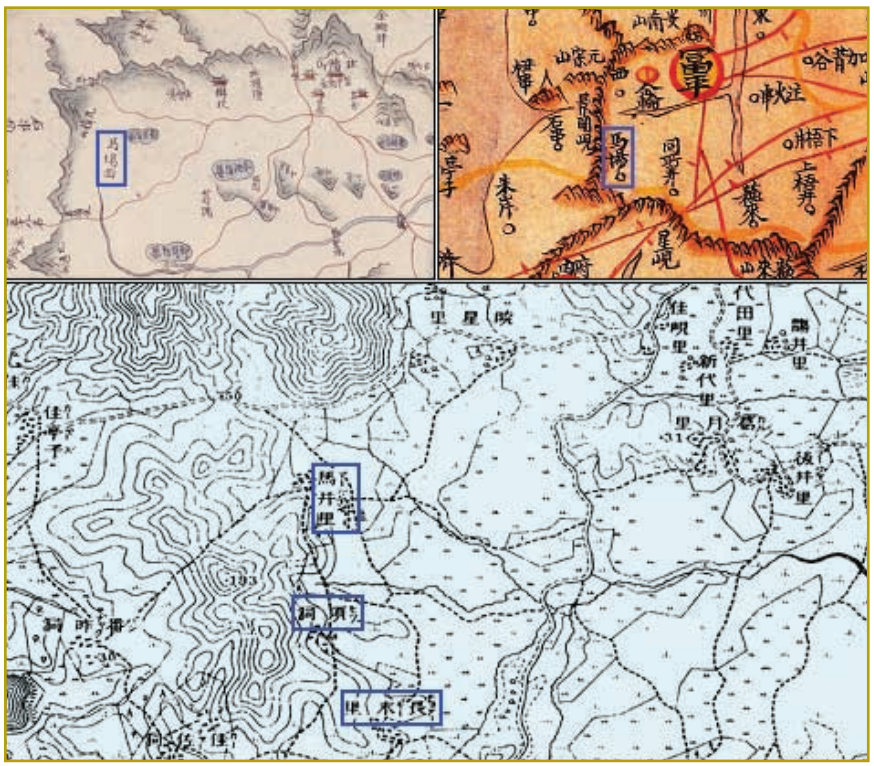
연도	1947	1962	1968	1970	1977	비고
구	부평출장소		북구			1995년 부평구
동	부평동	부평1동	부평1동 동부동	부평1동 서부동	부평1동	
				부평1동 동부동	부평5동	
			부평1동 중부동	–	부평4동	
		부평2동	–	–	부평2동	
				부평2동 동부동	부평6동	
		부평3동	–	–	부평3동	1977년 십정2동과 산곡동 일부를 병합함

1970년대는 이른바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로, 특히 인천과 서울시와 접경한 경기도 내의 시군에서 인구 폭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사회적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부평구 영역을 포섭하던 당시의 북구는 인천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으며,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철도가 관통하기 때문에 인천 내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났다. 이에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동은 북구에서도 인구 유입이 왕성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0년 시점에서 6개의 부평동은 1977년에 연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동명을 바꾸는데, 기존의 부평1동 동부동이 부평4동으로, 부평1동 서부동이 부평1동으로, 부평1동 중부동이 부평5동으로, 부평2동 동부동이 부평6동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나머지 부평2동과 부평3동은 1962년 처음 분화됐을 때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부평3동은 1977년에 십정2동과 산곡동 일부를 병합한다.

2) 산곡동의 연혁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마장면 산곡리를 중심으로 한 산곡동(山谷洞)은 1914년에 부내면 산곡리가 되고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백마정이 되었다. 백마정은 언뜻 일본식 지명처럼 보이지만 일찍이 '조선 때 말을 먹이던 곳으로 마장 또는 백마장으로 불렸다'는 유래가 있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나 19세기 중반에 김정호가 제작한 『동여도』에 뚜렷하게 명시된 마장면이라는 이름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한편 1895년경의 『구

한말 한반도 지형도』에도 마장은 마정(馬井)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마도 마정은 마장의 오기일 것이다. 더불어 마정리 남쪽에 표기된 항동과 장말리는 장고개[장현]와 장끝말을 나타낸다. 즉 1940년에 산곡동이 백마정으로 이름을 바꾼 사례는 다른 동과 달리 일본식 지명으로의 개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불려왔던 이름의 하나가 새로운 동명으로 채택된 것이다. 과거 일본식 지명이 거의 모두 사라졌음에도 백마장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에도 부평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조선시대의 마장면과 산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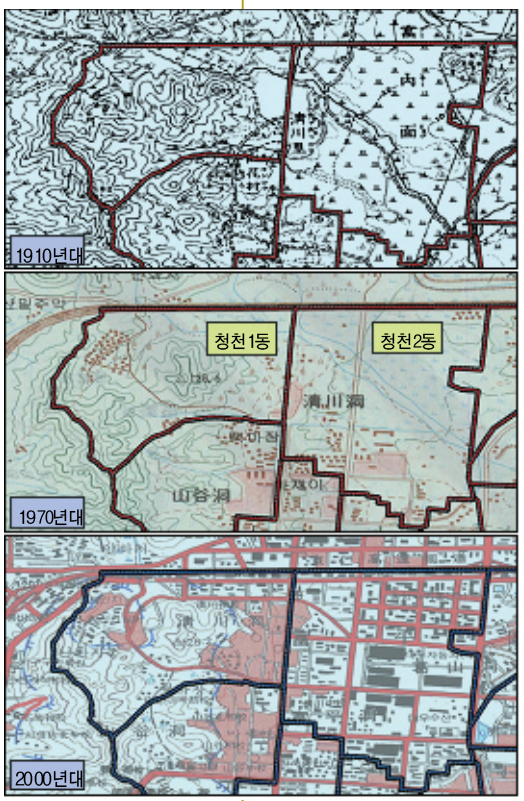
백마정은 1947년에 다시 산곡동이 되었고 1955년에는 청천동을 병합, 산곡청천동이라 불렸다. 이후 1968년에 청천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산곡동이 되었으며, 1970년에는 산곡동이 산곡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현재 법정 산곡동은 1동에서 4동까지인데, 산곡3동은 1990년에 부평3동에서, 산곡4동은 1993년 산곡2동에서 갈라져 나왔다. 부평3동의 전신은 1962년 십정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될 당시의 십정2동이었고, 산곡3동은 부평3동에

서 갈라져 나왔으므로 결국 산곡3동은 한때 십정동이었을 때가 있었다. 산곡동의 중심 마을이었던 산화촌[뫼꽃말 · 뫼꼬지]은 오늘날 마곡초등학교와 산곡북초등학교 사이 일대로 지금은 삼영빌라, 삼화빌라 등이 자리를 잡았다.

산곡동의 분동

연도	1947	1955	1968	1970	1990	1993	비고
구	부평출장소		북구				1995년 부평구
동	산곡동	산곡청천동	산곡동	산곡1동	–	–	1955년 청천동 병합
				산곡2동	–	–	1968년 청천동 분동
						산곡4동	산곡2동에서 분동
	(십정동)		(십정2동)	(부평3동)	산곡3동	–	부평3동 일부가 산곡3동으로 분동

3) 청천동의 연혁



청천동 지역경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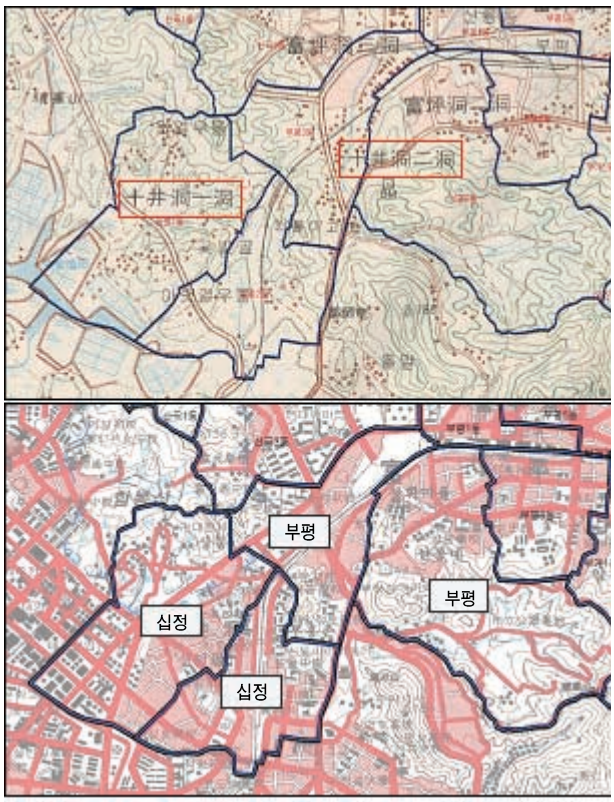
청천동(淸川洞)은 현재 법정동이 둘이다. 청천동은 조선후기 때에 부평도호부 마장면 청천리를 기반으로 한다. 청천리는 1914년에 부내면에 편입되었고,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천상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47년에 일식 동명 변경에 따라 청천동이 되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1955년에는 산곡동과 병합되면서 산곡청천동으로 불리다가 1968년에 분리되어 다시 청천동이 되었다. 청천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된 것은 1990년이며,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한 1995년에는 계양구 효성2동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기도 하였다. 청천동의 원 중심마을은 청천2동 동사무소와 청천1동 동사무소 사이 일대로 지금은 화인빌리지타운, 한빛빌라 등이 들어서 있다.

청천동의 분동

연도	1947	1955	1968	1990	비고
구	부평출장소		북구		1995년 부평구
동	청천동	산곡청천동	청천동	청천1동	1995년 계양구 효성2동 일부 편입
				청천2동	

4) 십정동의 연혁

1960년대에 분동된 곳으로는 십정동(十井洞)이 하나 더 있다. 십정동은 현재 부평구에 속한 8개의 법정동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후기에 인천도호부 소속이었다. 주안면 상십정리와 하십정리가 중심을 이루었던 십정리는 1914년에 삼거리, 꽃밭골, 안터가 병합되어 부천군 다주면으로 편입되고, 1936년에는 부평구에서 가장 빨리 인천부에 소속되면서 대도정으로 불렸다. 해방 후 1947년에 다시 옛 이름을 찾아 십정동이 되었다가 부평동과 같이 1962년에 십정1동과 2동으로 분화되었다.



십정동의 분동(상:1970년대, 하:2000년대)

십정2동은 1977년에 부평동이 부평1~6동으로 정비될 때 부평3동으로 편입되었고, 십정1동은 다시 십정동이 되었다. 십정동은 1985년에 다시 십정1동과 2동으로 분동되어, 1977년 형태로 복구되었다. 1970년대의 지형도와 2000년대의 지형도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정황이 쉽게 나타난다.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날 십정1동과 2동은 1977년에 생성된 십정1동에서 분화된 것이고, 1977년에 생성된 십정2동은 오늘날 부평3동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십정동의 두 중심 마을이었던 상십정동과 하십정동은 오늘날 십정1동 상동 일대와 십정1동 동사무소 및 십정녹지공원 사이 일대이다.

십정동의 분동					
연도	1947	1962	1977	1985	비고
구	부평출장소		북구		1995년 부평구
동	십정동	십정1동	십정동	십정1동	
				십정2동	
		십정2동	부평3동	–	십정2동이 부평3동이 됨

5) 갈산동의 연혁

갈산동(葛山洞)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서면 갈월리를 기반으로 한다. 갈월은 갈울 또는 갈산으로도 불렸는데 1914년에 사근다리를 병합하면서 부내면에 소속되었다. 청천리는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길야정이라 하였고 1947년에 갈산동으로 옛 이름을 되찾았다. 1955년에는 삼산동과 합하여 삼산갈산동으로 불리다가 22년이 지난 1977년에 갈산동이 되어 삼산동을 완전히 합병한 형상을 띠었다. 1992년에는 삼산동이 분리되어 1955년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었으며, 1994년에는 갈산동이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갈월리의 중심 마을은 부평북초등학교 서쪽에 우덕빌라와 평화빌라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주부토길과 청천로 사이, 즉 지금의 갈산1동 동사무소까지 취락이 확산되었다. 사근다리는 다리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 이름으로 청천교 남쪽에 있었다. 두 지명은 1:50,000 지형도에서 확인되는데, 청천교는 오늘날 서부2교로, 사근다리는 굴포2교로 교체되었다. 부평구청 북동쪽, 굴포천 연안에 위치했던 사근다리마을과 주변의 경지는 현재 아주 · 태화 · 두산 등의 대단위 아파트촌과 갈월초등학교 및 갈산중학교 부지로 변모하였다.

6) 삼산동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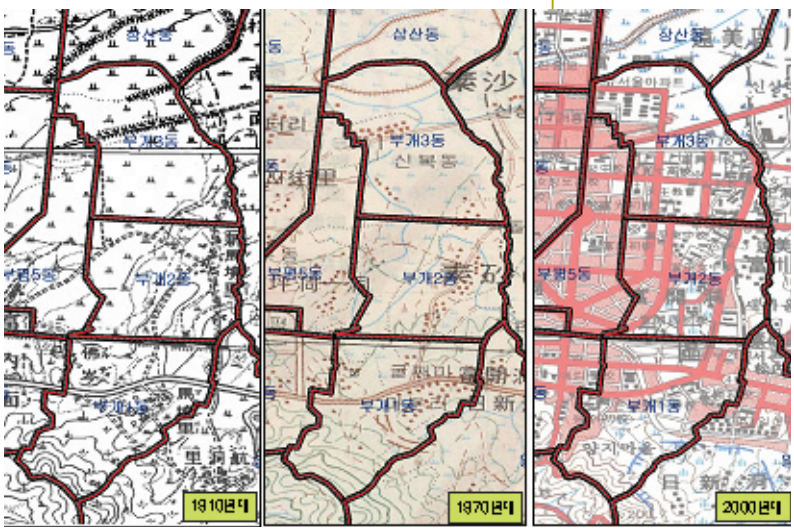
갈산동과 붙어있는 삼산동(三山洞)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서면 후정리를 기반으로 한다. 마을 뒤에 우물이 있다 하여 이름 붙은 후정리는 1914년에 부내면에 속했다가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이름이 일본식 지명인 소립정으로 바뀌었다. 1947년에 일본식 지명 개정에 따라 삼산동으로 이

름이바뀌고, 1955년에는 갈산동에 편입되었다. 삼산동이 갈산동에서 분리된 것은 1992년이며, 부평구에서는 가장 늦은 2006년 4월에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분동되었다. 삼산동이라는 이름은 중심 마을인 후정리가 영선산 · 갈산 · 금산 세 산봉 아래 위치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산동과 삼산동의 분동

연도	1947	1955	1977	1992	1994	2006	비고
구	부평출장소		북구			부평구	
동	갈산동	삼산갈산동	갈산동	–	갈산1동	–	
					갈산2동	–	
	삼산동			삼산동	–	삼산1동	1955년 갈산동에편입, 1992년 분리
						삼산2동	

7) 부개동의 연혁



부개동 지역경관의 변화

부개동(富開洞)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마분리를 중심 마을로 한다. 마분리라는 이름은 이곳에 말무덤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에 소속되었고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일본식 이름인 명치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47년에 오늘날의 이름인 부개동이 되었다. 부개동은 일신동과의 경계에 있는 부개봉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개봉은 원래 복개봉(覆蓋峰)으로 불렸는데 어떤 연유인지 확실치 않지만 부개봉으로 불리면서 한자 이름도 바뀐 듯하다. 다른 해석으로, 부평들의 초입에 위치하여 부평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개동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부개동은 1955년에 일신동 및 구산동을 병합하여 부개일신구산동이 되었

다가 1977년에 부개동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82년에는 구산동을 포함한 일신동이 독립해 떨어져 나갔다. 이후 1985년에 부개동은 부개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92년에는 부개2동에서 부개3동이 분동되었다. 부개동에서 가장 오래된 중심 마을인 마분리는 현재 부개1동에 속하고, 부개2동은 마분리 북쪽에 새로 형성된 벽돌말[새말 · 신촌]을, 부개3동은 벽돌말 서북쪽에 새로 들어선 신복동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른다.

8) 일신동의 연혁

일신동(日新洞)은 조선후기에 부평도호부 동소정면 항동마을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 항동리가 되었고, 1940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일식 지명인 향취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6년에 동명 변경에 따라 일신동이 되었는데, 해방 후 모든 것이 새로워진 동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955년에 부개동에 편입되었다가 1982년에 독립하여 일신동이 되었으며 부평구에서는 아직 분동하지 않은 유일한 동이다. 일신동은 경인로의 남북 주변과 한국폴리텍Ⅱ인천대학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군사 지역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신동의 남동쪽에는 구산동이 있다. 구산동은 한때 법정동으로 독립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일신동에 완전히 병합된 상태이다. 그러나 위 대학의 주소가 '구산동 기능대학길 16' 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주소 시스템에는 구산동이 사용되고 있다.

부개동과 일신동의 분동

<table>
<tr><th>연도</th><th>1947</th><th>1955</th><th>1977</th><th>1982</th><th>1992</th><th>비고</th></tr>
<tr><td>구</td><td colspan="2">부평출장소</td><td colspan="3">북구</td><td>1995년 부평구</td></tr>
<tr><td rowspan="4">동</td><td rowspan="3">부개동</td><td rowspan="4">부개일신구산동</td><td rowspan="4">부개동</td><td>부개1동</td><td>-</td><td></td></tr>
<tr><td rowspan="2">부개2동</td><td>-</td><td></td></tr>
<tr><td>부개3동</td><td></td></tr>
<tr><td>일신동</td><td>일신동</td><td>-</td><td>일신동은 구산동을 포함</td></tr>
</table>

제2절 부평의 인문지리

1. 인문지리적 개관

1) 입지와 환경

부평의 지리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는 바로 계양산이다. 계양산(394.7m)은 김포 반도를 포함하여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일찍이 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고구려의 주부토(主夫吐)나 신라의 장제군(長堤郡)과 같은 행정구역, 그리고 계양산성은 남쪽의 문학산성을 한강 북쪽의 행주산성과 연결함으로써 한강 하류 유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으로 기능하였다. 조선 초에는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부평부에 익진(翼鎭)을 설치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세종실록』 2년 3월 28일자 기사), 지금도 병방동(兵房洞)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만큼 계양산은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의 확보나 한양 일대의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부평지역은 황해안의 경기만으로부터 한강 및 예성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조운로와 대외무역로 상의 요지였다. 개경의 외항인 예성강으로부터 인천 앞바다, 자연도, 덕적도로 이어지는 해로는 송나라를 비롯한 외국 상선이 빈번히 왕래한 뱃길이었다. 그러나 14세기부터는 왜구가 자주 출몰하면서 해로는 폐쇄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하였다. 계양산성과 문학산성 등 부평 일대에 산성이 구축된 것은 이러한 왜구의 침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이 일대의 역대 행정 치소들은 모두 계양산 주변의 산록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령, 조기준에 의하면 고려 초 부평이 수주읍이라는 지명으로 있던 때에는 현재의 계양구 오류동에 행정 중심지가 위치하였고, 조찬석의 연구에 따르면, 1165년(고려 의종 19) 안남도호부로 있을 때에는 계양구 계산동 향교 서쪽으로 청사가 이전되었다. 조선초(1413)에는 부평도호부로 개칭되면서 오늘날의 부평초등학교 자리(계산1동 943번지)에 읍치가 조성되었다. 오늘날 오류동에는 고려시대의 수주읍 청사 터(골밭)와 수주향교 터, 감옥 터(쑥당골)가 전해지고 있으며, 계산1동의 부평

※ 이 글은 전종한(경인교대 지리학과 교수)이 책임집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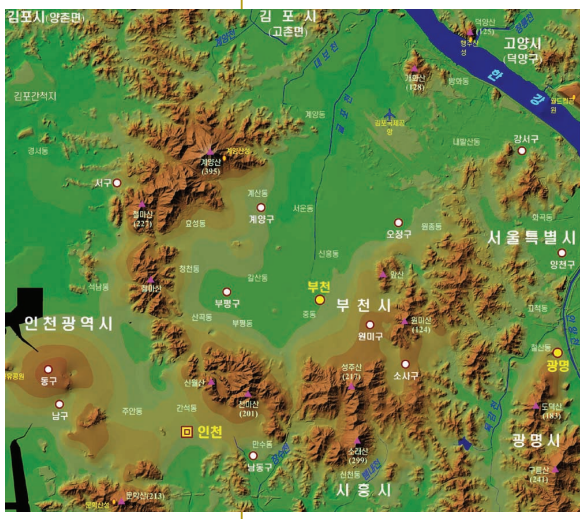
현 위치로 옮기기 이전의 부평도호부 청사

초등학교에는 조선시대의 부평도호부 청사의 일부 건물 및 1887년 부평부사 정병하가 보수했다는 욕은지(浴恩池), 정조가 부평에 들러 활을 쏘았다는 장소인 어사대(御射臺) 등 읍치 관련 유적이 보존되고 있다.

학생들 뒤로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 이전의 부평도호부 청사 건물이 보인다.

출처 : 『부평공립심상소학교』 제28회 졸업기념앨범, 1930(부평역사박물관 소장)

한편, 부평 역사의 한 줄기는 생계를 위한 자연환경과의 투쟁의 역사, 곧 경지 개간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지도서』(1760년대)와 『부평부읍지』(1871) 등의 자료에 의하면 '부평지역은 인천 및 안산으로 연결되는 남쪽 방향만이 온전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을 뿐이며, 서, 북, 동쪽의 삼면은 모두 물이며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부평의 동쪽 및 북쪽 지역은 한강 하류의 범람원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황해안의 간석지가 펼쳐져 있다. 역사적으로 부평의 지역민들은 이러한 생태적 조건에 적응하여 경지 개간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다.



부평지역 일대의 지형 환경

부평지역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하며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로 있었다. 부평도호부의 중심 구역은 대략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를 합친 영역이었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 입지상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이자 서울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조선시대에는 부평의 치소(治所)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 남쪽 산록부에 자리하였고 이곳이 부평의 중심 취락으로 발달하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경인선 철도가 가설된 부평구 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성장하였다.

부평 일대의 경지 개간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수시로 나타난다. 태종이 부평지역의 관개시설과 제언 현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었다는 사실(『태종실록』 17년 4월 4일자 기사)이나, 부평지역의 방죽 축조를 감독하기 위해 호조와 사헌부 관원을 파견하였다는 기록(『세종실록』 3년 1월 16일자 기사), 조정에서도 김포반도를 포함한 부평지역을 황해도의 연백평야나 충청도의 내포평야, 전라도의 호남평야와 더불어 전국적 차원의 옥토(沃土)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세종실록』 18년 7월 21일자 기사) 등은 부평 일대의 범람원 및 저습지대가 이미 조선 초기에 상당한 규모로 개간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평 일대의 저습지가 침수 피해를 벗어나서 수리안전답으로 확보된 것은 1924년 부평수리조합이 설치되고 이 지역의 관개수로로서 서부간선수로가 갖추어진 이후이다.

지도에서 부평에서 행주성까지는 30리, 즉 12km 정도이다. 인천의 문학산 봉수는 부평의 축곶산(杻串山) 봉수로, 다시 개화산(開花山) 봉수를 거쳐 행주산성 및 한양에 연결되었다. 부평의 도로망은 읍치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인천, 북쪽으로 김포와 강화도, 동북쪽으로는 한양으로 연결되는 체계였다. 이 같은 전략적 입지로 인해 부평은 주로 황해안 연안의 제 군현과 한양 간을 연결하거나 한강 하류 지역 및 한양을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부평의 상대적 위치와 교통망(『대동여지도』, 1861)

지금의 부평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의 부평은 진관 체제상 수원진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인천을 속읍으로 삼고 있었다. 대체로 조선

시대에는 김포반도와 인천 지역이 부평도호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조선초기의 부평도호부 시대부터 구한말 부평군 시절까지 고을의 치소는 현재의 계산1동 부평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이 곳을 기점으로 도로망이 짜여지게 되었다.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한양, 서쪽으로 서해안 및 영종도, 북쪽으로 김포, 남쪽 및 남서쪽으로는 각각 안산과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가 주요 간선이었다. 주변 지역과의 거리를 보면 동쪽으로 서울까지의 거리가 55리(약 22km), 북쪽의 김포군까지가 17리(약 7km), 남서쪽으로 인천까지가 15리(약 6km) 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취락은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평의 치소 역시 조선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한 산록 및 저평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지는 방어는 물론이고 한랭한 북서풍을 피하거나 연료림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매우 전형적인 취락 입지 유형이다. 이와 같은 부평의 치소 입지는 주로 자연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한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에서 선정된 것이었다.

근대 이후의 부평지역은 전래의 전략적 기능보다는 서울과 인천 및 서울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 교통의 요지이자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잇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결절지로서 새롭게 발달하게 된다. 과거의 부평지역은 대체로 현재의 계양구와 부평구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2006년 5월 현재 계양구의 인구는 336,916명(인천광역시의 12.8%), 부평구의 인구는 570,811명(인천광역시의 21.7%)으로서,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약 34.5%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 규모는 18세기 부평지역의 인구 2,923호 10,898명(『여지도서』)이나 구한말의 3,054호 11,534명(남 6,399, 여 5,135)과 비교할 때, 실로 엄청난 증가라 볼 수 있다.

부평지역(부평구, 계양구)의 동별 인구 현황 (2006년)

구	동명	세대 수	인구(명)	구	동명	세대 수	인구(명)
부평구	부평1동	12,630	36,149	부평구	부개3동	13,177	40,615
	부평2동	9,492	24,264		일 신 동	4,350	13,057
	부평3동	6,671	16,685		십정1동	9,009	23,594
	부평4동	10,362	25,838		십정2동	12,415	31,202
	부평5동	9,488	24,255		**합 계**	**202,513**	**570,811**
	부평6동	6,188	14,652	계양구	효성1동	12,708	37,657
	산곡1동	8,486	22,700		효성2동	12,435	37,723
	산곡2동	9,509	31,251		계산1동	10,137	26,417
	산곡3동	9,103	27,864		계산2동	8,156	21,516
	산곡4동	6,847	21,923		계산3동	8,853	26,067
	청천1동	7,442	18,640		계산4동	7,788	24,020
	청천2동	13,681	40,526		작전1동	11,057	33,421
	갈산1동	6,802	19,583		작전2동	11,815	31,697
	갈산2동	8,899	25,994		서 운 동	11,817	34,501
	삼산1동	12,320	36,688		계양1동	7,063	20,082
	삼산2동	9,480	30,066		계양2동	16,424	43,815
	부개1동	8,199	22,655		**합 계**	**118,2533**	**36,916**
	부개2동	8,003	22,888				

2006년 현재 부평지역을 통과하는 주요 교통망은 동서 방향의 5개 간선과 남북 방향의 3개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 방향의 5개 간선이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전철, 경인고속국도, 6번국도, 46번국도,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고속국도를 말한다. 경인전철은 당초 복선이었던 것이 복복선으로 증설된 것인데 서울의 구로역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부천, 부평을 경유해 주안, 제물포, 인천역을 연결한다. 경인고속국도는 서울의 양천구 신월동으로부터 서쪽으로 부천 교차로를 거쳐 서운 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교차하며, 다시 서쪽으로 부평, 서인천 교차로를 경유하여 인천항 입구까지 연결된다. 6번국도는 서울 강서구로부터 서쪽으로 경인고속국도와 거의 평행을 이루어 달리며 계양구, 부평구 간의 경계선을 따라 인천 서구로 빠져나가는 도로이다. 46번국도는 서울 구로구로부터 경인전철과 평행으로 이어지면서 서쪽의 인천항까지 연결된다.


개통 직후의 경인고속국도 (1969년 10월)

남북 방향의 3개 간선이란 경기도 남부의 시흥, 안양 지역 및 인천 남부를 한강 이북 지역과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지하철 1호선, 39번국도를 일컫는다. 이 중 부평지역의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남쪽의 시흥, 광명, 안양시 지역으로부터 북쪽의 일산 신도시로 이어지는 서울을 둘러싼 환상고속국도의 일부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경인전철의 부평역을 북쪽의 계양구 귤현동과 연결한다. 그리고 2006년 현재 계양구 귤현동으로부터 서쪽으로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건설 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부평지역의 교통망은 동서 방향의 6개 간선과 남북 방향의 3개 간선을 중심으로 큰 구조가 짜여지게 된다. 이러한 교통망은 기존의 시가지 발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시가지 전개 패턴과 지선도로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2) 과거의 인문지리적 특징

부평의 과거 인문지리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자료로는 역대 편찬된 지지서(地誌書)들이 있다. 먼저 구한말에 편찬된 『부평군읍지』(1899)에는 당대 부평의 인문지리를 읍 이름[읍호(邑號)]의 변천, 주변 읍과의 거리[사계(四界)] 및 서울과의 거리[거(距) 경도(京都)], 행정구역의 설치 연혁[건치연혁(建置沿革)] 및 방위 편제[진관(鎭管)], 주요 성씨, 풍속, 산천, 산물(産物), 명승고적, 배출된 인물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평의 읍호는 주부토(主夫吐)에서 시작하여 장제(長堤),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 그리고 부평으로 변화해 왔다. 이 중 신라 때의 행정구역명인 '장제'는 부평에 인접한 한강 하류 연안 혹은 서해안 저지대의 저습지를 개간하기 위해 부평지역에 제언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함축하는 지명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안남'과 '계양'은 모두 계양산과 이름을 함께 해옴으로써 부평지역에서 계양산이 갖는 지리적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다. 1310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부평'이라는 지명 역시 계양산 남쪽에 넓게 펼쳐진 풍요로운 들판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서해안 저지대 및 한강 하류 연안의 저습지 개간, 풍수지리적 주산으로서의 계양산의 상징성, 그리고 근세 이후에는 계양산 남동쪽의 비옥한 평야가 부평의 과거 인문지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였음을 말한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발간된 모든 관찬, 사찬 읍지류의 산천조(山川條)를 보면 계양산을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부평의 진산(鎭山) 혹은 주산(主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에서는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으로서 평지에 우뚝 솟아 있으며 정상부에 오르면 서해 바다의 모든 섬들이 한 눈에 보인다', '계양산에 옛 성이 있는데 삼국시대 때 축성한 것이다'라고 하여 계양산이 가졌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계양산에 풍수지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풍수지리적 인식이 나온다.

> 상이 이르기를, "장릉(章陵)은 계양산(桂陽山)을 안산(案山)으로 하고 비단 병풍처럼 둘러싸여 지세가 매우 좋다. 이번 행차에 사실을 기록함이 없을 수 없으니, 숙종 어제 운(肅宗御製韻)을 삼가 차운(次韻)하여 현판에 걸어놓도록 하라."
>
> (『정조실록』, 21년 8월 30일자 기사).

『부평부읍지』(1871)에서는 '계양산은 읍의 주산(主山)이며 가뭄을 당하면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여 이 산이 갖는 종교적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기록에서 전래의 산 신앙과 관련된 '진산' 개념과 달리 풍수지리 용어인 '주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계양산이 풍수지리적으로 인식되면서 부평 치소 일대에 풍수지리적 경관이 조성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평 일대에는 한강 하류의 저습지나 서해안 연안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 많은 제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규보(1168~1241)가 지은 「망해지(望海誌)」에는 '길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뚫려 있으나 그 중 한 면만 육지로 통하고 나머지 삼면은 모두 물이다. 내가 처음 이 고을 수령으로 좌천되어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물이 푸르고 넓어 마치 섬 가운데 들어온 듯하였다'고 하여 계양산을 중심으로 서, 북, 동쪽 일대에 저습지 및 간석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저습지 및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관개용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많은 제언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례: ●– 존속, ▲– 물이 마름, ×– 없어짐.

저습지/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부평 일대의 제언 현황

명칭	둘레(보)	깊이(척)	『여지도서』(1760년대)	『부평부읍지』(1842)	『부평부읍지』(1871)	『부평군읍지』(1899)
동림제	462	5	●	●	●	●
장성제	954		▲	×	×	●
혜기제	560		▲	×	×	●
유등제	2,380	5	●	●	●	●
전지제	3,616	5	●	×	×	●

『부평군읍지』(1899)의 정보는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는 다섯 곳의 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두 곳은 물이 마른 상태라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부평부읍지』에서는 당시 두 곳만이 제 기능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부평부읍지』의 「형승(形勝)」조에서 기자는 "부평은 오직 서쪽 한 면만이 바닷가에 접해 있다. 따라서 이규보의 「망해지」 등 옛 자료에 '부평 주위의 삼면이 모두 물이다' 라고 한 것은 실로 잘못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 이규보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규보가 생존했던 13세기로부터 『부평부읍지』의 기록자가 생존했던 19세기 사이에 상전벽해(桑田碧海) 라 할 만큼의 광대한 경지 개간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경지 개간은 특히 부평의 북쪽 및 동쪽에 면한 한강 하류 연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수출공단 조성 이전의 부평 일대 농경지(1966)

이렇게 볼 때 이규보가 생존했던 13세기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여지도서』가 발간된 18세기 사이에 가장 많은 제언이 설치되어 부평 일대의 저습지 및 간석지 개간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과, 19세기 이후에는 부평 일대의 저습지 및 간석지 개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기존의 제언이 기능을 다하고 소멸해 갔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부평

군읍지』(1899)에서는 재차 다섯 곳의 제언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실제로 다섯 곳의 제언이 있었다기보다는 선대의 지지 기록을 단순히 옮겨 적었던 데에서 기인한 잘못된 정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떤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색을 이해하려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부평군읍지』(1899)에서는 부평의 토착 성씨로서 김(金), 이(李), 류(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를 제시하고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부평부읍지』(1871)와 『여지도서』를 확인해 보면, 이들 성씨 외에 윤(尹)씨가 추가로 나타난다. 『세종실록』「지리지」 부평도호부 편에는 '토성(土姓)이 7이니, 김(金)·이(李)·류(柳)·형(邢)·손(孫)·최(崔)·진(陳)이요, 내성(來姓)이 3이니, 조(趙)·류(柳)·윤(尹)이다. 없어진 황어향(黃魚鄕)의 망성(亡姓)이 1이니, 손(孫)이요, 망래성(亡來姓)이 1이니, 정(鄭)이며, 속성(續姓)이 1이니, 김(金)이다. 지금 향리(鄕吏)가 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즉 부평이라는 향촌사회를 주도하였던 주요 종족집단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부평부읍지』(1871)를 볼 때 윤씨 가문은 부평이 배출한 효자 10인 중 4인을 차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명망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의 토착 성씨를 보여주는 이 같은 정보는 각 읍지의 「인물조」 내용과 연결이 된다. 고려시대에는 윤씨와 손씨, 이씨가 부평의 주요 성씨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서도 이들 성씨가 대체로 이어지는 편인데, 특히 양대 왕조를 통틀어 이씨 가문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역시 『부평부읍지』(1871)의 「인물조」에 기록된 충신 및 효자 항목을 보면, 부평지역의 토착 성씨들 중 이씨 집안이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세력을 떨쳤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부평의 주요 토착 성씨들과 배출 인물

구 분	부평의 토착 성씨	부평이 배출한 인물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 토성 – 김(金), 이(李), 류(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 래성 – 조(趙), 유(劉), 윤(尹)	
『여지도서』(1760년대)	김(金), 이(李), 류(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 윤(尹)	• 고려조 : 윤징고, 손변, 이위, 윤관, 허홍재, 이인손, 이인로, 이규모 • 조선조 : 권천, 목진공, 이사관, 김연지

구 분	부평의 토착 성씨	부평이 배출한 인물
『부평부읍지』(1871년경)	위와 같음.	• 고려조: 윤징고, 손변, 이위 • 조선조: 조서강, 변종인, 정희량, 이림, 김민선, 이경운, 변삼근, 민이승, 정욱, 남연 • 효자: 이동진, 이응신, 선응시, 이절, 윤기파, 윤정, 윤상우, 윤서, 이진욱, 유회 • 충신: 이예수, 양지, 이제가
『부평군읍지』(1899)	김(金), 이(李), 류(柳), 진(陳), 형(邢), 손(孫), 최(崔), 조(趙), 유(劉) (윤씨가 확인되지 않음)	• 고려조: 윤징고, 손변, 이위 • 조선조: 이예수, 양지, 이제가, 이동진, 이응신, 선응시, 이절, 이속, 윤정, 이진욱, 김광계, 민이승, 정욱

『부평부읍지』(1871)의 정보가 가장 자세하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농경지 규모, 행정시설, 기타 인문 경관의 분포 사실들을 통해서 과거 이 지역이 가졌던 인문지리를 살펴볼 수 있다. 부평의 특산물은 황해안의 연안 입지를 반영하듯이 주로 수산물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상당한 규모로 개간된 농경지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간전(墾田)이 5,296결이다' 라는 기록이 보이고 18세기의 『여지도서』에서 그 규모가 재차 보고되고 있다(밭 1,557결, 논 1,472결). 이렇게 경지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임진왜란(1592)을 겪으면서 경지가 황폐화된 후 재개간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행정시설 역시 『여지도서』에서 처음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를 지나면서 읍치의 관아 시설이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부평부읍지』(1871)의 내용으로 보아 부평 치소의 행정시설이 다양하게 분화·설치된 결과, 19세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읍치 경관 체계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평 일대에 광대한 경지가 재개간된 시점(18세기)과 읍치 경관이 완성된 시기(18~19세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부평의 인문지리 요소별 실태와 변화추이

구 분	지역 특산물	농경지	행정 기관 시설	기타 인문 경관
『세종실록 지리지』 (15세기)	오곡과 조, 팥, 녹두 뽕나무, 삼[麻]	간전(墾田) : 5,296결	없음	· 역원 취락: 금륜역
『동국여지지』 (1656)	소금, 조기, 굴 등 수산물과 계양산의 흑점석	없음	없음	· 역원 취락: 금륜역, 구슬원, 대야원 · 기타 : 사직단, 성황사, 여단, 향교(문묘)
『여지도서』 (1760년대)	소금, 조기, 굴 등 수산물	밭: 1,557결 논: 1,472결	객사(21칸), 아사(47칸 반), 연무청(10칸), 군기고(6칸)	· 유적 : 자오당 · 기타 : 사직단, 향교(문묘), 성황사, 여단, 창고(56칸)
『부평부읍지』 (1842)	위와 유사	항목 없음	객사, 아사, 부창(창고), 연무청, 군기고, 향청, 장청, 이청	· 역원 취락: 금륜역 · 유적 : 계양산 고산성, 허암 옛터, 압각정, 기로재 · 기타 : 사직단, 성황사, 여단, 향교(문묘)
『부평부읍지』 (1871)	위와 유사	항목 없음	객사(대청, 동헌, 서헌, 협방, 중문, 대문), 아사(근민당, 사무헌, 내아, 공수, 공고, 호적고, 급창방, 사령방, 중문, 대문), 부창(창고: 대청, 고사, 대문, 협문), 장관청, 인리청, 사창(신설), 화약고	· 역원 취락: 모두 폐지됨 · 유적 : 계양산 고산성, 허암 옛터, 압각정, 기로재 · 기타 : 사직단, 성황사, 여단, 향교(문묘)
『부평군읍지』 (1899)	위와 유사	항목 없음	객사, 아사, 연무청 · 역원	· 취락 : 금륜역, 구슬원, 대야원 · 기타 : 사직단, 성황사, 여단, 향교(문묘)

『부평부읍지』(1871)의 정보가 가장 자세하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평군읍지』(1899)의 정보는 소략할 뿐만 아니라 역원 취락에 대한 항목에는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역원(驛院)이란 인접한 군현과 부평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망에 있어서 중간 휴식처 혹은 결절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던 취락을 말하는데, 부평 주변에는 금륜역, 구슬원, 대야원 등 세 곳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부평부읍지』(1842)에 이르면 그 중 금륜역만이 존속하였고 나머지 두 곳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8~19세기를 지나면서 부평 일대의 역원 취락도 크게 쇠퇴하였음을 의미한다.

금륜역은 인천, 김포, 양천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달했는데 당시에는 강화도와 함께 서울의 서쪽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여지도서』에는 금륜역에 대해 기록하기를, 큰 말 1필, 작은 말 6필, 향리 13명, 노비 36명(남자 30명, 여자 6명)이 있다고 되어 있다. 19세기까지 존속하였던 금륜

역의 위치는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역골이다. 참고로 『부평군읍지』(1899)에는 세 곳의 역원 취락이 재차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제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이 외에 구한말까지 부평지역에는 곡식 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한 사직단,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사,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여단, 그리고 향교(문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 시설의 입지는 조선시대의 전국적 보편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향교는 현재의 경인여자대학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소실된 이후 1688년(숙종 14) 현재의 위치(계산1동 982번지)에 새로 건립되었다. 사직단은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리에 따라 고을 서쪽에, 그리고 여단은 죽은 자의 공간이므로 고을 북쪽에 자리하였다. 성황사는 고을의 주요 출입구였던 남쪽 고갯마루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요 상징적 경관과 장소들

1) 풍수지리와 읍치의 경관 조성

일반적으로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의 읍치는 조선 세종 대를 전후로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전(旱田) 농업으로부터 수전(水田) 농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넓은 하안 충적 평야 및 해안 저지대의 농경제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읍치에 성곽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이 때 조성된 읍성 취락들은 음양오행 및 풍수지리적 관념, 주례동관고공기(周禮冬官考工記)의 좌묘우사의 원리, 그리고 권력의 자연화 전략을 반영하는 비교적 일관된 모습의 읍치 경관을 조성하였다.

부평도호부의 읍치 경관은 하삼도의 일반적 읍성 취락과는 달리 성곽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읍치 경관의 배치를 볼 때 거기에는 풍수지리적 관념을 비롯해 하삼도의 읍치 경관에 작용한 원칙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계양산을 주산(主山)으로 삼아 그 남쪽 산록에 읍치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읍치를 둘러싼 산줄기는 계

양산을 기점으로 하여 동남쪽(좌청룡) 및 남서쪽(우백호)으로 달리는 형국이며 다만 읍치의 동남쪽 방향만이 굴포천 일대의 저지대를 향해 노출되어 있었다.

읍치에 어떤 종류의 행정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때 『동국여지지』(1656)에는 해당 항목이 공란으로 나타나지만 『여지도서』(1760년대)에는 읍치에 객사, 아사, 연무대, 군기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수령과 향리의 공간인 아사가 가장 북쪽의 계양산 산록에 자리하였고 그 남쪽 전면의 동쪽 편에 객사가 위치하였다. 그리고 1842년의 『부평부읍지』에서는 기존의 시설 외에 창고, 향청, 이청, 장청이 추가로 기록된다. 읍치 시설이 가장 자세하게 보고되고 있는 자료는 1871년에 발행된 『부평부읍지』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평 읍치에는 객사, 아사, 부창(창고), 장관청, 인리청, 사창(신설), 화약고가 있었는데, 객사는 다시 대청, 동헌, 서헌, 협방, 중문, 대문으로, 아사는 근민당, 사무헌, 내아, 공수, 공고, 호적고, 급창방, 사령방, 중문, 대문으로, 부창은 대청, 고사, 대문, 협문으로 각각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 읍치의 경관 조성에 있어서 당대 사람들은 계양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가는 읍치의 좌청룡이 풍수지리적으로 미약하다고 인식하였고, 그래서 읍치 동남쪽에 조산(造山)을 마련하게 된다. 즉 읍치가 외부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남쪽 저지대에 인공적으로 조산 비보(裨補)를 함으로써 풍수지리적으로 수구막이 기능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부평부 지도에서 이미 세 곳의 조산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평도호부의 조산은 적어도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셈이 된다.



부평의 풍수지리적 형국과 조산(造山)(『해동지도』, 18세기 중반)

읍치의 행정시설은 아사, 객사,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읍치 서쪽에는 사직단과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부평 읍치의 좌청룡 말단부에 '조산의 조망한다' 는 의미의 망조산(望造山)이 위치하고(파란색 실선 원), 읍치 동남쪽의 저평지에는 수구막이 기능을 하도록 세 곳의 조산이 배치되어 있다(파란색 점선 원). 조산에 인접한 서

쪽에는 명동산(名東山)이 있는데(파란색 실선 원) 이 산은 풍수지리적 안산(案山)에 해당한다. 안산 남쪽에는 조산(朝山)에 해당하는 염성산(廉成山)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관 요소들은 부평 읍치의 경관 조성을 위해 풍수지리적 관점이 적용되었음을 알려준다.

『해동지도』에는 조산의 북쪽 편, 즉 읍치 좌청룡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곳에 '조산을 조망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망조산(望造山)이 위치하고, 조산의 서쪽에는 명동산(名東山)이, 그리고 그 남쪽에는 염성산(廉成山)이 보인다. 최근에 발간된 『부평사』(1997)나 『계양사』(2001) 등 몇몇 자료들에는 '명동산' 대신 '망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아마도 '망조산'과 '명동산'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혼동을 겪어 '망동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각종 고지도에서는 모두 명동산이라 기입하고 있으며 망동산이라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종 관아시설과 망조산, 명동산, 조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읍치 경관은 『광여도(廣輿圖)』(19세기 전반)의 「부평부 지도」에서도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세기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여도』의 「부평부 지도」에는 산줄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이 인식했던 부평 일대의 산줄기 체계를 읽어볼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부평의 북, 서, 남쪽은 모두 산줄기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북쪽과 서쪽 방향에서는 두 겹의 산줄기가 읍치를 에워싸고 있다. 『해동지도』와 마찬가지로 『광여도』에서도 읍치를 중심으로 남쪽에 명동산(名東山), 그보다 더 남쪽에 염성산(廉成山), 읍치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명동산 동편에 세 개의 조산(造山), 그리고 읍치 동쪽에는 조산을 조망하기 위한 망조산(望造山)이 배치되어 있다.

고지도를 일종의 심상지도(mental map)로 간주할 때 『광여도』「부평부 지도」에는 당시 지도 제작자의 산줄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지도 제작자의 개인적 인식이 그가 속한 시공간의 보다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당대 사람들은 부평 읍치의 북, 서, 남쪽이 모두 산줄기에 의해 둘러쳐져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산줄기가 끊어져 있는 동남쪽에는 조산을 배치함으로써 그 허함을 비보(裨補)하였다.



부평 일대의 산줄기와 조산(造山)(『광여도』, 19세기 전반)

이 중 명동산은 풍수지리적 안산(案山)에 해당하는 산이고, 그 남쪽의 염성산은 풍수지리적 조산(朝山)에 해당한다. 산줄기가 끊어져 있는 읍치 동남쪽에는 인공적으로 산을 조성한 조산(造山)을 배치함으로써 그 허함을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보풍수(裨補風水)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읍치 공간의 서쪽에는 작은 형국을 이룬 곳에 향교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향교가 원칙적으로 읍치의 동쪽에 설치되는 것에 비해 부평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읍치 동쪽은 광활한 저습지가 펼쳐져 있어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해동지도』 및 『광여도』의 「부평부 지도」, 1872년의 「부평지도」 등 부평을 그린 주요 고지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된 조산과 망조산, 명동산이 확인된다. 조산의 경우 『광여도』에는 두 곳만 그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고지도에서 조산은 세 곳에 조성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조기준은 『부평사연구』(1995)에서 다섯 개의 조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초기에는 계산동 23번지와 60번지의 위치에 두 개의 조산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허전하였기 때문에 계산동 41, 63, 64번지의 위치에 추가적으로 조산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조산의 둘레는 직경이 20~30m, 높이는 8~10m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들 조산은 일제시기의 경지 개간 과정에서 대부분 저습지 매립용 토사로 사용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지도에서는 부평 읍치에 조성된 조산을 다섯 곳이 아니라 세 곳으로 그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조산이 있던 사실을 기념하여 조성한 오조산 공원

조선시대에 부평의 읍치 경관은 풍수지리적 시각에서 조성되었다. 당대의 사람들은 계양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가는 읍치의 좌청룡이 풍수지리적으로 미약하다고 인식하였고, 그래서 읍치 동남쪽에 조산(造山)을 마련하게 된다. 즉 읍치가 외부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남쪽 저지대에 인공적으로 조산 비보(裨補)를 함으로써 풍수지리적으로 수구막이 기능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부평부 지도에서 이미 세 곳의 조산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평도호부의 조산은 적어도 17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셈이 된다.

그러면 풍수지리적 안산인 명동산, 그리고 조산인 염성산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고지도와 일제시대 지도, 현대 지도를 서로 비교한다면 그 위치를 어느 정도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명동산의 위치는 현재의 경인교육대학교가 자리한 산줄기의 동쪽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작전1동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243번지 부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지도에서 염성산은 갈우(葛隅) 동쪽에 인접한 산줄기로 나타난다. 갈우라는 지명은 '칡넝쿨이 우거진 언덕'이라는 뜻으로 현재의 '갈산(葛山)'과 동일한 의미이다. 결국 염성산의 위치는 갈산의 동쪽, 즉 오늘날의 부평정수사업소로부터 부평북초등학교 사이의 어느 지역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거의 읍치 경관은 현재 매우 단편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계산4동 208번지에는 옛날에 조산이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여 오조산(五造山) 공원이 조성되었다. 물론 오조산이라는 명칭이나 공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계산1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부평도호부청사 건물 1동이 남아 있다. 『계양사』(2001)에 따르면, 이 건물은 당초 지금보다 동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하던 것을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당초 'ㄱ'자형 건물이 '一'자형으로 축소,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 때 지금의 도호부청사 자리에 있던 어사대(御射臺, 인조가 부평에 들러 활을 쏘았다는 장소)를 남쪽으로 20여 미터 이전하게 된다. 다만, 명동산이나 염성산의 위치가 아직까지 정밀하게 고증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

운 일이다. 이 두 산은 부평의 풍수지리적 형국의 범위를 확인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2) 종교 및 영역 의식의 장소들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사직단, 성황단, 여단과 같은 경관들은 특정한 방위와 위치를 고집하며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 경관의 입지는 특정한 공간에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불어넣음으로써 고유한 장소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서, 사직단, 성황단, 여단이 입지한 공간은 곧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장소, 특히 종교 및 영역 의식을 담은 장소들이 된다.

사직단(社稷壇)이란 토지신인 사신(社神)과 곡식신인 직신(稷神)에게 고을의 평화와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설치한 제단을 말한다. 사직단은 좌묘우사의 원리에 따라 고을의 서쪽 산기슭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읍지류에는 '사직단은 부평부 서쪽 2리에 있다' 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양사』(2001)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15년에 철거되었으며, 부평도호부청사의 서쪽에 해당하는 장명이 고개[경명현(景明峴)] 중턱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해동지도』의 「부평부 지도」에는 경명현으로 올라가는 노선상이 아니라 경명현과 향교 사이의 골짜기에 그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성황단(城隍壇)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을 뜻하며 발음 나는 대로 서낭당이라고도 부른다. 성황단은 마을의 입구에 조성되어 마을의 영역을 표시해 주는데 보통 그 곳에 원추형 돌무더기나 장승을 세움으로써 가시적으로 장소성을 드러낸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마다 한 곳씩 성황사(城隍祠)를 건립하였다. 『동국여지지』(1656)에는 '성황사가 부평부의 북쪽 2리에 있다' 고 되어있고, 『여지도서』 이후의 읍지류에는 '성황사가 부평부의 남쪽 2리에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부평부읍지』(1871)에는 '성황단은 부평도호부 남쪽 2리에 있었는데 고을 북쪽 3리에 새로 옮겨 쌓았다' 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부평지역의 성황사는 고을 남쪽에 한 곳, 고을 북쪽에 한 곳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 두 장소는 외지인이 부평 고을에 드나들기 위한 가장 주된 출입구였을 것이다. 고을 남쪽의 출입구란 염성산을 통과하는 부근일 것이고, 고을 북쪽의 경우는 현재의 임학동에서 방축동

으로 넘어가는 고개[1872년 고지도에서 '경원현(境院峴)'으로 표시된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단(厲壇)은 역병(疫病)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혹은 정처 없이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다. 여단은 그 의미에 있어서 죽은 자의 공간, 어두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을의 북쪽에 설치되었다. 『동국여지지』에는 '여단이 부평부의 북쪽에 있다'고 쓰여 있고, 『여지도서』에서는 '여단은 부평부의 북쪽 3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부평부읍지』(1842)의 자료에는 '여단은 부평부의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읍치로부터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져 위치하였는지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단이 부평부의 북쪽에 자리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계양산의 산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황사와 마찬가지로 17세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3)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경관

부평지역에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경관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운하(運河)이다. 고려와 조선왕조에서는 삼남 지방(충청, 전라, 경상도)의 대동미를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개척된 항로, 이른바 조운로(漕運路)를 이용하여 한양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이 여정에서 조운선이 자주 난파되었던 대표적인 두 지역이 있는데, 태안반도 안흥량의 '관장목'과 강화도의 '손돌목'이 그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와 조선의 조정에서는 안흥량의 관장목 및 강화도의 손돌목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지를 관통하는 운하 건설을 시도하게 된다. 태안반도의 경우 고려와 조선, 2대 왕조 약 400여 년에 걸쳐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잇는 가적운하를 시도한 바 있고, 이것이 실패하자 태안군 소원면의 의항운하, 태안군 안면곶 절단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기도 부평지역에서는 강화의 손돌목을 비껴가기 위해 황해안의 인천지역과 한강 하류의 김포를 연결하는 굴포운하 건설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물론 태안반도에서 시도된 운하 건설이 굴착 작업 시 직면한 지하의 암반이나 황해안의 큰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실패하였듯이, 굴포운하 역시 육지의 고개를 절개하는 작업에서 기반암을 만나 실패로 돌아간다.

『동국여도(東國輿圖)』에 수록된 『기전도(畿甸圖)』(19세기 전반)에는 굴포운하의 착공과 관련된 지리적 요소들, 즉 조운로와 손돌목, 굴포천, 원통현이 기입되어 있다. 서남해안으로부터 올라온 조운로의 경우 경기도에 이르면 강화도 동편과 서편의 항로로 갈라진 뒤 다시 강화도 북쪽에서 합류하여 한강을 따라 한양까지 이어진다. 그 중 동편 항로는 상대적으로 직선형 항로로서 운항 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지만 강화도 남동쪽의 손돌목이라는 거친 물길을 통과할 때에는 난파가 잦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평 동쪽의 굴포천(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으로부터 원통현(元通峴)을 통과해 인천 쪽의 바다로 연결되는 운하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굴포운하의 최초 노선이었다.



『기전도』(19세기 전반)에 그려진 조운로와 손돌목, 원통현

서남해안으로부터 경기만까지 올라온 조운로는 강화도 남쪽 바다에서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진다. 갈라진 두 조운로는 각자 북상하여 강화도 북쪽에서 합류한 다음 한강을 따라 한양까지 이어진다. 그 중 동편 항로는 상대적으로 직선형 항로로서 운항 거리를 단축할 수 있었지만 강화도 남동쪽의 손돌목이라는 거친 물길을 통과할 때에는 난파가 잦았다(『기전도』 참고). 이러한 배경에서 구상하게 된 것이 굴포운하이다. 굴포운하는 고려 고종 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崔怡)가 처음 언급한 이후, 조선 중종 때에 문신 김안로(金安老)가 한강 하류와 인천 앞 바다를 잇는 굴포운하를 기획, 착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듣건대 김안로(金安老)는 조수(潮水)를 40리까지 통하게 하여 원통현(圓通峴)에 이르러 그쳤다 하는데, 이곳(부평과 김포 일대)은 만년토록 감싸 호위하는 땅이니 어찌 인력으로 파고 깨뜨릴 여지가 있겠는가"하였다.

(『정조실록』 정조 21년 8월 30일자 기사).

위의 내용을 비롯한 지리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굴포운하의 노선을 추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부평의 동쪽에는 한강 하류로 합류하는 굴포천이 있는데, 이 굴포천으로부터 운하를 착공하여 남쪽의 원통현을 관통한 다음, 남쪽의 인천 앞바다로 연결하고자 했던 운하가 굴포운하였던 것이다(1차 시도). 원통현은 오늘날의 부평구 부평동 부평삼거리와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사이에 위치하는 고개이다. 이 운하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조운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조운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안로는 굴포천 하류로부터 40리, 즉 16km 정도를 굴착하였지만 원통현을 관통하는 작업에서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운하의 굴착 노선을 조정한다. 제2차 굴포운하는 굴포천과 안하지 고개를 넘어 부평 서쪽의 바다와 연결하는 노선이었다. 안하지(아나지) 고개는 오늘날의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서구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으로 무넘이(무네미) 고개를 대안으로 선정하였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3차 시도). 무넘이 고개는 부평구 구산동과 남동구 장수동을 잇는 고개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운하의 건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오늘날 이들 지역에는 '안하지', '원통', '무넘이(물을 넘긴다는 뜻)' 등 굴포운하 건설의 노력과 좌절을 말해주는 지명들이 남아 있다.

4) 사회적 과정을 담지한 주요 지명 경관

지명이란 거주지나 그 주변 공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행정 지명이 중앙 정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다소 기계적인 공간 인지를 담고 있는데 비해, 마을을 비롯한 국지적 차원의 거주지 지명에는 거기에 살았던 혹은 그 공간을 바라보았던 주민들의 이념(이데올로기), 가치와 종교관, 권력관계 등이 투영된다. 여기에서는 부평지역의 지명 중에서 주로 사회적 과정이 담지된 지명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종족마을을 들 수 있는데 종족마을은 부평지역에 살았던 주요 성씨 집단과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갈산동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 후손들이 살아왔던 지역이다. 작전동은 부평 이씨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광산 김씨 등이 웅거해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주변보다 고도가 높은 구릉지로서 부평평야를 개간하는 거점이었기 때문에 세력 있는 성씨집단

들이 유입되었던 것이다. 효성동은 풍산 임씨의 임촌(任村), 안동 김씨의 김촌(金村),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의 이촌(李村)이 거주했던 마을이다. 귤현동은 진주 강씨의 종족마을이며, 박촌동은 박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목상동은 부평의 호족이었던 부평 이씨의 시조 이희목이 살던 곳이다. 전통 시대의 종족마을들이 대체로 계양산 산줄기의 동사면 혹은 부평 분지 내의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종족마을이 분포했던 지역은 낙후 지역이 되었고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거의 해체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부평동 일대나 용종동, 서운동 일대가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개발되었지만, 전통 시대에 이 지역들은 음습한 저습지대로 인식되어 거주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둘째, 자연산천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지명이 있다. 굴포천은 부평평야를 개간하기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을 굴착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굴포천은 굴포운하의 착공과도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한편 굴포천 중류 이하의 범위를 지칭하는 직포(直浦) 역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하도를 직선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징맹이고개는 계산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고려와 조선의 왕들이 수차례 징매[징응(徵鷹)], 즉 매사냥을 즐겼던 고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갈산동의 갈산이란 산 전체가 칡으로 덮여 있던 데에서 기원하는 지명이다. 조선시대 고지도에는 갈우(葛隅), 즉 칡넝쿨이 우거진 언덕이라는 지명으로, 일제시대 지도에는 갈월(葛月)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다. 『부평사』(1997)에 의하면, 칡넝쿨이 우거진 갈산에 달이 비추어 장관을 이룬 모습을 일컬어 갈산명월(葛山明月)이라 하였고 이것을 줄여 갈월리라 불렀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굴포천(1996)

셋째, 부평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반영한 지명들이 있다.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신촌(新村, 현재의 부평3동), 광복 직후에 개설된 부평동의 공설시장, 광복을 전후하여 빈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부평동 희망촌, 갈산동 근린공원 남쪽의 새롭게 개발된 주택지를 일컫는 신기리(新基里),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군사훈련소가 있었다는 산곡동의 병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근

대화 과정을 반영한 지명들은 주로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구 일대에 분포하며, 전통적인 종족마을들이 계양산 산록지대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3. 근대 이후의 경관 변화와 공간 구조의 재편

1) 근대화와 부평의 경관 변화

근대화가 부평지역에 끼친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는 행정 편제 및 경관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근대화는 전국적인 지역 구조의 재편을 가져오는데,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을 서울의 관문으로 부상시켜 주었고 이것은 다시 이 일대에 행정 편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상황에서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중심성이 낮아진 부평은 1895년 도호부에서 부평군으로 강등되면서 오히려 인천관찰부에 예속되었다. 그리하여 종래 부평도호부의 소재지였던 부내면(府內面)은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되었다.

구한말(1900년대 초)까지 부평군 청사는 현재의 계양구 부평초등학교의 위치에 있었다. 중심 시가지는 청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주로 군청 남쪽에 전개되었다. 오늘날 계산1동 940~960번지 일대가 당시에 성장한 중심 시가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도로로는 동북쪽의 박촌리(현 박촌동) 및 귤현리(현 귤현동)로 가는 길, 서북쪽의 경명치를 넘어가는 길, 그리고 남쪽의 갈월리(현 갈산동), 후정리(현 삼산동)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이들 도로가 군청 남쪽의 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치로는 계산1동 965번지 부근에 해당한다.

1910년 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당시 부평군에 소속된 15개 면과 각 면에 속한 마을들이 정리되어 있다. 부평군은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 동면, 당산면, 황어면, 모월곶면, 석곶면, 옥산면, 수탄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군내면은 상동, 하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늘날의 계산동 일대를 말한다. 서면은 갈월리, 계현리, 화전리, 후정리, 도두리 등 오늘날의 갈산동, 삼산동 일대에 해당하였다. 마장면은 효성리 일대, 동소정면은 산곡동 일대, 당산면은 귤현동 일대, 황어면은 오류동 일대, 모월곶면

은 시천동 일대, 석곶면은 가정동 일대 등 1900년대 초의 부평지역은 현재의 부평구와 계양구, 부천시 일부, 서구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상당히 넓은 규모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런데 1913년 인천부의 관할구역이 개항장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부평의 행정 중심지는 이전되고 부평군은 해체된다. 이 때 인천개항장에 편입되지 못한 인천의 여타 지역과 부평군 일원, 그리고 강화군 및 남양군의 일부 도서지역을 통합하여 부천군(富川郡)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합쳐서 만든 지명이었다. 신설된 부천군 군청은 문학면 관교리에 있던 구(舊) 인천군 청사에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에서 수백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읍내리의 행정적 중심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1900년대 초 읍내리 주변에는 박촌리, 귤현리, 갈월리, 효성리(현 효성동) 등 몇몇 촌락들이 산재해 있었다. 촌락들은 저습지를 피하여 주로 산록이나 구릉지를 따라 분포하였으며 규모는 10호 내외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저평지 혹은 굴포천 일대의 저지대는 상당 부분 논으로 개간되어 있는 반면 굴포천에 인접한 저습지는 아직 습지로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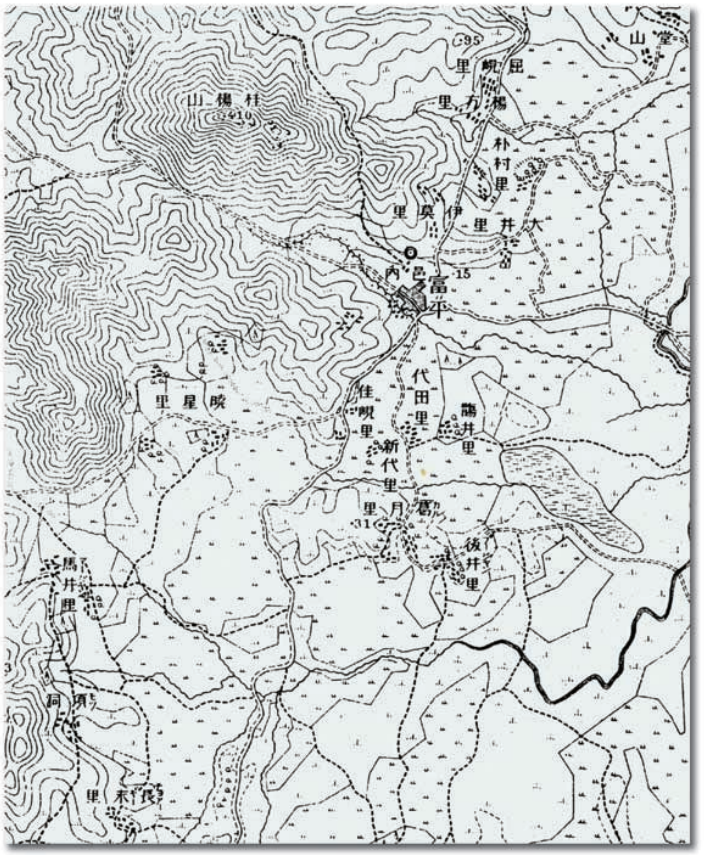
굴포천 중류에 발달되었던 이 저습지를 장택(長澤)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독특한 지형 때문에 우기(雨期)에는 넓어지고 건기에는 축소하는 한강 하류의 배후저습지의 하나였다. 즉 한강으로 유입하는 굴포천 하구 부근은 장택보다 3~4m 높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부평평야의 물을 쉽게 배수하지 못하였으며 한강이 범람할 때는 한강물이 넘쳐 역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1900년대 초엽의 부평은 오늘날의 계양구 계산1동을 중심지로 하여 발달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 지역은 몇 곳의 촌락과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1920년대에 이르면, 1900년대 초까지 습지로 남아 있던 굴포천 인근의 저습지는 상당 부분 개간되어 논농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굴포천 인근 저습지의 농경지화는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평수리조합의 창설에 힘입어 본격화된다. 부평수리조합은 1923년 설립되었으며 몽리구역(蒙利區域)은 경인선 부평역으로부터 한강변 사이에 있는 부평평야 일대였다. 몽리구역의 면적은 약 10,935,000평(3,645정보)으로서 중부지방에서 최대 규모였다. 이로써 침수지 주변에는 제방이 축조되고 관개수로가 확보

되면서 대규모의 저평지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을의 대부분은 저평지보다는 계양산 산줄기의 산록이나 구릉지대에 소규모로 분포하였다.

이 시기에 부평도호부 청사는 부평국민학교(현 부평초등학교)로 용도가 전환되었다. 동헌의 일부를 증축하여 교사로 사용하였고 효용성이 사라진 건물이나 유적지는 철거되거나 혹은 위치가 이전되었다. 부평 읍내의 도로망은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일제시대의 도시 계획 양식을 반영하듯이 격자형 도로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시가지로 드나드는 도로망에서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분화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특히 구한말 지도와 비교해 보면 갈월리(현 갈산동)를 거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도로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평 읍내와 경인전철역이 설치된 부평역사를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운 간선도로로 부상한 것이다.

구한말(1900년대 초) 부평 읍내 일대의 토지 이용



구한말(1900년대 초) 부평 읍내 및 주변의 토지 이용 패턴을 볼 수 있다. 시가지는 주로 군청 남쪽에 전개되어 있고, 주요 도로로는 동북쪽의 박촌리(현 박촌동) 및 귤현리(현 귤현동)로 가는 길, 서북쪽의 경명치를 넘어가는 길, 그리고 남쪽의 갈월리(현 갈산동), 후정리(현 삼산동)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시가지를 제외 하면 각 마을의 규모는 10~20호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우측에는 굴포천이 확인되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의 저평지나 굴포천 일대의 저지대는 논으로 개간되어 있는 반면 굴포천에 인접한 적지 않은 면적의 저습지가 아직 습지로 남아 있었다.

1920년대 부평 읍내 및 주변의 토지 이용 패턴을 볼 수 있다. 시가지가 더욱 성장하였다는 점과 일제 치하에서 격자형 도로망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분화상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구한말 지도와 비교해 보면 특히 갈월리(현 갈산동)를 거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가는 도로가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로는 경인 전철역이 설치된 부평역사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1900년대 초엽까지 습지로 남아 있던 굴포천 인근의 저습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개간되어 논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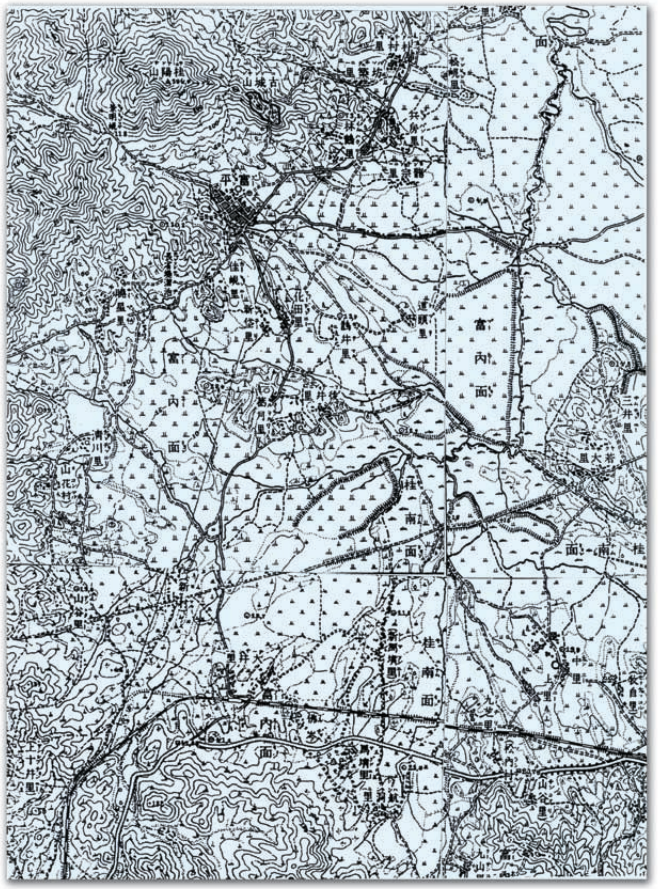
1920년대 부평 읍내 일대의 토지 이용

2) 공간 구조의 재편

부평지역은 인천과 함께 근대화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했던 지역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통과한 경인선 철도는 지역 구조의 재편을 유도하였다. 철도는 근대성의 견인차인 물적 조건으로서, 철도의 가설과 그 변화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다. 부평지역의 근대화 역시 경인선 철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구조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1900년 이전의 부평은 계양산 남사면에 자리한 부평 읍내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수렴되는 지역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부평의 남부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며 가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평 읍내와 새롭게 등장한 부평역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아직 부평지역의 중심지는 여전히 계양산 산록에 위치하지만, 남쪽에 구축된 철도와 국도, 부평 읍내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도로로부터 차후 부평지역의 지역 구조가 남쪽(부평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1896년 한국 정부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제임스 모리스에게 특허해 주었고, 모리스는 인천 우각리(쇠뿔고개)에서 인부 등 350명을 모아놓고 기공식을 가졌다. 그 사이 일제는 모리스에게 집요하게 매수공작을 폈고 그



1920년대의 부평 읍내와
새롭게 가설된 경인선 철도

도 또한 자금난을 비롯한 모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착공한 지 2년 후인 1898년 5월에 부설권과 철도공사 일체를 170만 원에 일본인에게 매도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 6월 18일 시운전되기에 이른다. 경인선이 부설되면서 인천, 우각, 주안, 부평, 소사, 오류동, 노량진, 용산, 경성에 정거장이 세워졌다. 부평역 일대의 취락 발달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계양산 남사면에 자리한 부평 읍내를 중심으로 도로망과 지역 구조가 짜여 있었다. 남쪽에는 새롭게 가설된 경인선 철도 및 넓은 노폭의 국도가 확인된다. 부평 읍내와 부평역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도 볼 수 있다. 남쪽의 경인선 철도, 국도, 그리고 부평 읍내와 부평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 차후의 지역 구조가 남쪽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부평지역에 설립된 부평역과 경인선 철도는 새로운 기능을 끌어들여 그 연변에 이식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부평역 일대의 취락 기능은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평역이 들어선 이후 그 주변에는 서서히 취락들이 형성되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철도를 따라 개설된 46번 국도는 부평역 일대의 성장을 가속화했고, 그 성장의 핵심은 농업이 아닌 상업, 즉 3차 산업이었을 것이다. 즉 부평 읍내는 행정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한동안 유지하겠지만, 부평역 일대는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서 부상할 것임을 의미하였다. 오늘날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은 그러한 상업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지명이다.



2007년의 부평 지역: 경인전철과 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구조

계양구는 부평의 기원지, 즉 원부평(元富平)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부평구는 신부평(新富平)으로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대변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인선 철도와 부평역이 근대화 과정에서 신부평의 성장을 자극한 주된 요인이었다면, 최근 원부평 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와 공항고속도로의 건설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한편 일제시대 동안 부평에는 공업단지가 조성된다. 공업지역으로서 부평의 입지 조건이 매우 유리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한반도의 중심 도시인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해 있어 노동력 수급이나 교통의 편리성이 최적이라는 점, 한강 하류의 풍부한 공업 용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부평에 공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것은 또한 인천이 대륙병참기지화의 핵심 지역이 되어가는 과정과 맞닿아 있었다. 인천 일대에는 각종 군수 공장들이 건설되었는데 이 때 부평지구에 육군조병창을 비롯한 금속 및 기계 공업 등 근대적인 대규모 공업 단지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공장들은 청천동, 부평동, 산곡동을 중심으로 입지하였다. 그 중 청천동에 입지했던 경성공작주식회사는 부평 지역에서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최초의 금속 제품 제조업체였고, 역시 청천동에 입지했던 동양제강은 1949년 당시 자본금이 5,890,920원으로 부평 최대의 공장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부평의 공업지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신진자동차(현 대우자동차), 경성공작소, 수도피아노, 전남방직, 부평제강 등 기계 공업을 위주로 많은 업체가 입지하였다. 1965년 신진자동차는 부평에 설립된 근대적인 자동차조립생산공장인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부평공업단지를 대표하는 업체로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평지역은 대도시권 확장 계획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 부지가 개발되면서 급격히 도시화되었고, 196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공업단지가 효성동에 조성되었다. 그리고 효성동에 인접한 작전동, 계산동에는 광범위한 택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고 부평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신진자동차 발주식(1966)



더욱이 경인고속국도가 청천동과 효성동 사이를 통과하고 부평교차로가 개설되면서 이 지역의 공업 발달은 가속화되었다. 경인고속국도는 1967년에 착공되었으며 총연장이 28.92km였다. 경인고속국도는 국가 수준에서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률을

크게 높여주었는데 특히 부평지역의 공업단지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시대의 금속, 기계 공업에 기원을 둔 부평의 공업은 근대화과정에서 상업 및 금융업의 발전과 연동되었고, 이것은 인구 유입 및 택지 개발, 도로의 확충에 힘입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0년 부천군의 4개 면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부천군에 속해 있던 부평은 다시 인천에 속하게 된다. 1945년 인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부평에는 출장소가 파견되었고, 1968년에는 출장소가 폐지되고 인천시 북구에 소속되었다. 1989년에는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시 북구로 편입되었고, 1995년에 와서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게 된다. 부평구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지이며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부평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다. 공업지역의 경우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에 걸쳐 약 21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평의 기원지라 할 수 있는 계양구 일대는 많은 공간이 군사지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최근 들어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되고 있다. 1979년 계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1984년 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수십만 평의 농경지를 주택 지구로 변화시켰다. 계양구가 부평의 기원지, 즉 원부평(原富平)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평구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대변하는 신부평(新富平)으로서의 지역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현재 부평구의 인구는 205,213세대 570,811인이고, 계양구의 인구는 118,253세대 336,916인으로 집계되었다.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기후와 기상재해

기후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인 상태를, 기상은 순간적이고 개별적인 대기 현상을 의미한다. 즉 장기간에 걸친 기상 현상을 누적하여 종합한 것이 기후인 것이다. 기후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 인자에 크든 작든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위도, 지리적 위치, 수륙 분포, 해류, 해발고도와 지형, 지표면의 피복 상태 등은 기후의 분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인자는 독립적으로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 일대의 기후를 파악할 때는 이 지역의 지리적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리적 인자들은 그 종류에 따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평구를 넘어 인천광역시, 한반도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위도는 지리학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달라져서 일사량의 변화가 생긴다. 만약 지표가 수륙의 분포나 기복이 없이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면 지구의 기후는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등온선도 위도선과 평행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 대로 중위도 지역에 해당된다. 중위도 지역은 대체로 온대성 기후의 특색을 나타내는데, 온대기후는 인간 생활에 가장 적합한 기후로 여겨지고 있다.

※ 이 글은 범선규(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조교수)가 책임집필하였음

지리적 위치는 위도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후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위치에 의한 차이는 같은 대륙의 동안과 서안의 기후 차이를 가져온다. 한반도와 같이 대륙 동안에 위치한 지역의 기후는 수륙, 즉 대륙과 해양의 분포에 따른 영향도 크게 받는다. 대륙은 비열이 작아서 단위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해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 때문에 태양복사에너지가 같은 양으로 주어졌을 때 대륙의 온도가 해양의 온도보다 많이 상승한다. 부평은 경기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는다. 다만, 바다의 깊이가 대체로 100m 미만인 황해는 수심이 이보다 훨씬 깊은 동해에 비해서 기온 조절의 역할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해류는 앞에서 설명한 지리적 인자보다 비교적 좁은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황해에 발생한 해류를 보면,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가 황해안을 따라 북상한 후 한반도 연안과 중국 해안을 따라서 남하한다. 그러나 이 난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 지방까지 북상하기 어렵다. 대륙에서 불어오는 겨울철의 한랭건조한 계절풍은 이 난류 위에서 열대 수증기를 얻어서 겨울철에는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잦다.

해발고도와 지형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간의 기후 차이, 특히 강수량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지형이 만드는 장벽 효과는 바람의지 쪽 사면과 바람받이 쪽 사면의 기후 차이를 가져온다. 인천광역시는 남북으로 발달한 산지에 의해 내륙의 부평구 · 계양구와 여타의 해안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즉, 계양산~철마산~만월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의 산줄기는 부평분지를 감싸면서 황해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부분의 산지가 200m 미만에 그쳐, 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평구의 기후는 해안을 끼고 있는 인천 해안 지역의 그것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소규모의 지형도 지역 조건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기후의 차이를 유발한다. 국지적인 규모의 기후는 지표면의 피복 상태, 즉 식생의 분포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표면의 피복 상태는 태양에너지의 반사와 흡수의 정도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도와 바람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피복 상태가 기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평구가 속해있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는 한반도 규모에서 분류할 때 중부

서안형에 속한다. '중부'는 한반도를 남북 방향으로 구분했을 때 남부와 북부 지방의 중간형에 속한다는 의미이며, '서안'은 서부가 황해(경기만)에면해 있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깊은 표현이다.

중부서안형 기후의 지역적 범위는 북으로 멸악산맥에서 남으로 차령산맥에 이르는 평야 지역으로 황해에 면해있는 곳까지이다. 연평균 기온은 11℃ 내외로 북동내륙의 산간 지역이 다소 높고 남서 임해 지역이 다소 높다. 연평균 기온의 지역적 차이는 주로 겨울 기온의 차이에 기인한다. 인천의 1월 평균기온이 −3.1℃ 내외인 반면에 북동 내륙의 가평은 −6.6℃로 낮다. 이는 황해가 추위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같은 기온의 분포는 식물분포에 영향을 주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강화도, 대청도 등지에 탱자나무, 동백나무 등 난지성 수목이 자랄 수 있게 하였다. 인천의 식생 분포는 한반도 북부 서안과 남부 서안에서 자라는 수목이 섞여 자라는 점이적 특성을 보인다. 인천의 연평균 강수량은 1,100㎜ 안팎이지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여 경기 ·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서는 1,300㎜ 가량의 다우 지역으로 바뀐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탁월하여 경기만의 파도가 높을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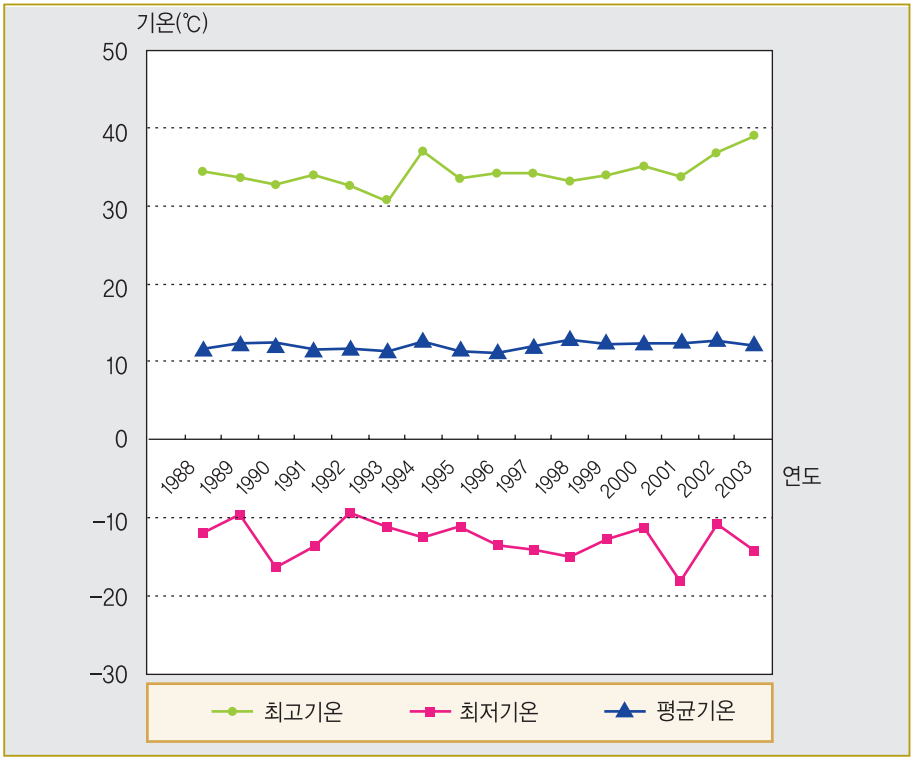
부평구의 기후는 1987~2003년까지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연평균 기온은 대략 11~13℃, 기간 중 최고기온은 약 40℃에 육박하기도 하였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18℃를 밑도는 날도 있었다. 강수량은 802~2,010㎜ 범위에 들어 대체로 1,100㎜ 내외를 보였지만 편차가 많았다. 일조시간은 연간 2,300시간을 기준으로 오르내렸고, 바람은 평균 2~3.5m 속도로 불었으나 최대 20m/s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 부평지역의 이러한 기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냉온(冷溫)에 가까운 편이나 생활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고 소개되기도 한다.

1. 기온

부평지역은 1987~2003년간의 관측값에 의하면 연평균 기온이 11~12℃ 범위에 들었다. 1987년, 1988년, 1991~1993년, 그리고 1995년과 1996년에는 11℃ 대에 머무른 반면 1989년, 1990년, 1994년, 1997년,

1999~2001년, 그리고 2003년에는 12℃대로 상승했으며, 1998년과 2002년에는 13℃를 넘겨 무더웠던 해로 기억되었다. 전년 대비 연평균 기온의 변동 크기는 대체로 ±0.3℃ 범위에 들어 있지만, ±1℃ 이상의 변동을 보였던 해도 있었다. 1998년의 연평균 기온은 1997년보다 1℃가 올랐으며, 1994년에는 전년에 비해 1.4℃가 상승했다가 후년인 1995년에는 1.3℃가 낮아져 가장 큰 변동을 보였다.

부평구의 연 기온(198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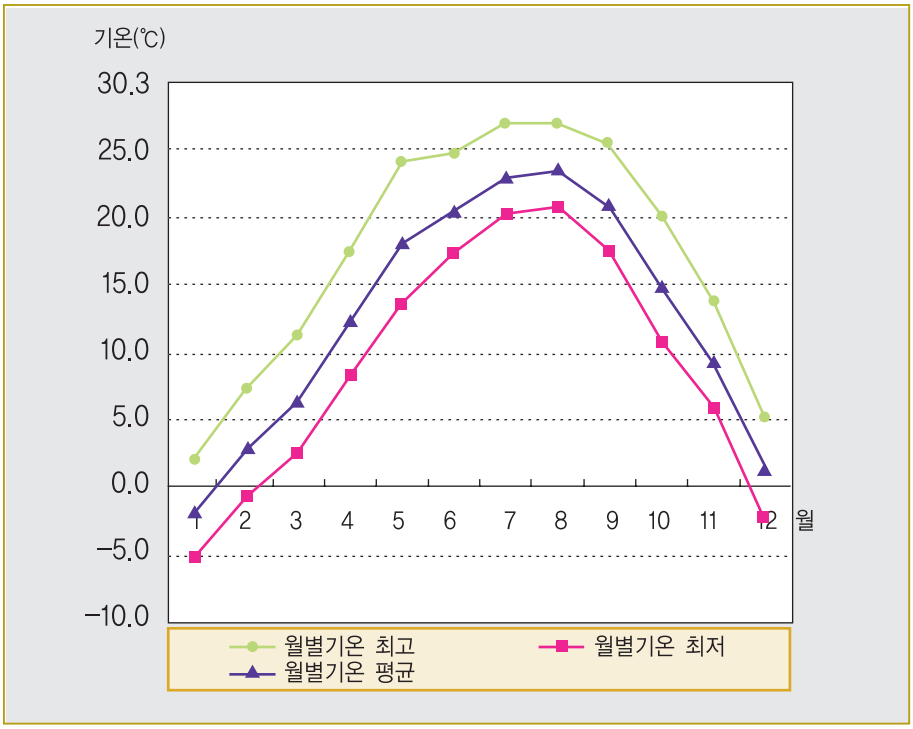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2004

부평지역의 월평균 기온의 분포를 2003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았던 달은 8월과 7월로 23℃ 대인 반면,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2℃를 보이고 있고 연교차가 25℃를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 기온이 연평균 기온 이상인 달(5~10월)과 이하인 달(11~4월)은 각각 반년씩 지속되었다. 월평균 기온이 20℃ 이상을 보인 달은 6월(20.4℃), 7월(23.0℃), 8월(23.4℃), 9월(20.8℃)이다. 부평지역의 이러한 월평균 기온의 분포 추세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월별 기온(2003년)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2004

부평구의 기상 개황

연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h)	바람(m/s)	
	평균	최고	최저	(mm)	평균	최소		평균 풍속	최대 풍속
1987	11.4	30.5	−13.7	1619.0	72.6	20	2335.9	3.4	19.7
1988	11.7	34.5	−11.8	802.4	67.0	19	2621.6	3.3	17.0
1989	12.5	33.8	−9.5	1046.5	69.0	16	2386.0	3.1	17.0
1990	12.3	32.8	−16.2	2009.8	74.2	12	2056.7	3.1	19.3
1991	11.8	34.2	−13.6	1072.6	67.0	11	2395.3	2.9	16.3
1992	11.9	32.7	−9.4	1060.0	71.0	9	2334.0	3.1	15.0
1993	11.5	30.9	−11.0	1170.4	69.0	18	2336.3	3.0	13.7
1994	12.9	37.2	−12.4	1052.5	68.0	11	2531.6	3.0	14.3
1995	11.7	33.8	−11.01	326.2	70.0	16	2507.3	3.1	13.8
1996	11.6	34.4	−13.4	928.6	67.0	11	2456.8	2.8	17.8
1997	12.1	34.3	−14.0	1257.9	69.0	11	2557.5	2.4	20.3

연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h)	바람(m/s)	
	평균	최고	최저	(mm)	평균	최소		평균 풍속	최대 풍속
1998	13.1	33.4	−14.9	1638.1	71.0	5	2326.7	2.3	16.7
1999	12.6	34.1	−12.5	1472.5	67.0	11	2257.0	2.2	16.8
2000	12.7	35.2	−11.1	1159.4	69.0	10	2175.5	3.0	19.2
2001	12.8	34.0	−18.2	1144.5	68.0	12	2325.0	2.6	14.3
2002	13.1	37.0	−10.6	1033.7	68.0	10	2190.8	2.8	15.1
2003	12.5	39.1	−14.1	1702.2	69.0	14	1963.6	2.4	13.1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8 · 1999 · 2004.

부평지역에서 1987~2003년 사이에 나타난 최고기온은 매년 30~39℃, 최저기온은 −9~−16℃ 정도였다. 가장 높았던 최고기온은 2003년의 39.1℃였고, 1994년과 2002년에는 37℃대까지 상승했으나 1987년과 1993년에는 30℃대에 머물렀다. 최저기온은 2001년에 가장 낮은 기온인 −18.2℃를 기록하였으며, 1990년에는 −16.2℃를 보여 매서운 추위를 느껴야 했다. 반면에 1989년과 1992년에는 −9℃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큰 추위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은 세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도권도 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대규모 주거 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부평지역의 시가지와 관련해서 과거의 매서운 겨울철 추위가 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견해는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 중심부 시가지에서 확인된 열섬 현상의 지역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부평지역은 이미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온은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변동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강수량

대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결합하여 커지면 땅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통틀어 강수(降水)라 한다. 강수의 형태는 비 · 눈 · 우박 등 여러 가지로 구별되

는데, 비와 눈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이슬과 서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수로 보기도 하지만, 우량계에 액체 형태로 모아지지 않는 한 강수량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강수량은 지표면의 물수지와 관련되는 기후요소로 기온과 함께 각 지역의 기후 특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강수량 중에서 열대와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강우량,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강설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부평지역의 강수량은 강우(빗물), 강설(눈)에 의한 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특히 부평의 강수 형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의 많고 적음은 그 해의 강수량을 결정하며 이는 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여름철의 강수량은 장마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천의 해안 지대는 증발량이 많은 해양의 영향을 받지만 상승 기류를 일으킬 수 있는 높고 큰 산지가 없기 때문에 지형성 강우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륙의 부평분지지역은 해안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가 있어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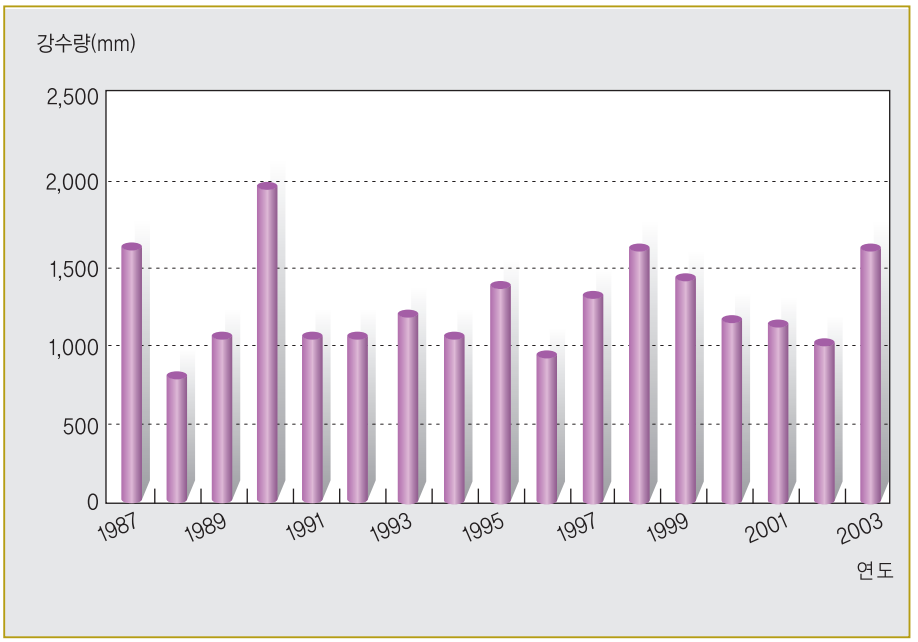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00㎜이지만 지역에 따라 700~1,800㎜ 범위에서 편차가 있으며, 1,000~1,200㎜를 보이는 지역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제주도, 경남 남해안, 전남 남해안으로 1,40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귀포 지방은 1,85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강수량이 적은 지역으로는 경북 내륙 지방으로 970~1,050㎜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습윤한 기후지역에 해당한다.

부평지역에 1987~2003년까지 17년 동안에 내린 연 강수량은 대략 800~2,010㎜ 범위에 들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연강수량의 변동폭은 최대 250%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그것도 최대 200%를 웃돌아 기온, 바람 등 다른 기후 요소에 비해 강수량의 변화는 매우 크다.

1987~2003년 간의 연간 0.1㎜ 이상 강수가 발생했던 일수는 많게는 125일(1987년)부터 적게는 77일(1991년)로 조사되었다. 1987년에는 3일에 하루 꼴로 비나 눈 등이 내린 반면, 1991년에는 5일에 하루 꼴로 강수가 있었던 것이다. 강수일수가 100일을 넘었던 해는 1987년을 비롯하여 2003년(119일), 1990년(119일), 1992년(112일), 1998년(109일), 1993년(107일), 2000년(105일), 2002년(101일)이었으며, 이 가운데 1990년, 2003

년, 1998년, 1987년은 강수량이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그러나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부평구 강수량(1987~2003)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3 · 1999 · 2003.

이 기간 중 1990년에는 최대 연 강수량인 2,010㎜가 쏟아졌고, 1988년에는 최소인 802㎜가 관측되었다. 이 외에도 2003년과 1998년, 1987년에는 예외적으로 많은 1,600~1,700㎜가 내렸으며, 1999년과 1995년에도 다소 많은 양의 강수가 있었다. 반면에 1988년과 1996년에는 연 강수량이 1,000㎜에도 미치지 못해 가뭄에 시달려야 했다. 이 해에는 연중 강수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

사실, 부평지역을 비롯한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홍수와 가뭄은 전통적으로 농경을 생업으로 삼았던 시기에는 매년 닥치는 과제 중의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홍수나 가뭄에 관한 기록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선조 3년(1570) 7월 20일 기록은 '인천, 양천에 13~14일 이틀간 큰비가 내렸고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몰되었다. 영남의 서남 지방 열 세 고을에 이달 6~7일에 폭풍우로 인하여 벼곡식이 모두 손상을 입었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

히는 등 재해가 매우 참혹하였다.' 고 전하고 있고, 인조 5년(1627) 7월 14일에는 '인천, 부평, 안산, 광주, 파주, 여주 등지에 사나운 바람과 심한 비가 밤낮으로 번갈아 일어나서 곡식이 모두 쓰러졌고, 인천, 부평, 안산 등 세 고을에 해일의 변까지 겹쳤다.' 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강수 형성과 밀접한 것으로 대기 중 수증기의 양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은 상대습도와 절대습도로 나타낸다. 상대습도는 단순히 습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강수가 형성될 포화 상태와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습도는 단위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대량을 중량이나 압력으로 표시한 습도이다.

부평지역의 경우 1987~2003년 간의 평균습도는 67~74% 사이에 들어 있으며, 최소습도는 5~20%로 연도 간 편차가 평균습도보다 훨씬 크다. 평균습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90년으로 같은 기간 중에 최대 강수량을 보였던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타의 해에서 보이듯 평균습도와 강수량 사이에서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연평균 습도의 지역별 차는 ±8 이내로써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지 않으나 동해안 지방과 북부 내륙 지방이 다소 낮아서 60% 내외이며 해안 지방은 70% 내외이다. 계절별로는 겨울에 대체로 낮고 여름에 높으며 여름철 해안 지방은 80% 정도에 이른다.

부평지역의 월별 상대습도를 2003년 관측값을 토대로 살펴보면 8월이 81%로 가장 높고 다음은 7월 80%, 6월 77%, 9월 76% 순이다. 나머지 8개월은 연평균인 69%에 미치지 못했으며, 10월은 62%로 가장 낮았고, 1월 64%, 3~5월은 각각 65%에 머물러 건조한 달이 지속되었다.

3. 바람

바람은 기온, 강수량과 더불어 중요한 기후 요소이다. 바람은 그 자체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인간의 체감온도에도 영향을 준다. 바람은 증발을 촉진시키므로 바람이 불 때는 피부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름철 무더울 때의 바람은 체감온도를 낮추어 불쾌지수를 떨어뜨리

고, 겨울철에는 냉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추위를 느끼게 한다.

한반도는 대륙기단과 해양기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약 반 년을 주기로 풍향이 달라진다. 때문에 대륙기단의 세력이 확장하는 겨울철에는 대체로 북서풍이 많고, 반대로 해양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남풍이 많이 분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눈에 띠게 뚜렷한 탁월풍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풍향은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특수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연중 거의 일정한 방향의 바람만 탁월하게 불기도 한다.

1971~2000년에 관측된 인천의 탁월풍은 북서풍과 남서풍 계열이다. 북서풍 계열은 겨울과 가을철의 탁월풍인데 북서풍, 북북서풍, 서북서풍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의 북서풍은 체감온도를 실제 기온보다도 훨씬 낮추는데, 인천 내항에는 이 계열의 탁월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이 축조되어 있다.

남서풍 계열은 여름철과 봄철의 탁월풍이며, 남서풍, 남남서풍, 남풍 순으로 많이 불었다. 봄에는 주된 풍향인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 이어 북서풍 계열의 바람도 적지 않게 불었으나, 여름에는 주된 풍향인 남서풍 계열 이외에는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나 있다. 가을에 주 풍향은 다시 북서풍 계열로 바뀌어 북서풍이 10%를 넘어섰고, 북북서풍과 북풍도 10%에 근접하고 있다. 겨울에 가장 많이 분 바람은 북서풍으로 10%를 훨씬 초과하였고, 북북서풍도 10%를 약간 웃돌고 있으며, 서북서풍은 거의 10%에 다가서 있다.

부평 시가지의 바람은 주변 농촌 지역에 비해 다양한 높이의 건물 등에 의해 도시지표가 기복이 크고 도시 구조물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온 현상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부평 시가지의 건물, 특히 아주 복잡한 스카이라인을 지닌 건물군은 도시 상공이나 도시 주변의 공기 유동에 있어 강력한 마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풍향과 풍속이 시간적 · 공간적으로 아주 급속히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교란 작용이 발생한다. 그 결과 평균풍속은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낮다. 때문에 부평지역에서는 폭풍이 부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부평구통계연보』(1993)에 의하면, 1991년에는 이례적으로 폭풍발생일수가 31일에 달했다. 이 같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대체로는 연간 3일 이하에 그쳤다. 폭풍발생은 거의 전부 태풍 통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태풍과 관련된 자연재해도 홍수, 가뭄, 해일 등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6년(1531) 윤6월 11일의 '인천, 용인에 비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나무가 꺾이고 벼가 쓰러졌다'는 기록과 『조선왕조실록』 명종 13년(1558) 7월 6일에 기록되어 있는 '비바람이 크게 일어 나무가 뽑히거나 꺾이고 지붕의 기와도 날아갔다'는 기록은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재해복구현장(1993년 7월)

부평지역의 평균풍속, 즉 10분간 분 풍속의 평균은 2.2~3.4㎧ 범위에 들어 있으며, 연간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 최대를 보인 해는 3.4㎧를 기록한 1987년이고, 최저를 보인 해는 2.2㎧를 보인 1999년이다. 최대풍속, 즉 평균풍속의 최대값은 13.1~20.3㎧ 범위에 들어 있다. 최대 평균풍속을 보인 해는 20.3㎧를 기록한 1997년이고, 최저 평균풍속을 보인 해는 13.1㎧에 머문 2003년이다.

풍속 2.2~3.4㎧는 보우퍼트 풍력 계급에 의하면 2등급인 남실바람(light breeze)에 해당한다. 남실바람은 얼굴에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의 풍력을 지닌 바람이다. 풍속 13.1㎧는 6등급인 된바람(strong breeze), 풍속 20.3㎧는 8등급인 큰바람(gale)에 해당한다. 된바람은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전선이 흔들리며 우산 받기가 어려울 정도의 바람이며, 큰바람은 잔가지가 꺾이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는 바람이다. 보우퍼트 풍력 계급(Beaufort wind scale)은 정온(靜穩, calm) 상태인 계급 0에서부터 강력한 태풍 상태인 12(hurricane; 싹쓸바람, 32.7㎧)까지 13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도시화와 산업화는 도시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가지 주변 40㎞ 범위 내에서 여름철 강수 현상은 물론이고 강설, 운량, 안개, 서리, 우박, 천둥, 번개 등의 여타 기상 현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될수록 천둥과 번개, 우박, 돌풍, 폭풍,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평 시가지의 기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강우, 강설, 운량, 안개, 서리, 우박, 천둥, 번개 발생에 끼친 영향은 기온의 경우와는 달리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들 변화는 여러 요인, 즉

기온 상승에 의한 대기의 상승 작용, 기계적인 교란에 의한 대기의 수직 운동, 응결핵의 증가, 그리고 공업화에 따른 수증기의 증가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 일기일수 (단위: 일)

연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천둥·번개	폭풍
1987	91	90	125	35	78	15	6	9
1988	118	81	87	47	33	23	8	3
1989	102	113	98	66	53	17	16	3
1990	95	137	119	53	58	24	20	11
1991	125	139	77	78	45	24	19	31
1992	105	96	112	80	54	22	22	1
1993	99	98	107	63	64	18	17	–
1994	128	82	97	50	50	15	18	1
1995	114	84	90	69	30	23	17	–
1996	127	105	94	59	41	18	11	9
1997	145	61	86	74	51	17	20	11
1998	109	84	109	47	58	25	17	11
1999	126	84	97	47	65	12	14	7
2000	99	76	105	32	61	23	10	6
2001	105	93	83	45	62	35	17	1
2002	107	84	101	50	58	22	22	1
2003	91	98	119	45	36	13	14	0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3 · 1999 · 2003.
※ 강수일은강수량이 0.1㎜ 이상인 일수를 합한것이다.

부평지역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가 강우, 강설, 운량, 안개, 서리, 우박, 천둥, 번개, 폭풍 등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에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심화된 1980년대 이후의 자료는 『부평구통계연보』에 소략하나마 남아 있다. 1987년 이후 나타난 강수, 강설, 운량(맑음과 흐림), 서리, 천둥과 번개, 폭풍 등의 발생 측면에서 볼 때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가 어렵다. 물론 17년간이라는 시간은 기상이나 기후의 경향성을 찾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 굳이 제시한다면 제시되어 있는 모든 일기 현상들은 매년 들쭉날쭉하게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해가 나타난다는 점 정도인 것 같다. 이것도 1970년대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어떤 '경향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의 농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홍수[강우, 강설, 폭풍, 해일], 가뭄, 서리뿐 아니라 우박, 천둥과 번개 등의 발생도 전통사회에서 관심사의 하나였다. 이러한 기상 현상은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천변지이(天變地異), 즉 천지자연의 변동 징조나 괴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부평(인천)지역의 우박, 천둥 · 번개에 관한 주요 기사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우박	태종 17년 8월 28일(신해)	인천에 우박이 내려 곡식이 손상되었다.
	중종 16년 3월 15일(정묘)	경기 9개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 18년 윤4월 24일(갑자)	경기(19개 고을), 평안도(4개 고을), 황해도(4개 고을), 강원도(2개 고을) 등지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 23년 4월 13일(갑인)	경기(3개 고을)와 황해도(해주)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 23년 5월 9일(기묘)	경기(5개 고을), 충청도(5개 고을), 전라도(3개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명종 4년 3월 13일(계미)	경기(6개 고을)와 충청도(2개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명종 11년 5월 7일(갑자)	인천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크기가 계란, 새알, 개암만 했다. 보리 종류가 모두 손상을 입었고 참새도 35마리가 나무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명종 12년 3월 19일(임신)	인천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으며, 크기가 콩만 했다.
	명종 15년 4월 2일(정유)	개암만 한 우박이 부평, 개성부, 양주, 이천에 내렸다.
	명종 16년 8월 5일(임술)	부평, 강화, 양천, 양지, 지평에 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큰 것은 계란만 했고, 작은 것은 개암만 했다. 벼와 기장이 떨어지고 손상되었다. 여주와 이천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크게 불면서 우박이 내렸다. 큰 것은 오리알만 하고 작은 것은 꿩알만 하였다. 우박이 들에 눈처럼 쌓였으며, 크고 작은 날짐승들이 우박을 맞아 수없이 죽었고 모든 곡식이 다 쓰러지고 상하였다. 나무가 부러지고 뽑혔으며 기왓장이 부서졌다.
	인조 9년 9월 23일(갑오)	경기도(10개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인조 26년 4월 16일(경술)	부평에 우박이 내렸다.
	영조 13년 3월 25일(계축)	부평 등 16개 군현에 우박이 내렸다. 그 크기가 새알만 했다.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천둥·번개	중종 18년 11월 4일(경오)	경기(5개 군현)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중종 20년 9월 16일(임신)	인천에 천둥소리가 진동하였다.
	중종 20년 11월 8일(임술)	인천에 천둥소리가 진동하였다.
	중종 22년 11월 22일(병신)	경기(인천), 황해도(3개 고을), 전라도(2개 고을), 경상도 (18개 고을)에 천둥이 쳤다.
	중종 38년 11월 4일(갑진)	인천과 안성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명종 1년 10월 14일(무술)	부평, 고양, 이천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다.
	명종 14년 10월 9일(병오)	인천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황해도, 청홍도, 평안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명종 16년 11월 25일(임술)	부평에 천둥, 번개가 치고 눈이 내렸다.
	영조 12년 12월 4일(계해)	부평, 인천, 김포, 양천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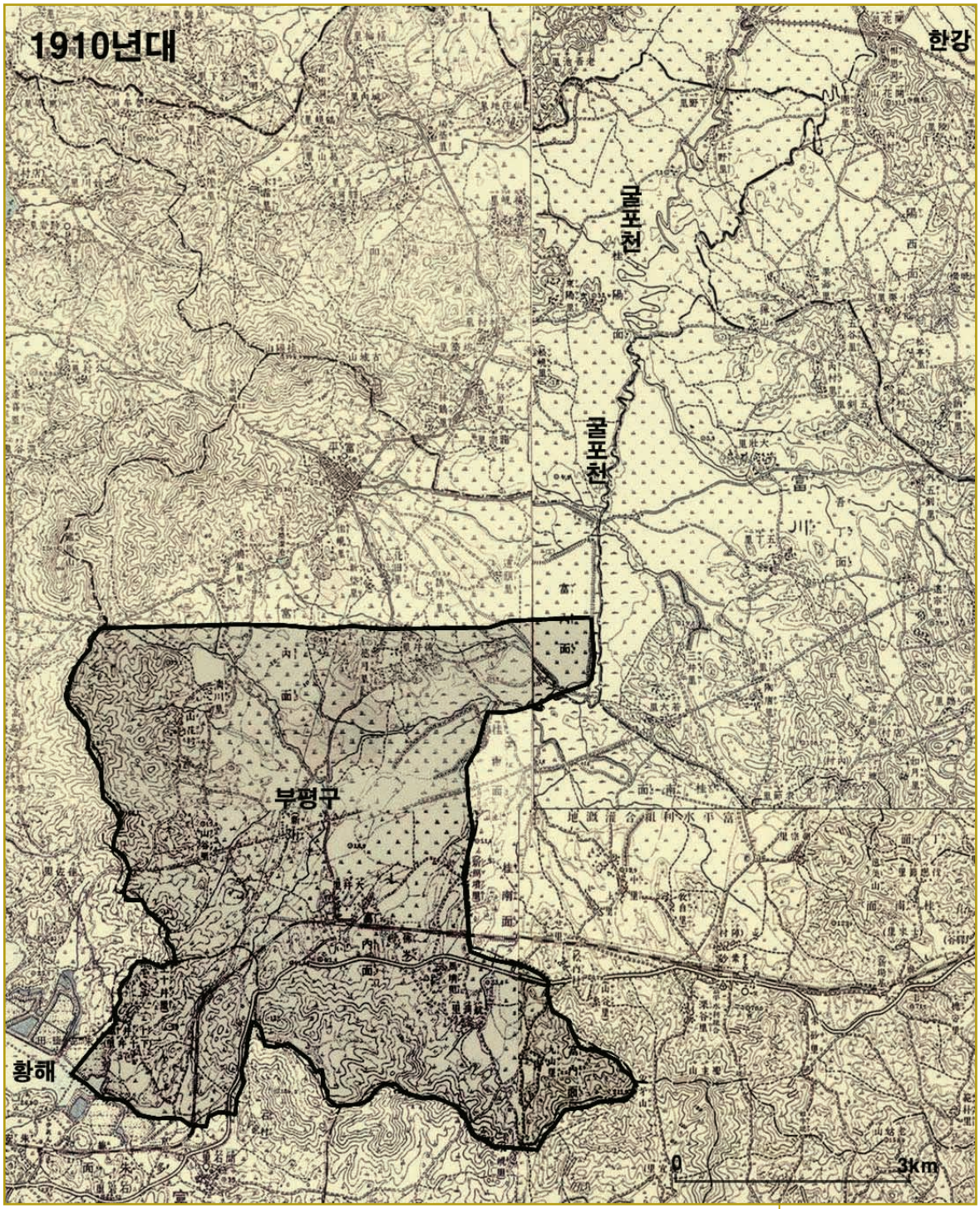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스템(주), 『CD-Rom 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 1998.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사자료집(Ⅰ)』, 2003.

제2절 지형과 지질

1. 지형과 행정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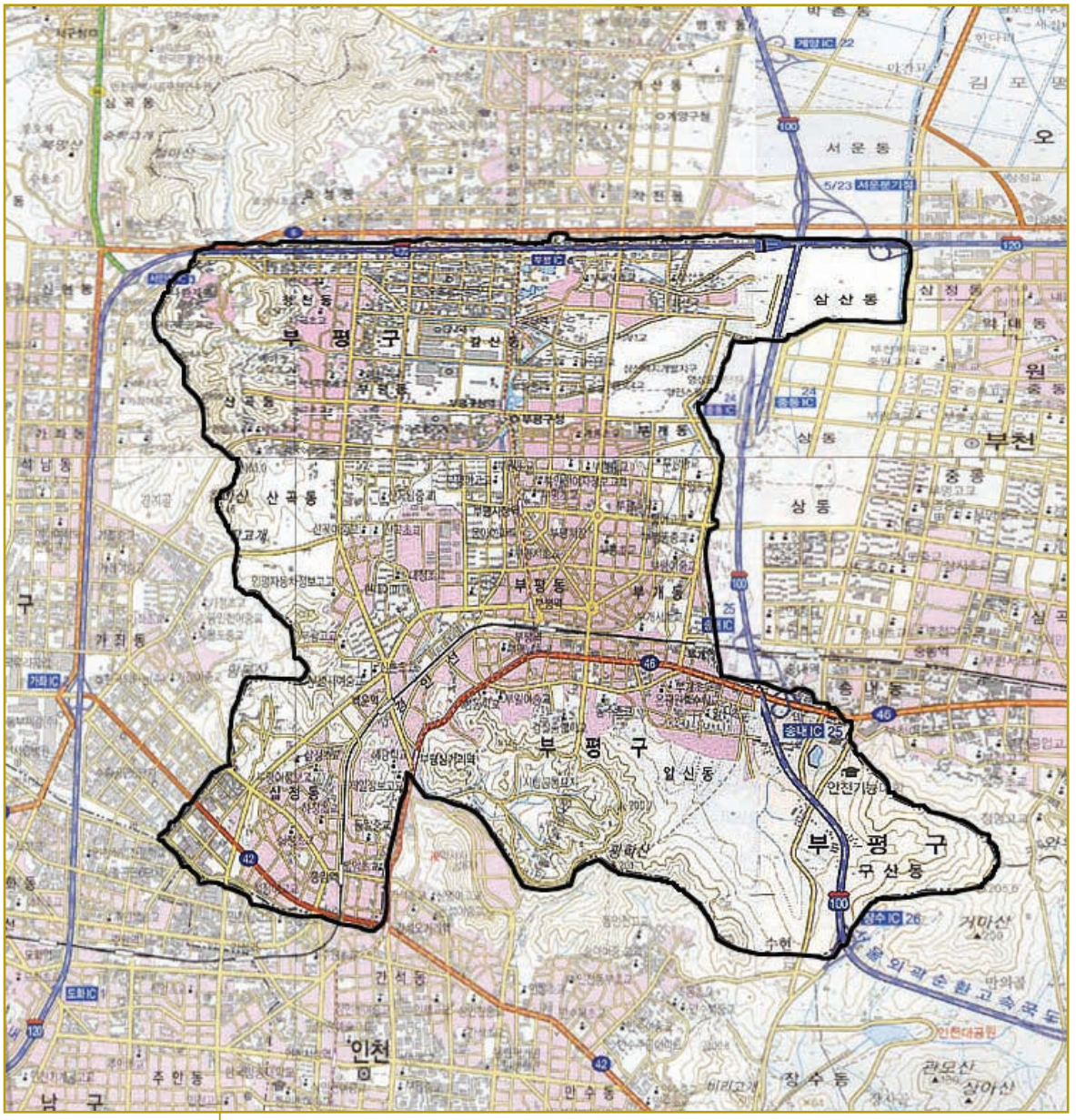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북동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평구의 북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쪽은 인천광역시 서구, 남쪽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서부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잇대어 있다. 반면 동쪽은 인천광역시를 벗어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소사구와 맞닿아 있다. 특히 계양구와는 굴포천을 통하여 연결되는 하나의 유역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굴포천은 한강으로 유입된다. 부평구 관할구역은 동·서간 7.5㎞, 남·북간 6.6㎞인 사각형에 가까운 모루 모양을 하고 있다.

※ 이 글은 범선규(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조교수)가 책임집필하였음



출처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관련도엽, 1918)

부평구와 굴포천 ,그리고 한강



부평구와 주변지역

출처 : 동아지도, 초정밀 1: 50,000지도, 랜덤하우스중앙, 2005

'부평구' 라는 행정 지명은 1995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같은 해 3월 1일부터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동시에 기존의 인천직할시 북구가 남쪽은 부평구, 북쪽은 계양구로 분리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는 인공 시설물인 경인고속국도를 따라 설정되었다.

행정 지명 '부평'의 사용 역사는 짧지 않고, 각각의 시기에 따라 지리적 범위가 달랐다. 부평은 삼국시대 이후 경기만으로부터 한강과 예성강을 통하여 한반도의 중앙부인 개성과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전략적 위치였을 뿐 아니라 상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 활동의 요지였다. 이 같은 입지 요인은 이 지역의 잦은 행정구역 변천을 가져 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평'의 행정 경계 설정 시 지리적 조건, 특히 하천, 산지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산지와 하천을 행정 경계 설정에 활용하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부평구는 약 570,000명이 22개 행정동(8개 법정동)으로 편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인구과밀지역이다. 부평구의 면적은 약 32㎢이며, 이 중 약 15%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한 부평구 안에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약 22%가 살고 있는 것이다.



부평구와 계양구의 행정경계인 경인고속국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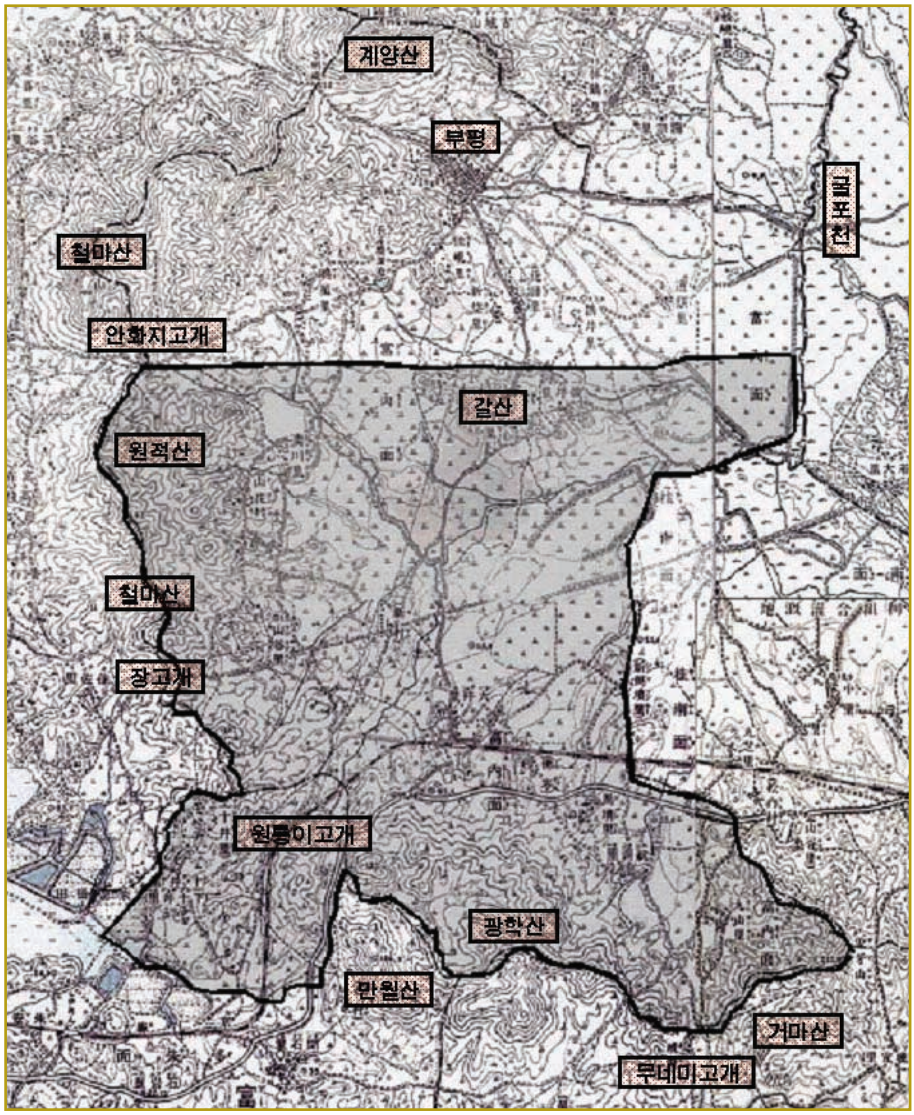
부평구와 계양구의 행정경계인 경인고속국도(2)

왼쪽벽 위로 경인고속국도가 놓여 있으며, 오른쪽의 건물은 수출 공단 4단지의 공장이다.

2. 산지와 고개

부평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산지는 섬 지역을 제외하면 대략 남북 방향으로 연속성을 보인다. 남북 방향의 산지는 남쪽으로부터 소래산(299m), 성주산(217m)이 각각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며, 이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거마산(205m), 무네미고개, 만월산(201m)과 광학산(일명 철마산, 201m)으로 이어진다. 산줄기는 이후 원통이고개를 지나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잡아 함봉산(61m), 장고개, 철마산(146m, 산곡동), 원적산(199m), 안하지고개, 철마산(227m, 효성동)을 지나 계양산(395m)에 이른 다음, 북서쪽으로 100m 내외의 구릉지를 남기면서 빠져 나간다.



부평구일대의 주요 산지와 고개

광학산~계양산에 이르는 남북방향의 산지는 주로 결정편암이나 화강반암

류가 기반암을 이룬다. 이들 암석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풍화에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이 산지의 봉우리들은 경사가 급한 곳이 많고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 산지에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동부의 부평 · 계양구와 여타 지역을 분리하는 행정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동부에는 굴포천을 따라 충적지가 넓게 발달한 반면 여타 지역인 동 · 서 · 남 · 중 · 남동 · 연수구 등지는 해안을 끼고 있다. 남북 방향의 산지에는 인천지역에서 높은 편인, 고도가 200m 이상의 산지가 있어서 인천의 구 시가지와 부평, 서울, 김포 등 주변과의 교통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남북 방향의 산지에서는 동서 방향의 산지들이 지맥처럼 뻗어나가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소래산에서 서창동을 지나 선학동, 문학산(213m)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산지가 그것이다. 동서로 길게 놓인 이 산지들은 산줄기는 짧지만 연속성도 보이며, 옛 시가지의 산지들보다는 높고 크다. 이 산지를 따라 제2경인고속국도가 지나고 있다. 문학산 남쪽으로 청량산(172m)이 자리하고 그 남쪽 끝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중이다. 문학산은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인천 옛 시가지에는 월미산(93m), 응봉산(69m), 송림산(59m), 도화산(51m), 수봉산(112m) 등의 낮은 구릉지들이 남아있다. 이 구릉지들은 한때 인천의 시가지가 남쪽으로 확대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심 속의 녹지 공간으로서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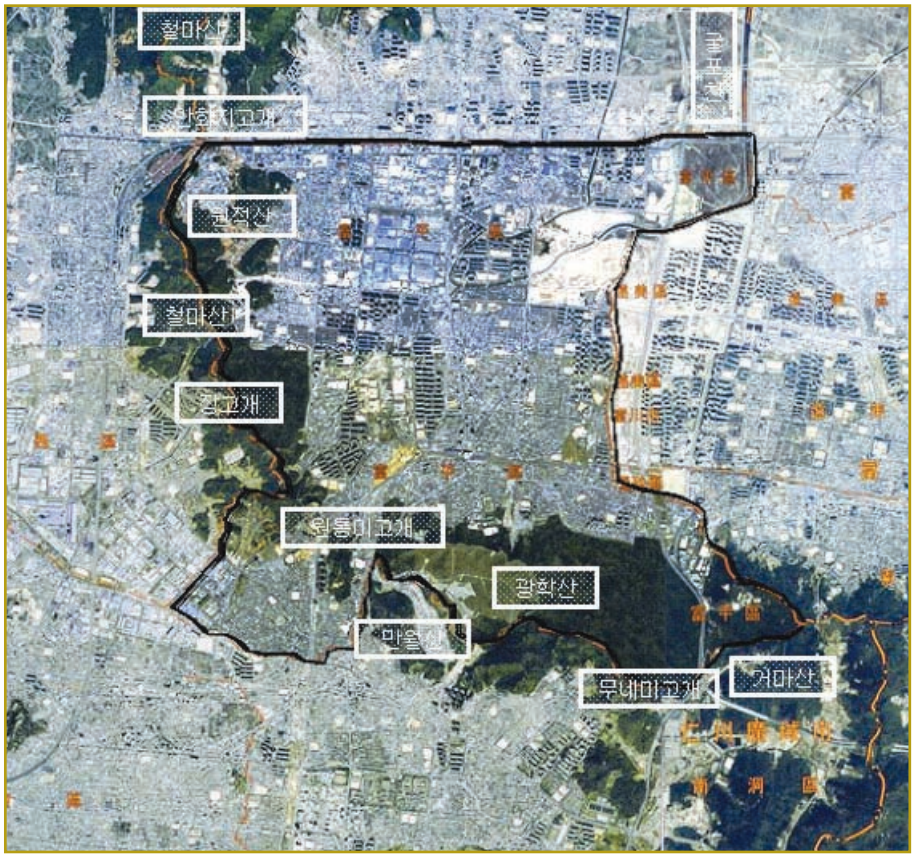
부평구의 산지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부평분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평분지는 서~남부에 걸쳐 연속된 산지, 즉 계양산에서 시작하여 남으로 철마산, 원적산, 만월산, 거마산으로 이어진 산지와 성주산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원미산, 춘의산까지 연결되는 산지로 둥글게 에워싸인 땅이다. 서~남부 산지는 부평 · 계양구와 서 · 남 · 남동구와 경계를 이루며, 성주산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경계에 솟아 있다. 둥근 고리모양의 분지 내부는 해발 10~20m의 저지대이며, 인천광역시 부평 ·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 · 오정구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부평분지(위성사진)

부평분지의 수계는 굴포천으로 모아진 다음 열려있는 북동쪽으로 흘러나가 한강에 합류된다. 환상구조를 이루는 산릉들은 주로 화산쇄설암류, 화강암류 및 규장질 반암류이고, 환상구조의 외측에는 심하게 풍화를 받은 경기편마암복합체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환상구조의 안쪽 저지대는 충적층으로 덮여 있으나 서북부, 동남부 및 동부 외곽을 따라 화강암이 노출되어 있다.

『한국지구과학학회지』 제12권 3호(1991)에 게재된 권병두와 황희승의 공동 연구 「부평 칼데라의 중력연구」에 의하면 부평분지의 내부는 대보화강암체, 주변은 경기편마암복합체로 구성된 화산 기원의 칼데라로 판단된다. 이 칼데라는 지름이 남북으로 12㎞, 동서로 9㎞로, 남북 방향의 지름이 약 1.33배 정도 더 큰 타원형의 지표단면을 가진다. 수평단면이 지하 3㎞ 깊이까지는 작아져 칼데라는 화강암 저반의 일부가 찻잔 모양으로 솟아 올라온



부평분지 서부와 남부의 산지(위성사진)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평분지 지역은 중생대 이전부터 퇴적되어 있던 편마암, 편암 속으로 화강암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암석의 성질이 바뀐 변성퇴적암이 지층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변성퇴적암들은 고생대~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에 습곡작용을 받았다. 이후 중생대 쥐라기~백악기에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있었다. 그 결과 변성퇴적암층 밑바탕 위에 화산 분출로 형성된 용결응회암, 유문암, 응회암 등의 화성암들이 쌓여 부평분지를 경계 짓는 산지가 되었다.

부평분지에서의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다수의 지진 발생 기록도 관심을 끈다. 이 지진 활동은 부평칼데라의 형성과는 무관하지만 부평분지 일대의 지질구조와 지각운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부평 일대의 지진발생기록

일시지진	발생 지역
세종 8년 2월 9일(계유)	부평, 양천, 김포 등지
연산 9년 8월 23일	경기(26군현) 전라도(3개 군현, 익산, 용안, 함렬)
중종 11년 6월 27일(정축)	수원, 인천, 이천, 양성
중종 15년 3월 17일(을사)	경성, 경기(7개), 충청도(면천)
중종 15년 4월 8일(을축)	경기(7개), 충청도(면천)
중종 38년 1월 26일(신미)	충청도(1개 현), 경기(6개 군현)
명종 1년 5월 23일(무인)	황해(2개 군현), 경기(26개 군현), 충청도(6개 군현)
명종 6년 12월 30일(계미)	부평명종 11년 4월 4일(임진)부평, 교동, 황해도(해주, 신천, 옹진, 송화, 장연)
선조 32년 6월 8일(을유)	인천
숙종 23년 윤3월 16일(병신)	인천, 김포, 부평

출처: 서울시스템(주), 『CD-Rom 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 1998.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사자료집(Ⅰ)』, 2003.

한편, 부평구의 산지와 관련해서 산을 분수령 그 자체(山自分水嶺)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초부터 지도상에 반영되어 왔으며, 19세기 직전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山經表)』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19세기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산경표』에 따르면, 인천의 산줄기는 속리산(1,057m)에서 갈라져 북서쪽으로 뻗어가면서 한강 유역과 경기 서해안 지역을 나누는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에 속한다. 한남정맥은 인천의 남동쪽 접경에 솟은 성주산을 지나 비루고개-금마산-주안산[滿月山]-원통고개-장고개-원적산-천마산-계양산-피고개산을 지나 계양구 둑실동에서 서쪽 방향의 김포 쪽으로 휘어져 가현산-약산-문수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 산줄기가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속리산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으로 물줄기가 갈리는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는 어디까지나 분수계 개념에 기초한 산줄기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지질구조선에 기초

한 산맥 체계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부평이나 인천의 산지를 『산경표』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분수계와 그에 따른 생활권 구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질구조선에 기초한 산맥 체계 속에서 이해하면 이 지역의 지체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형과 지질구조 파악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1) 서부의 산지와 고개

부평구의 서부, 즉 안하지고개~원통이고개에는 150m 내외의 산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산지에는 원적산(199m), 철마산(산곡동, 146m)이 솟아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 등과 경계를 이룬다. 이 산지는 전통적으로 인천의 내륙(부평)과 해안(원인천)을 나누는 경계로 작용하였다. 과거에는 양 지역 간 교통의 큰 장애가 되었으나, 1972년 관통 도로인 원적산길이 뚫렸고 2004년 천마터널이 개통되는 등 두 지역 간 교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 안하지고개

안하지고개는 부평구 청천동, 계양구 효성동과 서구 가정동을 동서로 이어주는 고개이다. 전통적으로 내륙의 부평과 해안 지대인 서구를 잇는 주요 교통로의 하나였다. 이 고개는 조선 후기에 충청·전라·경상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대동미를 한양으로 운반하던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 고개가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종류의 지명 전설로도 뒷받침 된다.

안하지고개와 관련된 지명 전설 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주인공인 전설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시켜 새 도읍지를 찾게 하였는데 부평 땅에 이르러 지세를 보니 땅이 넓고 기름져 도읍지가 될만한 곳이었다. 부평의 골짜기를 세어 나가는데 이곳이 아흔 번째가 되어 고개 이름을 구십현(九十峴)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그것이다. '안하[아]지고개' 지명 전설은 고개가 있는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연못이 만들어지고, 이 연못에 항상 기러기들이 살고 있어 안하지(雁下池)라 했다는 전설, 그리고 삼남의 대동미를 서울의 경창으로 운반할 때 이곳에 주



안하지고개와 경인고속국도

막이 생겨 인부들이 쉬어갔는데 그 때 주모 이름이 안아지(安阿只)였다는 전설 등이 있다.

오늘날 안하지고개로는 경인고속국도와 6번국도가 나란히 통과하며, 이 고개 북쪽에는 계양구 효성동과 서구 가정동의 경계를 이루는 또 다른 철마산(227m)이 계양산을 등지고 솟아 있다.

(2) 원적산



산곡동 쪽에서 바라본 철마산(원적산)

원적산의 가장 남쪽 끝자락에서 산줄기가 동남쪽과 서남쪽 두 갈래로 갈라진다.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해발 120여 미터인 호봉산 산정부를 지나 부평도서관, 백운공원, 신동아아파트(십정동) 배후의 구릉지를 지나 원통이고개를 가로지른다. 이 산줄기는 경원로변에서 절개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분수계에는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함봉산(61m), 범박골을 지나 열우물길을 경계로 주택지로 전환된다.

(3) 철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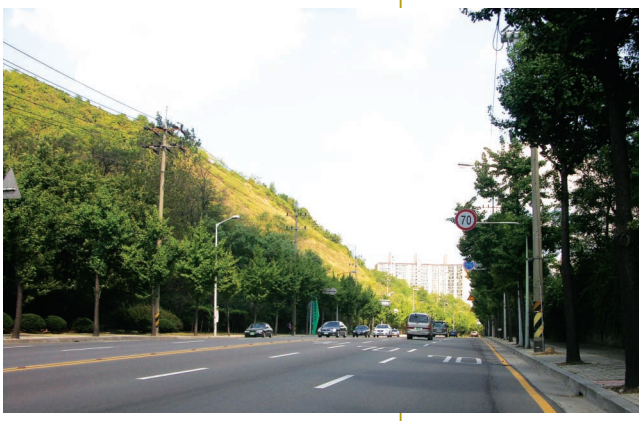
천마터널

부평구 주변에는 모두 3개의 철마산이 국가 기본도인 지형도에 올라 있다. 부평구와 서구 경계의 철마산(산곡동, 146m)' 부평구와 남동구 경계의 철마산(일신동, 201m), 그리고 계양구와 서구 경계의 철마산(효성동, 227m)이 그것이다. 일신동 철마산은 동아지도가 제작한 초정밀 1:50,000 지도

(랜덤하우스중앙 발행)에 '광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에서 발행한 『인천의 산과 하천』(2005)에 의하면 산곡동 철마산은 본래 아기 장사의 전설 때문에 '천마산'으로 불리었는데, 읽히는 소리를 그대로 정리하여 지금은 '철마산'으로 잘못 부르고 있으며, 아울러 세 철마산에 대한 정확한 지명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시설이 제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원적산에 있는 '철마정'과 원적산을 관통하는 '천마터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2004년에 개통된 천마터널은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석남동을 잇는, 길이 2,269m인 각각 2차로인 두 개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터널이다.

(4) 원통이고개

부평구 서부 산지의 남쪽 끝에 자리한 원통이고개는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사이의 나지막한 고개이다. 이 고개의 북쪽에는 서부 산지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함봉산(61m)이 산세를 낮추며, 동쪽에는 남부 산지가 시작되는 철마산(일신동, 201m, 일명 광학산)이 다시 산세를 높인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한 말안장과 같은 통로로는 경인선 철도와 전철(국철), 인천지하철, 46번 국도(경인로), 경원로 등 인천의 도심과 부평, 부천, 서울을 잇는 핵심 교통로가 통과한다.



함봉산과 경원로

원통이고개에는 조선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명 전설이 있다. 충청·전라·경상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실은 배는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의 염하(鹽河)를 항해한 후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경창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항상 염하의 '손돌목'이 뱃길에 큰 장애가 되어 고충이 많았다. 조정에서는 뱃길을 단축하고자 일종의 운하인 굴포(掘浦)를 착안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중종 때에는 운하를 파는 굴포 작업을 시작하여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과 부평평야를 거쳐 부평삼거리 부근의 구릉지에 다다랐다. 그리고 한편 현재의 인천 북항 부근 해안 쪽에서도 갯골을 지나 내륙으로 굴포 작업을 하여 지금의 간석오거

리 부근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고개(구릉지)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있어 파내지 못하고 말았다. 이후 그간의 숱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를 파내지 못해 운하 건설, 즉 굴포 사업이 허사로 돌아갔으므로 원통하다고 '원통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굴포 사업은 이미 고려 고종(재위 : 1213~1259) 때에 구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평구 서부 산지에는 안하지고개, 원통이고개 이외에도 절고개, 장고개, 구르지고개 등이 있다. 절고개는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의 원적산에 나있던 고개이며, 고갯길이 지나는 건지골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고개, 건지골고개, 원적산고개라고도 불렀다 한다. 장고개는 철마산(산곡동)과 함봉산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부평(산곡동)에서 인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전쟁 후 인근에 군 주둔지가 설치되어 고개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구르지고개는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선 산곡동 옛 화랑농장 터와 서구 가좌동 사이의 고개로, 천일염과 수산물(생선류) 유통에 한 몫을 했던 고개이다.


장고개

2) 남부 산지

원통이고개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린 산줄기는 남동구, 부천시 소사구와 경계를 이루는데, 만월산(187m), 광학산(일명 철마산, 금마산, 201m), 비루고개, 무네미고개를 가로질러 거마산(209m)으로 이어진다. 이 산지는 서부 산지보다 면적이 더 넓고 해발고도도 높다.

(1) 만월산

만월산은 주 봉우리가 부평구와 경계를 이루는 남동구 간석동에 자리잡고 있다. 약사사라는 사찰과 약산공원이 있어 약산(藥山)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통산, 선유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2) 광학산

광학산(일명 철마산, 금마산)은 부평구 부평동·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장수동 사이에 동서 약 6㎞, 남북 대략 3㎞ 정도에 걸쳐 있다. 이 산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1번 출구 맞은편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고가도로) 밑의 무네미고개에서 해발고도를 크게 낮춘다. 광학산은 부평 분지 남쪽에 위치하여 부평시가지와 남동구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남북 간의 흐름을 더디게 하여, 오래전부터 내륙의 부평과 연안에 인접한 남동 두 지역의 생활권을 나누는 분수계가 되었다.

이러한 접근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산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뚫었다. 만월산터널이 그것이다. 2005년 개통된 이 터널은 길이 1,500m인 3차로 터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유료 터널이다.

부평구 관내에 들어있는 광학산지에는 인천가족공원(부평공동묘지 포함)과 군부대가 각각 동·서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 폐광하기까지 은광을 채굴했던 부평광업소도 이 산지에 있었다. 인천가족공원은 50여만 평에 달하는 부평공동묘지 안에 첨단 봉안당, 자연생태하천, 산림공원 등을 갖춘 환경 친화 장묘 시설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이 공동묘지는 해방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 9월 현재 46,000여 기의 분묘가 있다.



만월산



만월산 터널



광학산지의 인천가족공원
(부평공동묘지)

(3) 비리고개

비리고개는 부평구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을 연결하는 고개로 비루고개, 별리고개, 별고개[星峴] 등으로도 불리운 것 같다. '별리고개' 에는 중국과의 해상 교역을 위해 드나들던 사람들과 가족, 친지들이 이곳에서 작별을 나눈 데서 별리고개라 했는데 후대에 '비루고개' 로 변했다는 지명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옛날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죽자 온조와 비류형제는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 삼각산에 올랐는데 온조는 한산에 도읍하고 비류는 온조와 헤어져 미추홀에 비류국을 도읍할 때 비류가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비류고개' 라 한 것이 '비루고개' 로 변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비리고개' 는 일신동과 구산동 일대에 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한 후 사람의 왕래가 차단되었으며, 지금도 일반인들이 고갯길을 이용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의 '무네미고개' 가 바로 '비리고개' 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국가 기본도인 지형도에도 '무네미고개[水峴]' 에 '비리고개' 라는 지명이 기입되어 있다. 별고개[星峴]는 '별리고개' 가 '별고개' 가 되어 한자로 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 무네미고개



무네미고개

무네미고개[水峴]는 광학산자락이 거마산으로 건너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의 지명은 조선 중종 때 굴포개착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을 넘길 고개' 라 한 데서 유래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이 고개에는 영동고속국도 및 제2경인고속국도와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겸비한 편도 4차로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 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가 고가도로로 부설되어 있다.

(5) 거마산

거마산은 주봉이 남동구 장수동에 솟아 있지만 산지는 부평구 동남부 일대에 퍼져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남동구, 그리고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경계를 품고 있다. 거마산은 반경 2㎞ 이내에 성주산(217m), 관모산(160m), 상아산(151m), 소래산(299m)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산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산지에는 삼림욕장 · 산책로 · 전망대 · 식물원 · 동물원 · 조각공원 등을 갖춘 인천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부평구에는 서부와 남(동)부를 제외하면 특별히 주목을 끄는 산지나 고개가 분포하지 않는다. 다만, 경인고속국도가 계양구와 행정경계를 이루는 북단부의 중간 지점에 낮게 돌출해 있던 갈산은 관심을 끈다. 부평역에서 부평로를 따라 계산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인천지하철1호선 갈산역이 있는 갈산동사거리~부평 IC사거리~장제로의 삼산사거리~새한아파트사거리~갈산동사거리로 연결되는 대략 동서간 900m, 남북 500m 범위에 나지막하게 자리한 구릉지를 볼 수 있다. 이 구릉지는 충적지로 둘러쌓여 있는데, 1910년대에만 해도 갈월리, 후정리라는 마을이 있었으며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당시 해발고도는 29m였다. '갈산'으로 불렸던 이 구릉지는 해방 후 주변에 부평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확장되고, 시설물이 들어서 지금은 유심히 살펴야 알아볼 수 있다.

3. 하천과 평야

지표에 내리는 강수는 지표유출(overland flow)에 이어 하천으로 유입한다. 하천은 인간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전통 사회에서는 물길을 이용한 교통로와 농업용수원으로 무엇보다 중요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식수 및 생활용수원, 공업용수원, 에너지원(수력발전)으로 가치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도시 배수로로써의 기능도 강조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하천의 오염 문제는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하천은 여전히 사람의 정서 함양과 사회 공동체 내의 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형학에서 '하천(stream)'이란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 반면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 즉 수계로 정의된다. 이 경우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하천구역에는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에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이나 기타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제방으로부터 유로 측의 토지인 제외지(堤外地) 등이 포함된다. 단, 대홍수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물이 흐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제외된다. 그리고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 관리에 필요한 댐 · 하구둑 · 제방 · 호안 · 수제 · 보 · 갑문 · 수문 · 수로터널 · 운하 · 관측시설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 유지는 건설교통부 관할이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되는 하천은 행정자치부의 관할에 들어 있다. 「하천법」에 의하면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명칭과 구간을 대통령령이 정하고, 지방2급 하천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정한다. 이들 지정하천은 각각 법률이 개정된 1999년 이전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해당한다.

「하천법」 상 하천의 정의는 건설교통부가 간행한 하천 관련 자료의 작성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간행물로 『하천편람』(1981), 『한국하천일람』(2005) 등이 있다. 이 간행물 속에 담고 있는 하천 연장과 유역 면적 등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이라 한다. 소하천은 한때 '새마을하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새마을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비법정하천을 지칭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소하천'도 법률 용어가 되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 명칭과 구간을 각각 지정 · 고시한 것'을 말한다. 소하천은 유황으로 보아 일시적이 아닌 상당 기간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이다. 이 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시골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산간지와 벌판의 개울 또는 개골창 형태로 되어 있으며,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적이 있다. 소하천은 대부분 상급하천인 지방2급 하천으로 유입하지만 바다로 직접 유입하는 것도 적지 않다. 소하천의 기점은 지적도상의 지번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도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부평구가 들어있는 인천광역시의 육지부는 계양산 등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구릉지와 충적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길지 않다. 부평구의 하천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방2급 하천이 2개소가 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가 펴낸 『한국하천일람』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지방2급 하천 30군데가 지정되어 있다. 이 지방2급 하천의 하천연장은 약 117km이며, 개수율은 59%에 머물고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의 지방2급 하천 현황

하천명	유로연장(㎞)	유역면적(㎢)	기점	종점
굴포천	11.50	60.0	부평구 청천동 285-1번지선	계양구 하야동 인천 경기 도계
청천천	8.00	6.21	부평구 청천동 179-5번지선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합류점
계산천	5.06	5.27	계양구 용종동 61-1번지선	계양구 병방동 굴포천 합류점
귤현천	5.27	8.26	계양구 귤현동 43-5번지선	계양구 귤현동 방수로 합류점

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5.

인천광역시 육지부의 하천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쪽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되는 하천과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그것이다.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은 인천 북부의 굴포천이 대표적이다. 굴포천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여러 하천을 합하면서 북쪽으로 흘러 김포시계로 들어간 다음 고촌면 김포대교 부근에서 한강과 합쳐진다.

서쪽으로 흘러 황해에 물을 더하는 하천으로는 서구의 공촌천과 심곡천이 대표적이다. 공촌천은 계양산지 서부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용두산을 지난 다음부터는 경서동 일대의 매립간척지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배수로를 통하여 옛 일도(섬) 부근에서 황해로 배수되며, 심곡천은 가정동 철마산에서 발원하여 북망산을 휘돈 다음 매립지상의 인공배수로를 따라 서류하다가 황해로 흘러든다.

남쪽으로 흘러내려 황해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남동구의 운연천, 만수천, 승기천 등이 있다. 운연천은 소래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운연동을 지나면서 시흥시와 경계를 이룬 후 소래포구의 갯골로 유입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만수천은 광학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영동고속국도와 제2경인고속국도가 만나는 서창분기점 부근에서 거마산과 소래산에서 발원한 장수천과 합류한 다음 역시 소래포구 갯골을 지나 황해에 물을 더한다. 승기천은 승기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선학 · 남촌동을 빠져나와 간척지에 조성된 남동공단(남동구)과 연수구를 가른 후 외암도 부근 바다로 유입된다. 공촌천, 심곡천, 승기천 등은 간척에 의해 인공유로가 크게 연장된 대표적인 하천에 속한다.

부평구와 계양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에 걸쳐있는 부평 분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물길은 굴포천으로 모여든다. 분지의 서부 산지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남부 산지에서는 북쪽 방향으로, 부천시에 들어 있는 동부 산지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분지 바닥에 다다르면 하나의 물길로 합쳐져 굴포천을 형성하는 것이다.

굴포천의 지류 중 부평분지에 발달한 하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통천은 광학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다가 만월산 등지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들을 모아 부평1동사무소와 부평구청 부근을 통과한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 항동천은 무네미고개에서 발원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선을 따라 흐르다가 부평구 삼산동과 계양구 서운동, 부천시 삼정동에 걸쳐있는 서운분기점 부근에서 원통천과 합류한다. 돌내(석천)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일대에서 발원하여 부천 시가지를 지나 항동천에 물을 더한다.

청천천의 상류(백마공원)



철마산(산곡동)에서 발원하는 청천천은 원래는 대우자동차 공장, 부평관광호텔 옆을 지나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부근에서 원통천과 합류되었으나, 지금은 아인스월드 북쪽에서 원통천과 합류된다. 서운분기점 인근에서 여러 지류의 물이 합쳐진 굴포천은 이후 계양구, 부천시 오정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일대의 충적지위에 넓게 펼쳐진

부평평야의 중앙부를 관류한다.

부평평야는 일반적으로 '김포평야'로 불리는 넓은 들의 일부에 해당한다. 굴포천의 서쪽과 동쪽으로는 대략 2~3㎞의 간격을 두고 각각 서부간선수로와 동부간선수로가 놓여 있다. 이 수로들은 굴포천 하구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신곡리 양수장에서 퍼올린 물을 남쪽의 넓은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설한 인공수로이다. 때문에 굴포천과 정반대로 흐르는 구간도 있다.



서부간선수로 종점(삼산동)



굴포천과 서부간선수로 유역의 배수를 담당하는 부평배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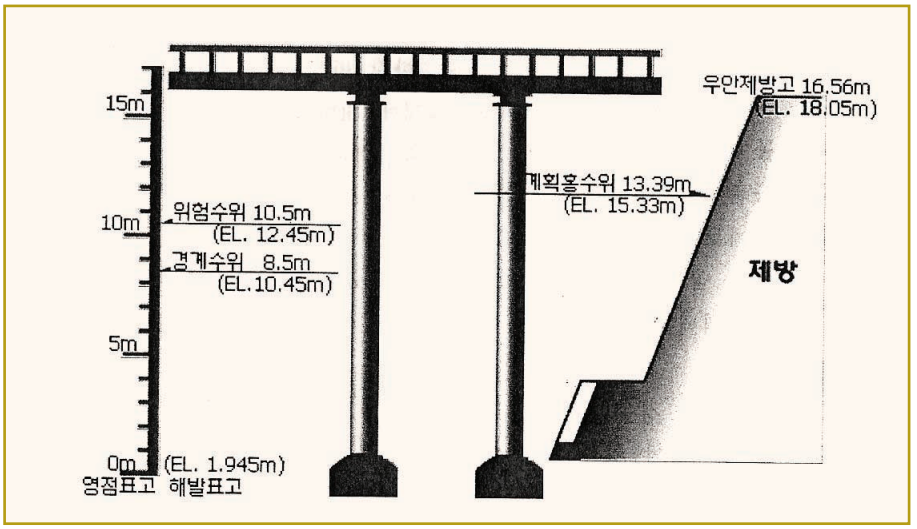
홍수로 굴포천이 범람하거나 한강 본류물이 굴포천을 거슬러 역류하면서 촉진된 퇴적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면서 분지 바닥의 충적지를 점점 두껍게 한 결과 산지와 분지 내부의 경사는 더욱 완만해졌다. 그 결과 굴포천 유역에는 평야로 개발이 가능한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굴포천과 그 지류들이 만든 넓은 범람원은 '부평(富平)' 즉, '평야가 풍성하게 펼쳐진 땅'을 의미하는 지명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본래 지형학에서 말하는 '홍수(洪水, flood)'는 하천 수위와 유량이 이상(異常)으로 상승한 상태 또는 하천의 물이 늘어나 제방을 넘든가 하안의 제방이 파괴되어 주변에 범람하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하천 수위 자체의 상승이라는 면과 함께 하천수의 범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상의 '홍수'는 하천 수위 자체에만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수위관측지점에는 장기간의 수문관측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발령지점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는 경계홍수위와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위험홍수위가 고시되어 있다. 경계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의 50%에 해당되는 유량으로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이고, 위험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의 70%에 해당되는 유량

으로 경계홍수위를 초과하여 제방 · 수문 · 교량 등의 붕괴가 우려되는 수위로 정의된다. 홍수관련 자료의 작성은 이 기준에 따른다.

법령상의 홍수 또는 홍수 발생은 이렇게 특정 지점의 특정 수위와 관련된 문제이지 하천의 범람 자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는 홍수 발생에 관한 자료가 곧바로 하천의 범람과 주변지역의 침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에서는 법령상의 홍수와 홍수로 인한 범람을 뜻하는 홍수범람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쓰기도 한다. 굴포천의 홍수와 범람은 한강 본류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강 본류에서 굴포천 하구와 가장 가까운 홍수예보발령지점은 한강대교 지점이다. 이 지점의 경계수위는 8.5m(EL. 1.945m), 위험수위는 10.5m(EL. 12.45m), 계획홍수위는 13.39m(EL. 15.33m)이다. EL은 해발표고를 나타내는데 지정수위 각각에 한강대교 밑을 흐르는 한강물의 해발표고인 1.945m를 더한 값이다.



한강대교의 지정홍수위

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의 홍수통제30년사』, 2005.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지방2급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홍수량, 하폭을 보면, 굴포천 하구에서 상류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유입하는 귤현천, 계산천, 청천천의 종점에서의 계획홍수위는 각각 6.27m, 7.24m, 8.64m이며, 굴포천의 그것은 6.50m이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굴포천 하구에서 내륙으로

약 6㎞ 상류에 있는 귤현천 종점의 계획홍수위이다. 귤현천 종점에서의 계획홍수위가 하류에 있는 굴포천 하구의 계획홍수위보다 0.23m가 낮다. 이것은 지형이 굴포천 하구에서 내륙으로 가면서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수시에는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점의 계획홍수위와 마찬가지로 기점에서의 계획홍수위에도 해발고도가 반영되어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지방2급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홍수량

하천명	기 점			종 점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굴포천	180	9.10	35	770	6.50	90
청천천	112	9.41	20	112	8.64	30
계산천	95	8.27	25	95	7.24	25
귤현천	35	6.42	11	35	6.27	25

출처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5.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산업화는 도시화를 불러왔고, 1980년대 말부터는 부평분지 내부에도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시가지가 확장되거나 새로 개발되면서 부평구의 하천은 거의 전부 인간의 간섭에 의해 유로가 변경·개수되거나 직선화되어 자연 상태의 하천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하천의 인공화 현상은 비단 부평구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며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인공화뿐 아니라 지표의 높낮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교통로 및 생활공간의 확보 과정에서 절개, 복개, 매립, 직선화 등 인위적인 변형이 수반된 지형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시하천의 인공화에 초점을 맞추어 부평구 주요 하천의 개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자.

1) 굴포천

굴포천(掘浦川)은 인천광역시 하천 중에서 유로 연장이 가장 긴 하천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시립가족공원(부평공동묘지)이 조성되어 있는 광학



광학산과 인천시립가족공원을 빠져나온 굴포천의 최상류

산 북서사면에서 발원하여 부평구의 도심지와 공단 지대를 지나 부평구 및 계양구와 부천시 원미구·오정구의 행정경계를 이룬 후 계양구 상야동·평동을 통과하여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서 물을 한강에 더한다.

한강의 하류부의 지류 하천인 굴포천으로는 부평구, 계양구 전역의 빗물과 각종 오수가 유입하며, 집중호우가 내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신곡양배수 펌프장에서 수문을 막고 내수를 강제로 퍼내지만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의 해발고도가 낮아 농경지와 주택 침수 사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굴포천은 부평동 평온길 4거리 부근에서 부평구청 앞까지 복개되어 있어 물줄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복개 구간을 흐르는 물은 대부분 부평1동, 부평2동 일부 부평3동, 산곡동, 청천2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라고 볼 수 있다. 복개가 끝난 지점은 대략 법정 하천인 굴포천(지방2급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굴포천은 하천수가 노출되어 흐르고 있는 상류(칠성약수터~차집관거)와 건천이거나 정수 구간으로 구분되는 중류(차집관거~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하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하천수가 흐르고, 굴포천방수로와 유입수로의 분기점 부근부터는 한강 종점까지 수생식물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 생태하천으로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굴포천(삼산동)

굴포천 상류의 도시화에 따른 유출영향분석 및 침수저감대책에 관한 서규우·허준행·조원철 등의 연구에 의하면(『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16권, 제Ⅱ-5호, 1996) 도시화율 70%를 기준으로 할 때 총유출량은 평균 4~7%로 증가하고, 첨두유량은 평균 4~9%로 증가하며, 첨두 도달시간은 평균 4~10.1%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존 농경지 상태

에서는 농경지의 유수지 역할로 인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향후 농경지를 매립하여 주변 지역이 택지로 개발될 경우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빗물 빼내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도시 유역의 개발에 따라 야기되는 수문현상의 변동으로 도시 수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각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해 경감과 치수 목적의 여러 고려 사항들이 도시계획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침식 속도를 조절하고 하천에 오염물질을 공급하며, 또한 유수 및 다른 수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도시 하천의 수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화가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콘크리트를 비롯한 각종 비투수성 재료에 의한 포장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 지역에 비해 홍수량은 증가한다. 도시의 하계밀도는 자연 상태에 비해 훨씬 높으며, 하수구 및 빗물 배수로의 설치로 유수가 급증한다. 그 결과 첨두홍수량 역시 커지며, 도시화와 하수구 설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역 분지에서는 배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첨두홍수량이 나타난다. 더구나 시가지에서는 식생밀도가 낮기 때문에 유량을 촉진할 수 있다.

굴포천 유로의 일부 구간은 고려 때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조선 중종 때 실제 공사를 추진했던 굴포 작업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굴포천(갈산동)



굴포천(갈산동)



굴포천(삼산동)과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포천과 관련된 운하개설사업은 구한말, 일제 강점기, 그리고 최근에도 시도되었다.

굴포천과 나란히 놓여있는 서부간선수로는 농업용 수로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양·배수장에서 시작하여 계양구 서운동, 병방동을 통과한 후 계양구 효성2동에서 청천천과 만난다. 동부간선수로 역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양배수장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을 감싸돈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오곡동을 가로지른다. 이후 수로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과 오정동을 지나 삼정동에서 멈춘다. 때문에 동부간선수로를 인천광역시에서는 볼 수 없다.

2) 청천천

청천천(淸川川)은 부평구 청천동 원적산에서 발원하여 GM대우자동차공장을 지나 부평구 갈산동 한국아파트 부근에서 굴포천에 합류된다. 지방2급 하천 '청천천'은 인천지하철 갈산역 동쪽의 합류 지점에서 시작되어 삼산동 굴포천 합류 지점까지의 구간이다. 시가지 구간의 유로는 대부분 복개되어 있지만 공장 지대를 지나는 구간은 하천 물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천천 유역은 부평4공단과 많은 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수질 악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천의 수질 및 유량에 영향을 준 인위적 요인으로 하도 조작, 유역 분지 특성의 변형, 도시화, 오염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 첫 번째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직접적인 하도 조작 방법은 다양하며,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도 조작은 흔히 저수지나 댐의 축조, 하도정비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된다. 하도정비사업은 홍수를 하천의 물길 내에 한정시키기 위하여 제방, 홍수방벽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된다. 또한, 하도직강화, 하폭확대, 하상굴착, 하상평탄화 등으로 하도의 담수력을 증대시켜 홍수를 쉽게 유출시키기 위한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하도정비사업은 애초에 기대했던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종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방에 의해 홍수가 범람원에 넘쳐 흘러들지 못하고, 제방이 불투수성인 경우 제방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해 범람원의 자연적인 저수량이 줄어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가 지나간 후 파괴된 제방의 하류 쪽 범람원에 잠겨 있는 물이 다시 하도로 배수되기 어려워, 홍수를 줄이려고 만든 제방이 오히려 홍수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유수를 쉽게 흘려보내기 위해 계획된 하도 개수 역시, 예측하거나 원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수된 하도를 따라 유수가 빨리 흐르게 되면, 하류 쪽의 첨두홍수량이 증대되고 침식이 활발해진다. 이와 같은 하도 개수로 인해 지하수면이 낮아져 주변 경작지에서 지나치게 배수되면, 지하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수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하도의 직강화로 지류의 유입이 차단되어 지하수면이 상승하면 범람원의 지표면이 침수된다. 그리고 하도 조작의 결과 유속이 빨라지고 하상에 물고기의 서식처가 줄며 또한 하도 주변에 있는 식생의 파괴로 영양염류의 공급이 줄어들어 하천에 서식하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천천의 복개 (삼산동)



청천천 미복개 구간(삼산동)

인천에는 북동부 굴포천 유역과 남부 승기천과 만수천 유역 등지에 다양한 면적의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 이 평야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점차 시가지와 도로로 전용되고 있다.

인천의 충적평야 중에는 북동부의 부평평야가 특히 중요하다. 제4기 충적층으로 덮여있는 부평평야는 부평구의 부개 · 삼산동에서 시작되어 굴포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으며, 김포평야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평야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오정구,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김포시 고촌면에 걸쳐 있다. 주요 공업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평평야는 전통적인 곡창지대였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평야로 개발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즉, 부평평야의 일부는 오랫동안 저습지 또는 불완전한 농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고려 말기의 문인 이규보의 「망해지」와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규보는 「망해지」에서 '계양 땅에 길이 사면으로 났는데 오직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 처음에 내가 조정에서 쫓겨나 이 고을의 사또가 되었을 때는 사방을 둘러 봐도 넓고 푸른 물이어서 마치 섬 가운데 들어 왔는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하였다. 이 글에 묘사된 삼면의 물이란 계양산 서쪽의 경기만, 북쪽의 한강, 그리고 저습지를 이루었던 부평평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부평평야의 경관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호조참의(戶曹參議) 이적(李迹), 사헌장령(司憲掌令) 전직(全直)에게 명하여 경기도관찰사와 함께 부평에 있는 제언의 이해(利害)를 아뢰게 하였더니 이적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부평의 수통(水桶)과 제언의 난이(難易)한 형세를 물으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수통 안의 침수전(浸水田)이 150결이고 수통 밖의 기경전(起耕田)이 300결, 가경지가 1백 결로 아울러 4백 결인데, 통수로 관개할 수가 있으나, 수통 아래의 큰 제방에 이르면, 지세가 점점 높아져 물이 순조롭지 아니하여 관개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제방을 더 높이 쌓으면 통수가 높은 곳에 이를 것이다'하니 이적이 대답하기를 '만약 더 쌓는다면, 통 위의 수전은 반드시 더 침몰되어 백성의 원망도 깊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우희열이 이 방면을 맡아 지켰는데,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불리한데도 어찌 이일을 하였겠느냐? 생각건대, 반드시 향원이 통안의 수전을 이롭게 하고, 제방 쌓는 노고를 싫어하여 이 말을 내었을 것이다' 대언 목진공도 또한 통수가 높고 먼 곳에 미치지 못하는 형세를 극언하므로, 곧 우희열을 불러 이를 물으니, 우희열이 아뢰기를, '부평의 수통은 소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옛터가 상존해 있었습니다. 신이 그곳을 순심하니, 경작할 만한 땅이 1천여 결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터를 수축한 것뿐입니다. 그 향원들이 공역을 싫어하고, 통 안의 전지를 이롭게 여겨, 국가의 대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총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부국의 방법은 제언에 있을 뿐입니다'하니, 임금이, '나도 향원이 한 소위라 여겨지니, 먼저 불리하다고 말하여 백성을 부추겨 정장하게 한 자를 헌부로 하여금 추핵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부평 사람 1백여 명이 제언이 불리하다 하여 헌부에 호소하매, 헌부에서 아뢰니, 즉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4월 4일).

경기관찰사의 보고, 즉 '교동, 부평, 김포, 인천, 안산, 통진, 풍덕, 영종 등 8개 고

을과 진(鎭)은 이달 17일 바닷물이 불어났을 때 동풍이 갑자기 불며 파도가 높이 밀려오는 통에 바닷가의 제방이 충격을 받아 파손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짠물이 넘쳐서 모든 곡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동에서는 무너지고 깔린 민가가 71호이고 부평 석곶면과 모월곶면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무너지고 터진 제방이 모두 51개소나 됩니다. 피해를 입은 밭은 400여 섬지기나 되며, 파괴된 소금가마는 20개 정도 됩니다. 김포의 검단면은 여러 곳에 제방을 쌓았지만 피해를 입은 전토는 모두 58섬지기이며, 민가 3호도 무너지고 깔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가마도가 9개 정도 파괴되었습니다. 인천, 안산, 통진, 풍덕, 영종 등 5개 고을과 진의 바다를 낀 여러 면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터져 토지가 피해를 입은 곳이 형언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해일은 근래에 없었던 일로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실로 참혹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조선왕조실록』 정조 14년 7월 10일)

위 두 기록들은 당시 부평평야의 일부는 해일이나 홍수에 시달리던 불완전한 농지 상태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해일 발생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부평(인천)일대의 해일 발생 기록

일시	해일 발생 지역
태종 11년 4월 18일	경기, 풍해도, 서북면에 조수가 넘침. 인천은 예전보다 3척 가량 더 불어남
세종 6년 11월 20일	안산, 수원, 인천, 부평, 강화 등지에서 50~200여보가 물에 잠김
세종 16년 7월 2일	인천군에 600~900척까지 넘쳐 들어와 볏곡에 침수피해 발생
인조 25년 8월 11일	7월 2일에 부평, 안산, 김포 등 여러 고을에 해일이 발생
현종 6년 7월 21일	수원, 인천, 안산 등지에 해일 발생
현종개수실록 6년 7월 21일	수원, 인천, 남양, 안산 등지에 해일 발생
숙종 39년 7월 17일	경기 부평에 해일 발생
정조 14년 7월 10일	교동, 부평, 김포, 인천, 안산, 통진, 풍덕, 영종 등 8개 고을과 진(鎭)에 해일 발생

출처 : 서울시스템(주), 『CD-Rom 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 1998.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역사문화연구실, 『인천사자료집(Ⅰ)』, 2003.

굴포천 양안에 넓게 펼쳐진 충적지 중 상당한 면적이 20세기 직전까지 습지 또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계산천이 굴포천으로 합류하는 지점부터 하구까지의 양안이 그러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당시에는 한

강 본류 물의 역류와 굴포천의 내수에 의해 빈번하게 범람하는 굴포천의 유로를 고정시킬 만한 토목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충적지는 극히 일부만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오늘날 부평구에 들어 있는 충적지는 이미 농경지로 개발되었다. 방치되어 있던 충적지는 20세기에 접어들자마자 일본의 농업자본에 의해 수리시설이 구비되면서 논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자유곡류하던 굴포천 유로는 곧게 펴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굴포천의 유로는 거의 직선화되어 있다.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서도 일본인들에 의해 논으로 개발되는 면적은 점점 넓혀졌지만 범람의 피해는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굴포천 양안의 충적지는 오랫동안 농경지로 사용되었다.

방치되어 있던 충적지는 1940년대 이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부평역 일대는 1940년 들어 새로운 도시 계획이 시행되어 시가지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부평역 일대는 부평분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해방 이후 인근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부평역 일대는 더욱 유동 인구가 많아졌다. 1960년대 들어 시행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경인고속국도 개통으로 시가지는 부평역에서 부평로를 따라 부평인터체인지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울 인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이 시작되었고, 경인전철이 지나는 부평역 일대로는 더욱 많은 인구가 전입하였다. 이후 계속 늘어나는 전입 인구 때문에 1980년대 말에는 초기 도시화 지역인 부평역 일대의 부평동, 산곡동 일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1980년대 말부터는 부평분지의 평야 지역도 주거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계양구 계산동 일대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청천동, 삼산동, 서운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으며, 기존에 부평분지 내부의 범람원과 외곽의 산지가 만나는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던 주거 공간이 분지 내부의 평야 지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계양산자락과 비옥한 부평평야의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부평'은 오늘날 부평역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부평 수출4공단과 GM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천국제공항 및 송도정보화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건설과 함께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확정되어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곳으로 바뀌었다.

4. 지질

부평지역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지형 형성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지만 일차적으로 기반암이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인천의 지형과 하천 발달을 이해하는 데 지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사 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인천광역시사』 제1권(2002)에는 인천의 지질에 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는 경기육괴로 분류된다. 경기육괴 내에서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변성대가 기반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편마암복합체라 지칭하가도 한다. 경기편마암복합체의 일부는 장기간에 걸쳐 풍화작용을 받아 낮은 구릉지로 남아 있다. 인천지역의 지질은 그 기반암이 캄브리아기(약 8억 년 전)에 해당하는 화강편마암의 혼성암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화강편마암은 심한 동력변질작용을 받은 퇴적암을 모체로 하였기 때문에 풍화에 약하여 산록이 완만한 낮은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화강암류는 주로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류와 백악기의 불국사 화강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화강암들은 속초-갑천-음성-공주-서천 그리고 원산-서울-홍성을 잇는 주향이동 단층과 이들과 평행한 단층선을 따라서 발달한 작은 퇴적분지에서 백악기에 있었던 활발한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중생대 화성암류는 화산쇄설암류, 관입각력암류, 화강암류, 규장질 반암류 및 중성-염기성 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산쇄설암류는 대부분 유문암질의 응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편마암복합체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다. 화강암류에는 광물 조성, 조직 및 관입 시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것이 있으며, 이들은 화산 쇄설암류와 각력암을 관입하였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은 부평구와 남동구 등지에 분포한다. 이 암석은 흑운모편마암, 안구상편마암, 운모편암 등으로 구성되며, 석영편암, 규암 및 석회암층이 주로 운모편암 중에 협재되어 발달한다. 흑운모 편마암과 운모편암은 구릉성 지형을 이루고 장기간에 걸쳐 풍화작용을 받았다.

중생대 쥐라기 화성암류인 흑운모화강암은 동구, 남구, 연수구 일대에 걸쳐 동서 방향의 대상 분포를 보인다. 이 암석류는 인천에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있다. 이 화성암류 중 흑운모화강암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의 지질시대는 절대 연령 1억 6천 2백년으로 보고되었다. 흑운모화강암은 인천 시가지에 넓게 분포한다. 이 흑운모화강암은 기반암인 변성암류를 관입하였으며, 철마산 용결응회암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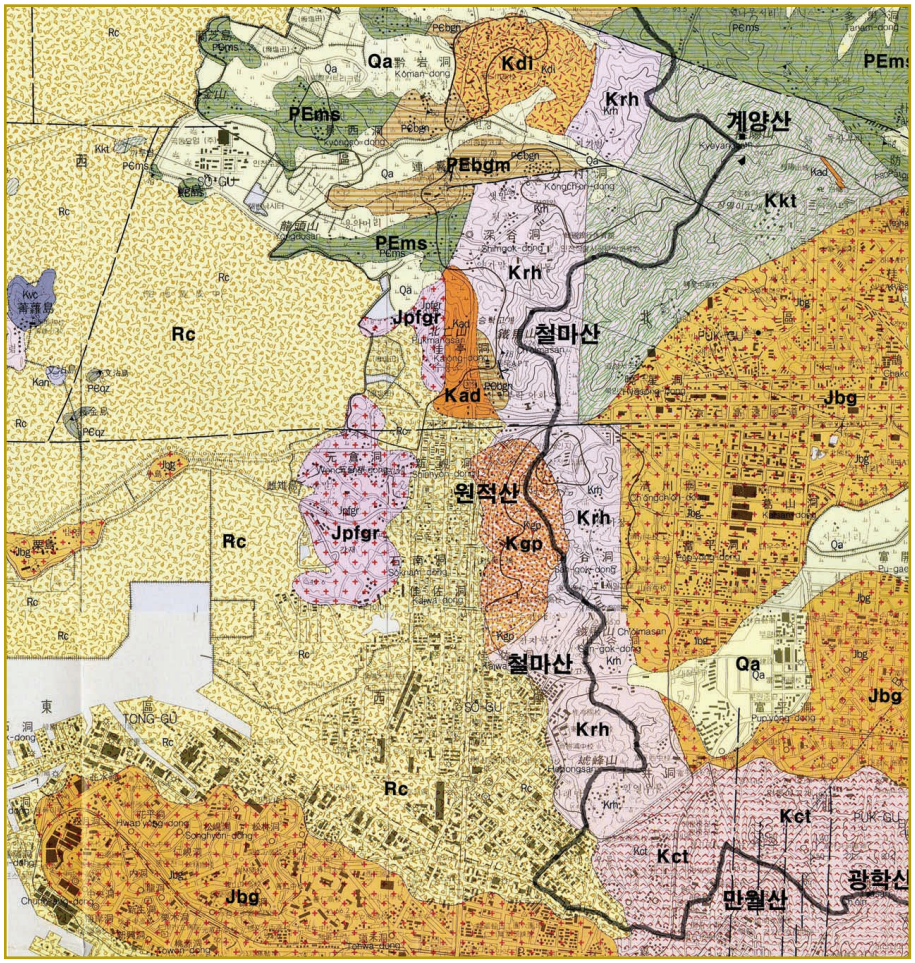
백악기 화산암류로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용결응회암이, 백악기 화성암류로는 철마산 일대에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백악기 화성암류는 계양산 용결응회암, 철마산 용결응회암, 유문암, 김포유문암, 화산쇄설성퇴적암, 김포응회암 및 안산암류 등이며 그 외에 섬록암과 화강반암 등이 있다. 계양산 용결응회암은 계양산 일대에 분포하며, 철마산 용결응회암은 철마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유문암은 계양산 용결응회암의 서쪽 경계부에 분포한다. 김포응회암, 화산쇄설성퇴적암, 김포유문암 및 안산암류 등은 계양산과 철마산 용결응회암 및 관입유문암과 멀리 떨어져 강화해협의 작은 섬들 및 율도에 점점히 산재한다. 안산암류는 남동공원에서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여 소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암맥류는 계양산 동쪽 능선에 규장암맥이 크게 발달해 있고, 계양산 서쪽 가정동 북망산에도 발달해 있다. 주안동 석바위 공원에는 석영맥이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광범위하여 굴포천 유역 등에 기저암인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 쥐라기의 화강암류 및 백악기 화산암류 등을 부정합으로 하여 넓게 발달하고 있고, 남동 공단 조성 지역 및 영종도 해변 저지대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부평구는 백악기 철마산 응회암, 쥬라기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지만, 서부 평지 상에 제4기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시가지가 형성된 부평 · 청천 · 갈산동 등에 쥐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고, 삼산동과 부개동의 농경지에는 제4기 충적층이 쌓여 있다. 일신동, 만월산 및 철마산 일대에는 백악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암역, 원통이고개, 인천가족공원공설묘지(부평시립공동묘지) 등의 지질은 백악기 철마산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인 십정동의 호봉산-산곡동 철마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에는 백악기 유문암이 분포한다.



부평구의 서부~황해에 이르는 지역의 지질

출처 : 과학기술부, 『서울-남천점 지질도폭 보고서』, 2000
한국자원연구소, 『김포-인천도폭 지질조사보고서』, 1995.

계양구는 대체로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쥐라기 화강암, 백악기 계양산응회암, 선캄브리아기 운모편암류가 분포한다. 쥐라기 화강암은 경인고속국도 북부의 효성 · 작전 · 계산동 등지에 분포한다. 따라서 부평인터체인지, 경인교육대학교의 위치가 그에 속한다. 계양산을 중심으로는 백악기 응회암이 분포한다. 계양산 넘어 북부의 갈산 · 대실 · 목상 · 다남 · 방축 · 박촌동의 구릉지대에는 운모편암이 분포하고, 서울 및 부천과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서부평지에 해당하는 이화 · 귤현 · 선주지 · 병방 · 용종 · 작전동 등에는 제4기 충적층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부평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신생

대 제4기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하곡 깊숙이 충적층으로 덮이게 되었다.

동 · 중 · 남 · 연수구의 구릉지는 쥐라기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의 해안저지는 매립지이다. 남동구는 백악기 철마산 응회암, 선캄브리아기 편암류, 제4기 충적층과 매립지가 남북으로 분포한다. 서구는 매립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가운데 서부의 구릉지 및 산지를 따라 백악기의 유문암, 화강반암, 암맥류가 분포하고, 북부 구릉성 산지를 중심으로 선캄브리아기 편마암 및 편암 등이 분포하여 다양한 분포 특성을 보인다.

5. 토양과 식생

지표를 덮고 있는 토양은 식생에 각종 영양소와 수분을 제공한다. 식생은 토양 없이는 생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양은 귀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결국 인간은 토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채 토양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토양은 암석 · 공기 · 수분 · 생물 등 여러 인자들 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극히 더디게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하천 양안의 범람원의 토사처럼 쌓인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식생을 무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도 존재한다.

토양은 크게 토양단면의 상태에 따라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구분된다. 성숙토는 대표적인 토양층을 모두 볼 수 있는 토양이며, 미성숙토양은 그렇지 못한 토양이다. 토양층은 오랜 기간에 걸쳐 토양형성작용을 받은 토양에 잘 발달한다. 성숙토는 다시 기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성대토양과 모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간대토양으로 구분된다. 인천을 포함하는 중부지방의 성대토양은 온대기후 하의 혼합림지대에서 전형적으로 형성되는 갈색 삼림토이다. 미성숙토는 발달 기간이 짧아 토양층의 분화가 충분하지 못한 토양으로서 우리나라에는 기반암의 풍화물이 암반 위를 얇게 덮은 암쇄토, 하천 주변의 충적토, 그리고 해안 간척지의 염류토 등이 있다. 부평지역에는 하천 주변의 충적토가 넓게 분포한다. 충적토는 제4기 이후에 쌓인 토양이다. 인천의 경우 암쇄토와 염류토가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토양 유형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적황색의 암쇄토(Ra)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토양으로서 특히 내륙 및 도서부

의 산지나 구릉지에 분포한다. 회색의 충적토(An)는 굴포천 등 하천을 따라 국부적으로 출현하며, 해안 및 해안평탄지상에는 회색의 충적토나 염류토(Fm)가 나타난다. 염류토는 특히 매립 이전 해안을 따라 널리 분포한다.

인천광역시의 이러한 토양 분포는 전반적으로 구릉성 산지가 넓다는 지형적인 요인과 해안 저지대의 간척지 조성이라는 인간의 활동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일제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간척 사업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양의 분포가 넓은 것은 주목해야 할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해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펼쳐진 간석지를 간척, 매립하여 도시성장에 따른 토지 수요를 충당해 온 결과 염류토가 널리 분포하게 된 것이다.

부평구의 토양 분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와 농촌진흥청식물환경연구소가 발행한 『개략토양도(1:50,00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1971)가 참고가 된다. 개략토양도는 500~1,000m간격으로 조사지점을 설정한 후 항공사진 해설 위주의 고차 분류 단위인 대토양군 및 토양군별로 작도되었으며, 토양도상의 최소작도면적은 6.25h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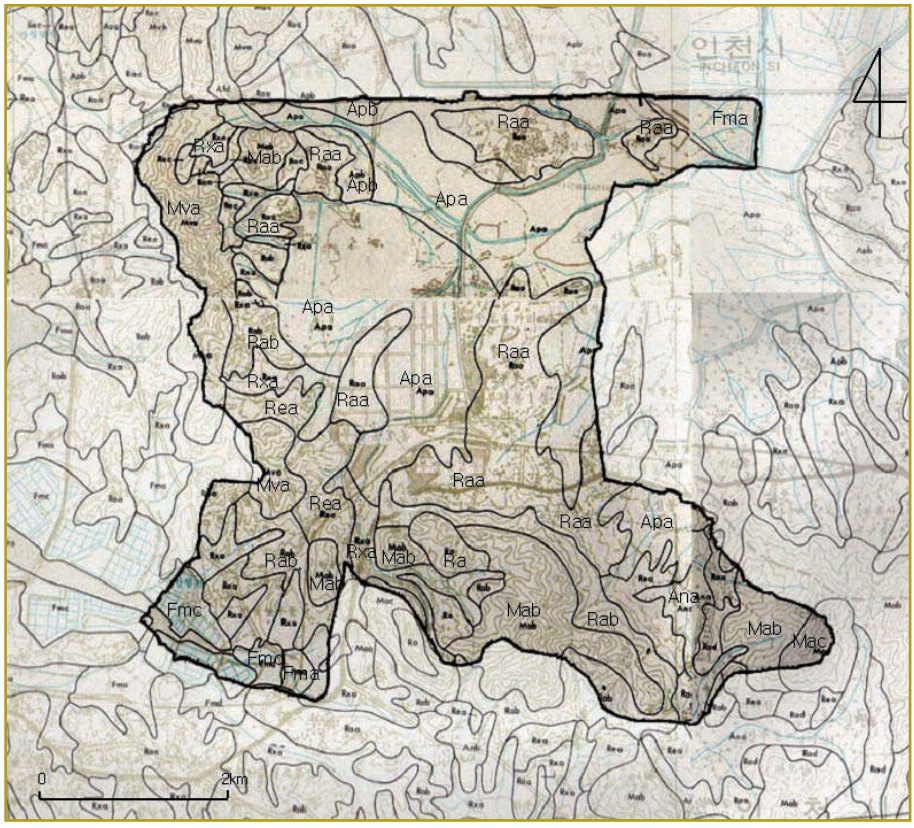
원적산지의 암쇄토(적황색토)

토양조사방법별 비교

내용	개략토양조사	정밀토양조사	세부정밀토양조사
기본도의 축척	1:40,000	1:10,000~18,750	1:1,200~5,000
토양도의 축척	1:50,000	1:25,000	1:1,200~5,000
토양도상의 최소면적	6.25ha	1.56ha	10a
조사 방법의 정밀도 토양구분	항공사진해설 위주 고차분류단위인 대토양군 및 토양군	현지조사 위주 세부정밀조사와 일치	필지별 조사 저차분류단위인 토양통, 작도단위는 토양구 및 토양상
조사지점간 거리	500~1,000m	100m 이내	50m 이내
결과 활용	①전국적인 토양생성 및 대토양군별 분포 파악 ②중앙 및 도단위 종합개발계획 ③외국과의 토양정보교환 외	①군 및 면단위 영농지도계획 ②지대별 주산단지 조성 ③토양보존기초자료 외	①농가별 세부영농계획 ②농토배양을 위한 필지별 시비처방자료 ③토양 특성별 작목 선택 외

출처 :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 · 농촌진흥청식물환경연구소, 『개략토양도-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971.

개략토양도는 1964년 정부와 국제연합개발사업기구 공동으로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를 설치하여 5년간에 걸쳐 전국에 대한 개략토양조사사업과 일부 시군에 대한 정밀토양조사를 완료한 후 일종의 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다. 토양조사의 목적은 지대별 영농 계획의 수립, 토양 조건의 우열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용수량 책정 등의 농업 목적 외에 주택, 도시, 도로 및 지역개발계획수립, 산림육성 및 상류수원 함양을 위한 조림사업의 기초 자료 제공 등에 있었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은 1965년 1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1967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부평구의 토양분포

출처 :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 ·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개략토양도-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971.

부평구에 분포하는 토양은 『개략토양도-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3종이다. 이 토양들은 다시 분포지역에 따라 내륙평탄지, 해안 평탄지, 하천 범람지, 산악 곡간지, 저구릉지 · 산록지 및 곡간지, 구릉지 및 산악

지 토양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토양의 각 분포 지역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배수 양호'라는 의미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대지나 구릉지이고, 물이 쉽게 빠지며 지하 수위가 150㎝ 이하인 토양을 지칭한다. '약간 불량'은 배수가 느려서 상당 기간 동안 습한 상태로 남아 있고, 지하 수위가 50~100㎝인 토양을 말한다. '배수 불량'이란 배수가 매우 느려서 지하 수위가 연중 지표 상부 또는 표토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다.

1) 해안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1)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Fma)

본 작도 단위는 회색토가 대부분이며 충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해혼성 및 해양충적 평탄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약간 불량하고 토성은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회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암회색 또는 회갈색의 미사질식양토 및 미사질양토이며 황갈색, 적갈색 및 진갈색의 많은 반점이 있다.

심토는 회갈색, 회색 혹은 암회색의 미사질식양토, 미사질식토 혹은 식토로서 오리브색 황갈색 및 진갈색의 반점이 보통 내지 많고 발달이 약한 원주상 구조로서 때로는 회색의 점토질 피막을 볼 수 있다. 기층은 녹회색 혹은 회색, 청회색 및 암회색의 미사질식토 내지 미사토로서 불균일하고 반문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 한편 곳에 따라서는 이탄(泥炭)이 50㎝~10㎝ 사이에서 나타나며 그 두께는 약 10~30㎝이다. 암반까지의 깊이는 5m 이상이다.

(2) 염류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미사 사양질 내지 식질(Fmc)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염류토이며 충적토 및 회색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해혼성 및 해성충적의 평탄지에 분포되어 간석지와 인접되어 있다. 토양 배수는 약간 불량 내지 불량하고 토성은 미사 사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염류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내지 회갈색의 미사질 양토 혹은 세사양토이며 갈색 계통의 반점이 약간

있다. 심토는 회색 내지 청회색의 미사질식양토, 식토 및 극세 사양토이며 반점이 없거나 약간의 갈색 혹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다. 보통 심층의 발달은 약하여 그 두께가 얕거나 없을 때도 흔히 있다. 기층은 회색 내지 청회색의 미사질식양토 극세 사양토 혹은 미사질 양토로서 불균일하고 반문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5m 이상이다.

(3) 충적 및 회색토, 배수 불량 내지 매우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Fmd)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충적토이며 회색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해혼성 내지 해성충적의 평탄지 중 낮은 평탄지에 분포되어 있다. 토양배수는 불량 내지 매우 불량하고 토성은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충적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내지 회갈색의 미사질 식양토 혹은 미사질 양토이며 황갈색, 적갈색 및 진갈색의 반점이 약간 있다. 심토 및 기층은 회색, 암회색 또는 청회색의 미사질식양토, 혹은 미사질 식토로서 황갈색, 진갈색의 반점이 약간씩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곳에 따라서는 이탄(泥炭)이 50~100㎝ 이하에서 상당히 두껍게 나타난다.

2) 내륙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1)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Apa)

본 작도 단위는 주로 회색토이며 충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성충적의 평탄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약간 불량하고 토성은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회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암회색 또는 회갈색의 미사질 양토 내지 미사질식양토이며 올리브색 또는 갈색 계통의 반문이 있다. 심토는 회색 혹은 회갈색의 미사질식양토 혹은 식토로서 황갈색, 적갈색 및 진갈색 등의 반문이 보통 내지 많고, 발달이 잘된 원주상 혹은 각주상 구조로서 깨뜨리면 발달이 비교적 잘된 반각괴상 구조와 점토질 피막이 있다.

기층은 회색 또는 농암회색의 미사질 식토 혹은 미사질 식양토이며 반문이 매우 적다. 암반까지의 깊이는 약 5m 이상이다.

(2) 적황색토, 홍적,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Apb)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적황색토이며 회색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홍적층 저구릉의 완경사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약간 양호 내지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적황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갈색 혹은 황갈색의 식양토 혹은 양토이며 표토의 색은 일정치 않고 환경조건(특히 개답년대)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다. 심토는 회갈색, 갈색 혹은 적황색의 식양토 혹은 식토로서 발달이 좋은 반각괴상 혹은 각괴상 구조를 갖고 두꺼운 점토질 피막을 볼 수 있다. 심토는 상당히 두꺼워 1m 혹은 그 이상이다.

기층은 황갈색, 암황갈색, 갈색, 암갈색, 혹은 흑색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토성은 양토 혹은 식양토이고 가끔 자갈을 함유하고 있다.

3) 산악곡간지에 분포된 토양

(1)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불량, 식양질 내지 미사 식양질(Ana)

본 작도 단위는 주로 회색토이며 충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산악 및 구릉 곡간의 준평탄 내지 완경사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약간 양호 내지 불량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미사식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회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암회색 및 암황갈색의 미사질양토, 양토 내지 미사질식양토이나 주로 양토이다. 심토는 짙은 회색 내지 회색 및 황갈색의 식양토, 미사질식양토 혹은 양토이며, 황갈색 및 황적색의 반문이 있고, 발달이 보통인 각주상 및 괴상구조로서 때로는 기층은 점토질 피막이 있다.

기층은 60~100㎝ 이하에서 나타나며 회색, 암황갈색, 회갈색 및 녹회색의 자갈이 있는 식양토 및 사양토이다.

4) 저구릉지, 산록지 및 저구릉 곡간지에 분포된 토양

(1) 적황색토, 저구릉, 홍적 및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Raa)

본 작도 단위의 대표 토양은 적황색토이다. 이들은 저구릉, 홍적층 및 산성암 잔적층의 대지 및 기복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양호하고 토성은 실질 내지 식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적황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적갈색, 적황색 및 황적색의 양토 내지 식양토이며 발달이 보통인 입단 구조이다. 심토는 매우 깊어 1m 이상이며 적색, 적황색, 적갈색 혹은 황적색의 식토, 미사질식토, 미사질식양토, 혹은 식양토이고 잘 발달된 각괴상 및 반각괴상 구조와 연속된 점토질 피막이 있다.

기층은 황적색, 황갈색, 적황색 및 갈색의 양토, 사양토, 사질식양토 및 자갈이 있는 식토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3m 이상이다.

(2) 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Rab)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적황색토이며 암쇄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산성암의 저구릉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배수는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사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적황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암갈색, 암황갈색, 황갈색, 황적색 및 갈색의 양토 내지 식양토이다. 심토는 갈색, 황갈색 및 황적색의 식양토, 미사질식양토 및 식토이고, 보통으로 발달된 반가괴상 구조와 연속된 점토질 피막이 있다.

기층은 황갈색 및 담갈색의 심하게 풍화된 조립질 모질물로 되어 있다.

(3)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Rac)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적황색토이고 퇴적토, 암쇄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산성암의 산록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양호하고 토성은 실질 내지 식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적황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갈색 내지 농암회갈색의 양토 내지 식양토로 돌을 약간 함유한다. 심토는 황갈색, 적색 및 황적색의 식양토 및 미사질 식토이고 발달이 중용인 반각괴상 구조에 연속된 점토질 피막을 가지며 자갈이 약간씩 있다.

기층은 담갈색, 담황갈색, 황적색 및 진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내지 자갈이 있는 식양토이다.

(4)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침식상 (Rea)

본 작도 단위의 대표 토양은 암쇄토이다. 이들은 심하게 침식을 받은 산성암의 저구릉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매우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사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암쇄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황갈색의 사질토 내지 식양토이다. 심토는 적황색, 밝은 갈색, 짙은 갈색, 황갈색 등의 양토, 식양토, 사양토 등이며 가끔 점토질 피막이 있다.

기층은 황갈색, 갈색 및 담갈색의 사질 혹은 잘 풍화된 산성암의 모질물로 되어 있다. 이들 토양은 대부분 임야지로 이용되고 일부 황무지로 남아 있다.

(5) 회색토 및 충적토, 저구릉 곡간, 배수 불량 내지 약간 양호, 식양질 내리 식질(Rxa)

본 작도 단위는 주로 회색토이고 충적토 및 퇴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저구릉 곡간의 완경사 및 경사지에 길고 좁게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불량 내지 약간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회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회갈색, 암회색의 미사질식양토, 양토 및 식양토이다. 심토는 회색, 암회색, 회갈색, 청회색의 미사질식양토, 식토 및 미사질 양토이며 적갈색, 갈색, 황갈색 등의 반문이 보통으로 있고 발달이 약한 각주상 구조를 갖는다.

기층은 보통 80㎝ 이하에서 나타나며 회색, 암회색, 암갈색 등의 사질식양토, 사질양토, 양토 및 양질사토이다.

5)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

(1) 암쇄토, 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Mab)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암쇄토이고 적황색토 및 퇴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산성암의 구릉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 배수는 매우 양호하고 토성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암쇄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갈색, 황갈색, 황적색, 적황색, 암갈색 및 암황갈색의 양토 및 사양토이다. 심토는 적황색, 명갈색, 진갈색, 갈색 및 황갈새의 사양토 내지 식양토이며 석영자갈이 있고 발달이 약하다.

기층은 황갈색, 갈색 및 암황갈색의 사양토 및 사토이며 보통내지 약하게 풍화된 산성암 모질물인 곳도 많다. 이들 토양의 대부분은 임야지이고 임야지로서의 생산력이 높다.

(2) 암쇄토, 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Mva)

본 작도 단위는 주로 암쇄토이며 적황색토 및 퇴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중성 내지 염기성암의 구릉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배수는 매우 양호 내지 양호하고 토성은 식양질 내지 사양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암쇄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황갈색, 적황색, 암갈색 및 암황갈색의 식양토 내지 사양토이다. 심토는 적황색, 황갈색 및 갈색 등의 식양토 내지 사양토로 발달이 약하다.

기층은 황갈색, 갈색, 암황갈색 및 적황색의 사양토, 양토, 식양토 및 사토이거나 보통 내지 약하게 풍화된 중성 내지 염기성암 모질물인 곳도 많다. 이들 토양의 대부분은 임야지이며 임야지로서의 생산력은 높다.

토양별 주요 특성과 분포지역

토양부호	토양명	토양 특성	지형	모재	주요 분포지역
Apa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내륙평탄지	하성충적	갈산동,삼산동, 부개동,부평동
Apb	적황색토	홍적,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대지	홍적	갈산동
Ana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불량, 미사 식양질	산악 및 구릉의 곡간 충적지	곡간충적	구산동,일신동
Fma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식양질 내지 식질	해안평탄지	하해혼성충적	삼산동,십정동
Fmc	염류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미사 사양질 내지 식질	해안평탄지	하해혼성충적	십정동
Fmd	충적토 및 회색토	배수 불량 내지 매우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해안평탄지	해성충적	십정동
Mab	암쇄토	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구릉지	산성암 잔적	일신동,구산동,청천동
Mva	암쇄토	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구릉지	중성 내지 염기성암 잔적	산곡동
Raa	적황색토	저구릉, 홍적 및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저구릉대지	홍적 및 산성암 잔적	갈산동,부평동,일신동,부개동
Rab	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저구릉지	산성암 잔적	청천동,산곡동, 일신동
Rac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산록경사지	산성암 붕적 및 퇴적	청천동,산곡동
Rea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식양질 내지 사질, 침식상	저구릉지	산성암 잔적	산곡동
Rxa	회색토 및 충적토	저구릉 곡간, 배수불량 내지 약간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저구릉의 곡간 충적지	곡간 충적	청천동,산곡동

출처 :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 · 농촌진흥청식물환경연구소, 『개략토양도-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971.

2

역사 속의 부평







제1장 전근대 시기

제2장 부평의 근대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1장 전근대 시기

제1절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던 시대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시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대를 다루는 학문을 선사고고학(先史考古學)이라 하는데, 이 분야의 학자들은 지표 · 발굴 조사를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근거로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연구한다.

인류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주거 입지가 달랐고 그 결과 생활양식도 다르게 영위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에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움막 등지에서 생활하였고, 신석기시대에는 해안가나 강가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청동기시대에는 사람들이 삶의 무대를 구릉지로 옮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해안가에서도 삶을 영위하였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비롯하여 계양구, 서구를 포괄하는 부평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매우 중요한 주거지로 이용되어 왔다. 지리적으로 동경 126° 37′, 북위 37° 28′의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계양산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지와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더욱이 황해와 한강을 가까이에 거느림으로써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다. 수렵, 채집, 어로 등을 주된 생업으로 삼았던 옛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

※ 이 글은 김석훈(인천 영선고 교사)이 책임집필하였음.



최근 100여기의 고인돌이 발견된 가현산 일대 모습 (인하대학교 박물관 제공)

연 지형을 갖춘 부평지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이다.

부평지역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개발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선사시대 이래의 자연 지형이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고고학적 발굴 및 학술 조사 활동이 유례 없이 활발하게 실시된 덕분에 선사 유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부평의 선사문화도 그 면모를 조금씩 드러내게 되었다.

1. 구석기 문화

구석기시대에 부평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데유적(Open Site)을 주로 전해주고 있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연장을 제작, 가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는 약 300만 년 전부터 마지막 빙하기가 소멸되는 약 1만 년 전 사이의 시기를 말하며, 지질학적 시대 구분에 따르면 주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해당한다. 홍적세 기간 동안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번갈아 형성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빙하의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약 7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의 주거 공간은 석회암 지대에서 발달한 동굴유적(Cave Site)과 사방이 트인 강가나 바닷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던 한데유적으로 구분된다. 동굴유적이 남한강 상류의 충청도 내륙지역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한데유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루 발견되고 있어 한반도가 구석기 사람들의 주된 생활 무대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부평지역의 경우, 지형적으로 낮은 구릉지와 평야가 우세하고 동굴이 매우 희소했던 까닭에 이곳의 구석기 유적은 거의 대부분 한데유적에 속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평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구 원당동·당하동·검단동·불노동 등지의 유적과 더불어 경서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석기 등의 유물이 있다. 고토양층(古土壤層, Paleo-soil)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유적

부평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모두 9곳이다.

부평지역의 구석기 유적과 유물

연번	유 적 명	조사형태			유 구 · 유 물	고토양층	획득 방법
		지표	발굴	기타			
1	원당동		◉		석기		지표조사
2	원당동 (4구역)		◉		1문화층 : 다면석기, 몸돌, 찍개, 긁개, 격지, 기타 부스러기 등 다수 2문화층 : 밀개, 홈날석기, 찍개 등	◉	발굴조사
3	불노동		◉		찍개, 긁개, 홈날, 몸돌 등 30여점		
4	당하동 (Ⅰ구역)		◉		몸돌, 격지, 사냥돌지표조사		
5	당하동 (Ⅱ구역)		◉		자르개, 밀개, 찌르개		지표조사
6	당하동 (Ⅳ구역)					◉	
7	검단동 (1지구)					◉	
8	검단동 (2지구)		◉		다면석기		지표조사
9	경서동	◉			뗀석기		지표조사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위치한 곳은 주로 내륙의 평지가 아닌 산줄기 능선 끝자락의 얕은 언덕배기(구릉; 경사면) 즉, 평지와 산 정상부를 잇는 중간지대나 강가 등에 해당된다. 이런 입지상의 특징은 평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조망권 및 생업과 관련한 지리적 이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석기시대 당시의 생활이 사냥 혹은 채집, 어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양산 일대 그리고 한강과 황해를 중심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지표면이나 심층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찍개 · 사냥돌 · 자르개 등 사냥

도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종류나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이것들만으로 구석기시대 부평지역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구석기시대의 마을이나 집터 등이 좀더 조사, 발견된다면 구석기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유물

부평지역의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거의 모두 뗀석기(타제석기)이다.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뗀석기와 뼈(유골)로 구성되어 있지만, 뼈 유물은 그것의 장기 보존이 가능한 자연조건을 갖춘 석회암지대의 동굴에서 주로 발견될 뿐, 부평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평지역에서 구석기 유물이 비교적 많이 나온 곳은 서구 불노동 유적인데, 30여 점이 발굴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먹도끼(Hand-axe)·몸돌(석핵, Core)·격지(석편, Flake)를 비롯하여 사냥용 도구인 찍개(Chopper)·사냥돌(Bola stone)·자르개(Cleaver)·찌르개(Point)와 부엌조리용 도구인 긁개(Side scraper)·밀개(End scraper) 그리고 몸돌로서 다면몸돌(다각면원구, Polyhedrique)·망치돌(Hammer stone) 등이 있다.

이러한 구석기 유물의 원료는 대부분 석영제 자갈돌이다. 석영 석기가 구석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된 것임을 볼 때 부평지역도 구석기시대의 일반적인 석기 제작 전통에 속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유물 중 여러 유적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것은 사냥돌인데, 이는 부평지역에서 구릉성 지형 조건에 힘입어 활발한 사냥 활동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유적은 원당동 유적(4구역)이다. 이 유적은 발굴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고토양층이 여러 층위의 유물과 동시에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2개의 문화층 가운데 제1 문화층(위 문화층)에서는 다면석기, 몸돌, 찍개, 긁개, 격지, 기타 석재 부스러기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제2 문화층(아래 문화층)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진 밀개, 홈날석기, 찍개 등이 발굴되었다. 제1 문화층(제3-a지층)과 제2(제4지층) 문화층은 상하 높이 차가 약 250cm 정도로 확연히 구별되는데, 2문화층에 비해 1문화층의

유물이 종류와 수효 면에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적들은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시기별 특성과 차이 그리고 변화 양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구석기시대 사람들 나름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데, 부평지역의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석기 원료의 원산지, 석기 제작과 관련한 기술 변화 등에 대해 좀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3) 고토양층(古土壤層, Paleo-soil)

고토양층은 대개 점토의 퇴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인천에서 이 지층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선사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 지층은 경사면의 경우 지표부터 바로 시작되지만, 평지나 완사면에서는 지표 아래의 하부층에 주로 위치한다.

부평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고토양층은 원당동·불노동·당하동·검단동 유적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점에 주목할 때 부평지역의 고토양층은 내륙의 구릉이나 구릉사면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불로동 유적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최초로 형성 연대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유적의 지층 내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26,150±380bp 및 23,750±230bp의 연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그 지층에 포함된 유물들이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며 뷔름빙하기에 속해 있지만 최대 빙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선 것임을 알려준다. 불로동 유적에서 측정, 확인된 이러한 구석기 연대는 앞으로 발굴될 부평·인천 지역은 물론 주변 섬 지역 구석기 유적·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연육(連陸)을 포함한 주변 도서 및 중국과의 지형적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도 커다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밝혀진 고토양층은 비문화층이 많은 편이나, 원당동 유적(4구역)의 경우에는 발굴 조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색다른 의미를 띤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2개의 토양쐐기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토양쐐기 상부층(제3-a층)은 제1문화층에 속하고 하부층(제4지층)은 제2문화층에 속하

는데, 그 형성 연대를 보면 제2문화층의 경우 약 6만5천 년 전, 제1문화층은 1만8천 년 전으로 각각 추정된다. 토양쐐기 구조가 이처럼 2개의 층을 이루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로 유명한 전곡리·석장리·병산리·발한동 유적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부평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주거와 활동이 그만큼 발달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2. 신석기 문화

신석기시대는 후기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전개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약 1만~2천 년 사이에 걸쳐있다. 이 시기의 유적은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하며,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사냥·어로에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 농경과 목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도구 면에서도 종전의 뗀석기보다는 한층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간석기가 많이 사용되고 곡물 저장용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새로운 양상은 부평지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경 생활로의 이행이라는 신석기시대의 기본 특징이 뚜렷이 확인되는데, 이는 부평지역이 황해와 인접한 동시에 한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자연 환경 덕분에 농경의 최적지로 각광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평지역은 특히 인근의 일산·김포·시흥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탄층이 발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므로 이 지층의 조사,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과 아울러 농경 사실을 밝혀줄 각종 곡물의 출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평의 신석기시대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확인된 유적의 숫자나 종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1) 유적

부평지역의 신석기시대가 단일 유적을 통해 확인된 경우는 아직 없으며, 주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나 여러 지표 조사를 통해 발견

된 약간의 빗살무늬토기편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까지의 학술적 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평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경서동 · 검단 · 동양동 유적 등의 경우에서 보듯 낮은 구릉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한강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주목할 때 한강 중 · 상류의 암사동 · 미사리 유적이나 남한강 · 북한강 유역의 유적과 유사한 미확인 신석기 유적이 부평지역에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강 퇴적물의 물리적 증가와 유수에 의한 이동이 반복되면서 지형적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 당시 암사동 유적이 대량 훼손 · 유실되었던 것처럼, 제방이 무너져 대홍수를 겪었던 부평지역에서도 많은 유적이 유실되거나 깊숙이 매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평지역의 신석기 유적은 현실적으로 해안이나 강가보다는 구릉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신석기 유적의 대량 발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토탄층의 자연유물(ecofacts) 조사를 통한 신석기 유적의 확인 가능성이 높다. 토탄은 신석기시대의 생활 조건과 환경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연유물로서 한반도 서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특히 부평지역은 자연제방 주변에 위치한 습지 지형을 지닌 곳으로서 토탄층 형성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넓은 토탄층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부평지역과 유사한 토탄층이 존재하는 부천 고강동, 김포 도사리, 일산 신도시 등지에서 최근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석기 유적이 적잖이 발굴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평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탄층의 발굴을 통해 우리는 신석기 유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연대 측정은 물론 농경의 실상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평지역에서도 현재 많은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유물

부평지역의 신석기 유물은 현재까지 주로 서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단 2지구에서는 모두 2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굴되었다. 하나는 시험발굴조

사 때 지표면에서 발굴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 개설 구간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땅에서 캐낸 것이다. 이 빗살무늬토기 조각들은 문양이나 그것들을 감싸고 있던 흙으로 미루어 볼 때 인천 지역의 일반적인 신석기 유적과 같은 형식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토기가 발견된 유적의 위치가 지금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즉,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인천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가나 섬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검단 2지구의 신석기 유적은 내륙 쪽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평지역의 다른 구릉지나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단 2지구 도로 개설 구간에 대한 긴급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에 대해서는 무늬의 구성 형식을 통해 대략적인 연대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즉, 그것은 구연, 동체, 저부 등 세 부분의 무늬가 서로 다른 구분계 토기가 아니라 모두 같은 동일계 토기인데, 이러한 무늬 형식의 토기는 한강 유역의 미사리나 암사동 등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모두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에 속하는 것이다.

3. 청동기 문화

부평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는 보통 기원전 20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있는데, 처음으로 금속제 도구인 청동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청동기로는 청동검을 들 수 있지만, 그 외에 간석기와 민무늬토기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인돌(支石墓)·돌널무덤(石棺墓)·독무덤(甕棺墓) 등 매장 관련 유적·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부평지역의 경우, 일찍이 1954년 계양산에서 돌도끼 3점이 발견되어 청동기 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입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때 발견된 돌도끼는 길이 9.8cm에 폭이 8.8cm에 불과한 조각으로, 원형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후, 1955년 경서동에서 길이 13.3cm, 폭 6cm의 돌도

끼가 발견된 데 이어 1957년에는 인천공업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길이 12.5cm, 폭 5cm 크기의 돌도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 · 유물 가운데 그 시대 고유의 특징적 요소를 두루 갖춘 것으로는 계양산 일대의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집터, 그리고 서구 대곡동 일대에서 확인된 고인돌 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1) 집터

(1) 입지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집터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였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낮은 구릉지에 주로 위치한다. 그러나 해안을 끼고 있는 부평지역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입지 양상을 보이는데, 낮은 구릉지 뿐만 아니라 해안 지대에도 주거지가 발달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이는 집터의 위치가 생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부평지역의 경우 당시 구릉과 해안 즉 육지와 바다를 이용한 광역화된 생업 경제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부평지역에서 확인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은 대개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당동 · 동양동 · 검단동 유적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집터는 방사성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동기시대 당시의 유적들과 더불어 신석기 유적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인천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두 시대 사이의 생활이나 생업 양식이 유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2) 성격

부평지역의 청동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가 충분치 않은 까닭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격적인 학술 조사의 결과로 간행된 보고서들에 따를 때, 현재로서는 원당동 '가' 지점에서 18기, '나' 지점에서 7기, 동양동 1지구에

서 3기, 검단동 2구역 2기 등 모두 31기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부평지역의 집터

유적명	번호	규모(cm)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원당동 4구역 "가"지점	1호	680×365×?	장방형	무문토기, 간돌살촉	
	2호	495×330×?	장방형		
	3호	450×290×?	장방형		
	4호	450×360×?	장방형		
	5호	620×325×?	장방형		
	6호	410×?	장방형		
	7호	?	장방형		
	8호	570×350×?	장방형	돌도끼, 무문토기	
	9호	?	장방형		
	10호	570×300×?	장방형		
	11호	?	장방형		
	12호	?	장방형		
	13호	475×310×?	장방형		
	14호	540×163×25	말각방형	무문토기, 달도끼, 미완성석기	
	15호	650×227×?	장방형	무문토기, 간돌살촉, 돌끌, 장주형돌칼	
	16호	640×300×?	장방형		
	17호	620×150×20	장방형	무문토기, 달도끼, 돌끌	
	18호	900×210×39	장방형	무문토기, 반달칼, 돌방추차, 미완성석기	
원당동 4구역 "나"지점	1호	364×?×43	장방형	무문토기	
	2호	574×220×28	장방형	돌끌, 간돌살촉, 무문토기	
	3호	670×225×14	세장방형		
	4호	800×338×70	세장방형	무문토기	
	5호	593×448×23	원형	간돌살촉, 무문토기	
	6호	908×284×40	세장방형	간돌창, 반달칼, 무문토기	
	7호	454×200×15	장방형	지석	
동양동 1지구	1호	1170×630×45	장방형	이중구연토기, 석촉, 석창, 석부, 지석, 찰절석기	
	2호	410×384×3	방형	이중구연토기, 석촉, 석부, 지석, 망치돌	
	3호	?	?	무문토기, 지석 검단동	
검단동 2구역	1호	590×205×30~10	말각장방형	이중구연토기, 석촉, 지석	동쪽 벽면에 토기 매납 구덩이 3개 확인됨
	2호	440×280×37~7	말각장방형	무문토기, 지석	
원당동 4구역 "라"지점	1호	802×370×27	장방형	공열토기편, 마제석부	바닥은 회색점토로 다짐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장방형이 70%로 가장 많다. 이것은 가옥의 기본 구조를 결정짓는 속성으로서 한강 유역 일대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장방형의 긴 변은 약 5~6m 정도, 짧은 변은 2~3m 정도가 평균적이며, 동양동 유적 집터의 경우 약 12m에 달하는 큰 것도 있다.

움의 깊이는 20~40cm로 신석기시대의 경우에 비해 얕은 편이며, 청동기시대 움의 통상적인 깊이가 30~60cm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동기 유적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쓰거나 점토다짐을 하였으며, 화덕의 설치 여부는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3기가 확인된 동양동 유적의 경우에는 모두 화덕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유물

부평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집터의 유물은 집터 숫자에 비해 매우 빈약한 편이다. 토기로는 이중구연토기·무문토기가 있으며, 간석기로는 석촉·석창·반달돌칼·돌방추차·돌끌·달도끼 등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달도끼는 이제까지 출토된 예가 많지 않으므로 여기서 좀더 언급될 필요가 있다.

달도끼는 환형석부(環狀石斧) 또는 바퀴날도끼라고 하며, 중심부에 구멍을 뚫고 나무를 끼워 사용한 석제 무기의 일종이다. 구멍은 가운데 쪽이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져 날카로운 날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 유물은 우리나라 북부 지방의 고인돌에서 주로 발굴되어 왔다는 점에서 부평지역의 집터(원당동 4구역 14·17호)에서 2점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달도끼의 용도에 대해서는 출토지가 고인돌이 아니라는 점과 아울러 희귀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방어 목적과 아울러 집단 내 계층의 발생 사실을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청동기시대 부평지역에 사회적 분업과 함께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돌널무덤(석관묘, 石棺墓)

청동기시대의 주요 무덤 형태로는 고인돌(지석묘, 支石墓)·돌널무덤·돌깐무덤(부석묘, 敷石墓) 등이 있으며, 후기로 가면 독무덤(옹관묘, 甕棺墓)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무덤은 단순한 돌무지에 지나지 않았던 석기시대의 경우와는 달리 본격적인 매장 풍습의 출현을 알려준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정신문화로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부평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청동기시대 무덤의 형태는 돌널무덤과 고인돌이다. 그 가운데 특히 원당동 1구역 '가'·'나' 지점의 구릉에서 관찰된 4기의 돌널무덤은 부평·인천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1) 원당동 1구역 '가' 지점

① 1호 돌넘무덤 : 유구 안에서는 출토 유물이 없지만, 지표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 평면 형태 : 장방형
- 축조 과정과 시설 : 묘광을 판 후 판석형 할석으로 4벽면을 처리
- 바닥 처리 : 3매의 판석형 할석으로 처리

(2) 원당동 1구역 '나' 지점

① 2호 돌널무덤

- 묘광 크기 : 200×120cm
- 돌널 : 여러 매의 할석이 남아있음

② 3호 돌널무덤

- 묘광 : 140×110cm, 부정타원형
- 축조 시설 : 묘광 내에 판석조 돌널과 할석조 위석 시설

③ 4호 돌널무덤

- 묘광 형태 : 160×110cm, 말각장방형,
- 묘광 시설 : 돌널(내부규모-45×23cm)과 위석시설
- 기타 : 상부 개석으로 보이는 판석 및 마제석착 1점 발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당동 1구역의 돌널무덤은 4기 모두 묘광이 부정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가 유실된 상태이지만, 당시 부평 · 인천 지역의 돌널무덤 묘제와 관련하여 개략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평면 형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장방형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돌널은 대체로 1매의 판석으로 1면을 축조한 단판석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복판석식이나 할석식에 비해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부평지역의 돌널무덤이 형태상 일찍이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바닥 시설은 벽면과 달리 여러 매의 판석형 할석으로 처리되어 있다.

넷째, 돌널무덤의 축조는 단독형과 집단형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3) 고인돌

고인돌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무덤 형식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부평지역에서도 적잖이 발견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추정하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 지석묘(支石墓), 중국에서는 석붕(石棚) 혹은 대석개묘(大石蓋墓)라 불리는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 고인돌이 수적으로 제일 많고 밀집도 역시 높기 때문이다. 고인돌의 형식은 굄돌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하천의 퇴적층 지대나 낮은 야산의 기슭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평지역의 경우, 고인돌은 근래에 서구에 속하는 대곡동(황골부락)에서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원당동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1) 대곡동 고인돌군

대곡동 고인돌군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경계에 위치한 가현산(歌鉉山, 해발 215m) 북쪽 지대에서 발견되었다. 이 일대의 입지는 가현산의 주봉과 능선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동쪽만 평야로 연결되고 있어 소규모 부족 단위의 생활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일찍이 30여 기의 고인돌이 확인된 적이 있었던 이 일대에서 2005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학술 조사를 벌여 대곡동의 고인돌이 모두 100기에 이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고인돌은 대부분 가현산 북쪽의 가지능선에 분포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강화도 고인돌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강화도 고인돌을 능가하는 대형 고인돌이 여럿 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대곡동 고인돌

	기수	형식				덮개돌 형태								비고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모름	말각장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삼각형	원형	마름모형	부정형	모름	
A군	1	1						1						
B군	6			6		4	1	1						
C군	75			16	59	18	4	1	2			36	13	매몰
D군	8	2		4	2	1		1		1		2	3	
E군	10	7		3			1	2	2	1	1	3		
계	100	10		29	61	23	6	6	4	2	1	41	16	

고인돌의 형식을 놓고 볼 때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능선에 매몰된 채 일부만 드러나 있을 뿐 전모를 알 수 없는 고인돌이 많아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교적 한정된 범위의 조사 지역 내에 탁자식과 개석석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덮개돌의 형태는 크게 6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말각장방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덮개돌 형태를 보이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판석을 사용한 결과로서, 가장자리를 손질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석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관찰된다.

고인돌군은 편의상 5개 군(A~E)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B군의 경우엔 고인돌 덮개돌(개석, 蓋石)이 북서-남동의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D-2호에서는 고인돌 하부 구조만 남아 있어 이 일대의 고인돌 조성 과정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곡동 고인돌군에서는 조사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물도 함께 출토되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주상편인석부, 무문토기 몸통편, 반달돌칼 등이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는 옛날부터 화살촉, 돌도끼 등이 다수 발견되어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감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밭을 일구다가 간석기 등의 유물이 더러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곡동 고인돌
(인하대학교 박물관 제공)

돌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인돌의 암질은 흑운모 편마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강화도의 고인돌 암질과 같으며, 이 돌들을 캐낸 채석장은 고인돌이 위치한 대곡동에서 적어도 2Km 이상 떨어진 북변리나 장기리 혹은 5Km 이상 떨어진 대릉리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곡동 고인돌 유적은 원당동이나 동양동의 집터 유적 및 무덤 유적과 함께 청동기시대 부평지역의 복합사회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조속히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부평지역 내 선사 유적의 존재 가능성

부평지역에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광활한 부평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김포반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택지 개발을 비롯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논과 밭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이로 인해 토탄층의 존재 가능성이 높고, 특히 논이 많았던 부평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은 대부분 빛을 보지 못하고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탄층 형성은 자연 제방이나 습지 일대에서 주로 형성되는데, 부평지역은 황해 및 한강과 매우 인접해 있어 홍수 발생 시 상습 침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탄층 생성에 매우 알맞은 자연조건을 지닌 곳이다. 예컨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부평 전역이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다고 한다. 토탄층이 우리나라 서남부의 평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가까운 김포·일산 지역에서도 토탄층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부평지역의 토탄층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평지역에서 토탄층이 대량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실로 막중할 것이다.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점을 유념하고 그에 따라

선사 유적의 발견이 실현된다면 신석기시대 자연환경과 농경문화의 기원과 관련한 학술적 심층 연구가 가능할 것임은 물론, 서해안 일대의 초창기 교통수단이었던 뗏목배 혹은 통나무배가 출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2절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1. 백제의 성장과 인천지역

1) 마한에서 백제로

삼국시대 부평지역의 지명은 주부토(主夫吐)였다. 이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부평부읍지』 등 대부분의 문헌에 기록된 부평지역 최초의 지명이기도 하다. '주부토'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들 문헌들이 부평지역의 연혁을 '고구려 주부토군'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부터 불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는 427년(장수왕 15)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후 475년(장수왕 63)에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처형하였다. 이로 인해 백제는 수도를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옮기고, 고구려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갔다. 부평지역이 고구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 무렵부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강 유역은 삼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그 주인이 번갈아 바뀌었던 바, 부평지역 역시 고구려, 신라, 백제를 오가며 그 귀속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평지역의 지명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전하지 않는다. 다만 757년(경덕왕 16) 주부토가 장제(長堤)라는 한자식 지명으로 개명된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아마도 경덕왕이 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지명 개정 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주부토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부토가 비록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서 불려지던 지명이었다 하더라도 삼

이 글은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 책임 집필하였음

국시대 부평지역의 역사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 정착하던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천 지역에 전해지는 미추홀 전승과도 관련이 깊다.

인천 지역이 문헌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미추홀(彌鄒忽)과 관련해서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건국과정을 온조집단이 백제집단을 흡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비류집단이 정착한 미추홀이 인천으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적으로 그 이전에 인천과 관련된 정치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패해서 남쪽으로 도망해 온 곳이 인천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준왕이 택했던 이주 경로는 바닷길로, 새로운 경로가 아니라 당시 많이 알려졌던 경로였다고 생각된다. 준왕이 도착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당시 한반도 서북부지역과 활발히 교류를 원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다.

적어도 이 시기에 인천지역은 서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을 개연성은 추정할 수 있고 해상교역의 이점을 이용하여 성장한 정치세력의 존재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류가 미추홀에 정착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비류가 인천지역을 근거지로 택한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이 해상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비류가 정착하기 이전에도 일정한 수준의 정치집단이 인천지역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해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54국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한 54국 중 현재의 인천지역에 비정된 소국은 소석색국(小石索國)·대석색국(大石索國)·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목지국(目支國) 등이었다. 우휴모탁국은 이병도에 의해 부평지역으로 비정되었다. 즉 『삼국사기』에 부평지역은 고구려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신라시대에는 장제군(長堤郡)으로 나오는데 우휴모탁의 발음이 주부토(主夫吐)와 통하고 뜻으로는 장제(長堤)와 통한다고 하여 추정된 견해이다. 소석색국과 대석색국은 이병도가 경기도 서해의 어느 섬인 듯하다는 견해를 제기했고, 천관우는 구체적으로 강화군 교동도와 강화도로 비정한 바 있다.

목지국은 천관우에 의해 미추홀 즉 본래의 인천지역에 비정되었다.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목지(目支)의 동음이자(同音異

字)라 하여 목지국의 위치를 오늘날의 인천지역으로 보았다. 또한 백제 왕계가 온조계와 비류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온조 이래의 역대 왕들은 서울 강남의 백제국(伯濟國)을 중심으로 인천을 포함한 백제 전역을 다스렸으나, 비류계의 고이왕(古爾王)은 인천의 목지국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을 포함한 백제 전역을 지배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문학동·관교동 일대를 목지국의 중심지로 보았다. 천관우가 제기한 목지국의 중심지로서 문학산 일대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는 문학동·주안동·학익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비롯하여 청동기·철기시대의 유물·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마한의 한 소국의 근거지로 추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왕이 목지국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온조계가 아닌 비류계의 고이왕이 그 전래의 본거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강남의 백제국을 포함한 당시의 백제 전역(임진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과 그 주변 약간으로 추정)을 지배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반항구적인 상황이 아니라 고이왕대의 일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미추홀 목지국의 중심지는 현 인천의 문학동·관교동 일대로 보았다.

천관우의 연구는 목지국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음은 물론 인천향토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고, 이와 같은 면에서 천관우가 미추홀의 중심지로 지적한 문학산 북록의 문학동·관교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매우 협소한 구릉지역이어서 미추홀의 중심지로는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산을 비롯한 인천 주변에서 조사된 단편적인 고고학적인 자료와 백제관련 전설유지를 통해 본다면 미추홀의 중심지 문제는 문학산 주변과 동으로 소래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온조집단이 남하하여 도읍을 정했던 위례성(慰禮城)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에 직산(稷山)으로 표기된 것을 비롯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듯이 온조집단의 최초 정착지에 대해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백제초기 지배세력의 성립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백제초기의 토성과 고분들이 서울시 일원 한강 남쪽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온조집단이 정착하였던 대략적인 위치는 현재 서울시 범주에 속해 있는 한강 남쪽의 평야지대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

비류의 근거지로 알려진 미추홀은 비류집단이 남하하여 정착한 도읍으로 위례성의 위치와 함께 초기백제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미추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지리지에 미추홀이 인천으로 표기된 이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미추홀국(彌鄒忽國), 미추국(彌鄒國), 또는 비류국(沸流國) 등으로 일컬어지며 인천지역이었음이 긍정되어 왔다.

미추국의 유적으로 문학산성이 지목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인천군의 남쪽 2리에 남산석성(南山石城)이 있다고 기록된 이후부터이고, 이후 『동사강목』, 『여지도서』, 『경기읍지』 등에서 문학산성을 비류와 연결시켜 이 산성이 '비류의 성'이라는 인식이 정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추국의 중심유적은 문학산성으로 믿어 왔다. 이는 1460년(세조 6) 관교동에 인천도호부의 관아가 세워진 후 미추국의 범위를 가까운 문학산성으로 비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산성은 백제의 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의 성은 평지에 흙으로 조영하는 평지성이나, 문학산성은 산정상에 포곡식으로 쌓은 석성(石城)이기 때문이다. 즉 인천지역에 비류가 정착하였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미추홀로 비정한 예가 많이 있다. 미추홀을 충남 아산 밀두리로 보거나, 경기북부 임진강 남안의 양주혹은 파주일대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미추국이 인천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지금의 인천지역에 비류가 도읍하였다고 볼만한 적극적인 고고학적 근거, 즉 당시의 성 또는 고분과 같은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백제 초기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초기백제사의 이해도 달라진다. 그러나 초기백제사에 대한 문헌으로서 『삼국사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대체할 만한 것도 없는 실정이므로 남아 있는 자료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잡아야 할 것이다. 미추홀의 위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미추홀이 인천으로 비정된 이래 역대 지리지와 사서의 인천조에 한결같이 수용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해안 어느 지역에서 비류의 정착지로 볼 수 있는 토성이라든가,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인천을 미추홀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류가 '토습수함' 한 곳임에도 바닷가인 미추홀에 정착한 것은 해상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란 점과 소금의 산지와 소금교역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류는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인천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영종도 송산선사유적에서 흑석제(黑曜石製)와 소위 '금강식토기(錦江式土器)'가 출토되는 것은 인천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의 동북부와 서남해안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의 능허대로 이어진다. 백제는 고구려로 인해 육로가 경색되었기 때문에 능허대 아래의 대진을 이용하여 산동반도에 이르는 등주항로(登州航路)를 개발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별리(別離)고개, 사모지고개(三呼峴), 기암(妓巖) 전설 등 중국으로 떠나는 백제사신들에 대한 전설은 백제 왕성 위례성과의 연결통로를 밝혀주는 것이다. 중국과의 통교를 한성과 가까운 능허대를 이용하였던 것은 인천지역이 백제전기까지도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사회에 있어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철산지와 소금산지의 확보는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인천지역이 근래까지 많은 소금을 생산했던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금을 매개로 하는 해상교역망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던 비류는 소금산지인 이곳 인천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추홀은 인천의 어느 곳인가. 미추홀의 정확한 위치가 인천의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미추홀의 중심유적으로 지목되어 온 것은 문학산성이다. 그러나 문학산성은 둘레 577m의 석성으로 비류의 도읍지로는 보기에는 너무 좁고 높은 곳이며, 백제의 성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몽촌토성이나 풍납동토성은 토축성으로 평지성이다. 온조집단과 비류집단이 계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이주해 온 유이민세력이라면 이들의 축성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삼국시대 초기의 도읍은 대체로 평지에서 벗어난 구릉의 대지에 자리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문학산과 맞은편에 위치한 승학산이 이루고 있는 관교동 - 문학동 분지를 들 수 있다. 문학산은 노적산, 연경산, 문학산, 수리봉, 길마산 등 5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일렬횡대를 이룬 약 2.5km 길이의 작은 산괴이다. 동쪽으로는 남동염전의 갯벌, 도장리에서 승학천을 따라 승기로 이어지는 저지대가 고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습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산과 승학산이 이루는 관교동 - 문학동 분지는

섬과 같은 지리적 환경을 이루고 있어 초기국가단계의 도읍으로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비류가 도읍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관교동 - 문학동 분지는 미추국의 중심지이지 그 전체 범위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비류집단의 세력은 온조집단에 비견할 정도의 세력이었을 것이므로, 미추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온조가 남하 당시 마한왕이 동북지방의 1백리의 땅을 주었다는 기사에 비추어 본다면, 미추국의 규모 또한 방백리의 규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산 주변과 동으로 인천의 진산인 넓은 지역으로 보려는 견해는 주목할 만 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문학산 동사면에서 백제토기 산포지의 발견이다. 더욱이 선학동 무주말 유물산포지에서도 백제의 대옹편이 출토된 것은 문학산 동록 일대에 백제시대 생활권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추국의 범위를 밝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인천의 역사는 비류의 미추홀 정착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는 『삼국사기』라는 확실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고고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학산 주변은 비단 미추홀의 위치문제뿐만 아니라 인천의 역사발전에 중심적인 위치이므로 더 이상 파괴되기 이전에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미추국의 성장

미추홀을 인천지역으로 보는 것은 12세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뒤이은 『삼국유사』 이래 지속되었고 현재도 백제사 연구자의 대부분이 이를 따르고 있다. 반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하는 연구는 1982년 김성호의 미추홀의 아산 밀두리설을 비롯하여 1992년 한종섭의 부평 계양산성설 및 최근 김기섭의 임진강유역설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아산 밀두리설과 부평 계양산성설은 자료와 논리적으로 그 부당함이 적절히 지적되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면 김기섭의 임진강유역설은 1993년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래 1998년 미추홀의 양주고읍설로 정리되고, 이를 확장하여 2002년 미추홀의 위치를 임진강유역으로(구체적으로는 북한강 이북에서 임진강 이남) 표현하기에 이른다.

임진강유역설이 1993년 처음 제기되었지만 관련 연구자에게 주목받은 것은 1997년 제출한 학위논문에서 미추홀을 고구려 광개토대왕 남진 이후 적용된 지명이라는 설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백제의 건국세력도 부여계(고구려계)이니 만큼 고구려가 인천일대에 남진하기 전에도 고구려계 지명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성(城)을 의미한다는 '~홀(忽)'이 고구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현재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는 중부지방의 고구려계 지명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남진의 산물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미추홀이 기원 전후부터 사용된 듯 기록에 보이지만, 고구려 남진이전 백제의 지명으로 미추성이 확인되고 나아가 백제 편입 이전의 소국으로 미추국의 존재가 나타나는 이상 논란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미추홀의 양주고읍설은 아직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크게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언급한대로 이 견해는 1993년 백제 왕계를 이원론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백제 왕계를 천관우의 연구에 따라 우태(優台)-비류계와, 주몽(朱蒙)-온조계로 양분한 다음, 시조 온조왕부터 제7대 사반왕까지는 주몽-온조계이고, 제8대 고이왕부터 10대 분서왕(汾西王)까지와 12대 계왕(契王)은 우태-비류계에 속하며 다시 11대 비류왕(比流王)과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부터는 다시 주몽-온조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보고 있다.

백제 왕실이 몇 차례 변화되었고, 나아가 기원전후이래 여러 계통의 정치집단이 병렬적으로 존재하였고 이것이 3-4세기경에 백제(百濟)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고 보기도 하며, 4세기 후반 전혀 이질적인 정복민에 의한 지배세력 교체를 상정하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임진강유역설의 입론의 출발이 되는 백제의 왕계 구분과 일정 기간 병렬적 존재현상에 대한 견해는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고이왕과 대방고지(帶方故地)에 건국하였다는 백제 시조 구태(仇台)를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도 구태를 온조로 여기는 연구도 적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양주고읍설에서 미추홀과 인천을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문학산성에 비정한 인식이 후대 부회(附會)된 것이라는 지적은 좀더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다. 인천 관련 연혁기사를 살펴하면 18세기 중엽에야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선 세조대 인천군을 인천도호부로 승격하

면서 고려시대 이른바 7대어향임을 강조하고 인천이 경원(慶源) 곧 경사(慶事)의 근원(根源)임을 내세우는 등 지역에 대한 강렬한 우월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임진강유역설의 경우 이를 고려전기 인천을 관향(貫鄕)으로 둔 인주 이씨(仁州李氏)의 득세와 관련하여 도회(都會)가 형성되고 부쳐진 것이라는 이해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실제 인주이씨가 남긴 기록에도 이같은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① 이자연 묘지, 문종 15년(1061)

이름은 자연(子淵)이고, 자는 약충(若沖)이며, 그 선조는 소성(邵城) 사람이다.

② 이정 묘지, 문종 31년(1077)

이름은 정(頲)이고, 자는 백약(百藥)이며, 수주 소성현(樹州 邵城縣) 사람이다.

③ 이공수 묘지, 인종 16년(1138)

공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선조는 신주(信州) 사람이다. □삼대(□三代) 조상인 병마사(兵馬使) 대광(大匡) 기평(奇平)이 소성(邵城)에 수령으로 나와 다스리게 되면서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소성은 뒤에 인주(仁州)로 고쳐졌으니, 이제는 인주 사람이다. 공의 이름은 공수(公壽)이고, 자는 원로(元老)이다. 원래 이름은 수(壽)였으나, 재상이 되면서 공(公)이라는 글자를 덧붙였다

④ 경원군 이씨 묘지, 의종 3년(1149)

경원군 이씨(慶源郡 李氏)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창화공(昌和公) 자연(子淵) 2)의 증손녀로, 조부는 경덕공(景德公) 호(顥)이고, 아버지 자원(資元)은 사재경 지어사대사(司宰卿 知御史臺事)이다. 외조의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경용(景庸)으로 문하시중 양의공(襄懿公)이니, 그 가세(家世)를 살펴보면 해동(海東)의 갑족(甲族)이다.

⑤이식 묘지, 의종 10년(1156)

공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이름은 식(軾)이며, 자는 처인(處仁)으로, 그 선조는 경원군(慶源郡) 사람이다.

⑥이응장 묘지, 명종 7년(1177)

공의 이름은 응장(應璋)이고, 경원군(慶原郡) 사람이다. 음서[門子]로 처음 벼슬하여 높고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위와 같이 인주 이씨의 중시조라 할 이자연의 묘지를 비롯해 고려 문벌귀족시대 대표적인 인주 이씨 인물 묘지명의 관향은 거주지 표기 이상으로 미화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본래 관향을 신천(信川)이라 밝히거나, '수주(樹州) 소성현(邵城縣)'에서와 같이 상급 행정단위를 덧붙인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양주고읍설은 미추홀의 별칭인 매소홀(買召忽)과 양주(楊州) 고읍(古邑)인 고지명 매성홀(買省忽)이 음운상 서로 통하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이의 문제점은 앞서 정재윤, 김상렬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경기도 광주군 선리(현 하남시 선동)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매소홀과 매성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들 유물은 양주군 주내로 비정되는 매성(買城), 인천으로 여겨지는 매소홀이 실제 행정지명으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따라서 매성=매소홀이 동일 장소라는 견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고구려계 지명이 통일신라시대에도 일부에서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지명과 관련한 설화와 전승도 동반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신라하대나 고려초기 기록에서도 경덕왕대 이전 지명이 그대로 사용된 경우가 허다하다.

3) 미추국과 능허대 한나루

인천광역시 남구 옥련동 해안쪽 선단에는 능허대(凌虛臺)라는 곳이 있다. 서울에 도읍하고 있던 백제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 배를 떠나 보낸 곳

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과 통교한 근초고왕(近肖古王) 27년(372)부터 웅진으로 천도하기 전 개로왕(蓋鹵王) 23년(475)까지 사용하였다 한다. 자연 능허대는 인천 지역사와 초기 백제사 연구자에게 주목을 받아 왔고, 현재 인천의 대표적인 전승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능허대와 관련한 기왕의 이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능허대는 발선처(發船處)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능허대는 해변에 섬 모양으로 솟아올라 전망이 좋은 경승지였을 뿐이며, 정작 백제사신은 그와 떨어진 대진(大津)에서 출발하였다. 능허대를 백제 사신의 발선처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둘째, 황해를 건너 산동(山東) 등래주(登萊州)에 닿았다는 사행 전승이 인천연안 여러 곳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승상의 사행이 백제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이어졌지만, 사행로를 비롯한 내용은 시대를 불문하고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능허대를 사신의 발선처로 보고, 백제시대에만 이용하였다는 기왕의 설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대진의 사적이 왜 능허대의 일로 알려졌으며, 인천연안 여러 곳에 사행시기만 다를 뿐 유사한 전승이 남은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능허대에 대한 용례와 위치를 살펴보고, 발선처는 대진인데 왜 능허대로 인식되었는지, 나아가 인천연안의 유사한 사행전승이 황해를 이용하던 사행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능허대는 16세기 시문(詩文)에서부터 확인된다. 그 위치는 현재 공원화되어 있는 곳으로 보아 틀림이 없지만, 정작 사신의 배는 그와 1㎞ 가량 떨어진 옥련동 대진에서 출발하였다. 능허대는 나루가 아니고 해변에 섬 모양으로 솟아올라 전망이 좋은 경승지였을 뿐이다. '능허(凌虛)'의 표현도 '허공을 가르다'(승천 혹은 비상하다)는 글자 뜻대로 일종의 길상어(吉祥語)로써 중국에서는 위진(魏晋)이래, 그리고 우리나라도 같은 쓰임으로 조선전기이래 사용하였다. 특히 조망이 좋은 천변(川邊)과 호수 주변의 누각이나, 해안의 절경지에 많이 붙여졌다. '능허대'가 인천을 비롯하여 황해도 해주, 강원도 울진과 고성 근방 그리고 충청도 태안의 안흥에까지 보이는 까닭이다.

대진의 사적이 능허대의 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곧 1949년부터 인천의 향토유적을 조사한 이경성이 능허대를 사신의 발선처로 명시하고, 이를 이어 박광성이 그 사용 시기를 백제로 규정하면서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그렇지만 1933년 간행된『인천부사』에 능허대(송도) 해안을 통하여 사신이 오갔다는 전승을 수록하고 있을 뿐, 16세기 이래 어느 문헌에도 능허대와 사신을 연관시킨 기록이 없다. 이경성과 박광성의 견해는 19세기『인천부읍지』에 대진을 '능허대 아래'라고 한 표현에 근거한다. 대진을 능허대 바로 아래로 여겨 양자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읍지에서 대진을 능허대에 덧붙여 서술한 것은, 원우미면(遠又彌面) 대진리(大津里)에 함께 소속된 데 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던 18세기 편찬된『여지도서』에는 능허대가 대진과 소속 면을 달리할 뿐 아니라 사신 운운하는 표현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1㎞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진과 능허대는 18세기에 면계를 이루다가, 19세기에는 동면, 동리로 편재되었다.

대진을 출발하여 인천연안을 빠져나와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반도 등주(登州)를 잇는 사행로는 백제시대(372~475)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475년 이후의 백제와 신라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이용되었다. 이때마다 대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반도의 중서부 지역에서 해로를 이용하여 등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천연안을 거쳐야만 하였다. 자연 오랜 기간 같은 노정이 반복되었을 것인바, 대진과 중간기착지로 이용되었던 용유도에 백제~고려에 이르는 시기를 달리하나 유사한 사행전승이 남아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황해를 횡단하여 등주로 통하는 사행로는 조선시대에도 이용되었다. 물론 명(明)이 허용한 조선의 사행로는 해로를 금지하고 요동을 거치는 육로였다. 그러나 명 초 금릉(金陵, 남경)에 도읍하던 시기와, 명 말 요동지역을 건주여진(建州女眞)이 차단하자 일시 등주를 이용한 해로 통공을 허용하였다. 인천의 대진을 통하여 명과의 사신이 오갔다는 전승은 이에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산동의 등주에서는 황하를 거슬러 개봉(開封)과 '구조지도(九朝之都)'라 하던 낙양(洛陽) 그리고 장안(長安) 등의 역대 고도(古都)로 통하고, 해로와 운하를 이용하면 북경 혹은 남경으로도 용이하게 연계되었다. 조선이 등주 해로를 이용한 공도(貢道)의 복구를 여러 차례 명에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청대에는 오직 육로만이 사행로로 허용되었으므로 조선후기에 등주로(登州路) 이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사신의 귀로와 표류(漂流)·어채(魚採)·무역을 빙자한 민간의 교류는 여전하였다. 조선 말까지도 인천연안이 중국의 연제(燕齊) 및 오초(吳楚) 방면과 한 물길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

식은 이를 반영한다. 인천의 대진과 용유도에 남아있는 사행 전승은 삼국시대 백제로부터 신라 ·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등주로를 이용한 오랜 교류의 흔적이다.

인천지역이 문헌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미추홀과 관련해서이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건국과정을 온조집단이 백제집단을 흡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비류집단이 정착한 미추홀이 인천으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적으로 그 이전에 인천과 관련된 정치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패해서 남쪽으로 도망해 온 곳이 인천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준왕이 택했던 이주 경로는 바닷길로, 새로운 경로가 아니라 당시 많이 알려졌던 경로였다고 생각된다. 준왕이 도착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당시 한반도 서북부지역과 활발히 교류를 원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주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다.

적어도 이 시기에 인천지역은 서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을 개연성은 추정할 수 있고 해상교역의 이점을 이용하여 성장한 정치세력의 존재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류가 미추홀에 정착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비류가 인천지역을 근거지로 택한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이 해상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비류가 정착하기 이전에도 일정한 수준의 정치집단이 인천지역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해서는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54국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선학들에 의해 마한 54국 중 현재의 인천지역에 비정된 소국은 소석색국 · 대석색국 · 우휴모탁국 · 목지국 등이었다. 소석색국과 대석색국은 이병도가 경기도 서해의 어느 섬인 듯하다는 견해를 제기했고, 천관우는 구체적으로 강화군 교동도와 강화도로 비정한 바 있다. 우휴모탁국은 이병도에 의해 부평지역으로 비정되었다. 즉 『삼국사기』에 부평지역은 고구려시대에 주부토군으로, 신라시대에는 장제군으로 나오는데 우휴모탁의 발음이 주부토와 통하고 뜻으로는 장제와 통한다고 하여 추정된 견해이다.

목지국은 천관우에 의해 미추홀 즉 본래의 인천지역에 비정되었다. 인천의 옛 이름이 미추홀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목지의 동음이자라 하여 목지국의 위치를 오늘날의 인천지역으로 보았다. 또한 백제 왕계가 온조계와 비류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온조 이래의 역대 왕들은 서울 강남의 백

제국을 중심으로 인천을 포함한 백제 전역을 다스렸으나, 비류계의 고이왕은 인천의 목지국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을 포함한 백제 전역을 지배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문학동 · 관교동 일대를 목지국의 중심지로 보았다. 천관우가 제기한 목지국의 중심지로서 문학산 일대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 일대는 문학동 · 주안동 · 학익동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비롯하여 청동기 · 철기시대의 유물 ·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마한의 한 소국의 근거지로 추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왕이 목지국을 다스렸다' 라는 것은 온조계가 아닌 비류계의 고이왕이 그 전래의 본거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강남의 백제국을 포함한 당시의 백제 전역(임진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과 그 주변 약간으로 추정)을 지배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반항구적인 상황이 아니라 고이왕대의 일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미추홀 목지국의 중심지는 현 인천의 문학동 · 관교동 일대로 보았다.

천관우의 연구는 목지국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음은 물론 인천향토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고, 이와 같은 면에서 천관우가 미추홀의 중심지로 지적한 문학산 북록의 문학동 · 관교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동 · 관교동은 매우 협소한 구릉지역이어서 미추홀의 중심지로는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산 주변에서 조사된 단편적인 고고학적인 자료와 백제관련 전설유지를 통해 본다면 미추홀의 중심지 문제는 문학산 주변과 동으로 소래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4) 백제의 관문으로서 인천연안

백제가 중국과 통교하기 시작한 것은 백제가 전성기에 달한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중국의 晋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대중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해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측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함안(咸安) 2년 춘정월, 백제 · 임읍왕(林邑王)이 각각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함안 2년 6월, 사신을 보내 백제왕 여구(餘句)를 배하여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하였다.

(「진서(晋書)」 권9, 본기, 간문제기(簡文帝紀))

위의 내용은 백제의 조공과 함께 동년 6월 근초고왕을 '진동장군영낙랑태수'로 봉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측 사료에 모두 공식적인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국 성장의 결과이다. 같은 책에는 290년까지 마한이 여러 차례 진에 조공한 기사가 전하여진다. 『진서』에 마한이 사라지고 백제가 공식적인 외교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성장을 계속하던 백제가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고 한반도 서남부의 대표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한 쌍방적인 외교행위로 해석된다. 4세기 이후 중국은 양자강을 경계로 남조와 북조로 갈려져 있었다. 진(晋, 265~316)이 유목민족인 5호(흉노 · 갈 · 선비 · 저 · 강)의 침입으로 강남으로 밀려가 동진(317~420)이 되었고, 강북에는 5호의 여러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은 남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진은 그들 나름대로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지배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제와의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남북의 대립으로 인해 진의 지배력이 동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자 고구려 미천왕이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하고, 남쪽으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함으로써 현도군과 요동군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전연(前燕)과 남쪽으로는 백제와 경계를 이루게 되어 전연과는 요동군과 현도군을, 백제와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땅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고구려는 모용황(慕容皝)의 침입을 받아 국도가 함락되자 전연과는 화의를 맺고, 고국원왕은 백제의 북경을 두 차례 침범함으로써 남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백제는 근초고왕 24년(369)과 26년(371)에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로써 백제는 남으로는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진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전사로 백제와 고구려는 구수관계에 놓이게 된다. 고구려는 전연을 멸하고 등장한 전진(前秦)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고, 백제는 전진과 대립하고 있는 동진과 통교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립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형세를 이루었다.

고구려와 원수관계에 놓인 백제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통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로를 이용하여 통교하여야만 하였다. 백제가 이 때 이용한 해상교통로가 등주 항로였다. 등주항로는 한강 하류역인 인천을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동반도의 등주에 이르는 항로이다. 이는 백제를 공격할 때 당의 소정방이 이용한 항로가 산동반도의 래주(萊州)에서 덕물도를 거치는 항로였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인천이 백제사신의 출항지가 된 것은 백제의 한산에서 서해로 빠지는 한강 하류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상술한 바와 같이 인천은 전통적인 해상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등주항로는 비교적 안전한 항로였다고는 하지만,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도 나타나듯이 당시의 조선기술이나 항해술로 비추어볼 때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구수왕 5년(379)에 동진으로 파견된 사신은 악풍을 만나 회항하는 등 총 65회 중 3차례나 중도에 회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는 '방(舫)'으로 표현된 대형선박을 이용하였고, 또 488~490년의 해전에서 북위 선단을 격파할 정도로 비상한 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 통교할 수 있었다.

백제의 중국 통교와 관계된 능허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부천시 쪽에서 인천시 구산동을 거쳐 만수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별리현(別離峴)이라 하고, 인천구읍 관교동에서 능허대 쪽으로 이르는 문학산 서편 고개를 삼호현(三呼峴, 사모지고개)이라 부른다. 중국으로 가는 백제 사신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할 때 한산에서 부평의 별고개를 넘고 이 고개를 넘어 능허대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때 사신을 배웅하러 따라 나왔던 가족과 친지들은 별고개에서 전송하며 이별을 나누었다 하여 별리현이라 불리었고, 사신들도 사모지고개에 오르면 멀리 보이는 별고개에 아직도 서 있던 가족들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세 번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하여 삼호현이라 불

리었다고 한다.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는 능허대를 객관, 향사당과 함께 궁실조로 분류하고 있다. 별리현 · 삼호현전설과 ①의 기암전설, 그리고 『동국여지지』의 분류를 보면, 능허대는 후풍하는 백제사신들의 객관이 있었던 곳이며, 주변의 대진에서 출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능허대라는 명칭은 『인천부읍지』, 『여지도서』, 『대동지지』에 모두 능허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33년 일본인에 의해 편찬된 『인천부사』 구적명 소조에는 능호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 발음에 따른 오기인 것 같다. 능허대의 능허는 '하늘높이 나른다'는 뜻으로 중국의 옛 시구에 자주 나타나는 말이다. 능허대라는 명칭은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에서 글자를 따다가 합자한 것으로 보인다. '종일위소여 능만경지망연(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이라 한 데서 '만경을 건넌다'는 능만경의 '능(凌)' 자와 '호호호여빙허어풍(浩浩乎如憑虛御風)'이라 한 데서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는 빙허어풍의 '허(虛)' 자를 따서 '만경창파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듯 건넌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소동파는 송대 사람이므로 능허대라는 명칭은 백제 당시가 아닌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능허대를 통해 중국과 통교한 것은 근초고왕대에서 개로왕 21년(475)까지의 100여년간에 불과하다.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도읍을 웅진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백제와 중국사이에는 조공 · 봉책 · 견사 · 청구 및 허락 · 전쟁 · 회맹 등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최초로 대중관계를 맺은 진과는 372년 간문제가 근초고왕을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로 봉한 이래 8차례나 통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두 조공과 봉책에 관련된 것이었다. 진을 대신하여 송(宋)이 서자, 백제는 송과 통교를 계속하였다. 송은 전지왕(腆支王)을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으로 봉책하여 진의 외교관계를 계승하였다. 조공과 봉책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유왕(毗有王)은 역림(易林) · 식점(式占) · 요로(腰弩) 등을 요청하는 등 백제가 문화적 욕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중관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로왕대에는 왕에 국한된 봉책관계에서 신하들에게까지 관작을 요청하기도 하고, 남조에 국한하지 않고 북위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등 심화된 대중관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대중국 통교의 관문이었던 능허대의 역할은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하면

서 끝이 난다. 웅진으로 남천한 백제는 백마강을 통하여 통교하였고, 고구려는 한강을 점령한 후에도 육로를 이용하였으며, 한강유역을 점령한 신라는 남양의 당항성(黨項城)을 통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신라는 남양만의 당성(唐城, 당항성)과 영암방면에서 흑산도를 항로로 이용하였다. 후백제가 오월과 통교한 곳도 나주였으며, 고려 역시 북쪽에 거란이 막고 있어 예성강을 통하여 통교하였으므로, 능허대가 있는 인천지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된 475년부터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553년까지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문학산 일대는 고구려와 백제 세력의 쟁탈이 반복된 곳임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확고히 지배되지 않은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한강유역의 점령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던 인천지역의 기능을 잃게 하였다. 고구려의 남진이 있기 전에 한강유역의 대중국 관문은 능허대였다. 그러나 한강유역을 점령한 신라는 남항만의 당항성을 이용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이는 고구려 · 백제와 대립하고 있는 한강유역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당항성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천지역은 선사시대이래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고려 인주이씨의 등장까지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백제는 남천후 백마강을 통하여 통교하였고, 한강유역을 점령한 고구려는 육로로 통교하였으며, 신라는 당항성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후백제는 나주를 이용하여 오 · 월과 통교하였으며, 고려는 왕도와 가까운 예성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던 인천은 잠시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 인천은 신라의 통일이후에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이 지역에 대하여는 경덕왕대의 지명의 변천만이 전하여지고 있다. 통일 후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신문왕 5년(685) 신라는 전국 9주와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신문왕의 지방제도 개편 당시 인천지역은 한산주에 속하였는데, 한산주는 현재의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도 일부를 포함시킨 가장 큰 규모의 주였으며, 1소경 · 27군 · 46현이 속해 있었다. 이후 경덕왕이 즉위하면서 진골귀족의 세력을 제압하고 미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화정책을 실시하여 관제를 정비하였다. 동왕

16년(757)에는 신문왕대의 군현제를 개편하여 순우리말로 된 지명을 모두 한자화하였는데, 이때 한산주는 한주로 개명되었고, 인천지역은 율진군의 영현인 소성현으로 바뀌게 되었다.

4. 통일신라시대 지방호족의 성장

1) 인주 이씨

문학산이 동남쪽으로 해안에 이르러 마치 섬과 같은 작은 동산을 이룬 곳에 이허겸(李許謙)의 무덤이 있다. 이허겸은 인주 이씨의 시조와 다름없는 인물이다. 그의 딸을 인근 안산에 근거한 당시의 권신 김은부에게 시집보냈는데, 거기서 낳은 세 딸이 모두 현종(1009~1031 재위)의 왕비가 되면서부터 인주 이씨가 왕실의 외척으로서 중흥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후 손자 이자연에서 6세손 이자겸에 이르는 80여년 간 고려 귀족사회에서 최대의 문벌로 성장하였다. 곧 인주(인천)는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일곱 왕의 외가이자 왕비의 친정고을이 됨으로써 공양왕 2년(1390)에는 7대 어향이라 하여 경원부로 읍호를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문벌귀족으로의 자리를 굳힌 이자연 대에 허(許)를 떼 내고 이(李)로 성씨를 삼았다.

이허겸의 무덤은 호석을 두르고 상석과 댓돌 그리고 무덤 아래 묘표가 서 있으나 모두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고, 본래는 아무런 석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무덤이 자리한 지형이 바다에 거북이 엎드린 형국(海中伏龜形)이어서 석물을 두면 무덤이 물속으로 잠길 것이라는 풍수설 때문이라 전한다. 무덤 동측에 남북으로 흐르는 승기천은 얼마 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갯고랑이었다.

이허겸의 무덤 남측에 원인재(源仁齋)가 있다. 본래 무덤의 서쪽, 지금의 연수2차 아파트 건너 적십자병원 근처에서 옮겨온 것이다. 원인재는 이허겸의 묘려(墓閭)로서 19세기 초에 세워진 것인데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원래대로 신축하였다. 원인(源仁)이란 인주 이씨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허겸이 시조와 같은 존재인 까닭에 그리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주 이씨는 고려전기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인천의 토성(土姓)으로 가문

의 성쇠는 인천의 지명과 읍격에도 반영되었다. 먼저 통일신라 이래 불리던 '소성(邵城)'은 고려 숙종(1095~1105)에 이르러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 승격된다. 이는 숙종의 어머니 인예(仁睿)·순덕태후(順德太后)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인종(1122~1146) 때에는 인주(仁州)로 명칭이 바뀐다. 인종의 어머니 순종황후의 고향이라는 점을 기리기 위해서다.

인주는 고려말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경원부'로 개칭, 승격된다. 이는 고려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기까지 7대 동안 왕의 외향이거나 왕비의 고향에 해당된다 하여 '7대어향'으로 일컬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전기 문벌귀족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화란에 인주이씨가 중심을 례의 정치적 화란에 직면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인천 이씨가 중심이 된 문벌 간의 정쟁은 이자연의 손자 자의(資義)가 중심이 된 '이자의 모반' 사건이 처음이다. 헌종이 11세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그 나마 병약하자, 자의는 외조카 한산후 '윤'에게 후사를 잇기 위해 거병을 준비하였고 이를 알아챈 상장군 왕국모, 장사 고의화 등에 의해 궁궐 안에서 척살되고 추종세력 20여 명이 함께 참수된 사건이다. 이후 왕실의 연장자인 계림공 '희'가 헌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숙종(肅宗)'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주 이씨 세가는 중앙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씨 문중의 본격적인 쇠락은 '자겸(資謙)의 난'에서 비롯된다. 누이가 12대 왕 순종의 비로,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자겸은 둘째 딸을 예종의 비 문경왕후로 만든다. 이어 자겸은 문경왕후의 몸에서 낳은 외손자를 왕위에 옹립하기 위해 두 명의 숙부와 주변 권력자들을 모두 제거한다. 이어 14세의 유약한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니 이가 곧 인종이다. 자겸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의 비로 만들며,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국정을 농단한다.

그러나 한 하늘에 절대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일. 인종은 성장하며 외조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다. 인종은 자겸과 그의 측근 척준경의 반목을 이용했다. 인종의 부추김을 받은 척준경이 자겸과 그의 가족들을 구금한 뒤 자겸을 역모의 죄를 물어 전남 영광으로 귀향 보낸다.

이어 그의 아들 7명은 모두 외지로 유배로 유배된다. 역사는 이를 '자겸의 난'이라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자연(資淵)의 후손들은 쇠락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의 동생 자상(資祥)의 후손들은 왕의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상은 허겸의 큰 아들 한(翰)의 둘째 아들로 형 자연에 비

해 다소 가세는 적었으나 여전히 인천 이씨의 명맥을 유지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다만 자겸의 사촌인 자효(資孝)의 후손들이 무신정권 말기까지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 초 인주이씨 출신의 권신으로 공도공(恭度公) 이문화(1358~1414)가 있다. 고려말 우왕 때 장원급제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으며, 조선 건국에도 참여하였다. 호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추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가세의 배경이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으로 이후 조선후기까지 인천 이씨로 현달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2) 부평 이씨

부평이씨의 시조는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한 공로로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에 오른 이희목(李希穆)이다. 이후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은 그의 증손 정공(靖恭)이다. 이정공은 과거로 진출하여 요직을 두루 거친 다음 마침내 수상이 되었고 사후에는 순종묘정(順宗廟廷)에 배향되었다. 그의 출세기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삼한공신(三韓功臣) 이희목의 후예라는 가문적 배경과 자신의 출중한 文吏的 기능이 크게 힘입은 것 같다. 그는 문종 30년에 지공거(知貢擧)를 맡았고 숙종 2년에는 '흥왕사비문(興王寺碑文)'을 찬진하는 등 당대 중신 또는 학자로 활약하였다.

정공(靖恭)의 아들 3형제는 고려전기 부평이씨를 당당한 문벌귀족에 반열에 올린 인물들이다. 먼저 맏아들 숙(璹)은 원로대신의 아들이면서 당대 대문벌인 김경용(金景庸)의 사위였고, 그도 역시 척족인 장흥임씨와 인척관계에 있어 인종왕후(仁宗王后) 임씨의 외조부가 되는 등 부평이씨를 혁혁한 귀족가문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식읍 2,500호를 받아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

차남 위(瑋)는 고려 선종(宣宗) 때 수태보(守太保)·문하시중(門下侍中)·판상서이부사(判上書吏部事)에 오르고 계양군(桂陽郡)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져, 뒤에 광국공신(匡國功臣)·진정공신(鎭定功臣)의 호를 받아 계양공(桂陽公)에 봉해졌으며, 정공(靖恭)의 셋째 아들인 순(珣)은 고려 때 양광도 도순문사(陽廣道都巡問使)로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쳐 일등공신(一等功臣)에 올라, 뒤에 삼사좌사(三司左使)를 지냈다.

그러나 부평이씨는 고려후기로는 족세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신란을 계기로 실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향리에서는 在地吏族은 조선 초기까지 戶長을 세습하면서 향촌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려말 이기가 조선의 개국에 참여치 않은 이들과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다가 인천 자연도(紫燕島, 현재의 영종도)에 유배당한데 있다. 가산은 물론 집안의 모든 문적도 이때 산일되고 말았다.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야 신원되어 이기의 아들 이매(李枚)가 비로소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 손자 극효(克孝)가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다. 이윽고 선조대에 이르러 덕일(德一)이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에 오르게 된다. 부인은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柳自新)의 딸로, 이로서 광해군과는 동서지간이 되었다. 사림의 중망을 받는데다 왕실의 인척이자 처가의 권세를 믿고서 여러 사람들이 청탁을 해오자, 덕일은 이를 일체 거절하였다. 끝내는 익산군수라는 외직을 자청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이안눌(李安訥)이 만사에서 그가 (정치적 풍파 속에서) 몸을 낮추어 군수를 맡아 몸을 보전하여 효를 다하였고, 조정에는 기강의 모범을 보인 고결한 인품을 애도하고 있다. 그러나 덕일에게는 후재(厚載), 홍재(弘載), 상재(尙載), 광재(光載)의 4형제가 모두 현달함으로서 부평이씨 가문을 크게 융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홍재의 아들 3형제(世翊, 世赫, 世緯) 또한 연이어 문과급제하여 출사하였는데, 요직을 거침에도 조상의 유지를 이어 충효를 다함이 그지없었다. 이에 앞서 병자호란을 당하여 인천 비룡리(용현동)에서 출생한 윤생(允生)은 만주 오랑캐를 맞아 원도(猿島, 낙섬)에서 분전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 부평이씨는 학문에 힘써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한편, 향촌 교화에도 진력하게 된다. 이조판서(吏曺判書)를 지낸 이세화(李世華)는 조선후기 부평이씨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며 충효와 청렴의 가풍(家風)을 빛낸 인물이다. 그는 1657년 생원(生員)으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장령(掌令)을 거쳐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왔다. 그후 대사간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어 판의금부사 겸 지경연사(判義禁府事兼知經筵事)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으며 공조(工曺), 형조(刑曺), 병조(兵曺), 이조(吏曺)의 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가 되

었다.

출사하여 가문을 빛낸 인물이 이세화라면 長兄 격인 이세주(1626~1710)는 높은 학문과 참 군자의 풍모를 지녔음에도 평생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 남아 후학 양성에 진력한 인물이다. 때문에 세간에서 제운(霽雲)선생이라 불리던 학자이다. 문학산 서북록의 제운리((霽雲里):현 학익동)에 서당(書堂)을 열어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숙종 33년(1709) 영의정 최석정의 상주에 의해 숙종은 가선대부와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였으며 이듬 해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2대를 추영하였다. 그리하여 이세주는 사은차 입경하여 임금에게 예를 올렸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여 지켜보는 백관이 모두 지상신선(地上神仙)이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이세화의 행장은 최규서(崔奎瑞 1650~1735)가 신도비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찬하였으며, 최석정(崔錫鼎 1646~1715)과 조태억(趙泰億 1675~1728) 등 대당의 소론 영수 들과 교류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부평이씨는 소론계 학자와 관료들과 학문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한 인천의 대표적인 소론계 가문이었다.

이세화의 족질인 이정제(李廷濟)는 1699년 사마시를 거쳐 춘당대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정언, 지평, 사간 등을 거쳐 1721년 홍주목사를 지내고 1723년 우승지로서 노론 축출에 가담했다가 한 때 노론의 집권으로 사직되었다가 영조 때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특히 호조판서를 6년 간 지내면서 어려운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는데도 진력한 인물이었다. 한말 함경도관찰사와 이조판서를 지낸 이헌경(李軒卿)이 일제의 강제병합에 협력하지 않고 끝내 일제가 내린 작위를 거부한 것도 시류에 밀린 권세를 따르지 않는 빛나는 가풍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림의 미담이 된 이헌경의 충절로 인하여 그의 출생지 주안8동 일대를 사미리(士美里)로 부르게 되었다.

제3절 고려시대

1.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와 부평지역

1) 고려시대 부평의 읍호(邑號)와 읍격(邑格)

고려시대에 지방 행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시기는 10세기 후반 성종(成宗) 대에 이르러서이다. 이처럼 후삼국 통합 후 약 반세기가 지나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중앙에서 빈번한 정권 쟁탈전이 있었던 데다가, 지방 호족세력(豪族勢力)이 강대하여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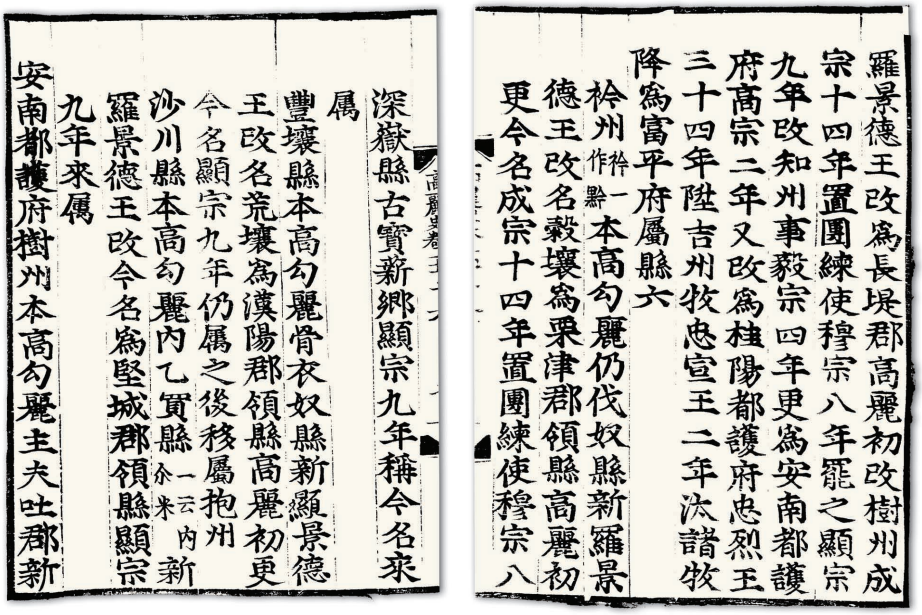
한편 고려시대에 들어와 일부 지방 군현의 명칭이 개정된다. 부평이 속한 양광도(楊廣道) 지역의 경우,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바뀐 군현명이 그대로 계승된 곳이 34개 군현이었으며, 고려 초에 변경된 곳이 61개 군현이었다. 이 때 부평도 명칭이 바뀌게 된다. 즉, 부평은 고구려 때 '주부토(主夫吐)'라 부르던 것을 신라 경덕왕이 '장제(長堤)'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가, 고려 초에 '수주(樹州)'로 고쳤던 것이다(『고려사』 권56, 지리 1, 양광도 안남도호부 수주).

고려시대 부평의 명칭과 읍격 변화

명칭		시기	읍격
고려이전	주부토(主夫吐)	고구려	군(郡)
	장제(長堤)	통일신라	군(郡)
수주(樹州)		고려초(10세기 전반)	–
		성종 14년(995)	단련사(團練使)
		현종 9년(1018)	지주사(知州事)
안남(安南)		의종 4년(1105)	도호부(都護府)
계양(桂陽)		고종 2년(1215)	도호부
길주(吉州)		충렬왕 34년(1308)	목(牧)
부평(富平)		충선왕 2년(1310)	부(府)

이후 수주로 부르던 부평은 도호부(都護府)가 되면서 1150년(의종 4)에 '안남(安南)', 1215년(고종 2)에 '계양(桂陽)' 등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

※ 이 글은 임학성(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羅景德王改爲長堤郡高麗初改樹州成宗十四年置團練使穆宗八年罷之顯宗九年改知州事毅宗四年更爲安南都護府高宗二年又改爲桂陽都護府忠烈王三十四年陞吉州牧忠宣王二年汰諸牧降爲富平府屬縣六

衿州(衿一作黔)本高句麗仍伐奴縣新羅景德王改名穀壤爲栗津郡領縣高麗初更今名成宗十四年置團練使穆宗八

深嶽縣古實新鄉顯宗九年稱今名來屬

豐壤縣本高句麗骨衣奴縣新顯景德王改名荒壤爲漢陽郡領縣高麗初更今名顯宗九年仍屬之後移屬抱州

沙川縣本高句麗內乙買縣(一云內斤米)新羅景德王改今名爲堅城郡領縣顯宗九年來屬

安南都護府樹州本高句麗主夫吐郡新

『고려사』 지리지 중 안남도호부 수주 항목

부평의 읍격을 도호부로 삼은 까닭은 이곳 부평지역이 수도 개경의 방비를 위한 요충지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몽골의 지배 하에 있던 1308년(충렬왕 34)에 부평은 도호부에서 목(牧)으로 승격하면서 그 명칭도 '길주(吉州)'로 고치게 된다. 그러나 2년 뒤인 1310년(충선왕 2)에 전국의 목을 폐지함에 따라 부(府)로 강등되고 고을 이름도 '부평(富平)'이라 하였다.

2) 고려시대 부평의 속읍(屬邑)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읍이 존재하였는데, 이들 속읍의 행정은 지방관이 파견된 인근 고을에 의해 관할되었다.

부평에 속읍을 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757년(경덕왕 16)부터인데, 수성현(戍城縣: 고려 수안현의 옛 명칭)과 김포현(金浦縣), 동성현(童城縣), 분진현(分津縣: 고려 통진현의 옛 명칭) 등 네 개의 현이 여기에 해당한다(『삼국사기』 권35, 지리지 2, 장제군).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들어와 부평의 속읍이 금주(衿州)·동성현·통진현(通津縣)·공암현(孔巖縣)·김포현·수안현(守安

縣)의 6개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 때에 비하여 금주와 공암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 금주와 공암현이 부평(당시 수주)에 소속된 시기는 1018년(현종 9)이었다. 그러나 이들 속읍 가운데 금주와 김포현, 수안현은 1172년(명종 2)에 감무(監務)가 파견되면서 속읍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공암현은 1310년(충선왕 2), 동성현과 통진현은 고려 말기에 이르러 분리 독립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인주(仁州)를 현종 9년에 수주 관하에 소속시켰다가 숙종(1096~1105)이 모후 인예태후(仁睿太后) 이씨(李氏)의 내향(內鄕)이라는 이유로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시키면서 분리 독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주(소성현) 또한 약 100년 동안 부평의 속읍으로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 부평의 속읍

속읍 명칭	속읍 시기	현재 지명
금주(衿州 · 黔州)	현종 9년(1018)~명종 2년(1172)	경기도 시흥시
동성현(童城縣)	신라 경덕왕 16년(757)~공양왕 3년(1391)	경기도 김포시통진면
통진현(通津縣)	신라 경덕왕 16년(757)~공양왕 때(1389~1391)	경기도 김포시통진면
공암현(孔巖縣)	현종 9년(1018)~충선왕 2년(1310)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포현(金浦縣)	신라 경덕왕 16년(757)~명종 2년(1172)	경기도 김포시
수안현(守安縣)	신라 경덕왕 16년(757)~명종 2년(1172)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소성현(邵城縣)	현종 9년(1018)~숙종 때(1096~1105)	인천광역시 남부지역 일대

2. 고려시대 부평의 수령과 이규보

1) 고려시대 부평의 수령들

고려시대 부평을 거쳐 간 수령들에 관한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고려사』나 '묘지명(墓誌銘)' 등에서만 간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리지(地理志)의 '선생안(先生案)' 조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자세한 면면은 살펴보기 어려우나, 위의 자료들과 이훈익(李薰益)의 『인천의 성씨 · 인물고』(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때 간략하게나마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 부평지역에 부임한 역대 수령들

성명	부임시기	관직명
윤관(尹瓘)	선종 5년(1088)	수주관기(樹州管記)
장문위 (張文緯)	미상	수주관기
김영부 (金永夫)	인종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府使)
허홍재 (許洪材)	의종 18년(1164)	안남관기(安南管記)
이실충 (李實忠)	의종 23년(1169)	안남관기
이인손 (李仁孫)	미상	안남관기
이인로 (李仁老)	명종 11년(1181)	안남관기
현덕수 (玄德秀)	희종 6년(1210)	안남도호부사
염극모 (廉克髦)		안남도호부사
함수(咸脩)		안남도호부사
이낙보 (李樂甫)	고종 5년(1218)	계양도호부부사(桂陽都護府副使)
이규보 (李奎報)	고종 6년(1219)	계양도호부부사
공유(孔愉)	원종 3년(1262)	계양도호부부사
염세충 (廉世忠)	원종 10년(1269)	계양도호부부사
이경(李坰)	우왕 4년(1378)	부평부부사
공부(孔俯)	우왕 10년(1384)	부평부부사
주언방 (周彦邦)	우왕 13년(1387)	부평부부사

출처 : 이훈익, 『인천의 성씨 · 인물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부평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온 인물들 중, 장문위는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본관이 홍천으로 수주관기로 재임할 당시 부평 땅에 기근이 들자 공역을 줄여주어 백성들이 감복하기도 하였고, 밭으로 개간되지 않은 곳은 마른 풀을 베고 씨를 뿌려 곡식이 넉넉해졌다고 한다. 또한 강물이 범람하고 땅에 습기가 많은 부평 고을의 동쪽 교외에 2,500여 보(步) 가량의 수로를 파서 물의 흐름을 고르게 하니 백성이 그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이규보의 글에는 또 초정(草亭)을 건립한 인물로 이실충의 이름이 전한다. 초정은 계양구 계산동 계산천변에 있었던 정자로 지금은 터만 전하고 있는데, 이규보의 「초정기(草亭記)」에 따르면, 이 곳에 허홍재가 돌을 쌓고 대를 세웠으며, 이실충이 물을 끌어서 늪을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이규보는 '남산' 비탈에 세워져 있던 초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가로 세로의 길이는 불과 여덟 자였고 여덟 사람이나 겨우 앉을 수 있어 참말 보

잘것없었다.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과 같이 매우 차가웠다. 무더운 여름에도 목욕하러 들어가면 머리칼이 곤두서고 오랫동안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소나무 숲까지 무성하여 서늘한 그늘이 지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뜨거운 볕에 시달리는 일도 없어 피서지로서는 가장 알맞았다. 그러므로 현판에 '척서(滌署)'라고 썼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대체로 '초정'이라고 불렀다(『부평군읍지』, 1899).

초정은 후에 이낙보가 다시 중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경은 본관이 안성으로 1378년(우왕 4) 부평부 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재임할 당시 부평땅에 쳐들어온 왜구와 싸워 전공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2) 계양도호부 부사(副使) 이규보(李奎報)

이규보는 1219년(고종 6)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남경유수관 양주 관할하의 계양도호부 수령으로 재임한 적이 있다. 고려왕조 수백 년간 부평지역의 수령을 지낸 인물이 수없이 많지만, 부평 수령 재임 기간 동안 이규보처럼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기록은 시(詩) 43편과 장(狀) 7편, 기(記) 3편 등 총 53편으로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담겨 있다.

이규보가 경험한 부평 생활은 비록 1년여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남긴 글을 통하여 고려시대 부평의 모습을 다소나마 엿볼 수 있다.

먼저 이규보가 수령으로 재임할 때의 부평은 이전에 비하여 읍세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6개의 속읍 가운데 금주와 김포현, 수안현이 1172년(명종 2)에 감무가 파견되면서 동성현과 통진현, 공암현의 세 읍만이 속읍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규보가 "이 고을이 비록 이름난 곳이나(此邑雖名都) 쇠잔하고 파괴되어 옛날에 비하기 어렵네(殘壞古難比) …"(『동국이상국집』 권15, 고율시, 「管記李君以公事免官將歸予不能無悲以詩送之」)라고 한 것은 바로 부평의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금주·수안현·김포현 등이 부평의 속읍으로 있다가 독립했으나, 여전히 부평 수령의 관할권이 미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규보가 금주의 곡식 창고를 열어 부평의 빈민을 구제한 사실(『동국이상국집』 권15, 고율시, 「書衿州倉壁上」)과 수안현에 볼일이 있어 방문한 사실(『동국이상국집』 권15, 고율시, 「予以事到守安縣西華寺小酌上方南榮江山遠眺莫有過茲者然以境幽

路僻來遊者盖寡故無有留題住老請詩爲留一篇』) 등이 이를 말해 준다.

한편 이규보는 부평에 대하여 "사람이 순박하고 일이 적어 기쁘기는 하나(人淳事簡雖堪喜) 땅이 박하고 백성이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네(地瘠民殘不忍看) …"(『동국이상국집』 권15, 고율시, 『示通判鄭君』), "백성이 주려 다 채색이니(生民皆菜色) 하루인들 어찌 차마 보리요(一日那忍視) …"(『동국이상국집』 권15, 고율시, 『管記李君以公事免官將歸予不能無悲以詩送之』), '저습(低濕)한 고장'(『동국이상국집』 권32, 계양소저장, 『初到官上按察使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록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수령 재임 당시 부평의 농경 환경이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규보 시비

계양도호부 부사 재임기간 이규보가 남긴 글들

종류	제목	출전
시(詩) <43편>	1.退公無一事(공청(公廳)에서 퇴근하여 아무 일도 없다) 2.示通判鄭君(통판 정군에게 보이다) 3.太守示父老(태수가 부로에게 보이다) 4.父老答太守(부로가 태수에게 답하다) 5.籠中鳥詞望江南令(새장 안 새의 노래로 강남령(江南令)에게 바라다) 6.無酒(술이 없다) 7.玄上人饋桃以詩謝之(현 상인(上人)이 복숭아를 보내왔으므로 시로 사례하다) 8.與玄上人遊萬日寺次壁上韻(현 상인과 만일사에 놀면서 벽상운에 차하다) 9.玄上人見和復用前韻(현 상인의 화답을 받고 다시 전운으로 짓다) 10.贈書記兼簡貳車(서기에게 증정하고 겸하여 이거(貳車)에게 편지하다) 11.謝衿州退老姜大丈惠酒(늙어 퇴직하여 금주에 살고 있는 강대장이 술을 보내왔으므로 사례하다) 12.次韻金承宣良鏡和陳按廉湜(승선 김양경(金良鏡)이 안렴사 진식(陳湜)에게 화답한 시에 차운하다) 13.與玄上人遊壽量寺記所見(현 상인과 수량사에 놀면서 구경한 것을 기록하다) 14.管記李君以公事免官將歸予不能無悲以詩送之(관기 이군이 공사로 인하여 면관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도 마음이 슬퍼서 시를 지어 보내다) 15.次韻廉按使金郎中戲贈文學(염안사 김 낭중에게 차운하여 문학에게 희증하다) 16.次韻皇甫書記雨中獨詠(황보 서기의 운에 차하여 우중에 홀로 읊다)	『동국이상국집』 권15, 古律詩, 桂陽所著

종류	제목	출전
	17.次韻躬皇甫管記贈扇墨(부채와 먹을 선사한 황보 관기에게 차운하여 사례하다) 18.復和(다시 화답하다) 19.皇甫書記見和壽量寺留題復用前韻(황보 서기가 수량사의 유제에 화운하였으므로 다시 전운으로 짓다) 20.題南山茅亭(남산 모정에 제(題)하다) 21.上崔相國(최 상국(相國)에게 올리다) 22.童城客舍次壁上諸賢韻(동성 객사에서 벽상 제현의 운에 차하다) 23.書衿州倉壁上(금주 창고 벽상에 쓰다) 24.雨中觀耕者贈書記(우중에 농사짓는 사람을 보고 서기에게 증정하다) 25.衿州客舍次孫舍人留題詞韻(금주 객사에 써 놓은 손 사인(舍人)의 시에 차운하다) 26.孔巖江上吟(공암 강가에서 읊다) 27.病中示文學宋君(병중에 문학 송군에게 보이다) 28.偶吟示官寮(우연히 읊어 관료에게 보이다) 29.予以事到守安縣西華寺小酌上方南榮江山遠眺莫有過茲者然以境幽路僻來遊者蓋寡故無有留題住老請詩爲留一篇 (내가 일이 있어 수안현 서화사에 도착하여 상방 남영(南榮)에서 간단히 술을 한 잔 마시고 강산을 멀리 바라보니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었으나 지대가 깊숙하고 길이 외져서 유람하러 오는 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시를 남긴 사람이 없었으므로 주지 노장이 시를 청하기에 한 편을 남긴다) 30.與忠原崔書記仁恭遊紫 島濟物院亭用板上諸公韻賦之(충원 서기 최인공(崔仁恭)과 자연도 제물원정에서 놀며 판상제공의 운을 따서 시를 짓다) 31.崔書記見和復題(최서기(書記)가 화답하므로 다시 네 수를 짓다) 32.與寮友諸君遊明月寺(요우(寮友) 제군과 명월사에서 놀다) 33.次韻宋文學(송문학(文學)에게 차운하다) 34.祖江別(조강(祖江)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처자를 송별하다) 35.萬日寺謝寮友諸君爲老夫展齋聖殿仍置酒見慰(만일사에서 요우(寮友) 제군이 부로를 위하여 성전에 재(齋)를 올리고 이어 술자리를 벌여 위로하기에 사례하다) 36.分行驛次板上韻憶舊(분행역(分行驛) 판상운(板上韻) 억구(憶舊)에 차하다) 37.楊梓驛次板上韻(양재역(楊梓驛)에서 판상운에 차하다) 38.復遊茅亭次韻皇甫書記(다시 모정에서 놀며 황보 서기(書記)의 운에 차하다) 39.次韻皇甫書記用東坡哭任遵聖詩韻哭李大諫眉叟 (동파(東坡)의 임준성(任遵聖)에게 조곡하는 시운을 따서 대간 이미수(李眉叟)에게 조곡한 황보 서기의 운에 차하다) 40.臨上闕復與寮友遊茅亭走筆(상궐(上闕)에 임하여 다시 요우와 모정에서 놀며 붓을 달려 쓰다) 41.七月二十五日善法寺堂頭設餞見邀乞詩(7월 25일 선법사 당두(堂頭)가 전별연을 열어 나를 맞이하고 시를 청하다)	

종류	제목	출전
	42.發州有作示餞客 (고을을 떠나면서 시를 지어 전송객에게 보이다) 43.入京有作 (서울에 들어와 짓다)	
장(狀) 〈7편〉	1.初到官上按察使狀 (고을에 도착하여 안찰사에게 올리는 장) 2.答江華縣令崔將軍狀 (강화 현령 최 장군에게 답하는 장) 3.答金浦縣令狀 (김포 현령에게 답하는 장) 4.答安山監務同前狀 (안산 감무에게 답하는 장) 5.答喬桐監務同前狀 (교동 감무에게 답하는 장) 6.答屬郡賀冬至狀 (속군(屬郡)의 동지 축하에 답하는 장) 7.答江華尉初到官狀 (고을에 도임한 강화위(江華尉)에게 답하는 장)	『동국이상국집』 권32, 桂陽所著狀
기(記) 〈3편〉	1.桂陽自娛堂記 (계양의 자오당기) 2.桂陽草亭記 (계양의 초정기) 3.桂陽望海志 (계양의 망해지)	『동국이상국집』 권24, 記

3. 고려시대 부평의 성씨와 인물

1) 부평의 성씨

고려시대 부평지역을 본관으로 한 성씨의 사례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곳에는 부평의 토성(土姓)으로 김(金), 이(李), 류(柳), 형(邢), 손(孫), 최(崔), 진(陳) 등을 기재하고 있다.

부평의 토성은 본관제(本貫制)가 성(姓)과 결부되기 시작하는 고려 후기부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15세기 전반)까지 부평에 토착한 지배 성씨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 7개 성씨 가운데 고려시대 명망 가문으로 활약한 성씨는 부평이씨이다. 『부평이씨대동보』에 따르면, 시조는 이희목(李希穆)으로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개국공신에 책봉되었으며, 고려 말기까지 명문으로 그 가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고려시대 부평 속읍의 토성 현황

속읍 명칭	세종때의 명칭	토성
금주(衿州)	금천(衿川)	이(李), 조(趙), 강(姜), 장(莊), 피(皮), 계(桂)
통진(通津)	통진(通津)	석(石), 강(康)
수안(守安)	수안(守安) · 통진 속읍	윤(尹), 이(李), 안(安)
동성(童城)	동성(童城) · 통진 속읍	노(盧), 우(祐), 부(附), 이(異)
공암(孔巖)	양천(陽川)	공(孔), 변(邊), 허(許), 최(崔)
김포(金浦)	김포(金浦)	정(鄭), 장(蔣), 금(琴)
소성(邵城)	인천(仁川)	이(李), 공(貢), 하(河), 채(蔡), 전(全), 문(門)

금주의 경우 토성으로 이(李) · 조(趙) · 강(姜) · 장(莊) · 피(皮) · 계(桂)씨 등이 있었으며, 통진은 석(石) · 강(康)씨, 수안은 윤(尹) · 이(李) · 안(安)씨, 동성은 노(盧) · 우(祐) · 부(附) · 이(異)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공암은 공(孔) · 변(邊) · 허(許) · 최(崔)씨, 김포는 정(鄭) · 장(蔣) · 금(琴)씨, 소성은 이(李) · 공(貢) · 하(河) · 채(蔡) · 전(全) · 문(門)씨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각 해당 군현을 본관으로 한 지배 성씨들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주요 성씨를 분석한 한 연구(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에 따르면, 부평과 그 속읍의 토성들 가운데 부평이씨(富平李氏)와 소성이씨(邵城李氏)를 비롯하여 금주강씨(衿州姜氏) · 수안윤씨(守安尹氏) · 동성이씨(童城異氏) · 공암허씨(孔巖許氏) · 공암최씨(崔氏) 등 7개 성씨는 940년(태조 23)을 전후한 시기, 즉 10세기 중엽에 각기 출신지 · 거주지 고을을 본관으로 삼게 된 성씨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은 이른바 '후삼국(後三國)시대'에 성주(城主) · 장군(將軍) · 촌주(村主)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각 고을을 대표했던 호족들이었다.

다음, 부평 및 그 속읍의 토성들을 ① 고려 전기에 대표적인 문벌귀족(門閥貴族)으로 성장한 성씨, ②1170년(의종 24)) 무신정변(武臣政變) 이후 가세(家勢)가 유전되지 못한 성씨, ③ 고려 전, 후기 줄곧 명문 귀족으로 가세가 지속된 성씨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은 30개 성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부평지역(속읍 포함)의 성씨로는 부평이씨와 소성이씨('인주'로 본관 변경), 공암허씨 등이 확인된다. 부평이씨는 고려 전기(고려 초~무신정

변 이전) 200여 년 동안 고관(3품 이상) 4명, 종묘에 합사(合祀)된 공신 1명, 지공거(知貢擧: 고려 때 과거를 보이는 시험관을 말함)를 2회 역임하였으며, 소성이씨는 고관 21명과 공신 1명, 후비(后妃) 10명, 지공거 11회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공암허씨는 고관이 4명, 지공거 2회 역임으로 나타났다.

고려전기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문벌귀족 현황

성씨	3품이상관인수	종묘에 합사된공신수	지공거역임 횟수	후비(后妃)수
부평이씨	4명	1명	2회	-
소성이씨	21명	1명	11회	10명
공암허씨	4명	-	2회	-
계	29명	2명	15회	10명

또한, 고려 전기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다가 무신정변 및 기타 정변으로 인해 가세가 이어지지 못한 부평지역의 성씨로는 부평이씨와 수안윤씨 · 동성이씨 · 공암최씨 · 김포정씨(金浦鄭氏) 등이 있었다.

끝으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 가세가 고려 후기까지 계속 지속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명문으로 그 성세가 지속된 부평지역의 성씨로는 소성(인주)이씨와 공암허씨, 금주강씨가 있었다. 이 중 소성이씨는 고려 전기(고관 21명 배출) 이후 고관 배출 인원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무신정권기 5명 → 고려 후기 2명) 그 가세를 조선 전기까지 이어 나갔으며, 공암허씨의 경우는 고려 전기보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가세가 크게 성장하였음(고려 전기 4명 → 무신정권기 1명 → 고려 후기 12명)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부평지역의 토성 중에는 고을에 머물면서 향리(鄕吏) 가문으로 성장한 성씨도 있었는데, 금주장(莊) · 소성채(蔡) · 김포공(公) · 공암변(邊)씨 등이 그러하였다.

2) 부평지역을 본관으로 한 인물

고려시대의 토성들은 해당 지역의 호족으로 세력을 지니기도 했지만, 상경종사(上京從仕)하여 명문 거족으로 크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부평 및 그 속읍의 토성들 가운데 관직에 진출하여 현달한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평이씨

고려시대 부평지역의 인물들은 주로 부평이씨에서 나왔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희목(李希穆)은 신라 말기 부평지역의 호족이었는데, 고려 태조가 이희목에게 고려개국벽상공신 삼중대광태사(高麗開國壁上功臣 三重大匡太師)라는 벼슬을 내리고 포섭하였다고 한다. '충민(忠敏)'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 이능목(李能睦)은 희목의 아들로 벼슬이 어위주부(御衛主簿)에 추봉되었다고 한다.
- 이서(李書)는 능목의 아들로 벼슬이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에 추봉되었다고 한다.
- 이정공(李靖恭)은 희목의 증손으로 과거에 급제한 후, 문종 13년(1059)에 시예부외랑(試禮部外郞)을 지냈다. 이후 한림학사(翰林學士)·예부상서(禮部尙書)·병부상서(兵部尙書)·태자빈객(太子賓客)·참지정사(參知政事)·수국사(修國史)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문종 37년(1083) 중서시랑동중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門下平章事)를 거쳐 숙종 2년(1097)에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다. 숙종 4년(1099)에 사망하니 임금이 이를 애석히 여겨 조위교서를 내리고 '계양백(桂陽伯)'에 봉했으며,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내렸다. 또한 순종(純宗) 묘정에 배향되었다.
- 이숙(李璹)은 정공의 맏아들로 예종 1년(1106) 낭장(郞將)을 지냈고, 인종 6년(1128)에 검교사도수사공우복야 판예부사를 지낸 뒤 이어 참지정사에 벼슬이 이르렀다고 한다.
- 이위(李瑋)는 정공의 둘째 아들로 자는 직청(直淸)이다.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번 벼슬이 올라 호부 원외랑으로 되었다. 선종 때 왕은 각 군, 현 수령들의 대부분이 적임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위, 윤관(尹瓘), 최사열(崔思悅) 등을 선발하여 각 도에 파견하여 인민의 질병과 고통을 위문하게 하였는데 이위는 왕의 교시를 잘 실천하지 못하여 파면되었다. 후에 황주목부사(黃州牧副使)로 나갔는데 재직 중 청백하고 근실하며 백성을 아꼈다는 평을 받았다. 예종 때에 형부상서·문하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하고 좌리공신(佐理功臣) 칭호를 받았으며, 예종 11년(1116)에 수태보 문하시중으로 되고 다음 해에 태부(太傅)로 승진되었으며 '계양군개국백(桂陽郡開國伯)'으로 봉하고 식읍(食邑) 2천 호에 식실봉(食實封) 3백 호(戶)를 주었다. 미구에 치사하니 공작(公爵)으로 작위를 올리고 광국공신(匡國功臣) 칭호를 주었다. 인종이 그의 외손녀를 왕비로 맞은 후 그에게 중서령을 더 주고 또 진정공신(鎭定功臣) 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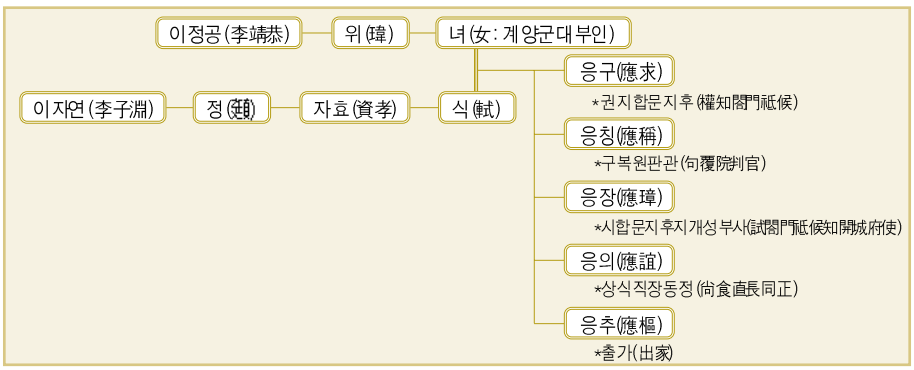
호를 주었으며 식읍 2천 5백 호에 식실봉 5백 호를 주었다. 인종 11년(1133)에 죽으니 향년 85세였고 시호는 장숙(莊肅)이라 하였다.

- 이장(李璋)은 인종 즉위년(1122)에 '계양공(桂陽公)'으로 봉해졌다.
- 이의(李倚)는 고려의 충신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절개를 지키며 은신하였다. 이성계가 불러내어 조선에 출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거절하여 가산을 모두 몰수하고 자연도(현, 영종도)로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

한편, 부평이씨는 고려 중기의 최고 문벌 · 외척가문인 인주이씨와 통혼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위(李瑋)의 딸[계양군대부인(桂陽郡大夫人)]이 인주이씨 자연(子淵)의 증손자 식(軾)과 혼인하였던 것이다.

인주이씨 이식은 수대사중서령(守大師中書令) 장화공(章和公) 자연(子淵)이 증조부이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정(頲)이 조부, 병부낭중(兵部郎中)을 지낸 자효(資孝)가 부친이었다. 모친 강릉군대부인 왕씨(江陵郡大夫人王氏)는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인 왕석(王錫)의 딸이었다. 이식은 1094년(헌종 즉위년)에 음직으로 상서호부서영사(尙書戶部書令史)로 출사한 후, 경령전판관(景靈殿判官) · 경시서승시사재주부(京市署丞試司宰主夫) · 권지각문지후(權知閣門祗候) · 개성부(開城府) 수령 · 전중내급사상의봉어(殿中內給事尙衣奉御) ·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 · 시어사우사낭중(侍御史右司郎中) · 이부낭중겸대자세마(吏部郎中兼大子洗馬) · 조산대부시위위경조의대부형부상서겸선경부첨사상서좌복야(朝散大夫試衛尉卿朝議大夫刑部尙書兼善慶府詹事尙書左僕射) · 금자광록대부참지정사판상서호부사(金紫光祿大夫叅知政事判尙書戶部事) 등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었다.

가계도 부평이씨와 인주이씨의 통혼관계



(2) 수안윤씨

고려 때 부평의 속읍이었던 수안(守安)을 본관으로 한 윤씨(尹氏) 가문에도 현달한 인물이 확인된다.

- 윤봉(尹逢)은 고려 건국 초 광평시랑(廣評侍郞)으로 있으면서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워 삼한공신(三韓功臣) 내사령(內史令)을 지냈다. 수안윤씨의 시조이다.
- 윤징고(尹徵古)는 봉의 후손으로 초명은 원재(元載)이다. 성종 말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목종 때에 감찰어사(監察御使)로 임명되었다. 현종이 즉위한 후 시어사(侍御史)로 뛰어 올랐으며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전직되어 국사수찬관(國史修撰官)으로 임용되었다. 후에 여러 번 벼슬이 올라 중추사 우산기 상시 검교 사도에 이르고 상주국 훈위를 받았다. 1021년(현종 12)에 검교태위(檢校太尉) 벼슬과 추충좌리공신호(推忠佐理功臣號)를 받고 죽었다. 그는 성품이 진중하고 엄격하며 풍채가 아름다웠으며 해서(楷書)를 잘 썼다. 이르는 곳마다 처사가 공평하였고 남의 결함을 꼬집어 말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그를 어려워하고 사랑하였다. 그가 죽으니 왕이 부고를 받고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런 인재가 또 있으랴? 내가 앞으로 그의 방조를 크게 기대하였는데." 하고 오랫동안 탄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겼다. 그에게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를 추증하고 '장경(莊敬)'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덕종이 즉위한 후 윤징고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의 아들 희단(希旦)을 등용하였다.
- 윤승해(尹承解)는 삼한공신내사령(三韓功臣內史令) 명의공(明義公) 윤봉(尹逢)의 7대 손으로, 증조부는 검교대자첨사(檢校大子詹事) 형(衡)이고, 조부는 대악서승(大樂署丞) 수(壽)이며, 아버지는 검교호부상서행상서호부낭중(檢校戶部尙書行尙書戶部郞中)으로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은 유연(裕延)이다.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여 18세에 사마시(司馬試) 1과에 합격하였으며, 문음(門蔭)으로 벼슬하여 지수주사판관(知水州事判官)이 되었다. 이후 현덕궁녹사(玄德宮錄事)·좌우위녹사참군사(左右衛錄事束軍事)·진도현령(珍島縣令)·신호위녹사참군사(神虎衛錄事束軍事)·합문지후(閤門祗候)·감찰어사(監察御史)·상식봉어(尙食奉御)·상서도관원외랑(尙書都官員外郞) 등을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3) 기타 성씨

부평 손씨의 인물 손변(孫抃)은 초명이 습경(襲卿)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천안부판관(天安府判官)으로 배치되었는데 정사를 잘한 까닭에 공역서(供

驛署)의 승(丞)으로 벼슬이 뛰어올랐다. 고종 때에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승직되었다가 애매한 죄로 섬으로 귀양 갔었으나 곧 경상도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使)로 임명되었다. 이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되고 1251년(고종 38)에 수사공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로 있다가 사망하였다. 손변은 성품이 강의하였고 실무에 능하였으며 사건을 심판하고 송사를 재판하는 것이 마치 물 흐르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성적을 나타냈다고 한다(『고려사』 열전, 손변).

부평류씨의 인물 류흥정(柳興廷)은 고려 말기 무관으로 낭장(郎將)을 지냈다(이훈익, 『인천의 성씨 · 인물고』).

부평의 속읍으로 있던 김포의 토성 출신 금의(琴儀)는 초명이 극의(克儀)이며, 자는 절지(節之)이다. 삼한공신(三韓功臣) 용식(容式)의 후손으로 1175년(명종 5) 대학(大學)에 들어가서 잇달아 과거에 응시하였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청도군(淸道郡)으로 나가 다스렸는데, 힘써 절개를 지키고 청렴하며 강직함으로써 흔들림이 없어 온 고을이 청도의 철상공(鐵相公)이라고 불렀다. 임기가 차자 팔관보판관(八關寶判官)으로 관직이 바뀌었으며, 1184년(명종 14)에 과거에 나가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장작주부당후관(將作注簿堂後官)에 이르고,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제수되었다. 1213년(강종 2)에는 은청광록대부첨서추밀사좌산기상시한림학사승지(銀靑光祿大夫簽書樞密事左散騎常侍翰林學士承旨)로 승진하였다가 1215년(고종 2)에 상부(相府)에 들어가 금자광록대부정당문학좌복야보문각대학사수국사(金紫光祿大夫政堂文學左僕射寶文閣大學士修國史)가 되었다. 1217년(고종 4)에 수대위중서시랑평장사(守大尉中書侍郎平章事)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문하시랑수문전대학사(門下侍郎修文殿大學士)가 되었다. 1220년(고종 7)에 벽상삼한대광수대보문하평장사 수문전대학사판이부사(壁上三韓大匡守大保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1230년(고종 17)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봉황산(鳳凰山) 기슭에 장례 지내고 '영렬(英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추밀사(樞密使) 김광식(金光軾)의 딸과 결혼하여 5남 3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기(耆)는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 둘째 아들 규(揆)는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을 지냈다. 셋째 아들 휘(暉)는 좌우위대장군(左右衛大將軍), 넷째 아들 희(禧)는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올랐다. 다섯째 아들 기(祺)는 잡직서령(雜織署令)을 지냈다(『고려사』 열전, 금의 ;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제4절 조선시대

1. 지방 제도의 개편과 부평지역

1) 8도 체제의 확립과 부평지역

고려의 5도양계 체제는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 점차 8도제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종래의 안렴사(按廉使) 대신에 조선 1393년(태조 2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각 도의 장관으로 파견되었다. 동서 양계는 고려 공민왕 말년부터 도순문사(都巡問使)를 파견하여 군사와 민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5도의 감사가 경관에서 지방의 정식 전임관으로 되었던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양계의 도순문사가 도절도사(都節度使)로 개칭되어 정식 제수되는 한편, 수령관(首領官)도 배치되었으나 공양왕 4년에 다시 도순문사로 바뀌었고, 이것은 관찰사가 파견되는 1417년(태종 17)까지 계속되었다. 도순문사는 성격상 관찰사와는 달랐다. 그런데 5도 내지 6도 감사는 1417년(태종 17) 양계와 함께 도관찰출척사로 통일되기 전까지 감사의 직함인 안렴사와 관찰사가 몇 차례 반복되기도 하였다.

1393년(태조 2) 11월에는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 : 도의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수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경기좌도 : 한양(漢陽), 철원(鐵原)
경기우도 : 연안(延安), 부평(富平)
양광도(楊廣道) :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수원(水原)
경상도(慶尙道) : 경주(慶州), 안동(安東), 상주(尙州), 진주(晋州), 김해(金海), 성주(星州)
전라도(全羅道) :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서해도(西海道) : 황주(黃州), 해주(海州)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 원주(原州), 회양(淮陽), 강릉, 삼척(三陟)

위와 같이 정했던 각 도의 계수관도 그 후 변화를 겪게 되었고, 또 한양천도, 경기권의 재조정과 양광도의 개편에 따라 개성부를 유후사(留後司)로 개

※ 이 글은 남달우(인하대 강사)가 책임집필하였음.

칭하고 양광도를 충청도, 서해도를 풍해도(豊海道), 교주강릉도를 강원도로 개정하였다.

조선 지방제도의 개혁이 태종 때 단행되었듯이 8도 체제도 태종 때에 와서 확립되었다. 먼저 계수관 읍명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도명이 정착된 과정을 살펴보면, 전라·경상도는 이미 고려시대에 정해졌고, 충청·황해·강원도는 1395년(태조 4)에, 평안·영길(永吉 : 함경)도는 1413년(태종 13)에 개정되었던 것이며, 1414년(태종 14)에는 종래의 경기좌·우도를 합쳐 그냥 경기도로 호칭함으로써 비로소 8도제가 확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의 도명이 그 도내 계수관 읍명의 첫 자로 조합되자 그 뒤 도명을 구성하고 있던 계수관의 읍격 승강에 따라 도명의 변경이 잦았다. 풍해도가 황해도로, 영길도가 함길(咸吉) 또는 영안(永安) 및 함경도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대명외교의 관문인 평안도와 대왜 관계의 관문인 경상도는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반역 사건과 강상(綱常) 죄인의 발생이 없지 않았으나, 대외 체면상 타도와는 다르게 8도 명칭이 확정된 뒤 한 번도 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처럼 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는 철저한 계수관 읍명 위주의 도명을 채택했던 것이다.

고려 후기의 5도양계 체제가 조선 초기의 8도 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려 말 조선 초 계수관의 치폐 과정을 겪어야 했다. 고려 중기 이래로 전국이 5도양계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지방행정의 중심 단위는 계수관이었고, 그 아래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지방 사회를 지배한 것은 토착 향리였다. 고려 말에는 중앙의 정치 질서가 문란해지자 지방행정은 거의 계통과 체제가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는 집권적인 양반 관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호적인 향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관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유능한 수령인가의 여부는 주민의 휴척(休戚)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근무 평가도 엄격히 행하고, 그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찰사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존속된 계수관에 대한 정리도 단행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이른바 1관(官 : 관료) 1직(職 : 관직)의 원칙에 의하여 직임의 기능적 분화를 꾀하게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관료제가 마련되어 갔다. 그런데 계수관은 군사와 민정의 직임을 겸하고 있었으니 시대의 추이에 따라 당연히 그 분화가 추구되고, 여기에 도의 감사와 각 군현의 행정권이 강

화되면서 계수관의 행정적 기능은 소멸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군정의 기능만을 지니게 된 계수관은 국방 체제가 강화되면서 순수한 군사 조직으로 변모하여 갔다. 계수관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인 군익도(軍翼道)가 형성되고 군익도는 다시 세조 때에 가서 진관 체제(鎭管體制)로 개편되어 갔다. 한편, 도 경계의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고려 말의 '과전경기(科田京畿 : 경기도에 한하여 과전을 지급)'의 원칙과 조선왕조의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짐에 따라 경기도 경계의 개편이 수반되었고 따라서 경기도와 접경한 다른 도의 경계도 연쇄적으로 개편되었다. 1390년(공양왕 2), 경기를 좌·우도로 나누어 장단(長湍)·임강(臨江)·토산(兎山)·임진(臨津)·송림(松林)·마전(麻田)·적성(積城)·파평(坡平)현을 좌도,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豊)·덕수(德水)·우봉(牛峰)을 우도로 하고, 여기에 다시 경기권을 확장하여 양광도·교주도·황해도(서해도)의 일부를 좌·우도에 귀속시키는 한편, 좌·우도에 각각 도관찰출척사와 수령관(경력 또는 도사)을 두었다.

1394년(태조 3) 한양에 천도한 다음에 다시 도의 경계를 조정하여 평산(平山)·배천[白川]·곡산(谷山)·수안(遂安)과 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는 수도의 남하에 따른 거리의 원격으로 황해도에 이속시키고, 그 대신 양광도의 광주·수원·양근(楊根)·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령(川寧)·지평(砥平)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광주·수원부 소관 군현을 좌도, 양주·부평·철원·연안부 소관 군현을 우도로 개편한 데 이어 1398년(태조 7)에는 충청도의 진위현(振威縣)을 경기좌도에 이속시켰다. 1402년(태종 2)에는 경기좌·우도를 합쳐 경기좌우도성(京畿左右道省)이라 하고 관찰사와 도사를 두었다. 다시 1413년(태종 13)에는 사방의 거리를 참작하여 연안·배천·우봉·강음·토산을 황해도에 이속시키고 이천(伊川)을 강원도에 귀속시킨 대신 충청도의 영흥(驪興)·안성(安城)·양지(陽智)·음죽(陰竹)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내속시킨 다음 좌·우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경기도라 하여 수원에 감영을 두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 제도 개편에 의하여, 서북면에 평안도관찰사를 설치하고 전국을 유도부(留都府) 1, 부윤 6, 대도호부 5, 목 20, 도호부 74, 군 73, 현 154 등 333개의 행정구획으로 나

누었으며, 1416년(태종 16)에는 동북면에 함길도관찰사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8도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8도에는 각각 관찰사를 두고 그 밑의 각 읍에는 부윤·대도호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을 두었다. 이 지방 제도는 주·부·군·현의 부분적인 승격 혹은 강등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는 외에는 이 원칙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위와 같이 부평은 조선 초기 8도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2) 부평 읍호의 승강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부평부는 조선 건국 후에도 경기우도에 속하였다. 즉, 1395년(태조 4)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 등 군현을 서해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군현을 좌·우도로 개편하였는데, 이 때 부평·양주·철원·연안의 군현은 경기우도로 되었다. 그후 1402년(태종 2)에는 좌·우도를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경기 좌우도성이 되었다. 또한 1413년(태종 13) 경기에는 이속(移屬)·내속(來屬) 등으로 관내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는 한양천도에 따른 조처였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부평부는 1413년(태종 13)의 예에 따라 고쳐서 도호부가 되었는데, 1310년(고려 충선왕 2) 길주목에서 부평부로 강등된 지 103년 만에 다시 승격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부평도호부는 동쪽으로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34리, 양천현 경계까지 15리,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48리, 인천부 경계까지 15리,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14리, 북쪽으로 김포현 경계까지 17리, 통진현 경계까지 36리, 서울까지 55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주(940년에 변경된 부평의 지명)지주사 이후 계속 이어져 온 부원현과 석천현이 부평의 도호부 승격과 동시에 떨어져 나갔다. 이 사실을 『고양읍지(高陽邑誌)』와 『교하읍지(交河邑誌)』에 "부원현(富源縣)은 1285년(고려 충렬왕 11) 부원황조향(富源荒調鄕)이라 했는데 부평부의 속현으로 1394년(태조 3) 고봉감무(高峯監務)를 설치하고 행주 부원황조향을 예속시켰다. 1413년(태종 13) 고봉 덕양(德陽 : 행주) 두 현의 이름에 가리어 지금의 이름인 고봉으로 고치고 현감고을로 만들었다. 또 석천현은 부평부의 속현인데 1414년(태종 14)에 원평군(原平郡)에 예속시켰다. 원평군은 1398년(태조 7) 파평현(坡平縣)과 서원현(瑞源縣)을 합쳐서 만들었는데

1460년(세조 6) 왕비의 고장이라서 파주목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고려 초기 한강 하구에 위치한 교동, 개풍, 파주, 고양 등이 수주의 속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원현(고양)과 석천현(교하)은 고려 현종 때 수주의 속현으로 된 지 395년 만에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부평도호부의 관할구역은 인천, 개풍, 김포, 통진, 양천, 교동 등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개풍과 교동은 그대로 부평도호부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부평도호부는 1438년(세종 20)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446년(세종 28)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는데, 이것은 부평의 관민이 온천 소재지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천의 실재 여부나, 실재하였는 데도 민폐를 두려워하여 관민들이 숨기고 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 일로 인하여 세종의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부평부가 일시적으로 현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

부평의 온천 파동은 다음과 같다. 즉 세종은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하였고, 등에는 부종(浮腫)이 생겨 고통이 심하였으면서도 독서를 좋아하여 주야로 책을 읽었으므로 시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세종은 대신들의 권유로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한 후 효험을 보았다. 온천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세종은 도성(都城) 가까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온천 탐색을 명하였다.

그런데 이 온천이 있다는 장소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이조참판 조서강(趙瑞康)은 부평에 사는 아전 어리종(於里宗)의 말에 의거하여 온천이 남촌순지(南村蓴池, 소재미상) 서남쪽에 있다 하고, 기복관(奇福觀)의 말은 부강향(富强鄕, 소재 미상) 읍리(邑吏)의 집이 예전 온정(溫井)자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읍의 관사가 온정 자리라 하므로 이것을 참고로 하여 관사·민가로부터 전원(田園)에 이르기까지 파보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었다.

1439년(세종 21) 세종은 이사맹을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온천을 탐색토록 하였다. 이사맹은 맡은 바 임무 완수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수백 군데를 파 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1440년(세종 22) 8월 세종은 온천 탐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여 예조에 명하기를 "온천이 치병에 적절하므로 탐색에 착수한 지 오

래되지만 부평현의 관리나 백성들이 나의 뜻을 터득하지 못하고, 민폐를 우려하여 서로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니 심히 유감된 일이다. 금년 연말까지 기한을 줄 것이니 그때까지 고하지 아니하면 수리(首吏)는 경기지방의 황폐한 역의 이서(吏胥)에 보충시킬 것이고, 품계 있는 관원이나 여러 대 거주한 백성으로서 자기 집터나 전장에 온정이 있음을 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타향에 내쫓게 할 것이고, 타인으로서 그 감춘 일을 고한 자는 논상케 하라"라고 하였다. 다음해 정월 온천 탐색의 소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통탄한 세종은 이사맹에게 "이제 정하여 준 기한이 지났으나 온천 소재를 고하지 아니하니 지난번 명령한 바에 따라 수리를 경기지방의 잔망역 이서에 보충시켰다가 올 가을까지 기다려 보아 여전히 고하지 아니하거든 함길도 변경에 압송케 하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은 온천 탐색에 전력을 기울여 그 활동을 계속토록 하였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443년(세종 25) 7월 온천 발견에 가망이 없음을 자각한 세종은 앞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함길도 변경에 압송했던 자를 반환시키고 "이제부터는 온천 소재를 고하지 않은 자의 논죄를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그 후 1446년(세종 28)에 온천을 은닉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으로 강등했던 것을 도호부로 환원 복구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1467년(세조 13) 부평 남급(南級)의 집에 온천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세조는 부왕 세종의 염원을 풀어드릴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고령부원군 신숙주와 좌의정 황수신을 부평에 급파하여 조사케 하였는데 이 또한 허사였다. 또 『부평부읍지』에도 언제 온천이 어디에 있었고 언제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말은 없다.

왕실과 관련이 있거나 공신의 출생지와 같은 경우에는 읍호를 승격시키는 반면, 적군에 투항한 고을이나 역적, 패륜아 등의 출신지에 대하여는 읍호가 강등되는데 부평부의 경우는 왕의 기휘에 저촉된 것으로서 흔치 않는 예이다.

이 밖에 부평부는 1505년(연산군 11)에 내시 김순손(金舜孫)이 죄를 짓자 그를 처형한 후 혁파되었다가, 다음 해인 1506년(중종 원년)에 다시 부로 복구되었다. 김순손은 부평 출신 환관으로 1495년(연산군 1)에 연산군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문란한 생활을 하자 이를 간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연산군은 제주목사로 하여금 그를 문초하게 하고 처형토

록 하였으나, 간관들은 법에 의해 죄상을 밝히지 않고 왕이 자의로 처형함은 부당하다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결국 김순손은 1504년(연산군 10)에 제주도에서 참형을 당하였는데, 중종반정 후 그 공을 인정받아 복호되고 내시부 최고 품계인 종2품 상선(尙膳)에 추증되었다.

1698년(숙종 24)에 부평도호부는 세 번째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것은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崔弼成)의 출생지가 부평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장릉은 조선시대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 원종(元宗-인조의 生父로 추존)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이다. 경기도 김포군에 소재하는데 추존하기 이전에는 묘 이름을 흥경원(興慶園)이라고 하였으나 1632년(인조 10) 추존과 동시에 장릉으로 고쳤다. 최필성은 사형에 처해지고 그 처는 양반집 노비가 되었다.

부평은 현으로 강등된 지 10년만인 1707년(숙종 33)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2. 진관 체제의 성립과 부평

조선 건국 초의 지방군 조직은 북방 양계(兩界)의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소지역 단위로 편성된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와 남방 여러 도의 연해(沿海) 지역의 요새지에 영진군(營鎭軍) 혹은 기선군(騎船軍)을 두어 외침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내륙 지방에는 모든 지방수령에게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하였으나 실제적인 군사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잡색군(雜色軍)이라고 하여 군역 의무가 없는 각종 인정(人丁)을 동원하여 편제하였으나 이는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따라서 외침을 받아 이들 연해 지대의 진이 무너지면 내륙 지방은 무인지경이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455년(세조 원년) 평안도·함경도에 설치된 군익도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내륙 지방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써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翼)으로 편제하는 방법의 전국적인 군사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부평이 속한 경기도의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광주도(廣州道) 중익: 광주(廣州) · 이천(利川) · 양근(楊根) · 양지(陽智)
좌익: 여흥(驪興) · 천령(川寧) · 지평(砥平) · 음죽(陰竹)
우익: 안성(安城) · 진위(振威) · 양성(陽城) · 용인(龍仁) · 죽산(竹山)
· 양주도(楊州道) 중익: 양주(楊州) · 원평(原平) · 포천(抱川) · 적성(積城) · 가평(加平)
좌익: 삭령(朔寧) · 마전(麻田) · 영평(永平) · 연천(漣川)
우익: 풍덕(豊德) · 장단(長湍) · 임진(臨津) · 임강(臨江)
· 부평도(富平道) 중익: 부평(富平) · 인천(仁川) · 양천(陽川) · 금천(衿川) · 고양(高陽)
좌익: 수원(水原) · 남양(南陽) · 안산(安山) · 과천(果川)
우익: 김포(金浦) · 교하(交河) · 통진(通津)
· 독진(獨鎭) : 교동(喬桐) · 강화(江華) · 개성부(開城府)

경기도는 광주 · 양주 · 부평 등 3개의 거진과 교동 · 강화 · 개성부의 3개 독진으로 이루어지며, 거진의 경우 부근의 여러 고을을 중 · 좌 · 우익으로 편입시켜 하나의 군사 단위를 이루고 있다. 조선 초기 부평은 군익도체제 하에 거진인 경기도 부평도로 편제될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음이 드러난다.

1455년(세조 원년)의 대개혁에 의하여 전국화되었던 군익도 체제는 1457년(세조 3) 10월에 진관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즉 중 · 좌 · 우익의 편성을 갖던 종래의 체제를 중요한 지역을 거진으로 하여 나머지 주변 지역의 제진이 그 휘하에 소속되도록 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진: 부평 · 인천 · 금천 · 안산 · 남양 · 진위 · 안성 · 양성
광주진: 양근 · 지평 · 천령 · 여흥 · 음죽 · 죽산 · 이천 · 양지 · 용인
양주진: 연천 · 마전 · 적성 · 원평 · 교하 · 고양 · 영평 · 포천 · 가평
강화진: 김포 · 양천 · 통진 · 교동
개성부: 삭령 · 임진 · 풍덕

군익도 체제 아래 3개 도와 3개 독진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수원 · 광주 · 양주 · 강화 · 개성 등 5개의 진으로 나누어 그 주위의 고을들을 편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 3개 도로 나누었던 도 대신 진이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려 이래 지방군의 파악 단위로 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북방의 군익 체제 정비에 따라 역시 도를 단위로 삼았던 것인데, 이때에 비로소 진으로 바뀐 것이다.

진관 체제의 운용과 기능은 1458년(세조 4)에 재조정되었다. 중익의 기능이 거진으로 옮아갔으며, 수령이 겸대하는 각 진의 병마 명칭에서도 중익 또는 좌·우익이란 부분이 없어졌으나, 갑사 등 모든 군사가 거주지에서 군적에 등록되고 그에 대한 방대한 관할권이 거진에 귀속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은 진관 체제는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주진(主鎭) 아래에 몇 개의 거진을 두고, 이 거진의 첨절제사가 여러 진을 통할하되 여러 진의 절제도위(節制都尉)·만호(萬戶) 등은 그 진을 중심으로 스스로 적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진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군의 명칭도 수군을 제외한 육군을 모두 정병(正兵)으로 일원화하였다. 즉 종래 남방 지대의 번상군(番上軍)인 정병, 지방 요새지에 부방하던 영진군(營鎭軍), 그리고 북방 지대의 익군인 정병 등을 1464년(세조 10)에 모두 정병으로 합속·통칭하게 되어 정병이 국방의 주력을 이루었다. 이로써 각 진관의 정병은 평상시 거주지의 방위력을 이루고 있다가 순번에 따라 상경·숙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요새지에 상주하는 유방병력(留防兵力)으로 활용되는 등 전국의 각 지역을 진관 체제로 묶어 국방 병력의 일원화 조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진관 체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가 주진에 있으면서 도내 각 진관의 육군·수군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행사하였고, 또 아래 거진에는 부윤·목사·부사가 절제사·첨절제사 등을 겸하여 군사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말단의 진은 군수·현령·현감 등이 동첨절제사·절제도위 등을 겸하였고, 특수 지역에는 만호를 두었다.

그러나 병마절도사는 그 지역의 광협과 그 중요성 등에 의하여 각 도마다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즉 경기·강원도의 경우 단병사(單兵使)이기 때문에 관찰사(종2품)가 예겸했지만, 충청·전라·평안도의 경우는 전임병사 이외에 관찰사가 겸하는 겸병사가 있었다. 경상·함경도의 경우는 국방상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관찰사가 겸하는 겸병사 이외에 전임병사가 각각 2인씩 있었다. 그런데 관찰사는 한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군사 관계 행정을 관장한다

는 뜻에서 병사를 겸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군사 지휘 관계는 주진의 각도 절도사(경상좌·우도, 함길은 남·북도)로부터 거진의 첨절제사로, 또 그로부터 제진의 동첨절제사로 연결되는 일원적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권을 모두 관장하는 관찰사는 여러 진의 병마관을 겸하는 수령들의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부평부사는 경기도의 거진인 수원진관의 첨절제사인 수원부사 밑에 인천부사·남양부사·안산군수·안성군수 등의 동첨절제사와 함께 예속되어 있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수원진관 소속의 부평도호부에는 부내면·동면·당산면·주화곳면·상오정면·하오정면·수탐면·옥모면·석천면·동소정면·서면·마장면·석곳면·모월곳면·황어면 등 15개 면이 있다. 부평의 15개 면 중 황어면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의 부평 고적조에는 그것이 황어향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유제인 향·부곡·소 등의 천민 집단인 특수 행정구역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1413년(태종 13)의 지방 제도 정비 때 모두 일반 행정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제도상 소멸이 되었는데, 그 자취가 고적조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의 황어향은 부평부 북쪽 15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방 제도 정비 때 용이하게 단일면으로서 일반 행정구역에 흡수되었다.

3. 관아와 향교

1) 부평도호부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의 남쪽에 부평의 읍치가 자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계양산 일대는 부평의 중심이 된다. 이 일대에는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평도호부 관아로, 현 부평초등학교 교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헌의 일부로 보이는 건물 1개 동만이 현존하고 있다.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평도호부 관아

부평지역은 1150년(고려 의종 4)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되었다. 그 후 1215년(고려 고종 2)에 계양도호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413년(태종 13)에 부평도호부로 개칭되었다.

1842년의 『부평부읍지』에 의하여 부평도호부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평도호부 관아의 구성 및 규모

명칭	규모
객사	벽돌로 쌓은 대청 7칸 반, 동헌 7칸, 서헌 7칸,
	협방 2칸, 중문 2칸, 대문 3칸
아사(관아 건물)	근민당 7칸, 사무헌 9칸, 내아 21칸, 공수 9칸,
	공고 4칸, 호적고 2칸, 급창방 3칸,
	사령방 5칸, 중문 3칸, 대문 3칸
부창(도호부의 창고)	대청 6칸, 고사 69칸 반, 대문 1칸, 협문 1칸
연무당	6칸
군기고	3칸
향청	7칸
장관청	9칸
인리청	21칸
별초사청	13칸
사창	정묘년에 세로 세웠으며 10개 면에 나누어 설치하였다
화약고	1칸

부평도호부의 규모는 인천도호부를 능가하는 것으로, 부평지역이 고려시대 이후로 중요한 도호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평도호부 관아가 언제 축조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호부로의 승격이 1413년(태종 13)의 일이므로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관아는 구한말까지 그 면모를 잘 유지하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학교 교사로의 개축 등으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특히 관아 자리에 부평공립학교(현 부평초등학교)의 교사가 신축되면서 동헌의 모습이 'ㄱ'자로 바뀌었고, 1968년 현재의 자리로 옮길 때 한쪽 건물을 없애고 '一'자형 건물로 복원하였다. 현재 동헌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서 내부에는 3본의 내진주(內陣柱)가 놓여 실내를 구성하고 있다. 정면과 후면에 모두 창호가 설치되었고, 측면에는 전면 칸에만 외짝 여닫이문이 설치되었고 욕은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사방에 철책이 둘러져 있다.

부평도호부에 소속된 관원을 『여지도서』 관직조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부평도호부사 겸 진무전영장 밑에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었다.

부평도호부 소속 관원 현황

관직	인원	관직	인원
교수	1명	장교	31명
좌수	1명	아전	19명
별감	2명	지인	18명
중군	1명	사령	14명
부평도호부 소속의 군관	16명	취수	4명
진영 소속의 군관	26명	관노	11명
중군 소속의 군관	10명	관비	11명

출처: 『여지도서』

2) 부평향교

조선왕조는 성리학적 실천 정신으로 인민을 교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 관학(官學)을 설립하였는데, 바로 중앙(漢城府)의 성균관(成均館)과 4학(四學; 東·西·南·中學), 그리고 지방의 부(府)·목(牧)·군(郡)·현(縣)에 각기 1개 씩을 설립한 향교(鄕校)였다.

향교는 고려왕조 때에 이미 설립되었다고 보기도 하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게 된 것은 군현제가 정비되는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특히,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이념으로 한 지배 질서 및 체제를 구현하려 하였기에, 각 학교에는 공자(孔子)를 비롯한 중국과 한국의 역대 유학자(儒學者)를 제향(祭享)하는 기능을 함께 갖추게 하였다. 성균관 및 향교에서 교육 기능의 명륜당(明倫堂)과 제향 기능의 대성전(大成殿)이 건물 구조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런 연유이다. 인천 지역에는 인천·부평·강화·교동에 각기 향교가 설립되었는데, 조선왕조 시대에 이들 지역이 별개의 행정 고을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평향교와 강화향교는 그 창건 시기가 1127년(고려 인종 5)으로 전하고 있고, 교동향교는 1286년(고려 충렬왕 12)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원나라에 갔다가 공자의 상(像)을 지니고 뱃길로 귀국하는 도중 교동에 들러 봉안(奉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묘(文廟)로 전하고 있어, 각기 그 설립 시기가 오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부평향교(1991)

부평향교는 임진왜란 때 교생(校生) 박무영(朴茂榮)·박대충(朴大忠)·이언복(李彦馥) 등 3인이 성전(聖殿)의 위판(位版)을 계양산에 토광을 파고 옮겨 보관하였다가, 난이 끝난 후 다시 향교에 봉안(奉安)하였다. 이때 위판을 분실한 인근의 읍들이 부평향교 위판의 규제(規制)를 본받아 갔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는 화재로 향교가 소실되자, 동지(同知) 송윤(宋玧)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판을 구하였으며, 1688년(숙종 14) 현재의 위치에 재건하였다.

조선왕조는 각 군현의 격(格)에 따라 향교에 파견하는 교관(敎官)의 직급 및 교생(校生)의 정원, 향교의 살림을 지원하기 위한 교노비(校奴婢)와 학전(學田)의 지급 규모를 각기 달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도 고을의 격(格)에 따라 도호부(都護府)였던 강화·인천·부평에는 종6품의 교수(敎授)가, 그리고 현(縣)이었던 교동에는 종9품의 훈도(訓導)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생의 정원으로는 강화·인천·부평이 각 70명씩, 교동은 30명이었으며, 교노비의 수는 강화·인천·부평이 각 20구씩, 교동은 10구가; 그리고 학전은 강화·인천·부평이 각 10결씩, 교동은 5결이 각기 배정되었다.

4. 교통로와 통신 시설

1) 역원(驛院)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한 조선왕조는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도로 요처에 역을 설치하고 역제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을 이어받아 정비되었다.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던 조선왕조는 역이 지니는 중추신경적인 기능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 체제에 특히 유의하였다. 조선 초기 국왕들은 역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제의 개편, 역로의 보수, 역리 · 역졸의 충원, 역전(驛田)의 운영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시대 역제의 윤곽이 분명해진 것은 『경국대전』이 성립될 무렵이었다. 이 때에 확립된 역제는 그 후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틀이 유지되었다.

조선시대 역로(驛路)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중앙의 병조였고, 그 밑에서 구체적 실무를 맡던 곳은 승여사(乘輿司)였다. 승여사는 고려시대의 공역서(供驛署)가 1405년(태종 5)에 개편된 것이었다. 승여사의 관할 하에 전국 각 역에는 역승(驛丞)을 두어 그 임무를 맡게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종9품의 역승 외에 종6품의 찰방(察訪)을 함께 두어 교통행정을 담당케 했다.

그러나 1457년(세조 3)을 전후하여 전국의 역승은 모두 혁파되고, 그 역할은 찰방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세조 8년에는 찰방이 관할하는 역이 많다고 하여 역승을 다시 두니, 이때의 상황이 반영된 『경국대전』에는 역승 · 찰방이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승의 폐단이 다시 제기되면서 1535년(중종 30)에는 다시 역승을 폐지하고 찰방 체제로 정비하였다. 역승은 서리(書吏) 중에서, 찰방은 3품 이하의 조관(朝官) 또는 무예를 겸비한 인물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찰방의 임무는 본역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진상 · 공물 등의 수납을 감독하거나 역호(驛戶)를 관리 규찰하는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찰방 23, 역승 18 등, 41개 역도(驛道)에 537개 역이 분속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소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커다란 전환은 없었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도리(輿地考 道里)에는 '사방의 가장 긴요한 9개 대로' 라 하여, ① 경성-의주 간, ② 경성-경흥 · 서수라 간, ③ 경성-강릉 · 평해 간, ④ 경성-유곡(幽谷) · 부산 간, ⑤ 경성-유곡 · 통영 간, ⑥ 경성-삼례 · 통영 간, ⑦ 경성-삼례 · 제주 간, ⑧ 경성-소사 · 충청수영 간, ⑨ 경성-강화간 도로를 들고 있다. 경도(京都)에는 병조 직할의 한성 청파역(靑坡驛)과 한성 노원역(蘆原驛)이 있고, 경기도에는 영서도찰방(양주 迎曙驛) · 양재도찰방(과천 良才驛) · 평구도찰방(양주 平丘驛) · 중림도역승(인천 重林驛) · 경안도역승(광주 慶安驛) · 도원도역승(장단 桃源驛)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천의 중림도에 소속되어 있는 역으로는 중림역(인천, 부의 동쪽 33리에 위치) 이외에 경신(慶信, 인천) · 반유(盤乳, 금천) · 석곡(石谷, 안산) · 금륜(金輪, 부평) · 종생(終生, 통진) · 남산(南山, 양천) 등 7역이 있었다. 부평부 북쪽 13리에 위치한 금륜역에는 대마 1필, 복마 6필과 리 13명, 노비 36구가 있었다. 금륜역은 1871년 간행된 『부평부읍지』 역원조에 '지금은 없어졌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70년 이전에 철폐된 듯하다. 금륜역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 현재 '역골' 로 불리고 있다.



금륜역 추정지(계양구 다남동)

출처: 『귤현 도시개발구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원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길목에 설치된 편의 시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원과 더불어 각 고을에 빈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관을 두기도 하였다. 원은 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과 원을 합하여 역원이라고 하였다.

원은 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써, 조선시대에는 대개 30리에 하나씩 두었으나, 지형 조건에 따라 원 사이가 평지에서는 거리가 다소 멀고, 산악지대에서는 가까웠다. 예를 들면 광주(廣州)의 판교원(板橋院)과 용인의 보수원(寶樹院), 보수원과 죽산의 태평원(太平院) 사이의 간

격은 각기 15㎞ 정도인데, 새재 근처의 신혜원(新惠院)과 동화원(桐華院), 동화원과 조령원(鳥嶺院)은 불과 3㎞ 간격이었다.

원의 경영을 책임 맡은 원주에게는 원주전(院主田)이 지급되었다. 그 액수는 대로에 속한 경우에는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였다.

그런데 원은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었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조선 초부터 폐지된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1445년(세종 27)에는 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 원주의 책임을 맡겼다.

그 후 임진왜란 · 병자호란 등 전란을 겪으면서 원은 거의 폐허화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사사로이 개설한 점(店)을 이용하였다. 점은 대개 원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의 이름이 점의 이름으로 된 곳이 많았다. 여행자가 점에서 숙식할 때는 방화전(防火錢)이라 하여 숙식비를 내야했다. 이들 점은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주점 · 주막으로 부르던 거릿집으로 발전하여 갔다.

원은 전국 각지 교통의 요로에 설치되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310개 소의 원이 있었다. 이 중 경기도에는 117개 소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부평부에는 부의 북쪽 10리에 구슬원(球瑟院)과 부의 남쪽 15리에 대야원(大也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2) 봉수(烽燧)

조선왕조는 교통수단과 아울러 통신수단도 정비하여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는 봉수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외침과 같은 국경 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정부, 또는 이웃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방 주민에게도 알려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함에 의도가 있었다. 즉 봉수로는 국가의 신경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역로와 함께 군사행정상의 의미를 지니면서 통치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케 하였다. 다만 역제가 주로 중앙의 공문을 지방관아에 전달하는 하향식임에 비하여, 봉수제는 변경에서 중앙으로 급보를 전달하는 상향식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역제가 행정 기능 중심인 데 대하여 봉수제는 군사 기능 중심이었다.

봉수가 행해진 것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였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고려 후기였다. 조선의 봉수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비되었다.

원래 봉수란 용어는 밤에 불로 알리는 봉인 연봉(燃烽)과 낮에 연기로 알리는 수, 즉 번수(燔燧)를 합친 말이다. 그러므로 흔히 일컬어지는 봉화란 말은 야간의 연봉만을 가리킨 것이나 후에 주간의 번수까지 합친 뜻으로 쓰여져 고려 후기 이래로 봉화로 통칭되었다.

연봉이든 번수든 신호를 알리기 위하여 대략 수십 리 거리를 두고 전망과 관측이 용이한 산마루에 봉수대를 두었다. 변경의 봉수대가 긴급한 사정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서 횃불이나 연기로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알림으로써 차례대로 전달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봉수의 관장은 그 기능상 군사 책임자가 맡았다. 즉 중앙에서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 및 병마절도사 · 수군절도사 · 도절제사 · 순찰사 등 군사 책임자가 관리하였다. 특히 수령은 봉수군의 근무활동을 수시로 감독하고 연대책임을 졌으며, 그들의 차출과 근무 상황은 물론 봉수대 시설의 이상 여부를 항시 살펴야 했다.

그리고 봉수군은 출번(出番) · 퇴번(退番)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부근의 주민을 중심으로 차출하였다.

신호를 알리는 방법으로서의 거화법(擧火法)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호의 표시는 정세의 정도에 따라서 횃불 또는 연기의 수, 즉 거수(炬數)로 구별토록 하였는데, 일찍이 고려 때나 중국 당에서는 4구법이 일반적이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5구법으로 확정되었다. 즉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면 1거(炬)하다가 사태가 일어나면 거수를 늘렸다. 이 때 육지에서는 적이 출현하면 2거,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하고 연일 접전 중이면 낭분(狼糞)을 사용하였다.

바다에서는 적선이 바다 위에 나타나면 2거, 해안 가까이 오면 3거, 우리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적군이 육지로 상륙하면 5거를 올리도록 하였다.

봉수는 연락을 그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각 봉수대는 이웃 봉수대와 연락망을 이루고 있다. 봉수의 연락망은 기능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간선과 지선으로 나뉘었다. 간선은 변경 지방에서 중앙으로 직접 통하였기 때문에 직봉(直烽)이라 하였고, 그 사이에 보조선으로서의 지선이 있었는데 이를 간봉(間烽)이라 하였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봉수의 주요 간선은 크게 5개의 직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동북쪽 두만강변의 함경도 경흥 서수라

우암(牛巖)봉수대, 동남쪽 해변의 경상도 동래 다대포 응봉(應峰)봉수대, 서북쪽 압록강변의 평안도 강계 만포진 여둔(餘屯)봉수대, 같은 서북쪽 압록강 입구의 평안도 의주 고정주(古靜州)봉수대, 서남쪽으로는 전라도 순천 방답진의 돌산(突山)봉수대 등을 기점으로 하여 정해진 노선을 따라 서울의 목멱산(남산)을 종점으로 하고 있다. 보조선인 간봉은 본봉 사이의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장거리의 것과 국경 방면의 전방 초소로부터 본진·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이 있다. 그런데 경흥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1거는 양주 아차산 봉수를 거쳐 남산의 제1봉에 도달하고, 동래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2거는 광주 천천현(穿川峴) 봉수를 거쳐 남산의 제2봉에 도달하며, 강계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3거는 한성 모악동봉 봉수를 거쳐 남산의 제3봉에 도달하고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4거는 한성 모악서봉 봉수를 거쳐 남산의 제4봉에 도달하며, 순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제5거는 양천 개화산 봉수를 거쳐 남산의 제5봉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축곶봉수대터(서구 가정동)

출처 : 『인천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이들 봉수 가운데 부평을 통과하는 것이 제5거이다. 제5거는 순천의 방답진(防踏鎭)에서 처음 피어오른 후 남해안을 서쪽으로 돌아 진도 여귀산(女貴山) 봉수에 이르고 그 곳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수원 염불산·남양 해운산·안산 정왕산 봉수를 거쳐 인천의 성산(문학산) 봉수와 부평의 축곶산(柷串山) 봉수에 이르고, 다시 김포 백석산·통진 수안산·강화 대모성산·진강산·망산 봉수를 거쳐 교동으로 들어가 규산(화개산) 봉수에 이른다. 이 곳에서 다시 나와 강화 하음산·남산, 통진 남산, 김포 냉정산, 양천 개화산 봉수를 거쳐 서울의 남산 제5거에 이르는 것이다.

5. 조운과 김포굴포의 개착 시도

조운은 조전(漕轉)·조만(漕輓)·해운·수운·참운(站運)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시대의 조운제는 고려의 조운제를 토대로 하여 제정되었다. 태조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 수립된 조선왕조의 조운제는 중앙정부가 조창·조선·조군을 직접 관장하는 관선조운체제(官船漕運體制)였다.

조운은 크게 해운(海運)과 참운(站運)으로 나뉜다. '조세를 배로 운송하여 경사로 납입하는 것을 조(漕)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이 현물로 거두어들인 조세를 경창으로 운송하는 것을 조운 또는 조전이라고 하고, 조운의 보조로 강수(江水)를 이용하는 것을 참운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해안은 다도해로서 항로의 사정이 양호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연의 장산곶(長山串), 태안의 안흥량(安興梁), 강화의 손돌목[孫乭項], 임천의 남당진(南堂津), 영광의 칠산량(七山梁) 등은 험난한 해로로 유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안흥량 관장목[冠丈項]과 강화 손돌목, 행주 염창목[鹽倉項]이 3대 험로로 알려져 있었다. 관장목과 손돌목에는 모두 돌부리가 날카로운 데다가 물살이 빠르고 거세어서 배가 통과할 때에는 식대(息載)할 염려가 많았다. 그리고 염창목에는 풀이 많이 생기고 모래로 강이 메워져 물이 얕아졌기 때문에 큰 배는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조선 초기에는 항해 기술도 이같은 지형 조건을 쉽게 극복할 만큼 뛰어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조선이 난파 좌초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즉 1395년(태조 4)의 경상도 조선 16척, 1403년(태종 3)의 경상도 조선 34척, 1414년(태종 14)의 전라도 조선 66척, 1455년(세조 원년)의 전라도 조선 55척의 침몰은 그 중에서도 큰 사고였다.

특히 손돌목은 염하 상에 위치하여 강화 덕진진 용두돈대와 대안인 김포(당시에는 통진) 덕포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남의 조세선이 이곳을 버리고서는 달리 길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조로(漕路) 중에서도 최대의 험로로 알려져 있었다. 손돌목에는 돌다리가 굳세게 뻗쳐 있어서 물밑이 마치 문턱과 같이 되어 있고 그 중앙이 약간 오목한 지형이어서 조수가 드나들 때에 물살이 심히 급하다. 그리고 물밑의 돌부리가 마치 깊은 단애와 같아서 굽이쳐 돌며 여울과 같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선로가 극히 위험한 곳이다.

또한 조세선이 운항 도중 봉착하는 난관이 풍랑이었는데 이 풍랑을 손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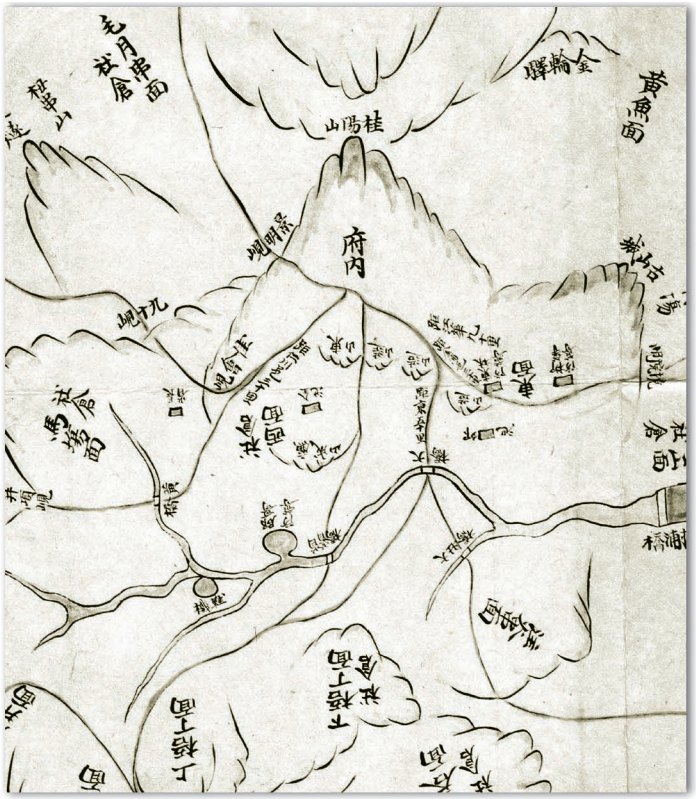
목과 같은 험로 상에서 만난다면 침몰을 면하기 어려웠다. 정조대에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이 강화도의 형세를 보고하는 가운데 손돌목에 대하여 "안상(岸上)에서 손돌목을 바라보니 바야흐로 조만풍념시(潮滿風恬時)를 맞아 선박들이 꼬리를 물고 내왕하는데, 사공들이 이곳에 도달하면 아연 긴장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키를 조작하면서 정타(正舵)로 중앙항진하다가 측타(側舵)로 절선(折旋)하여 탄석(灘石)을 피한 후 다시 정타로 환원시켜 중앙 항진하기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만약에 역풍을 만난다면 감히 통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음에 순풍이 불다가도 바람이 돌변하면 반드시 암석에 부딛쳐서 침몰하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손돌목은 조운로 중 가장 험하였다.

김포굴포는 손돌목을 회피하기 위한 운하 계획으로 고려시대부터 개착이 시도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착안한 사람이 무신정권 시대의 무인집정 최이(崔怡)다. 그가 서해와 한강 사이에 운하를 굴착하여 연결시키려고 사람을 보내어 안남(安南, 부평) 땅의 지세를 보게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지하고 말았다. 조선에 들어와서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金安老)가 굴포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김안로가 착공한 굴포 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척 상황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1797년(정조 21) 8월에 정조가 김포 장릉을 참배한 후 부평·인천경(仁川境)·안산을 거쳐 수원의 현륭원(顯隆園)을 전배하고 귀경하여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을 불러보고 "장릉은 계양산을 안산(案山)으로 하여 마치 금수장자(錦繡障子)를 두른 것같이 지리가 매우 좋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예전에 듣건대 김안로가 40리에 조수를 통하려고 원통현(圓通峴)까지 이르러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만년 공호(拱護)해야 할 땅인데 어찌 인력을 들여서 착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정조의 말을 통해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원통현(간석동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경인 국도 고개)까지 이르러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원통현까지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만기요람』에 현재 김포에는 굴포교가 남아 있다고 하였고, 『부평부읍지』의 지도에도 굴포교가 등재되어 있다. 굴포천은 철마산에서 부평과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를 지나 강서구와 김포군 고촌면 경계에서 한강으로 합수되는 하천이다.

1681년(숙종 7) 6월에 병조판서 이숙(李翩)이 상계하기를 "신이 정축난 때 포로가 되어 전 부사 이시빈(李時彬)의 처 우씨와 함께 피난 중이었는데



지도 한가운데로 굴포천이 흘러가고 있다.
출처: 『부평부지도』(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1872)

김포 땅 굴포변에 이르러 그 남편과 헤어지게 되자 곧 물속으로 몸을 던져 오랑캐의 화살을 받고 죽었으니 그 절의의 높고 우뚝함이 이와 같습니다"하였다. 정축란 때 포로가 되었다고 함은 병자호란 다음해인 정축년(1637) 1월 22일에 강화가 함락되어 포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숙이 말한 김포 땅 굴포변은 굴포교 또는 그 부근 지점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에도 굴포교는 서울에서 강화에 이르는 김포가도 굴포천 상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굴포천이나 굴포교로 볼 때에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한강 쪽에서 진행되어 원통현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정조는 "김안로가 40리에 조수를 통하려고 하였으나 원통현에 이르러 중지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에서 원통현까지는 40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강물이 원통현까지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수를 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40리는 서해에서 한강까지의 전 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통조(通潮)'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해의 조수를 통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서해 쪽과 한강 쪽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양쪽이 다함께 원통현까지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래야만 굴포 거리가 40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번직이 나루(인천교)에서 주안을 거쳐 약사사(藥師寺) 앞 원통현까지 이르던 과거의 소위 주안 염전수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가 아니라 김안로의 굴포지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상으로 볼 때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서해의 인천교(당시는 부평 땅) 쪽과 김포의 한강 쪽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원통현까지 이르렀으나 그 개착에 실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통현의 개착 실패가 기

술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풍수지리설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에 원통현을 착파한다는 것은 커다란 난관이었고 또한 막대한 노역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사였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원통현을 "만년 공호해야 할 땅"이라 하고 "어찌 인력으로 착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은 풍수지리설과의 관련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서해안 쪽의 굴포터를 '김자점의 운하'라고 부르고 김자점이 원통현을 착파함으로써 조선의 혈맥(계양산맥)을 끊으려고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설과의 관련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자점은 청과 내통하여 효종의 북벌계획을 밀고하였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풍수지리설과 얽혀 김자점의 죽음에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굴포 작업에 실패함으로써 손돌목이란 조운의 난관은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새로이 제기된 방안이 전조창(轉漕倉)의 설치이다. 즉 전조창은 삼남의 조세선이 손돌목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와서 세곡을 납입하면, 이곳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이다. 그러나 전조창의 설치 연대나 폐지 연대는 알 수가 없다.

6. 부평지역의 호구 및 조세

1) 호구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하여 15세기 전반기의 부평지역 호구를 살펴보면, 호수가 4백29호, 인구가 9백 54명으로 1호당 평균인구수가 2.2명 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왕조는 전국의 군현을 대체로 호구 및 전지(田地)의 다과(多寡)에 따라 각기 부(府)·목(牧)·군(郡)·현(縣)으로 그 격(格)을 정하여 구분하였는데, 바로 인천 지역에 속한 이들 4개 군현의 호구 및 전지 규모는 강화도호부·부평도호부·인천군·교동현이라는 각 명칭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부평지역의 호구 증대 양상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성씨조(姓氏條)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고려왕조 이래의 토착 세력을 뜻하는 토성(土姓) 외에 래성(來姓)·속성(續姓)·망성(亡姓) 등 조선 건국 초기의 주민 이동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바로 래성과 속성은 전입(轉入)한 성씨를, 망성은 전출한 성씨를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부평지역은 조(趙)·류(柳)·윤(尹)·김(金) 등 적지 않은 래(來)·속성(續姓)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 후기 부평지역의 호구 변화를 1760년경 편찬된 『여지도서』 방리조와 1871년 편찬된 『부평부읍지』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내면【214호 내에 남자가 380명, 여자가 353명이다】, 동면【163호 내에 남자가 265명, 여자가 296명이다】, 당산면【136호 내에 남자가 197명, 여자가 209명이다】, 주화곶면【173호 내에 남자가 310명, 여자가 323명이다】, 상오정면【126호 내에 남자가 273명, 여자가 234명이다】, 하오정면【184호 내에 남자가 303명, 여자가 350명이다】, 수탄면【185호 내에 남자가 316명, 여자가 370명이다】, 옥모면【164호 내에 남자가 297명, 여자가 319명이다】, 석천면【196호 내에 남자가 370명, 여자가 349명이다】, 동소정면【162호 내에 남자가 290명, 여자가 346명이다】, 서면【155호 내에 남자가 280명, 여자가 281명이다】, 마장면【90호 내에 남자가 146명, 여자가 166명이다】, 석곶면【326호 내에 남자가 565명, 여자가 646명이다】, 모월곶면【357호 내에 남자가 571명, 여자가 683명이다】, 황어면【288호 내에 남자가 463명, 여자가 622명이다】, 이상 15개 면의 호수는 2,923호이며, 총 10,898명 중 남자가 4,928명, 여자가 5,970명이었다. (『여지도서』(1760년경) 방리조)

부내면【250호이며 남자는 385명, 여자 330명이 있다】, 동면【111호이고, 남자는 190명, 여자 163명이 있다】, 당산면【113호이며, 남자는 171명, 여자 179명이 있다】, 주화곶면【110호이며 남자 159명, 여자 120명이 있다】, 상오정면【163호이고 남자 290명 여자 205명이 있다】, 하오정면【232호이고, 남자 452명 여자 298명이 있다】, 수탄면【159호이고 남자 274명 여자 192명이 있다】, 옥산면【223호이고 남자 317명 여자 219명이 있다】, 석천면【179호이고 남자 267명 여자 220명이 있다】, 동소정면【145호이고 남자 249명 여자 159명이 있다】, 서면【169호이며 남자 250명 여자 211명이 있다】, 마장면【94호이며 남자 163명 여자 113명이 있다】, 석곶면【218호가 있고 남자 387명 여자 298명이 있다】, 모월곶면【335호 내에 남자

572명 여자 392명이 있다】, 황어면【256호이고 남자 452명 여자 319명이 있다】, 이상 15개 면의 호수는 2,757호이며, 총 7,996명 중에 남자가 4,577명 여자가 3,419명이다. 1760년『여지도서』에 비해 1871년 부평지역의 호구수가 줄어든 것은, 1800년대 세도정권 하의 부패한 관료들의 극심한 수탈을 피하기 위해 부평지역의 백성이 도망과 유리하였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평부읍지』(1871) 방리조)

2) 농경지와 조세

조선 후기 부평지역의 농경지 규모 및 조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부평지역의 밭은 1,557결 64부 3속 정도로 각종 잡탈(雜頉)을 제하면, 실결은 725결 50부 5속이며, 논은 1,472결 25부 6속 내에 각종 잡탈을 제하면, 실결은 578결 85부 9속이었다.

그리고 이때 부과된 조세는 우선 전세(田稅)가 쌀이 154섬 5말 4되, 콩이 193섬 7말로 배로 운반하여 서울 광흥창에 납부하였다. 대동세는 봄과 가을로 거두는 쌀이 모두 919섬 6말 7되이었다. 그런데 군영 및 관아의 수용미와 저치미(관아 창고에 예치하는 쌀), 그리고 기름 · 벌꿀 · 종이 값 마련에 드는 쌀, 아록미(지방 관아의 경비 및 관원의 급료 등에 충당되는 쌀) 등 각종 쌀을 제외한 실제 상납미는 592섬 1말 9되로 연융창에 납부하였다. 균역세로는 쌀이 1섬 12말 3되, 콩이 2섬 2말, 신포(身布)를 돈으로 바꿔 납부하는 선무군관세 80냥, 결전이 799냥 3전이었다. 또한 염세(鹽稅)는 150냥, 선세(船稅)는 54냥, 어세(漁稅)는 22냥 5전이었다.

다음으로 1871년『부평부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밭이 1,592결 74부 1속 중 각종 명목으로 탈루된 것을 뺀 실제 결수는 762결 46부 4속이고, 논이 1,629결 45부 1속 중 각종 명목으로 탈루된 것을 뺀 실제 결수는 994결 74부 5속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세는 호조에 납부하는 전세가 쌀은 모두 265섬 3말 9되 8홉이고, 콩은 모두 203섬 4말 8되 5홉 6작으로 백성이 직접 광흥창에 납부하였다. 선혜청에 납부하는 대동세는 봄 가을 합하여 쌀 1,405섬 11되 5승 8홉이며, 반미(半米)는 702섬 13두 2승 5홉 4작인데, 영관에서 소요되는

기름과 꿀, 종이값, 저리역가 및 중군요미(中軍料米) 등을 모두 제외한 실제 상납액은 531섬 7되 5홉 4작으로 백성이 스스로 대동창에 납부하였다. 반전(半錢)은 702섬 13말 2되 5홉 4작인데 돈으로 대신하면 6,325냥 9전 8푼으로, 부평에 보관하는 것과 각종 명목으로 탈루된 것을 모두 제외한 실제 상납액은 6,005냥 4전 8푼인데 고을에서 스스로 거두어 상납하였다. 균역청에 납부하는 세금은 쌀 9말 7되 8홉이고 콩 3섬 5말이고, 대동세는 봄과 가을 합하여 11섬 14말 4되 3홉이었다. 결전은 5,047냥 7전 7푼인데 그 가운데 균역청에는 1,018냥 9전 9푼을 납부하고, 성향가결전(城餉加結錢)으로 1,981냥 3전을 납부하였다. 부평도호부에 신설된 별초사의 시사방전(試射放錢)으로 2,047냥 4전 8푼을 납부하였다.

해세(海稅)로는 소금세가 214냥 5전을, 선세는 봄 가을 세전으로 13냥을 납부하였다.

4. 양란과 부평지역

1) 임진왜란과 부평지역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 4월 14일 조선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본의 선발대 17,000여 명이 군선 약 700여 척에 나눠 타고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군 선발대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곧바로 부산성을 공격하였고, 뒤이어 후속부대가 계속 부산에 상륙해 왔다. 4월 18일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22,000여 병력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였고,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1만여 명을 이끌고 김해에 상륙하는 등 4월과 5월 사이에 조선에 침입한 일본군의 총수는 약 20여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 침공의 급보를 전해받은 조정에서는 신립(申砬)을 도순변사(都巡邊使), 이일(李鎰)을 순변사, 김여물(金汝物)을 종사관에 임명하는 등 일본군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나, 신립이 충주 방어에 실패하자 평양 천도를 결정하고 4월 30일 선조는 결국 도성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후 겨우 20일 만에 서울에 이르게 되었다. 한강 방어의 책임을 맡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에서 물러나 임진강에 진을 치

고, 수성대상 이양원과 부원수 신각이 서울을 포기하고 양주로 물러서자 일본군이 5월 2일 한강을 건너 3일 도성에 들어간 것이다. 한성을 점령한 후 대오를 정비한 일본군은 곧바로 북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제1군은 평안도 방면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5월 19일 부천의 원미산(遠美山) 장대봉(將垈峯)에서 항거하는 선거이(宣居怡) 장군을 물리치고 그 날로 부평읍(계산동)에 침입하여 계양산성을 수축하여 근거지로 삼았다. 이때의 부평부사 남유(南瑜)는 겁에 질려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피신하였다.

당시 남유는 그 해 9월 경기감사의 장계로 파직당하였다가 뒤에 나주목사로 복직된 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과거의 죄책감을 느껴 자진하여 이순신을 도와 싸우다가 노량대첩 때 이순신과 함께 전사하였다. 1592년(선조 25) 남유의 후임으로 부임한 기훈(奇薰) 역시 일본군에 대항할 구상은 하지 않고 도망쳐 숨어 다녔음이 뒤에 밝혀져 1594년(선조 27) 12월 11일 사간원의 장계로 파직되었는데 그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였다.

계양산성을 근거지로 한 일본군의 일부는 5월 20일 인천으로 진격하였으나 부평 출신인 김민선(金敏善) 인천부사가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안대평(安垈坪)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안대평은 지금의 간석역 앞으로 이곳 하천에 놓인 다리에서 일본군이 패전하여 흩어진 곳이라 하여 왜산교(倭散橋)라고 불러왔다. 일본군의 수차에 걸친 침공에 문학산성을 사수한 김민선 부사의 넋을 기리는 안관당(安官堂)이 문학산성 안에 남아있다.

한편 계양산성에 집결한 일본군은 일부 수비군만 남기고 북진하여 5월 23일에 김포, 5월 24일에 통진, 5월 27일에 개성의 일본군과 합류하였다. 이때 계양산성의 잔류 일본수비군의 노략질이 극심하여 부평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899년(광무 3)에 발간된 『부평군읍지』에 따르면, '부평향교의 병화를 막고자 교생(校生) 박무영(朴茂榮), 박대충(朴大忠), 이언복(李彦馥) 등 3인이 성전위판(聖殿位版)을 구출하여 계양산 암굴에 숨겨두었다가 난이 평정된 후에 환안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인근의 여러 향교가 위판이 소실되고 난 후 모두 부평향교의 위판을 본받아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선조는 이 세 사람의 공을 가상히 여겨 참봉을 제수하고 그 자손들까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2) 병자호란과 부평지역

정묘호란 후 후금은 조선과의 관계를 형제지국(兄弟之國)에서 부자지국(父子之國)의 예로 강화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 1월에 춘신사 신득연(申得淵)을 보냈으나 새로 정한 예물의 물목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예물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첫째 새로 정한 예물의 물목대로 보낼 것, 둘째 병선 3백 척을 마련하여 의주의 하내(河內)에 모아둘 것, 이 두 가지를 어길 경우 사신의 왕래를 중단시키겠다는 최후통첩의 국서를 조선에 전했다. 조선에서는 2월에 다시 회답사로 김대건(金大乾)을 보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음과 같은 내용인 태종의 국서를 받아왔다. 곧 첫째 조선인 포로 중 도망자의 쇄환 약속을 어겼고, 둘째 후금의 사신을 명의 그것과 같이 대우하지 않으며, 셋째 동강진(東江鎭)의 중국인을 조선의 연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약속하였으나 그것을 어기고 상륙시켜 경작하게 하였으며, 넷째 후금을 배반한 유해 및 그 아우 유오(劉五)를 동강진에 보냈으며, 다섯째 왕의 족제(族弟)를 친제(親弟)로 사칭한 것 등이 세폐를 증액한 이유이고 개시(開市)를 단절한 것은 조선측이 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12월에는 조선에 다시 예물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1636년(인조 14) 4월에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청이라 하였다.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조선에 대하여 세폐의 증액과 군신 관계의 수립을 강요하는 등 온갖 위협을 거듭하던 청 태종은 조선의 완강한 거절에 부딪치자 1636년 12월 다시 조선을 침입하기 위해 위한 군사를 일으켰다. 청 태종은 청병 7만 8천 명, 한병(漢兵) 2만 명, 몽고병 3만 명으로 혼합 편성된 도합 12만 8천 명의 조선 원정군을 편성하여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진격하였다.

강화도를 함락한 청군의 한양 입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철곶첨사 김득남 장군이 굴포교(掘浦橋, 팽개다리)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니 할 수 없이 청군은 이를 피하여 진로를 바꾸어 적유산(狄踰山)에 머물면서 새로운 굴포석교를 놓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굴포석교는 청군이 놓고 건너간 다리라 하여 호교(胡橋) 또는 오랑캐다리로 불러왔고 이 다리가 있는 벌판을 오랑캐뜰로 불러오고 있다. 이 때 굴포교를 사수하던 김득남 장군은 청군과 대적하여 분전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청군이 적유산에 머물면서 오랑캐다리를 놓는 동안 일부 청군은 부평부에 침입하여 부평향교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부평부 관아도 반소되었다. 향교가 화염에 충천할 때 동지(同知) 송윤(宋玧)은 화염을 무릅쓰고 대성전에 뛰어들어가 열성위 위판을 구출하여 징맹이고개(경명현)를 넘어 공천동 벌판에 감추어 두었다. 뒤에 이곳을 공자지벌[孔子之原]이라 불러왔다. 당시의 부평부사는 전이성(全以性)으로 10만 대군의 위세에 눌려 전의를 상실하고 피신에 급급하다가 난이 끝난 후 다음 해 3월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5. 서구 열강의 침략과 부평지역

1) 서학 · 천주교의 전래와 영향

부평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때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 최초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은 선대까지의 세거지가 인천이었고, 참수된 후 반주골(현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묻혔으며, 역시 천주교도라는 명목으로 참수당한 그의 아들 이택규와 이신규도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부평지역에도 이른 시기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래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학의 과학 기술에 대해 갖게 된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자발적인 천주교 수용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조선의 천주교는 1831년(순조 31) 조선교구가 세워지고 1838년(헌종 4) 신자수가 9천 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어 갔다.

인천 지역의 신자들도 수가 꾸준히 늘었는데 1838년 10월 정 바오로라는 신자가 조상들의 위패를 부수어 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 한 그의 가족들은 먼저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인천부사에게 위패 파손을 고발하였다. 이에 정바오로는 곧 도망하여 화를 면하였고, 인천 지역의 신자들은 흩어졌으며 12명 정도의 신자들이 투옥되었다. 인천부사 이형원은 신자 중 이명원을 주동자로 생각하여 서울로 압송하려 하였는데 이명원은 강나루에서 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호송하는 포졸이 죽인 것

인지 고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투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 죄수를 잃게 되자 이형원은 사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경우 자신도 그동안 살피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꺼려 다른 신자들에게는 배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 모두 석방하였다. 그러나 인천의 신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이미 집과 재산을 잃었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839년(헌종 5) 3월 5일에는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이 발표되어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기해박해). 이때 부평 출신 김성임 마르타, 인천의 심소사 발바라·이준겸 야고보 등이 순교하였다. 이어서 1846년(헌종 12)에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사건이 일어나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인천 지역에서는 우술임 수산나 등이 순교하였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후에 인천·강화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천주교도 색출과 가혹한 박해가 벌어졌다. 천주교도들이 외국과 내통하여 군대를 끌어들였다는 죄목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부평과 인천, 그리고 강화에는 천주교가 비교적 일찍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교의 경로나 신자들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정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8세기 말부터 이 지역에는 천주교가 전파되었고 신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2) 병인양요와 부평지역

1863년 12월 고종(高宗)이 즉위하자 그 생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와 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여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 하였다.

1864년 2월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경흥부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등 러시아 세력의 남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대원군은 프랑스·영국 세력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는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구상하였다.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 베르뇌(S.F.Berneux) 주교에게 조선과 영·불 간의 관계 수립을 주선하여 러시아의 남진 세력을 저지시키는 데에 협력해 준다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대원군과 베르뇌 주교 간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조선

조정의 여론은 대원군을 비난하고 천주교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대원군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종래의 유화적 태도를 버리고 이때부터 유교적 전통 질서에 반하는 혹세무민의 사교로 간주하여 천주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 2월에 천주교 금압령을 반포하고, 이로부터 3월 29일에 이르기까지 도합 9명의 프랑스 신부를 처형하였으며, 대원군과 프랑스 신부 사이의 접촉을 주선하던 홍봉주 · 남종삼 등을 비롯한 조선인 신도 8천여 명도 함께 처형하였다(병인사옥).

병인사옥이 일어나자, 충청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조선 교구의 다블뤼(M.N.A.Daveluy) 부주교는 3월 10일 만주 교구장인 베롤(Verrolles) 주교에게 서신으로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겪은 수난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이 프랑스의 정식 여권을 소지하고 청을 경유하여 조선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조선 관헌에게 체포되어 처형당할 것이며, 이는 명백히 프랑스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청 황제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베롤 주교는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당한 박해 사실을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서신으로 발송하였으며 극동함대를 즉시 조선에 출병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극동함대는 로즈 제독의 지휘 아래 2차에 걸친 조선 원정을 단행한다. 프랑스 함대의 1차 조선원정은 1866년 9월 18일 지부항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함대는 9월 19일 풍도(楓島) 부근 5마일 지점에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 날 입파도(立波島)를 거쳐 한강 수로의 탐색에 착수하였다. 자유롭게 한강을 탐사하며 난지도의 염창항까지 이르자, 부평부사 조병노(趙秉老)는 프랑스 함대를 방문하여 황소 1마리, 닭 20마리, 계란 1백 개, 감 2백 개, 배 1백 개, 부채 10개와 건어물 약간을 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은밀히 이들의 내부상황을 살펴보았다. 조선측이 이들에게 베풀어준 호의적 태도에 대해, 당시 해군 사관 견습생으로 동승했던 쥐베르(M.H.Zuber) 생도는 본국의 주간지에 "우리가 조선에 대하여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현지 주민들은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기고하였다.

항진을 멈추지 않던 프랑스 함대는 염창항에 전선(戰船)을 배치하여 진로를 차단한 조선군 선단에 함포 사격을 가하고 서강까지 진출하였다가 30일

산동반도로 되돌아갔다.

조선에서 퇴각한 프랑스 함대는 10월 11일 제2차 조선 원정을 단행하여 기함 게리에르호를 비롯한 3척을 작약도에 정박시키고 나머지 4척만으로 강화도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 10월 16일 강화성을 점령하고 말았다.

강화성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강화 유수부 건물 주변 일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당시 프랑스 화폐로 20만 프랑에 해당하는 18상자의 은괴(銀塊)를 비롯하여 주요 문서 및 서적류를 수거하고 대포 등 군수품을 다량으로 노획하였다. 예상 밖의 막대한 전리품을 탈취한 로즈는 조선에서 강화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3) 신미양요와 부평지역

병인사옥으로 프랑스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이 대대적으로 색출되어 처형되고,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 보복을 감행하리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던 1866년 8월, 미국의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에 나타나 평양 군민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순영중군 이현익과 평양부 서윤 신태정 등이 회선을 종용하였으나 자신들이 갖고 온 상품을 교역한 후에야 돌아가겠다고 주장을 되풀이하던 셔먼호는 식수와 식량 등을 탈취하기 위하여 상륙하였다가 주민 7명을 사살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지시한 화공 작전에 의해 선체는 전소하였고, 승무원 대부분은 익사하거나 총탄과 화살 또는 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 제독은 군함 5척, 대포 85문과 해군 및 해병 1,230명으로 원정 부대를 편성하여, 조선 해역으로 출항할 군함을 일본의 나가사키 항(長崎港)에 집결시켰다. 1871년 5월 16일 일본을 떠난 미국의 함대는 강화해협 어귀에 이르러 탐측 활동을 하였고, 30일에는 육도 가까운 곳으로 함대의 정박지를 옮겼다. 5월 30일 강화해역으로 진출한 미국 함대는 블레이크 중령의 지휘 아래 6월 1일 강화해협에서 한강 수로에 이르는 해역을 탐사할 준비를 갖추고 손돌목에 진입, 조선군과 포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손돌목에서 조선군 수비대와 미국 함대가 충돌한 직후, 로우 공사는 로저

스 제독과 함께 대책을 숙의하고 6월 10일 강화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륙 군대 650여 명은 6월 10일 작약도 근해의 정박지를 떠나 초지진 동남방의 황산도에 이르렀으며, 이튿날까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차례로 점령한 후 각종 노획품과 조선군 포로들을 싣고 강화해협에서 철수하였다.

미군이 철수한 후 부평부사 이기조(李基祖)는 미군의 강화도 침공을 비난하는 서신을 율도 백사장의 장대 끝에 매달아 미국에 전달하였다. 이에 미군은 동일한 방법으로 강화유수 정기원(鄭岐源)에게, 억류중인 조선군 부상병은 치료가 완료되면 모두 석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기조가 "포로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미군측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다음 날 아무런 조건 없이 9명의 조선군을 석방하였다.

이때 로우 공사가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미국 아시아 함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양국 간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할 수 있도록 고위 관원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이기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친서 전달을 거절하였다.

첫째, 미군이 강화도에 불법으로 상륙하여 조선 군민을 살상한 처사는 미국측이 주장하는 방문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방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로우 공사의 서한은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서 공사와 조선 국왕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작성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조선은 외국 선박이 조선 해역에 표류할 때마다 그 선원들을 구제해 주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조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로우 공사는 이기조의 서신을 통하여 조선측이 종전과 다름없이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해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선 해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 3일 작약도 정박지를 떠나 청국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해역에 진입한 지 한 달 반 만에 조선과의 통상조약에 실패한 채 철병을 단행한 것이다.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2장 부평의 근대

제1절 개항 이후 부평지역의 변화

1. 개항 이후 부평지역 행정구역의 변천과 호구의 변화

1) 행정구역의 개편

부평지역은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부평도호부에서 인천부(仁川府)에 속하는 부평군으로 바뀌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반포된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은 1413년(태종 13) 이후 480여 년간 유지해 온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부(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목부군현(牧府郡縣)의 명칭을 모두 군(郡)으로 통일하고 각 군의 우두머리를 군수(郡守)로 부르는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행정구역이 337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한성부(漢城府)를 비롯한 23개의 부 밑에 분속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 인천부의 관할구역에 속한 군은 부평군, 인천군, 김포군, 양천군,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 수원군, 남양군, 강화군, 교동군, 통진군 등 12개 군이었다(『관보』 제50호, 1895년 5월 28일자).

한편, 같은 날 반포된 칙령 제101호에 따라 각 부에는 관찰사가 설치되었고, 군수는 주임관(奏任官)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 이 글은 김상태(인천사연구소 소장)가 책임집필하였음.

규정되었다(『관보』 제51호, 1895년 5월 29일자).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부평군읍지』에 따르면, 당시 부평군수는 군무아문참의로 있다가 1894년(고종 31) 8월 27일자로 부임한 신림(申林)으로, 1896년(건양 1) 4월 12일 북청군수로 옮겨갈 때까지 부평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관찰부제의 개편은 제도상으로는 간편하고 획일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행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1896년 관찰부제가 폐지되고 23부가 다시 13도(道)로 개편되었으며 지방 행정구역은 13도 8부 1목 331군으로 재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부평군은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 각 도에 소속된 관할구역은 모두 5등급으로 구분되어 관리 및 경비에 차등이 두어졌는데, 부평군은 4등급에 속하였다. 그리고 부평군수의 연봉은 7백 원으로, 그의 지휘를 받는 관리는 향장 1명, 순교 4명, 수서기 1명, 서기 6명, 통인 2명, 사령 6명, 사용 2명, 객사직 2명, 향교직 1명, 향사비 1명 등이었다.

부평지역의 지방관

성명	부임날짜	퇴임날짜
민석호(閔晳鎬)	1875. 12. 27	1878. 6. 16
조용하(趙龍夏)	1878. 7. 10	1880. 7. 29
이호선(李浩善)	1880. 9. 6	1881. 11. 15
김낙진(金洛鎭	1881. 11. 30	1882.6. 29
김호균(金澔均)	1882. 7. 2	1883. 5. 3
박희방(朴熙房)	1883. 5. 15	1884. 1. 9
허 진(許 璡)	1884. 1. 29	1885. 6. 29
박제문(朴齊文)	1885. 8. 19	1885. 11. 17
정병하(鄭秉夏)	1885. 12. 6	1888. 5. 29
김굉신(金宏臣)	1888. 6. 22	1888. 10. 5
이근호(李根澔)	1888. 10. 12	1888. 12. 7
고영근(高永根)	188812. 14	1889. 5. 22
민준호(閔俊鎬)	1889. 8. 13	1889. 12. 29
최석두(崔錫斗)	1890. 2. 12	1891. 12. 21
홍우룡(洪祐龍)	1891. ?. 17	1892. 4. 28
안경수(安駉壽)	1892. 5. 22	1893. 11. 8
이한영(李漢英)	1893. 12. 9	1894. 4. 15
이근용(李根鎔)	1894. 4. 24	1894. 7. 14
강태희(姜泰喜)	1894. 7. 29	1894. 8. 14
신 림(申 林)	1894. 8. 27	1896. 4. 12
신찬희(申贊熙)	1896. 4. 24	1900. 윤8. 12

성명	부임날짜	퇴임날짜
박기창(朴基昌)	1900. 12. 29	1901. 3. 29
강영길(姜永吉)	1901. 3. 29	1901. 6. 27
정해로(鄭海魯)	1901. 6. 27	1901. 6. 28
정대위(丁大緯)	1901. 6. 28	1901. 10. 29
성보영(成輔永)	1901. 10. 30	1905. 10.18
이해창(李海昌)	1905. 10. 19	1907. 7. 16
전국환(全國煥)	1907. 6. 15	1909. 3. 22

1875년에 부임한 민석호부터 1896년에 부임한 신찬희까지는 『부평군읍지』에 근거하였고 나머지는 『승정원일기』, 『일성록』, 『각사등록』, 『황성신문』 등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부평군은 1914년 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부천군으로 통합되며 폐지되게 되었다.

부천군에 통합되기 이전까지 부평군은 모두 15개 면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들 면에 속한 동리(洞里)의 명칭 및 각 면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말 부평군 동리 명칭 및 각 면의 위치

부평군(조선)	동리(洞里)	관문과의 거리
부내면	상동(上洞), 하동(下洞)	
서면	가현리(佳峴里), 화전리(化田里), 신대리(新垈里),	남 5리
	갈월리(葛月里), 후정리(後井里), 작정리(鵲井里),	
	도두리(道頭里)	
동소정면	항동(航洞), 구산리(九山里), 마분리(馬墳里),	남 20리
	대정리(大井里)	
마장면	효성리(曉星里), 청천리(淸川里), 산곡리(山谷里)	서 10리
석곶면	포리(浦里), 가정리(佳丁里), 신현리(新峴里),	서 20리
	율도리(栗島里), 가좌동(佳佐洞), 번작리(番作里),	
	고잔리(高棧里), 한적동(閑寂洞), 상촌(上村), 하촌(下村),	
	행화리(杏花里), 감동사리(甘同寺里), 능내촌(陵內村),	
	소리(小里), 대리(大里), 칠정리(漆井里), 굴내리(屈內里)	
모월곶면	공촌리(公村里), 시천리(始川里), 연희리(連希里),	서 20리
	백석리(白石里), 검암리(黔岩里), 심곡리(深谷里)	
동면	임학동(林鶴洞), 방축리(坊築里), 용종리(龍宗里),	동 5리
	병방리(兵房里), 박촌리(朴村里)	
당산면	굴현리(堀峴里), 동양리(東陽里), 야리(野里)	동 15리
황어면	역동(驛洞), 목상동(木霜里), 장기리(場基里),	북 15리
	노오지리(老吾之里), 갈산리(葛山里), 오류동(梧柳洞),	
	선가지리(仙佳之里), 둑실리, 이화촌(梨花村)	

부평군(조선)	동리(洞里)	관문과의 거리
석천면	상리(上里), 심곡리(深谷里), 중리(中里), 구지리(九芝里)	남 15리
옥산면	소사리(素砂里), 범박동(範朴洞), 괴안리(槐安里),	남 30리
	항동(航洞), 벌응절리(伐應節里), 조종리(朝宗里),	
	표절리(表節里)	
수탄면	천왕리(天旺里), 고척리(高尺里), 개봉리(開峰里),	동 30리
	궁리(宮里), 오류동(梧柳洞), 온수동(溫水洞)	
상오정면	오정리(吾丁里), 도당리(陶唐里), 삼정리(三井里),	동 20리
	약대리(若大里), 내촌(內村)	
하오정면	작동(鵲洞), 고리동(古里洞), 원종리(遠宗里),	동 20리
	여월리(如月里), 점촌(店村), 신촌(新村), 윤촌(潤村),	
	언담리(彦淡里), 수성리(壽域里), 신허리(新墟里)	
주화곶면	내촌(內村), 오금리(五金里), 오곡리(五谷里),	동 5리(15)
	대장리(大壯里), 화교리(花橋里), 사수거리(死樹巨里),	
	외오쇠리(外五釗里), 석교리(石橋里)	

출처: 『경기읍지』의 『부평군읍지』, 『부평군읍지』, 『조선지지자료』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1899년본 표기임

이 중 현재 부평구에 해당되는 면은 대체로 서면, 동소정면, 마장면 등이고, 인천부 주안면의 일부가 현재 십정동 일원이었다. 이들 15개 면이 1914년 부내면, 계양면, 오정면, 계남면, 서곶면의 5개 면으로 통폐합되었는데, 1914년 10월 조선총독이 경기도 장관에게 보낸 「여주군 외 6부군면(府郡面)의 폐합(廢合)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문서를 보면, 이들 5개 면의 명칭을 붙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혀두고 있다.

우선 부내면은, '부평군 내의 옛 명칭을 남긴다는 의미'로 이름 붙였고, 계양면은 '면 내의 산이름을 칭한' 것이며, 오정면은 '오정이라는 이름이 그 유래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계남면은 이 지방이 계양산의 남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남학교(桂南學校)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하며, 서곶면은 모월곶과 석곶의 '곶(串)' 자를 남기고, 군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西)' 자를 붙여 이름지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하간, 한말 부평군은 부평구를 포함,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등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4년경 부평군읍지 지도

출처 : 「여주군 외 6부군면(府郡面)의 폐합(廢合)에 관한 건」(국가기록원 소장)

2) 부평지역의 농업경영과 인구

이규보에 의하면, 부평의 형세는 삼면이 모두 물이고 거칠고 습기가 많은 땅이다. 비록 고려시대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규보가 또한, "사람들이 순박하여 일이 까다롭지 않은 것은 비록 가상하나,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쇠잔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당시의 부평민들의 삶이 풍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17세기를 지나가면서 이앙법이 일반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로써 삶이 윤택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농업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생활 여건 또한 급격하게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부평의 토산물과 비교해 보아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읍지에 나타나는 토산물로 소금, 조기, 미네굴, 굴, 부레, 낙지, 맛조개, 소라, 방게, 게, 곤쟁이, 중새우 등이 언급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바다와 관련한 산물이다. 그렇다고 인천보다 부평이 바다와 가까운 실정도 아니다. 또 주생활의 모습이 어업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부평은 인천보다도 경작지 면적이 2배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써 본다면 부평은 인천과 비교할 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부평의 농업 경영 상황을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일괄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부평의 농업 경영과 인구수

전거	읍호	총결수	수전(논)	한전(밭)	제언수	호구(인구수)
세종실록지리지 (1454)	부평도호부	5,296결	2,648결	2,648결		
여지도서 (1760)	부평도호부	3,029결 89부9속	1,472결 25부 6속	1,557결 64부 3속	5	2,923호 10,898명(남4,928명, 여5,970명)
부평부읍지 (1842년경)	부평도호부	3,222결 19부 2속	1,629결 45부 1속	1,592결 74부 1속	2	3,164호
부평부읍지 (1871)	부평도호부	3,222결 19부 2속	1,629결 45부 1속	1,592결 74부 1속	2	2,757호, 7,996명(남4,577명, 여3,419명)
부평군읍지 (1899)	부평군				2	

1899년 부평군읍지에는 본래 제언의 수가 5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1871년 본에 의하면 현재는 없어진 곳을 3개로 기록하고 있고, 그 제언의 명칭이 1899년 본과 동일하다. 따라서 1899년 본의 경우도 제언은 2개로 표기하였다.

인천의 농업 경영과 인구수

전거	읍호	총결수	수전(논)	한전(밭)	제언수	호구(인구수)
세종실록지리지 (1454)	인천군	2,601결	1,485결	1,485결		
여지도서 (1760년대)	인천도호부	2,276결 20부	927결8속	1,349결 19부2속	14	2,885호 9,932명(남4,752명, 여5,180명)
인천부읍지 (1842년경)	인천도호부	2,282결 5부1속			14	2,615호 7,999명(남4,533명, 여3,466명)
인천부읍지 (1871)	인천도호부	2,282결 5부 1속			14	2,723결 남4,242명, 여4,908명
인천부읍지 (1899)	인천도호부	1,879결 3부1속			14	4,808호 20,189명(남11,181명, 여9,008명)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에서 부평의 총 토지결수는 5,296결이고 이 가운데 논과 밭이 각각 2,648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지도서 단계에 이르면 토지결수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가 많이 황폐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여지도서』 단계를 지나 『부평부읍지』 단계에 이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이후의 토지 결수에서는 읍지에 나타나는 모습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같은 사정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量田)이라고 하는 것이 2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양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개항시기 부평의 토지 결수는 1899년 단계에 이르러서도 3,222결 내외의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농업 경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여 살펴보면 제언(堤堰)의 숫자이다. 부평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5개의 제언이 존재하다 후기로 오면서 3개는 없어지고 2개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14개의 제언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사와 관련하여 수리 시설인 제언은 관개시설로 매우 중요하다. 제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물의 확보로 인하여 농사짓기에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 이앙을 실시하고 나면 절기상 가뭄 시기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안정적인 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농사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록들을 보면 부평의 제언 숫자가 인천보다도 월등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평의 경작지 면적이 인천의 약 2배나 되는데도 제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안정적인 수리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부평은 인천보다 넓은 경작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언의 숫자나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부평은 절대적으로 농업경영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인구수를 살펴보겠다. 여기에서 파악되는 인구수는 정남(丁男)과 정녀(丁女)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수에는 은루(隱漏)가 상당히 존재하

고, 특히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인구 수가 절대적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두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시기적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자료가 빈약하기는 하지만 읍지에 나타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760년(영조 36) 『여지도서』에 나타나는 인구 수는 2,923호(남 4,928명, 여 5,970명)이고, 1842년(헌종 8) 『부평부읍지』에는 인구 수는 알 수 없으나 호구 수가 3,164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이 시기 인구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호구 수의 변화로 파악하면 82년 동안 호구 수가 241호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평균 가구 수를 4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간의 무리가 있겠지만 이를 적용해보면 80여 년 동안 964명 증가한 셈이다. 이는 별반 인구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1871년(고종 8)에 이르면 1760년보다 호구 수 및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역사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도정치 시기와 삼정의 문란은 조선 사회의 상황을 악화시켰고 개화·근대화의 변화에 힘들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삼정의 문란과 세도정치가 인구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인천의 다른 시기는 부평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지만 1899년(광무 3)에 이르면 1871년(고종 8)보다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개항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개항과 부평지역의 군사시설

1) 연희진(延喜鎭)의 설치

부평지역은 1876년(고종 13)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의 체결과 함께 수도 방비를 위한 지역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조선의 개항이 결정된 후 일본은 1877년(고종 14) 10월 개항 협의를 위해 화방의질(花房義質)을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이로부터 일본 측에 의한 해로 측량이 시작되었고, 같은 달 15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인천·부평의 방비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인천·부평지역에 방비(防備)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 강화에 못지않은 보장중지(保障重地)이다. 둘째, 손돌목 등의 험로가 위치하는 강화수로를 경유하는 것보다 이 지역을 통해 도성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 셋째, 일본 측이 이미 인천·부평로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고종은,

> 인천·부평 등지의 돈대 가설처에 대한 무위소(武衛所)의 계획이 있었는 바, 이 지역은 강화에 못지않은 중지(重地) 창진설돈(設鎭設墩)하여 방수를 엄히 하라.

고 하면서,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를 공역감동당상(工役監董堂上)으로 임명하였다. 먼저 제물포에 포대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대 축조에는 석질이 좋고 단단하다고 알려진 강화도의 석재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1879년(고종 16) 7월 1일 인천과 부평지역의 창진설돈의 역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무위소의 보고에 대해 고종은,

> 이 두 읍은 경기 연로(沿路)의 중요한 곳이며 바다로 나가는 요충지이므로 원래 설비하자는 논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이제까지 겨를이 없어 오히려 변비(邊備)가 잘못되었다. 이제 이미 돈대(墩臺)를 쌓고 진(鎭)을 설치하기를 마쳤다. 인천에 새로 설치한 진은 화도진 별장(花島鎭別將)으로 칭하고 부평에 새로 설치한 진은 연희진 별장(延喜鎭別將)으로 칭하여 모두 본소(本所)에서 자벽(自陽)하는 자리로 만들되, 다른 진과는 현격히 다르니 가려 뽑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자주 바꿔서도 안 된다. 임기는 30개월로 정하고 지구관(知雇官)과 교련관(敎鍊官) 가운데 감당할 만한 자를 뽑아 번갈아 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해야 할 절목은 마땅히 전령(傳令)이 있게 하라.

고 하여, 새로 설치한 진의 명칭을 각각 화도진(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이라 하고 훈련도감의 지구관이나 각 영의 교련관 중에서 쓸만한 자를 양진(兩鎭)의 별장으로 부임케 하며 임기를 30개월로 정하였다. 그러면서 이곳에 다른 진과는 차별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곳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역사를 감독한 당상관 이하를 별단에 써서 올리라는 전교를 내리고 7월 11일에는 별단에 따라 인천(仁川)과 부평(富平)의 포대(砲臺)와 진사(鎭舍)의 감독 당상관인 전 강화 유수 이경하(李景夏)는 가자(加資)하고, 간역(看役) 전영섭(田榮燮) 등 4인은 모두 상가(賞加)하고, 그 나머지 원역(員役), 공장(工匠), 사환(使喚), 기수(旗手) 등은 모두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도록 하였다. 감독 당상관인 전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는 가자하고, 간역 김한정(金漢鼎)·김홍신(金弘臣)은 모두 가자하고, 정기택(鄭基宅)·양희중(梁熙重)·이사복(李士福)·성기운(成箕運)·이원상(李元祥)·김병길(金炳吉)·남석홍(南錫弘), 패장(牌將) 지복록(池福祿), 감관(監官) 한진귀(韓鎭龜)는 모두 변장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뽑아 보내도록 하였다. 간역 김흥준(金興俊)·김정규(金鼎圭)·이경운(李景運), 감관(監官) 최영식(崔英植)은 모두 더 나은 자리에 뽑아 쓰고, 장교 이봉환(李鳳煥)은 그 아들 이기형(李基馨)을 더 나은 자리에 뽑아 쓰고, 간역 김수연(金守淵)의 형 김수택(金守澤)과 이규석(李奎錫) 등 2인은 모두 상가(賞加)하도록 하였다. 즉 화도진과 연희진의 축조에 따른 수고를 이렇게 위로하였던 것이다.

또 동년 11월 무위도통사 민겸호(武衛都統使 閔謙鎬)의 건의에 따라 양진은 모두 해문(海門)의 요충이므로 부근의 1개 면을 소속케 하여 독진(獨鎭)으로 삼았다.

연희진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2004년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 서술되는 내용은 본 보고서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연희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를 통해 서울로 가는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호는 위의 책에서 전국의 주요 육로를 10대로(大路)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도성을 출발하여 강화에 이르는 길을 '서지강화육대로(西至江華六大路)'라 하였다. 여기서 지선(支線)이 분기(分岐)하여 인천과 부평으로 향하는데 그 여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西至江華六大路 : 도성 ↔ 통진간 100리, 도성 ↔ 강화 간 120리
· 양화진 – 철곶포(間浦津) – 개화우 – 굴포교 – 천등현 – 김포 – 양릉포교 – 백석현 – 통진 – 갑곶진 – 강화 – 인화석진 – 월진 – 교동
· 西至江華六大路 인천로(1차 지선) : 도성 ↔ 인천 간 70리
· 양화진 – 철곶포(間浦津) – 고음달내현 – 성현(원통이 고개) – 인천 – 제물진 – 영종포진
· 西至江華六大路 부평로(2차 지선) : 도성 ↔ 부평 간 55리
· 양화진 – 철곶포(間浦津) – 고음달내현 – 부평

이와 같이 인천 연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는 3가지이다. 또 인천에서 제물진까지의 거리가 20리이고, 부평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는 15리에 해당하므로 도성에서 인천 해안까지는 90리, 부평의 해안까지는 70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천 연안에서 도성까지 최단거리에 있는 육로는 부평로이다. 부평로는 도성을 출발하여 양화진에서 한강을 건너 철곶포(지금의 양평동)에 도착한 뒤 고음달래현(지금의 화곡동)을 지나 부평에 도착하는 여정인 것이다. 그리고 도성을 거치는 전국의 대로 중에서 강화로의 경우 전 구간 내에 해발 100m 이상의 구릉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천 연안, 특히 부평지역에 상륙하여 도성으로 향한다면 최단기간에 도성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따라 부평지역에 연희진이 설치된 것이다.

연희진지는 후에 인천시 서곶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희진에는 6~8개의 포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서곶방면의 인문지리와 문화 유적 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한 『서곶지방지』에 연희진지와 소속 포대인 용두포대지(龍頭砲臺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1959년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장이던 유희강(柳熙綱)이 편찬한 『향토인천의 안내 – 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73년 처음 간행된 『인천시사』에 연희진지와 연희포대지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고, 이후 인천시에서 발간한 『인천개항 100년사』(1983), 『인천시사』(1993), 『인천광역시사』(2002) 등에는 개항 당시 인천·부평 연안의 방비 강화를 서술하면서 일부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연희포대지 (인하대학교 박물관 제공)

그리고 1981년 박광성(朴廣成)은 『기전문화연구』 11호에서 인천개항과 관련한 연안 방비에 대해 논하면서 연희진의 설치 목적과 치폐 과정을 언급하였고, 연희진에서 연희포대(용두포대)와 가정포대(佳亭砲臺)를 관할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1997년 발간한 『서구향토지』에 따르면 연희진 관할 포대는 연희포대 3좌, 갯말(포리 · 원창동) 2좌, 봉우재 1좌, 가좌동 1좌의 포대가 각각 있었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연희진에 소속된 포대는 연희동 용두산 인근에 용두포대(연희포대)라 불리웠던 포대가 3군데 축조되었고, 가정동 봉우재에는 가정포대라 불리웠던 포대, 원창동에 2군데, 가좌동에 가좌포대가 각각 축조되어 모두 6개의 포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그나마 석축이라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포대는 용두포대와 봉우재에 있었던 가정포대 뿐이며, 나머지 포대는 이름만 전할 뿐이다.

이와 같은 방비에도 불구하고 1880년(고종 17) 인천의 개항이 결정되자 화도진과 연희진의 기능과 역할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2년(고종 19) 6월 28일 연희진은 혁파하고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19년 6월 28일자). 일본 및 외국 선박의 상륙을 저지하고 연안 방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설치된 연희진은 창설된 지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 중심성(衆心城)의 축조

지금의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징맹이고개(景明峴)를 중심으로 하여 능선을 따라 길게 쌓은 성을 중심성이라고 한다. 징맹이고개는 삼국시대부터 남북을 통과하던 큰 통로로 교통의 요지였고, 중국 대륙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이 고개는 천연적으로 형성된 군사기지인 계양산성이 있는 계양산 서쪽으로 넘으면 70리 거리에 있는 서울에 도달한다.

때문에 해면방어선이 무너지고 해면 2km 지점인 징맹이고개를 통과하면 수시간 안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을 서해안 제2전선으로 중요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중심성을 축조하게 된 것이다.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은 해안 경비의 필요에 따라 계양산 경명현 좌우에 성을 축조하려 하였으나 기금 염출이 여의치 못하여 고민을 하던 중 부평 고을의 독지가가 현금 60냥을 헌금하니 이를 토대로 하여 1883년(고종 20) 9월 초에 주민을 동원하여 중심성을 축조하였다.

축조공사는 착공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끝이 났다. 성곽은 통성에다 외부를 석축으로 축조하였는데 석재(石材)는 계양산 3~4개소에 유석층(流石層)이 있어 돌을 뜨지 않고 운반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중심성은 견고하지 못한 형식상 성곽이 되었다. 중심성은 축조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고, 이후 일본 세력 하에 방치되다 1914년 헐려버렸다. 이와 같은 중심성의 모습에 대한 인용은 1990년대 고 이훈익(李薰益)의 실측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실측에 따라 중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성 성곽은 경명현을 중심으로 동서로 축조하였는데 동쪽은 계양산 본봉 능선으로 서쪽은 중구봉(重九峰) 능선으로 축조하였다. 동쪽은 그 길이가 171m이고 서쪽은 297m가 되며 성문은 약 3m로 총 연장 471m로 측정되었다.

성 내부는 흙과 자갈로 혼합하여 쌓은 토성(土城)이고 외부는 산 동측에 무진장 쌓여있는 적석층(積石層)의 돌을 운반하여 축조한 석성(石城)으로 되어 있다. 성의 아래층 너비는 3.3m이고 정상 위층은 2m이다. 성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고 고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중심성은 당초 성첩(城堞)을 견고하게 축조하지 않아 10년도 안 되어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흙과 소석(小石)만 남아 있고, 중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문만이 있는 실정이다.

부평부의 성책으로는 계양산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축조되었다고 생각되는 계양산성과 개항 이후 축조된 중심성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고적에 '부평의 계양산 고성은 삼국시대 축조된 석성으로서 주위가 1,937척이나 모두 퇴락하였다' 고 하고 있다. 계양산성은 계양산 주봉에 축조되어 있지 않고 동쪽 기슭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성의 내부는 솟아오른 봉우리 능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성벽의 여러 곳이 허물어져 있으나 원래 성

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 이성(李城)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보수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455년(세조 원년)에 서울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평부에 중익진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 군사기지가 성 아래 병방동에 있어 병방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었으며, 이 때에 성을 수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현재 중심성의 축성에 관련하여 전해지는 기록은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가 유일하다. 이 석비는 중심성의 문루에서 서쪽으로 약 2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훼손이 심하여 1949년 7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석비의 재질은 오석(烏石)으로 높이가 5척(151cm), 폭이 1.5척(46cm), 두께가 0.8척(25cm)였다 한다. 그러나 현재는 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석비의 실체나 탁본은 전하지 않는다.



중심성지에 남아 있던 중심성 사적비의 귀부 모습
출처 :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1995.

다음으로 중심성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사 박희방에 대해 살펴보겠다.

박희방은 1883년(고종 20) 5월 3일 부평도호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일성록』에 의하면 부임전에는 호군의 직책에 있었다. 그가 부평도호부사에 제수되고 실제 부임한 것은 5월 15일이고, 1884년(고종 21) 1월 9일 교체되어 갔다.

박희방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그는 과거 출신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확인 가능한 『일성록』 등의 자료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78년(고종 15) 3월21일 어춘당대행입직무사시사(御春塘臺行入直武士試射)가 행해지던 때에는 별선군관출신(別選軍官出身)이었고, 1879년(고종 16) 4월 3일 별선군관절충장군(別選軍官折衝將軍)이었다가 부평도호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부평도호부사를 그만두고 1년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보이지 않으나 1885년(고종 22) 7월 7일에는 양주목사(楊州牧使)에 제수되었고 고종이 융무당에 친림(親臨)하여 기보중영(畿輔中營)을 교련할 때 영장의 직책을 갖고 있던 박희방(朴熙房)에게 가자(加資)하였으며, 1885년 12월 20일 후창 군수(厚昌郡守)에 제수되었다.

1887년(고종 24) 10월 20일 친군별영의 계문을 보면 "본영의 기사장 박희방(朴熙房)은 전임 양주목사(楊州牧使)로서 아직 임소에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직책을 오랫동안 비워 두는 것은 염려스러우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따라서 이때에는 기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894년(고종 31)에는 진주진 영장(晉州鎭營將)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 해는 갑오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이다. 박희방은 이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관인(官印)을 던져버리고 난리를 피해 도망을 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 19일 법무아문(法務衙門)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민준호 장계(慶尙右道兵馬節度使 閔俊鎬狀啓)에 의거한 계문을 올리고 관원을 보내 박희방을 압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박희방은 자수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의금부에 갇히게 되었다. 이후의 박희방에 대한 행적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다가 1904년(광무 8) 양력 5월 27일에는 영선사 장(營繕司長)을 의원면직하였으며, 같은 해 양력 10월 30일에는 내장원 공업과장(內藏院工業課長)을 의원면직하였다. 그런데 『황성신문』 1904년 5월 13일자 기사에 의하면 박희방이 영선사장에서 부평부사로 왔다는 광고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광고는 종성에 거주하는 여형섭이라는 인물이 게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써 보면 박희방은 영선사장에서 다시 부평부사로 재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기사를 확인할 수는 없다.

기존의 중심성을 언급하고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는 박희방에 대해 그가 문관 출신이기 때문에 성축조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불과 1개월 만에 성이 축조되었다는 점과 1990년대 실측을 토대로 중심성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간에 축조되고 성 자체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성축조를 지휘한 박희방이 문과 출신이라서 성축조 능력이 없어 견고하지 못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행적을 통해 살펴보면 박희방은 문관 출신이라기보다는 무관 출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박희방이 문

관 출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 문관 출신이기에 성축조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도 없다. 다만 축성이 견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토성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상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제2절 일제시대 부평지역의 사회경제

1. 한말 일제 하 부평의 사회경제적 조건

1) 행정구역의 개편

부평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속한 도호부(都護府)로서 수원진관(水原鎭管)에 소속하고 속읍(屬邑)으로 인천도호부를 거느렸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고종 32) 13부제를 시행하면서 인천관찰부에 속한 부평군이 되었지만, 1896년(건양 1) 13도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기도에 속한 부평군이 되었다.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1914년 조계의 폐지와 동시에 부제(府制)를 실시하면서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조계 지역(인천부 부내면)과 다소면 일부를 떼어 인천부로 삼고, 나머지 인천의 면 지역과 부평군을 합하여 부천군으로 개편하였다. 신설된 부천군은 인천부 일부와 부평군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일부 섬, 남양군의 대부면과 영흥면에 이르는 섬들을 포함하여 15개 면에 이르렀다. 해양까지 포함하여 인천부를 사방으로 둘러싼 것이 부천군이다. 부천군의 군청은 인천도호부가 있던 문학면 관교리에 있었다.

한말 일제 초 부평군 행정구역의 변천

한말 부평군	일제시기 초 부천군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	부내면
석곶면, 모월곶면	서곶면
동면, 당산면, 황어면	계양면
석천면, 옥산면, 수탄면	계남면
하오정면, 하오정면, 주화곶면	오정면

출전 :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 이 글은 이영호(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책임집필 하였음.

일제시기에는 몇 차례에 걸쳐 인천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었는데, 1940년에는 한말 당시 부평군이었던 부천군 부내면, 서곶면이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부평구 지역은 대부분 부천군 부내면에 속하였는데 이것이 1940년 모두 인천부에 편입된 것이다. 인천과 부평의 역사상 처음으로 부평 권역이 인천부에 포함됨으로써 이후 부평과 인천의 관계가 긴밀하여졌다. 그렇지만 이때를 계기로 하여 한말까지 부평군이던 지역은 해체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로 나뉘어져 있다.

1968년 인천시는 구제(區制)를 실시하여 중구, 동구, 남구, 북구의 4개 구를 두었는데, 부평군에서 편입된 일제시기의 부내면, 서곶면은 북구에 소속되었다. 1981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하고 이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87년, 북구는 서곶면 지역을 서구로 갈라내고 황어면을 포함하였다. 1995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을 포함하여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확대되고,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계양구, 남쪽은 부평구로 나뉘어졌다.

현 부평구를 중심으로 본 행정구역의 변천

현재 인천광역시	일제시기 초	한말
부평구 부평동 1-6동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
부평구 부개동 1-3동	부천군 부내면 마분리, 구산리	부평군 동소정면 마분리, 구산리
부평구 일신동	부천군 부내면 항동리	부평군 동소정면 항동
부평구 산곡동 1-4동	부천구 부내면 산곡리	부평군 마장면 산곡리 일부
부평구 청천동 1-2동	부천구 부내면 청천리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
부평구 갈산동 1-2동	부천군 부내면 갈월리	부평군 서면 갈월리
부평구 삼산동 1-2동	부천군 부내면 후정리	부평군 서면 후정리
부평구 십정동 1-2동	부천군 다주면 상십정리, 하십정리 일부	인천부 주안면 상십정리,하십정리

출전 :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 『인천시사』 1, 인천광역시, 2002

현재의 부평구는 일제시기에는 부천군 부내면의 상당 부분과 다주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한말에는 부평군 동소정면, 마장면, 서면, 그리고 인천부 주안면의 일부에 해당된다. 현재의 부평구는 일제시기에는 부천군, 한말 이전에는 부평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2) 호구와 토지

부천군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구와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호구 상황을 살펴보자.

한말 부평군 면별 호구 비교

면명	남			여			인구			호수		
	1899	1907	1910	1899	1907	1910	1899	1907	1910	1899	1907	1910
동면	364	295	387	273	238	384	637	533	771	154	154	177
상오정면	342	319	531	267	287	513	609	606	1044	172	190	206
하오정면	565	564	737	479	436	627	1044	1000	1364	243	256	271
당산면	287	246	403	249	191	323	536	437	726	143	144	164
수탄면	276	491	672	250	509	630	526	1000	1302	179	231	266
주화곶면	273	309	381	219	233	365	492	542	746	141	133	152
석곶면	573	582	736	460	496	669	1033	1078	1405	290	260	290
옥산면	483	616	740	396	508	645	879	1124	1385	184	261	285
모월곶면	599	747	1182	482	580	1045	1081	1327	2227	352	387	470
황어면	560	515	750	408	414	691	968	929	1441	257	241	314
석천면	391	526	696	342	403	629	733	929	1325	176	231	273
서면	463	477	510	334	356	634	797	832	1153	208	213	225
동소정면	385	508	560	290	421	530	675	929	1099	173	208	215
마장면	241	243	397	191	186	343	432	429	740	109	124	161
군내면	560	420	528	480	347	521	1040	767	1049	247	246	248
합계	6399	6858	9219	5135	5605	8558	11534	12463	17777	3054	3279	3726

출전 : 『부평군읍지』(1899년 5월) ; 정부재정고문본부, 『한국호구표』(1907년 5월) ; 내부경무국, 『민적통계표』(1910년 5월)

한말 부평군 호구의 변동

연도	남		여		인구		호수호당		호당 인구
	인	증가(비율)	인	증가(비율)	남여	증가(비율)	호	증가(비율)	
1871	4577		3419		7996		2757		2.90
1899	6399	1822(39.8)	5135	1716(50.2)	11534	3538(44.2)	3054	297(10.8)	3.78
1907	6858	459(7.2)	5605	470(9.2)	1246	3929(8.1)	3279	225(7.4)	3.80
1910	9219	2361(34.4)	8558	2953(52.7)	17777	5314(42.6)	3726	477(14.5)	4.77

출전 : 『경기지』(1871) ; 『부평군읍지』(1899년 5월) ; 『한국호구표』(1907년 5월) ; 『민적통계표』(1910년 5월)

조선 후기의 호구는 조세 부과의 대상으로서 편호(編戶)의 양상을 띠며 그 내용이 읍지에 기록된다. 그래서 시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읍지의 호구가 거의 변동하지 않는 양상이다. 1896년(건양 1) 이후의 호구조사사업은 실재호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실재와의 괴리는 여전히 남았다. 그렇지만 1871년(고종 8)의 『경기지』에 수록된 부평군의 인구와 비교하여 1899년에는 40~50% 정도 괄목할만큼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가호가 11% 증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가호에 숨겨진 인구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99년 호당 인구가 3.78명인 것에 비해 1871년 호당 인구는 2.90명으로 지나치게 낮은데 이는 과세를 위한 편호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907년(융희1)의 『한국호구표』는 통감부 산하 재정고문부에서 주관하고 일본의 경무고문이 주도하여 1906년 9월부터 호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것은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세력을 단속하기 위한 치안상의 목표와 함께 호세의 증가를 통한 세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에는 1899년에 대해 인구가 7~9%의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호당 인구도 3.80명으로 1899년과 거의 유사하다.

1910년 5월 발표한 『민적통계표』는 1909년의 민적법에 의거한 민적부 제작의 개략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호에 대해 민적 실사를 행하여 호수, 인구, 남녀, 호주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1907년에 비하여 호구는 15% 증가하고, 인구는 43%나 증가하면서 호당 인구는 1907년의 3.80명에 비하여 4.77명으로 많아졌다. 호구의 증가에 비하여 호내의 인구가 대폭 파악된 점에 의미가 있다.

한말의 호구 증가는 자연 증가 외에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과세를 위해 지역별 할당 호수를 채우는 방식에서 실재호를 파악해 가는 방식으로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1910년의 시점에서 부평군의 인구는 남자 9,219명, 여자 8,558명, 총인구 17,777명에 이른다.

일제의 국세조사 결과에서 1925년과 1930년의 인구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제시기 옛 부평군 지역 인구

면별	1930년			1925년	증감
	남	여	계		
부내면	3461	3145	6606	6276	330
서곶면	2453	2328	4781	4826	-45
계양면	2387	2236	46234	459	164
계남면	3844	3552	7396	6209	1187
오정면	2582	2391	4973	4416	557
계	16,657	13,652	28,379	26,186	2,193

출전 ;『조선국세조사보고』1 - 경기도, 조선총독부, 1930, 5쪽

앞의 표는 부천군 가운데 옛 부평군 지역에 해당하는 면만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이다. 뒤에서 볼 수 있는 1914년 인구 20,460명은 1910년의 17,777명에 비하여 2,683명, 15.1% 증가, 1925년의 26,186명은 1914년에 비하여 5,726명, 28.0% 증가, 1930년의 28,379명은 1925년에 비하여 2,193명, 8.4%의 증가를 보인다. 1930년의 인구는 1910년에 비하여 10,602명, 59.6%의 증가를 보이는데 매년 3%, 5년에 15%, 10년에 30%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다. 일제시기에 상당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10~1918년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를 놓고 경기도 내에서 부천군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피기로 한다.

부천군 경지 · 대지의 분포 (단위 : 정보)

지역	총면적	경지와 대지		
		경지(%)	대지(%)	합계(%)
경성부	3648.4(100%)	409.6(11.2%)	1458.9(40.0%)	1868.5(51.2%)
인천부	640.7(100%)	189.7(29.6%)	180.7(28.2%)	370.4(57.8%)
부천군	53506.7(100%)	17257.8(32.3%)	610.5(1.1%)	17868.3(33.4%)
경기도합계	1292113.1(100%)	385841.1	15433.5	401274.6(31.1%)

출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편,『朝鮮地誌資料』, 1918, 13 · 431쪽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서 볼 때 부천군의 총 면적은 53,506.7정보로 인천부 640.7정보의 8배 이상이나 넓다. 총 면적 중에서 경지와 대지는 17,868.3정보, 33.4%로서, 경기도 평균 31.1%와 비슷하다. 경성은 대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인천은 경지와 대지가 비슷한 것에 비해, 부천군은 대지가 경지에

비해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경성과 인천의 도시화 경향에 대비하면 부천군은 경성과 인천 사이에 낀 농촌 지역의 분위기를 보인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농사짓는 부천군의 면적이 총 면적의 1/3 수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임야이다.

부천군 지주의 수와 면적 (단위 : 정보)

지역	지주수	지주1인당 면적	지주1인당 필수
경성부	24,989	0.0429	1
인천부	1,568	0.1923	2
부천군	12,338	1.4009	6
경기도전체	282,239	1.3625	5

출전 : 『朝鮮地誌資料』, 427쪽

부천군 지주의 수와 면적을 살펴보면, 부천군 전체의 지주의 수는 12,338인, 지주 1인당 면적은 1.4009정보, 평균 보유필수는 6필지이다. 경기도 평균이 지주 1인당 1.3625정보, 필지수 5필지인 점에 비추어 부천군에 특별히 지주제가 발달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평균 수준이라고 하겠다. 지주제의 발달정도는 대지주와 소작인 통계를 통해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부천군 1단보당 지가 (단위 : 엔)

지역	전 평균	답 평균	대지 평균
경성부	505.84	522.56	3526.64
인천부	97.50	60.00	1546.11
부천군	14.86	27.21	30.89
경기도전체	14.24	31.92	35.83

출전 : 『朝鮮地誌資料』, 405-406쪽
비고 : '경기도전체'는 도시지역인 경성, 인천, 수원, 개성을 제외한 평균임

부천군 1단보당 지가는 전의 평균은 14.86엔, 답은 27.21엔, 대지는 30.89엔이고, 경성부와 인천부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평균은 전 14.24엔, 답 31.92엔, 대지 35,83엔이다. 부천군이 경인 간에 끼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답과 대지는 평균보다 저렴하다. 그것은 부천군에 외딴 섬지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의 부평구를 중심으로 한 경성과 인천 사이의 토지는 뒤에서 서술하듯이 일본인 토지집적의 대상이 되는 노른자위의 경지였다.

부천군의 위상은 서해안의 섬을 포함하여 인천부를 사방에서 둘러싼, 15개 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천군 부내면 그것도 그 일부에 불과한 현재의 부평구 지역과는 격차가 크다. 그래서 현재의 부평구에 속한 지역, 즉 대정리, 산곡리, 청천리, 갈월리, 후정리, 마분리, 항동리, 구산리, 십정리만을 따로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일제시기 초, 현 부평구지역의 토지면적 (면적단위 : 평)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분묘지 기타	철도용지	합계	국유지
면적합계	1,743,267	3,006,870	107,019	313,785	1,244,970	86,461	22,540	6,524,912	142,269
	26.7%	46.1%	1.6%	4.8%	1.3%	19.1%	0.3%	100%	2.2%
필지합계	1887	2109	323	230	281	116	1	4947	43
	38.1%	42.6%	36.5%	4.6%	5.7%	2.3%	0.0%	100%	0.9%
필지당면적	925	1,425	331	1,364	4,430	745	22,540	1,319	3,309

출전 : 『토지조사부』

현재의 부평구 지역만을 살펴볼 때 경작지인 전답의 면적은 73%, 필지는 81%에 달하는데, 답의 면적이 훨씬 많다. 필지당 면적도 답이 전보다 넓다. 부평평야의 넓은 벼농사 지역의 존재를 볼 수 있다. 개간의 여지가 있는 잡종지의 면적도 20%에 달하고, 경지 사이에 낀 임야도 5%에 달하여 이것들이 후에 부평수리조합에 의해 경작지화된 배경임을 알 수 있다. 국유지의 비율은 다과를 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국유지가 광대하게 분포한 지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1914년 신구면별 호수 · 인구 및 경지면적 조사표

신면	구면	호수			인구			경지면적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계	전	답	계
부내면	군내면	11	241	252	28	1062	1090	50.86	134.44	185.30
	서면	0	267	267	0	1424	1424	106.84	219.28	326.12
	마장면	2	166	168	4	882	886	81.12	207.69	288.81
	동소정면	15	241	256	54	1287	1341	152.75	210.76	363.51
	계	28	915	943	86	4655	4741	391.57	772.17	1163.74
계양면	황어면	0	337	337	0	169	31693	107.56	197.56	305.12
	동면	0	170	170	0	856	856	58.24	178.11	236.35
	당산면	1	186	187	1	931	932	52.92	393.00	445.92
	계	1	693	694	1	3480	3481	38.72	768.67	987.39
오정면	주화곶면	0	157	157	0	828	828	107.76	282.24	390.00
	상오정면	13	211	224	38	1204	1242	127.92	283.00	410.92
	하오정면	0	280	280	0	1545	1545	145.45	216.44	361.89
	계	13	648	661	38	3577	3615	381.14	781.68	1162.81

신면	구면	호수			인구			경지면적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계	전	답	계
계남면	수탄면	11	268	279	35	1356	1391	80.04	156.52	236.56
	옥산면	1	282	283	2	1436	1438	130.56	148.54	379.10
	석천면	41	272	313	157	1443	1600	105.36	390.50	495.86
	계	53	822	875	194	4235	4429	315.96	695.56	1011.52
서곶면	석곶면	13	310	323	25	1580	1605	135.58	154.58	380.16
	모월곶면	0	482	482	0	2598	2598	88.72	188.08	276.80
	계	13	792	805	254	1784	2032	24.30	342.66	566.96
합계		108	3870	3978	344	20125	20469	1531.68	3360.74	4892.42

출전 : 『군면폐합관계서류』, 1914.
비고 : 전답의 면적단위는 정보

이제 호구와 인구를 종합하여 부평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자. 1914년 면폐합 당시 면별 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경성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한 부평지역에 일본인 호구의 진출이 눈에 띄는데, 현재의 부평지역이 속해 있는 부내면의 경우 계남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 호구가 많다. 답이 전보다 두배나 많이 분포하여 넓은 평야지대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부평군 호주의 직업별 분포

면명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日稼	기타	무직	합계
군내명	4	1	0	3	0	190	0	0	4	158	252
동면	2	0	0	13	156	0	1	0	10	0	182
당산면	1	0	1	5	159	0	0	0	0	0	166
황어면	2	1	1	19	293	0	0	1	0	1	318
모월곶면	3	0	1	19	349	7	1	0	100	0	480
석곶면	1	0	1	11	258	5	0	3	15	1	295
마장면	2	0	1	2	159	0	0	0	0	0	164
서면	1	0	1	2	223	0	0	0	0	0	227
주화곶면	1	0	0	6	147	0	1	0	0	1	156
석천면	3	0	0	11	270	0	0	0	0	0	284
동소정면	1	0	0	2	214	0	0	0	0	0	217
상오정면	1	0	0	2	204	0	0	0	0	0	207
하오정면	2	1	0	1	270	0	0	0	0	0	274
옥산면	1	2	0	4	284	0	0	0	0	0	291
수탄면	1	1	0	4	264	0	0	0	0	0	270
합계	26	6	6	131	3440	12	3	8	140	11	3783

출전 : 내부경무국, 『민적통계표』(1910년 5월 조사)

1910년 부평군 호주의 직업별 분포는, 전체 3,783명의 호주 가운데 농업이 3,440호로 90.9%를 차지하고 상업이 3.5%이며 기타 약간의 관공리가 있을 뿐이다. 전형적이고 압도적인 비율로 농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3) 교통

1883년(고종 20) 개방된 인천의 제물포 개항장은 많은 사람들과 문물이 출입하는 통로였다. 특히 수도 서울과 소통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해로와 육로가 있었다. 해로는 제물포에서 강화도 염하를 지나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용산에 이르는 길이다.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까지 화물 운반은 주로 해로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물이 얕고 조석간만이 심하여 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그나마 1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의 결빙기에는 통행할 수 없었다.

경인 간의 육로는 1883년 기왕의 도로를 확장, 말, 마차, 가마, 인력거 등이 통행할 수 있게 개설되었다. 그렇지만 도로의 폭이 겨우 2m이고 돌출부가 많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었다. 인천에서 아침 9시에는 출발해야 서울의 남대문이 닫히는 밤 9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침에 출발하여 점심은 오류동에서 먹고 영등포, 양화진, 마포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경로였다. 원활한 운송을 위해 일본인이 경인마차운수사업을 시도했으나 마필이 부적당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한 일이 있었다. 반면 청국 주재관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울퉁불퉁한 도로에 적합한 만주산 마필을 투입하여 청일전쟁 전까지 경인마차운수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6시간에 주파하여 절반으로 시간을 단축하였다. 도로 폭이 좁고 불편했지만 경인로는 경인철도 개통 전까지 유일한 육상 교통로 역할을 하였고, 1914년에 이르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교통로의 불편은 민간인의 이동뿐 아니라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 화물의 운송도 어렵게 하였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전쟁 수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하여 경인철도와 경부철도의 부설을 꾀하였다. 1896년(건양 1) 미국인 모스(Morse)가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1897년(광무 1) 인천의 우각현에서 기공식을 거

행하였지만, 자금난으로 부설권을 일본 측에 넘겼다. 일본 측은 1899년(광무 3) 9월 18일 인천~노량진 간 20km의 경인철도를 준공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며, 1900년(광무 4) 7월에 이르러 한강철교를 놓아 인천~남대문 간에 완전한 개통을 보게 되었다.

개통 당시에는 인천과 노량진에서 오전 오후 1회씩 왕복하였고, 1시간 40분 걸렸다. 1899년 12월부터는 3회 왕복, 1900년 3월부터 4회 왕복, 완전 개통 이후 5회 왕복하였다. 1920년에는 급행열차가 생겨 1930년까지 1일 2~3회 운행하였다. 1933년 현재, 여객열차 1일 13회, 화물열차 4회 운행하였다. 소요시간도 1시간 정도로 단축되었다.

인천-노량진 간 열차 발착 시간표(오전)

역명	노량진행	인천행
인천역	오전 7:00	오전 10:40
축현역	오전 7:06	오전 10:35
우각리역	오전 7:11	오전 10:30
부평역	오전 7:36	오전 10:05
소사역	오전 7:50	오전 9:51
오류동역	오전 8:15	오전 9:33
노량진역	오전 8:40	오전 9:00

출전 : 『인천부사』, 인천부, 1933, 839~840쪽.

부평역은 오늘날 부평구의 중심이다. 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는 35분이 소요되고 노량진역까지는 1시간 5분이 소요되었다. 인천과 경성 사이에 여객과 화물의 운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증하였다. 부평역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경성과 인천 중간에 위치한 부평의 넓은 들은 일찍이 토지집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 미곡검사소 소사출장소가 설치된 것에서 보듯이 일제시기에는 부평평야에서 생산된 미곡이 부평역을 통해 인천항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일제 말기 부평에 공단이 설치된 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경인철도의 개통은 부평지역 사회경제적 조건을 크게 변화시켜 갔다.

한편 경인철도 공사 과정에서 철도용지에 편입된 토지와 가호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 부평군을 비롯한 철도 연선의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정부는 국고가 고갈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황성신문』 1900년 5월 1

일, 5월 18일, 7월 19일, 12월 25일 잡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인철도 용지 수용에 대한 배상금은 기공한 지 10년이 지난 1907년 11월에 가서야 지급되었다. 부평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1907년 11월 21~23일 소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대한매일신보』1907년 11월 17일 잡보, 광고).

부평군 지역은 수도권에 속하여 경성으로의 흡인력이 강하였고, 개항 이후에는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의 구심력에 이끌리는 위치에 있었다.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이 지역의 물산이 경성과 인천으로 운송되는 길이 넓게 열리게 되었다.

「경인철도」가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 넓고 넓은 소사벌을 갈라나가면
> 소사역과 부평역도 차례로 거쳐
> 산 넘고 물 건너 급히 달(達)하니
> 속하다 주안역도 지내엿고나
> 원산(遠山)을 우구려 가깝게 하고
> 근산(近山)에 뻗치여 멀게 하면서
> 우렁찬 기적을 울리는 철마(鐵馬)
> 어언듯 제물포에 다다랏도다

「경인철도」가에서 소사와 부평의 넓은 들은 경인철도 연변의 한 풍광으로 인식되었다. 일찍이 이 지역은 토지집적의 대상으로 떠올라 지주들은 여기에 농장을 설치하였다. 1909년에는 본격적인 토지 조사에 앞서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부평군에서 실시하였고, 1920년대에는 부평수리조합을 설치하여 관개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곡 증산에 앞장섰고, 1930년대 말에는 교통, 전력, 공업용수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인공업단지, 부평공업단지를 설치하여 공업 생산, 군수산업의 기지로 만들었다. 부평군은 일제의 농업 정책, 공업 정책의 주요 시행대상지로서 일제시기를 통해 일제의 식민 정책이 구현된 전형적 양상을 보여준다.

2. 1900~1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1) 일본인의 부평지역 토지 획득 과정

부평은 김포 방면을 향하여 넓은 평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평의 이름도 그 때문에 붙여졌다. 1899년(광무 3)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부평역을 통해 부평평야에 도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평지역은 국내외 지주 · 자본가의 토지 투기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개항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개항장 10리 밖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갑오개혁에서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었다. 대한제국이 시행한 광무양전지계사업에서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금하였다. 그러나 1901년(광무 5) 일본인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용함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와 투자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와 민간기관에서는 조선에서의 농업 식민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잠매(潛賣), 도매(盜賣), 전당(典當)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을 매개시키거나 한국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1902년(광무 6) 3월 부평군 서면 후정리의 신영훈은 부평의 전답을 어떤 판서댁에 팔았다. 그런데 이듬해 신영훈의 차남이 이 토지의 문권을 위조하여 다시 팔려한 일이 있었다. 신영훈의 차남 신성규는 평소 방탕한 생활로 유흥비를 구하기 위해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으로 1899년에 이미 소문나 있었다(『황성신문』 1899년 6월 24일 광고, 1903년 6월 2일 광고). 빚을 얻는 방식에서 집안의 토지 문권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전 조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에서 이 시기에 토지의 잠매, 도매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일본인이 자유롭게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게 된 1901년 이후에 이와 같은 불법적인 토지 매매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02년에는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에 있는 이교선의 전답을, 동생 이교태가 문권을 위조하여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려 하였다(『황성신문』 1902년 5월 24일 광고). 1903년(광무 7)에는 부평군의 이정선이 옥산면의 답 23석 6두락의 문권을 경성 니현(泥峴) 일본인 龜屋상점에 전당잡히고 20여만 냥을 차용하다가 평리원에 갇혔는데 일본인이 찾아와 속공(屬公)된 돈을 찾아

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일본인이 저당잡은 문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정선의 필적이나 도장도 없는 계약서를 빙자한 것으로서 사기의 가능성도 높았다(『황성신문』 1903년 8월 6일 잡보, 8월 7일 잡보). 1906년(광무 10)에는 부평군 마분리의 박취오가 다른 사람의 전답 문권을 위조하여 인천항의 일본인 竹田에게 전당잡혔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1일 잡보). 1909년(융희 3)에는 부평군 석천면 삼거리의 김성태의 답 16석 17두락을 증명과 측량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위조 증명으로 일본인에게 전당잡히는 일이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26일 광고). 위조를 막기 위해 증명, 측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조가 없어지지 않았다. 1910년에는 판서를 역임한 김만수가 시흥군과 부평군의 경계에 있는 초평 100만여 평을 일본인에게 빼앗겨 변호사 변영만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6일 잡보).

일본인은 개항장 인천에 다수 거주하였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인근에서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간석지, 황무지의 개간권을 획득하여 이를 경지로 개발하려 하였다. 인천 지역은 개항장에 인접하여 있고 지리적으로 간석지가 사방에 널려 있고, 하천을 낀 황무지도 광범하였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토지 개간을 통하여 경작지의 확장과 개발을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용하여 일본인은 이들 미간지(未墾地)를 확보하여 개간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1899년 전략적인 요충지인 월미도에서 일본인이 한국인 명의로 개간권을 획득한 것이나, 1905년(광무 9) 역시 일본인이 한국인 명의로 영종도의 개간권을 획득하고 인근 민유지까지 침탈한 것은 모두 개항장 인천 앞바다의 섬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04년(광무 8) 일본이 한국의 황무지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황무지 개간이 더욱 주목받았다. 실력있는 한국인들도 개간에 관심을 가졌다. 1905년 8월 경성의 현기라는 사람은 인천과 부평의 접경지인 보도진(普渡津)에 제언을 신축하여 통행에 편리하게 하고 제언 내에서는 염분을 제거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상공부에 개간 신청을 하였고(『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29일 잡보), 1905년 9월 경성의 김가진은 시흥·영등포·부평에 걸친 황무지를 방축 개간하고자 농상공부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15일 잡보).

1907년(융희 1) 7월 국유미간지이용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에는 아직 개간권을 갖지 못한 일본인이 한국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간사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서 1905~1906년 인천과 부평 연안의 황무지 개간권을 둘러싼 분쟁을 들 수 있다(『인천시사』 2, 2002, 537~538쪽). 1905년 2월 한국인 이희열은, 인천군 주안면 주안포와 부평군 가자포의 황무지를 영친왕궁에 부속시켜 개간특허권을 받은 뒤, 일본인 松田行藏의 자본으로 개간 공사를 하고 3년 뒤 영친왕궁에 납세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자신은 이익금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불법이었으므로 토지의 매매나 전당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906년 6월 松田行藏은 鮎貝房之進에게 개간권 획득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7,500원을 받고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때 개간권에 대한 특허 인정이 문제되었는데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던 한국정부는 특허의 인정을 거부하였지만, 일제 통감부는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옹호하고 이를 합법화할 법제를 강요하였다. 1906년 10월 26일 토지가옥증명규칙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12월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불법적으로 매입하여 개간해오던 민유미간지의 소유와 개간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1907년 7월의 국유미간지이용법의 발포는 외국인 즉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한국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정지었다.

이와 같이 일본인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는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인 1906년 10월 토지가옥증명규칙, 1907년 7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하여 합법화된다. 그리고 그 토지는 식민지가 된 이후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근대법적으로 확인되고 등기됨으로써 일본인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2)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부터 1904년까지 광무양전지계사업(光武量田地契事業)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권을 확인하였으며 지계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와중인 1904년 4월 지계아문이 폐지되면서 양전지계사업은 중단되었다.

토지 조사는 일제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통감부를 설치한 뒤인

1906년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조사비로 약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 잉여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가령 1907년 시작하여 조사 기간을 5년간으로 잡으면, 1916년에 이르러 그 비용 약 1,000만 원을 상계하게 되고 이후부터 매년 380여만 원의 순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한 당면한 조치 이외에 근본적인 토지조사는 미루어두고 있었다.

1908년(융희 2) 7월 임시재산정리국이 설치된 뒤 토지 조사에 대한 준비가 본격 추진되었다.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측량기술자의 양성, 토지 조사를 위한 예산의 마련, 토지 조사의 시험 실시, 토지조사사업을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탁지부차관 荒井賢太郎은 1909년 2월 川上常郎으로 하여금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川上는 『토지조사강요』를 보고하였다. 1909년 5월부터 8월에 걸쳐서는 전국의 재무서로 하여금 토지 조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토지 관계의 구관(舊慣)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토지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그 윤곽이 드러나자 시험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에 걸쳐 경기도 부평군 일부에서 토지 조사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한국인의 의향과 지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8년 이후 기술원의 실지 연습을 겸하여 소삼각측량을 개시하였는데, 경기도와 대구 부근에서 시작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강화군을 비롯해 교동, 김포, 시흥, 양천, 통진, 남양, 인천, 부평 등에서 시작하였다. 강화의 망산, 부평의 계양 등지에 소삼각원점이 설치되고 여기서부터 측량이 시작 되었다. 부평을 시험 조사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소삼각측량을 끝낸 지역 가운데 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부평군 가운데 우선 군내면, 동면, 서면의 3면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군내면과 동면은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속하고, 서면은 부평구에 소속되어 있다. 부평군 토지조사의 시험 결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토지조사참고서』 제4호, 土地調査試行報告, 1910년 4월 28일).

조사는 3면부터 시작하여 부평군 전체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전부를 완료한 것은 위의 3개 면이었다.

부평군 토지시행 결과	
시행결과	지역
조사 및 측량의 전부를 종료한 것	군내면, 동면, 서면
준비조사 및 도근측량의 몇 부분을 시행한 것	당산면, 주화곶면, 상오정면, 하오정면, 옥산면, 수탄면
도근측량의 몇 부분만을 시행한 것	석천면, 동소정면, 마장면, 석곶면
전부 착수하지 못한 것	황어면, 모월곶면

부평군의 토지시험조사는, 먼저 3면의 면장 및 동리장을 소집하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동리에 1~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의 취지를 간곡히 설득하도록 하였다. 지주는 자기의 소유지를 신고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계에 표항(標杭)을 건설하여 실지(實地)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주는 소유지의 신고서를 제출할 일. 단 신고서의 용지는 특히 관급(官給)하고 또 그 조제방법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주는 그 소유지에 자호, 사표, 지목 및 지주명 등을 기재한 표항을 건설하고 또 실지의 조사에 입회하여 지계의 안내를 할 일. 이것은 지주성명 및 경계에 오류 없을 것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3) 지주는 동리마다 1명 혹은 2명의 위원을 두어 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주 각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두는 바의 편법으로서, 위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주를 대신하여 신고서의 조제에 종사하고 또는 실지의 안내 등을 겸행하는 자로 한다.

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사무는 1909년 11월 17일 개시하여 1910년 2월 4일 종료하고, 측량은 1909년 11월 20일 개시하여 1910년 2월 20일 종료하였다. 사무의 과정은 준비조사와 실지조사로 진행되었다. 준비조사는 면동리의 강계조사, 신고서 수집, 관습조사로 진행되고, 실지조사는 1필지 조사, 지위등급조사, 수확고조사로 진행되었다.

면동리의 강계는 모두 현재의 구역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여 면장, 동리장 및 위원을 입회시켜, 주요한 장소에는 면동리의 명칭을 기재한 표항을 건설하고 축척 약 1만 2천분의 1의 약도(略圖)를 제작함으로써 실지조사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동면과 서면의 일부를 떼어 처음 신설된 군내면의 강계는 명확하지 못하여 면장강계 조사를 종료한 동리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수집하게 하는데, 지주의 대부분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신고사항에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집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면장, 동

리장 및 위원들의 협력 또는 대필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국유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신고 책임자가 없으므로 출장원이 일정한 신고서식에 준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하였다.

실지조사의 1필지조사는 지주 및 위원을 입회시키고 그 강계에 지목 및 지주 성명 등을 기재한 표항을 건설하여 실지와 신고서에 의거하여 축적 약 1,200분의 1의 개황도(槪況圖)를 작성하고, 가지번, 지목 및 지주 성명 등을 기입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지조사부(實地調査簿)를 제작하였다. 실지조사부는 세부 측량이 끝난 후 그 면적을 기입하여 후에 토지대장(土地臺帳) 제작의 원부(原簿)로 삼는 것으로 하였다.

측량은 소삼각측량점 사이에 있어서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해야 할 도근점을 배치하는 도근측량과,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필지의 개황도와 도면을 제작하는 세부측량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사무 및 측량이 예정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기간의 작업이고 조사원은 경험이 없어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 연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측량원도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에 익숙지 못할 뿐 아니라 측부(測夫)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인원이 많아 담당구역이 협소한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를 통하여 토지 조사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경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획득하였다.

조사 및 측량을 전부 종료한 군내면, 동면, 서면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들과 같다(『토지조사참고서』 제4호, 토지조사시행보고 1910년 4월 28일.) 동리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자, 군수가 입회하여 결정하기도 하였다.

부평군 군내면 시험 조사의 필수와 면적 (면적단위 : 정보)

지목	민유지		국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전	309	645.001	12	25.718	321	670.719(17.7)
답	305	1671.304	7	23.501	312	1694.805(44.7)
대	126	88.326	23	61.201	149	149.527(3.9)
초평	331	178.119	–	–	331	178.119(31.1)
원야	7	22.117	–	–	7	22.117(0.6)
산림	8	53.511	5	4.929	13	58.440(1.5)
잡종지	2	0.318	–	–	2	0.318(0.0)
분묘지	9	19.213	–	–	9	19.213(0.5)
계	799	3677.909	47	115.349	846	3793.258(100.0)

부평군 동면 시험조사의 필수와 면적 (면적단위 : 정보)

지목	민유지		국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전	384	945.623	1	3.412	385	949.035(21.7)
답	489	2774.724	–	–	489	2774.724(63.4)
대	96	97.427	–	–	96	97.427(2.2)
초평	49	416.403	3	17.427	52	433.830(9.9)
원야	2	2.504	–	–	2	2.504(0.1)
산림	13	98.902	–	–	13	98.902(2.3)
분묘지	12	20.016	–	–	12	20.016(0.4)
계	1045	4355.599	4	20.839	1049	4376.438(100.0)

부평군 서면 시험조사의 필수와 면적 (면적단위 : 정보)

지목	민유지		국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전	620	2015.703	4	7.201	624	2022.904(26.9)
답	579	3337.008	3	4.609	582	3341.617(44.5)
대	128	158.127	–	–	128	158.127(2.1)
초평	55	1333.529	–	–	55	1333.529(17.8)
원야	6	6.620	–	–	6	6.620(0.1)
산림	78	433.303	–	–	78	433.303(5.8)
분묘지	61	212.318	–	–	61	212.318(2.8)
계	1527	7496.608	7	11.810	1534	7508.418(100.0)

부평군 군내면, 동면, 서면 시험조사의 필수와 면적 (면적단위 : 정보)

지목	민유지		국유지		합계		1필당
	평균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평균면적
전	1313	3606.327	17	36.331	1330	3642.658(23.2)	2.739
답	1373	7783.036	10	28.110	1383	7811.146(49.8)	5.648
대	350	343.880	23	61.201	373	405.081(2.6)	1.086
초평	137	2928.051	3	17.427	140	2945.478(18.8)	21.039
원야	15	31.241	–	–	15	31.241(0.2)	2.083
산림	99	585.716	5	4.929	104	590.645(3.8)	5.679
잡종지	2	0.318	–	–	2	0.318(0.0)	3.021
분묘지	82	251.547	–	–	82	251.547(1.6)	3.068
계	3371	15530.116	58	147.998	3429	15678.114(100.0)	4.572

조사대상은 민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하여 전, 답, 대, 초평, 원야, 산리, 잡종지, 분묘지였다. 산림은 경지, 대지 주변의 소규모 산림이 대상이었다. 원래 동면과 서면만 있었는데, 이 시기 동면 및 서면의 일부를 떼어 군내면으로 만들었다. 3개 면 가운데 서면이 가장 넓다. 군내면은 답, 초평, 전의 순서로 면적이 많고, 동면은 초평은 거의 없고 전답이 압도적인 면적을 차지한다. 서면은 답, 전, 초평의 순이다. 3개 면의 합계를 보면 조사필수는 3,429필지, 면적은 15,678.114정보, 1필지 평균면적은 4.572정보였다. 답이 절반, 전이 1/4, 그리고 초평의 순이다. 전반적으로 답이 많은 평야 지대임을 알 수 있다. 국유지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민간 소유 지역이다.

3) 부평지역 토지 조사와 그 결과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부평군에서 시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910년 1월 토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전체의 면적 약 14,174방리 즉 22,043,404정보로 하고 이 1/8 즉 2,755,000정보를 택지 및 경지로 간주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조사는 총경비 14,129,707원을 가지고 8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계획한다.
1. 위의 경비의 재원은 차입금 1,000만 원 및 지권하부(地券下附) 수수료 4,1322,500원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사 사업은 총무, 조사 및 측량의 3부로 나누어 총무부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쟁의, 토지의 구관 및 토지 제도 등의 조사를 하고, 조사부에서는 토지의 경계, 소유주, 지목 및 지위 등급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조제하고, 측량부에서는 대삼각측량, 소삼각측량 및 1필지측량을 하고 또 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사 종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권을 하부(下附)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사 기관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두어 연락 통일을 유지하여 전국적으로 공평한 조사를 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토지 조사를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10년 3월 15일 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였다. 임시재산정리국 직원 전부

를 토지조사국 직원으로 임명하여 그 사업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1910년 8월에는 토지조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1912년 8월 토지조사법을 토지조사령으로 개정하여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관제가 제정된 후에도 5개월여가 지나 토지조사법이 공포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1월에 이미 토지 조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평군 토지 시험 조사가 끝난 2월 이후 토지조사국에서는 그 사업을 계승하여 토지 조사에 곧 착수하였다. 1910년 5월에는 탁지부 토지조사국에서 한국인 기수 및 일본인 주사 등 20명이 부평군, 통진군에 파송되어 실지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31일 잡보 '조사의 착수'). 시험조사에 이어 부평군 지역에 대한 토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8월 23일 토지조사법이 발포된 그 이튿날인 8월 24일, 토지조사국 총재 고영희는 고시를 발하여 경기도 부평군, 양천군, 김포군, 통진군, 경상북도 대구군에 대하여 토지 조사법에 의거한 토지신고를 명하였다. 시험사업이 실시되었던 부평군의 경우, 토지 조사가 5월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시험측량의 결과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다른 지역의 90일에 비하여 크게 단축하여 30일로 정하였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도 토지조사법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10월에는 토지조사국이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총재도 탁지부 대신 고영희에서 일본인 정무총감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실공이 일본인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토지의 신고와 조사 측량이 완료된 뒤에는 토지 사정을 위한 공시를 시행하고 이어서 불복신립(不服申立)의 신청을 받았다.

부천군 및 인근 인천 지역 토지 공시 및 불복신립 기간

지역	공시 기간	불복신립 기간
부천군, 강화군	1914.12.25 ~ 1915.1.23	1915.1.24 ~ 3.24
부천군 도서	1917.8.1 ~ 8.30	1917.8.31 ~ 10.29
강화군 도서	1917.4.2 ~ 5.1	1917.5.2 ~ 6.30
인천부	1913.12.27 ~ 1914.1.25	1914.1.26 ~ 3.26
인천부 거류지	1914.6.1 ~ 6.30	1914.7.1 ~ 8.29

출전 :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조선총독부, 1918, 415~437쪽.

공시 기간은 1개월이고 불복신립 기간은 2개월간이었다. 공시가 된 것은 토지의 경계, 소유자 등의 조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불복신립하는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裁決)이라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거치는 이외에는 토지조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토지조사법 발포 이전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정 자료로 삼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토지조사법을 시행하면서 1910년 8월 24일 토지 신고 기간의 고시를 발하여 당초의 조사에 대한 이동(異動)이 없는 것은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를 이용하고 이동이 생긴 것은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검사원 2인, 부속원 각 1인씩 조를 조직하여 각 필지에 나아가 이전에 작성한 도서(圖書)에 따라 정밀한 지압검사를 행하여 이동이 있는 것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수정한 것은 3개 면에 36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1909년 시행한 부평군 군내면, 동면, 서면의 조사 결과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하여 부평군 토지 조사는 완료되었다.

한말 일제초 토지현황(현 부평구 지역)

동리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사사지	분묘지	지소	철도용지	합계	국유지
대정리	236,209	356,673	10,137	31,242	424,280	0	18,094	21	22,540	1,099,196	26,006
	(296)	(285)	(51)	(27)	(79)	(0)	(29)	(1)	(1)	(769)	(4)
산곡리	197,631	264,857	6,226	17,913	39,603	0	787	0	0	527,017	9,858
	(127)	(212)	(17)	(10)	(15)	(0)	(5)	(0)	(0)	(386)	(8)
청천리	483,152	1,056,846	28,123	52,738	276,596	426	2,142	0	0	1,900,023	18,596
	(444)	(727)	(78)	(43)	(103)	(1)	(10)	(0)	(0)	(1,406)	(20)
갈월리	103,698	245,905	18,001	32,354	23,392	0	29,304	0	0	452,654	0
	(112)	(155)	(30)	(20)	(11)	(0)	(18)	(0)	(0)	(346)	(0)
후정리	131,679	285,922	7,989	36,155	196,228	0	8,849	0	0	666,822	428
	(118)	(94)	(6)	(24)	(42)	(0)	(17)	(0)	(0)	(301)	(1)
마분리	142,561	345,209	7,381	22,451	190,362	0	6,656	0	0	714,620	536
	(201)	(194)	(19)	(23)	(15)	(0)	(8)	(0)	(0)	(460)	(2)
항동리	138,217	158,900	9,609	19,328	1,653	0	3,158	0	0	330,865	0
	(184)	(147)	(39)	(17)	(1)	(0)	(9)	(0)	(0)	(397)	(0)
구산리	130,244	127,077	3,924	11,933	0	0	14,802	0	0	287,980	0
	(166)	(134)	(18)	(17)	(0)	(0)	(11)	(0)	(0)	(346)	(0)
십정리	179,876	165,481	15,629	89,671	92,856	0	2,222	0	0	545,735	86,845
	(239)	(161)	(65)	(49)	(15)	(0)	(7)	(0)	(0)	(536)	(8)
면적합	1,743,267	3,006,870	107,019	313,785	1,244,970	426	86,014	21	22,540	6,524,912	142,269
	26.7%	46.1%	1.6%	4.8%	19.1%	0	1.3%	0	0.4%	100.0%	
필지합	1887	2109	323	230	281	1	114	1	1	4947	43

출전 : 『토지조사부』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현재의 부평구에 속한 지역의 토지 상황을 개관해 보면, 답이 46%로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전이 1/4이상, 초평 등 잡종지가 1/5에 이르고 있다. 전과 잡종지는 수리 시설이 마련되면 답으로 개간될 수 있는 땅이다. 현 부평구 지역은 한말 일제 초 당시에는 전답이 많은 넓은 평야지대, 개간 가능성이 높은 초원 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3. 192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수리조합

1)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지역 농업 생산

식민지 체제 하의 조선 농업은 일본 제국주의 산업 정책의 종속변수로서 위치지워졌다. 일본산업자본은 일찍부터 조선의 미곡을 필요로 하여, 인천항을 통한 수출품의 핵심은 미곡이었다. 따라서 식민지화된 이후 1910년대 조선 농업 생산의 핵심은 미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미곡을 비롯한 곡물 이외에 면화, 양잠도 장려되었다. 일제는 이들을 3대 농산물로 삼아 그 증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선 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경성과 인천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철도와 항만 등 유통의 편리성을 배경으로 한 부천군에서, 농업 생산의 성격이 상품작물화정책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00년대부터 부천군의 농업은 보통 농사, 양잠, 과수 재배, 임업 등으로 나타났다. 보통농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특히 1920년대 전반까지는 양잠을 장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전적으로 보통농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의 농업정책이 미곡 증산으로 흐른 것을 의미한다.

개항과 경인철도 개통 이후 부평지역은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그것이 경성과 인천의 대도시와 소통된다는 점, 또 인천항을 통해 해외 무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찍이 농업 생산의 기지로서 주목되었다.

1901년 9월에는 민병석, 김석환 등이 부평군 용정면 대정평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업 회사를 건설하고, 일본에서 농잠 기계를 구입하여 농잠법을 교육하기 위해 농상공부에 인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황성신문』

1901년 9월 21일 잡보). 1902년 2월에는 중국에서 양 900여 마리를 도입했는데, 내장원에서 부평군에 목축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황성신문』1902년 2월 22일 잡보). 1902년 3월에는 경성 전동의 참판 조영환이 부평군 마장면 등지에 목양사(牧養社)를 설립하고 목축업을 확장하고자 하여 농상공부에 인가를 청원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황성신문』 1902년 3월 7일 잡보). 1902년 7월에는 농상공부 잠업과 시험장에서 졸업생이 116명 배출되었고, 잠업 회사의 뽕나무는 부평군의 경우 1만 7,000주를 생산하였다고 한다(『황성신문』 1902년 7월 5일 잡보). 이처럼 부평지역은 도시 근교로서의 이점을 지녔기 때문에 일찍이 잠업과 목축업을 경영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이다. 그는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상금을 받아 식산흥업에 투자하였는데, 그가 부천군에서 경영한 농장은 일제의 초기 농업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제는 송병준이 모범적인 농업경영을 했다고 하여 금패(金牌) 산업훈장을 수여하는데 훈장 수여의 근거로서 제시한 농업경영 성적을 통해, 다소 과장되었을 그의 농업경영 실태를 알 수 있다(大橋淸三郎, 『朝鮮産業指針』, 開發社, 1915, 372~385쪽).

송병준의 농업경영은 과수 재배, 잠업, 보통 농사, 임업, 미간지 개간, 잠사전습소 운영, 수리관개 등 농업 생산의 전반에 미쳤다. 그는 부천군 계남면 중리의 소사농장, 부내면의 부평농장, 경기도 난지도 농장, 용인군 추계리 농장,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농장 등을 경영하였다. 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각 농장마다 양잠 경영을 꾀하였다.

과수 재배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의 계(啓)농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송병준은 일진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1905년, 한·일인 6명의 합자회사로서 대한계농원(大韓啓農園)을 조직하고 과수 재배와 양잠을 기획하였다. 1911년 11월에는 회사의 전 재산을 3만 원에 사들여 독자적인 농장경영을 꾀하였다. 처음에는 일본인을 고용하여 재배 및 일반 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농사 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 특히 농학을 수득하도록 한 3남 송종헌 및 조선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발전을 꾀하도록 촉구하였다. 평과(苹果) 재배 16정보, 포도 재배 4정보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소사 지방은 원예지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송병준은 1906년 소사의 계농원에 잠실을 설치한 후, 옛 일진회원의 자제 25명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의식을 지급하고 양잠전습을 시행하였다. 일제의 한국 병합 후 은사수산장(恩賜授産場)이 설치되자 가옥 기구 및 상원(桑園) 일체를 수산장에 대여하여 잠업장려에 몰두하였다. 매년 봄가을로 부근 촌락의 주민에게 잠업의 시범을 보여 부근 촌락의 주민들 중에서도 양잠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잠업 경영은 소사농장에 그치지 않고 다른 농장에서도 왕성하게 경영되었다. 송병준이 양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일찍이 일본 망명 중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것과도 관계될 것이다.

농사는 초생지 70여 정보를 부근 촌락의 주민으로 하여금 소작제도에 의해 개간하게 하고 시비 방법을 가르치고 개량종자를 배급하였다.

임업은 부천군 부내면의 부평농장에서 활발하였다. 부평농장은 경인철도 부평역에 근접한 곳에 있었는데, 수전 180정보, 묘포(苗圃) 및 과수원 15정보, 초생지 104정보, 산림 139정보, 합계 486정보에 이르렀다. 송병준은 각지로 흩어진 옛 일진회원들에게 상묘(桑苗)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식수(植樹) 및 잠업을 장려하여 생업으로 삼게 하였다. 1909년 처음으로 묘포를 설치하여 주로 뽕나무, 아카시아, 낙엽송 등을 심었다. 경영은 일본인을 고용하여 묘포 설비 등 전체 감독을 맡겼다. 또 부근에서 이주자를 모집하여 처음에는 약간의 자금을 대여, 전답을 소작시키고 또 여력으로 초생지를 개간하여 묘포 등을 심어 부업으로 잠실을 건설하도록 촉구하였다. 1913년 각 지방 옛 일진회원 등은 뽕나무 및 과수 재배가 유망함을 인식하고 송병준에게 묘목을 배부해줄 것을 요청하여, 농장의 묘포 생산고만으로는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일본 나고야 石黑묘포에서 묘목을 얻어 무상배부하였다고 한다.

송병준의 양잠 경영에 대한 관심은 잠사전습소의 설치에서도 볼 수 있다. 경성부 독립문 옆 행촌동에 잠사업의 전습기업(傳習機業)을 일으켜 조선 풍토에 적합한 잠사업의 보급을 꾀하였다. 1911년 3월 사립한성중학교를 폐지하고 한성잠사전습소로 고쳐 일본인 1명 및 관립용산잠업강습소 졸업생 2명을 교사로 고용하여 부근 전지 약 3정보에 뽕나무를 심고 원래 중학교 강당을 잠실로 삼았다. 1912년 7월 잠사전습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1~1914년까지 80명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1907년 7월 국유미간지이용법을 제정하여 일본인의 토지 개간을 허용하였다. 유력한 친일 성향의 한국인들도 대거 토지 개간 신청을 하고 개

간 후 퇴지를 부여받아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송병준은 경기도 장단군 진남면 석곶리에서 미간지 23정보를 개간하여 소유권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부천군 서곶면의 간석지는 방조(防潮)시설을 갖추고 내부를 개간하였다. 답 70정보와 구조로(舊潮路)의 저와지(低窪地) 약 20정보에 이르렀다. 저와지는 장차 양어지로 이용할 계획이라 하고, 점차 관개시설을 마련하고 경운시비(耕耘施肥) 등을 개량하여 농경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송병준은 한말 일제 초기 친일 활동의 대가로 얻은 다액의 은사금 등의 자금을 토지, 농업에 투자하여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호응하였다. 소작제에 의거한 보통 농사 뿐 아니라 특히 양잠 경영에 주목하고, 과수 재배, 임업 등에도 투자하였다. 1920년대 산미증식정책과는 판이하게 주곡생산보다 부업 생산에 치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산업화 초기 꾀한 식산흥업정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것처럼 광무년간 한국인의 농업 투자가 상업적 농업의 다각화의 방향을 취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다른 한편 농업 경영 과정에서 송병준은 자신이 이끌던 친일 단체 일진회 회원의 생업을 챙기고 있는 친일파 두목으로서의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

송병준이 이와 같이 토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병준은 국내에 활동 기반이 없이 일본에서 낭인들과 결연한 뒤 러일전쟁 발발 이후 국내에 들어와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이끌고, 대표적인 친일 관료로서 활동하였다. 송병준이 이토 히로부미와 가쓰라 다로 총리에게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1억 5천만 엔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년 8월 13일). 친일의 대가로 그는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고, 이를 토지 확보와 농업생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송병준이 토지 획득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1908년 부평군 산곡리의 땅을 두고 민영환 집안과 분쟁을 일으킨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윤규, 주홍섭, 정병원 등 민영환 일가는 광고를 통해 부평군 산곡리의 땅은 원래 민영환 집안에서 운영하던 목양사 농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영환의 식객인 오신묵이 민영환의 부인에게, 황실에서 부평 목양사 땅을 상납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니 땅을 송병준 쪽에 팔아 재산 피해를 면하도록 강제하였다는 것이다. 송병준은 매각 대신 자신에게 팔았다는 증서 한 장만 써주면

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인을 속이고, 그 허위증서를 근거로 일가를 공갈 협박해 목양사 토지를 빼앗아갔다고 한다. 땅을 빼앗긴 민영환의 미망인은, 5남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굶어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나 송병준은 일진회의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고 강변한다고 주장하였다. 송병준은 이에 대해 민영환의 생모가 오신묵과 상의해서 목양사 땅을 빼앗길 우려가 있고 민영환의 장례식을 치른 빚도 갚아야 하므로 팔아달라고 간청하여,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일진회로 하여금 사들이게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분쟁은 1909년 송병준이 승소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일 광고, 1908년 12월 22일 ; 『황성신문』 1908년 12월 11일 광고, 1909년 4월 2일 ; 『오마이뉴스』 2004년 8월 27일 '부평땅은 송병준이 1925년에 판 땅'). 그렇지만 뒤에서 보듯이 이 지역 지주 명단에 송병준은 등장하지 않는다. 1925년 송병준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부평땅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오마이뉴스』2004년 8월 27일 '부평땅은 송병준이 1925년에 판 땅').

불법적인 토지 소유의 배경은 어쨌든 1910년대 송병준의 농업경영은 미곡을 비롯하여 잠업, 임업, 과수 등 상품작물 재배에까지 미쳤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으로서, 친일파 송병준이 경영한 부평지역에서의 농업경영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2)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 운영과 농민층의 저항

1918년 일본의 쌀폭동을 계기로 일본 내의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미곡증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20년대 일제의 조선산업정책은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 농업을 식민지적 미곡단작형(米穀單作型)으로 재편하고 조선을 상품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식료품 공급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9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산미증식계획의 내용은 토지개량을 위한 기본조사, 토지개량사업, 경종법(耕種法) 개선 사업 등이었다. 이 계획은 30년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서 토지개량사업은 답의 관개 개선 40만 정보, 전의 답으로의 전환 20만 정보, 개간 · 간척 20만 정보, 합하여 80만 정보의 토지

를 개량하고, 또한 경종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선 제1기를 15년으로 잡아, 첫째 기본 조사로서 황무지의 개간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기간지(旣墾地)의 수리 상황을 조사하고, 둘째 토지 개량으로서 42만 7,500정보의 토지를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셋째 각 지방에 농업기술원을 배치하여 경종법의 개량, 비료의 증시(增施), 재배방법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899만 5천 석을 증산하여 그 가운데 800만 석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1926년 제2기 계획으로 산미증식경신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계획의 목표도 일본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어졌다. 조선미곡을 증산함으로써 일본의 외국미곡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제2기 14년간의 토지개량 목표는 35만 정보로 잡고, 농사개량은 벼의 품종개량, 비료의 증시 등에 두어졌다. 제2기 계획에서는 제1기보다 보조금을 확대하고 막대한 저리자금을 대여하고 총독부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한 특징을 보인다. 농민들도 과중한 수리조합비를 부담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제2기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1926년 자본금 5백만 엔으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창설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토지개량사업의 대행과 청부, 자금의 대부, 토지의 매매와 경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34년 일본에서 조선미 수입 반대론이 일어나 중지되고 말았다.

그 후 1940년 이후에는 전시체제 하에서 식량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시 증미계획(增米計劃)을 수립하여 대규모 관개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의 토지개량사업은 증산을 위해 주로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였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핵심은 토지개량사업이고 토지개량사업은 관개개선이 핵심이었다. 관개개선을 위하여 종래의 수리시설을 정비·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곧 수리조합의 확충 계획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수리조합은 일본인이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던, 규모가 크고 저수지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조합, 조선인이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던, 규모가 작은 보(洑)를 수원으로 하는 조합으로 구분된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창설된 수리조합은 639개인데, 주로 산미증식계획기와 증미계획기에 창설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증미계획기에 380개 조합, 60%에 달하는 조합이 창설되었다. 산미증식계획기에는 대규모의 수리조합, 증미계획기에는 소규모의 수리조합이 창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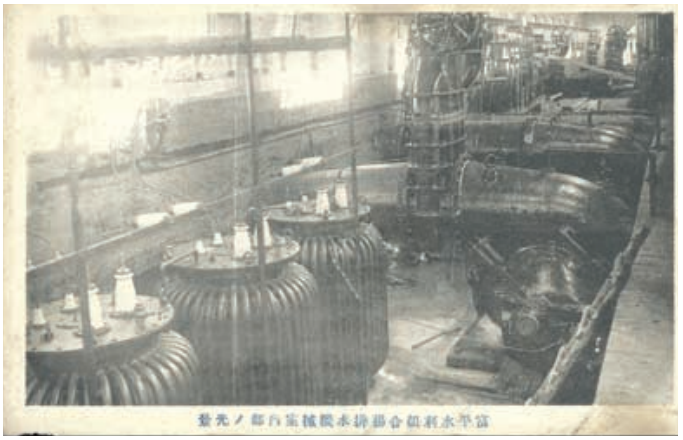
부평수리조합은 제1기 산미증식계획기에 설립되었다. 부평수리조합은 1922년 5월 22일 설립을 신청하여 1923년 4월 9일 인가가 떨어져 창설된 조합이다. 1941년 현재, 몽리면적이 4,120정보로서, 양수기를 수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는 전국 최대의 수리조합이었다. 그리고 설치 공사를 담당한 토목회사가 조합 창설을 주도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창립 당시 부평수리조합은 부평평야의 3,872정보(답 75%, 전 5%, 초생지 20%) 가운데 궤지(潰地) 271정보를 제외한 3,601정보를 몽리면적으로 하였으며, 당시 전국에서 5번째의 규모였다. 그 지역은 부천군의 계남면, 부내면, 오정면, 계양면, 김포군의 양서면, 고촌면 내 35개 리에 걸치는 지역이었다.

부평평야는 경성에 근접하고 면적이 광대하며 사업의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일찍이 수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 직접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말하자면 부평평야의 수리사업은 산미증식계획 이전부터 주목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평군에는 국유지가 극히 적고 미간지인 초평, 원야, 산림의 비율이 적지 않았다. 그것이 모두 사유지로서 개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수리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수리시설을 갖추면 기름진 평야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관개시설 없이 거의 천수에 의존하여 경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가 적은 부평군에서는 한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반면 호우가 쏟아지면 한강의 역류와 주위의 홍수가 합쳐져 범람하는데 얕은 곳은 2~3척, 깊은 곳은 8~9척에 달하고 침수일수도 5~15일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면 비옥한 땅으로 탈바꿈될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부평수리조합에서는 한강 하류의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김포군 김포면 신곡리의 한강변에 중앙배수갑문을 건축하고 거기에 300마력 전동기 3대와 펌프 6대를 설치하여, 동서 간선수로, 지선용수로, 지선 배수로 및 굴포천을 통하여 용수 및 배수를 하였다. 수리관개사업에 전기를 사용한 것은 여기서 처음이었다. 또 한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에서 고촌면 전호리까지의 동방수제(東防水堤)를 신



부평수리조합 양배수기계실 내부모습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축하고, 고촌면 전호리에서 김포면 신곡리에 이르는 서방수제(西防水堤)를 개축하였다.

공사는 1923년 4월~1925년 3월에 시행되었다. 설치사업비 총액은 329만여 원인데, 조합채 254만여 원, 국고보조금 52만여 원, 조합비 22만여 원이었다. 설치사업비 대부분이 기채에 의해 조달된 것이다. 조합 설치에 의하여 수확량은 27,496석에서 111,177석으로, 83,681석의 증수를 예상하였다.

출전;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72쪽
비고; 비율은 전자의 것은 민족별 거주지의 비율이고, 후자의 것은 거주지별 민족 분포의 비율이다.

부평수리조합의 민족별 거주지별 조합원 구성

국적	재지소유자	부재소유자	합계
일본인	28명(22%)(4%)	102(78)(24)	130(100)(12)
조선인	625(66%)(96%)	315(34)(76)	940(100)(88)
합 계	653(61%)(100%)	417(39)(100)	1,070(100)(100)

조합원의 민족별, 거주지별 구성을 살펴보면, 조합원 1,070명 가운데 일본인 소유자가 12%, 130명인데 그들 중 재지의 소유자는 22%, 28명에 불과하다. 조선인 소유자는 940명 가운데 66%, 625명이 재지에 거주하고 있다. 재지 소유자는 조선인이 96%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조선인 부재 소유자는 34%, 315명으로 적지 않은데, 대체로 인근 지역인 경성, 인천, 고양에 거주하는 자가 많았고 그들은 특히 대토지를 소유한 자들이었다.

출전: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72쪽
비고: ( )는 비율(%)임.

민족별 소유규모별 조합원 구성

민족 / 소유규모	조합원 수			소유면적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일본인	조선인	합계
50정보이상	8명(6.2)	2명(0.2)	10명(0.9)	980.1(5.9)	110.1(5.5)	1,090.2(29.8)
20-50	7(5.4)	14(1.5)	21(2.0)	220.5(13.4)	460.7(22.9)	681.2(18.6)
10-20	12(9.2)	21(2.2)	33(3.1)	163.7(9.9)	300.5(14.9)	464.2(12.7)
1-10	62(47.7)	302(32.1)	364(34.0)	261.9(15.9)	884.0(43.9)	1,145.9(31.3)
0-1	42(32.3)	601(63.9)	643(60.1)	22.0(1.3)	257.7(12.8)	279.7(7.6)
합계	130(100)	940(100)	1,070(100)	1,648.2(100)	2,013.0(100)	3,661.2(100)

조합원의 민족별 소유규모별 구성을 보면 조합원의 2.9%에 해당하는 31명의 대지주가 2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전체의 48.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0명, 12%의 일본인이 전체 토지 3,661.2정보 가운데 45.0%에 해당하는 1,648.2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1인당 소유규모로 환산하여 보면 일본인은 1인당 126.8정보, 조선인은 1인당 21.4정보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일본인의 토지소유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부평수리조합은 20정보 이상을 소유한 경성 및 인천의 일본인 대지주가 중심이 되고 일부 조선인 중소지주가 호응하여 조합을 창설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평수리조합의 창립위원은 한다(半田善四郎), 카사마츠(笠松淸一), 스이즈(水津彌三松), 정인섭(鄭寅燮), 나카무라(中村福三郎), 마츠야마(松山常次郎) 등이었다. 창설을 주도한 사람은 半田과 松山이었다. 한다는 1918년 2월 부평, 김포 일대에 한다(半田)농장을 설치하여 경영하였다.

부평수리조합 창립위원 半田善四郎의 농업경영규모

조사일	이름	지역	창립일	소유지면적				영농종별	영농방법
				전	답	기타	계		
1925년말	半田농장	부천군 김포군	1920.3	170.5	538.4	162.9	871.8	보통농사	소작자작
1929.7	半田농장	부천군 김포군	1919.11	350.0	600.0	500.0	1450.0	보통농사 조림	자작소작
1931년말	半田隆一	부천군	1919.3	183	365	57	605	보통농사	소작
	半田善四郎	부천군 김포군	1918.2	74	490	57	621	보통농사	소작
1937.6	半田善四郎	부천군 김포군		162 3	367 34		529 37		

출전: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0,1985

한다(半田)의 토지소유 규모는 시기가 지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1,000여 정보에 넘나드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는 구역 내 최대의 지주로서 조합창설을 주도하였으며 4,5,6대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마츠야마(松山)는 황해사(黃海社) 사장으로서 창설공사를 주도하고 조합창립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조선으로 건너와 1915년 川佐농장의 간척사업에 참여하였고, 수리사업의 공사를 청부맡기 위하여

1918년 3월 토목회사인 황해사를 창설하였다. 이 토목회사가 조합창설의 주도자가 되어 사업계획에서부터 설치공사까지 담당하고, 마츠야마(松山)는 제1대 조합장이 되었다. 그리고 황해사를 이용한 토목 수리공사를 담당하여 부평수리조합뿐 아니라 함안수리조합, 제2함안수리조합, 연해수리조합의 조합장도 겸임하였다. 일본 정우회 대의사라는 정치적인 배경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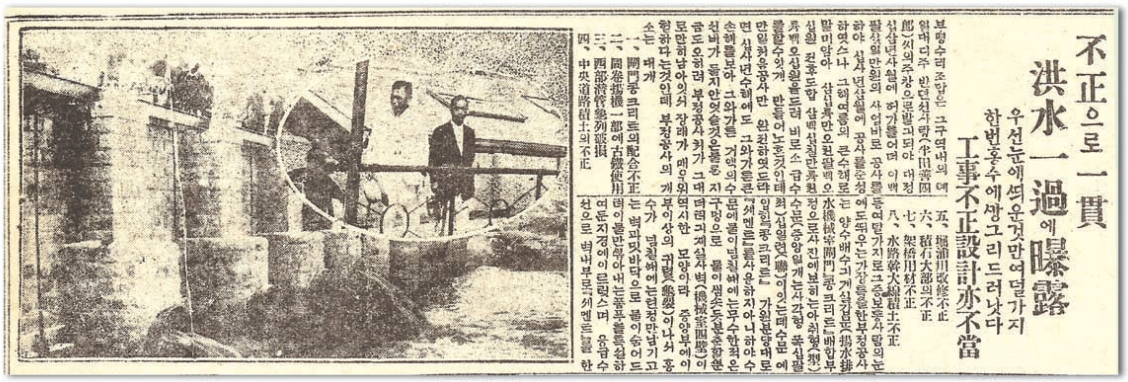
부평수리조합은 이후 확장공사를 통해 몽리구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제2구 확장공사는 1929년 3월~1930년 6월에 걸쳐 제1구 남쪽의 고지대(소사·오정구)로 몽리면적을 확대하였다. 부천군 계남면 심곡리, 표절리, 상리, 중리, 구지리, 부내면 마분리의 459정보를 몽리구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곡리 양수기를 일부 개량하여 300마력 전동기 1대를 증설하였고, 동부 간선수로의 종점 부근에 중리양수장을 신설하고 펌프 1대와 150마력 전동기 1대를 신설하였다. 수확량은 사업 전의 5,324.4석에서 14,871.6석으로 9,547.2석의 증수를 기대하였다.

제3구 확장공사는 김포군 김포면, 고촌면, 검단면, 양촌면, 대부면, 일곶면, 하성면 내의 34개 리에 걸치는 김포평야를 대상으로 3,200정보의 몽리구역에 편입하는 공사였다. 이 지역은 1930년 3월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지주들의 반대로 착수가 지연되다가 1940년 4월 해체된 김포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을 편입한 것이다. 1944년 11월 인가받은 이 사업은 1945년 8월 15일까지 52%의 공사진척을 보인 가운데 중단되었다가 1952년 12월 완공되었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는 일본산업에 필수적인 값싼 미곡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으나, 조선에서는 수세, 소작료, 조합비 등 조선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미곡 수출량의 급증으로 농민의 춘궁(春窮)이 일상화되었다. 증산정책이 조선내부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기초한 본래적인 상업적 농업의 전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해체를 초래하였다. 식민지지주제를 매개로 수행되어 농민은 조세부담, 비료부담, 고율소작료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아 전반적인 몰락을 강요당했다. 수리조합에 대한 조선농민의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처럼 조선인 소작농민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 때문이다.

부평수리조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수리조합시설에 편입된 지역의 지가보상 때문에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1923년 6월 29일 기공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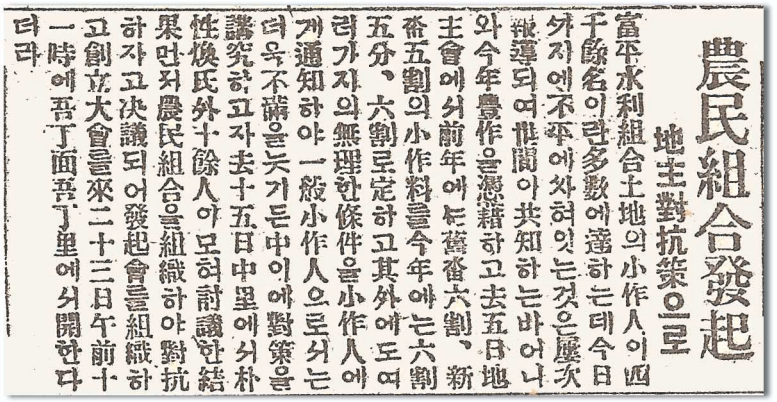
거행한 부평수리조합에서는 수리조합 터를 매수하면서 농민들의 농사를 금지하고서도 지가는 지불하지 않았고, 농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부천군 계양면 농민 60여명은 기명 날인하여 부천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의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10월 23일)


不正으로一貫
洪水一過에曝露
우선눈에띄운것만여덜가지
한번홍수에생그리드러낫다
工事不正設計亦不當

부평수리조합의 부정공사 실태를 알리는 당시의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9월 1일자)

또한 마츠야마(松山)가 조합창설의 주도자가 되어 사업계획에서 설치공사에 이르기까지 주도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공사의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분리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설계부실, 공사부정, 사업비의 과다계상, 조합비 부담의 과다책정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부평수리조합은 창설 초기 조합장 이하 조합 임직원 대부분이 공사를 담당한 토목회사인 황해사 계통의 인물로 구성되어 공사부정과 부실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조합원에 의하여 마츠야마(松山)는 1927년 7월 20일 배임 및 불법행위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 고소를 당하였다. 공사부정의 내용은 첫째 갑문 콘크리트 배합 부정, 둘째 권양기(卷揚機) 일부에 고철 사용, 셋째 서부잠관(西部潛管) 균열 파손, 넷째 중앙도로 적토(積土)의 부정, 다섯째 굴포천 개수 부정, 여섯째 척석대부(積石大部)의 부정, 일곱째 가교용재(架橋用材)의 부정, 여덟째 수로간대선(水路幹大線) 적토 부정 등 여덟 가지로 그중 보통 사람의 눈에도 띄는 가장 특출한 부정공사는 양배수기계실 갑문콘크리트 배합 부정이었다(『동아일보』 1927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절충 결과 개수비를 마츠야마(松山)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해결되었고, 그리하여 추가공사가 1928년 5월~1929년 5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러한 소동의 와중에서 1927년 10월에는 부평수리조합 지구 소작인 4천



農民組合發起

地主對抗策으로

富平水利組合土地의小作人이四千餘名이란多數에達하는데今日까지에不平에싸혀잇는것은屢次指導되여世間이共知하는바어니와今年豊作을憑藉하고去五日地主會에서前年에는舊番六割、新番五割의小作料를今年에는六割五分、六割로定하고其外에도여러가지의無理한條件을小作人에게通知하야一般小作人으로서는더욱不滿을늣기든中이에對策을講究하고자去十五日中里에서朴性煥氏外十餘人이모혀討議한結果먼저農民組合을組織하야對抗하자고決議되어發起會를組織하고創立大會를來二十三日午前十一時에富丁面富丁里에서開한다더라

부평수리조합지구 내 소작인들의 농민조합 창립을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자)

여 명이 농민조합을 창립하였다. 1927년 10월 5일 지주회에서 구답(舊畓) 6할, 신답(新畓) 5할의 소작료였던 것을 1927년부터 각각 6할5푼, 6할로 인상하고 기타 여러 조건을 추가한 데 대하여, 10월 15일 소작인 15명이 발의하여 농민조합을 조직, 대항하기로 결의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

소작인들은 10월 28일 부천군 계남면 소사에서 부평농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부평농민조합의 창립은 경기도 지방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소작인들의 저항운동으로 소작인들이 수년간 지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살 길을 찾아 일어난 모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창립대회장에는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일본노동농민당에서 파견되어 경성에 체류중이던 변호사 古屋을 비롯, 경성농민총동맹 중앙위원 인동철, 조선노동당총동맹 집행위원 조경숙, 노동대중사 권태휘, 서울청년회 이상화, 경기도청년연맹 고일, 인천노동친목회 권충일 등과 각 신문기자가 참석하였다. 인천경찰서에서는 정사복 순사 5명을 파견하여 총회 상황을 감시하였다. 경찰은 축문과 축사를 금지하는 등 창립총회를 방해하였다.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부평농민조합의 목적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27년 10월 30일).

목적

1. 우리는 농민 간 서로 친애를 주로 하야 위기(危難)을 상부상조함
2. 우리는 농사를 개량하며 농촌의 계발 향상을 도(圖)함

조직

1. 본 조직은 소작농, 소작 겸 자작농, 피용(被傭)농민으로써 조직함

부서

서무부, 교육부, 연구부, 조사부, 선전조직부, 재정부

창립총회에서는 위원 36명을 선거한 후 지주회와 교섭할 10가지 조항을 결의하고, 교섭위원으로 어종면, 조지풍, 장영섭 등 3명을 선정하여 지주회에 가서 교섭하도록 하였다.

결의사항

1. 소작료운반은 10만으로 한정하고 소작인이 스사로 운반치 못할 시는 운임으로 25전만 부담할 사. 10리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10리에 25전 할합(割合)의 임금을 지주에게 바들 일.
1. 소작료는 종전과 갓치 구답에 재(在)하야는 6할, 신답에 재하야는 5할로 할 사.
1. 00타작장은 폐지하고 종전 관례대로 소작인가에서 타작할 일.
1. 입자(叭子(가마니)사용은 폐지할 일.
1. 비료대금은 지주 6할, 소작인 4할의 할합(割合)으로 부담할 일.
1. 소작기간은 5년간으로 확정하야 기간(期間)에는 이작(移作)치 못할 일.
1. 고초(藁草)는 전부 소작인이 취득할 일.
1. 打0機는 당장에 구입하기 어려운즉 차차 사용하기로 하고 당분 종전 타조식(打租式)에 의하는데 집떠는 배는 소작인이 취득할 일.
1. 종자는 지주 6할, 소작인 4할 부담으로 하되 바더올 때에도 근량(斤量)으로 하고 반환할 때에도 근량으로 할 일.
1. 금년 소작료는 6할, 4할로 하되 만일 지주가 응치 안는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其) 소작료를 농민조합에서 보관할 일.

창립 당일 각 동리별 입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 62인
부천군 오정면 내리 54인
부천군 계양면 박촌리 34인
김포군 양서면 과해리 30인
김포군 양서면 과해리 43인
김포군 양서면 용종리 10인
부평군 계양면 귤현리 45인

부평군 계양면 동양리 63인
부평군 계양면 병방리 37인

창립총회 당일 조합원 입회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387명이고 출석한 인원은 186명이었다.

창립총회에서 소작인들은 열 섬 수확하면 소작인의 차지가 한 섬도 되지 못한다고 호소한 반면, 부평수리조합 조합장 天日은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여 지주들이 조합비와 비료대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소작료 6할 고수를 진정하여,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부딪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7년 10월 31일). 그리하여 이후 지주 측과 소작인 측의 대립이 격렬하였다.

농민들의 처지는 점점 더 열악해졌다. 일제도 농촌의 갱생을 위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렸다. 부천군 소사면 상리의 경우 주민들의 총 부채액이 5,500여 원에 이르렀는데, 지주들과 협의하여 정리하도록 경찰부장이 중개하고, 상리 갱생조합을 조직해야 할 상황이었다(『동아일보』 1933년 1월 30일). 농민들의 열악한 처지는 고율 소작료를 부과하는 지주제에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3) 부평지역 지주제의 실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상품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주의 토지집적이 확대되어 가는 반면, 자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로 이주하여 임노동자가 되거나 만주를 비롯한 해외로 밀려났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크게 확대되었다.

일제하 부천군 일본인 지주의 변동

조사일	이름	지역	창립일	소유지면적				영농종별	영농방법
				전	답	기타	계		
1922년말	笠松淸一	부천군	1913.4	0	53.4	0	53.4	보통농사	소작
1925년말	半田농장	부천군 김포군	1920.3	170.5	538.4	162.9	871.8	보통농사	소작자작
	平田智惠人	부천군 김포군	1917	5.5	75.1	0.3	80.9	보통농사	소작
	水津농장	부천군	1911.4	44.4	146.3	12.4	203.1	양잠 보통농사	소작
	天日농장	부천군	1915.3	3.0	60.0	10.0	73.0	양잠 보통농사	소작

조사일	이름	지역	창립일	소유지면적				영농종별	영농방법
				전	답	기타	계		
1925년말	橋田농장	부천군	1925.5	4.0	166.0	10.0	180.0	양잠 보통농사	소작
	田村농장	부천군	1923.9	25.0	5.0	100.0	130.0	양잠 보통농사	소작
	平山농장	부천군	1907.2	176.6	73.3	4.7	254.6	과수재배	자작소작
	高瀨농장	시흥군 김포군 부천군	1919.8	154.7	113.4	8.3	276.4	보통농사	소작
	長岡척식회사 김포농장	김포군 부천군 고양군	1919.10	287.9	150.9	166.4	605.2	보통농사	소작
1929.7	水津농장	부천군	1928.3	35.7	130.0	146.7	312.4	보통농사	자작소작
	伊藤농장	부천군	1929.4	2.0	34.3	1.4	37.7	보통농사	자작소작
	半田농장	부천군 김포군	1919.11	350.0	600.0	500.0	1450.0	보통농사 조림	자작소작
	平田농장	부천군 김포군	1929.1	6.0	65.0	0	71.1	보통농사	자작소작
	橋田농장	부천군	1825.2	3.1	152.0	2.8	157.9	보통농사	자작소작
	東淸子농장	부천군	1921.4	30.0	3.0	0	33.0	보통농사	소작
	田村농장	부천군	1924.6	30.0	50.0	2.0	82.0	보통농사	소작
	天日농장	부천군	1926.4	3.0	75.0	0	78.0	보통농사	자작소작
	平山농장	부천군	1909.3	116.8	65.7	6.1	188.6	보통농사 과수	자작소작
1931년말	佐藤政次郎	진위군 부천군	1927.3	42	191	24	257	보통농사	소작
	半田隆一	부천군	1919.3	183	365	57	605	보통농사	소작
	中村福三郎	부천군	–	19	102	3	124	보통농사	소작
	水津彌三松	부천군	1919	45	95	8	148	보통농사	자작소작
	橋田駒治	부천군	1925.2	3	129	65	197	보통농사	자작소작
	田村합명회사	부천군	1927.4	13	17	93	123	보통농사	자작소작
	半田善四郎	부천군 김포군	1918.2	74	490	57	621	보통농사	소작

출전 :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0, 1985, 215~313쪽

비고 : 1922년, 1925년, 1929년은 30정보 이상 지주, 1931년은 100정보 이상 지주

일본인의 농장개설은 1910~20년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20년대 전반까지는 보통농사 외에 양잠, 과수재배를 병행하지만, 1920년대 후반에는 보통농사로 통일되어 간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미곡단작화정책의 결과이다. 당연히 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소작제로 경영하면서 일부 자작의 경우도 있다. 농지의 규모는 수백 정보에 이르는 대지주들이 많다.

1937년 현재 부천군의 30정보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조선인, 일본인 지주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1937년 부천군 지주의 실태

이름	직업	주소	소유지명	면적			소작인수
				전	답	계	
배갑균		경성부	부천군	6	25	31	60
주정환		경성부	부천군	15	22	37	53
정두영		경성부	부천군	20	41	61	123
배운환		경성부	부천군	5	23	28	30
			파주군	10	23	105	105
이인훈		경성부	부천군	0	70	70	98
노선재		경성부	부천군	1	2	3	105
			김포군	15	87	97	210
배석환		경성부	부천군	4	21	25	70
			양평 · 여주 · 이천	28	69	97	210
원윤수	금광업	경성부	부천군	0	36	36	120
			광주 · 진위	13	74	87	281
조중식		경성부	부천군	17	31	48	160
			여주 · 이천	6	79	85	172
나지학	상업	경성부	부천군	18	29	47	79
			수원 · 시흥 · 파주	17	73	88	280
김태훈		경성부	부천군	16	43	59	84
			고양 · 이천	23	62	85	98
함성효	면협의원 원 진사	경성부	부천군	9	17	26	35
			광주 · 장단 · 개풍	23	62	85	98
최병두	상업	경성부	부천군	7	26	33	63
			연천 · 용인 · 진위	38	109	147	351
한성원		경성부	부천군	6	15	21	20
			연천 · 여주 · 수원 · 시흥 · 김포	31	132	163	450
김여근		경성부	부천군	4	7	11	29
			진위 · 수원 · 김포	52	125	177	432

이름	직업	주소	소유지명	면적			소작인수
				전	답	계	
김성환	상업전 경성부 회의원	경성부	부천군 시흥 · 김포	10 30	58 102	68 132	52 529
최한신		경성부	부천군 용인 · 안성 · 진위	18 35	45 138	63 173	52 454
임종상		경성부	부천군 광주 · 양주 · 연천 · 가평 · 양평 여주 · 이천 · 진위 · 수원 · 김포	4 224	30 423	34 647	52 1472
김윤구	철도국원	인천부 부천군		7	24	31	62
최광수		인천부	부천군	7	26	33	50
장석우		인천부	부천군	7	27	34	20
최승우	상업	인천부	부천군	11	30	41	63
이덕환	상업	인천부	부천군 시흥군	7 9	27 23	34 32	130 73
임윤배	전 면장	인천부	부천군	31	84	115	250
주명기	정미업	인천부	부천군	25	117	142	246
이흥선	정미업	인천부	부천군 김포군	6 19	58 88	64 107	110 278
이원의	학생	부천군 영종면	부천군	12	20	32	64
원정희	농업	부천군 오정면	부천군	10	28	38	23
박제환		부천군 소사면	부천군	7	32	39	40
정정분		부천군 소사면	부천군	35	4	39	70
김동화	전 면장 통인조합장	부천군 영종면	부천군	11	32	43	86
김지하		부천군 대부면	부천군	12	32	44	100
윤덕형		부천군 대부면	부천군	7	39	46	70
최병희		부천군 소사면	부천군 수원군	13 1	26 24	39 25	96 60
강석조	면장도 평의원	부천군 계양면	부천군	11	80	91	123
박용균	도평의원	부천군 부내면	부천군	20	72	92	238

이름	직업	주소	소유지명	면적			소작인수
				전	답	계	
박용재	면장	부천군 부내면	부천군	37	84	121	323
이건환	면협의회 진흥회장	부천군 소래면	부천군	5	121	126	45
松本正寬	변호사	경성부	부천군	1	44	45	51
岩永蕃		경성부	부천군	7	48	55	52
半田善四郎	부평수리조합장	경성부	부천군	162	367	529	921
			김포군	3	34	37	45
笠松一藏		수원군	부천군	5	139	144	210
			수원군	0	78	78	60
水津光素		부천군	오정면 부천군	9	26	35	50
水津義素		부천군	오정면 부천군	9	32	41	50
神部正雄		부천군	소사면 부천군	51	7	58	100
水津辛素		부천군	오정면 부천군	21	48	69	90
天日光一		東京市	부천군	16	80	96	131
田村 합명회사		神戶市	부천군	7	97	104	190
金保 합명회사		경성부	부천군	15	214	229	250
조선신탁 주식회사		경성부	부천군	2	10	12	32
			용인 · 안성 · 진위 · 수원 · 시흥 고양 · 광주 · 포천 · 양평 · 이천 김포 · 파주	280	1262	1542	2836
진명여학교		경성부	부천군	24	230	254	340
경성천주교 유지재단		경성부	부천군	3	14	17	30
			포천 · 이천 · 안성 · 진위	42	109	151	289

출전 :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0, 1985, 84~143쪽

비고 : 1937년 6월말 현재, 전답 30정보 이상 지주

부재지주는 대부분 경성부, 인천부에 거주하고 있다. 경성과 인천의 자산가들에게 부평땅이 투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지주의 농장

에는 수백 명의 소작인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로써 지주-소작제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1937년 현재 경기도 지주제의 실태를 민족별, 지역별로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937년 경기도 지주제의 실태

국적	면적지주 소작인	개인지주				특수지주				합계
		경성지주	도내지주	도외지주	계	회사	학교	사원	기타	
조선인	면적	25380	29681	1014	56085	1189	1093	456	516	59339
		42.8%	50.0%	1.7%	94.5%	2.0%	1.8%	0.8%	0.9%	100%
	지주	305	386	12	703	7	6	7	4	727
		42.0%	53.1%	1.7%	96.7%	1.0%	0.8%	1.0%	0.6%	100%
	소작인	54202	56635	1285	112122	2062	3309	783	1033	119309
		45.4%	47.5%	1.1%	94.0%	1.7%	2.8%	0.7%	0.9%	100%
일본인	면적	1349	1738	1165	4252	10214	–	–	–	14466
		9.3%	12.0%	8.1%	29.4%	70.6%				100%
	지주	7	19	7	33	19	–	–	–	52
		13.5%	36.5	13.5%	63.5%	36.5%				100%
	소작인	1771	2114	585	4470	15025	–	–	–	19495
		9.1%	10.8%	3.0%	22.9%	77.1%				100%
계	면적	26729	31419	2189	60337	11403	1093	456	516	73805
		36.2%	42.6%	3.0%	81.8%	15.5%	1.5%	0.6%	0.7%	100%
	지주	312	405	19	736	26	6	7	4	779
		40.1%	52.0%	2.4%	94.5	3.3%	0.8%	0.9%	40.5%	100%
	소작인	55973	58749	1870	116592	17087	3309	783	1033	138804
		40.3%	42.3%	13.5%	84.0%	12.3%	2.4%	0.6%	0.7%	100%

출전 :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0, 1985, 83쪽

비고 : 1937년 6월말 현재, 전답 30정보 이상 지주

1937년 당시 30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선인 지주의 면적이 80.4%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지주 중에서는 조선인이 93.0%를 점하여 일본인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조선인 개인지주의 평균 면적은 79.8정보, 일본인은 128.8정보, 일본회사는 537.6정보를 차지하여 일본계통 지주의 농장이 조선인 농장보다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재지주로서 조선인 개인 지주는 경성지주가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경우 회사지주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 지주의 농장에서

일하는 소작인이 86.0%를 점하고 있으므로, 지주제의 문제는 민족적인 측면 못지않게 계급적 측면이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지주제의 고율 소작료는 농민의 삶을 피폐시켰다.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일으켜 저항하고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다.

4. 1930~1940년대 일제의 공업 정책과 경인 · 부평공업단지

1) 공업 정책의 전환

일제의 공업 정책은 1910년대에는 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을 통해 조선의 자생적인 자본주의적 공업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20년에는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어 1910년대에 비하여 자유롭게 되었다. 1921년 9월 조선산업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산업조사위원회에서는 제국산업의 방침에 순응할 것을 기한다고 하여 조선산업은 일본제국산업의 종속변수로 자리잡은 일반적 원칙을 설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조선공업조장정책의 방법으로서 첫째 장려 또는 원조를 적극적으로 할 것, 둘째 관세를 안배하여 조선 내 공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두 가지 방침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조선 공업정책의 단서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1920년대에는 본격적인 공업화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1920년대까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농업정책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자본주의의 조선식민지지배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농민의 황폐, 농민경제의 파괴, 미곡의 수출 급증으로 춘궁의 심화를 가져왔다. 조선내부에서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기초한 본래적인 상업적 농업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체로 나아가, 농민층은 전반적으로 몰락하여 갔다. 이 때문에 지주적 농정에서 농민적 농정으로의 전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농촌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업화정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宇原총독이 재직한 1930년대 전반에는 이처럼 조선내부의 요인에 의한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일본인 자본유치에 의한 공업화시기로서, 산업정책은 첫째 농촌진흥운동, 둘째 북양남면(北羊南綿), 셋째 북선개척, 넷째 산

금장려로서, 주로 원시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宇原총독은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조선의 자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일본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장유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1934년 시가지의 확장과 신시가의 창설에 중점을 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시행하고 토지가격통제정책, 보조금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업화정책의 지주로서 전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으로 나가려 하였다. 조선에서 전력소비형산업이 성립하고, 전력은 조선경제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자본주의도 중화학공업화의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이렇게 1930년대 전반기 조선의 공업화는 宇原총독에 의한 공업화정책과 일본자본주의의 급격한 중화학공업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한편 1929년 이래의 세계적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자본주의는 만주사변 등 중국침략을 감행하고, 전선에 가까운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 5월 조선총독부는 공식적으로 조선병참기지화를 선언하고 군수공업 육성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요청이 가중되어 공업화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체제 하에서 경제통제가 강화되고 국방상 군사상의 관점에서 식량증산, 지하자원개발과 함께 직접적인 공업화정책이 수행되어 갔다.

1936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서는 식민지 조선 산업경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시산업 중심에서 여러 산업의 전면적 발전으로 전환하였다. 농공병진 특히 광공업의 비약적 진흥을 주장했다. 이것이 1938년 9월 시국대책조사회에서 군수공업 확충으로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1938년 9월의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에서 1941년까지 군수공업의 확충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 1938년 9월, 조선총독부, 135~146쪽).

제14. 군수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확충계획목표 1941년까지.
확충할 업종 : 경금속, 석유 및 그 대용품, 조달(曹達), 유안(硫安), 폭약, 공작기계,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피혁, 기타
실시방법 : 관계법규의 정비, 기업지의 주선(기업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공업용수의 조사, 기타 가급적 편의를 공여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용지의

구입을 주선할 것), 기술자 및 숙련공의 양성기관 확충, 자금융통의 원활, 보조금의 교부, 운수시설의 정비, 동력요금 및 운임의 경감, 원재료의 공급 주선, 하청공업의 확충(하청공업의 확충을 도모하여 업자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조성금의 교부, 저리자금의 융통, 기술상의 지도 및 하청의 주선 등 극력 그 지도조성에 노력할 것).

기업의 시설, 공장의 증설에 의하여 경금속, 석유대용품, 폭약, 공작기계,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피혁 등 군수공업부문의 구체적 확충계획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법규의 정비, 기업지의 주선, 기술자의 확충, 자금융통 원활화, 보조금 지급, 운수시설 정비, 동력요금 경감, 원자재 공급주선, 하청공업의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경인공업단지 및 부평공업단지는 일제의 조선공업정책 전환의 결과 설치된 것이다. 경인공업단지는 1930년대 전반 宇原총독 시대에 중화학공업의 확장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부평공업단지는 1930년대 후반 미나미(南) 총독 시대 군수공업의 확장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2) 경인공업지대의 형성

일제는 식민지 공업화의 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공업지대를 형성시키고자 하였지만, 공업지대로서 확립된 것은 함경남북도의 조선북부공업지대와 경인공업지대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각각 한반도의 남북을 대표하는 공업지대이고 해방과 분단 이후에도 남북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다.

조선북부공업지대는 전력 및 자원을 입지조건으로 하여 형성 발전되었다. 그래서 전력 및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요업 등의 부문이 중심을 점하여 중공업, 화학공업지대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경인지역에는 일찍부터 공장이 설치되어 생산활동을 하여 왔는데,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의 창설 및 확장과 병행하여, 경성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광대한 면적의 공업용지가 조성되었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약 2489.3만 평의 지역이 조성되면서 공업용지로서 998.4만 평이 마련되었다. 그 내역은 구로지구 173.6만 평, 시흥지구 19만 평, 소사지구

94.7만 평, 부평지구 272.2만 평, 서곶지구 239.2만 평, 계양지구 94.1만 평, 양천지구 105.6만 평이었다(『조선경제연보』, 1940년판). 이와 같이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착수되고, 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전력 가스 공급시설과 기타 시설의 확충과 신설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구로, 부평지구에 대단위 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경인공업지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부문 간의 균형을 살리면서 발전하였다. 경인공업지대가 지니는 이점은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공업제품 특히 소비재의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점, 철도의 기점인 경성과 항로의 기점인 인천항이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로서 원료와 제품의 운송에 편리하다는 점, 조선총독부가 위치하여 각종 행정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장 및 교통의 편리라는 이점으로 말미암아 발전한 산업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식료품공업이다. 식료품공업으로는 정미업, 제분업 등이 있다. 주류는 정미업이었다. 1936년 조선 전체의 공장생산에서 정미생산액이 1억 3,400만 엔을 차지하는데 1937년 경성과 인천의 정미생산액이 9천만 엔에 달할 정도이다. 그것은 인천취인소와 거대창고가 존재하고, 인천항을 통하여 일본, 중국, 만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경인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미업은 주로 가내공업적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제분업의 경우는 풍국제분(豊國製粉) 경성 및 인천공장, 일본제분 인천공장 등 대기업이 주요한 생산자였다.

방직공업은 교통이 편리하여 원료와 제품의 수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풍부한 한강의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발전하였다. 주요한 공장으로는 경성방적 영등포공장, 동양방적 인천공장 및 영등포공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발전한 산업으로 기계기구공업(機械器具工業)을 들 수 있다. 차량류, 광산용기계, 선박 등을 생산하였다. 경인공업지대에는 철도차량공장으로 용산공작 영등포공장, 일본차량 인천공장,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공장으로 디젤자동차 인천공장, 광산용기계공장으로 홍중상공(弘中商工) 경성공장 및 인천공장 등이 있었다.

3) 부평공업단지의 실태

부평은 넓은 평야를 낀 농업생산지대였다. 1920년대에는 부평수리조합의 설치로 미곡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공업화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부평지역을 포함하여 경성과 인천 사이의 넓은 공간은 공업지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부평역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경인철도 역 가운데 가장 늦은 1934년도였다. 1934년 부천군 약대동에 경성전기주식회사 변전소가 세워져, 여기서 전주를 서운동-계산동-작전동-갈산동-부평역으로 송전하여 전기가 처음 들어왔다. 경인 간의 역사 중 부평역이 맨 마지막에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부평지역은 농촌의 영역이었다.

1934년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부평지구 272.2만 평이 공업용지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부평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지가 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였다. 1938년 오오사카 철사공장이 부평평야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부내면 마분리 부지 5만평에 대한 매수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인지대 공업화에 따라 경인선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여러 생산공장이 집중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천군에서는 부평번영회를 조직하여 경인 일원화 실현과 공업지대 형성과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동아일보』 1938년 6월 3일).

인천이 대륙병참기지의 중심으로 각종 공장이 진출하여 동양의 중심적 공업 대도시로 건설되어 감에 따라, 부평평야에도 계속 공장이 진출하였는데 1939년의 경우 인천제재주식회사 등 20여 개의 공장이 2,000여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동아일보』 1939년 7월 23일).

부평평야가 중공업 공장지구로 되면서 대소 공장이 집중 건설되자 이곳에 살던 6,249호의 농가가 농토를 잃게 되었다. 지주나 자작농은 토지보상을 받게 되지만 5,000여 소작 농가는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동아일보』 1939년 10월 11일).

조선총독부는 1940년 1월 경인시가지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인시가지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성시가지계획 구역의 서남쪽 끝에서 인천시가지계획 구역의 동북쪽 끝까지로, 시흥군 동면 전역과 서면 일부, 부천군 소사·부내·오정·계양면 전역과 문학·서곶면 일부, 김포군 양동·양서면 전역

과 고촌면 일부에 걸쳐 1억 605만3천 평에 달하였다. 1939년 2월 설립한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가 북한강 상류 화천과 청평에 댐을 축조하여 12만 kw를 발전하게 되면서, 일본고주파중공업 인천공장이 부평에 건설되고, 이웃하여 일본육군의 대전차 공장으로 인천조병창이 입지하면서 이들 공장과 연관된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 경인시가지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다.

경인시가지계획의 핵심은 7개의 공업용지 조성지구와 11개 주택지 경영지구, 그리고 부천군 부내면 부평역전 부근 832,000평의 토지구획정리지구 계획이었다.

경인시가지계획의 내용

《공업용지조성지구》

1. 구로지구 : 시흥군 동면 및 부천군 소사면 각 일부. 약 2,378,000평
2. 시흥지구 : 시흥군 동면 일부. 약 190,000평
3. 소사지구 : 부천군 소사면 일부. 약 947,000평
4. 부평지구 : 부천군 부내 · 소사 · 문학면의 일부. 약 2,949,000평
5. 서곶지구 : 부펀군 서곶면의 일부. 약 2,393,000평
6. 계양지구 : 부천군 계양면의 일부. 약 941,000평
7. 양천지구 : 김포군 양동 · 양서면의 일부. 약 753,000평

합계 약 10,551,000평

《주택지경영지구》

1. 구로지구 : 시흥군 동면 일부. 약 2,722,000평
2. 시흥지구 : 시흥군 동면 일부. 약 820,000평
3. 오류지구 : 부천군 소사면 일부. 약 605,000평
4. 괴안지구 : 부천군 소사면 일부. 약 945,000평
5. 소사지구 : 부천군 소사 · 오정면 일부. 약 4,180,000평
6. 고강지구 : 부천군 오정면, 김포군 양동면 일부. 약 1,248,000평
7. 부평지구 : 부천군 부내 · 소사 · 계양 · 문학면 일부. 약 4,462,000평
8. 서곶지구 : 부천군 서곶면 일부. 약 3,781,000평
9. 계양지구 : 부천군 계양면 및 김포군 고촌면 일부. 약 1,981,000평
10. 양천지구 : 김포군 양동 · 양서면 일부. 약 3,146,000평
11. 신정지구 : 김포군 양동면 일부. 약 756,000평

합계 약 24,646,000평

출전 :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238~241 쪽

공장은 영등포에서 부평역 사이에 늘어서고, 이에 따라 주택이 건설됨과 동시에 도로계획과 수도부설이 건설 중에 있어서, 완공되면 명실공이 조선의 중심도시로서 100만 인구를 수용하고 대공장의 집단적 건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착수한 것은 부평역 앞 부근 일대 약 83만 평의 토지구역정리였다(『동아일보』 1940년 1월 23일).

경인시가지계획에 의하여 1억만 평의 광대한 지역이 동양의 '맨체스터'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소공장의 건설을 위한 자재운반을 위해 동원령이 내려져, 부천군 일대에는 500개의 달구지와 마차가 망망한 평야에서 진군하는 대부대의 장사진을 이루는 장관을 연출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9년 11월 8일, 11월 9일). 부평평야가 공업지대화하는 순간이었다.

경인시가지계획에 따라 1차로 1939년에 계상한 220만 원의 총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1941년까지 부평지구에 공업지구와 주택지구를 완성하기 위해 550여만 평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나왔다. 부평지구 시설대강을 살펴보면 경인간 부평역 북쪽 2km 지점 200만 평의 광대한 지점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차 계획으로 매일 500입방미터의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380만 원으로 경기도 공업용수도로 공사에 착수하여 1941년 완성 예정이며, 동력은 한강수력전기사업이 진행 중으로 완성되면 이 지역에만 십수만 kw의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평역까지 경인선과 연락하는 철도선을 신설하고 경인선과 병행하여 경인간 전용 자동차도로의 축조와 경인복선공사도 철도당국에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조성 분양되는 공업단지는 약 941,000평, 주택지는 약 607,000평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40년 1월 26일).

이리하여 부평지역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특히 군수공장의 센터가 되었다. 부평지구의 공장들은 대부분 금속 및 기계공업에 속한 것인데, 부평에서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금속제품 제조업체로는 1939년 11월 설립된 청천동의 경성공작주식회사가 시작으로서 주로 수도용 강관을 생산했다. 또 자동차 조립생산을 위한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부평공장, 자동차 생산수리의 국산자동차주식회사 부평공장, 각종 기계생산을 위한 홍중상공주식회사 부평공장 등 비교적 대규모 공장들이 설립 가동되었다. 그 외에 화학공업, 식품공업, 요업 및 기타 공업의 군소생산업체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평지역이 군수공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39년 일

본육군조병창이 설립되면서였다. 현재 부평1동의 동아 · 대림 · 욱일아파트, 산곡3,4동의 미군부대, 현대 · 우성 · 동남 · 삼일아파트, 그리고 화랑농장이 있는 지대는 조병창의 군수기지였다.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부내면을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조병창의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하청업자는 關東組, 多田組, 玉操組, 淸水組, 間組 등 5개 업체가 맡았다.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근로보국대를 편성하여 이 공사에 투입하였다. 근로보국대는 시군별로 조직화하여 하청업체에 배치되었다.(경인일보 특별취재팀,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하권, 다인아트, 2001, 121쪽 ; 『부평사』, 155~156쪽)

육군조병창에서는 인천지역의 중화학기계공장의 지원으로 주로 소총, 탄약, 소구경화포탄약, 총검, 수류탄, 경차량 등을 제작하였다. 조병창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군인과 군속이 종사하였다. 공장종사자에게는 징용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주어졌다. 그 외에 조병창의 일부공정은 각지의 민간 하청공장에 위임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일본인이 경영한 민간하청업체로 함흥의 와타나베 철공소를 비롯, 인천, 신의주, 평양, 경성, 대구, 부산, 원산 등 전국에 걸쳐 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육군조병창의 생산품 및 월간생산능력은 소총 4천 정, 총검 2만 정,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000정, 차량 200량 등이다. 육군병기 외에 1944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잠수정의 급격한 수요에 대비하여,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을 감독하여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인천시사』 상, 1993, 418쪽).

일본육군조병창의 착공을 계기로 인천지역이 대륙병참화기지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1940년대에는 각종 군수공장까지 건설되어 종래 인천항의 공장지대이던 송현동 · 화수동 · 만석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인천의 매립지, 학익동 · 용현동 일대의 동부인천, 그리고 육군조병창을 위시한 부평지구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일제말기 부평지역 공장의 실태

명칭	소재지	생산품	자본금
동양제강	청천동	제강	5,890,920
부평금속공업공사	부평동	금속	300,000
조선베어링주식회사	산곡동	기계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산곡동	자동차부품	
홍중상공주식회사	부평동	차량, 광산기계	
디젤자동차공업주식회사	부평동	자동차 조립	
동경제강	부평동	제강	
광진정공	부평동	기계	
동양정공주식회사	산곡동	기계	
경성공작주식회사	청천동	수도용강관	
부평와사공장	청천동	와사	
(유)조선아미노산장유	부평동	장유	250,000
부평양조조합	계산동	양조	37,600
부평요업	부개동	요업	10,000
부평연와공업(합)	부개동	연와	
부평인쇄소	부평동	인쇄	
조선공무점	부평동	공무	

출전: 『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575쪽

부평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성격을 지닌 넓은 평야지대에서 일제말기에 이르러 공업단지로 완전히 환골탈태하였다.

5. 일제강점기 부평지역 사회경제의 변동과 그 의미

오늘날 부평지역은 부평도호부 관하의 넓은 평야지대 한복판에 있었으며, 자연히 농업생산지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시기 초 산림을 제외한 토지면적은 약 650여만 평에 이르렀고 밭보다는 논이 훨씬 많았다. 그렇지만 초평 등 황무지도 적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1899년(광무 3) 경인철도가 개통되어 부평역이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경성과 인천의 대자본가들이 토지에 투자하여 농장을 열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더 많았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 토지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통감부시기에 진행되었고,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에 걸쳐 부평군을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실험을 행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샘플 조사인 셈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부평군 지역에서 실시된 것이다. 측량 조사를 모두 종료한 것은 군내면, 동면, 서면의 3개 면이었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계획을 세웠고,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토지조사도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3개 면 이외의 부평군 지역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상품화가 활성화되었다. 지주의 토지는 더욱 늘었고, 자작농의 토지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하여 식민지 지주제가 확대되어 갔다. 1910년대 일본의 농업정책은 일본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작물화정책이었다. 일본의 산업화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 값싼 식량이 요구되었고, 그 때문에 일본은 개항 이후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미곡을 매입하여 갔다.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1910년대에는 미곡생산 이외에 양잠, 면화, 과수재배 등도 장려되었다. 부평지역은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작물의 재배에 일찍 눈뜰 수 있었다. 특히 친일파 송병준은 일본의 정책에 부응하여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자금을 부평의 토지매입에 투자, 농장을 개설하여 곡물생산뿐 아니라 양잠, 과수재배, 임업 등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1918년 일본 국내의 쌀폭동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으로부터 미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긴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에 의하여 전국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리관개시설을 구축하여 답의 확대를 꾀하여 미곡단작화를 추구하였다. 부평에서는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중소지주들이 연합하여 1923년 부평수리조합을 설립하고 수리관개시설을 마련하여 미곡의 증산을 꾀하였다. 이에 반해 식민지 지주제 하에 신음하던 부평의 소작농들은 1927년 부평농민조합을 결성하여 고율 소작료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지주제를 토대로 한 산미증식계획은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농촌안정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대 들어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고, 농촌 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업화 정책도 추진되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경성과 인천 사이에 1천만 평의 광대한 공업용지가 조성되었다. 이것이 경인공업지대이다. 그 가운데 소사지구 95만 평, 부평지구 270만

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등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대륙병참기지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부평지역에 각종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금속 및 기계공업에 속한 것들이 많았다. 부평지역이 군수공장으로 이름을 내게 된 것은 1939년 일본육군조병창이 들어서면서였다. 여기에서 소총, 탄약, 포탄, 경차량, 무전기, 심지어 소형선박까지 제작하였다. 부평지역은 대륙병참화기지정책의 군수공장 센터가 되었던 것이다.

부평지역에서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대륙병참기지로서의 군수물자를 생산하였지만, 이를 이용하는 지혜에 따라서는 근대산업화의 선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1960년대 부평지역이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공업단지의 선도가 되었던 것이다.

부평의 사회경제적 정체성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지대인 부평평야에서 식민지 말기 이후 부평공단으로의 변신이다. 일제의 토지정책과 부평 토지시험조사, 산미증식계획과 부평수리조합, 공업화정책과 부평공업단지 등 식민지시기 산업정책의 전형성, 선도성이 부평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제3절 일제강점기 부평지역의 항일운동

1. 부평지역의 의병 항쟁

1907년(융희 1)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의 강압으로 해산당하였다. 이는 일본에 항거할 수 있는 마지막 공적인 기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이 언명하였듯이, 조선에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기의(起義) 했던 '민군(民軍)'으로 '의병(義兵)'이 남아있었다.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그리고 1895~1896년에 걸쳐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의병이 그것이다.

군대 해산 이후 부평을 축으로 하는 경기도 각 지역들에서도 민군인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부평지역에 의병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1907년인 듯싶다. 1907년 11월 16일 조선주차군 북부수비관구사령관인 남작 오카자키(岡崎生三多田)가 통감부 경무국장 마쓰이(松井茂)에게 부평 등지에 출몰한 의병에 관해 보고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강화와 통진 장단 등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진의 일부가 경성(서울)으로 진출하는 통로인 부평지역에 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또한 1908년(융희 2) 5월에는 부평의 외각 지역인 김포 검단의 봉화리 부근에서 의병을 접하였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였다. 경성 헌병 분대 김포분견소의 상등병 2명이 순찰 도중에 봉화리 동남쪽의 소나무 숲속에서 십수 명의 의병이 집결하였음을 발견하고 교전하였다는 것이다. 20여 분 동안의 이 교전에서 양쪽 모두 전사자나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의병측에서 일종의 탐색전을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역의 의병이 부평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08년에 들어와서이다. 1908년 6월 일본군 보고에 의하면 부평 읍내에 20여 명가량의 의병이 출몰하자 부평 주재 일본 수비병 13명과 순사 3명이 출동하여 의병과 교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보고서에는 이때 일본군과 교전한 의병이 어느 의진(義陣) 소속인지는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일본군과 교

※ 이 글은 양윤모(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상근연구원)가 책임집필하였음.

전 중 불리해지자 총 7자루와 탄약 200발 등의 무기를 버리고 후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교전이 부평지역에서 의병이 전개한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교전인 것이다.

이때 부평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의병은 정용대(鄭用大, 1882. 2. 28~1910. 1. 26) 의진으로 보인다. 정용대는 대한제국군에서 장교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대해산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서, 창의좌군장(倡義左軍將)을 칭하고 무장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고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주요 활동 지역은 강화와 파주, 통진 지역이었다.

특히 정용대 의진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와 연합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윤인순(尹仁淳) 의진과 이은찬(李殷贊) 의진과 연합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실제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중 정용대 의병은 이은찬 의진과 함께 1908년 2월 27일 양주 석적면(石積面)과 동년 3월 2일 회암면(檜巖面)에서 일본 경찰 및 헌병들과 교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정용대 의진은 정용대의 체포와 이은찬이 의병 전쟁의 지역을 확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성으로 향하다가 용산역에서 일본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전력이 약화되었다.

부평 습격은 이처럼 전력이 약한 상황에서 전력 보충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정용대 의진 중 일부 의병은 일본군 혹은 일본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부평군 읍내 이모(李某) 집에 들어가 보급품을 확보하다가 일본군 수비대와 순사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때 의병 4명이 생포되었고 다수의 무기를 빼앗기고 후퇴하였다. 이 교전으로 정용대 의진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이때의 의병의 전력 손실이 커서 정용대 의진이 당분간 다시 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용대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한 인물 중에 이학선(李學善 : 1885~미상)이 있다. 이학선은 1908년 2월 경(음력) 정용대 의진에 투신하여 소 부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이학선이 참여한 기간은 3월까지로 짧았지만 동지 수십 명과 함께 부평지역과 김포 통진 등, 주로 경기도 서 ·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이학선은 이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08년 10월 13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5년형을 받았다.

부평지역 의병 항쟁과 연관된 또 하나의 인물은 이능곤(李能坤)이다. 이능

곤은 일찍이 강화의 지홍일(池洪一)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홍일은 강화도에서 태어나 강화도의 전 진무영진위대 병정으로 복무하다가 2년 만에 부교(副校)가 되었고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3년 역을 마치고 제대하였다. 강화로 돌아온 지홍일은 1908년 군대해산 이후 4월 말경부터 비밀리에 동지 4, 50명을 규합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지홍일 의진은 1908년 5월 경 부터 8월까지 주로 황해도 배천 연안 등 지역과 강화 지역 여러 섬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9월에는 또 다른 의진을 이끌었던 김봉기(金鳳基)와 호응, 연합하여 스스로 돌격진대장(突擊陣大將)으로 자칭하였다고 한다. 10월에는 강화 간점면(艮岾面)에서 강화분견대의 일본 헌병과 그 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부대와 3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또 같은 달에도 강화 외가면(外可面)에서는 문화재를 도굴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려던 일본인 고려자기 도굴범 6명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지홍일 의진은 1908년 말부터 개성과 해주 주둔 일본수비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1909년 초에는 일시적으로 부대를 해산하다시피 하였다. 이즈음 지용일은 군자금을 모집하려 동지 2명과 함께 경성을 향하다가 일본인을 1명을 살해한 일로 검문을 받은 자리에서 '돌격진대장(突擊陣大將)'이라 새긴 인장이 발각되어 개성서(開城署) 순사들에게 체포당하고 말았다.

이능곤은 지홍일 의진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08년 9월부터 10월 중에 이능곤이 인솔하는 일단의 의병은 강화 위량면(位良面) 인근과 서사면(西寺面) 증산지역에 나타나 강화주재 일본군의 동태를 살폈다. 이후 이능진 의병은 강화 전역에서 일본군 및 일본 경찰들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일로 일본군과 일본 경찰에서는 이능곤을 '수괴(首魁)'라 하여 그 체포에 혈안이 되어 이능곤과 그 부대를 추적하였다.

지홍일과 이능곤의 항쟁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군경은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들 의진을 압박하였다. 이 중 이능곤 의진은 일본군경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1908년 11월경에는 일시적으로 각각의 부대를 분할하여 강화와 배천, 연안, 부평 등지에 잠복하는 전술로 이에 대응하였다. 이후 이능곤은 11월 하순 부평에 잠입하여 추적하는 일본군경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능곤은 다음 달(12월) 경성으로 피신하였다가 추적해 온 일본 경찰에 의해 12월 14일 체포되어 인천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인천에서 신문을 받았던 이능곤은 부대 분할 때 비밀 무기 은닉 장소를 일본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하게 되었다. 이 때 일본 경찰이 압수한 무기류는 엽총 2정, 탄약 470발, 양총(군용) 12정, 보병용 33년식 군총 1정, 엽총용 탄알 20발, 피스톨 탄환 10발, 30년식용 탄약 66발,탄약고 2개, 총검 1본, 혁대 3개, 조선식 화약입 1개, 카키색 옷 10벌, 일본식포대 5개, 부대자루 7개 등이다.

이처럼 정용대 의진과 지홍일 의진 그리고 이능진 의병부대는 지휘부의 체포 등으로 거의 붕괴 상태에 놓여있거나 소집단으로 분할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1909년(융희 3) 이후 부평지역에는 소규모의 의병만이 출몰하고 있다.

1908년 12월 25일에는 부평 주화곶면 내촌리의 한 민가에 의병 5명이 들어와 소 한 마리를 가져 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부평 경찰서 순사들이 수색하였지만 의병들의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의병 중 한 명은 총기를 휴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1월 중순 경에는 부평군 수탄면 고척리에 의병 2명이 곤봉으로 무장하고 민가에 들어와 쌀과 이불, 은수저 등을 빼앗아 갔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은 또한 군자금까지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일본 순사들이 추적, 수색하였지만 종적을 찾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 부평 황어면의 한 민가에도 의병 6명(이 중 한 명은 권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곤봉으로 무장하였다고 한다)이 들어와 의류 11점과 소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어 1909년 2월에 들어와서도 부평지역에는 의병의 출몰이 계속되고 있다. 2월 14일쯤 부평 동면 박촌리에 의병이 출몰하였는데, 의병 4명(이 중 2명은 권총으로 무장하였다)이 민가에 들어와 소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보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병들의 행동은 일본군과 경찰들의 토벌 그리고 의병 지휘부의 부재로 인해 원활한 보급이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한편, 1911년 원산에서 체포된 의병장 강기동(姜基東, 1884~1911) 의 참모 중에 부평 사람 성복동(成福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성복동은 강기동 의진에서 이복인(李福仁), 고양 출신의 김문석(金文錫)과 함께 주축을 이룬 인물이다. 강기동은 경성 출신으로 대한제국군 기병부위(騎兵副尉)를 지냈다. 1907년 군대해산 이후 해산군을 규합하여 의병항쟁을 전개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일시적으로 위장 귀순하여 장단 일본 헌병대의 헌병보조원으로 있

었다.

강기동은 헌병대의 여러 상황들과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장단 헌병대에 포로로 있던 10여 명의 의병을 비롯해 다른 지역 의병들과 함께 헌병대의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본격적인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강기동 의진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황해도와 강원도까지 그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주로 포천, 양주, 회양, 통구 등을 다니면서 많은 일본군과 헌병 및 일본 경찰과 교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강기동 의진의 규모는 대략 1백명 쯤 되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 그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성복동을 비롯한 참모진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강기동 의진은 1909년 3월경, 남학서, 오수영, 임명달 등과 함께 연합 의진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주로 경기 중·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교전하거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하였다. 특히 1909년 9월 21일에는 양평 서종과 양주 마석에서 일본 헌병대와 교전하여 격퇴시키는 등 큰 활약을 하였다. 또한 11월에는 강화의 대표적인 의병 부대인 연기우(延起羽) 의진과 연합하는 데 성공, 포천 등지에서 일본 헌병대와 장기간에 걸쳐 교전하는 등 막강한 전투력을 유지하였다.

강기동 의진은 1910년에 들어서도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일본 헌병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의 지사(志士) 황현(黃玹)이 지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천금의 상금이 걸려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게 위협적인 활동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강기동과 그 가족의 원래 거주지는 경성이었는데 1909년 부평군 수탄면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측 보고서에는 가족 간의 불화가 그 원인이라 하였지만, 부평군 이주 이후 강기동과 그 가족의 행적을 보면 신분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강기동의 부친은 손자의 아비를 일본어를 잘하는 헌병보조원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몸이 불편한 것처럼 하면서 10여 일 동안이나 경성에 다녀온 후 그 일에 대해 명확한 시말(始末)을 말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행적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았다. 강기동 역시 야간에 비밀리에 부평 집을 방문하여 가족을 만나고 가는 등, 이들 가족의 행적은 마을 사람들이나 일본 경찰에 의문을 샀지만, 의병진을 이끄는 강기동은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군대해산 이후 부평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산당한 대한제국 군인과 백성들이 조직한 의병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한곳에 머물지 않고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또한 인근 지역의 의병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연합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제국의 도성인 경성(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대일 항전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중에서도 부평지역은 가깝게는 강화와 김포, 통진과 연계되어 있고, 좀 멀게는 장단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또 경성을 둘러싼 양주 지역과도 북한산맥과 그 지맥을 통해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성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상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전쟁을 전개하기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부평지역의 의병 항쟁은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인근 지역 의병들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것이다.

2. 부평지역의 3·1독립운동



황어장터에 세워 진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부평과 인천 지역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이 발발한 곳은 3월 6일(10일까지 전개되었다) 인천부였다. 이후 3월 22일에는 검단에서, 24일에서 28일 사이에는 계양(장기리, 계양면, 오류리)에서, 28일에는 남동과 문학에서 각각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4월 1일, 인천부 외리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 중에서 부평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월 24일 오후 2시 쯤, 장기리장(일명 황어장[黃魚場]이라 한다)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장기리장(이하 '황어장')은 부평 지역의 장시

(場市) 중에서도 규모가 큰 장이었다. 황어장은 3일장과 8일장이 서는 정기시장이었는데,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장시였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의하면, 황어장은 부평부(富平府) 황어면(黃魚面)에 속해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부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김포와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1800년대의 여러 『읍지』를 보면, 부평 지역에는 황어장 이외에도 발아장(發阿場, 3일과 8일), 기탄장(岐灘場, 4일과 9일), 신기장(新基場, 2일과 7일) 등이 있었다. 이 중 황어장은 1910년 국치(國恥) 이후까지 활발한 교역을 이루는 부평 지역의 대표적인 장시로 남아 있었다.

황어장의 이러한 역사성은 그만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어장은 1919년 3·1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특성 중 하나인 공개성과 집합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리고 황어장이 위치한 지역은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곳이라는 전문도 있다. 천도교는 1919년 독립운동의 촉발과 진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요소였다. 확인된 사실은 아닐지라도, 황어장터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심혁성(沈爀誠,1898~1958)이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도, 그런 전문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여러 관련 기록에 의하면,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쯤 황어장에서 심혁성을 비롯한 두세 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이 사전에 조직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경성에서 시작된 국권수복운동이 부평 지역에서도 일어났고,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판결문에 의하면 운동을 주동한 심혁성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탈취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고,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3·1독립운동이 서울에서 시작되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되자,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부평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기록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태극기를 준비하거나 민중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하는데 심혁성이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위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거사 날로 잡은 것 등도 역시 심혁성을

비롯하여 알려지지 않은 활동 모임이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보이는 학생 혹은 천도교 조직 등이 사전에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혁성 주도하에 벌어진 독립운동은 심혁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9년 3월은 전국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와 저항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일본 경찰이 파견되어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특히 황어장은 3·1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1914년 9월 총독부가 「시장규칙」에 의거, 행정 기관 및 경찰 기구로 하여금 장시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시적으로 탄압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황어장터 만세 운동을 주도한 심혁성 지사

심혁성이 일본 순사들에 끌려가자 시위대들 일부가 그를 구하려 몰려들었다. 이때 함께 시위를 하던 임성춘(林聖春)이 평소 황어장에서 약을 팔면서 얼굴을 익힌 순사들에게 심혁성의 석방을 교섭하였다. 그리고 시위 군중들에게는 계속 시위하도록 고무시키며 심혁성을 빼내도록 민중들의 기세를 고취시켰다. 이에 시위 민중들은 기세를 올리며, 심혁성을 연행하는 순사들을 일거에 둘러싸고 그를 구하려 몸싸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중들이 순사들 일행을 포위하고 심혁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순사들이 저항을 하며 무기로 위협을 가하자, 순사들을 둘러싼 군중들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주먹으로 순사들의 머리를 치는 등 저항을 하였다. 그리고 심혁성을 묶은 포승을 풀고 그곳에서 함께 탈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순사들이 극력 저지하였다. 이에 군중들은 맨주먹과 돌맹이로 추적하는 순사들을 가로막았다.

이때 순사들은 갑자기 무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순사들의 칼이 난무하였고, 이에 저항하던 민중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시위 중이던 윤해영이 머리에 심한 자상을 입는 등 민중들 몇몇이 칼에 맞아 부상당하였고, 이 중 이은선(李殷先)은 칼에 찔리고 신체 일부가 잘려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평화적 시위에 대해 잔인하게 칼로써 응답한 것이다. 심혁성은 체포된 상태로 인천경찰서 소속의 부내주재소(富內駐在所)로 끌려갔고 시위대는 참혹한 광경에 놀라 일단 해산하였다.

평화롭고 정당한 독립만세 시위를 지휘하던 심혁성을 일본 경찰이 체포한

것은, 이른바 보안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명목이었다. 그렇지만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드는 일이 그렇게 위협적인 행위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일제의 공공 기관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일본 순사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아닌 시위 현장을 단순히 주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취급을 하며, 니미야(二宮喜三次) 외 순사 3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온몸을 포승줄로 묶고 심혁성을 체포, 끌고간 것은 과잉 진압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심혁성 연행에 항의하는 시위 민중들을 잔인하게 칼로 찌르거나 몸을 잘라 살해한 것은 일본 경찰의 포악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은선이 순사들의 포악한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날 저녁 이은선의 친척 이담(李潭)이 이은선 사망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 일본 경찰에 항의 시위대를 조직하였다. 심혁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위대를 조직하는 역할을 이제 친족인 이담(李潭)이 맡게 된 것이다. 이담은 그날 밤 계양면장 안병혁(安炳赫)과 서기 이경응(李敬應)에게 부탁하여 통문(通文)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이은선의 죽음을 애통하는 자는 밤 12시까지 면사무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밤 12경 통문을 받은 각 마을 사람들 약 200명이 면사무소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때 통문 작성에 참여한 이경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담은 이경응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하였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 이담은 이경응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심을 품고 이경응이 이은선 살해에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 군중들을 이끌고 그의 집으로 갔다. 이경응의 집에서 그의 종적을 확인하지 못한 이담은 이경응이 경찰주재소에 자신들을 밀고하러 간 것으로 단정 짓고 그의 집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경응은 이때의 일에 대해 통문 작성에 참여한 것은 안병혁(安炳赫)의 부탁으로 이담이 부르는 대로 통문을 작성한 것뿐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안병혁은 이담의 협박으로 이경응과 임대규를 이담에게 소개하고 통문을 작성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위운동 당시 계양면장으로 있던 안병혁은 후일 재판정에서 황어장 독립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중요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면사무소 앞에 모인 200여 명 중, 100여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이경응의 집을 부순 이담은 다시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이때 전원순과 최성옥, 최춘일, 이금산(살해당한 이은선의 조카) 등이 선두에 섰다. 면사무소에 도착한 이담

과 시위대는 이은선의 죽음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민중들의 항의와 격렬한 시위운동에 대해 일본 경찰주재소는 결국 인천경찰서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인천경찰서에서는 경부 1명과 순사 10명을 부평에 급파하여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순사들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순사들이 무기를 동원하며 압박을 가해오자 그때서야 해산하였다. 이후 일본 경찰은 황어장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중들 중 야간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0여 명을 체포, 검거하였으며 이 중 32명이 인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부평의 황어장 독립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으나 체포된 지사들에 대한 공판은 6개월이 지난 1919년 9월 13일 예심이 이루어졌고,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이때 판결을 받은 인물은 총 6명이다. 처음 황어장 독립운동을 주도한 심혁성은 징역 8월을 언도 받았고, 2차 야간 집회를 주도한 이담은 징역 2년, 최성옥과 김원순이 각각 징역 10월, 임성춘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이때 적용된 법률은 보안법 위반이었다.

1919년 3월 24일 부평 황어장에서 발발한 독립운동은 서울에서 출발한 3·1독립운동이 인천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발발한 것이다. 장날을 거사일로 하고, 운집한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도자가 존재하는 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3·1독립운동인 것이다.

또한 부평지역의 독립운동은, 시위를 주도했던 주도자(심혁성과 임성춘, 이담 등)가 특정 종교에 속해있지 않았다. 물론 심혁성의 경우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문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시위에 참여한 민중들 역시 천도교나 기독교 등 종교와 연결되는 집단은 아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중들 대부분은 부평지역의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면서 경험적으로 친밀성을 지닌 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속력을 유지하고, 일관된 의지를 발휘하게 된 이유라 하겠다. 다음은 황어장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사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3월 24일 시위를 주도한 심혁성은 1888(고종 25)년 8월 5일 부평부 모월곳면 백석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24일 독립운동의 주모자로 잡혀 투

옥되었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지리산과 덕유산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약초를 팔아 연명했으며, 만주 등지를 내왕하며 독립투쟁에 헌신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국이 해방되자 고향인 한돌 마을로 돌아와 평생을 마쳤다고 한다. 임성춘은 황어장이 있는 장기리에 거주하면서, 황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서 매약업에 종사하다가 3월 24일 독립운동에 합류하였다. 민중들 앞에서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심혁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그를 구하는 데 앞장섰다. 이때 일본 경찰이 무차별로 휘두른 칼에 이은선이 살해되고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임성춘은 일본 경찰의 폭압에 맞서 시위대가 해산될 때까지 독립만세운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담은 장기리 인근의 이화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3월 24일 황어장에서 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이에 참여하였다. 이담은 시위 도중 6촌 간인 이은선이 일본 경찰에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통문을 통해 지역민들을 규합, 시위대를 구성하여 사건 전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어 면사무소를 습격, 일본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 사건으로 부내주재소에서는 본서인 인천경찰서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결국 일본 경찰의 무장 병력이 동원된 진압으로 이담은 체포되고 시위대도 해산당하고 말았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은 6개월이 지난 1919년 9월 13일 예심을 거쳐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때 판결을 받은 인물은 총 6명으로 심혁성이 징역 8월, 이담이 징역 2년, 최성옥과 김원순이 각각 징역 10월, 임성춘이 징역 1년, 이공우가 벌금 20원의 형을 받았으며 판결 근거는 보안법 위반이었다.

3

부평현대사





제1장 해방 후의 부평
제2장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
제3장 1960년대의 부평
제4장 1970년대의 부평
제5장 상업의 발달과 부평지역의 민주화 운동
제6장 경제변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



제3편
부평현대사

제1장 해방 후의 부평

제1절 해방과 일제 잔재의 청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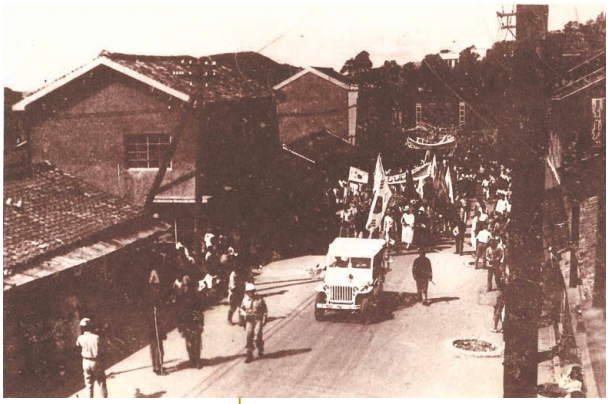
1. 해외동포의 귀환과 군정 하의 부평

1) 해방과 인천 · 부평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되었다. 광복은 소수 친일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한민족 성원 모두의 환희요 감격이었다. 1930~40년대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 치하의 고단한 현실에서 민족의 광복을 고대하던 모두에게 광복은 심훈이 묘사했듯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심훈, 「그날이 오면」, 1930. 3. 1) 환희의 날이었다.

감격과 흥분은 인천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복 전의 인천은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에 따른 최초의 개항장으로, 외국인 거류지인 조계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인천의 상징인 만국공원(자유공원)을 중심으로 구 인천의 중심부는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점령' 한 그야말로 식민지 근대화의 첨병 역할을 하던 전진기지였던 탓에 광복을 맞는 인천의 표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천은 일본인들이 항복을 앞두고 한국을 탈출하는 길

※ 이 글은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가 책임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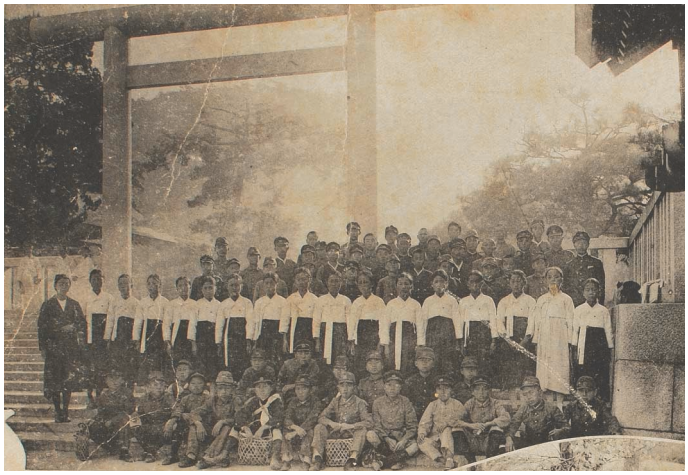
거리를 행진하며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인천시민들

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광복의 예감이 빨랐다.

…인천에서도 8월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 미군 공군기의 공습이 아주 사라진 것, 그리고 특히 만주에서 피난 온 듯한 일본인 행렬과 관동군 패잔병들의 출현 등이 그것이었다… 8월 14일에는 다음날 정오에 일본 천황의 특별방송이 있으리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시중에 라디오가 별로 없는 형편이라서 별로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고… 그래도 무슨 소식이라도 있나 궁금하여 집에서 라디오를 만져보았지만 부품이 없어 고장난 지 이미 오래였고 그래 할 수 없이 답동성당 신부방에 그 시간이 되어 가보니 벌써 많은 교우들이 모여 있었다. 12시에 일왕의 담화가 시작되었지만 그곳의 라디오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어서 궁금증만 더해 주었다. '항복이다', '아니다'라고 야단들이었는데, 마침 2시경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대공포 소리가 요란하게 인천 상공에 퍼지니 항복론은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저녁 6시쯤 경동거리 애관극장 앞길에서 요란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에 집을 뛰쳐나와 그리로 가본 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애관극장 앞길을 메운 군중은 수백 명이 넘었는데, 이들이 언제 준비하였는지 '조선독립만세'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내동 사거리를 지나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로 행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물결 속에서 나는 삼촌이 말했던 태극기를 처음으로 보았다. 감추어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알고 난 후에 급조한 것인지는 몰라도 일왕 담화 몇 시간 후에 그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 죽은 듯이 일제정치를 인내해 온, 바보스럽게만 보였던 조선인들에게 영원히 불타는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엄연히 살아 있었다는 역사의 증언을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고, 인중(인천중학교, 인용자) 생활로 인해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던 나는 그후 여러 날 동안 잠을 잊은 채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었다….

(임명방, 「인중 시절과 태극기에 대한 기억」,『황해문화』5, 새얼문화재단, 1994, 160~161쪽)



조선신궁을 참배중인 부평공립심상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 학생들
출처 : 「부평공립심상소학교 제28회 졸업앨범」(1940,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알리는 일왕(日王)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들리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36년간 일제의 억압 아래 억눌려 있던 한국인들은 광복의 기쁨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희의 물결을 이루었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저질러온 만행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자구책을 강구해야 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세화회(世話會)를 조직하여 잔류 일본인들의 단합을 꾀하는 한편,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재향군인들을 무장시켜 순사복장으로 각 파출소를 경비하는 등 한국인들의 응징에 대비하였다. 인천에서도 일본인들은 인천세화회를 조직하고 신변 안정과 본국 귀환활동을 전개했다.

2) 해외동포의 귀환

(1) 해외 전재동포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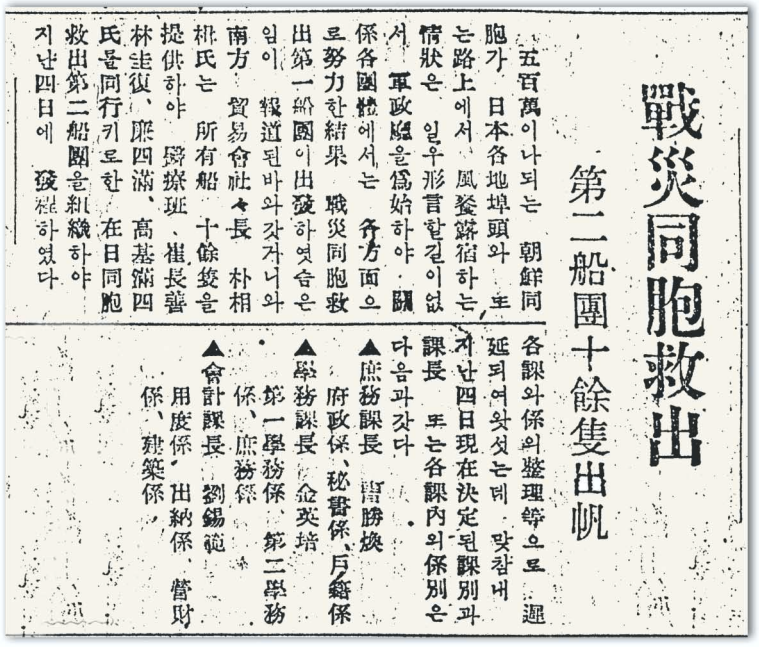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화북지역의 많은 해외 전재동포들이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다. 화북지역은 19세기 중엽 이후 한인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특히 중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인 북경과 항도(港都)인 천진에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으며 이주하여 정착하기도 했다. 1910년 망국 이후에는 독립운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다수 망명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화북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 각지의 한인들이 이곳으로 대거 강제 이주하였다. 그 결과 해방 당시 북경의 한인 수는 3만 5천여 명, 천진 1만 5천여 명, 태원 1만 5천여 명 등 많은 한인들이 화북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화북지역 한인의 귀환은 중국 내부의 정치상황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화북지역의 대부분은 국민당 정권의 '수복구(收復區)'

가 되었다. 당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 중화민국 행정원(行政院)은 사회 안정과 한중관계를 위해 수복구에 한인동포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 한인을 집중관리 하거나 송환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1945년 10월 3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 산하기구로 대동(大同)·귀수(歸綏)·석가장(石家莊)·청도(青島)·천진분단(天津分團)을 관할하는 화북구선무단(華北區宣撫團)을 조직하여 한인 귀환의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들의 귀환 경로는 화북 각 지역에 설치된 한교회(韓僑會)의 주도로 우선 한 곳에 집중시켰다. 이들은 천진의 당고항(塘沽港)을 통해 미국이 제공한 선박편으로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북경의 경우 한인들이 먼저 각지의 일교(日僑) 혹은 한교관리처(韓僑管理處)에 집중한 뒤, 천진 남화장(南貨場)으로 이송되었고 이들은 다시 당고항을 통해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인천에서 발행되던 신문으로 귀환동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중일보』에 따르면 중국 각 개항장에 집결해 있던 한인 전재동포는 상해 5,000명, 천진 2만 5,000명, 대련과 기타지역 3,000명으로 3만 5,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46년 3월 미군정은 당분간 일본에 남아 있는 전재동포의 귀환 수송력을 중국 지역으로 돌려 매주 약 3,000명씩을 인천항을 통해 귀환시키기로 결정했다(『대중일보』 1946년 3월 26일자).



戰災同胞救出

第二船團十餘隻出帆

五百萬이나되는 朝鮮同胞가 日本各地埠頭와 또는路上에서 風餐露宿하는 情狀은 일우形言할길이없서 軍政廳을爲始하야 關係各團體에서는 各方面으로努力한結果 戰災同胞救出第一船團이出發하엿슴은 임이 報道된바와갓거니와 南方 貿易會社々長 朴相桓氏는 所有船 十餘隻을 提供하야 警察班、崔長善 林圭復、康四滿、高基淵四氏를同行키로한 在日同胞 救出第二船團을組織하야 지난四日에 發程하였다

各課와係의整理等으로 遲延되여왓섯는데 맛참내 지난四日現在決定된課別과 課長 또는各課內의係別은 다음과갓다

▲庶務課長 曺勝煥
府政係、秘書係、戶籍係

▲學務課長 金英培
第一學務係、第二學務係、庶務係

▲會計課長 劉錫範
用度係、出納係、營財係、建築係

전재동포의 귀환을 알리는 해방직후의 신문기사(『대중일보』 1945년 10월 7일자)

당초 미군정의 계획은 1946년 5월까지 중국지역 한인 전재동포들을 전부 귀환시킨다는 것이었다. 1946년 3월 19일 미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정치고문 랭던은 본국의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3월 14일 현재 중국에서 귀환한 조선 전재동포의 수가 11,53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포의 다수를 차지하는 동북 만주 지역은 제외되었다. 1946년 4월 14일 중국의 전재민 송환을 담당하는 미군대좌 리처드 위트맨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은 1만 2,000명이며 현재 5,000명이 대기 중이고 대만 등지에 있는 한인들도 머지않아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주에 관하여는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느니만큼 단언할 수 없다"라고 이러한 사정을 전하고 있다(『대중일보』 1946년 4월 15일자). 이는 만주에서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정의 개입이 불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화북 지역의 전재동포들이라고는 해도 이들의 처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10만에 달하는 화북지방 한인 전재동포들은 여러 지역에 나뉘어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찍이 북경과 천진, 당산(糖山) 등 대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의 형편은 국내보다 한결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촌 지역도 5, 6년 이상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산 지역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개척한 지 2, 3년이 채 되지 않은 곳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데다, 일본점령군과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현지 중국인들의 박해도 심했다. 이들 수만 명이 해방 직후 맨몸으로 피난하여 북경과 천진지역으로 쇄도했던 것이다.

패전에 따른 일본군의 퇴각,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때문에 이들의 귀환은 천진에서 인천으로 가는 해로가 유일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1945년 11월 말 이 지역의 전재동포들을 인솔해 인천항에 입항한 최철은 인천미군정 당국에 화북지역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천진과 청도 등지에 미군 수송선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대중일보』 1945년 12월 4일자).

인천으로 귀환한 전재동포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 동포들이었지만 일본에서 인천으로 귀환한 동포들도 적지 않았다. 중국과 달리 일본은 패전 후 미군에 점령되면서 재일 한국인의 귀환은 한국 재류 일본인들의 송환문제와 맞물려 현지의 미점령군 총사령부(GHQ)와 일본정부 간에 비교적 신속하게 이

루어졌다. 이에 대한 미 점령당국의 입장은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일본인들의 이동은 가능한대로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인 송환과 조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한국의 미군 점령지역내 민간 행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방면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최초 기본훈령」(1945년 10월) : 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 · 김국태 옮김, 『해방3년과 미국 I :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1984)으로 한국 재류 일본인의 송환이 우선되는 것이었다. 즉 한국인의 귀환은 일본인들의 송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였다. 귀환지도 귀환자의 고향, 즉 귀향지가 경상남북도나 충청북도인 귀환자는 선기 · 박다 · 함관 · 무학의 항구에서 부산항으로, 귀향지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인 귀환자는 사세보항에서 군산항이나 목포항으로, 귀향지가 경기도나 강원도인 귀환자는 사세보항에서 인천항으로 수송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본지역 전재동포들 대부분은 가까운 부산으로 귀환했다. 따라서 일본지역 전재동포들이 인천항으로 귀환한 것은 부산항이 갑작스러운 물동량 폭증과 사고 등으로 입항이 곤란했던 초기에 국한되었다. 1945년 12월 28일 3,000여 명, 이듬해 1월 9일 3,000여 명, 그리고 1월 21일 1,600여 명의 일본지역 전재동포가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1946년 1월 10일에는 멀리 하와이에서 2,531명의 '조선청년'들이 인천항으로 귀환했는데(『조선일보』 1946년 1월 12일자), 이는 일본군에 의해 징병, 지원병, 학병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군인들에 대한 송환의 성격을 띠었다. 8월 8일 역시 일본군에 징집되어 연합군에 포로로 잡힌 105명의 조선인 병사들이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송환되었다(『조선일보』 1946년 8월 10일자). 이보다 앞서 6월 13일에는 일제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전재동포 1,903명이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귀환했다(『서울신문』 1946년 6월 3일자 · 6월 13일자).

해외 전재동포의 집단적 귀환은 1946년 말까지 일단락되었다. 1945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말까지 인천에 귀환한 전재동포는 6만 5,7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출발 지역별로 보면 중국 4만 4,772명, 일본 1만 6,007명, 남양군도 5,700명으로 중국 화북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947년에도 귀환 전재동포가 없지는 않았으나 집단적 귀환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인천미군정 외사처 집계에 따르면 1947년 10월 말 현재 인천에 들어온 귀환 전재동포의 총 수는 67,394명으로(『대중일보』 1947년 11월 21일자) 전년에 비해 1,600여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방 직후 인천항에 입항한 해외 전재동포 수송선 현황

년도	월일	출발지	입항인원
1945년	11월 5일	중국 대련항	미상
	11월 말	중국 천진항(북경, 천진, 당산)	3,000여 명
	12월 28일	일본	3,000여명
1946년	1월 9일	일본	3,000여명(3척)
	1월 10일	미국 하와이	2,531명
	1월 21일	일본	1,600여 명
	2월 1일	중국 청도	2,000여 명
	2월 4일	중국 상해	300여 명(광복군)
	2월 10일	중국 천진	2,200여 명
	2월 16일	중국 천진(북경)	2,011명
	4월 16일	중국 청도	1,600여 명
	4월 20일	중국 청도	1,500여 명
	4월 25일	중국 천진	1,471명
	4월 28일	중국 천진	1,476명
	4월 29일	중국 천진	1,651명
	5월 6일	중국 천진	3,378명
	5월 6일	중국 천진	1,294명
	5월 11일	중국 천진	1,200여 명
	5월 15일	중국 천진	4,585명
	5월 22일	중국(태고, 상해, 광동)	8,218명
	5월 29일	중국 천진(천진, 북경)	1,300여 명
	6월 13일	싱가포르	1,900여 명
	6월 19일	중국 상해	791명
	6월 21일	일본	461명
	8월 8일	미국 하와이	105명
	12월 27일	중국 천진	2,162명
1948년	5월 11일	중국 천진(만주)	1,100여 명
	5월 24일	중국 천진(만주)	1,216명
	6월 7일	중국 천진(만주)	1,090명
	7월 30일	중국 천진	1,200여 명

출전 : 『대중일보』 1945년 10월~1946년 12월; 『조선일보』 1946년 1월 12일자, 2월 12일자, 5월 22일자, 6월 23일자, 8월 10일자, 1948년 5월 12일자, 6월 10일자; 『동아일보』 1946년 2월 5일자, 5월 14일자, 5월 23일자; 『서울신문』 1946년 4월 22일자, 6월 13일자; 『경향신문』 1948년 5월 12일자, 5월 30일자, 8월 1일자.

(2) 월남인의 유입

해외 전재동포의 대규모 귀환이 하나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 1946년 후반부터 북한으로부터 이른바 '전재(戰災) 월남인'의 남한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는 주로 전재민 혹은 전재동포라 하였고,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는 '월남인(越南人)' 또는 '이재민(罹災民)'으로 불렀지만(『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52호, 1947년 9월 26일, 2쪽), 대개는 이들까지 포함하여 전재민 또는 전재동포라고 칭했다. 이는 월남 후 이들이 처하게 된 사회·경제적 처지가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호(要救護) 대상자라는 점에서 귀환 전재동포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원래 전재민(victims)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직·간접적 피해자라는 의미로 세계대전에 연루된 전지구적 차원의 피해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한국현대사에서는 일제의 수탈정책이나 강제동원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했다가 해방 후 귀환하는 집단(repatriates)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월남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1945년 일제 패전 후 남과 북이 미·소 양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된 뒤 북한주민 중 일부가 월남했다. 대체로 점령 초기에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의 월남이 있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에는 기독교인과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월남이 이루어졌다. 이어 북한 토지개혁으로 지주를 중심으로 한 불만세력의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격변의 불안 속에서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월남도 크게 증가했다. 주민들의 월남에 대해 북한지역의 정권(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과 소련군은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어하지는 않았다.

특히 1946년 중반 이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종교 탄압 같은 사회주의체제 정비과정에서 남하하기 시작한 월남인의 규모는 같은 해 말경 이미 40만 명을 돌파, 전체 귀환자의 4분지 1을 넘어서고 있었다(『대중일보』 1947년 1월 12일자). 월남인의 급증에 당황한 미군정 중앙식량행정처는 1947년 5월 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배급하던 식량을 1인당 1작씩 줄여 월남인 식량으로 투입, 이에 대처하기로 하는 등 식량 조달에 골몰했다(『대중일보』 1947년 5월 8일자). 동시에 장기적인 식량대책으로 귀농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5월 7일 미군정 보건후생부는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월남인 '이재동포' 구호를 위해 청단(靑丹), 토성(土城), 개성(開城), 의정부(議政府), 동두천(東豆川), 춘천(春川) 등에 임시 이재민구호소를 설치하고 요구호자에게 식량과 의복, 무료승차권 등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대중일보』 1947년 5월 8일자). 미군정은 이들 수용소를 각 도(道)의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동아일보』 1947년 5월 21일자)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용소를 설치, 서울을 비롯한 도시인구 집중의 억제를 시도했다. 마침내 서울시는 1947년 7월 1일부터 월남인의 서울거주를 금지하고 이들을 일정비율로 각 도에 강제 분산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 각 도의 분산 비율은 충청북도 5%, 충청남도 10%, 경상북도 20%, 경상남도 10%, 전라북도 20%, 전라남도 20%, 강원도 10%, 경기도 5%였다. 이들이 일단 할당지에 도착한 후 서울시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시 당국은 서울시 거주를 보건후생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친척 명의로 도 보건후생국에 서울시 거주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시 당국은 해당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친척의 능력을 조사한 뒤 거주 여부를 도 보건후생국에 통지하기로 되어있었다(『경향신문』 1947년 7월 9일자; 『독립신보』 1947년 7월 9일자).

미소공동위원회의 공전이 거듭되고, 남북간 냉전의 기운이 감돌면서 미군정은 수용소 단계에서부터 월남인들에게 검역과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무처는 북한으로부터의 월남인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후생국 관할로 38선 각지에 이재민수용소를 설치, 경찰과 경비대 등의 공조 하에 월남인을 20인씩 강제 수용하는 한편, 검역과 기타 신원조사를 한 후 "사상적 용의가 없는 자에 한하여 남조선에 이주시켜 증명서를 발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재민수용소를 거치지 않고 서울에 직접 들어오는 월남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단독으로 증명서를 교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인이 대규모 서울로 유입되자 서울시에서 다시 이들의 증명서 발부를 허가하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미군정 구호국을 거쳐 최근 수용의 증명을 받도록 조치하였다(『대중일보』 1947년 7월 12일자). 여기서 '특별한 경우' 란 신원에 이상이 있거나 '사상적 용의가 있는 자' 의 남하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947년 5월 전후로 쇄도하는 월남인 가운데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5만

여 명에 달했다. 인천에 소재한 관할 제1관구 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중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전재동포 수를 54,344명으로 집계하면서, "이 숫자는 (이재민)수용소 경유임으로 이 외에도 동등 수 이상의 월경자가 예측된다"고 부연하였다(『대중일보』 1947년 7월 10일자). 1947년 4월 말 현재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인구가 45만 명으로 집계되고(『동아일보』 1947년 5월 31일자), 같은 해 5월말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월남인 수가 11만 2천여 명이라는(『대중일보』 1947년 7월 12일자)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월남인이 인천지역에 무려 5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월남인의 경로는 주로 배편으로 옹진을 출발하여 청단으로 내려와 청단에서 기차를 이용, 토성을 거쳐 개성에 이르는 길이었다. 월남인들은 이 개성구호소를 거쳐 서울과 인천으로 유입되었다. 출발 지역은 평안남북도가 대부분인데, 이 지역은 토지개혁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하반기 이후 월남인들이 남하하면서 침구를 갖추고 최소한이나마 필요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되는데, 이는 중국 화북지방 및 만주지역의 해외 전재동포들 대부분이 적수공권(赤手空拳)인 채 귀환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개성구호소'를 직접 취재한 『대중일보』 특파원의 르뽀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전재동포의 코스는 대개 옹진서 청단으로 배로 건너와 청단서 비로소 기차를 타고 토성(土城)을 거쳐 개성에 이른다고 한다. 개성구호소를 거쳐 남하한 전재동포 총 인원은 동소 개소이래 8개월간에 약 만명(원문대로-인용자)이고 얼마 전까지는 하루 1, 2천 명씩 몰려들었으나 일기가 추워진 요즈음은 부쩍 줄어 하루 평균 2, 3백 명씩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먼저 월경한 전재민 가족들로 요즈음 월경하는 총 수요의 약 7할을 점하는데 도별로 보면 평안남북도 신의주 정주 선천 강계 등지에서 떠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재민 숙박소는 미군천막을 치고 내부에는 접개 침대가 2열로 놓여 있다. 천막수는 총 82개인데 한 천막에 35명 내지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침구로는 미군담요를 한 사람 앞에 2개씩 주고 있다. 늦은 가을까지는 이것으로 방한이 되었으나 앞으로 엄동에 대비하고저 천막을 이중천막으로 하고 땅을 석자 가량 파서 통겨와

공석을 펴서 온돌 대용으로 방한여비를 하기로 되어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천막을 친 움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 수용소는 국립인 만큼 구제품과 식료품이 배급되는데, 구제품은 거의 운라 구제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월경하는 전재민은 거의 침구와 우선 입을 옷가지는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다고 한다. 현금도 거의 천 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한다. 월경해 오는 전재민의 영양상태를 보면 대개 좋지 않으나 그렇다고 수용소에서 병이 생겨 눕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다(『대중일보』 1947년 11월 18일자)

수용소에 들어온 이재(罹災) 월남인은 우선 검역소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숙박소에 보내져 외무처에서 조서를 꾸미고 이주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 가운데 먼저 월남한 가족이나 남한에 친척 또는 동거할 처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의 제한 없이 희망대로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남한에 연고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대전, 대구, 광주 기타 남한 각지로 보내졌다. 수용소 체류기간은 짧게는 보통 2일 안팎이었고 열차 등 수송수단이 여의치 못하면 2주일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들의 직업은 미군정 노동부에서 알선했다(『대중일보』 1947년 11월 18일자).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월남인 통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은 월남인들이 들어온 것은 항도(港都)일 뿐더러 서울과 인접한 공업도시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미군의 상륙과 군정

(1) 미군의 인천상륙

광복의 감격 속에 인천은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미군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처음 점령한 것은 제24군단 7사단 예하의 제17 · 32 · 134 보병연대였다. 미군의 남한 점령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인천과 서울 주변은 즉시 점령할 지역이며, 둘째 38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략 반경 50마일 이내로 북쪽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미군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9월 8일에 육군 선도대가 인천에 도착했으며, 이튿날 늦게 7사단의 병력과 장비의 하역이 완료되었다. 그 뒤 인천 지역은 제17보병연대에 인계되었다.



부평에 주둔해 있던 ASCOM의 일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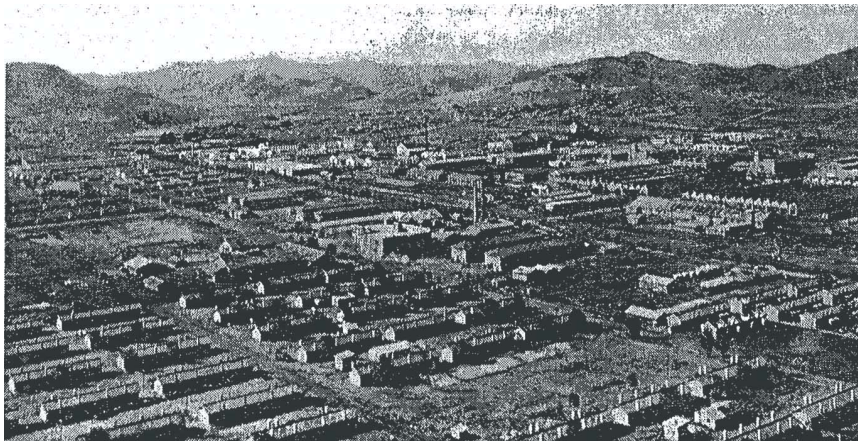
당시 미군은 인천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 무장한 많은 일본군 장교와 병사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부두 주변의 주요 교차로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일본인 경찰이 경비를 서거나 말을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소총으로 무장하고, 착검하고 있었다. 미군은 일본인 경찰들의 경비 때문에 한국인들의 대규모 시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군의 인천상륙은 인천 시민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을 남기면서 이루어졌다. 바로 미군과의 주요한 첫 사건이 미군이 상륙하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인천 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의 보안대, 노동조합원들은 미군의 인천상륙을 환영하기 위해 연합국기를 들고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에 일본인 경찰들은 환영나온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 두 사람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포한 일본인 경찰들은 미군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는 커녕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남한 첫 점령인 인천상륙은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에 남겼고 미군은 이러한 사건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남한점령에 들어갔다. 미군의 남한점령은 각 지방에 대한 미 전술군의 단계적인 군사적 점령과 병행하여 중앙에서의 군정대에 의한 미군정 체제의 구축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었다. 미 전술군의 군사점령은 1945년 9월 8일 인천상륙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미 전술군이 각 지방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각 지방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중부지방은 7사단, 호남지방 6사단, 영남지방 40사단으로 각각 편제되었다. 당시 인천은 미군이 상륙한 지역이고 서울과 가까운 인접 지역이었으므로 일찍부터 미군의 점령을 받게 되었다. 미 전술군의 군사점령의 제1단계는 제7사단의 서울 · 경기지역 점령이었다. 서울 · 경기 지역 점령은 9월 12일부터 시작되어 23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서울 주변 50마일 둘레의

개성과 수원, 춘천이 포함되었다. 제7사단의 3개 연대와 제24군수지원단(ASCOM 24, 인천지역)이 중심이었다. 미군은 서울과 부산, 전주에 각각 사단사령부, 주요 시에는 연대본부를 두고 예하 각 대대가 관할지역을 담당하면서 분견대를 설치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ASCOM 일대 모습(1950)

인천 지역의 점령 임무를 맡은 제24군수지원단(ASCOM 24)은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을 접수한 후 1945년 9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1950년 6월 27일 철수할 때까지 남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요 보급창으로 기능하였다.

(2) 미군정의 실시

인천은 미군의 첫 점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미군의 등장을 실감한 지역이었다. 인천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는 중요성과 함께 교통도 원활한 지역이었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당시 미군이 인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천지역의 행정권과 치안권을 접수, 장악하는 일이었다. 즉 구체적으로 인천지역의 경찰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일제시기 총독정치를 대체하여 새로운 지방정부, 즉 인천부(仁川府)를 개편하고 새로이 조직하는 일이었다.



인천시청 전경(1950년대)

해방 직후 인천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정국을 틈타 치안교란, 경제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악랄한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일제하에 임명된 관제적 정회장(町會長, 동장)을 중심으로 인천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정(町)연합회 결성을 시도했으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이들은 9월 30일 경에 제2차 모임을 갖고 대표 2명을 인천 미군정 장관 스틸맨 소좌에게 보내 인천시의 정책과 집회 허가를 요청하게 했다. 집회 허가를 얻은 정회장들은 정회장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미군정 관리인 모스 대위가 "이 회합은 시장을 선출하는 회합"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당시의 정회장들은 일제하에 일본인들에 의해 임명된 친일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해방정국의 민의를 대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선출의 자격도 없었다. 이에 미군정은 10월 4일에 정회장들을 파면하고 시장 선거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1. 관선 정회장으로 구성된 일본식 정회제를 폐지하고,
2. 잠정적으로 관선 정회장제를 마련하는 한편 정회장을 각 반(班)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임할 것.
3. 인천부 정회장연합회를 조직한 다음 그 연합회로 하여금 미국식에 따라 부윤(府尹, 시장) 후보자 7명을 공천케 할 것.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시장으로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각 반원 회의에서 각 호마다 한 표씩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반장을 선출하고, 반장이 다시 정회장을 선출하였는데, 곳에 따라서는 모든 정민(町民)이 모여 직접 선거로 선출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정회장과 인천시의 관료인 각 과장 9명을 합한 총 98명이 10월 6일에 모여 7명의 시장후보자, 즉 박남칠(朴南七: 좌익), 조봉암(曺奉岩: 좌익), 이승엽(李承燁: 좌익), 김용규(金容奎: 좌익), 장광순(張光淳: 우익), 임홍재(任鴻宰: 우익), 김세완(金世琓: 우익) 등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임홍재가 선출되었다. 미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천시장에 임명된 임홍재는 일제 때 간이교원양성소를 졸업한 제3종 교원이었는데, 후에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인천부 농림계장을 거쳐 연천군 근로동원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고 다시 인천부 농림과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지기반이 약한 채 인천시장에 선출된 임홍재는 주된 업무별로 자신을 보좌할 도원섭(都遠涉: 상공), 이필상(李弼商: 실업노무), 이원춘(李元春: 정치), 최병욱(崔炳旭: 사회교육) 등 4명을 인천시 촉탁으로 임명했다. 한편 식민관료 출신을 시장으로 최종 승인한 미군정은 중앙의 미군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천에서도 자문기관인 32명으로 구성된 고문회의를 설치하였다.

1945년 10월 20일의 정회장회의에서 시 고문을 선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하고, 23일에는 정회장으로 조직된 고문 선출 전형위원 30명이 고문후보자 60명을 군정에 제출하게 하였다. 군정장관과 시장은 이 가운데 32명을 고문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명된 인천시 제1대 고문 32명의 명단,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은 다음과 같았다.

1. 김은현(金殷鉉): 미곡업, 곡물조합 상임이사(1945. 11. 30). 우익.
2. 김승태(金承泰): 의사. 우익.
3. 김성국(金成國): 조선상업은행 인천부지점장(1945. 11. 8), 인천시 상임고문(1946. 5). 우익.
4. 이열헌(李烈憲): 상업, 한국민주당 문교부장.
5. 권정석(權正奭): 조선은행 인천시부지점장(1945. 11. 8), 노무조정위원(1946. 2. 15), 우익.
6. 전두영(全斗榮): 상업, 한국민주당 인천시 감찰부 위원장.
7. 김진갑(金晋甲): 부천양조(주) 대표.
8. 하상훈(河相勳): 인천시 상임고문(1946. 5), 기독교인, 일제하 동아일보 제1대 지국장, 신간회 인천지부장, 인천상공회의소 평의원(1923~24, 1935~1940), 한국민주당 인천시 총무부장.
9. 홍원표(洪元杓): 곡물조합 이사, 혁밀공사 대표(1945. 12. 2), 우익.
10. 송두후(宋斗厚): 계림양조 대표, 우익.
11. 이구범(李九範): 상업, 적산관리국 공공재산과장(1945. 11), 적산관리국장(1946. 4. 21), 우익.
12. 장석진(張石鎭): 인천농산(주) 감사(1946. 7. 2), 우익
13. 정문환(鄭文煥): 의사, 우익.
14. 정달용(鄭達鎔): 지주, 우익.
15. 양제박(梁濟博): 내외무역 대표, 한국민주당 인천시 부위원장.

16. 전승휘(全承輝) : 지주, 우익.
17. 심원응(沈遠應) : 지주, 우익.
18. 서상혁(徐相赫) : 지주, 우익.
19. 석복균(石福均) : 상업, 우익.
20. 조종식(趙鍾湜) : 지주, 한국민주당.
21. 이범진(李凡鎭) : 기독교인, 일제하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인천 제3대지국장. 한국민주당 인천시 사무국장.
22. 신태범(愼兌範) : 의사, 인천시 상임고문(1946. 5),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부의장 사임(1946. 3).
23. 김용규(金容奎) : 인천부회 의원(1934. 3~1935. 5, 1943. 5~해방직전), 인천시 인민위원회위원장.
24. 박남칠(朴南七) : 일제하 미곡상조합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25. 심관섭(沈觀燮) : 지주, 우익.
26. 송헌택(宋憲澤) : 지주, 우익.
27. 정창수(鄭昌秀) : 상업, 우익.
28. 김세완(金世玩) : 변호사, 적산관리국장(1945. 11), 노무조정위원(1946. 2. 15), 우익.
29. 정대현(鄭大賢) : 대화양조 대표, 우익.
30. 이명호(李明浩) : 인천부회 의원(1943. 5~해방직전), 지주, 우익.
31. 이보운(李寶云) : 상업, 인천시 인민위원회 총무부장.
32. 심백섭(沈百燮) : 지주, 우익.

(출전 : 『대중일보』 1945년 11월~1946년 8월의 기사; 이윤희, 「미군정기 인천에서의 좌·우투쟁의 전개」, 『역사비평』 1989년 봄호, 199~200쪽)

그러나 고문회의는 형식적이며 실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 대한 허약한 대표성으로 인해 출범 때부터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여(『대중일보』 1945년 11월 3일자), 회의조차 열린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미군정은 고문회의의 비현실성, 비실효성을 무마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946년 5월에 유사시에 고문회의를 대표한다는 상임고문제를 실시하여 32명의 고문 가운데 이명호, 하상훈, 신태범, 김성국, 김용규 등 5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인천 미군정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행정권 못지 않게 치안권의 장악에도 힘을 기울였다. 당시 인천지역은 일본인 경찰의 기능이 정지된 뒤,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의 보안대가 중심이 되어 자치적으로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미군정은 경찰을 조직하여 치안권을 확보하고자 일제 때 경기도회의원을 지낸 김윤복을 초대 인천 보안서장에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미군정은 우익인 한민당 인천지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민당 인천지부 총무부 집행위원 이범진 등은 김윤복의 서장 사퇴를 요구했고, 김윤복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미군정은 한민당 인천지부에 순사로 채용할 인물의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요청에 따라 한민당은 순사를 지원하는 청년 183명을 선발하여 제물포 보안서에 추천했고, 이들에 대한 채용시험을 치루기로 결정했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20일자).

미군정은 1945년 11월 들어 인천경찰서의 부서체계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서는 서장 김윤복, 사법주임 강원규, 보안주임 이근춘, 외근주임 이조욱, 경무주임 이임옥, 경제주임 이재영, 정보주임 박화수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경무주임에 이임옥을 임명한 것인데, 이임옥은 인천보안대의 대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는 미군정이 광복 직후 인천보안대와 건준지부의 치안활동을 일정하게 흡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 미군정은 11월 중순에 들어서 인천경찰서의 부서와 간부를 개편하였다. 서장 김윤복, 서장대리 겸 교양담임 박한춘, 경무주임 이창우, 보안주임 이근춘, 사법주임 강원규, 정보주임 김장흥, 위생주임 전정윤, 외근주임 이조욱, 경비주임 강종구 등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제하의 경찰출신이거나 우익 일색이었다.

미군정은 경찰조직을 장악, 정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까지 남아 있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군정의 치안확보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의 행동을 차단하는 일도 추진했다. 미주둔군 헌병대는 10월 7일 일본인인 인천 부두국장 등을 검거하여 인천공안부에 유치하고 취조했다. 또한 당시 미군방첩대는 이미 한국인의 제보를 통해 일본군 사병으로 근무했던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합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 항복 뒤 세관에 복귀, 출석기록을 조작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에서 근무하는 전 일본군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12명이 구속되었고 뒤에도 인사기록 조작에 관

한 조사가 계속되어 관련자들이 미군에 체포되었다.

또한 전 인천경찰서의 일본인 경비주임 등이 모의하여 장총 230정과 탄약, 수류탄 등 무기를 매몰하다가 발각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밀항을 기도하다가 부두연맹에 발각되어 미군 헌병에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10일자). 이밖에 인천상공회의소 부회두, 경기도 경제회 이사, 인천부회 의원으로 인천지역의 거물이었던 김태훈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공안서에 소환되어 유치되었다. 인천 미군정의 이러한 조치는 10월 27일 전 부윤을 비롯한 일본인 귀환장병 3천 8백여 명이 일본으로 철퇴하면서 일단락되었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28일자).

한편 강화에서도 예외 없이 미군정이 신속하게 시행되었다. 해방 후 1개월 뒤에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강화 지역의 미군정관에 피클 대위, 군수에는 홍재용(洪在龍), 경찰서장 김추성(金樞星) 등을 임명하였다.

제2절 공장자주화 운동과 조병창

1. 군정 하의 경제와 부평 조병창

1) 해방 직후의 경제와 지역사회

(1) 미군정기의 경제 실태

8·15광복은 일제 치하 한국의 낡은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수립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미군정기 동안에 생산이 위축되고 물가가 폭등했으며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혼란이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경제질서의 재정립 방향을 놓고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우선 미군정기를 통해 대외경제관계가 재편되었다. 광복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일제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권 속에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일익을 담당

※ 이 글은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가 책임집필하였음.

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무너지고 한국의 국민국가가 성립되었으나 미소의 분할점령에 따른 분단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남북경제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야기했다. 미군정기는 한국 경제가 내적으로 급격하게 변모된 시기였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주계급이 쇠퇴했으며 일본인 자본가들이 철수한 자리에 한국인 자본가층이 부상했다.

한국경제의 내부 재편과정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졌던 것은 이른바 귀속재산(歸屬財産, vested property)의 처리와 토지문제였다. 귀속재산은 적산(敵産)으로도 불렸는데, 일본인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 것은 1945년 12월 6일의 미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해서였다. 이들 문제의 처리방식은 한국의 경제체제를 확정짓는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좌·우익을 막론하고 이 문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좌익 측은 적산의 국유화와 철저한 토지개혁을 주장한 데 반해, 우익 측은 적산의 민간불하와 토지제도의 미온적인 개편을 지지했던 것이다. 결국 후자의 요구가 관철됨으로써 향후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미군정기 한국의 경제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기 경제혼란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업생산의 위축이다. 해방 이후 공업생산 감소율은 40~75%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공업위축은 귀환동포의 대거 유입과 더불어 실업자 홍수 사태를 발생시키고 물자 부족과 저임금을 초래함으로써 민중생활을 심하게 압박했다.

미군정기 공업에서의 생산액, 사업체, 노무자 감소

구분	일제말	미군정기	감소율
생산액(천 원)	553,194	136,984	75%
사업체(개)	10,065	4,500	56%
노무자(명)	225,393	133,979	41%

출전 : 김기원, 「미군정기의 사회경제」, 『한국사』 18, 한길사, 1994, 64쪽.

사업장 휴업의 원인

구분	원료부족	기계부족	자본부족	노무부족	기타	합계
휴업체 수	272	36	20	1	61	390
비율(%)	70	9	5		16	100

출전: 김기원, 「미군정기의 사회경제」, 『한국사』 18, 한길사, 1994, 65쪽.

급격한 공업생산 위축의 원인은 주로 원자재의 부족이었고 1948년 5월 북한으로부터의 송전 중단도 장애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재의 결핍과 기계설비의 대체 곤란, 자금의 부족은 일제하의 공업화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한국의 공업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일제 자본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거의 단절되자 한국의 공업시설도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토의 분단은 양자가 갖고 있던 상호보완성을 박탈함으로써 각각의 생산력을 현저하게 감퇴시켰다. 북쪽에 중화학공업과 주요 광물자원 및 전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분단은 남한의 공업에 치명타를 가했다. 다만 미군정 초기 급격한 공업생산 위축의 와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는 미군정기에 중소공장들의 등장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민중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물가폭등이었다. 광복 직후 일시적으로는 일제하의 통제물자들이 시장에 범람하여 물가가 일시 하락한 적도 있었으나, 곧 물가가 폭등하여 서울 도매물가의 경우 1945년 8월에 비해 1948년 8월에는 무려 10배까지 상승했다. 물가폭등을 초래한 원인은 통화팽창, 생산 및 무역의 감소, 인구증가 등이었다. 일제말기 전시경제 하에서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하여 조선은행권의 발행고 및 유통고가 1944년에는 1936년의 15배를 넘어섰던 것이다. 더욱이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대량의 자금을 일시에 방출함으로써 급격한 통화팽창이 일어나 물가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대외무역의 양상도 크게 달라졌다. 미군정기의 무역은 해방 전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원조물자의 도입 등과 같은 이른바 관영무역과 민간무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관영무역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일제하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데 반해

해방 이후에는 일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신에 홍콩과 중국, 미국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틈타 밀무역도 성행했다.

처음 남·북한 간의 교역은 소규모 보따리 상인들의 사무역(私貿易)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1946년 말에는 '조선연안 교역의 감독에 관한 통첩'에 의해 공식적인 교역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1949년 3월 말경 안보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남·북간의 교역물자를 살펴보면 대북 반출품은 생고무·광목·양철·면사·작업화 및 전구 등이었고, 비료·카바이트·시멘트·마른 명태·가성소다 등이 반입되었다.

(2) 미군정기의 지역경제

해방 직후의 경제적 혼란은 인천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인천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이 많았고 일본인 경영자들이 산업계를 지배하는 등 일제 식민지 지배의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해방에 따른 혼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하였다.

일제는 인천항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고 이 지역을 병참기지화하였다. 인천에 북부, 남부, 부평 등 3대 대공업지구를 설정하고 그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패전 무렵에는 조선기계(朝鮮機械), 일본차량(日本車輛), 조선이연금속(朝鮮理硏金屬), 일립제작소(日立製作所), 동지제작소(東芝製作所) 등 손꼽을 만한 공장만도 155개가 인천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공장수에서는 한국 51.5%, 일본 46.8%, 중국 및 기타 1.7%였으나 자본면에서는 한국 4.6%, 일본 92.6%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패전으로 쫓겨나게 되자 많은 일본인들은 멋대로 재고품을 처분하는가 하면, 점포와 공장 등을 패전 이전에 팔아버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처분하고, 심지어는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9월 25일에 군정법령 제2호로 '패전국 소속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그 재산의 매매 취득에 관한 권리행사를 일체 금지했다. 또한 12월 12일에는 군정법령 제33호로 '재

(在) 한국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그 재산관리의 사무를 개시했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이미 이보다 앞선 10월 27일에 인천시 상공과와 인천시 군정관 스탤맨 소좌와 협의하여 공장 이관의 승인에 관해 합의를 본 상태였다.



1950년대 대성목재 원목 저장소 모습

이에 따라 1945년 10월 초 항공자재를 생산해 오던 만석동(萬石洞)의 대성목재(大成木材)가 민간인에게 관리 위임된 것을 시작으로 송현동의 조선대동제강(朝鮮大同製鋼), 학익동의 삼릉전기(三菱電氣) 조선제작소, 일본제분 인천공장(대한제분으로 개칭), 화수동의 조선동지전기(朝鮮東芝電氣), 금곡동의 조선인촌공업(朝鮮燐寸工業) 등 유수한 공장들의 관리가 속속 위임되었다.

그러나 귀속사업체의 운영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떠난 후 이들 공장은 오랫동안 관리부재 상태에 빠져 공장시설들은 도난당하거나 파괴되었고 나머지 공장들도 원료 및 자재 부족으로 가동이 어려웠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광복 직후 인천시내 130개 공장 가운데 가동 공장수는 불과 48개로 전체의 36%에 머물렀다.

적산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재산보호와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했으나 상당수의 지방유지들이 적산기업의 관리권을 위임받아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밖에도 관리인의 기술 및 경험 부족, 자금 고갈 등의 애로와 미군정의 미숙한 정책도 공장의 정상가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해방 직후 인천지방 공장가동상황

지역 \ 공장	서구	남구	북구	부평	계
공장수	47	37	36	10	130
가동공장수	22	13	11	2	48
가동률	0.46	0.35	0.3	0.2	0.36

출전: 『인천상공회의소백십년사』, 인천상공회의소, 1995, 188쪽.

당시 인천시내 귀속사업체의 현황을 보면 상공부, 전기국, 농림부 등 중앙관서 관할업체가 모두 27로서 상공부 소속 16개 업체에만도 4,500여 명의 노동자가 조업하였는데 업종별로는 금속 7, 기계 4, 화학 3, 섬유 2, 전기 3, 교통운수 3, 제재 목재 5개 업체였다. 그리고 인천지방관서 관할 업체는 총 136개로 업종별로는 금속 7, 기계 18, 화학 18, 요업 7, 섬유 5, 식품 29, 전기 1, 기타공업 26, 광업 2, 상업 11, 교통 4, 기타 8개 업체였다.

인천 미군정은 공공재산 및 적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45년 11월 11일에 적산관리국을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적산관리를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인천 미군정은 상공부의 신설(1946. 6), 부실관리 적산회사 공장지배인의 교체, 관재령(管財令) 제8호(1946. 12. 31)에 의한 관재관의 적산공장 배치 등을 통해 적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꾀했으나 자재난, 원료난, 관리인의 비위 등으로 가동율은 저조함을 면치 못했다. 1946년 3월 현재 인천시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인천시내에는 168개의 대소공장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가동중인 공장은 131개 뿐이었고 37개의 공장은 휴업상태에 있었다. 또 같은 해 6월의 조사에 따르면 총 242개 공장 가운데 가동중인 공장은 214개, 미가동 공장이 26개였는데, 그 중 미군정 관리공장이 133개나 되었고 1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공장은 24개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가동공장 가운데 비교적 중화학공업 공장이 많은 것은 인천 지역 공업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혼란 가운데 미군정은 1947년부터 귀속재산의 불하를 시작했고 인천에서도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중소기업체와 주택 등 적산에 대한 불하가 1947년 12월부터 개시되었다. 앞에서 본대로 일제 식민지하에 있어서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인 소유의 자본이 94%를 차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엄청난 규모의 귀속재산은 그 합리적 관리 여하에 따라서 한국의 자립적 발전의 근간이 될 수도 있었고 민족자본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하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권행위가 개입되어 경제질서는 혼란에 빠졌고, 소수의 특혜 재벌만이 탄생했을 뿐 건전한 민족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미군정은 연고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에게 거대한 기업을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장기연부(長期年賦)라고 하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극심한 식량부족과 물가폭등 등 인천시민들이



부평동초등학교 교사 전경(1946, 부평동초등학교 소장)

피부로 느끼는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식량부족 사태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의 식량착취로 불황이 누적된 상황에서 광복과 동시에 표면화되었는데, 여기에 해외귀환동포와 북한 지역 피난민의 격증이 더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인천시 당국은 식량난을 완화하고자 1945년 11월 1일부터 미곡자유판매제를 실시했으나 쌀의 절대량 부족과 악성 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모든 물가가 앙등하는 실정이어서 쌀을 가진 농민들은 생필품과 직접 교환하기 위해 쌀을 시중에 반출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농촌과 인천지역 사이에는 교통난으로 식량수송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인천으로 반입되는 쌀은 서울 등 다른 도시들보다 그 양이 현저하게 적었다.

인천시내 각 회사와 공장 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 평균 35~40%의 노동자들이 결근하는 실정이었고 일반시민과 학생 등 결식자가 시 전체인구의 30%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46년 4월 15일 인천 미군정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1인 1일 1홉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함으로써 쌀값 폭등에 제동을 걸었다. 1회 구입량은 10일분 씩으로 인천미곡상조합을 통해 배급되었다. 또한 종래 금지되었던 도외(道外) 양곡반입 억제책이 풀리면서 인천시내의 식량난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

물가폭등도 심각했다. 1948년 전국 도매물가 총 지수(주요 8개도시 평균)은 1947년을 100으로 하여 158.3이었는데 상품별로 오른 내용을 보면 식료품이 가장 낮은 15.9, 의료품 160. 5, 연료 184.2, 잡화 162.7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총 지수 164.2였는데 서울과 인접한 인천지방의 소매물가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지방적 차이는 상품의 특질로 인한 것으로 수송성과 저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지방차가 적었다. 식료품은 인천이 가장 비쌌고 부산, 서울, 대구가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목포, 광주, 대전, 군산의 순서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각지 소매물가지수					
도시별	연도	총지수	식료품	의료품	연료
서울	1947	108	106	93	101
	1948	103	101	98	118
인천	1947	107	109	100	118
	1948	110	109	104	123
부산	1947	105	107	104	104
	1948	110	108	104	114
대구	1947	104	104	98	86
	1948	100	100	103	94
목포	1947	100	98	94	113
	1948	96	97	96	91
광주	1947	97	97	100	89
	1948	94	95	94	83
대전	1947	92	92	102	77
	1948	92	94	101	76
군산	1947	90	87	104	94
	1948	96	86	99	101

출전: 『인천상공회의소11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1995, 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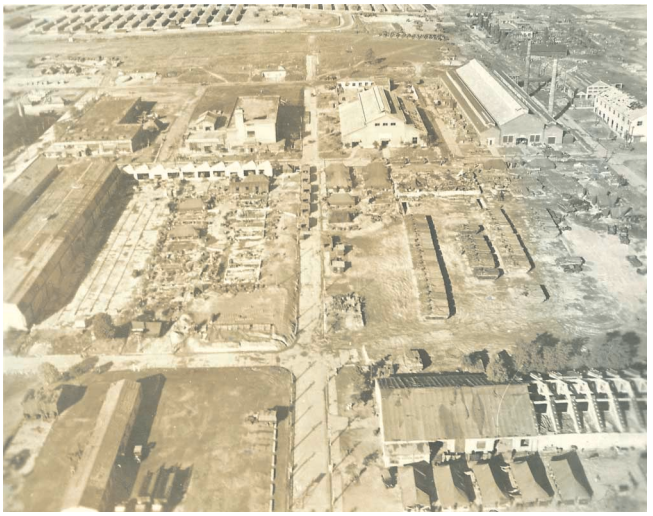
1947년에 음식료품 가격이 최고인 인천과 최저인 군산과의 격차는 22%였고, 1948년에는 인천과 대전의 가격이 15%의 차이를 보였다. 연료는 수송비 때문에 지역간 격차가 가장 심했는데 1947년 중 인천은 16%, 목포 13%, 부산은 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서울은 무려 21%나 높았다. 1948년에는 인천이 23%로 가장 높았고 서울, 부산, 대구, 목포, 대전의 순이었다. 의료품은 음식료품, 연료에 비해 수송성, 저장성이 우위에 있으므로 지역간 가격차도 가장 낮아 1947년 중 의료품 가격의 지방 간 격차는 10%였고 1948년 역시 타상품보다 적었다. 의료품이 가장 비싼 도시는 부산이었지만 인천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다.

2) 부평 조병창과 공장자주화운동

(1) 부평 육군조병창

1939년대 말 부평에 설치된 일본육군조병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까지 일본군의 전쟁 물자를 조달했던 조선 내의 대표적인 병기 공장이었다. 일본이 조병창(造兵廠)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근대적 병기의 제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 연원이 명치 초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년 2월 3일 대정관달(太政官達) 제75호로 조병사(造兵司)를 설치하고 이를 병부성(兵部省)에 속하게 한 것이 그 효시였다. 따라서 1930년대의 일본의 군수공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이 축적된 상태였다.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건설된 미국 애스컴 전경(부평역사박물관 소장)

당시 부평의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물자가 월간 생산량으로 소총 4천 정, 총검 2만 정, 소총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천 정, 차량 200량 등에 달하였다. 공장 문을 닫을 때까지 선박 250척, 무전기 200조 등의 생산고를 나타냈고, 전쟁 말기에는 잠수정까지 건조했다. 일제 말기에 부평이라고 하면 먼저 육군조병창을 연상할 정도로 조병창은 곧 인천육군공창을 지칭했다. 당시 이곳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군인과 군속이 종사하였으며, 특히 일제 말기에 한국인 채병덕 소좌가 책임자로 부임한 일도 있었다. 그 외에 조병창의 하청공장으로 동경제강, 조선베아링공장 등 많은 자(子)회사가 가동되었으며, 주변에 직원들의 숙소까지 조성되어 부평은 그야말로 조병창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군수공업도시로 형성되었다. 더욱이 조병창과 그 하청공장에 근무하면 징용을 면제해주는 특혜까지 주어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규모가 평범하지 않은 만큼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일본육군조병창을 접수하며 주둔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 곳에 저장되어 있는 물자들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원료난에 시달려오던 인천의 공업인들은 조병창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자들을 적절히 처분하도록 미군 당국에 요청하자는 의견을 모으기도 하였는데, 이 때의 상황을 당시의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넓은 부평평야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한 왕시의 '인천조병창'은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미군에 점령되어 일반의 출입은 '애스컴'이란 영자(英字) 문패로 의연 검지되어 오는 터임으로 그 구내에 무엇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바이었는데, 지난 23일 인천시청회의실에서 열렸던 인천공업협회연합회 제1회 정기총회석상에서 부평공업협회장 김석기씨의 발언에 의하여 '애스컴' 안에 쌓여있는 물자의 편린을 엿들을 수 있으며 또 귀중한 물자가 아낌없이 지하에 매몰되어 오는 사실까지 드러나서 원료의 이수에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공장지배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김석기씨의 말에 의하면 전기 '애스컴' 안에는 무엇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는 출입이 검지되어 있음으로 알 수 없으나 인천 공업인들이 1톤(噸) 2천5백 원을 주어도 입수하기 어려운 '코-크'가 무려 5천 톤이나 쌓여있고 또 어떤 공장에서든지 필요한 '스패너'는 모리배들이 어떤 수단을 쓰는지는 알 수 없으나 1개에 1원 내외에 사내다가 40원의 폭리를 보는 모양인데 '애스컴'안에는 약 20화차(貨車) 분의 '스패너'가 산적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일군이 긁어 모아 드린 철재(鐵材)를 비롯한 군수품이 산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기계 등을 아낌없이 지하에 매몰하는 광경을 목도한 사람도 적지 않다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동 총회에서는 대책을 협의한 결과 전기 연합회 당국자가 사장(死藏)되어 오는 '애스컴' 안의 물자를 조선의 공업을 위하여 적당히 처분하도록 미군당국에 진정운동을 일으키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크게 주목된다. (『대중일보』 1946년 1월 25일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민족경제의 재건과 근대화의 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나 일본인 자본가와 기술 인력의 철수와 분단, 소비재 중심의 미국 원조정책 등으로 극심한 생산 위축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인천, 특히 부평지역은 육군조병창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이 많았고, 일본인들이 산업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해방에 따른 혼란은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 말 부평 조병창의 하청공장으로 기능하던 부평의 동경제강과 조선베어링 등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공장 유지와 생산 재개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이른바 공장 자주화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2) 공장자주화운동

'준비되지 못한' 해방으로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자립적인 생산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물러가는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기계가 멈추어 서 있는 공장에서 스스로 생산을 조직하고 관리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다.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위원회 또는 자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공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다. 해방이라는 객관적 상황이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자주관리운동은 공장의 폐쇄나 조업단축에서 비롯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가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방 후의 공장자주관리운동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사회주의세력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개입하여 영향을 주었다.

해방과 함께 인천의 노동자들도 공장관리운동을 전개했다. 인천은 부두 항만 등 기간산업과 중화학 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 인천지역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아 6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공장주에게 요구하였다.

인천의 노동자들은 공장폐쇄에 따른 실업으로 생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공장폐쇄 · 실업에 따른 상여금과 임금지불을 요구하였다. 인천 '히다치' 철강회사의 노동자 300명도 1945년 9월 27일,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회사간부들에게 3백만 엔을 요구하였다. 인천 '도요' 전선공장 노동자 450명도 공장 간부들을 붙잡아놓고 봉급으로 162만 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의 많은 공장과 회사에서는 공장관리위원회 ·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인천에서 공장 자치위원회가 조직된 곳은 대개 노동자 수가 150명 이하인 중소 규모의 공장 회사였다. 이들은 대공장에 비해 운영체계나 조직대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이 좀더 유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공장은 노동자 수가 적어서 복잡한 논의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공장관리와 생활 확보라는 목표로써 노동자들을 자치위

원회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인천의 노동자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지만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공장운영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는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인 및 조선인 자본가들이 철수하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전망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서울 중앙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서 공장관리운동에 대한 방침은 제시하였지만,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침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조선광업은 유지 자치위원회 경영대표 신언영이 접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노동자들과 대표 간에 임금문제, 공동관리문제 등으로 알력을 빚었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12일자). 즉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자치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선거운동에 참가한 인천지역의 노동자들

인천의 노동자들은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공장과 회사를 접수 인수하여 노동자들의 손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적극적으로는 조업준비 활동을 벌이거나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와 자재, 연료의 부족, 자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자치위원회만 구성하여 공장을 관리하면서도 휴업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19일자). 자연히 인천의 공장관리운동은 자금 문제와 함께 자재와 원료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전개가 곤란하였다.

인천시 상공과 조사에 따르면 1945년 11월 24일 현재 인천지역의 130개 공장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8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광공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인천에는 40여 개의 철공장이 있었지만, 당시 조업하고 있는 곳은 6, 7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본과 자재난 때문이었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19일자).

인천의 자주관리운동

회사명	부문	노동자수	명칭	자재/원료 보유량	현재 상황	애로 사항	비고
경기도자동차 통제주식회사	운수	–	관리위원회	차량300대	–	–	군정청 접수관리
경성화학	화학	300	자치위원회	1개월분	휴업	–	군정청접수
대한제분	식료	50	자치위원회	원료부재	휴업	원료부족	–
동경제강	금속	80	유지자치위원회	2개월분	조업	연료	–
삼국석탄	광산	90	자치위원회	5개월분	조업	–	–
안등흥재	목재	30	자치위원회	6개월분	조업	–	접수경영 예정
야전장유	식료	150	자치위원회	4개월분	조업	연료,원료	–
인천동서 화학공업	화학	3,000	자치위원회	4개월분	조업	자재	자치위원회 접수예정
조선알미늄	금속	–	관리위원회	–	–	–	자본가영입
인천제정	금속	40	관리위원회	6개월분	휴업	연료	–
인천화약	화학	–	자치위원회	–	–	–	–
제국섬유공업	섬유	150	자치위원회	1년분	휴업	재료	미군주둔
주안대동공작	금속	45	자치위원회	자재 전무	휴업	재료	–
조선광업	광산	80	유지자치위원회	6개월분	조업	임금공동관리	노사갈등
조선기계제작소	금속	–	관리위원회	–	–	–	–
조선농약	화학	60	자치위원회	4개월분	관리	자본,연료	–
조선대동제강 제1공장	금속	80	자치위원회	자재 전무	휴업	자본	미군접수 관리위임
조선대동제강 제2공장	금속	50	자치위원회	1개월분	조업	원료,재료	미군접수 관리위임
조선제강	금속	20	자치위원회	1년분	휴업	–	–
조선섬유공업	섬유	300	자치위원회	8개월분	조업	원료석탄	시당국위탁
조선우선	운수	–	관리위원회	기선 1척	운영	기선부족	군정청관리
조선인촌	화학	250	자치위원회	1년 8월분	휴업	자재구입	위임경영계획
조선자동차	금속	60	자치위원회	5개월분	부분조업	–	–
조선철공업	금속	15	자치위원회	1년분	휴업	–	–
조일광업사	광산	–	자치위원회	–	조업준비	–	–
축지활판소	인쇄	–	관리위원회	–	–	–	–
풍전옥장유	식료	13	자치위원회	2개월분	조업	원료,자본	–

출처 : 김무용, 「해방직후 인천지역 사회주의운동」, 『한국근현대 경기지역 사회운동연구』, 관악사, 1998, 218쪽.

인천지역에서 자주관리운동이 전개된 공장 가운데 부평에 소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노동자 80명으로 자치위원회를 조직해 조업을 하던 동경제강 정도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동경제강은 부평 일본육군 조병창에서 사용할 철강을 생산하던 자(子)회사였다. 인천에서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조직된 곳이 대개 노동자 수 15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장 회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제의 대규모 국책 군수공장이 집결해 있던 부평의 자주관리운동이 부진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군정의 실시로 공장관리운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호」(1945. 9. 25)를 발표하여 국·공유재산을 미군정이 접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에서도 미군정은 11월 들어 가납(嘉納) 등 3개 양조공장을 접수하고 조선인을 관리인으로 삼아 운영하게 했다. 이어 동양전선 제2공장과 삼릉제강, 그리고 삼릉전기·조선유지·조선전기·동경지포전신기·오다후꾸 면공업·조선염업·조선무전약품 등을 접수해 관리하였다.

미군정의 방침은 중요한 공장과 회사를 직접 접수하여 관리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공장관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인천의 공장관리운동은 미군정의 실시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인천의 공장관리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첫째는 대개 자본가를 영입하여 공장과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형태는 자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장관리위원회·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약화되고 결국 자본주의 체제 하의 일반적 회사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자본금 3백만 원에 400여 명의 노동자를 가진 경성화학공업주식회사가 이 경우에 속했다. 둘째는 자본가나 경영자가 공장관리위원회·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과 회사를 미군정이나 인천시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경영하는 형태였다. 이 경우 새로 들어온 경영자와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와 조선인촌주식회사는 이 경우에 속했다.

제3절 좌우대립과 혼란

1. 인천 · 부평지역의 정치와 제헌의회 선거

1) 정치 세력과 좌 · 우 대립

(1)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8 · 15 광복과 함께 중앙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조직되어 국가건설을 준비하는 활동을 벌였다. 건준은 일제 말기 여운형이 비밀리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건준은 치안의 확보, 건국사업을 위한 역량의 일원화, 교통 · 통신 · 금융 · 식량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8월 16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건준은 점차 본격적인 건국준비사업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정치조직이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세력을 결집하여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갔다. 이에 따라 해방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중들의 열망에 힘입어 건준은 8월 말까지 전국에 약 145개의 지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차원의 건준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건준 지방지부의 활동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인천 지역의 경우 건준활동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치안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 인천의 치안활동은 조봉암(曺奉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1932년 9월 28일 상해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인도된 뒤 7년 형을 언도받고 신의주 감옥에서 복역하다 1939년 7월에 출옥했다. 출옥 후 인천에 정착한 그는 인천 비강(粃糠)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중 일제의 패망이 임박해지면서 1945년 1월 일본군 헌병사령부에 예비검속되었다.

일본군 헌병사령부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봉암은 출옥 직전 여운형과 면담한 뒤 8월 15일 오후에 출감하자마자 인천으로 내려왔다. 처음 인천에서 그는 인천치안유지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여운형과의 사전 교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 되고 미군이 아직 진주하지 않은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 이 글은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가 책임집필하였음.

치안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에서는 잔류하고 있던 일본경찰이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때 인천에는 인천치안유지회 외에도 치안활동을 벌인 단체들이 있었다. 뒤에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규를 비롯 장광순, 김태훈, 주정기, 전두영 등을 중심으로 8월 16일에 치안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비(非) 사회주의계열의 치안 단체로 동산학원 설립자인 김영배가 주도한 인천선무학생대, 일제하 아사히소학교 청년훈련소 교관으로 있던 최태호가 주도한 인천학생대, 유도 도장인 상무관을 운영하던 유창호와 김수복이 주도한 상무관치안대 등이 있었다.


1950년대의 애관극장

조봉암은 인천보안대의 결성을 주도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을 규합하여 일제 때 인천경찰서에서 유도교관을 하던 이임옥을 중심으로 보안대 조직에 착수, 8월 20일경 인천시내 경동 애관극장에서 보안대를 결성했다. 보안대는 인천치안유지위원회의 산하기구였다. 조봉암은 인천치안유지회를 기반으로 건준 인천지부의 조직에 착수했다. 건준 인천지부는 1945년 8월 25일 경 시내 영화극장(현 인형극장)에서 주로 조봉암, 이승엽과 인연이 있는 양곡업계 인물이 중심이 되고 학연관계가 있거나 일제 때부터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준 인천지부의 결성에는 조봉암과 함께 이승엽의 영향력도 일정하게 작용했다. 그는 일제 말기부터 후에 건준 인천지부나 인민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는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승엽은 일제 말기 인천양곡조합 이사, 인천식량배급조합 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일제하 인천과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인물로, 해방 후에는 박헌영에 다음가는 조선공산당 · 남로당의 2인자였으므로 그의 영향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건준 인천지부의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몇 사례는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건준 인천지부는 해방 직후 조봉암 등을 중심으로 한 치안유지회 보안대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직되었지만, 이러한 치안활동은 건준 인천지부

가 결성된 뒤에도 계속했다. 이는 건준 인천지부 결성 뒤인 9월 8일 인천항에 들어오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 보안대원들이 행렬을 지어 연합국의 국기를 들고 행진했던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건준 인천지부는 해방 직후의 보안대 조직을 건준 차원에서 계승하면서 치안활동을 계승했다. 이 밖에도 건준 인천지부는 건국사무와 이재(罹災) 동포 구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45년 9월 중순 건준 지부 내에 이재동포구제회를 조직하고 각종 의연금을 모금하여 이재동포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벌였다(『대중일보』 1945년 12월 7일자).

건준 인천지부는 해방 직후 인천에서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면서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으로 활동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앞에서 본 미군 환영 행사장에서 사망한 시민에 대한 시민장(市民葬)의 개최였다. 건준 인천지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을 통해 일본 관헌에 엄중한 항의를 하고 이들의 장례식을 모든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건준 인천지부가 주최한 시민장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거행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미군측에서도 장교 30여 명이 조문했다(『매일신보』 1945년 9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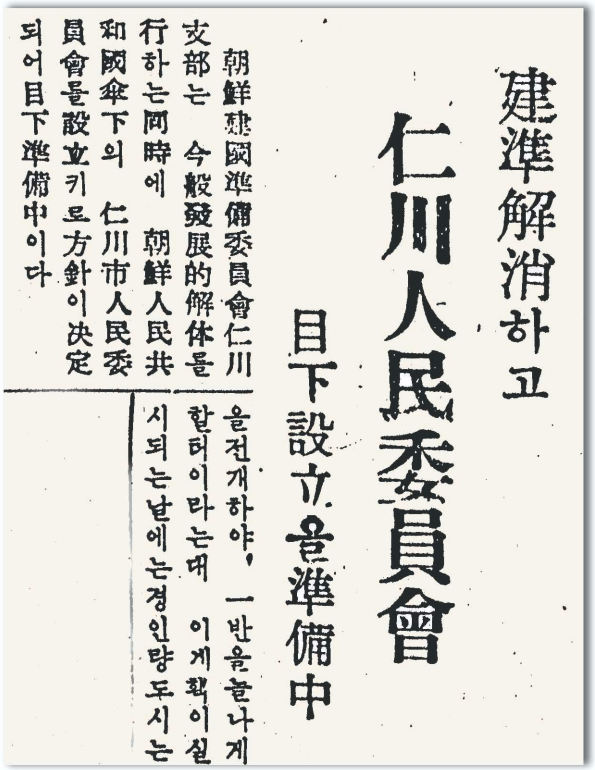
건준 인천지부의 활동은 미군이 들어와 인천에서 군정을 실시하는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중앙의 건준 지도부는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지방 건준을 인민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준 인천지부는 곧바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이 인천에 들어와 군정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인천시장과 경찰서장을 임명하여 행정권과 치안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에 건준 인천지부는 10월 6일, 군정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1. 시장과 서장 선거는 시민의 총의에 의할 것.
2. 일본제국주의 시정 하에 임명된 정회장(町會長)은 개선(改選)할 것.
3. 교통상 가장 불편하니 상인천역을 개방할 것.
4. 의약품이 없어 보건상 가장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를 귀국에서 수입하여 줄 것.

(『대중일보』 1945년 10월 8일자)

이것은 교통 불편과 의약품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요구도 반영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다. 일제 때 임명된 정회장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도, 정회장들이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우익세력의 행정적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건준 인천지부의 이러한 요구가 불완전하게나마 미군정에 수용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인천 미군정의 입장에서도 해방 직후 인천 지역의 정치를 주도해 온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점령정책의 목표를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

해방 직후 건준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천 지역 정치세력들은 중앙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중앙 건준은 9월 6일 천여 명의 대표가 모여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발족을 선포했다. 중앙 건준이 충분한 준비없이 인공을 선포한 것은 미군의 남한진주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중앙 건준은 일단 인공을 선포하고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상이었다.


建準解消하고
仁川人民委員會
目下設立을準備中
朝鮮建國準備委員會仁川支部는 今般發展的解体를 行하는同時에 朝鮮人民共和國傘下의 仁川市人民委員會를設立키로方針이決定되어目下準備中이다
을전개하야, 一般을놀나게 할터이라는데 이계획이실시되는날에는경인량도시는

인천시인민위원회 설립이 추진중임을 알리는 당시의 신문기사(『대중일보』1945년 10월 9일자)

중앙에서 건준이 해소되고 인공이 선포됨에 따라 지방의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어 갔다. 그러나 건준 지부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개편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건준 인천지부도 10월 초에 들어서야 발전적 해체와 함께 인공 산하의 인천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건준 인천지부는 10월 11일 오후 7시부터 지부에서 인천시인민위원회 창립준비회를 개최했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9일 · 10월 11일자). 인천시인민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에는 인천의 각계 대표자 40여 명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강령과 시정방침을 결정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공의 정책을 추종하는 편향성이 드러났다.

[정강]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고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3. 우리는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일체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4.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를 기함.

[시정방침]

1.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제도 즉시 철폐.
2.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이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함. 단 비몰수토지의 소작료는 3 · 7제로 함.
3. 일본제국주의와 민족반역자들의 광산 · 공장 · 철도 · 항만 · 선박 · 통신기관 및 기타 일체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4. 민족적 상공업은 국가의 지도하에서 자유 경영함.
5. 공업의 급속한 발달을 위한 제정책의 실시.
6.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및 신앙의 자유.
7. 18세 이상 남녀인민(민족반역자는 제외함)의 선거권 · 피선거권의 시행.
8. 모든 특권을 말살하고 전 인민의 절대 평등.
9. 부인의 완전한 해방과 남녀 동등권.
10. 8시간제 노동 실시, 만 14세 이하의 소년노동 금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노동은 6시간제로.
11. 최저 임금제 확립.
12. 표준생활에 의한 최저생활의 확보.
13.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의 생활의 급진적 향상.
14. 실업방지와 그 구제대책의 확립.
15. 평화산업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필수품의 확보.
16. 생활필수품의 공정 평등한 배급제도 확립.
17. 미곡 기타 일체 공출제의 철폐.
18. 징용 · 강제부역 · 강제저금의 철폐.
19.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대책의 확립.
20. 일체 잡세의 철폐와 단일 누진세의 실시.
21. 고리대금업제도 철폐, 고리대금적 대부관계의 파기.

22. 부양 · 보건 · 위생 · 오락 · 문화시설의 대확충과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23. 일반대중의 문맹퇴치.
24.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 실시.
25. 민족문화의 자유발전을 위한 신문화정책을 수립.
26. 국가공안대와 국방군의 즉시 편성.
27. 민주주의적 진영인 미국 · 소련 · 중국 · 영국과의 긴밀한 제휴를 위해 노력하며, 일체 외래세력의 내정간섭에 절대 반대함.
(『대중일보』 1945년 10월 14일자)

인천시인민위원회 결성대회는 10월 16일에 개최되었다. 결성대회는 오후 2시부터 건준사무소(영화극장, 현 인형극장)에서 인공 중앙위원회의 최용달(崔容達) · 박석하(朴錫夏)를 비롯하여 김용규(金容奎) · 조봉암(曺奉岩) · 박남칠(朴南七)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결성대회는 먼저 광복을 위해 희생한 열사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 묵상의 시간을 가진 뒤 김용규의 사회로 대회집행부를 선출했는데 의장에는 김용규가 피선되었다. 의장은 경과보고, 중앙인민위원회 선언, 정강과 시정방침을 낭독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았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18일자).

이어 실시된 인천시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는 민선으로 뽑힌 각 정회장과 정당, 유력단체의 대표자를 망라한 78명의 위원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상무위원은 전형위원 7명이 중심이 되어 별실에서 선출하였는데, 위원장 김용규를 비롯한 24명을 결정, 발표하였다. 인천시 인민위원회 결성대회는 위원장 김용규의 취임사, 인민위원 소개, 중앙인민위원 대표 최용달 · 박석하의 축사, 그리고 만세삼창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인천시인민위원회의 조직과 부서는 11월에야 완료되었다. 인민위원회는 11월 5일 하오 6시에 사무소에서 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부서와 책임간부를 선임했다. 부위원장에 박남칠, 총무부장에 이보운(李寶云), 보안부장에 김형원(金瀅源), 재정부장에 문두호(文斗昊), 문교부장에 이기정(李起貞), 산업부장에 윤석준(尹錫峻), 선전부장에 이상운(李祥雲), 노동부장에 한기동(韓基東)을 각각 선임한 것이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8일자). 이는 인공 중앙의 조직체계를 반영하면서도 인천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특히 노동부가 조직체계로 편성된 것은 산업 · 항만도시로서 노동자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사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들의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용규 : 정미소 경영, 미곡객주업, 인천부회 의원(1934. 4~1935. 5, 1943. 5~해방직전), 조봉암과 동향(강화), 민주주의민족전선, 인민위원회위원장 사임(1947. 9. 11), 보도연맹 인천지부 간사장(1949. 12. 4), 한국전쟁시 부역혐의로체포.
- 부위원장 박남칠 : 정미소 경영, 인천상공회의소 평의원(1935~1940), 미곡상조합장(1945. 11), 경기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1945. 11. 10), 경기도 민전 재정부장, 남로당 인천시 부위원장(1947. 1. 2), 보도연맹 인천지부 총무부장(1949. 12. 4), 한국전쟁시 월북.
- 총무부장 이보운 : 잡화상, 배재고보 졸업, 경기도 인민위원회 산업부차장(1945. 11. 10), 경기도 민전부의장, 남로당 인천시 위원장(1947. 1. 11), 보도연맹 인천지부 조직부장(1949. 12. 4), 한국전쟁시 월북.
- 재정부장 문두호 : 인천피복공업(주) 대표, 조선혁명자구원회 인천지부 위원장, 노무조정위원(1946. 2. 15).
- 보안부장 김형원 : 잡화상, 경기도 인민위원회 보안부차장(1945. 11. 10), 조선혁명자구원회 인천지부 서기국 서기장(1945. 11. 30).
- 선전부장 이상운 : 미곡상, 남로당 탈당성명서 발표(1948. 2), 보도연맹 인천지부 선전부장(1949. 12. 4), 한국전쟁시 월북.
- 문교부장 이기정 : 미상
- 산업부장 윤석준 : 협동조합 인천지부 이사(1945. 12. 26), 남로당 인천시 선전부장(1947. 1. 12).
- 노동부장 한기동 : 인민당 인천시 발기인.

(출전 : 이윤희, 「미군정기 인천에서의 좌·우투쟁의 전개」, 『역사비평』 1989년 봄호, 204~205쪽)

인천시인민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도부의 출신성분에서 김용규, 박남칠, 이보운 등 미곡상인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천 지역 좌익의 거두인 조봉암과 이승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봉암이 지도부 구성에서 제외된 것은 이후 인천 지역의 좌익운동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물론 일제 때 조봉암과 박헌영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가 해방 후까지 영향

을 미쳐 친 박헌영계의 핵심인 이승엽이 인민위원회 활동에 대외적인 명망성이 뛰어난 조봉암의 역할을 배제한 측면도 있다. 이승엽은 해방 직후 박헌영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정치국 국원과 경기도책, 인공의 중앙인민위원 및 사법부장 대리로 활동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비해 조봉암은 일제시기부터 해방 후에 이르기까지 박헌영계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천에서 지역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이승엽이 중앙의 권위를 내세워 조봉암 측을 견제했던 것이다.

인천시인민위원회는 지도부 구성에 이어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착수했다. 인민위원회는 11월 6일에 선언문과 결의문, 인민위원회 시책 등을 인쇄하여 각 정회(町會)에 배포하면서 인민위원회의 시책을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각 정(町)인민위원회에 지시를 내려 정 인민위원회를 시급히 결성하여 시인민위원회로 보고,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11일자). 인천시인민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아직 조직되지 못한 정 단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인민위원회의 하부역량과 조직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과 지역적으로 결합된 경기도인민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인천시인민위원회의 기반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결성식에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먼저 도 운영방침을 토의하고, 인공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했다. 이어 집행위원으로 각군 대표에서 66명, 상임위원 19명을 선출하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폐회되었다. 경기도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에는 인천시인민위원회 간부들이 포함되었다. 곧 박남칠이 부위원장, 이보운이 산업부 차장, 김형원이 보안부차장 등으로 선임된 것이다(『대중일보』 1945년 11월 12일자).

이에 따라 인천시 인민위원회와 경기도 인민위원회는 경기 · 인천 지역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적 역량을 강화해 갔다. 인천시 인민위원회는 이어 1945년 11월 20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7명의 대표자를 파견했다. 이때 인천대표로 출석한 인물은 박남칠 · 한기남 · 김형원 · 이보운 · 최춘문(崔春文) · 이상운 · 김조이(金祚伊) 등이었는데 이 중 박남칠은 경기도 확대 집행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국내외 정세보고와 함께 경제 · 노동 · 농림 · 재정 · 선전 등에 대한 중앙의 방침이 수립되었고, 자주독립의 문제 · 군정에 관한

문제 · 지방 건의안 등이 토의되었는데(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대회의사록』, 조선정판사, 1946),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공 중앙의 방침은 건준 인천지부를 비롯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전파되었다.

(2) 한국민주당

광복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자발적인 치안유지 단체들과 건준 및 인민위원회가 정치, 경제 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이에 비해 일제 때의 친일경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말미암아 표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익의 지주, 자본가 계열은 9월 8일 미군이 진주하자 9월 16일에야 비로소 한국민주당(한민당)을 조직했다. 인천에서도 미군정이 실시되자 그동안 시국을 관망하고 있던 우익 계열에 의해 한민당 인천지부가 10월 1일에 조직되었으니, 그 지도부와 이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곽상훈(郭尙勳) : 동래고보 졸업, 조선노동공제회 및 신간회 인천지부장, 인천소년단 및 인천야구단 조직, 기독교인, 동아일보 인천지국장(해방후).
- 부위원장 양제박(梁濟博) : 제주도 출생,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인천시 고문(1945. 10. 31), 남조선 과도입법의원(1946. 10. 26).
- 총무부장 하상훈(河相勳) : 동아일보 인천 제1대 지국장, 신간회 인천지회장, 해방후 인천시 상임고문, 기독교인, 남조선 과도입법의원(1946. 10. 26).
- 사무국장 이범진(李範鎭) : 동아일보 기자, 제3대 지국장, 신간회 간부, 기독교인, 인천시 고문(1945. 10. 31).
- 재정부장 장인수(張仁秀) : 해방후 인천곡물조합 이사.
- 문교부장 이열헌(李烈憲) : 수원농업학교 졸업, 인천시 고문(1945. 10. 31).
- 감찰위원장 서병훈(徐丙勳) : 동아일보 인천 제2대 지국장, 신간회 간부, 기독교인.
- 감찰부장 전두영(全斗榮) : 인천 송현정 정(町)회장, 경방단 간부, 해방후 광복청년회 고문, 인천시 고문(1945. 10. 31)

(출전 : 이윤희, 「미군정기 인천에서의 좌 · 우투쟁의 전개」, 『역사비평』 1989년 봄호, 204~205쪽)

미군정의 정보에 따르면 한민당 인천지부는 17~25세의 청년들로 구성된 우익 청년단체인 '고려청년당'을 강력하게 지원했는데 이는 한민당 인천지

부가 표면 조직상으로는 청년들을 편입시키지 않았지만 고려청년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한민당의 대외적인 행동대원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당 인천지부는 미군정의 구체적인 정책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결성 초기부터 주둔군인 "미군을 절대 신뢰하고 인천시에 강력한 고문기관의 설치"를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1945년 10월 31일에 발표된 32명의 시 고문 가운데 양제박(부위원장)·이범진(사무국장)·하상훈·조종식(총무부장)·이열헌(문교부장)·전두영(동부위원장) 등 한국민주당 인천지부 핵심인사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미군정과는 별도로 인천시장 직속의 4명으로 구성되는 촉탁 자문위원도 한민당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계 인물들이 독차지했다.

한편 한민당 인천지부는 "국외에 있는 임시정부의 환도를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인공을 지지하는 인천시 인민위원회의 정치적 입장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 지역사회에서 좌·우의 대립과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 좌·우 대립과 혼란

해방 후 인천에서 건준 인천지부가 결성되고, 뒤이어 한민당 인천지부가 조직되면서 인천지역의 정치세력은 인민위원회(좌익)와 한민당(우익)으로 양분되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중앙정계에서 전개된 일련의 좌·우익 정당들의 통일논의에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화합하는 기미가 보이는 듯 했으나 곧이어 대결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천지역 좌익과 우익의 첫 번째 충돌은 임시정부의 환영행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한민당 인천지부는 1945년 11월 26일 임시정부 환영식을 성대하게 치르고자 17개 부서의 준비회를 구성하고 36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환영대회 비용 5만 원을 각 정회와 유지들로부터 추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 인천지부 등 좌익은 일부 정회장과 함께 한민당 간부들의 일제 때의 친일행적을 집중 거론하면서 피폐한 생활고로 허덕이는 인천시민에게 대회 비용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정환영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려는 것은 한민당이 "자기 당의 허세를 과장하려는 교묘한

선전술, 기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대중일보』 1945년 12월 4일자).

이에 대해 한민당 인천지부는 "임시정부 환영대회는(…) 일당일파의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 임시정부를 우리 민족의 주관적 정통정부로 환영 봉찬(奉讚) 함은 금후 정치노선의 여하를 막론하고 36년간 왜적에 대립 항쟁한 민족적 전통을 분명히 하는 대의명분이다(…) 민족반역자 친일파 매국적 모리배 등의 숙청을 반대하는 사람이 해방도상에 있는 오늘 그 누구이랴? 자주독립 완성의 대국적 견지에서 국내 숙청문제는 오히려 지엽문제"라고 응수했다(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1986, 42~52쪽).

인천의 좌·우익 갈등은 이른바 '신탁통치문제'로 더욱 악화되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 '조선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5년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의 좌·우익은 처음에는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중앙 정계의 추이를 살피는 정도였다. 그런데 12월 29일에 정회장들이 '신탁통치 절대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12월 31일에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90명이 신탁통치 절대반대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작성 기초위원으로 김용규(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보운(인민위원회 총무부장), 김요한(좌익), 곽상훈(한민당 인천지부장), 손계언(인천신문기자회 부위원장, 좌익) 등 5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좌우익 공동의 '신탁통치반대 공동위원회'는 좌익의 태도 변화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우익은 한민당의 발의로 1946년 1월 16일 '반탁각단체대표연합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좌익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던 우익은 정치적 기반을 점차 넓혀 나갔다.

한편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일시적으로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입은 좌익은 내부의 조직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에 대비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전선조직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인천지부(민전 인천지부)를 결성했다. 민전 인천지부는 1946년 2월 7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되었는데, 의장에는 조봉암이 부의장에는 신태범이 선출되었고 선전부·조직부·재무부·조사부·연락부 등의 부서와 경제대책위원회, 친일파·민족반역자심사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대중일보』 1946년 2월 11일자).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민전 인천지부의 결성이 중앙보다 1주일 정도 앞서 있

다는 것으로 이는 인천에서 좌익의 결속력이 상당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민전 인천지부는 미소공위의 개회라는 낙관적인 상황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대중의 정치경제적 이익 및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가중되자 민전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1946년 5월 7일 미군정은 인천신문사를 기습하여 간부들을 체포하고 다수의 문서를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간부진의 가택까지 수색했다(『대중일보』 1946년 5월 15일자). 표면상 이유는 "다액의 자금유용과 허위보도"였지만 사실은 인천에서 유일한 좌익성향의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5월 16일에는 우익의 한민당 인천지부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의 주최로 '대한독립전취국민대회'에 참석한 반탁학생연맹 소속 학생과 인천지구노동조합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노조회관 앞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 미군정은 노동자들만을 체포, 구금하고 우익의 반탁학생연맹 소속 학생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무기인 '반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이승만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 '대한독립전취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를 통해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정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우익의 시도에 대해 좌익은 이 대회가 개최된 장소에 전단을 살포하며 이 대회는 "반미 반소대회이며…삼상회의 결정을 탁치반대로 모략 선전하여… 자본가와 대지주의 이익만 옹호하는 전제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대중일보』 1946년 5월 21일자).

미소공위의 결렬을 계기로 좌·우익간의 대립과 투쟁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렬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좌익은 미소공위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어 우익의 반탁운동에 강력히 대응하였다. 민전 인천지부는 6월 23일 중앙위원 김원봉, 여운형, 이강국, 이현상 등도 참석한 가운데 '미소공위 촉진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익은 한민당 인천지부의 주도 아래 좌익이 개최한 '미소공위 촉진 인천시민대회' 개최일과 동일한 시기에 독립촉성협의회 주최로 반탁을 선전하는 '시국대강연회'를 가졌고, 인천 미군정은 인천지구 노동조합평의회 위원장 김기양(金基陽)을 5월 19일 발생했던 인천지구노동조합평의회 소속 노동자

와 반탁학생연맹 소속 학생들과의 충돌사건과 관련시켜 체포했다.

한편 6월 23일 민전이 주최한 '미소공위촉진인천시민대회'에서 좌익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봉암의 성명서가 살포되었다. 민전 의장단의 여운형과 이강국, 민족혁명당 당수 김원봉과 성주식 등도 참석한 이 집회에는 '좌익의 영수' 박헌영이 참석할 것이라는 선전 때문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집결했는데(『대중일보』 1946년 6월 24일자),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 조봉암은 "한국 연립정부는 공산당이나 (독립촉성)국민회의의 독점적 정부로 조직되어서는 안된다. (…) 현재 한국민은 공산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공이나 민전의 정책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 우리는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살포한 것이다. 대회장뿐만 아니라 시내 각 관공서와 신문사에도 수천 장이 뿌려졌다.

조봉암의 성명서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성명서가 뿌려진 날 송학동 제2공회당에서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인천지부가 '신탁통치 반대 시국 대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인천의 좌익과 우익이 대규모 집회 대결을 벌인 날 조봉암의 성명서는 좌익과 우익 모두를 향해 계급독재의 반대를 선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의 배후에는 미군정의 공작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봉암은 민전 집회가 열리기 열흘 전에 돌연 CIC에 체포되었다. 체포 사유는 군정법령 '제72호 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미군정 법령 72호는 1946년 5월 4일 발효된 것으로 '폭력, 협박 또는 협위(脅威)를 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기타 이익에 대하여 약속을 하거나 차(此)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차(此)를 제지하도록 협위(脅威)하거나 동맹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 등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동 법령 72조의 시행이 보류되어 그는 체포된 지 11일 만인 6월 22일에 석방되었다.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이 때문에 성명서 발표의 시점과 배후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공은 전부터 조봉암을 '(미군정) 당국의 촉탁'으로 지목했었고 성명서 살포를 계기로 그를 당에서 제명시켰다. 그러나 조공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를 계기로 특히 인천 지역에서의 좌·우익 세력판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과 조봉암의 성명에 고무된 한민당은 인천지부 명

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공산당계열 민전 제공이여, 조봉암 동무를 따르라"라며 대중을 선동하며 역공세를 폈다(『대중일보』 1946년 6월 29일자).

반탁에서 찬탁으로의 태도 변화, 미군정의 탄압, 그리고 조봉암의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해방 후 미군정기 인천 지역의 정국은 점차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가운데, 좌익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인천에서의 이러한 좌·우의 극단적 대치는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된 194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2) 부평의 정치와 제헌의회 선거

(1) 부평의 정치와 좌·우익 활동

1945년 8월 16일 당시의 인천시 부평출장소(현재 북구청) 2층의 부평공회당에서 치안대가 조직되었다(학생치안대장 유석웅(柳錫雄)의 증언; 『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165쪽에서 재인용). 학생 치안대장에는 유석웅, 일반치안대장에는 김석기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와는 별도로 산곡동에서 당시 일본 육군 조병창의 제1 공장장이었던 육군중령 채병덕이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당시 부평지구의 일반치안대에 참여한 인사는 강한성(姜漢成)·권봉성(勸鳳成)·김건룡(金健龍)·김흥태(金興泰)·송문섭(宋文燮)·류한구(柳漢九)·이기만(李起滿)·이창재(李昌在)·이재준(李載濬) 등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해방의 감격은 잠시였고 도처에서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는데 이는 부평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익 진영에서는 세를 규합하여 유한구의 사무실을 본부로 사용하면서 부평서국민학교 교정에서 반공집회를 가지는가 하면 좌익진영에서는 부평동국민학교에서 집회를 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상태가 되었다. 당시 부평지역의 우익진영 지도자는 김석기·이재준·김영길 등이었다. 좌익진영의 인사로는 경인간 관공서 폭파 음모사건 등에 연루 체포되었던 이선익(李善益)·이태종(李泰鍾)·이기서(李起瑞)·염규영(廉圭榮) 등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부는 중학교 상급학년(현재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45년 10월 10일 인천 미군정청은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는 한편

제물포시장에 임홍재(任鴻宰), 부평지구장에 김석기, 남동지구장에 오혁근(吳赫根), 서곶지구장에 정원용(鄭元鎔)을 임명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대중일보』 1945년 10월 11일자). 1945년 10월, 서울에서 우익진영의 인사들로 건국청년회(회장 오정방, 吳正邦)가 결성되자 부평에서도 건국청년회 부평지부가 결성되었는데 회장에 김건룡, 부회장에 김영길, 총무에 윤재화, 감찰에 김흥태가 선출되었다(김영길의 증언;『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166쪽에서 재인용). 이후 건국청년회는 송택선(宋澤宣)을 중심으로 한 평안청년회와 김두하(金斗河), 이정기(李正基)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청년회와 유대를 갖고 부평지역에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1946년 2월 8일 서울에서 이승만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자 같은 달 말에 부평에서도 우익진영이 총 집결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부평지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석기 · 이재준 · 김영길 · 김건룡 · 김흥태 · 유한구 · 강한성 · 권봉성 · 윤재화(尹在華) · 정인환(鄭仁煥) · 이후규(李厚珪) · 정완성(鄭完成) · 임덕용(林德容) · 김흥수(金興洙) · 박상현(朴相賢) · 최명복(崔命福) · 이선문(李先文) · 장수경(張壽京) · 박태원(朴泰遠) · 김양한(金良漢) · 윤주환(尹柱煥) · 공옥성(孔玉成) · 이회창(李會昌) · 이승제(李昇濟) · 이빈경(李斌卿) · 양재윤(楊載潤) · 송문섭(宋文燮) · 윤상옥(尹相玉) · 이창재(李昌在)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평지회가 결성되고, 회장에 김석기, 부회장에 이재준 · 정완성, 총무에 윤주환, 조직에 김영길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처럼 해방 후 좌 · 우익의 분화가 가속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부평의 우익진영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결집되는 형국이었다. 1946년 6월 15일 조선공산당 중앙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위조지폐 사건(정판사 사건)이 발생하자 좌익진영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뒤이어 인천에서는 과거 조선공산당의 거두였던 조봉암(曺奉岩)이 당수 박헌영(朴憲永)에게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폭탄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평지부는 인천에서 조봉암의 성명서 발표를 해방 후 지금까지 우익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산하 각 청년단체와 좌익진영의 전향인사들까지 망라하여 1946년 7월 14일 소화고녀(昭和高女, 박문여고 전신, 현재의 경찰학교 자리) 교정에서 '독립전취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부평 뿐만 아니라 계양, 소사, 오류동에서까지 운집하여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영길의 사회아래 대회장 김석기의 개식사로 시작되어 서울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본부에서 부회장 신익희(申翼熙)의 '정치정세에 대한 말씀'이란 내용의 격려사를 비롯하여 대동신문사 사장 이종영(李鍾榮)의 '공산주의 비판', 그리고 서북학생연맹 대표의 실정보고 등 좌익을 성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947년 4월 21일 광복군 사령관 이청천(李靑天)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중국을 거쳐 이승만과 함께 귀국했다. 이청천은 귀국 제1성으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단체가 하나로 뭉칠 것"을 호소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각 단체의 대표자 회의를 가진 후 1947년 9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결성식을 가졌다. 이에 호응하여 부평에서도 기존의 우익 청년단체 등이 회의를 소집하여 통합하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장에 김영길을 선출하고 통합작업을 진행, 1947년 10월 15일 국민회관에서 결단식을 거행했다. 임원은 부평지구 단장에 이재준, 부단장에 김영길 · 김건룡, 간부에 강한성 · 권봉성 · 김정추 · 박태원 · 유한구, 감찰부장에 김흥태, 서곳지구책에 이창재 등이 맡았다.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각 동 혹은 부락 책임자를 두는 등 조직의 특성을 살려 정보파악에 유리하게 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우익진영이 인천 부평에서 다가오는 제헌의회 선거를 준비하는 조치였다.



대동청년단 부평지부 준비위원장을 지낸 김영길

대동청년단 부평지부의 각 동 · 부락별 조직책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하촌(下村) 단장	권봉성
역전단장	강한성
시장단장	이종석
사거리단장	공옥성
신트리단장	이승제
갈산동 단장	이선문
후정회단장	최명복

작전동 단장	이빈경
계산동 단장	박태원
효성동 단장	이회창
부평2동 단장	이규종
부평3동 단장	양재윤
산곡동 단장	윤재화
까치말 단장	김영익

(출전 : 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동아사, 1986, 168쪽)

(2) 부평의 제헌의회 선거

두 차례에 걸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 소총회는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른바 남한 단독선거 방침이었다. 이에 국내 정치세력들이 총선거 참여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남조선 과도정부'도 각 지역별로 남한 단독선거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은 1947년 말부터 이미 선거 열기로 달아올라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출마설을 흘리며 이면공작을 개시했다. 1948년 3월 초에는 양제박·하상훈·곽상훈·김홍식·윤병덕·김석기·조봉암·함효영·이순희·이유희 등 인천 지역 출마 예상자들의 명단이 나돌기 시작했다(『대중일보』 1948년 3월 10일자).

시 당국도 선거준비에 착수했다. 선거일이 1948년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3월 12일부터 유권자 파악을 위한 호적조사를 시작하였고 3월 19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대중일보』 1948년 3월 12일자 및 3월 16일자. 선거일은 일식으로 하루 연기되었다). 3월 17일 1개 선거구당 인구가 10만 명으로 정해지고, 인천은 경인철도를 경계로 1구(갑구)와 2구(을구)로 지역구가 나누어졌는데(『대중일보』 1948년 3월 19일자. 선거인 등록은 4월 8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되었다). 인천 을구의 중심 지역이 바로 부평이었다.

후보자가 확정되면서 현지 언론은 지역구별로 판세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

에 따르면 부평이 포함된 을구는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하상훈(한국민주당)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과거 조선공산당의 거두였던 조봉암(무소속)이 출마할 경우 동부에서 혼전이 예상되며, 특히 부평에서 김석기가 출마하는 것도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앞서 본대로 김석기는 우익진영을 대표하는 부평지역의 토호 유지였다. 또한 대한노총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임홍재(전 인천시장)의 득표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대중일보』 1948년 3월 27일자).



제헌의회 선거에서 인천 을구의 유력한 후보로 출마한 한국민주당의 하상훈. 후에 초대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한민당이었다. 한민당은 인천 갑구에 양제박, 을구에 하상훈을 각각 공천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당초 한민당에서 갑구를 희망했던 곽상훈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홍식, 윤병덕, 함효영(이상 갑구), 임홍재, 김석기(이상 을구) 등 다른 후보들도 3월 말경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부평을 포함하는 인천 을구에서 출마한 후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강화 출신의 조봉암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부평의 한 양조장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빌려 선거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후보등록을 미루고 있다가 4월 6일에 을구 출마를 표명하고(『대중일보』 1948년 4월 7일자) 4월 14일 마감이 임박해서야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제헌의회 선거 인천 을구 출마자는 하상훈, 임홍재, 김석기, 조봉암, 이성민으로 확정되었다. 인천 을구는 월미도, 화수동, 화평동, 창영동, 금곡동, 송림동, 송학동, 만석동, 송현동, 갈산동, 작전동, 일신동, 삼산동, 청천동, 산곡동, 서운동, 효성동, 백석동, 시천동, 점암동, 경서동, 난지도 등(『대중일보』 1948년 3월 26일자) 부평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인천에서도 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 봉급생활자' 등 소시민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대중일보』 1948년 3월 31일자).

1948년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부평 동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유권자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구의 첫 합동 정견발표회가 열렸다. 여기서 단연 주목을 끈 것은 부평의 유지 김석기와 조봉암의 연설 대결이었다. 김석기는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 부평지부장으로서 독촉의 공천으로 출마했다. 부평의 토박이인 그는 회사의 중역으로 조봉암과는 동



조봉암. 제헌의회 선거에서 인천 을구에 출마해 김석기를 1,79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갑이었다. 앞에서 본대로 1945년 10월 10일 인천부가 제물포시로 개편될 때 미군정에 의해 부평지구장으로 임명된 적도 있었다. 먼저 등단한 그는 "나는 어떤 정당과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고, 조봉암을 겨냥하여 "나는 공산주의자의 투표로 만약 당선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의원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기의 의도는 선거를 좌우의 이념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조봉암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전향' 이후 자신이 줄곧 주창해 온 민족통일과 자주독립론으로 응수했다. 그는 미소 양군은 철퇴해야 하며,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 내가 국회에 출마하게 된 것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곧 외국군대를 철퇴시키는 운동이다. 미 · 소가 나가야 우리가 살고 독립이 된다. 우리 민족은 좌우 중간을 통일하고 사대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토 안에서 미 · 소의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양군의 전쟁은 곧 우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민족 자주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나는 국회에 나가면 남북통일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이 남북통일이 좋은 일이라면 나를 지지할 것이요, 그를 원치 않는다면 나를 배격할 것이다(『대중일보』 1948년 4월 20일자).

선거전이 이념 대결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과 달리 판세는 당초 유력했던 하상훈과 임홍재가 뒤로 처지고 김석기와 조봉암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연출되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한 '좌익' 출신인 조봉암은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4월 29일에는 그의 찬조 연사들이 정체불명의 '통일청년당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 난동을 진압하기 전에 연사들 중 한 사람이 구타를 당했으며, 경찰은 찬조 연설 가운데 공산당 노선을 따르는 언동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했다(「미군정 주간정기보고」 1948. 5. 7 ; 『죽산조봉암전집』 제2권, 89쪽).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고, 5월 12일 아침 7시부터 개표에 들어가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종료되었다. 개표 결과 인천 을구의 유

권자 수 총 51,580명 가운데 48,04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393표가 무효로 처리되고 조봉암 17,620표, 김석기 15,827표, 임홍재 8,806표, 하상훈 4,394표로 조봉암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대중일보』 1948년 5월 13일자). 조봉암과 김석기 두 후보 간 표차는 1,793표에 불과했을 정도로 접전이었다.

5월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김태영 명의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43조에 따라 조봉암이 인천 을구에서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그는 신문지상에 다음과 같은 당선사례문을 게재했다.

금반 소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함에 잇어서는 동포제위의 애낌없는 원조를 밧자와 다행히 당선되였압기 우선 지상을 통하여 삼가 감사의 뜻을 표하옵나이다.
단기 4281년 5월 13일 조봉암 근백(謹白) 인천부 을구 유권자 제위(『대중일보』 1948년 5월 13일자)

인천 을구의 선거결과는 전국적 지명도 등을 중시했던 제헌의회 선거의 무소속 열풍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헌의회 선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자리였던 만큼 지역 일꾼을 뽑는 기성국가의 선거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토착적 기반이 유달리 강한 부평의 유권자들도 건국의 대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3) 반민특위 인천지부와 친일파 청산운동

1948년 5 · 10선거의 결과 제헌국회가 구성되면서 친일파 숙청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자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었다. 제헌국회가 반민특위를 구성한 것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와 민족적 요구를 계승한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왜곡된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운동의 일환이었다.

반민법에 의해 조직된 반민특위는 크게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재판부 · 특별검찰부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핵심기구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9월 29일 김인식 의원 외 19인의 긴급 제안으로 조직되

었다. 각 도 대표 1인씩 총 10명을 호선하여 구성했다. 이후 특별조사위원들은 위원장에 김상덕, 부위원장에 김상돈을 각각 호선하여 1948년 23일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부조직으로 도 조사부를 설치했는데, 이는 각 도별로 반민 피의자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치된 도별 위원회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도 조사부는 위원장 · 조사관 · 서기관 · 특별경찰대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이 포함된 경기도 조사부의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경기도 대표를 지냈던 이기룡(李起龍)이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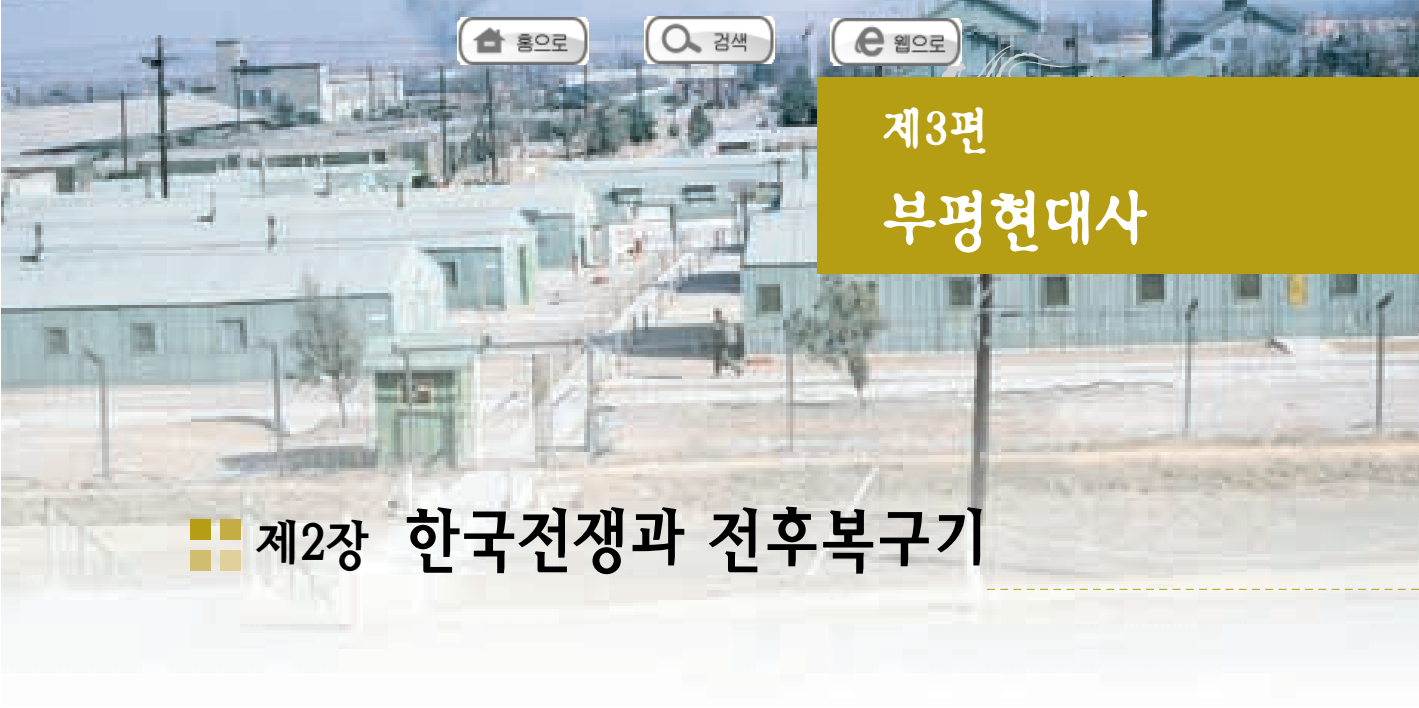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조사부는 1949년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다른 도와 달리 경기도 조사부는 예하에 2월 25일 인천지부를 설치했는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였다. 인천지부에는 지부장 겸 조사관에 이성민(李性玟), 조사관에 권성오(權成五), 서기에 최진하(崔晋夏)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성민은 인천에서 발행되던 대중일보의 감사역, 민족청년단 인천시단 단장을 지냈고, 권성오도 민족청년단 인천시단에서 활동하였다. 이 가운데 최진하는 인천 거주 반민 해당자 김 모의 동상 건립에 관여했다는 설이 나돌아 임기 초반에 자진 사퇴했다.

1949년 2월 24일 반민특위 경기도 조사부 인천지부는 인천부 부청 안에 사무실을 열었고 이에 앞서 '반민법 해당자 고발 투서함'을 부청 정문에 설치하여 30만 부민들에게 지부의 활동 개시를 알렸다. 대중일보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제 앞에 아부의 무릎을 꿇고 민족과 조국을 팔기에 눈을 뒤집고 날뛰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해방된 조국 하늘 아래서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를 받을 날이 오고야 말았다"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인천지부는 중추원 참의, 인천경찰서 고등계 형사, 인천상공회의소 의원, 징용후원회 인천회장, 국민정신총력조선연맹 간부, 조선청년동진회 인천지부장, 학도병 인천익찬회 회장, 인천부회 의원, 대일본청년돌격대, 고려불교회 회장 등 피의자 21명을 체포, 구금하여 12명은 특검 송치하고, 9명은 경기도 조사부에 처리를 인계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징역과 공민권 정지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민특위 경기도조사부(인천지부) 반민 피의자 조사현황				
성 명	체포일	특검송치일	경력	전거
이중화	4.12		1920년 인천경찰서 고등계 형사, 1930년 순사부장	반민특위재판기록 11
김정윤	4.13		인천서 고등계형사로 15년간 근무	반민특위재판기록 13
한능해	5.23	6.11	인천 樂士菴 주지, 일인경영 護國寺 승려, 국방헌금	반민특위재판기록 16
권오연	3.15		인천, 경기경찰서 고등계 형사	서울신문, 1949.4.13
김태훈	3.11	4.16	징용후원회장, 경방단 간부, 부회 의원	부산신문, 1949.3.15
오경팔	3.11	4.16	고등계 형사	영남일보, 1949.3.15
이필순	3.5(자수)	8.3	헌병보, 인천부청 재무계장	부산신문, 1949.3.9

출전 :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 2003, 253~254쪽.

그러나 반민특위 인천지부는 개소 5개월여 만인 8월 7일 문을 닫고 말았다. 일제 때 관리를 지냈거나 친일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지부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과 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등 기관 간 갈등 그리고 반민특위 습격 등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 책동이 그 원인이었다.



제3편
부평현대사

제2장 한국전쟁과 전후복구기

제1절 한국전쟁과 부평

1. 한국전쟁기 부평지구 전투의 개요

한국전쟁기 부평은 6 · 25 남침으로부터 9일 후인 7월 4일 인민군에 점령되었는데, 인민군 점령 당시 인천을 비롯한 부평지역에는 별다른 전투가 없었다. 인천이 점령된 지 74일 만에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한국전쟁의 전황을 일시에 반전시켰다. 인천상륙작전 이튿날인 9월 16일 오후부터 미해병과 한국해병이 서울 탈환을 위해 영등포와 김포를 향해 진격을 계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서울 진격을 차단 · 저지하려는 북한군 사이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부평지구에서 2~3일간 벌어졌다. 전사에 기록된 부평지구의 전투는 원통이고개 전투, 부평역 전투, 부개동 송내 전투, 김포와 신리 전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천을 방어하던 북한군의 주력은 서울지구로 퇴각하고 그 일부만 서울방어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해 있었는데, 부평 지구의 잔류 병력은 약 1개 대대 규모로 추정된다. 이 병력들은 계양산(395고지)에 약 400명, 박촌리에 약 200명, 연희리에 약 200명이 잠복하면서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9월 19일 미해병이 영등포 서쪽의 안양천까지 진출하고, 9월 21일 김포지구로 패주했던 적의 주력부대

※ 이 글은 김창수(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가 책임집필하였음.

가 한국 해병대에 의해 대부분 섬멸되면서 부평지구의 전투는 종료된다.

1·4후퇴 이후 인천은 다시 인민군 점령 하에 들어가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한 달 뒤인 2월 10일 재수복되었다. 1·4후퇴 이후에는 인천의 주전장은 중동부 전선이었던 관계로 인천과 부평지역에서는 기록할 만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2. 북한군의 남침 직후 부평지역의 상황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면에 대한 포격과 함께 동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하면서 남침을 감행했다. 일제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지만,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분단체제가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상황은 더욱 고착되었고, 1949년 봄부터 38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전쟁 가능성은 이미 높아져 있었다.

남침 당일 수많은 피난민들이 김포방면으로부터 계산동, 부평, 장수동을 거쳐 남하하여 피난하는 것을 목격한 부평지역을 비롯한 인천시민들도 차츰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피난길을 서둘러 떠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인천지역은 전쟁을 피해 쏟아져 나온 피난민들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거리의 모습은 온통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한다. 주민의 소개(疏開)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피난행렬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전쟁으로 인한 전국민적 피난 비상계획이나 철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황의 급박한 전개로 인해 응급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6월 27일 피난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수원으로의 천도만 결정하고 시민철수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대구를 향해 피난을 떠났으면서도 국군은 북한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격퇴하고 있다는 방송을 되풀이하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의 국민들이 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은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인천 시장이었던 지중세는 인천시 최고 책임자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혼란에 빠진 인천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청직원들에게만 "사태가 급박하니 피난은 각자가 행동을 취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시장 자신은 단독으로 피난을 떠났다.

당시 인천시민들은 우마차, 도보, 선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나섰다.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은 육로로 경기도를 거쳐 충남지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으며 일부는 소형선박이나 어선을 이용하여 해로로 남하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개성-강화-김포-영등포-인천을 차례로 공격하면서 남하하였는데, 남침 당일 오후 4시 개성을 점령한 뒤 한강변으로 진출하였으며, 6월 26일 새벽 제15연대 1개 대대와 13연대 1개 대대가 도하작전을 개시하여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리(祖江里) 지역 2.5㎞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틀 후인 27일 오전에는 제13연대, 제15연대의 나머지 부대와 탱크 및 포병이 도하하였고 이날 5시 20분에는 김포 북단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 김포지구사령부를 급히 조직하여 강화와 인천에 진출한 인민군 6사단 병력을 일시 저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부여하였다. 김포지구 사령부는 인민군 제6사단 13연대와 15연대의 공격을 저지하여 아군의 퇴각시간을 확보하는 전술 목표를 수행하였다. 6월 30일에 북한군 제15연대가 영등포-인천간 도로를 차단하고 오류동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경인지방을 방어하던 국군은 전면적으로 후퇴하게 되는데, 김포지구 사령부도 7월 3일 11시를 기하여 완전히 철수하였다. 김포지구사령부가 철수한 이튿날인 1950년 7월 4일 오전(07시 40분)을 기하여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 탱크대대와 협동하여 인천으로 진격, 인천지역의 대부분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날은 남침 개시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로 인천의 중요인물은 이미 피난한 상태였다. 인천을 점령한 북한군은 남로당 지하 조직원의 안내로 각 기관을 접수하였으며, 해광사에 '정치보위부'를 설치하고 시내 여러 곳에 그 분소를 두었다. 보안서 및 보안 분소를 통해 민족 진영 인사 및 군경, 이른바 '반동분자'를 색출했다.

이 과정에서 원통이고개 양민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군 점령 3일째인 1950년 7월 6일, 오후 3시 30분경 부평과 간석동을 연결하는 원통이고개에서 인천 점령 이후 최초의 학살사건이 발생했다. 학살을 집행한 것은 북한군 10여 명, 여성동맹원 10여 명이었다. 이들은 양민 15명을 '반동분자'로 체

포하여 군용차량에 싣고 골짜기로 들어와 두 줄로 세워놓고 일시에 발포 살해한 뒤 시신들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이들의 시신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가매장되었다가 나중에 부평묘지에 이장되었다.

당시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천일(金天一, 대한청년단, 중앙동단 부단장, 현장에 매장)
김거복(金巨福, 대한청년단, 남구 감찰과장, 부평묘지에 매장)
김동철(金東哲, 대한청년단, 남구 감찰대원, 부평묘지에 매장)
박종현(朴鍾賢, 대한청년단, 화평동단, 감찰계장, 부평묘지에 매장)
김중중(金重重, 신원미상)

북한군의 인천 점령 당시, 후퇴하지 못한 부평의 일부 인사들은 체포되어 인천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경인의원의 김승태, 김홍수, 전 부평경찰서장 신보현, 청년단체와 사찰 경찰로 활동하던 김공호, 강덕구, 송문섭 등이다. 이들은 9 · 15 인천상륙작전 후 무사히 석방되었다.

3. 유엔군의 한강 진출과 부평지역의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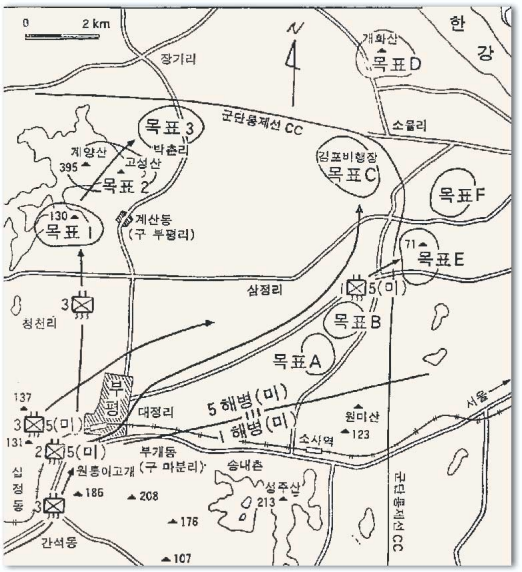
1) 원통이고개[圓通峴] 전투

인천해안 교두보를 확보한 미해병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경인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지역은 제5해병연대가, 남쪽지역은 제1해병연대가 각각 담당하였다. 제5연대의 공격목표는 김포비행장이었고 제1해병연대의 공격목표는 영등포였다. 부평지역의 전투는 주로 서울 수복을 위한 미해병 제1사단의 진격로를 중심으로 벌어진 셈이었다.

미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16일 밤 부평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하였다. 그중 제5연대의 선두부대인 제2대대는 부평역 서쪽 원통이고개 일대의 중요 고지에 배치되었다. 미해병 5연대에 배속된 한국해병 제3대대는 원통이고개 전투가 벌어진 9월 17일 새벽 4시 도화동 숙영지를 출발하여 도보행군 끝에 6시 경 원통이고개 입구에 도착

하였다. 미해병 제2대대가 배치된 원통이고개는 지금의 인천지하철 동수역에서 부평삼거리역에 이르는 고개길이다.

제2대대는 경인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그 좌측 131고지(현재 부개산 묘지공원 전망대 부근)에 F중대를, 그리고 그 우측에 D중대를 배치하였다. D중대는 원통이고개 일대가 도로와 철로가 거의 직각으로 회전해야 하는 굴곡지점으로 대전차 방어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전방 89고지(현재 호명사 부근 산정상)에 중대 2.36인치 로켓포와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제2소대를 전초소대로 배치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의 서울 진격 작전도

그리고 89고지 후방으로 도로를 따라 500m에 걸쳐 대대 3.5인치 로켓포, 연대 75밀리 무반동총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M26 퍼싱전차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대전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치는 미해병 제5연대 제2대대가 조만간 적의 반격이 곧 개시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서울 쪽 전방에서 인민군 트럭 1대가 제2대대가 포진한 진지부근을 통과하려다 생포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진지작업을 하고 있던 대부분의 미해병은 그 트럭을 우군의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상륙 직후 선착으로 전선으로 달려온 전차병들이 호기심으로 정지시켰을 때 북한군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트럭에 타고 있던 북한군 장교 1명과 10명의 병사들은 즉각 생포되었는데, 이들은 전선의 위치와 부대의 배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 상륙 후 미해병이 교두보선을 넘어 부평방면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거친 저항을 예상하였던 제5연대 2대대장 로이스(Roise) 중령은 전위중대인 D중대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해 두었다.

원통이고개 전투는 인천상륙 3일째인, 9월 17일에 벌어졌다.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인 5시 45분, D중대의 전초소대는 부평 동쪽 경인국도를 통해 인천 쪽으로 인민군 전차 6대가 접근하고 그 뒤를 보병부대가 따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북한군 보전협동부대는 미해병대의 진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 전차 위에서 식사를 하거나 행군 중에 떠들거나 소리내어 웃는 보병들도 있

었다.

전초소대원들은 T-34전차 6대와 보병들이 고개 마루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대장의 사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전초소대장인 호워드 소위는 상황을 로이스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북한군 보전협동부대가 화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6시 정각, 보전협동부대가 전초소대 앞을 지나 마지막 전차가 원통이고개의 직각으로 굽은 큰길을 꺾어 돌려고 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도로와 약 70m의 거리에 자리 잡고 있던 2.36인치 로켓포조가 전차부대를 공격하였다. 뒤이어 중대의 대전차 화기와 해병부대의 전차가 적 전차를 향하여 맹렬한 기습사격을 가하였다. 진로와 퇴로를 차단당한 상태에서 기습을 받은 적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전차와 같이 진출하던 보병들도 미해병의 기습에 응사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 사살되었다. 당시 원통이고개 입구에 도착한 한국군 제 10중대 2소대의 첨병들은 돌발적 상황을 접하고 당황했으나 곧 공격에 가담하였다. 첨병조 뒤에는 소대선임하사 임경섭 분대장이 따르고 있었다. 임경섭 분대장은 150m 전방의 도로와 콩밭 사이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 2.36인치 로켓포를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약 250명의 적 보병 가운데 200명이 사살된 원통이고개는 온통 북한군의 피로 물들었으나, 기습작전을 전개한 미해병 측의 피해는 단 1명의 부상자만 냈을 뿐이었다.



9월 16일, 원통이고개에서 미해병대의 매복공격을 받고 있는 인민군 보전협동부대 (상상도)

출처 : 고든 L. 리트먼, 『인천 1950』, 플래닛 미디어, 2006.



원통이고개 전투에서 파괴된 인민군 T-34전차



현재의 원통이고개 일대: 원통이고개 전투와 부평역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이다.

해병 제5연대는 9월 17일 아침 부평 원통이고개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오전 9시 경 김포비행장 확보를 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1㎞ 가량 더 전진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 부평동쪽 지역을 거쳐 김포비행장으로 가는 샛길로 들어선 후 경인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목표로 한강을 향하여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북쪽에 제2대대를, 남쪽에 제1대대를, 그리고 제3대대는 예비로 배치하였다. 제2대대는 최초로 경인국도와 208고지를, 제1대대가 176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2) 한국 해병의 부평지역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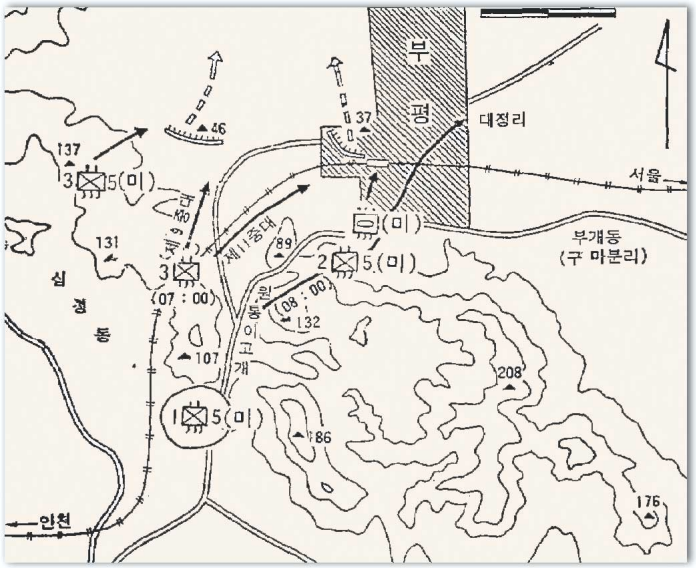
9월 17일 북한군 보전 협동부대의 이동을 포착 섬멸한 한 · 미 해병은 오전 7시부터 진격을 계속하였다. 부평 3거리 부근(지금의 백운역 일대)에 도착한 한국해병 제3대대의 제11중대는 철로를 따라 진격하면서 부평역 구내 쪽으로 병력을 전개하였고, 제9중대는 경인철로를 횡단하여 철도 왼쪽의 도로를 탐색하며 진출하고 있었다. 한국해병 제3대대는 미해병의 진출에 앞서 부평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제11중대를 우전방에, 제9중대를 좌전방에, 그리고 제10중대를 그 후방 중앙에 예비로 위치시키는 공격대형을 취한 것이다.

제11중대의 선두에서, 철로를 따라 가다가 부평역에서부터 탐색작전을 개시하려던 제3소대는 갑자기 부평역 바로 북쪽의 작은 언덕(37고지)으로부터 적의 자동화기 사격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화차(貨車) 뒤에 몸을 숨겼던

제3소대장 육동욱 소위가 그 화차를 은폐물로 이용하여 전진하려고 대원들과 합세하여 화차를 밀고 나가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 진출이 순조롭지 않았다. 적의 진지로부터 쉽게 관측되는 저지대의 철로를 따라 작전을 전개한 제11중대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화력을 적절히 집중시키지도 못해 사병 1명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부평역 북쪽 고지의 사격을 신호로, 조병창 서쪽 46고지(지금의 현대 아파트 서쪽 언덕)에서 날아오는 인민군의 자동화기 사격을 받아 제9중대의 진출도 저지되었다. 제9중대는 이 당시 전투에 불리한 평지를 통과하고 있었으나 적 자동화기 진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었는 데다, 굴포천의 둑길을 은폐물로 이용할 수 있어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제9중대는 즉각 전투대형을 갖추어 기관총을 설치하고 적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나, 신편 부대인 관계로 사격과 기동을 조화시키면서 신속히 평지를 횡단하면서 전진하는 전술을 운영하지 못해 적의 사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한국해병 제3대대의 상황을 파악한 미해병 제5연대가 엄호와 지원을 개시하였다. 한국해병 제9중대가 진출한 장소의 서쪽 137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미해병 제5연대 제3대대의 G중대의 병력은 아래쪽 능선에 위치한 46고지를 집중 공격하여 고지를 점령했다. 46고지의 인민군 18명이 사살되고 G중대원 3명이 부상하는 치열한 전투였다.



9월 17일 부평지역 전투 상황도

미해병 5연대 3대대가 진지를 구축한 137고지는 지금의 호봉산 정상 부근이며, 미해병 5연대 2대대의 진출로는 원통이고개를 넘어 부평역과 시가지를 향했다. 국군 해병 3대대는 부평역을 향해 경인철도를 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인민군은 부평역 북쪽 언덕과 화랑농장 부근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국군 해병대의 진격을 저지하다가 철마산 방향으로 패주했다.

부평역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가 종료된 직후 미해병 제5연대 제2대대가 원통이고개를 넘어 부평지역으로 진출하자 부평역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저항하던 인민군들은 황급히 도주하거나 주택가로 숨어들었다. 한국해병 제3대대는 미해병 제5연대의 공격대대가 부평지역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지원된 전차부대와 함께 부평역과 주택가의 소탕작전을 담당하였으며, 오후 늦게 다음 목표지점인 효성동을 향해 이동했다.

당시 부평역 전투에 참전하였던 한국 해병대 장교들은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인천에서 작전 섬멸작전을수행할 때 기상대 안테나 꼭대기에 올라가 우리가위험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게양한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가 당일 부평까지 들어가는 동안 1개 분대는 30~40명씩의 포로를 얻었다. 부평에 일부 미 해병대가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 중대는 선봉부대가 되었으며 내가 인솔하는 소대는 중대 선두에서 아군을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소대는 부평 철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는데 이 때 부평역 뒤의 조그마한 언덕에서 숨어 있는 적과 마주쳐 싸움이 전개되었다.

-육동욱 소위(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1소대장)

인천에서 우리는 기상대 있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나는 부두에서 인민군 시체를 처음 보았다. 아침 5시부터 11중대가 교회 있는 쪽으로 전진하였으며 이 때 인민군은 몇 놈 도망갔으나이들 적은 전의가 거의 없어 저항하지 않았다. 인천에서 인민군의 색출은 민간인들의 제보로 거의 이루어졌다. 민간인들은 상륙당일과 그 밤에는 거리에 나오지 않았으나 16일 아침부터 시가지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 때 민간인이 학살된 것이 많이 있었으며 우리중대가 처음 전투하기는 부평역에서였다. 부평역에 오니까 태극기가 꽂혀 있어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앞 고지에서 적탄이 날아 왔다. 인천에서 부평으로 통하는 도로 오른쪽은 미 해병대가 있고 우리 3대대는 그 좌측을 담당하고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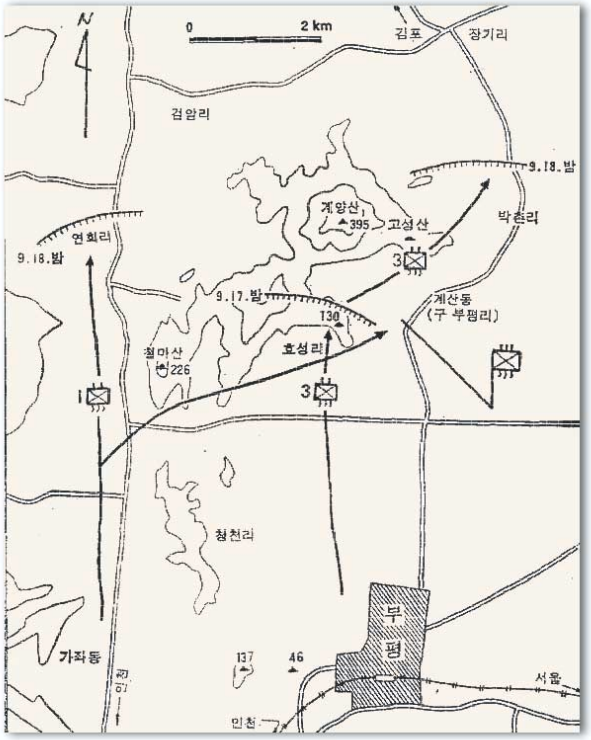
-신현옥 소위(당시 해병대 제3대대 11중대 2소대장)

부평에서 우리는 탱크 2대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는데 저쪽 고지에서 적이 연방 기관총을 쏘아 댔다. 아침 9시부터 전투는 시작되어 9시경에야 끝났으나 모든 제대가 서로 연관 없이 싸우는 통에 무질서하였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고문관 지시에 따라 부대를 일단 철수시켰다가 재배치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

스운 일이지만 전투경험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 이홍희 소위 (당시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2소대장)

이날 밤 효성동 일대까지 진출한 한국해병 제3대대는 전진을 멈추고 야간 방어준비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 경 공격을 재개한 제3대대는 목표인 계양산을 점령한 다음 박촌리 쪽으로 계속 진출하여 같은 날 오후 5시경 제3목표를 확보하였다.



한국 해병대의 부평지역 진출도(1950.9.17~18)

이 무렵 한국해병대 사령부는 9월 18일 오전 8시 인천지역을 출발하여 1대대를 지휘하면서 주안에서 부평 쪽을 수색하면서 전진하였다. 주안과 부평 사이에 전방부대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소규모 저항군들이 저격사격을 이따금 시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십정동, 청천동을 거쳐 계속 북상한 제1대대가 18일 오후 4시경 계산동 서쪽 4km 지점인 연희동 일대에 병력을 전개하는 동안 한국해병대 사령부는 계산동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군단 통제선의 북쪽 방면은 한국해병대에 의하여 확보되었는데, 그동안 적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몇 명의 패잔병을 포획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나 손실도 입지 않았으며 작전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 부개동과 송내 전투

제2대대가 진격하는 동안 D, F 2개 중대가 208고지 일대에서 1개 중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의 저항을 받았으며 경인국도를 따라 공격하던 E중대는 부평 동쪽의 개활지 가운데에 있는 부개동(富開洞, 馬墳里) 부근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진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는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아 12시 정각 208고지를 탈취하였으며, 부개동 지역에는 연대에서 전차 B중대 1개 소대를 지원 받아 증강한 제3대대 G중대를 투입시켜 공격하도록 하였다. G중대를 제외한 제3대대는 수륙양용 장갑차(LVT)와 수륙양용트럭(DUKW)를 지원받아 전차 B중대와 함께 기계화 부대를 편성, 국도를 따라 G중대를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미해병들은 부개동 민가 부근에서 T-34 전차를 발견하고 선제 기습사격으로 이를 격파한 뒤 오후 4시 경 부개동을 확보하였다. 오후에도 제1연대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제3대대는 국도를 따라 전진하고 그 남쪽의 개활지로 진출한 제2대대는 철로를 중심으로 전진하였다. 이들은 국도변에 위치한 송내를 향해 전진했다. 송내에는 북한군 제18사단 예하부대가 국도 주변에 대전차화기 10여 문을 비치하고 곡사화기의 지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미해병이 송내로 진격하자 적의 기습사격이 시작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미해병 선두전차의 엔진이 멎어 진격이 중단되었다. 보병들은 산개하여 미해병 전차들이 멈춘 상태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연대의 주력이 적과 교전을 하고 있을 때, 항공지원 요청을 받은 미해병 항공기 편대가 송내 전방의 적진지를 폭격하고 로켓포와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항공지원을 받아 마침내 북측에 위치한 제2대대가 송내촌 능선 끝부분을 먼저 점령하고, 경인 국도상의 미해병 전차들이 90밀리 포와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돌격하자 북한군은 소사로 도주하였다. 미해병 제1연대는 오후 6시 30분 경 송내촌 능선을 완전히 탈환하고 야간 방어준비에 들어갔다. 이 송내 전투에서 미해병은 적의 대전차포 6문을 파괴하였고, 다수의 병력을 살상하였다. 미해병도 3대의 전차가 손상을 입었다.

송내 전투 이후 미해병은 9월 18일 오전 소사(지금의 부천시) 일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12시 경에는 원미산 남쪽 123고지를 점령한 뒤 19일에는 영등포 서쪽의 안양천까지 진출하였다.

4) 소사 부근의 전투

9월 17일, 미해병 5연대와 한국해병대의 일부가 김포로 향하는 동안 펄러(Lewis. B. Puller) 대령이 지휘하는 미해병 제1연대는 서울 가도를 연하여 영등포로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좌우로 갈라진 양 연대의 전투지 경계선을

따라 머레이(Murray) 대령이 지휘하는 미해병 제5연대는 김포공항 지역을 담당하고 미해병 제1연대는 한국 최대의 공업지대인 영등포로 향하는 도로를 담당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전투지 경계선을 따라 소사를 공격하는 도중 북한군의 간헐적 저항이 있었으나, 미해병 제1연대는 소사와 영등포를 향한 진격을 계속했다. 미해병 제1연대는 계속되는 적의 저항을 단독으로 물리치면서 인천~서울 간을 연결하는 국도를 따라 진격을 계속하여 17일 오전 선두의 기갑돌격대는 북한군 전차 4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계속 전진하였다. 도로 오른쪽의 고지를 공격하던 미해병 제1연대 1대대(Sutter)의 D중대는 고지에서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의 반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역습 기도를 F중대가 미리 발견하여 D중대에 알려 줌으로써 D중대는 즉시 박격포를 집중 발사하여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당시의 북한군은 퇴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상륙작전 초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고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른쪽에서 공격하던 한국해병대 제1대대와 왼쪽에서 공격하던 미해병 제1연대 제2대대는 208고지와 그 주변에 배치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으나 미해병 제11연대의 포지원을 받으면서 꾸준히 진격을 계속하여 정오경에는 208고지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다. 이 공격에서 E중대의 1개 소대는 3면으로부터 북한군의 협공을 받아 한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증원된 부대와 지원사격으로 말미암아 적 20명을 사살하고 계속 진격할 수가 있었다. 이 때에 도로를 따라 전진하던 E중대는 마분리로 진출하여 오후 4시 경에 이를 점령하였고 한국해병대 제3대대와 미해병 제1연대 제3대대는 이를 지원하는 우군 전차와 같이 위장된 적의 전차 1대를 격파하고 말았다. 이로써 미해병 제 1연대는 부평에서 3km 지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북한군은 연합군의 신속하고 강력한 진격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잇점을 활용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다. 북한군은 소사 서쪽 2.5km, 부평에서 동쪽으로 2.5km에 위치한 골짜기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해두고 연합군의 진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던 미해병 제1연대는 이 골짜기에서 적의 반격을 받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전진하던 미해병의 전차가 고장이 나서 정지하게 되자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이 수류탄을 전차에 투척하는 등 저항이 강렬해졌다. 상당시간의 고전 끝에 미해병 제1연대 제3대대의 G

중대는 가까스로 도로 우측의 고지를 공격 점령하였고 도로 좌측에서 공격하던 동연대 제2대대도 목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남쪽을 경계하면서 공격, 전진한 제1대대와 미해병사단 수색중대는 4km를 진격하였고 동 제1연대 제1대대(Allan Sutter 중령)는 동사단 제1연대 제3대대의 남쪽고지를 점령하였고 사단수색대는 동사단 제1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오른쪽 지역을 각각 점령하였다.

공격부대가 전진하기 시작한 이날 야간에는 미해병 제1연대 제3대대장의 요청으로 케냐(HMS Kenya)호가 주로 소사와 123고지를 교란하기 위해 밤새 300발의 포탄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9월 18일에 미해병 제1연대 제2대대는 이날 아침 도로의 좌측과 우측을 E중대와 D중대가 각각 병행 공격하면서 전진하였는데, 이 때 아군 포격에 착오가 생겨 우군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하는 일이 있어 잠시 진격이 중단되었다.

미해병 제1연대 제3대대의 한 중대는 수륙양용차량과 지프로 동연대 제2대대를 추월 공격하여 정오에는 이미 소사에 진입하고 이어 계속 전진하여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시가지를 통과한 다음 철로 우측에 방어진을 점령하였다. 소사 1.5km 밖의 철로 좌측에 있는 123고지를 제1연대 제3대대가 점령할 무렵 미 해병사단의 우일선 대대인 제1대대는 계속 전진하여 4km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이 작전에서 250명의 적을 사살하고 70명의 포로와 전차를 포함한 많은 장비와 전쟁 물자를 노획하였다. 당시 미 해병 제1연대도 경미한 피해를 입었는데 제2대대의 전사자 1명과 부상자 28명, 제3대대의 부상자 6명이 그것이다.

9월 19일에는 소사를 점령한 미해병 제1연대는 이날 123고지와 남쪽으로 158고지-82고지 능선을 이어 그 아래의 작은 도로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북한군의 저항은 점차 격렬하게 되어 제3대대가 장악하고 있는 123고지에는 120mm 박격포탄이 집중하기 시작하여 1시간 동안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제1대대도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 북한군의 상황을 살펴 본다면 UN군의 기습적인 인천상륙으로 당황한 북한 측은 새로이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을 서울 방위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지금까지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군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약 1개 연대의 병력을 소사와 영등포 방면에 집결시키고 있음

이 포로의 진술과 항공정찰에서 확인되었다. 행주 근처와 김포공항 건너 편 지역에도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으며 남북방에서 전차와 차량 그리고 병력이 서울과 영등포에 증원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되었다.

5) 신리와 김포에서의 전투

9월 18일 미해병 제5연대와 함께 인천시가 전투를 종료한 한국해병대는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패주하는 북한군을 계속 추격하였다. 이날 해병대 사령부는 계산동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때 미해병대 일부는 효성동을 경유하여 한강변에 있는 정곡리(井谷里)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상륙부대의 주력군이 서울 탈환을 목표로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함으로써 북한군 측면으로 패주한 북한군들이 김포반도 부근에서 대오를 정비하여 역습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요 점령시설인 김포비행장의 엄호를 위해서는 김포 외곽지역을 차단하고 패주병을 섬멸해야만 했다.

한강도하작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한국해병 3대대(김윤근 소령 지휘)는 9월 18일 미해병 제5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 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북한 패주병들을 색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3대대는 18일 오후 5시 박촌리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같은날 인접부대인 한국 해병 제1대대(고길훈 소령 지휘)는 연희동을 거쳐 한강변 정곡리로 진출하고 있었고, 뒤늦게 상륙한 제2대대는 부평에 진출하여 미해병 제5연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면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9월 19일 김포반도 쪽에는 약 2개 대대의 북한군 병력과 부평지구에서 퇴각한 패주병들이 합류하여 그 중 일부는 한강을 도하하였고 약 500여명은 부대를 재편성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상륙작전에 성공한 제1군단이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서북방의 문산 가도로 진격하게 되면 김포지구의 북한군은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김포비행장 서북방 8km에 위치한 신리(新里)를 거점으로 한국 해병대의 진격을 저지할 전술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병대 제3대대는 김포지역의 패주병 섬멸을 위하여 김포 수로 북서쪽의 넓은 지역을 목표로 삼고, 일차적으로 부평-김포읍 사이의 지역을 탐색한 뒤 다음 단계로 김포읍 북부지역과 강화도를 평정하는 작전계획을 세

웠다.

9월 20일에는 계산동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해병대 사령부에서 제3대대가 김포반도의 패주병 섬멸작전을 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정보와 적의 동태를 탐지하기 위해 정보참모부 예하에 있던 첩보부대 70명을 미리 부평에서 강화도에 이르는 지역에 출동시켰다. 오세동(吳世東) 대위가 지휘한 이 첩보부대는 이날 새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김포읍까지 잠입하여 본부를 우체국 건너편에 설치하였다. 이 첩보부대가 패주병을 색출하면서 적정을 살피던 도중 150명으로 추정되는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된다. 이 기습으로 첩보부대장을 비롯한 4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급보가 박촌리에 있던 제3대대 본부로 전달되었다. 제3대대는 임무 수행 중인 첩보부대를 구출하고 북한 패주병 섬멸작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박촌리를 출발하여 해질 무렵, 김포읍 남방에 위치한 157고지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적 병력이 신리에 집결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들이 한강을 도강한 1개 대대의 병력과 함께 김포비행장을 탈취하려는 역습작전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9월 21일 아침, 제3대대는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북한군 재편성 부대가 집결한 신리 일대에 81㎜와 60㎜ 박격포로 일제 사격을 가하고 2개 중대로 포위를 한 상태에서 제9중대가 적진으로 돌격하여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아침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박격포 공격과 해병들이 감행한 육박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 전투에서 120명을 생포하고 저항하는 상당수의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북한군 일부는 포위망을 뚫고 김포와 한강 쪽으로 도주하였으나 당시에 출격한 공군기의 기총소사로 대부분 섬멸되었다.

우리는 부평이 점령된 다음 부평과 김포공항 중간지점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김포 비행장을 향하였다. 여의도 근방까지 진격한 우리는 적이 김포반도 쪽으로 올라온다기에 그쪽으로 가서 양곡 신리 전투를 하였다.

선두에서 진격한 대대본부 앞 300m 지점에서 적탄이 처음으로 날아 왔다. 우리는 야간에 이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주위에는 50 내지 60고지 정도의 산이 있었고 우리가 공격한 것은 20고지도 못 되는 산이었다. 우리 정면에 적의 기관총탄이 마구

날아와 고전을 하고 있노라니 중대장 황영 중위가 불러서 가서 보니 다름 아닌 공격명령이었는데 그 때 우리소대는 기관총 하나 없는 형편으로 장비는 적에 비해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공격은 고지 우측으로 분대별로 실시되었으며 이 전투에서 우리는 많은 적을 죽이고 중기 60미리, 80미리 박격포와 실탄 등 몇 트럭분을 노획하였다. 포로는 합해서 300~400명이 되어 제3대대는 이 전투로 명성을 떨쳤다.

– 당시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2소대장 이홍희 소위

저희들이 김포에서 적 패잔병 약 270명을 포로로 하고 보니 그 대부분이 의용군의 애송이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몇몇을 현지 임대시켰는데 나중에 장교까지 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강화도 가는 데서 오랫동안 방어하다가 육군부대와 교대하였다. 우리 대대는 마포 쪽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와 김포고지로 향하였고, 우리는 김포읍 채 못 미쳐 우리 소대는 인민군 30~40명을 잡았다. 그리고 그 길로 임진강 있는 데까지 가서 방어를 했다.

–당시 해병대 제3대대 9중대 3소대 3분대장 지영조

당시 소총중대가 신리 일대에 집결했던 적을 섬멸하자 대대본부는 김포가까이 전진하고 정중철(鄭重鐵) 중위가 인솔하는 제12중대(화기중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김포시가의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시가지 외곽의 논이나 농가에 은신하면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채 퇴로를 찾고 있었다. 김포시가전이 전개되면서 초기에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차츰 저항이 줄어들어갈 무렵 해병대가 시가에 투입되어 시가전을 펼치게 되면서 적은 대규모적으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혔다. 신리 전투에서의 포로를 제외하고 김포전투에서 포획된 포로만 180명에 달한 것을 보면 당시 전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2중대는 김포시가전 중 한 건물의 지하실에서 작전지휘를 하고 있던 적 지휘관(대좌)을 사로잡았는데 중대장 정중철 중위가 이 포로의 심문을 맡았다. 중대장이 포로를 심문하던 도중 성명 미상의 인민군 대좌가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탁상 위에 놓여 있던 카빈총을 탈취하여 정 중위를 사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9월 21일 김포지구로 패주했던 적의 주력부대가 대부분 섬멸되면서 김포반도 1단계 작전도 완료되었다. 3대대는 김포읍 이북과 한강연안지역, 강화도 일대의 소규모 패잔병을 섬멸하기 위한 2단계 작전을 전개했다. 김윤근

(金潤根) 대대장은 대대본부를 문수산 남쪽에 위치한 통진국민학교에 설치하고 문수산과 성동리(城東里) 부근 그리고 한강 하류 일대에 뻗쳐 수색전을 전개한 결과 숨어 있던 패잔병들을 사로잡거나 사살하여 서울 탈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김포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치안도 확립하게 되었다.

이 때 강화도에서는 소수의 적이 남아 있어 지방의 좌익들과 협조하였고, 치안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육동욱(陸東旭) 소위의 지휘하에 11중대 1소대를 강화읍에 파견하였다. 육 소위가 이끄는 제1소대는 민간범선을 이용하여 강화도에 도착하여 인민군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강화군민들에게 국군의 진주를 알리기 위해 인근 고지에 박격포 사격을 실시하였다. 소대는 국군의 진주를 환영하는 주민들에게 선무공작을 실시하는 한편, 강화도민들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던 치안대 업무를 지도한 다음 당일로 원대 복귀하였다. 이후 강화도에는 첩보부대 요원만 간간히 출입하면서 좌익의 활동을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4. 1·4 후퇴와 휴전 협정 당시의 부평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격으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대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하게 된다. 시민들은 전세가 갑자기 반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자 동요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이 평양과 원산의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12월 중순 이후 부녀자와 노약자의 피난을 권유하는 포고문이 발표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시민 소개령도 발표되었다.

인천의 경우 12월 30일까지 상당수의 시민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1월 3일에는 대부분이 철수하여 1월 5일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시내는 텅빈 상태였다. 1·4후퇴 당시 인천의 철수 상황을 살펴보면, 1월 4일 오전 9시 지중세 시장은 시청직원들에게 인천시 직원은 집단으로 피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희망자의 참가를 지시했다. 인천시 직원 반수가량이 집단 피난에 합류하였고 중요 서류를 휴대하고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이에 일반 시민들도 다시 피난길에 올랐는데, 혹한과 눈보라가 겹쳐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고행의 피난길이 되었다.

한편 미 제8군 사령관은 1월 3일 오후에 미 제 1, 9군단의 철수를 명령했고, 서울 북방에 저장된 보급품은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줄이도록 하였으며, 군사령부도 최소의 인원을 잔류시키고 대구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공산군 연합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를 간파하고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3일 연속 공격을 명령하였다. 한선초가 지휘하는 우측공격 제대는 서울, 인천, 수원, 양평을, 오서림이 지휘하는 좌측공격 제대는 홍천, 횡성, 양양, 강릉을 각각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8군 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교두보를 포기하고 계속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자, 1월 4일 정오 인천항의 폐쇄를 명령했다. 4일 정오까지는 후송용 선박이 부족하여 상당량의 군수물자가 남아 있었다. 군수지원 사령관은 미 제1군단의 철수 시간에 쫓기자 잔류요원들에게 인천항, 김포공항, 부평보급소에 있던 160만 갤런의 석유제품과 9천톤의 공병자재, 그리고 12량의 화물차에 적재된 탄약을 모두 파괴할 것을 명령했다.

1월 4일 오후, 김포공항의 잔류요원들은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차례로 파괴한 후 마지막으로 인천과 김포간의 송유시설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제 50공병 항만건설 중대 요원들이 인천항을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항만건설 중대는 1개의 부두시설과 월미도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만 제외한 모든 시설을 파괴했는데, 이때 인천항의 조류를 조절하는 갑문도 파괴하였다. 주요 군수물자의 파괴는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당시 유엔군이 해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항만시설을 대부분 파괴한 것은 과잉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3차 작전을 개시한 공산군은 인민군 제1군단을 인천 부근에, 중공 제50군을 수원 부근에, 제42군을 여주~이천 선에 배치하여 한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당시 인천에는 인민군 제1군단 주력인 제47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2월이 되면서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작전이 전개되었다. 2월 10일 미 제25사단의 기갑부대가 인천으로 진출하여 시가지를 정찰하였을 때, 인민군은 이미 인천 주둔을 포기하고 철수 중이었다. 미 제25사단은 도로에 매설된 대전차지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인천 영등포 도로를 점령한 후 김포공항과 김포반도로 진출하였다. 이때 인민군 제1군단은 저항을 포기한

채 결빙된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하였다. 1951년 2월 10일 인천이 다시 수복되자 피난갔던 시민들이 속속 귀환하였는데, 가옥과 재산이 모두 파괴된 참상 속에서 생필품마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재건사업에 나서야 하였다.

한국전쟁의 개전과 함께 부평지역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1951년 인천을 재수복하면서 해방 후 5년여간 주둔한 바 있던 옛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보급부대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 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미군부대는 부평지역에 주둔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초 ASCOM 부대 모습

전쟁 기간 중 인천에는 총 131,128명의 구호 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총인구수의 51%에 달하는 막대한 수였다. 이들 중 원주민은 67,695명이었으며 피난민이 63,433명을 차지하였다. 부평지역의 구호대상자 수는 당시 부평출장소 관할 인구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1952년도 부평출장소의 구호대상자는 15,904명으로 인구 29,954명의 53%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호대상자는 응급구호를 요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유엔 및 외국의 민간 구호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자력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중 인천시 피난민과 구호대상자 통계

년도	구역	총인구			구호대상자		
		원주민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1952	본청	126,634	65,824	182,458	46,946	55,191	102,137
	남동출장소	9,593	2,106	11,699	2,335	1,556	3,901
	문학출장소	6,590	496	7,086	1,299	133	1,432
	주안출장소	15,237	1,511	16,748	3,001	1,444	4,445
	부평출장소	25,478	4,476	29,954	21,771	4,134	15,904
	서곳출장소	7,843	963	8,806	2,343	965	3,308
	계	181,375	75,376	256,751	67,695	63,433	131,128

년도	구역	총인구			구호대상자		
		원주민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1953	본청	123,229	69,881	193,110	27,373	36,640	64,014
	남동출장소	10,063	1,774	11,837	1,024	1,043	2,067
	문학출장소	6,312	354	6,666	1,154	306	1,460
	주안출장소	15,050	1,356	16,406	952	407	1,359
	부평출장소	26,534	3,833	30,369	4,721	2,307	7,028
	서곳출장소	7,794	734	8,528	415	357	772
	계	188,987	77,932	266,914	35,640	41,060	76,700

출전 : 인천직할시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상, 1993, 471쪽.

1953년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전국적인 휴전반대 궐기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이 다시없는 통일의 기회라고 여겼으며, 한국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휴전회담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부평지역에서는 1953년 4월 26일, 국민회, 대한청년단, 부인회 등의 단체가 공동 주최한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요구하는 대규모 성토대회가 열렸다(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1986, 458쪽).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휴전협정이 가시화되자 포로 송환 문제로 전국이 소란스러워졌다. 휴전협정 조인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안의 도서로부터 철수를 개시하였고, 거제도와 제주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천 6백명과 중공군 포로 1천 2백 명을 LST에 승선시켜 인천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인민군 포로들은 도서에 분산되어 있던 수용소로부터 바다를 통해 인천으로 수송되었으며, 다시 철로와 도로를 이용하여 인천에 도착하여 영등포를 거쳐 문산으로 수송되었다. 중국인 반공포로는 인천에서 대만으로 송환되었다.

이에 앞서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국의 각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이 석방되었는데, 부평 제10수용소에서는 560명이 탈출에 성공하고 포로 860명이 남아 있었다. 잔류 포로는 7월 3일 밤 미군에 의해 문산으로 이송되었다.

부평지역 전투상황

■ 부평 전투상황

1950.	6.25. 04:00	북한군 38선 전면에 대한 포격과 동해안에 대한 기습적으로 상륙하면서 남침을 감행
	6.27. 17:20	북한군 제6사단 김포 점령
	6.30.	북한군 15연대 영등포~인천간 도로 차단, 오류동 점령
	7. 3. 11:00	국군 김포지구사령부 철수
	7. 4. 07:40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 탱크대대와 협동하여 인천 점령
	7. 6. 15:30	부평과 간석동을 연결하는 원통이 고개에서 최초의 학살사건 발생
	9.15. 06:33	인천상륙작전
	07:50	월미도해안(그린 비치) 상륙완료 (북한군 108명 사살, 106명 포로)
	07:33	북성동 해안(레드비치) 상륙완료,
	07:55	묘지고지 점령, 20시 관측소 고지 점령
	17:32	송도해안 (블루비치) 상륙완료,
	9.16. 오후	미해병 제5연대 제2대대 부평 원통이 고개 진출
	9.17. 06:00	미해병 제5연대 제2대대 북한군 보전연합부대와 원통이고개 전투 (적 전차 6대 파괴, 보병 200명 사살의 전과를 올림)
	12:00	부개동 진출
	16:00	부개동 확보
	오전	한국해병 제3대대 부평역 진출, 북한군과 교전
	9.18. 10:00	한국해병 제3대대 계양산 점령 후 박촌리 쪽으로 진출
	9.17. 18:30	미해병 제1연대는 송내촌 능선 탈환
	9.18. 오전	미해병 소사(지금의 부천시)일원 완전히 장악
	12:00	미해병 원미산 남쪽 123고지 점령.
	9.19. 14:00	북한군이 송내에 진출한 미해병 제1연대에 대대적 역습 (1시간동안에 30여명의 사상자 발생, 제1대대도 기습을 받아 14명 사망)
	9.19.	미해병 영등포 서쪽의 안양천까지 진출
	9.21.	김포지구로 패주했던 적의 주력부대가 대부분 섬멸 김포반도 1단계 작전 완료.
1953.	6.18	전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 (부평 제10수용소에서는 560명이 탈출하고 860명 잔류)

제2절 정치와 행정의 재정비

1. 정치

1) 정당 활동

미군정 하에서 난립된 정당은 제1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제1공화국에서 역대선거를 통하여 입후보자를 낸 정당 및 단체의 수는 제헌의원 선거에서 48개, 2대 총선거에서 40개, 3대 총선거에서 14개, 4대총선거에서 14개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당 중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 및 단체의 수는 제헌국회에서 16개, 2대국회에서 41개, 3대국회에서 5개, 그리고 4대국회에서는 3개 정당이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의 정당 활동과 당선 현황을 보면 1948년 제헌의원 선거 때는 인천 갑구에서 7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무소속이 6명이고, 대한독립촉성 애국부인회 소속이 1명이었다. 그리고 인천 을구에서의 입후보자 5명 가운데 무소속이 4명이고 조선민족청년단 소속이 1명이었다. 선거결과는 갑구에서는 무소속의 곽상훈이,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조봉암이 당선되었다. 인천 갑구의 경우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소속의 이순선은 총유효투표(47,364표)의 2.6%인 1,240표를 얻어 낙선하였고, 인천 을구의 민주청년당 이치성 후보는 중도에 사퇴하였다. 이같이 건국 초기 인천에서의 정당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제헌의원 200명 중 42.5%인 85명이 무소속이었던 당시의 전국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곽 상 훈
제헌의원 선거에서 인천 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인천 을구에서는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이 당선되었다.

1950년의 제2대 총선거를 맞이한 인천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민국당, 국민당, 대한노총, 대한청년단 등이 있었다. 정당별 공천 상황은 민국당에서 3인을, 국민당과 대한노총에서 각 2인을, 그리고 대한청년단에서 1인을 공천하였다. 선거결과 민국당은 전체 유효투표 94,342표의 12.9%인 12,134표를 얻어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을구와 병구의 총유효투표 64,198표의 29.3%인 18,809표를 얻었고 특히 부평지역인 병구에서는 조봉암이 유효투표 32,970표의 42.8%인 14,905표를 얻어 1석을 확보하

※ 이 글은 정일섭(인하대 행정학과 교수)이 책임 집필하였음.

였다. 그 외에 대한노총은 을구와 병구에서 총 유효투표의 3.2%인 2,073표를 얻었고, 병구에서만 공천자를 낸 대한청년단도 총 유효투표의 8.3%인 2,732표를 얻었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1954년 5월 20일에 시행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의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 시행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인천 갑·을·병의 3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했지만 그 외 정당은 조민당만이 갑구에 후보자를 공천했을 뿐이었다. 그 외의 후보자는 모두 무소속이었다. 갑구에서 후보자를 낸 조민당의 이종현은 총 유효투표수 36,510표의 37.0%인 13,521표를 얻어 당선자 김재곤(13,596득표) 보다 75표가 적은 2위를 득표했다. 부평지역인 병구에서는 자유당의 표양문 후보가 17,331표를 얻어 15,083표를 얻은 무소속의 김훈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무소속 당선자가 제헌국회에서는 2명 전원이고, 2대 국회에서는 3명 중 2명, 3대 국회에서는 3명 중 1명으로 점차 정당출신 후보자의 당선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재 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표 양 문
제1대 인천시장을 지내기도 했던 표양문은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병구에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무소속의 김훈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2) 대통령선거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은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 제33차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선거결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51년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하여 같은 해 5월 16일 김성수를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선거는 모두 국회에서의 간접선거였으므로 인천시민의 의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제1차 개정헌법 소위 발췌개헌과 그 절차법(동년 7월 18일 공포)에 따라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부터는 직접선거가 실시되었다.

(1)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선거

1952년 8월 5일에는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제2대 대통령에 입후보한 이승만은 전국의 유효투표 총수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얻어 압도적 다수표로 당선되었다. 인천지역의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 및 투표율과 후보자별 득표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당시의 통계자료는 인천시가 하나의 개표로 전체적인 통계만 있기 때문에 부평지역의 투표성향을 알아볼 수 없다. 표에 의하면 인천의 투표율은 74.3%인데 이는 경기도의 85.0%나 전국 평균인 88.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보면 이승만의 득표는 유효투표 총수의 79.68%로 전국 평균보다 득표수가 많았다.

제2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 및 투표율 (단위 : 명)

개표구명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인천시	106,444	76,317	2,855	79,172	27,272	74.3%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사항 (단위 : 명)

개표구명	조봉암	이승만	이시영	신흥우	계
인천시	9,427	60,810	4,654	1,426	76,317

제3대 부통령선거의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선거의 투표율과 같은 수준이다. 부통령선거는 유효투표 총수의 41.27%에 해당하는 2,943,813표를 얻은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는 이범석이 유효투표 총수의 34.27%에 해당하는 26,631표를 얻어 1위를 하였다.

제3대 부통령선거 투표자 수 및 투표율 (단위 : 명)

개표구명	선거인 수	투표자 수			기권자 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인천시	106,444	77,715	1,389	79,104	27,340	74.3%

제3대 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단위: 명)										
개표구명	이윤영	함태영	이갑성	조병옥	임영신	백성욱	정기원	전진한	이범석	계
인천시	7,123	25,320	4,819	4,992	1,870	1,564	1,945	3,451	26,631	77,715

(2)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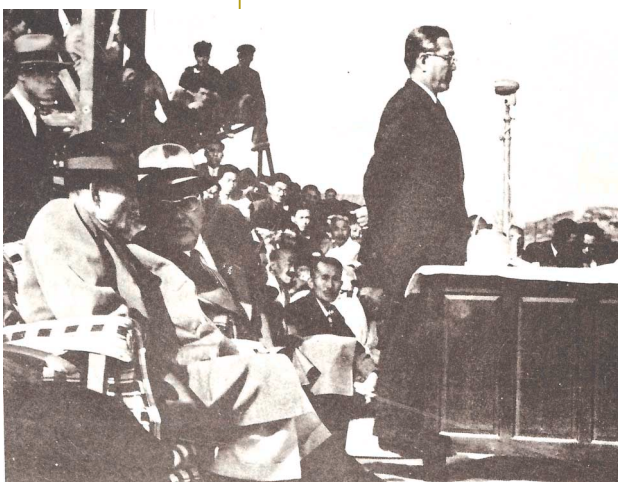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 등 3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운동 도중 민주당의 신익희가 사망하여 2명이 경쟁하게 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실시한 선거결과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효투표 총수의 70%에 해당하는 5,046,437표를 얻어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인천지역의 투표율과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천지역의 투표율은 89.5%로 서울(86.5%)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인 94.4%보다 낮게 나타났다.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보면 이승만은 전국적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70%를 획득하였지만 인천지역에서는 65.6%를 획득했고, 부평지역인 인천시 제3선거구에서도 인천지역 평균치와 같은 65.6%를 획득했다. 따라서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부평지역의 특징적인 투표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해공(海公) 신익회의 모습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신익희는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일 직전인 1956년 5월 5일 선거유세를 위해 전주로 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국민들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185만여 표를 신익희에게 안겨주었다

제3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수 및 투표율 (단위: 명)							
개표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인천시 제1	39	48,311	30,429	12,782	43,211	5,100	89.3%
인천시 제2	27	44,185	27,583	11,938	39,521	4,664	89.4%
인천시 제3	39	49,001	31,732	12,196	43,928	5,073	89.6%
계	105	141,497	89,744	36,916	126,660	14,837	89.5%

제3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단위 : 명)				
후보자	인천시 제1	인천시 제2	인천시 제3	합계
조봉암	9,489	10,471	10,917	30,877
이승만	20,940	17,112	20,815	58,867
계	30,429	27,583	31,732	89.744



제4대 부통령선거 유세장에서 연설중인 장면 박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면은 총 4,012,654표를 얻어 2위인 이기붕을 누르고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는 장면, 이기붕, 윤치영, 이윤영, 백성욱, 이범석 등 6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장면이 유효투표 총수의 46.4%에 해당하는 4,012,654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인천지역의 투표율과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뒤의 표와 같다. 인천지역의 투표율은 89.4%로 서울(86.5%)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인 94.4%보다 낮은 편이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통령선거와 다른 점은 유효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천지역의 유효투표율은 95.4%로 전국평균 유효 투표율인 95.3%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전국 유효 투표율인 79.5%나 인천지역의 유효투표율 70.8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평지역인 인천시 제3개표구의 경우도 유효투표율은 95.6%로 인천지역의 유효투표율인 95.4%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인천지역 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장면 후보는 유효투표 총수의 62.15%인 74,671표를 획득하여 연고지인 인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했음을 알 수 있다. 부평지역인 인천시 제3개표구의 경우는 장면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61.31%인 25,442표를 얻어 인천 전체 평균인 62.15%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효투표 총수의 59.80%인 24,591표를 얻은 인천 제1개표구보다는 높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 시행된 제4대 부통령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이범석의 선거사무실

제4대 부통령선거 투표자수 및 투표율 (단위: 명)							
개표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투표율
			유효	무효	계		
인천시 제1	39	48,311	41,081	1,979	43,060	5,251	89.1%
인천시 제2	27	44,185	37,580	1,914	39,494	4,691	89.4%
인천시 제3	39	49,001	41,995	2,423	43,918	5,083	89.9%
계	105	141,497	20,656	6,316	126,472	15,025	89.4%

제4대 부통령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단위: 명)				
후보자	인천시 제1	인천시 제2	인천시 제3	합계
장 면	24,591	24,638	25,442	74,671
이기붕	11,285	8,514	10,990	30,789
윤치영	2,087	1,596	1,988	5,671
이윤영	222	244	289	755
백성욱	731	609	809	2,149
이범석	2,165	1,979	1,977	6,121
계	41,081	37,580	41,495	120,156

3) 국회의원선거

(1) 제2대 국회의원선거(1950. 5. 30)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인천시는 갑, 을, 병의 3개 선거구로 구성되었고 부평지역 대부분은 병구에 해당하였다. 인천 병구의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모두 12명이었다.

인천 병구 제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득표수			
성 명	연 령	소속정당(사회단체)	득표수
조봉암	52	국민당	14,095
임홍재	50	무소속	4,248
김석기	52	무소속	6,481
김영배	53	기 권	
김영일	32	대한청년당	2,732
이필상	45	민주국민당	1,146
이열헌	52	무소속	395
최익환	48	무소속	826
류경원	40	대한노총	1,247
조윤수	39	무소속	855
김태훈	57	무소속	394
이종모	36	무소속	551
계			32,970

입후보자의 특징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갑구(무소속 3명, 민주국민당 1명)와 을구(무소속 4명, 민주국민당 1명, 국민당 1명, 노총 1명)의 경우도 동일하였다. 병구는 12명이 입후보하여 인천지역의 3개 선거구 중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하였다. 병구에서는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수(32,970)의 42.75%인 14,09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2) 제3대 국회의원선거(1954. 5. 20)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7일자로 공포된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시 중이고 국내외 정세로 말미암아 참의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게 됨에 따라 1954년 5월 20일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인천에서는 모두 12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갑구에서는 김재곤(자유당), 이홍식(무소속), 김장원(무소속), 함효영(무소속), 이우관(무소속), 이종현(조민당) 등 6명이 출마하였고, 을구에서는 곽상훈(무소속), 김종섭(자유당), 홍용환(무소속), 김홍열(무소속) 등 4명이 출마하였다. 부평지역인 병구에서는 표양문(자유당), 김훈(무소속)이 출마하였다. 선거결과를 보면 갑구에서는 총 유효투표수 36,510표의 37.24%인 13,596표를 득표한 자유당의 김재곤이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총 유효투표수 31,152표의 59.42%인 18,512표를 득표한 곽상훈이 당선되었다. 부평지역인 병구에서는 표양문이 총 유효투표수 32,414표의 53.47%인 17,33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수 (단위 : 명)

선거구	성 명	연령	학력	직업	소속정당	득표수
안천 병	표양문	47	소 졸	전 인천시장	자유당	17,331
	김 훈	44	대 졸	전 경찰관	무소속	15,083

(3) 제4대 국회의원선거(1958. 5. 2)

1958년 1월 25일 법률 제470호로서 「민의원의원 선거법」이 개정 공포되

어 이 법에 의하여 제4회 국회의원선거가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다. 인천의 경우 갑구에서는 김재곤(민주당), 신태범(자유당), 김은하(무소속), 강위청(무소속) 등 4명이 입후보하여 총 유효투표수 42,170표의 51.94%인 21,905표를 얻은 김재곤이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곽상훈(민주당)과 문병관(자유당)이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수 37,802표의 74.3%인 28,907표를 득표한 곽상훈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다. 부평지역인 병구에서는 김훈(민주당)과 김석기 등 2인이 입후보하여 김훈이 유효투표수 44,537표의 64.93%인 28,932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병구 입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수는 아래와 같다.

제4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소속 및 득표수 (단위: 명)

선거구	성 명	연령	학력	직업	소속정당	득표수
안천 병	김 훈	48	대 중퇴	무직	민주당	28,932
	김석기	58	상고 졸	전회사중역	자유속	15,625

4) 지방 선거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되었고, 8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에 지역의 명칭도 인천부에서 인천시로 개칭되었다. 이 법은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의 명예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1) 도의원 선거 (1956. 8. 13)

도의원 선거는 1952년 5월 10일 실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와 완전히 수복되지 못한 경기도, 강원도와 전북 일부지역을 제외한 7개 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인천에서 경기도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에 처음 실시되었다. 1956년 7월 10일 내무부령으로 '도 및 서울특별시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45개 선거구인데 이 중 인천시는 6개 구로 되어 있었다. 부평지역은 5구와 6구가 해당되나 이중

5구는 부평의 일부지역인 십정1, 부개, 일신, 구산동만이 포함 되었고, 6구는 부평1·2·3, 십정2, 산곡, 청천, 효성, 계산1·2, 작전, 서운, 삼산, 갈산, 백석, 시천, 검암, 경서, 연희, 심곡, 가정, 신현, 원창, 석남, 가정동이 포함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원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인천시내 105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총유권자 138,883명 중 투표율 73.5%에 해당하는 102,047명이 투표하였고, 초대 인천시의회 의원 9명이 출마하였으나 2명만이 당선되었다. 부평지역의 도의원 선거에서는 5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정구운(鄭求云)이 6,483표를 얻어 5,961표를 얻은 무소속의 이인규(李仁珪)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6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이후규(李厚珪)가 6,456표를 얻어 4,979표를 얻은 자유당의 김영길(金永吉)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부평지역 제1대 경기도의 의원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선거구	당선자	득표수	소속	차점자	득표수	소속
5	정구운	6,481표	무소속	이인규	5,961표	무소속
6	이후규	6,456표	민주당	김영길	4,979표	자유당

(2) 시의원 선거

① 제1대 시의원 선거(1952. 4. 25)

가. 부평지역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 및 관할 구역



제1대 인천시의원 선거(1952. 4. 25)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경기도 내의 시·읍·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관한 도 규칙 제정의 건을 1952년 2월 5일 「경기도규칙」 제43호로 각각 공포하였다. 이 중 제1대 인천시 지방의회 선거구는 모두 12개였고 의원 총수는 28명이었다.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1~4명이었다.

부평지역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 및 관할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관할구역
제7선거구	2	부평 1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산곡동
제8선거구	1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1동, 작전동, 서운동, 계산2동, 삼산동, 갈산동

나. 부평지역의 제1대 인천시의회의원선거 당선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2월 6일 대통령령 제605호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일을 4월 25일로 공고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실시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자신을 지지해줄 대중적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정 후 3년동안 구성되지 않았던 지방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28명의 초대 인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가운데에는 자유당 혹은 친 자유당계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대 인천시의회 의장 선거 광경(1952)
이명호가 의장으로, 하상훈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평지역의 제1대 인천시의회의원선거 당선자

선거구	당선자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득표수
제7선거구	김영길(金永吉)	1915. 10. 15	함북 명천	부평동	2,351,515
제7선거구	이후규(李厚珪)	1908. 3. 17	인천시	부평동	931,923
제8선거구	정은용(鄭殷容)	1915. 1. 22	경기 시흥	계산동	1,622,277

다. 부평지역 제1대 인천시의회 시의원의 상임위원회와 포부

초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포부는 인천항 항만의 확장과 하수도 준설, 공장시설의 복구와 재건 등 공업의 부흥, 식량의 증산 등 농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 상설시장의 합리화를 통한 상업 진흥, 취학아동의 증대에 따른 학교의 증설과 보건위생 등 시 행정의 전 부문에 걸쳐 있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기능에 관계없이 이구동성으로 공업과 농업, 상업 등 실업의 진흥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당시가 전시여서 산업기반의 파괴로 인한 물자의 부족이 심각한 데다 경제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시의원들의 직업이 서너 명의 농업(지주나 자영농) 종사자와 회사원, 의사 등을 제외하면, 곡물 · 양곡조합 간부, 정미소 운영, 양조업, 은행, 대상인, 회사 중역 등 대부분이 인천지역의 유수한 실업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포부 가운데 대부분은 국가사업이나 위임사업이고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범위는 20~3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한계가 많았다.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및 징계자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회의 모습

부평지역 시의원의 상임위원회와 직업

상임위원회	성 명	직 업
내무위원회	김영길	포목상
내무위원회	정은용	양조업
산업위원회	이후규	여객수송업

라. 부평지역 제1대 인천시의회 시의원의 인터뷰 기사

『인천공보』는 1953년 1월부터 인천시의원에 대한 연쇄 인터뷰를 게재하였다. 그 중 부평지역 인천시의원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길(金永吉) : "도심 위주에 반기 들고 흥농시책에 정신(挺身)"



아직도 화롯불이 그리운 늦은 3월의 어느 토요일 소집된 각 분과위원회에 열석하옵신 선량(選良)들 틈에서 차례에 의하여 김영길 씨에게 윙크를 하고서 조촐히 그와 마주 앉았다.

"인천시 행정은 구시가(본청관내 지칭) 중심 위주라 5개 출장소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제1성이 우선 날카롭다. 알고 보니 부평 제7구 출신이라니 의당 있을 법도 한 불평이다.

8.15광복 이래 포목상을 부평역전에서 경영 중에 있으나 그 전엔 오랜 동안 경기도청에서 관직(토목기술관)에 있었노란다. 신년도에 대한 시의원으로서의 포부 여하의 일문(一問)을 던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이 튀쳐 왔다. "도시이기는 하지만 인천시는 지나치게 농업행정에 열의가 없어 보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수리사업이나 토지개량사업 등에 과년도는 예산이 5, 6백만 원 정도밖에 없는 지극히 박약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은 이러한 면의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최부시장의 각별한 흥농시책을 지지하고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터이지만 ……. 인천시 주변의 농촌은 어짓바르게 도시 관할로 되어 있는 까닭에 납세등급이 제정시대보다(약 30%) 높을 뿐 아니라 대개가 귀속농지이고 또 지가(地價)상환관계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합니다." 농민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비료 알선, 축산 및 유리한 부업 장려 등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취미를 물은 즉 그가 관북태생이니만치 축구를 즐겨했으나, 지금은 그저 독서정도라고 한다(당년 39세의 장년). (『인천공보』 1953년 4월 1일자)

*정은용(鄭殷溶) : "시 재정획득에 열중한 농업부흥 실천가"



의단(議壇)에서는 지극히 노골적이고 과격한 언사와 논박도 불사하는 그도 막상 마주앉고 보니 상냥하고 어진 선량이다. 아마도 조용한 편집실의 분위기가 특별히 인간적으로 조촐히 대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서서히 말머리를 돌려서 그의 시의원으로서의 시정에 관한 소견을 물은즉 농촌 진흥이 급선무라고 …….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현재 나와 몇몇 이가 주동이 되어 부평에 있는 농지 470정보 확장공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물론 인천은 항도이며 공업 수산업 사업의 중심지이지만 현금의 사정으로써 제일 복구가 신속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도 농업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출신구인 부평출장소의 운영상황을 참작하여서 하는 말인지 시관하 출장소가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전도금제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의 재정획득 면에 대하여 일언하기를 "인천은 수산업이 활발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어획물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시에서 받게 되면(현재는 도의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한다) 시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적극 절충해 보라 합니다."

학창을 나온 이후 20여 년여를 양조업으로 늙어서 현재의 부평양조합명회사의 지배인이 되셨다는 그는 일장의 정견을 피력하고는 오늘도 세무서에 양조업자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바삐 나가버렸다.(『인천공보』 1953년 6월 3일자)

*이후규(李厚珪) : "단신 비만정력가형, 식량증산이 염원"



"식량문제는 현하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조해(早害)의 미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양수장 설치, 제방수리 공사 등을 철저히 단행해야 될 것이며 또 비료를 도입하여서 적기에 농민에게 배급해야 되겠으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당년 46세라는 단신 비만하고 정력가형인 그는 뜨적뜨적 포부를 피력한다. 취미를 물은 즉 여객차 수송업을 경영한다는 그는 무엇을 계산하였는지 한 동안 궁리를 거듭하더니만 "그저 공관서(公官署)와 시민 사이의 중간알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간단한 것을 거북상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그의 특징인 것 같다. 다시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낚시질과 운동(특히 축구)구경 정도이지요." 힘들게 대답하고는 쓴 웃음을 띄운다.(『인천공보』 1953년 5월 6일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부평지역의 인천시의원은 대체로 인천시의 행정이 구시가지에 편향되어 부평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과 농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② 제2대 시의원선거(1956. 8. 8)

가. 부평지역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 및 관할구역

1956년 2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원 수는 종래의 28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에서는 1956년 6월 25일 규칙 제142호로 인천시의 선거구를 12개에서 9개로 감축함과 동시에 의원 정수도 28명에서 22명으로 재편성하였다. 초대 시의회의원의 경우 인구 10만 미만일 때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 이상 20만 미만일 때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며, 20만 이상일 때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3만 명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56년 개정과 함께 인구 1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10만을 넘어 20만까지는 10만을 넘는 매 2만 5천까지 1인, 20만을 넘어 30만까지는 매 5만까지 1인, 30만을 넘을 때에는 10만에 1인을 증가하기로 하여 사실상 그 수는 1할 정도 줄어들었다.

부평지역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 및 관할 구역

선거구	관 할 구 역	인구 수	의원정수	의원1인당인구수
제7선거구	부평출장소 관내(부평1 · 2 · 3동, 십정2동, 산곡동, 청천동, 부개동, 일신동, 구선동, 효성동, 계산1 · 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40,594명	3명	13,591명
인천시		308,316명	22명	14,014명

출전 :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사』,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정회, 2005.

의원 1인당 인구 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제1선거구로 17,519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제8선거구로 10,997명이다. 부평지역의 제7선거구는 인천시 평균인 14,014명에 근접한 13,591명이다. 인천시 전체의 의원 정수는 28명에서 22명으로 6명이 축소되었으나 부평지역은 표와 같이 3명으로 종전과 같은 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나. 부평지역의 후보자 등록 현황

인천지역 전체로는 시의회 의원 22명을 선출하는데, 51명이 지원하여 평균 2.3대 1의 경쟁을 기록하였다. 인천시의 9개 선거구 중 제5선거구와 제7선거구가 1.7대 1로 가장 낮았고, 제2선거구가 3.5대 1로 가장 높았다. 특기할 사항은 초대 시의회 의원 28명 중 심덕기, 정달용, 이용구 등 3명만이 재출마하였다. 그 이유는 시의원 중 많은 수가 도의원에 출마하였기 때문이다(『인천신보』 1956년 6월 27일자). 부평지역의 경우도 초대 시의원 김영길과 이후규는 도의원에 출마하였다가 이후규가 당선되었다. 부평지역인 제7선거구의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는 모두 5명으로, 자유당과 무소속이 각각 2명씩 등록하였고, 국민회가 1명이었다. 특징적인 점은 이들의 연령이 대체로 젊은 편인 30대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도 비슷한 사정으로 전체 51명의 후보자 중 20대가 4명, 30대가 27명, 40대가 15명, 50대가 5명으로 30대가 52.7%를 차지하였다. 특히 30대 후반(36~40세)이 16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제7선거구의 인천시의회 의원 후보자 현황(의원 정수 3명)

후 보 자	소 속	기호	연령	직업	학력	주소	민선경력
정인택(鄭仁澤)	무소속	1	39	기 자	전 졸	부평동 284	
김용기(金龍基)	국민회	3	37	상업	중 졸	부평동 235	
김국환(金國煥)	무소속	5	28	농 업	중 졸	부평동 273	
노태용(盧泰容)	자유당	4	39	상업	전 졸	부평동 235	
이규종(李규鍾)	자유당	2	35	무 직	중 졸	부평동 711-3	민선동장(부평2,3동, 십정2동)



김용기 의원
제2대 인천시의원 선거에서 부평지역인 제7선거구에 국민회 소속으로 출마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당선되었다.

다. 부평지역의 시의원 당선자 현황

부평지역인 제7선거구의 인천시의원 당선자는 2명씩 입후보자를 낸 자유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씩 당선되었고, 국민회의 김용기가 4,835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되었다. 인천 전체로 보면 김용기는 제4선거구의 민주당 김여생(金麗生)의 5,446표 다음으로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 이규종 후보는 2,907표를 받았지만 낙선하였는데, 이는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창석 후보가 득표한 1,493표의 거의 두 배에 해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현상이었다.

제7선거구의 인천시의원 당선자 현황

후보자	소속	기호	연령	직업	학력	득표수
김용기(金龍基)	국민회	3	37	상업	중졸	4,835
김국환(金國煥)	무소속	5	28	농업	중졸	3,328
노태용(盧泰容)	자유당	4	39	상업	전졸	3,484

출전 : 『경인일보』 1956년 8월 10일자

라. 부평지역 시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2대 시의회가 1956년 8월 27일 개원하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었기 때문에 매년 8월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의원 간에 공식적, 비공식적 경쟁이 벌어졌다. 부평지역 시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징계자격, 운영, 예결위 등은 다른 위원회와 중복 소속이 가능하므로 부평지역 인천시의원의 상임위 소속은 임기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산업위에서 활동한 위원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명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다가 4차년도에 노태용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선거결과 노태용 의원이 자유당의 당론을 지키지 않고 반대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는 바람에 선거 후 자유당에서는 노태용 의원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는 등 심각한 내분이 있었다.



제2대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모습

부평지역 시의원의 상임위 소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김용기(金龍基)	내무, 징계자격	내무, 징계자격	내무, 예결	내무, 운영
김국환(金國煥)	문교사회	문교사회	문교사회, 운영	문교사회, 예결
노태용(盧泰容)	내무	내무	내무, 운영	내무, 징계자격

부평지역 시의원의 당적은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노총과 국민회는 자유당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용기 의원의 경우와 같이 국민회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김용기 의원과 김국환 의원은 다시 최초의 소속대로 복귀한 점이 특이하다.

부평지역 시의원의 당적 변경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김용기(金龍基)	국민회	자유당	자유당	국민회
김국환(金國煥)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노태용(盧泰容)	자유당	자유당	자유당	자유당

(3) 시장선거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장은 인천시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나 2차 투표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를 하며, 3차 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1952년 5월 7일 표양문을 제1대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초대 인천시장 선거(1952. 5. 7)
이 자리에서 표양문이 인천시의 제1대 민선시장으로 선출되었다.

표양문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여 1954년 2월 15일 시의회에서 제2대 시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5명의 입후보자(허섭, 사준, 조승환, 최병환, 김정렬)에 대한 투표 결과, 1차 및 2차 투표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제3차 투표에서는 김정렬과 허섭이 12표씩 득표하여 16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되

었으나, 허섭이 지정된 시간까지 오지 않아, 김정렬이 제2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제3대 시장선거는 직접선거로 1956년 8월 8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김정렬 시장에 대한 기득권(임기 1958년 2월 종료)을 인정하여 시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후 제3대 시장선거는 1958년 2월 5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월 16일 자정까지 김정렬만이 단일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무투표로 당선된 김정렬 후보는 당시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극한 대립을 피하고자 국민회 소속으로 등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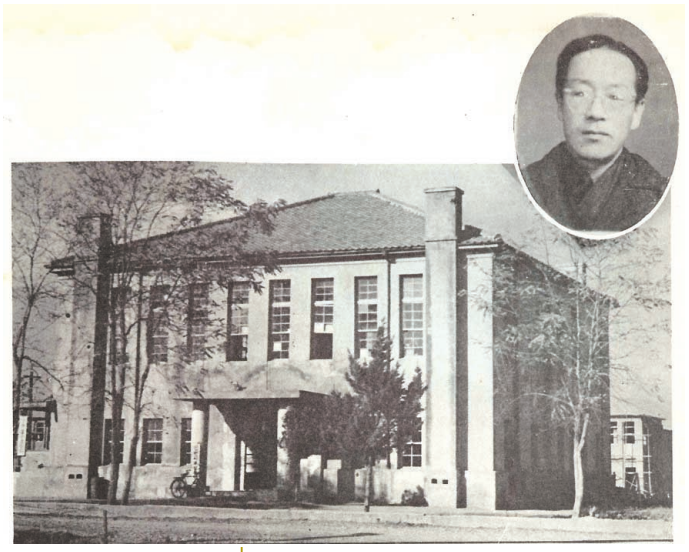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실시된 시장선거는 제1대와 제2대는 시의회의 무기명 투표를, 제3대 시장선거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에 부평지역의 투표성향을 알아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행정

1) 행정구역의 변천

인천부(仁川府)의 제2차 부역 확장에 따라 인천부에서는 1941년 4월 1일에 고시 제32호로 인천부출장소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즉 제2차 부역 확장으로 편입된 부내면, 남동면, 서곶면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그 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년 11월 17일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법률 제8호로 공포되고, 동법 제5조 및 1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3호에 의하여 시·도(道), 부, 군, 도(島)의 관할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하였다. 1949년 7월 4일에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 공포되고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인천부(仁川府)는 인천시(仁川市)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종전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인천시의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었고, 단지 출장소 간에 약간의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



부평출장소와 소장 이덕용 (1956)

1956년에는 11월 23일에는 인천시 조례 제14호로서 「인천시출장소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인천시의 행정구역은 본청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 서곶, 남동, 문학 등 5개 출장소를 두어 모두 9개 출장소가 설치 관할되었다. 인천시에서 부평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인천시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출장소별 소재지와 관할구역 (1957. 1. 1)

	소재지	행정구역		
		동수(동장수)	방수	면적(천평방)
중부출장소	인천시 관동 1가	9(4)9	369	3,219
북부출장소	인천시 송현동 56	8(5)	273	1,995
동부출장소	인천시 금곡동	5(6)8(6)	215	2,313
남부출장소	인천시 숭의동	6(9)8(6)	2311	1,541
주안출장소	인천시 도화동	7(4)3(6)	126	21,837
부평출장소	인천시 부평동109의 5	6(1)0	224	41,644
서곶출장소	인천시 연희동 산 70	2(1)6	73	36,554
남동출장소	인천시 만수동 444	1(0)6	59	33,454
문학출장소	인천시 관교동 147의 10	6(3)	47	13,740
계		1(1)9(5)7	1,617	166,297

부평지역은 1940년 인천부의 제2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인천부로 편입된 부평지역은 인구, 산업, 사회, 교통, 거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기존 인천부의 행정기구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인천부 훈령 제2호를 공포하여 신편입 지역에 출장소를 두어 종래 면에서 취급하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당시 부평출장소에 적용되었던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군사 원호에 관한 사항
(4) 숙직 및 청중 취체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사항
(7) 인감에 관한 사항
(8) 매장 및 개장 또는 화장의 인허에 관한 사항
(9) 묘지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10) 신분, 거주, 기타 제 증명에 관한 사항
(11) 정리(町里)에 관한 사항
(12) 상공 · 농업 · 수산 ·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13) 구휼, 자선에 관한 사항
(14) 위생 및 전염병에 관한 사항
(15) 거처에 관한 사항
(16) 도로 및 하수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18) 부세(府稅) 및 부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19) 세입 · 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진흥에 관한 사항
(21) 식산계에 관한 사항
(22) 기타 경이(輕易)한 사항
(『인천시사』 상, 1993, 611쪽)

그러나 이 출장소는 법정 행정기관이 아니라 종래의 면 단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편의상의 기관이었을 뿐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스틸맨(Stillman) 미군정장관은 초대 인천부윤을 정민(町民)의 선거로 선임된 인천부정회장연합회의(仁川府町會長聯合會議)에서 선거하게 하여 미군정청에서 인준, 임명하도록 하였다. 초대 부윤 임홍재는 인천부의 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령(府令) 제11호(1945. 11. 1)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된 인천부의 행정기구 편제는 서무, 회계, 학무, 사회, 재무, 농림, 상공, 토목, 수도 등 9과이었다.

또한 인천부 고시 제53호(1945. 11. 1)로 인천부지청규정을 제정하여 부평, 서곶, 남동, 문학 등 4개 출장소를 지청으로 변경하였다. 이 지청의 직제에는 청장 외에 서기, 고원(雇員), 삼림주사보, 소사, 급사, 통역원 등을 두었다. 1947년 4월 11일에는 인천부훈령 제12호로서 청장을 지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지청장을 새로 두었으며, 서무계와 산업계를 두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공포되고, 8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부는 인천시로 개칭되었는데, 그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천시는 기초적 자치단체로 되었고,
② 시장을 시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었고,
③ 시에 자치입법권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④ 인천시의 직제는 시장과 그 보조기관으로 부시장(시장 추천으로 도지사 임명)을 두며,
시장은 시를 대표하며, 그 직무는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사무를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다
(『인천시사』 중, 1993, 190~191쪽)

1955년 8월 1일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천시 관내 5개 출장소(부평, 남동, 서곶, 문학, 주안) 중 문학 및 주안출장소를 폐지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는 바 종래 이 관할구역이던 지역은 자연 시 직할이 되었다. 또한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동행정비의 절감을 이유로 동사무소의 대폭 통합을 단행하여 39개 동사무소로 축소되었는 데, 1955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1955년 9월 16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처음으로 동장 총선거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기득권을 인정받은 동장을 제외한 31개 동장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문학, 주안출장소는 1955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나, 1956년 10월 1일, 만 1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

인천시의회 제25회 임시회는 1956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출장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별

다른 질의 없이 참석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되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심의 결과 보고에서 이용구 내무위원장은 "인천시 장래의 발전을 보아서라도 출장소 설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 안건을 심의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7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한 김준식 의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된 동안이 시민과 집행부, 항도 인천발전에 지대한 성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면서 "중앙집권제를 지양할 수 있고 진정한 민의 반영과 민정파악을 기할 수 있으며, 민원상황의 속결을 기함으로써 세금의 공정부과가 가능하고 시 행정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경인일보』 1956년 11월 21일자). 시의회에서 통과된 출장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의해 종래의 본청 직할지역 중부, 북부, 동부, 남부 등 4개 출장소의 관할지역으로 분할하여 출장소를 새로 증설하였다. 그리하여 인천시는 도합 9개 출장소를 두게 되었다. 부평출장소의 관할지역은 부평 1·2·3동, 십정2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1·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등이다(『인천공보』 1956년 11월 23일자).

제3절 경제재건

1. 전후 경제와 미 군수지원사령부(ASCOM)의 부평 주둔

1) 인천의 전쟁 피해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거친 한국경제는 정부수립 후 일정한 물적 토대를 갖춘 국민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던 경제구조를 제대로 구조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갑자기 맞이했던 일제로부터의 해방으로 기존 경제질서의 와해와 이에 따른 혼란을 겪었던 한국경제는 일제 자산의 처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얼마 동안 안정과 성장의 기초 조건을 마련하였다.

※ 이 글은 이용식(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집필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미약하나마 국민경제를 형성하면서 성장과 안정의 토대를 마련해 가던 한국경제는 한국전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은 다시 한 번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였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갔고, 공업시설을 파괴하였으며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일제가 남겨놓은 약간의 근대적 산업시설을 비롯한 제반 경제시설은 거의 불타버렸고 정부수립 후 한국정부의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도 모두 무산되었다.



미 제44공병대의 도움을 받아 확장공사를 완료한 산곡국민학교 운동장 모습 (1954. 2. 11)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경제적 피해는 부평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해져 악순환의 골로 빠져들었다.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구성을 보였던 부평지역의 경제구조는 심한 불균형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비교적 밀집해서 상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생존의 기로에서 경제활동의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3년에 걸친 전쟁으로 한국경제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2년간의 국민총생산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전후 미국「네이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1949~1950회계연도 중 17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952~1953회계연도에는 13억 8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1954년 다시 증가하여 전쟁 전의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여 전쟁의 피해 수준을 짐작케 한다.

한국전쟁 피해액(1951년 6월 현재)		
구 분	금액	구성비(%)
산업관계	354	11.7
공공시설	475	15.7
교육시설	186	6.1
의료시설	372	12.3
통신시설	36	1.2
운수시설	232	7.6
일반가옥	512	16.9
국방관계	102	3.4
원료관계	271	8.9
기 타	492	16.2
계	3,032	10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획처.
출전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120년사』, 2006, 247쪽에서 재인용.

한국전쟁 당시 인천에는 일제의 군수 수요 등에 따른 공업시설 입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시설이 많이 산재했었는데, 전쟁으로 이러한 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인천의 경우 일제 하에서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이 많았고 일본인이 산업계를 지배하는 등 일본의 전초기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해방에 따른 혼란이 극심했었다. 해방 직후 인천시내의 공장 가동률은 130개 중 48개 공장이 가동되어 37%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천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비교적 대규모 공장이 집결해 있던 경인공업지대의 시설피해는 막대하여 건물의 44%, 공장시설의 42%가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숱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주택, 학교, 은행, 공장들이 불타버렸거나 파괴되었다. 인명 피해는 무려 3,249명에 달했고 일반주택과 학교, 관공서, 금융기관, 공영건물, 의료 및 수산 부분의 피해도 물론 컸지만 화학, 요업, 제재, 섬유 등 기업체의 피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인천시 집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인천시내 공업부문 기업체의 피해는 건물 13억 5,000만 환을 포함, 총 25억 5,000만 환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주택 피해 20억 8,000만 환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기관의 경우 10동에 3억 2,000여만 환의 피해액을 나타내고 있

어서 다른 모든 기업체의 피해액을 상회하였고, 항만시설의 기능마비 등 재기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천의 일반기업체(공업부문)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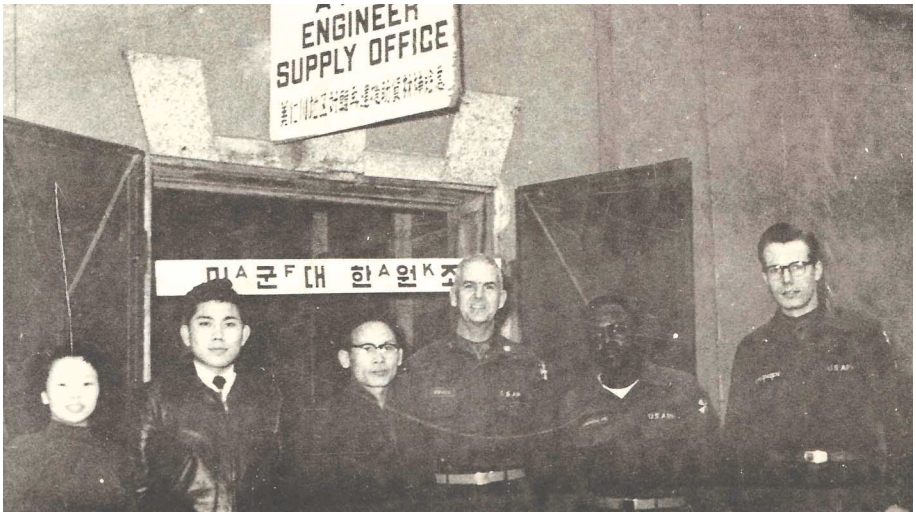
구분	개소	동수	연건평	피해총액
금속기계	29	109	24,233	364,181,105
화학	19	28	2,527	45,059,376
요업	8	8	1,699	775,250,000
식료	17	51	4,915	827.230,990
제재	10	42	3,495	130,358,000
섬유	5	22	6,519	415,847,294
합계	86	260	47,389	2,556,936,795

출전 : 인천시조사, 1954(『인천상공회의소120년사』에서 재인용)

2) 1950년대의 경제상황

이처럼 커다란 상처를 남겼던 3년간의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감되고 전후 복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경제가 재건되기 시작했다. 경제재건 초기에는 외국의 원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격심한 전쟁으로 인해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은 극심한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가 초기 경제 재건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미국 및 UN 등을 통하여 21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 경제원조가 1953~1960년 사이에 대거 투입되어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정부도 자유경제체제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관리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설의 복구와 신설을 위해 원자재도 풍족하게 도입하였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부터 3년간에 걸쳐 전후복구를 일단락 지었던 한국경제는 1957년 이후부터는 경제원조가 줄어들면서 침체를 동반한 일종의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원조가 1957년 약 3억 8,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고, 1960년에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 미곡흉작까지 겹쳐 국민총생산의 실질성장이 2.3%에 머무는 등 경제침체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원조는 국내생산에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일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전후 대한원조사업을 담당했던 AFAK의 직원들

데 크게 기여했으며,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이 예탁되어 과잉 공급된 통화회수와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을 가능케 하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므로, 경제원조의 감소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산업재건에 따른 거액의 재정적자로 통화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전시에 비하면 상당히 둔화된 수치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높은 통화증가율을 보였다. 1953년 증가율은 무려 112%에 달했고 1957년 20.1%까지 매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다가 1958년 다시 32.6%로 상승했으나 1959년 9.0%, 1960년 4.4%로 통화량 증가율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물가 역시 이 기간 중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955년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80%에 달했는데 이는 통화량의 팽창과 더불어 원조 계획에 대한 한미 간 조정 지연과 총체적인 물자부족, 특히 양곡 공급부족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승세였던 물가상승률은 1956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통화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공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원조물자 등 물자의 공급이 현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1958년에는 곡가의 대대적 하락과 원조물자 도입의 호조 및 국내생산의 증가 등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물가가 6.3%나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후 50년대의 통화 물가 추이(1953~1960) (단위 : 억원, %)

구분	통화량		도매물가	
	금액	증가율	지수(1960=100)	상승률
1953	30.3	111.8	26.5	25.0
1954	58.1	91.6	34.0	28.3
1955	93.5	61.0	61.5	80.9
1956	120.9	9.3	81.0	31.7
1957	145.2	20.1	94.1	16.2
1958	192.6	32.6	88.2	-6.3
1959	209.9	9.0	90.6	2.8
1960	219.1	4.4	100.0	10.4

출전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100년사』, 1986.

해방으로 인해 왜곡된 경제구조의 타파 및 전쟁피해 복구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산업구조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휴전 이후 1960년까지의 시기 동안 제조업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GN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7.8%에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여 1960년에는 13.7%로 높아졌다. 외형적으로는 국민경제가 공업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급속한 제조업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는 전쟁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공업화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의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러한 단점은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195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953	48.2	8.8(7.8)	43.0
1954	49.0	9.6(8.9)	41.4
1955	47.2	11.1(10.3)	41.7
1956	44.2	12.8(12.0)	43.0
1957	44.1	13.2(12.2)	42.7
1958	44.6	13.5(12.5)	41.9
1959	42.3	14.1(13.0)	43.6
1960	41.4	15.1(13.7)	43.5

출전 :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68.

1950년대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3차산업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큰 상태였다. 이는 막대한 원조물자의 국내공급을 위한 유통부문의 활성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의 상업부문에의 집중화, 높아진 국민의 소비성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부문의 성장은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의의가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경우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공업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국내산업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이 시기 산업구조의 취약점 중 하나였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원조를 통해 공급된 원료를 최종소비재로 만드는 가공산업이 발전하여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생산재생산부문의 신장은 위축되어 있었던 데 반해, 이윤이 높고 자본회전이 빠른 생필품 중심의 단순소비재공업이 급속히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 및 외부에의 의존 상황,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 국민경제는 외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의 내용을 보여주는 여러 수치들도 좋지 않았다. 그리하여 1950년대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은 한국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만들었고,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운용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3)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의 부평주둔

외국 원조의 의존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1950년대 부평지역의 변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군의 주둔이다. 미군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0일부터 한국전쟁의 발발로 철수하기 시작한 1950년 6월 27일까지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을 접수하며 남한지역에 주둔한 미군들의 주요한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맡은 바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부평지역에 주둔을 시작한 것은 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로 밀려났다가 인천지역을 다시 수복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그 전해인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잠시 부평

지역을 접수한 적은 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4개월 만에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1951년 봄부터 시작하여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부대들이 차례차례 부평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의 미군부대는 한때 단일지역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4천여 명의 한국인종업원들이 근무할 정도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요한 '일터'이기도 하였다.

1967년 미군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UNITED STATES ARMY ASCOM DEPOT」, 1967. 2. 10), 1950년대 'ASCOM CITY'는 제6의무보급창, 제4통신대, 미육군 종합 보급창인 제55보급창, 제195 · 330 · 74병기중대, 제728헌병대(Company 'D') 등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들 부대의 배치는 196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갔다.

부평에 주둔한 미군은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하며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화랑농장의 건설과 학교의 재건사업이다.

화랑농장은 상이군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목적으로 현 산곡동 일대에 조성된 마을이다. 조기준에 의하면, 상이용사 출신인 제2대 인천시의회 의원 김국환이 동지인 진상구와 더불어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활원을 이곳에 마련하고 화랑농장이란 간판을 단 후 자선사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라 하는데(조기준, 『지명유래지』, 1999), 1955년 3월 5일, AFAK의 원조자재를 이용해 미 제8057부대에서 건물 11채를 증축, 낙성식을 거행하며 본격적인 자활원으로서 자리잡아 가기 시작하였다.



화랑농장 낙성식(1955. 3. 5)

AFAK의 원조 자재를 이용해 미제8057부대에서 건물을 지어 제공하였다. 1955년 현재 화랑농장에는 독신 상이군인 132명, 세대를 갖고 있는 상이군인 60명, 상이군인 가족 9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출처: 『대한뉴스』 제55회(1955. 4. 20)

미군들은 또한, 화재로 소실된 부평동국민학교에 복구 자재를 제공하거나, 부평동국민학교 부개분교 건설에 원조를 제공하는 등 전후 부평지역의 재건 사업에 지원을 계속하였다.



전후 재건된 부평동국민학교 모습
(부평동초등학교 소장)

2. 50년대 인천의 경제재건과 부평의 지역경제

1) 인천의 1 · 2차산업

(1) 농업분야

해방 후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지상과제는 전근대적인 토지제도의 개편과 농산물 증산이라 할 수 있다. 미군정을 거쳐 민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 동안 농업부문에서는 이러한 중점적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농업증산3개년계획(1949~1951), 축산9개년계획(1949~1957), 조림10개년계획(1949~1958)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증산을 위하여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의욕적인 정책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휴전 후 농토를 떠났던 농민들이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업부문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1953년경에는 전란 수습에 따른 농민의 정착으로 농산물이 대풍작을 이루어 누적되어온 악성 인플레이션도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성장이 더디었고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농업생산이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여 자급자족이란 목표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시책이 추진되었다.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48.2%에서 1960년 41.4%로 꾸준히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의 비중이 7.8~13.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농업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흉작으로 미곡생산이 크게 떨어지자 제조업부문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성장률 역시 1.2%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도 우리나라 산업의 농업 의존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인천은 1935년 후반에서 1950년까지 전국적인 근교농업의 선진 기지로 손꼽혔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도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인천의 경제적 성격은 소멸되었다. 한편, 부평지역의 농업은 지금의 부평과 계양지역의 평야지대에서 주곡농업 중에서도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 역시 그러한 농업 중심의 경제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2) 공업분야

1953년 7월 휴전성립 이후 한국경제는 본격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경제재건의 선두에 섰던 것은 제조업이었다. 외국의 원조가 대규모로 투입되어 전쟁으로 손실된 시설의 복구와 신설을 도왔고, 풍부한 원자재의 도입이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산업의 부흥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산업도 각 분야에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1954년 인천의 업종별 공장가동실태를 보면, 총 241개 공장 중 운영 중인 것이 211개, 운휴 중인 것이 30개로 무려 87.6%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인천 지역 공장가동률이 36.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50년대 인천의 제조업이 얼마나 활기차게 성장해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업종별 공장가동실태 (1954말현재)

구분	섬유	금속	기계	요업	화학	식품	기타	계
가동	53	62	29	12	33	15	7	211
운휴	14	6	2	1	4	3	0	30
계	67	68	31	13	37	18	7	241

출전 : 경기도, 『경기도지』, 1956.

특히 UN의 원조에 의한 일본산 유연탄의 수입과 국내 4대 기간산업의 하나였던 유리공업의 성장은 인천의 제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왜냐하면 인천판유리공장 건설, 방직공업에 있어서 미국산 원면의 수입과 공급 등은 인천 지역의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대 인천을 대표하던 산업을 꼽는다면 섬유, 제철, 유리, 제분, 화학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섬유공업

섬유공업은 해방 후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산업으로 한국전쟁 후에도 가장 빨리 시설을 복구하여 생산을 전개했던 부문으로 1957년 8월에는 전국 면포 총생산량의 17%가 인천에서 생산되기도 하였다. 섬유공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전후 시설복구와 생산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섬유제품이 일반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써 수요가 많았고 또 생산 면에서도 값싼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57년 8월 현재 군소업체를 제외한 국내의 대규모 섬유업체로는 조선방직, 대한방직, 삼호방직, 전남방직, 한일방직, 경성방직, 금성방직, 대전방직 등 9개 업체를 들 수 있는데 인천에는 동양방적과 흥한방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1955년을 기준으로 인천지역에는 이들 2개 업체 외에도 직물을 주로 생산한 쌍복면업, 송고직물, 이구직물, 송도직물, 대창직물 등 많은 직물 공장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고 메리야스, 장갑, 양말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동양직물, 인천메리야스공장을 비롯하여 다수 있었는데 이들 업체는 한국전쟁 중에도 피해가 심하지 않아 1953년 휴전 이후에는 모두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



동양방직 주식회사 인천공장 전경(1950년대)

인천의 섬유공업은 1953년을 정점으로 134개 업체에 종업원은 4,780명에 달했으나 그 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1958년에는 30개 업체에 종업원은 3,416명이 되었다. 이처럼 섬유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섬유산업의 대규모화에 따른 것으로, 1958년에는 섬유류의 과잉생산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② 제철 금속공업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철강생산은 철광석을 비롯한 주요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편재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부가 북한에서 이루어졌다. 남한에는 인천의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과 삼척의 삼화제철이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거의 생산을 못하다가, 그나마 전쟁의 발발로 남아있던 시설이 거의 파괴되고 말았다.

1941년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으로 출발하여 1953년 6월 대한중공업으로 재발족한 인천제철은 해방 전까지는 이연식 회전로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철강의 일관작업을 해오다가, 철강공업의 중요성 및 막대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이를 인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외자 530만 달러와 내자 39억 5천만 원을 투입, 시설을 확충하여 국내 최초로 제철 제강 및 압연의 일관공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국내의 주요 압연공장으로는 8개 업체 정도가 있었는데 이중 인천에는 한국강업, 조선철강, 대동제강, 인천신철 등 4개 공장이 소형 압연시설을 갖추고 철근, 롯트, 철선, 양정,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였다. 이들 4개 압연공장의 최대생산능력은 1956년에 당시 전국 총 생산능력 44,600톤의 약 47%를 차지하였는데, 철근의 생산실적은 전국생산량의 38%를 차지하였다.

비철금속부문에서는 알루미늄 공장이 주로 알루미늄판과 알루미늄식기 등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영알루미늄공업과 대양알루미늄주식회사 같은 대규모의 알미늄 공장이 1956년 말에 설립되었고 이외에도 약 60여 개의 소규모 업체가 인천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당시 국내의 알루미늄 생산은 1958년부터 대량 생산되어 국내 수요량을 충족할 정도로 발전했으나 질적인 수준은 그에 따르지 못했다.

③ 기계공업

인천의 전기기기공업은 1939년 설립된 인천의 조선중앙전지제작소와 동경지포전기회사의 인천공장(후의 이천전기주식회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이들은 자본의 결핍, 원자재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이 위축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로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이천전기는 해방 후 국내 유일의 전동기 및 변압기 제조업체로 등장하여 1953년 135대, 1954년 369대의 전동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어려운 전력공급 사정 때문에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이 후 사정이 나아지면서 1958년에는 885대, 1959년 1,409대의 전동기를 생산, 공급하였다. 그 외에 변압기와 펌프도 생산했는데, 1955년에는 변압기를 201대 생산하여 전국 총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은 항구도시인 관계로 조선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으나 해방 이전부터 강선조선공장의 대부분이 부산 근처에 세워져 있어 인천의 조선공업은 부진한 상태였다. 1953년에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가 발족했으나 소형선의 건조와 수리를 주로 하여 1957년 조선실적은 전국 145척 3,809M/T 중 7척 195,157M/T에 불과했다. 당시 인천에는 신성조선소, 영화조선소, 해양조선소 등에서 소형목선을 건조하거나 고장난 선박을 수리하고 있었다.



이천전기주식회사 전경(1950년대)

기타 인천의 기계공업 업체로는 공작기계 분야의 인천기계, 농기구 분야의 선광농구사, 자동차부품 분야의 부이기계 및 국산자동차 등이 있었다.

④ 요업공업

전쟁으로 파괴된 각종 건물의 전후복구와 새로운 형태의 근대식 주택건축양식이 보급되면서 판유리의 수요는 급증하였지만 국내에는 판유리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1957년까지는 그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UNCRA 자금 362만 9천 달러를 조달하여 파나마의 VINNELL사와 연간 12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갖춘 판유리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여, 1957년 9월 30일 준공하였다. 준공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간 인천판유리공장은 1957년에는 국내 최초의 판유리 7,000상자를 생산하였다. 1958년 당시 국내에는 유리제품 제조공장이 52개소가 있었으나 대부분 각종 병류를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수공업 공장들이었기 때문에 인천판유리공장이 국내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주요 기간산업체의 하나가 되었다.

유리공업을 제외한 기타의 요업부문에서는 해방직전 국내 제4위의 공장이던 중앙도자기를 비롯하여 대한제도, 대양도자기, 조선요업, 부평연와 등의 중소기업들이 인천지역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들은 1954년에 각종 도자기제품 477만 9,000개, 연화 3,800개를 생산하였다.

⑤ 화학공업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광산, 도로, 철도, 수리 토목사업 등 새로운 국가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50년대 중반 들어 화약수요량이 급증하였다. 당시 국내 유일의 화약제조업체였던 한국화약(현 한화)은 국내 화약수요량을 거의 충족시켰다. 한국 화약은 1941년 발족하여 한국전쟁으로 생산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952년 재발족하여 1955년 정부로부터 공장을 인수받고 같은 해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공장을 인수하였다. 1956~1958년에 걸쳐 복구공사를 끝낸 한국화약은 단기간에 국내수요를 자급자족할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의 비료공업은 1914년 준공된 조선화학비료주식회사의 과인산석회 공장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조선화학비료는 국내 화학비료생산의 57%, 유기 화학비료를 합한 전체비료의 약 41%를 생산했다. 전쟁으로 생산설비가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52년 시설을 복구하고 재가동했다. 한때 도입과석의 압력과 자금난으로 운휴에 들어갔으나 1958년 8월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최신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확대시켜 식량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화학비료주식회사 사무실(1950년대)

고무공업은 해방 후 수요의 증대와 생고무의 수입재개 등에 힘입어 1947년부터 생산량을 매년 늘려왔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인천지역 고무공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휴전 후 전쟁복구와 UNCRA, ICA 등의 원조를 통해 고무공업부문에서도 발달이 부진했던 특수제품, 즉 타이어, 벨트 등의 공장이 건설되어 생산증가를 위해 노력했다. 1955년 인천지역의 주요 고무공장으로는 인천고무공업사, 신한고무공업을 비롯, 문화고무공업, 창성고무공업사 등이 있었다. 이들 고무공장에서는 1954년 1년간 고무신, 운동화 등 각종 신발류 65만 1,250족을 생산했지만, 신발류 외의 타이어, 벨트, 호스 등 고무제품의 생산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비누공업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 원료난과 외래품 범람으로 부진하였으나 1953년경부터 외국의 원조와 민간의 수입으로 비누원료인 우지의 도입이 순조로워짐과 동시에 품질도 개선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비누공장으로 당시 전국 4대공장의 하나였던 애경유지공업이 있었다. 그밖에 인천비누공장, 평화비누공장 등 중소 비누공장이 산재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세탁비누 생산에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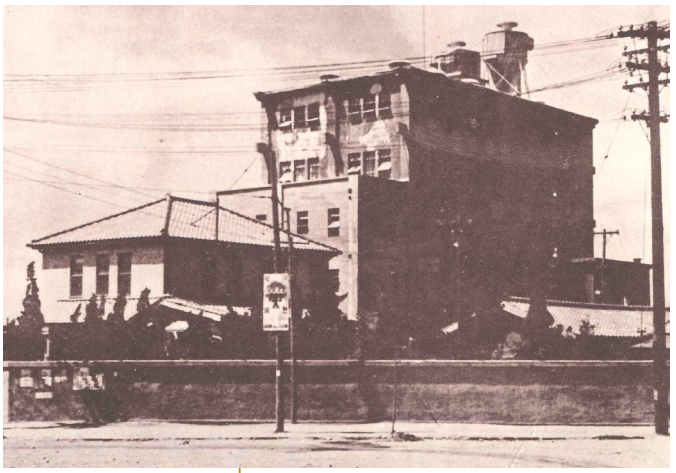
⑥ 목재공업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전부터 합판생산이 시도되었으나 근대적인 대량생산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합판산업은 휴전 후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수요증대에 자극되어 본격화되었으며 1958~1960년의 건축붐에 따라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1950년대 인천지역 합판공업은 대성목재로 대표된다. 대성목재는 50년대 말 전국 총생산능력의 30% 정도를 생산했다.

⑦ 식품공업

1950년대 인천의 제분공장은 풍국제분(현 삼화제분)과 대한제분으로 대표되었다. 일본제분주식회사의 인천공장으로 설립된 대한제분은 해방과 함께 정부의 귀속사업체로 운영되었으나 원맥의 수입곤란, 전력사정의 악화로 가동률이 극히 부진했는데, 전쟁으로 시설마저 거의 파괴되었다. 1952년 대한제분주식회사로 재발족한 후 귀속사업체였던 공장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재건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분공장이었다. 1956년 대한

제분의 생산실적은 소맥분 178만 6,249부대로 전국 총 생산실적의 약30%, 부산물의 32%를 점유하였다.



대한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의 일부모습(1950년대)

1950년대 인천지역에는 서해의 도서지방과 충남, 경기일원의 곡물을 도정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려정미소, 삼화정미소, 환일정미소를 비롯 몇 개의 도정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다. 1959년 말 현재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의 도정공장 수는 89개소로 전국의 11.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생산능력은 전국의 11.9%였다. 생산능력은 정미, 정말, 압맥을 합쳐 총 35,214가마로 전국의 13.7%에 해당하였다.

한편 주정 및 양조공업은 식품공업 가운데서도 가장 성업을 이루고 있었다. 인천에는 해방 전부터 조일양조 등이 있었는데 해방 후 주정공장 등 무수주정 제조설비를 갖추었던 일부 공장의 시설이 파괴되어 무수주정의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전쟁으로 더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복구 작업과 함께 원료인 당밀의 순조로운 도입으로 생산은 점차 호전되었는데 인천지역에는 연간 생산능력 16,200석의 인천주정을 비롯, 생산능력 8,000석의 동화주정이 1953년 설립되었고, 이 밖에도 대화양조, 조흥양조장, 부평양조장 조합 등 3개 공장이 있었고 제빙공장으로는 원양어업주식회사 인천공장과 인천제빙공장이 있었다.

2) 부평의 제조업

1950년대 인천은 이처럼 전후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각 분야가 어느 정도 발전되었고 그 결과 몇 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체를 배출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로 보면 관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부평지역의 재건 및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 이래 인천의 개발 구도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인접지역

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구와 거리가 멀었던 부평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부평의 산업기반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방 직후 인천지역 공장가동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인천을 서부와 남부, 북부, 그리고 부평으로 나누었을 때 공장수가 각각 47개, 37개, 36개였으나 부평에 입지해 있는 공장은 겨우 10개뿐이었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130개 중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겨우 2개만 가동되어 가동률은 20%로 평균인 36.9%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졌다.

해방 직후 인천 지역 공장가동상황

구분	서부	남부	북부	부평	계
공장수	47	37	36	10	130
가동공장수	22	13	11	2	48
가동률(%)	46.8	35	30.5	20	36.9

출전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90년사』, 1979.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고, 미군과의 공조 하에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평수원지공사를 통한 상수도 확장공사라 할 수 있는데,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마침내 1953년 10월 12일 인천시 상수도확장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원조자금 등을 지원받아 총공사비 3억 환에 이르는 부평수원지공사를 3개년 계획으로 착공하게 되었다.(『인천공보』 1953년 10월 14일자)

부평수원지공사 기공식을 전하는 『인천공보』 기사 (1953.10.14)


仁川市 上水道의 一大擴新策
遂! 懸案의 水源地着工
富平現場서 起工式盛了

또한 한미친선 강화와 한국의 급속한 부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인천지구한미친선회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실현 방책을 모색하였다. 1953년 10월 30일 제1차 인천지구한미친선회에서는 어린이 교통문제와 쓰레기 수거문제 등을 처리하기위해 미군 측의 협조 등을 논의하였다(『인천공보』 1953년 11월 4일자).

여러 차원에서 사회재건과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한국전쟁을 겪고 전쟁피해 복구와 경제재건이 한창이던 1950년대 중반까지도 부평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힐 만한 규모의 큰 기업이 없었다. 그 당시 부평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업원 20인 이상의 주요업체는 16개 정도였는데, 기계공업 분야 업체로는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와 불이기계, 국산자동차 등이 있는 정도였다. 1953년 2월에 설립된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는 산곡동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주로 베어링이나 콘베이어를 생산하였다.

또한 국산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었다. 일제 침략기에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겨냥하여 군용지프차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했던 국산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도 전에 일제의 패전과 함께 문을 닫았다. 그 후 1955년 부평공장에서 시발(SHIVAL)이라는 승용차를 생산해내기도 하였다. 이는 미군용 지프의 부품을 재생하여 만든 후진국형 조립품이었지만 변변한 생산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국산화율 5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었다. 이처럼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자동차는 1957년 정부의 '보유차량대수 제한조치' 발표로 타격을 입고 2,235대를 끝으로 1964년 차량생산이 중단되었다.

금속공업 부문에는 1951년 설립되어 주물을 생산하는 조양금속공업주식회사와 역시 1951년 설립되어 주로 철강재를 생산하는 한국건업 등이 있었다. 요업으로는 부평연와공업, 화학공업으로는 염료 및 염료중간재를 생산하는 이화산업(주) 등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었다. 또 제재업체로는 동화기업(주)이 있었고, 양조공장으로 부평양조조합이 있었다.

이 외에도 피아노, 오르간 등을 생산하는 영창악기와 물엿, 전분을 생산하는 신한제분, 화장품을 생산하는 (합)삼성화학, 철제사무가구, 모빌랙을 생산하는 동성상동(주), 그리고 가전, 음향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전자주식회사(1959) 등이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의 부평지역 공업화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대 부평의 주요기업체(1955년 현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종업원 수
〈금속제품 제조업〉				
부흥제작소	백귀남	부평동 350	건축용경첩	15
천일제정공업소	조종상	부평동 38	양정	38
부평기계제작소	김윤옥	부평동 85	양정	15
대륙제선공장	홍재우	부평동 101	양정	15
〈기계 제조업〉				
불이기계공업(주)	박성하	산곡동 125	베어링	53
국산자동차(주)	김용성	산곡동 128	자동차스프링	67
〈식음료품제조업〉				
평안양조(자)	김창훈	부평동 326	탁 청주	14
〈요업〉				
세광제도사	강대복	청천동 412	그라인더	35
부평연와공업(자)	최성순	부개동 120	연와	102
삼하연마공업사	유상록	청천동 412	그라인더	35
〈제재 목제품제조업〉				
대성임업(주)	이석구	부평동 319	제재	20
부평제재소	민덕기	부평동 1	제재	20
〈운수〉				
영운공사운수(주)	김윤옥	부평동 85	육운업	10
부평화물자동차운수부	김윤옥	부평동 85	육운업	14
경인화물자동차운수부	최봉길	부평동 94	육운업	7
〈토목건설업〉				
중앙공무사	이승제	부평동 98	토건업	-

출전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90년사』, 1979.

부평지역의 산업활동 전반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된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부평지역에는 기업체와 공업시설 등이 부족하여 산업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상업과 금융,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이렇듯 1950년대 부평은 인천의 외곽에 자리 잡은 소외지역이었다.

3) 인천 및 부평의 3차산업

1950년대 부평지역의 3차산업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

던 곳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상업 및 금융활동이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했던 부평으로서는 3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부평이 가진 이러한 지정학적 한계는 1950년대 부평지역의 3차산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1) 상업분야

한국전쟁 이후 수만의 월남 동포들이 인천지역에 정착하고, 항만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산업인력도 크게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시장이 번창하게 되었고, 동시에 시장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구를 끼고 있지 않다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구 중심의 개발에서 밀려나 있던 부평지역은 아직 산업적 기반을 잡지 못해 공업의 발달에서 오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부평지역에는 많은 군부대들이 주둔하여 지역 상가들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도심지역처럼 큰 시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된 상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2) 금융분야

인천의 금융업계는 해방 이후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도 착실한 발전을 해왔다. 1950년 당시 인천에 소재했던 금융기관으로는 한국은행 인천지점, 한국산업은행 인천지점, 한국상업은행 인천지점, 조선저축은행 인천지점과 상호은행 또는 한국상공은행 등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했던 구 한일은행 인천지점, 조흥은행 인천지점 및 농업은행 인천 지점 등 7개 은행의 지점과 농업협동조합 등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금융업계도 전시체제에 돌입했고, 그러면서 전쟁 일면 건설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했으며, 휴전 후에는 경제복구 및 재건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인천의 금융업계는 각종 수산자금의 조달 및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대출을 계속해왔으며 각종 피해복구자금, 외자, 도입물자하역을 위한 자금도 상당액을 방출했다.



상업은행 부평지점 준공식 (1965. 5.15)

1950년대 부평지역의 금융업은 인천의 금융업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그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부평지역에는 금융기관이 없었는데, 이 지역에 금융기관 점포가 처음으로 설치된 때는 1961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진출이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부평지역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기업체를 비롯해 산업시설 등 제반 산업활동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적었던 데 기인한다.

항구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인천시내와 불과 10km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별도 금융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적었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1940년대에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부평지역이 인천에 편입되면서부터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인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부평의 독자적 금융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게 되었다.

(3) 무역분야

휴전협정 이후 정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외국의 원조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1957년부터는 물가상승과 경제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듯이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과거 일본에의 일방적 편중에서 벗어나 점차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갔으며 환율의 등귀와 함께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1955년 8월 15일에는 환율을 1달러당 500환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종래 개별적인 수입허가제와 수출입 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정상수입품목과 특수수입품목을 구분하고 이를 한국은행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입업무는 세관에서 취급하였다.

개항 후 인천항은 부산, 군산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 중 하나로 발전했는데 이는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각종 산업물자가 인천항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인천항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다. 전쟁 기간 중 중앙정부마저 부산으로 옮겨감에 따라 수출입 무역은 자연히 모두 부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인천항의 역할도 축소되어 갔던 것이다.

해방 직후 전체 수출의 81%, 수입의 94%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전쟁 직후 그 비율이 1.2%와 8.5%로 축소된 것을 보면 당시 인천항의 위상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전후 인천항과 부산항의 수출입비율 (전국=100)

연도	수출		수입	
	인천항	부산항	인천항	부산항
1946	81.0	19.0	94.0	2.4
1947	37.1	62.5	42.0	52.0
1948	32	52.0	85.4	13.2
1949	30.3	54.2	88.0	11.1
1950	3.2	60.0	22.7	73.9
1951	4.2	68.6	–	87.4
1952	7.6	77.7	3.7	87.0
1953	1.2	82.4	8.5	84.9

출전 : 한국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55.

한편, 부평지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출산업공단 4단지(부평공단)가 조성 완료된 196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항 이후부터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될 때까지 인천이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과 중요성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해 온 데 비해, 부평지역은 인천시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개항기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공업제한 정책과 인식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해방 전 부평지역의 무역이라고는 부평평야에서 산출된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집산시키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 후 인천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인천항이 황해와 발해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이 크게 발전하였다. 부평지역도 중국 무역과 미군주둔기지 설치에 따른 특별수요로 한때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으나 전쟁으로 다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1960년대까지 부평지역은 여전히 개발에서 소외된 채 인천의 외곽으로 남아 있었다.



제3편
부평현대사

제3장 1960년대의 부평

제1절 5 · 16과 지방자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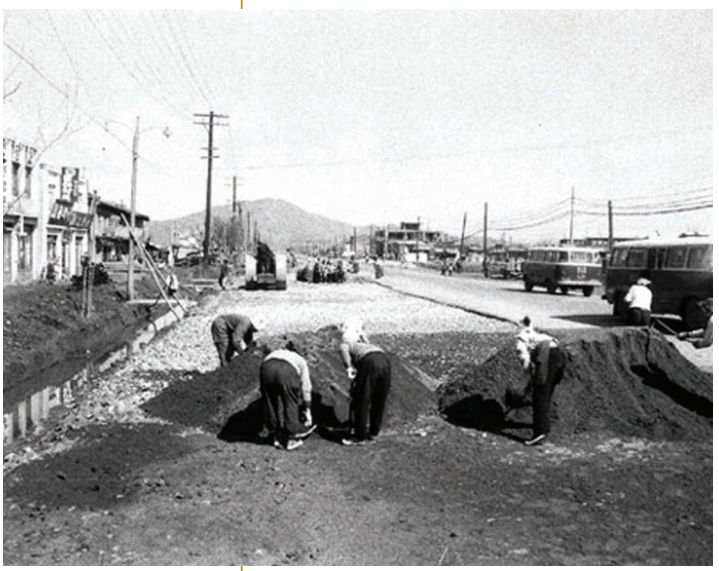
1. 4 · 19와 5 · 16 사이 부평 시민사회와 정치

4 · 19와 5 · 16 사이의 기간 동안 부평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1957년을 정점으로 원조는 차츰 줄어들었으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지 않아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1963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 우리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약 24억여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당시 국민총생산(GNP)의 12%에 달하였고, 연평균 총수입액의 73% 정도를 차지하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7년 무렵 미국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면서 대외원조를 삭감하였는데, 그 여파는 곧바로 한국경제에 미쳤다. 1955년 2억 3천2백7십여 달러, 1956년 3억 1천9백8십여 달러, 1957년 3억 7천4백2십여 달러에 이르렀던 미국의 대한 원조는 1958년부터 줄기 시작하여 1959년에는 2억 2천2백8십여 달러로 1957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4 · 19정치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억4천6백3십여 달러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미국의 급격한 원조삭감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성장률 급락,

※ 이 글은 정영태(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책 임집필하였음.

인플레이션, 실업증가 등으로 나타났지만, 인천 지역경제에는 하역물량의 감소와 원조에 의존했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의 급격한 증가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부평지역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방 직후부터 '육군조병창'에 주둔하고 있던 '애스컴' 미군부대가 적지 않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부터 부평의 지역경제도 원조삭감과 몰려드는 전쟁피난민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었다.



부평간선도로 포장공사
(1966. 03. 28)

다른 한편,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1950년대의 독재체제가 붕괴하고 대신 민주주의체제가 수립되어 국회의원과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물론 동장조차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으나 신생민주주의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정치인들은 물론 지역정치인들조차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음은 물론 오히려 정파간 갈등이나 부패 또는 무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다.

어쨌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 부평공단이 조성될 때까지 부평의 지역경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와 미군부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크게 의존해 있었고, 따라서 미국정책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도 중앙수준에서의 의원내각제와 지역수준에서의 지방자치등 민주주의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지역정치인과 주민들의 낮은 민주의식과 준법정신 등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부평의 처지와 위상이 바뀌게 되는 것은 5 ·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이 1960년대 중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2. 주민의 수와 동별 분포

부평지역은 일제가 지배하던 1940년 부천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며, 이 지역의 사무를 취급한 부평출장소는 지금의 계산동,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갈산동, 삼산동, 서운동, 작전동 등 모두 12개 동을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행정체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1960년 4 · 19정치혁명이 일어날 무렵 부평출장소는 부평동(1, 2, 3동), 십정2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동(1, 2동), 작전동, 서운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등 16개 동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부평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957년 12월 말에 4만3천여 명이던 인구가 1962년 12월 말에는 대략 8만7천 명으로 증가한 사실과, 부평 선거구(제7선거구) 유권자 중 1960년 12월 지방선거 투표자가 약 3만3천 명(투표율 약 55%)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1960년 무렵 부평의 전체 인구는 7만 명 내외였으리라 짐작된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1월 29일자 '태평양을 왕래하는 민간 대 민간 한미친선'이라는 기사에도 부평구민이 7만 명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어쨌든 1953년(30,367명) 이후 부평지역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급작스럽게 많은 전쟁피난민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부평역 로타리 모습

당시 인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부평지역의 인구밀도는 당시의 도심지역(본청관할 지역)보다는 낮지만, 남동구나 서구(서곶), 문학지역보다는 높고 주안지역과 비슷했다. 동별 인구분포를 보면, 부평지역의 유일한 역이었던 부평역 로터리 주변의 상가지역인 부평1동 일대, 주한미육군병참본부(ASCOM) 주변지역인 부평2 · 3동, 산곡동, 청천동 일대, 그리고 경인국도변에 있는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일대에 주로 모여 살고 있었으며, 논밭이 많은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등의 구부평지역에는 인구가 적었다.

부평출장소 관할구역 및 인구 (1962년 12월 현재)

동		면적(㎢)	가구(세대)	인구(명)	외국인(명)	관할
부평1동	동부동	2.253	3,121	16,857	–	부평1동 중 경인철도 북부지역에서 국보천 서부지역을 제외한 구역 전체
	서부동	1.454	2,407	11,755	–	부평1동 중 경인철도 남부지역 전체
	소계	3.707	5,528 (2,448)	28,612 (12,656)	– (154)	
부평2동		1.596	2,447 (1,164)	13,126 (6,090)	– (16)	부평2동
부평3동/십정2동		0.970	1,955 (755)	10,011 (4,332)	– (7)	부평3동, 십정2동
산곡동/청천동		8.336	3,204 (1,452)	16,353 (7,655)	– (29)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6.444	399 (270)	2,199 (1,399)	– (0)	효성동
계산1동		5.455	441 (331)	2,579 (1,865)	– (0)	계산1동
작전동		2.896	316 (264)	2,027 (1,538)	– (0)	작전동
서운동/계산2동		1.798	228 (192)	1,368 (1,138)	– (0)	서운동, 계산2동
삼산동/갈산동		3.680	618 (424)	3,548 (2,326)	– (0)	삼산동, 갈산동
부개/일신/구산동		6.763	1,150 (714)	7,097 (4,230)	– (0)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출장소		41.64	16,286 (8,010)	86,920 (43,274)	– (209)	16개동
본청 직할	중부출장소	3.00	14,754 (12,894)	79,670 (67,486)	– (1,386)	41개동
	북부출장소	2.28	15,874 (9,944)	82,063 (49,980)	– (113)	11개동
	동부출장소	2.31	14,783 (10,936)	79,551 (50,460)	– (174)	8개동
	남부출장소	11.54	14,519 (8,376)	77,968 (42,880)	– (659)	8개동
	소계	19.13	59,930 (42,150)	319,252 (210,806)	– (2,332)	68개동
주안출장소		21.84	7,349 (3,919)	40,607 (21,630)	– (666)	7개동
남동출장소		33.46	2,692 (2,114)	15,747 (11,937)	– (0)	10개동
서곶출장소		36.55	2,241 (1,644)	12,945 (9,237)	– (0)	12개동
문학출장소		13.74	1,683 (1,329)	10,040 (7,687)	– (0)	6개동
인천시 전체		166.36	90,181 (59,170)	485,511 (303,760)	– (3,207)	119개동

출처 : 내무부 지방국, 『지방행정구역일람』, 72~75쪽.

* ( ) 속은 1957년말 기준 수치임.

3. 생업과 직장근무여건

대륙침략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제는 1930년대 말 일본육군조병창을 세우면서 부평에는 각종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금속·기계공업이 크게 발달하여 당시로선 국내 최대의 공업단지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일제가 패망하면서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가동을 멈추었다. 민간수요를 채우기 위한 공업제품이나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남아 있었으나, 1950년대 말 미국원조가 줄어들면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이들마저 문을 닫거나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 결과 부평지역 주민 중 제조업체 종사자는 전후 복구사업이 시작된 1953년 무렵에는 6%(1,130여 명)가 넘었으나 1957년말에는 1%(110여 명)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일제 때 성업을 이루었던 부평지역의 제조공장들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된다. 대신 해방 이후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육군병참본부(ASCOM)가 한국전쟁 때부터, 그 기능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된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고, 1960년대 중반 부평공단이 생길 때까지 일자리에 관한 한 '효자' 노릇을 했다.



주한미육군병참본부(ASCOM) 모습(부평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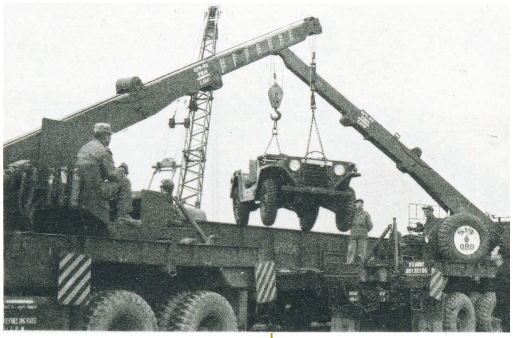
'애스컴(ASCOM)'은 주한미육군병참본부(Army Support Command Korea: ASCOM)의 약칭으로 현재는 캠프 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어 위치하고 있다. 해방 직후 일제가 물러나자 주한미군의 병참지원을 위해 '애스컴'이 설치되었고 이 부대가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부산과 함께 미군의 동북아병참활동(Depot Support Activity Far East: DSAFE)을 관장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병참기지는 선박으로 들어오는 군수물자를 보관하고 부산지역 업체들에게 물자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부평의 캠프마켓은 주로 비무장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보급할 무기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의 '애스컴'에는 1951년 봄 유엔군이 북한인민군으로부터 완전히 탈환한 이후 1960년대 중반 사이 한때 미해군병참본부(U.S.

Marine Support Command for Korea)와 인천병력교체대기소(Inchon Replacement Center)가 편제되기도 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 무렵 중부지역에는 부산과 편리하게 연결된 수송망을 갖추면서 이만한 크기와 시설을 갖춘 보급기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평의 '애스컴'은 각종 군수물자와 장비를 보관하고 필요한 미군부대로 수송하기 위한 병참시설을 대규모로 갖추게 되었다. 1963년 당시 부평의 '애스컴'지역에 모두 7개의 육군보급창고가 있었는데, 이들을 총괄하는 종합보급창(general depot)인 미8군보급창(the 8th US Army Depot)도 이때 조직되었다. 이후 1964년부터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보급창이 세워짐에 따라 미육군애스컴보급창(U.S. Army ASCOM Depot)으로 개칭되었고, 보급임무와 관련된 행정업무와 작전지휘는 초기에는 애스컴지역통제소(ASCOM Area Command)에 의해, 이후에는 제20지원단(20th Support Group)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72년 미8군에 대한 지원임무가 기능별로 분화되어 지역별로 분산됨에 따라 부평의 '애스컴'이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부지와 시설은 1973년 6월 30일 한국 국방부로 넘겨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역할과 위상을 가진 미육군병참본부(ASCOM)는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부평에 주둔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부평주민들에게 하역작업이나 차량정비 등과 같은 군사임무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는 물론 취사, 세탁, 이발 등 미군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주어졌다.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간한 『외기노조 20년사』(1979)에 의하면,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직종에는 노무자, 미장공, 벽돌공, 운전사, 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등 기능직 관련 일자리와,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출납원, 경비원 등 사무직 관련 일자리 등 일반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종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는 미군용역회사나 용역하청업체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일할 사람도 필요로 하게 되고, 미군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애스컴'은 부평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다.

'애스컴' 부대 내에 정렬되어 있는 차량들(1960년대,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애스컴' 부대 내의 작업 광경(1960년대,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애스컴'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62년 6월 17일에 재건된 외기노조 부평지부 조합원이 3,166명(남 2,900명, 여 26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3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에 조직된 미군종업원노동조합 이래 처음으로 1956년 6월 인천지방의 미군종업원들이 인천지구자유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 주로 부평(애스컴기지)의 55보급창 44공병대, 37공병대, 8057부대 및 인천항만사 등에 근무하는 … 조직되었다 … 결성 이래 조직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 1958년 초 … 대대적인 대중투쟁을 전개 …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측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동 노조는 트럭 약 100대에 조합원을 분승시켜 …' (『외기노조 20년사』, 35~36쪽) 라는 설명이나, '1964년 9월 부평에 있던 DMM(보급사령부)과 DPD(자료처리부) 산하 약 500명의 종업원들이 대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 (『외기노조 20년사』, 86~87쪽) 라는 설명을 볼 때, 이와 같은 추측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평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애스컴'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부평주민들의 직업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평주민 중 미군부대의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봉사업이나 기타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인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 특히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 후반, 지역적으로는 '애스컴' 주변지역인 부평동과 산곡동 그리고 청천동 주민 가운데 봉사업이나 기타업을 가진 이가 절반에서 3/4 정도에 이를 만큼 높았다. 이처럼, 1950년대 초반 이후 1960년대 중반 부평공단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애스컴' 미군부대가 부평의 지역경제와 주민생계를 지탱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미군부대 주변의 상점들(부평역사박물관 소장)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주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인은 농업종사자와 상업종사자 그리고 공무업종사자들이다. 부평주민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이의 비율은 약 20% 정도로 1953년에 비하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현재의 중구, 동구)을 제외한 인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대단히 낮은 편이었는데, 그것은 미군부대가 있어 많은 직업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부평지역 내에서 보면, 미군부대 주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종사자가 40~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직업은 상업인데, 1957년 말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부평역전 로타리 상가지역, 미군부대 인근지역, 경인국도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전후복구사업에 주로 투입된 것으로 추측되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공무원, 건축직, 건설직, 청소직, 사환직 등)를 가지고 있었던 공무업 종사자의 비중은 한때 15% 가까이 된 적도 있지만 전후 복구공사가 끝나가면서 1957년 말에는 3.5%로 크게 줄었다.

실업자 비중을 보면 1957년 말 부평지역의 실업률은 약 20%로 인천 전체보다 조금 낮다. 그러나 1950년대 내내 부평지역의 실업률은 인천 전체보다 낮았고, 특히 도심지역 그 중에서도 제조업 공장이 대단히 많았던 북부지역에 비하면 실업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낮았다. 이처럼 부평지역의 실업률이 낮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미군부대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자가 적었던 만큼 주민들의 생활도 다른 지역(특히 도심지역)에 비해 나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존재로 말미암아 낮은 실업률을 보였던 부평지역도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실업률이 점차로 높아져 1957년 말에는 20%까지 올라갔고, 당시 점차적인 원조삭감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침체를 감안하면 1960년대 초반에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원조삭감이나 그로 인한 정부재원의 고갈로 많은 제조공장들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공장을 아예 폐쇄하는 사례가 빈번해 졌다.

연간 운영자금 1억2천만 환(ICA분 포함)을 소모하고 독일, 일본 등지에서 원재료(크롬강)를 수입하여 제조되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베아링 공장이 자금고갈로 운영난에 봉착하여 앞으로 새 정부의 특혜가 없는 한 계속 경영하기 곤란시되고 있다. 인천시 산곡동 125번지 소재 신한베아링공장(사장 양병선, 58세)은 1948년 9월 1일 준공하여 ICA의 원조로 생산설비를 독일에서 수입하여 그간 33년간 많은 생산품(자동차 부속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면서 대한석공(石公)에 전적으로 자동

차부속품을 제조, 공급해왔다 ….(『경기매일신문』 1960년 9월 3일자)

부평지역 내 동별 실업률을 보면, 농업지역보다 미군부대와 부평역이 있는 '신도시지역' 에서 실업률이 높은데,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전쟁 피난민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평지역 주민의 직업분포 (1957년 12월 말 기준)

동 · 출장소		직업											합계
		농 ·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상업	운수 통신업[1]	공무업[2]	봉사업	기타업	실업	
부평1동		236 (8.4)	0 (0.0)	31 (1.1)	46 (1.6)	19 (0.7)	502 (17.8)	53 (1.9)	161 (5.7)	169 (6.0)	1,194 (42.4)	407 (14.4)	2,818 (100.0)
부평2동		30 (1.0)	5 (0.2)	46 (1.6)	83 (2.8)	18 (0.6)	129 (4.4)	38 (1.3)	159 (5.5)	141 (4.8)	787 (27.0)	1,481 (50.8)	2,917 (100.0)
부평3 · 십정2동		97 (4.6)	0 (0.0)	5 (0.2)	24 (1.1)	4 (0.2)	151 (7.1)	4 (0.2)	34 (1.6)	17 (0.8)	1,457 (68.9)	372 (17.6)	2,114 (100.0)
산곡 · 청천동		253 (8.0)	0 (0.0)	4 (0.1)	2 (0.1)	0 (0.0)	114 (3.6)	2 (0.1)	16 (0.5)	43 (1.4)	2,465 (77.9)	263 (8.3)	3,164 (100.0)
효성동		446 (76.0)	0 (0.0)	0 (0.0)	0 (0.0)	17 (2.9)	4 (0.7)	0 (0.0)	7 (1.2)	8 (1.4)	57 (9.7)	48 (8.2)	587 (100.0)
계산1동		359 (41.6)	0 (0.0)	9 (1.0)	4 (0.5)	8 (0.9)	25 (2.9)	0 (0.0)	10 (1.2)	12 (1.4)	156 (26.6)	279 (32.4)	86 (100.0)
작전동		480 (89.1)	0 (0.0)	15 (2.8)	0 (0.0)	0 (0.0)	5 (0.9)	0 (0.0)	5 (0.9)	0 (0.0)	33 (6.1)	1 (0.2)	539 (100.0)
서운 · 계산2동		425 (88.9)	0 (0.0)	0 (0.0)	0 (0.0)	0 (0.0)	4 (0.8)	1 (0.2)	2 (0.4)	4 (0.8)	33 (6.9)	9 (1.9)	478 (100.0)
삼산 · 갈산동		568 (62.8)	0 (0.0)	1 (0.1)	2 (0.2)	24 (2.7)	41 (4.5)	20 (2.2)	24 (2.6)	73 (8.1)	165 (18.3)	18 (2.0)	904 (100.0)
부개 · 일신 · 구산동		0 (0.0)	0 (0.0)	7 (0.9)	6 (0.8)	2 (0.3)	84 (11.3)	18 (2.4)	111 (14.9)	27 (3.6)	371 (49.9)	119 (16.0)	744 (100.0)
부평 출장소	1957	2,844 (18.8)	5 (0.0)	117 (0.8)	167 (1.1)	92 (0.6)	1,056 (7.0)	136 (0.9)	529 (3.5)	464 (3.1)	6,719 (44.4)	2,996 (19.8)	15,127 (100.0)
	1954	9,132 (38.1)	0	976 (4.1)	–	–	2,685 (11.2)	262 (1.1)	3,563 (14.9)	–	6,211 (25.9)	1,120 (4.7)	23,949 (100.0)
	1953	8,332 (46.6)	15 (0.1)	1,135 (6.4)	–	–	1,271 (7.1)	241 (1.3)	1,662 (9.3)	–	3,974 (22.2)	1,334 (7.5)	17,864 (100.0)
본 직	중부출장소	192 (1.3)	18 (0.1)	745 (5.2)	434 (3.0)	181 (1.3)	3,184 (22.3)	772 (5.4)	1,306 (9.2)	1,589 (11.1)	4,439 (31.1)	1,444 (10.1)	14,265 (100.0)
	북부출장소	183 (1.0)	98 (0.5)	1,267 (7.0)	307 (1.7)	136 (0.8)	1,627 (9.0)	285 (1.6)	817 (4.5)	572 (3.2)	4,837 (26.8)	7,896 (43.7)	18,055 (100.0)
	동부출장소	43 (0.3)	49 (0.3)	408 (2.4)	136 (0.8)	131 (0.8)	1,838 (11.0)	251 (1.5)	951 (5.7)	1,903 (11.4)	6,720 (40.3)	4,413 (26.5)	16,659 (100.0)
	남부출장소	614 (4.6)	12 (0.1)	1,084 (8.2)	268 (2.0)	244 (1.8)	1,318 (9.9)	626 (4.7)	495 (3.7)	506 (3.8)	4,541 (34.3)	3,501 (26.4)	13,256 (100.0)

동 · 출장소		직업											합계
		농 ·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상업	운수 통신업[1]	공무업[2]	봉사업	기타업	실업	
소계		1,032 (1.7)	177 (0.3)	3,504 (5.6)	1,145 (1.8)	692 (1.1)	7,967 (12.8)	1,934 (3.1)	3,569 (5.7)	4,570 (7.3)	20,537 (33.0)	17,254 (27.7)	62,235 (100.0)
주안출장소		1,822 (34.0)	11 (0.2)	343 (6.4)	63 (1.2)	25 (0.5)	292 (5.5)	69 (1.3)	456 (8.5)	289 (5.4)	1,708 (31.9)	276 (5.2)	5,354 (100.0)
남동출장소		3,002 (71.3)	3 (0.1)	137 (3.3)	16 (0.4)	18 (0.4)	106 (2.5)	19 (0.5)	192 (4.6)	40 (1.0)	385 (9.1)	150 (3.6)	4,208 (100.0)
서곶출장소		2,862 (80.5)	0 (0.0)	42 (1.2)	1 (0.0)	3 (0.1)	48 (1.3)	147 (4.1)	43 (1.2)	75 (2.1)	254 (7.1)	44 (1.2)	3,557 (100.0)
문학출장소		2,091 (72.4)	0 (0.0)	28 (1.0)	3 (0.1)	8 (0.3)	108 (3.7)	22 (0.8)	157 (5.4)	23 (0.8)	324 (11.2)	103 (3.6)	2,888 (100.0)
인천시 전체	1957	13,653 (14.6)	198 (0.2)	4,180 (4.5)	1,393 (1.5)	856 (0.9)	9,517 (10.2)	2,377 (2.5)	4,946 (5.3)	5,461 (5.8)	30,196 (32.3)	20,623 (22.1)	93,456 (100.0)
	1954	30,126 (19.4)	84 (0.1)	7,478 (4.8)	–	–	21,410 (13.8)	2,999 (1.9)	25,903 (16.7)	–	46,189 (29.8)	21,002 (13.5)	155,191 (100.0)
	1953	28,131 (20.5)	125 (0.1)	7,833 (5.7)	–	–	21,892 (15.9)	2,439 (1.8)	23,044 (16.8)	–	31,013 (22.6)	22,953 (16.7)	137,430

출처: 인천시, 『시세일람』, 1954 · 1955 · 1958.

※ ( ) 속은전체 직업인구 대비비율.

※ 1 – 1953년과 1954년의 경우 교통업, 2 – 1953년과 1954년의 경우 공무자유업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과 구호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쟁이 발발한 뒤 이북에 가까운 인천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피난민의 증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천시가 1958년에 발간한 『시세일람(市勢一覽)』에 의하면 1957년 말 인천에는 약 5만8천여 명의 피난민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원주민의 약 1/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같은 시기 부평에는 약 3천7백여 명의 피난민이 있었는데, 이는 원주민의 약 9%에 해당하는 수로 다른 지역 특히 피난민이 원주민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도심지역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편이었다. 부평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은 일자리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대부분 미군부대 주변이나 역전 상가지역에서 거주했다. 이처럼, 피난민의 이입은 전쟁피해로 인해 고달픈 삶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피난민 동태 (단위 : 명)

출장소/동			한국전쟁 이전 원주민	피난민			요 구호자수		
				현재 원주민	현재 피난민	합계	원주민	피난민	합계
인천시 직할	1954		165,959	121,954	66,862	188,816	6,698	9,276	15,965
	1957		144,930	158,132	51,286	209,410	10,164	13,783	23,947
문학	1954		7,117	6,463	337	6,800	472	118	590
	1957		6,702	7,306	831	6,687	223	125	348
남동	1954		10,957	10,052	1,291	11,343	347	346	693
	1957		10,639	11,093	843	11,935	185	223	408
주안	1954		16,765	14,613	1,951	16,564	808	557	1,365
	1957		16,806	18,802	1,380	20,967	604	664	1,268
서곶	1954		8,205	8,086	627	8,713	241	289	530
	1957		8,010	8,663	583	9,246	371	301	672
부평	1954		30,501	26,534	3,298	30,032	1,850	1,178	3,028
	1957	부평1동	7,229	11,331	1,171	12,502	829	213	1,042
		부평2동	3,925	5,489	585	6,074	293	97	390
		부평3 · 십정2동	2,974	3,493	832	4,325	91	66	157
		부개 · 일신 · 구산동	3,046	4,037	190	4,227	195	55	250
		삼산 · 갈산동	2,058	2,287	39	2,326	69	17	86
		서운 · 계산2동	925	1,117	24	1,138	59	18	72
		작전동	1,325	1,511	72	1,583	92	96	188
		계산1동	2,050	1,837	28	1,865	83	101	184
		효성동	827	1,283	126	1,399	83	12	84
		산곡 · 청천동	5,342	6,967	659	7,626	388	57	445
		소계	29,699	39,349	3,716	43,065	2,176	732	2,908
인천시 전체		1954	239,504	187,902	74,366	262,268	10,416	11,755	22,171
		1957	216,786	243,343	58,189	301,532	13,723	15,833	29,757

출처 : 인천시, 『시세일람』, 1954 · 195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부평주민 중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구호품이나 가족 또는 일가친척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다. 경제사정이 나았던 1957년에는 실업률이 20%에 육박해 있었다. 따라서 일자리를 가진 주민(12,131명)은 전체 주민(43,065명) 중 28%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명이 벌어 4명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1959년 당시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GNP)이 84.3달러(1956년 2월 23일 이전에는 1달러=450환이었으나 그 이후 1달러=650환, 다시 1961년 1월 1일부터는 1달러=1,300환으로 인상)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소득은 대략 340불(연 221,000환, 월 18,417환)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쌀 한가마 값이

14,000환(1960년 5월)에서 19,000환(1961년 5월)이었으니(『경기매일신문』 1961년 5월 2일자), 한 달 수입으로 쌀 한가마를 구입하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거나 쌀 한 가마도 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만큼 살기가 빠듯했을 것이고, 원조가 일시 중단된 1960년 4 · 19 직후에 사정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마나 제조업체나 주한미군부대 종사자들은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1960년도 월급여액이 26,000환, 1961년에는 28,400환이었고, 주한미군종업원의 경우 이보다도 훨씬 나아 1960년 5월 현재 중간계급인 5급 사무직(GS) 4호봉이 월 49,280환, 기능직 4호봉이 37,840환으로 국내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수준에 비하면 상위권이었다.



부평미군부대에서 퇴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부대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조차 당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고 했으니(『외기노조 20년사』, 1979, 44쪽), 당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원들이 투표함을 놓은 채 퇴근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957년 말 부평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직장 근무여건을 통해서 4 · 19와 5 · 16 사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짐작해 보았다. 4 · 19 무렵 부평지역의 경제사정과 직업사정은 미군부대의 존재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1957년 이후 미국의 원조도 점차 줄어들었고 피난민도 계속 모여들었기 때문에 1957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1954년 당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수(3,028명)가 그 후 3년이 지난 1957년에도 거의 그대로(2,908명; 전체 주민의 6.8%)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소비와 여가의 일상생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던 부평지역도 1950년대 말에 이르면 실업자가 넘쳐나고 피난민까지 몰려들어 인간다운 삶은커녕 생계를 이어갈 기회조차 점차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물가마저 급상승하면서 주민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특히 1961년 1월 1일부터 환율이 이전에 비해 두 배(1달러당 650환 → 1,300환)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조차 20~50% 정도 오르는 바람에 쌀값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과 함께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1961년 1월초 서울의 도매물가는 1주일 사이에 물가가 4.6%가 올랐다고 하며(『인천신문』 1961년 1월 9일자), 춘궁기를 앞둔 5월에는 (1960년의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가 외곡도입량마저 감소되어) 쌀값이 1년 전에 비해 35.7%(한가마 14,000환 → 19,000환. 1959년 8월에는 쌀 한 가마에 16,000환이었으나 1960년 8월에는 18,000환이었다고 함 : 『경기매일신문』 1960년 8월 4일자) 더 비싸지고, 경인선 철도여객운임은 20~50%(인천에서 서울까지의 3등 요금이 180환에서 220환으로, 2등 요금이 550환으로 인상)가 올랐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5월 2일자). 상황이 이러니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부평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곡식을 구하지 못해 "기아상태에서 해초 및 초근목피로 연명해오다가 농촌에서 산채(山菜)를 먹고 중독되어 즉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5월 2일자).



1960년대 초 부평중심가의 어느 길가에서 아이들이 돌을 골라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진 상황에 4·19정치혁명에서 제2공화국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에는 정국이 어수선하여 치안행정마저 느슨해지자 절도, 강도, 살인 등 각종 범죄가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인천경찰서의 집계에 의하면 4·19 이후 약 5개월 동안 총 1,326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그 이전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9월

20일자). 1961년에 들어서는 치안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검찰의 집계에 의하면 1961년 들어 강력범죄가 인천지역에서만 1월 17건(23명), 2월 45건(68명), 3월 47건(80명)이 각각 발생하여 3개월간 총 109건(171명 연루)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범죄자도 민간인, 청소년, 한국군인, 주한미군, 사회단체 임원, 직업소개소 등 다양하고, 범죄의 유형도 강도, 절도, 폭행, 사기, 갈취 등 각양각색이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 9월) 2일 하오 10시경 부평시장에 있는 음식점 ○○관 앞에서 민간인 김○○씨와 505부평수송대에 근무하는 정○○중사가 사소한 시비가 벌어져 군인 정씨는 병으로 김씨를 난타하여 길이 6센티 깊이 4센티의 후두부 파열상을 입혀 시내 송도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에 있다고 한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9월 3일자).

(1960년 9월) 3일 밤 12시부터 4일 새벽 2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미98공병보급소 소속 미군 약 40여명이 부대를 무단 탈영하여 편히 잠자고 있는 한국인 인가에 불법 침입하여 마구 폭행을 감행하면서 일부 상가에는 투석을 하는 등 백마장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잠시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미군들은 이○○(산곡동, 28)씨와 위안부 김○○(27세, 산곡동 3통 15반)에게 칼과 맥주병으로 난타하여 2주일과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히고 그 외에도 많은 민간인에게 경상을 입혔다. 그런데 전기와 같은 사건발생은 인천 산곡동 1통 6반에 있는 무허가 맥주홀 이○○(26, 포주)에서 미97부대 소속 미군 3명이 음주 중 미728소속 헌병이 이들을 취체(取締)하였다고 그 보복행위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여사한(이러한) 중대사건발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렇다 할 사건보고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9우러 10일자).

(1960년 12월) 5일 하오 6시 30분경 인천시 부평동 350번지 세탁업 홍○○(32세)씨는 같은 동내에서 포주업을 하는 정○○(47세)에게 세탁 값을 받으러 갔다가 장작으로 머리를 강타당하여 3주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12월 9일자).

(1961년 1월) 엉터리 간판을 걸어놓고 실업자에게 취직을 알선하여 준다고 하여 매인당 4만환씩을 88명으로부터 받아먹은 사기한이 있어 일반의 비난이 크다

고 한다. 인천시 부평동 235번지의 한○○(32세)씨는 향군신문사 부평지사장이라는 간판과 대한재향군인회 부평특별지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대한철도화물호송공사의 호송원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도합 4백여만 환을 사기횡령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기 특별지부 사업과장이라는 이○○(27세)씨도 자기 거주지인 부개동민 22명으로부터 역시 같은 방식으로 40여만 환을 사기횡령하였다고 한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1월 10일자).

(1961년 4월) 위안부를 등쳐옴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던 부평 일심회는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을 단계에 놓여져 현지 경찰에서 위안부들에게 금품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보겠다는 수사태도가 취해지고 있다. 즉 300여 명 위안부의 질서와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하였다는 일심회의 미명은 땅에 묻혀 회원에게 금품을 징수하면서 간부들은 술이나 마시고 외상값을 달아놓는 등 비난을 받고 있거니와 특히 이들은 전부가 공창제도 폐지령 등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삼분오열로 파벌싸움만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왕 경찰을 돕고 계몽운동을 하려면 건설적으로 하라는 여론이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4월 9일자).

이와 같이 민생치안 관련 사건도 부지기수로 발생했지만, 도로·교통행정이나 보건·위생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1960년 8월) 경인가도의 아스팔트를 파헤쳐놓아 각종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무당국의 무성의한 도로행정에 대한 맹점에 비난이 높다. 즉 부개동 파출소 앞 아스팔트는 넓이 약 50센티 길이 약 10미터 가량 깊이 30센티를 파헤쳐 차량운행에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비난의 화살까지 받은 바 있었으나 그 내용은 시정당국의 무성의에 기인되어 전기 아스팔트는 3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30일 관계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동일 상오 부평송신소(건설국)에서 부평서로 동문제의 내용을 비공식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중앙전화국은 부평~영등포 간 무전연락 케이블 신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에 착공하여 5월 30일까지 공사완료일로 정하고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말썽 되고 있는 동지점을 통하는 지하 케이블을 장치함에 부득이 도로를 파헤치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전기공사를 끝난 후 체신부는 직접 인천시에 (6월 21일자) 보상금 63만7119환을 전달하는 동시에 공사가 끝났음을 알려주었으나 시 토목과에서는 어찌된 셈인지 전기도로 포장을 종전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하여 두었던 것이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8월 16일자).

(1961년 1월) 부평시내 산업도로(간선)에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 이러한 거리에 교통표지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도로 및 지선에는 몰지각한 운공(運公)들의 난폭한 운전으로 각종… (『경기매일신문』 1961년 1월 9일자).

(1961년 2월) 기 보도한 바 있는 부평지구 무허가약종상(藥種商)들이 난립상태에 놓여 시민보건위생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 있기를 촉구한다고 비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조사조차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무허가 약종상은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은 담당공무원이 무능과 근무태만에 기인되는 것인지 또는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탁에 못 이겨 묵인하여 주었는가 하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어 조속히 시정 있기를 촉구하고 있다. 위반되고 있는 약종상(모두 부평동 6개)은 대여, 무허가, 약사 없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2월 6일자).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의 교육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교실조차 부족하여 한 학급당 100명을 수용하고도 부족해 2부 수업을 진행해야 했고,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재원이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1961년 4월) 인천시교육위원회 관하 각 초등학교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취학아동들로 인해 가교실 등을 사용하여 가면서도 현재 219개 교실이 부족한 형편으로 한 학급당 100여 명씩 수용, 수업하고 있어 정상수업 면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당국은 예산부족으로 속수무책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기와 같이 교실증축의 시급을 요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위원회에서의 금년도 신영사업계획(제111회 교육위원회에서 배정, 책정되었음)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18개 교실의 증축과 (서림교 4, 축현교 5, 부평서 4, 송월교 5), 교육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19개 교실(서곶교 6, 숭의교 7, 송도교 3, 산곡 3) 등 37개 교실만의 증축 계획 책정을 보았다고 한다. 한편 관하 각 초등학교별 현재 부족한 교실 수는 다음과 같다. 창영 8, 계동 1, 서곶 4, 송림 15, 주안 4, 송현 22, 숭의 13, 학익 2, 서림 26, 부평 동 10, 논현 1, 신흥 20, 축현 25, 부평 서 22, 석남 2, 도화 6, 송도 5, 구

월 1, 산곡 13, 용현 7, 부개 3, 송월 12, 도원 3, 만석 2, 계 219개 (부평지구 48개)(『경기매일신문』 1961년 4월 22일자).

(1960년 8월) 인천사범학교 금년도 졸업생들은 졸업 후 도내 각 교육구별로 배치만을 받고 있을 뿐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문교당국의 무계획적인 처사로 금년 내 배치가 요원한데서 이들은 문교행정의 무능성을 규탄하는 데모를 벌인 것이다… 즉 지난 7월 19일 동교졸업생 약 1백여 명이 문교부장관실 파에서 단식데모를 단행한 바 있거니와 또 다시 이들 80여명이 2일 하오 1시경 … 규탄대회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사전에 안 동교 교장 및 교직원들의 만류로서 … 하오 11시 30분 겨우 해산한 바 있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8월 4일자).

교실과 교사 부족 현상에 덧붙여, 4 · 19정치혁명의 민주화 바람으로 각급 학교에는 교원노조 내지 교사단체가 결성되어 학교당국과 갈등을 빚거나 교사들의 눈치만 살피느라 학생들의 교육에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1960년 11월) 4 · 19 이후 혼란한 정국 수습에 지도역할을 해야 할 교육계가 노조 및 교사회 결성 등으로 다른 기관보다 더욱 어수선한 공기를 엿보이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각급학교 운영예산 면에도 암담한 실정을 초래케 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내 각급학교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4 · 19 이후 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은 평교사회를 결성하고 제반 문제를 교사회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결정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장이나 교감 급은 어떠한 강력 방침을 세워 실행을 본다면 즉시 좋지 않은 반응이 올 것을 우려하여 정당 형식에 자리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각 학교 노조 책임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수업 면보다는 각자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예산 면까지 간섭하며 수시로 예산을 무시하고라도 각종 수당을 인상 지급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 측에서는 공납금 납입실정이 부량한데서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고충을 자아내고 있다는데 특히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 많은 고충으로 폐문상태에 이르고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경기매일신문』 1960년 11월 30일자).

또한, 예산 부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잡부금을 거두거나 아예 학급을 줄이려는 방침을 내려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도 있었다.

(1961년 2월) (부평분실)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진학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때 돌연 문교당국으로부터 학생 수가 적은 중고등학교에는 폐교조치를 한다는 발표가 있은 후 당지에 거주하는 유지들과 일반시민들은 새삼스럽게 긴장한 빛을 보이고 있다. 작년 신학기 직전에 개교한 부평소재 북인천중학교(공립)는 4·19혁명에 뒤따르는 기성회 임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교세가 확장되지 못하고 당국이 발표한 폐교 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평지역에는 6킬로미터 지점 이내에 초등학교 수가 7개 교나 되어 이웃에서 졸업하는 학생 수는 무려 매년 1천 7~8백 명에 달하고 있는 현상인데 기선교로 자리 잡힌 학교는 부평중학이 있을 뿐인 것이다. 한편 탐문(探問)한 바에 의하면, 1월 하순 현재 북인천중학교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지목되는 당지역 출신 민의원 김훈(金勳)씨를 기성회장으로, 부회장에는 도의원 김대남씨를 각각 추대하고 교사(校舍) 교지 등을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성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바, 현재 부평 학교의 분포실정으로 보아 단연코 육성시켜야 한다고 시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동교의 설립자인 도 당국에서도 종전과 방임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인천신문』 1961년 2월 7일자).

5. 지방정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적으로 미국 원조물자에 의존했던 제조업이나 부두하역업 또는 화물수송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천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평지역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물자가 줄어들었는 데도 지역경제사정은 나은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 초 부평지역 주민들은 이북으로부터의 전쟁피난민이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부터 몰려든 이주민들과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불황으로 말미암아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삶의 조건은 점차로 나빠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19와 5·16 사이의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생활조차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민의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부평의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중

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고, 지방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등이 있었다.

먼저 1960년 7월 민의원선거(인천 병구)에서 당선되어 부평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은 김훈이었다. 그는 북경대학 사학과(2년)를 수료하고 부평2동(삼릉)에 거주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민주당 인천시 병구(丙區) 당위원장을 지내면서 자유당정권의 독재에 항거해온 사람으로,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현재 자료가 없어 1960년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북인천중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 학교 기성회장으로서 부평지역(제6선거구) 경기도의원 김태남씨와 함께 노력했던 사례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인천신문』 1961년 2월 7일자).

1961년도에 설립된 부원중학은 대학생 20여 명이 사비를 털어 부평지역에 설립한 무료학교다. 앞서 1960년 4월 23일 단국대 사학과에 다니던 정석원이 중학교를 중퇴한 학생 10여 명을 집에서 가르치면서 시작된 부원중학은 이후 학생 수가 500여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부평시민관 등을 빌려 수업을 진행해 왔다. 1961년 봄부터는 금속공장을 경영하던 김정복이 500여 평의 땅을 내주어 학생들이 직접 계양산에서 돌을 날라다 교사를 짓기도 하였다.



땅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부원중학교 학생들(1960년대 초)

다음, 부평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12월 12일 선출, 1960. 12. 22 ~ 1961. 5. 16 재임)은 민주당의 김태남으로, 전문대를 졸업한 뒤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내무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속해 있었으나 특별히 부평지역을 위해 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으로는 방금 설명한 '북인천중학교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것밖에 찾을 수 없다. 또한 출장비를 유용한 다른 일부 도의원과는 달리 그는 경기도의회가 5·16으로 해산되기 직전인 제47회 임시회(1961. 5. 8~5. 13)에서 결정한 대로 다른 도의원 3명(원래 11명)과 함께 실제로 경상남도 의회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천시의원의 경우 1960년 12월 19일 선거를 통해 모두 22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부평지역(제7선거구)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노태용(당시 44세, 중졸, 무소속), 최준서(당시 40세, 중졸, 민주당), 김용기(당시 42세, 고졸, 무소속) 등 3명이다. 이들이 속했던 분과위원회를 보면, 최준서는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노태용은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김용기는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시의회는 1960년 12월 27일 개원식과 원구성을 마친 뒤, 1961년 1월 6일 제5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6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다루었다. 여기서는 시의회가 다룬 것 중 부평지역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과 부평지역 출신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분과위원	회위원장	위원
내 무	윤호규	백범기, 이기범, 차태열, 최준서, 장석연, 노태용
산 업	김일남	한재수, 장석희, 문규욱, 송병기, 김혁환, 김용기
문교사회	권태기	박의순, 추옥진, 권금천, 김동현, 최원섭
운영	최준서	권혁환, 심현구, 노태용, 김일남, 송병기, 박의순, 김동현
예산결산	한재수	윤호규, 김용기, 백범기, 차태열, 장석희, 추옥진, 권금천
징계자격	이기범	장석연, 문규옥, 김혁환, 최원섭, 권태기

출처 : 위원장 – 『경기매일신문』 1961년 5월 1일자 ; 위원 – 『인천광역시사』(2003).

인천시의회는 약 5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천시의회상임위원회조례, 청소사업청원건과 청과도매시장대행권과 관련된 조례, 시유재산매각의결요청건, 동사무소의 부동산취득처분의건, 공설운동매입에 관한 건 등과 관련된 총 15건의 조례개정안 또는 제정건을 심의·처리하였으며, 1961년도 예산안심의의결, 1961년도 추경예산안심의의결 등 예·결산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예산안과 조례제·개정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시민회관임대료인하, 송현동노점상 철거연기, 인천시립도서관 확충, 청소대행권, 인천시청과도매시장대행권, 한미행정 협정체결과 종업원처우개선, 동인천–송현동연결지하차도건설, 신생동과사동의환지, 부평지구도시구획정비사업관련

무허가주택철거 등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였다. 또한 행정감사사무를 진행했으며, 결원된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체의 권한이나 재정능력 바깥에 있는 각종 사무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주요한 것만 보면, 인천지역 정미업계에서 제기한 국토건설사업충당용 도입미의 입항량(종전 부산 60%, 인천 40% → 최근 부산 78%, 인천 22%)의 불공평성에 대한 시정건의, 경인선전철화 및 복선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건의, 쌀값 급등에 따른 정부미 조속방출촉구, 동력전기요금인상에 대한 재검토 건의, 동인천역 포장공사 실시 촉구 등과 같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 부평의 지역경제나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체결과 종업원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미군종업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민원과 부평지구 도시구획정비사업 관련 무허가 주택철거와 관련된 인천시의 방침과 이에 대한 주민반발 문제였다.

전자의 경우 인천지구 미군종업원노동조합과 '애스컴' 지구미군종업원노동조합이 1961년 2월 24일경 한미행정협정과 종업원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청원서에 의하면, 인천 부평소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종업원은 약 8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근무 한국인 종업원의 문제를 미군당국과 정부당국에게만 맡겨놓고 인천시에서 수수방관할 경우 인천에도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경기매일신문』 1961년 2월 25일자). 전국미군부대한인종업원 노조에서는 이미 1960년 8월 15일 한국노동법 적용과 처우개선을 미군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미군당국은 성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미군종업원노조는 1960년 9월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미행정협정 체결촉구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당국이 미군종업원의 임금인상 요구 등 처우개선에 인색하자, 1961년 2월 13일 정부당국에 조정을 요청하는 (미군에 대한 최초의) 노동



부평문화회관 건립 기공식 (1967. 4. 23)

쟁의 발생을 신고하고 19일에는 서울, 인천, 부평지구의 조합원 약 5,000명이 서울 역전광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미군종업원노조가 미군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대사에게 미군종업원의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미군노조의 임금쟁의를 지원하였다.

『외기노조 20년사』에는 당시 애스컴지구 미군노조 부위원장 고영효가 시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지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영효는 부평지역(제6선거구)에서 출마하기는 했지만 낙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효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외기노조가 부평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런 이유에서 시장도 선거유세를 통해 "인천은 노동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 외화(外貨)의 인천유치 등으로 항만하역열기조성에 노력하여 노자생활향상과 실직자의 다소나마 해결이라도 보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인천신문』 1960년 12월 21일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평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어쨌든 시의회는 미군종업원노조의 청원에 적극 호응했고, 시의회의 지지 탓인지 아니면 미군종업원노조의 계속적인 압박활동(예를 들어, 미군노조는 이후에도 총파업 단행을 위한 파업가부 조합원총투표를 실시하는 등 미군에 압박을 계속하였음) 탓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결국 1961년 4월 24일 미군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평균 40%)에 동의함으로써 미군노조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한미행정협정 문제는 미국과 중앙정부의 협상문제로 남겨졌다.

부평지구 무허가주택 철거문제의 경우, 국토건설사업과 관련된 부평지구의 도시구획정비사무가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자 1960년 5월 9일 부평역전 도심지역 41만 평에 해당되는 지역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던 난민 40여 세대(200여 명)가 관계국과 시청에 난입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인천신문』 1961년 1월 23일자). 이들은 '환지처분'(즉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은 부정과 모순된 점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지역주민과 시청이나 관계국의 문제였던 것이



부평 미군부대 주변의 마을 풍경(1960년대 초,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부평지역사회의 주민간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된 계기는 (토지를 되돌려 받기로 되어 있던) 지주(약 20명)들이 1961년 1월 21일 (가칭) '부평지주회'를 조직하여 시방침을 지지하고 나서면서부터였다.

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 주민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자 인천시장은 초기(1월 26일)에는 "오랜 시일 동안 논의된 문제이며 전임 시장 때 대법원에서도 말썽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시일을 두고 연구하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2월 13일) 시방침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러한 시당국의 완고한 입장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졌고, 결국 시의회가 개입하기에 이르러,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5명의 시의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5월 10일 행정관계자들과 함께 현지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원들조차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고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중단되는 5·16 때까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말았다(『인천신문』 1961년 5월 10일자).

어쨌든 부평환지 문제 또는 난민판자촌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간의, 주민과 지주 간의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부평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가 없어 파악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미국(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미군노조의 투쟁과는 달리, 지역주민간의 갈등인 부평환지 문제는 선거(표나 선거자금)를 의식하는 시의원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을 부평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민주당, 다른 두 명은 무소속(시정구락부)이었고, 이 두 정치세력은 시의회 개원 이래 줄곧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

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부평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경우, 1960년 12월 26일 선거가 치러졌고, 여기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진두 후보가 당선되어 1961년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업무를 시작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김진두 시장은 자유당 시절 민주당에 가입하여 20여 년(이 중 10여 년은 인천에서)의 행정경험도 갖고 도의원도 지낸 바 있는 사람이다(『인천신문』 1960년 12월 21일자). 당시 경기매일신문 기자였던 이희석의 회고에 의하면, 김진두 시장은 인천 중앙시장에서 광목상점을 했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머슴이지 특권이 아니다' 고 하면서 인천시장에 출마했다고 한다(이희석, 2006. 3. 15, 「노인세계 – 남기고 싶은 블로그파일」, http://kr.blog.yahoo.com/leehee36/MYBLOG). 이처럼 김진두 시장은 단체장이나 정당 등 조직의 장을 맡은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시의회(무소속 12명, 민주당 10명)를 상대로, 즉 분점정부의 상태에서 시정을 펼쳐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무소속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5 · 16군사쿠데타로 시의회가 해산될 무렵까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민들은 생활고에 찌들어 있고 예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야당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기채'(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시의원들을 지방시찰이라는 미명 하에 위로여행을 보내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이나(『인천신문』 1961년 4월 10 · 4월 11일자), '김시장이 의회나 민주당 의원부와 유기성이 결여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또한 중요 시기에 처해 시정운영이 강력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력 없는 행정으로 지지한 상태에 있다' 는 여론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인천신문』 1961년 4월 7일자).

그러면, 김진두 시장이 부평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부평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청소사업이나 도시개발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부평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다고 불만이 높았고, 이러한 불만은 부평이 시(市)로 승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김시장은 '부평의 단독 시승격설은 그들의 자율적이고 자유적인 의사에 따라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실현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본다' 고 못 박은 뒤, '자신이 시장

이 되고 나서는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시켜 청소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특단의 평등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 다며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인천신문』 1961년 2월 14일자). 다른 한편 부평지역의 더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부평주민을 서자 취급한다고 해서 불만 많은 모양인데, 인천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15년 전 인구 7만일 때에 인구 40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기에 앞으로는 백만 인구를 예상하고 재계획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이므로 부평지역 개발계획도 재검토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부평출장소에서 판공비나 토목 · 수도 · 위생계 전임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시정해달라고 요망하자, 김시장은 '이 문제는 기구개편(즉 구(舊) 시내 구(區)에는 부소장, 과장제 등을 폐지하고 계장제로, 신(新)시내 각 출장소는 부소장을 존치시키고 담임제로 함)을 구상 중이고 같은 출장소라도 부평은 특수지역이니 만큼 특별 고려 중' 이라고 답했다(『인천신문』 1961년 1월 27일자). 마지막으로, 부평역전 환지(換地)문제에 대한 김시장은, 초기에는 재검토를 시사했으나 결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의 판자촌을 철거하고 지주들이 신축건물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산곡초등학교는 1949년 4월 5일 부평서국민학교 산곡분교장으로 분리되어 나와 1953년 10월 10일 산곡국민학교로 정식 개교하였다.



산곡초등학교 운동장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미제69수송대대(1960년대 초)

지금까지 부평지역 주민대표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살펴보았다. 교실증축이나 교사충원 등과 같은 교육환경의 문제, 국토개발계획 수립 · 추진이나 중소기업 육성 또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문제, 미군이나 한국군의 기강확립 등 군과 관련된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재원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치인들이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활동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당파적인 이해관계가 덜 개입된다. 그러나 부평환지문제나 도시개발문제 등은 지방공직자들이 의지와 철학이 있으면 얼마든

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정치인들은 물론 부평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특정지역이나 특수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여야 간의 민주적인 타협의 정치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또는 부평지역출신 정치인들은 자리(예,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를 둘러싸고 대립하거나 아니면 무능력이나 부패 또는 이익집단과의 밀착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5 · 16군사쿠데타와 그에 이은 제3공화국 즉 박정희정권의 출범은 적어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외형상이나마 유지되어 온 민주주의정치의 한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후 4반 세기 동안 지속된 긴 권위주의정치시대의 막이 오른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952년에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중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전후복구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수입대체 산업화시대가 끝나고 자력으로 동원한 국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 수출주도산업화시대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되었다. 즉 5 · 16군사쿠데타에 따른 박정희정권의 출범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점에서는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는 역사의 발전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박정희정권의 의의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큰 논란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동시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계나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합의는 없다. 어쨌든 5 · 16쿠데타와 박정희정권의 출범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4 · 19정치혁명과 그에 따른 제2공화국은 이전과 이후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에피소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일인독재를 지향했던 정치체제와 전후복구를 위해 막대한 원조를 필요로 했던 까닭에 물자수요와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미국에게 종속적인 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이승만 정권은 1950년대 말에 이르면 그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야당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확산 · 격화되었고,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하면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체적인(원조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한) 자본동원과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방식을 채택할 것을 '조언' 했으나 이승만정권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4 · 19정치혁명이 가능했고 또한 이에 따라 (일인독재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좀더 민주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 정부가 들어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2공화국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 · 19정치혁명으로 쉽게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국이후 12년 동안 야당생활을 해야 했던) '민주당정권' 은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비민주적이고 약한' 민주당정권은 국민은 물론 (가장 중요한 후원자인) 미국조차도 대체세력을 바라도록 만들었고, 결국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군부쿠데타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민주당정권의 비민주적이고 약한 모습은 중앙정치수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적 우위에 근거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 · 행사하기 위해 탈법과 비타협의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라면 분당도 불사하려는 태도 등 새로운 집권당인 민주당도 이승만의 자유당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정치수준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고, 인천과 부평지역 수준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부평지역이 수출공업화에 의거한 고도성장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5 ·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정권이 야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이후였다.

제2절 부평의 산업과 수출공단의 조성

1. 1960년대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전환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살림을 복구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주목표였다. 정부는 농업과 경공업 중심에서 벗어나 공업화를 이루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7)」이 나오는데, 이 계획의 주된 내용은 민간기업을 최대한 지원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과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민간기업이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모두 목표대로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점차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인천지역도 1960년대에 들어와 근대적인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은 수도 서울과 가까워 거대한 소비시장을 배후로 하고 수출입이 활발한 항구를 갖추고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공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경제발전 노력으로 1964년과 비교하여 1970년에 인천의 기업체 수는 1.5배, 종업원 수는 2배, 생산액은 무려 4.5배 이상이나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천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부평지역의 산업도 나날이 발전하였다. 60년대 부평지역의 산업은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 건설된 부평수출공업단지는 생산과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인천 및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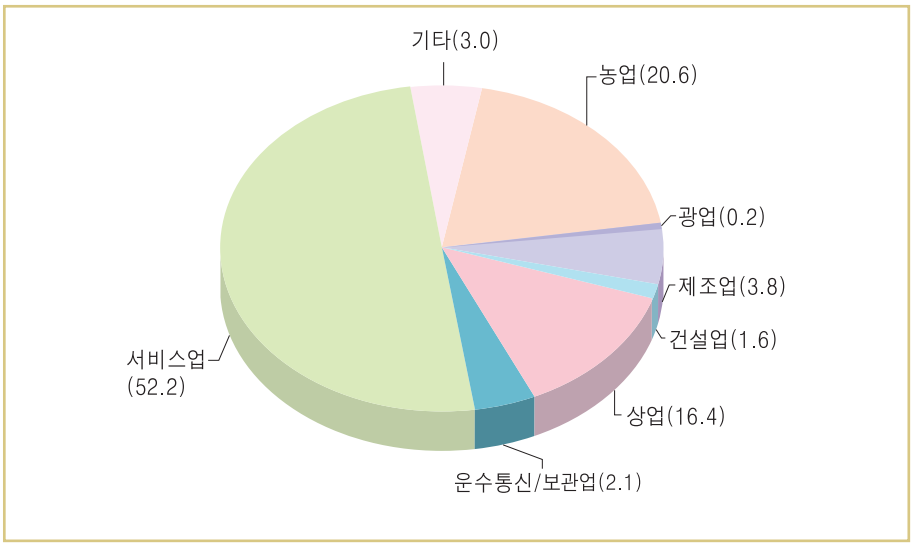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으로 중화학공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산업구조 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1965년도의 부평지역의 산업별 인구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6%, 제조업 3.8%, 건설업 1.6%, 상업

※ 이 글은 김번욱(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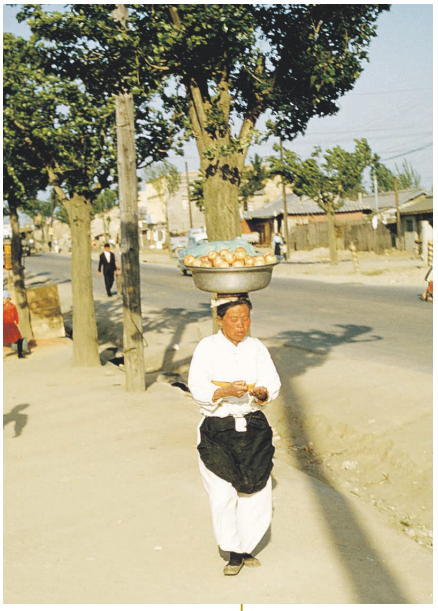
16.4%, 서비스업 52.2%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산업 구분이 세세하지 않아 공무원과 봉사업, 공익사업 등이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65년 부평의 산업별 인구구조(단위: %)



1960년대 부평지역의 농업은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부평평야는 농지가 비옥한 데다 남으로는 경인철도가 있고 북으로는 한강의 흐름이 있어 서울과 인천에 인접한 천혜의 곡창지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수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일제시대 때 부평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비록 식량 수탈을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긴 하였으나 조금씩 관개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방이 된 후 1968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소규모 수리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때의 수리사업이란 용수개발,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주택개량 등 농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을 일컫는다.

인천시 역시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개간, 간척, 수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특용작물의 재배 등 근대적인 농업경영 방식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사과를 한가득 머리에 인채 부평 미군부대 앞을 걸어가는 아낙네(1960년대초,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원래 인천의 근교농업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채소류는 중국인이, 과수는 일본인이 주로 재배하여 왔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채소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 기술 역시 발전하고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서 인천지역은 1935년 후반에서 19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근교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66~1970년까지는 근교농업 5개년 계획을 세워 부평동, 산곡동, 효성동 일대를 화훼, 과수 단지로 만들어 기술을 지도하고 재원을 지원해주는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도 할만큼 1960년대 인천 및 부평지역의 농업은 생산성 면에서 점차 발달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꾸준히 진행되어 가는 도시화는 경지면적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었고 농가수와 농가인구 역시 점차 감소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1960년대 인천광역시의 농업인구와 농가호수

년도	면적(㎢)	가구수	인구수	농가호수	농업인구
1960	166.297	74,975	402,009	7,618	48,696
1965	166.362	90,181	485,511	7,826	48,315
1970	166.362	126,801	646,013	6,284	37,859

출처 :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960년대 인천시의 농업인구를 보면, 1960년의 7천618호였던 농가호수는 1970년 6천284호로, 4만8천696명이었던 농업인구도 3만7천859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 인구가 인천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의 12.1%에서 1970년에는 5.86%로 반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공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민들이 공장 · 항만 · 부두나 건설업 등의 노동자로 전직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평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1년의 부평지역의 농가 호수는 2천68호였고 농가인구는 1만2천44명이었다. 경지면적은 논 1만2천380정, 밭 5천815정으로 합계 1만8천195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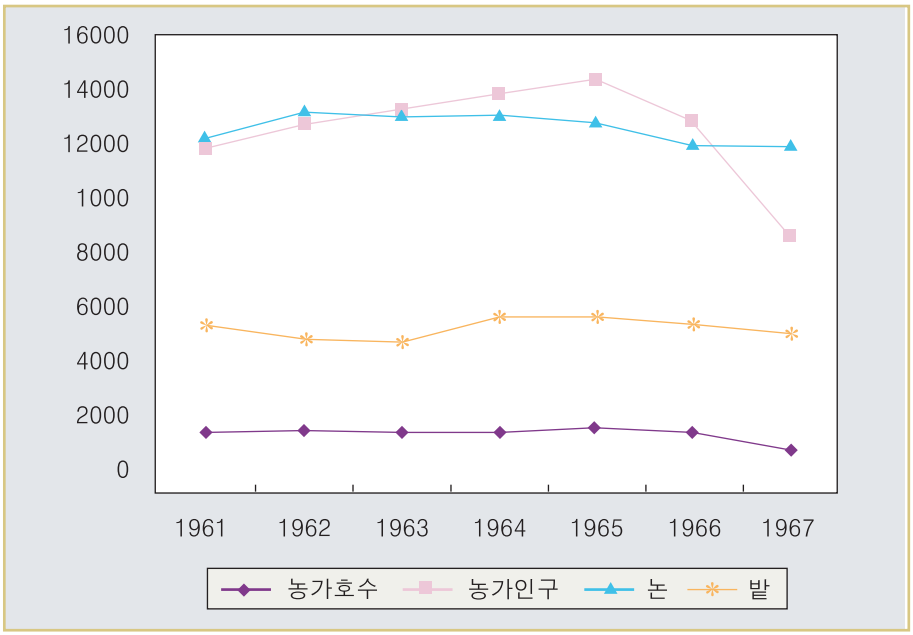
1968년에 부평출장소였던 행정구역이 북구로 바뀌면서 부평의 행정구역 면적이 증가하여 농업인구와 경지면적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전인 1967년의 수치를 보면 1961년에 비해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이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부평지역 농업 현황

연도	행정구역	농가호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합계(町)	논	밭
1961	부평출장소	2,068	12,044	18,195	12,380	5,815
1962		2,128	12,792	18,674	13,278	5,396
1963		2,067	13,304	18,424	13,148	5,276
1964		2,093	13,891	19,313	13,187	6,126
1965		2,225	14,482	19,028	12,933	6,095
1966		2,115	12,980	17,994	12,149	5,845
1967		1,462	8,935	17,655	12,133	5,522
1968	북구	3,469	21,521	32,826	19,402	13,424
1969		3,381	20,714	30,714	17,973	12,741

출처 :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해당년도.

부평지역의 1960년대 농업 추이



1960년대에 들어와 인천은 소비재 중심이나 소규모의 경공업에서 탈피하여 생산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간산업의 건설에 치중하여 근대적인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1962년부터 실시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인천의 공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래되고 낡은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중공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다. 인천은 수도 서울과 가깝고 수출입에 편리한 항만과 노동력 등을 갖추고 있어 공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 빠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인천 공업 성장 추이 (1960년대)

구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성장률
업체수(개)	341	382	413	469	476	550	569	166.9%
종업원수(명)	16,382	16,415	26,353	26,673	27,918	32,815	34,607	211.3%
생산액(백만원)	12,475	14,150	32,798	32,798	49,854	57,877	–	463.9%

출처: 『인천시사』,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93.

1964년의 341개이던 기업의 수는 1970년의 569개로 166.9% 성장하였다. 종업원 수는 1964년의 1만6천382명에서 1970년의 3만4천60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생산액은 1964년의 124억 7천 5백만원에서 1969년의 578억 7천7백만원으로 무려 463.9%나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공업부문이 133개 기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계공업부문으로 96개, 섬유공업이 55개, 화학공업과 목재 및 제재업이 각각 45개 기업체로 되어 있었다. 당시 부평지역에는 신진자동차 · 경성공작소 · 수도피아노 · 전남방직 · 부평제강 등을 비롯하여 주로 기계공업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1960년대 부평의 제조업체

설립년월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생산품
1960년 3월	삼양식품(주) 장유공장	전중윤	효성동 274-5	간장,된장,고추장
1961년 1월	풍원실업(주)	정광진	효성동 298-3	화공약품
2월	신한공기(주)	최상보	가좌동 180-28	수도 가스미터
10월	신성공작소	김연갑	가좌동 570-26	금형제품
10월	유광산업(주)	장익용	작전동 136	자켓,신사복
1962년 1월	새나라자동차(주)	-	청천동 145	승용차
2월	역전제재소	조영학	부평동 159-5	목재
3월	신도실업	-	효성동	신사복
3월	삼양건업사	이계복	산곡동 181	나왕,미송
3월	한성전기(주)	이문식	작전동 473-4	모타
8월	흥일실업(주)	-	가좌동	염료
10	월새한요업사	유상록	청천동 240	흑연도가니
1963년 4월	고려연마공업(주)	윤남현	가좌동 290	연마지포
10월	중원상사(주)	강재영	효성동 423-5	화섬직물
11월	한일연탄상사	강한성	부평동 529-16	연탄
1964년 4월	선일포도당공업(주)	박상만	가좌동 285	포도당, 물엿
4월	부평강원연탄공장	이종수	부평동 419	연탄
4월	천미광유공업(주)	유성태	효성동 583	윤활유,절전유
6월	대한화학기계공업(주)	-	효성동	화학기계류
6월	대우바브콕(주)	최영섭	산곡동 274	발전기기
12월	고미반도체(주)	김경동	효성동 316	전자부품
1965년 1월	세운산업(주)	나오용	효성동	철탑,철구류
2월	(주)연합기계	김시화	효성동 340-12	천정크레인
4월	인부제재소	이상현	부평동 233	목재
7월	신화공업사	김창섭	가좌동 524-3	압출성형기
8월	진영산업(주)	박성철	효성동 388-1	신사복,숙녀복
10월	동남합성공업(주)	이의갑	효성동 596-3	계면활성제
11월	일진금속공업사	허진규	부평동 65-7	비철주물
1965년 12월	동국무역(주)	백영기	효성동 316-56	자수직물
12월	인천전기제작소	오대균	가좌동 469-8	변압기,펌프
1966년 3월	(주)한독	-	작전동	전자손목시계
5월	다나무역	박인근	효성동 514-1	가발
5월	오리온전자공업(주)	김완길	가좌동 531-1	앰프라디오
11월	세아산업(주)	홍구작	작전동 160-13	차량부품
1967년 2월	한신공영(주)	김형종	작전동 102-1	보일러 및 탱크류
5월	동흥전기(주)	-	가좌동	형광등 및 기구
6월	동보전기(주)	성도원	일신동 18-2	형광등 및 기구
7월	삼화프라스틱(주)	박인근	효성동 516-1	P.E.P.P

설립년월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생산품
8월	전남방직(주)	–	청천동	아크릴사,면사
8월	서울제강(주)	–	십정동	앵글, 찬넬
8월	영광식품공업사	백학범	부평동 276	간장
9월	삼화종합전자산업사	장만수	작전동 682-4	난로, 곤로
12월	동아 피아노제작소	이병근	효성동 566-1	피아노
12월	삼신기업사	박정원	십정동 439-15	시계 케이스
1968년 2월	한국특수화학(주)	이병서	효성동 331-1	도료
2월	한국티타늄(주)	문승균	가좌동 556-15	튜브
2월	삼송산업(주)	함병림	효성동 316-20	운반용 소형바퀴
3월	삼부특수제강(주)	김정복	부개동 445	주강
3월	삼일페인트공업사	박형규	효성동 593	페인트
3월	럭키콘티넨탈카본(주)	–	갈산동	염료
5월	동서식품(주)	이홍희	효성동 316-11	커피, 프리마
7월	영풍빗트공업(주)	이하원	십정동 557-3	빗트
7월	뉴코리아전자공업(주)	–	효성동	엘리베이터
8월	시브라더스섬유(주)	–	효성동	와이셔츠, 브라우스
10월	몽철공업(주)	송창주	효성동 319-20	농기구부품, 전화기케이스
10월	동진화성공업(주)	이부섭	가좌동 472-2	발포제
10월	풍산금속공업(주)	–	효성동	동 및 동합금
11월	동방기계공업(주)	채기태	효성동 72-1	목공기계
12월	몬트레스산업(주)	김창규	청천동 140-1	시계케이스문자판
12월	금영실업(주)	한광렬	효성동 225-2	냉장고용 선반
1969년 2월	삼신철공업(주)	김윤동	부평동 65-124	단조발브
5월	반도상사(주) 부평공장	문박	효성동 316-7	의류, 제화
8월	남영통상(주)	윤종진	가좌동 548-12	시계
8월	(주)신성기업	최종규	구산동 121	아세탈린
9월	부림목재(주)	김성도	가좌동 173-2	제재
10월	한국이노시돌공업(주)	김초원	작전동 160-4	이노시돌
10월	하니(주)	홍승채	효성동 316-16	인형, 완구
11월	유신흥업(주)	김정태	효성동 316-38	야구배트,골프채
11월	경인에너지(주)	김종희	원창동 100	석유류, 전력
12월	한양목재 제1 · 2공장	이재선	가좌동 178-3	가구, 목재, 합판
12월	동양이화공업(주)	홍원식	작전동 101-1	자동차부품

출처 : 『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997.

2. 부평공업단지의 조성

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다. 일제가 각종 군수물자를 조달하던 육군조병창을 세우자 이에 맞춰 금속 ·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 1930년대 말을 전후해 부평엔 동양제강과 디젤자동차공업, 홍중상공 등 대규모 공장들이 자리잡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군수공장까지 건설되어 부평에 당시로선 국내 최대의 공업단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공장다운 공장 하나 없었던 부평지역에 실질적 의미의 근대적 공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한 후 군수공장들이 문을 닫자 부평의 산업기반시설은 대부분 가동을 멈췄다. 그 후 20여 년간은 침체기였다.

그런 시절을 거쳐 부평에 다시 공단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이다. 전쟁으로 인해 정치 ·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미국의 원조도 차관 형태로 바뀜에 따라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공업화를 통해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일본의 수출산업실태를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고자 재일동포 실업인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자본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재일동포 실업인들에게 모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들은 투자조건으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보세가공이 가능한 공업단지 설치를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현실에서 생산활동과 자본을 집중화하여 공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63년 3월에 발족된 한국경제인협회 수출촉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수출산업공단 예정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던 중 그 해 6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인천에 수출산업지역을 선정' 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기사가 나감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유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서울近郊에
輸出産業地域을設定
在日僑胞의 財産·技術導入
20餘輕工業工場建設
最高議, 輸出産業促進委計劃에贊意

수출산업촉진위원회에서 광나루나 인천에 수출산업지역을 설정, 재일동포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공업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당시의 신문기사(『동아일보』 1963년 6월 24일자)

1964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수출산업공업단지설정에 수반한 현황(인천시 부평지구)」에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부평지구가 전국적인 최적지로서 원시적(遠視的)인 경제부흥의 백년대계인 공업단지 설치야말로 부평지구로부터 발족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부평지구의 공업단지 입지여건에 대하여 다음의 8개 항목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세(市勢) : 인천은 서울특별시 서남방 37㎞(서울~부평 26㎞) 지점에 위치하고, 다수의 대기업체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체 400여 개가 인천에 집결하고 있어 국내 3대 공업지구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다.

나. 공업부지 : 부평지구에 약 3,960,000㎡(1,200,000평), 학익동지구에 약 990,000㎡(300,000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간석동과 주안지구에 수백만㎡가 있어 어떠한 대규모공장이 오더라도 부지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 교통 : 경인간 철도는 1일 여객열차 회수가 24왕복으로서 국내 최고의 회수를 가지고 있으며, 경인간 전철화가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내 제2한강교가 개통되어 단지 중앙을 관통하게 된 고속도로는 서울중심지와 직접 연결되어 경인간의 교통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또한, 항구까지 12㎞ 거리에 불과하고 40%의 공사가 이미 완성된 갑문식 제2선거완성공사계획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운하가 건설된다면 공업부지 북부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 운하이용의 편리함이 타지역에 비할바가 아니다.

라. 전력시설 : 부평지구에는 2개의 변전소가 있으며 총 15,000KVA 공급능력 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8,100KVA만을 사용하고 있어 6,900KVA가 잔여시설로서 사용가능하다.

마. 공업용수 : 1962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예정인 1일 45,000톤 정수능력시설이 완성되면 1일 90,000톤의 용수가 공급되며, IDA자금(국제개발협회)에 의하여 김포공항지대까지 공급할 1일 80,000~100,000톤 공급정수지가 공업용지내에 설치케 될 예정이다.

바. 노동원 : 1964년 7월 20일 현재 인천시내 실업자 수는 남자 12,926명, 여자 3,258명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에서의 통근도 가능하므로 상당한 노동원을 확보하고 있다.

사. 복지시설 : 공업단지 설치에 따라 노동자 및 종업원의 주택지 형성이 필연케 되는 바 이미 인천시 당국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부평지구에 광대한 지역에 주택후보지를 마련하여 놓은 바 있다.

아. 지역의 전망 :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인천시를 시점으로 경인운하가 건설되고 운하를 중심으로 서해안에는 중공업지구, 부평지구는 경공업지구를 설정하여 두었다. 운하 양안은 4차선의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서울시와 연결되고, 새로이 인천~수색간의 철도를 부설하며 중경공업지대에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 172,000KW의 강화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광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바 이것이 실현될 경우 앞으로 인천은 그야말로 맘모스도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수출산업공업단지설정에 수반한 현황(인천시 부평지구)」, 인천상공회의소, 1964)

그러나 1964년 10월 수출산업공단으로 서울 구로동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같은 해 10월 부평지구를 별도의 공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했다.

그 무렵만 해도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인천과 부평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가좌동 해안지대와 부평을 놓고 유치경쟁이 치열했는데 처음에는 류승원 국회의원과 윤갑노 인천시장, 채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인천의 주요 인사들이 가좌동 해안지대를 매립해서 수출 공단을 조성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후보지가 거의 굳어지는 듯 하였다.

이 무렵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회에서도 공업단지 지정문제에 대하여 논

의하는 자리에서 부평지구보다는 경인지구를 다음 공업단지 예정지로 선정하는데 모두들 합의를 한 상태였다. 당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호 이사장 : 공업단지 지정문제에 있어서 부평지구를 구로동과 동시 지정해 줄 것을 관계 국회의원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응철 이사 : 부평지구는 용수난으로 부적당하다는 개인 의견을 인천상공회의소측에 한 바 있다.
이정림 이사 : 지정에 따른 지가앙등문제가 있으니 부평으로 하지 말고 "경인지구를 다음 공업단지 예정지"로 하되 도유지를 제공하도록 하자. (전원 이에 찬동하다)
이병호 이사장 : 상공부에게 "경인지구를 다음 공업단지 예정지로 하겠다"는 뜻을 서면 제의하겠다. (전원 이를 양해하다)

(출처 : 「제6회 이사회의사록」, 한국수출산업공단, 1964.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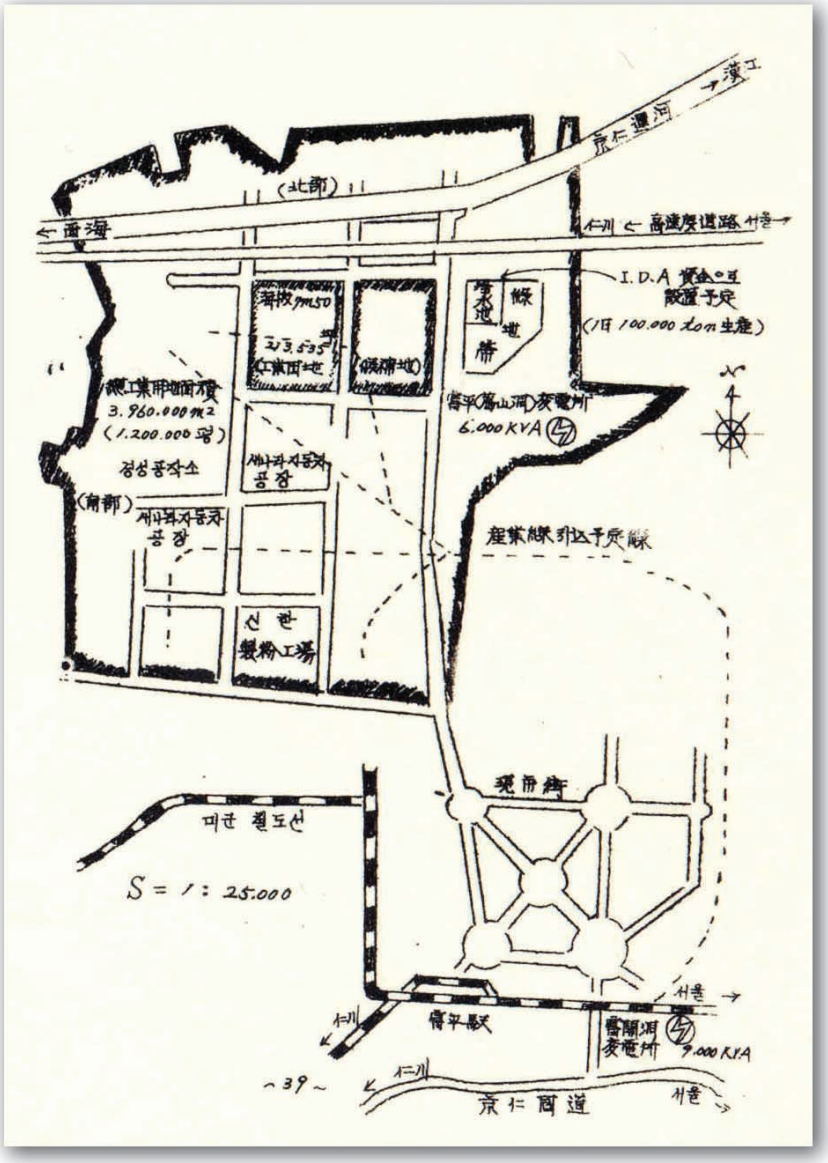

부평공업단지 조성부지 모습

그러나 해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부평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지역에서는 김석기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길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수출산업공단 부평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0여 명의 지역인사들이 동참하였다. 유치위원들은 정부요로에 당위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당시 돈으로 10~80만 원씩 형편대로 추렴하여 대상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유치위원들은 부지 확보와 조성이 용이하고 고용인원이 풍부하며, 서울 · 김포공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부평변전소와 부평정수장이 있어 공단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를 공급해 준다는 강점을 널리 홍보하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65년 6월 16일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는 부평지역을 수출공단으로 지정하였고 동년 11월 23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정식인가를 얻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채호 씨가 취임하였다. 효성동 · 갈산동 · 작전동 일대 21만 3,535평에 조성된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66년 4월 8일 부평 제1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부평공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26km, 인천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은 해발 7.5m에 불과한 평지로 공업단지 조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부평공업단지 예정 위치도

이 지역 21만 3,535평은 경인지구종합개발 경공업지구 120만평의 중심지로서 국유지 1만 5,313평, 도유지 3만 3,497평, 사유지 16만 4,725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으로 대지가격이 평당 300원으로 비교적 저렴했다. 교통면에서는 육로로 경인고속도로 75m, 경인국도는 3.6㎞, 부평역 3㎞에 위치하였고, 인천항이 30㎞, 김포공항이 11㎞ 거리에 있는 등 육·해·공 모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 등을 수송하는 데는 최적지였다.


경인고속도로 공사현장
(1967)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 개통하였다. 총연장 29.5km, 노폭 20.4m의 4차선 도로로 완성되었으며, 건설당시 부천·부평·가좌·서인천 등 4개소의 톨게이트가 설치되었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8. 12. 21)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종래 서울~인천간 1시간이 소요되던 거리를 18분으로 단축시켜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69년 7월 20일에는 제2차 개통을 통해 가좌동~신흥동 제2도크 입구(종점)까지의 구간이 완성되었다.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부평 및 부개변전소가 인접해 있었는데 당시 이 두 변전소의 전력 잔여 시설량은 부평변전소가 3,500KVA, 부개변전소가 3,400KVA 등 총 6,900KVA로 공단조성에 따른 전력공급량은 충분하였다. 공업용수는 예정지 바로 옆에 부평정수장을 IDA 자금으로 1일 10만 톤 규모로 설치예정 중에 있었으므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부평공업단지는 당초 부지면적 21만 3,535평에 대하여 공장부지 13만 9,775평(65%), 공동시설부지 1만 3,412평(6.3%), 도로부지 5만 6,037평(26.2%), 기타 4,311평(2.0%)으로 구분 조성토록 계획되었다. 업종별 부지면적은 금속제품 공장이 1만 7천 평, 합성수지제품 공장 1만 4천 평, 초자제품 1만 평, 고무제품 1만 평, 농·축·수산품 가공품 2만 1천 평, 광물가공 1만 평, 전기기기 1만 평, 공예 1만 1천 평, 기타 3만 7천 평이었다.



부평정수장 공사현장 (1967)

공장부지는 1개 공장당 3천 평 내지 5천 평 규모의 경공업공장 40개 이상을 유치·정착토록 하고 도로, 하수도, 전력, 보안, 통신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어 입주기업체에 공급토록 하였다.

부평공업단지 개요 (조성 당시)

구 분	개 요
조성목적	• 현대적 수출공업단지의 개발운영 • 해외교포의 수출산업 제조기업 유치 정착 • 수출산업센터 역할 담당
부지	• 위치: 인천시 효성동·작전동·갈산동, 서울 26㎞, 인천12㎞ 지점 • 면적: 21만 1,215평 (경인지구 종합개발 경공업단지 120만 평 중심지) • 국유지 1만5,313평, 도유지 3만3,497평, 사유지 16만4,725평 • 지형, 지세, 지질: 평지, 해발 7.5m, 중사지
교통수송· 	육로: 고속도로 (거리 75m), 경인국도(거리 3.6㎞)와 연결 인천항 30㎞, 김포공항 11㎞
전력	• 부평변전소 800m 지점, 부개변전소 3.5㎞ 지점 • 최대공급능력: 6,000KVA~9,000KVA • 현재공급량: 2,500KVA~5,600KVA • 잔여시설량: 3,400KVA~3,500KVA • 현재잔여시설량: 6,99KVA
용수	• 1일 2만 톤 공급가능 • 단지 옆에 IDA자금으로 1일 10만 톤 정수지 설치
대지가격	• 평당 300원

부평공업단지 유치대상 업종

업종	수출생산품 종목
금속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삼륜자전차, 유모차, 리어카, 양식기, 완구, 조침, 미싱침, 시계밴드, 주사침, 수도전, 원예도구, 우승컵, 건, 관악기, 각종 미싱, 가위류, 알미늄제품(판), 볼트낫트, 양산대
합성수지제품	낚시대, 신발, 구두창, 완구, 주방용구, 플라스틱함석, 비닐페이퍼, 연초케이스, 안경테, 비옷, 플라스틱제품, 비닐제품, 아크릴제품
섬유제품	레이스, 벳트커버시트, 넥타이, 수건, 스카프마후라, 탁자크로스, 냅킨 양솔포, 스타킹, 장갑, 실내화, 스웨터, 문장, 망사, 메리야스, 양말, 어망, 모계, 모직물, 견직물, 면직물, 합성직물, 각종의류
목제품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만돌린, 현악기, 골프용품, 야구배트, 배드민턴 용구, 테니스라켓, 스키용품, 가구, 죽세공품, 합판, 완구
초자제품	샨데리아, 크리스마스 조명구, 마법병, 물병, 식기류, 꽃병, 소전구, 화학시험기구, 목걸이, 회명, 컵, 완구
고무제품	타이어, 튜브, 풍선, 장화, 덧신, 신발, 우화, 공류, 비옷, 잠수복, 잠수안경, 완구
농산물가공품	낙농물(분유, 연유, 버터, 치즈, 햄, 소세지), 건과(건포도), 과실통조림, 버섯통조림, 왕골슬리퍼, 전분, 과실주, 인삼주, 위스키, 브랜디, 특산가공물, 건고구마
수산물가공품	생선통조림, 전자, 감유, 어유, 생선냉동물, 생선절건품, 어포, 건어, 람어, 어물훈제품(가마보꼬)
광물가공품	천연보석, 대리석, 가오린, 석분, 귀중품, 금은동연가공품, 광석제브로취, 단추, 파이프, 광석공예품, 타일, 도자기, 양식류, 조형물
전기제품	라디오, TV, 전축,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화기, 무전기, 마이크, 트랜지스터, 소켓, 각종 전선, 축전지, 건전지
공예품	인형, 조화, 인조보석, 인조진주, 나전칠기,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크리스마스 장식품, 지제품, 핸드백, 고급단추, 조각물, 진유공예품, 갈포벽지, 기타초공예품(매물용, 핸드백 외)
기타제품	농약, 인체약, 화공약품, 특수사료, 도료, 모제품(가발, 눈썹, 브러시), 피혁제품(트렁크, 구두, 가방, 벨트, 핸드백, 볼), 한지, 모피(토) 기타 선택기준에 의한 제품

출처: 『부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997.

부평공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는 금속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합성수지와 섬유, 목제품 등 모두 12개 분야가 포함되었다.

단지가 조성되고 난 후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일교포 임호씨가 운영하는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가 1966년 7월 5일 처음으로 입주기업체로 지정되었다(「상공부공고」 제3,882호, 『관보』 제4392호, 1966. 7. 8). 뒤이어 8월 12일에는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대표 : 김영두)와 한국인테리어화학(대표 : 박진혁)이 지정 · 공고됨으로써(「상공부공고」 제3931호,

『관보』 제4422호, 1966. 8. 12) 1966년에는 모두 3개 기업체가 부평공업단지 입주기업체로 지정되었다. 이듬해인 1967년에는 대한마이크로전자공업 외 8개 기업체를 유치·입주함으로써 총 12개 기업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부지정지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체 유치는 당초 계획보다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부평공업단지 기공식

부평공업단지 입주지정 기업체

기업체명	대표자명	업 종	입주지정일
코리아크리스탈	임 호	특수초자	66.7 .5
한국인테리어화학	박진화	프라스틱제품제조	66.8.12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최형두	전자기기제조업	66.8.12
신신전자공업	정일모	전자기기제조업	67.8 .1
한국마이크로전자(주)	김종길	전자기구제작	67.8 .8
한남섬유산업(주)	양재범	섬유제품	67.8 .8
대월부레키공업(주)	홍구표	차량부분품제조	67.8 .8
한국유리공업(주)	최태섭	크리스마스장식용전구	67.9.30
신성전기산업(주)	신창호	전자기기조립가공	67.9.30
태아실업(주)	이순한	섬유제품가공업	67.9.30
우보산업(주)	최부성	의류제조업	67.9.30
양덕산업(주)	김승찬	직물제조업	67.10.7
중원상사(주)	강재영	의류제조업	68.1. 4
한국크리스탈공업사	홍대희	특수초자제조업	68.1. 4
삼익물산(주)	이효익	악기 제조업	68.1. 4
동아전자(주)	최진수	전자기기제조업	68.3. 9
명성산업(주)	박영상	우모및 조화제조업	68.3. 9
삼송산업(주)	성병림	쉐타제조업	68.3. 9
세정실업(주)	김중정	악기 제조업	68.3. 9
동초산업(주)	이종원	합성수지제품	68.3.30
동양전자공업(주)	신학균	전기통신부분품	68.4. 9
한송산업(주)	윤량	자동차부속품	68.5.10
신우산업(주)	김진곤	특수봉제품	68.5.18
동남아기업사	조동연	합성제품가공업	68.6.10
삼우상사	이용순	통신기제조업	68.6.10
대원강업(주)	허주열	자동차부분품제조업	68.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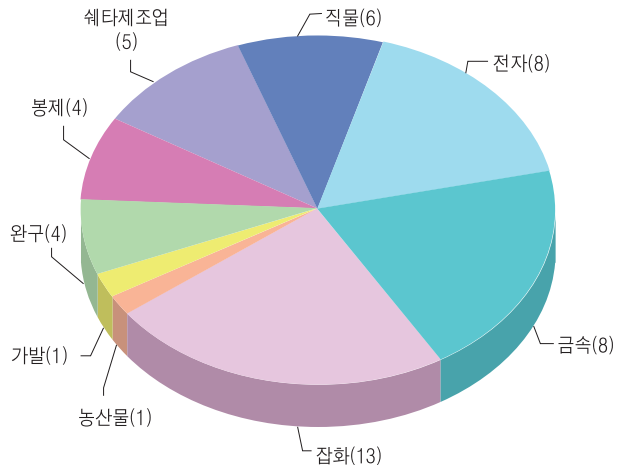
기업체명	대표자명	업 종	입주지정일
동산유지(주)	김정관	유지제품제조업	68.6.10
오성만포공예(주)	백성빈	섬유제품가공업	68.6.10
(합)몽철사	송창주	금속류 제조업	68.6.10
동양규소공업(주)	이현명	특수건축재제조	68.6.10
(유)연방물산	장상범	공예품제조업	68.6.10
고려전자(주)	최치영	전자기기제조업	68.6.10
범양합성화학(주)	김요라	합성수지제조업	68.6.10
용천산업(주)	곽용수	농산물가공업	68.7.18
평화교역(주)	유순규	쉐타제조업	68.7.18
유미실업(주)	최상호	쉐타제조업	68.7.18
씨-부라더즈섬유(주)	배순흥	봉제업	68.7.18
(주)신진편물사	오성룡	수편물제조업	68.7.18
(주)오리진	김봉길	쉐타제조업	68.7.18
법양상공(주)	권상진	의류제조업	68.7.18
삼아전자(주)	유봉식	전자기기제조업	68.7.18
한국가구공업(주)	최기곤	가구제조업	68.8.30
뉴코리아전자(주)	김인전	자기기제조업	68.8.30
대양화성(주)	조영일	합성수지제조업	68.8.30
광성공업(주)	반성휘	도자기제조업	68.8.30
천부광업(주)	최호가	단주물제조업	68.12.8
동국무역(주)	백영기	메리야스제품제조업	68.8.30
공신양행	김용석	가발제조업	68.8.14
동광금속	강병학	비철금속가공	68.9.27
대영섬유(주)	김노성	합성섬유제조업	68.8.30



부평공업단지 공사현장
(1968)

그 후 1968년에 들어와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연말까지 총 50개 기업체가 입주·지정되어 당초 목표한 바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단지 내에 입주한 50개 업체의 업종을 보면 섬유가 1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금속(8), 전자(6), 공예(5), 농축가공(2), 유리(2), 광물(1) 등의 순으로 되어 있었다.

부평공업단지 내 입주업종 구성(단위: %)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인천수출산업공단은 1971년 11월 한국수출산업공단과 합병운영을 위한 총회가 실시되면서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부평지역의 무역

부평공업단지의 조성으로 부평지역의 무역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개항 이래 인천의 개발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인접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부평지역에는 기업체나 산업시설 등 수출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 관내에서의 수출활동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부평지역의 무역활동이라고는 일제시대 때 부평평야 일대에서 산출되었던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집산시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당시 부평공단에 입주한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외 2개 업체가 1968년 7월부터 공장을 가동한 지 5개월 만에 총 79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 공단 최초의 수출이자 기록상 부평지역의 공산품 수출실적이다. 그리고 다음해인 1969년에는 50개 입주기업체 중 14개 업체의 생산이

가동되어 당초의 수출목표 500만 달러의 40%를 초과하는 703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고, 1970년에는 50개 입주업체가 전원 생산을 가동하여 3천99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함으로써 명실 공히 수출 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공단 초창기 인천의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연도	인천	수출공단 실적		
		한국수출산업공단	인천수출산업공단	
			수출액	인천내 비중
1966	11,899	140	–	–
1967	16,282	1,126	–	–
1968	22,446	6,682	791	3.5
1969	31,465	31,061	7,036	22.4
1970	54,478	57,531	23,170	42.5

출처 : 『한국수출공단30년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994.

그 결과 1968년까지만 해도 인천의 수출총액의 3.5%에 불과했던 수출실적이 1년 후에는 22.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다음 해인 1970년에는 인천의 총 수출액의 무려 42.5%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수출에 있어 부평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인천시 당국의 수출입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효율적인 집행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공단이 채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수출에만 전념해 온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숨어 있다.

이와 같이 부평공단 입주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인천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에 9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인천의 수출은 1968년에는 2천2백44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69년에는 전년대비 40%가 증가된 3천1백46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인천시 수출실적 (단위: 천달러)

구 분		인천/전국(%)	합계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1965년	전국	5.0	180,450	112,372	15,695	24,738	27,645
	인천		9,024	7,540	–	486	998
1966년	전국	4.7	255,751	159,684	24,336	37,536	34,195
	인천		11,899	10,299	–	782	868
1967년	전국	4.5	358,592	248,184	16,971	52,834	40,603
	인천		16,282	14,868	–	887	577
1968년	전국	4.5	500,408	386,940	21,607	50,856	41,005
	인천		22,446	21,250	–	806	390
1969년	전국	4.5	702,811	555,055	29,748	66,052	51,956
	인천		31,465	29,358	–	1,623	484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 인천상공회의소, 2005.

제3절 구제 실시와 북구의 탄생

1. 일제시대 인천부역 확장과 출장소의 설치 운영

1914년 조계제도의 폐지와 함께 부제(府制)가 실시되면서 부평군은 인천의 일부 면지역과 합하여 부천군으로 통폐합되었다. 이 때 부평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천군 부내면과 서곶면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1940년 4월 1일 부령(府令) 제40호와 경기도령(京畿道令) 제5호에 의하여 제2차 인천부역확장이 실시되면서 모두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1940년 제2차 부역확장으로 인천부역(仁川府域)의 면적은 과거 면적의 5배가 넘는 165.817㎢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로 부천군의 면적이 그만큼 축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부에서는 1941년 4월 1일 고시 제32호로 인천부출장소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그 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 이 글은 김진석(전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집필하였음.



경찰학교 졸업식
(1966. 4. 29)

1955년 3월 27일, 서울여자경찰서에서 사용 중이던 구(舊) 경찰참고관(警察參考館)을 임시 교사로 쓰고 있던 국립경찰전문학교(현 경찰종합학교)가 부평에 있는 전(前) 박문여자중학교 자리로 교사를 이전하여 왔다.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서울교사가 불타버린 후, 조선전기공업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의 일부 청사를 임시로 빌려 사용하여 오던 경찰전문학교는 경기도 경찰국 청사이기도 했던 현 위치에 자리를 잡은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부평지역과 함께 하여 왔다.

일제말기 부평 · 서곶출장소의 위치와 행정 관할구역

출장소명	위치	사무취급구역
인천부 부평출장소	인천부 백마정(白馬町, 산곡동) 1번지	백마정(白馬町)
		천상정(川上町)
		대정정(大正町)
		서정(曙町)
		소화정(昭和町)
		이등정(伊藤町)
		길야정(吉野町)
		삼립정(三笠町)
		명치정(明治町)
		향취정(香取町)
		작전정(鵲田町)
		동운정(東雲町)
인천부 서곶출장소	인천부 정상정(井上町, 연희동) 247번지의 7	천간정(淺間町)
		이가정(李家町)
		구수정(久水町)
		천대전정(千代田町)
		현무정(玄武町)
		흑전정(黑田町)
		일진정(日進町)
		정상정(井上町)
		촌상정(村上町)
		과생정(瓜生町)
		춘일정(春日町)
		운양정(雲揚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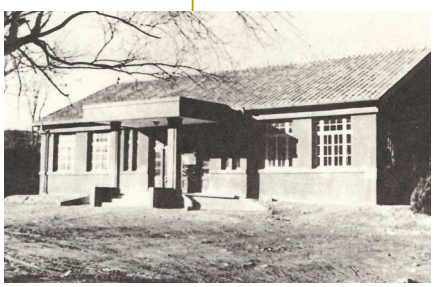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년 11월 17일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8호)이 공포되고, 동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제43호에 의하여 시·도(道)·부·군·도(島)의 관할 구역은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 4일에는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인천부(仁川府)는 인천시(仁川市)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종전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계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천시의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었고, 단지 출장소 간 약간의 관할구역 변경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1946년 1월 1일부터는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환원 및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부 고시 제62호에 의하여 동리명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부평지역 동·리명의 변천

옛 동리명	일식 명칭	개정 동리명	옛 동리명	일식 명칭	개정 동리명
십정리(十井里)	대도정(大島町)	십정동	가좌리(佳佐里)	천간정(淺間町)	가좌동
대정리(大井里)	소화정(昭和町)	부평동	고작리(高作里)	촌상정(村上町)	석남동
산곡리(山谷里)	백마정(白馬町)	산곡동	포 리(浦 里)	구수정(久水町)	원창동
청천리(淸川里)	천상정(川上町)	청천동	신현리(新峴里)	현무정(玄武町)	신현동
효성리(曉星里)	서 정(曙 町)	효성동	가정리(佳亭里)	천대전정(千代田町)	가정동
부평리(富平里)	대정정(大正町)	계산동	심곡리(深谷里)	일진정(日進町)	심곡동
가현리(佳峴里)	작전정(鵲田町)	작전동	공촌리(公村里)	흑전정(黑田町)	공촌동
도두리(道頭里)	동운정(東雲町)	서운동	연희리(連喜里)	정상정(井上町)	연희동
후정리(後井里)	삼립정(三笠町)	삼산동	고잔리(高棧里)	이가정(李家町)	경서동
갈월리(葛月里)	길야정(吉野町)	갈산동	시천리(始川里)	춘일정(春日町)	시천동
마분리(馬墳里)	명치정(明治町)	부개동	검암리(黔岩里)	과생정(瓜生町)	검암동
항동리(航洞里)	향취정(香取町)	일신동	백석리(白石里)	운양정(雲揚町)	백석동
구산리(九山里)	이등정(伊藤町)	구산동			

1956년 11월 23일, 인천시 조례 제144호로서 「인천시출장소설치조례」가 개정되어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행정구역은 본청(本廳)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 부평, 서곶, 남동, 문학 등 5개 출장소를 두어 모두 9개 출장소를 설치 관할하게 되었다.



남동출장소 전경(1956)

출장소별 행정구역 (1958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 소별	소 재 지	행 정 구 역			시청과의 거리(㎞)	
		동수(洞數)	방수(坊數)	면적(㎢)	육 로	철 로
중부출장소	관동1가 9	44 (9)3	69	3.219		
북부출장소	송현동 56	8 (5)	273	1.995	1.80	
동부출장소	금곡동 51	8 (6)	215	2.313	1.88	
남부출장소	숭의동 169	8 (6)	231	11.541	3.02	
주안출장소	도화동 413	7 (6)	126	21.837	5.65	6.6
부평출장소	부평동 109의5	16 (10)	224	41.644	14.50	12.2
서곶출장소	연희동 산70	12 (6)	73	36.554	15.25	
남동출장소	만수동 444	10 (6)	59	33.454	11.85	
문학출장소	관교동 147의10	6 (3)	47	13.740	7.70	
계		119 (57)	1,617	166.297		

※ 행정구역 동수의 괄호 내는 동장수를 표시함.

위 표와 같이 인천시에서 부평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전체의 50%에 육박하였다.

2. 구제(區制) 실시와 인천시 북구의 탄생

1) 구제의 실시



북구청 개청 100일 기념식 (1968. 4. 15)

부평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던 부평지역은 1968년 1월 1일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시 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구제는 1967년 3월 10일 제10차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구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후, 같은 해 3월 30일 법률 제1919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는 북구, 중구, 남구, 동구의 4개 구청이 개청되고 종래의 9개 출장소는 폐지되었다. 다만 행정편의를 위하여 남구와 북구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북구에는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어 검암, 경서, 연희, 석남, 가신, 원창, 가좌 등 7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인천시는 앞서 1966년 12월 21일 시 인구가 528,000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설치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방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인천시는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 4대 도시로 부각되었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시세도 크게 격증하고 있었으니 구제의 실시는 행정기구를 크게 개혁하여 행정수요의 증가현상을 해소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각 구(區)의 관할구역 (1968. 1. 1 현재)

구 별	구	출장소	동		면 적	시청과의 거리(㎞)		인 구
			법정동	행정동	(㎢)	육로	철로	(명)
인천시	4	2	119	66	165.35	–	–	555,868
중 구	1	–	44	10	3.22	0.50	–	92,060
동 구	1	–	16	13	4.37	1.88	–	164,827
남 구	1	1	30	24	77.16	5.65	6.6	178,506
북 구	1	1	29	19	81.61	14.50	12.2	120,475

1950년대 이래로 인천시의 각 동은 그 인구와 면적이 균일하지 못하고 재정능력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여러 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 체제로 운영하여 왔다. 이는 동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단독 혹은 수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구제 실시를 앞두고 1967년 12월 29일자 인천시 규칙 제241호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동을 66개로 증설하였으며, 이후 인구와 면적의 증가에 따라 행정동 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북구의 관할 동수는 1968년 1월 1일 현재, 법정동 29개 동, 행정동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면적은 81.61㎢, 인구는 120,47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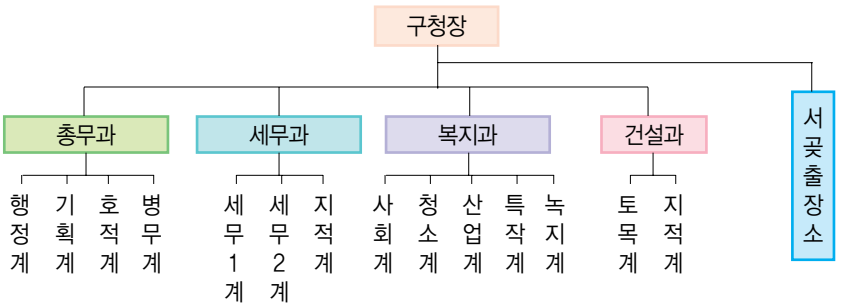
북구의 관할동명(법정동) (1968. 1. 1 현재)

명 칭	관 할 구 역
북 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계산1동, 작전동, 서운동, 계산2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백천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 및 십정1동

2) 행정기구의 개편

인천시 북구청의 행정기구는 총무, 세무, 복지, 건설 등 4과와 14계로 조직되었고, 북구청장은 인천시규칙 제230호(1967. 12. 8)에 따라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과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재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각각 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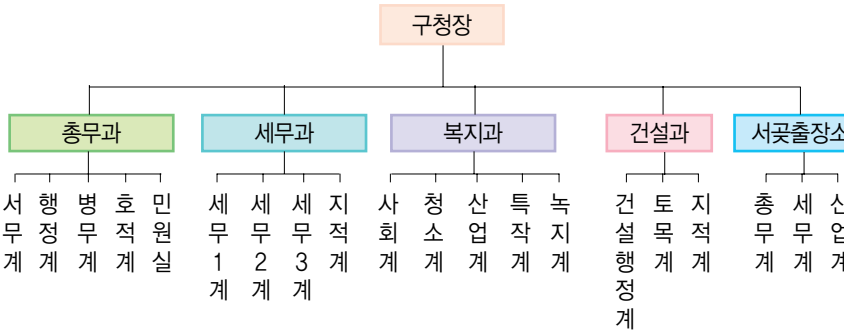
개청 당시 북구의 행정기구



그리고 서곶출장소는 직제에 따라 총무계, 세무계, 산업계 등이 신설되었으며 총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세무계장은 지방재경주사보로, 산업계장은 지방농업기사보로 각각 보임되었다.

그 후, 1970년 5월에 단행된 시 본청의 대개편과 1970년 5월 1일자 시규칙 제301호에 따라 북구청의 직제는 4과(課) 17계(係), 1출장소(出張所) 3계(係)로 확대 개편되었다.

인천시 북구의 행정기구표 (1970년 5월 1일, 시규칙 제301호)



한편, 구제 실시와 더불어 십정동이 북구에 편입되었다. 십정동은 본래 인천부 주안면의 관할구역이었는데 주안면과 다소면이 병합되면서 부천군 다주면에 속하게 되었고, 후에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대도정(大島町)으로 되었다가 일식동명 개칭 때 원래 이름인 십정동으로 바뀌었다. 출장소 제도가 생긴 후 지형상 열우물고개[십정현(十井峴)]를 중심으로 동쪽은 부평출장소 관할, 서쪽은 주안출장소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졌고, 한때 주안출장소가 폐지되어 문학출장소의 관할구역에 속하기도 하였다. 북구의 신설을 계기로 십정1동 및 2동 전부는 북구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또한 내무행정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내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구의 대변혁을 가져온 1968년의 구제실시가 그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십정동의 모습
출처 : 십정1동사무소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공포됨으로써 종전의 기류법이 폐지되어 동년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을 실시하였고 그 당시 상주인구는 86,92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후 1968년 5월 29일 법률 제2016호에 의거 주민등록 관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개월간 각 동을 통해 주민등록 재정비 일제신고를 접수한 결과 1968년 10월 말 현재 22,664가구, 인구 120,475명이었다. 주민등록 재정비 일제신고로 18세이상자는 신고된 사항을 신고자의 본적지에서 조회 확인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결과 1969년까지의 총 발급자 수는 65,869명으로 대상자 68,627명 중 96.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북구청 민원실 풍경(1975)



또한 1968년에 인감증명, 주민등록사무 등의 지도, 감독업무를 시로부터 이양받아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대민봉사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었으며, 특히 1970년 6월 1일 북구청에도 민원실을 개설하여 창구즉결처리, 민원상담 및 열람 등의 대민봉사 행정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제4장 1970년대의 부평

제1절 고도성장기의 부평

1. 1970년대의 경제개발과 부평지역

부평지역은 1970년대 인천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수출산업공단이 공동으로 효성동·작전동·갈산동 일대 21만여 평의 부지에 1966년부터 1968년에 걸쳐 조성한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는 부평지역 경제는 물론 인천경제의 고도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부평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된 후 5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부평지역은 수도권의 핵심 공업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수도권과 인천항을 잇는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부평진입도로 포장공사 준공식(1972. 12. 23)

※ 이 글은 황규상(인하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외래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1960년대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을 통한 자립경제 기반의 달성, 그리고 철강·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우리나라는 이 기간 중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즉 이 기간에 국민총생산(GNP)은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고 제조업 역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연 18% 이상 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택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시장을 개척한 기업가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진 후 1970년대 들어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장·안정·균형의 조화, 자립적 경제구조, 지역개발의 균형 및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기본목표로 하여 추진되어 기간 중 제1차 석유파동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9%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더욱이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부평지역에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비철금속공업 등의 대규모 기업이 새로 설립되거나 시설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어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사회개발의 촉진·기술혁신과 기능의 향상을 기본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자력성장 구조를 이룬다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이 기간 중 우리경제는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였고 중화학공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11.9%에서 1980년 26.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수입대체 효과를 크게 유발하였고 궁극적으로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을 증대시켜 수출 비중을 크게 끌어 올렸다.

정부가 주도한 일련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인천지역 경제는 물론 부평지역의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의 경제구

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인천은 자연적인 입지조건에 의한 항만임해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인천은 1966년부터 8년간의 공사를 통해 1974년 5월 1일에 완공된 인천항의 전면도크화와 1968년 12월 21일 경인고속도로의 개통, 1974년 8월 15일 경인선의 전철화 등 물류혁신을 통해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인천지역 경제성장의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1968년에 조성된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4단지(부평 수출산업공단)를 비롯하여 1970년대 들어 남구 도화동에 조성된 인천기계공업단지, 인천비철금속공업단지(한국수출산업공단 제6단지)는 인천경제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69년에 인천은행으로 설립되어 1972년 상호를 바꾼 경기은행의 설립도 지역사회 개발자금의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의 총 사업체 수는 1970년의 580개 업체에서 제2차 석유파동 이전인 1978년에는 1,461개로 늘어났고, 특히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업체 수를 기준으로 53.9%에 달해 전국 평균치인 42%보다 크게 높은 양상을 보여, 1970년대 인천의 경제성장을 중화학공업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2. 1970년대 부평지역의 농림업

인천은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대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인천의 지역총생산(GR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총생산 대비 농림·어업의 비율이 1970년에는 7.1%에 이르렀으나 1980년에는 2.6%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취업자의 비중도 1970년에는 14.0%였으나 1980년에는 3.6%로 크게 감소하였다.

1) 부평지역의 농업과 축산업

인천의 농업은 주로 부평지역에 위치한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주곡 중에서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66~1970년까지의 「근교농업 5개년 계획」에 의해 부평·산곡동 일대를 버섯 생산지로, 부평·산곡·효성동 일대를 화훼 및 과수 생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술지도와 함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평지역은 1970년대 이후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주거지의 확대 조성과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농경지가 크게 잠식되었고 이로 인해 부평지역 농업의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그 내용도 벼농사 중심에서 화훼·채소·벼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인천시는 19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기업축산업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 당시 북구 백석동에는 총 면적 57,968평에 축사면적 130평의 낙농센터를 조성하여 26호의 농가가 젖소 48마리를 사육하였고, 북구 십정동에는 양계단지가 조성되어 총 면적 12,000평에 축사면적 4,250평의 양계단지가 조성되어 51호의 농가가 98,500수의 닭을 사육하였다.

또한 1965년 이후 정부는 낙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젖소를 도입하여 낙농업자에게 융자형식으로 분양해 줌으로써 남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낙농업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북구의 경우 1970년에는 484마리의 젖소(착유우는 236마리)가 사육되었으나 1979년에는 1,670마리(착유우는 757마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젖소사육에 필요한 초지의 부족으로 낙농업이 크게 성장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북구 지역의 낙농업체 (1980년 말 현재)

목 장 명	소 재 지	경 영 주	사양 두수(頭數)
인광목장	검암동 산72-1	정광근	63
희망목장	백석동 80	이희정	31
동락목장	산곡동 1	백락우	22
이산목장	부평동 276	심상준	25
한평목장	십정동 39	김산형	41
양귀비목장	십정동 184	김동진	76

목 장 명	소 재 지	경 영 주	사양 두수(頭數)
천하목장	십정동 94	이상남	29
임백석목장	백석동 225	임백석	49
새봄목장	가좌동 산7	정희근	21
유문목장	효성동 109	유고문	21
순영목장	연희동 392	박영석	70
윤희목장	연희동 502	김동숙	31
임소곳목장	연희동 16	박석권	46

출처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1970년대편), 1982.

2) 농지개량사업

정부는 식량의 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1961년에 「토지개량사업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어디까지나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농지의 개량이나 농지의 보전 · 개발은 물론 농업의 기계화, 농가주택의 개량 및 시범농촌의 건설 등 농촌의 근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좀더 강력하게 농촌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로 이원화 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체제를 일원화하여 전천후 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부평수리조합은 1970년 1월 28일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 개편되었고, 1975년 7월 1일 김포군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1971년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972년 6월 20일에 준공된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부평지역 농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양지구는 부평평야의 중심을 흐르는 굴포천에 접해 있는 광활한 평야지역으로, 수리 안전답으로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재래 농지였다. 여기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토의 토양개선, 영농의 기계화, 용배수로의 개선으로 관개배수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북구지역 민방위대 합동발대식(1975.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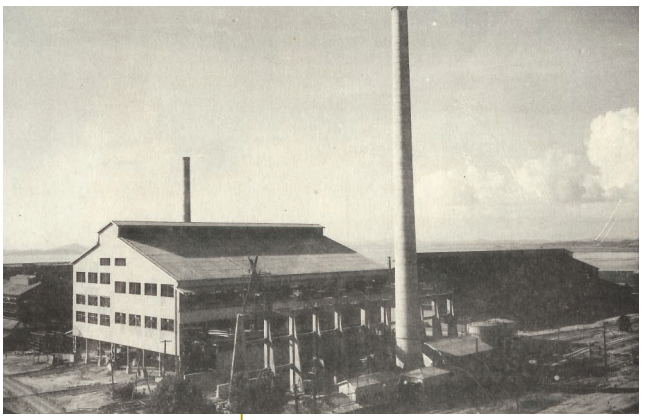
1972년 이후에도 전천후 농업용수개발사업

은 계속 추진되었고 그 결과 계양지구를 포함한 부평평야 일대의 약 7,000정보에서 전천후 농업이 실현되어 연간 12,000M/T의 식량증산을 이룩하였다.

3. 1970년대 부평지역의 광공업

1) 철강산업

1970년대 인천의 철강산업은, 1953년 동구 송현동에 설립되어(설립 당시에는 대한중공업공사) 1978년에 현대그룹에 흡수된 인천제철(주)이 그 산업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동구 송현동의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남구 학익동의 삼성제강(주)과 한국강관(주) 인천공장 등이 고도성장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철강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대 대한중공업공사 인천공장 전경

한편 당시 북구 가좌동에는 일신제강(주) 인천제철소가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H-형강 · 중구경 강관 · 철근 · 석도강판 · 강괴 등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강판 · 강관 · 아연도금판 및 용접형강 등을 수출하였으며 핫코일을 수입하였다.

당시 부평지역 철강업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

북구 청천동에 위치한 동양철관공업(주)은 1973년 6월 28일에 설립되어, 같은 해 8월 1일에 제관(製管) 공장 및 도복장(塗覆裝)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였고, 1974년 5월 17일에는 주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8일에 스파이랄 강관 제2공장이, 1977년 3월 5일에는 제관 제2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 6월 15일에는 금속공작기계 소재업체로 지정되었고, 1979년 4월 6일에는 상공부가 기간산업체로 선정하였다.

이 회사의 공장은 대지 약 3만 평에 건물이 약 6,500평으로 규모가 매우 컸으며 약 900명의 종업원이 생산을 맡고 있었다. 주요 생산품목은 수도용 도장강관 · 강관 · 강관 파일 · 주물(기계설비 및 차량부품) 등이었다.

동양철관(주) 연간 생산실적 (단위 : M/T)

품 목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강관	5,172	11,810	20,436	28,688	35,370	48,017	51,612
파일	3,628	11,340	13,778	34,995	46,528	41,953	48,619
주물	–	–	1,402	1,828	3,597	6,860	5,488

출처 :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

(2)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부평공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던 동아건설산업(주)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 성장을 거듭하여 오던 중, 1978년 1월 북구 부평동에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여 이전하였다. 이 공장의 규모는 대지 약 7.6만 평, 건물 약 1.2만 평에 시설 917점의 대규모 공장으로 종업원은 약 1,000명이었다.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목은 볼트 · 너트 · 철강구조물 · 아스팔트 프랜트 · 배차 프랜트 · 수중펌프 · 크레인 및 빗트 등이었다.

동아건설산업(주) 부평공장 생산실적 (단위 : M/T)

생산 품목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볼트·너트	653	992	865	1,205	1,409	1865	2,945	3,540	4,654
철강구조물	1,900	2,200	2,800	3,600	4,500	7,376	3,800	15,240	18,160
아스팔트프랜트	–	–	–	–	5	5	11	14	10
배차프랜트	–	–	–	–	–	–	–	10	3
수중펌프	–	–	–	–	93	146	375	667	692
죠크랏샤	–	–	–	4	–	–	–	7	7
크 레 인	–	–	–	–	–	–	–	5	8
빗 트	6,800	6,500	7,000	7,800	18,000	18,000	15,000	8,373	7,520

출처 :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 아스팔트프랜트, 배차 프랜트, 수중펌프, 조크랏샤, 크레인의 단위는 '대'

(3) 기타 철강업체

부평지역의 기타 철강업체로는 서울제강주식회사 · 대일형강공업주식회사 · 배명철강주식회사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을 들 수 있다.

북구 십정동에 위치한 서울제강(주)은 1967년 8월 1일에 설립된 이후 제강 및 압연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성장하여왔다. 종업원 320여 명을 고용하여 앵글 · 찬넬 · 환봉 · 철근 · 잉코트 등을 연간 약 5만 톤 정도 생산하였다.

북구 작전동에 위치한 대일형강공업(주)은 1975년 3월 5일에 설립된 철강재 제조업체로 설립 이후 빠른 성장을 보여 1979년에는 성형라인 셀트 크레인 15톤 1대와 호이스트 크레인 51대 및 전단라인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약 2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연간 C형강 9,237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구 부개동에 있는 배명철강(주)은 1976년에 설립되어 일반봉강과 스테인레스봉강을 주로 생산하였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철강업체 현황 (1979년 말현재)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업원	설립연월일	주요 생산품목
유성금속공업(주)	임환재	북구 부개동	727	7년 2월	일반주물
융성신철공업사	서용진	북구 부개동	50	78년 3월	철근
일양특수신철공업사	강명춘	북구 가좌동	70	77년 9월	철근
조양금속공업사	김병문	북구 부평동	68	51년 4월	주물
홍성통상(주)	서상호	북구 십정동	67	73년 2월	철강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1980.

2) 기계공업

기계공업은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기계공업은 제조업체의 수에 있어서나 종업원 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약 25%가, 기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약 50%에 가까운 공장이 인천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기계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계공업과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높은 철강산업이 인천지역에서 발달하였고, 또한 수출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었다.

인천 지역에서 기계공업이 발전하면서 부평지역의 기계공업도 크게 발전

하였다. 특히 부평지역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하여 인천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기계공업은 커다란 발전을 보이게 된다. 부평지역을 대표하는 기계공업 업체로는 1968년에 설립되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베아링주식회사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중소업체가 부평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1) 한국베아링공업주식회사

북구 산곡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국베아링공업(주)은 한국화약(주)의 자매회사로, 1968년 9월에 일본으로부터 12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여 생산설비를 크게 늘리고, 1973년 9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차관 33만 달러를 추가로 도입하여 생산설비를 늘렸다. 그리고 1978년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금속공업기계 제조업체로 지정되었다.

또한 1978년 7월에는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500만 달러, 1979년 12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400만 달러를 도입하여 생산설비를 크게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규모는 대지 3만 2,813평에 건물 7,200평에 이르게 되었고, 종업원 수도 1971년에는 불과 630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6년에는 1,049명으로, 그리고 1979년 말에는 1,88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목은 베어링 · 콘베이어 · 공업용 열처리로 · 연삭기 · 유압선반 · 착암기 등인데 베어링의 경우 1971년에 연 200만 개에 지나지 않았던 생산능력이 1979년에는 2,089만 개로 약 10배가량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콘베이어의 경우 1971년에는 연 1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에는 연 30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출처 : 한국베아링공업주식회사

단위 : 베어링은천개, 콘베이어 · 공작기계 · 공업로는 백만원

한국베아링(주)의 생산능력과 투자내역

생산 능력과 투자내역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베 아 링	2,000	2,400	3,555	4,176	5,339	7,000	11,075	19,200	20,890
콘 베 이 어	100	150	200	200	400	500	850	2,000	3,000
공 작 기 계	–	–	–	–	–	–	800	1,000	1,500
공 업 로	–	–	–	–	–	–	–	500	1,000
투자(외자)(천 달러)	–	9	386	1,200	378	3,000	1,000	5,837	4,000
투자(내자)(백만 원)	100	100	185	300	500	800	1,000	2,028	1,300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기계공업 업체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베아링(주) 이외에도 한독금속공업(주), 국제산업(주), 대한화학기계공업(주) 및 고니정밀(주) 등이 생산활동을 하며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북구 갈산동에 있던 한독금속공업(주)은 1972년 6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생산품목은 공구류, 단조품 등인데 연간 생산능력은 약 600만 개이고, 종업원 수는 300명에 달했다.

한편 1971년 7월 2일에는 북구 부개동에 국제산업(주)이 설립되어 시멘트 혼합배합기를 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부평지역의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업체로 대한화학기계공업(주)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북구 효성동에서 1964년 6월 20일에 설립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정단시설 32점, 성형시설 35점, 용접시설 76점, 용접보조시설 34점, 공작기계 92점, 작업보조기 26점, 시험설비 13점, 열처리설비 39점 및 동력용 압축기 20점 등 총 385점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화학기계류 · 보일러 · 냉각탑 등 1979년 기준, 연간 150억원 가량을 생산하였다. 종업원 수는 470명이었다.

1976년 7월 7일 북구 작전동에 설립된 고니정밀(주)은 1979년 말 기준 종업원 230명을 고용하여 크리스털 유니트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1973년 8월 9일 설립된 동성개발공업(주)은 북구 효성동에서 주로 자동차 부품 · 기계 프레스 · 유압 프레스 등을 생산하였다.

또한 북구 가좌동에 위치한 신한공업(주)이 종업원 300명을 고용하여 수도 미터 및 가스 미터 축수금을 만들고 있었고, 1971년 3월에 설립된 한보열기공업(주)도 북구 가좌동에서 보일러와 공기조화기기 및 버너를 생산하였다. 이 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온풍난방기 200대와 온수 보일러 500대에 달하였다.

3)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석유정제는 물론 합성수지제품 · 합성섬유 · 고무제품 · 도료 등의 석유화학 최종제품의 생산과 직결되므로,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울산석유화학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북구 원창동에서 경인에너지(주)의 인천정유공장과 함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경인에너지(주)는 미국 유니온회사와의 합작투자 형태로 1969년 11월 3일에 설립되어 1971년 5월에는 하루 5만 배럴(BPSD)을 정제할 수 있는 간이정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완료하고 1972년 2월 21일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2년 12월 1일에는 하루 6만 배럴(BPSD)을 정제할 수 있는 정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의 건설을 위해 투자한 총금액은 1억 2,900만 달러인데, 이 중 외국자본은 유니온회사의 직접투자 1,025만 달러와 차관 1억 1,281만 달러 등 1억 2,305만 달러였고, 국내자본은 600만 달러로 투자액의 대부분을 외국자본, 특히 차관에 의존하였다.

(1) 경인에너지(주) 인천정유공장

북구 원창동에 자리 잡고 있던 정유공장은 50만 평의 대지 위에 총 공사비 3,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하루에 원유 6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신시설과 개량된 제조공정 및 완전자동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 공장의 주요 시설은 원유하역시설 · 원유 및 제품의 저장탱크 · 공정부문 및 제품출하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정유공장에서 3.5마일의 해중도로로 연결되어 인천항 내 율도(栗島)에 자리 잡고 있는 하역부두시설은, 대형 유조선을 계류하여 1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에 원유를 하역하고 또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출을 위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경인에너지(주) 인천정유공장의 생산실적 (단위 : 1,000배럴)					
주요생산품목	1975	1976	1977	1978	1979
푸 로 판	106	113	153	194	202
부 탄	195	124	193	272	319
납 사	1,194	1,468	1,728	1,306	1,014
고급휘발유	109	134	160	322	327
보통휘발유	319	374	460	662	761
등 유	334	381	492	782	1,019
경 유	2,482	2,734	3,774	4,182	4,170
방 카 C유	7,719	8,409	10,616	10,33	19,548
중 유	80	125	303	446	401
제트유(항공유)	156	140	195	242	277

출처 : 경인에너지 주식회사

(2) 경인에너지(주) 인천화력발전소

인천화력발전소는 총공사비 6,100만 달러가 투입되어, 한 기당 16만 2,400kw의 발전용량을 지닌 2기로 구성되어 있고 총출력은 32만 4,800kw에 이른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유는 경인에너지(주) 정유공장에서 생산되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송유된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전력(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이고 수도권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발전소의 종업원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별로 많지는 않아 1979년 현재 782명이었다. 전력의 생산실적은 1972년에 1,821Mkw이던 것이 1973년 이후 안정화되어 1975년에는 2,185Mkw, 그리고 1979년에는 2,036Mkw에 이르고 있다.

(3) 기타 주요업체

북구 갈산동의 럭키콘티넨탈카본(주)은 1968년 3월 21일에 설립되어 연간 카본블랙 6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종업원은 150명이었다.

삼화프라스틱(주)은 한국생사(주)의 방계회사로 1973년 2월 15일 북구 효성동에 공장을 건설하고 같은 해 3월부터 합성피혁제품을 생산하였다.

북구 가좌동에 위치한 흥일실업(주)은 1968년 8월 18일에 설립된 염료제조업체로, 혼합기 · 반기(拌機) · 반응부(反應釜) 건조기 · 분쇄기 · 믹서기

등의 감종 염료 생산시설을 갖추었다. 1979년 말 기준 150여 명의 종업원에 연간 염료 800M/T와 염료중간체 50M/T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북구 가좌동에 위치한 한국티타늄공업(주)은 1969년 2월 12일에 설립되어 산화 티타늄을 제조하였다. 1979년 말 현재 23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던 회사로 부평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 전기 · 전자공업

전기 · 전자공업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전에는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관련산업의 성장이 부진하였으며, 불법 외래상품이 범람함에 따라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전반의 발전과 전력공급의 확대에 따라 어느 산업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1976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소득의 증대로 인한 가전제품 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른 산업용기기의 수요 증대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 화신전기주식회사

1970년대 부평지역에 위치한 전기 · 전자공업의 대표적인 업체는 북구 효성동에 있는 화신전기(주)였다. 이 회사는 1972년 3월 1일에 설립되어 주로 냉난방기기와 그 부속제품 및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남구 학익동에 있는 같은 계열의 회사인 흥한방적(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냉방기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국내수요를 따르기 위해 1975년 9월 11일 북구 효성동에 대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함에 따라 이후 부평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1973년에는 세계적인 호황에 따라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제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회사는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판매업무를 분리하게 된다. 즉 판로개척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따로 화신전기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판매업무 일체를 넘기고 화신전기(주)는 생산에만 전념하였다.

화신전기(주)는 1973년 11월에 정부로부터 공기조화기 80% 이상의 국산화계획에 대한 허가를 얻어 이를 성공시킴으로써 전기제품 생산업체로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게 되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발전을 함께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회사는 대규모의 공장과 최신설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냉방기류 이외에도 신제품으로 냉장고 · 세탁기 · 건조기 · 제빙기 등 가전제품 일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비약하기 위한 일대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약 20,000평에 달하는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총건평 3,000평에 달하는 공장을 1975년 9월 11일에 준공하였다. 이로써 화신전기(주)는 명실상부한 중전기제품과 종합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부평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기타 주요업체

1970년대 들어 전기 ·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합가전제품 업체 이외에도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갈산동 · 일신동 · 작전동 · 효성동 · 가좌동 등 부평지역에 설립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북구 갈산동에서 1973년 4월 5일에 설립된 서음전자(주)는 4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앰프 · 리시버 등을 비롯한 라디오 · TV 및 통신기기를 주로 생산하였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전기 · 전자업체 현황

업체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종업원	주요생산품목
동흥전기(주)	1967. 5. 25	북구 가좌동	340	냉방기, 냉동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동보전기(주)	1967. 6. 12	북구 일신동	420	형광등, 전기기구
(주)한국마벨 주안공장	1976. 9. 1	북구 가좌동	200	폴리배리콘, 레벨미터, T.R.커패시터
(주)한독	1966. 3. 25	북구 작전동	1,700	전자 손목시계, 원양어업용 냉동장비
오리온전자(주)	1966. 5. 17	북구 가좌동	250	라디오, TV
뉴코리아전자공업(주)	1968. 7. 3	북구 효성동	234	전자기기
한국나쇼날전기(주)	1973. 10. 17	북구 효성동	730	칼라TV, B/W TV, 라디오 앰프
범한무전(주)	1974. 7. 4	북구 작전동	250	전자부품 조립
한국전자정밀(주)	1974. 11. 14	북구 효성동	240	미터기, 계측기

※종업원 수는 1978년 말기준임.

5) 자동차공업

자동차공업은 철강을 비롯하여 비철금속 및 기계·화학 등 관련산업 제품의 조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종합기계공업이다. 따라서 자동차공업은 이러한 관련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경제발전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부평지역에서는 1966년에 일본의 도요타(豊田)자동차와 기술제휴를 하고 생산을 시작했던 신진(新進)자동차가, 1972년 미국의 자동차회사인 GM과 합작투자하여 회사의 상호를 GMK(현재는 GM대우(주)임)로 바꾸고 북구 청천동에서 승용차와 트럭·버스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에 부품생산업체가 함께 자리 잡게 되어 1970년대 부평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1) GMK(주)


1970년대 GM코리아 전경

GMK(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자동차 생산기업으로 시작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공업을 이끌어 온 자동차공업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GMK(주)는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 자동차 생산공장을 건설하고(당시는 신진자동차(주)였음),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차의 완전국산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왔다.

1972년에는 미국의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투자하면서 회사이름을 GM코리아(GMK)로 변경하고, GM이 지닌 고도의 기술과 합리적인 기업경영기법을 배움으로써 종합 자동차 생산기업으로서의 기틀을 잡았다.

GMK(주)는 자동차의 완전국산화를 위해 1974년부터 국산화계획을 세워 연구·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1978년 10월 1일부터 소형트럭인 엘프

(ELF)의 보디를 시작으로 1979년 1월에는 승용차인 제미니(GEMINI)의 보디를, 같은 해 4월에는 맥스(MAX) 8T 카고트럭 및 11T 카고트럭과 10.5T 덤프트럭의 보디를 국산화하였다. 이어 1980년 5월에는 로열(Royale)승용차의 보디를 국산화하여 자동차공업의 명실상부한 선구자가 되었다.



새한자동차의 8톤 덤프트럭 광고지

이 회사는 1979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회사이름을 새한자동차(주)로 바꾸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승용차와 버스·트럭 등 총 16가지의 다양한 차종을 개발하여 생산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기술센터와 주물공장·엔진공장·프레스공장·데크공장 및 승용차·버스·트럭 조립공장에 이르는 일관생산공장을 갖추고 세계 여러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종합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이 회사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승용차의 경우 1973년에는 1만 6천 대이던 것이 1976년부터는 5만 대로 크게 늘었고, 트럭의 경우에도 1973년 6,000대에서 1976년부터는 7,000대로 늘어 1979년 현재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에 이어 전체 차종에서 종합 3위의 자동차회사가 되었다.

GMK(주)의 연도별 자동차 생산능력 (단위 : 1,000대)

차 종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승용차	16.0	16.0	16.0	50.0	50.0	50.0	50.0
트 럭	6.0	6.0	6.0	7.0	7.0	7.0	7.0
버 스	3.0	3.0	3.0	3.0	3.0	3.0	3.0
합 계	25.0	25.0	25.0	60.0	60.0	60.0	60.0

(2) 자동차 부품업체

1970년대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도 속속 부평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1972년 5월 12일에는 북구 삼산동에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이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였다. 이 회사는 1978년 말 현재 5,180평의 공장에

부품제조용 기계시설 356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680명을 고용하여, 차량 8만 대와 추진축 8만 조, 변속기 2만 5,000대, 가스켓 10만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북구 부평동에서 1975년 7월 10일에 설립된 기아기연공업(주)은 삼륜차와 그 부품을 생산하였다. 1978년 말 현재 종업원 940명에 연간 생산능력은 삼륜차 12만 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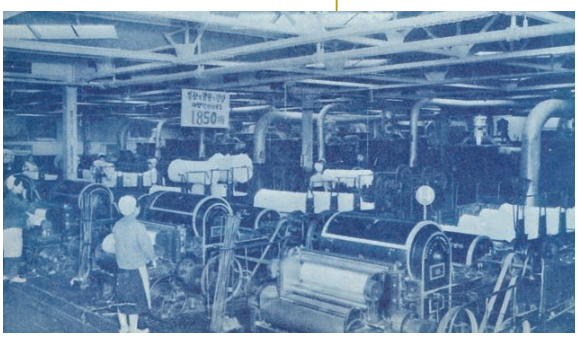
1975년 10월 10일에 북구 청천동에서 설립된 덕원금속공업(주)은 화물차용 베어링 270만 pes, 화물차용 트러스트 와셔(Thrust Washer) 30만 pes, 화물차용 부싱 39만 pes, 기타 특수품 270만 pes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1년 12월 6일에 설립된 동아자동차공업(주)은 컨테이너 새시와 고소작업용차량 · 냉동차량 · 진공청소차량 · 트레일러 · 사다리차 · 제설차량 ·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템프차량 · 탱크로리 · 벌크 트럭 및 각종 소방차량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1978년 말 현재 종업원은 1,000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1977년 11월에 준공된 이 회사의 부평공장(북구 효성동 소재)은 3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다양한 차량을 생산하였다.

이외에도 북구 작전동에 위치한 대원강업(주)은 1975년에 설립되어 자동차용 판(板)스프링 · 코일 스프링 · 선(線) 스프링 · 타이어 체인 · 스태빌라이저 · 시트 · 철도용품 및 프레스품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였고, 북구 작전동에 위치한 한일튜브공업(주)은 1970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프레이크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였다.

6) 섬유공업

섬유공업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선도산업(leading sector)의 역할을 하며 고도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 산업이다. 섬유공업, 그 중에서도 면방직공업은 기술이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



1950년대 방직공장 내부 모습

우리나라의 섬유산업, 그 중에서도 면방직공업은 1960년대 이후의 상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재편성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수요의 급증과 면방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을 계기로 하여 성장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의 방직기 보유량은 1973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60만 추에 이르게 되었다. 인천의 경우에도 1978년 말 현재 부평지역에 위치한 전방(주)이 약 17만 추, 동일방직(주)이 15만 추, 한일방직이 약 5만 추의 방직를 보유하고 있었다.

(1) 전방주식회사 부평공장

전방(주)은 1953년 2월 23일에 설립되어(설립 당시에는 전남방직주식회사) 1961년 4월에는 전남방직(주)과 일신방직(주)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67년 8월에 북구 청천동에 부평공장을 건설하고 1968년 5월에는 이 부평공장에 소모방(梳毛紡)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970년 1월에 회사이름을 전방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전방(주)은 1973년에는 소모방기 2,800추를 증설하고 1974년에는 소모방기 7,200추를 추가로 증설하는 한편 면정방기(綿精紡機) 30,240추를 건설하였다.

이 후에도 계속적인 설비의 증설이 이루어져 전방(주)은 1979년 말 현재 대지 약 33,000평에 건물 20,000평의 공장에 15,476추의 소모방 시설과 69,192추(공기정방기 2,200추 포함)의 면정방기, 그리고 하루 2,100kg의 처리능력이 있는 염색시설과 하루 1,600kg의 처리능력이 있는 재봉사시설을 갖추고 1,662명을 고용하여 한 달에 아크릴사(糸) 50만 L/B, 면사(綿糸) 126.5만kg 그리고 재봉사 4.8만kg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전방(주) 부평공장의 연도별 생산실적 (단위 : 천 kg, 직포는 천필(疋))

주요 생산품목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아크릴사	880	1,176	1,513	1,573	1,621	2,856	3,072	2,874	3,310
면사	–	–	–	2,110	2,781	2,154	1,686	3,260	3,825
혼방사	–	–	–	127	367	1,029	1,569	2,259	2,693
화섬사	–	–	–	–	16	181	249	391	320
재봉사	–	–	–	–	29	96	285	516	556
직포	–	–	–	–	–	–	–	134	116

출처 : 전방주식회사 부평공장

(2) 기타 주요업체

신도실업주식회사는 1962년에 북구 효성동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신사복을 주로 생산하였다. 1978년 말 현재 단연기(緞撚機) 6대와 횡편기(橫編機) 43대, 재봉기 330대를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은 1,250명이었다.

주식회사 새서울상사는 1970년 12월 4일에 북구 효성동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주로 메리야스와 합성수지, 그리고 에어포트를 생산하였다. 1978년 말 현재 미싱 200대와 편직기 90대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1,2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한편 북구 효성동에 있던 시브라더스섬유주식회사는 1968년 8월 30일에 회사를 설립하고 1978년 현재 고속재봉기 등 404세트의 시설에 8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Y셔츠와 블라우스를 주로 생산 · 수출하였다.

또한 1972년 9월 8일에 설립된 세일실업주식회사는 북구 가좌동에서 미싱 200대, 편직기 120대와 기타 80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1,0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스웨터와 자켓 및 PVC를 생산 · 수출하였다.

1961년 10월 북구 작전동에 설립된 서광산업(주)은 신사복과 자켓 등을 생산하였는데 1천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당시로서는 규모가 매우 큰 업체였다. 그리고 1965년 12월 북구 효성동에 설립된 동국무역(주)은 종업원 1천2백여 명을 고용하여 자수직물을 생산하였다.

7) 비철금속공업

비철금속공업은 자동차 · 전기 · 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분야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철강공업과 함께 자급이 요청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비철금속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림통상주식회사는 1970년 4월 1일, 북구 부평동에 회사를 설립하고 스푼과 포크 · 나이프 등 양식기를 생산하였다. 1975년 11월에는 북구 가좌동에 인천공장을 설립하여 주로 스테인리스 기물을 생산하였다. 1978년 말 현재 부평공장의 종업원은 약 700명이고 인천공장의 종업원은 약 200명이었다.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는 1975년 3월 1일에 북구 부평동에서 설립되어

알루미늄 새시와 강복강선(鋼覆鋼線)을 생산하였다. 1978년 말 약 3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연간 알루미늄 새시 4,200톤과 강복강선 2,3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외에도 1978년에 설립된 대양금속주식회사(북구 효성동)가 스텐레스와 강판을, 1977년에 설립된 대창공업주식회사(북구 부개동)가 황동봉을, 1976년 설립된 로얄금속주식회사는 3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생도기 부품을 생산하였다. 또한 1973년에 설립된 서진금속공업주식회사(북구 작전동)는 24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스테인리스 양식기를 생산하였고, 1965년에 설립된 세운산업주식회사(북구 효성동)는 철탑과 철구류를 생산하였다. 1979년에 설립된 현대알미늄주식회사(북구 작전동)는 알루미늄 압틀과 주물을 생산하였다.

8) 기타 제조업

앞에서 언급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으로는 음·식료품업, 목재·가구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으로 1970년대 부평지역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1980년 말 현재 부평지역의 주요 기타 제조업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식료업

음·식료업에서는 먼저 1958년에 북구 산곡동에 설립된 신한제분(주) 부평공장이 종업원 4백여 명을 고용하여 물엿과 전분·밀쌀을 생산하였다. 동서식품(주)은 1968년 북구 효성동에 설립되어 5백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커피와 프리마를 생산하였고, 해태제과(주) 음료사업부는 1972년 북구 작전동에 설립되어 1천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스류와 넥타 등을 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북구 가좌동에서는 선일포도당공업(주)이 1964년에 설립되어 포도당과 물엿을 생산하였다. 이들 기업들이 종업원수나 생산액 등에 있어서 부평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2) 목재 · 가구업

목재 · 가구업에서는 동화기업(주)이 해방 직후인 1948년 4월 북구 가좌동에 회사를 설립하여 제재목과 후로링 등을 생산하였다. 이 회사는 7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였다. 1969년 12월에는 한양목재(주) 인천공장이 북구 가좌동에 설립되었다. 한양목재(주) 인천공장은 1천2백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가구와 목재 및 합판을 생산하였다. 1977년 7월에는 (주)삼익가구가 북구 가좌동에 설립되어 1천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제재목과 가구 등을 생산하였다.



삼익악기 조립공장 모습 (2001)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기타제조업체

업체명	소재지	설립년월	고용인원	주요 생산품목
삼익악기(주)	효성동 316-48	73. 1	3,000	피아노, 기타
영창악기(주)	가좌동 564-1	56. 11	2,350	피아노, 올갠
동안물산(주)	효성동 534	59. 8	380	가발, 가방
동미산업(주)	작전동로 160-11	75. 7	260	낚시대
하니(주)	효성동 316-16	69. 10	190	인형, 완구
효성유리(주)	효성동 310-3	71. 11	221	유리병
극동요업(주)	경서동 363-80	73. 9	321	벽타일, 모자이크 타일
세창물산(주)	가좌동 543-2	76. 5	263	도자기 인형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1981.

1970년대(1971~1979년 간) 인천 지역에서 새로 설립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총143개 업체이다(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1980). 이 143개 업체를 각 구별로 분류해 볼 때, 1970년대 부평지역의 공업은 인천의 공업발전을 주도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종업원 100명 이상의 신설업체 143개 업체 중 무려 72.7%에 이르는 104개 업체(북구 가좌동 포함)가 부평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며,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약 76%를 차지하여 부평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에 매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인천시의 전체 인구 중 부평지역의 인구가 약 30%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설립된 인천지역의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체 현황

구 분	전 체	중 구	동 구	남 구	북 구
신설업체수	143 (100)	4 (2.8)	4 (2.8)	31 (21.7)	104 (72.7)
종업원수	77,726 (100)	2,272 (2.9)	2,056 (2.6)	14,217 (18.3)	59,181 (76.1)

※ 1970년대의 행정구역상 북구에는 현재의 서구를 포함, 남구에는 현재의 남동구를 포함하였음.
( )안은 비율(%).

4. 1970년대 부평지역의 상업

본래 인천지역은 수도 서울과 동시생활권이라는 지리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상권이 별개로 형성되지 못하고 서울의 상권에 흡수되어 있었다. 더구나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경인선 철도가 전철화됨에 따라 인천의 구매력은 빠르게 서울로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인천의 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시장이 규모나 시설 및 관리측면에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인천지역에는 유통관련 대기업에 의한 유통업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상품의 유통구조가 서울상권의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물가수준은 매우 유동적이었고 또한 각 지역 간에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인천지역의 인구팽창과 소득증가에 힘입어 시장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인천시는 시장의 육성을 주요 상공업 시책의 하나로 정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설(公設)시장을 사설(私設)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시장을 새로 건설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재래의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였다.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인천의 시장은 1969년에는 7개의 공설시장과 6개의 사설시장, 1개의 중앙도매시장 등 모두 14개의 시장이 있었으나 1971년에는 2개의 공설시장과 19개의 사설시장 등 21개의 시장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1980년에는 2개의 공설시장을 포함하여 모두 46개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시장의 근대화 추세에 따라 일반재래시장, 지하상가, 슈퍼마켓 및 연쇄점 등으로 시장형태가 다양화되고, 시설규모도 대형화되었으며, 운영방식도 현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근대적인 대규모 상점형태인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5월 동인천 슈퍼마켓이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78년 6월에는 부평지역에서 부평백화점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충분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출점을 하는 관행으로 볼 때, 부평백화점의 개설은 1970년대 후반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던 부평지역의 상업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1970년대 부평지역의 시장현황

본래 부평지역에는 집단화된 상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여러 군부대들이 주둔하여 이 지역의 상가들은 경기변동과는 관계 없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2년에는 부평지역에 처음으로 북구 부평동에 공설상설시장인 부평시장이 설치되었다. 일용품 소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평시장은 그 이후 계속 번창하여 1971년 5월 6일에는 사설시장인 부평자유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17일에는 부평동 252번지에 부평진흥자유시장이 설립되었고, 1978년 부평백화점과 대도백화점이, 그리고 1979년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부평종합상가와 부평로지하상가가 설립됨으로써 1980년 현재 7개의 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상업활동은 그 이전에 비할 때 매우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부평지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업활동의 성장세가 인천시 전체 상업활동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을 볼 때 1970년대 부평지역의 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시장현황

시장명	소재지	대지(㎡)	건평(㎡)	점포수	설립연월일
부평자유시장	부평동 225	1,201	1,756	47	1971. 5. 6
부평진흥자유시장	부평동 252	4,646	4,950	164	1971. 8. 17
부평백화점	부평동 192-7	931	1,320	80	1978. 6. 22
대도백화점	부평동 153	1,436	749	55	1978. 12. 22
부평종합상가	부평동 229	2,129	4,419	200	1979. 1. 16
부평로지하상가	부평동 241-1	3,402	3,402	190	1979. 12. 15
갈월종합시장	갈산동	-	-	29	1980. 4. 28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해당년도
※시장은 모두 사설시장임.

이와 함께 1970년대 말에는 부평한남수퍼마켓 · 부평종합수퍼마켓 · 동양수퍼마켓 등 체인화된 대형 수퍼마켓이 속속 등장하여 부평지역의 상업활동은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게 된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수퍼마켓 현황

수퍼마켓명	소재지	대표자	점포수	설립연월일
부평생필수퍼마켓	부평동 210	민원순	10	1974. 7
백마수퍼마켓	산곡동 96	현 원	5	1978. 6
부평한남수퍼마켓	부평동 192-6	정해순	20	1978. 12
나나수퍼마켓	계산동 410	한태식	12	1979. 7
부남수퍼마켓	부평동 684	장덕순	5	1979. 7
부평종합수퍼마켓	부평동 229	편일우	18	1979. 9
갈산수퍼마켓	갈산동 91-61	차석영	5	1979. 11
동양수퍼마켓	부평동 201-43	인성만	12	1979. 11

출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명감』, 1980

3) 1970년대 부평지역 도소매업의 현황

1970년대 부평지역의 도소매업 현황을 인천지역의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점포 수를 통해서 볼 때, 1970년대 중반까지는 도매업과 소매업에 있어서 부평지역은 각각 14.0%와 21.3%로(1976년 현재)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부평지역의 산업발전과 함께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말

에는 도매업과 소매업의 비중이 각각 33.9%와 28.6%로(1982년 현재)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추이는 인천의 여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음을 보였다.

1970년대 구(區)별 도소매업 점포비교 (단위: 점포수)

연 도	전 체		중 구		동 구		남 구		북 구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1968	253 (100)	6,657 (100)	71 (28.1)	1,925 (28.9)	80 (31.6)	1,912 (28.7)	54 (21.3)	1,620 (24.2)	48 (19.0)	1,210 (18.2)
1971	495 (100)	9,038 (100)	236 (47.7)	2,081 (23.0)	126 (25.5)	2,677 (29.6)	60 (12.1)	2,619 (29.0)	73 (14.7)	1,611 (18.4)
1976	719 (100)	13,345 (100)	333 (46.3)	3,046 (22.8)	122 (17.0)	2,975 (22.3)	163 (22.7)	4,477 (33.6)	101 (14.0)	2,847 (21.3)
1982	1,297 (100)	18,553 (100)	330 (25.4)	3,109 (16.8)	129 (9.9)	2,936 (15.8)	398 (30.7)	7,918 (38.8)	440 (33.9)	5,310 (28.6)

※ 단위는점포수, ( )은 구성비율(%).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에는 과거의 상업중심지였던 중구와 동구는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평지역이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평지역은 도매업에 있어서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5. 부평지역의 금융업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 와서도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저축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새로 설립되었고, 예금과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인천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부평지역의 금융은 인천지역 전체의 금융동향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일명 제2금융권)으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화금융기관


1950년대 상업은행 인천지점 업무광경

부평지역에서 가장 먼저 은행지점을 개설한 곳은 농업협동조합으로 1961년 8월 15일에 북구 부평동에 부평지점을 설립하였다. 이어 부평지역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63년에는 국민은행과 상업은행(현재는 우리은행에 합병)이, 1969년에는 한일은행(현재는 우리은행)이 북구 부평동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수출산업공단의 생산 및 수출활동이 본 궤도에 이르고 부평지역의 경제활동과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외환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앞 다투어 부평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게 된다. 1970년 7월 28일에는 앞서 부평지점을 설치한 농업협동조합이 북구 산곡동에 백마장지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같은 해 4월 21일에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설립된 인천은행(후에 경기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한미은행에 흡수된 후 현재는 시티은행에 합병)이 북구 부평동에 부평지점을 설치하였다.

1971년 12월 7일에는 외환은행 부평지점이 수출산업공단이 있는 북구 효성동에 부평지점을 개설하여 수출입 활동의 지원을 위한 외국환 업무를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서울신탁은행(현재는 하나은행에 합병) 부평지점이 북구 부평동에, 1976년에는 부평1동에 한국주택은행 부평지점이 설치되었다. 이어 1979년에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부평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북구 부평동에 부평지점을 개설하였고, 1980년에는 제일은행(현재는 HSBC 제일은행)과 조흥은행 부평지점이 북구 부평동에 부평지점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4개 은행의 지점만이 있던 부평지역에 1970년대 들어 8개의 은행이 추가로 지점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은행인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주택은행·중소기업은행이 지점을 설치했다. 이는 1970년

대 부평지역의 경제활동 규모가 크게 신장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졌음은 물론 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수출입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비통화금융기관

(1) 상호신용금고

비통화금융기관, 즉 제2금융권은 1972년에 있었던 소위 「8·3 긴급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로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사금융의 양성화를 통한 금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진, 투자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8·3 긴급조치」 이후 제정된 「사금융 양성화법」에 따라 그동안 지하경제에서 음성적으로 떠돌던 거액의 자금이 점차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부평지역에서도, 영세상인과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었다. 이미 1970년에 북구 부평동에서 설립되어 이름을 바꾼 한국상호신용금고와 금화상호신용금고 이외에도, 1972년에는 신일상호신용금고가, 1974년에는 안흥상호신용금고, 그리고 1978년에는 대양상호신용금고가 부평지역에 본점을 개설하였다. 이와 함께 1975년에는 경은상호신용금고의 부평지점이 설치되어 부평지역의 금융활성화에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말 현재 부평지역에서는 6개의 상호신용금고 본점과 지점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2)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1963년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마을금고가 1983년 「새마을금고법」의 제정과 함께 이름이 바뀌어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이다.

인천지역에서의 마을금고운동은 1964년 재건국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금고는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마을이나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들이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로 협동조직을 만들고, 절약과 저축을 통해 자체


산곡1동 새마을금고

의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생활자금을 간편하게 마련함으로써 경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여유자금과 적립기금은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평지역에서는 1970년에 설립된 산곡동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각 동(洞)마다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고, 또한 1976년에 풍산금속 새마을금고와 부흥실업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직장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1980년 말 현재 지역 새마을금고 14개와 직장 새마을금고 22개 등 총 36개의 새마을금고가 지역주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평지역의 새마을금고는 1970년 11월 24일 산곡2 · 4동 새마을금고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그 후 부평3동(1972. 8. 2) · 부평5동(1973. 6. 5) · 산곡1동 새마을금고(1974. 10. 9) 등이 차례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3)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공동판매와 공동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합원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여수신 업무까지 취급하는 저축기관으로 발전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5월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효시이다. 주로 교회 · 학교 · 직장 등의 공동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1964년 4월에는 전국의 55개 신용협동조합이 모여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고, 1972년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마을금고가 설치되며 설립과 출자 · 대출한도 · 이자율 · 예탁금 · 상환준비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

역별 공동사업이나 공동개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발전이 이루어졌다.

부평지역에서는 1972년 12월 30일에 부평2동·부평1동·산곡동 신용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아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1974년에는 대우자동차 신용협동조합, 1976년에는 전방(주) 신용협동조합과 계산신용협동조합이, 그리고 1976년 대한마이크로 신용협동조합, 1977년 삼익악기와 한국종합기계 신용협동조합, 1978년 인천선진 신용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1980년 말 현재 모두 10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지역사회 개발과 조합원의 후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3) 1970년대 부평지역의 예금과 대출

한국은행 인천지점의 자료에 의하면 1971년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액은 245억 4,800만 원(일반은행 166억 5,100만 원, 특수은행 78억 9,600만 원)에 불과했으나 1975년에는 671억 1,200만 원(일반은행 457억 2,300만 원, 특수은행 213억 8,700만 원)으로 연평균 30%가 넘는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편 1980년에는 예금액이 3,548억 6,300만 원(일반은행 2,149억 900만 원, 특수은행 1,399억 5,4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비로는 약 2%에 불과한 것이지만, 경기도 대비로는 무려 40%에 이르는 것이었다.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1970년대 들어 부평의 수출산업공업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공업단지의 조성 등에 따른 자금수요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인천지점의 자료에 의하면 1971년의 대출액은 193억 8,200만 원(일반은행 75억 8,600만 원, 특수은행 117억 9,500만 원)이던 것이 1975년에는 529억 2,800만 원(일반은행 256억 2,000만 원, 특수은행 117억 9,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3,290억 3,600만 원(일반은행 1,303억 5,200만 원, 특수은행 1,980억 8,400만 원)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1980년을 기준으로 예금액에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 대 39.5%이지만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 대 60.4%로 역전된 상황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은행은 상업적 채산

기준에 의해 주로 자금 조달에 역점을 둔 반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산업자금의 공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인천지역 금융기관 대출액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뒤를 이어 건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순으로 대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농림수산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1970년대 인천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간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금 등 각종 산업자본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부평지역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금			대 출		
	총 계	일반은행	특수은행	총 계	일반은행	특수은행
1970	2,376	1,438	938	919	509	410
1971	3,310	1,939	1,371	1,271	716	555
1972	4,386	2,676	1,710	2,140	690	1,450
1973	5,976	3,284	2,692	3,241	736	2,505
1974	6,474	3,604	2,870	3,907	1,222	2,685
1975	7,152	4,200	2,592	4,216	1,636	2,580
1976	10,316	5,561	4,755	7,447	2,589	4,858
1977	19,788	9,167	10,621	19,15	15,074	14,077
1978	34,667	15,677	18,990	32,878	10,908	21,970
1979	45,667	21,880	23,787	47,749	16,684	31,06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해당년도

부평지역의 예금실적은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이어진 1974년과 197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기간 중 연평균 41.5%의 증가율을 실현함으로써 인천 전체의 예금 증가율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한편 부평지역의 대출실적도 1970년대 들어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예금실적과 마찬가지로 1974년과 1975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70%를 넘는 증

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예금의 증가율보다 대출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1970년대 부평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7년 이후에는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 1979년에 오면 대출이 예금을 초과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6. 부평지역의 새마을운동



조기 새마을청소 중인 부평서초등학교 학생들 (부평서초등학교 소장)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인천지역, 특히 부평지역의 지역사회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적인 정신과 실천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농촌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의 지역사회발전도 이끌게 된다.

부평지역에서도 북구 새마을계(係)가 중심이 되어 도시개발을 비롯하여 농가의 지붕개량사업, 가로수 관리 등 도로변 정화사업, 시범지역 개발사업 및 새마을 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농촌 새마을운동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도시 새마을운동과 직장 새마을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인천시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인천교육대학과 인하대학교 시민대학을 통하여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1974년 7월 1일에는 북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중학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족주체학교가 개설되어 지역 새마을 지도자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국사·반공·새마을운동 및 시사교육을 실시하였고, 1978년에는 부평여자중학교로 장소를 옮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근교지역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남구 만수동 담방마을과 북구 백석동의 한들부락이 도시형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어 중점육성되기도 하였다. 한들부락은 임해지역에 위치하여 과거에는 소금을 생산하던 부락으로



북구 새마을지도자 대회
(1981. 12. 22)

김포군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3년 전국 새마을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 마을 앞을 흐르는 오량천을 정비하는 등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주민의 소득은 1970년의 호당 28만 6천 원에 비해 1979년에는 222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생활환경 면에서는 1977년부터 새로 시작된 취락구조 개선 마을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요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 새마을운동의 촉진을 위한 10대 구심사업은 소비절약의 실천, 준법질서의 정착,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 청소의 일상화, 시장 새마을 운동의 전개, 도시 녹화, 뒷골목 정비, 도시환경 정비, 생활오물 분리 수거, 그리고 도시후진지역의 개발 등이었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직능 새마을운동 · 학교 새마을운동 · 부녀 새마을운동 · 노인 새마을운동 · 공장 새마을운동 등의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평지역에서 큰 성과를 가져온 공장 새마을운동은 1976년까지는 도시 새마을운동의 한 분야인 직능 새마을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1973년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고도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노사윤리의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1977년부터는 이를 직능 새마을운동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에서는 특히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공장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부평지역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제2절 도시화와 사회적 변동

1. 애스컴(ASCOM)의 해체와 캠프마켓(Camp Market)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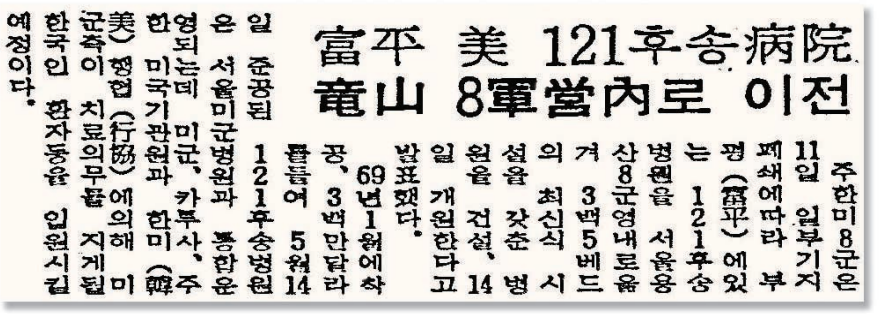
1970년대는 부평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시대로 기록된다. 이전까지의 부평지역이 전후 복구과정을 극복하며 아직 전통과 근대의 혼재 속에 표류하고 있었다면, 1970년대는 과거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던 도약의 시대였다.

1970년대의 부평지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애스컴(ASCOM, Army Service Command)의 해체이다.

애스컴의 해체는 미군 스스로가 평가하듯이 '한국에 복무하는 거의 모든 미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왔던 애스컴의 폐쇄(closure)는 진정 역사적인 사건'이었다(「Press Release on Phaseout of Ascom」, 1973. 4. 13). 그리고 그것은 미군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여 왔던 부평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부평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1950~70년대 미군부대의 기억을 종합해 보면, 기계나 장비, 병원과 식당 등 미군부대 내의 시설들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애스컴 '데뽀(Depot)'에서 흘러나오는 물자들은 부평지역의 경제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으며, 미군과 부대 주변의 '양공주'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소비의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거대한 규모의 미군부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으니, 안과 밖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던 부평지역 사람들에게 애스컴의 철수는 심리적인 공백상태를 만들어주기까지 하였을 것이다.

1951년 이후 30여 년간 부평지역에 자리잡아 왔던 애스컴은 1973년 6월 30일자로 부평지역에서의 공식적인 기능을 끝마치고 해체되었다(「Press Release on Phaseout of Ascom」, 1973. 4. 13).

※ 이 글은 김현석(부평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이 책임집필하였음.



美 121후송病院 富平
8軍堂內로 이전 龍山

주한미8군은 11일 일부기지 폐쇄에따라 부평(富平)에 있는 121후송병원을 서울용산 8군영내로옮겨져 3백5베드 시설을 갖춘 병원을 건설, 14일 개원한다고 밝표했다. 69년1월에착공, 3억만달라를들여 5월14일 준공된 121후송병원은 서울미군병원과 통합운영되는데 미군, 카투사, 주한미국기관원과 한미(韓美)행협(行協)에의해 군속이 치료의무를 지게된 한국인 환자동을 입원시킬 예정이다.

121후송병원의 이전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121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은 용산에 있는 주한미8군 영내로 옮겨져 1971년 6월 14일 개원하였다(『조선일보』 1971년 6월 12일자).

이미 1971년 121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의 용산 이전으로부터 시작된 부평미군부대의 이전 및 폐쇄작업은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되어, 부평미군부대 내의 대부분의 부대와 시설들은 경상북도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roll)로 옮겨갔고, 55헌병대(55th Military Police Company), 베이커리(Bakery) 등 일부 시설들만 남아 캠프 마켓(Camp Market)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불리던 부평미군부대는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캠프 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 떠난 장소와 관련 시설들은 모두 한국정부의 관할 하에 속하게 되었다.

애스컴의 해체와 함께 부대 내에 종사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대폭적으로 감원되어,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약 2,4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였고, 3~400여 명가량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를 따라가거나, 다른 미군부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KORSCOM Charger』, 1973. 5. 14).



캠프 마켓(Camp Market)이 신설되기 직전의 미군부대 전경(1972)

1971년부터 1973년 6월 30일까지 부평미군부대는 단계적으로 철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캠프 마켓(Camp Market) 전경(1973)

1973년, 부평지역에 있던 대부분이 미군부대 및 시설들이 사라진 후 베이커리(bakery) 등 일부 시설들만이 남아 캠프 마켓(Camp Market)이라고 다시 이름 붙여졌다. 베이커리(bakery)는 현재의 위치로 옮기기 전까지 명신여고 부근에 자리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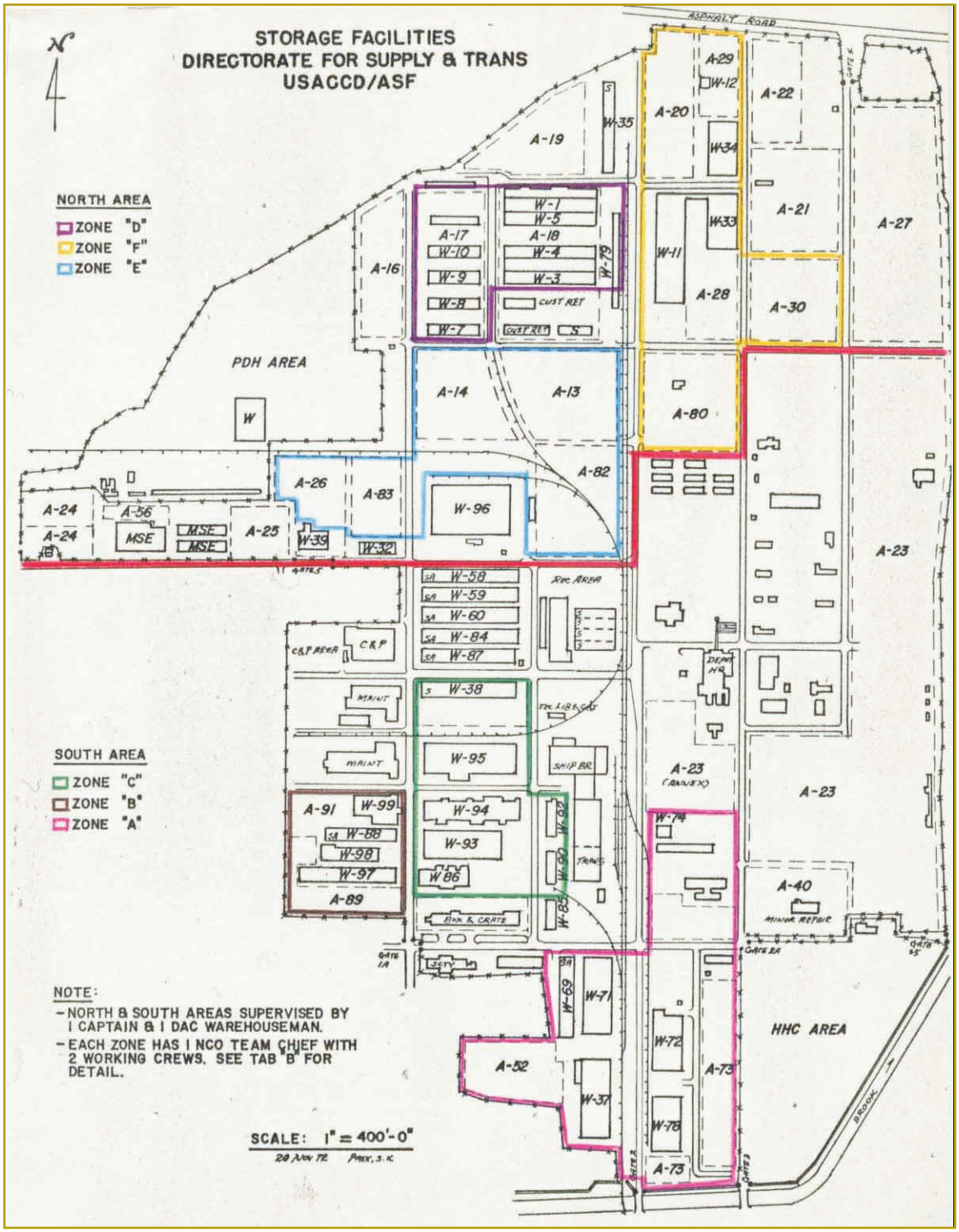
본래 부평지역에 미군부대가 들어서게 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던 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남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미군은 베이커 포티(Baker Forty)라는 작전명 하에 남한 점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맥아더로부터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미 제24군단이었다. 당시 미 제24군단은 제7보병사단, 제40보병사단, 제96보병사단, 제10군 고사포부대, 제137방공단, 제101통신대대, 제24군단 포병대, 제71의무대, 제1140야전공병단,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 Army Service Command 24)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가 인천 지역의 점령을 맡게 되었다.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1945년 9월 10일 부평지역에 있던 일본육군조병

창 시설을 접수하며 주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약 5년여 동안 이 곳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주요한 보급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50년 6월 27일,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군은 부평지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고,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제3군수사령부(the 3d Logistical Command)가 다시 이 지역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약 4개월 만에 또 한 번의 철수를 단행하여야만 했다. 미군이 부평지역에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천이 다시 수복되면서 부터이다.

1951년 봄, 부평지역에는 주한미군을 위한 보급창(supply depot)이 설치되는 한편, 6의무보급창, 4통신대대, 55보급창, 195병기중대, 330병기중대, 74병기대대, 해병지원사령부, 인천병력대기소, 121병원, 44공병대, 181통신중대, 8216화학창, 728헌병대(Company 'D') 등이 차례로 들어서게 되었다(UNITED STATES ARMY ASCOM DEPOT, 1967. 2. 10). 1963년에는 캠프 아담스(Camp Adams), 캠프 그란트(Camp Grant) 등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본따 이름 붙여지기도 했던 이들 구역들을, 미군들은 1973년 캠프 마켓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애스컴 시티(ASCOM City)'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다.

부평지역의 미군부대가 철수를 마무리한 1973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6·23선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표명한 이 선언은 사실상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한 것으로 1970년대 초부터 진행된 남북대화를 종결한 선언이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8·15 선언(1970. 8. 15), 남북적십자회담(1971. 8. 12)을 통한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 7·4남북공동성명(1972. 7. 4) 등 북한과의 교섭을 꾸준히 추구하여 왔다. 이는 1969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평화공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계획하는 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호응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6·23선언' 후 두달여 뒤 북한이 김대중납치사건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고착상태에 빠져들긴 하였으나, 부평지역에서의 미군의 철수는 이러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탕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ASCOM 지도(1973)

2.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의 변화

1970년대 초 애스컴의 해체는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던 부평지역의 동력을 주변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관 및 기능이 군사도시에서 산업 및 상업도시로 탈바꿈되어 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1966년 4월 8일 기공식을 가지며 효성동 · 갈산동 · 작전동 일대에 조성된 부평공업단지는 197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자리잡으면서 부평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명절 때만 되면 시장을 찾아오는 공단 근로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시장 상인들의 회고담을 음미해 보면, 미군이 떠난 자리를 공단 근로자들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메워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부평지역은 또한, 공단 조성 등에 따른 인구의 집중으로 기존의 무질서한 도시구조로는 도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북구청 종합청사 기공식
(1971. 4. 10)

부평지역 최초의 도시계획은 1940년 1월 19일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46.098㎢를 범위로 하는 부평도시계획인데, 1944년 1월 8일 경인시가지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부평지역이 인천시가지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이후에는 인천의 도시발전과정과 보조를 맞추어왔다.

1970년대 부평지역 및 인천지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은 일제시대때부터 마련되어 온 도시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발전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아직까지 자연부락의 형태로 남아있던 도시의 구조를 산업화된 도시구조로 변모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70~1979년간 부평지역 관련 주요 도시계획 고시목록 (단위: 명)

고시기관	고시번호	고시일자	주요내용
건설부	70-54	1970. 2. 9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 녹지, 유원지, 가로, 광장, 철도, 운하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0-343	1970. 7. 20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마, 백마 공원 등) 변경결정고시 ※ 심곡제1공원 → 백마공원
건설부	70-344	1970. 7. 20	도시계획시설(공원: 부평공원 등) 신설결정 고시
건설부	70-404	1970. 8. 17	도시계획시설(공원: 산곡제2공원) 변경(폐지)결정고시
경기도	71-111	971. 1. 9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주안1지구, 부평2지구) 준공기간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71-54	1971. 2. 3	도시계획시설(공원: 효성제2도로공원)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1-55	1971. 2. 3	도시계획시설(공원: 약사공원)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1-69	1971. 2. 3	도시계획시설(공원: 효성제2공원)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1-70	1971. 2. 3	도시계획시설(공원: 계양공원)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1-71	1971. 2. 3	도시계획시설(공원: 부평근린공원) 결정고시
건설부	71-82	1971. 2. 15	토지구획사업지구(서곶, 십정, 문학, 남동, 부개 지구) 결정 고시
경기도	71-93	1971. 4. 19	도시계획시설(시장: 공설, 송림시장, 공설부평시장) 폐지 고시
건설부	71-242	1971. 5. 5	도시계획(공원: 백운공원) 변경결정고시
건설부공고	71-42	1971. 6. 3	토지구획정리지구(부개지구) 사업시행 명령고시
경기도	71-131	1971. 6. 3	도시계획시설(시장: 부평시장 등) 개설허가 고시
건설부	71-357	1971. 6. 16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마공원 외 22개소) 결정(확정) 고시
건설부공고	71-74	1971. 8.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부개지구, 884,600㎡) 사업시행 인가
건설부공고	72-56	1972. 8.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간석지구, 1,871,686㎡→1,822,752㎡)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72-351	1972. 8. 14	도시계획시설(고속여객자동차 정류장: 부평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등) 결정고시
경기도	73-62	1973. 3. 3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평화물자동차정 류장, 부평동 일반여객자동차정 류장 등) 결정 및 지적승인
경기도	73-144	1973. 6. 8	도시계획시설(학교: 산곡고등학교 등) 결정 고시
건설부	73-271	1973. 7. 2	도시계획(풍치지구: 철마지구 등)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공고	73-94	1973. 10. 8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평제3지구) 내 도시계획(시장용지 6,729㎡를 일반체비지로 변경)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공고	74-99	1974. 10. 21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평 제3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34, 3-35)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공고	74-126	1974. 12. 10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주안 제2지구, 간석지구, 부개지구) 사업시행기간 일부변경 인가 공고

고시기관	고시번호	고시일자	주요내용
건설부	75-141	1975. 9. 1	도시계획시설(공원: 제53호 부평묘지공원, 3,384,040㎡→3,334,040㎡) 일부 변경결정
건설부공고	76-192	1976. 12. 4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평 제3지구, 2,139,164.6㎡→1,992,664.8㎡) 일부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공고	77-18	1977. 2. 18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평 제3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3→소2-15, 중1-35→소로1-13) 일부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77-196	1977. 10. 4	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약사공원) 일부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8-51	1978. 7. 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간석동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 고시
건설부	78-146	1978. 6. 15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십정지구 등) 결정고시
건설부	78-196	1978. 7. 31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7)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공고	78-68	1978. 7. 31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부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7)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78-210	1978. 8. 1	도시계획(용도지구: 가좌 380,000㎡, 산곡 125,000㎡ 아파트지구 등) 결정고시
건설부공고	78-137	1978. 12. 5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십정지구 등) 시행명령건설부 78-4091978. 12. 22도시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간석지구) 결정고시
건설부	79-261	1979. 7. 16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십정 풍치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산곡남공원, 십정공원 등) 변경결정 고시
건설부	79-270	1979. 7. 20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십정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시장, 공원, 시설녹지, 학교용지, 공용의 청사, 도로) 결정고시

출처 : 『인천의 도시계획 연혁집』, 인천광역시, 2004.

1970년대 부평지역의 도시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1968년 12월 21일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이다. 건설 당초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고속도로의 개통은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초래하였고, 도로가 공단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부평지역은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인접 지역의 개발은 물론 산업도시로서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개통 초기인 1970년, 1일 평균 차량수가 1,201대였던 것이 1980년에 이르러 1,744,307대로 늘어날 만큼 경인고속도로는 경인 간의 주요한 동맥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부평인터체인지의

차량 이용 역시 1971년 558,060대였던 것이 1979년 1,911,945대로 폭증할 만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의 흐름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1973년 말 현재 인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5,742대로 124명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1~1979년간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 차량 이용현황

연도	총이용수	승용차	버스	10톤미만화물	10톤이상화물
1971	558,060	413,194	12,508	118,707	13,651
1972	463,934	308,621	10,255	130,097	14,961
1973	591,577	350,687	16,873	205,751	18,266
1974	593,324	283,292	43,910	242,729	23,393
1975	650,294	287,477	50,796	289,481	22,540
1976	860,385	356,362	57,458	408,017	38,548
1977	1,264,245	517,320	83,867	611,082	51,976
1978	1,785,987	707,058	72,787	901,494	104,648
1979	1,911,945	847,238	78,056	889,917	96,734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이 주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1970년대 초 인천을 운행하던 시내버스는 항도교통, 인천여객 등 5개 업체가 1일 평균 20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금강택시 등 33개의 택시운수업체가 1일 평균 980대를 운행하여 98,000여 명의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인천시의 1일 버스 및 택시 이용자 수는 약 385,000명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철마산 관통도로 공사 현장

차량의 증가와 함께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도 추진되어 1969년 경찰전문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백마장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구간을 중심으로 공단 주변의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철마산을 절개하여 지나가는 철마산 관통도로도 1972년 10월 2일 포장공사 완료와 함께 개통식을 가졌는데, 이 도로의 개설로 그 이전까지 경인국도를 따라 우회하


철마산 관통도로 개통식(1972. 10. 2)

여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내와 부평지역 간의 운행시간이 15분 내로 단축되었다. 이 도로를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로의 포장과 확장 사업은 부평지역과 타지역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철마산 관통도로의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 인천시내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건설공사 현황

년도	공사명	사업비(천원)
1975	북구청 청사 3층 증축	50,000
1975	부개지구 가로 및 택지조성(7,000평)	37,000
1976	북구 십정동 전철목 부안고가교 설치	137,500
1977	부평굴다리~북구청간도로포장공사(1,124m)	50,000
1977	부평굴다리~부평역간도로포장공사(1,420m)	113,300
1977	부안고가교 연결도로 공사	118,000
1977	부평 남부고가교 설치 공사	20,000

출처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1970년대편), 1982, 375~380쪽.

교통과 함께 통신업무도 발전하기 시작하여, 부평지역에는 1960년대 부평우체국과 계산동우체국 두 개만 있던 것이 서곶우체국(1970년, 북구 연희동), 산곡우체국(1974년, 북구 산곡동), 공단분국(1976년, 북구 가좌동)이 차례로 설치, 운영되었다.

한편, 1942년 12월 20일 부평우편소에서 교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전신전화국은 1971년 12월 15일 부평전신전화국으로 승격되어 부평우체국에서 분리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12월 5일부터는 부평지역의 전화가 자석식 전화에서 자동전화로 바뀌며 인천시내전화로 편입되어 시내통화료만 내고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1970년 부평지역의 전화가입대수는 2,563대에서 1980년 14,659대로 증가했는데, 주로 일반전화의 개설이 급증하였으며, 공중전화 역시 1970년 11대에서 1979년 218대로 증가해 전화가 일상의 도구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1~1979년간 부평지역 전화가입자 현황

연도	계	관공서	단체	일반	공중전화	기타
1971	3,787	116	48	3,614	9	
1972	4,326	2,198	139	1,957	32	
1973	4,572	353	427	3,755	37	
1974	4,948	171	98	4,628	51	
1975	5,915	185	2,847	2,698	82	83
1976	7,345	307	12	6,929	97	
1977	8,600	316	256	7,917	111	
1978	9,246	131	3,123	5,854	138	
1979	9,326	175	124	8,809	218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해당년도

또한, 1971년 8월 30일에는 부평정수장 건설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을 시작하였다. 1967년 갈산동에 침전지 3곳을 축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부평정수장 건설공사는 AID차관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1975년 2차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하였고, 1979년부터는 팔당저수지로부터 원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부흥어린이공원 준공식 (1977. 8. 6)

사회기반시설의 확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외연을 점차 확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원 및 녹지지구의 재정비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지역에는 공원지구와 함께 별도의 녹지지역도 함께 설정되어 십정녹지(17만㎡)와 곧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가정녹지(7만㎡)가 조성되었다. 녹지지구의 지정은 도시미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공업지와 주거지를 차단하려는 의미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부평지역의 주요 공원 현황

공원명	위치	면적
계양공원	공촌동, 계산동, 효성동	6,549,000
십정공원	십정동	285,000
백마공원	석남동, 산곡동, 청천동	2,627,150
호봉공원	가좌동, 산곡동, 십정동	937,500
약사공원	십정동, 간석동	1,040,000
갈산공원	갈산, 작전동	191,797
부평제2공원	부평동	4,800
부평제3공원	부평동	4,245
부개공원	부개동	150,000
부평제4공원	부평동	4,500
갈산제2공원	갈산동, 부평동	57,000
산곡공원	산곡동	8,980
청천공원	청천동, 효성동	32,000
삼산공원	삼산동	89,047
효성공원	효성동	11,213
부평묘지공원	부평동	3,374,040

출처: 『인천도시계획재정비』, 인천시, 1976.

제3절 경인전철과 부평

1. 부평지역과 경인선 철도: 그 역할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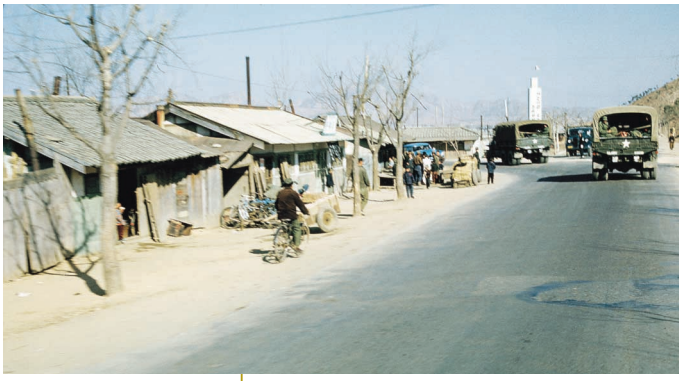
경인선 철도의 개설은 한반도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한국 근대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도보에 의존하거나 축력을 이용한 이동과 물자수송의 전근대사회가 동력자원에 의존한 새로운 기계문명의 사회로 전환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삶의 모습이 출현하게 된다. 근대성의 견인차인 물적 조건으로서 철도의 가설과 그 변화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 한반도 최초의 철도가 경인 간에 부설된 것은 수도 서울과 이에 가장 근접한 개항장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함은 주지의

※ 이 글은 이영민(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사실이다. 어쨌든 인천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인천의 근대성과 그에 따른 지역구조의 변화는 경인선 철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해에 면한 인천의 도시 영역 확대는 필연적으로 동쪽의 서울을 향한 것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경인선 철도 및 국도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 경인선 철도의 한가운데에 부평이 위치한다.

사실 부평지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경인선 철도는 남쪽 말단부를 동서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이른바 '부평'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북쪽의 계양산으로부터 남쪽의 만월산까지, 그리고 서쪽의 철마산으로부터 동쪽의 부천 경계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분지지역을 일컫는다. 과거 부평평야라고 불리워졌던 저평한 벼농사지역에서 서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의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이며, 이를 통상적으로 부평이라고 부르곤 한다. 경인선 철도는 개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쪽 경계선 부근의 동서방향의 산지와 나란하게, 즉 남으로는 산지를 끼고, 북으로는 저평한 저지대를 안은 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인선 철도의 위치는 부평의 지역구조의 변화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과 같은 부평의 지역구조는 경인선 철도의 부설 이후에 새롭게 조성되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구한말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 조선시대의 부평도호부는 그 중심지가 계양산 남쪽 산록 지금의 계산동 일대였다. 부평도호부 청사와 부평향교가 위치하였던 지금의 계산동 지역은 부평도호부의 치소로써 전근대 사회의 경인간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한양 서쪽의 몇 안되는 중요한 고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의 개설은 상업기능이 중심이 되는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하였을 것이고 철도 인근으로 새로운 중심지가 발달하게 되었다. 철도의 부설 이후 이제 계산동 일대의 전통 치소는 쇠락의 길을 겪어 소위 구읍(舊邑)으로 전락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중심지가 부평철도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후 60년대에 이르러 부평평야 일대의 저평한 지역이 공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한가운데를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으니, 경인선 연변 부평역 일대의 상업지역, 청천동, 효성동 일대의 공업지역, 경인고속도로 넘어 계산동 일대의 농업지역으로 크게 3개의 기능지역이 분할된 채 부평지역을 구성하게 된다. 80년대 이후에는 부천과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따라 대규모의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는 주거기능의 공간 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이



인천에서 부평으로 향하는 거리 풍경(1960년대 초)

른다. 이처럼 대체로 경인선 철도와 나란하게 남북방향으로 펼쳐졌던 지역의 기능 특화 현상은 90년대 후반 인천지하철 1호선의 개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경인선 철도가 개설된 후 한세기에 걸쳐 부평지역은 매우 빠른 공간구조적 변화와 그 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부평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도하여 왔다.

2. 경인선 철도 개설의 배경과 변화 과정(19세기 말~1970년 이전)

인류 역사에서 철도의 등장은 인간의 시간 및 공간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다. 1차산업 중심의 전근대사회가 사람과 물자의 지역 간 이동을 억제하는 장소 속박성의 시대였다면 철도의 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탈장소적 이동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게 된다. 특히 2차산업 중심의 산업사회의 도래는 지역의 특화 산업 전문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전문화는 타 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의존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지역 간 상호 교류와 의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철도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변모,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철도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인철도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철도이며, 철도 공사 또한 최초의 토목공사이다. 한국철도 100년의 역사는 경인철도와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경인철도의 건설에 이어 경부철도(1905), 경의철도(1906) 등이 부설되어 도보, 우마 그리고 배 등의 교통수단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증기를 이용한 기계문명을 도입하면서 철도에 의한 근대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경인철도의 부설은 미국공사 알렌(Hoares N. Allen)의 소개로 미국인 광산 브로커 모오스(James R. Morse)의 제안을 통해 한반도의 전영토에 걸친 간선철도 부설권 획득운동을 추진한 데서 시작된다.

모오스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다음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인천주재 미국상인 타운센트(W. Townsend)에게 출자를 얻어 회사를 조직하고, 1897년 3월 인천의 우각리(현재의 창영동, 도원역 부근)에서 첫 시공삽을 뜨게 된다. 기공식에는 경인철도 부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미국 공사 알렌과 한성판윤 이채윤, 미국상인 타운젠트와 기술자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착공식 후 3년 8개월만인 1900년 12월에 전장 42km의 경인선 철도가 드디어 완공되었다.

1899년 개통 당시의 경인선 정거장은 인천역, 축현역(1908년 상인천역으로 개칭), 우각역, 부평역, 소사역, 오류역, 노량진역 등 7개에 불과하였다. 이중 우각역은 1906년에 폐지되어 6개역으로만 운영되었다. 현재에는 인천역과 노량진역 사이에 무려 25개의 역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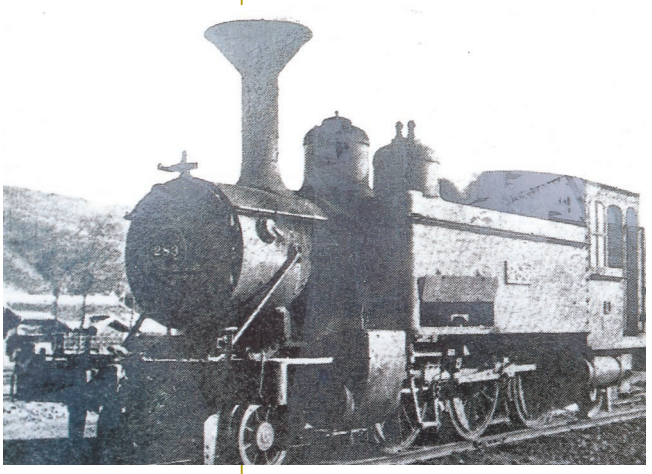
경인철도 기공식
(1897. 3. 22)

서울~인천간의 철도공사는 1897년 착공, 1900년 12월에 완공되어 3년 8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다. 사업주체는 미국인 모오스에 의해 초기에 시행되었고, 준공까지는 일본인 합자회사, 사업비는 일본이 부담하게 된다. 공사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1단계는 인천~노량진 사이의 33.2km 구간, 2단계는 한강철교 627m를 포함하는 서울~노량진 구간 8.8km이다.

한강철교가 완공되지 않은 1899년 9월 18일부터 인천~노량진 간의 가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인천~서울간의 육로는 기껏해야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로 폭이 2m에 불과하여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다니는 데 무려 12시간 이상씩 걸렸다. 경인선의 개통으로 이 구간을 1시간 40분에 주파함으로써 여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개통 당시의 열차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총 2회가 운행되었는데, 각 정차장은 인천역 · 축현역(현 동인천역) · 우각역(현 박문여중 앞 네거리) · 부평역 · 소사역 · 오류역 · 노량진역 등이 있었다. 각 정차장과 역사규모는 인천역사 76평, 축현역 22평, 우각리역 · 부평역 · 소사역 · 오류역 · 노량진역

은 각각 16평이었으며, 용산역이 7.5평, 남대문역이 46평, 서울역이 16평으로 모두 목조건물이었다.

최초로 운행된 객차는 350마력짜리 미국제 모걸탱크형(mogul)으로 무게가 35톤에 달하는 모델이었다. 최고속도는 시속 60km였으나, 실제로는 20km~30km로 절반 정도의 속력밖에 내지 못했다. 경인철도는 초창기에 유개차 16량, 화물 수급차 4량, 무개차 8량 등 총 28량의 화차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경인선 개통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로 운행된 '모걸형' 증기기관차.
출처 : 『철도박물관 도록』, 철도청, 2002.

승객은 80%정도가 한국인이었으며, 모두 3등 승객이었고, 주요 화물은 광목 · 쌀 · 생선 · 술 · 채소 등이었다. 한번에 다량의 승객과 화물이 경인간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당시의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구조는 승객들의 객차 이용도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등 객실의 요금은 1원 50전으로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2등실은 80전으로 지체 높은 내국인이 탈 수 있었다. 3등실은 40전으로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개시 당시에는 노량진 정거장과 경성 사이에 한강철교가 아직 완공되지 못하였고 한강의 선운정 세도 불안정하여 철도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매일 2왕복의 기차운행은 점차 여객 수가 증가하고 화물 물동량도 증가하면서 12월 1일부터는 3왕복으로, 1901년 3월 16일부터는 4왕복으로 증가되고, 경인선의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5왕복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 계절에 따라 4왕복 혹은 6왕복 운행이 되었다.



경인선 개통 당시의 귀빈열차
출처 : 『철도박물관 도록』, 철도청, 2002.

경인선 철도 이용승객수와 운송화물량은 개통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1906년에는 인천역의 승하차 인원이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1910년에는 2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또한 화물운반량도 1906년도의 8만 톤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17만 톤으로, 운수수입은 19만 원대에서 36만 원대로 증가된다. 구한말 인천역은 인천항을 통해 외부로 내보내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화물들을 수송하는 중요한 화물운송 적환지점이었다. 또한 당대의 인천역 주변지역은 일제에 의해 건설된 개항장과 조계지가 설치되어 있던 명실상부 인천의 중심지였다. 이곳을 통한 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을 보면, 당대 경인선 철도가 양 지역을 연결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천역 운반실적(1906~1910)

구분 / 년도	여 객(명)		화 물(톤)		소하물(근)		운반수입(원)	
	승 차	하 차	발 송	도 착	발 송	도 착	객 차	화 차
1906	55,410	66,955	64,169	18,479	496,075	633,497	61,349	133,281
1907	73,393	80,696	140,121	21,860	1,123,994	744,355	86,094	243,882
1908	117,936	128,269	113,835	14,950	742,141	716,289	80,407	264,858
1909	111,884	116,785	79,733	28,031	692,160	685,440	64,376	198,478
1910	100,453	108,534	131,89	640,201	460,711	758,290	57,914	302,856

출처 : 조선총독부 발행, 『인천상공업조사』, 1912

인천 · 상인천역 운반실적(1911~1939)

구분 / 년도	여 객(명)		화 물(톤)		소하물(근)		운반수입(원)	
	승 차	상 차	발 송	도 착	발 송	도 착	객 차	화 차
1911	182,903	184,737	168,930	35,240	708,630	926,218	155,383	372,038
1921	527,279	529,006	199,444	236,826	2,096,358	1,856,521	478,423	586,116
1932	675,556	699,238	453,424	305,740	7,143,000	–	436,591	1,234,883
1939	1,325,956	1,326,313	1,007,267	543,214	22,708,000	–	1,001,388	3,666,361

출처 : 『한국철도사』 제3권, 1979년 발행 ; 『인천개항100년사』1983, 1,132쪽.

경인철도는 처음에는 임시 가구조로 건설이 되어있었고, 철도길은 소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열차횟수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1907년과 1908년 두 해에 걸쳐 개량공사가 진행되어 1909년에 준공된다. 개량공사를 통해 과거의 선보다 거리는 단축되었고, 추후의 복선화를 대비하여 용지 ·

교량 등이 준비되었다. 또한 인천부와 부천군의 경계에 있던 우각리 정거장은 1906년에 폐지되었고, 축현역(일제말 상인천 역, 현 동인천역) 자리는 용동 구릉 아래(일제시 인천물산회사)에 있던 것이 개량공사시 선로변경에 따라 1908년 12월에 현재 위치로 신설 이전하여 종래 구내 단선으로 여객만 다루던 것을 화물취급도 겸행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에 여객열차의 빈도는 7회였으나, 1920년부터는 급행열차와 화물열차가 등장하게 되었고, 1929년에는 열차 이용객의 수가 급증하여 여객열차가 하루 14회까지 운행되기도 했었다. 인천역과 상인천역(현 동인천역) 운행실적도 1921년에는 52만여 명, 1939년에는 13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운송수입은 1911년에는 52여만 원이었으나, 1939년에는 무려 열배 가까이 늘어 470여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경인선의 빠른 속도에 대한 열망은 점차 실현되어, 1928년 7월 1일부터는 종래의 1일 왕복 12회가 13회로 증가되며, 소요시간도 1시간 23분에서 1시간, 급행은 50분으로 단축된다. 서울발 인천행은 부평에 내리받이 코스가 많아서 반대 방향의 주행속도에 비해 더 빨랐다고 한다. 193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대륙침략 야욕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군수물자 수송이 폭주하게 되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인선의 복선화와 전철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로 경인선은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과도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종전 시에는 이미 많은 시설들이 노후, 황폐화되게 된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의 부흥정책에 의해 철도 운영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한다. 철도가 정상운행된 1949년의 열차운행 횟수를 보면 경인선이 여객열차 14회, 화물열차 8회였다. 당시에는 경인선이 14회, 군산선 12회, 충북선 11회, 경부선 6회 등으로 경인선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경인선은 그 기능이 전면 마비되었으며, 인천시 관내의 각 역은 거의 폭파 혹은 소실되었다. 1950년 10월 19일에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한강교를 대신할 가교가 설치되어 준공 10월 23일에 한강교의 A선을 복구 개통하였다. 이밖에도 복구작업을 통해 1950년 9월 19일 인천~부평 간 열차가 운행되었다. 1953년에는 철도 5개년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각 지역의 철도건설이 시작되었다. 이후 경인선은 다시 열차운행 횟수와 이용객이 증가하게 된다.

전후 복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경인지역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경인선 시설로는 폭주하는 운송난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경인선의 복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963년 11월 20일에 착공된 경인선 복선화 공사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이듬해인 1964년에 동인천에서 영등포에 이르는 구간의 노반이 완성되게 된다. 전구간의 복선화가 완성되는 것은 한참 후인 1968년에 이르러서이다. 차례차례 각공구를 착수하여 주안~영등포간 23.3km의 개통식은 1965년 9월 18일 경인선 개통 65주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경인선의 철도부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토목공사였으며, 경인 간의 연결에 시간적 단축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종래의 수륙교통기관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개항 초기 인천은 외국인 거주지 발달과 교역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역을 이루고 있었으나, 철도 개통후 인천 상권은 서울의 상권에 흡수되는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동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경인지역의 공간적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경인선 전철의 착공을 알리는 현수막(1971)

경인선 철도와 인천 주요지역의 변화

지역 / 시간	경인선 관련 주요사건	(원)인천	주안	부평
19세기말	* 1893, 용산호 운항(수로 이용)	* 조계 설치(1913년 철폐)	*전통농업지역	*부평평야
1899 ~1920년	* 1899, 경인선 개통 * 1901, 경인간 급행열차 운행 * 1906, 우각역 폐지 * 1909, 경인선 철로 개량공사 * 1907, 주안역 설치 * 1910, 여객열차 7회 왕복	* 1918, 수문식 도크 완성 * 도시밀도 증가 →해면매축 →시역확대	* 1908, 주안염전조성 * 근교농업 확장 * 인천 교외화 진행	*계산동 부평도호부의 구읍취락화
1920년대	* 1929, 여객열차 14회 왕복 *운행시간도 1시간 4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과거 갯골을 포함하여 해안을 따라 공장 밀집 시작		*산미증산계획 실시 * 1922, 부평수리조합 설치

지역 / 시간	경인선 관련 주요사건	(원)인천	주안	부평
1930년대	* 1930, 경인도로 정비 * 1937, 수인선 개통	* 군수공업지구 조성 – 만석동, 송림동	* 군수공업지구 조성 – 용현동, 학익동	*경인선 주변 육군조병창 및 공단화 * 1953년부터 미군부대(애스컴) 주둔
해방전후 ~1960년	* 1957, 숭의역(1959년 제물포역으로 개칭) 영업 시작 * 1959, 주인선 개통	혼란기 : 월남인구, 경인선 주변에 유입		
1960년대	* 1964, 동인천~영등포간 복선화 * 1968, 경인선 전구간 복선화 * 1969, 경인고속도로 완성	* 동인천역의 중심성 강화	* 주안역 주변의 도시화 진행	*1961,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1969, 4공단 조성 *근교농업 : 버섯(산곡동), 과실(효성동) 등
1970년대	* 1974, 경인선 전철화 * 1971, 동암역 신설	* 동인천역 지하상가 인천 최초로 완공	* 서울 통근권의 확대 * 염전지구의 공단화 (기계공단, 지방공단)	* 1973, 5공단 조성
1980년대	* 1984, 백운역 개통 * 1989, 동인천 민자역사 완공	* 구도심 쇠퇴 시작	* 1985 : 시청 이전 * 구월, 간석동 일대 신흥 상업지역으로 부상	*부평역 중심성 강화
1990년대	* 1991, 경인선 복복선 착공 * 1996, 부개역 영업 개시 * 1999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 1999, 부평-구로 복복선 개통	* 구도심 쇠퇴 가속화	* 연수택지지구 조성 * 남동공단 조성	*계양구, 부평구 분구 *계산, 부개 택지지구 조성

3. 초창기 경인선과 주변지역의 역사지리적 복원

인천 도시 기능의 공간적 분포는 경인 간의 교통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되어 왔다.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구도심 중심의 인천의 도시 기능은, 비록 현대의 대도시와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당대로서는 매우 뚜렷한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높은 중심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양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진입구로서의 도시 기능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따라서 당시에는 적어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원인천(原仁川) 지역이 수도권 넘어 한반도 전체를 배후지로 삼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천 지역의 독자적 기능성은 1899년, 경인

철도가 개통되고 도로교통로가 정비됨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고, 수도 서울의 관문, 혹은 서울의 배후지로서의 상대적 입지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899년 9월 18일, 한국 최초로 개설된 경인선 철도는 한국 근대화를 선도한 견인차였다. 열강들의 각축 속에 우여곡절 끝에 개설된 경인선 철도는 이후 한반도에서 휘몰아닥칠 엄청난 변화들을 견인하였다. 개설 이튿날 독립신문에 게재된 아래와 같은 개통식 관련 기사는 당시 한국인들의 놀란 가슴을 짐작케 한다.

철도개업례식

경인철도회샤에서 어졋 긔개업례식을 거행ᄒᆞᄂᆞᆫ대, 인쳔서 화륜거가 떠나ᄉᆞᆷ개 건너 영등포로 와셔 경셩에 내외국 빈객들을 슈례에 영졉ᄒᆞ여 안치고 오젼 구(九)시에 떠나 인쳔으로 향ᄒᆞᄂᆞᆫ데, 화륜거 구ᄂᆞᆫ 쇼리ᄂᆞᆫ 쇼리ᄂᆞᆫ 우뢰 ᄀᆞᆺᄒᆞ야 텬디가 진동ᄒᆞ고 긔관거에 굴뚝연긔ᄂᆞᆫ 반공에 소ᄉᆞ오르더라.

(중략)

수례 속에 안져 영창으로 내다보니 산쳔초목이 모도 활동ᄒᆞ야 ᄃᆞᆺ ᄂᆞᆫ것 ᄀᆞᆺ고 나ᄂᆞᆫ 새도 밋쳐 ᄯᆞ르지 못ᄒᆞ더라. 대한 리수(里數)로 팔십리(八十里)되는 인쳔을 순식간에 당도ᄒᆞ엇ᄂᆞᆫ대 그곳 뎡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 찬란ᄒᆞ야 진실로 대한사ᄅᆞᆷ의 눈을 놀내더라.

(하략)

실로 불기둥을 뿜는 바퀴차가 우뢰 같은 소리로 천지를 진동할 만큼의 위력으로 대지를 가로질러 나가는 모습은 기껏해야 우마차 달리는 모습에 익숙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움 이전에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경인선 철도의 건설이 가져다 준 변화는 인간 경험의 변화라는 개인적인 측면과 지역구조의 변화라는 공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간들의 육감을 사로잡은 새로운 문물의 경험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열차 객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열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밖에 펼쳐진 산천초목이 움직이고 있으며, 열차의 속도는 너무 빨라 날아가는 새도 뒤쳐지고 있는 광경을 경이롭게 묘사하고 있다. 시간은 공간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만 하

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니 개인적 차원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편리함을 주기 이전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경인선 개통 이듬해인 1900년에 경인선을 광고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는 근대화의 두려움을 넘어 그 편리함을 강조하는 대목이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다. 경성과 인천 간이 일일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어서 공간을 훌쩍 뛰어넘는 편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 졌음을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

철도는 증기와 기계의 힘으로 여객과 화물을 장차(裝車)하여 육상을 쾌주하는 것이니 경인철도는 즉 경성과 인천 사이 팔십리 간에 포설한 철도요, 기속함은 비할 것이 없느니라. 가령 즉 경성에서 마포, 용산에 가고 오는 시각이 있으면 인천에 왕래함이 넉넉하고 기비(其費)도 불과 기분(幾分)이니 동문으로 남문까지의 교가(轎價)가 있으면 인천에 왕복하겠느니라.

차내는 삼등 구별이 있으되 유리창으로 바람을 막고 교의(交椅)는 안좌(安坐)에 편하고 대소변까지 별방(別房)에 변비(辨備)하니 추호괄차(推戶八車) 즉 우설대풍(雨雪大風)은 인사(吝事)아니라. 유유히 안좌하여 사방광경을 보면서 담소지간에 즉도 인항(仁港)하리라. 고로 경성에 사는 자가 매일 인천에 돠서 시무하며 인천에 사는 자가 매일 경성에 사진(仕進)하며 좌사(座肆)하는 것이 해롭지 아니 하니라.

(하략)

경인선 철도는 80리 떨어진 인천과 노량진을 1시간 40분에 주파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인천을 경성으로부터 떨어진 독자적인 개항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성의 관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자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역공간을 통합해가는 새로운 지역구조 형성의 중심에 바로 철도가 있었던 것이다. 경성에 사는 자가 매일 인천에서 일하고 돌아가며, 거꾸로 인천에 사는 자가 매일 경성서 일하고 돌아오는 일이 가능해졌음을 광고하는 내용은 이제 소위 일일생활권으로 양지역이 묶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철도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적 감각을 근대적으로 향유하게 하는 물질적 경험의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깊다. 달리는 객차 안에서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편안히 해결할 수 있고, 기상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편리성도 경험하게 된다. 창밖

에 펼쳐지는 풍광은 일상생활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편안하게 안좌하여 담소 나누며 관조할 수 있는 미학적 음미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객차는 단지 속도를 내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동 수단으로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객차가 하나의 근대적 생활을 만끽하게 하는 근대성의 일상적 경험 수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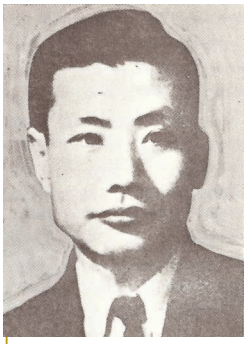
경인선 철도는 서울과 인천 사이의 농촌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넓은 경인 지역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의 경인선 연변 지역은 전 지역이 시가지화되어 거대도시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이 시행되는 1960년대 이후의 일이며 그 이전까지는 농업적 토지이용이 탁월하여, 전원적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는 여객수송의 비중이 탁월한 일종의 도시철도로 기능하면서 29개의 역이 촘촘히 들어서 있으나 1900년대의 경인선 개통 초기의 기차역은 '인천-축현(동인천)-우각동-부평-소사(부천)-오류동-노량진-경성'이 고작이었다. 경인선 연변의 넓은 지역은 양 끝에 위치한 인천과 서울이라는 중심지에 종속되어 있는 농업적 배후지였던 것이다. 경인선 연변의 전근대적 농촌 경관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대략 확인해보기 위하여 1925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고유섭의 '경인팔경'을 살펴본다.



부평역 포장공사 준공식 (1977. 6. 25)

고유섭(高裕燮 : 1905~1944)은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인천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며 경인선 기차를 통해 경성제국대학에 통학하였다. 경인팔경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1학년 시절인 1925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연시조이며,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학 중에 기차 밖의 풍경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당시의 경인간의 농촌 경관을 짐작케 해준다.

우현(又玄) 고유섭



효창원 춘경

노각(老閣)은 붉을시고 고림(古林)만 검소와라
종다리 높이 뜨고 신이화(莘荑花) 만산토다
혼원(渾圓)이 개춘색(皆春色)커늘 어찌타 나만 홀로.

한강 추경
청산엔 벽수돌고 벽수엔 백사(白沙)일세
유주(遊舟)는 풍경 낚고 백구(白鷗)는 앞뒤 친다.
아마도 간간(間間)한 홍엽단풍이 내뜻인가 하노라.

오류원두(梧柳原頭) 추경
어허 이 해 넘것다 서산에 자기(紫氣)인다.
우수만 길어지고 마랑초(馬糧草) 백파(白派)진다.
어즈버 이 산천에 이 내 마음 끝간 데를 몰라라.

소사도원(桃園) 춘경
양춘이 포덕(布德)하니 산장도 붉을시고.
황조의 울음소래 새느냐 마느냐.
곁에 님 나를 보고 붉은 한숨 쉬더라.

부평 하경
청리(靑里)에 백조 날아 그 빛은 학학(鶴鶴)할시고.
허공 중천에 우즐이 나니 너뿐이로다.
어즈버 청구의 백의검수(白衣黔首) 한 못 풀어 하노라.

염전 추경
물빛엔 희 뫼지고 고범(孤帆)은 아득하다.
천주(天柱)는 맑게 높아 적운(赤雲)만 아자파(也自波)를
어즈버 옛날의 뜻을 그 님께 아뢰과저

북망 춘경

주접몽(周蝶夢) 엷게 치니 홍안도 가련토다.
춘광이 덧없산 줄 넨들 아니 짐작하랴.
그 님아 저 건너 황분(荒墳)이 마음에 어떠니.

차중 동경
앞바다 검어들고 곁산은 희어진다.
만뢰가 적요컨만 수레소리 요란하다.
이 중에 차중정화(車中情話)를 알 이 적어 하노라.

이 연작시의 저자 우현(又玄) 고유섭은 경인선 기차를 타고 경성을 출발하여 용산, 한강, 오류동, 소사(지금의 부천), 부평, 주안을 지나 인천 관내의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 부근)에 당도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창밖에 펼쳐진 경관을 감상하며 자신의 감회를 읊조리고 있다. 용산 효창원의 장구한 나무숲과 만발한 개나리, 거기에 깃들어 노니는 종다리, 지금은 사라진 한강철교 주변의 백사장과 푸른 물줄기에 떠가는 한가로운 배와 갈매기, 해질녘 은은하게 퍼진 붉은 노을에 물결치던 오류 평원의 수목들, 봄기운 충만하여 붉게 피어오른 소사벌 복숭아밭의 복사꽃, 광활한 초록빛 부평평야에 살포시 날아 내려앉은 두루미, 바닷물 고인 주안염전과 그 위에 아득하게 드리워진 돛단배의 그림자, 인천 관내 산자락을 뒤덮은 묘지들, 그 위를 내리쬐는 봄기운의 덧없음. 이렇게 창밖의 경관을 바라보며 만감에 휩싸이는 동안, 기차는 어느덧 우람한 쇳소리를 내며 종착역에 다다른다. 대하천과 바다, 넓은 평야와 야산들, 아름다운 꽃들과 정겨운 새들, 다양한 전원 풍경들이 경인선 연변을 따라 그림처럼 펼쳐져 있던 것이다.

지금 경인선 노선 연변에서 이러한 전원 풍경들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 거대도시 서울과 인천 사이의 그러한 전원 경관들은 7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연담도시화 과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4. 광복 이전의 경인선 철도와 부평 · 주안 지역의 변화

개항기 구도심을 중심으로 근대도시 인천이 처음 형성되었을 당시 원인천 지역을 제외한 주안, 부평 등의 경인선 통과지역은 한적한 농촌으로서의 경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인천 연안의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여 인천 해안의 원지형을 복원해본 지도를 보면, 구한말 당시 인천의 해안지형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안지역 안쪽으로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갯골의 모습이다. 해안의 만입부가 현재의 주안 5공단과 6공단 사이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 그 양안은 천일제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반면 그 남쪽의 육지부는 저평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지역이 좁은 지협부를 따라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17년 지형도의 해안선을 토대로 만조시 해수의 침투가 이루어졌던 지점들을 해안선으로 그려본 지도인데, 이 지도에 의하면 주안지역은 '대지(大池)'라 지칭된 해수 유입지에 의해 관교동, 문학동 일대의 인천 구읍과 분리되어 있으며, 반도로 돌출한 원인천 지역의 배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경인선 철도의 노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였다. 경인선 철도는 개항장인 원인천지역으로부터 한양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지협부인 현재의 주안역 쪽으로 노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안 동쪽의 노선을 기존 간선도로망인 성현 고개를 거치지 않고 원통이 고개를 거치도록 새롭게 획정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아마도 기존 도로망인 성현고개를 거치도록 노선을 건설하였다면, 부평역 일대를 중심지로 하는 현재와 같은 부평의 지역구조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었다면 현재의 송내역 근처가 일찍이 역전 취락으로 발전하여 부평평야를 배후지로 삼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리라 짐작된다. 어쨌든 문학 일대의 인천도호부가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시절, 현재의 주안은 도호부의 북쪽 바닷가에 인접한 한적한 농촌지역이었으며, 부평도호부가 계양산 남쪽 사면에 자리잡고 있었던 시절, 현재의 부평역 일대도 저습한 하천 퇴적지의 농촌지역이었다. 그러나 개항과 더불어 원인천이 새로운 인천의 중심지가 되면서 특히 주안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주안지역이 제물포와 한양을 잇는 도로망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적 조건 때문이다.

제물포에서 주안과 성현고개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도로망은, 비록 인천도호부에서 성현고개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당대의 중심도로보다는 중요성이 적었겠지만,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을 『대동여지도』와 『군현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때의 주안은 지도상에 명기될 정도로 규모가 큰 취락이 분포하는 지역은 아니었을지라도, 도로망을 따라 군데군데 늘어선 가촌, 혹은 소규모 농업취락의 형태를 띤 채로 구릉지 곳곳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인선 노선을 성현고개가 아닌 원통이고개를 관통하게 했던 이유는 고도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도 부설의 주체였던 식민세력이 해안에 근접한 노선을 선호했던 것은 아닐지하는 의심이 든다. 원통이고개는 지금의 간석오거리 부근까지 깊숙이 만입되어 있던 갯골이 끝나는 지점이며, 따라서 경기만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원통이고개를 관통하고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노선도 흥미롭다. 원통이고개 주변지역에서 경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은 거의 나란하게 달리고 있다. 이러한 교통로의 배열은, 인천의 지형조건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다소는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라고 비추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평생활권과 주안을 포함한 인천생활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하였던 것은 이를 가르는 산지지형의 흐름 때문이었다. 이를 연결하는 가장 낮은 통로가 바로 원통이고개이며, 따라서 철도 건설의 비용을 따져본다면 이 곳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부평지역의 모습

이처럼 애당초 존재했던 제물포와 한양을 잇는 도로는 개항 후 인천의 중심이 문학산 일대로부터 한적한 어촌이었던 제물포로 옮겨가면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다. 1899년에 개통되는 경인선 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인천을 포함한 경인지역의 지역구조를 급격하게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경인 간 시간거리의 단축은 도시화의 확산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경인선 라인을 따라서 취락이 확산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개항과 더불어 원인천 지역으로 모여든 인구가 짧은 기간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항장 일대와 인접한 주변 외곽지역은 자연스럽게 택지로의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숭의동이 그랬고, 그 너머 도화동이 그랬다. 또한 구한말 제물포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과수와 야채 등 근교농업이 확산되면서 관련된 취락들이 서서히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당시 개항장에 유입되었던 중국인들 중에는 야채 재배에 있어 탁월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숭의동, 용현동과 멀리 주안 일대의 야산을 개간하여 채전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과수원 조성에 열의를 보여 숭의동과 도화동, 그리고 주안 일대에 복숭아,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과수원들이 분포하였다고 한다.

주안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는 대규모 염전의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안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천일제염지역으로서 명성이 높았다. 현재의 간석오거리 부근까지 좁고 깊게 만입되어 있던 갯골은 풍부한 일조시수와 인접한 소비시장 조건이 더해지면서 천혜의 천일제염지역으로 인식되어, 1907년 통감부 일본인 기사 나카우쿠에 의해 제출된 염전에 관한 보고서를 계기로 시험염전 조성을 거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염전으로서의 지역경관은 지금의 주안 5, 6공단일대와 그 넘어 간석동, 십정동, 가좌동에 펼쳐져 일대 장관을 이루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공업단지로 토지이용이 전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주안염전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안역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경인일보가 간행한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상)』에는 1912년부터 대규모 염전지대가 주안에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인천 지리 연구를 선도했던 최영준은 나카우쿠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해인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1 : 서울, 인천, 경기』, 1984, 354쪽).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주안역의 설립연도 문제이다. 최영준은 경인선 노선개량공사가 진행되었던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주안역이 신설된 것


주안염전의 채염모습

으로 보고 있으며, 『인천시사』(2002, 389쪽)에는 1899년 경인선 개통과 더불어 주안역이 설립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보다 확실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겠지만, 주안역은 적어도 시험염전이 조성된 1907년 이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대규모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으로도 공급되었으며, 주안역은 그 수송적환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대규모 염전의 조성은 기존의 농업적 토지이용 경관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경인철도를 경계로 그 북쪽지역(지금의 주안 5동일대)은 소금밭으로 완전히 전용되었고, 주안역에 잇닿아 소금생산 노동자와 관리인들의 기거를 위한 일본식 목조 주택들이 줄지어 입지하였다. 대략 주안역과 경인철도를 사이에 두고 그 북쪽의 염전지대와 남쪽의 농업지대로 지역기능이 특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인철도에 의한 지역 분할은 특화기능의 종류만 달리한 채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즉,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염전지대가 공업단지로 변모하고, 농업지대가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지리적 관성(geographical inertia)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인선 철도와 관련된 해방 이전 부평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김포에서부터 이어지는 저평한 평야지대라는 점과 일제에 의한 군수산업의 육성 및 그에 따른 지역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본래 부평지역은 굴포천을 비롯한 한강의 작은 지류들이 관류하는 지역으로써 주기적인 범람에 의하여 두꺼운 하천퇴적물로 덮여있는 저습지였다. 저평한 저습지 한가운데에 대규모 취락이 입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부평지역의 치소인 부평도호부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계양산 남쪽 산록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외의 농업취락들도 부평평야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철마산 줄기에 기대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었다. 반면 현재 부평의 중심지인 부평역과 그 북쪽지역은 당시로서는 인간거주에 그리 큰 매력을 주는 곳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다. 저습지로서의 지형적 조건은 시대를 이어서 수행되었던 대규모의 토목사업(예를 들어 굴포천 운하 공사)과 소규모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농민들의 개간 노력에 의해 비옥한 벼농사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근대사회에서의 토목사업이나 개간사업은 한계가 있어 완전한 수리옥답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다. 이곳이 장대하게 펼쳐진 비옥한 곡창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시기는 일제시대 부평수리조합이 설치되어 대규모의 관개, 치수사업을 실시한 이후부터이다. 한반도를 강타한 1919년의 가뭄은 곧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본토까지 식량난에 처하게 하였고 이에 일제는 1920년부터 소위 산미증산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부평지역의 수리조합 결성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1923년에 설치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여 홍수피해에 대비하고, 하천으로부터 관개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부평평야는 한반도의 주요 곡창지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처럼 경인철도 개설 이전 부평은 그 중심지를 계양산 남쪽 산록(지금의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 둔, 광활한 저습지 혹은 벼농사지역이 넓게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역시 부평평야의 남쪽 라인을 따라 조성된 경인선 철도의 부설이었다. 철마산과 만월산 사이 원통이고개를 관통하도록 한 경인선 철도의 노선은 부평땅으로 들어와서는 남쪽의 만월산, 관모산과 인접하여 직선코스로 부설되었는데, 따라서 북쪽의 광활한 부평평야와 남쪽의 산지지형을 좌우로 끼고 달리게 된다. 이는 소사와 오류동을 거쳐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경제적인 노선이었다. 부평역은 제물포를 기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원통이고개를 넘자마자 부평평야로 들어서는 초입부에 설립되었다. 물론 부평역이 설립되기 전 이 일대에는 소규모의 촌락들이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것이 철도노선 통과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광활하고 비옥한 부평평야와 그 북쪽으로 이어진 김포평야를 제물포에 연결시키는 것은 식민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송,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부평평야 지역에서 제물포에 가장 근접한 서남부가 철도역을 위한 최적의 입지였을 것이며, 부평역은 바로 그러한 포인트로서 손색이 없다.

부평역의 설치는 부평평야 지역의 지역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 계기가 된다. 철도역이 설치되어 수송적환지가 된 부평역 주변에서는 활발한 상업활동이 전개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능이 다양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평1동 일대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연동하여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치소가 있었던 계양산 남쪽의 중심취락은 새로운 교통체계의 변방에 놓이게 되었고, 조선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구읍취락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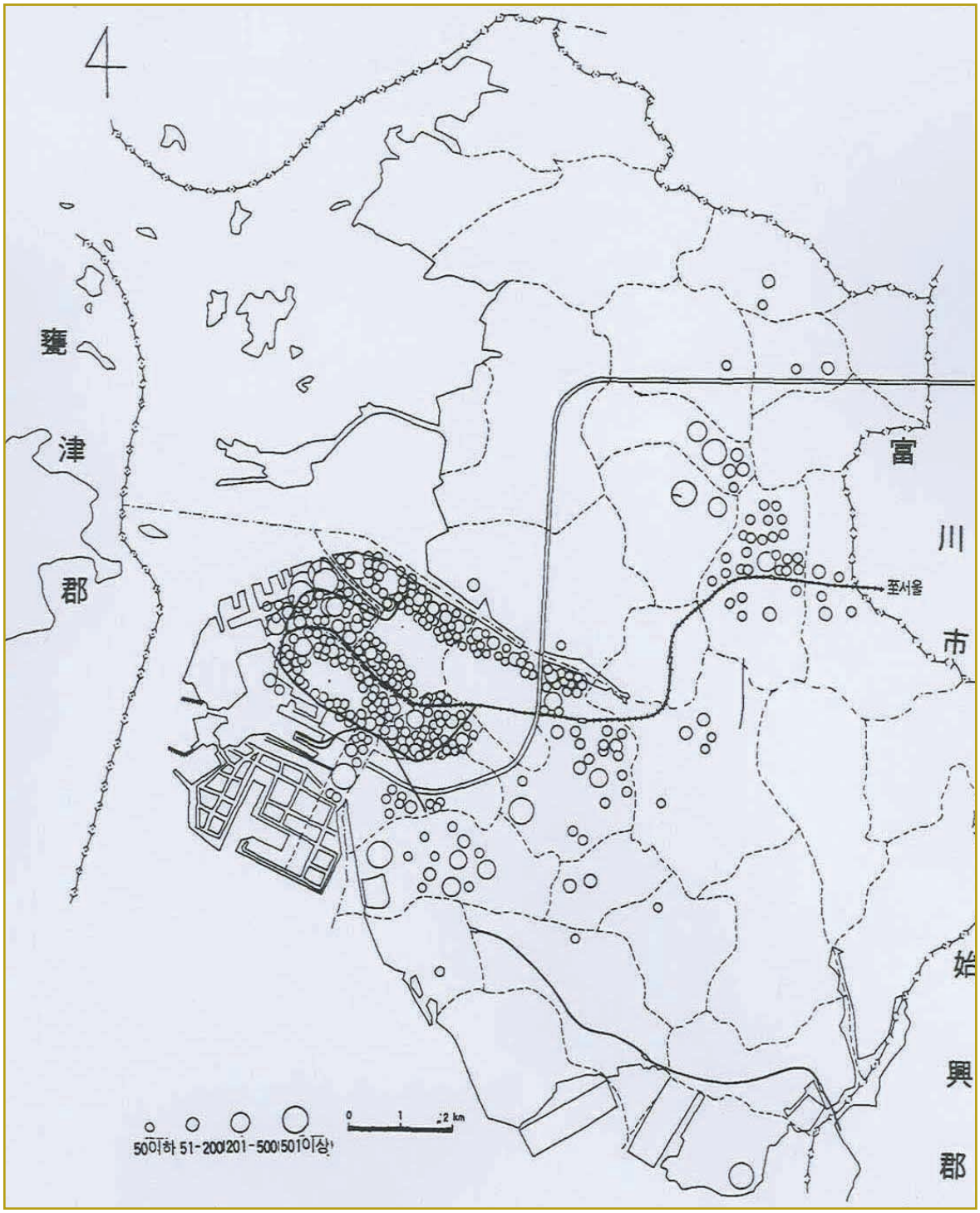
5. 해방 이후의 경인선 철도와 부평 · 주안 지역의 변화

경인선 철도와 경인 국도 노선을 따라 본격적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주지하다시피 60년대와 70년대 수출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인지구는 특정지역으로 공고되어 산업화, 도시화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단 조성 사업, 택지 개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안과 부평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공단과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1년, 부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인선 철도를 따라 집중된 도시기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기본 골격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동서축의 정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경인선 철도와 국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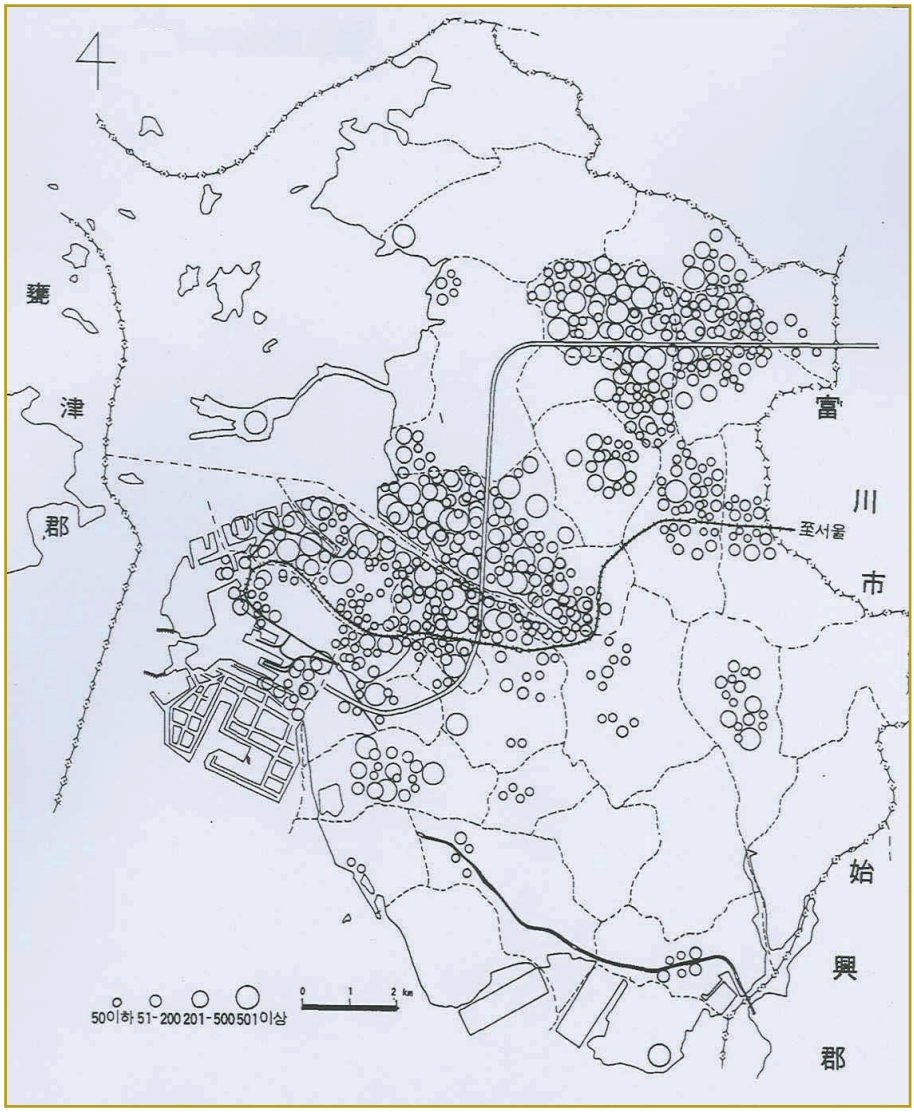
당시 부평과 주안 지역에 조성된 공단은 1969년의 부평 효성동 일대의 수출공단 4단지, 73년의 가좌동 일대의 수출공단 5단지, 도화동의 기계공업단지와 인천지방공업단지 등이다. 특히 주안 북쪽의 옛 갯골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소금밭들은 바다에 근접하며 지세가 저평하여 임해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로의 전용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수출공단 5단지와 기계공업단지, 인천지방공업단지 등은 바로 이 소금밭을 전용하여 들어서게 된 것들이다. 부평 효성동의 수출공단 4단지 역시 과거 부평평야가 펼쳐져 있던 저평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비교적 손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공단 조성의 적지였다. 더군다나 수출공단 4단지 건설과 때맞추어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서울, 인천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입지 적지로써 손색이 없었다. 부평과 주안 지역에 60년대 말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대규모의 공단은 대부분 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입지하게 된다.

그런데 수출공단의 조성으로 부평과 주안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공장들의 분포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60년대 말 수출공단 조성 초창기와 70년대 말 수출공단 조성 완성기의 특징이 지리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인공업지역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조성되었다는 단순한 설명은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즉, 국가 주도 공업단지 조성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69년에 인천시 관내에 입지하였던 공장들은 구도심의 경인선 연변과 구도심의 북쪽 해안가인 옛 갯골의 남쪽 연안을 따라, 그리고 부평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장들이 역시 경인선 철도 연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이는 국가가 지정한 경인공업지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직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경인선 철도가 인천지역 공업 확산의 초석을 닦는 기능을 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0년 후인 1979년에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 내에 다양한 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차게 되는데, 이는 경인지역 산업 물류 수송의 대동맥으로써 새롭게 건설되는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서게 된다. 부평지역의 경우는 고속도로 연변의 효성동 청천동, 갈산동 등이 새롭게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는 바, 이는 경인선 철도의 역세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천 전체로 보았을 때는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인공업지역이 완성되어 공업도시로서의 인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 당시, 인천 도시 내부구조는 경인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그 북쪽과 남쪽이 확연한 도시 기능의 차이를 노정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공장들은 경인선 철도의 북쪽에 분포하고 있어, 그 남쪽의 도시경관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경인선 철도가 인천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그 남쪽과 북쪽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상호간 소통의 물리적 장애물이 된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의 규모별 공장분포1(1969)
출처 : 정맹석, 「인천시의 공업발달과 공업지역 구조」, 『동국지리』 4, 1983, 44쪽.



인천시의 규모별 공장분포 2(1979)

출처 : 정맹석, 「인천시의 공업발달과공업지역 구조」, 『동국지리』 4, 1983, 45쪽.

이러한 공단의 조성에는 필연적으로 고용된 인구의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택지 개발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공단에 인접한 곳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경인선 철도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더욱 밀도 높게 개발되기도 하였다. 경인선 철도와 국도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기에 인천과 서울의 유입인구를 끌어들여 정착시키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도시의 성장은 공업기능과 같은 기반활동에 의해 주도되지만, 일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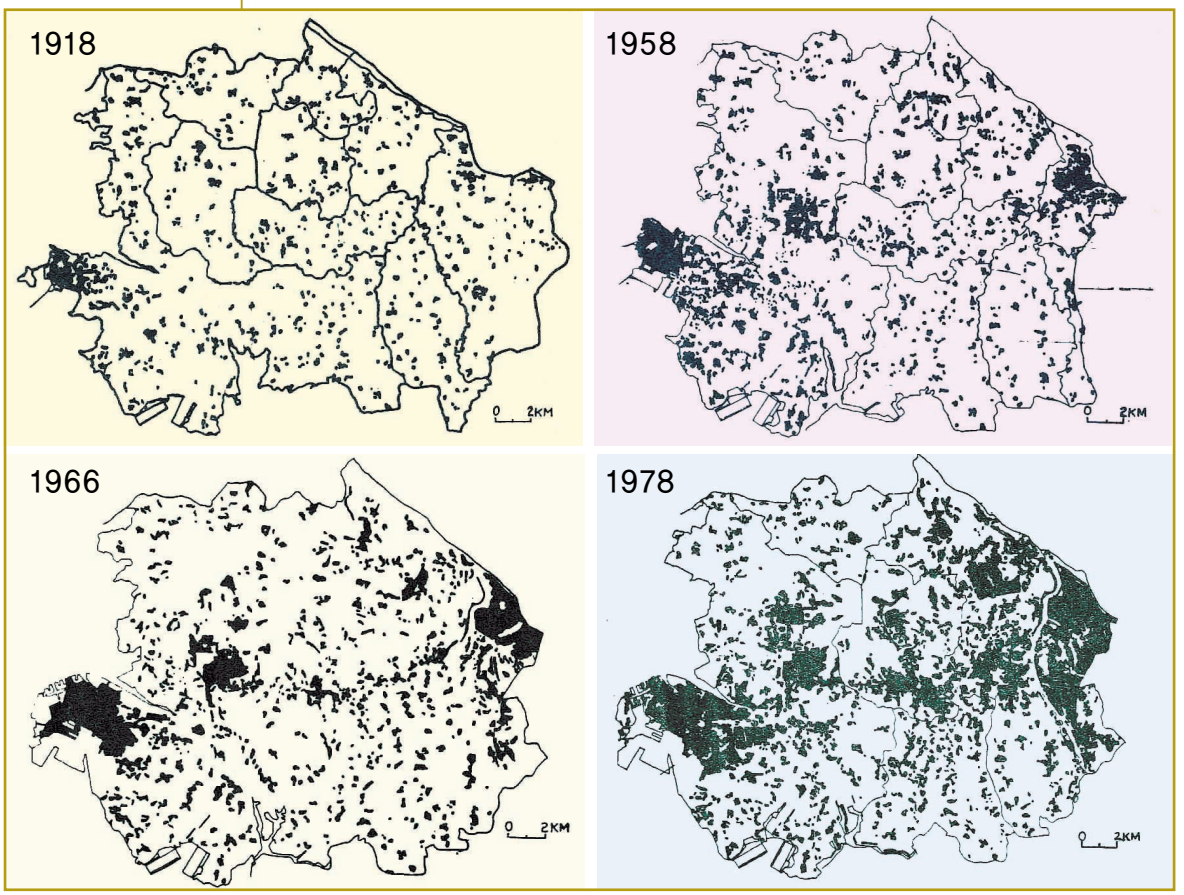
로 성장한 도시는 상업기능과 같은 비기반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의 탄력을 받게 된다. 경인선 철도역은 필연적으로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업중심지로 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경인간 간선 교통망은 인구 유입과 주변 지역의 도시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인 지역의 건축지역(built-up area)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역시 경인간 교통망이 도시화 진전의 핵심적 줄기 역할을 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초기인 1918년 지도를 보면 당시 한강 서쪽 경인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도시화가 진전되었던 곳은 원인천이었다. 당시에는 노량진과 영등포도 적어도 경관적으로는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는 원인천과 부평, 그리고 노량진 등의 세 곳이 도시화의 핵으로 자리잡아가고, 이 세곳의 핵을 연결하는 경인선 노선을 따라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1978년 지도상에는 경인선 철도를 따라 도시화 벨트가 넓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경인지역의 도시구조를 급속히 변모시킨 1960년대부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교통망의 확충을 동시에 요구하였다. 공업기능을 집적시킨 공업단지의 설치는 2차산업의 원료와 제품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교통망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65년의 경인선 철도의 복선화, 1969년 경인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등은 그러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확충된 교통망이 물류의 수송이라는 산업발달의 측면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 대중교통으로서 유동인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1974년의 경인선 전철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인선 철도가 이제 통합된 수도권의 여객 수송을 위한 일종의 광역도시권의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통망 확충 및 정비의 과정을 서울과 인천 간의 도시기능적 통합 및 도시경관적 통합의 결정적인 계기로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천은 수도권의 중심, 서울의 배후지에 있어 수도권의 기능적 통합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린, 종속적인 도시 구조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경인 간의 간선 교통망과 인구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밀접한 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지역에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경인 간의 국도와 철도는 인구를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천

의 구도심과 서울의 노량진이 인구가 집중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고, 그 사이 경인국도와 철도에 인접한 좁은 벨트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안과 부평 사이(지금의 동암역 일대)와 부평과 소사 사이(지금의 송내역, 중동역 일대)의 지역은 여전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직전인 1966년에도 큰 변화없이 이어진다. 다만 인천 구도심 주변지역으로의 교외화가 미약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점과 부평 인근지역의 인구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경인지역 건축지역의 변화 과정

출처 : 이현아, 「서울~인천도시화랑의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0, 17~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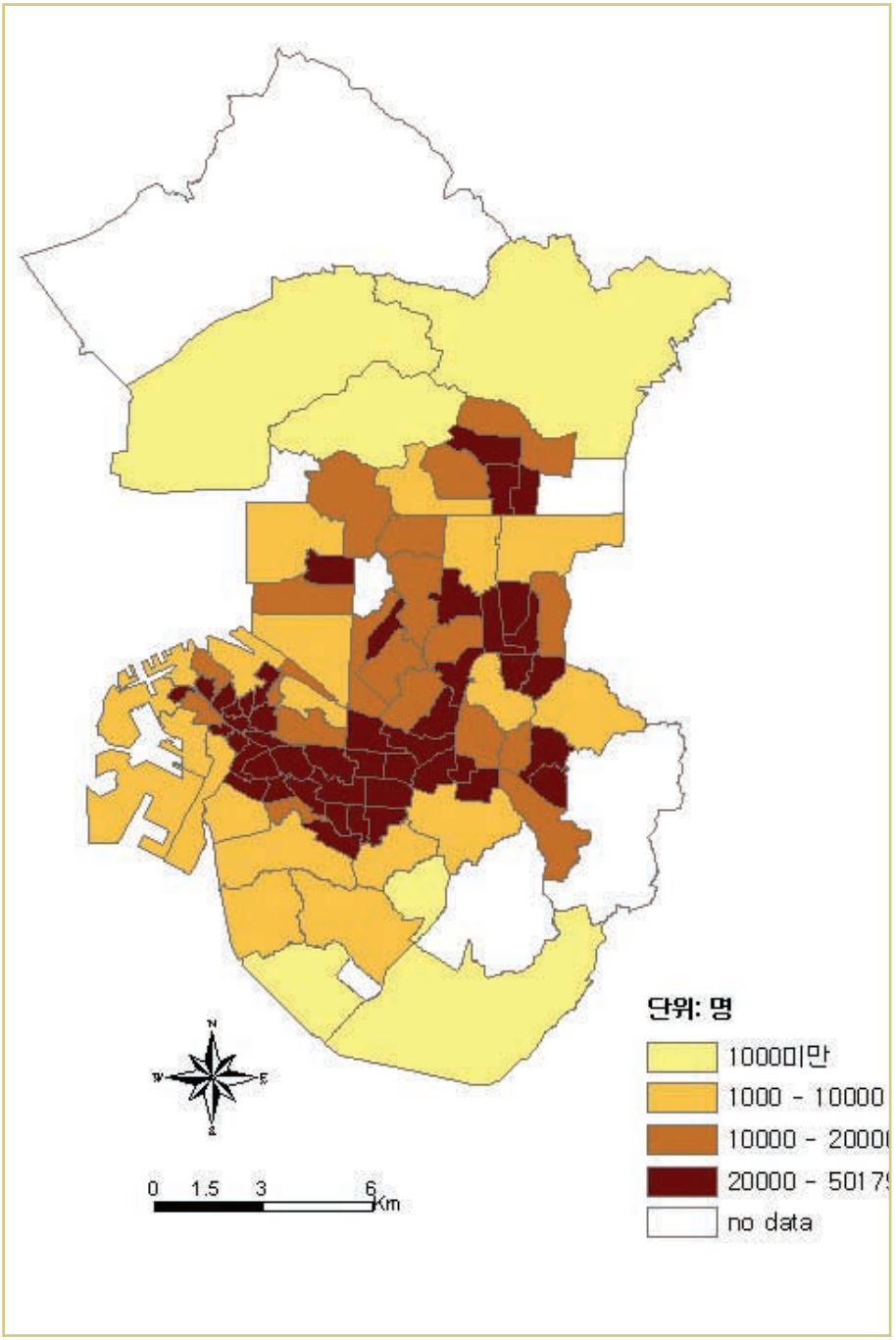
1970년대가 되면 주안과 부평의 인구 집중이 점차 강화된다. 아울러 부평과 서울 사이의 인구밀도가 기존 경인 철도 및 국도의 북쪽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평평야 지역이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69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산업단지를 그 주변에 입지시키고, 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를 유발한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경인지역 공업단지의 조성은 대부분 경인선 철도와 인접한 지역, 특히 경인선 철도의 북쪽지역에 집중되었다. 1969년, 경인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서울~인천 간의 새로운 간선교통로가 되어 경인지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인고속도로와 기존의 경인선 철도 사이의 지역이 국가주도의 공업개발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도시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 철도 및 국도 사이의 두꺼운 벨트 지역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지로써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이에 따른 경인벨트의 급속한 도시화는 경인선 철도의 주된 기능을 화물 수송에서 여객 수송으로 전환시킨다. 즉, 1974년 경인선 철도의 전철화는 이를 일종의 대중교통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울로의 통근권이 경인 교통 벨트를 따라 서쪽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러한 경인선 철도의 통근 여객 수송 역할의 강화는 더 많은 서울 통근 인구의 유입을 야기하였다. 이후 경인선 철도 노선을 따라서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천 구도심에서 부평에 이르는 도시화 벨트가 경인 철도와 국도 주변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인구 고밀도 지역이 경인철도와 국도를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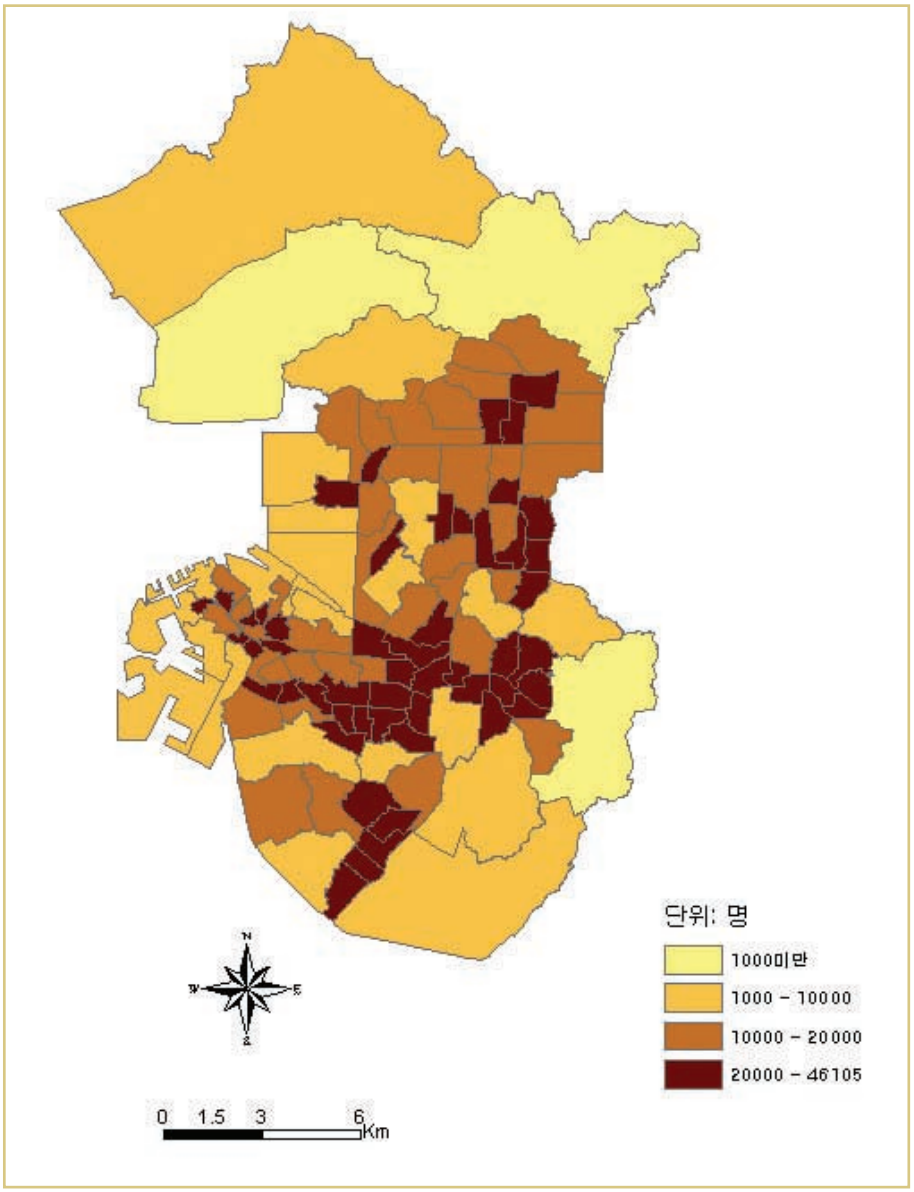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경인선 노선을 따라 속속 들어서게 된다. 이들 유입 인구는 경인선 철도교통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일상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과정에 맞물려 경인선의 정차역들도 계속 신설되었고, 이제는 대중교통의 성격을 좀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인천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경인철도의 전철화는 인천 시역을 확장시키고 기존의 구도심과 부평 사이의 비도시화 지역을 도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연지리적으로 부평과 인천은 일련의 산지에 의해 분리된 독자적인 생활권이었으나, 이제 그 경계선 상의 지역들이 새롭게 도시

화 지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인천시 동별 인구밀도 (1990)



인천시 동별 인구밀도 (2000)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인천의 도시구조는 시청의 이전, 시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의 개발, 새로운 공단의 조성, 새로운 매립지의 조성, 군용지의 전용, 그린벨트의 해제, 행정구역의 개편 등 일련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게 재정립되기에 이른다. 1990년의 인천시 각 동별 인구밀도 분포지도를 보면, 여전히 경인선 철도 축을 중심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구도심의 쇠퇴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주안에서 동암, 부평, 그리고 부개역에 이르는 경인선 연변을 따라 높은 인구밀도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외에 부평구 계산동 일대와 서구 연희동 일대 등의 인구밀집 지역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인구분포의 주된 중심축이 경인선 노선과 일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부평시장로타리 지하도 겸 상가 기공식(1979. 2. 21)

이러한 경인선 철도 중심의 인구집중분포 패턴은 최근에 들어서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인구밀도 분포를 보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연수지구, 구월 · 만수지구 등이 새로운 인구 고밀도 지역으로 변모한다. 아울러 계산지구의 높은 인구밀도가 부평 북부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상의 새로운 고밀도 지구들은 모두 경인선 철도 노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분포패턴은 기존 경인선 철도 중심의 동서축과 더불어 계산지구와 연수지구를 연결하는 남북축이 인천시역 내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축의 부상 가능성에 반하여 동서축 경인선 철도 연변의 구도심부터 주안역에 이르는 지역은 그 밀도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인선 벨트 중심의 인천의 도시구조는 앞으로 송도신도시와 서부매립지 및 신공항고속도로 연변 일대가 본격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인천의 위상을 세계도시로 격상시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에, 인천의 도시구조는 서울의 배후지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개해 나가려 할 때 경인선 철도의 기능과 경관적 특성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3편
부평현대사

제5장 상업의 발달과 부평지역의 민주화 운동

제1절 상업의 현대화

1. 시장의 증가

부평지역의 상인들은 미군부대와 수출공단이 상업을 활성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이들이 부평지역의 주요한 소비 주체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절에 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은 1973년 미군이 대대적인 철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애스컴(ASCOM)' 주변으로 세 곳 정도의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였던 곳은 부평시장으로, 현재 롯데백화점 옆으로 미군부대 출입문이 놓여 있어 부평시장으로 곧장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으로 '양키시장'이 형성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한 곳은 부평3동 신촌일대로, 이 곳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에도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미군의 철수에 따라 주요한 소비층이었던 미군들과 '양공주'들,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무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가기는 하였지만 부평지역에 수출공단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떠난 공백을 대신 채워가고 있었기 때

※ 이 글은 윤승준(인하대 사학과 교수)이 책임집필 하였음.



부평시장 골목(1985)

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었다.

부평수출공단의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시장은 부평시장이었다. 휴일이나 명절 때면 '궤짝에 돈을 담기 바빴을 정도'로 1970년을 전후하여 부평지역의 상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1971년 5월 6일, 공설시장이었던 부평시장이 사설시장이 되면서 부평자유시장으로 바뀌었고, 같은 해 8월에는 부평진흥자유시장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또한, 현재의 계양구 지역이나 멀리는 강화와 서울에서까지 물건을 사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유통되는 물자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평시장은 인천시가 1962년 6월 7일 인천시 북구 부평동 225번지 일대에 공설시장으로 개설한 것으로, '시장법'에 의한 최초의 시장이었다. 그 후 1971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24, 225, 220번지와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 73블럭에 허가를 얻어 같은 해 5월 6일 사설시장으로 변경, 개장하였다. 당시 이 곳에서 거래되던 주요 품목들은 각종 곡물을 비롯하여 청과, 채소류, 해륙산물, 주단, 포목, 의류장식품, 주류 및 음료식품, 각종 기계기구류, 일용잡화, 생활용품 등으로 (주)부평자유시장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주)부평자유시장은 1992년 6월 16일 해산되었으나 부평자유시장 번영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960·70년대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번성기를 거쳐, 1980년대 나타난 상업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단연 시장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를 거치며 부평지역 곳곳에 시장이 새로 개설되면서 부평시장으로 집중되었던 상권의 흐름이 조금씩 분산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 개설된 시장은 갈산동, 청천동, 십정동, 일신동, 작전동, 부평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장들은 부평동을 중심으로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독자적인 소비시장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1980년대 부평지역 시장 개설 현황

명칭	개설자	소재지	개설일
갈월종합시장	갈월종합상가(주)	갈산동 96-1	1980. 4. 28
부평자유시장	부평시장(주)	부평동 225-1	1980. 6. 25
유창종합시장	유창흥업(주)	부평동 534-87	1981. 1. 22
동수종합시장	동수종합시장(주)	부평동 642	1981. 12. 16
청천종합시장	태호산업(주)	청천동 178-9	1981. 2. 13
부평청과도매시장	부평청과도매시장(주)	부평동 252	1981. 5. 20
갈산종합시장	이건형	부평동 229	1981. 5. 21
시장로타리지하상가	부흥기업(주)	부평동 224-1	1981. 6. 5
십정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주)	십정동 321-6	1982. 1. 29
효성시장	손계수	부평동 63-9	1982. 1. 29
부일종합시장	(주)부일통상	일신동 107	1982. 11. 17
작전종합시장	대화실업(주)	작전동 856-117	1987. 12. 17
부평성일로지하상가	(주)성일로지하상가	부평동 606-17	1989. 6. 7

출처 : 『부평사』, 부평구, 1997.

한편, 1979년에 개설된 부평로지하도상가에 이어 시장로타리지하도상가와 성일로지하도상가가 연이어 들어서며 부평지역에 지하상권이 새롭게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시장로타리 지하상가 기공식(1979)

지하도상가의 개설은 다양화된 시장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권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지하도상가 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동경로는 상당부분 지하상권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시장들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부평지역의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2. 시장의 변화와 상권의 형성

1970년 말까지 인천 지역의 사설 시장으로는 학익, 송현, 수문통, 용현, 주안, 화수, 제물포, 간석시장과 중구 숭의동의 청과물시장, 수인역시장 등이

있었는데, 이들 시장에서는 농산물이나 부식류 등 직접 농사를 지어서 내다 파는 품목들이나 일상생활필수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이러한 전근대적인 시장 운영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리, 수송체계나 유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유통조직의 개선이 시도되었다. 즉, 수송수단체계를 확립하거나 '체인' 화를 통해 물품을 대량구입하여 판매원가를 절하하는 방법, 창고 등을 공동경영하여 보관시설의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시장을 개량하고 인천 지역의 시장들을 재배치하는 계획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의 경제발전을 거치며 소득이 증가해 감에 따라 부평지역에도 현대식 상점형태인 백화점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백화점은 1978년 6월 22일 북구 부평동 192-7번지에 개점한 부평백화점으로 80개 점포를 갖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1978년 12월 23일 북구 부평동 153번지에서 개점한 대도백화점은 55개 점포가 입점해 있었다. 1980년대에는 현대백화점이 1985년 5월 24일 인천시 북구 작전동에 3,346㎡의 매장에 348개의 점포로 개점했고, 1987년에는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단지를 배경으로 현대백화점 부평점이 들어섰다.

또한, 대량판매와 대량구매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수퍼마켓은 소비자의 각광을 받아 급속히 늘어났는데, 수퍼마켓의 증가는 1980년대 진행된 아파트 건설붐과 무관하지 않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단지별로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수퍼마켓을 비롯한 야채 및 수산물 상점, 정육점, 양곡상 등이 위치하며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 역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1980년대는 재래시장으로부터 백화점과 대형수퍼마켓, 아파트밀집 지역으로 상권축이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지역에는 점차 다양한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상권은 부평시장 주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부평시장역으로부터 부평시장로타리, 부흥로타리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주로 부평4동에 해당되며, 현재는 '문화의거리' 와 함께 현대적 상가와 재래시장이 함께 병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권이다.

과거에는 부평구청 등 공공기관과 전철역, 학교, 금융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인천 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북부 지역의 중심구역에 형성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상업에 종사하였던 상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세대가 일제강점기부터 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평시장주변 상권은 부평지역의 상업적 전통이 가장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구)진선미예식장 주변 상권이 있다. 이 상권은 부평역에서 부흥로타리를 잇는 동남쪽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들과 농협로타리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때 예식장과 금성극장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부평시장 주변 상권에 밀리고 있었는데, 현재는 부평구 내의 가장 번화한 거리로 탈바꿈하였다.

백운역 주변 상권도 현대아파트 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였다. 현대백화점 맞은 편으로부터 백운역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소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하며,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부평시장 노점상단속 광경 (1990)

이 외에도 동암역 남광장과 북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청천농장 주변도 198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며 하나의 상권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권의 성장과 함께 부평지역의 도소매업은 1980년대 들어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인천의 행정구역별 도소매업 점포 수를 보면, 1982년 당시 남구가 7,536개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북구가 5,750개로 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구는 3,439개, 동구는 3,065개였다.

인천시 구별 도·소매업 점포 수 변화

연도	구분	중구		동구		남구		북구		계	
		점포 수	구성비	점포 수	구성비	점포 수	구성비	점포 수	구성비	점포 수	구성비
1968	도매업	71	28.1	80	31.6	54	21.3	48	19.0	253	100.0
	소매업	1,925	28.9	1,912	28.7	1,620	24.2	1,210	18.2	6,657	100.0
	계	1,996	28.9	1,992	28.8	1,664	24.1	1,258	18.2	6,910	100.0
1976	도매업	333	46.3	122	17.0	163	22.7	101	14.0	719	100.0
	소매업	3,046	22.8	2,975	22.3	4,477	33.6	2,847	21.3	13,345	100.0
	계	3,379	24.0	3,097	22.0	4,640	33.0	2,948	21.0	14,064	100.0
1982	도매업	330	25.4	129	9.9	398	30.7	440	33.9	1,297	100.0
	소매업	3,109	16.4	2,936	15.5	7,198	37.9	5,310	28.0	18,993	100.0
	계	3,439	17.3	3,065	15.4	7,536	37.9	5,750	28.1	19,850	100.0

출처 : 『부평사』, 부평구, 1997.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북구와 남구 등 신시가지의 구성비가 증대하고 인천의 중심부였던 중구와 동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곧 구시가지로부터 신시가지로의 상권 이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1980년대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인접 지역이 편입되어 시 면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시세 역시 확충되어 교외 지역 개발 및 교통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거주구역이 경인선을 따라 점차 확장되면서 동인천 및 신포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의 중심업무기능도 점차 주안, 석바위, 부평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상업기능 역시 이 경로를 따라가게 되었다.



출처 : 『인천도시종합개발계획』, 인천시, 1970.

1970년대 인천시 시장배치 계획도

제2절 자동차산업과 부평경제

1. 부평지역 자동차 산업의 변화 과정

1) 현대식 자동차 조립공장의 출현

부평지역 사람들은 '부평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본향(本鄕)이자 시발지(始發地)'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현재 GM대우가 자리잡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번지'에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에도 군용 짚차 생산을 위한 '국산자동차회사'가 산곡동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의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부평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평지역 사람들에게 은근한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각 자동차 회사의 생산능력을 비교해 볼 때, 울산, 화성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평지역과 '부평사람들'에게 자동차산업은 단순히 한 기업체의 생산공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현대사를 함께 해 온 40여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다.

부평지역에 현대식 자동차 조립공장이 서게 된 계기는 새나라자동차가 처음으로 청천동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다. 이후 이곳은 신진자동차, GM Korea,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 GM대우 등으로 주인을 바꾸어 가기는 하지만, 부평지역이 자동차 생산도시라는 명성을 얻어가는 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 이 글은 안용석(『부평사람들』 편집위원)이 책임 집필하였음.



GM대우 전경(2006)

GM대우의 변천과정			
회사명	설립년월	합작 비율	존속기간
새나라자동차	1962. 1		3년 6개월
신진자동차	1965. 7		6년 11개월
GM Korea	1972. 6	신진그룹 50%, GM 50%	4년 5개월
새한자동차	1976. 11	산업은행 50%, GM 50%	1년 7개월
새한자동차	1978. 6	대우그룹 50%, GM 50%	4년 7개월
대우자동차	1983. 1	대우그룹 50%, GM 50%	9년 11개월
대우자동차	1992. 12		9년 11개월
GM대우	2002. 10		

새나라자동차를 설립하게 된 발단은 1961년 정부의 고위층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의 자동차산업 수준에 놀라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육성을 결심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정부가 자동차육성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재일교포 박노정에 의해 1962년 1월 29일 새나라자동차가 창업, 외자 장기 차관 3백55만 달러와 내자 2억9천만 원으로 1962년 부평에 공장을 착공하였다. 5년 후에 완공할 계획으로, 1962년 8월 1단계의 최종 조립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월 300대의 조립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자동차산업 육성 계획이 추진될 당시 우리나라는 대만의 발전 사례를 참고하게 되었고, 그 당시 대만의 최대 자동차회사인 유에롱(Yue Loong)사가 제휴하고 있던 일본 닛산(Nissan)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새나라자동차도 일본 닛산과 제휴를 맺게 되었다. 즉, 새나라자동차는 1962년 3월 23일, 일본 닛산과 시설 차관 및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닛산의 1,200cc급 소형승용차인 '블루버드 P310'을 SKD방식(Semi Knock-Down, 부품을 반제품 형태로 도입하여 조립하는 생산 방식)으로 들여와 '새나라'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기로 하였다. 1962년 5월 6일에는 완성차로 400대가 도입되었고, 조립공장이 준공된 이후인 9월부터 조립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된 자동차 조립공장이 부평지역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자동차공장의 규모와 비교하여 보면 성냥갑만한 공장이었으나 당시로서는 양산을 전제로 하는 현대화된 자동차 조립공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나라자동차는 처음에는 주요 부품을 SKD로 도입하여 조립생산을 하고,

조립기술을 습득한 다음에는 CKD(Completed Knock-Down, 부품을 완전 분해 상태로 도입하여 조립하는 생산 방식)로 대체하여 점차 국산화한다는 방침이었다. 1962년 1,310대, 1963년에 1,063대 등 총 2,773대를 조립생산하였으나 이후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외환사정 악화로 부품도입이 불가능해짐으로써 1963년 7월 12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은 한일은행 관리 하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첫 해에 조립 생산된 새나라는 국산화율이 5%에 불과하여 유리, 타이어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부품업체로부터 사실상 어떤 부품도 조달하지 않았고, 1963년에도 국산화율이 매우 낮아 부품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부품제조 능력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단시간 내에 국산화율을 올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재일교포 박노정이 한국자동차공업의 씨앗을 부평지역에 뿌렸다고 한다면 신진공업사를 설립하여 새나라자동차를 인수한 김창원은 한국자동차공업을 한 단계 향상시킨 원로 중의 한 명이다.

신진공업사는 본래 부산에 설립된 회사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 온 김창원과 그의 형인 김제원은 1954년 미군 정비창을 불하받아 자동차부품을 만들다가 1955년 2월에는 자동차의 수리 · 제작을 위해 신진공업사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김창원의 형인 김제원이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의 전신인 대한자동차공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한국의 경제 부흥 · 재건을 돕기 위하여 195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원조 기관. 1958년에 해체됨)의 원조자금 중 자동차공업 진흥비로 책정된 4백만 달러에서 정비업 육성 지원금 2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후 신진공업사는 1962년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공장 정리계획과 관련하여 자동차공장으로 잠정 선정되자 그 동안의 차체 제작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버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해 10월 덕수궁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출품하였던 마이크로버스가 상공부장관상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진공업사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진공업사의 마이크로버스는 기존의 소형합승차를 마이크로버스로 대체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규격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운수업체로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아 생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조립능력은 월 60대에 이르렀다.

이어 신진공업사는 소형차 조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새나라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한 후인 1963년 11월 '새나라'를 그대로 본떠 만든 '신성호'가 탄생되었다. 이 자동차도 철판을 두드려 만든 차체에 1,500cc의 재생 엔진과 변속기, 차축 등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이었는데 '시발'이 엔진까지 국산화한 데 비해 신성호는 기술상의 문제로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하여 국산화율은 다소 낮은 56.4%로 나타났다. 가격은 555,000원으로, 새나라의 첫 출고가격이 224,000원이었던 데 비하면 훨씬 비싼 편이었고, 420,000원 안팎이었던 당시의 택시 매매 가격보다도 비쌌다. 그 결과로 신성호는 1964년에 216대, 1965년에 106대 등 모두 322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그 당시 부품국산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정은 낙후하여 국산화된 부품은 도입된 부품에 비하여 성능은 떨어지고, 부품가격은 비싸졌다.



신진자동차 공장 내부모습

그러나 신진공업사는 신성호 제작·성공을 계기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에 소형자동차 공장의 실수요자로 선정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신진공업사가 새나라자동차를 어느 날 갑자기 인수하는 과정에서 숱한 뒷이야기도 많았지만, 1965년 7월 드디어 신진공업사는 새나라자동차를 인수, 다음 해 1월 신진자동차공업(주)로 상호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신진자동차는 1966년 1월 28일 일본 도요타(Toyota)와 기술제휴 계약을 맺고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는 데 이어 상업차관도 1천만 달러를 받아 현대화된 조립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아울러 기존 부품공장과 자회사로서의 부품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조립공장을 정점으로 한 계열화를 형성하였다. 이와같이 양산체제를 확립하게 됨으로써 연간 14,400대의 최고 생산능력 보유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때 신진자동차의 자동차 국산화계획은 소형자동차의 경우 첫 해에 38%, 2년째인 1967년에 50%, 1968년에 82%, 1969년에는 97%로 완전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또 중형 및 대형 자동차에서도 첫 해에 30~40%로 출발하여 2년째에 50~55%, 5년째인 1971년에는 97%로 완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나 당시로서는 국산화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나 자동차회사도 자동차부품 국산화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진자동차는 1966년 5월 26일 1,500cc급의 코로나를 처음으로 생산한 데 이어 1967년 5월에 중·대형급 크라운, 1968년 8월에는 800cc급의 공랭식 퍼브리카를 생산하게 된다. 또 상용차에서는 1967년 12월 6톤 카고 및 덤프트럭을 생산한 데 이어 1968년 1월 말에 반트럭인 랜드크루서, 4월에 8톤 카고트럭, 7월에는 소형버스인 신진에이스 등을 차례로 내놓았다. 이렇게 소형승용차부터 중·대형급 승용차, 각종 트럭 및 승합차를 생산하는 종합자동차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신진자동차에서 생산한 퍼브리카 광고 전단지(부평역사박물관 소장)



그러나 그동안 신진자동차와 제휴관계를 맺고 국내에 진출하였던 도요타 자동차는 중국의 소위 '주4원칙'이 발표되자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산해 왔던 도요타 차종은 생산이 중단되고 도요타와 협력하여 추진해 왔던 엔진공장 건설계획 등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주4원칙'이란 당시 국제무대에 등장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중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게 1970년 4월 15일, 중국의 주언라이(周恩來, 1898~1976) 수상이 밝힌 대외통상 원칙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과 대만을 돕는 자나 상사와는 교역하지 않는다.
② 한국과 대만에 투자한 자나 상사와는 교역하지 않는다.
③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의 미국전쟁을 돕거나 무기를 팔고 있는 자와는 교역하지 않는다.
④ 미국회사의 자회사와는 교역하지 않는다.

드디어 1970년 12월 7일 상공부를 방문한 도요타의 가토 부사장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고하였고, 이어 1971년 4월 22일 도요타는 '주4원칙'을 수락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신진과의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완전히 철수하였다.

2) GM의 등장

일본 도요타가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자 신진은 도요타를 대신할 만한 제휴선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당연히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해 오던 GM과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0년 이후 한국시장 진출을 모색하여 온 GM은 미국 자동차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일본과 서독을 견제하고 1971년 이후 실시될 일본의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일본 진출의 교두보가 필요하였으며 동남아 및 장래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GM은 해외 진출시 50% 이상의 자본 참여를 원칙으로 견지해 오

고 있었는데 이상의 전략적 고려를 감안하여 최소 수준인 50%의 자본 참여로 국내에 진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사 사이에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 7일에 양사가 2천4백만 달러씩 투자하여 50:50의 지분비율을 갖는 한미합작회사인 GMK를 설립하게 된다. GM의 국내 진출과 관련하여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 GM의 한국 진출은 미군 1개 사단의 주둔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그만큼 기대도 컸다. 특히 당시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고 중국의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과의 제휴에 한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때여서 세계 최대 규모인 GM의 한국 진출은 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한껏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

새로 출범한 GMK는 내자 35억 원, 외자 3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투자하여 1972년 6월부터 엔진공장 건설에 착수, 1974년 5월 완공되었는데, 12,000톤 규모의 용탕능력을 갖춘 주물공장과 연산 5만 대 규모의 가공 및 조립공장으로 구성되어 1,500cc, 1,700cc, 1,900cc 등 세 종류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규모였다. 그러나 GMK는 엔진 기종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여야 했었다. 이때 선정된 기종은 아담 오펠(Adam Opel)사의 CIH(Cam in Head)타입의 엔진이었으나 이는 설계되어 사용된 지 10여 년이나 지난 구형 설계의 엔진이었으며 오펠사도 나중에는 2,200cc까지 배기량을 늘려 사용한 중형급 엔진이었다. 이때 GMK는 기술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신형 엔진으로 작은 배기량(1,200cc~1,600cc급)의 엔진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의 연료소모율이 가장 중요시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합작 이후 처음 출시한 시보레1700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심한 판매 부진을 보였다. 이는 호주의 GM홀덴으로부터 도입한 이 모델이 연료효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석유파동에 따라 유류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연료 효율이 자동차 구매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원산지인 호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모델이었다.

이후 GMK는 GM의 독일 자회사인 아담 오펠사와 기술제휴로 중형급 승용차 레코드(후에 로얄)를 생산하고, GM의 일본 투자 회사인 이스즈(Isuzu)로부터 트럭 및 버스 모델을 기술제휴하여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도요타의 진입과 철수, 포드(당시 현대자동차와 제휴관계)와 GM의 새로운 진입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공업역사가 일천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고 부품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데다 국민소득도 낮아 자동차시장은 매우 협소하였다.

GM Korea는 1976년 11월 산업은행이 신진측 출자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명이 새한자동차(주)로 바뀌게 된다.



새한자동차에서 생산하던 레코드(Record) 모델.

그러나 1970년 초까지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973년에 수립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은 이전까지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부품 국산화도 부진한 여건 속에서 고유모델의 소형차를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 정책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일반의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안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1973년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정책 선언을 하였다.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농업·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정책은 1972년 5월 30일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끝난 직후 본격화되었다. 이때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기본 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는데,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기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다. 자동차공업 부문은 이 원칙을 뼈대로 하는 육성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① 중화학공업 육성의 중추 사업이 기계공업이고,
② 그 선도 역할을 자동차공업이 해야 한다.
③ 또한 자동차 부품공업의 육성이 중요하며,
④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품공장만은 최신 공장을 건설하되 외국 유명회사와 합작 또는 기술제휴를 한다.
⑤ 이들 공장은 창원 기계공업기지에 입주시키고,
⑥ 금융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
⑦ 아울러 자동차공업을 수출산업화한다.

짧은 자동차산업 역사와 낮은 국민소득 수준은 물론 국내시장의 협소, 투자 자본의 부족 등에 잦은 정책변경까지 겹침으로써 당시 자동차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기술 부족과 작은 시장규모는 KD조립에 의한 조립생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빈번한 모델변경에 따른 생산 중단 및 변경, 소량 생산에 따른 원가 상승 및 품질향상 저해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수요 창출 저해, 소량 생산 불가피, 경영 압박에 따른 투자자금 부족, 국산화 저해 등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이미 발전의 악순환 속에 들어서 있었으며, 따라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정책당국은 문제의 핵심이 외국모델의 도입에 따른 KD조립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소량생산이나 품질불량, 원가상승, 국산화 부진 등 대부분의 문제점이 KD조립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머지않아(당시에는 1970년대 중반 무렵으로 보았음) 다가올 자동차의 수요 급증기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유류 절약도 이루어내야 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아울러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고유모델 개발로 방향을 결정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다시 한번 황무지에 조선소를 세운 현대 스타일을 발휘하게 된다. 막상 고유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디자인은 물론 엔진, 변속기, 섀시와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는 현대로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은 물론 경험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때부터 현대는 숫한 시행착오와 고행을 거친 끝에 디자인은 이태리의 이탈디자인에 의뢰하고, 엔진과

새시는 일본 미쓰비시의 랜서 모델을 사용하여 1974년 6월에 시작차 1호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975년 11월 '포니'가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비록 우리 기술에 의한 것은 아니고 차체만 고유형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세계에서 16번째로 고유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고유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른다. 1976년 7월 에콰도르에 포니를 처음 수출하여 자동차수출국의 신호탄을 올렸다.

그런데 GM은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한국시장에 대한 전망에서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정부가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고유모델 소형승용차 개발을 독려하였지만 투자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망도 불투명한 작은 규모의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할 생각이 GM 측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신진그룹도 마찬가지였다. 방만한 기업 확장, 계열사의 부실화, 제품 판매의 부진 등으로 심한 자금난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GMK는 소형차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GMK가 선택한 모델은 독일 아담 오펠사가 개발한 카데트를 일본 이스즈가 생산하고 있는 제미니 차체에 시보레1700용 엔진을 변형(under bore)한 배기량 1,492cc 엔진을 장착한 것이었다. 이 엔진은 구조상 2,000cc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설계였기에, 1,500cc급으로 설계 변경된 엔진은 처음부터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당시 자본금의 몇십 배를 투자하여 고유 소형승용차 모델 포니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MK는 한·미합작 회사의 단점이 노출된다. 한국 측 투자자인 신진그룹은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미국 측 투자자인 GM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한 고유 소형승용차 모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GM의 World Car Program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GM의 World Car Program은 새로운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몇 개의 자회사와 미국의 G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GM의 자회사는 새로운 모델을 자체 개발하지 않는 GM의 모델 개발 정책이다. 승용차 개발은 미국 GM과 독일의 아담 오펠, 상용차 개발은 미국 GM, 영국의 복스홀과 일본의

이스즈에 국한하고 나머지 자회사는 이들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 판매하는 정책이었으므로, 자회사는 대개가 자국 판매에 국한하고 해외 수출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하나의 장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GM으로서는 새로운 모델에 막대한 개발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새로운 모델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양성에도 중복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GM뿐만 아니라 포드(Ford), 토요타(Toyota) 등 큰 자동차 회사들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GMK는 GM의 World Car Program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미니(Gemini) 1500의 개발 과정에서 기존 모델의 판매부진 등에 따른 경영부실의 심화로 마침내 산업은행 관리로 넘어가게 되고 1976년 11월 산업은행이 신진 측 출자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명도 새한자동차(주)로 변경하게 된다. 결국 제미니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계획보다 한참이나 늦은 1977년 12월 첫 선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현대의 포니 및 기아의 브리사와 달리 단명으로 끝나게 된다. 산업은행이 신진측 출자분을 인수한 1976년 11월부터 이 출자분이 대우그룹에 인수되는 1978년 6월까지 1년 6개월여는 확실한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이 없었다. 산업은행 측에서는 자동차산업이나 회사 경영에 아무 경험도 없는 예비역 장성을 사장으로 내보내는 등 당시의 정부 공기업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기간에 기아자동차는 현대 포니와 같은 독자적인 고유모델은 아니지만 1974년 10월 승용차시장에 브리사라는 모델을 출시했고 현대는 1975년 출시한 포니를 앞세워 국내 소형승용차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또 1975년 12월에는 포니를 에콰도르에 처음 수출함으로써 자동차수출의 발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한자동차는 2~3년의 정체기를 맞게되면서 이후의 경쟁에서도 뒤지기 시작하였다.

3) 대우그룹의 자동차산업 참여

1978년 6월 대우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새한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동차산업에 발을 디디게 된다. 대우그룹이 처음으로 부평에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로부터 2002년 12월, 대우그룹이 GM이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여 GM과 결별할 때까지 약 25년간 자동차산업을 경영한다.

대우그룹은 자동차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경영형태를 거치게 된다.

- 1단계(1978. 6~1982. 12) :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측 지분 50%를 인수, GM과 공동경영. 회사 이름도 새한자동차로 그대로 사용.
- 2단계(1983. 1~1992. 11) : 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 변칙적인 독자경영. 이 시점부터 회사 이름을 대우자동차로 변경.
- 3단계(1992. 12~2002. 9) : GM과의 합작관계 청산, 완전한 독자 경영.

즉, 1978년 6월 대우그룹이 산업은행의 지분 50%를 인수하고도 회사 이름을 새한자동차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선 범 그룹차원에서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해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은 부실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1978년 배럴당 1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979년에 24달러, 80년에는 32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우리의 수출도 1979년에는 주춤해졌고 무역수지에서 큰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1979년 10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이어 12·12 사태, 사북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신군부의 집권 등이 잇따르면서 국내 정치 상황은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내우외환이 겹친 셈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움츠러들면서 1979년에 사상 최초로 연산 20만대(204,447대)를 돌파했던 자동차 생산량이 1980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40%나 줄어든 123,135대로 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생산능력 확장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어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0년 8월에 새로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구체제를 부정함으로써 극도로 긴장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 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화학 분야 투자 조치이다. 과잉투자로 분류되어 투자조정 대상이 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사실상의 강제력에 의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게 되었다.

1980년 8월 20일 국가 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국보위)는 중화학공업이 전반적으로 과잉투자되었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사업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하였다.

① 협소한 내수시장(1980년 11만 대)에 비하여 제조업체가 난립(5개사, 생산능력 35만 대)하여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투자가 비효율화되고 있으며, ② 가동률 저하(34%)로 유급 유휴인원이 과다(44,300명)하게 발생되고 재고가 산적(재고자산 870억 원)하였고, ③ 승용차는 경제 생산단위 미달(연산 30만 대이나 현대 11.6만 대, 새한 7.3만 대, 기아 4.6만 대)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동차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현대자동차와 새한자동차를 1개 법인으로 통합 합병하여 현대그룹이 책임지고 경영토록 하며, 기아산업에 대하여는 중차량 생산 전문업체로 육성함으로써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날로 경량화, 저공해 차량화, 전륜구동화, 연료 저소비 차량화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체제의 조속한 확립과 경제생산규모화에 의한 원가절감 등을 실현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수출 주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아산업은 2륜자동차 생산설비를 대림산업에 양도하고 2륜차 분야에서 철수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에서 철수하게 된 대우그룹에 대해서는 발전설비 분야에 대한 투자조정에서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을 인수토록 했다. 이것은 자동차분야 투자조정 발표 전에 국보위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과 대우 김우중 회장으로 하여금 발전설비부문과 자동차부문 중 택일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조정된 결과였다.

결국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승용차는 현대와 새한의 합작사, 1~5톤 트럭과 버스는 기아가 각각 독점 생산하는 일원화체제가 되고, 5톤을 초과하는 트럭과 버스는 각사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자유생산체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새한자동차는 5톤을 초과하는 트럭과 버스만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새한자동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국보위가 자동차분야 투자조정 발표 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과 대우 김우중 회장으로 하여금 발전설비

부문과 자동차부문 중 택일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조정된 결과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우그룹이 먼저 발전설비부문을 선택하고 자동차부문을 현대에 양보하였다고 하니, 당시 대우그룹은 자동차산업에 발을 디딘 것을 후회하였던 것 같다.

이 투자조정에 핵심이 된 것은 현대와 새한의 통합이었다. 새한은 GM이 출자분의 5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협상은 현대와 GM 사이에 이루어졌다. 통합을 둘러싸고 양자 간에 팽팽한 줄다리가 이루어졌다. GM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한의 지분 50%는 한국내 자동차사업권에 대한 지분이 50%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통합은 현대와 GM의 1:1 통합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된 후에도 50%의 지분과 경영권을 주도록 요구했다.

반면에 현대는 통합 이전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지분이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대와 새한의 통합비율은 60:40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한의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고 또 GM이 새한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사에 대한 GM의 지분은 20%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양사의 통합 기준을 1:1로 양보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GM의 통합사 지분은 25%가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경영전략 면에서도 현대의 독자모델에 의한 독자 수출전략과 GM의 World Car Program이 팽팽히 맞섰다. 현대로서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때까지 고유모델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왔고 GM의 World Car Program은 이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현대와 새한의 통합을 포기하고 1981년 2월 28일 조치로 현대와 새한자동차의 일원화는 무산되었다. 또한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도 별 성과 없이 1982년 7월 26일 조치로 완전 무산되고 1980년 8월 20일 조치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 구조조정이 추진되던 만 2년여 동안 새한자동차는 주인 잃은 회사가 되어 특별히 추진된 사업이 없었다.

1982년 7월 26일 조치로 자동차부문 구조조정이 무산되어 다시 돌아온 대우그룹은 GM과 협의 끝에 경영권을 대우그룹이 확보하고 회사이름을 새한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로 변경한다.

대우그룹이 산업은행의 지분 50%를 인수한 1978년 6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4년 반 동안은 이렇게 지나갔다.

대우그룹은 1983년에 회사명을 새한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로 바꾸면서 GM으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GM의 World Car Program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우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기술분야와 재무분야는 GM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사사건건 경영상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의 승용차 생산규모는 현대자동차의 1/5정도인 연간 20,000대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이때 대우그룹이 설정한 '자동차회사를 그룹의 주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최신의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고유모델 포니의 성공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결국 GM은 대우의 적극적인 설득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그 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경쟁력 있는 소형차의 미국 내 조달전략'을 제휴업체인 대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대우를 World Car Program에 참여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독일의 GM 자회사인 오펠사가 기술제공은 물론 신공장 건설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생산은 대우가, 최종 품질보증은 GM이 각각 담당하는 분업체제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1986년 7월, 마침내 대우자동차가 월드카 르망을 생산함으로써 1987년부터 대미수출에 새로운 제품으로 가세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대상국을 확대하는 것도 GM의 몫이었고 대우그룹 자체로서의 수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우그룹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것은 아니었다. GM의 World Car Program은 자국인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형차의 생산을 제조경비가 싼 한국에서 만들어 자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대우자동차가 GM의 World Car Program 하에서 생산한 르망의 광고전단지(부평역사박물관 소장)

1972년 GM이 처음 신진자동차와 합자할 당시 중역으로 한국에 파견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ISP라고 불렀다. International Standard Person의 약자로 그들은 GM이라는 대기업의 사원이라는 것에 큰 긍지를 갖고 있었다. 당시 한국과 같은 작은 시장에 GM과 같은 큰 회사가 관심을 보인 이유는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 앞으로 10년이면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으면 My Car시대(모두가 자동차를 갖는 대중화 시대)가 와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예측한 1982년 보다 5년이나 늦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를 넘어섰다.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My Car시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달하는 시점 이외에 대졸 사원의 연봉으로 자가용을 살 수 있는 시기, 또는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자가 운전대에 앉기 시작할 때를 꼽았다.

대우의 승용차 판매대수는 월드카 르망의 호조에 힘입어 1987년에 7만 8천 대로 승용차시장 점유율 31.1%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기아의 판매가 안정을 찾아가고 특히 새로 출시한 현대 쏘나타가 그동안 대우의 독무대였던 중형급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우는 1992년까지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1990년에 2위 자리를 기아에 내준 데 이어 같은 시기에 불붙기 시작한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시장 수요에 맞추지 못 하는 것은 물론 품질이 저하되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

대우그룹이 1983년부터 GM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는 하나 신공장 건설이나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데 GM의 합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월드카 르망을 개발한 것 이외에는 르망과 상당부분 공용 부품을 사용하여 개발비가 적게 든 에스페로의 개발 밖에는 없다. 이탈리아의 베르토네(현대 포니의 보디스타일을 개발한 이탈디자인의 쥬지아로의 스승)에게 스타일링을 의뢰하여 개발한 모델로 대우자동차로서는 처음 개발한 고유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페로는 낮게 깔린 프런트 후드 라인에 그릴이 자취를 감춘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스타일이었다.

르망과 에스페로를 개발한 것 외에는 사사건건 대우그룹과 GM은 불화의 연속이었다. 대우그룹 측에서는 군산공장의 건설이나 경승용차의 신규 개발, 로얄의 대체 차종 개발 등에서 GM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우그룹은

대우조선으로 하여금 경승용차 개발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GM과의 합의가 필요 없게 하였지만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편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대우그룹은 GM과 결별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2년 12월 GM과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말았다.



대우자동차 전경(1996)

2. 자동차산업과 부평경제

자동차산업은 세계 제2차대전 전후 자본주의 경제권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제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 산업이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산업이 한창 성장하던 1960년대에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 연관 산업은 방대하였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산업이 시작된 이래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빠르게 높아졌다. 그러나 산업발전 초기에서의 국민경제적 위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1980년만 하더라도 자동차산업은 생산액이 1조 2,010억 원으로 제조업의 3.31%, 종업원 수에서는 6만 3천 명으로 3.12%를 나타내는 데 그쳤고,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전 산업 수출액 175억 500만 달러의 0.50%에 불과하였으

며, 부가가치도 2,940억 원으로 제조업의 2.48%를 나타내는 데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수요가 3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1960년대에 자동차산업이 차지한 위치는 극히 미미한 정도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생산액이 70조 4,150억 원으로 제조업의 11.10%, 수출액에서는 189억 6,700만 달러로 전산업의 9.79%를 차지하면서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부가가치는 26조 5,090억 원으로 제조업의 10.94%, 종업원 수는 21만 2천 명으로 제조업의 7.87%를 나타낼 정도로 높아졌다. 결국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또는 전산업에서 10% 안팎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산업의 고용효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산업은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높은데 그 중에서도 고용효과가 특히 높아서 직접부문 이외에도 간접 고용효과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에는 총 고용의 10% 이상을 자동차부문이 차지할 정도로 유발효과가 높다.



GM대우 생산라인 모습 (2006)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와 산업연관표 등의 관련 자료를 보면, 자동차산업의 간접 고용효과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판매 · 정비부문에서 22만 3천 명, 자재부문에서 9만 3천 명, 유통 관련부문에서 25만 2천 명, 운수 등 이용부문에서 72만 2천 명 등에 이르고 있다. 즉 자동차산업의 고용효과는 직접부문과 간접부문을 합하여 15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및 2004년도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산업 고용규모 (단위 : 명)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자동차 제조 부문	234,913	240,704	246,929
자동차 판매 · 정비 부문	223,178	221,875	213,666
생산 자재 부문	92,475	97,866	101,549
운수 · 이용 부문	722,348	741,570	739,387
유통 · 관련부문	251,998	233,612	228,696
자동차사업 직 · 간접고용(A)	1,524,912	1,535,627	1,530,227
비율 (A/B)	10.44	10.43	10.33
총 취업자(B)	14,608,000	14,729,000	14,819,000

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5 한국의 자동차산업』, 4쪽.

※ 자동차 제조 부문 : 완성차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 자동차 판매 · 정비 부문 : 자동차판매,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 자동차 수리업.

※ 생산자재 부문 : 철강, 금속제품, 전기전자, 고무제품, 플라스틱, 화학제품, 유리제품, 등

※ 운수 · 이용 부문 : 여객운수업, 화물운송업, 육상화물취급업, 정류장업, 유료도로운영업, 주차장업, 자동차임대업, 폐차업, 화물중개 및 대리점

※ 유통 · 관련 부문 : 석유정제처리업, 윤활류제조업, 금융 · 광고, 보험업, 주유소운영업, 도로건설 · 유지, 운전학원 등

그러나 이상의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에 불과할 뿐 인천광역시나 부평구만의 자료는 아직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단지 GM대우의 부평공장이 부평구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은 10% 안팎을 넘어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현재 대우자동차가 미국 GM에 인수되어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잃어버렸지만 그 외의 경제적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GM대우의 2004년도 총 구매액은 5조 2,287억 2,400만 원, 이 중에서 인천지역에 있는 부품업체에서 구매하는 금액은 GM대우 총 구매액의 20% 정도인 1조 678억이다. 그러나 부평구 지역에는 부품업체가 작은 규모의 2개 업체만 있을 뿐 매출액 면에서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2004년도 GM대우 부품업체 및 구매액 현황 (금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 매출액	GM대우 구매액
전 부품업체(A)－직납	316	104,206	43,004,950	5,228,724
인천지역 부품업체(B)	52	13,558	4,993,319	1,067,799
비중 (B/A, %)	16.5	13.0	11.6	20.2
부평구 부품업체(C)	2	121	17,427	13,778
비중 (C/A, %)	0.6	0.1	0.0	0.3
비중 (C/B, %)	3.9	0.9	0.4	1.3

출처 : GM대우구매총괄 제공

자동차회사로 인한 경제효과 중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고용효과이다. 2006년 6월 말 기준 GM대우의 총 종업원은 20,400명이며, 이 중에서 부평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11,750명이다. 이 종업원을 행정구별로 집계하여 보면 부평구 3,300명, 계양구 2,070명, 서구 850명, 연수구 750명, 남동구 420명, 동구 80명, 중구 40명, 강화군 6명으로 인천광역시에 총 7,516명의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4,200명 정도가 부평 인근의 부천, 김포, 서울의 오류동, 목동 등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고용효과가 확대되려면 GM대우의 생산량이 늘어 현재의 2교대 작업이 3교대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제3절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1. 생산도시 '부평'



1970년대 부평수출공업단지(제4단지) 모습

부평지역은 1960년대 이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4단지를 비롯한 공업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유력한 생산도시로 성장하였고, 공업생산력의 확장추세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부평지역 일대에 조성된 공업단지들은 또한, 항만 관련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었던 인천지역에 2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인천 지역은 전통적으로 하역업, 창고업, 운송업 등 항만 관련 서비스업종이 주로 입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4단지, 제5단지, 제6단지, 인천기계공단, 인천중소목재가공단지 등이 차례로 건설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2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던 것이다.

1983년 당시 인천직할시 북구와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수는 모두 292개소였는데, 1986년 600개소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420개소, 그리고 1991년에는 7배에 가까운 1,997개소로 증가해 갔다. 종업원 수 역시 1983년 41,235명에서 1991년 162,329명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기계공업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어 1983년 168개이던 공장수가 1991년 897개로 증가하여 점유율 45%를 차지하였다. 부평지역은 국가차원의 기간산업투자와 수출장려정책에 부응하면서 공업부문이 급격히 성장하여 인천 지역의 공업을 선도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 이 글은 이갑영(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부평의 공장등록 추이 (1983~1992)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섬유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기타	
	공장 수	종업원 수	공장 수	종업원 수	공장 수	종업원 수	공장 수	종업원 수	공장 수	종업원 수
1983	292	41,235	38	2,356	47	8,225	168	28,392	39	2,262
1984	378	52,916	53	3,286	61	106,752	13	35,997	51	2,958
1985	525	72,094	82	5,084	78	13,650	290	49,010	75	4,350
1986	600	79,562	119	7,378	92	16,100	802	51,038	87	5,046
1987	659	85,065	154	9,548	101	17,675	310	58,390	94	5,412
1988	1,206	153,006	184	14,943	172	34,376	521	77,442	329	26,245
1989	1,328	139,117	79	6,711	154	20,643	485	56,596	610	55,167
1990	1,420	147,628	87	6,479	163	6,561	555	74,030	615	60,558
1991	1,997	162,329	134	17,841	242	8,221	897	76,440	724	59,827
1992	1,767	132,719	109	10,407	214	6,903	692	58,386	752	57,023

출처 : 인천직할시 북구, 『북구통계연보』, 1993. ; 인천직할시 서구, 『서구통계연보』, 1993.

1980년대 초반의 우리 경제는 1979년에 엄습한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잠시 주춤하였다. 1970년대에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경제는 1979년에 불어 닥친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으며, 특히 10 · 26사태 이후 정치적 변화를 거치면서 위기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었다.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4.8%로 곤두박질쳤으며 도매물가는 무려 39.0%나 치솟았고, 공장가동률은 74%로 하락하여 휴업과 폐업이 빈번해지면서 실업률은 5.2%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초반의 불황과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갔다. 특히 실업자는 점차 감소했지만 방대한 불완전취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또는 중소영세기업과 도시비공식부문에 종사하면서 생존을 위해 취업경쟁에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기업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1982년 189,160원, 1984년 213,345원, 1986년 247,543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1982년 43.9%, 1984년 43.4%, 1986년 46.1%에 머물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었다. 최저생계비

충족률 자체는 전국 평균치와 유사하지만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고 나서야 최저생계비충족률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후에도 인천 지역의 임금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과 대규모기업들이 입지하게 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을 통해 임금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인천 지역의 임금 추이 (제조업) (단위 : 원, %)

구분	1982	1984	1986	1988
월급여액	189,160	213,345	247,543	360,052
최저생계비	431,131	491,221	537,246	671,828
최저생계비충족률	43.9	43.4	46.1	53.6
전국최저생계비 충족률	43.5	46.9	51.6	53.0

출처 : 한국노총, 『1990년도 임금인상활동지침』, 1990. ; 노동부, 『직종별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해당년도.

※ 월급여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임.

※ 최저생계비 충족률은월급여액을 최저생계비로나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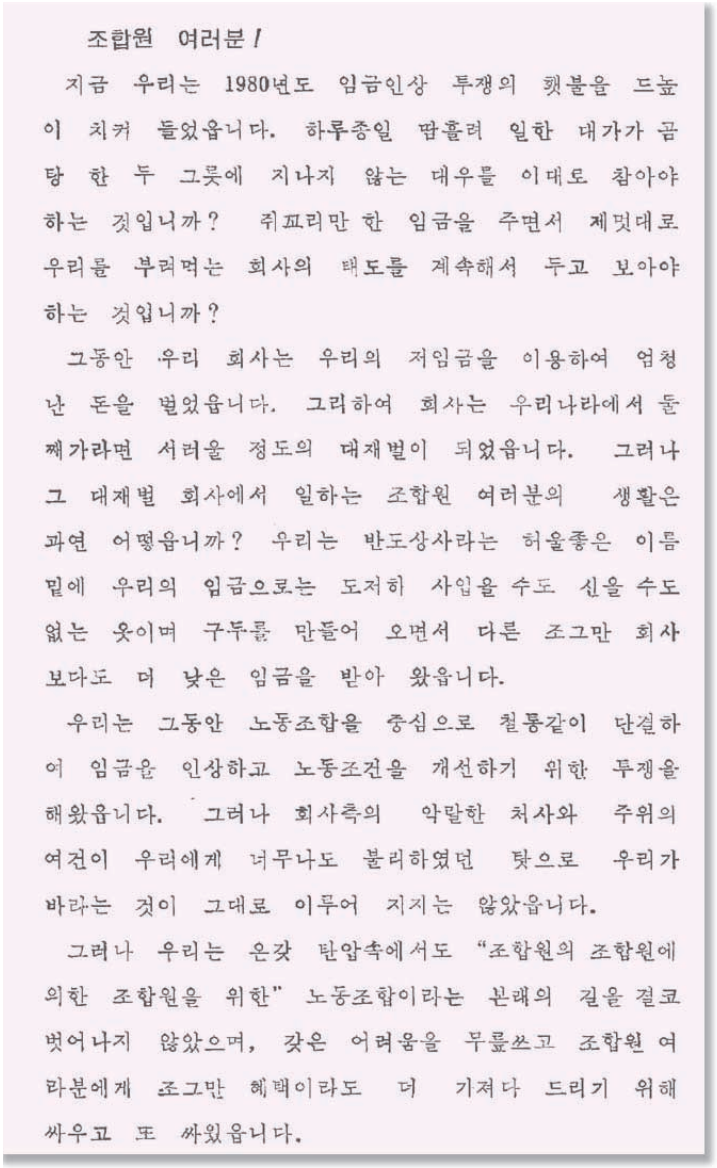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1970년대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을 살펴볼 때, 1975년 50.0시간에서 매년 증가하여 1982년에 53.7시간, 1984년에 54.3시간, 1986년에 54.8시간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52.6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노동자들은 전국평균치보다 2~4시간 많은 장시간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1982년에 57.4시간, 1984년에 56.6시간, 1986년에 56.5시간이었다. 1988년에는 55.7시간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치보다 3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법정기준인 1일 8시간 노동, 주당 48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이 일상화하면서 세계적인 장시간노동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1980년대 들어와 유럽국가들의 주당노동시간이 35~38시간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무렵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증가시켰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는 1975년 79,819건에서 1980년에는 40.5%가 늘어난 112,111건이 발생하였으며, 1984년에는 157,985건으로 그리고 1987년에는 1980년에 비해 26.2%가 늘어난 141,495건을 기록하였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수는 1975년 80,570명에서 1980년

에는 40.7%가 늘어난 113,375명이었으며, 1984년에는 159,306명이었고 1986년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4년의 경우, 하루에 산업재해가 432건 이상 발생하여 436명 이상이 재해를 입었는데, 산업재해로 하루에 4.6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49.7명 이상이 장애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서히 노동운동의 대열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1960~70년대를 통해 누적되었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이른바 '민주화의 봄'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발생적인 경제투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은 인천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부평지역에는 공업생산력이 집중적으로 입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데는 몇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 역사적 · 주체적 · 지리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합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80년도 임금인상 투쟁의 횃불을 드높이 치켜 들었읍니다. 하루종일 땀흘려 일한 대가가 곰탕 한 두 그릇에 지나지 않는 대우를 이대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쥐꼬리만 한 임금을 주면서 제멋대로 우리를 부려먹는 회사의 태도를 계속해서 두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 회사는 우리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읍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재벌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대재벌 회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여러분의 생활은 과연 어떻읍니까? 우리는 반도상사라는 허울좋은 이름 밑에 우리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사입을 수도 신을 수도 없는 옷이며 구두를 만들어 오면서 다른 조그만 회사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아 왔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단결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해왔읍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악랄한 처사와 주위의 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하였던 탓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탄압속에서도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본래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으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합원 여러분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더 기져다 드리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웠읍니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섬유노조 반도상사 지부 긴급확대 간부회의' 명의로 작성된 '임금인상 투쟁에 모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 일부 (1980. 4. 16)

우선, 객관적 조건으로는 인천 지역은 공업단지가 밀집한 생산도시로서 노동자들이 수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를 통하여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동자들이었으며 가족까지 포함시키면 시민의 80% 이

상이 노동자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주로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전기 등 금속업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공업단지 근처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1970년대에는 섬유, 방직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와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공업 분야와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이는 인천 지역, 그 중에서도 부평지역이 전국노동운동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역사적 조건으로는 인천 지역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때부터 노동운동의 전통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일제강점기에는 부두노동자나 정미소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해방 직후에는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세력이 강성했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부두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회, 민중교회 등의 활동으로 선진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동일방직투쟁, 반도상사투쟁 등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1980년대의 노동운동으로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인천 부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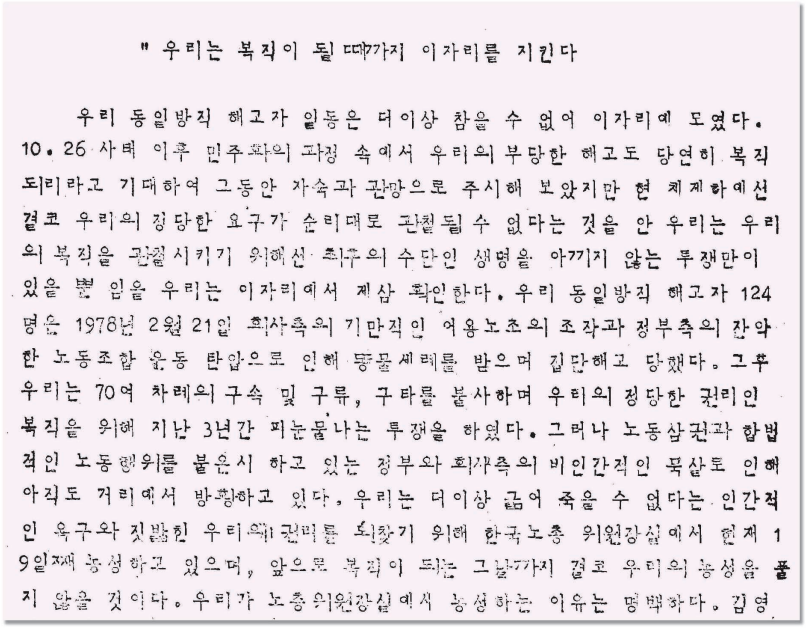
주체적 조건으로는 학생이나 지식인 등 노동운동에 대해 의식을 지닌 세력들이 인천 지역에 집결하였으며, 이들이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광주항쟁 이후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은 서울에 접근하기 쉽고, 대규모 공장들이 많아 노동운동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던 인천 지역의 공업 단지 특히 부평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위장취업 등을 통해 공장에 들어가서 소모임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의식을 일깨우거나 지역단위의 연대조직을 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1980년대 이후 부평지역의 민주노동운동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조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인천 지역에서 전개되는 노동운동은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나갔으며 이것은 다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울산, 마산, 창원 등 대규모 공업 단지가 입지한 지역들의 노동운동이 강도나 규모에도 불구하고 파급력이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되는 인천 지역의 특성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은 주·객관적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1980년대 우리사회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했으며 따라서 인천 지역은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려지게 되었다.

1980년 초, 인천 지역에서는 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물론, 신규노동조합결성, 어용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인천제철 노동자 700여 명은 1980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임금 인상, 문제 간부 퇴진 등 8개 항을 내걸고 항의농성을 벌이다가 주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동국제강 노동자 200여 명은 임금 인상과 복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며 4월 28일 부산과 인천에서 동시에 파업을 단행하였다.



"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이자리를 지킨다

우리 동일방직 해고자 일동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이자리에 모였다. 10·26 사태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당한 해고도 당연히 복직되리라고 기대하여 그동안 자숙과 관망으로 주시해 보았지만 현 체제하에선 결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순리대로 관철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우리는 우리의 복직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회사의 수단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투쟁만이 있을 뿐 임을 우리는 이자리에서 재삼 확인한다. 우리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은 1978년 2월 21일 회사측의 기만적인 어용노조의 조작과 정부측의 잔악한 노동조합 운동 탄압으로 인해 똥물세례를 받으며 집단해고 당했다. 그후 우리는 70여 차례의 구속 및 구류, 구타를 불사하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복직을 위해 지난 3년간 피눈물나는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삼권과 합법적인 노동행위를 불윤시 하고 있는 정부와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묵살로 인해 아직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굶어 죽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욕구와 짓밟힌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현재 19일째 농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직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의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노총위원장실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김영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124명 일동'이 배포한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일부(1980. 5. 13)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편, 1970년대 이른바 '똥물세례'를 받고 해고되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제대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1980년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총각)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4월 12일 서울 중심가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일부가 구속되었는데, 30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4월 25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부권력은 노동조합정화조치와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조치를 취해갔다. 이는 한국노총과 산별노조의 상층을 지배해 온 간부들의 축출과 지역지부의 해체, 19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노조의 파괴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협의회법의 제정·공포로 이어져 갔다. 이 중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결성에서부터 조직형태, 조직운영,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개정되었는데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신설, 노동조합 설립 요건의 강화, 기업별 노동조합의 강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 군부권력의 혹독한 탄압을 견디어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부평의 반도상사 노동조합도 해산당하는 운명을 겪게 된다.

1980년 8월 2일, 계엄사령부는 반도상사 노조지부장 등 간부들을 연행하여 3개월 전 임금인상투쟁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하는 동안 사용자는 적자경영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준비를 하였으며, 섬유노동조합은 지부장과 지도위원을 '정화'하였다.

반도상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시도해 나갔는데, 교육 내용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간부들이 연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회사에는 경찰관 5명이 상주하면서 노동자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회사 측에서는 정상 가동을 기대하며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표를 유도하여, 1980년 말에는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으며,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정상 가동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1981년 2월 3일 휴업이 공고되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34명의 노동자들은 1981년 3월 31일 "역사는 발전

하고 세상만사는 항상 변한다는 진리를 잊지 맙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반도상사노동조합의 깃발을 내렸다.

그러나, 1983년 말 군부권력은 끊임없는 사회적 저항과 국내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자율화 조치', '유화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고 노동운동도 급격하게 분출됐는데, 특히 '블랙리스트철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가운데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 불분명한 이유로 또 다시 해고당하는 사태가 속출했는데, 이는 바로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

1983년 말부터 1984년 초까지 지역연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철폐운동이 벌어졌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선창산업, 동일방직, 태평특수섬유, 신도실업 등에서 해고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블랙리스트의 철폐, 근로감독의 철저 등을 요구하며 1983년 12월 15일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이 이튿날 경찰에 연행되자 인천도시산업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재야 민주세력들이 연대하여 일꾼교회, 답동성당 등에서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블랙리스트의 철폐를 주장하는 철야집회와 농성을 가졌다.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은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출신 활동가들과 노동운동 지원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1980년대 초반 정치적 암흑기에 노동운동의 맥을 이어주었다.

2.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1980년대 군부권력의 탄압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식인들과 학생운동가들 사이에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무렵이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공장에 들어가 현장노동을 경험하는 이른바 '공활'이 학생운동가들 사이에서 거의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학생들은 대대적으로 노동현장에 직접 들어가 노동자가 되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야학과 소그룹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부권력과 기업들은 학생운동가들의 현장활동이 확산되자 이들을 '산업평화를 파괴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위장취업자'로 규정하여

색출하려고 하였지만 움직임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인천지역은 대공장과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노동운동의 파급력이 큰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몰려들었다. 1984~1985년을 통과하면서 부평지역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수많은 공장들에는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의 학생운동가들이 '공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에 몰두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부평의 노동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한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민주화운동과 임금인상투쟁은 임금인상과 근로기준법준수투쟁 등을 인천 지역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인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 대우자동차 노동조합민주화 투쟁

1984년 당시 대우자동차에는 기능직 4,240명을 포함하여 7,224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임금수준은 학력에 따라 중졸 128,000원, 고졸 131,100~134,100원, 전문대졸 229,060원 등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전체 직원의 58.7%를 점유하는 기능직 사원과 다른 직급 종사자들 사이에는 격심한 임금격차가 있어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대우자동차 임금 추이 (단위: %)

구분	명목임금수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지수	부가가치생산성지수	노동장비율지수
198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1	123.2	121.3	101.6	137.1	168.3
1982	148.1	130.1	113.8	188.5	188.5
1983	180.4	134.5	134.1	350.0	190.2
1984	192.9	137.5	140.2	361.4	183.5

출처 : 한국 기독교산업 개발원, 『대우자동차파업농성』, 1985, 60쪽.

기능직 사원들의 임금추이는 노동생산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84년의 부가가치생산성은 1980년과 비교해 3.5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4배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의 향상에는 설비자본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노동장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1982~1984년 사이에도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부가가치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자동차의 총부가가치 가운데 기능직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6.9%에서 1981년에는 49.4% 그리고 1984년에는 27.3%로 절반이상이나 줄어드는데, 이러한 노무비의 감소율은 제조업체 일반의 감소추세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저임금이 기능직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강요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제도에 관하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상여금지급 문제이다. 1979년까지는 연간 400%씩 지급하다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3년간 합계 245%의 상여금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에 상여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노동조합집행부, 조합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군필복직자에 대한 처우문제이다. 군필복직자의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입대전과 동일한 호봉에 머무르게 하였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에서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여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기본금의 150%만 지급하였다.

넷째, 주 44시간 노동제이기에 한 주만 토요일에 근무하면 다른 한 주의 토요일은 지난주에 미리 4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휴무가 되는데, 휴무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지급이 시행되지 않았다.

다섯째, 회사는 수시로 품질향상을 위한 합숙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직무에 관계되는 교육이므로 일과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1979년부터 시행된 기능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근버스승차금지조치, 리본바꿔달기,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온타임운동 등의 '기강확립운동' 등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욕감을 토로하고 있었다.

1980년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예비군훈련문제와 상여금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즉, 오전 예비군교육을 끝내고 귀가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오후 근무를 요구하자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 집행부

와 합의하여 상여금을 20일 앞당겨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지급율이 75%에서 50%로 감소되자 노동조합 집행부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초기에 제기됐던 문제들은 처우와 관련된 사항들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처우문제가 제기된 이후 2~3개월 뒤 노동조합원 40여 명이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발하여 '군복직자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조직, 부서별로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집단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원들의 활동은 공개집회를 열어 노동조합 집행부의 무기력과 직무태만, 반노동조합적인 성격을 폭로하거나 600~700여 명이 집회와 시위를 해 나갈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어 갔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집회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법 등의 기본내용들을 교육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중집회와 교육을 통하여 학생운동가들 이외에 핵심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민주화세력의 주체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운동의 핵심인자로 투쟁조직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갈등은 1984년 12월 18일 대의원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관철시키려 하자 노동조합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의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대의원들과 열성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발족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조합원들의 대표기구로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기구가 구성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더욱이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는 기관지인 『대우자동차노동조합정상화의 소식』(이후 『근로자의 함성』으로 바뀜)을 발간하고 있었고, 열성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활동비와 기관지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대표기구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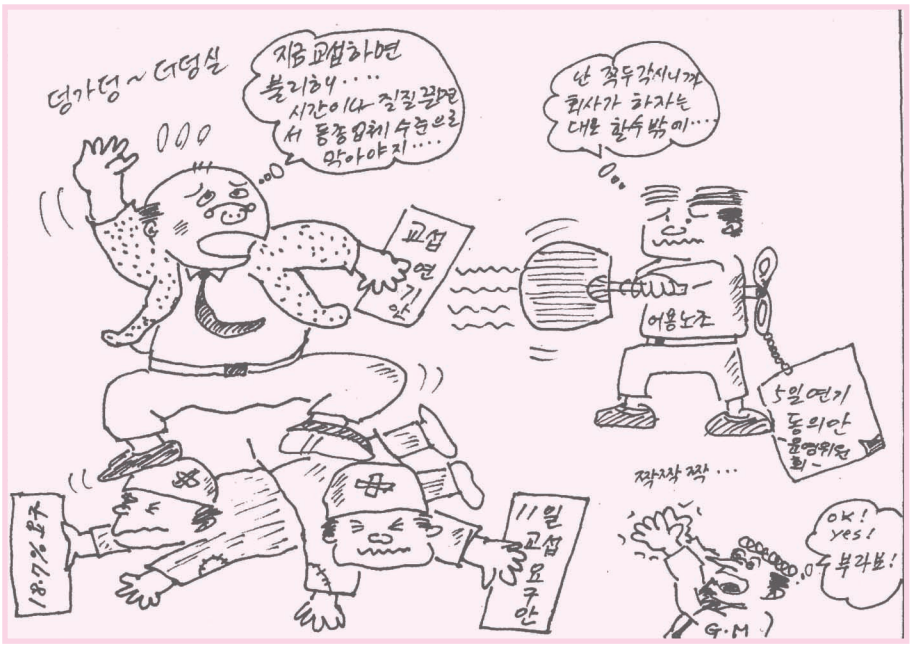
이렇듯 일반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집행부간의 갈등 속에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의 필요성과 투쟁을 통한 연대의식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2)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대우자동차는 1984년에 145억이라는 창업 이래 최대의 순이익을 거두었는데,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대의원 및 열성조합원들은 1985년도의 임금교섭이 이제까지 형성된 노동운동의 열기를 경제적인 실리투쟁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보고 있었다.

『근로자의 함성』 제7호를 통해 밝힌 1985년도 임금교섭 4대원칙은, 최저생계비 부족분의 연차적 보상, 실질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비상승분은 전부 임금인상에 반영, 생산성 향상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임금인상에 반영,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인상 등이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인상률 24.9%, 51,6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①최저생계비 부족분 8.6%, 17,900원 ②생계비 상승률 8.6%, 17,800원 ③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공정분배 7.7%, 15,900원 등이다.

1985년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예년에 볼 수 없이 조합원들의 열기가 고조되자 회사측은 현장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금교섭일을 일방적으로 4월 16일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집행부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임금교섭 연기조치를 수용하였지만, 열성조합원들은 4월 8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700여 명이 참석한 비상조합원총회를 개최, 임금 18.7% 인상과 제수당 관철, 단체교섭 일자를 11일로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튿날인 4월 9일 중식시간에도 집회를 개최, 400~500명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사무실로 몰려가 위원장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들을 관철시켰다.



『근로자의 함성』 10호 (1985. 4. 10) 표지에 실린 만평

임금교섭은 노동조합원들의 실력행사로 4월 11일과 4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이 임금 5.7% 인상과 제수당 5% 인상을 고수하자 격분한 노동조합원들은 파업결의를 촉구하였다. 이때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교섭을 더 진행해 본 후 진전이 없으면 파업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노동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여, 결국 대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4월 16일 오전 8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4월 16일의 파업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식으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파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 투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조합원들에 의해 파업과 농성이 주도되어 나갔다. 파업기간 중에 필요한 준비물들도 열성조합원들에 의해 마련되었고, 조합원 교육과 홍보 역시 열성조합원 또는 대의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에 걸쳐 진행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기본급 인상 등의 성과를 올리는 것과 함께 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1명 해고, 1명 자진사퇴, 4명이 3개월 정직 등을 당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

째, 1984년 하반기 이후 군부권력의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과 재벌기업에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둘째, 대규모 재벌기업 산하의 중공업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종래와는 다르게 남성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셋째, 지식인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부상하고 일반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넷째, 종래에는 대규모 노동쟁의가 자연발생적이었는데 반해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조직적인 쟁의라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관계법의 제약을 뛰어넘어 탈법적인 투쟁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섯째, 투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철저하게 현장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외부의 노동자단체나 민주화운동 단체와 연대하기보다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노동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파급력을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공장들의 투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정책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가이드라인 5.2%선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한국노총은 노동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에서도 노동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실제로 노동법이 개정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대우자동차 파업의 충격 효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진노동자들과 일반노동대중들과의 결합문제이다. 1980년대 상반기 노동운동론의 대체적인 경향은 준비론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소그룹이 결성되고 이것이 확대되어야만 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 전에 신분이 노출되면 대부분의 노동운동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에 반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경우, 신분이 노출된 이후에도 과거의 소극적인 대응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공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대우자동차의 노동자투쟁을 선도해 갔던 것이다.



파업 중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출처 :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를 열망하는 조합원 일동 외,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백산서당, 1985.

이후에 대우자동차의 투쟁은 1985년 6월에 벌어

진 구로연대투쟁과 대비되어 노동운동의 흐름에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두 경향'을 남겨놓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중심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대우자동차투쟁을 평가하는 한편으로 정치투쟁의 방향을 시사해준 사례로 구로연대투쟁을 주목하면서 격렬한 노동운동노선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한편 1985년에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부평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각 공장에서는 노동조합결성투쟁, 노동조합민주화투쟁 그리고 임금인상투쟁 및 근로조건개선투쟁 등이 연이어 일어났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어용노동조합 민주화투쟁을 벌인 공장은 대한마이크로전자, 대림자동차, 진도(주), 경동산업, 대우중공업 등이었고, 근로기준법 확보투쟁을 벌인 공장은 서울금속, 범한무전, 경신, 이천전기, 대림통상, 한국후지카, 한일스텐레스 등이었으며, 임금인상투쟁을 벌인 곳은 영창악기, 대성목재, 한영알미늄, 신흥목재 등이었다. 이러한 공장들은 노사분규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거나 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운동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의 민주노동조합운동세력들은 1984년에 결성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뒤를 이어 1985년 2월 7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인천지역협의회'를 결성하여 노동조합 결성 및 지원, 선진노동자 교육 등을 벌여나갔으며, 같은 해 4월 10일에는 인천과 구로지역 해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가, 그리고 9월 7일에는 '인천지역노동3권쟁취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85년 6월 구로연대투쟁 이후에는 단위공장들의 범위를 넘어 조직적 연계를 형성하는 대중적인 연대투쟁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을 위한 정치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서울지역에는 1985년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이 창립되었고, 이와 맥을 같이하여 인천지역에서도 1986년 2월 7일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이 결성되었다. 인노련은 1984~1985년 인천지역노동자투쟁의 성과를 수렴하는 조직으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인천지역협의회', '인천지역노동3권쟁취투쟁위원회',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등이 결합한 것이다.

인노련은 창립되자마자 다양한 연대투쟁을 벌이면서 지역차원의 임투 및 노동운동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1986년 3월 10일에는 지역 최초로 공장을 벗어나 강화도 전등사에서 지역 노동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투전진대회'를 가졌다. 또한 임투를 앞두고 각 공장의 활동가들에 대한 감시, 미행 그리고 해고 등의 탄압이 잇따르자 4월 12일에는 부평역 앞에서 '노동운동탄압, 노동3권보장, 생활임금쟁취'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또한 영등포 한미은행점거, 전태일기념관 농성투쟁 등을 전개해 갔다.

인노련은 대중투쟁을 지도, 지원하며 선진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를 목적으로 했던 인천지역 최초의 정치조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장에 기반을 구축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선진노동자 중심의 선도투쟁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운동이념에 따라 사상투쟁이 가열되면서 결국은 정치이념에 따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인노련의 다수파는 1987년 6월 26일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하 인민노련)을 결성하였고, 소수파는 1988년 2월 '인천지역노동자투쟁동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어서 인민노련은 다시 조직사상의 차이로 갈라져 한 그룹은 1987년 9월 '인천지역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가 해체하고, 1988년 2월에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그룹은 인민노련에 잔류하였다.

이 밖에도 1988년 3월에는 '인천지역노조운동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인천부천민주노동자일동'이 1988년 여름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 조직들은 1988년 6월 10일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평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지역은 노동운동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싼 이념논쟁, 대중조직과 결합방법 및 투쟁의 형태를 둘러싼 다양한 실험의 발원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었다.

3. 5·3인천항쟁에서 6월항쟁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과 구로연대투쟁을 겪은 이후 군부권력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종전의 유화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위장취업자'에 대한 대

대적인 색출작업에 나섰지만, 구로연대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은 이론적 · 조직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었다.

먼저 한국자본주의의 계급적 · 민족적 모순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한국자본주의의 '사회성격'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시에 객관적 모순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사회운동노선에 대한 논쟁이 폭발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체화된 것이 이미 지적했던 서울노동운동연합이며, 1986년 2월 7일 부평지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인천지역노동자동맹이다.

이와 같은 대중적 정치조직이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은 상당히 발전하였다. 특히 야당인 신민당이 2월 2일 '1천만개헌서명운동'에 돌입하고, 2월 24일 필리핀의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으면서 사회적으로 민주화 열풍이 뜨겁게 불기 시작했는데, 경인지역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은 주로 학생운동과 결합한 가두시위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4월 12일 부평역에서도 '생활임금쟁취'와 '군부독재타도' 등을 내걸고 가두시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위들은 개별기업의 범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는 정치투쟁으로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1986년에 들어 고양되기 시작한 정치투쟁은 5월 3일 '인천항쟁'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광주, 대구, 전주를 거치면서 전개된 신민당의 '개헌현판식'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정치투쟁의 열기는 인천으로 북상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인천항쟁에는 경인지역의 노동자, 학생, 재야 등 사회운동 세력들이 총집결하였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개헌을 주장하는 군부권력과 야당 뿐만 아니라 여야의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에 대해서도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결국 신민당의 대회는 무산되었다.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인천 · 경기지부의 결성대회는 4 · 30청와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개최가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당은 인천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사회운동 세력들과 공동보조를 포기하고 군부권력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낸 것을 자축하는 분위기로 대회를 이끌어가려고 했다. 신민당은 4 · 30청와대타협을 통해, 개헌논의는 하지만 개헌을 위한 집회나 가두서명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주었던 것

이다. 이에 사회운동 세력들은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신민당과 군부권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였다. 따라서 인천에 나타난 유인물이나 구호, 행동들은 앞서 신민당의 결성대회가 열렸던 부산, 대구, 광주대회와는 성격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1986년 5월 3일 정오경부터 시작된 5·3 인천항쟁은 이날 저녁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 등장한 유인물들의 제목과 단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반정권 타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인천지역노동자동맹)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 술책을 폭로한다"(5·3노동자투쟁위원회)
"신민당이시여! 민정당의원 멱살만 잡지 말고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군사파쇼 정권타도의 대열에 동참하자"(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창립에 부쳐"(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민주, 애국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민족해방과 민주쟁취를 위한 기독학생투쟁위원회)
"현 시국을 보는 우리의 입장"(감리교신학대학원학사원우회)
"군부파쇼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인천민주학생일동)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시민과 더불어"(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광주학살원흉군부파쇼, 미제국주의처단 및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를 위한 범국민실천대회에 부쳐"(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군부권력은 5·3인천항쟁을 좌경용공세력들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면서 수세국면을 전환하기에 몰두했는데, 형법 제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또한 신민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5·3 신민당 개헌추진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의 무산은 전적으로 현 정권의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공작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운동세력 일부는 "대중의 정서를 무시한 모험적이고 관념적인 충격요법식 투쟁전개", "운동권의 분열과 혼란의 극대화의 표출", "정권에 대한 투쟁보다는 신민당과 민추협에 공격이나 투쟁강조", "미제축출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구호에만 머문 반미노동운동" 등을 근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5·3인천항쟁은 민중운동세력이 제도야당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적인 실체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천항쟁은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 사이에서 전개된 가장 대규모의 반정부민주화 투쟁이었으며, 특히 민중운동의 주체선언이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이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천항쟁은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급진적 현장운동이나 전투적인 학생운동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급진적 민주주의세력들이 대중적인 투쟁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다. 인천항쟁을 통해 자유주의적 민주화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에 민중운동세력이 개입하여 자유주의적 민주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으로 급진적 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5·3인천항쟁은 민주변혁운동이 보수야당세력에 대해 차별성의 획을 분명히 긋고, 민주화운동과 민주변혁투쟁의 핵심주체이자 독자적인 실체로서 스스로를 정립해낸 자기 주체선언이었다.

그런데 5·3인천항쟁은 튼튼한 대중적 조직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클적 수준의 지도조직에 의한 조직적이지 않은 가두투쟁으로서 극심한 조직적·정치적 분열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이후에 군부권력은 초강경정책을 추진하여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세력의 모든 역량을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는 듯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성고문'까지 불사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운동가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된 것은 물론 1980년대를 통하여 성장한 모든 자주적인 노동운동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렸다. 5·3인천항쟁 이후 수세에 몰리던 노동운동은 1986년 말경에 과도한 정치투쟁이나 전위중심의 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는 의의를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전위조직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1987년의 '6월항쟁'을 맞게 된다.



5 · 3 인천항쟁 당시의 모습 (『민중의 소리』 17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

우리 역사에서 최대의 민중정치투쟁으로 평가되는 6월항쟁의 계기는 박종철고문치사 · 은폐조작과 4 · 13호헌선언이었다. 4 · 13호헌선언에 대해 경제단체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뇌에 찬 구국의 영단'을 환영했으며 미국도 내용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야타협을 강요했으나, 변호사, 교수 등이 호헌반대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천주교에서 '고문치사진상조작'을 폭로하자 군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를 계기로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조직되어 6월항쟁을 지도하게 되었다.

6월 10일 민정당의 '대통령후보지명대회'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고문살인은폐규탄 및 호헌철폐규탄대회'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그리고 인천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무려 24만여 명의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하여 거리로 나선 것이다. 중소상인들이나 사무직노동자들까지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공장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부평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단지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 시위대에 합류하여 노동계급의 경제적 ·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심야 가두투쟁에 나섰다.

인천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은 6월항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천 · 부천 지역의 노동자 1,000여 명은 부천 석왕사에서 3 · 1절 집회를 가진 이후 호헌철폐와 노동3권보장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부평지역 노동자 400여 명은 5월 3일 부평 샘터교회에서 메이데이 행사를 가졌다. 5월 24일에는 부평역에서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

의회, 인천지역민주단체연합으로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발전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려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149명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인천 지역의 6월항쟁은 부평역에서 시작되었다. 6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부터 가톨릭회관에서 국민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가두방송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부평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오후 6시경 애국가를 시작으로 택시기사들이 경적 시위를 벌였고, 잠시 후 십자가를 앞세우고 도로를 점거하자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하여 2,000여 명의 시위대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는데, 퇴근하는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계속 늘어나 부평역에서 백마장 입구까지 가득 메웠다.

드디어 대중집회가 열리자 수많은 시민들은 직접 분노를 토해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하거나 피로회복제, 빵과 음료수 등을 시위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지나가는 버스 속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전경에게 쫓기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시민들은 한결같이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는 등 부평시민 모두가 시위에 동참하였다.

오후 7시가 지나자 퇴근한 부평의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야근하는 노동자들도 조업을 중단하고 옥상과 창문에서 박수를 치며 시위대를 지지하였다. 시위대는 공단을 끼고 청천동으로 이동하여 대중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다연발 최루탄을 쏘자 시위대는 투석으로 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단일대의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시위대는 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효성동사거리에서 10시경에 다음날의 투쟁을 약속하고 해단식을 가졌으며, 남아있던 500여 명은 부평역, 안병원 등에서 새벽 1시경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 이어 나갔다.

6월항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 11일, 12일, 13일에도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졌고, 14일에는 인하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교내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숭의로터리, 신흥로터리를 거쳐 답동 가톨릭회관 앞에서 동인천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15일에는 학기말고사를 전면 거부하고 단과대학별로 가두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6월 17일에는 동인천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고, 주안1동 성당 앞에서는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기도회가 열렸다. 오후 5시반경 학생들이 먼저 동인천역 도로 위에 앉아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이 합세해 시위대는 순식간에 6,000~7,000여 명으로 늘어나 대중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최루탄 난사를 자제하고 평화집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사과탄을 무차별하게 난사하면서 부상자들이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쏘지마라, 평화시위 보장하라'를 외치며 지속적으로 대치했다.

오후 8시경 주안1동 성당에서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기도회가 다시 열렸다. 6·10대회에 대한 서울명동의 상황과 인천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헌법 쟁취하자', '최루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촛불행진을 벌여 나갔다. 촛불행진이 끝난 뒤에도 오후 10시경부터 시민들은 즉석 대중집회를 열었는데, 전두환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연설이 끊이질 않았으며, 11시가 넘은 시각에 시위대가 '독재타도'를 외치며 석바위사거리에서 법원쪽으로 진출하자 경찰은 최루탄, 다연발탄 등으로 폭력진압하면서 석바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6월 18일은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다. 6·10국민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고 시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경찰은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난사하여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겼는데, 이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월 18일을 '최루탄추방의 날'로 정한 것이다.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오후 1시에 출정식을 갖고 각각 부평과 동인천에 집결하였다. 오후 6시경 20,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모여 '호헌철폐와 최루탄추방을 위한 인천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부평 중앙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열기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경찰은 어김없이 진압에 나섰으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경들을 포위하여 자진 무장해제시키기도 했는데, 밤 11시 40분경 부평 개선문예식장 앞에서는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군부독재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백마장에서 청천동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도로가 메우기 시작했는데, 택시들은 경적을 울리며 함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밤새워 진행되던 집회는 19일 0시 30분경 20,000여 명

의 노동자, 시민, 학생이 참여하여 택시, 승용차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행되었다. 노동자와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전투조는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경찰과 맞섰으나 새벽 2시를 넘어서도 계속되던 시위에 경찰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청천동시장쪽으로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압박했는데 이미 백마장 방향도 경찰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는 포위된 상태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최루탄이 무차별하게 난사되자 시위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대열이 흐트러진 시위대가 산곡동 성당으로 뛰어들거나 인근의 집으로 피신하자, 경찰들은 골목으로 뛰어가는 시위대뿐만 아이라 산곡초등학교와 가정집으로 피신한 시위대까지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 밤을 지샌 노동자, 학생 250여 명은 19일 아침 7시에 플래카드를 들고 청천동으로 행진하다가 청천파출소를 불태웠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667명이 연행되었다.

6월 26일에는 평화대행진이 있었는데, 부평로에서는 노동자,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오후 8시경 8,0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대중집회를 개최했는데, 한곳에서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보고대회가 집행되었다. 백마장 입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찰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연행자들을 구출하기도 했으며, 오후 10시 30분경에는 부평공업단지의 대우자동차, 한독시계, 동서식품 등의 노동자들이 시위대를 공격하는 경찰을 향해 돌진하여 경찰버스에 연행되어 있던 사람들까지 구출하면서 집회에 합세했다. 시위와 집회는 자정이 넘어 새벽 2시까지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부평로 모습(1990)



이렇듯 인천지역은 6월항쟁 이전부터 민주화열기가 뜨겁게 전개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퇴근 이후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6월항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6월 26일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 건설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노동자대투쟁기 부평의 노동운동

6월항쟁으로 군부권력의 억압이 완화된 틈새로 일어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규모, 강도 그리고 지속성면에서 감히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1987년 7~8월에 집중된 '노동자대투쟁'은 우리사회에서 노동계급이 형성된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이었으며, 대중적 항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은 6월항쟁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민중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역량 확대나 활발한 민주노조운동 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노동자 대투쟁기의 지역별 쟁의현황 (개수, 건, %)

구분	총사업체수	쟁의발생건수	총사업체대비율
서울	47,056	729	1.5
부산	9,500	340	3.6
대구	5,937	261	4.4
인천	4,007	279	7.0
광주	3,074	125	6.0
경기	11,245	736	6.5
강원	2,808	181	6.4
충청	5,988	271	4.5
전라	10,099	276	2.7
경상	9,238	551	6.0
합계	107,412	3,749	3.5

출처 :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전노협백서』 제1권, 1997, 165쪽.

노동자대투쟁기의 노동쟁의는 '6·29선언' 직후부터 9월 중순까지 대략 2개월반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8월 17일에서 23일 까지 하루 평균 126건이 발생하여 노동자대투쟁기 전체 노동쟁의의 26.6%인 8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금기시되었던 울산의 현대계열사인 현대엔진, 현대미포조선소 등에서 7월 초순부터 촉발된 노동자대투쟁은 부산, 마산 등 남동부지역으로 확산되어 점차 수도권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인천 지역에는 조금 늦게 파급되었는데, '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리던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노동운동이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서서히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울산과 창원 등의 지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갔다.

인천 지역의 노동자대투쟁도 다른 지역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전개되었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첫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이미 상황을 장악해버린 노동자들을 직접 탄압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파업노동자들을 불안하게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파업지도부는 지역의 정치조직들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파업전술을 전개하고, 파업기간 동안 노동자대중의 정치의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는 교훈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인근 지역에 알리고 다른 공장의 연대투쟁을 독려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노동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지원하러 가는 일도 많았다.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면서 파업노동자들의 주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평의 공업단지들이나 인근공장을 돌면서 요구조건을 외치고 다른 공장 노동자들의 박수와 응원을 얻어내는 일들이 많아졌다.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구사대들의 폭력도 과거와 달리 힘을 잃었으며, 해고되었던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파업을 지도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셋째,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대공장들은 대부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투쟁이 일어났으며, 중소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7~8월 울산 지역의 현대계열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그동안 어용노조의 횡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는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나 영창악기 등의 투쟁이 대표적이다. 대공장들의 어용노조 민주화투쟁과 달리 노동조합이 없었던 중소공장들은 임금인상으로 시작된 파업투쟁과정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함으로써 조직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6·29선언' 이후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한독금속을 비롯해서 남일금속, 경일화학, 몬트레스, 대림통상, 의림양행, 경흥전자, 한국바인더 등이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투쟁들이 인천 지역의 정치조직들과 연계된 가운데 수행되

었다. 당시 파업농성이 진행되던 공장들의 핵심지도부는 대부분 지역의 정치조직의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정치조직은 파업현장에 들어가 파업지도부와 투쟁방향 및 파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파업현장은 노동자대중의 배움터가 되었으며, 투쟁을 통해서 단련된 선진노동자들은 다시 지역정치조직의 성원으로 성장했다. 부평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은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울산이나 창원에 넘겨주게 되었지만,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결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하고 연대를 지향하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선진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평지역은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면서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지위를 울산이나 창원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노동자대투쟁의 신호탄조차 늦은 것은 아닌데, 6월항쟁이 고비를 넘기던 6월 말에 대한화학공업주식회사 노동자 30여 명이 14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농성을 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선일연마에서 임금인상과 상여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으며, 7월 11일에는 한독금속에서 파업농성을 통해 민주노조를 결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은 8월에 들어서면서 거세게 일어났다. 8월 6일 대우중공업 인천공장에서 파업농성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8월 10일에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으로 파급되었고, 이어서 부평지역 전체가 파업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7월부터 8월 10일까지의 파업투쟁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건 또는 두건씩 발생해서 총 20여 건에 이르렀으나, 8월 11일 하루에 신규파업농성만 동양엘리베이트, 원방, 경원기계, 보루네오통상 등 7건이 발생하였고, 이튿날에는 다시 삼익악기, 대원운반기계, 한국종합기계 등 5곳의 공장들이 새로이 파업농성에 돌입하는 등 공장마다 분규가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매일 10여 곳 이상의 공장에서 파업농성이 진행되었다. 8월 13일에는 코리아스파이스, 풍진금속, 도양화학 등 11곳, 8월 14일에는 남불화학, 중앙병원 등 4곳, 8월 15일에는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콜트악기, 부국철강 등 4곳에서 노동자들이 쟁의를 일으켰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우자동차가 입지한 부평을 시작으로 일주일을 경과하고는 주안으로 파급되었고, 대체로 대공장에서 중소공장으로 번져나갔다.

8월 15~16일의 연휴가 끝난 뒤인 8월 17일에는 주안의 5·6공단 및 인근에 위치한 경동산업, 영창악기, 대림통상 등의 대공장들과 소규모공장을 합하여 총 27개 공장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봇물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후에 8월 18일에 20건, 19일에 17건, 20일에는 9건의 새로운 분규가 발생하고 8월 21일에는 15군데의 제조업체와 인천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가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면서 부평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모두 279건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분규발생 빈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생산도시라 불릴 정도로 공업단지가 밀집된 인천 지역 제조업의 노동쟁의를 보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공장규모는 100~299인 공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300인 이상의 대규모공장에서는 총 47건이 발생하였고 인천지역의 대규모공장이 총 95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빈도수는 대규모공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보더라도 금속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공장들의 노동쟁의가 섬유, 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부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천지역의 공업구조가 변화하면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노동운동이 노동자대투쟁을 경과하면서 남성노동자 중심의 중공업부문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비중이 변화하면서 남성노동자들이 수적 내용적으로 주축세력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건설된 노동조합의 현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6월 이전까지 노동조합이 조직된 공장은 107곳에 불과했으나 7~8월 투쟁 이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04곳의 공장으로 늘어나고 있다. 97곳의 공장에서 신규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업종별로 보면 금속이 49곳, 화학이 16곳, 섬유가 2곳, 운수가 16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금속이나 화학 중심의 중화학공업에서의 노동운동이 섬유나 기타 경공업부문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87년 한국사회를 근본에서 뒤흔들었던 노동자대투쟁은 '6·29선언'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노동자들이 최초로 대중적으로 진출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많은 과제도 남겨 놓았다. 무엇보다도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을 전면적인 계급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참여한 노동자들이 120여만 명으로 당시의 전체 800여만 노동자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노동자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20%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요구가 주로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러 다른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들은 물론 농민이나 빈민 등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대투쟁기 인천지역의 노동쟁의 발생건수 (단위 : 인, 건)

구분	45~99	100~299	300~499	500~999	1000명이상	합계
음.식료품	1	5	2			8
섬유	2	8	4	2	1	17
목재	1	5	2		3	11
종이						
화학	3	12	1	1	1	18
비금속	3	3	1			7
제1차금속	1	5		5	1	12
조립금속	11	46	6	8	7	78
기타		2			2	4
합계	22	86	16	16	15	155

출처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87 노동자 대투쟁 – 7, 8월 인천지역실태』, 풀빛, 1988, 27쪽.

이와 같이 1980년대 부평지역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인천의 노동운동은 지역운동이라는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선도성과 방향성, 파급력, 선진노동자들의 결집, 민주화세력과의 연대 등에서 전국적으로 비중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부평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은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통과하면서 주도권을 울산과 창원에 넘겨주게 되었지만, 1980년대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한국노동운동의 메카로 불리게 된 부평의 노동운동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창립과 이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요한 동력을 마련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제4절 전철역사의 확충과 주거 및 상권의 재편

1. 80년대 부평지역 도시화와 경인선 철도

※ 이 글은 이영민(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이 책 임집필하였음.

경인선 철도는 1899년 개통 이래로 경인 지역의 대동맥 구실을 수행하여 왔으며, 부평지역도 그 영향 하에 시기별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 경인선 철도가 부평지역의 남쪽 경계선에 인접하여 동서방향의 산지의 흐름을 따라 건설된 것은 부평의 지역구조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요약컨대, 경인선 철도가 갖는 부평지역 변화의 동인은 넓은 부평평야 지역을 인천과 서울에 기능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 일제의 의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근대적 교통수단이 지녀야 할 핵심이 지역 간 연결성을 최대한 높여야 하기에, 즉 초창기 부평평야 지역에 있어서 서울과 인천이 최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부평의 남쪽 경계선이기에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인선 노선의 획정은 부평지역의 도시화를 부평역 중심의 경인선 축을 따라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특히 부평도호부 치소가 입지하였던 계양산 남쪽 산록의 계산동 일대를 구읍으로 전락시키고, 현재의 부평역 주변이 새로운 부평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하였다.



인천지하철1호선 공사현장 (1995. 3. 23)

일제시대 이후 부평지역 도시화 과정에서 구읍으로 전락하여 한적한 농촌으로 남아있던 과거 부평도호부 주변의 지역은(현재의 계산동 일대) 현재는 다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찬 주거 및 상업 기능 밀집의 도시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이라고 하는 교통로 요인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의 대륙침략 야욕이 본격화되었던 1930년대 무렵부터는 부평지역 경인선 철도 연변에 군수공장들이 집중 설치되었다. 이는 도시공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 도시화 진행에 필요한 고용이 대규모로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의 혼란기를 거쳐 1960년대에는 부평과 주안 일대에 경인공업지대가 설치되면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어 각처에서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경인선 부평역 일대는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비록 경인공업지역은 경인선 철도를 따라 조성된 것은 아니었고, 이를 위해 새롭게 경인고속도로가 산업수송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으나, 창출된 고용을 따라 부평지역으로 이주해온 새로운 '부평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경인선 철도가 여전히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보완해하기 위해 부평지역의 외곽 곳곳에 대규모 택지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를 따라 역시 유입인구도 급증하게 된다. 도시기반 산업으로서의 공업지역의 조성과 일종의 베드타운으로서의 대규모 주거지의 형성은 큰 폭의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기반 산업활동들도 부평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거 백여 년 동안 일련의 부평지역의 변화의 중심에는 경인선이 있었다. 부평지역의 경제적 기능을 외부와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었던, 그래서 다소는 수탈의 도구로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경인선 철도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부평지역 도시기능 수행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평역 구내 모습(1991)

2004년 현재 경인철도의 각 역들 중 부평지역에 속해 있는 동암역, 백운역, 부평역, 부개역 등 4개의 역들로부터 500m와 1km 이내의 행정동을 살펴보면, 동암역의 경우 부평(부평구)과 주안(남구 및 남동구)의 경계선 부위에 입지하고 있어 역세권의 범위가 양 지역에 모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인천의 행정 중심 기능이 구월동으로 이전되고 더불어 간석동 일대가 상업 중심 지역으로 바뀌면서, 경인전철화 초기까지만 해도 한적한 농촌경관의 모습을 띠고 있던 동암역은 인천의 새로운 도심부로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으로 변모하였다. 그 외의 3개 역들은 모두 부평구에만 한정되어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평역이 전통적

으로 부평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중심성 높은 각종 상업기능이 밀집된 전형적인 상업중심지로 자리잡아 왔던데 비하여, 백운역과 부개역은 80년대 이후 대규모로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대중교통 시설로서 자리잡아 왔다.

경인철도 중 부평지역 역세권 해당 행정동

역명	역세권 500m 내 행정동	역세권 1km 내 행정동
동암역	간석3동, 간석4동, 십정1동, 십정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부평3동, 십정1동, 십정2동
백운역	부평2동, 부평3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가좌4동, 산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역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역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부개1동, 부개2동, 부평1동, 부평5동, 부평6동, 일신동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철도 도시재생 방안연구』, 2005, 48쪽.

경인선 철도는 1974년 전철화 이후 그 기능적 성격에서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대도시를 연결한 도시 간 철도(interurban railway)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메갈로폴리스화된 경인 도시지역을 가로지르는 일종의 도시 내 철도(intraurban railway)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경인 지역의 도시적 성격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철도 기술의 도입을 의미하며, 동시에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결합하여 부평지역의 도시내부구조의 재구조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인선 전철화 이전까지만 해도 경인선 통과 구역들 중 농촌의 기능과 경관을 가지고 있던 비도시화 지역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농촌 구역들에도 갖가지 도시기능이 들어서면서 연속적인 건축지역(built-up area)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천 관내에서만 보더라도, 과거 조선시대 이전까지 분리되어 존재하였던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의 관할 지역은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서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었던 양대 지역으로 존재하였다. 이 양 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산줄기인 계양산-천마산-원적산-만월산(주안산)-거마산에 의해 자연

지리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지역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던 지역이다. 경인선 철도는 이러한 연속 산지의 가장 낮은 통로인 원통이고개 부근을 관통하고 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인천시의 구역 확장으로 부평을 통합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긴 했지만, 양 지역의 독자적인 생활권 전통이, 비록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분리되어 왔던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희석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이 경인선 철도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인천과 부평의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양 지역 간 분리 전통은 거의 사라졌고, 간석동, 구월동 일대의 새로운 도심지가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해 부평으로 이어지기도 하여 이제 부평은 인천시의 여러 기능지역들을 연결하는 지역네트워크에서 명실상부 인천의 또 다른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행정구역상 인천구역 관내의 경인선 통과지역에서 비도시화 지역으로 가장 최근까지 남아있었던 곳은 지금의 동암역과 부개역 일대이다. 동암역 부근에는 양계장이 남아있어 경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후각경관(smellscape)을 제공해 주었으며, 부개역 부근에는 지금의 중동신도시에 펼쳐져있던 농경지와 과수원이 이 곳까지 연장되어 남아있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가장 넓게 남아있던 농업 지역이었던 지금의 중동신도시 일대의 경관 변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빠르게 일어났던 1970년대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기도 소사읍으로 존재하였던 행정구역이 1973년에 경기도 부천시로 바뀌게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부평지역 역시 빠르게 도시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부개역사 신축공사 착공식 (1991. 1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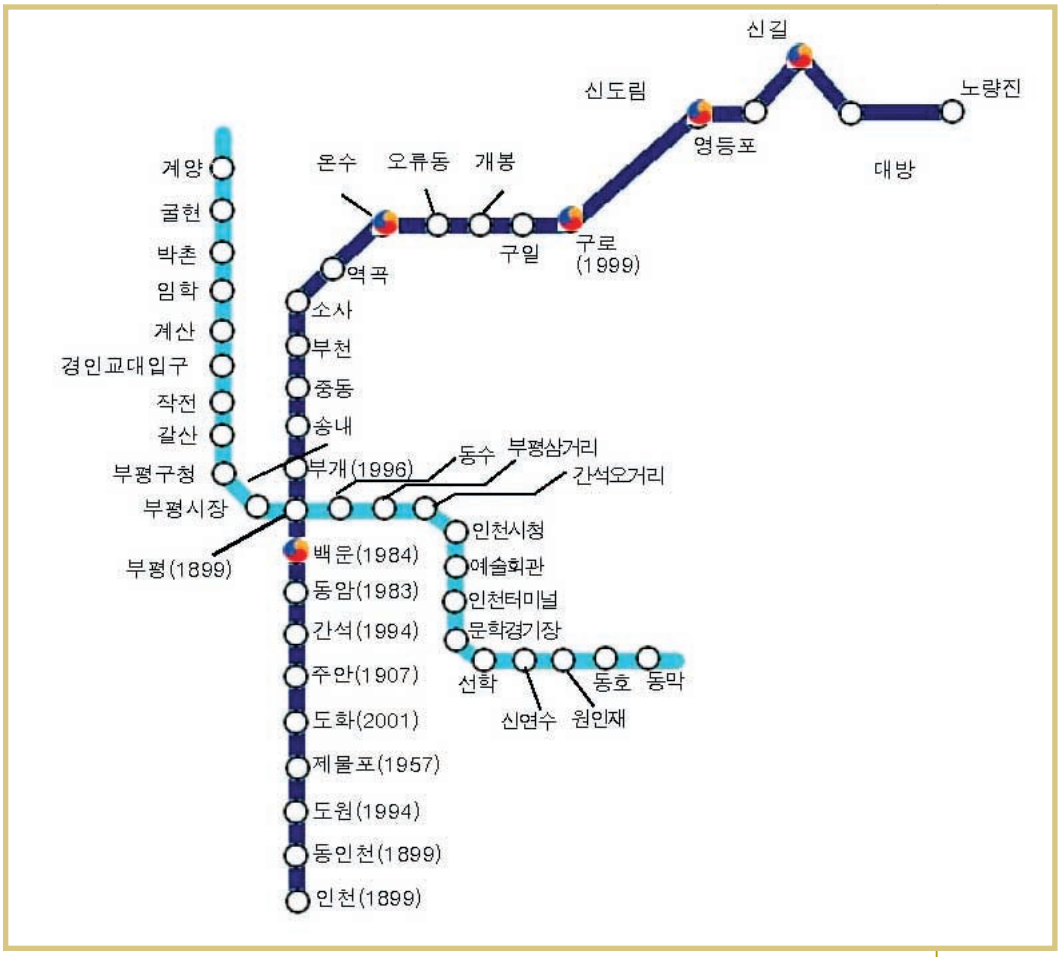
1974년 경인선 전철화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도시 간 장거리 연결 기능에서 거대도시 내 대중교통 기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반증하는 것이 개설 전철역 수의 증가이다. 경인선 철도가 처음 개통된 당시에는 인천역-축현역(현 동인천)-우각역(현 박문여중 앞 네거리)-부평역-소사역-오류동역-노량진역 등이있었고 이중 우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1974년 전철화 이전에 영업 중이었던 경인선 철도역은 앞의 역들에 제물포역(1957, 숭의역으로 개시)과 주안역(1907년 추정)이 추가된다. 그 외의 역들은 모두 전철화 이후에 신설된 역인데, 도원역(1994), 도화역(2001), 간석역(1994), 동암역(1974), 백운역(1984), 부개역(1996) 등이 이에 속한다. 70년대 이후 가장 먼저 신설된 동암역은 처음에는 간이역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주변지역에 택지가 조성되고 시가지화가 진행되면서 1983년에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역세권의 규모가 커지면서 1988년에는 남부 역사와 북부 역사를 분리,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져 확장 개설되기에 이른다. 1984년 백운역의 개설은 당대 부평지역에서 최대 규모였던 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 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백운역을 통한 경인선 전철의 이용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부평지역에서 가장 늦게 1996년에 개설된 부개역도 수도권 택지개발과 관련이 깊다. 1990년대에 추진된 서울 외곽의 4대 신도시 개발은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외에도 기타 지역에 신도시 규모보다는 작지만 여러 개의 택지지구가 개발되었다. 부개동과 삼산동을 잇는 인천과 부천의 경계선 부근 일대에도 아파트 중심의 택지가 개발되었고, 그러한 주거지를 연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전철역이 생겨난 것이다.



부천 상동 택지개발단지 (2002)

경인선 전철화 초창기인 1977년에 이미 개설되어 있던 역은 인천, 동인천, 제물포, 주안, 동암, 부평 등 6개 역이며, 이 때는 동인천역이 여객 수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였던 부평역은 동인천역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당시 주안역의 위세는 그리 크지 않아 제물포역에 비해서도 적은 여객을 수송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부평역 관내의 동암역은 당시 간이역 수준이었으므로 가장 적은 양의 여객 수송을 분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부평지역 경인선 역과 개설 연도

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여, 1985년 통계에 의하면 부평역의 여객수송량이 동인천역에 비하여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동인천역의 여객수송량이 거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비해 부평역은 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동암역 또한 현대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여객수송량이 4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주안역의 여객수송량이 급증하는 것도 80년대에 들어서서부터인데, 이러한 변화는 인천 전체의 지역구조가 동인천역, 인천역 일대의 구도심 중심으로부터 외곽의 주안, 부평 쪽으로 그 중심성이 이전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그 이후 최근까지도 여객수송량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인천 관할 각 역의 여객 수송량 추이 (단위 : 명)

역명	1977		1985		1995	
	승차인원	하차인원	승차인원	하차인원	승차인원	하차인원
인천역	2,653,046	1,835,219	4,005,670	3,164,397	3,216,185	2,657,839
동인천역	9,303,172	9,335,924	10,699,405	11,070,000	10,777,419	10,119,168
도원역	–	–	–	–	–	787,349
제물포역	3,946,654	4,105,406	6,183,230	6,183,230	8,449,461	8,448,561
도화역	–	–	–	–	–	–
주안역	2,662,922	2,695,406	12,933,963	12,246,000	16,719,731	16,965,388
간석역	–	–	–	–	1,288,858	1,232,858
동암역	1,214,692	1,166,737	5,575,969	4,144,407	16,727,952	17,280,900
백운역	–	–	2,965,604	2,192,255	9,627,447	7,080,410
부평역	4,816,536	4,648,473	21,629,610	22,473,250	25,863,571	25,250,602
부개역	–	–	–	–	–	–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해당년도.

한편, 부평역은 중심성이 가장 큰 역으로서 최다의 여객을 수송하여 왔고, 또한 화물 발송과 도착을 관리하는 부평 유일의 화물 적환지점(break-of-bulk point)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부평역의 화물 수송 기능은 시기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과거 30여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2004년 현재 화물 수송량은 총 64,910톤(발송 9,070톤, 도착 55,840톤)으로써, 정점에 달하였던 1985년의 467,535톤(발송 83,820톤, 도착 383,715톤)과 비교해 본다면, 약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인선 철도의 화물운송 기능이 도로교통에 의존한 화물차 수송 기능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경인선 철도가 수도권 광역전철화의 일부 구간으로서 여객 수송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역별 여객 수송 상황을 살펴보면, 부평역의 경우 여객수송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 정점에 달하였고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감소는 부개역의 개통에 따라 철도 이용 인구가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암역의 경우에도 1995년까지 여객수송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근에 새롭게 개설된 간석역의 영향으로 여객수송량을 분담하게 됨으로써 2000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부평지역 각 역의 여객 및 화물 수송량 추이

년도	역명	승객(명)			화물(톤)		
		승차	하차	계	발송	도착	계
1970	동암	–	–	–	–	–	–
	백운	–	–	–	–	–	–
	부평	3,176,522	3,084,395	6,260,917	156,918	233,720	390,638
	부개	–	–	–	–	–	–
1975	동암	767,601	930,516	1,698,117	–	–	–
	백운	–	–	–	–	–	–
	부평	3,262,647	3,464,094	6,726,741	69,610	195,720	265,330
	부개	–	–	–	–	–	–
1980	동암	2,620,175	2,582,247	5,202,422	–	–	–
	백운	–	–	–	–	–	–
	부평	11,836,227	12,162,583	23,998,810	50,898	309,325	360,223
	부개	–	–	–	–	–	–
1985	동암	5,575,969	4,144,407	9,720,376	–	–	–
	백운	2,965,604	2,192,255	5,157,859	–	–	–
	부평	21,629,610	22,473,250	44,102,860	83,820	383,715	467,535
	부개	–	–	–	–	–	–
1990	동암	14,285,702	15,785,702	30,071,404	–	–	–
	백운	6,808,123	5,446,498	12,254,621	–	–	–
	부평	23,871,601	23,919,343	47,790,944	49,900	333,450	383,350
	부개	–	–	–	–	–	–
1995	동암	16,727,952	17,280,900	34,008,852	–	–	–
	백운	9,627,447	7,080,410	16,707,857	–	–	–
	부평	25,863,571	25,250,602	51,114,173	32,556	125,765	158,321
	부개	–	–	–	–	–	–
2000	동암	12,011,749	12,184,401	24,196,150	–	–	–
	백운	5,239,045	5,021,148	10,260,193	–	–	–
	부평	16,523,555	28,005,964	44,529,519	12,460	5,252	17,712
	부개	5,086,163	4,984,439	10,070,602	–	–	–
2004	동암	12,211,984	11,749,200	23,961,184	–	–	–
	백운	4,822,884	4,707,134	9,530,018	–	–	–
	부평	15,822,683	16,498,483	32,321,166	9,070	55,840	64,910
	부개	2,646,441	2,542,659	5,189,100	–	–	–

출처 :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해당 년도.

2. 경인선 철도와 인구 및 주거공간의 분포 특성

경인선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대동맥의 역할을 해온 교통 및 수송로로서 인천 도시화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인천의 광역 도시구조에 있어서 도시중심기능은 경인선 철도를 따라 선상으로 펼쳐져 그 바깥 지역으로 확대되어 왔기에, 경인선 철도가 도시 발달에 있어서 일종의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인선 철도를 따라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천 도시구조의 현대적 변화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인천 전체와 부평지역에 있어서 모두 역세권 거주 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500m 내의 역세권 인구에 있어서, 부평지역은 인천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비중 감소의 정도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부평 관할 역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건설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 통근 인구의 수도권 전철을 통한 외곽 지역으로의 확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평역광장(1988. 7. 26)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80년 이후 인천의 도시화가 광역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인선 철도 주변의 기존 개발 지역보다는 외곽지역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하게 되고 따라서 역세권 거주 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특히 도로교통이 발달하게 되어 간선도로망이 외곽지역으로 확충되면서 인천 시역의 주변부에 남아있던 대규모 농업지대가 택지로 개발되었고, 이들 지역이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인선 철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계산동, 삼산동 지구나 연수동 지구, 그리고 서구의 신흥주택지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인선 역세권 행정구역 내 거주 인구 변화

년도	지역	인구(인)		
		전체인구	500m 내 인구(%)	1km 내 인구(%)
1980	인천	1,085,730	160,683(14.8%)	604,359(55.7)
	부평	350,142	40,100(11.5)	148,300(42.4)
1985	인천	1,387,491	188,100(13.6)	678,652(48.9)
	부평	539,092	52,300(9.7)	194,700(36.1)
1990	인천	1,836,036	178,822(9.7)	744,152(40.5)
	부평	616,818	62,300(10.1)	230,200(37.3)
1995	인천	2,267,403	166,808(7.4)	706,375(31.1)
	부평	746,409	64,000(8.6)	237,100(31.8)
2000	인천	2,484,385	153,336(6.2)	657,964(26.5)
	부평	856,589	63,900(7.5)	233,100(27.2)
2004	인천	2,528,523	156,438(6.2)	681,392(26.9)
	부평	903,091	66,300(7.3)	240,900(26.7)

출처: 인천시, 『인천통계연보』, 1995 · 2004.

이처럼 경인선 철도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역세권 거주 인구의 나이를 고려한 고령화 지수를 산출해 보면 거주지역으로서의 역세권의 특징이 발견된다. 인천의 각 구를 경인선 철도 통과 여부에 따라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구분하여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통적인 인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은 오래된 전통만큼이나 거주인구의 고령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5년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역세권 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등의 고령화 지수는 인천시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역세권 구지역인 남동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비역세권으로 간주되는 이들 외곽지역은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소위 주거지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넓은 의미의 부평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 간의 비교는 경인선 철도로부터의 절대거리와 인구 고령화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모든 구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경인선이 통과하고 있는 부평구의 2005년 고령화 비율이 23.4%인 데 비해 경인선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의 외곽지역인 계양구는 고령화 비율이 14.6%에 불과하다.

인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인선 철도가 오랫동안 인구를 끌어모으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경인선 철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의 외곽지역으로 쾌적한 주거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젊은층의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경인선 철도와 그 역세권의 도시 기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기능의 유도 및 분화가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시 역세권별, 구별 고령화 추세

지역 \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역세권	인천시	145,978(10.5)	216,871(11.9)	324,490(14.1)	405,277(16.0)	509,002(19.7)
	동구	18,739(12.8)	19,829(16.0)	20,548(20.5)	19,218(26.4)	22,111(27.8)
	중구	10,861(13.2)	14,705(18.2)	14,891(22.1)	16,912(25.7)	23,585(25.7)
	남구	67,763(10.1)	62,546(13.7)	69,791(16.4)	83,697(20.5)	106,326(19.0)
	부평구	-	-	63,592(13.0)	82,089(15.5)	100,159(23.4)
역세권 외	남동구	-	33,826(11.0)	47,490(12.53)	60,310(15.3)	72,778(19.1)
	연수구	-	-	22,187(10.4)	32,632(12.6)	41,717(16.2)
	서구	-	21,467(9.3)	32,181(11.0)	44,278(13.2)	60,784(16.1)
	계양구	-		25,938(10.1)	37,190(11.4)	49,064(14.6)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철도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2005, 52~53쪽재구성.
※ 고령화 인구는50세 이상을기준으로 하였음.

좀 더 구체적으로 경인선 전철역의 역세권 내 거주인구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부평지역과 기타 인천 지역의 특징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즉, 인천역, 동인천역, 도원역, 제물포역 등 인천의 구도심 일대 지역은 경인선 철도 주변의 역세권 인구가 큰 폭으로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동암역, 백운역, 부평역, 부개역 등 부평지역 4개 역의 역세권 인구는, 백운역 역세권의 경우 약간의 예외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 대체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동암역 역세권 인구의 증가는 가장 두드러져 경인선 철도 역세권 중 도시기능과 도시경관의 측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주안역의 경우에는 500m 역세권 인구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1km 역세권 인구의 경우에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화역과 간석역, 그리고 부개역의 주변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었고, 이들 인구의 전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역들이 신설되게 된다. 이들 주거지역의 역세권을 제외한 경인선 철도의 전통적인 3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을 비교해보면, 동인천의 인구감소 및 도시기능 쇠퇴, 주안의 인구 정체 및 도시기능 정체, 부평의 인구 증가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 인구와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부평지역의 경인선 전철은 여전히 거주 인구를 강하게 흡인하고 있는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경인선 각 역별 역세권(500m) 거주인구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1980	증가율	1985	증가율	1990	증가율	1995	증가율	2000	증가율	2004	총증가율
인천	6.0	-7.38	5.6	-12.57	4.9	-12.86	4.3	-9.80	3.8	-5.45	3.6	-39.64
동인천	32.4	-12.21	28.5	-20.80	22.6	-21.16	17.8	-37.39	11.1	34.50	17.0	-47.60
도원	26.9	-10.41	24.1	-17.20	20.0	-22.57	15.5	-5.28	14.6	-13.88	12.9	-52.22
제물포	15.5	7.08	16.6	-2.05	16.3	-10.01	14.6	-10.61	13.1	-39.30	9.4	-39.44
도화	12.5	13.77	14.2	4.33	14.8	-4.01	14.2	-7.21	13.2	1.80	13.4	7.65
주안	14.8	55.98	23.1	-28.82	16.5	-6.99	15.3	-10.09	13.8	6.79	14.8	-0.39
간석	11.7	80.63	21.2	1.72	21.6	-1.95	21.1	-6.45	19.8	-4.18	19.0	61.78
동암	7.2	57.26	11.4	88.84	21.5	-2.17	21.0	4.68	22.0	1.42	22.3	208.49
백운1	6.6	18.05	19.5	-25.94	14.5	-8.19	13.3	-13.33	11.5	10.82	12.9	-22.00
부평	9.9	10.65	11.0	32.26	14.5	7.38	15.6	3.58	16.2	3.88	16.8	69.34
부개	6.4	61.96	10.4	13.79	11.8	19.17	14.1	0.91	14.2	0.66	14.3	· 123.11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연구』, 2005, 51쪽.

경인선 각 역별 역세권(1km) 거주인구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1980	증가율	1985	증가율	1990	증가율	1995	증가율	2000	증가율	2004	총증가율
인천	26.5	-8.13	24.3	-15.33	20.6	-14.16	17.7	-9.80	15.9	0.47	16.0	-39.50
동인천	100.6	-10.77	89.8	-17.01	74.5	-16.86	62.0	-22.40	48.1	46.22	70.3	-30.14
도원	103.7	-7.18	96.2	-15.54	81.3	-21.92	63.5	-11.17	56.4	-3.97	54.1	-47.78
제물포	66.7	5.01	70.0	-3.06	67.9	-12.77	59.2	-10.55	53.0	0.93	53.4	-19.82
도화	51.0	1.39	51.7	16.93	60.4	-3.98	58.0	-8.57	53.1	2.96	54.6	7.15
주안	57.9	46.25	84.6	-15.42	71.6	-3.84	68.8	-8.63	62.9	2.13	64.2	11.00
간석	48.9	4.62	51.1	62.94	83.3	-2.32	81.4	-7.48	75.3	1.44	76.4	56.28
동암	31.4	54.61	48.6	53.97	74.8	-0.37	74.5	-0.21	74.3	1.34	75.3	139.84
백운	48.1	23.38	59.3	-4.64	56.5	-1.71	55.6	-5.06	52.8	2.85	54.3	12.92
부평	45.7	13.38	51.8	16.02	60.1	3.92	62.5	-1.40	61.6	6.70	65.7	43.84
부개	23.1	51.42	35.0	10.81	38.8	14.74	44.5	-0.27	44.4	2.77	45.6	97.31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연구』, 2005, 51쪽.

3. 부평지역 경인선 전철의 특성 변화와 주변 상권의 재편

1980년대 경인전철은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으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그 이용객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설역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전철이용객 수의 증가는 경인선 전철 운행에 있어 그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80년대 내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이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중앙일간지에는 경인전철의 포화상태와 불안하고 위험한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기사화된다. 특히 1990년에는 경인전철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여러 일간지에서 시리즈물로 관련기사들을 연재하기에 이른다. 1990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기재된 연재기사의 일부를 보면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인천 부평 부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극심한 교통전쟁으로 홍역을 치른다. 경인고속도로와 국도, 전철이 모두 초만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값싸고 운행시간이 일정한 전철의 교통수요는 이미 포화상태를 지나 「폭발」 직전이다. 출퇴근 시간의 경인선 전철은 차량마다 승객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몰려 지하철 공사측도 스스로 「승객들의 호흡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중략)

구로역 측이 시민들의 승차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6명의 「푸시맨」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질서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었으나 승객들이 한꺼번에 워낙 많이 몰려들자 등을 밀어 태워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푸시맨」으로 일하는 김모군(18)은 『이제는 더이상 승객들을 밀어서 태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승객 자신이 타려고 하는 악착같은 의지가 없으면 제때 전철을 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쟁 치르듯 해서 차에 오르자 차내에서는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음역에서 내릴 수 있도록 비켜주세요』라고 사정하는 여자승객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려왔다.

(중략)

지하철 공사 측은 객차 한 량당 쾌적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승객 정원을 1백56명으로 잡고 있으며 △승객들간에 옷깃이 스치는 상태는 정원의 150%를 초과한 2백30명 △신체가 접촉되는 상태는 정원의 180%인 2백50명 △상호거동이 불편

한 상태는 정원의 250%인 3백90명 △호흡이 곤란한 상태는 4백10명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하철과 국철을 통틀어 러시아워에 가장 혼잡한 상태를 보이는 경인선은 이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서울로 진입하기 전인 부평역에서부터 한량당 승객수가 3백90명선에 달해 「상호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부천 역곡역을 거치면서 승객수가 불어나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악화되면서 서울로 들어와 개봉역에 이르러서는 유리창틀이 빠져나갈 것같은 「폭발 직전의 압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혼잡한 구간인 부천에서 구로역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경인선 전체의 복복선화는 97년도에 가서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경인선의 승차난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출퇴근 시간에 경인선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호흡곤란」을 각오해야만 할 것 같다

80년대를 거치면서 심화된 이러한 경인전철의 위험 상황으로 철로의 복선화를 통한 운행 편수와 시간의 단축 및 역사의 신설을 통한 역별 이용 인구의 분산 등의 정책이 수행됐다. 1991년 경인 전철 복선화가 착공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고, 역사의 신설과 시설의 개선 사업도 이러한 위험상황을 타개하고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같은 위험 상황이 강도를 증가해 갈 즈음은 80년대 말 이후 전철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대책의 마련과 함께 민자역사의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 경인전철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고, 각 역들도 크게 바뀌게 된다.

부평역의 경우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73,441명으로 인천 관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인천지하철 1호선의 완공과 더불어 환승역으로 거듭나서 전철 역사의 기능적 중심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에 완공된 민자역사도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건설되었고, 역사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차 사적인 상업기능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전철 이용객을 위한 공공적 대합실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구도심의 중심역인 동인천역의 이용객 수가 31,781명에 머물러 있어 부평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과는 24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중심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도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와 연관된 상업기능의 쇠퇴가 역세권의 위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1989년에 건립된 민자역사는 역세

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건설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민자역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동암역은 그 이용객 수가 58,773명으로 인천 관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버스 노선도 24개가 연결되어 그 중심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부평지역의 전철 역사와 역세권 지역은 도시정부가 주도가 되는 공공적 역사 주변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선은 증가하는 주택 개발 및 재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백운역의 백운주택 재개발사업, 부개역의 삼산동 택지개발사업 및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의 부평미군부대(캠프 마켓) 이전 및 개발 사업과 백운역의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과 동암역 주변지역은 이미 상업 기능들이 밀도높게 분포하고 있고 그러한 상업중심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백운5거리 전경(2003)

경인전철 역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및 경관적 특성은 해당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소위 인천의 3대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은 유동인구가 많기에 상업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상업지역이나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동인천역만이 유일하게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평역과 주안역을 위시하여 유동인구가 동인천역을 능가하는 동암역과 그 외 도원역, 제물포역 등은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복합용도지역으로 지정된 5개 역들의 남쪽과 북쪽 지역이 경인전철 철로를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다. 경인전철 철로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고 있고 그 경계선의 양쪽이 확연히 다른 도시기능지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역들이 소위 북역과 남역, 혹은 북광장과 남광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러한 기능적 분리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역, 도화역, 간석역, 부개

역 등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운역 등은 주거 기능이 탁월하게 전개되어 있는 곳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들 역사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경인선 전철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교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부평지역의 경우, 4개의 역과 그 주변지역은 도시기능적 특징에 따라 크게 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한 복합용도지역의 동암역과 부평역이 그 하나이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운역과 부개역이 다른 하나이다.

인천 관내 역세권의 용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역 수	역 명
일반주거지역	4개역	인천역, 도화역, 간석역, 부개역
일반상업지역	1개역	동인천역
준주거지역	1개역	백운역
복합용도지역	5개역	도원역(남측부지: 일반상업, 북측부지: 일반주거) 제물포(남측부지: 일반상업, 북측부지: 일반주거) 동암역(동측부지: 준주거, 서측부지: 일반상업) 부평역(남측부지: 준주거, 북측부지: 일반상업) 주안역(남측부지: 일반상업, 북측부지: 준주거)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2005, 36쪽.

1970~80년대 서울의 기능 확대와 거주인구의 외곽 분산이라는 수도권의 구조적 변화에 맞물려 경인전철의 성격은 크게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전철역 주변의 경관적 특성도 크게 변모하게 된다. 경인전철 역세권별 중심상업기능 신축년도 비율을 보면, 이러한 경인전철의 변화가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인선 라인은 인천의 중심지가 선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독특한 도시구조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상업건물의 신축년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을 때, 서해바다에 인접한 인천역을 기점으로 서울과의 경계에 인접한 동쪽 끝의 부개역까지의 범위를 대략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동인천역과 인천역 중심의 구도심 권역이다. 이 권역의 상업기능들은 절반 이상이 70년대와 그 이전에 신축되어 가장 노후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주안역을 중심으로 하여 도화역, 간석역 등을 아우르는 기성시가지로 8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상업경관이 신축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중심

인 주안역의 경우, 현재 상업기능들 중 80년대에 신축된 건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9.8%이다. 이것은 20여 년 전에 건립된 건물이기에 노후건물들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나, 조만간 구도심과 같이 경관의 퇴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지역의 4개 역과 그 주변 역세권은 건물의 생성연대가 비교적 최근으로 인천 전체의 경인선 연변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부평지역 역세권은 대부분이 90년대와 그 이후에 신설되거나 재건축된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평역세권의 경우, 2000년 이후 신축된 상업기능의 비율이 42.8%로써 다른 역세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부평역이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거듭남에 따라 그 역세권의 상업기능도 더욱 강화되면서 상업건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처럼 경인선 주변 인천 지역의 중심지 기능은 쇠퇴일로의 구도심 역세권, 정체상태의 주안 기성시가지 역세권, 그리고 상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부평 기성시가지 역세권 등 세 지역에서 매우 차별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역세권별 중심상업기능 신축년도 비율 (단위 : %)

역세권명	60년 이전	60~70년	70~80년	80~90년	90~2000년	2000년 이후	노후화도
인천	8.2	11.8	55.4	13.1	3.7	7.8	75.4
동인천	6.3	17.2	33.5	19.2	19.4	4.5	57.0
도원	2.5	6.8	34.5	33.3	20.0	3.0	43.8
제물포	0.3	2.3	15.1	53.9	21.7	6.8	17.7
도화	0.0	1.0	10.1	70.3	12.9	5.7	11.1
주안	0.0	0.0	2.7	59.8	31.7	5.8	2.7
간석	0.0	0.0	4.5	43.4	46.4	5.8	4.5
동암	0.0	0.0	0.3	19.2	63.7	16.8	0.3
백운	0.0	0.0	0.0	21.2	76.3	2.5	0.0
부평	0.0	0.4	2.7	7.1	46.9	42.8	3.1
부개	0.0	0.0	0.0	5.5	87.9	6.6	0.0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철도변 지역단절 개선방안 연구』, 2005, 71쪽.

4. 경인선 전철 역사의 확충과 역세권 토지이용 변화

경인전철은 100여 년 전 개통 이래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대동맥의 구실을 해오면서, 동시에 인천시 도시 구조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천의 중심업무지구는 자연스럽게 경인선 라인을 따라 형성되어 왔고, 80년대 이후에는 경인선 연변이 모두 도시적 토지이용 지역으로 변모하여 건축지역(built-up area)이 끊어짐 없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건축지역의 연속적 존재는 상업지구의 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지구의 조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같은 전철 연변 거주 인구가 출퇴근용으로 혹은 기타 일상생활을 위하여 경인전철을 활용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90년대 이후 인천의 외곽지역에 건설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도 경인전철은 수도권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가장 손쉽고 저렴한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아 왔다. 일종의 교통 환승지로서의 전철역의 기능은 역사 자체의 역할을 좀더 상업적으로 변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에 연동하여 주변 역세권의 토지이용 상황도 각종 상업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철역 역세권에 입지한 기능은 크게 상업·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의 둘로 나누어 그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상업·업무 기능은 다시 중심상업 기능(호텔, 대규모, 점포, 음식점, 술집 등 위락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식품위생시설, 숙박시설 등), 업무 기능(사무실), 근린생활 기능(단일점포, 아케이드, 슈퍼마켓 등)의 3가지로 세분할 수 있고, 주거 기능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이용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밀도높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연상면적이다. 연상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들(지하층은 제외)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하는데, 각 역세권별 연상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업무 기능에 있어 3대 역세권인 동인천(70.87%), 주안(87.28%), 부평(66.30%)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동암역(78.17%)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탁월한 도원(12.62%), 도화(17.71%), 간석(32.29%), 백운(25.26%), 부개(34.01%) 등은 상업·업무 기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주거 기능이 탁월한 것과 비례하여 이들 주거 기능 중심 역세권은 근린생활 기능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각 역세권

의 상업 · 업무 기능은 전철 라인의 양쪽에 있어 그 분포 경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른바 철도변 지역단절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평역은 그 남쪽과 북쪽 역세권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평역 북쪽 역세권의 경우 인천시 관내 전 역세권에서 상업 · 업무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 87.01%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역세권들에 있어서도 전철라인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지역이 도시 기능과 경관 상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평지역 역세권 토지이용현황

역명			상업 · 업무계				주거계				
			상업	업무	근생	계	단독	다세대	아파트	기타	계
동암	연상면적비		16.52	14.34	47.31	78.17	0.9	18.02	2.91	–	21.83
	토지이용	동	1.94	3.16	12.82	17.92	3.92	39.37	15.91	0.50	59.70
	특성	서	8.92	7.20	21.18	37.30	4.22	33.22	14.49	1.09	53.02
백운	연상면적비		21.29	–	3.97	25.26	9.00	65.74	–	5.93	80.67
	토지이용	동	1.77	2.38	4.96	9.11	5.59	27.33	34.22	0.35	67.49
	특성	서	2.65	3.24	13.36	19.25	6.12	30.59	22.46	0.13	59.30
부평	연상면적비		15.36	25.62	25.47	66.30	10.06	–	21.81	1.83	33.70
	토지이용	남	2.07	3.67	12.85	18.59	5.37	54.28	31.11	0.26	91.02
	특성	북	33.27	19.18	34.56	87.01	5.58	5.28	4.64	1.08	16.58
부개	연상면적비		15.22	15.11	18.90	34.01	11.70	–	45.55	8.67	65.99
	토지이용	남	2.18	4.18	15.32	21.68	4.28	29.34	29.58	4.29	92.78
	특성	북	0.36	1.71	3.67	5.74	0.76	7.56	29.32	0.63	38.27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연계 방안 연구』, 2005, 94쪽.

주거 기능의 연상면적을 살펴보면, 3대 역세권은 역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도원(87.38%), 도화(64.71%), 간석(67.72%), 백운(80.67%), 부개(92.78%)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비율을 가진 역세권은 부개역이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개역 남쪽과 북쪽의 역세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거기능의 남북 차가 뚜렷하게 확인되기에, 경인전철 라인에 의해 분할되는 양쪽 지역의 지역단절 현상이 매우 광범위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인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경인전철은 오래전부터 인천의 남과 북 지역을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오늘날에도 양지역 간 원활한 연결이 억제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장

애가 되고 있다. 주거의 종류별 특성의 경우, 구도심으로 갈수록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부평지역으로 갈수록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인선 철도의 주요역에는 역전광장이 넓게 조성되어 있었다. 공간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 시기에 기차역과 역광장은 일반인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공적 환승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넓게 열려져 있던 역광장은 집단 활동이나 단체 행동이 벌어지던 시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역전광장은 더 이상 시원하게 개활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가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로 가득찬 복잡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광장이 민자역사를 위한 공간으로 크게 잠식되었다는 점과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환승, 혹은 주차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개활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나 아름답게 조경된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준다.

부평역은 인천관내 경인선 역들 중 4,500평 규모에 이르는 가장 넓은 역전광장을 가지고 있다. 부평역이 넓은 역전광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환승을 위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과 아울러 민자역사를 대규모로 건립하는데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 직후인 2000년 2월 21일,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4,884평 규모의 민자역사가 완공되었다. 이 건물에는 대형할인매장을 비롯하여 각종 음식점, 영화관, 병원 등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영업 중에 있다.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서 역광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민자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설치되고 택시 및 자가용 승강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건너편에 고립된 작은 광장이 남아있어 상징조형물과 휴게시설 등이 작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에 의해 고립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 진정한 공공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부평역 광장은 경인선 라인의 북쪽에 펼쳐져 인천에서 가장 큰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민자역사 자체가 중심상업 및 근린생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하로 연결된 여러 지하상가들도 역시 다양한 상업시설들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부평역에 인접하여 각종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중심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반면에 부평역 남쪽 출구 바깥의 역세권은 부평 전체로 보았을 때 남쪽 경계 산지지역에 인접하여 대부분 구릉지의 지

형 위에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기능의 건물들이 많으며, 간단한 근린생활 기능들이 역세권을 구성하고 있어 경관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북구청사 전경(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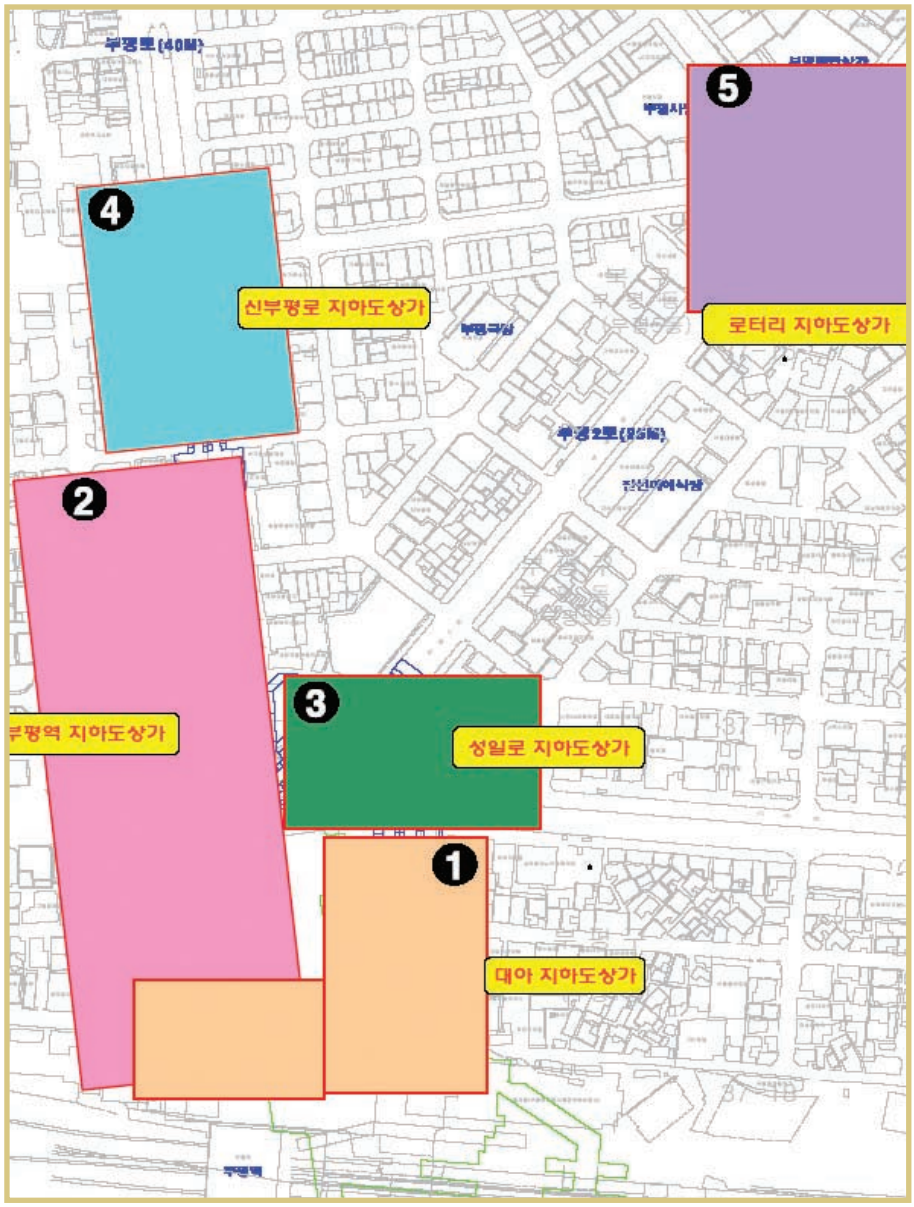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평역 북쪽 역세권의 경우 다양한 중심상업 기능들이 입지하고 있어 인천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기능적 중심성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식품위생, 숙박 같은 위락시설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의료시설의 밀집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남쪽 역세권의 중심상업 기능은 전체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근린생활 기능으로 대표되는 일반상업 기능에 있어서는 남쪽 역세권도 주거인구들을 위한 기초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 시설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으나, 북쪽 역세권 비율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의 중심성을 따질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간주되는 기능은 사무업무 기능이며, 이 역시 북쪽 역세권 지역이 탁월하다. 남쪽 역세권은 상대적으로 주거기능이 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북쪽에 비해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아파트에 있어서도 두 배 이상의 연상면적을 보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남쪽 역세권 내에 종교시설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시설들이 대규모 주거지가 입지한 곳으로 근접하여 입지한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부평역 역세권은 북쪽의 상업 및 업무 기능 탁월 지역

과 남쪽의 주거 기능 탁월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남북간 토지 이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평역 북쪽 역세권이 탁월한 상업 기능 지역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부평 민자역사에 연결된 지하도상가이다. 부평지역 일대의 지하도상가는 역세권 각 지점으로의 연결성이 매우 좋아 유동인구가 매우 많으며, 따라서 매우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평역세권 지상에 펼쳐져 있는 고층빌딩 및 밀도 높은 상업건물들과 더불어 이 지하도상가군은 부평의 중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971년 새동인천 지하도상가를 선두로 하여 2000년 부평대아 지하도상가에 이르기까지 과거 30여년간 꾸준히 건설되어 왔으며, 1999년 말 현재 총 15개(전국 대비 21.4%)의 지하도상가에 3,662개(전국 대비 25.6%)의 점포들이 입점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의 대부분이 경인전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 특히 3대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패턴을 보인다. 경인전철이 대중교통으로써 많은 유동인구를 유인하고 있기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공공적 통로로서 지하도상가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유동인구의 동선을 따라 상업기능을 입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이 지하도상가들은 공공적 토지이용과 사적 토지이용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공사 현장(1996)

인천의 역세권 지하도상가들 중 역시 가장 오래 전에 건설된 것은 동인천역 일대의 지하도상가로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모두 완공된다. 지하도상가의 건설 붐은 이후 경인전철 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주안과 석바위 일대에서 이어진다. 부평의 경우는 구도심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중심성을 이미 지니고 있었기에 70년대 말부터 지하도상가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완공 직후인 2000년에도 새로운 지하상가가 완성된다.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 분포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부평역 지하공간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02.

부평역 일대에는 모두 5개의 지하도상가가 분포하고 있다. 민자역사로부터 역광장의 지하를 통해 간선도로인 부평로 방향으로 대아 지하도상가, 성일로 지하도상가, 부평역 지하도상가, 신부평로 지하도상가 등 4개의 지하상가가 연속적으로 뻗어있으며, 부평역으로부터 약 600m 가량 떨어진 부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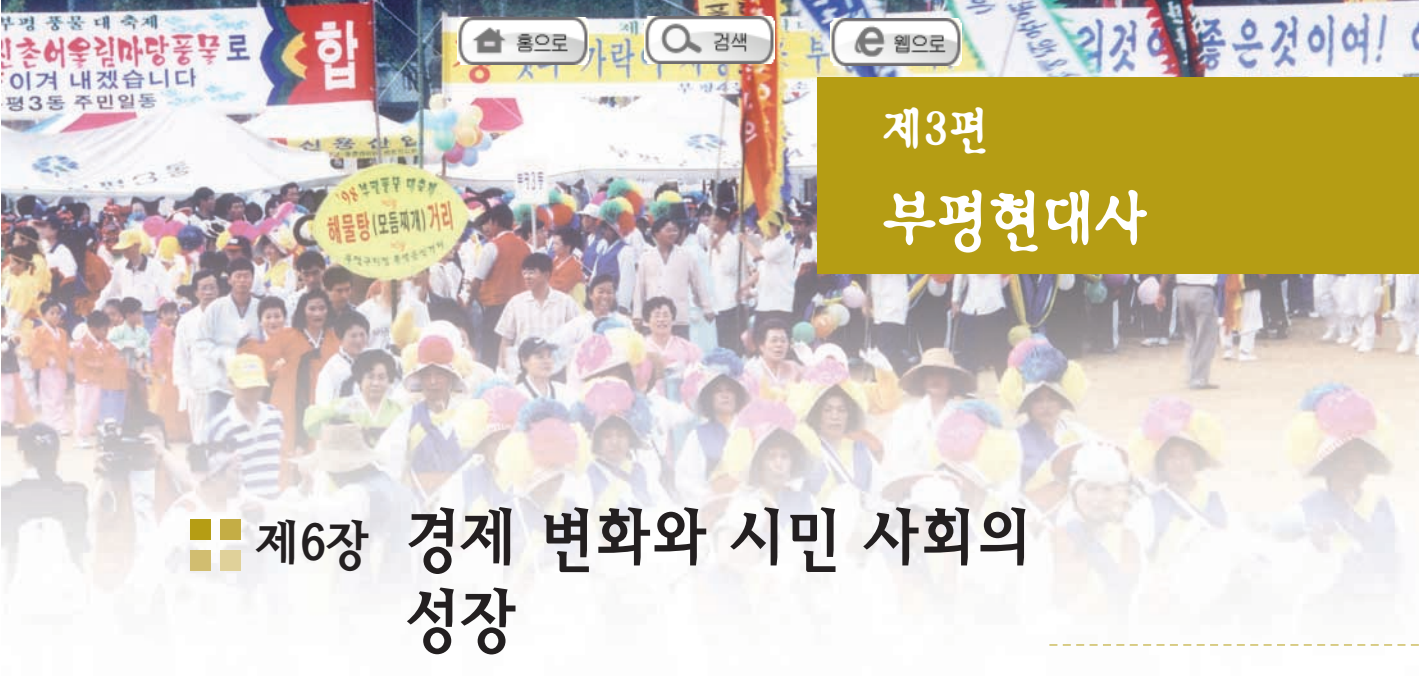
장 로타리를 중심으로 로터리 지하도상가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5개의 지하도상가에는 총 1,376개의 점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평역 지하상가가 총면적 9,544.91㎡에 42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설립연대가 가장 오래된 신부평로 지하도상가는 규모가 가장 작아 2,303.62㎡의 면적에 19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 지하도상가는 애당초 부평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라 부평대로상에 독자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다른 지하도상가들과 연결되어 부평역까지 이어진다. 부평역으로부터 바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되어 존재하는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도상가도 1980년에 완공된 매우 오래된 지하상가이다. 당시에는 부평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상업공간의 수요가 증가하였기에 지하도상가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부평역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 기능이 크게 쇠퇴한 상태이다.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도상가의 298개 점포들 중 약 절반 가량만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폐점 상태에 있다. 이는 경인전철이 주변 상권의 성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 시설 현황

시설명칭	준공일 또는 공사완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점포개소	무상사용 기간	관리청	연장기간	관리자
신부평로 지하도 상가	1978. 8. 31	2,303.62	808	190	1978. 9. 15. ~ 1993. 9. 14	부평구청	1994. 1. 13 ~2004. 11. 30 (무상연장)	신부평로 지하도 상가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도상가	1980. 3. 22	4,899.38	1,585	298	1979. 12. 20 1994. 12. 19	부평구청	1994. 12. 20 ~2003. 3. 30	(주)부흥기업
부평역 지하도상가 (구성일로)	1986. 9. 1	9,544.91	4,901	420	1986. 8. 16 ~2001. 8. 15	부평구청	개보수후 기부채납신청 (감정평가중)	(주)부평역 지하도 상가
성일로 2차 지하도상가	1993. 12. 27	6,164.02	4,500	259	1989. 7. 1. ~2004. 6. 30	부평구청	1989. 7. 1. ~2004. 6. 30.	성일로(주)
부평 지하도상가	2000. 7. 11	7,822.00	8,913	209	1998. 11. 16. ~2017. 4. 17	부평구청	1998. 11. 16. ~2017. 4. 17.	(주)대아기업 부흥회
계	–	30,733.93	20,707	1,376	–	–	–	–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부평역 지하공간 이용현황 및 활성화방안』, 2002.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의 상업경관은 지상 상가의 그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점포의 매장규모가 지상 점포에 비해 협소하여, 매우 집약적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포 업종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 지하도상가의 점포들 중 절반 이상이 저가 의류판매 업종이고, 기타 일상잡화와 악세사리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핸드폰 관련 전자통신 업종, 화장품 업종, 저가 음식점 등이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매장 규모도 넓으며 고가 전문 매장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하고 있는 역세권 지상 상가와 뚜렷하게 비교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하도상가의 상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적 소비욕구가 강한 청소년 및 청년층을 주고객으로 삼는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평역세권의 지하도상가 및 지상상가 상업기능의 차별적 발달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 부평역이 환승역으로 자리잡음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로 이어지는 동서 간선 교통축인 경인전철과 인천의 남북 방향 외곽의 기능지역들을 연결하는 교통축인 인천지하철 1호선이 부평역에서 만나게 됨으로 이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는 역세권이 형성, 사회경제적으로, 경관적으로 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장 경제 변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

제1절 시민사회

부평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대를 거치며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교육운동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 사회운동에 집중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수천, 수만의 시민들이 부평역 등지에서 집회를 가지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 아래 인천 지역의 항쟁을 주도하여 나갔다. 이어진 7 · 8월 노동자대투쟁기에는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 위에서 민주화세력과 노동조합 간의 결합이 시도되며 대규모의 파업이 전개되었다. 또한, 1987년 9월 25일에는 인천교사협의회가 창립되어 '민족 · 민주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천 지역의 교육운동을 주도해 나갔는데, 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이후 부평지역에서는 세일고, 대경여상, 명신여고 등에서 학내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 이 글은 곽경전(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책임집필하였음



세일고등학교 정문에 '민주교육만세' 라는 구호가 걸려 있다.

산곡동에 위치한 세일고등학교는 1987년 9월,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평교사협의회가 창립된 곳이다. 이후 세일고 학생들은 전교조 가입 교사의 해직을 계기로 학내 민주화 투쟁을 장기간 벌여 나갔다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다인아트, 2006.

이렇듯 부평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지역현안문제보다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거나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시민사회운동이 지역의 문제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며, 생활 각 분야에서의 일상적인 민주화를 시도해 나갔다.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지역문제로의 변화, 사회민주화운동으로부터 일상생활운동으로의 변화 속에서 계양산 개발 논쟁과 부평미군부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 계양산 살리기 운동의 시작

1990년대 부평지역 시민사회운동의 변화를 이끌었던 출발점이 되었던 곳은 계양산이었다. 1991년 (주)대양개발이 계양산을 위락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면서부터 촉발된 계양산살리기 운동은 2007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시민운동으로 자

리잡아 왔다.

1991년 7월, (주)대양개발은 소유지 45만 평 중 9만 1천여 평에 케이블카 등 90여 종의 위락종합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시를 거쳐 건설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이 당시에는 부평지역 내에 여론을 이끌어낼 만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역의 주요인사들이 맡게 되었다.

1991년 9월 25일, 계양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사들의 준비모임이 당시 북구의회 김종구 의원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준비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종구, 홍미영, 한영환, 최용규, 김성정, 김도연, 김상목, 이덕희, 최근식, 안영숙, 정희윤, 강병수 등 12명으로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계양산 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계양산 개발 저지운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에서 검토된 사항은 1) 계양산 개발계획의 개요 및 문제점 2) 시의원의 입장과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향 청취(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3) 계양산 보존협의회, 가톨릭 카르멜 수도원 등의 탄원서 검토 등이었다. 특히 카르멜수도원 측이 지역사회 각계에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탄원서에는 천주교 인천교구 북부 및 인접지구 사제단, 인접 수도원 · 수녀원과 불교 조계종 지선사도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정서생활의 피해가 예상되고,
둘째, 개발지구 내 교통량 증가 및 산봉우리 절토로 인한 서해안 공단지대로부터의 매연차단 기능 상실로 대기오염이 증가되며,
셋째, 대규모 공사시행에 따른 절토 및 축조에 의한 사토의 유실, 분진과 소음 발생 등으로 환경 파괴가 심히 우려된다.

9월 25일의 준비모임에서는 계양산 개발문제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최근식, 이덕희, 정희윤)와 조직 · 기획위원회(김종구, 홍미영, 김도연)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개발에 관계된 환경, 문화재, 법률적 측면을 담당하고, 조직 · 기획위원회는 모임의 조직적 위상과 운영일정을 논의, 준비 보고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1991년 10월 4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제1차 성명서 발표와 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계양산 답사 및 등산대회,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재정모금, 대중강연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날의 논의를 바탕으로 1991년 10월 8일 오전 9시 크리스탈 경양식에서 '계양산 개발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하의 제1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당일 참석자를 포함해 총 66명이 서명하였으며, 성명서는 서명자명단과 함께 건설부장관, 환경처장관, 문화부장관,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원 27명, 북구의원 44명 앞으로 발송되었다. 당시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양산 개발에 관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지난 7월 16일 인천시가 건설부에 제출한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공원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계양산 일대의 자연이 크게 훼손되어 극심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 지역의 수많은 문화유적지가 훼손·유실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절차 미비 사항을 중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대양개발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공원 개발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극심한 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고장에 주어진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해내고자 한다는 아무리 좋은 목적의 개발이라 해도, 산야를 심하게 깍아서 개발하려는 계획은 지역사회,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예상되는 골프연습장 건설과 실내수영장이 들어서는 문화회관등의 계획 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종합위락시설을 갖춘 시민공원이 없음으로 개발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송도해상신도시 및 영종도 일대에 종합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계양산은 인천의 몇 안되는 녹지대로서 서구의 해안공업단지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공기와 부평공단의 공해를 정화하는 등 인천의 극심한 환경오염을 줄여주는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계양산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지가 훼손되고 유실된 것으로 우려된다.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으로서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곳이다. 계양산성, 명월사, 만일사, 봉일사 등 12사찰터, 사직단과 성황당의 옛자리,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가 거처하던 자오당 터와 초정지, 중심성터 등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지표조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중한 우리고장 문화유적지가 크게 손실될 것이 우려된다. 다른 지방에서는 개발에 앞서 고고학자가 참여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손실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실정인 데 비해, 인천 지역에서는 그간 지표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제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 관계당국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이 개발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인천시 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계양산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은 법률에 의거하여 당연히 인천시 의회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시의회 검토를 생략한 채 건설부에 조급히 승인 요청을 하였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개발이 시행될 경우에 이 지역의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와 관련하여 마땅히 첨부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건설부·인천직할시 등 관계기관에 본 계획 승인 이전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선결적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지난 1989년 7월 27일 인천시가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형태로 조성되는 본래의 '계양공원개발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한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 공원 개방 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기 전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보편적 의사가 무시된 채 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관계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3. 현재의 인천직할시와 '대양개발'에서 추진 중인 '계양공원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바란다.

4. 문화유적의 보존차원에서 계양산 일대에 대해서는 고고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재 보존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란다.

1991년 10월 8일

『대양개발 민자유치에 의한 계양산개발』 추진을 우려하는 시민 일동

그리고 3일 후인 10월 11일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원회)가 김종구 의원 사무실에서 발족되었다.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다.

계양산살리기 범 국민운동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조직 명단

고문 : 박영걸(인하대 교수), 박재두(인하대 교수),
정기호(인하대 교수), 최세웅(계산중앙감리교회 목사),
신교선(계산동천주교회 신부), 정대식(까르멜수도회지부장 신부),
강금옥(노틀담수녀원지부장 수녀), 김덕화(지선사 스님),
윤찬승(계양산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위원장 : 정요일(인하대 교수)

위 원

학 계 : 이병춘(인하대 교수), 정영태(인하대 교수), 윤용만(인천대 교수)

의료계 : 전현수(대인병원 원장), 김정범(평화의료원 원장),
이준구(성모한의원 원장), 김상연(부일한의원 원장),
이문성(동서약국), 유경림(제철약국)

법조계 : 진영광(변호사), 문병호(변호사), 박순호(변호사), 이서영(법무사)

북구의회 : 김종구(의원), 홍미영(의원), 장영호(의원), 이재권(의원)

교육계 : 최근식(교사), 임병조(교사), 최임순(교사), 오석균(교사)

종교계 : 표덕철(계산중앙감리교회 장로), 김순옥(지선사 신도회장)
장철현(계산동 천주교회 평협임원), 최영숙(계산동 천주교회 평협임원)

사회단체 : 이덕희(공해추방 인천시민의 모임 대표), 박두환(계양산 보존협의회

총무), 황보윤식(한마을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시 민 : 윤경희(계산동 극동아파트 주민), 정동철(계산동 극동아파트 자영회 부회장), 강근숙(서해 아파트 주민), 박정희(가치골주부모임 회장), 윤영국((주)삼정사 대표), 김진호((주)꿀벌사 대표)
간 사 : 강병수(한겨레신문 북인천 지국장)

준비위원회는 그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국환경보호협회 인천시 지부 및 자연보존협의회와 연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능한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였다. 또한, 지역 내 각 정당과 사회단체도 적극 참여를 권유하여 (주)대양개발과 행정기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992년 1월 24일, 준비위원회는 계산중앙감리교회에서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공동대표에는 계산교회 최세웅 목사, 카르멜 수도회한국지부장 정대식 신부, 홍재웅 인하대 교수 등이 선임되었으며, 집행위원장은 정요일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이 외에도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이후 10만 인 서명운동이나 집회 등을 진행하며 계양산 개발로 인한 생태계와 녹지의 훼손, 교통체증의 유발 등을 경고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결국 1993년 인천시로부터 개발 계획을 반려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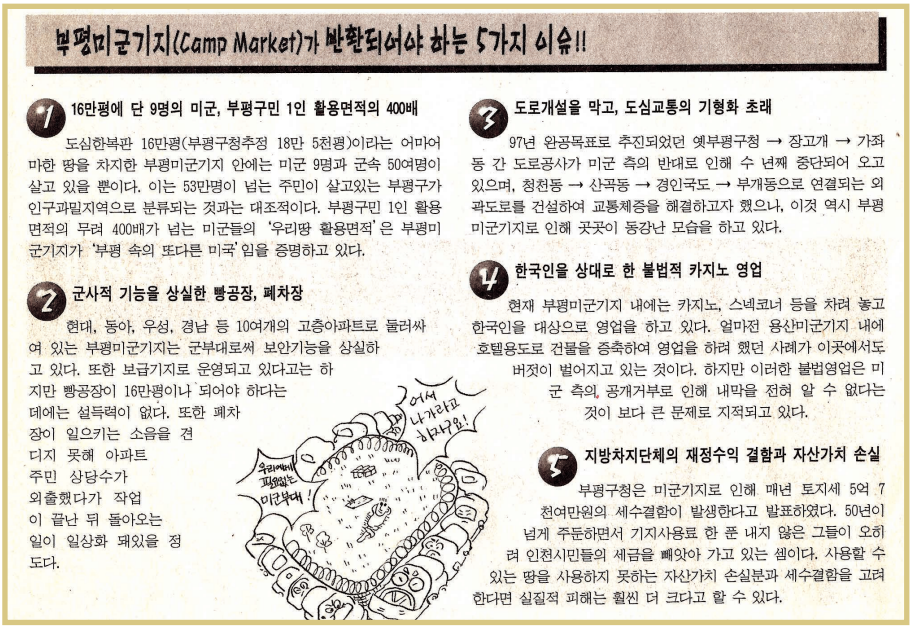
계양산 전경(1994)

학계, 정치인 등 단체와 개인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전개된 시민운동이었다. 지역주민들은 계양산 살리기 운동에 직접 참여해 나감으로써 계양산의 생태와 녹지 공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그 이전의 민주화 요구와는 다른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의 성격과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2. 부평미군부대 반환 및 이전 운동과 부평구민의 참여

계양산 살리기 운동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경험했던 부평지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부평미군부대'라는 또 하나의 지역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부평미군부대는 1973년 이후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면서 현재 산곡동 산 15번지 일대 59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은 9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이외에 한국인 노무자 400여 명, 카투사 10여 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도다. 과거 한국인 근무자만 수천 명에 달하던 애스컴(ASCOM)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그 규


부평미군기지(Camp Market)가 반환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1 16만평에 단 9명의 미군, 부평구민 1인 활용면적의 400배

도심한복판 16만평(부평구청추정 18만 5천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부평미군기지 안에는 미군 9명과 군속 50여명이 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53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있는 부평구가 인구과밀지역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평구민 1인 활용면적의 무려 400배가 넘는 미군들의 '우리땅 활용면적'은 부평미군기지가 '부평 속의 또다른 미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2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빵공장, 폐차장

현재, 동아, 우성, 경남 등 10여개의 고층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부평미군기지는 군부대로써 보안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보급기지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빵공장이 16만평이나 되어야 하다는 데에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폐차장이 일으키는 소음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외출했다가 작업이 끝난 뒤 돌아오는 일이 일상화 돼있을 정도다.

3 도로개설을 막고, 도심교통의 기형화 초래

97년 완공목표로 추진되었던 옛부평구청 → 장고개 → 가좌동 간 도로공사가 미군 측의 반대로 인해 수 년째 중단되어 오고 있으며, 청천동 → 산곡동 → 경인국도 → 부개동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것 역시 부평미군기지로 인해 곳곳이 동강난 모습을 하고 있다.

4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적 카지노 영업

현재 부평미군기지 내에는 카지노, 스넥코너 등을 차려 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얼마전 용산미군기지 내에 호텔용도로 건물을 증축하여 영업을 하려 했던 사례가 이곳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영업은 미군 측의 공개거부로 인해 내막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수익 결함과 자산가치 손실

부평구청은 미군기지로 인해 매년 토지세 5억 7천여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50년이 넘게 주둔하면서 기지사용료 한 푼 내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빼앗아 가고 있는 셈이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가치 손실분과 세수결함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소식' 1호(인천시민회의 발행)에 실린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모나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그런 점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 한미양국의 합의하에 이전이 확정되었고, 2007년 현재 이전 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부평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평미군부대가 부평지역의 주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를 이룬 것은 1996년 5월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된 '5 · 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이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인천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선언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 '10만인 서명운동', 인간띠 잇기 행사, 각종 공청회 · 설명회 개최, 농성 및 집회 등이 이어지며 대표적인 지역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이 중 인간띠 잇기 행사는 인천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1996년 7월 8일 구성된 '인간띠잇기 사업본부'에서 추진한 행사로, 같은 해 8월 11일 미군부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로는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와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이하 공추협)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민회의는 1996년 9월 20일 20여 개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단체로, 토요집회나 강연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반환운동의 의미를 알려나가는 한편,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대축전', 24시간 시민감시단 발족, 걷기대회, 부평구 전동(21개동) 동시다발 1인시위 등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1997년 5월 14일 공추협과 함께 진행한 '부평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



5 · 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 및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시민결의대회(1996. 5. 17)

를 거두었으며, 2001년 8월 11일에 개최한 인간띠잇기 행사에는 3천여 명이 참여하여 부평미군부대 전체를 사람들이 에워싸는 광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민회의의 활동 중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5월 25일부터 시작된 부평미군부대 앞 천막 농성이다. 2002년 3월 29일 반환이 결정될 때까지 천막 농성은 674일간이나 이어졌는데, 부평미군부대 정문 앞에 설치된 비닐로 쌓인 천막은 2년여의 기간 동안 반환운동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다.

인천시민회의와 함께 선두에서 반환운동을 이끌어왔던 또 하나의 단체가 공추협이다. 공추협은 1997년 3월 10일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부평시민모임, 부평청년회의소, 인천지역 감리교 목회자협의회, 부평사랑회, 산곡·.부평동주민대책위, 부평시장농산물상인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여 창립대회를 개최하며 발족하였다.

부평미군부대를 가운데에 놓고 인천시민회의와 공추협이라는 두 개의 다른 단체가 조직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인천시민회의의 경우, 주한미군은 궁극적으로는 철수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활동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미군부대를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배타적인 이전'은 또 다른 지역 문제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바탕에 놓여 있었다. 공추협 참여 인사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평지역이 안고 있는 캠프마켓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인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호와 활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캠프마켓 이전운동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정치행위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운동의 성격 및 방향성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가 결국 두 개의 조직화라는 결말을 맺게 하였지만, 이 두 단체는 상호 협의하에 공동행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5월 14일에 있었던 '부평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였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최된 공동행사였지만, 동의가 가능한 내용과 방식 하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공추협은 이후에도 매년 봄 무렵에 부평미군부대 주위를 한바퀴 도는 시

민걷기대회를 이어 나갔다. 캠프마켓 옆 공영주차장에 모여 풍물패를 앞세우고 캠프마켓 주위를 돌아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행사인데,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에서 아이들까지 따라나와 행렬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민 건강걷기대회(2002)

공추협의 활동 중 특징적인 것은 청원서명운동,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설문조사, 조례제정 추진 등 제도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공추협은 1997년 4월 9일 발족 후 첫사업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을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999년 5월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부평미군부대의 이전과 SOFA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 대통령선거와 1998년 전국동시지방자치단체선거, 2000년 총선 당시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공약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길거리 집회와 시위를 떠나 합법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공추협의 원칙을 재확인해 나갔다.

부평미군부대 반환 및 이전운동은 단순히 시민사회단체가 지역현안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멈추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시민사회운동의 주체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자리잡혀 나갔던 것이다. 이는 1980년대를 거치며 경험했던 민주화운동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민사회운동은 '운동가'들의 '사회운동' 차원을 벗어나 지역민들의 '생활운동'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평미군부대 앞 집회 모습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 연혁

1996. 4. 28 : 부평미군기지 대책을 위한 산곡동 · 부평동 주민 모임

1996. 5. 18 :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된 '5 · 18 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에서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10만 인 서명운동' 시작.

1996. 5월말~8월 : 인천 전지역 구별 서명운동본부 구성, 서명운동 전개(5만 명 이상 서명 참여). 이 기간 중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호인수 신부)에서 부평미군부대 되찾기를 위한 공개 설명회 개최.

1996. 8. 11 : 인간띠잇기 행사 경찰 원천봉쇄,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 연행.

1996. 9. 20 :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1996. 11. 5 : 인천부평청년회의소에서 '(가칭)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1996. 11월 : 미군부대 정문 앞 토요집회 시작.

1996. 12. 5 : 인천시민회의,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시민공청회 개최.

1997. 3. 10 :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창립대회 개최, 부평시민모임, 부평청년회의소, 인천 지역 감리교 목회자협의회, 부평사랑회, 산곡 · 부평동주민대책위, 부평시장농산물상인연합회 등 참여.

1997. 4. 9 : 공추협,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청원서명운동 개시.
1997. 5. 14 : 인천시민회의 · 공추협, 부평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공동 개최(1,000여 명 참여).
1997. 11월 : 공추협, 대선 후보들에게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공약사항 질의.
1998. 6. 1 : 공추협, 6.4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한 부평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설문조사 실시.
1998. 7월 ~ 1999. 4월 : 공추협, 소식지 발간(각 1만 부씩 모두 3호 배포).
1999. 5. 29 : 공추협, '99 인천시민 걷기 대회 개최(복개천 주차장, 400명 참석).
2000. 3. 25 : 공추협, '00 인천시민 걷기대회 개최(복개천 주차장, 300명 참석).
2000. 4월 : 공추협, 4.15총선에 출마한 인천 지역 출마자 전원에게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정책공약화 설문조사 실시.
2000. 5월 : 인천시민회의, 소식지 '미군없는 한반도' 발행.
2000. 5. 25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부대 앞 천막농성 시작(2002. 3. 29까지 647일간 진행).
2000. 7. 20 : 공추협,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캠프마켓의 이전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
2000. 8월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대축전 개최.
2000. 9. 30 : 공추협, '2000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과 부평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대회' 개최.
2000. 5. 11 : 공추협,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
2001. 4월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 3대 행동(1만인 선언운동, 24시간 시민감시단, 인천시민 강강술래)' 발표.
2001. 5월 : 인천시민회의, 24시간 시민감시단 발족(1개월간 진행, 연인원 700여 명 참가).
2001. 6월 : 인천시민회의, 시민감시단 활동결과 보고 기자회견.
2001. 7월 : 공추협, 주민투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 추진. 아파트 부녀회장단 간담회 개최(총 8회).
2001. 8. 11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간띠잇기 행사 개최(3,000여 명 참가).
2001. 12. 12 : 공추협, 주민투표 조례제정 청원서명 명부 제출 기자회견.
2002. 1월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 선포.
2002. 3월 : 인천시민회의, 부평구 전동(21개 동)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2002. 3. 29 : 한미양국, 부평미군부대 2008년까지 이전 발표.

2003. 4. 11 : 공추협,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2003. 12. 29 : 공추협,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소유권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
2004. 1월 : 공추협,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를 위한 특별법 청원서명운동 시작.
2005. 8. 31 : 공추협, 부평미군부대 반환대책을위한 시민사회 공청회 개최.

제2절 문화운동과 부평풍물대축제

1. 부평풍물대축제의 탄생

부평풍물대축제는 1990년대 부평지역의 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축이다. 풍물축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부평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싹텄다. 따라서 부평풍물축제라는 프리즘을 통해 부평 문화사의 단면, 그러나 결코 부분적인 단면이 아니라 핵심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부평풍물대축제에는 부평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겨있다. 축제의 역사는 2006년 현재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축제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평'이라는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축제를 통해 부평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부평이 지향하는 꿈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인천의 다른 어느 축제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다. 축제위원회와 기획단에 소속된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부평풍물대축제를 놓고 오랜 시간 진지한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2001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을 수행하면서 실시한 시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부평풍물대축제는 인천시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축제로 나와 있다.

물론 부평풍물대축제 역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부평축제를 한국의 지역 축제라는 지평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리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힘들다. 부평풍물대축제가 인구 260만 명과 재정 규모 약 4조 원에 달하는 한국 제3의 도시 인

※ 이 글은 이현식(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책임집필하였음.

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되묻는다면 대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평풍물축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완성을 지향해가는 미완의 축제이다. 요컨대 부평풍물대축제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보완하고 새롭게 가꿔가야 할 축제이다.

1) 축제 탄생의 배경

부평구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적 성격이 강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서울의 팽창으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단일한 거대 도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평은 전통적인 농경지대, 산업화시대 공단지역, 냉전 분단 시대 군사지역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지면서 수도권 주변부의 주거 도시로서 자기 위치를 강요받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그 결과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높아 외부 유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은 약화되면서 도시의 생산력은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하나의 지역으로서 도시 정체성이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평 자체만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거대 도시로 이해하는 시각에 서게 되면 이런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단 그 문제는 여기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사실, 서울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부평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평풍물축제는 이와 같은 부평지역의 위상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물론 부평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조금 더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가로 놓여있다.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과 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다. 자치단체장에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포함한 핵심적인 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영역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부평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도권의 여러 주변부 도시 중 하나로 다른 도시와 크게 구별될 것이 없는 곳, 요컨대 그냥 베드타운적 성격을 크게 벗어날 게 없는 도시가 부평이었다. 지역의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없는 변두리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부평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에 안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부평이 축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고민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축제는 여러모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 좋은 사업이었다. 성과가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투입과 산출이 현실에서 잘 증명되는 사업이었고 명분도 있었다. 축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아울러 지방정부 집행자들의 실체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정책 수단으로 떠올랐다. 부평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세 번째 해인 1997년에 축제를 시작한다. 풍물축제가 그것이었다.

부평평야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강점기 하에서 체계적인 도시로 개발된 부평은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지만 나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다. 부평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바닷가에 가까운 옛 인천 지역은 개항장이 있고 항구와 부두의 존재로 바다와 친숙한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부평은 오랜 시간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누려왔기에 원래의 인천지역과는 구별된다는 의식이 지역 토박이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부평은 일제 강점기부터 조성되기 시작된 병기창고와 각종 공업단지, 그리고 해방 이후 들어선 미군부대 등으로 애초의 그와 같은 정서는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더구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으로 지역경제가 상당부분 유지된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는 외부로부터 인구의 유입을 증가시켰다. 부평이 전통 있는 농업 지역이라고는 해도 그런 자취는 모두 사라져 버렸으며 지역에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장소 자산이나 문화재, 혹은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일부 토착민을 제외하고 주민의 대다수는 부평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부평에서 풍물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같은 부평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한 이유가 크다. 농경문화에 토대를 둔 부평 전래의 풍물을 살려나가면서 주민들의 지역 소속감을 고취하고 지역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축제가 고안된 것이다. 축제를 통해 사라진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시를 외부에 홍보할 수도 있고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관광객의 유치도 가

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섰던 것이다.

2) 축제 기획의 막전 막후

그렇다면 부평풍물대축제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기획되고 만들어졌는가. 풍물대축제는 1996년 '부평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의 기획안이 당시 최용규 구청장에게 제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부평문화예술제'는 1996년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평 늘푸른 예술제'를 확대하여 부평의 축제로 키워가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애초에 '풍물'이 핵심은 아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축제가 조금씩 생겨나던 터라 늘푸른 예술제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주였다.

'부평문화예술제'를 토대로 1996년 부평구청장실에서 당시 최용규 청장과 부평문화예술인회의 임종우, 민예총의 우수홍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기획안을 제출한 것이 이들이었으므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최용규 구청장은 일본 출장에서 관람한 '마쯔리' 형식의 축제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마쯔리'라는 것은 일본 고유의 축제의식을 담아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들 고유의 문화행사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찾아 복원하고 가꿔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 고유의 전통, 나아가 부평만의 특색을 찾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더구나 청장 취임 이후 부평을 대표하고 부평 사람들을 모아낼 문화행사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갖고 있던 터였다. 결국 축제의 핵심 테마를 과연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이런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런데 마침 삼산동 지역에 1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농기(農旗)가 존재하고 있었고 삼산 지역은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 종사인구가 많았다. 더구나 부평은 부평평야와 김포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전통적인 농경 지역임이 착안되어 축제의 핵심 테마를 풍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풍물로 결정을 한 뒤에도 실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였다. 기본적으로 축제를 통해 부평에서 풍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기획의 방향은 잡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평을 대표하는

삼산 농악이 남아있다고는 하더라도 한국 풍물계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거두나 인맥은 전무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평풍물축제의 내용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로 결합한 이가 조성돈(현 부평문화원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1980년대 인천문화운동연합에 가담한 경험을 통해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무엇보다 한국 풍물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은 많지 않은 젊은 세대의 일원이었다. 이제 조성돈과 함께 인천 지역 풍물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박창규와 서광일, 송성섭이 결합했고 초기 기획안을 마련했던 우수홍과 임종우가 1997년 축제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핵심 인사가 된다. 물론 여기에 부평사랑회의 주요 멤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구청장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부평풍물축제를 통해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쉽게 축제에 대한 공론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평에도 뭔가 지역을 대표하는, 혹은 지역을 묶어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보이지 않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평은 급격한 산업화와 수도권의 팽창 속에서 지역으로서의 위기의식을 적잖이 갖고 있었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돌파구로 축제는, 그것도 풍물축제는 커다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1997년 축제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당시 문화공보과 아래에 민간기획단이 꾸려지고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첫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축제를 위한 기초 기획안에 각 동(洞)별 풍물단을 조직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풍물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라면 적어도 풍물 인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또 그들이 축제의 주요 담당 주체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우수홍, 임종우, 조성돈, 박창규, 서광일, 송성섭 등은 동 풍물단 조직을 축제 성패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조직하게 된다. 구에서 마련한 예산으로 풍물을 구입하고 동별 자원봉사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 풍물단을 모집, 교육함으로써 풍물축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쌓게 되는 것이다.

2. 부평풍물대축제의 발전과정과 10년의 성과

부평풍물대축제는 2006년으로 꼭 10년째를 맞이하였다. 인천의 축제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축제로서 화도진축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된 축제가 부평풍물대축제이다. 지금 시점에서 부평풍물대축제의 발전과정을 일별해 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가 준비기라면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가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뒤에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가 서술된다면 여전히 준비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이 작성되는 2006년의 시점에서 보면 부평풍물대축제는 2001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2000년까지 부평풍물대축제는 이런 저런 실험과정을 거치면서 행사 주최 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원, 축제조직위원회 등으로 일관된 운영 주체를 갖추지 못했다. 행사장 역시 변동이 잦아서 축제가 정착되기 위한 여러 시험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축제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공식화되면서 운영주체로서 명확히 자리 잡게 되고 부평 대로를 중심으로 거리 축제로서의 성격이 뚜렷해지게 된다. 부평대로에서 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거리 축제로서 자기 성격을 분명히 하고 주 행사장을 부평대로(富平大路)로 공식화시키는 것은 2001년이다. 따라서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를 개괄할 때 2001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 살펴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부평풍물대축제 준비기(1997~2000)

연도별	1997	1998	1999	2000
개최 기간	6일간	3일간	5일간	3일간
개최 시기	9.30~10.5	9.25~9.27	10.8~10.12	9.29~10.1
개최 장소	부평구 관내 일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평대로
주관 단체	부평구	부평풍물대축제 조직위원회	부평구 · 부평문화원	부평구 · 부평문화원
예산액 (천 원)	215,605	145,286	243,427	239,254
연인원	10만 명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
테마	지역정체성 제고	제2건국 국난 극복 대동제	21세기 도약하는 새 부평 새 천년 번영의 부평	새천년, 새만남, 새희망 – Good bye, Mr. Owell

부평풍물대축제 발전기(2001~2005)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최 기간	8일간	7일간	6일간	5일간	5일간
개최 시기	9.16 ~ 9.23	9.30 ~ 10.6	6.3 ~ 6.8	5.19 ~ 23	5.25 ~ 5.29
개최 장소	부평대로 외	부평대로 외	부평대로 신트리 공원	부평대로 신트리 공원	부평대로 신트리 공원
주관 단체	부평구축제 추진위원회	부평구축제 추진위원회	부평구축제 추진위원회	부평구축제 위원회	부평구축제 위원회
예산액	3억 7천만 원	2억 8천 5백만 원	2억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연인원	45만 원	50만 원	–	–	–
테 마	하나 더하기	어울림 – 흥으로, 신으로, 바람으로	난장 – 두드리고, 놀고, 즐기자	더불어 – 아시아와 함께하는 부평의힘	力 + 動 – 다이나믹 부평

* 세부 시행계획, 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 2004년부터 주관단체의 공식명칭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로 변경
* 2003년부터 참가 연인원을 추산하지 않음

1) 부평풍물대축제 준비기(1997~2000)

1997년 부평풍물대축제는 비교적 성공리에 끝났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종합적인 축제는 당시 인천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평풍물대축제와 제2회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이 혼용되어 풍물축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다. 관에서 주도한 행사이다 보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였다.

1997 부평풍물대축제의 행사 내용	
구 분	행사 내용
공연행사	· 사물과 관악합주단 협연공연 · 사물과 재즈협연공연 · 풍물명인전 및 우리가락한마당 공연 · 현대 및 고전무용 공연
체육행사	· 구민 민속체육대회 · 에어로빅 경연대회
경연대회	· 제1회 전국풍물경연대회
어우러짐 마당	· 풍물길놀이 · 지신밟기 · 대동놀이
난장마당	· 모둥이풍물공연 · 사물놀이 배우기 · 왕장기대회
문화행사	· 목아불교박물관 소장품 전시회 · 사생실기대회 · 미술기획 전시 · 생태사진 전시 · 연극 공연
학술행사	· 풍물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세미나
기타행사	· 불꽃놀이 행사 및 먹거리 장터

1998년 두 번째 축제는 IMF체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행사를 한달 앞두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사회 정서상 통용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5일로 계획되었던 행사가 3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8년 축제는 나름대로 민간전문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시도를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평풍물대축제조직위원회가 그것인데 그러나 아직 이런 민간기구가 축제 행사를 주도해 나가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8 부평풍물대축제' 광경

1999년은 인천광역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해인데 개막식에 부평 동풍물단이 대거 참여하여 부평풍물대축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축제 행사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전국체전행사가 10월 11일 개막되어 축제와 연계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99년에 들어와 축제 장소로 근린공원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 공원에서 하는 축제는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내기에 여러모로 부족했고 당시 박수묵 구청장은 부평대로를 축제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상을 탈피한 축제 본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2000년 부평풍물대축제는 시험적이지만 부평대로를 막고 거리 축제를 시

도하게 된다. 아울러 이때부터 축제를 운영시켜 나갈 민간상설기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이런 조치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작용하였다. 2000년 축제부터 행사의 주제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기 시작한다. 2000년 축제의 주제는 '새천년, 새만남, 새희망 – Good-bye, Mr. Owell'로 그 이전의 고루한 주제로부터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부평풍물대축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종합적인 축제로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00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구성

구 분	행사 내용
공연행사	· 부평풍물완판공연 · 개막축하음악회 · 젊음의 축제 · 인간문화재 초청공연 · 무형문화재초청 공연 · Art – Cross Over
문화행사	· 기획초대전(Good-bye Mr. Owell) · 시낭송회 · 사진전시회 · 가족영화 상영 · 우표전시회 · 한국의집 예술단 공연 · 청소년 예술제 · 전통과 현대의 만남 공연
경연행사	· 학생풍물 경연대회 · 부평골 왕장기대회 · 부평구민 민요경창대회 · 여성합창제 · DDR경연대회
거리행사	· 엿장수 · 군악대 · 길거리낙서판 · 캐리커쳐 · 페이스페인팅 · 컴퓨터게임 · 도자기 시연 등
구민화합마당	· 퍼레이드 · 전통문화체험마당 · 생활체조발표회 · 구민노래자랑 · 무술시범 등
지역경제지원행사	· 경품대잔치 · 캐릭터 판매센터 운영 · 상가별 이벤트 행사 등

부평풍물대축제는 행사 구성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격이 다른 여러 행사들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이 하나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는 종합문화행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풍물경연대회와 부평풍물완판공연, 그리고 일부 공연행사 정도이다. 경연대회와 거리 행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풍물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일부 유지해가고는 있으나 행사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물론 이런 행사 구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평풍물대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행사 운영 주체가 부평구에 있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2) 부평풍물대축제 발전기(2001~2006)

2001년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부평풍물대축제는 민간축제로 거듭나게 된다. 축제의 주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되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축제추진위원회가 맡았고, 행사의 기획과 예산의 편성은 추진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2001년 부평풍물대축제는 여러모로 그 이전의 축제와 구별된다.

우선 거리축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말 이틀 동안 부평역부터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 이르는 약 900m의 8차선 대로를 막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도심 속의 거리축제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2001년 축제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풍물축제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객관적인 축제 평가를 받게 된다. 당시 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축제의 연혁을 정리하고 관람객 설문조사와 거리 통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을 종합하여 부평풍물축제의 차별화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중심의 축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풍물의 전문성, 거리축제로서의 발전 전략 등을 다양하게 토론하였다. 한편, 2001년 부평풍물축제추진위원회가 밝힌 발전전략에 따르면 2001년을 대표적인 도시 문화·거리축제로 정착시켜 2002년에는 아시아의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이 만나는 축제로, 2003년에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2001 부평풍물대축제' 씨름대회 광경

계획의 현실성을 떠나 민간중심의 축제전담기구가 결성됨으로써 축제에 대한 민간의 적극성과 다양한 기획력이 결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부평풍물대축제의 역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는 부평구의 공무원, 구의원, 지역의 기업인, 그 외 다양한 오피니언리더

들이 참여하고 기획단에는 실무자와 축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원적 조직 구성을 함으로써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실무를 뒷받침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2002년은 월드컵열풍이 불었다. 많은 문화행사가 월드컵 개최기간인 6월을 전후로 개최되었고 민간기구로 이전된 부평풍물축제는 큰 무리 없이 행사가 치러졌다. 그러나 2002년부터 행사기간을 단오를 전후로 한 5, 6월로 옮기는 것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부평풍물대축제는 매년 9, 10월 경에 개최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때는 지역축제가 몰려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행사 진행, 공연자 초청 등에 어려움을 겪던 터였다. 또한 기획단의 상설화 논의도 이루어지게 된다. 기획단이 상시적으로 축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2006년에 들어와 사무국장의 상근화가 결정되면서 현실화된다.



'2003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2003년 부평풍물대축제는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부평풍물대축제는 상반기에 개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던 행사도 2003년도부터 통일감을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난장'이라는 주제 아래 타악마당, 놀이마당, 참여마당으로 행사의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행사 포맷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3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구성

구 분	행 사 명
전야제	· PCN 주관 M-Net TV "쇼킹 엠" 공개방송
공식행사	· 축제개막식 · 축제공식 초청공연
타악마당	· 사물놀이&어울림 · 김덕수초청공연 · 창작공연 · 태극 · 만남&아트크로스오버
놀이마당	· 부평풍물완판공연 · 무형문화재초청 공연 · 부평마당놀이
참여마당	· 부평난장2030 · 부평단체참여행 사 · 인천지역문화단체공연 · 청소년힙합페스티발 · 락페스티발 · 국악한마당 및 명인전
대동난장	· 만 만 세
체험마당	· 전통문화학습체 험마당 · 타악체험마당 · 놀이체험마당 · 예술체험마당
경연대회	· 학생풍물 경연대회(전국, 인천) · 동풍물경연대회 · 국악경연대회 · 부평골왕장기대 회 · 민속그네뛰기대 회 · 씨름왕선발대회
예술무대	· 예술이 흐르는 노천카페 · 어린이인형극 · 이야기가 있는 무대 · 클래식 향연 · 춤, 마임, 몸으로 하는 노래 · 세계의 문화마당
부대행사	· 지역경제활성화행사 · 부평사랑행사 · 학술행사 · 퍼포먼스 · 상설행사 · 축제사진전 · 전시행사 · 거리이벤트

풍물행사는 더욱 늘어나고 다채로워졌지만 풍물과 관계없는 여러 행사 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타악마당, 놀이마당, 경연대회, 대동난장이 풍물축제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행사들이 나열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04년 부평풍물대축제는 '더불어~(Together)'라는 주제로 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2004년 축제에서는 2003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국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운영본부와 종합 안내소를 분리 운영하여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각 마당별 운영본부를 신설하여 행사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도모하였다.

2004년 축제는 '아시아와 함께 하는 부평의 힘'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의 전통타악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인다. 이를 위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였는데, 공식문화교류차원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의 공연팀을, 민간문화교류차원에서 일본의 3대축제의 하나로 4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아와오도리의 마쯔리팀을 초청하였으며, 유네스코 단체를 통해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의 해외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평난장 2004'를 처음으로 프린지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인천 지역뿐

만 아니라 수도권팀 문화예술동아리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이해에는 부평구 캐릭터인 '부디', '부니'를 이용한 다양한 축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부평구와 계양구에 거주하는 30대~50대 시민들이 가족 및 친지를 동반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 지역의 방문객 비율은 5.2%로 2001년도의 2.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진행된 포스터와 플래카드 중심의 행사고지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홍보의 강화 등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축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행사장의 청결성 및 주차장, 화장실, 휴식 공간 등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축제가 여타의 행사가 집중되는 5월 셋째주에 진행되는데,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2005년 부평풍물대축제는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力 + 動 · 다이나믹 부평'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2005년 행사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큰 변화없이 진행되었다.

'2006 부평풍물대축제'는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2006년 축제는 부평풍물대축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다. 우선, 축제위원회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따로 두고 기획단원의 수도 대폭 늘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제를 '풍물의 허브'로 내세워 부평풍물축제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있다. 스스로의 전통이 취약한 상태에서 풍물을 매개로 국내외 풍물의 네트워크와 허브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축제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5개국의 해외초청행사와 10주년 기념 창작공연, 풍물 명인전, 풍물인 대회 등을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기획을 제외하면 2003년의 행사구성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2006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전야제	· KBS 국악관현악단, 장사익, 안치환, 안숙선 외
공식행사	· 축제개막식 · 거리축제 개막 축하공연
풍물마당	· 해외초청공연(5개 국) · 국내초청공연 · 풍물명인전 · 기획공연 · 축제 10주년기념 창작(주제) 공연
놀이마당	· 부평삼산두레농악공연 · 무형문화재초청 공연(7개 팀) · 전국팔도풍물공연(4개 팀) · 인천무형문화재 초청공연
참여마당	· 부평난장2006: 인천, 부평지역 문화단체 · 프린지축제 : 서울 수도권지역 문화예술단체
대동마당	· 부평만만세 · 부평 길놀이
예술무대	· 인형극 · 가족을 위한 무대 · 작은 음악회 · 춤과 마임 · 퍼포먼스 · 퓨전 뮤직 · 크로스 오버 · 실험무대
전시행사	· 축제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 기획초대전 · 세계타악기 전시관
학술행사	· 부평풍물대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전략
경연대회	· 학생풍물 경연대회(전국, 인천) · 동풍물경연대회 ·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부대행사	· 지역경제활성화행사 · 지역단체참여행사 · 왕장기대회 · 씨름왕선발대회 · 민속그네뛰기대회 · 축제사진공모전 · 부평사랑행사 · 인천산업체전시, 참여행사 · 전통문화체험

'2006 부평풍물대축제' 의 거리 풍경



한편 부평풍물대축제 10년을 맞아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부평풍물축제 터놓고 말하자' 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다시 한 번 관람객 설문조사와 평가를 받는다. 심포지움에서는 앞으로 풍물축제가 발전하기 위해 현재의 조직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 축제위원회의 법인화가 논의되고 부평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틀을 넘어서는 문제가 과제로 제기된다.

3) 부평풍물대축제 10년의 성과

부평풍물축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일관되게 발전해 왔다.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초기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평구청이라는 행정조직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부평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조 아래에 스스로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요컨대 외부 기획사에 의해 축제가 의도된 연출로 끝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점은 축제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다소 실수도 있고 어설프기도 했으나 구청의 직원들과 부평지역의 문화 예술인, 문화기획자 등이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 갔다. 그런 노하우가 매년 축적되면서 축제는 거듭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축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결과도 얻었다. 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축제 마니아, 풍물 마니아로 바뀌어 아마추어 수준을 능가하는 축제 기획자와 공연 연출가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2001년부터 부평의 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시민단체 관련자, 관련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조직될 수 있었던 현실적 힘은 그런 데서부터 연유한다. 부평구는 2001년 부평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공식 기구화하고 기획단을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도 확보하였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으로 부평풍물대축제는 2001년부터 범 구민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평구청이 외부의 축제 대행 기획사에 일임하는 편한 길을 선택했더라면 기획사의 상업적 의도로 여느 축제와 다를 바 없는 그렇고 그런 축제로 전락했을 것이며,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나 지역 내 문화적 역량의 성숙은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기획사가 매번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지역에 축적되는 것 역시 많지 않았을 것이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매년 기획단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평가를 거치고 왕성하게 논의를 하여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한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와 부평구는 이들을 신뢰한다.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상대로 축제위원회나 기획단, 부평구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

너십을 구축하였다. 축제를 처음 기획할 당시부터 외부인이 아닌 부평지역을 고민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논의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유된 점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평 전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컸고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 대안이 뚜렷하지 못했던 부평의 입장에서 축제 하나만은 성공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도 절박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어도, 축제 위원장이 바뀌어도 풍물축제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서 참고로 역대 축제위원회 위원장과 기획단장 및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역대 임원명단과 소속은 부록을 참조할 것).

축제위원회 위원장 · 2001~2002년 : 허문명
· 2003~2005년 : 심갑섭
· 2006년 : 빈종구

축제기획단장 · 2001~2003년 : 이범호
· 2004~2005년 : 황순형
· 2006년 : 우수홍

축제기획단기구 · 2001년 : 행사국, 사업국
· 2002~2003년 : 사무국, 행사국, 사업국, 홍보실
· 2004~2005년 : 행사국, 사무국, 홍보국, 사업국
· 2006년 : 행사국, 운영국, 사무국, 홍보사업국

그런데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이런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동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풍물패의 존재이다. 부평구에는 21개의 행정동이 소속되어 있는데 모든 동별로 주민의 자발적인 풍물패가 있는 것이다. 비록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풍물 인구의 존재는 풍물축제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즉, 외부 풍물패에 의해 축제가 인위적으로 '기획' 되고 '공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잔치마당이 벌어지고 거기에 외부 풍물패가 결합되었던 것이다. 일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800여 명 내외에 달하는 이들 풍물단의 존재야 말로 부평풍물대축제를 아래로부터 버텨나가는 실질적인 힘인 것이다.

아울러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던 거리축제 역시 부평풍물축제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약 900m에 달하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하고 이곳에서 축제를 개최한 것이 주효했다. 처음 부평대로를 행사장으로 선택했을 때는 교통 대란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행사는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축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효과를 얻었다. 도심 한복판의 대로가 축제의 마당으로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다. 항상 자동차로 가득 찼던 도심 한복판의 대로가 축제의 마당이 되면서 도시인들에게 일상을 벗어나는 신명과 해방의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역 상가의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2001년부터 주기적으로 축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2001년을 시작으로 2004년, 2006년 각각 외부기관에 축제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귀를 열어 놓았다. 2001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 2004년에는 숙명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 2006년에는 인천문화재단에 각각 관람객 설문조사와 축제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축제 전문가와 부평풍물대축제의 관계자가 축제의 발전방향, 운영 방침, 기획 내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고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시도는 스스로 자기 안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주최 측의 정책적 노력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한 여러 축제 전문가와의 인적네트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축제의 홍보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거두었다. 비단 2001년, 2004년, 2006년 이외에도 부평풍물축제는 초창기에 다양한 방식의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997년에는 풍물을 통한 도시축제의 발전방안 모색, 199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1999년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지역 활성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술행사를 개최했던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004년에는 풍물 자체를 주제로 선택하여 '부평 풍물

의 복원을 위한 발전방향' 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도 있다.

3. 부평풍물대축제의 특성과 과제

1) 부평풍물대축제의 특성

부평풍물대축제는 10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자기 나름의 특성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완전하고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부평풍물대축제는 도시의 거리축제로서의 특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갖고 있다. 이는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도심지의 대로 한복판이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축제가 제례의 성격과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다면 부평풍물대축제는 일상의 탈출을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로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평역으로부터 부평시장에 이르는 부평대로는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번화가이다. 더구나 부평역 앞 5거리는 교통과 상업의 요지이다. 왕복 8차선 대로이고 항상 교통이 번잡한 곳이므로 이곳이 축제장소로 개방되는 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다. 주말 이틀간 차 없는 도로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로 위를 오가고 여러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도심에서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이다. 더구나 교통 통제를 통해 인천지역 내에서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도 톡톡히 했다.

두 번째로 부평풍물대축제의 특성은 지역밀착형 축제라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축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특히 축제의 운영 주체 면에서 그렇다. 부평풍물대축제를 끌고나가는 주체는 우선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 기획단의 축제 전문가 그룹, 부평구의 행정관료 그룹, 그리고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풍물단이다. 이 네 그룹이 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러므로 부평풍물대축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런 점에서 부평풍물대축제는 지역 화합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세 번째로 부평풍물대축제만이 갖고 있는 몇몇 주요한 행사가 이제 부평

축제의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생풍물경연대회이다. 풍물경연대회는 1997년 처음 기획될 때부터 등장한 행사로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와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로 나뉘는데 이 두 행사는 인천과 전국 풍물동아리에게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풍물경연대회를 통해 부평풍물대축제는 풍물 후속세대를 키우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길놀이 부평 만·만·세(萬·萬·歲) 역시 부평풍물대축제를 상징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 축제 마지막 날 밤에 참가자가 모두 참여해서 거리 축제 행사장 전체를 활용하는 대동놀이 프로그램이다. 1,000여 명의 풍물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동과 화합의 난장 마당으로 그 자체가 이벤트이다. 2006년에는 '풍물의 허브 부평, 하나되는 부평'이라는 주제로 '출정(기원의식)-진격(갈등과 대립)-화합(해원의식)-어울림(상생의 한마당)'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여러 부대행사로 인해 그 주제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두개의 행사로 인해 풍물축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
(2007 부평풍물대축제)



2) 부평풍물대축제의 과제

앞에서 서술한 부평풍물대축제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축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축제 방향성의 정립

부평풍물대축제의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풍물을 주요 테마로 하는 전통예술제로서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평대로를 축제장소로 택하면서 도시의 거리축제로서의 특성도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 화합축제로서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특성 가운데에서 부평풍물축제가 과연 무엇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을 것인가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풍물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예술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려면 지금의 구조로는 부족하다. 행사의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이 축제가 전통적인 풍물을 핵심 근간으로 삼고 있는가가 회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풍물 하나를 보기 위해 부평풍물축제를 찾을 정도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만약 그것이 쉽지 않다면 풍물을 매개로 하는 도시의 거리 축제 정도로 내실을 기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산만한 구성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 지금의 행사 구성을 통해서는 여느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다. 또한 지나치게 관광형 축제로 목적을 내걸어서는 실패하기 쉽다. 정말 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내용을 만들어 놓은 뒤에 할 일이다.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축제로 적정한 규모에서 행사의 내실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축제로 성공하는 길이다.

어떤 방향이건 중요한 것은 축제의 핵심 방향을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은 의욕만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부평풍물대축제의 모습은 달

라질 것이다.

(2) 축제 운영 주체의 변화

부평풍물대축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2001년 민간축제로 이전하면서 부평풍물대축제는 말 그대로 구민의 축제로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마찬가지로 새로운 1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10년의 역사를 거친 축제로서 현재의 구조와 관행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핵심은 축제를 운영하는 체제와 인력에 있다. 축제를 기획하고 수행해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축제의 내용이나 방향은 그런 시스템과 인력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정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는 어떻게 운영체제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현재 축제를 운영하는 핵심 조직인 기획단은 이미 점차 노령화되고 있다. 부평구의 틀 안에서 축제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문제이다. 재정과 인력 면에서 부평풍물대축제는 그 추진 동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동력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부평이라는 지역의 굴레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부평의 지역 축제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과 운영 시스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 부평의 지역 축제로서 정체성은 살려가되 내용과 형식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 방식의 하나가 부평 축제를 인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부평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의제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축제의 관리, 감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는 것을 뜻한다. 부평구와 축제위원회는 여기에서 일부 권한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치구의 축제가 아닌 인천의 대표 축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 인천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된 축제로 부평풍물대축제를 육성시켜 가야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평풍물대축제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부평 문화권을 대표하는 공공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의 법인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축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단체, 개인,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틀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재정적인 지원 역시 훨씬 자유롭게 여러 기관과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한국을 대표하는 풍물계의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 되든 부평풍물대축제가 변신의 어려움을 뚫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다.

(3) 행사 구성의 집중과 선택

부평풍물대축제는 2000년부터 축제의 주제를 내세워왔다. 2000년 '새천년, 새만남, 새희망, Good-bye, Mr. Owell'로부터 2006년 '풍물의 허브'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주제는 다양했다. 그러나 행사의 구성 내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주제와 무관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행사들이 배치됨으로써 축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축제가 지향하는 내용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사구성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요컨대 축제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부평풍물대축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외화된 것이다. 축제의 방향성이 더욱 치밀하게 정리되지 못했고, 핵심 내용을 기획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행사를 배치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지나치게 많은 부대행사와 예술무대와 참여마당 등은 단기적으로는 관람객을 끌어 모을 수는 있어도 축제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행사들이다.

물론 이런 행사의 구성은 부평풍물대축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풍물을 중심으로 도시의 거리축제를 지향할 것이라면 주제의 선정과 주제를 뒷받침할 핵심 행사를 중심으로 축제가 구성되고 그 핵심행사에 축제 운영의 모든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제와 기획력을 이곳에 맞추고 필요하다면 예술 감독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풍물 연구와 풍물 정신의 창조적 재창안

부평풍물대축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평에서 풍물의 특정 영역에 대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2006년 부평은 '풍물의 허브'를 축제의 주제로 내세웠으나 과연 스스로 풍물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이는 앞으로 '풍물의 허브'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더 강하겠지만 그런 의지조차도 일정한 로드맵과 함께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높다.

부평이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랜 시간 풍물의 전통이 쌓인 것도, 풍물의 명인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물에 대한 현재적 재해석, 풍물의 사회문화적 연구, 풍물을 활용한 문화컨텐츠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풍물이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시 권위적 정부 아래에서 민중의 약동하는 생명력과 저항 정신을 풍물에 담아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욕 때문이었다. 그것이 상당 기간 동안 전국의 대학가를 휩쓸었고 한때 탈춤과 풍물이 대학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때도 있었다. 이는 전통 연희인 풍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부평 역시 풍물을 어떻게 현재화할 것인가, 박제화된 전통으로부터 오늘의 일상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의 여건에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은 관련 대학과의 협력관계 구축, 다양한 심포지움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초 연구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평풍물대축제로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5) 풍물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풍물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풍물축제를 하는 고장이면서 풍물과 관련된 인프라는 거의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동별 풍물단의 존재 이외에 부평에는 풍물과 관련된 인프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풍물 전용 공연장, 연

습장, 교육기관, 풍물 관련 악기 판매점, 풍물 관련 유무형 문화재, 관련 박물관 등을 갖춰가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가능하다면 풍물 공원, 혹은 풍물 거리를 조성해서 이곳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일도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이 일은 부평구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의 여러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인천시와 중앙 정부에도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부평풍물대축제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4. 부평풍물대축제와 시민 사회

축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 중 하나는 지역 활성화이다.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 영역을 포함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그 핵심에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관과 민, 민과 민이 상호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밑거름이며 축제의 성공은 대개 이렇게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축제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90년대 부평풍물대축제가 거둔 최대의 성과는 부평 시민사회 형성에 축제가 기여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저항적인 노동운동이나 지역운동과는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부평에서는 축제를 매개로 과거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혹은 시민단체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아울러 지역 원로, 구청 소속의 관료, 지역 경제계 인사 등도 이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면서 모범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이나 축제위원회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은 부평풍물대축제를 떠나 부평이라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들이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이런 사람들이 축제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봉사하는 행사이다.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아울러 동(洞) 풍물단과 이들이 결합하면서 말 그대로 풀뿌리 자치 축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부평은 이와 같이 풍물대축제를 거치면서 부평 고유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정확히 들어맞는,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으로 평가해도 족하다.

앞에서 부평풍물축제의 발전과정이나 부평풍물대축제가 거둔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부평은 풍물대축제를 계기로 부평의 시민사회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겪는다. 세대, 지역, 계층, 정치적 이념과 성(性)을 뛰어넘어 이들은 축제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이들의 직접적 관심사는 축제의 성공이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축제에 대한 기획 과정을 통해 다시 토론과 회의를 거듭하고 그것이 부평구, 부평구의회와 조정과 협의를 거친다. 토론과 회의, 조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평의 시민사회는 지역 내의 여러 의제들이 함께 논의되기도 하며 축제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갈등의 요인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민과 관, 지역 정치권 등이 열려있는 토론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부평풍물축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부평지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힘은 2000년대 들어 부평 문화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원동력이 모아져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기적의 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을 구와 구민이 힘을 합해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평문화재단이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록]

부평풍물대축제 역대 운영진(2001~2006)

2001 부평풍물대축제

1. 추진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워원장	허문명	(전) 단국대학교 총무처장
2	부위원장	임남재	임소아과 원장
3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4	감 사	임덕수	세무사
5	감 사	두충근	구의원
6	위 원	오태석	부구청장
7	위 원	곽영기	총무국장
8	위 원	이해용	사회산업국장
9	위 원	조영하	도시국장
10	위 원	황충식	구의원
11	위 원	정석원	문화원 부원장
12	위 원	류상경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13	위 원	양의석	부평구예술인회 회장
14	위 원	이부진	현대일보 기자
15	위 원	김은숙	동연합풍물패 회장
16	위 원	김용구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장
17	위 원	박순자	여성단체 협의회장
18	위 원	이영유	예술행동 공연예술연구소 대표
19	위 원	유재근	부평구음식업지부 장
20	위 원	구길회	성일로지하상가 회장
21	위 원	진영광	고문 변호사
22	위 원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23	위 원	조항근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회장
24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25	위 원	이범호	㈜드림 텔레콤 대표

2. 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이범호	㈜드림 텔레콤 대표
2	행사국장	신종택	부평공업고등학교 교사
3	사업국장	황순형	(전)현강문화재단 사무국장
4	사무처장	유거봉	문화관광팀장
5	홍보팀장	이찬희	(수)한울시스템 마케팅 이사
6	시설팀장	김창호	축제기획자
7	행사팀	장강영	구문화공보실
8	단 원	이영유	예술행동 공연예술연구소 대표
9	단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 소 이사
10	단 원	이명희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11	단 원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 협회
12	단 원	곽경전	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3	단 원	안상수	성일로지하상가 총무
14	단 원	인태현	문화의거리발전추 진위원회 총무
15	단 원	조성돈	문화원 사무국장
16	단 원	박창규	전문 풍물인(한울소리)
17	단 원	서광일	전문 풍물인(잔치마당)
18	단 원	최경숙	인천연대부설 시민문화센터 사무국장
19	단 원	김희순	부평구예술인회 사무국장
20	단 원	임문택	부평여자공업고등 학교 교사
21	위원회간사	민병규	문화공보실장
22	파견공무원	정철호	시민봉사과

2002 부평풍물축제

1. 추진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워원장	허문명	(전)단국대학교 총무처장
2	부위원장	임남재	임소아과 원장
3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4	감 사	임덕수	세무사
5	감 사	조재국	구의원
6	위 원	김익오	부구청장
7	위 원	곽영기	총무국장
8	위 원	이관진	사회산업국장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9	위 원	조영하	도시국장
10	위 원	황충식	구의원
11	위 원	심갑섭	(전) KBS 총국장
12	위 원	최종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13	위 원	양의석	부평구예술인회 회장
14	위 원	이부진	현대일보 기자
15	위 원	김은숙	동연합풍물패 회장
16	위 원	유병태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17	위 원	손순철	여성단체 협의회장
18	위 원	이영유	예술활동 공연예술연구소 대표
19	위 원	유재근	부평구음식업지부 장
20	위 원	구길회	성일로지하상가 회장
21	위 원	진영광	고문 변호사
22	위 원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23	위 원	임철규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회장
24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25	위 원	이범호	㈜드림 텔레콤 대표

2. 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이범호	㈜드림 텔레콤대표
2	사무국장	강영균	문화공보실장
3	행사국장	신종택	부평 어울문화원 원장
4	사업국장	황순형	(전) 현강문화재단 사무국장
5	홍보실장	이찬희	㈜한울시스템 마케팅 이사
6	행사1팀장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7	행사2팀장	서광일	전문 풍물인(잔치마당)
8	행사3팀장	강영구	문화공보실
9	시설팀장	김창호	축제기획자
10	사무차장	이기춘	문화관광팀장
11	단 원	이영유	예술행동 공연예술연구소 대표
12	단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13	단 원	이명희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14	단 원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15	단 원	곽경전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6	단 원	안상수	성일로지하상가 총무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7	단 원	인태현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총무
18	단 원	박준영	전문 국악인(서도소리)
19	단 원	서광일	전문 풍물인(잔치마당)
20	단 원	최경숙	인천연대부설 시민문화센터 사무국장
21	단 원	김희순	부평구예술인회 사무국장
22	단 원	임문택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23	단 원	임진규	문화공보실

2003 부평풍물대축제

1. 추진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심갑섭	(전)KBS 광주총국장
2	부위원장	임남제	임소아과 원장
3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4	감 사	임덕수	세무사
5	감 사	조재국	구의원
6	위 원	김익오	부구청장
7	위 원	김주원	자치행정국장
8	위 원	서세양	문화복지국장
9	위 원	김상언	경제환경국장
10	위 원	홍만영	도시관리국장
11	위 원	황충식	구의원
12	위 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13	위 원	최종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14	위 원	김재화	부평구예술인회 회장
15	위 원	이부진	현대일보 기자
16	위 원	김은숙	동연합풍물패 회장
17	위 원	김행남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18	위 원	강양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	위 원	이영유	예술행동 공연예술연구소 대표
20	위 원	유재근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지부장
21	위 원	구길회	부평역지하상가연합회 회장
22	위 원	진영광	고문 변호사
23	위 원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24	위 원	임철규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25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26	기획단장	이범호	을전식품 대표

2. 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이범호	을전식품 대표
2	사무국장	이건우	문화공보과장
3	행사국장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4	사업국장	황순형	현강문화재단 이사
5	사무차장	이원찬	문화관광팀장
6	홍보실장	이찬희	㈜한울시스템 마케팅이사
7	행사국	신종택	대천대학교 교수
8	행사국(무대연출)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9	행사국(행사지원)	김창호	축제전문 기획자
10	행사국(마당연출)	서광일	전문풍물인(잔치마당)
11	행사국 간사	이운형	문화공보과
12	홍보실 간사	강영구	문화공보과
13	사무국 간사	윤이수	문화공보과
14	행사국(연출)	이명희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15	홍보실(디자인)	임문택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사
16	홍보실(인터넷)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17	행사국	이명선	부평구예술인회 사무국장
18	사업국	곽경전	부평시민모임 사무국장
19	사업국	김영훈	부평중앙지하상가 대표
20	사업국	안상수	역세권상가상인연합회간사
21	행사국(경연대회)	박준영	전문국악인(서도소리)
22	행사국	박창규	전문풍물인(한울소리)
23	행사국	주경선	(전)인천시립합창단
24	홍보실	박옥진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25	홍보실	황윤미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조교
26	행사국(연출)	이재상	극단 즐거운사람들 상임연출
27	사업국	오석현	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 총무
28	홍보실	윤재영	㈜윤컴퓨터 대표
29	행사국	최경숙	인천시민문화센터 사무국장
30	행사국	정유천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31	홍보실	고창균	가천길대학 교수
32	홍보실	이홍구	가천길대학 교수
33	홍보실	박인창	가천길대학 교수
34	홍보실	야화종	가천길대학 교수
35	홍보실	심원섭	가천길대학 교수
36	홍보실	김윤희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생

2004 부평풍물대축제

1. 축제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심갑섭	(전)KBS 대구총국장
2	부위원장	김재화	부평구예술인총회 장
3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4	감 사	황충식	구의원
5	감 사	임덕수	세무사
6	위 원	김익오	부구청장
7	위 원	김주원	자치행정국장
8	위 원	서세양	문화복지국장
9	위 원	최영광	경제환경국장
10	위 원	홍만영	도시관리국장
11	위 원	조재국	구의원
12	위 원	김세훈	인천지하상가연합회회장
13	위 원	김영곤	수도권일보국장
14	위 원	김원곤	사진작가
15	위 원	김은숙	(전) 동풍물단 연합회장
16	위 원	박옥진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17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 소 이사
18	위 원	유재근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지부장
19	위 원	유춘형	부평청년회의소 회장
20	위 원	이범호	중합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21	위 원	이영유	예술행동연구소 대표
22	위 원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23	위 원	장관진	인천북부교육청 학무국장
24	위 원	조순일	인천여성문화회관장
25	위 원	주의순	부평구여성단체협 의회장
26	위 원	최광덕	부평구경영자협의 회장
27	위 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2. 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황순형	(전) 축제기획단 사업국장
2	사무국장	박운준	문화공보과장
3	행사국장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 소 이사
4	홍보국장	박옥진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5	사업국장	안상수	부평역세권상가연 합회 간사
6	운영국장	김창호	축제기획자
7	사무차장	오원섭	문화관광팀장
8	행사국장	신종택	신종택조형연구소 대표
9	행사국(무대연출)	조성돈	부평문화원사무국 장
10	행사국(무대연출)	서광일	풍물패 잔치마당 대표
11	행사국	이운형	문화공보과
12	사무국	이준수	문화공보과
13	홍보국장	강영구	문화공보과
14	행사국(연출)	이명희	(전)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15	행사국(경연대회)	박준영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시지회장
16	행사국(무대연출)	이재상	극단 즐거운사람들 상임 연출
17	행사국(연출)	최경숙	인천시민문화센터 운영위원
18	행사국(연출)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장
19	행사국	김희순	부평구문화예술인 회 사무국장
20	운영국	곽경전	부평시민모임 사무국장
21	운영국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 협회 이사
22	사업국	김세훈	부평역중앙지하상가대표
23	홍보국	윤재영	㈜윤컴퓨터 대표
24	홍보국	차은실	숙명여자대학교
25	행사국	김호석	잔치마당 풍물단 강사
26	행사국	김원범	로터씨어터 대표
27	운영국	서일선	문화사랑방 기획팀장
28	행사국	라용구	행사기획자
29	홍보국	곽미희	숙명여자대학교

2005 부평풍물대축제

1. 추진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심갑섭	(전)KBS 대구총국장
2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3	감 사	황충식	구의원
4	감 사	임덕수	세무사
5	위 원	김우철	부구청장
6	위 원	김주원	자치행정국장
7	위 원	서세양	문화복지국장
8	위 원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9	위 원	오의섭	도시관리국장
10	위 원	조재국	구의원
11	위 원	공연두	동풍물단 연합회장
12	위 원	권태옥	경도일보 편집국장
13	위 원	김세훈	인천지하상가연합회 회장
14	위 원	김원곤	사진작가
15	위 원	박옥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6	위 원	원영휘	인천기능대학 학생처장
17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18	위 원	유재근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지부장
19	위 원	유춘형	부평청년회의소 회장
20	위 원	이범호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
21	위 원	이영유	예술행동연구소 대표
22	위 원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23	위 원	장관진	인천북부교육청 학무국장
24	위 원	전운영	부평구예술인회 총회장
25	위 원	조순일	인천여성문화회관장
26	위 원	최광덕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장
27	위 원	최정애	부평구경영자협의회장
28	위 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2. 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황순형	(전) 축제기획단 사업국장
2	사무국장	신동국	문화공보과장
3	행사국장	김창호	축제기획자
4	사업국장	안상수	부평역세권상가연 합회 간사
5	운영국장	이재상	극단 즐거운사람들 상임연출
6	사무차장	장석훈	예술진흥팀장
7	행사국	조성돈	부평문화원사무국 장
8	행사국	이운형	문화공보과
9	사무국	한재천	문화공보과
10	행사국	서광일	풍물패 잔치마당 대표
11	행사국	이명희	(전)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12	행사국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장, 작곡가
13	행사국	서일선	문화사랑방 기획팀장
14	행사국	김원범	마임배우, 대학강사
15	운영국	심경진	전문음향감독
16	운영국	곽경전	부평시민모임 사무국장
17	홍보국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 협회 이사
18	사업국	김영훈	부평역중앙지하상 가대표
19	행사국	이승희	부평구문화예 술인 회 사무국장
20	홍보국	신은아	문화공보과
21	홍보국	임문택	인천디자인고등학 교 교사
22	홍보국	김보경	현대미술작가
23	자 문	신종택	신종택조형연구소 대표
24	자 문	박준영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지회장
25	자 문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 소 이사
26	자 문	박옥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7	자 문	이찬희	㈜한올시스템 이사
28	자 문	임종우	서양화가 및 축제전문가

2006 부평풍물대축제

1. 고문

연번	성 명	소 속
1	김광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2	김정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3	김진만	동건공업㈜ 회장
4	이기상	㈜영진공사 회장
5	임남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6	장사인	㈜인천일보 사장
7	정해영	인천노동협회 회장
8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2. 자문위원

연번	성 명	소 속
1	김덕배	㈜새한포리머 대표이사
2	김동진	㈜백영종합건설 대표이사
3	김문영	㈜경기섬유산업 대표이사
4	김승운	(전) 한국종합식품 대표이사
5	박민서	㈜윈도우컴 이앤씨 대표이사
6	박상대	㈜캉가루 대표이사
7	박순용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 (인천) 지구총재
8	신태철	㈜천일신도매육가공 대표이사
9	오경택	㈜동양다이캐스팅 대표이사
10	윤래성	㈜한성운수 대표이사
11	이경호	㈜영림목재 대표이사
12	이규연	㈜한국싸이론 대표이사
13	이지섭	㈜라이닉스 회장
14	이희재	㈜우성아이비 대표이사
15	임종훈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6	장형기	㈜제일유리공업 대표이사
17	조남홍	㈜부평농산 대표이사
18	최창석	거성산업 대표
19	한정철	부일식당 대표
20	홍문권	인천교통공사 상임이사

3. 축제위원회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빈종구	인천중소기업협의회 회장
2	부위원장	이필주	부평사랑회 회장
3	부위원장	류수용	구의원
4	감 사	황충식	구의원
5	감 사	조순일	여성문화회관장
6	위 원	박정남	부구청장
7	위 원	이창남	자치행정국장
8	위 원	서세양	문화복지국장
9	위 원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10	위 원	오의섭	도시관리국장
11	위 원	조재국	구의원
12	위 원	공연두	동풍물단 연합회장
13	위 원	권태옥	경도일보 편집국 부국장
14	위 원	김세훈	인천지하상가연합회회장
15	위 원	김원곤	사진작가
16	위 원	김유순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장
17	위 원	심갑섭	대경대학 학장
18	위 원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이사
19	위 원	원영재	부흥상사 대표
20	위 원	원영휘	인천기능대학 학생지원처장
21	위 원	유재근	한국음식업중앙회 부평지부장
22	위 원	유춘형	부평청년회의소회장
23	위 원	이동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24	위 원	임덕수	세무사
25	위 원	전운영	부평구문화예술인회 총회장
26	위 원	최백경	인천 부천 김포 이업종교류연합회 장
27	위 원	황순형	(재)선광문화재단 사무국장
28	위 원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4. 축제기획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기획단장	우수홍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이사
2	사무국장	곽경전	부평시민모임 사무국장
3	행사국장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4	홍보사업국장	이성진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이사
5	운영국장	이재상	극단 즐거운사람들 상임 연출
6	사무차장	장석훈	예술진흥팀장
7	사무국	한재천	문화공보과
8	행사국	권오성	문화연대 축제 평가연구팀
9	행사국	구한별	인천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10	행사국	김원범	김원범 마임컴퍼니 대표
11	행사국	김호석	잔치마당 풍물단 강사
12	행사국	박준영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시지회장
13	행사국	박창규	풍물패 한울소리 대표
14	행사국	백광열	문화공보과
15	행사국	서광일	풍물패 잔치마당 대표
16	행사국	서일선	부평문화사랑방 기획실장
17	행사국	송성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전문위원
18	행사국	신종택	신종택조형연구소 대표
19	행사국	심해랑	동풍물단연합회 총무
20	행사국	이동주	풍물패 공간 대표
21	행사국	이명숙	(전)풍물패 소리오름 대표
22	행사국	이명희	(전)동풍물단연합회 총무
23	행사국	이승희	부평구문화예술인회 사무국장
24	행사국	인태연	부평신문 이사
25	행사국	임종우	서양화가
26	행사국	장상욱	퓨전국악 기획자
27	행사국	장용진	서구 랑랑축제 총감독
28	행사국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장, 작곡가
29	행사국	최경숙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사무처장
30	행사국	최진선	㈜화인플레이스 기획 및 진행
32	홍보사업국	김경옥	부평구 동 풍물단원
33	홍보사업국	김보경	현대미술작가
34	홍보사업국	김영훈	부평역중앙지하상가 대표
35	홍보사업국	박용권	사진작가
36	홍보사업국	김창호	(전)축제행사국장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37	홍보사업국	윤재영	㈜윤컴퓨터 대표
38	홍보사업국	이경희	연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
39	홍보사업국	이찬희	(전) 축제홍보실장
40	홍보사업국	임문택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사
41	홍보사업국	임은희	포터 컬럼니스트 활동
42	홍보사업국	지승환	공연 프리랜서
43	홍보사업국	최명우	홍보영상 편집 대표
44	홍보사업국	최희중	피아노학원 원장
45	운영국	박석광	인천 수봉문화회관 조명담당
46	운영국	박영희	고양 가족극 축제 실무요원
47	운영국	박현아	극단 십년후 기획실장
48	운영국	심경진	음향감독
49	운영국	유인태	음향 엔지니어
50	운영국	이나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조명담당
51	운영국	이복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음향담당
52	운영국	이재성	(전) 남구 학산문화원 기술감독
53	운영국	이창영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음향담당
54	운영국	하성민	연극연출 및 무대감독

제3절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평경제



포장마차 단속 모습(1990, 청천1동)

1990년대 부평지역의 경제변화 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외환위기(IMF)였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일부 대규모 자본의 형성과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고 사회 전반에 형성된 거품경기가 빠지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IMF)라는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환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공인이 힘을 모아 설립한 대표적인 지역은행인 경기은행을 비롯해 신세계투자신탁 등 지역 금융기반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되었으며, 부평지역 역시 그 영향권 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IMF의 고통을 넘기자마자 발생한 대우그룹의 붕괴는 인천 경제를 다시 한번 침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 회복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등 인천에 소재하고 있던 계열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과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고 말았다. 특히 부평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대우통신과 대우자동차의 침체는 부평 지역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

1990년대 부평지역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1997년의 IMF를 기점으로 그 경제적 성향이 크게 변모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IMF 이전인 1996년까지의 부평지역 경제를 개관해 보도록 한다.

※ 이 글은 진대현(인하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1. 재정

부평구의 재정은 부평구 행정의 경제적 기반이자 부평구의 행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평구 재정 수입은 부평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되며, 재정 지출은 부평구 행정의 공급에 대응된다. 다만, 1995년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구 및 부평구의 예산 및 잉여금 현황 (단위 : 천 원)

연 별	예 산 현 액			잉 여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1990	44,969,495	43,531,427	1,438,068	13,771,704	13,635,002	136,702
1991	71,372,821	69,990,522	1,382,299	23,618,345	23,342,911	275,434
1992	102,503,641	100,655,693	1,847,948	26,795,810	26,479,464	316,346
1993	105,408,875	101,291,062	4,117,813	28,587,870	27,969,492	618,378
1994	120,149,664	116,192,836	3,956,828	28,743,628	28,049,907	693,721
1995	94,225,681	90,439,296	3786,385	22,745,007	21,705,004	1,040,002
1996	104,952,383	100,110,612	4,841,971	18,590,671	16,497,816	2,092,855

출처 :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6 · 1997.

북구 및 부평구의 재정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북구의 예산은 일반예산 43,531,427천 원과 특별예산 1,438,068천 원으로 총 44,969,495천 원이었으며, 1991년은 일반예산 69,990,522천 원, 특별예산 1,382,299천 원, 총액이 71,372,821천 원으로 전년대비 175%이상 급속히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에는 총액 120,149,664천 원으로 1990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1995년 부평구는 계양구와 분구되어 총액 94,225,681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실 분구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것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더 커진 셈이며, 다시 1996년에는 104,952,383천 원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북구 및 부평구의 세입 · 세출 현황 (단위 : 천 원)

연 별	세 입			세 출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1990	48,026,882	46,564,394	1,462,488	34,255,808	32,929,392	1,326,416
1991	71,096,710	69,764,129	1,332,581	47,478,365	46,421,218	1,057,147
1992	97,092,611	95,171,916	1,920,695	70,296,801	68,692,452	1,604,349
1993	106,320,100	103,569,938	2,750,162	77,732,230	75,600,446	2,131,784
1994	116,674,458	112,539,768	4,134,690	87,930,830	84,489,861	3,440,969
1995	114,807,740	110,364,576	4,443,164	92,062,733	88,659,571	3,403,162
1996	106,875,915	100,952,827	5,923,088	88,285,245	84,455,011	3,830,234

출처 :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6 · 1997.

세입 · 세출의 경우, 1990년 총 세입은 48,026,882천 원, 세출 34,255,808천 원으로 13,771,70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1994년까지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구된 후 1995년 부평구의 세입은 114,807,704천 원에서 1996년 106,8775,915천 원으로 다소 규모가 줄었고, 세출 역시 1995년 92,062,733천 원에서 1996년 88,285,245 천 원으로 다소 줄었다.

2. 농업

부평지역의 농업은 부평평야에서 벼농사를 주축으로 하는 미곡농사가 주를 이루다가 199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업의 면모나 특징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한 도시근교의 고소득 작물, 즉 경제작물의 농업도 효성동 일대의 공업화 및 도시화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1) 농가 및 농업인구

북구 및 부평구 내 농가와 농업 인구는 1990년대 들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산곡동 한우사육농가 풍경

1990년 1,532가구의 농가 수는 1994년 1,450가구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에는 318가구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분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994년에 실시된 부평구내의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을 전업으로 하던 농가 인구 역시 1990년 6,590명에서 1995년과 1996년 636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2) 경지면적

1990년 북구의 경지면적은 논 1,740ha와 밭 248ha로 총 1,988ha였으나, 부평구의 경우, 1995년 논 195ha, 밭 10ha로 총 205ha가 되었으며, 1996년에는 논 15ha가 늘어나 총 220ha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구 및 부평구 내 경지면적 변동 추이

연 별	합계 (ha)	논 (ha)	밭 (ha)
1990	1,988	1,740	248
1991	1,818	1,570	248
1992	1,805	1,570	235
1993	1,964	1,700	264
1994	1,964	1,700	264
1995	205	195	10
1996	220	210	10

출처 :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6 · 1997.

3) 식량작물 생산량

부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 및 작물은 미곡을 제외하고는 그 양이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미곡을 중심으로 식량작물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1,740ha에 7,620톤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1700ha에 7,650톤의 미곡이 생산되었으며, 1995년에는 경작지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해까지 발생하여 전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1996년



삼산동 수해복구현장
(1990)

에는 전년도에 비해 유래없는 대풍작이 들어 미곡생산량은 930톤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 현재 관내에는 580개 업소의 양곡상이 활동하고 있다.

북구 및 부평구 내 식량작물 및 미곡 생산량 변동 추이

연 별	식량작물		미 곡	
	면 적 (ha)	생 산 량(톤)	면 적(ha)	생 산 량 (톤)
1990	1,988	8,000.7	1,740	7,620
1991	1,818	7,932.3	1,570	7,643
1992	1,805	7,921.3	1,570	7,590
1993	1,964	7,729.7	1,700	7,650
1994	1,964	7,588	1,700	7,522
1995	195	88	195	88
1996	220	930	210	930

출처: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6 · 1997.

* 『구정백서』(부평구, 1997)에 따르면, 1995년 미곡생산량은 872톤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평구통계연보』의 통계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4동 동사무소 개청식(1990)

3. 공업

1) IMF(1996년)이전 부평지역의 제조업 동향

부평구의 1996년 말 기준 제조업체 수는 1,296개로 1990년 1,784개에 비해 28%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는 1993년 말 2,133개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대 말부터 1993년까지 지속된 3저 현상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제조업의 대외적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평 국가수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에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3년을 기점으로 대외 여건의 하향세와 함께 많은 제조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업체수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북구 및 부평구내 공업 현황(광업 포함) (단위 : 개, 명, 백만 원)

연 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1990	1,784	106,231	663,675	4,574,601	4,469,252
1991	1,966	88,919	696,794	3,051,695	5,653,351
1992	1,972	78,287	739,606	5,557,100	5,641,243
1993	2,133	74,248	805,556	6,040,255	6,005,716
1994	1,900	67,594	840,421	6,438,586	6,407,569
1995	3,308	56,943	856,429	6,784,686	6,675,578
1996	1,296	48,696	881,014	7,241,417	7,267,431

출처 :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1995 · 1996 · 1997.

사업체 수가 1993년 이후 줄기 시작한 것과 달리 종업원의 수는 1990년 106,231명에서 1991년 88,919명, 1995년 62,747명 그리고 1996년 48,696명으로 199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노동집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부평 산업구조에도 나타난 것이다.

연도별 주요 생산비는 1990년 2,838,919백만 원, 1991년 2,737,737백만 원, 1995년 3,950,211백만 원, 1996년 3,989,636백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부가가치는 1993년 2,568,468백만 원을 기

점으로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은 1990년 2,061,939백만 원에서 1992년 2,612,086백만 원으로 최고 수치로 증가했다가 1993년 2,225,66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증가하여 1996년 2,475,52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 자산 (단위 : 백만 원)

연 별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1990	2,838,919	1,735,682	2,061,939
1991	2,737,737	2,056,260	2,612,086
1992	3,138,799	2,438,301	2,612,086
1993	3,472,015	2,568,240	2,225,666
1994	3,910,100	2,528,486	2,333,303
1995	3,950,211	2,531,589	2,384,511
1996	3,989,636	2,551,781	2,476,520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2) 제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음 식 료 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69	4,321
1991	61	3,967
1992	55	3,220
1993	43	2,835
1994	39	2,510
1995	33	1,875
1996	26	1,582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인천 지역의 음식료업체는 1992년 112개 업체 5,979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인천 지역 음식료업체의 특징은 50인 미만의 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부평구 내의 업체들도 인천 지역 음식료 업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평구 내의 음식료업체는 1990년 69개 업체 종업원 4,321명, 1991년 61개 업체 종업원 3,967명, 1995년 33개 업체 종업원 1,875명, 1996년 26개 업체 종업원 1,581명으로 업체와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50인 이하의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높았던 1993년 인천의 높은 부도율과 관련이 있다.

(2) 섬유제품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업체 역시 종업원 50인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평지역의 섬유업체는 1990년 121개 업체 종업원 4,789명, 1991년 118개 업체 종업원 4,312명, 1995년 84개 업체 종업원 2,991명, 1996년 41개 업체 종업원 1,260명으로 업체와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섬유업체들이 수출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의 감소로 인한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건비 상승, 공업 구조의 고도화, 중 · 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에 따라 지역 내 산업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부평지역의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1990년 112개 업체 5,315명의 종사자에서 1991년 112개 업체 5,198명, 1995년 86개 업체 3,222명, 1996년 74개 업체 2,415명으로 업체 수는 1990년 대비 66% 수준, 종사자 수는 45.3%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류 및 제조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과 같은 해외로의 이전을 추진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섬유제품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섬 유 제 품		의복 및 모피제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121	4,789	112	5,315
1991	118	4,312	112	5,198
1992	110	4,021	107	4,921
1993	108	3,877	100	4,840
1994	89	3,091	95	4,232
1995	84	2,991	86	3,222
1996	41	1,264	74	2,415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인천 지역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1980년대 이전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은 50인 이하의 영세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전을 거듭하여 대규모의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동양화학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의 인천의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업은 대규모의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2차 가공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50인 미만의 영세성과 인천지역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이 업종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41	1,887	187	4,321
1991	43	1,826	169	3,876
1992	42	1,732	186	3,516
1993	41	1,766	186	3,403
1994	44	1,698	151	2,699
1995	40	1,443	98	2,001
1996	30	1,292	75	1,205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1990년 41개 업체에서 1995년 40개 기업체 수까지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30개 업체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역시 1990년 187개 업체 4,321명의 종업원에서 1996년 75개 업체 1,205명의 종업원으로 감소되고 있다.

(4) 비금속 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

부평구 내의 비금속 광물제품은 1990년 52개 업체 종업원 1,301명, 1991년 51개 업체 종업원 1,289명, 1995년 24개 업체 종업원 554명, 1996년 22개 업체 종업원 534명으로 업체와 종업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의 업체들 역시 50인 이하의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비금속 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비금속 광물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52	1,301	98	4,321
1991	51	1,289	87	3,769
1992	42	996	47	2,875
1993	40	840	45	2,617
1994	37	699	34	2,143
1995	24	554	25	433
1996	22	534	25	429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가죽 및 신발업체는 1990년 98개 업체 종업원 4,321명, 1991년 87개 업체 종업원 3,769명, 1995년 25개 업체 종업원 433명, 1996년 25개 업체 종업원 429명으로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의 이전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1995년 이후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

인천은 항만을 구비한 도시로서 원목을 수입, 광활한 수면공간을 이용할 저목장 활용이 용이하여 오래 전부터 원목수입과 아울러 목재산업과 가구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목재 산업도 3D 기피현상에 의한 사양 산업이어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1990년대의 특징이다.

목재 및 나무제품의 경우, 대표적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며 1993년 49개 업체 715명 종업원에서 1996년에는 18개 업체 214명으로 감소하였다.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및 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65	996	498	13,321
1991	58	932	412	12,877
1992	52	835	402	11,212
1993	49	715	272	9,019
1994	38	496	232	6,844
1995	18	223	213	6,098
1996	18	214	249	5,361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사진 05 - 시가지 전경 (1991)

가구 산업은 우리나라의 유명 가구업체 중 대부분이 인천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평지역에서도 중요 산업 중 하나이며, 또한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다. 이러한 가구 산업은 1990년대 들어 과도한 설비와 경쟁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평 역시 많은 종사자들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

(6) 펄프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복제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의 복제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몇몇 인쇄업을 제외하고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의 성격을 띠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각종 홍보 및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인쇄 및 선거용 출간물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화하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 출판사들의 인쇄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규모가 대형화되며, 종업원 수는 1990년 23개 업체 298명에서 1996년 10개 업체 300명으로 총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업체당 종업원 수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복제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58	1,108	23	298
1991	58	1,198	23	271
1992	56	897	20	235
1993	55	815	19	215
1994	51	765	15	374
1995	21	209	12	354
1996	14	164	10	300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7)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 업체 수와 종업원 수 모두 1990년 62개 업체 2,569명에서 1996년 37개 업체 71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조립 금속 제품의 경우도 1990년 476개 업체 8,766명의 종사자에서 1996년 245개 업체 3,372명으로 각각 51.4%와 38.5%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은 부평수출산업단지의 주요 중점 산업 중 하나인데, 이들 업종은 1990년 584개 업체 12,375명의 종사자에서 1996년 244개 업체 5,200명으로 각각 41.8%와 42.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업종들이 1990년대의 특징인 3D 산업 기피현상과 해외 이전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1993년 중반 이후 3년에 걸친 인천 지역의 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인천 지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기도 했다.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 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62	2,569	476	8,766	584	12,375
1991	59	2,376	466	8,898	565	11,099
1992	55	2,087	395	6,004	439	9,898
1993	50	1,939	320	5,073	362	9,081
1994	45	1,750	295	4,495	326	7,865
1995	38	744	255	3,998	303	6,432
1996	37	713	245	3,372	244	5,200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8) 사무용 기계, 기타 전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사무 · 계산 · 회계용 기계 제조업의 경우, 1990년 33개 업체 1,116명의 종사자에서 1994년 13개 업체 337명의 종사자로 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1995년 15개 업체 474명으로 증가하며 1996년 15개 업체 96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업무용 기계 업종 중 중소형의 업체들이 도산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의 경우 1990년 154개 업체 3,987명의 종사자로 1992년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1995년 98개 업체 1,762명의 종사자와 1996년 90개 업체 1,500명의 종사자로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무용 기계, 기타 전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33	1,168	154	3,987	159	8,176	55	1,989
1991	22	805	152	4,002	157	8,098	49	1,698
1992	18	432	148	3,398	150	7,997	44	1,556
1993	16	384	145	3,257	150	7,917	42	1,598
1994	13	337	130	2,713	142	8,085	44	1,124
1995	15	474	98	1,762	99	2,676	35	967
1996	15	969	90	1,500	96	2,522	33	863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또한 영상 ·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의 경우도, 1990년 159개 업체 8,176명의 종사자에서 1996년 96개 업체 2,522명의 종사자로 각각 60.4%와 30.8% 수준으로의 급격한 감속이 나타난 업종으로, 인천 지역의 생산부문에서 높은 부문을 차지하던 업종 중 하나이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업종은 1990년대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로 산업의 특성상 노동력 보다는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 부문에서의 변화는 1990년 55개 업체와 1,989명의 종사자에서 1996년 33개 업체와 863명으로 감소하며, 각각 60%와 43.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 제조업

자동차공업은 종합공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기계공업과 연관된 공업으로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나라의 5대 유명업체 중에 하나인 대우자동차는 부평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전체적으로도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대우자동차는 1999년 대우 사태로 인해 GM과의 해외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업부가 축소되어 부평과 인천 지역 경제의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0	101	12,432	–	–	498	13,321	4	57
1991	96	12,121	4	87	412	12,877	4	53
1992	82	13,789	4	86	402	11,212	4	54
1993	79	13,822	5	97	272	9,019	4	54
1994	74	15,715	4	86	232	6,844	1	3
1995	66	17,898	6	95	213	6,098	1	3
1996	59	19,070	7	100	249	5,361	1	3

출처: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은 1990년 101개 업체에서 1996년에 59개 업체로 58.4% 수준으로 감소한 데 비해 종사자 수는 1990년 12,432명에서 1996년 19,070명으로 153.4% 수준으로 50% 이상의 고용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규모가 대형화 된 데에 따른다.

기타 운송장비의 경우도 1991년 4개 업체에서 1996년 7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 역시 87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고, 부평의 역점 산업이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재생재료 처리업은 4개 업체 57명에서 1개 업체 3명의 종업원으로 급속히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평역 인근의 연탄공장 (1990)

4. 금융업

1990년대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하면 경제국치로 대표되는 외환위기 즉, IMF 금융 사태일 것이다. 이것은 인천 지역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평구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부평구의 금융현황에 대한 시점은 IMF 이전인 1996년도까지의 상황과 1997년 이후의 금융업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통화창출 유무에 따라 통화 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예대금 활동과 관련된 일반 시중은행과 특정 업무가 목적이거나 특정지역에 의한 특수은행 등이 존재하며,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새마을 금고와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 등과 같은 제2의 금융권, 그리고 각종 보험 및 증권회사와 같은 기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1) 시중은행

외환위기(IMF) 이전인 1996년까지 인천 은행산업의 예금현황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완만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요인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6년까지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10개의 시중은행 지점 및 출장소의 개수는 거의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조흥은행은 부평동에 있는 부평지점 1곳과 별도로 3곳의 출장소를 두고 있었으며, 우리은행은 1곳의 지점과 2곳의 출장소 등, 총 10개의 시중은행이 부평에 1개 내지 2곳의 지점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출장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평지역내 시중은행의 변화 추이 (단위 : 개)

연 별	시 중 은 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주택은행
1993	4	3	2	2	3	6	2	1	1	5
1994	4	3	2	2	3	6	3	1	1	5
1995	4	3	1	2	2	4	2	1	1	3
1996	4	3	1	2	2	5	2	1	1	3

출처: 한국은행 주요 통계 연보

2)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은 영업기반을 지방에 두고 있는 중소형 은행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 중 시중은행 이외의 은행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현재 강원 · 경기 · 경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제주 · 충북 · 충청은행 등 10개가 있으며, 시중은행에 비하여 경영규모가 작고 거래선도 중소기업이 많다.

부평지역에 진출한 지방은행으로서는 인천과 경기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대표적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이 있으며, 1970년 부평지점을 개설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동암지점을 추가하고 각 요지에 출장소를 세우는 등 부평지역에서는 시중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부평구 내 지방 및 특수은행의 변화 추이 (단위 : 개)

연 별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강원은행	대구은행	경기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1993	-	-	5	-	3	6
1994	-	1	6	1	3	7
1995	-	1	6	1	2	6
1996	1	-	6	-	2	5

출처 : 한국은행 주요 통계 연보

경기은행 이외의 부평지역에 진출한 지방은행으로서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1994년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1996년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지점을 퇴출하고 강원은행이 부평구에 진출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부평지역내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를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1993년 3개 지점 및 출장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1993년 6개에서 1996년 5개의 지점 및 출장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투자금융기관 및 투자신탁기관 등의 투자전문 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조합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1997년 IMF 기간 중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이들 투자 전문 금융회사들로 많은 기관들이 퇴출 또는 통폐합 및 인수 · 합병을 거치게 되었다.

1996년까지의 부평구 내의 상호신용금고는 한국상호신용금고를 출발로 하여 6개의 상호신용금고가 추가로 설립되어 총 7개가 영업하고 있으며, 1989년에 개설되어 1990년부터 운영해온 한일투자신탁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는 경은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금화상호신용금고 본점, 신일상호신용금고 본점, 안흥상호신용금고 본점, 한국상호신용금고 본점, 대양상호신용금고 본점, 한서상호신용금고 부평지점 등 총 7개가 운영중에 있다. 이들 제2금융권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금융권 변화 추이(1993년~ 1996년) (단위 : 개)

연도별	투자 신탁	상호신용 금고	신용협동조합
1990	-	7	7
1991	1	7	7
1992	1	7	7
1993	1	7	7
1994	1	7	7
1995	1	7	7
1996	1	7	7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또한, 새마을금고는 1970년에 설치된 산곡동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대의 금고

수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16개 지점 및 분소가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35개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4년 31개, 1995년과 1996년은 21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변화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연 별	금 고 수	자 산 액
1990	16	130,290
1991	16	150,235
1992	16	192,099
1993	35	266,622
1994	31	294,236
1995	21	242,541
1996	21	279,868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액은 1990년 130,290백만 원에서 1991년 150,235백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1993년 가장 높은 금고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266,622백만 원의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4년 금고수가 4개 줄기는 하였으나 총자산액은 294,236백만 원으로 1990년 대비 226%로 규모가 확대 되었다. 1995년 다시 금고수가 줄며, 자산액이 242,541로 약 50,000백만 원이 줄어들었으나, 1996년에는 279,868백만 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며 회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변화 추이 (단위 : 명, 백만 원)

연 별	회 원 수	예 금 액	대 출 액	예대 비율
1990	29,265	111,632	66,686	59.7%
1991	32,236	146,037	93,687	64.2%
1992	58,016	183,448	117,189	63.9%
1993	116,055	218,646	143,536	65.6%
1994	155,843	236,330	155,493	65.8%
1995	142,622	190,458	122,078	64.1%
1996	149,256	227,863	140,343	61.6%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와 예금액 그리고 대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부평구 내 회원 수가 29,265명에서 매년 급속히 증가하며, 1994년 155,843명으로 최고의 회원 수를 보유하였다가 1995년 142,622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1996년 149,256명으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금액과 대출액도 거의 같은 추세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대비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은 1990년 59.7%에서 1991년 64.2%, 1995년 64.1% 그리고 1996년 61.6%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소매 금융을 담당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표적인 제2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업을 들 수 있는데, 1995년 현재 보험회사의 지점 및 출장소는 생명보험사 9개사 34지점이 영업 중이며, 손해보험사는 4개사 6개의 지점 및 출장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1개의 투신사가 1995년까지 5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 신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7개의 증권사 지점이 부평구내에서 운영을 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기타 제2금융기관 현황 (1995년 10월 현재)

구분	회사수	회사명
생명보험사	9	국제 생명보험, 대일생명보험, 대한 교육보험, 동아 베네피트 생명보험, 신한 생명보험, 아주생명보험, 제일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손해보험사	4	대한보증보험, 신동아화재보험, 현대화재해상, 삼성화재보험
증권회사	8	교보증권, 동서증권, 서울증권, 신한증권, 한신증권, 한일증권, 현대증권
기타	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동화리스

5.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인천 지역은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의 역할과 함께 260만 명이 넘는 인구와 8,000여 개의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인근의 수원 · 시흥 · 안산 · 평택 등

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업체들의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하며, 과거 김포공항과 현재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항을 잇는 허브(hub)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 지역에 1980년대부터 요구되어온 인천~서울 간 경인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한 각종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것이 바로 1990년대이다. 제1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과 제2경인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인천지하철의 개통 등 1990년대의 인천 지역의 교통은 그 발전의 속도가 어떤 시기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부평은 이미 제1경인고속도로가 부평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면서 서울과 부천으로부터 인천 지역으로의 첫 번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대의 다양한 인천 지역의 교통망의 변화는 바로 부평지역 교통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로와 철도분야에서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를 비롯한 부천~삼산지구 간의 지방도로의 개통을 통한 통행량의 증가 등이 빈번해지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부평을 통하도록 구성되어 더욱 교통량이 많아졌으며, 인천과 서울지하철 1호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인천지하철의 개통은 부평의 교통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이끄는 직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도로 육운업

1990년 건설부 조사에 의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으로 평가 받은 신월~부평 간 9.7km는 최대 용량의 2배를 넘는 포화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포화상태를 해결하고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제1경인고속도로를 기존의 4차선에서 6차선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굴포천 복개공사 현장 (1990, 현 동아아파트 2단지 공용주차장)

경인고속도로 전체의 1일 평균 이용대수는 1990년 100,883대, 1993년 118,019대, 1996년 96,933대 등으로 7년간 평균 1일 10만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 부평까지 9.7km 간의 이용구간은 전체 경인고속도로의 평균이용량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부평지역 간을 오가는 차량 중 많은 수가 부평수출산업공단 및 부천지역과의 연계된 도로로서 경인고속도로를 역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 1일 평균 교통량 (단위 : 대)

연 별	경인 고속도로 전체	서울~부평간(9.7km)	부평~인천간(14.32km)
1990	100,883	101,264	52,967
1991	109,251	103,011	61,696
1992	107,574	128,350	93,478
1993	118,019	143,710	100,590
1994	109,251	136,388	90,842
1995	102,845	140,820	77,086
1996	96,933	133,220	73,322

출처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2002

(1) 버스 운송업

버스 운송업은 크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1990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마을버스의 등장이다. 마을버스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보다 운행하는 구간이 짧아 요금도 일반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시내버스들이 긴 노선을 운영하는 데 비하여 마을버스는 근거리 지역을 선택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장소와 짧은 배차간격으로 인해 그 사업권은 시내버스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 시외구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삼화고속이다. 삼화고속은 1970년대부터 인천~서울 간 운행을 담당하여 왔다. 강인여객의 103번과 111번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부평지역을 경유하여 공항까지 운행하는 대표적인 노선이다.

한편, 부평지역을 경유하거나 차고지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는 9개 회사 15개 번호의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8개 회사 27개 번호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 시외버스의 경우 2개 회사 5개 번호가 운행되고 있다.



부평역과 검단 사이를 오가던 1번 버스

부평 경유 버스 종류 (1996년 12월 현재)

종류	버스회사	운행 노선 번호
시내 버스	신동아교통	1
	동화운수	2, 10, 45
	인천선진교통	12, 30
	삼환교통	14-1, 23
	용현운수	20
	원진운수	24, 24-1
	신화여객	34
	도영운수	35
	부일교통	67, 67-1
마을 버스	성원운수	539,
	세원교통	551, 564, 564-1, 586
	신화여객	552, 553, 554, 555
	태양여객	556, 558, 565, 571, 583
	삼성여객	557, 560, 562, 568, 570, 582, 584
	부일여객	559, 579
	대인교통	561, 574, 581
	삼일여객	585
시외(구간) 버스	강인여객	103, 111
	삼화고속	1200, 1400, 9500

출처 : 인천 시내버스사업조합.

(2) 택시 운송업

부평지역 내의 택시 운송업체는 4개 업체로서 경진운수, 동진운수, 선경기업 그리고 쌍용교통 등에 속한 354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1996년 기준으로 조합원 1,021명이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다.

부평구 내 택시 운송업체 현황 (단위 : 대)

순번	업체명	대표자	면허대수	소 재 지	전화번호
1	경진운수(자)	김홍식한도섭	79	삼산동 375	525-3331
2	(자)동산운수	유근성	111	십정동 557-6	578-0155
3	선경기업(자)	안달원	88	청천동 380	505-7011
4	(주)성용교통	성낙현	76	삼산동 270-9	528-1161

출처 :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2) 주차장

1990년대 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주차와 관련된 시설이었다. 1990년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문제는 대규모 택지 아파트와 같이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 이외의 단독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주차장 확보가 꾸준히 시행되어 주차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되어 왔다.

부평구 내 주차장 현황 (단위 : 개, ㎡)

연 별	합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0	307	3,382	8	180	11	227	288	2,975
1991	387	7,961	54	3,512	22	1,009	311	3,440
1992	599	12,463	98	6,209	28	1,137	473	5,117
1993	762	18,672	170	10,657	46	2,036	546	5,979
1994	2,827	56,745	174	10,820	47	2,322	2,606	43,603
1995	3,145	63,000	180	11,930	54	2,540	2,911	48,530
1996	2,705	49,101	143	8,400	44	2,336	2,518	38,365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부평지역에 1990년 소재하고 있던 주차장 수는 총 307개 3,382면수였는데 이는 노상 8개소 180면수, 노외 113개소 227대의 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건축물 부설로 288개소 2,975면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보하고 있던 주차장 수는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1994년에는

1990년도의 9배가 넘는 2,827개소 56,745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택지지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건물부속물로서 확보된 주차공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 철도 운송업

1990년대에 들어서 경인선에는 부개역이 신설되었는데, 급속히 팽창되는 부개 택지지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부평역은 1990년대 경인선의 주요 변화 중에 하나인 경인복복선의 기공을 통해 1999년에 구로~부평 간의 복복선 전철을 개통하였으며, 인천지하철의 개통에 있어 인천의 종단을 연결하는 연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천지하철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평역 건설현장(1993)

(1) 부평구 내 역사

부평구 내 경인선 역사로는 동암역, 백운역, 부평역, 부개역 등 4개의 역사가 존재하며, 인천과 서울의 주요 연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평구 내 경인선 역사

구분	동암역	백운역	부평역	부개역
위치	십정동 472번지	십정동 539번지	부평1동 738-21	부개동 468번지
연혁	1983년 보통역 업무	1990년 보통역 업무 1993년 민자역사	1989년 보통역 업무	1996년 3월 개통

(2) 철도 수송 실적

부평구 내 경인선 역사 4개 중 1996년 3월에 개통된 부개역을 제외하고 1996년까지의 수송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동암역의 경우 주안역까지 길이가 긴 관계로 인해, 인근 주변 지역의 인원들이 주로 이용하였는데, 1994년

년간 승차인원은 17,914천 명, 하차인원은 18,424천 명이었다. 그리고 1994년 연수입은 8,525백만 원에 이르렀고 199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인선 3개 역사의 여객 수송 실적 (단위 : 천명, 백만 원)

구분	동암역			백운역			부평역		
	승차인원	하차인원	여객수입	승차인원	하차인원	여객수입	승차인원	하차인원	여객수입
1994	17,914	18,424	8,525	8,245	7,421	4,342	24,964	24,182	14,868
1996	18,609	19,539	9,238	4,393	3,262	3,686	19,632	19,159	13,652

출처: 『인천 통계연보』, 해당년도

백운역은 부평역과 동암역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 두 역보다 이용객이 적은데, 1994년보다 1996년에 이용객수와 수입이 적은 이유는 1995년부터 복복선 공사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인근 다른 역을 주로 이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부평역은 인천의 허브역으로서의 명성에 알맞게 각종 상권이 고루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용 연 인원이 가장 많은 역사 중 하나이다. 1996년도가 1994년보다 이용객수가 적은 것은 인천지하철 공사와 복복선 공사로 인해 부평역을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였던 것이 주요 이유이다.

부평역의 화물 수송 실적 (단위 : 톤, 천 원)

구분	부평역		
	발송톤 수	도착톤 수	화물수입
1994	40,437	113,690	304,973
1996	41,726	132,449	392,651

(3) 부평구 내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는 새로운 교통시설로 시민들의 숙원인 인천지하철을 개통하고자 1990년대 장기간에 걸쳐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는 주로 인천을 남북으로 연결하고자 하여, 부평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기존 경인선과의 연계를 하도록 공사가 이루어졌다.

인천지하철 공구별 공사기간과 일지

공구별	공사 구간	총길이(m)	착공일	준공일
1-4공구	인천교대 ~ 북인천세무서 앞	1,200	1993. 7. 5	1999.12.30
1-5공구	북인천세무서 앞 ~ 부평세관 앞	1,475	1993.12.31	1999.12.30
1-6공구	부평세관 앞 ~ 부평구청 사거리	1,537	1993.12.31	1999.12.30
1-7공구	부평구청 사거리 ~ 삼능	1,608	1995. 4. 8	1999.12.30
1-7-1공구	부평 정거장(환승역)	70	1994.12.31	1999.12.30
1-8공구	삼능 ~ 부평삼거리	1,196	1994.12.21	1999.12.30
1-9공구	부평삼거리 ~ 간석오거리	1,209	1994. 8.18	1999.12.30

부평구 관내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로는 부평삼거리역, 동수역, 부평역,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갈산역 등 6개 역사가 있다.

6. 기타 서비스 산업

부평구 내의 기타 서비스 산업으로는 관광산업과 우편, 통신 사업, 기타 서비스업이 존재한다.

부평구 내 여행업은 일반 업체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개 업체가 존재하였고, 해외 여행 상대 업체가 1990년 6개에서 1996년 12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여행업은 1991년 11개 업체에서 1994년 16개 업체까지 증가했다가 1996년 11개 업체로 다시 감소하였다.

관광 숙박업으로는 관광호텔이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0년 2개 업체가 객실 수 71개로 운영되었다가 1995년 1개 업체 30개 객실로 운영되었으며 1996년 2개 업체 61개 객실로 증가하였다.

부평구 관내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의 변화 (단위 : 개)

연 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일반	국외	국내	호텔 수	객실 수
1990	-	6	-	2	71
1991	-	7	11	2	71
1992	1	7	11	2	71
1993	1	9	13	2	71
1994	1	9	16	1	30
1995	1	8	16	1	30
1996	-	12	11	2	61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우편물 서비스는 주로 부평우체국의 업무실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평우체국의 국내 우편물 취급 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 우편물 배달건수는 총 45,633천 건으로 1994년 58,543천 건보다 줄어들었으나 요금 수입은 10,792,805천 원으로 1994년 4,509,430천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제 우편물 취급 실적은 1996년에 총 551천 건으로 1994년 411천 건보다 20% 정도 증가하였고 요금 수입도 1994년 579,929천 원 보다 25,000천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우체국의 국내 우편물 취급 실적 (단위 : 천 통, 천 원)

구분	국내 우편물							
	보통		특수		소포		총계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1994	53,198	5,710,581	2,121	1,400,244	190	398,605	58,543	4,509,430
1996	43,100	8,534,770	2,338	1,713,512	195	544,523	45,633	10,792,805

출처: 『인천 통계연보』, 해당년도

부평우체국의 국제 우편물 취급 실적 (단위 : 천 통, 천 원)

구분	국제 우편물							
	보통		특수		소포		총계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배달건수	요금수입
1994	388	108,990	19	218,489	4	252,450	411	579,929
1996	534	116,644	12	244,027	5	264,979	551	605,650

출처: 『인천 통계연보』, 해당년도

한편,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화시설수의 경우, 296,600건에서 328,600건으로 증가하였고 가입자 수도 17,000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공중전화기 대수는 90여 대 증가하고 있다.

부평 전화 서비스 (단위 : 건, 명, 대)

연도별	전화시설수	전화 가입자수	공중전화기 대수
1994	296,600	263,899	3,369
1996	328,600	280,900	3,558

출처: 『인천 통계연보』, 해당년도

색 인

121후송병원 _ 516
5 · 3인천항쟁 _ 597
6월항쟁 _ 597
ASCOM _ 413, 430, 431, 433, 434, 435, 449, 515, 545
ASCOM 24 _ 323, 517
ASCOM CITY _ 414, 516, 518

ㄱ

가정포대 _ 242
가현산 _ 41
갈산 _ 57, 117
갈산동 _ 51, 56, 525
갈월리 _ 49, 50, 80, 82
강기동 _ 301
강한성 _ 355, 356, 357
건국청년회 부평지부 _ 356
계양면 _ 46, 47, 234
경명현 _ 75
경인고속국도 _ 63, 86, 104
경인고속도로 _ 522, 546, 551
경인공업지대 _ 295
경인국도 _ 369, 371
경인철도 _ 83, 245, 255, 256, 257, 369, 551
계남면 _ 46, 47, 234, 253, 268, 278
계산동 _ 42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_ 37, 43, 188
계양산 _ 41, 59, 64, 65, 70, 71, 106, 110, 119, 132, 147
계양산살리기 범 국민운동본부 _ 640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_ 641
계양산성 _ 59, 223, 242, 243
공암 최씨 _ 193
광여도(廣輿圖) _ 72, 73
광학산 _ 106, 113, 115
구산동 _ 58
구산리 _ 49, 51
구슬원 _ 69, 213
구십현(九十峴) _ 111
국산자동차주식회사 _ 292
군내면 _ 49, 260, 262, 263, 266
굴포교 _ 217, 218, 224
굴포운하 _ 76, 77, 78, 79
굴포천 _ 77, 78, 79, 81, 102, 113, 119, 120, 121, 123, 124, 125, 127, 129, 217, 218, 372
금륜역 _ 69, 372
금산 _ 57
길야정 _ 51
길주목(吉州牧) _ 36, 37
김건룡 _ 356
김석기 _ 355, 356, 358, 359, 466
김순손(金舜孫) _ 39, 203, 204
김영길 _ 355, 356, 357, 397, 466
김용기 _ 400
김포 정씨 _ 193
김포평야 _ 41

ㄷ

다남동 _ 70
당산면 _ 47
대도정 _ 51, 55
대동지지(大東地志) _ 44, 240
대동청년단 _ 357

대아지하도상가 _ 632
대야원 _ 69, 213
대우자동차 _ 590, 591, 593, 604
대정리 _ 49, 50, 52, 257
대한청년단 _ 386
동국여지도 _ 43, 44
동국여지지 _ 65
동면 _ 45, 47, 260, 263, 266
동부간선수로 _ 121
동성 이씨 _ 193
동소정면 _ 46, 49, 50, 51, 52, 234, 247
동암역 _ 559, 611, 614, 615, 620, 709
동여도 _ 44, 52

ㅁ

마분리 _ 49, 51, 57, 258, 290
마장면 _ 47, 49, 52, 247, 268
마정(馬井) _ 53
만월산 _ 106, 107, 114, 527
망조산(望造山) _ 72, 73
망해지(望海誌) _ 65, 127, 128
명동산(名東山) _ 72, 73, 74
명치정 _ 51
모월곶면 _ 47
무넘이 고개 _ 78
민영환 _ 271

ㅂ

박희방(朴熙房) _ 243, 244, 245
백마장 _ 53
백마정 _ 51, 52
백운역 _ 559, 611, 614, 620
부개1동 _ 632
부개2동 _ 58
부개3동 _ 58
부개동 _ 51, 57, 374
부개산 _ 369
부개역 _ 611, 614, 616, 709
부개일신구산동 _ 57
부내면 _ 45, 46, 51, 234, 246, 247, 251, 268
부천군 _ 43, 44, 50, 233, 246, 247, 250, 251, 268, 282
부평 류씨 _ 197
부평 이씨 _ 79, 181, 191, 192, 195
부평1동 _ 52
부평1동 동부동 _ 51, 52
부평1동 서부동 _ 51, 52
부평1동 중부동 _ 51
부평2동 _ 51, 52
부평2동 동부동 _ 51, 52
부평3동 _ 51, 52, 53
부평4동 _ 52, 558
부평5동 _ 50, 52
부평6동 _ 52
부평공동묘지 _ 115, 123
부평공업단지 _ 256, 288, 467, 469, 470, 471, 473
부평공회당 _ 355
부평군 _ 231, 232, 233, 246, 247, 249, 250, 256, 257, 260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_ 261, 266
부평군읍지 _ 64, 67, 70, 223
부평농민조합 _ 278, 295
부평대로 _ 653
부평도호부 _ 42, 49, 50, 59, 64, 202,

204, 207, 208, 222, 527
부평도호부청사 _ 74, 82
부평동 _ 51
부평동국민학교 _ 415
부평동국민학교 부개분교 _ 415
부평미군부대 _ 642, 643, 645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_ 643
부평백화점 _ 505
부평번영회 _ 290
부평변전소 _ 466, 468
부평부(富平府) _ 201, 203
부평부읍지 _ 60, 67, 66, 68, 69, 71, 220, 221, 238
부평송신소 _ 443
부평수리조합 _ 61, 81, 271, 274, 275, 276, 277, 280, 295
부평수출4공단 _ 130
부평시장 _ 442, 505, 555, 556, 558
부평시장로타리 _ 558
부평양조조합 _ 424
부평역 _ 83, 84, 130, 255, 257, 290, 294, 371, 373, 529, 540, 544, 597, 611, 616,623, 632, 633, 634, 635
부평역지하도상가 _ 632
부평우체국 _ 524
부평우편소 _ 524
부평이씨대동보 _ 191
부평자유시장 _ 556
부평정수장 _ 466, 468
부평출장소 _ 41, 50, 51, 355, 404, 407, 478, 481
부평풍물대축제 _ 648, 651, 653, 654, 657, 662, 665, 667, 671
부평향교 _ 209, 210, 223
부흥로타리 _ 558, 559
북구청 _ 480
북인천중학교 _ 447

ㅅ

사근다리 _ 56
사직단 _ 70, 75
산곡1동 _ 53
산곡3동 _ 53, 54
산곡동 _ 51, 52
산곡리 _ 49, 51, 52
산곡청천동 _ 53, 54
삼산동 _ 51, 54
상십정동 _ 53
상십정리 _ 49
상오정면 _ 47
새나라자동차 _ 86, 562, 563
새한자동차 _ 498
서곶면 _ 47, 50, 234, 247
서곶출장소 _ 41, 241, 480
서면 _ 47, 234, 247, 260, 263, 266
서부간선수로 _ 61, 121
석곶면 _ 46, 47
석천면 _ 45, 47, 258
성일로지하도상가 _ 632
성황단 _ 75
성황사 _ 70, 75
세종실록지리지 _ 68, 220, 237
소래면 _ 45

송내 전투 _ 374, 375
송병준 _ 269, 270
수안 윤씨 _ 193
수탄면 _ 47
신기리 _ 80
신부평로지하도상가 _ 632, 633
신진공업사 _ 564, 565, 566
신진자동차 _ 86
신촌 _ 79
심혁성 _ 303, 304, 306, 307
십정1동 _ 55
십정2동 _ 52, 53, 55
십정동 _ 50, 55
십정동 _ 51
십정리 _ 51

ㅇ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_ 37
안하지 고개 _ 78, 121, 112
어사대 _ 58, 74
여단 _ 75, 76
여지도서 _ 45, 60, 62, 64, 68, 69, 71, 220, 221, 238
역골 _ 70
연희진 _ 238, 242
연희포대 _ 242
염성산(廉成山) _ 72, 74, 75
영선산 _ 57
오정면 _ 46, 47, 234
오조산(五造山) _ 74
옥산면 _ 47
욕은지 _ 60, 209
용운정 _ 50, 51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_ 643
원적산 _ 106, 107, 110
원통이 고개 _ 111, 112, 113, 114, 370, 544
원통이고개 양민학살사건 _ 367
원통이고개 전투 _ 365, 368
원통현 _ 77, 218, 219
육군조병창 _ 86, 430, 463
이규보 _ 66, 127, 185, 186
이기조(李其祖) _ 229
이능곤 _ 298, 299
이담 _ 305
이등정 _ 51
이재준 _ 355
이학선 _ 298
이희목 _ 79, 179, 189, 192
인천도호부 _ 46
인천부(仁川府) _ 42, 50
인천지하철1호선 _ 64
일본육군조병창 _ 323, 335, 336, 413
일신동 _ 51, 58

ㅈ

장고개 _ 53, 106
장끝말 _ 53
장말리 _ 53
장제(長堤) _ 64
장제군(長堤郡) _ 36
정용대 _ 298, 298
제1경인고속도로 _ 705
조병창 _ 293, 335, 336, 355, 372
조봉암 _ 342, 343, 356, 358, 359, 360,

361, 386
조산(造山) _ 71, 72, 73
주내면 _ 46
주부토군(主夫吐郡) _ 36, 162
주안면 _ 49
주안염전 _ 542
주화곶면 _ 47
중구봉 _ 243
중심성 _ 242, 243, 244, 245
중심성사적비 _ 244
직포 _ 79
징맹이고개 _ 242

ㅊ

채병덕 _ 355
채호 _ 467
천마산 _ 112, 115
천상정 _ 51
철마산 _ 106, 107, 112, 113, 217, 523, 527
청구도 _ 44
청천동 _ 51, 53, 54
청천리 _ 49, 51, 54
청천천 _ 120, 122, 126
초정(草亭) _ 187, 188
초정기(草亭記) _ 185
최필성(崔弼成) _ 204
축곶산 봉수 _ 215
치안대 _ 355

ㅋ

캠프마켓(Camp Market) _ 516, 642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_ 470, 473

ㅍ

표양문 _ 387

ㅎ

하십정동 _ 53
하십정리 _ 49
하오정면 _ 47
한국베아링공업주식회사 _ 491
한국종합기계주식회사 _ 424
한국폴리텍 II 인천대학 _
항동 _ 53
항동리 _ 51, 58
해동지도 _ 52, 71, 72, 73
향취정 _ 51, 58
호구총수 _ 45
호명사 _ 369
홍중상공(弘中商工) _ 289, 292, 463
화랑농장 _ 293, 414
황어면 _ 47, 49, 247, 300
황어장 _ 302, 303
황어향 _ 207
황해사(黃海社) _ 275, 276, 277
후정리 _ 49, 50, 51
희망촌 _ 79

부평사 1 부평의 공간과 자연
역사 속의 부평
부평현대사

발행일
2007년 11월 16일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42-3 부평문화원
전화 (032)505-9030

디자인/편집/인쇄
(주) 인천신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
전화 (032) 451-4510~8, 팩스 (032) 451-4519
www.i-today.co.kr

ⓒ 부평사 전 2권



富平史編纂委員會

富平史

제2권



富平史編纂委員會







1 부평구 전경
2 만월산에서 바라 본 부평구의 옛 모습
3 부평구의 야경







1 부평구청사
2 부평구의회 전경







1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전경
2 만월산터널
3 삼산농산물도매시장





1 삼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2 GM대우 전경





1 굴포천
2 신트리공원



1
2
3

1 부평공원
2 부영공원
3 부평지하상가













1
2
3

1 1997부평풍물대축제
2 2006부평풍물대축제
3 2007부평풍물대축제



1 부평문화사랑방 공연 모습
2 2007년 신년음악회





1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식
2 부평문화원 전경
3 부평기적의도서관 내부









1 부평역사박물관 전경
2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역사1실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이 책은 부평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록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부평의 정체성」, 제2권은 「부평의 오늘과 내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평'에 포함되는 인적 · 자연적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수집, 검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평구민들이 거주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 '향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서술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를 포괄하여 서술하였다. 서술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2006년 이후의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다.

3. 내용

1) 제1권은 「제1편 부평의 공간과 자연」, 「제2편 역사 속의 부평」, 「제3편 부평현대사」로 구성되어 있다.

· 부평의 공간과 자연 : '부평'이란 명칭의 연혁과 공간의 역사적 변천과정, 자연환경 등을 서술하였다.

· 역사 속의 부평 :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부평지역의 역사를 최근의 지표조사 · 발굴조사 및 학술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

· 부평현대사 : 해방 직후 혼란기와 한국전쟁기 부평지역의 상황 및 경제재건 과정, 정치 현황, 시민사회의 성장과 문화운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 제2권은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평의 오늘과 내일 : 주로 부평구가 출범한 199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부평구의 변화상을 기록하였다.

· 자료편 : 구술증언자료, 설화, 문학자료, 사진, 연표, 신문기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4. 본문 서술

1)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한자를 같이 써야 할 경우 괄호안에 병기하였다. 단, 표나 출처 등은 예외로 하였다.

2)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왕력을 먼저 표기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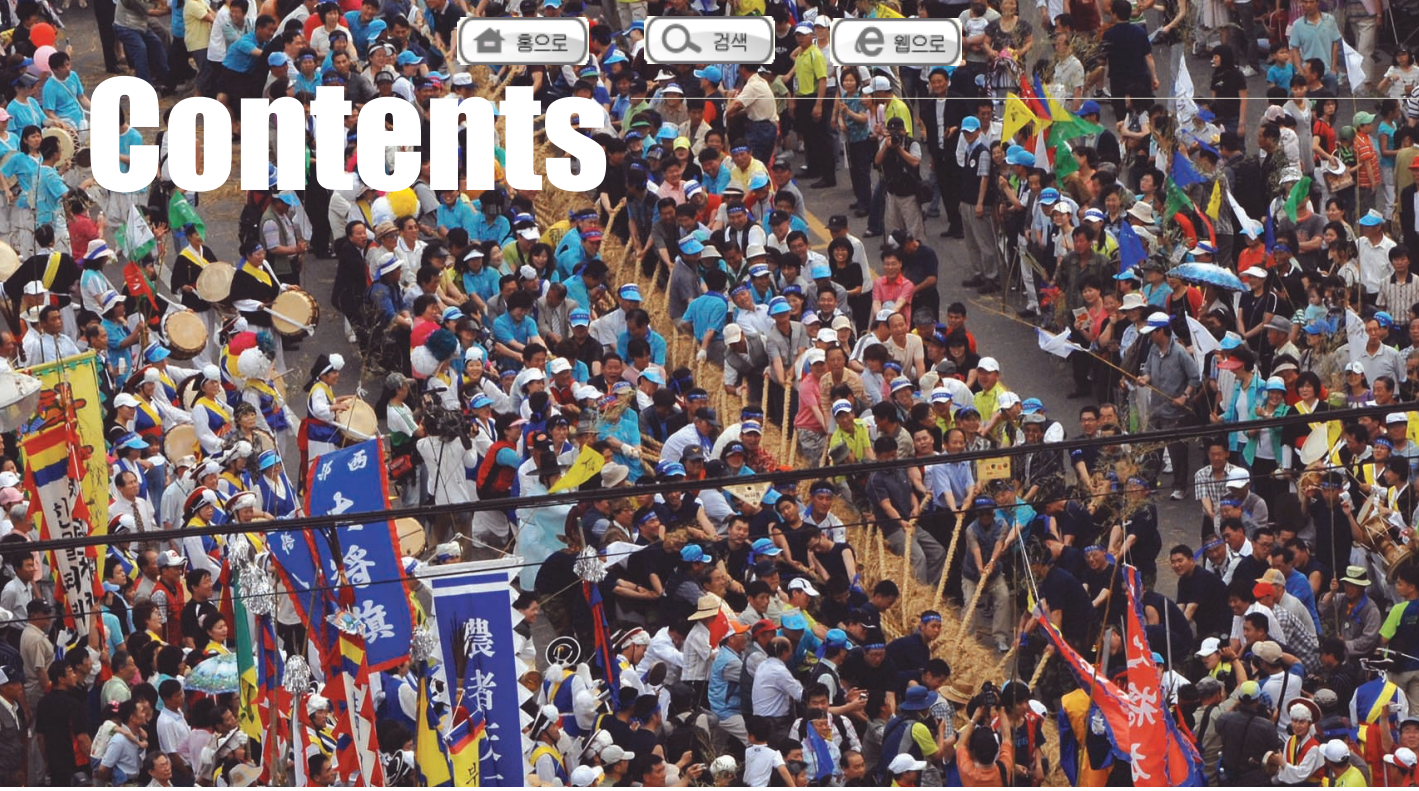
3) 구술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4) 책 전체의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문과 첨삭을 가하였다.

5) 집필위원은 해당 절의 좌 · 우 여백에 기재하고, 참고문헌은 제2권 말미에 수록하였다.

6) 본문 중 '부평구'는 현재 행정구역상 부평구를 지칭한다. 그 외 '부평지역'은 경우에 따라 부평구를 포함한 계양구, 서구 등 과거 부평도호부, 북구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부평'은 관념적 · 문화적 의미를 내포할 때 사용하였다.

Contents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1장 부평구의 주요현황

19 • 제1절 행정조직
49 • 제2절 인구
55 • 제3절 교육
96 • 제4절 의료 · 복지

제2장 정치와 경제

129 • 제1절 정치 현황
166 • 제2절 산업구조
196 • 제3절 지역사회와 기업활동

제3장 부평구민의 사회참여

215 • 제1절 시민사회의 변화
224 • 제2절 환경운동
236 • 제3절 체육활동
245 • 제4절 구호자원봉사활동

제4장 문화와 생활

249 • 제1절 문화자원 현황
282 • 제2절 문화공간의 현황과 이용실태
307 • 제3절 문화행사의 현황과 참여

317 • **제5장 부평의 미래상**

자료편

구술증언자료

329 • [좌담] 부평 상인들이 말하는 부평의 상업활동
351 • 3대에 걸쳐 부평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이호현 씨
372 • 허허벌판에서 일군 이시경 할아버지의 삶
390 • 한평생 흙과 함께 한 삼산동 이상열 할아버지의 삶
410 • 부평구의 "노른자위" – 부평 미군기지
427 • 이석재 옹의 제2의 고향 부평구 신촌
447 • 1990년대 이후 부평의 공업 활동과 부평 사람들



2

466 • 부평 상인들의 삶
512 • 부평의 농업과 농민

부평지역의 설화

539 • 계양산 이야기
542 • 충렬왕과 계양산 매사냥
544 • 부평부사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547 • 화승총의 필수품 계양산 부싯돌
550 • 수십 번 쓰러진 중심성 사적비
552 • 중심성 공해루에 걸렸던 한시 '부평팔경'
554 • 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557 • 계양산의 장사굴
559 • 병자호란과 부평향교의 위패들
560 • 정조대왕의 행차와 당좌수의 권세
562 • 천마와 아기장수
565 • 안아지고개
567 • 안아지고개의 도둑
571 • 굴포천과 원통이고개
573 •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575 •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다
578 • 십정동 대장바위
579 • 코박굴 코바위의 전설
581 • 굴포천의 명물 한다리와 구렁이
584 •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마을

문학자료

587 • 부평문학사 자료선

부평 옛 고을 이름의 유래와 변천사

655 • 옛 읍호(邑號)의 유래
665 • 조선 후기의 지명 변천
674 • 부평구의 지명 유래

719 •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부평**
737 • **신문에 기록된 부평의 근현대사**
761 • **연 표**
779 • **참고문헌**
789 • **색 인**

4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1장 부평구의 주요현황

제2장 정치와 경제

제3장 부평구민의 사회참여

제4장 문화와 생활

제5장 부평의 미래상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1장 부평구의 주요현황

제1절 행정조직

1. 기본 현황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1.98㎢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3.22%에 해당된다. 동별 면적은 일신동이 4.30㎢로 가장 넓고, 갈산2동이 0.66㎢로 가장 작다. 인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200,093세대 567,347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동별 인구는 삼산동이 20,559세대 63,008명으로 가장 많고, 일신동이 4,362세대 13,193명으로 가장 적다.

부평구의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동과 21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정동은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일신동, 십정동이며, 행정동은 부평동에 6개, 산곡동에 4개, 청천동에 2개, 갈산동에 2개, 삼산동에 1개, 부개동에 3개, 십정동에 2개, 일신동에 1개 동이 있다. 그리고 21개 행정동에는 619개 통과 4,075개 반이 있다. 주택은 157,132호로 아파트 비율이 55%를 차지하며, 보급률은 78.5%를 기록하고 있다.



※ 이 글은 김진석(전 부평구청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집필하였음.



부개3동사무소 개소식 (1992)

행정기구는 4국, 1실, 18과, 1의회 사무국, 1보건소, 21동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903명이다. 부평구의 예산 규모는 2006년도의 경우 총 211,757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4,645백만 원, 특별회계가 7,112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4,645백만 원으로 자체 수입이 62,356백만 원, 의존재원이 142,289백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0.4%에 해당된다.

부평구 동별 면적 및 인구 (2005. 12. 31 현재)

연번	동명	면적(㎢)	세대수	인구			통반 수	
				계	남	여	통	반
계		31.98	200,093	567,347	284,528	282,819	619	4,075
1	부평1동	1.10	12,421	35,956	17,640	18,316	34	242
2	부평2동	2.28	9,316	24,130	12,100	12,030	25	159
3	부평3동	1.00	6,691	16,789	8,404	8,385	22	134
4	부평4동	1.01	10,293	25,828	13,018	12,810	30	196
5	부평5동	0.82	9,374	24,038	12,108	11,930	29	191
6	부평6동	0.76	6,183	14,825	7,439	7,386	20	132
7	산곡1동	2.07	8,413	22,653	11,459	11,194	31	204
8	산곡2동	0.92	9,470	31,306	15,602	15,704	33	217
9	산곡3동	1.43	9,045	27,920	13,695	14,225	27	176
10	산곡4동	0.76	6,809	21,955	10,7271	1,228	19	126
11	청천1동	2.16	7,473	18,789	9,960	8,829	25	163
12	청천2동	2.78	13,654	40,573	20,402	20,171	37	256
13	갈산1동	1.07	6,781	19,621	9,982	9,639	21	141
14	갈산2동	0.66	8,814	25,979	12,846	13,133	29	194
15	삼산동	3.39	20,559	63,008	31,424	31,584	55	356
16	부개1동	0.95	8,199	22,655	11,464	11,191	31	208
17	부개2동	0.75	7,928	22,767	11,456	11,306	24	160
18	부개3동	0.86	13,122	40,678	20,245	20,433	37	244
19	일신동	4.30	4,362	13,193	6,746	6,447	18	111
20	십정1동	1.79	8,915	23,397	12,055	11,342	36	226
21	십정2동	1.09	12,271	31,292	15,756	15,536	36	239

출처 : 『구정백서』, 부평구, 2006.

2. 행정조직 체계의 변천

1) 민선1기 자치단체장 체제에서 행정기구 변화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은 부평구 행정조직의 기본성격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한 관리·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주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되면서 보다 주민지향적인 서비스 행정체제가 갖추어졌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689호, 1994. 12. 20 공포)에 의하여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같은 해 3월 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해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따라서 부평구의 면적은 32.03㎢(북구는 76.88㎢)로 축소되었으며, 이중 녹지지역이 44.0%, 주거지역이 31.7%, 상공업지역이 24.3%였다.

1995년 3월 1일 분구 이후 3국 2실 16과 61계 21개 동으로 구청조직이 개편되었다.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됨으로써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해소되었고, 부평구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부평구는 우선, 세정업무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는 등 세무과의 직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특히, 징수과를 신설하였고 보다 신속 정확한 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전산화를 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1995년 7월에 최초의 민선자치단체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첫 해인 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1995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5. 3. 1 (계양구 분구)	민방위과	· 민방위과 폐지
	총 무 과	· 민방위계, 병무계 민방위과에서 이관
	시 민 과	· 민원처리계 폐지 · 계 명칭변경 – 민원제도계 → 민원계
	세 무 과	· 직제 전면 개편 – 폐지 : 세무 1계, 세무2계, 세무3계, 세무 4계, 평가계, 세외수입계 – 신설 :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세무조사계
	징 수 과	· 징수과 신설 –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 신설
	도시정비과	· 구획정리계 폐지
	노동복지회관	· 직제 폐지(계양구 이관)
	계양출장소	· 직제 폐지
	동	· 동 직제 폐지(계양구 이관) –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3동, 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총 무 과	· 분구준비단 폐지 (계양구 설치완료)
1995. 5. 29	청 소 과	· 계 명칭변경 – 오수관리계 → 재활용계

부평구 공무원 정원 현황 (1995. 7. 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66	1	641	31	133	60
구 본 청	407	1	280	7	59	60
의회사무과	21		12		9	
보 건 소	53		44	1	8	
동	385		305	23	57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다음 해인 1996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재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고,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과로 통합하였으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외에 업무의 확대와 소속부서의 이관 등으로 부서 명칭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업무량 증·감에 따른 과내 팀단위 업무를 통합 또는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한편 1996년 5월에는 행정자치부의 명칭 통일 지침에 따라 사회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다.

1996년도 부평구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6. 1. 1	기획감사실	· 통계계, 통신전산계 폐지 · 전산통계계 신설
	총 무 과	· 지도계, 사회진흥계 폐지 · 민방위계, 병무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 · 인사계 신설
	재 무 과	· 회계과로 명칭변경 · 관리계 폐지
	징 수 과	· 계 명칭변경 – 징수1계 → 징수관리계 – 징수2계 → 시세징수계 – 체납정리계 → 구세징수계
	경영재정과	· 경영재정과 신설 · 경영수익계, 세외수입계, 재산관리계 신설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 · 재난관리계 신설 · 민방위계, 병무계 총무과에서 이관
	사 회 과	· 의료보장계, 노정계 폐지 · 구호계, 가정복지계, 여성보육계 신설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 폐지(사회과와 통합)
	청 소 과	· 폐기물처리계 신설
	위 생 과	· 계 명칭변경 – 위생감시계 → 유통식품관리계
	지역경제과	· 국제통상계 신설 · 산업계 폐지(지역경제계와 통합) · 계 명칭변경 – 공업계 → 공업노정계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6. 1. 1	지 적 과	· 계 명칭변경 – 지적1계 → 지적계 – 지적2계 → 지적정보계
	지역교통과	· 교통단속계 신설 · 계 명칭변경 – 교통관광계 → 교통행정계
	의회사무과	· 명칭변경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국
1996. 5. 20	사 회 과	· 과 명칭변경 – 사회과 → 사회복지과

공무원 정원 현황 (1996. 3. 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63	1	638	32	133	59
구 본 청	423	1	292	8	63	59
의회사무과	21		12		9	
보 건 소	47		39	1	7	
동	372		295	23	54	

※ 1996년에는 1995년에 비해 정원이 3명 감축되었다.

1997년도에는 회계과를 폐지하고 영선계는 총무과로, 경리계는 경영재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인천시청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였으나 부평구는 기존의 조직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기구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구하였다.

1997년도 부평구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7. 1. 1	지 적 과	· 부동산관리계 신설
	기획감사실	· 정보통신계 신설
	지역교통과	· 차량등록계 신설
	총 무 과	· 공공시설계 신설 · 계 명칭변경 – 서무계 → 총무계
	회 계 과	· 회계과폐지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7. 1. 1		· 계 이관 – 영선계 → 총무과 공공시설계 – 경리계 → 경영재정과로 이관
	중소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과 신설 – 중소기업계 신설 · 공업노정계. 국제통상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경영재정과	· 경영수익계+세외수입계 = 경영수익계(계통합)
	사회복지과	· 구호계를 생활복지계로 명칭변경
	지역경제과	· 상정계를 상공계로 명칭변경 · 공업노정계 · 국제통상계를 중소기업지원과로 이관

공무원 정원 현황(1997) (1997.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87	1	662	31	139	54
구 본 청	445	1	324	8	69	43
의회사무과	21		12		9	
보 건 소	47		40		7	
동	374		286	23	54	11

※ 1997년 12월 말 공무원 수는 전년대비 24명이 증원되어 정원은 886명이 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 민선2기 자치단체장 체제에서 행정기구 변화

민선2기 자치단체장 체제의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공공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 요구로 인해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었으며 그동안 소극적이고 관리지향적인 행정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이면서 서비스 지향적인 경영행정 체제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했다. 이에따라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났다.

민선2기 자치단체장 체제가 경제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평구의 행정조직도 매년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다.



삼산 · 갈산동 도로 포장 준공식(1976)

1998년도에는 1997년 말 닥친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대국 · 대과주의 지향, 유사기구 및 업무의 통폐합 및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의 조정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7일에는 제1단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통합으로 환경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와 법무계가 예산법무팀으로 통합되고,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과가 업무통합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민방위관련 업무는 총무과로, 병무관련 업무는 시민봉사과로 축소 이관하였다.

IMF 관리체제 이후 증가한 지역내 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공공근로 방안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정원도 110명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1998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8. 10. 7	구 본 청	· 계 직제 폐지, 팀 명칭 사용
	동사무소, 보건소	· 사무장 제도 폐지
	기획감사실	· 팀 통합 : 예산계+법무계 → 예산법무팀
	문화공보실	· 체육청소년팀 신설 · 팀 명칭변경 – 공보계 → 홍보기획팀 – 문화체육계 → 문화관광팀
	총무과	· 공공시설계를 경영재정과 공공시설팀으로 이관
	세무과	· 징수과와 통합하여 직제 전면 개편 – 폐지 :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세무조사계, 징수관리계, 시세징수계, 구세징수계 – 신설 : 세정팀, 취득세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세무전산팀, 체납처분팀
	징수과	· 세무과로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 – 재난관리계+안전지도계 → 건설과 재난관리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8. 10. 7		팀으로 이관 – 병무계 → 시민봉사과 병무팀으로 이관 – 민방위계 → 총무과 민방위팀으로 이관
	시민과	· 시민봉사과로 명칭변경
	사회복지과	· 팀통합 : 사회계+가정복지계 → 사회팀
	환경보호과	· 청소과와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명칭 변경 · 팀 명칭변경 – 폐기물처리계 → 청소행정팀 – 재활용계 → 오수관리팀
	청소과	· 환경보호과로 통합
	지역경제과	· 산업경제과로 명칭 변경
	중소기업지원과	· 중소기업과로 명칭 변경 · 팀통합 : 중소기업계+국제통상계 → 중소기업팀
	지역교통과	· 교통행정과로 명칭 변경 · 팀 통합 : 교통지도계+차량관리계 → 교통지도 팀

1998년도 부평구청 공무원 정원 현황 (1998.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777	1	596	27	110	43
구 본 청	399	1	303	6	56	33
의회사무과	18		11		7	
보 건 소	41		36		5	
동	319		246	21	42	10

대국 · 대과주의 지향의 조직 개편과 불요불급한 인력 외 정원감축을 실시하여 1997년도 대비 110명의 정원을 축소하였으며 직렬별 정원 감축내용은 일반직 6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29명, 고용직 11명이다.

1999년도에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2단계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1999년 7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부평4동과 산곡3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원과 업무가 부서별로 이관되고 정원이 조정되었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438호, 1999. 6. 30)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다.

1999년도의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관리과의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청소과를 신설하였고,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개편하였다. 또한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과를 신설하였고 세무과의 세무전산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통합하고 전년도 대비 2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당시 조직 개편은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 정부의 조직개편 조치에 따라 모든 공공분야가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기구 및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부평구로서는 정원 및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은 오히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99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1999. 7. 26	동사무소	·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부평4동,산곡3동)
1999. 12. 9	환경관리과 위생과	· 환경관리과의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청소과 신설 ·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개편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 산업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과 신설 – 상공담당을 지역경제담당으로 통합
	문화공보실	· 생활체육팀 증설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증설
	세무과	· 세무전산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통합

공무원 정원 현황 (1999.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777	1	596	27	110	43
구 본 청	434	1	334	6	59	34
의회사무과	18		11		7	
보 건 소	42		36		6	
동	283		215	21	38	9

2000년도에는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 방침에 따라 2000년 1월에는 기획감사실의 확인평가팀과 경제과의 실업대책팀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9명의 정원을

감축 · 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 및 확대배치에 따라 구본청에 8명을 증원하였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각 동에 13명을 증원하여 확대 배치하였다.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체제 출범 이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가 분출되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고루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비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서 정원을 행정6급에서 별정6급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부평구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의 구조조정 및 서울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간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 책정의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2000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도 있다.

2000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0. 11. 1	기획감사실	· 팀 명칭 변경 – 전산통계계 → 정보관리팀
	총무과	· 팀 명칭 변경 – 행정계 → 대회협력팀
	주민자치과	· 동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과 신설
	경제과	· 실업대책팀 폐지
	동사무소	· 동사무소 기능 전환 전면실시

공무원 정원 현황 (2000.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780	1	636	4	104	35
구 본 청	522	1	404	3	79	35
의회사무과	18		11		7	
보 건 소	44		37		7	
동	196		184	1	11	

2001년도에는 조직 개편상의 뚜렷한 특징은 없으며, 다만 기획감사실 내 예산법무팀을 예산팀과 의회법무팀으로 분리하였다.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정원이 10명 증원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 방침에 따라 정원 10명을 감축하는 등 정원 조정을 시행했다.



부평역 앞 전경(1994)

또한 2001년 7월에 5급 직렬조정과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분위기를 고취시켰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정원체계를 완화하고자 29명의 정원을 보강하였다.

또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직급의 상향 등이 제한되어 있어, 승진 소요 년수가 많이 지나고 동일 직렬 내의 7~9급 중 9급 비율이 높은 직렬을 행정직과 상계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다.

2001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1. 9. 22	기획감사실	· 1개 담당 신설 – 예산법무팀을 예산팀과 의회법무팀으로 분리

공무원 정원 현황(2001)						(2001.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09	1	661	3	109	35
구 본 청	543	1	419	3	85	35
의회사무과	17		11		6	
보 건 소	46		39		7	
동	203		192		11	

3) 민선3기 자치단체장 체제에서 행정기구 변화

민선3기 자치단체장체제가 2002년 7월에 출범함으로써 경제, 문화체육, 환경, 사회복지 등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여 부서별 자체 조직 진단 및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병무팀을 폐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였으며,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서직렬을 조정하였다.

2002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2. 7. 5	시민봉사과	· 팀 명칭 변경 – 민원팀 → 민원1팀 – 병무팀 → 민원2팀

공무원 정원 현황(2002) (2002.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25	1	667	3	109	35
구본청	539	1	415	3	85	35
의회사무과	17		11		6	
보건소	46		39		7	
동	223		212		11	

2003년 1월 민선3기를 맞이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전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여 문화공보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민봉사과를 총무과로 통합하고, 세무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세과와 시세과로 분리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관련 업무의 증대에 따라 여성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였다. 건설과도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로 분리하였으며,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 26명을 보강하였으며, 구행정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화로 바뀌고, 정보화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산 전문 인력의 직렬을 전산직으로 통합 관리 변경하였다.

2003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3. 1. 15	문화복지국	· 문화복지국 신설
	시민봉사과	· 시민봉사과를 총무과에 통합
	세 무 과	· 세무과를 구세과, 시세과로 분리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문화공보과 신설
	여 성 과	· 사회복지과의 여성정책 및 아동분야의 업무와 문화공보실 청소년 업무를 이관하여 여성과신설
	건 설 과	· 건설과를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로 분리
	보건행정과	·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신설

공무원 정원 현황 (2003.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285	1	699	3	113	35
구본청	553	1	420	3	94	35
의회사무과	17		12		5	
보건소	47		44		3	
동	234		223		11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행정수요 증가부분과 업무위탁 및 전산화 등으로 업무량 감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히고자, 부서 간 정원을 재조정하였으며, 기능6급을 신설하여 기능직의 승진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4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4. 6. 23	기획감사실	· 팀 신설 – 혁신분권팀 (한시기간 : 2007. 6. 30)
2004. 7. 1	주민자치과	· 한시기간 연장 (2004. 6. 30 → 2005. 6. 30)

공무원 정원 현황 (2004.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63	1	707	3	117	35
구본청	565	1	429	3	98	34
의회사무과	17		12		5	
보건소	46		43		2	1
동	235		223		12	

2005년도 조직 개편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상반기 조직 개편 시에는 구세과와 시세과를 분리한 후 성과분석을 거치고 세무과로 통합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전환하였다. 또한, 경제과와의 혼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민원사무를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이관하였으며, 건설행정과의 명칭을 건설녹지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이던 지도원을 기능10급 조무원(지도)으로 직렬을 변경하였다.

하반기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와 녹지조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총무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로 통합하였다. 2005년 1월에 명칭을 변경한 건설녹지과는 이때 다시 건설행정과로 환원되었다.

2005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현황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2005. 1 .3	기획감사실	· 조직평가팀 신설
	총무과	· 공무원단체협력 팀 신설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 경영
	재정과	· 재무과로 명칭 변경
	재무과	· 복식부기팀, 공유재산관리팀 신설 · 경영수익팀 폐지 ·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 → 국유재산관리팀
	구세과 · 시세과	· 세무과로 통합
	세무과	· 세외수입팀, 자동차세팀 신설 · 팀 명칭 변경 – 시세과 시세체납팀 → 체납정리팀 – 구세과 구세1팀 → 세정팀 – 구세과 구세2팀 → 제산세팀 – 시세과 시세1팀 → 취득등록세팀 – 시세과 시세2팀 → 주민세팀
	민원봉사과	· 과 신설(총무과에서 민원사무 이관) · 자치행정과 주민통계팀 → 주민등록팀
	문화공보과	· 영상홍보팀, 예술진흥팀 신설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신설
	여성과	· 가정복지팀 신설 · 아동보육팀 → 보육행정팀
	경제과	· 시장지원팀 신설

시 행 일	기관(부서)	개 편 내 용
	청소과	· 음식물자원화팀, 폐기물관리팀 신설
	교통행정과	· 주차시설팀 신설
	건설녹지과	· 조경팀 신설 ·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 → 녹지팀
	건설행정과	·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녹지 업무를 건설행정과로 하고 건설녹지과로 명칭 변경
	도로치수과	· 도로관리팀 신설 · 도로팀 → 도로시설팀
	건축과	· 건축2팀 폐지 · 건축1팀 → 건축팀
	도시정비과	· 광고물정비팀, 도시개발팀 신설
	건설녹지과	· 조경팀 신설
	의회사무국	· 총무팀 신설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신설 · 가족보건팀 → 지역보건팀
2005. 3. 2	세 무 과	· 주택가격평가팀 증설
2005. 6.10	재난안전관리과	· 과 신설 · 팀 신설 : 재난기획팀, 복구지원팀 · 팀 이체 : 재난관리팀(도로치수과 →) 민방위팀(자치행정과 →)
	녹지조경과	· 과 신설 · 팀 이관 : 녹지팀, 조경팀, 공원팀(건설녹지과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로 통합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팀 → 복지기획팀으로 명칭 변경
	건축과	· 도시미관팀 → 도시정비과로 이관
	건설녹지과	· 공원녹지 업무를 신설되는 녹지조경과로 이관하고 건설행정과로 명칭 변경
	도시정비과	·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 건설행정과
2005.10.21	자치행정과	· 평생학습지원팀 신설

공무원 정원 현황 (2004. 12. 31 현재)

직렬별 / 기관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	903	1	748	3	151
구 본 청	602	1	469	3	129
의회사무과	18		12		6
보 건 소	46		43		3
동	237		224		13

3. 행정조직 개편의 전망과 과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거대 자치구로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삼산택지)과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24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부평구는 2003년 5월 9일 고시된 표준정원과 관련하여 현재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표준정원대비 178명, 보정정원 대비 128명 초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교통, 환경분야의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의 이양,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 등 당분간 행정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행정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로 조직 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은 행정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경변화에 앞서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변화요인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맞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작업이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지식기반 행정에서는 조직의 구조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사이동이 빈번해지고 동일업무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면 오히려 직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행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향후 2007년 1월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평구도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기구·인력 보강을 통해 57만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다기능화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산곡2동 전경(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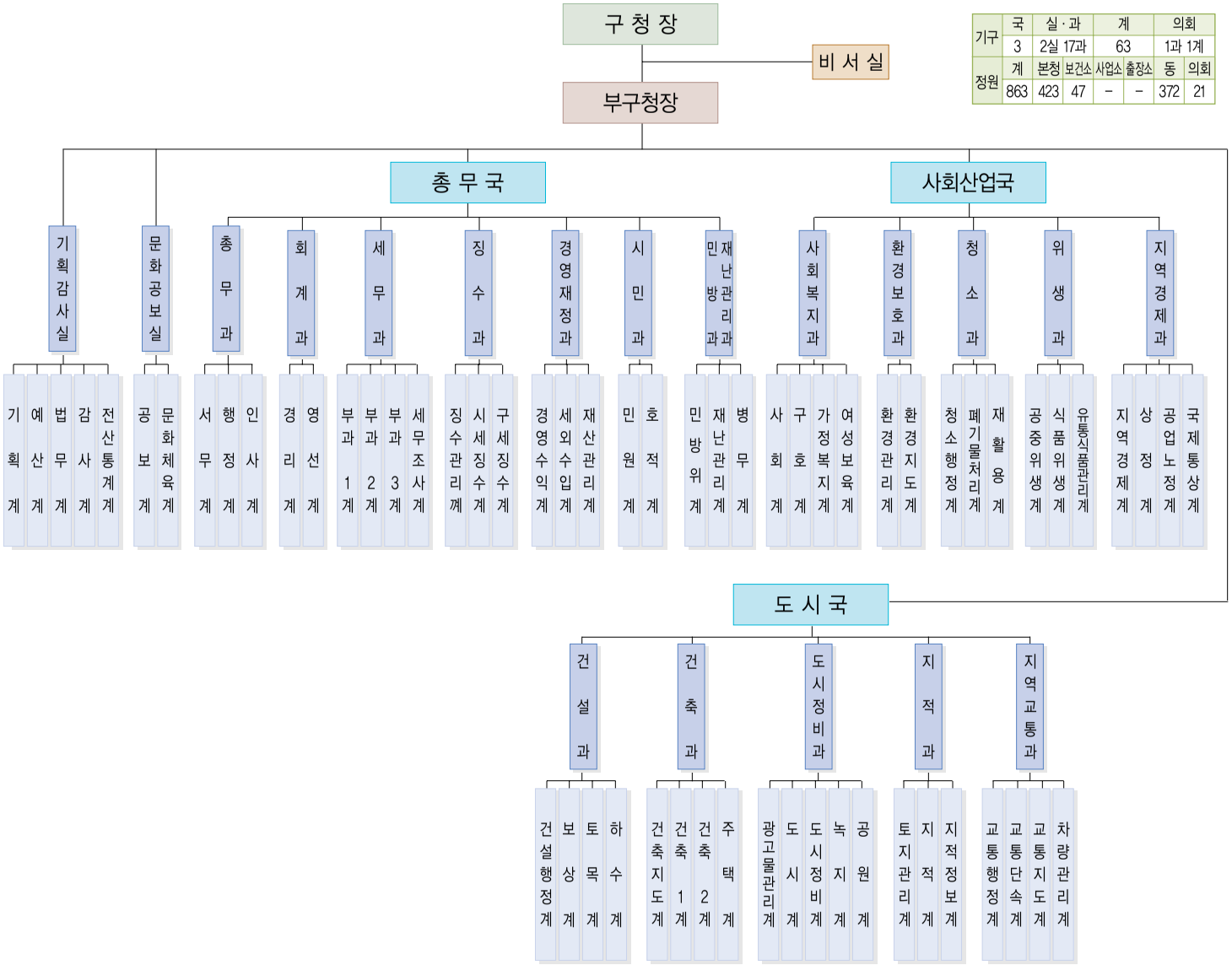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조직의 유연성 확보 및 민 · 관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부평구 기구표 (1995. 3. 1 분구후)

기구		정원	
국	3	계	866
실·과	2실 16과	본청	407
		보건소	53
		사업소	–
계	61	출장소	–
	1과 1계	동	385
의회		의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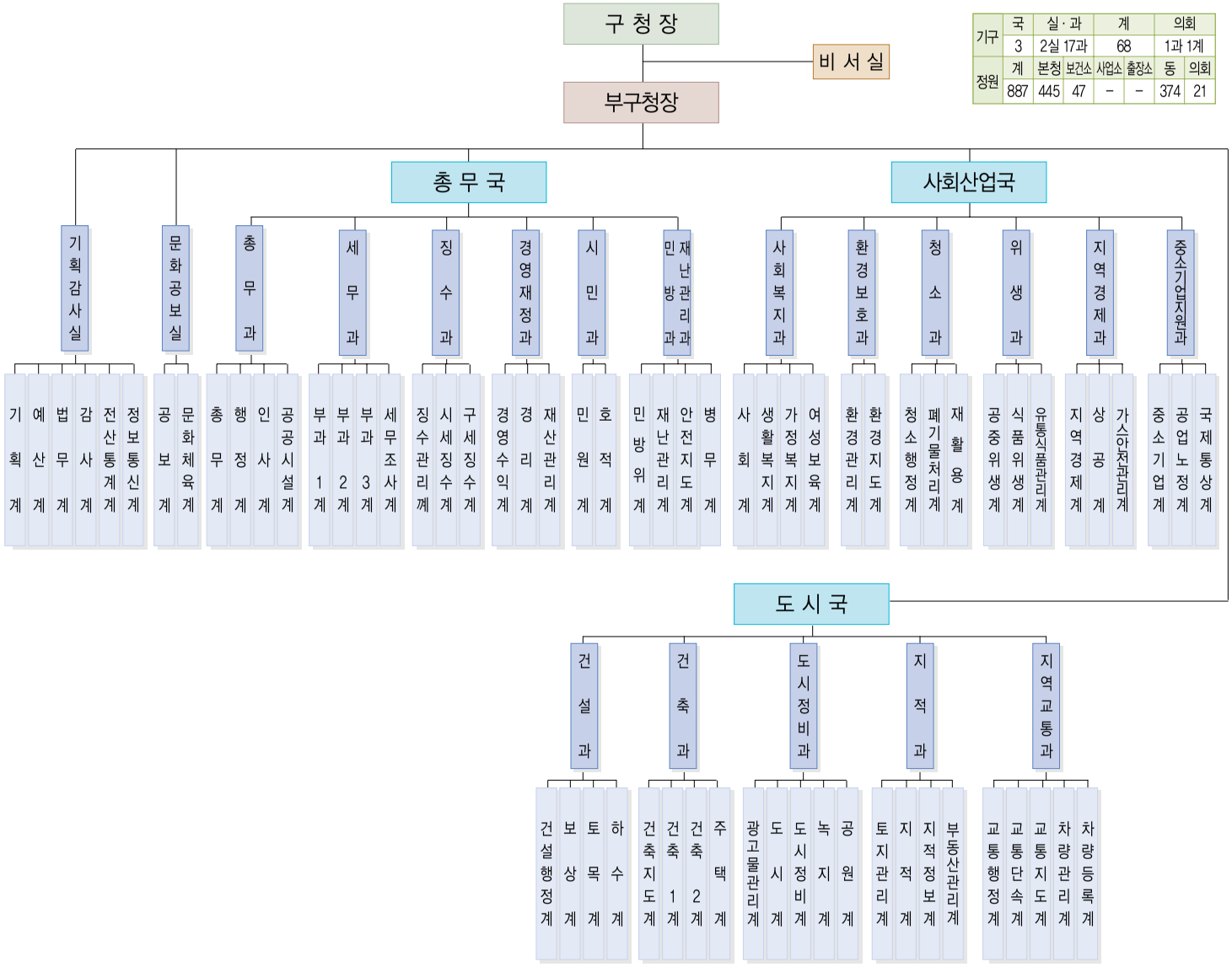
부평구 기구표 (1996년)

기구	국	실·과		계		의회	
	3	2실 17과		63		1과 1계	
정원	계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의회
	863	423	47	-	-	372	21



부평구 기구표 (1997년)

기구	국	실·과		계		의회	
	3	2실 17과		68		1과 1계	
정원	계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	의회
	887	445	47	–	–	374	21



부평구 기구표 (1998년)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3국	2실 14과	69팀	1	1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777	399	18	41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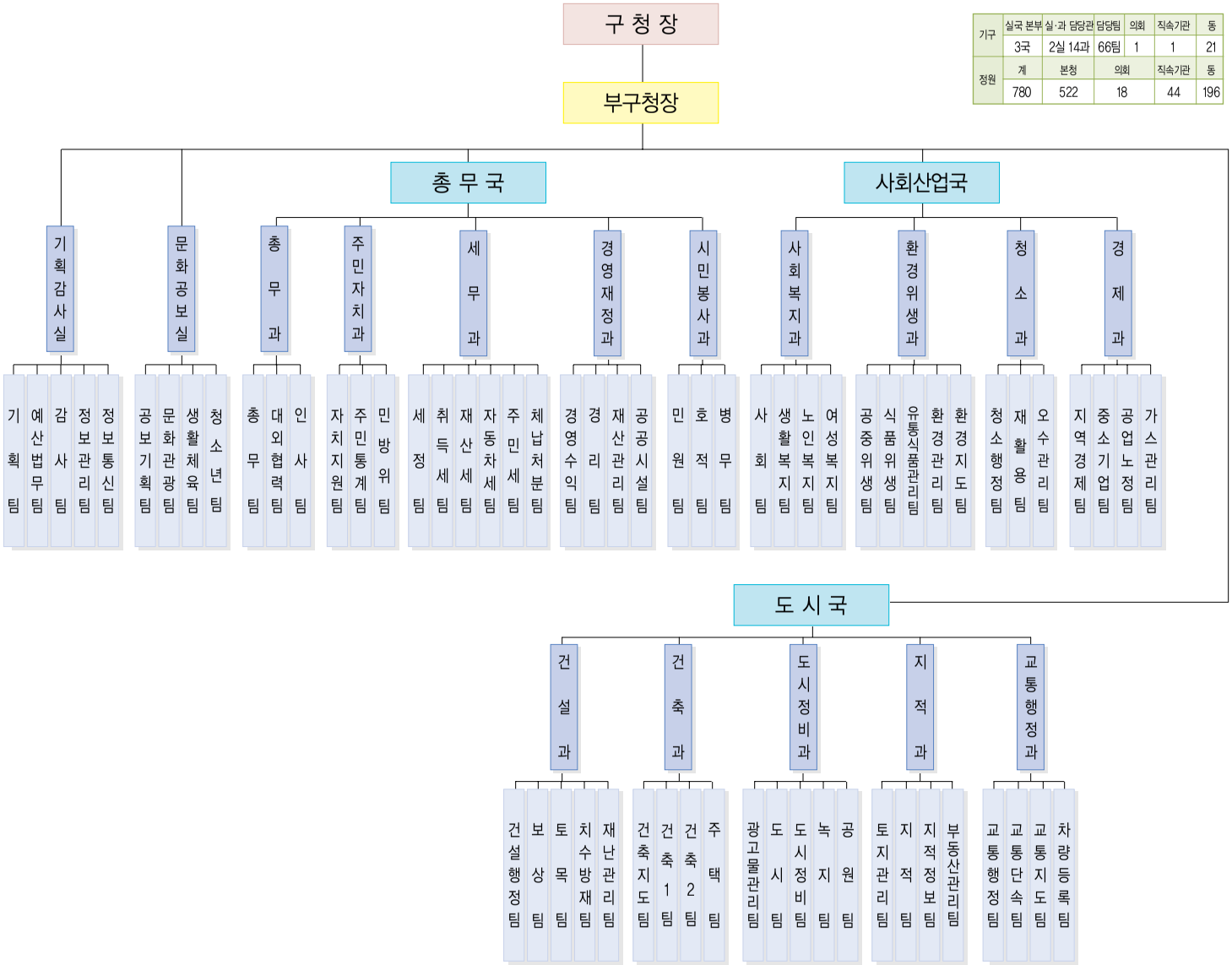
부평구 기구표 (1999년)

기구					
정원	실국 본부 실 과 담당관 담당팀	3국	2실 13과	66팀	
	계		본청		
		777	434		
	의회	의회		1	
		18			
	직속기관	직속기관		1	
		42			
	동	동			
		28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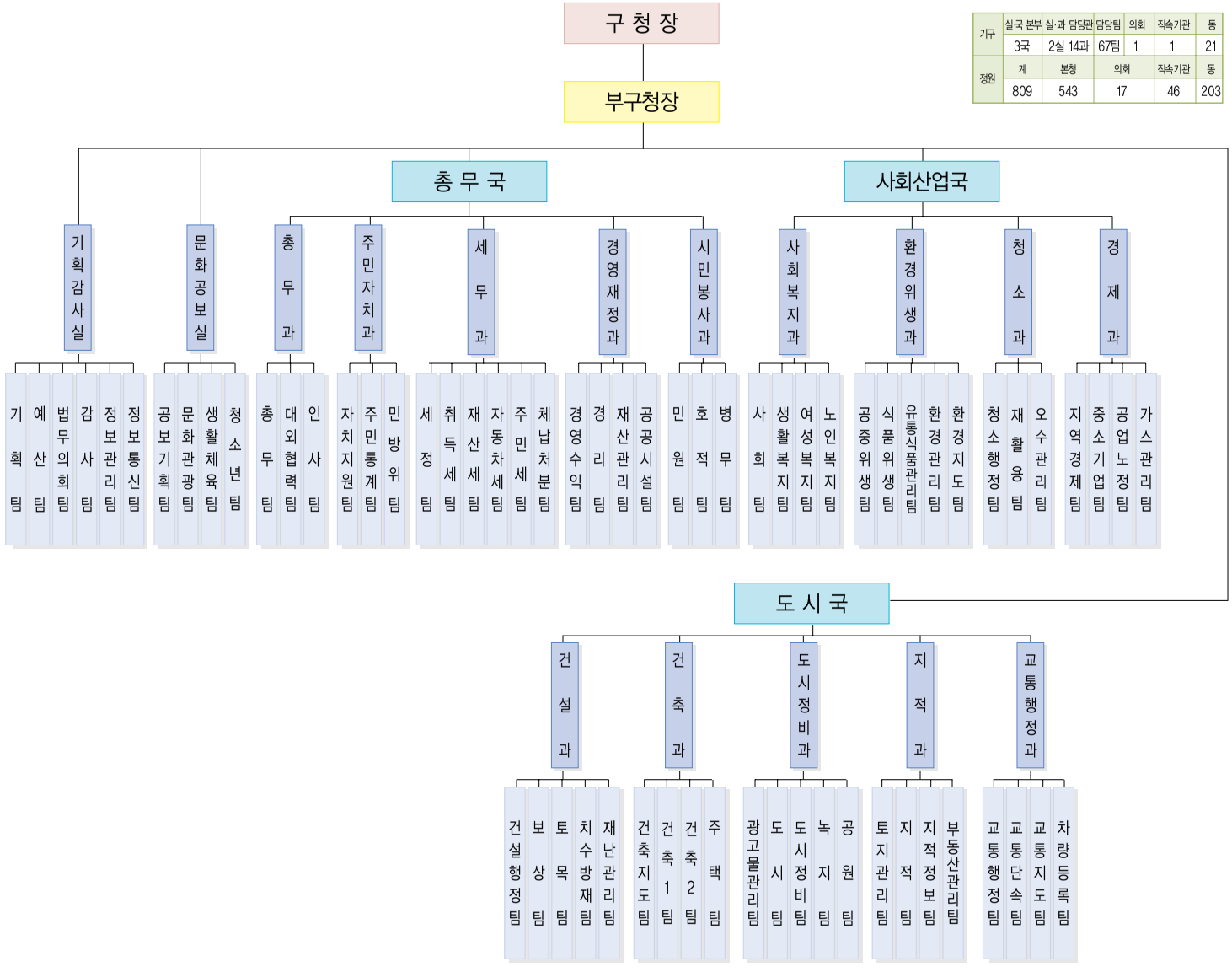
- 구청장
  - 부구청장
    - 총무국
      - 시민봉사과
        - 민원담당팀
        - 호적팀
        - 병무팀
      - 정보통계관리과
        - 정보관리팀
        - 정보화추진팀
        - 구청사업팀
        - 재산관리팀
        - 구청사설계팀
      - 세무과
        - 세정팀
        - 세원관리팀
        - 자동차세팀
        - 주민세팀
        - 체납처분팀
      - 총무과
        - 총무팀
        - 회의준비팀
        - 인사팀
        - 민방위팀
      - 문화공보실
        - 공보기획팀
        - 문화관광팀
        - 생활체육팀
        - 청소년팀
      - 기획감사실
        - 기획팀
        - 예산법무팀
        - 행정개혁팀
        - 감사팀
        - 전산통계팀
        - 정보통신팀
    - 사회산업국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팀
        - 생활보호팀
        - 여성복지팀
        - 노인복지팀
      -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팀
        - 공중위생팀
        - 야생동물보호관리팀
        - 환경관리팀
        - 환경지도팀
      - 청소과
        - 청소행정팀
        - 재활용품팀
        - 오수관리팀
      - 경제과
        - 지역경제팀
        - 중소기업팀
        - 공업노정팀
        - 상공관리팀
        - 실업대책팀
    - 도시국
      - 건설과
        - 건설행정팀
        - 공원녹지팀
        - 하수도팀
        - 재난관리팀
      - 건축과
        - 건축지도팀
        - 건축1팀
        - 건축2팀
        - 주택팀
      -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팀
        - 녹지팀
        - 공원팀
      - 지적과
        - 토지관리팀
        - 지적팀
        - 지적정보팀
        - 부동산관리팀
      - 교통행정과
        - 교통단속팀
        - 교통지도팀
        - 교통등록팀
        - 차량팀

부평구 기구표 (2000년)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3국	2실 14과	66팀	1	1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780	522	18		44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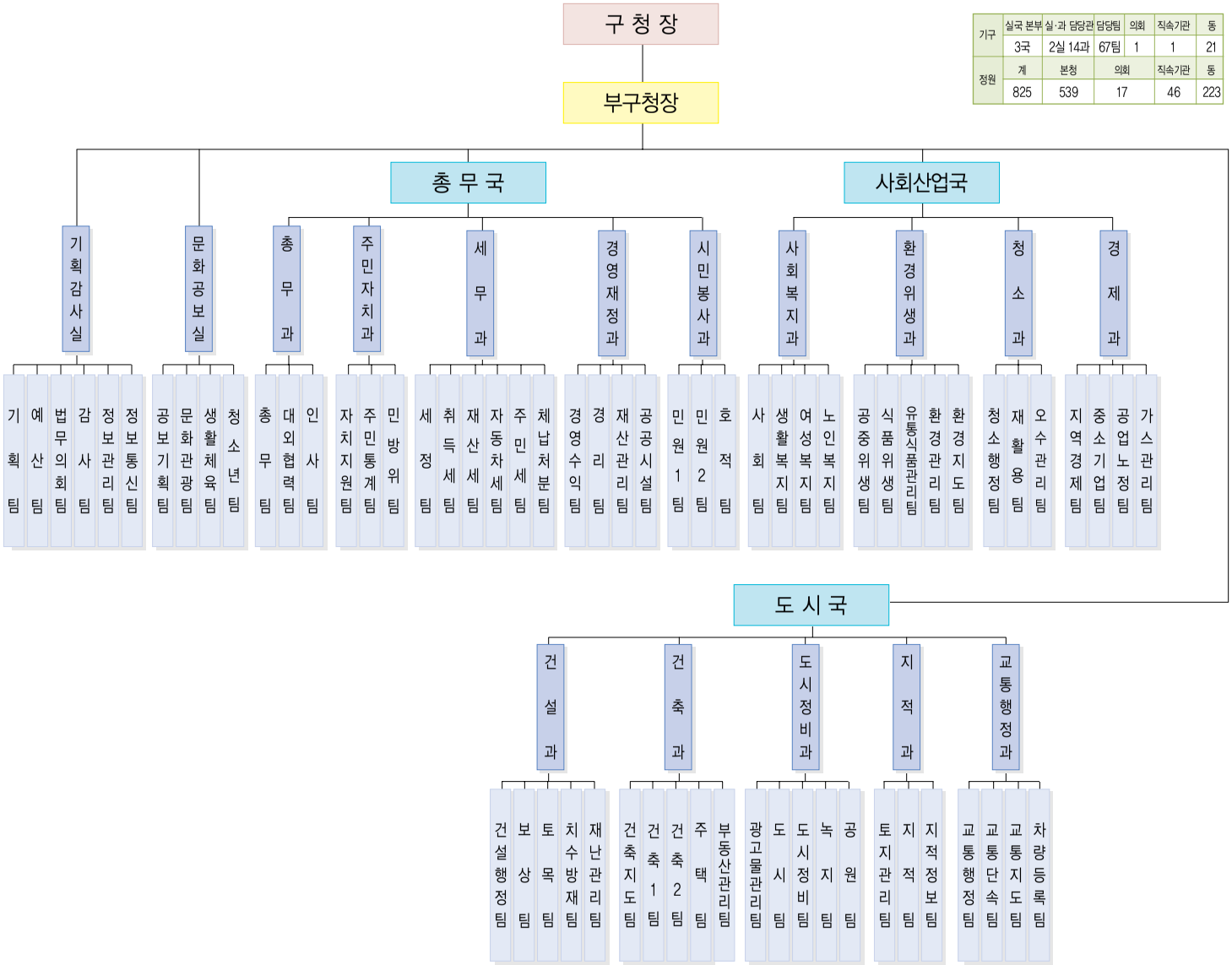
부평구 기구표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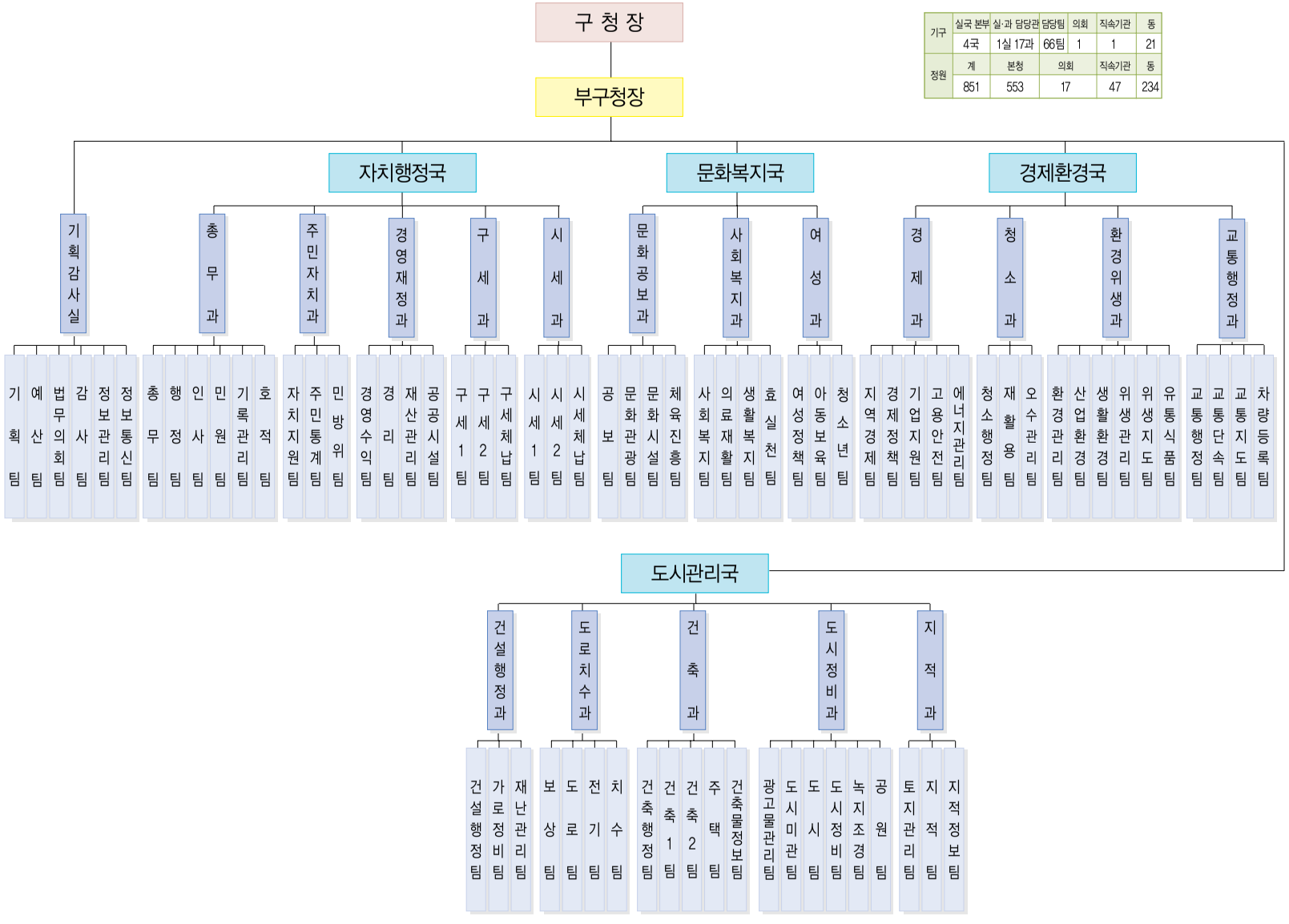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3국	2실 14과	67팀	1	1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809	543	17		46	203

부평구 기구표 (2002년)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3국	2실 14과	67팀	1	1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825	539	17		46	223



부평구 기구표 (2003년)



부평구 기구표 (2004년)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4국	1실 17과	96팀	1국3담당	1과7팀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863	565	17	46	235	

- 구 청 장
  - 부구청장
    - 자치행정국
      - 기획감사실
        - 기획팀
        - 조직평가팀
        - 혁신분권팀
        - 예산팀
        - 법무의회팀
        - 감사팀
        - 행정정보팀
        - 지역정보팀
      - 총무과
        - 총무팀
        - 인사팀
        - 후생복지팀
        - 민원팀
        - 기록관리팀
      - 자치행정과
        - 자치지원팀
        - 행정팀
        - 후생복지팀
        - 민방위팀
        - 정보통신팀
      - 재무과
        - 경영수익팀
        - 경리팀
        - 물품관리팀
        - 재산관리팀
        - 호적팀
      - 구세과
        - 세정팀
        - 세외수입팀
        - 재산세팀
        - 체납정리팀
        - 체납기동팀
      - 시세과
        - 취득세팀
        - 주민세팀
        - 자동차세팀
    - 문화복지국
      - 문화공보과
        - 공보팀
        - 문화관광팀
        - 예술진흥팀
        - 문화시설팀
        - 체육진흥팀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팀
        - 생활복지팀
        - 자활지원팀
        - 의료재활팀
        - 효실천팀
      - 여성과
        - 여성정책팀
        - 아동보육팀
        - 청소년자원봉사팀
    - 경제환경국
      - 경제과
        - 지역경제팀
        - 재래산업팀
        - 경제정책팀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전팀
        - 에너지관리팀
      - 청소과
        - 청소행정팀
        - 재활용팀
        - 폐기물관리팀
        - 음식물자원화팀
        - 오수관리팀
      - 환경위생과
        - 환경관리팀
        - 산업환경팀
        - 생활환경팀
        - 위생관리팀
        - 위생지도팀
        - 유통식품팀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주차시설팀
        - 교통단속팀
        - 차량과징팀
        - 교통지도팀
        - 차량등록팀
    - 도시관리국
      - 건설녹지과
        - 건설행정팀
        - 가로정비팀
        - 녹지조경팀
        - 공원팀
      - 도로치수과
        - 재산관리팀
        - 도로관리팀
        - 도로시설팀
        - 보상팀
        - 전기팀
        - 치수팀
      - 건축과
        - 건축행정팀
        - 건축1팀
        - 건축2팀
        - 건축관리팀
        - 주택팀
        - 건축물정보팀
      - 도시정비과
        - 광고물관리팀
        - 도시미관팀
        - 도시팀
        - 도시개발팀
        - 주거환경개선팀
      - 지적과
        - 토지관리팀
        - 지적팀
        - 지적정보팀
        - 지가조사팀

부평구 기구표 (2005년)

기구	실국 본부	실·과 담당관	담당팀	의회	직속기관	동
	4국	1실 18과	96팀	1국3담당	1과6팀	21
정원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동
	903	602	18		46	237

- 구청장
  - 부구청장
    - 자치행정국
      - 기획감사실
        - 기획팀
        - 조직평가팀
        - 혁신분권팀
        - 예산팀
        - 법무의회팀
        - 감사팀
        - 행정정보팀
      - 자치행정과
        - 총무팀
        - 인사팀
        - 자치지원팀
        - 교육행정팀
        - 평생학습지원팀
        - 공무원단체협력팀
        - 기록관리팀
      - 재무과
        - 경리팀
        - 복식부기팀
        - 국유재산관리팀
        - 공유재산관리팀
        - 정보통신팀
      - 세무과
        - 세정팀
        - 취득등록세팀
        - 재산세팀
        - 주택가격평가팀
        - 자동차세팀
        - 주민세팀
        - 체납정리팀
        - 세외수입팀
      - 민원봉사과
        - 민원팀
        - 주민등록팀
        - 기록관리팀
        - 호적팀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기획팀
        - 재난관리팀
        - 복구지원팀
        - 민방위팀
    - 문화복지국
      - 문화공보과
        - 공보팀
        - 영상홍보팀
        - 문화관광팀
        - 예술진흥팀
        - 문화시설팀
        - 체육진흥팀
      - 사회복지과
        - 사회기획팀
        - 생활복지팀
        - 의료재활팀
        - 효실천팀
        - 노인복지팀
      - 여성과
        - 여성정책팀
        - 보육행정팀
        - 가정복지팀
        - 청소년팀
    - 경제환경국
      - 경제과
        - 지역경제팀
        - 시장지원팀
        - 경제정책팀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전팀
        - 에너지관리팀
      - 청소과
        - 청소행정팀
        - 폐기물관리팀
        - 음식물자원화팀
        - 재활용촉진팀
      - 환경위생과
        - 환경관리팀
        - 산업환경팀
        - 생활환경팀
        - 오수관리팀
        - 위생관리팀
        - 위생지도팀
        - 유통식품팀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주차시설팀
        - 교통단속팀
        - 차량과징팀
        - 교통지도팀
        - 차량등록팀
    - 도시관리국
      - 건설행정과
        - 건설행정팀
        - 가로정비팀
        - 광고물관리팀
        - 광고물정비팀
      - 도로치수과
        - 보상팀
        - 도로시설팀
        - 도로관리팀
        - 전기팀
        - 치수팀
      - 건축과
        - 건축행정팀
        - 건축팀
        - 주택팀
        - 건축물정보팀
      - 도시정비과
        - 도시미관팀
        - 도시팀
        - 도시개발팀
        - 도시정비팀
      - 지적과
        - 토지관리팀
        - 지적팀
        - 지적정보팀
      - 녹지조경과
        - 녹지팀
        - 공원팀
        - 조경팀

제2절 인구

1. 부평지역 인구 현황

부평지역의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된 도시화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경제 집중화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평 국가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한 부평구 내의 지역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구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총 인구는 북구 시절인 1990년 616,896명에서 1994년 753,30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1995년 계양구와 분구되면서 498,415명이 되었다가 1996년 508,0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부평구의 총 인구는 567,347명이고, 이 중 남자는 284,528명, 여자는 282,819명이다.

※ 이 글은 고건배(전 부평구청 자치행정과장)가 책임집필하였음.

부평구의 인구 변화 (단위 : 가구 : 명, ㎡)

연별	세대 수	인구(명)			인구 밀도		세대당 인구 (명)
		계	남	여	㎢ 당 인구	면적(㎢)	
1990	167,455	616,896	310,454	306,442	8,024	76.86	3.68
1991	209,595	686,634	347,826	338,808	8,933	76.87	3.28
1992	221,212	727,528	368,577	358,951	9,465	76.87	3.29
1993	228,965	746,168	377,752	368,416	9,707	76.87	3.06
1994	232,554	753,302	381,290	372,012	9,801	76.87	3.24
1995	156,185	498,415	252,486	245,929	15,561	32.03	3.19
1996	160,864	508,010	257,493	250,517	15,860	32.03	3.16
1997	161,671	503,377	255,013	248,364	15,716	32.03	3.11
1998	166,302	521,288	263,533	257,755	16,295	31.99	3.13
1999	169,841	530,154	268,052	262,102	16,517	31.99	3.11
2000	176,797	548,145	276,785	271,360	17,135	31.99	3.10
2001	180,135	553,961	279,338	274,623	17,322	31.98	3.08
2002	187,280	560,463	282,504	277,959	17,525	31.98	2.99
2003	190,442	557,818	280,720	277,098	17,442	31.98	2.92
2004	193,059	561,129	282,041	279,088	17,546	31.98	2.90
2005	200,093	567,347	284,528	282,819	17,740	31.98	2.84

출처: 『부평구통계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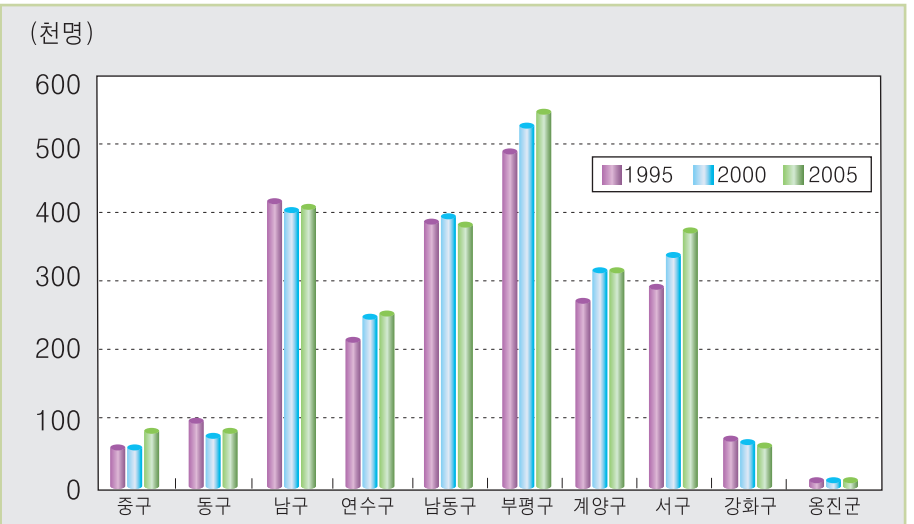
부평구 총 인구 수 남녀의 비율은 1990년 남자 50.4%와 여자 49.6%의 구성 비율이 거의 계속 유지되어 1996년도 비율 역시 50.6%와 49.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인구 밀도의 경우 1995년 분구를 기점으로 하여 15,561명(㎢당)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세대 당 인구는 1990년 3.68명에서 1996년에는 3.16명, 2005년에는 2.8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세대 당 인구가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한편, 부평구는 2005년 11월 행해진 제17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531,280명으로 그 중 부평구가 2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남구(16.4%), 서구(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구별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연수구, 부평구, 서구는 1995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동구는 2만 6천여명이 감소하여 10개 군·구중 감소폭이 가장 큰 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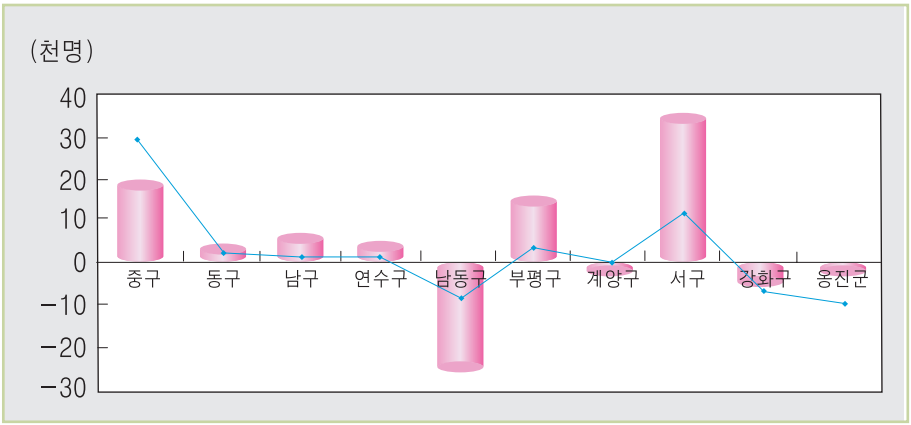


1990 인구주택총조사 공무원 교육(1990)

구·군별 인구(1995~2005)



2000년 대비 구·군별 인구 증감 및 증감률



구·군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1995		2000		2005		2000년대비(인구)	
구·군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2,304	100.0	2,466	100.0	2,518	100.0	51	2.1
중구	67	2.9	66	2.7	85	3.4	20	29.8
동구	100	4.3	73	3.0	74	3.0	1	2.1
남구	425	18.5	409	16.6	413	16.4	4	1.0
연수구	213	9.2	260	10.5	263	10.4	3	1.2
남동구	383	16.6	395	16.0	369	14.7	△26	△6.6
부평구	489	21.2	528	21.4	546	21.7	18	3.4
계양구	256	11.1	327	13.2	326	12.9	△1	△0.3
서구	294	12.7	335	13.6	371	14.7	36	10.7
강화군	65	2.8	60	2.4	58	2.3	△3	△4.3
옹진군	13	0.5	13	0.5	12	0.5	△1	△7.8

2005년 11월 1일 현재 부평구 동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삼산동의 인구(59,214명)가 10.8%로 가장 많으며 부개3동 7.3%(40,056명), 청천2동 7.2%(39,409명)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3개 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평구 동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부평구	488,663	246,977	241,686	528,403	266,236	262,167	546,321	272,552	273,769
부평1동	30,894	15,457	15,437	34,240	17,025	17,215	34,481	16,942	17,539
부평2동	22,074	11,106	10,968	20,752	10,442	10,310	22,953	11,373	11,580
부평3동	17,299	8,734	8,565	14,860	7,463	7,397	15,817	7,804	8,013
부평4동	24,004	12,150	11,854	20,361	10,278	10,083	24,092	11,983	12,109
부평5동	21,404	10,683	10,721	18,516	9,229	9,287	22,959	11,4511	1,508
부평6동	17,304	8,533	8,771	14,748	7,315	7,433	14,077	6,910	7,167
산곡1동	25,060	12,574	12,486	24,358	12,306	12,052	21,756	10,879	10,877
산곡2동	27,039	13,517	13,522	31,057	15,540	15,517	30,513	15,211	15,302
산곡3동	30,103	14,859	15,244	28,762	14,278	14,484	27,013	13,227	13,786
산곡4동	23,462	11,643	11,819	22,416	11,092	11,324	21,476	10,489	10,987
청천1동	22,772	12,089	10,683	18,866	9,973	8,893	17,639	9,276	8,363
청천2동	23,353	11,845	11,508	40,448	20,467	19,981	39,409	19,662	19,747
갈산1동	16,925	8,758	8,167	17,905	9,167	8,738	19,310	9,804	9,506
갈산2동	30,448	15,116	15,332	27,980	13,837	14,143	25,300	12,400	12,900
삼산동	28,646	14,419	14,227	36,856	18,524	18,332	59,214	29,399	29,815
부개1동	25,507	12,988	12,519	23,068	11,784	11,284	21,882	11,088	10,794
부개2동	20,828	10,491	10,337	22,157	11,134	11,023	22,323	11,134	11,189
부개3동	16,937	8,538	8,399	42,551	21,327	21,224	40,056	19,834	20,222
일신동	8,134	4,313	3,821	13,576	7,005	6,571	13,298	6,965	6,333
십정1동	26,300	13,710	12,590	24,653	12,755	11,898	22,129	11,389	10,740
십정2동	30,170	15,454	14,716	30,273	15,295	14,978	30,624	15,332	15,292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 외국인 제외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로 주민등록 인구와는 차이가있음

2. 인구 이동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구 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농간의 인구 이동은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인구 이동의 양상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보다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이나 지방의 경제 환경 변화로 서울과 주변 도시간의 이동 및 도시 내에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랑연립 재건축 현장

부평구도 1990년대 이후 기존의 공업지역이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공단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주택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꾸준히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 역시 이러한 전입 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부평구는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중심부를 교차하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의 접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계양구와 분구가 된 1995년과 1997년 IMF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평구 인구 이동 현황 (단위 : 명)

년도	총 전입	총 전출	시도 내 이동-시군구 내	시도 내 이동-시군구 간 전입	시도 내 이동-시군구 간 전출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1995	99,559	108,827	32,2922	5,662	33,040	41,605	43,495
1996	107,065	103,832	35,062	31,002	29,983	41,001	38,787
1997	93,532	103,790	30,436	24,833	36,364	38,263	36,990
1998	104,057	89,463	31,661	30,889	24,372	41,507	33,430
1999	106,442	102,494	34,636	30,485	28,144	41,321	39,714
2000	122,176	109,386	40,431	37,459	30,954	44,286	38,001
2001	112,984	111,399	10,038	30,682	30,836	42,264	40,525
2002	119,317	116,429	40,469	31,373	29,494	47,475	46,466
2003	102,256	108,758	35,802	28,210	27,866	38,244	45,090
2004	98,525	97,297	34,476	28,363	25,057	35,686	37,764
2005	110,188	102,957	37,353	30,609	27,997	42,226	37,610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3. 인구 동태 현황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높은 출산율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였다. 아직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문제가 경제발전의 결정적 장애요인이다. 유엔은 이 문제를 새 천년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문제로 규정하고 'Y6B'(세계인구 60억이 된 해)란 용어로 경각심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출산율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1960년 국내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6명, 1999년 1.4명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출산 수준은 가임 여성 1인당 일생 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돌면서 인구 성장률이 매우 낮은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아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 낮은 출산율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출산율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 수(출산율)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폭은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출산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1회 북구 노인 명랑 운동회(1990)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미국(2.13명), 프랑스(1.89명), 영국(1.64명), 일본(1.33명) 보다 더 낮은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6명까지 달했던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 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는 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인 1,1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평구의 최근 10년 간 출생률 변동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1995년 9,880명에서 2005년 5,212명으로 급격한 출생률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제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다.

부평구의 인구 동태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생	9,880	8,304	8,106	7,259	7,551	7,349	6,878	6,136	6,035	5,509	5,212
사망	1,878	1,803	1,892	1,901	1,925	2,097	2,017	2,108	2,095	2,168	2,228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제3절 교육

1. 부평구의 교육 환경변화

2005년 12월 현재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9개, 대학교 1개, 특수학교 5개가 운영되고 있다. 10년 전인 1995년에는 27개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 6개 특수학교가 있었다. 1995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 16개가 신설되었고 중학교는 4개가 증설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1,117학급에서 1,522학급으로 405학급이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학급 수는 540학급에서 665학급으로 125학급이 증가하였다.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 신설학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별 학급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며, 학급당 인원 감축을 추진한 교육청의 결실로 학교별 학급 수 및 학급별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 대규모 학교 운영체제에서 점차 소규모학교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1995년의 47명대에서 2006

※ 이 글은 이동현(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 책임 집필하였음.

년에는 35명으로 편성되기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학급당 인원 수의 감소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당 학생 수의 감소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양질의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부평구를 담당하는 북부교육청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발표 이후, 열린 사고, 환경, 교육행정, 학습, 교육과정, 인간관계 등 학생 개개인의 흥미나 소질 · 적성 및 능력을 존중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르며, 협동 · 토론 등의 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능력을 기르고, 개별화 교육으로 창의력을 키우며, 도덕적인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북부교육시책의 변화

2006년 북부교육시책

꿈 · 보람 · 만족을 주는 희망찬 북부교육
1. 바른 품성을 기르는 – 인성교육 강화
2. 창의성을 기르는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3. 미래 사회를 주도할 – 평생학습능력 신장
4. 교육효과를 높이는 – 학습환경 조성

3대 교육 중점

1. 효체험활동으로 효행심 함양
2.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수월성 신장
3. 탐구활동 활성화로 창의력 신장

2. 초등학교

1) 갈산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는 갈산2동 36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3월 1일 개교하였고, 2001년 3월 1일 갈월초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이 학교는 '새 시대를 열어갈 도덕적이고 창의력 있는 갈산인 육성'이라는 인간상 아래, '예절 바르고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학교방송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4월 · 9월 2회에 걸쳐 갈산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2006년 2월 현재 제1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총 5,4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5년 65학급 2,764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37학급 1,238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교원 역시 75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2) 갈월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는 갈산2동 37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1월 25일 설립 인가를 받아 37학급으로 개교하였고, 같은 해 3월 8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이 학교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큰 뜻 품은 어린이'라는 인간상 아래,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 '줄넘기 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아침시간을 이용해 줄넘기 활동을 실시하고 급수에 맞게 상장을 지급하는 등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 2월 16일 제1회 졸업식을 가진 이후, 2007년 2월 현재 제6회 졸업식까지 총 1,51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95년 41학급에 학생 1,384명, 교원 49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41학급에 학생 1,338명, 교원 50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3) 개흥초등학교

개흥초등학교는 부평4동 90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1년 3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93년 5월 4일 24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깊이 생각하는 예절바른 어린이' 라는 인간상 아래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어린이' 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단계별 한자학습을 통한 우리글에 대한 이해력 향상' 이라는 주제 아래 학년별 한자 이해력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03년 학교 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과 2006년에는 각각 학교벽화 그리기와 학교 숲 가꾸기(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1995년 41학급 1,390명에서 2005년 현재 41학급 1,341명에 교원 수 48명으로 학생 수에 큰 변화는 없다. 2007년 2월 현재 제13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3,0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4) 구산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는 부개3동 496-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9월 1일 11학급 304명으로 개교하였으며, 1999년 인천부일초등학교로 분리되었다. 2002년 암석원, 기상대, 식물 관찰원 등을 설치하였다.

2005년 시교육청 교육방송활용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전국 아름다운 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6년 11학급 304명에서 2005년 현재 42학급 1,630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해 왔는데,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원 수는 2005년 현재 49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주목이다.

5) 굴포초등학교

굴포초등학교는 삼산동 454-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9월 1일 26학급으로 개교하였고, 이듬해 병설유치원 2학급을 개원하였다. 개교와 함께 급식소, 과학실, 보건실을 차례로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음악실을 설치하였다. 2005년 피아노아카데미 중심학교로 지정되는 한편, 2006년부터는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부평구청에서 친환경 우리농수산물 급식지원학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05년 현재 36학급에 학생 수는 1,286명이며, 교원 수는 45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소나무이다.

6) 대정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는 산곡3동 311-15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3월 1일 1학급 640명으로 개교하였다. 1998년 대정동산 및 꿈동산을 조성하였고, 2002년 다목적 학습관과 2004년 과학실을 개관하였다. 2005년에는 북부교육청 학교평가에서 종합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어린이뮤지컬부, 플룻부, 바이올린부, 미술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52학급에 학생 2,121명, 교원 60명이었는데, 2005년 현재 46학급에 학생 1,526명, 교원 55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7) 동수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는 부개1동 442-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1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1992년 야외 학습장, 1994년 기상 관찰원을 설치하고 2005년에는 학교 후문 공사를 완료하였다. 1995년에는 교육활동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정직하고 예절바른 학생', '기초 기본이 튼튼한 실력있는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새롭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학생'이라는 교

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 40학급 1,292명에서 2005년 현재 37학급, 1,105명으로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교원 수는 43명이다.

교화는 연산홍, 교목은 벽오동나무이다.

8) 동암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는 십정2동 5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6년 12월 6일 인천간정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5월 11일 인천동암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86년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9년 본관 및 후관 신개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8월 제1과학실 개관 및 제2과학실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

2003년 부평구청 자연보호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와 인천독서교육대상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1995년 43학급에 학생 1,745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40학급에 학생은 1,252명, 교원은 55명이다.

교화는 산수유, 교목은 향나무이다.

9) 마곡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는 산곡1동 7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 9월 1일 개교하여, 1991년 후관 교사 8개 교실을 증축하였으며, 2005년 다시 후관 3, 4층 6개 교실을 증축하였다. 2006년 인천광역시 '방과 후 학교' 연구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방과 후 교실인 '빛다솜방'을 설치하였다.

마곡초등학교 후관 교사 8개 교실 증축 공사 현장 (1991. 8. 26)



1995년 학급 수는 29학급, 학생 수는 1,047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학급 수 25학급, 학생 수 752명, 교원 수 30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0) 마장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는 청천2동 336-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5월 17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96년 3월 1일 29학급을 편성하여 개교하였다. 1998년 본관 5층을 증축하여 준공하였고, 2003년과 2004년 두 해에 걸쳐 보건교육실, 독서교육실, 학교운동장, 방송실의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학교종합평가 지역사회부문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한편, 2005년 학교 종합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7년 29학급 929명에서 2005년 현재 51학급 1,744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교원은 60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11) 미산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는 산곡4동 128-6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며, 3월 5일에는 병설 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2003년 학교 도서관 '책읽는 마을'을 개관하였고, 같은 해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5년과 2006년에는 으뜸이 홈페이지대회 인천광역시 교육감 대상과 2005학년도 창의성 교육분야 우수학교 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개교 당시 23학급에 학생 수는 877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특수 학급 포함 33학급에 학생은 1,014명, 교원은 42명이다.

교화는 목련, 교목은 주목이다.

12) 백운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는 십정2동 산 3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이듬해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01년 학교 급식소를 열었고, 2003년에는 백운도서실을 개관하였다. 2006년 2월 제5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74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개교 당시 14학급에 164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2005년 현재 34학급에

학생은 1,094명, 교원은 41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13) 부개초등학교



초기 개교 당시 부개초등학교 모습(1955. 5. 1)

출처 : 『인천북부교육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2003.

부개초등학교는 부개1동 35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52년 10월 5일 부평동초등학교 부개분실로 문을 열어, 1955년 5월 1일 인천부개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특색사업으로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건전한 독서 습관 향상'과 '맞춤식 줄넘기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 체력 향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실의 작은 도서실화'를 목표로 100권 이상의 학급문고를 확보하고, '개인별 줄넘기 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실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2년 인천시 기초학력책임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었고, 2003년에는 2002~2003 북부교육청 주관 학교평가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1995년 37학급 1,350명에서 2005년 현재 31학급 90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원 수는 37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4) 부개서초등학교

부개서초등학교는 부개2동 155-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20학급으로 편성되어 개교하였으며, 1998년에는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7년 급식소를 신축하였고, 2005년 학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2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으며, 2005년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0년부터 부개서 꿈나무 축제를 개최해 왔다.

1995년 학급 수는 46학급, 학생 수는 1,700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8학급 1,309명으로 다소 규모가 줄어들었다. 교원 수는 47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5) 부곡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는 산곡2동 148-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2000년 푸른동산과 야외 교실을 설치하고, 2004년 교실 및 도서관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2006년 2월 제10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3,7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05년 12월 현재 학급 수는 49학급, 학생 수는 1,669명, 교원 수는 59명이다.

이 학교는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독서 생활화, 한자 교육 활성화 등의 특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6) 부광초등학교

부광초등학교는 부개3동 69-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3월 1일 14학급으로 편성되어 개교하였으며 1998년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방과 후 교실 현대화 시설 공사 및 과학실 현대화 시설 공사, 학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1년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독서교육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인천교육대상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

상하였다. 이외에도 향토교육 시범학교, 열린교육 시범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시범학교, 학부모 독서교실 시범학교, 독서논술 시범학교 등으로 지정 운영된 바 있다.

1988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06년 2월 제1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1995년 41학급 1,437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30학급 932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7) 부내초등학교

부내초등학교는 부개3동 501-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1998년 어학실과 급식실을 설치하였고, 2001년 5층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2001년에는 학부모교육 우수학교와 학교평가 종합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학교평가 우수학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1998년 16학급 656명에서 2005년 현재 52학급 1,9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원 수는 62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8) 부마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는 산곡2동 124-10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3월 1일 병설 유치원과 함께 개교하였으며, 전자도서관 및 컴퓨터실, 발명교실, 미술관, 예절실 등 11개의 특별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북부교육청 '창의성 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학교 보건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4년도 북부교육청 학교 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0년 개교 당시 22학급에 학생은 918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32학급에 학생 1,002명, 교원 58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19) 부원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2층 교실 증축 공사 모습

부원초등학교는 부평1동 65-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1월 21일 설립 인가를 받아 10월 2일 16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97년 마장초등학교로 666명을 전출시켰으며, 2001년에는 미산초등학교로 85명을 전출시켰다.

이 학교는 '성실한 마음,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 '탐구조사하며 창의력을 기르는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4년 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생활영어 시범학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95년 학급 수는 71학급, 학생 수는 3,361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학급 수 55학급, 학생 수 1,891명, 교원 수 64명이다. 1994년 학생 수의 증가로 뒷동 8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교실을 계속 늘려왔으나 현재는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추세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20) 부일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는 부개3동 499-8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 3월 1일 23학급 및 유치원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부일초등학교는 2001년 교육과정 우수학교, 2002년 교육정보화 최우수학교, 2003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2004년 북부교육청 학교 평가 최우수학교, 200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특성화 우수학교로 연이어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1999년 31학급 1,257명이었는데, 2005년 35학급으로 학급 수는 늘어났으나 학생 수는 1,13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21) 부평남초등학교

부평남초등학교는 부평2동 74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2년 11월 5일 개교하였으며, 1969년 서관 교사 7교실을 증축하였고 1991년 본관 28개 교실을 개축, 준공한 후 이듬해 동관 16개 교실을 철거하였다.

핸드볼부의 활동이 두드러져 1997년 제2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05년 전국소년체전에서는 2연패를 달성하였다. 1993년 장학 활동 및 학교 운영 쇄신 유공학교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1년 학교 평가 결과 종합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특색사업으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른 생활 습관 기르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개월에 한 가지씩 실천 주제를 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습관 실천 기록표'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5년 56학급 2,416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63학급 2,102명에 교원수는 81명이다.

교화는 라일락,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22) 부평동초등학교



부평동초등학교 전경(1986)

부평동초등학교는 부평4동 44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40년 4월 24일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41년 4월 1일 소화동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해방 후인 1945년 9월 17일 인천부평동국민학교로 다시 교명이 변경되었다. 한국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9일 화

재로 교사가 전소된 바 있다. 1955년에는 부개분실을 부개국민학교로 독립시켰고, 1963년에는 부흥초등학교를 분리 신설하였다.

1992년 교육부 지정 보건교육연구학교, 2005년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아카데미교와 효교육특성화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타가 설치되었다.

1995년 34학급에 1,734명에서 2005년 현재 35학급에 1,083명으로 학생 수가 다소 줄었으며, 교원은 47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23) 부평북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는 갈산1동 1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7년 3월 17일 설립 인가를 받아 부평동초등학교에서 1968년 3월 1일 8학급으로 개교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일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70년 2월 제1회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2001년 본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4년 과학실 선진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2005년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가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으며, 학교체육 연구 학교, 평생교육 시범학교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창의력을 키워가는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 학급 수 41학급, 학생 수 1,615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학급 수 40명, 학생 수 1,218명으로 다소 줄었다. 교원 수는 48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24) 부평서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는 부평1동 542-1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46년 9월 1일 인천부평서국민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97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53년 산곡초등학교, 1962년 부평남초등학교, 1982년 신촌초등학교를 각

각 신설 분리하였다.

1982년 체육부 지정 급식 시범학교, 1996년 시교육청 지정 조기 진급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1995년 42학급 1,590명에서 2005년 39학급 1,291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교원 수는 46명이다. 2006년 2월 제59회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25) 부흥초등학교



체육관 준공 후의 부흥초등학교 교사 전경(2001)

부흥초등학교는 부평5동 1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3년 12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13일 개교하였다. 1968년 제1회 졸업식을 개최하여 2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06년 제39회 졸업식까지 누적 졸업생 수는 17,052명에 달한다.

1996년 교육 활동 우수학교, 2003년 교육 정보화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200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정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2000년에는 도시 개발 시범학교로서 본관 개축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듬해 교사 및 체육관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1995년 40학급 1,681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37학급 1,300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교원 수는 44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26) 산곡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개교 축하 운동회 광경(1953)

산곡초등학교는 산곡1동 87-236에 위치하고 있다. 1949년 4월 5일 부평서초등학교 산곡분교장으로 설립되어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0일 인천산곡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2000년 3월 2일 부마초등학교가 개교하는 관계로 832명이 분리되었다.

2001년 본관 교사 개축 공사를 착공하여 이듬해 준공하였으며, 2002년에는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같은 해 아름다운 학교상과 교육환경부문 우수학교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 59학급 2,062명에서 2005년 현재 37학급 1,137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원 수는 47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27) 산곡남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제1회 졸업식(1989. 2. 16)

산곡남초등학교는 산곡3동 23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 1월 25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86년 3월 1일 14학급 462명으로 개교하였다. 1994년 12개 교실을 증축하였고, 1995년 9월 1일에는 부곡초등학교가 개교, 분리되어 66학급에서 39학급으로 재편성되었다.

산곡남초등학교는 2000년 학교평가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인천시지정 기초학력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기도 하였다.

1995년 66학급 2,723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38학급 1,304명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교원 수 역시 72명에서 46명으로 줄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28) 산곡북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는 산곡동 39-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3월 1일 개교하였으며, 1989년과 1999년 각각 마곡초등학교와 용마초등학교로 분리되었다. 2003년 10월 7일 학교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방과후 교실(다사랑방) 개관식 및 2005년 산곡북 꿈샘터(다목적실) 개관식을 가졌다. 학교교육활동 우수학교와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1995년 36학급 1,353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28학급 787명으로 학급수와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40명에서 30명으로 감축되었다. 교원 수는 34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목백합이다.

29) 삼산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는 삼산동 58-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 3월 1일 개교하여 238명의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1995년 암석원을 설치하였으며, 1997년 어학실, 멀티미디어실을 개실하고 2003년 도서관(지혜의 샘터)을 개관하였다. 2005년에는 교육부로부터 u-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이 학교는 '꿈과 사랑을 가꾸는 어린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다양한 경험으로 창의성을 키워가는 어린이', '정보 활용을 잘 하는 어린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어린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특색 혁신 과제로 논술교육과 독서교육을 실천해 가고 있다.

1995년 학급 수 68학급에 학생 수 2,288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52학급 1,686명으로 축소되었다. 교원 수는 61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30) 상정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는 십정1동 19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10월 6일 설립인가를 받아 1989년 3월 1일 1~5학년 17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96년

급식소를 준공하였고, 2003년 10월 26일 4층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2000년 9월에는 학구 조정으로 백운초등학교로 분리되어 118명의 학생들을 전출시켰다.

특색 사업으로는 '효 실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효행의 날' 운영, 경로잔치 실시, 효행신문 만들기 등을 실천해 가고 있다.

1991년 2월 제1회 졸업식 이후, 2006년 2월 제16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2,1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995년 학급 수는 23학급, 학생 수는 876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22학급 578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향나무이다.

31) 신촌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는 십정동 16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9월 1일 인가를 받아 부평서초등학교에서 분리, 16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남과 우리」를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인간상 아래, '스스로 탐구하며 공부하는 어린이', '고운 마음으로 바르게 자라는 어린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갖는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제2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총 6,25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32) 십정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는 십정1동 298-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3월 1일 18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4월 1일 개교하였다. 2001년 2월 교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본관과 신관 교사를 연결하는 통로를 완공하였다. 특색사업으로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 아동 표창제'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학급 수는 37학급, 학생 수는 1,446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1학급 1,013명의 학생들이 있다. 교원 수는 38명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학교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 발전이 없어 전출생이 많은 데 기인하고 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33) 영선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개교 당시 모습

영선초등학교는 삼산2동 438-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9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아 2005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개교 직후 급식소,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이 차례로 설치되었고, 이듬해 36학급으로 편성되었다. 2006년 3월에는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2006년 2월 제1회 졸업생 76명을 배출하였다.

17학급에 학생 수는 1,263명, 교원은 46명이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34) 용마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는 청천2동 17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 9월 1일 개교하였고, 이듬해 병설유치원을 2학급으로 개원하였다. 개교 직후 과학실, 컴퓨터실, 급식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에는 신관 15개 교실을 신축하고, 2005년 보건실 및 과학실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인천시교육청 선정 보건급식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6년에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95년 18학급 751명에서 2005년 현재 39학급에 학생 1,339명, 교원 56명으로 2배 가량 규모가 커졌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35) 일신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는 일신동 11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 9월 1일 1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1986년 본관 3층 7개 교실과 1987년 본관 4층 4개 교실을 준공하였으며, 이어 1995년 서편 11개 교실 증축, 2003년 신관 12개 교실 신축, 준공 등 학급 시설을 꾸준히 늘려왔다. 1996년 자연보호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1997년 학교 경영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고, 2003년에는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현재, 토의-토론 수업의 선도 학급 운영을 통한 사회과 수업방법 개선 연구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1995년 학급 수는 24학급, 학생 수는 1,080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학급 수는 41학급, 학생 수는 1,330명이다. 교원 수는 27명에서 48명으로 증가하였다. 학급 수와 교원 수가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학급 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향나무이다.

36) 진산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는 삼산2동 45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2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아 2004년 9월 1일 개교하였다. 같은 해 과학실, 보건실, 어학실을 차례로 설치하였으며, 2005년에는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에는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영어 활성화 중심학교로 지정되는 한편, 인천광역시로부터 2005 학교경영 최우수학교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2005년 현재 학급 수 19학급, 학생 650명, 교원 26명이며, 2006년 2월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37) 청천초등학교



개교 당시 청천초등학교 교사

청천초등학교는 청천1동 34-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3월 1일 인천산곡초등학교 청천분교로 분리되었으며, 1973년 3월 1일 인천청천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1976년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2005년 2월 현재 제30회 졸업식이 진행되어 졸업생 총수가 11,821명에 이른다.

2002년 식당을 신축, 개관하였고, 본관 및 별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3년 25개 교실 면적의 신관을 증축하였다.

1995년 47개 학급에 학생 2,123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45학급에 학생은 1,424명, 교원은 54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38) 하정초등학교



개교 당시 하정초등학교 모습

하정초등학교는 십정2동 39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1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5월 1일 24학급 1,236명으로 개교하였다. 2001년에 학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2년에는 5층 9개 교실을 증축하였다. 2003년 하정 늘 푸른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04년에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북부교육청

지정 열린교육 시범학교, 독서교육 자율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1995년 32학급 학생 1,265명에서 2005년 29학급에 학생 903명, 교원 35명으로 축소되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39) 한길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는 삼산동 39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2001년 운동장 시설과 컴퓨터실, 어학실, 급식소, 과학실 정비를 완료하였다. 같은 해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고, 2004년에는 전자도서관(한길꿈터)을 개관하였다. 한길초등학교는 관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현대적 시설을 갖추며 개교한 경우에 해당된다.

2003년 후정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통학구역 변동으로 948명을 분리 전출시켰고, 삼산초등학교 158명을 분리 전입시켰다. 2001년도에는 학교평가 교육 과정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도에 26학급에 학생 수는 775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41학급에 학생은 1,329명, 교원은 48명에 이른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40) 한일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는 산곡1동 179-7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 학교법인 명성학원 인가를 받은 후 1965년 3월 1일 한일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이듬해 1월 28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988년 컴퓨터실을 개실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 교실에 인터넷망을 구축하였다. 1999년 교사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후, 2000년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한일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실내 골프연습장

이 학교는 특기 적성 교육을 교육의 특성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음악 연주회를 개최해 다양한 악기 연주 발표 기회 및 성취 동기를 갖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과 학부모들의 평생 교육 차원에서 실내 골프

연습장을 개설하여 전문 프로 강사의 지도 하에 교육을 하고 있다.

1999년 6학급 학생 183명에서 2005년 현재 10학급에 학생은 278명, 교원은 13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41) 후정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는 삼산동 39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2006년 어깨동무실과 어학실을 설치하였다.

이 학교는 '미래를 위해 꿈과 사랑을 키우는 지혜로운 어린이' 라는 구호 아래, '바른 예절을 실천하는 어린이', '슬기롭게 탐구하는 어린이', '스스로 공부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전통예술중심학교 및 학교특성화 자율시범학교(향토애호교육)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북부교육청으로부터 혁신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현재 38학급에 학생은 1,175명, 교원은 45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소나무이다.

3. 중학교

1) 갈산중학교

갈산중학교 전경



갈산중학교는 갈산2동 37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12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 이라는 교훈 아래 '올바른 가치관을 실천하는 사람', '지(知)와 기(技)를 겸비한 능력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전통 문화의 날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라는 주제 아래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과 관련하여 매달 전통 명절의 날을 선정, 삼짇날에는 노란카드를 주고 받고, 동지에는 연을 만들어 날리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에 '즐거운 학교 최우수학교' 와 '환경교육 우수학교' 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학교평가 우수학교' 로 선정되었다.

1995년 24학급에 학생 1,257명, 교원 41명이었으며, 2005년 현재 36학급에 학생 1,536명, 교원 61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2) 구산중학교

구산중학교는 부개3동 497-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3월 1일 7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誠實)' 이라는 교훈 아래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개성을 추구하는 건전한 사람', '창의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건전한 생활습관과 취미활동을 즐기는 건강한 사람' 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생활카드제를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7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총 3,24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005년 12월 현재 36학급에 학생은 1,476명, 교원은 59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3) 동암중학교



개교 당시 동암중학교 모습

동암중학교는 십정2동 589-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12월 31일 30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10월 개교하였다. 1985년 2월 신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2005년에 신관을 신축하였다.

이 학교는 '정성'이라는 교훈 아래, '바람직한 인성도야로 예의바른 학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실력 있는 학생', '교육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학생'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Dong-Am Fun Fun English'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실천 사항으로 영어 골든벨 퀴즈 대회, 영어 토론 대회, 영어 캠프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9,282명에 이른다. 1995년 33학급에 학생 1,701명, 교원 56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0학급에 학생 1,173명, 교원 49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4) 부광중학교

부광중학교는 부개3동 2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 12월 31일 24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4일 8학급 462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개교하였다. 2001년 다목적 교실인 청람관을 개관하였고, 2003년 5월 사격장을 개장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바른 시민의식으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 '강인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8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9,069명이다. 1995년 33학급에 학생 1,688명, 교원 55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0학급에 학생 1,162명, 교원 50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5) 부원중학교

부원중학교는 부평1동 70-1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1년 1월 25일 12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3월 9일 신입생 604명이 입학식을 거행하며 개교하였다. 1994년 학교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 학생급식소를 개소하였다.

이 학교는 '정직'이라는 교훈 아래,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 '스스로 탐구하는 창조적인 사람', '예절바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은 7,759명이다. 1995년 42학급에 학생 2,164명, 교원 69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7학급에 학생은 1,573명, 교원은 61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6) 부원여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는 부평동 70-128번지에 위치해 있다. 2002년 2월 8일 설립인가를 받아 3월 5일 12학급 517명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특기적성을 살려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바른 품성으로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사람',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총 졸업생 수는 977명이다. 개교 당시에는 12학급에 학생 517명, 교원 22명이었는데, 2005년 현재 36학급에 학생은 1,509명, 교원은 59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7) 부일중학교

부일중학교는 삼산동 388-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2년 2월 25일 15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3월 1일 갈산2동 373번지에서 개교하였으며, 2000

년 8월 1일 현 교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교훈 아래, '바른 인성을 가진 협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자신을 계발하는 사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7,350명에 이른다. 1995년 41학급에 학생 2,137명, 교원 66명에서 2005년 12월 현재 39학급에 학생은 1,550명, 교원은 62명이다.

교화는 붓꽃,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8) 부일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는 부평2동 677-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12월 30일 27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1984년 3월 5일 9학급 606명의 신입생이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2004년 강당, 교실, 특별실이 포함된 신관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에는 도서관을 준공하고,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과 경애'라는 교훈 아래, '소질을 살리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부일여자중학교는 특히 학교 농구부의 활동이 두드러져 2003년 제41회 춘계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농구전 중등부와 2004년 제33회 여수시장배 추계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농구전 중등부에서 전국 우승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6년 2월 제20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9,586명이다. 1995년 30학급에 학생 1,571명, 교원 48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4학급에 학생 1,314명, 교원 56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9) 부평동중학교



1993년 소년 체전에서 우승한 부평동중학교 축구부 모습

부평동중학교는 부개2동 120-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 8월 16일 45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70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1969년 11월 30일 본관 1, 2층을 준공하였으며 1971년 11월 30일 본관 4층과 별관 1층을 준공하였고, 2000년 1월 26일 교사를 개축하였다.

이 학교는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 아래, '건전한 생활 습관과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건강한 학생', '창의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 '나와 남의 가치를 알고 서로 돕는 학생'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부평동중학교는 또한, 축구와 양궁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축구부는 2000년 춘계 한국남녀중고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하였으며, 양궁은 2002년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 2월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졸업생 누적 총계는 23,922명이다. 1995년 40학급에 학생은 2,030명, 교원은 64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6학급에 학생은 1,414명, 교원은 59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후박나무이다.

10) 부평서중학교

부평서중학교는 십정동 186-7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 1월 24일 18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3월 5일 6학급 395명이 입학식을 거행하며 개교하였다. 2000년 학교 급식소와 운동부 합숙소를 준공하였고, 2003년 학교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사람', '건강하고 실력있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14,753명이다. 1995년 6학급에 학생 395명, 교원 10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9학급에 학생 1,655명, 교원 65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1) 부평서여자중학교

부평서여자중학교는 십정동 186-51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8년 1월 30일 18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3월 10일 6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근면 · 성실 · 협동'이라는 교훈 아래, '민주시민 정신과 문화의식으로 애국 애족하는 사람', '과학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책임과 협동정신으로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심신수련으로 건전한 정신과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 사업으로는 '「마음의 창」 쓰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찰일기 및 효행일기 쓰기, 쪽지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실천해 가고 있다.

1981년 제1회 졸업생 381명을 배출한 이후, 2006년 2월 제26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17,366명에 이른다. 1995년 41학급에 학생 2,103명, 교원 66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41학급에 학생 1,721명, 교원 68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2) 부평중학교

부평중학교는 부평4동 13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7년 9월 8일 9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68년 3월 5일 개교하였다. 1999년 신축 교사 준공식을 가졌으며, 2000년 급식소 및 씨름장을 준공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깨끗하고, 질서가 바르며 기초학력이 정착된 학교', '지식화, 정보화 사회에 부흥할 수 있는 창의력 계발', '세계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국제 이해교육 및 정보화소양 제고'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2월 제36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21,339명이다. 1995년 33학급에 학생 1,730명, 교원 59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29학급에 학생 1,171명, 교원 52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3) 부평여자중학교

부평여자중학교는 부개2동 120-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 8월 16일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70년 3월 30일 1학년 8학급으로 개교하였다. 2000년 교사 대수선 공사를 거쳐, 2002년 12월 31일 특별실로 이루어진 청람관을 완공하였으며, 이어 2004년 2월에는 체육관을 완공하였다.

이 학교는 '깊은생각 바른생활'이라는 교훈 아래,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이웃과 사회에 협동하는 사람', '정보 활용 능력을 통해 적성과 재능을 키워가는 창의적인 사람', '책임과 자율을 존중하는 자주적인 사람', '몸과 마음이 강인하고 조화로운 건전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년별로 진행되는 특색 사업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뮤지컬 만들기」를 통한 자기 표현력 신장'이다. 3학년 학기 초에 음악과 수행평가로 시작해서 학년 말 '뮤지컬 페스티발'로 결실을 맺는 이 과정은 극본, 연출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며 견학을 통해 실제 뮤지컬 제작과정을 체험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것을 인정받아 2006년 '전국 100대 특색있는 교육과정분야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20,277명이다. 1995년 38학급에 학생 1,931명, 교원 63명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4학급에 학생 1,373명, 교원 56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4) 부흥중학교

부흥중학교는 부개 3동 13-7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2월 28일 교사를 신축하고 3월 5일 신입생 455명을 맞이하며 개교하였다. 이듬해 교

사를 증축하였고, 2003년에는 신관 1, 2층을, 2005년에는 신관 3, 4, 5층을 완공하였다. 2005년에는 또한 도서관 푸른서랑을 개관하였다.

성교육 시범학교, 영어교실 수업개선 시범학교, 복지사활용 연구학교 등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 학교는 '창조'라는 교훈 아래, '예절바르고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사람', '건강한 심신을 가진 강인한 사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효 실천」교육'을 운영 중이며, 독거노인 밑 반찬 배달, 부개3동 경로당 자매 결연 등의 실천을 벌이고 있다.

2006년 2월 제17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8,150명이다. 1995년 31학급에 학생 1,653명, 교원 52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4학급에 1,293명, 교원 56명이다.

교화는 철쭉,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15) 산곡중학교

산곡중학교는 산곡1동 180-53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12월 30일 9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84년 5월 16일 개교기념식을 가졌다. 1988년 북부학생체육관을 준공하였고, 2006년 도서관(청어람)을 개관하였다.

이 학교는 '신의'라는 교훈 아래,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사람', '소질을 키우고 능력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사람',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실력있는 사람', '책임과 자율을 존중하는 자주적인 사람', '몸과 마음이 강인하고 정서적인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20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9,737명이다. 1995년 30학급에 학생 1,653명, 교원 51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0학급에 학생 1,204명, 교원 51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목련이다.

16) 산곡남중학교

산곡남중학교는 산곡2동 261-4번지에 위치해 있다. 1987년 3월 5일 6학급으로 편성되어 제1회 입학식을 가졌다. 2002년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1992년부터 무감독 시험제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바른 판단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 '열린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을 갖춘 인재',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 자율적 인재',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발달된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7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7,518명이다. 1995년 29학급에 학생 1,633명, 교원 47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3학급에 학생 1,402명, 교원 54명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7) 산곡여자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는 산곡2동 235-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90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담쟁이 넝쿨이 우거진 산곡여자중학교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참되게 자기 꿈을 개척하는 학생',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라는 학생상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건물 전체가 담쟁이 넝쿨로 덮여 있어 고풍스런 모습을 보여주며, 학생들은 '담쟁이 넝쿨 속의 대화'라는 공책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4회 졸업식을 가졌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8,586명이다. 1995년 41학급에 학생 2,050명, 교원 74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38학급에 학생 1,600명, 교원 60명이다.

교화는 목련,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8) 삼산중학교

삼산중학교는 삼산동 445-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4월 2일 9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2005년 3월 31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큰 마음 바른 실천'이라는 교훈 아래, '바른 인성을 기르며 더불어 사는 삶을 터득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고로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 '건전한 정신과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지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독서시간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독서노트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학급 수는 9학급, 학생은 378명, 교원은 17명이며,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향나무이다.

19) 진산중학교

진산중학교는 삼산동 454-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2005년 3월 2일 8학급 359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 아래,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는 지식인',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애국하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과 예절을 갖추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강인하고 조화로운 건전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11학급에 학생 462명, 교원 18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20) 청천중학교

청천중학교는 청천 2동 190-5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4년 12월 31일 24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85년 3월 4일 신입생 496명이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착하고 슬기롭게'라는 교훈 아래, '민주시민 정신과 문화의식

을 가진 학생', '소질과 특성을 스스로 계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 '강건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학생'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WIN-WIN 마인드로 생활하기', '지역사회(GM대우)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2월 제1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10,314명이다. 1995년 3학급에 학생 1,820명, 교원 58명이었으며, 2005년 12월 현재 33학급에 학생 1,390명, 교원 54명이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3. 고등학교

1) 명신여자고등학교



1974년 조회 모습

출처 : 명신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명신여자고등학교는 산곡동 180-14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 7월 학교법인 신성학원으로 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월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 인가를 받아 1971년 3월 4일 개교하였다. 그 후 1987년, 학칙 개편을 통해 명신여자고등학교(일반계)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자율정신이 뚜렷하고 남과 잘 협동하는 사람', '진취 창조의 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친절, 명랑하고 일상생활에 예의바른 사람', '심신이 건강하고 항상 교양을 쌓는 사람', '꾸준히 면학하여 실력배양에 힘쓰는 사람', '민족자존과 민주역량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과학영재교육의 강화' 운영을 통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있으며, 'Myong-shin English Zone 운영'을 통해 매주 화요일 방과후 1시간씩 학생들 스스로 영어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인천광역시 학교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 부개고등학교

부개고등학교는 부개2동 120-54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12월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2004년 3월 3일 455명(남 266, 여 189)의 신입생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사람', '창의적, 탐구적으로 학습하고 정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 '주인정신이 투철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건전한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화는 진달래, 교목은 향나무이다.

3) 부개여자고등학교

부개여자고등학교는 부개3동 장고개길 655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2월 12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 5일 624명의 입학식을 거행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정심(正心)·정행(正行)'이라는 교훈 아래, '풍부한 정서와 조화로운 심성을 지닌 사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탐구심이 강한 사람',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화는 모란,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4) 부광고등학교

부광고등학교는 산곡동 310-3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11월 14일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95년 3월 3일 12학급 61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5월 6일 개교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31일 교사를 준공하였고, 1999년 도서관 및 2002년 체육관(청운관)을 개관하였다.

2007년 2월 제10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현재까지 총 5,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느릅나무이다.

5) 부광여자고등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는 부개3동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12월 30일 30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988년 3월 개교하였다. 1997년 9월 체육관(예덕관)을 준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수수꽃다리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교훈은 '성실 · 경애'이고, 교화는 라일락,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6) 부평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는 부평4동 10-3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12월 31일 9학급으로 부평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2일 개교하였다. 1979년 30학급으로 학칙을 변경하여 인가받았으며, 2006년 2월 현재 제32회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15,8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성실'이라는 교훈 아래, '도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개성있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부평고등학교는 특히 축구부와 씨름부 활동이 두드러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1986년 일본 요시깐고등학교와 자매 학교 결연을 맺고, 1995년 중국 심양시 조선족 제일중학교와 역시 자매 학교 체결을 갖는 등 국제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7) 부평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는 갈산동 36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8월 19일 부평공업고등학교 설치 조례가 공포되어 이듬해 3월 5일 10학급 신입생들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창조 · 도약'이라는 교훈 아래, '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사람',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창조적



부평공업고등학교 숲속의 교육 현장

인 사람', '정보화 ·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술인',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한 사람' 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9년 교육부 지정 '실업계고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선정되었으며, 2003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1997년 부터는 『계양산』이라는 교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6년 2월 현재 제10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8) 부평정보고등학교

부평정보고등학교는 십정동 20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5년 1월 부평여자상업전수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봉선학원 설립 후 부평여자상업고등학교 인가를 받아 1976년 3월 4일 4학급 240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1999년 부평여자경영정보고등학교를 거쳐 2003년 부평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충(忠) · 화(和) · 신(新)이라는 교훈 아래, 특색 사업으로 '4자 소학과 명심보감을 통한 상용한자 교육과 인성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교육부 지정 '비즈쿨(Bizcool) 연구 시범학교' 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6년에는 모의 창업 대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6년 2월 현재 제28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5,13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화는 봉선화,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9) 부평여자고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는 부평1동 65-14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1년 18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1882년 개교하였다. 1982년 11월 신축 교사를 준공하였고, 1984년 4층 본관 완공, 1985년 생활관 신축 준공, 2000년 인조잔디 운동장을 준공하였다.

2007년 2월 현재 제2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총 12,987명이다.

교훈은 지성, 교화는 매화, 교훈은 은행나무이다.

10)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는 1996년 2월 14일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설치 조례가 공포되어 같은 해 3월 4일 583명의 신입생이 입학식을 거행하며 개교하였다. 1999년 12월 4일 신축교사를 완공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성실 · 창의'라는 교훈 아래, '바른 인성을 갖춘 도덕인', '성실하고 창의적인 신지식인', '자아 실현 능력을 지닌 전문인', '몸과 마음이 아름다운 건강인'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과는 컴퓨터측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멀티패션디자인과, 환경과학과 등이 있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1) 부흥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는 부개동 120-54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2월 4일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3월 3일 신입생 395명(남 180, 여 179)의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꿈 · 보람 · 믿음이 있는 즐거운 학교'라는 교훈 아래, '예절바르고 근검 · 절약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도덕인)', '기초학력 및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사람(창조인)', '질서와 사회규범을 잘 지키고 협동 · 봉사하는 사람(민주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체력을 튼튼히 하여 심신이 건전한 사람(건강인)', '주인 정신을 가지고 책임있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자주인)'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화는 목련, 교목은 소나무이다.

12)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부평4동 43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5년 9월 북인천 재건(공업)학교로 설립하여 1987년 현 위치의 신축교사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사회교육법 규정에 의거 북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2001년 3월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91년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로 인가 받은 이후 2006년 2월까지 제16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학교는 '먼저 실천하라'는 교훈 아래, '의지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화는 국화,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3) 산곡고등학교

산곡고등학교는 산곡동 137-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2월 2일 12학급(남여 각 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2006년 3월 3일 403명이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지혜 · 정직 · 질서'라는 교훈 아래, '정직하고 바른 인성으로 생활하는 도덕적인 사람(도덕인)',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인간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사람(민주인)',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자주인)', '자기 적성에 맞는 능력을 계발하는 창의적인 사람(창조인)', '심신이 바르고 강인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사람(건강인)'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4) 삼산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는 삼산동 39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1월 12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3월 5일 561명(남 230, 여 331)의 신입생이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주인정신이 투철하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창의와 탐구학습 등으로 적성과 능력을 계발하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심신이 건강하고 고운 심성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소설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와 미술 작품 분석과 심성치료를 통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특색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15) 세일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전경

세일고등학교는 산곡동 179-79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10월 26일 세일고등학교 18학급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1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사랑 · 성실 · 창조'라는 교훈 아래, '애국인, 실천인, 성실인, 과학인, 건강인'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989년 4월 1일 400여석의 도서실(수경관)을 준공하였으며, 2005년 다목적 강당의 증축을 완료하였다.

2006년 2월 현재 2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며, 총 9,7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화는 들국화, 교목은 적송(赤松)이다.

16) 영선고등학교

2006년 1월 설립인가를 받아 3월 2일 10학급(남여 각 5학급) 310명의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정직(正直)'이라는 교훈 아래, '나라를 사랑하고 문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애국인)',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협동인)', '기본학력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창조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체력을 튼튼히 하여 심신을 굳건히 하는 사람(건강인)'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7)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풍경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산곡동 180-14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 7월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출범한 이후, 1984년 12월 인천외국어학교로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개교하였다. 1996년 8월에는 영일외국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2004년 1월 인천외국어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1998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 학교는 '실력있는 성숙한 인간'이라는 교훈 아래, '겸손하고, 교양있고, 예의바른 세계인'이라는 학생상을 제시하고 있다.

1989년 일본 오카야마 학예관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학생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동경도립 국제고등학교와도 교류를 시작하였다. 영·중국어과, 영·일본어과, ·영스페인어과 등 모든 학과에서 외국어 수업 시간의 약 40%를 원어민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아름다운 학교'의 교수학습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교화는 백합,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18)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1963년 부평고등공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83년 11월 22일 15학급으로 부평고등기술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2000년에는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로 개편 설립 승인을 얻어 2001년 3월 2일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개교식 및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애국하는 마음과 민주시민 의식을 지닌 사람(애국인)',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사람(도덕인)', '창의적이며 실력있는 기술을 지닌 사람(기술인)', '몸과 마음이 강인하며 건강한 사람(건강인)'이

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1학생당 1업체를 배정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 업체들과 연결,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9) 제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는 십정동 57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 학교법인 경창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1977년 경일실업학교(고등학교 과정 인가)로 개교하였다. 1982년 영진상업고등학교, 1989년 제일상업고등학교, 1998년 제일정보고등학교를 거쳐 2002년 인문계로 전환하였고, 이때 제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근면 · 성실 · 화합'이라는 교훈 아래, '21세기 주인공이 될, 미래지향적인 학생',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자랑스런 신 지식인'이라는 학생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색 사업으로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체벌 대신 선도카드를 발급하고, 선행 학생에게는 선행카드를 발급하여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소나무이다.

20) 진산고등학교

진산고등학교는 삼산동 456-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아 2006년 3월 1일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학교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미래'라는 교훈 아래,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예의바른 사람', '탐구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사람', '심신이 강인하고 교양 있는 건강한 사람',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 대학교

한국폴리텍II인천대학

한국폴리텍Ⅱ인천대학은 1968년 노동청 중앙직업훈련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1992년 인천기능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2006년 한국폴리텍Ⅱ인천대학으로 개편되었다.

대학시설로는 본관 및 제1기술교육관, 제2기술교육관, 제3기술교육관, 제4기술교육관, 도서관, 복지관, 학생회관,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시제품 제작공장, 기숙사(생활관) 등이 있으며, 학과는 다기능기술자과정 15개 학과와 기능장과정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는 '고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예의 다기능 기술자 및 기능장 양성'이라는 구호 아래, '건전한 국가관 및 직업관 확립', '해당 분야의 제품 설계로부터 가공 및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론과 실기의 연계를 통한 적응력 및 응용력 배양', '자발적 탐구 의욕 고취로 창의력 배양', '산업사회 중견기술자로서의 관리 및 지도능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의료 · 복지

1. 사회복지정책 과정

1) 제도 전도입기(해방~1960) :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기까지 주로 외국 원조단체에 의한 구호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 시기에 인천 지역에서는 한미친선위원회에서 복구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주로 시설 보호 중심이었다. 부평지역은 1950년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혼혈아, 전쟁 고아들과 걸인들

※ 이 글은 이창남(전 부평구청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집필하였음.

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들이 수용된 시설에 미군부대의 빵과 과자 등을 제공하여 해결하는 형편이었다. 이무렵 설립된 부평구 소재 사회복지 시설들은 부평성심동원, 신명보육원, 인천광명원, 성동원, 성린보육원, 시온보육원, 시온유아원 등이 있었다.

2) 제도 도입기(1961~1986) : 권위주의 시대

이 시기는 제한적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 군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대로 기술 개발 관료들에 의해 생활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 불우아동 결연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었고 민간사회복지가 태동한 시기였다. 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었다.

197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능력이 향상되어 1977년말 유명무실했던 의료보호사업을 생활보호법으로부터 분리시켜 의료보호법(법률 제 3076호)을 제정 공포하고 1978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 16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산업화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보호법(196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석유파동 등의 이유로 시행은 되지 못함)등 19개의 복지 관련법을 대량 입법하게 된다.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로 의료보호법제정(1977년), 노인복지법(1981년),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4년) 등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집행 역할이었으므로 인천의 사회복지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돌보는 공적 부조의 전달 체계 역할에 주력하였다. 인천시 사회복지행정은 1960년까지 사회과에 사회계, 부녀계, 노정계를 두었고 1970년부터 부녀 및 아동의 비중이 증대되어 1971년 10월부터 부녀계를 분리 설치했다. 시설들은 주부식비 전액을 국 · 도비로 보조 받았고 시설의 대부분이 아동복지시설이었으며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인천시가 불우아동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복지사업에 주력한 시기였다.

부평지역도 1960년대 이후 농촌에서 무작정 이주한 저소득 영세민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자, 걸인 등이 점증하고 미군 공여지 부대촌 시설 수용인,

영세민, 실향민 등으로 지역의 혼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3) 제도 완비기(1987~1994) : 민주화 시기

이 시기는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의해서 사회복지 시설 구호확대, 복지 대상 영역 확대,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시작 등 복지 입법이 추진된 시기이다. 1987년은 현대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분수령이었다. 특기사항으로 보편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제도(1988년), 최저임금제도(1988년)가 도입 실시되었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확대가 실시(1989년)되었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가 설치되는 한편 장애인 종합대책마련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0년)되었으며 1989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1987년부터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990년까지 324명을 배치하였으며 1987년 7월 1일 인천시에는 처음으로 5명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배치되어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에 주력하게 되었다.

4) 제도 내실화 단계(1995~2006년 현재) : 지방자치 시기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정부, 민간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면서 복지 분권화의 진행과 자치 단체별 복지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협의체의 등장으로 복지 예산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실업 빈곤 인구가 급증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생계 보호를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제기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점이다. 1999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제정 과정에 시민 사회단체의 연대적 힘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국민기초생활법 제정 추진위원회). 이 시기에 생산적 복지가 효율성 추구의 경제체계와 형평성 추구의 사회체계의 통합으로 등장하였다. 이전까지 시혜적 차원의 단순 생활보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종합 빈곤 대책 전환과 동시에 근로 연계 자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다.



효 실천 독거노인 돕기 어린이 걷기대회(2007)

그리고 2000년 1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반직화되어 사회복지직렬의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 복지행정의 전문화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조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다. 특별히 '인천 의제 21'은 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시기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보호에 주력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이양과 지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자치권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1999년 1,191억 원, 2000년 1,640억 원, 2001년 2,321억 원, 2002년 2,792억 원 등 매년 10% 이상 증액되었고 2005년에는 4,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3%(844억 원)가 증가하는 등 복지예산 등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현재 복지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동사무소의 구조이다.

집행 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및 청소년 복지 등이 포함되며 기타 보육, 자활, 고용, 평생 교육 등의 업무는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인천시는 시 본청의 여성복지보건국 산하에 총 5과 17개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2. 부평구의 사회복지

1) 일반 현황

부평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200,093세대에 567,34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053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20,148명으로 인구의 3%를 차지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가구는 7,617세대 14,633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5

세대, 가정 위탁보호는 194명이다. 모자 가정은 350세대 898명이며 부자가정은 46세대 124명이다.

2) 부평구 사회복지행정 변천

1968년 구제 실시 이후, 사회복지 업무는 복지과 내 복지계와 부녀 아동계에서 관장하였다. 1988년 1월 1일 북구와 서구가 분구된 후에는 직제 개편에 따라 부녀 아동계가 가정복지과로 승격되어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졌으며, 사회과는 장애인과 영세민 업무를, 가정복지과는 노인과 육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991년 사회산업국이 신설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산업국 소속이 되었다.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패션쇼 (2003)

2003년 1월 15일 인구 50만 이상은 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화복지국을 새로이 설치하고 사회복지과를 분과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여성과를 신설하여 여성 능력 계발,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 향상 등 여성 정책분야,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청소년 업무 등을 분장하였다.

특별히 노인복지분야에서 효를 강조하면서 노인복지팀과 효실천팀을 사회복지과 내에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다.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국가적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결과, 동사무소를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범위를 고용, 평생교육, 문화 체육 등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 방침이 시행되어 2006년 7월 1일부로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에는 주민생활 지원 담당 6급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문화복지국 명칭도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바꾸었다.

2006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의 4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82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담당 부서의 팀은 아래와 같다.

주민생활지원과(23명) : 복지기획팀, 평생학습지원팀, 통합조사팀, 고용안정팀
사회복지과(24명) : 생활보장팀, 장애재활팀, 효실천팀, 자활주거팀
여성과(21명) : 여성정책팀, 보육행정팀, 가정복지팀, 청소년팀

3) 부평구 사회복지 예산 실태

최근 5년간 부평구의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확보를 통해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부평구 사회복지분야 예산 (단위: 백만원)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회복지 예 산	보건	4,079	5,633	4,994	2,450	4,008	4,577
	사회	44,349	46,561	50,096	62,525	77,89	91,511
전체예산 대비(%)		140,258 (34.5)	173,238 (30.1)	171,172 (32.2)	180,040 (36.1)	203,527 (40.2)	220,558 (43.8)

* 연도 말최종 정리 추경을거친 예산액을 기준으로부평구청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작성한 자료임.

2006년도 부평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9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3.8%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 사회복지 23억 3천만 원, 기초생활 보장 377억 6천6백만 원, 노인복지 153억 6천4백만 원, 장애인복지 83억 1천2백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 6천9백만 원, 아동복지 196억 5천6백만 원, 여성복지 22억 1천만 원으로 복지 예산 비율로 보면 유럽의 복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부평구에서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련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이 있다. 운영 방식은 원금은 보전하고 과실금인 이자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기초 생활보장 기금은 2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 사업들은 저금리로 인해 사업 추진이 축소되는 등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4) 저소득층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평구 저소득 밀집 지역은 산비탈에 무질서하게 정착한 부개동 산동네 집단 부락과 십정 1동 철거민 이주 정착촌,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삼산동과 갈산동의 영구 임대아파트 등이었다. 나환우 정착촌으로 청천농장과 경인농장이 있었으나 점차 공장 지대와 주택가로 변모되었다.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으며 2000년도 거택보호자의 소득 및 기준은 가구당 2,900만원 이하로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23만 원 이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는 빈곤 원인을 조사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500만 원 한도 내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생업자금(500만원~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 숙원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구비와 시비로 추진하였는데 대상은 기 조사된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민 실업자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취로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지급 기준은 남녀 구분 없이 1인 1일 현금 20,000원이다.

2000년 생계비 지급기준

구 분	보 호 내 용	기 준
거택보호	주식비(인/월)	21,631원
	부식비(인/월)	47,434원
	연료비(인/월)	25,443원
	생활용품비(1인/월)	17,026원
	피복비(1인/1일)	9,244원
	특별위로비(인/월)	8,133원
	장제비(구당)	500,000원
시설보호	주식비(인/월)	30,000원
	부식비(인/월)	47,435원
	연료비(인/월)	2,678원
	피복비(인/월)	9,244원
	장제비(구당)	500,000원

특기할 사항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 복지 이념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장제, 해산, 자활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국가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한다.

2005년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 (단위: 천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월)	418	700	939	1,170	1,353	1,542

부평구의 2005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7,616가구에 14,633명이며 이 중 일반 수급자는 12,124명이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1,622명이다.

2005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총계	일반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계	명			
			일반	조건부		
세대수	7,616		7,391		225	-
인원(명)	14,633	13,746	12,124	1,622	322	565

수급자 급여지원은 보충급여가 원칙이며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합한 총 급여액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법에 의한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타법에 의해 주민세나 TV 수신료 등을 지원 받고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생계비 및 주거비로 받게 되는 현금 급여액 (단위 : 천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월)	418	700	939	1,170	1,353	1,542
타 지원액(월)	60	101	135	168	195	222
현금급여액(월)	357	599	804	1,001	1,157	1,319



산곡1동 샤미나드 요양원 공사현장(2006)

또한 부평구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지정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3개 종합 복지관(부평 · 갈산 · 삼산복지관)을 통해 자활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사업 대상자 600명 중 536명이 7개 유형 27개 사업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부평구는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보건복지부), 2004년에도 자활사업 우수기관(보건복지부), 2006년에도 자활사업 우수기관(보건복지부)으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년도 자활사업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활사업 대 상 자 (A+B+C+D)	수 급 자				비수급자
		소 계 (A+B+C)	조건부 수급자(A)	자활특례자 (B)	일반 수급자(C)	차상위 계층(D)
12월말	600	539	458	71	10	61

2005년도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A+B)	복 지 부(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노동부) (B)
		계 (A)	자 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 적응 프로그램	생업 자금 융자 등	
				소계	시장진 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 유지형				
12월말	536	508	9	406	88	159	2	157	46	24	23	28

2005년 자활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기관명	사업 유형	사업명	참여 인원	사업 예산(천 원)	예산구분(국:시:구)	노임 단가(원)	비고
계	7개 유형	27개 사업	470	2,682,016			
자활후견기관 2개소	기관운영비	자활사업단 관리		340,000	70:15:15		직원12명
부평자활후견기관 84명, 900,000 천원	자활공동체	돈부자집식당		비예산		40,000	
	자활공동체	부평자활건설단	3	비예산		40,000	
	시장진입형	유료간병사업	7	85,038	80:10:10	29,000	
	시장진입형	청소사업사업	14	170,761	80:10:10	29,000	
	사회적일자리	무료집수리사업	15	147,412	80:10:10	26,000	
	사회적일자리	무료간병사업	18	136,589	80:10:10	26,000	
	사회적일자리	지역복지사업	10	83,345	80:10:10	26,000	
	시장진입형	종합건물관리	8	113,231	80:10:10	29,000	
	시장진입형	가정관리사업	12	163,624	80:10:10	29,000	
부평남부자활 후견기관 80명, 900,000 천원	자활공동체	한우리인테리어	4	비예산	40,000		
	자활공동체	음식물자원사업	4	비예산	35,000		
	시장진입형	농장사업	10	134,714	80:10:10	29,000	
	시장진입형	유료간병	6	70,477	80:10:10	29,000	
	사회적일자리	주거복지지원	11	102,015	80:10:10	29,000	
	시장진입형	외식사업	15	156,922	80:10:10	26,000	
	사회적일자리	복지간병	10	78,064	80:10:10	26,000	
	사회적일자리	장애아동도우미	17	160,232	80:10:10	26,000	
	시장진입형	배송사업	15	197,576	80:10:10	29,000	
삼산복지관 34명, 122,168 천원	사회적일자리형	푸드뱅크	10	88,000	80:10:10	26,000	
	지역봉사	지역봉사	10	5,060	80:10:10	3,000	
	사회적응	사회적응	14	29,108	70:30: 0	4,000	
	프로그램	프로그램					
갈산복지관 34명, 135,977천 원	사회적일자리	그린청소위생	13	121,977	80:10:10	26,000	
	지역봉사	지역봉사	21	14,000	80:10:10	3,000	
부평복지관 15명, 7,300천 원	지역봉사	지역봉사	15	7,300	80:10:10	3,000	
부평구청 시행 132명, 286,571 천 원	근로유지형	취로사업 13동	143	286,571	80:10:10	20,000	
	복지도우미	11개동	12		80:10:10	26,000	
	인턴형	각 기업체 취업	5		80:10:10	26,000	

1996년부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10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전체 성적의 50/100 범위 내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2005년 :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62명(1, 2학기 포함) 3천5백5십만 원 지급).

특히 200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상환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1,794명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천 지역 최초로 구·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자활기관, 사회복지관 복지사들로 구성된 부평구신용서포터즈단(단장 : 사회복지과장, 명예단장 : 구청장) 발대식을 통해 기초수급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신용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의식 확산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문상담원 및 서포터즈단원을 배치하여 15개 동을 순회, 현장접수 및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예방적 신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신용회복지원활동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원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의 이중고를 덜어주었고 최종 집계 결과 244억 6백만 원(신용회복 신청율 81.77%)의 승인을 얻어냈으며 이는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추진 개요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
- 신청대상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1,794명
- 신청기간 : 2005년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6개월)
- 승인자에 대한 혜택 : 채권추심절차중지, 신용불량정보해제, 채무원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 접수실적 : 1,457명(244억 6백만 원)

5) 부평구 자체 사회안전망 사업 추진

부평구는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자연스럽게 민간 자원을 활용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련의 사업들, 즉 사랑의 쌀 모으기, 부평 사랑 네트워크, 부평 한가족 운동, 효 실천 경로당 자매결연 등 자체 사회 안전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10년을 계획하고 진행되는 사랑의 쌀 모으기는 1998년 10월 부평풍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2003)

물대축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는데 구청 현관, 동사무소, 신트리공원 행사장에 쌀통을 놓고 '사랑의 쌀 모으기'를 시작한 결과 IMF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42,750kg을 모금(당시 문화공보실주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부터는 부평구 사회복지과의 핵심 사업이 되어 설과 추석 때 집중적으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추진해 갔으며, 2000년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독거노인결연,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에 장례도우미 사업과 푸드뱅크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 '부평 한사랑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은 대규모 기탁자보다는 소규모 기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2005년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 내수경기부진 속에서도 354,047kg 및 363,811kg이 모금되어 구민의 숨은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소규모 개인 기부자의 증가와 사랑의 쌀 모금양의 증대는 국가의 보호가 미약한 저소득층과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사랑의 쌀 모으기 운영실적 (단위 : kg)

연도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설날	중추절	계	설날	중추절
기탁량	42,750	84,756	85,185	28,885	56,300	135,263	67,707	74,556
전년대비 증가율		49.6%	0.5%			37.1%		

연도별	2002년			2003년			
	계	설날	중추절	계	설날	중추절	수시
기탁량	197,977	95,236	102,741	252,220.5	119,325.4	121,758.5	11,136.6
전년대비 증가율	31.7%			21.5%			

연도별	2004년				비고
	계	설날	중추절	수시	
기탁량	354,047	145,109	143,933	65,005	
전년대비증가율	28.8%				

또한, 2003년 11월부터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인하여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시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 봉사 및 후원 결연 등을 추진하는 부평사랑 NET-WORK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0월부터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업체, 점포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서비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부평 한가족 운동은 상호부조 실천운동으로 추진하여 26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부평사랑 NET-WORK 사업 실적(2005년)

- 저소득층보육료지원 6,268
- 학교를 통한 자녀학비 면제 346
- 저소득경로연금지원 494
- 차상위층 의료급여 지원 1,189
- 자활근로사업참여 125
- 저소득층 무료간병사업 126
- 무료집수리 사업 39
- 위기가정 생계급여 지원 397
- 위기가정 의료지원 97
- SOS 긴급지원 21
- 의료 서비스 39

한가족 운동 참여업소별 현황 (단위: 개 소)

업소별 / 계	건강원	목욕업	문구	미용업	이용업	방앗간	병원	석유	세탁업
264	1	7	1	61	9	1	2	1	10
수선	헬스	보청기	슈퍼	신발	안경업	음식업	의류업	이불	잡화
1	1	1	31	2	4	95	6	2	5
학원	화장품	정육점	제과업	중개업	철물	침구	전기	인장업	사진
3	4	1	6	1	3	1	1	1	2

6) 장애인복지

2005년 12월 31일 기준 부평구 등록 장애인은 20,4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다. 이들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소득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데 반하여 의료비 및 기타 불가피한 추가 지출이 많아 빈곤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20,418	11,298	2,226	1,893	158	1,382	1,678	138	604	556	103	138	47	16	103	78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두고 우선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그 외의 장애인은 최대한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소득활동과 연결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및 사회인식 개선 등을 통한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책의 초점을 시설보호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점차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평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2004)

2003년 11월에 부평지역에도 '부평장애인 복지관'(송암복지재단)이 건립되어 재가 장애인들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등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2005년도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규모는 총 9,471백만 원으로 21개 시설에 지원하였으며 내역별로는 5개 생활시설에 278명을 수용하고 4,12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4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 797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운영에 4,54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종 별	대표자	소재지	정원	현원	설립 연도
계	21개소			734	806	
광명원	생활시설(시각)	임남숙	십정동 185	76	43	1958. 1. 7
성동원	〃(청각언어)	정 헌	부평동 756	50	1620	1953. 9.30
예림원	〃(정신지체)	장국현	부평동 633	120	103	1959. 3. 1
성린원	〃(지체장애)	김영주	십정동 586-2	80	45	1976. 6. 7
은광원	〃(지체장애)	이수영	부개동 347	74	71	1976. 6. 1
장애인복지관	지역재활시설	권기학	일신동 62		250	2003.11.1
성동원주간보호시설	지역재활시설	정 헌	부평동 756	21	21	1996.11.6
정신지체애호협회 주간보호시설	지역재활시설	서원영	산곡동 325-11	15	15	2002. 4.26
장애인복지관주간 보호시설	지역재활시설	권기학	일신동 62	15	15	2003.11.1
정신지체애호협회 단기보호시설	지역재활시설	서원영	산곡동 325-11	15	12	2004.3.19
예림원공동생활가정(1)	지역재활시설	장국현	삼산동 456-8 삼산 타운아파트 411-1505	4	4	2000.12.28
예림원공동생활가정(2)	지역재활시설	〃	삼산동 456-8 삼산 타운아파트415-1406	4	4	2001. 7.21
예림원공동생활가정(3)	지역재활시설	〃	삼산동 456-8 삼산타운아파트 401-506 / 412-906	4	4	2002. 3. 8
예림원공동생활가정(4)	지역재활시설	〃	부평6동 665-197 남부빌라 A동302	4	4	2003. 2.28
예림원공동생활가정(5)	지역재활시설	〃	삼산동 456-8 삼산타운아파트 415-1006/413- 901	4	4	2003. 3.31
정신지체애호협회 공동가정시설	지역재활시설	서원영	일신동 59-21	4	4	2004. 7. 2
핸인핸	직업재활시설	장영순	부평동 633	90	68	1999.10.28
굿프랜드	직업재활시설	정성기	십정동 586-2	80	44	2000.12.15
성동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고광명	부평동 756	40	35	2000.12.22
예림일터	직업재활시설	김병관	부평동 633	30	26	2003. 3.11

지역장애인을 위한 교육 · 사회 · 의료 · 직업재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부평장애인복지관 등 2개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총 2억 3천 3백 2십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 구입,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

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공사는 11억 8천 4백 6십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 2일 착공되었으며 2006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37억 6천 3백 5십2만8천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각장애인 시설인 광명원 원사 및 체육관은 2006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굿프랜드, 핸인핸, 예림일터 등 3개 시설에는 4억 7천 2백 9만 5천 원의 예산을 투입, 칫솔 식모기 구입, 작업 활동시설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시설대회 지원, 체육주간행사 지원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월 2회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매년 리후렛 제작 배포와 시각 장애인용 민원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관공서 다중 집합 장소 등에 비치하고 있다.

2004년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며, 장애인 단체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도록 부평구 장애인 협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공식회의를 거치면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 협의하였다.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불법노점상단속 사업을 비롯하여 주차장사업을 장애인 단체 일거리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어 실질적 도움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우자동차로 부터 기증받은 칼로스 차량 3대를 활용하여 무료 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무료 이·미용사업추진, 중증장애인 하계 휴양캠프 운영, 장애인 순회 무료 한방진료사업, 교통사고 등 장애예방 캠페인 실시 등에 사업비 지원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단체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에 힘을 기울였으며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하여 설과 중추절 2회에 걸쳐 15개 장애인 단체에 매년 '사랑의 쌀'을 전달하였다.

7) 노인복지

2005년 말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36,053명으로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율상으로는 7%대의 고령화 사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 수 증가에 따른 노인 질병 의료, 취업, 건강 및 문화 여가 활

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들의 욕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1) 경로우대 제도

경로우대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노인복지법과 경로헌장이 제정됨으로써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우대 업종(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박 등) 5개를 추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부터 노인 승차권 지급제도가 실시되었고, 1998년부터는 분기별 지급하던 승차권을 매월 12,000원씩 분기별 3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 4월부터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월 2,000원을 인상하여 14,000원을 지급하여 2005년 말 현재 36,182명의 노인에게 51억 3천7십2만 원의 경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매월 2매씩 지급하던 목욕권을 1998년부터 1인당 월 5,000원씩 분기별 현금으로 지급하다 2000년부터 6,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1996년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시 노인에 대한 특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1997년 7월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여 경로연금 제도를 도입, 1997년 8월 22일 제5359호로 공포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로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액(원)		소득 기준액
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50,000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79세	45,000	
②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7월 1일생 포함)	노인부부	30,630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이 5십8만5천 원 이하
	독거노인	30,630	

부평구에서는 2005년에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3,542명에게 18억 5천 9백 3십 2만9천 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해서 1983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본인 신청에 의거 실시하며, 1 · 2차에 걸쳐 기본적 검사 및 정밀검사를 병원급 이상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서 노인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 재가노인복지사업

1980년대 중반부터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형태는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2005. 12. 31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정원	현원	사업개시일	비 고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부평구 산곡3동 370-34	정일준	20	28	개원 (98. 7.13)	주간보호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	부평구 삼산동 157	전희선	80	85	개원 (00. 1. 1)	가정봉사원파견
부평재가노인복지센터	부평구 십정동 282-10	신선아	80	80	개원 (05. 8. 18)	가정봉사원파견
삼산노인주간호보센터	부평구 삼산동 157	전희선	24	15	개원 (05.10.17)	주간보호
계	4개 시설		204	208		

결식우려 무료급식 사업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에서 경로 식당 형태로 운영하며, 선정 기준은 급식 인원 수, 급식 횟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로식당 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결정하고 있다.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식사 배달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서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로 식당 운영 기관(행정기관 지원)

시설명	이용 인원	소재지	전화번호
삼산종합사회복지관	120명	부평구 삼산동 157	529-8607
갈산종합사회복지관	50명	부평구 갈산2동 360	515-8187
한국사랑밭회	100명	부평구 부평2동 751-47	502-7600
작은손길공동체	150명	부평구 산곡1동 180-136	506-8537

경로 식당 운영 기관(행정기관 비지원)			
시설명	이용 인원	소재지	전화번호
형제의집	120명	부평1동 178	522-1684
부평중부감리교회	450명	부평1동 185-78	516-3319
부평1동천주교회	60명	부평1동 799-4	522-2291
온천하선교회	150명	부평4동 406-33	527-8291
들목 음식	70명	부평4동 888	518-9750
대광교회	100명	부평5동 509-2	502-1907
사랑의지팡이	25명	갈산동 9-1	505-5045
사랑의교회	30명	갈산동 177-8	203-7447
새샘교회	30명	갈산1동 9-1	514-1630
갈산2동 자생단체	100명	갈산2동	522-9441
부개교회	20명	부개1동 445	504-7612
평화교회	120명	일신동 176-13	515-9555
새샘교회	30명	갈산1동 9-1	514-1630
온천하선교회	50명	부평4동 406-33	527-8291
토속식당	70명	부평동 500-4	523-4006
사랑의 도시락	60명	산곡동 38-43	511-6356

식사(도시락) 배달 운영 기관			
시설명	이용 인원	소재지	전화번호
삼산종합사회복지관	120명	부평구 삼산동 157	529-8607
갈산종합사회복지관	50명	부평구 갈산2동 360	515-8187
한국사랑밭회	100명	부평구 부평2동 751-47	502-7600
요셉의 집(글라라밥집)	50명	부평구 삼산동 261-1	526-8615
샘터교회	38명	부평구 십정1동 191-16	501-8047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부터 경제적 빈곤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 중 거동 불편자가 결식하는 사례가 증가함은 물론 점차 가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집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실질적 결식노인과 노인들이 공원, 경로당 등에서 소일거리를 보낸 후 주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역 부근, 공원지역으로 밀집화 되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등 계속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급식 이용 노인들이 공적 부조 대상자만이 아닌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인 것 등의 포괄적인 변화 추세로 급식소별 서비스제공 부문 해결(후원물품 등)을 위한 자체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2003년 6월 노인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인천의제 21)의 결과를 토대로 2003년 9월 15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인천시 각 구별 1개동씩 시범사업 실시 후 2004년 전면 실시하여 2005년 확대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이후 뒷골목 청소가 소홀해지는 문제의 부분적 해결과 참여 노인들의 건강 향상 및 경제적 지원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 현판식(2003)

환경 지킴이 참여 현황

구 분	계	2004년				2005년		
		소계	1기	2기	3기	계	1기	2기
인원(명)	714	378	126	126	126	336	168	168

노인취업알선은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산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부평구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취업희망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간 2005년에는 498명중 140명이 취업하여 28%가 일자리를 갖게 되나 대부분 단순 노무의 범주에 그치고 있다.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내 노인 공동작업장은 보충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스테플러와 책철포장작업에 연인원 3,475명의 노인이 투입되어 월평균 1십2만5천 원의 소득을 얻었다. 2006년도는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40명의 고정인원을 확보하여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소득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노인복지회관 전경(1998)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확충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174개소가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표 여가문화 공간으로 그동안 부평구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04년까지 54억 43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개소의 경로당을 건립하였고, 2005년도에는 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사업추진 중이다.

경로당 건립 방침 기준은 반경 1㎞ 이내를 기준으로 건립하여 과거의 정적인 죽은 공간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휴식 공간 및 재교육의 장이 되도록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산동의 삼산1택지 공용의 청사부지에 부지면적 700평을 마련하여 건축연면적 1,200평(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경로당 현황 (2005. 12. 31 현재, 단위 : 개소)

계	일반경로당			공동주택 경로당	비 고
	소계	구립	일반		
174	57	40	17	117	

(4) 노인복지생활시설


신명요양원 공사 현장 (2006)

부평구 노인생활시설은 법인운영 양로원 1개소, 요양원 2개소 그리고 미인가 시설에서 신고 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다. 그 중 요양원으로는 1995년 12월 19일 개원한 협성요양원과 2002년 9월 개원한 신명요양원이 있다. 신명요양원은 12억 여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1,458㎡(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개원하여 현재 48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100병상 규모의 노인전

문요양시설을 산곡동 샤미나드 피정의 집 자리에 건립하였으며, 1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일신동 송암복지재단 내에 또 한 곳의 요양시설을 건립 하고 있다(2007년 8월 준공 예정).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현황

명 칭	샤미나드 노인 전문 요양원	송암 노인 전문 요양원
위 치	산곡동 5-15	일신동 62
사업 주체	재단법인 마리아회 유지재단	송암복지재단
규 모	100병동 지하1층, 지상4층(1,032평)	60병상 지하1층 지상 3층(465평)
입소대상	치매, 중풍 등 중병 질환 노인	

노인복지시설 현황(법인운영)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정원	현원	비고
계	3개 시설		150	129	
협성양로원	부평구 산곡3동 370-71	신지연	50	33	1992. 2. 16 개원
협성요양원	부평구 산곡3동 370-86	신지연	50	48	1995. 12. 19 개원
신명요양원	부평구 십정동 577-4	김은중	50	48	2002. 9. 9 개원

노인복지시설 현황(개인운영)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정원	현원	비고
계	3 개 시설		43		
희 락 원	부평구 부평동 767-192	유동식	9	9	신고일 : 2005. 1. 6
평화의 집	부평구 부평동 98-37	김황옥	9	9	신고일 : 2005. 4. 1
요셉의 집	부평구 삼산동 261-1	임태호	25	37	신고일 : 2005. 8. 10

(5) 효 관련 시책과 노인복지

부평구는 민선3기 2002년도 하반기부터 효 실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단 및 수도권의 베드 타운화로 '효'의 정신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 하에 추진되는 효 실천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을 효 실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팀과 효 실천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효 실천 5개년 계획은 민선3기 2002년도 하반기부터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효 정신이 구민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청소년들에게 한문교육과 함께 체계적인 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과 연계하는 효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셋째 인간의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 아동기에 대한 효심 기르기 운동을 추진하며, 넷째 노인복지사업을 효 실천 차원에서 민 · 관 · 학이 접근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다.



효 실천 일기장(2004)

2005년 추진 사항을 보면, 우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을 51개 경로당에서 2,092명(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기존의 경로당 방학교실 교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단순한 한문과 예절 나열에서 벗어나 단계별, 급수별 한문뿐만 아니라 효 예절과 감동적 예화, 토의 발표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학생과 경로당 방학강사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효행 일기쓰기 운동도 전개하여 25개 학교 50학급에 1,750명이 시범적으로 참여하였는데 효 일기장을 특수 제작하여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 운동 확산을 위해 풍물대축제 효 체험마당을 운영하면서 효 예절 교육과 차 예절 교육, 효 편지쓰기, 효 페이스 페인팅, 효 관련 판넬 전시 및 비디오 상영과 전통 놀이 마당을 운영하여 관내 유치원에서부터 초 · 중 · 고등학생까지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월 8일을 부모님과 스승님께 편지를 쓰는 '누룽지 데이'로 홍보하였고 효 실천 일기장 우수작도 25개교 91명에게 시상하는 등 효심 고취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경로당 문화바꾸기 5대 사업

부평구 경로당 문화바꾸기 5대 사업

◉ 5대 사업 : 건강체조, 게이트볼, 문화취미, 정보화, 일거리마련사업 등

◉ 추진 사업

- 매월 1회 경로당 회장단 '경로당 문화 바꾸기' 교육 실시
- 경로당 건강표어 판넬 제작 · 배부
- 경로당 일과표 대형 판넬형 제작 · 배부
- 경로당 건강체조 차트 배부
- 강사활용 노인건강순회교육 실시 (174개 소)
- 경로당 건강 도우미 프로그램 교육(분기 1회)
- 경로당 건강도우미 활동 지원 (경로당별 1명)
- 경로당 원예치료 기구 배부 (174개 소) 상사업비 활용
- 경로당 치매예방 나무쌓기 물품 지원 (174개 소)
- 경로당 건강체조 물품 (요가매트 등) (174개 소)
- 경로당 문화바꾸기 추진위원회 구성(동별 위원장 1, 부위원장 2) - 21개동
- 게이트볼 용구 배포 및 게이트볼 교실 운영
- 종이접기 및 붓글씨 용구 지급 및 교육 실시
- 일거리 마련 사업
  · 실버봉사대 활동 ·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 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노인복지회관)
  · 노인취업알선(노인복지회관) : 단순노무, 공동작업, 경비, 청소 등

※ 2005 부평구 최우수 혁신시책, 인천광역시 최우수 혁신 시책(1,000만 원 포상)

또한 특기할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을 효 실천 차원에서 접근한 방법으로서 경로당 문화 바꾸기 5대 사업과 효 실천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점이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의 근본 취지는 해가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경로당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데에 있다. 즉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은 그간 국가와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경



부개3동 효 실천 거리 (2006)

로당을 지역노인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되었다. 추진된 지 3년이 경과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 '자생력이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주간 일과표를 특수 제작 활용토록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 팔단금 체조 책자 발간 및 테이프 배포와 특수 체조 프로그램 개발 및 책자 발간 그리고 궤도용 특수 차트식 체조 교범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한 경로당 건강표어, 경로당 일과표 제작 · 배부, 경로당 건강체조 차트 배부, 강사활용 노인건강교육, 경로당 건강도우미제(월 5만 원씩 지급) 등을 진행하였다.

효 실천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은 2003년 경로당 회장단 회의 시 경로당에 오는 회원들에 대한 점심 식사 제공 문제 건의 사항 해결을 계기로 출발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비해 예산의 부족으로 행정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구민의 자발적 봉사 및 결연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로 효친의 웃어른을 공경심 함양은 물론 주민이 만들어 가는 효 실천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은 우선은 주택가 경로당으로 그리고 점차 아파트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효 실천 운동은 물질적 지원 분야, 노력(자원)봉사 분야, 일거리 제공분야, 환경 정비, 방문 봉사 분야 등으로 나뉘어 동장 입회하에 경로당 회장과 결연단체 간에 결연 증서를 교환한 후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지원 또는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에 효 실천 경로당 자매결연 명패를 부착 또는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개의 단체가 85개의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특히 부개3동의 경우는 일정 권역의 음식점 일대를 효 실천 음식거리로 명명하여 14개 전 경로당과 전체 요식업소가 자매결연을 맺는 등 효 실천 및 경로 효친 문화 정착의 사례로 뿌리 내리고 있다.

효 실천 경로당 자매결연 분야

- 프로그램분야 : 건강체조, 노래, 종이접기, 원예치료
- 주,부식 지원 : 식사, 주식, 부식, 간식, 경로잔치
- 서비스 지원 : 이, 미용 발 마사지 수지침, 안마 등
- 환경 정비 : 청소. 세탁, 시설 보수, 도배 등
- 일거리 지원 : 중소기업체 연계 단순 일거리 지원
- 방문봉사 : 방분 봉사, 건강, 상담 등

(6) 노인복지기금 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과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11억2천7십5만7천 원이다. 기금 운용 현황은 2005년도에 총 13개 사업 4천9백1십3만 원으로 구사업(1개) 9백6십만 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사업(5개) 1천5백5십만 원, 노인복지사업기관 사업(7개) 2천4백3만 원이다.

사업 용도는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수반된 운영비,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 운영지도, 노인 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날로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 자체로 노인복지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족한 분야의 예산사업을 제한적이나마 보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법정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축소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8)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 및 각종 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분야 위원회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 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2003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사회복지분야 관련 개별 심의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분야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국민기초생활보장연간 조사계획, 지역자활지원계획, 각종 기금 심의 및 부평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의료분야의 심의는 전문성을 요하는 관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 (2004)

부평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2005년 3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각급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참고하여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25일 의회에서 협의체 위원장을 자치단체장 선임이냐 부단체장 선임이냐 하는 문제로 부결되었다. 이는 부평구 조례안이 구청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준칙(안)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라는 지침과 상충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부결된 다음 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다시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시달되어 왔다.

2005년 7월 29일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공포하였고 2005년 9월 15일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30명을 구성하고 2005년 10월 24일 실무협의체 위원회 2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의 조례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구청장과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모든 사회복지현안을 협의체에서 다루도록 하여 복지 분야의 종합적 기능을 강화한 특색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

연번	직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부평구청장	박 윤 배	조례제 4조제2항
2	위원장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상임대표	김 득 린	지역사회 내 복지분야 전문가
3	부위원	장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 현 순	사회복지이용시설 대표
4	위원	문화복지국장	서 세 양	조례 제4조 제3항
5	위원	보건소장	김 성 종	
6	위원	부평구의회 의원	최 만 용	
7	위원	부평구의회 의원	최 화 자	
8	위원	성촌의 집 원장	김 영 주	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
9	위원	부평구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민 미 해	
10	위원	부평구가정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왕 미 화	
11	위원	부평구의사회 회장	유 혜 승	보건의료분야 대표
12	위원	부평구약사회 회장	송 종 경	
13	위원	부평구지체장애인 협의회 회장	배 대 봉	장애인단체 대표
14	위원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회장	노 재 철	노인회 대표
15	위원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상임대표	오 순 부	시민단체
16	위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정 문 자	
17	위원	부평구기독교연합회 회장	송 춘 현	기독교단체 대표
18	위원	부평구불교연합회 회장	김 홍 제	불교단체 대표
19	위원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지구 대표	정 윤 화	천주교단체 대표
20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	김 황 옥	실무협의체 대표
21	협력위원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전 광 현	학계전문가
22	협력위원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재 국	구의원
23	협력위원	인천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신 광 열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24	협력위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이사장	권 태 일	〃
25	협력위원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정 일	〃
26	협력위원	인천 평화의료생협 상임이사	김 명 일	〃
27	협력위원	부평구남부자활후견기관 관장	김 현 숙	〃
28	협력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지사장	김 주 환	〃
29	협력위원	인천시 자활교육센터 교육자문위원	송 규 의	〃
30	협력위원	올바른지역사회복지실현을위한부평네트워크공동대표	이 봉 균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명단

연번	직위	소 속	성 명	주소	비 고
1	위원장	평화의 집 원장	김 황 옥	부평5동 98-37	노인시설 실무자
2	부위원장	정준의원 원장(신경정신과 전문의)	이 정 준	부평6동 611-10	보건의료 실무자
3	위원	생활복지팀장	김 종 주	부평동 879	조례 제6조제3항
4	위원	건강증진팀장	노 윤 광	부평동 442-1	〃
5	위원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장	김 세 진	삼산동 157	복지관 실무자
6	위원	부평종합사회복지관과장	이 현 주	산곡3동 370-71	〃
7	위원	예림원 사무국장	공 보 연	부평6동 633	장애인생활시설 실무자
8	위원	광명원 사무국장	이 명 숙	십정2동 185	〃
9	위원	은광원 사무국장	박 태 순	부개1동 347	〃
10	위원	성동원 사무국장	강 대 봉	부평동 756	〃
11	위원	신명요양원 사무국장	권 옥 희	십정2동 577-4	노인시설 실무자
12	위원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	조 병 국	부평4동 914	〃
13	위원	시온육아원 사무국장	김 주 리	일신동 52	아동시설 실무자
14	위원	신명보육원 사무국장	홍 진 규	십정2동 577-4	〃
15	위원	부평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배 기 순	청천2동 113	장애인단체 실무자
16	위원	인천어린이도서관 협의회 사무국장	오 미 숙	일신동 106-20 1층 자연향기	공익단체 실무자
17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가입자지원부장	어 수 준	청천동 409-2	보건의료 실무자
18	위원	김봉주 한의원	김 봉 주	갈산2동 361-4 대동상가 2층	〃
19	위원	백종은 치과의원	백 종 은	부평1동 549-36	〃
20	위원	부평구 복지위원	조 규 호	부평4동 10-553 23/3	복지위원

9) 의료급여

국민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인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입소자, 차상위계층 등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질병의 치료·예방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빈곤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2세 미 만아동)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9,563세대 16,305명이며, 의료급여사업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비, 대불상환금, 기타 잉여금 등으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부평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과 의료급여일 수 연장 승인을 심의하였다.

의료급여 세대 및 인원 현황 (단위: 세대/명)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계	7,754 / 14,030	9,563 / 16,305
1종	5,720 / 8,530	6,261 / 9,202
2종	2,034 / 5,500	3,302 / 7,103

급여 대상자 유형별 현황 (단위: 세대/명)									
계	의 료 급 여 1 종						의료급여 2종		
	계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의료특례	국가 유공자	시설	기타	계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의료특례
9,563/ 16,305	6,261/ 9,202	5,223/ 7,728	81/ 81	307/ 716	593/ 593	57/ 84	3,302/ 7,103	2,195/ 5,996	1,107/ 1,107

의료급여 지원 내용		
구 분	의료급여 지원 내용	비 고
1종	• 급여 비용의 전부(진료수가 적용범위) ※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본인 부담	
2종	• 1차(의원, 약국)의료기관 진료수가 적용범위 – 의원 : 처방전 발행시 1,000원 본인 부담 처방전 미발행시 1,500원 본인 부담 – 약국 : 처방전 발생시 500원 본인 부담 처방전 미발행시 900원 본인 부담 • 2차(병원)의료기관 입원시 진료수가 적용 범위 – 본인 부담금 : 15/100, 국가 부담금 : 85/100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소 속	성 명	위촉사유	비 고
1	위원장	임소아과 원장	임남재	의료기관(위촉직)	위원 중 호선
2	위원	참사랑여성의원원장	고행조	의료기관(위촉직)	
3	위원	구광호내과원장	구광호	의료기관(위촉직)	
4	위원	GN여성의원원장	유혜승	의료기관(위촉직)	
5	위원	부평구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공무원(당연직)	
6	간사	부평구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공무원(당연직)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4년도부터 시행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 만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2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질병과 무관하게 차상위계층 가구 12세 미만 아동을 지원한데 이어 2006년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2종으로 확대 지원되고 있다.

10) 보훈 복지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보훈단체와 6·25참전유공자회(당초 6·25참전기념사업회라고 하였으나 2003년에 6·25참전유공자회로 공식명칭이 바뀜), 재향군인회 등이 있다. 부평구는 이들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05년 1억 2천4백만 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보훈회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사랑의 쌀 지원과 폐기물수거 수수료 감면 지원을 하였다. 2002년부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개최함은 물론 분기마다 6·25 참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지역 방위지원과 재향군인여성봉사회를 중심으로 예비군 및 지역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현 회관의 건물이 낡아 이를 매각하여 새 건물을 짓고 보훈 단체들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국가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재원 마련 문제가 현안 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평시장 내 시의 제2공보관 건물이 노후로 인해 매각되어 공용 주차장이 건립되는 관계로 그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4개 보훈 단체 사무실

이 없어져 한동안 고심하다가 2002년 구청에서 부평관광 호텔 뒤에 경로당과 보훈 사무실을 복합으로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향군인회 건물에 소재하였던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장흥섭 씨가 부평로에 위치한 건물 2층 40평 전체를 사무실로 제공하여 유공자회에서 수리를 한 후 사용하고 있다.

6·25유공자회는 부평묘지 공원일대의 청소를 주로 실시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는 현재까지도 매주 월 1회 정기적으로 신트리공원과 주변 일대의 청소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부평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다. 이러한 사실을 부평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7월 22일 부평지역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부평구 현충시설물설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종구, 허문명)가 구청장, 국회의원을 포함한 45명으로 발족되어 격전장 중 한 곳이었던 부개산 정상에 현충 시설물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이 현충 시설물은 장소를 변경하여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 옆에 세워질 계획이다.

전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 여부는 보훈처에서 2005년 현장 방문과 확인을 거쳐 실사를 마쳤으며 소요 경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시비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2장 정치와 경제

제1절 정치 현황

1. 정치 환경의 변화와 정치 활동

1) 정치 환경의 변화

부평지역의 정치 환경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비교적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 이후의 시기는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각 정권의 이름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정부'라고 달리 불렸지만, 이들 3개 정권 모두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6공화국을 지속해 가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비교적 안정된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 올 사건이 적지 않았으며, 부평지역의 정치 활동, 특히 선거의 양상에도 이같은 국가적 정치 환경의 변화가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부평지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변화는 1997년 말에 시작된 이른바 IMF 경제 난국이었다. 주요 대기업의 도산과 국가의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촉발된 이 사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 그 해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주요 요소가 되었고 1998년 지방선거 결과에도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창당과 합당, 또는 당명 변경 등이 잇따랐다.

※ 이 글은 김재영(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정당의 이합집산과 우리나라 정당의 짧은 수명은 바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자유당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창당한 자민련은 그 존속 기간이 11년 남짓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 한 때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 변화의 와중에서 몇몇 정치인들은 당적을 옮겨가며 선거에 출마하여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셋째, 1995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등단하면서 지방 정치가 활성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단체장 직선은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일부 정치 신인들은 구의원과 시의원 등 지방의 활동을 발판으로 국회에까지 진출함으로써 활동 무대를 넓히기도 하였다. 넷째, 2000년대에 실시한 총선과 지방 선거는 거의 모두 선거 당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함으로써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를 낳았고, 상대적으로 정책선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예컨대 2002년 제3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아들의 구속 등으로 민심이 이반,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참패하였다. 한편 2004년의 총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그에 대한 반발심에 힘입어 절대 불리하리라던 예상을 깨고 여당이 약진을 하였다. 반면 2006년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의 개혁 정책 실패와 대통령의 인기 하락 등으로 인해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새 청사 준공식(2005)

2) 정당 활동

1990년대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른바 3김 시대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다소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당의 부침이 활발했다. 여당의 명칭이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등으로 바뀌며 통합과 분

당, 창당 등을 거듭하였으며, 야당 역시 민주당, 국민회의 등으로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1997년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14대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재임 중 정계 개편을 단행하여, 각각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기록을 갖는다. 민주자유당(노태우), 신한국당(김영삼), 새천년민주당(김대중), 열린우리당(노무현) 등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창당 또는 명칭 변경된 여당들이다. 2004년 총선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주요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신당, 신민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등 군소 정당들이 각종 선거에 후보를 내기도 하였으나, 부평지역의 정치 현장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 하였다.

주요 정당의 변화 과정

2004년 현재 명칭	제1회 지방선거당시 명칭(1991)	변화 과정	비 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창당(1995. 9) →새천년민주당 (2000.1) →열린우리당 (2003. 11)	
한나라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개명 (1995. 12) →한나라당으로 개명(1997. 11)	
자유민주연합		1995. 3 창당	2006. 2 소멸
민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창당(2003. 11) 후에도 민주당으로 존속	
민주노동당		2000. 1 창당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정당의 지역 정치는 지구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지구당은 여야 할 것 없이 부평지역 내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하나씩 운영하였으며, 대개 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사람이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부평 갑의 경우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2선)이 1995년 이래 10년 넘게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나, 2002년 민주당에서 이적한 박상규 의원에게 3개월 여 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도 하였다. 민주당은 15대 총선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한 박상규가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박상규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옮긴 후, 홍영표가 위원장(열린우리당)을 넘겨 받았다. 부평 을의 경우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지구

당은 이재명, 정화영 위원장을 거쳐, 2004년 3월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된 강영택이 새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초대 민선 구청장을 역임하고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용규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에도 지구당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였다. 조진형과 최용규는 지역구에서 10년 이상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재선의원까지 역임, 이 시기 부평지역의 정치 현장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한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3) 시민의 정치 의식과 참여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당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치 문화와 참여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05년까지 위 주제들에 관해 부평구만을 별도로 연구한 자료는 극히 드물었다. 인하대 정일섭 교수가 1997년과 1998년 2 회에 걸쳐 실시한 주민 설문 조사에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정치인의 업적 평가, 기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자치구별 조사가 있다(『인천 지역의 이해: 정치, 행정, 사회운동』,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9). 그러나 타 자치구에 비해 독특한 정치 문화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부평구의 조사 결과가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업적 평가에서 부평구민이 응답한 점수가 1.30(그저 그렇다=2, 못하는 편=1)이라는 인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거나, 자치단체 단계 축소에 반대 의견이 31.9%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특이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부평구민의 정치의식이나 문화를 별도로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어느 한 시점에서 행하는 설문 조사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2002년에 발간된 『인천시사』에 부평 지역 정치 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인천은 13대 이후 여당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효자' 지역이다(13대 7석 중 6석, 14대 7석 중 5석 차지). 그런 인천의 선거구가 7개구에서 11개구로 늘어나 여당으로서는 반가운 일이었으나, 막상 증설된 선거구의 면면을 놓고 보면 여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인천의 선거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가 구 인천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들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인천에 대한 연고의식이 강했다. 그런 연유에 현지 여권의 지역개발 논리가 효력을 발휘해, 꾸준한 여당지지 지역으로 1995년 지방선거(구청장선거)에서 남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 구청장을 당선시켰다.

둘째가 인천에 새로 편입된 지역이다. 부평구 갑을, 계양구/강화군 갑, 서구 등과 부평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인천에 대한 연고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때문에 인천 편입 후 치른 1995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뿐 아니라 시의원 모두를 야당 당선자로 채웠다. 결국 선거구는 늘었으나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들은 아니었다.

위의 언급에서 나타나듯 부평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인천의 전통적 지역과 다른 정치 성향을 보였으며, 『인천시사』에서는 그것을 야당지지 성향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부평 등 새로운 지역이 편입된 이후 인천시민의 정치의식과 참여 행태를 분석하였다(이준한, 「인천시민의 정치 의식과 투표행태」, 『교수논총』,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의 선거 후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그의 글에 따르면 인천 시민은, (1) 정치 지식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향을 보인다. (3) 총선과 대선에서 대체로 야당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의 글에서 특정 자치구를 지적하여 논한 부분은 없지만, 앞에 인용한 『인천시사』의 내용과 연결지어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여당 성향을 보였던 인천이 부평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거구의 편입 이후 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후의 선거 결과에서 보듯, 부평구는 서부의 구도심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천 지역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대통령과 지방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야당지지 성향을 드러내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꾸준히 여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대조를 보였다.

2. 선거

1) 대통령 선거

(1)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12. 18)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신정당의 박찬종, 정의당의 이병호, 무소속의 김옥선, 무소속의 백기완 후보 등이 출마하여 경합을 벌였다. 개표 결과, 김영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0%를 얻어 33.8%을 얻은 김대중 후보를 1,936,048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평지역은 아직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인천광역시 북구에 속해 있었으며, 선거구는 부평 갑과 부평 을로 구분되어 있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자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기록하였다. 부평동을 포함하는 북구 갑에서는 두 후보 간 표차가 거의 없었지만, 계양구와 산곡1 · 2동, 청천1 · 2동을 포함하는 북구 을에서 김대중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져 강한 야당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북구 갑과 북구 을의 투표율은 각각 79.4%와 79%를 기록하여 전국 투표율 81.9% 및 인천지역의 투표율 80.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결과(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전국	29,422,658	81.9	9,977,6	468,041,690	3,880,167
인천	1,346,964	80.3	397,361	338,538	287,505
북구 갑	223,425	79.4	62,056	62,188	34,893
북구 을	245,463	79.0	64,329	70,436	38,744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중소 정당 후보자의 득표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음.

(2)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12. 18)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인천 지역 전체의 투표 결과는 전국적 득표 비율과 비슷하게 27,279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평구의 경우는 갑, 을 선거구 모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전국 또는 인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보냈다. 특히 양 후보 간 지지율의 차이는 부평 갑 선거구(부평, 부개, 일신, 십정동)에서 두드러지며, 표 차이가 약 13,000 표에 달했다. 부평, 부개, 일신, 십정동 등은 14대 선거에서 북구 갑에 속하였던 곳으로, 제13대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표차가 132에 불과했던 곳이다. 이를 통해 볼 때 15대 대선에서는 14대에 비해 김대중 후보에게 훨씬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평구의 유권자는 전국의 1%를 약간 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 비해 더 얻은 390,557표의 5%에 해당하는 차이가(18,889표) 부평지역에서 기록되었다. 한편 투표율의 경우는 부평구의 투표율이 전국이나 인천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80% 내외를 기록하였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신한국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한국신당 이인제	국민승리21 권영길
전국	32,290,416	80.6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인천	1,639,655	79.99	470,560	497,839	297,739	20,340
부평갑	187,250	79.06	49,585	62,496	30,809	2,257
부평을	149,955	80.92	43,394	49,372	24,227	2,21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3)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차점자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2.3%(570,980)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15대 때와는 달리 인천의 경우 선두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득표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인천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는 111.8로서 전국 평균인 105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부평

구 선거구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커서, 두 후보 간 득표를 단순 비교할 경우 약 100 : 122.2의 비율을 보였다. 부평구 전체에서 노무현 후보가 보인 상대적 우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평 갑 선거구에서 김대중 후보가 누렸던 지지율(100 : 126)에 가까웠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부평구 총 21개 투표구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회창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올린 투표구는 3개 지역으로 부평1동, 산곡3동 및 산곡4동이었다. 이들 투표구가 중산층이 모여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주민소득, 연령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2002년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4, 15대 선거에서 보였던 부평구민의 야당 성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순에 따라 기호 1번을 유지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여당의 이미지를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15,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단순히 여당 혹은 야당을 지지했다기 보다 보수 대 진보의 대결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보다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에게는 인천 지역이나 부평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보낸 지지의 10% 내외를 보내고 있어 부평구만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지역	선거인 수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투표율(%)
전국	34,991,529	11,443,297	12,014,277	957,148	22,063	70.83
인천	1,824,905	547,205	611,766	61,655	1,612	67.75
부평	395,723	113,642	138,947	13,418	330	68.0
부평1동	24,626	9,280	7,829	786	15	
부평2동	17,622	4,123	5,969	508	8	
부평3동	12,950	3,476	4,214	395	9	
부평4동	18,87	24,545	5,972	441	10	
부평5동	16,79	14,046	5,719	435	10	
부평6동	11,63	92,996	4,062	296	11	
부개1동	16,94	84,649	6,039	473	7	
부개2동	16,72	14,415	6,212	519	8	
부개3동	27,47	28,205	10,522	1,161	15	
일신동	9,041	2,816	3,413	308	0	

지역	선거인 수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투표율(%)
십정1동	15,953	4,029	5,285	521	10	
십정2동	22,875	6,052	7,622	742	15	
산곡1동	17,537	4,576	5,963	749	12	
산곡2동	20,904	7,134	7,195	774	17	
산곡3동	20,198	8,103	5,954	666	26	
산곡4동	15,150	5,844	4,797	502	14	
청천1동	14,392	3,133	4,879	449	9	
청천2동	28,848	8,324	10,276	1,068	19	
갈산1동	14,627	3,608	5,126	554	10	
갈산2동	18,521	5,815	6,446	692	7	
삼산동	25,157	6,329	9,957	1,079	2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한편 인천의 현직 교수로서 입후보한 사회당 김영규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역시 대단히 미약한 편이어서, 선거 결과에 지역 연고가 별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투표율은 68.0%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2.83% 낮았지만, 인천 평균보다 0.25% 가량 높았다.

2) 국회의원 선거

(1)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 3. 24)

1992년 3월 24일 치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른바 3당 합당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서 민정 · 통일민주 · 공화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과 제6공화국의 치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부평지역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다. 즉, 북구 갑에서는 친여성향의 조진형(무소속) 후보가 약 7,000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북구 을에서는 전직 장관 출신인 이승윤 후보가 역시 약 7,000표 차이로 여유 있게 당선되었다. 북구 을의 경우 이보다 9개월 후 치른 제14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당선자에 비해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을 감안한다면, 민자당 후보의 우세는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마도 총선에서는 대선에 비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지

명도와 인천 출신 지역 연고 등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 지역 개발을 바라는 유권자의 기대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 수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	민주 자유당	민주당	통일 국민당	신정당	민중당	무소속
북구갑	224,072	67.37	정정훈	송선근	이정대	이수일	전희식	조진형
			36,745	37,703	19,292	2,721	7,675	44,990
북구을	227,012	64.64	이승윤	이병현	김숙현	–	송경평	–
			49,4554	2,657	31,271	–	21,29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2)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4. 11)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5대 총선은 이른바 문민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 3년 간 무수한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었고, 때마침 터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 의혹으로 여당이 대세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21석을 얻어, 66석을 얻은 새정치국민회의와 41석의 자민련을 크게 앞질렀다. 여당은 15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야당의원 영입 등을 통해 곧 과반수 의석을 달성한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등 3개 정당 구도로 실시된 이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영남, 국민회의는 호남, 자민련은 충청권을 각각 텃밭으로 확인함으로써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오랜 전통을 뒤엎고 여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였다. 인천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11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9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인천시사』 3권(2002)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15대 총선의 결과로 인천 지역이 계속해서 여당의 '효자' 노릇을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한편, 부평 갑과 을 두 선거구에서도 여당인 신한국당의 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14대에 이어 15대에서도 부평의 유권자들은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데 인색하였고, 다른 한 편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 수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국민연합	무소속
부평갑	181,281	56.49	조진형	송선근	정정훈	진영광	이수일	이희구
			32,355	29,262	13,450	16,121	1,269	8,213
부평을	150,222	61.01	이재명	신용석	정화영	김유동	–	김유
			39,8243	1,266	8,729	8,851	–	1,58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

제16대 총선은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졌다. 이 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보였다. 선거 결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전국 227개 지역구 가운데 96석을 얻어 112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6개 지역구에서 승리하여 5개에 그친 야당을 앞질렀다. 부평구의 경우도 제15대 선거와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박상규 후보와 최용규 후보가 각각 조진형, 정화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15대와 16대 두 국회의원 선거만을 비교할 때, 부평구민들은 거의 비슷한 표차로 여당을 선택하였는데, 특기할 점은 정권 교체로 인해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당을 지지한 것이다.

이 결과는 14, 15대 대통령 선거 때 부평지역의 야당지지 성향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게다가 1988년 이후 계속 이어져온 여소야대 현상, 즉 전국적으로 총선에서 항상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지역이라 불리는 부평지역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계속 배출하는 현상은 가히 이례적이라 할 만한 일이었다. 이 결과가 여당의 성공적 공천 때문이었는지, 인물이나 정당 외의 작용이 있었는지, 혹은 지역 개발을 바라는 구민들의 바램 때문이었는지 등은 좀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 수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 국민당	청년 진보당	무소속
부평갑	198,007	51.5	조진형	박상규	이용기	조창용	–	–
			42,951	49,065	7,915	3,128	–	–
부평을	164,106	50.8	정화영	최용규	김유동	–	백인성	안영석
			30,825	39,963	5,755	–	3,664	4,23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4. 15)

제17대 총선은 2004년 4월 15일 치러졌다. 이 선거는 매우 특이한 선거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즉, 현직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린 상태에서 치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선거에 곧바로 반영될 터였다. 또한 17대 총선은 획기적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 그리고 다양한 공천 방식이 시도되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현장(2004)

탄핵의 역풍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당초 불리하리라던 예상을 깨고 여당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 선거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전국 243개 지역구 가운데 129곳에서 승리하여 100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을 압도한다. 전국구 의석을 포함하여 152석을 얻은 여당은 198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109개 의석 가운데 76개를 차지함으로써 70% 가까운 승률을 기록한 것도 이채로운 기록이었다. 인천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12곳 가운데 9개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16대에 비해 야당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부평구에서도 여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였다. 부평 을의 최용규 후보는 이전 선거에 비해 압승을 거둔 반면, 신예 문병호 후보는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에게 1,390표 앞서는 신승을 거두었다. 한편 지역구 의원 2명과는 별도로 시의원을 2번 역임하였던 홍미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전국구 의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 수

지역	선거인 수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녹생사민당	민주노동당
부평갑	212,986	56.5	조진형	이수영	문병호	김곤	한상욱
			47,227	7,568	48,617	493	15,289
부평을	185,347	59.9	강영택	조만진	최용규	석금석	이용규
			35,668	7,416	53,823	519	12,77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산곡3동과 부개3동이 각각 부평 갑과 부평 을 선거구로 교체 편입됨.

이상 제14대부터 17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부평지역에서 총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야당 출신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총 8명의 의원 중 7개 선거구는 여당 출신이 선출되었고, 나머지 하나도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 인사가 당선되었다(14대 조진형). 부평구민들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총선에서 만큼은 여당을 지지하는 투표 경향을 거듭해서 분명히 보여주었다.

3) 인천시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 최초의 자치단체장 선거였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김영삼 정부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지방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제1대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여당의 최기선 후보가 신용석 후보를 여유 있게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1998년의 2대 선출직 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 공동 여당의 입후보자가 된 최기선 시장이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다.

역대 인천 시장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선거별	지역구분	후보자(정당)				
1대 지방선거		최기선 (민주자유당)	신용석 (민주당)	강우혁 (자민련)		
	인천	383,965	298,544	258,175		
	부평	74,167	64,164	49,566		
2대 지방선거		안상수 (한나라당)	최기선 (자민련)	김용모 (국민신당)		
	인천	238,708	375,051	87,327		
	부평	49,034	73,656	14,091		
3대 지방선거		안상수 (한나라당)	박상은 (민주당)	신맹순 (녹색평화당)	김창한 (민주노동당)	김영규 (사회당)
	인천	393,932	225,201	29,473	35,234	17,404
	부평	78,925	47,685	5,728	10,827	3,440
4대 지방선거		최기선 (열린우리당)	안상수 (한나라당)	신경철 (민주당)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	200,650	526,932	44,339	78,898	

출처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최기선 시장은 임명직 시장 2년을 포함하여 약 9년 가량의 장수 시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2002년의 3대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고 신진들이 대결을 펼친 결과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가 약 17만 표라는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2006년의 4대 선거에서도 다시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가, 당적을 바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최기선 전 시장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상 네 번의 선거에서 부평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모두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네 번의 선거 가운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는 거의 일방적 선거였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거의 모든 구에서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민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것이 특이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당선자에게 보낸 부평 주민의 지지율은 인천 전체의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 약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제1대 선거에서 부평구에서 얻은 두 후보의 득표 비율은 115 : 100으로서 인천 전체의 득표 비율 128 : 100과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부평구민들은 인천 시민 전체에 비해 야당의 신용석 후보를 좀더 많이 지지한 셈이다. 제2대 지방 선거에서는 두 후보자에게 인천 전체와 거의 비슷하게 100 : 150의 지지를 보냈으나, 다시 제3대 지방선거에서는 165 : 100으로 인천 전체(175 : 100)에 비해 안상수 후보를 덜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부평구민들은 1대와 3대 시장 선거에서 인천 전체 유권자에 비해 현직 시장보다는 도전자를 좀더 많이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4) 인천시의회의원 선거

1991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투표율은 55.0%인데 비해 인천은 42.6%에 그쳐, 앞에서 살펴 본대로 '정치에 관심은 크지만 투표율이 낮은' 현상을 나타냈다. 인천의 시의원 선거는 총 27개 선거구에서 치러졌는데, 이 가운데 민주자유당이 20개 선거구를 석권하였고 신민당이 1명, 민주당이 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당선자 중 3명은 무소속이었다. 부평지역에서는 8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자유당이 5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나머지 3명의 당선자는 모두 무소속이었다. 비록 여당이 부평지역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4개 지역에서 민주당 또는 신민당 후보들과 1,000표 이내의 박빙 승부

를 펼쳤다.

제1대 인천직할시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수

선거구	민주자유당	민주당	신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북구갑 1	이윤환 12,315	진영광 11,420		전현수 6,896			
북구갑 2	두홍률 6,036			서광석 2,686	이종석 2,806	차병락 1,336	최용규 9,393
북구갑 3	한승언 10,864		김용석 9,810	김상범 5,647			
북구갑 4	이희구 11,402		한종술 10,413	김헌경 1,777			
북구을 5	장순상 13,184		박경수 12,935				
북구을 6	이완규 7,487			노재철 5,997	문병호 7,012	박형우 4,715	
북구을 7	안승택 10,194			김성정 14,613	박준규 2,664	홍종원 7,157	
북구을 8	이익진 10,879			이한면 8,566	오영규 2,555	이기본 11,122	

제1회 동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68.4%였고, 인천 지역의 투표율도 62.0%로서 4년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하였다. 부평구의 경우는 59.4%를 기록하여 비록 인천 지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30여 년 만에 민선 시장과 구청장을 선출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출 32인 가운데 민자당이 13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민주당은 18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4년 전 선거와 달리 야당이 승리를 기록하였다. 정당별 득표에서도 인천 지역의 유효투표 916,258표 가운데 민자당 357,336표, 민주당 360,400표, 자민련 96,421표, 무소속 102,101표로서 민자당보다 민주당이 더 많



제1회 지방 선거(시의회 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1991)

은 득표를 올렸다. 부평구의 경우도 4개 선거구 모두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여유 있는 표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모처럼 이 지역의 야당지지 성향을 드러내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별 득표 수

선거구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부평 1	윤덕영 13,973	조창용 16,773		강영택 12,445	김영현 3,076	이범호 2,595
부평 2	김상범 14,001	홍미영 20,737		김종복 8,193		
부평 3	이기본 16,453	강부일 20,135		이재권 9,362		
부평 4	김종봉 12,425	김건겸 15,581	박경수 6,193	박윤배 13,897	원민구 4,015	

제2대 동시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에 치러진 선거였다. 전국 투표율은 52.7%, 인천은 43.2%로 전국 평균에 10% 가까이 뒤쳐지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부평구의 경우도 부평 갑은 40.2%, 부평 을은 42.1%를 기록하여 여전히 인천 지역 평균보다도 낮은 투표율의 행진을 계속하였다.

시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6개 선거구 가운데 한나라 4, 국민회의 20, 자민련 1, 무소속 1명이 당선되어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비례대표 시의원으로는 한나라, 국민회의, 자민련이 각 1명씩 배정받았다. 부평구민들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지역구 의원 4명을 모두 국민회의 후보 가운데 선택하였다. 이 선거에서 조창용 의원은 정당을 자민련으로 바꾸었고, 김건겸 의원도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이 선거에서 조창용 의원은 3년 전에 비해 1/3 정도밖에 득표를 올리지 못했는데, 이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이 매우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별 득표 수				
선거구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부평 1	안영석 14,584	송종식 16,166	조창용 5,851	
부평 2		홍미영 22,833	김종복 12,885	
부평 3	박철원 10,541	강부일 13,447	오용세 4,658	신상은 2,873
부평 4	김건겸 12,584	손석태 12,604	김덕희 5,665	

제3회 동시지방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월드컵 축구 대회 기간 중 실시되었다. 이 해는 연말에 16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그렇지만 전국투표율은 4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인천은 다시 전국 평균보다 10% 가량 낮은 39.3%를 기록하였다. 부평구의 경우도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37.9%를 나타냈다.



인천광역시의회 현판식 (1995)

김대중 정부의 레임 덕 현상과 측근 비리 등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 한나라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옹진군을 제외한 24개 지역에서 야당의 공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옹진군에서는 민주당의 김성호 후보와 무소속 김필우 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야당의 전승을 가까스로 저지할 수 있었다. 2대 구의원 김덕희는 재도전만에 시의원 당선에 성공하였고, 3선 구의원을 역임한 고진섭도 시의회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부평구의원 가운데 시의회 진출을 시도한 두충근, 박남수, 김학태 의원은 모두 낙선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후보자의 정당이 당락을 좌우한 선거 분위기에서 보다 근인(根因)을 찾을 수 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별 득표 수				
선거구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부평 1	이범성 19,289	두충근 15,521		황선무 3,909
부평 2	고진섭 20,027	이후종 13,910		김성복 5,320
부평 3	이진우 16,880	장종남 11,873	박남수 7,565	
부평 4	김덕희 16,024	김학태 9,058	이용규 6,149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개표소(2006, 산곡중학교)

한편 제4회 동시 지방선거가 2006년 5월 31일 치러졌다. 이 선거의 투표율은 51.3%로 4년 전보다 약간 상승하였고, 인천의 투표율도 44.2%를 기록하여 약 5% 가량 올라갔다. 그러나 부평구는 42.7%의 투표율로 지난번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으며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의 반응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나 지역구 의원을 모두 한나라당이 석권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명숙 의원 한 명만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였다. 부평구의 당선자는 한나라당의 강문기(부평 1), 고진섭(부평 2), 강창규(부평 3), 최종귀(부평 4) 등이었다.

5) 부평구청장 선거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현직 시의원이던 최용규 후보가 90,826표를 얻어 차점자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초대 민선 부평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평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 수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 수	비고
1	민주자유당	서정식	정당인	55,727	
2	민주당	최용규	변호사	90,826	당선
3	자민련	하창수	정당인	23,308	
4	무소속	송청길	기타	10,656	
5	무소속	이도경	기타	10,915	

부평구민들은 시장 선거에서는 여당을 지지했지만, 구청장은 야당을 선택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야당 출신 구청장을 선출한 것이 부평지역의 야당지지 성향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기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인물을 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1998년 6월에 치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서는, 인천시의 국장과 임명직 구청장을 지낸 바 있는 국민회의 박수묵 후보가 한나라당 서정식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투표율은 40%를 조금 넘었을 뿐이며, '국민의 정부' 출범 첫 해로서 뚜렷한 선거 쟁점도 없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 수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 수	비고
1	한나라당	서정식	정당인	50,887	
2	국민회의	박수묵	공무원	62,933	당선
4	국민신당	이용기	정당인	22,989	

2002년 6월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반사 이익을 얻은 한나라당의 박윤배 후보가 69,329표를 얻어 현직의 박수묵 구청장을 2만 표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한편 창당 후 처음 구청장 후보자를 낸 민주노동당은 28,006표라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전 벽조판(2002, 부평1동사무소 앞)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박윤배	정당인	69,329	당선
2	민주당	박수묵	공무원	49,159	
3	민주노동당	한상욱	사회운동가	28,006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인 박윤배 후보가 10만 표 이상을 득표하여 압도적 표 차이로 열린우리당의 노재철 후보

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 수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 수	비고
1	열린우리당	노재철	정당인	29,481	
2	한나라당	박윤배	현구청장	107,038	당선
3	민주당	곽영기		15,566	
4	민주노동당	한상욱	정당인	27,577	

6) 부평구 의원 선거

1991년 최초의 구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계양구가 분리되기 이전이라 25개의 비교적 많은 선거구에서 총 45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구의원 선거는 시의원 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1~2 명을 선출하는 중소 선거구 방식을 채택하였고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다. 물론 정당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자의 약력을 보면 대강 어느 정당과 가까운지 유권들이 짐작할 수 있었다.

초대 구의원 당선자의 직업은 사업가가 대다수를 이루었지만,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농업 종사자들도 있었다. 한편 30년 만에 재개된 지방선거였기 때문인지 비교적 경합이 치열하지 않아 총 7개 선거구에서 11명의 구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제1회 구의원 당선자와 득표 수(45명)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평1동	홍성언(1,486) 강영택(4,027)	36 39	건설업 제조업	김영남
부평2동	이복란(1,500) 김정배(1,449)	54 53	인쇄업 상업	송신석
부평3동	김준봉(1,360) 황충식(1,630)	51 48	상업 약사업	김정식
부평4동	김종구(1,774) 황기연(1,811)	46 55	상업 상업	백창섭
부평5동	한천길(무투표) 성낙현(무투표)	63 54	마을금고 운수업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평6동	김봉하(무투표)	55	마을금고	
산곡3동	성하수(2,009) 하창수(2,073)	58 49	무직 임대업	윤현수
부개1동	이범성(무투표) 김선태(무투표)	49 60	건축업 사업	
부개2동	윤덕영(4,002) 장영호(1,854)	49 44	출판업 회사원	강기환
일신동	박윤태(1,842)	46	상업	최준영
십정1동	홍미영(2,592) 조영만(1,645)	36 57	사회사업 사업	박철수
십정2동	고진섭(2,511) 김유복(2,387)	34 45	상업 상업	김충석
산곡1동	서상대(2,050) 명윤식(2,768)	57 47	상업 상업	장석리
산곡2동	최용남(무투표) 김준봉(무투표)	42 56	약사업 사업	
청천1동	임성호(1,791) 조극상(1,743)	52 54	조경업 상업	이송훈
청천2동	윤재웅(무투표)	52	건축업	
효성1동	백용현(1,475) 이강억(1,795)	33 38	사업 제조업	이형우
효성2동	이상만(무투표)	51	서비스업	
계산1동	정왕섭(2,516) 김규문(2,554)	43 37	농업 회사원	윤심
계산2동	심수월(무투표) 이종민(무투표)	35 44	사업 축산업	
작전1동	김용헌(1,697) 이건용(2,383)	35 49	상업 임대업	곽선석
작전2동	문창원(2,188) 이노경(3,049)	56 44	계량증명업 금융업	노경남
서운동	김인배(723)	48	농업	정우현
갈산동	이재권(3,020) 김갑준(3,249)	36 54	회사원 상업	이종성
계양동	이현우(2,948) 권효택(2,682)	50 46	농업 상업	허찬행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 해 3월 계양구가 분리되고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4년 전보다 8명이 줄어든 37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구의

원 37명 가운데 홍성언, 이복란, 황윤식, 최용남, 임성호, 김갑준, 이범성, 고진섭 등 8명이 재선에 성공, 재선 의원 비율이 21.6%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당수 현직 의원들이 재출마하지 않아, 현직 의원 가운데 낙선자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와 득표 수(37명)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평1동	홍성언(3,170) 강태기(2,359)	40 43	구의원 정치인	이달룡
부평2동	이복란(무투표) 장헌식(무투표)	58 42	구의원 학원업	
부평3동	황충식(2,941)	52	구의원	김준봉
부평4동	유재홍(2,347) 엄융진(2,753)	45 45	정치인 약사	이역남
부평5동	이언기(2,699) 두충근(2,444)	52 35	기타 정치인	명태진
부평6동	김재용(2,621)	49	상업	김봉하
산곡1동	서상대(4,251) 장석리(2,998)	61 59	상업 상업	양희조
산곡2동	최용남(3,751) 우준영(3,166)	46 44	구의원 공무원	전일룡
산곡3동	김학태(5,669) 이종철(2,891)	48 43	건설업 체육관장	허은
산곡4동	배영선(2,628) 김덕희(4,995)	48 33	정치인 회사원	남홍락
청천1동	임성호(3,198) 유수용(3,034)	56 45	구의원 사업	신윤복
청천2동	오용세(1,967) 신현기(2,529)	45 49	상업 약사업	신민한
갈산1동	박남수(3,505)	50	회사원	이기천
갈산2동	김갑준(3,364) 정상규(3,317)	58 34	구의원 기타	최화자
삼산동	이기욱(3,313) 최천만(4,048)	43 41	회사원 기타	이운행
부개1동	이범성(3,491) 안원학(2,172)	53 39	구의원 체육관장	김선태
부개2동	최용희(3,043) 임헌일(2,499)	53 35	건설업 건설업	장영호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개 3동	이춘우(3,455)	47	광고업	박종보
일신동	권상철(1,256)	50	기타	장정석
십정1동	한병열(2,214) 이찬구(3,331)	58 50	공무원 건축업	김성태
십정2동	이보근(3,701) 고진섭(2,853)	53 38	공업 구의원	문맹열

첫번째 동시 지방선거는 1회 선거에 비해 경합이 다소 치열하여 부평2동 한 군데서만 무투표로 2명의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지역은 선거를 통해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1998년 6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총 21명의 구의원 가운데 15명의 의원이 재선에 성공, 현직 의원 재선율이 역대 최고인 71.4%에 이르렀다. 아마 소선거구제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구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져서 신참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선거에서는 또한 모든 지역에서 경합이 이루어져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와 득표 수(21명)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평1동	홍성언(2,574)	43	구의원	오세환
부평2동	장헌식(3,114)	45	구의원	이익성
부평3동	황충식(1,977)	55	의료업	양용의
부평4동	유재홍(3,279)	48	구의원	지태근
부평5동	두충근(3,549)	38	구의원	이언기
부평6동	김재용(2,383)	52	상업	장숙자
산곡1동	서상대(4,099)	64	구의원	양희조
산곡2동	이복관(4,063)	45	사회사업	이정기
산곡3동	노형진(2,663)	54	공무원	허 은
산곡4동	배영선(3,311)	51	구의원	남홍락
청천1동	유수용(3,016)	48	구의원	김상재
청천2동	신현기(3,481)	52	구의원	신민한
갈산1동	박남수(2,608)	53	구의원	허순구
갈산2동	정상규(3,123)	37	구의원	최화자
삼산동	이기욱(2,580)	46	구의원	이운행
부개1동	안원학(3,570)	42	구의원	이범성

선거구	당선자(득표 수)	연령	직업/경력	차점낙선자
부개 2동	최용희(2,581)	56	건축업	임헌일
부개 3동	김병환(3,957)	42	정당인	이춘우
일신동	장정석(1,822)	49	사업	권상철
십정 1동	이찬구(3,474)	53	구의원	이후종
십정 2동	고진섭(3,571)	41	구의원	조원풍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평구의원 선거 결과, 제2회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21명의 구의원을 선출했는데,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9명으로 그 비율은 이전 선거보다 줄어든 42.9%였다. 3개 선거구는 단일 후보만 입후보함으로써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당선자인 이언기, 배영선, 최화자 등은 모두 과거 2,500표 이상 득표한 경력이 있어, 다른 후보자들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구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패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인데, 2선 의원으로서 3선에 도전한 장헌식 후보는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자별 득표 수(21명)

선거구	당선자	차점 낙선자	후보자	후보자
부평1동	안동목(6,596)	신은호(4,192)		
부평2동	이익성(3,474)	장헌식(2,571)		
부평3동	황충식(2,626)	하창수(1,721)		
부평4동	유재홍(2,908)	강문기(2,907)		
부평5동	이언기(무투표)			
부평6동	김재용(2,161)	장숙자(2,042)		
산곡1동	조재국(3,108)	양희조(1,291)	서상대(1,238)	김상용(1,118)
산곡2동	이복관(3,643)	전현준(2,919)	최정열(2,098)	
산곡3동	노형진(3,939)	최승복(3,099)	이종철(2,144)	
산곡4동	배영선(무투표)			
청천1동	유수용(2,358)	김상재(2,079)		
청천2동	최만용(5,765)	박기수(4,931)		
갈산1동	이기본(2,619)	유시종(2,233)		
갈산2동	최화자(무투표)			
삼산동	박종혁(3,698)	황차원(2,953)	이기욱(2,240)	
부개1동	안원학(3,633)	김종선(2,936)		
부개2동	변옥균(3,314)	채수영(2,758)		
부개3동	이춘우(5,309)	김상곤(5,269)		
일신동	권상철(2,273)	장정석(2,236)		
십정1동	이찬구(3,511)	이종빈(2,410)		
십정2동	강신봉(4,372)	조원풍(3,312)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는 선거에 앞서 선거구 개편과 선거 방식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당 2~3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형 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에 최초로 비례대표제를 도입,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 득표를 올린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2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 결과 총 19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7명의 전직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었다. 부평구의 시의원 선거는 모두 한나라당이 승리한 데 비해, 구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비교적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이는 중대 선거구 도입에 따라 정당이 한 선거구를 독식할 수 없게 된 제도 개편에 그 첫째 원인이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당선자 가운데 4명은 전직 구의원 경력자들로서, 강한 야당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있는 후보가 당선됨을 보여주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 현황(19명)

선거구(동명)	당선자	소속 정당	비고
가 (부평1 · 4 · 5)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3대 의원 2, 4대 의원
나 (부개1 · 2 · 일신)	이재승 권상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 4대 의원
다 (부평2 · 6 · 산곡3)	장숙자 이익성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4대 의원
라 (부평3 · 십정1 · 2)	황정수 박창재	한나라당 한나라당	
마 (갈산1 · 삼산1 · 2)	박종혁 김영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4대 의원
바 (갈산2 · 부개3)	최화자 손철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4대 의원
사 (청천1 · 2)	유수용 정재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2, 3, 4대 의원
아 (산곡1 · 2 · 4)	최병윤 전현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정문희 김유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7) 지방의원 정치 무대 확대 진출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중앙 무대로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제4대까지 부평구에서는 100명에 가까운 구의원을 배출하였다. 이 가운데 시의원,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변호사 출신의 최용규 의원은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쳐 2000년 16대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17대에 재선에 성공하여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사회운동가이던 홍미영 의원은 초대 부평구 의원으로 출발하여 시의원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에 전국구 의석을 얻어 진출하였다. 한편 부평지역 대표 기업인 대우자동차 출신의 박윤배는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낙선하였으나, 2002년과 2006년에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고진섭은 구의원을 3회 내리 역임한 후 2002년 시의회에 진출, 2006년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4대 인천시의회에서 2기 문교사회위원장을 맡았고, 5대에서는 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고의원은 20년 가까이 지방의원을 역임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가장 장수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초대와 2대 구의원을 역임한 이범성 역시 2002년 시의회에 진출하여 1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김덕희도 부평구 의원을 1회 역임하고 2002년 시의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구(시)의원의 활동 무대 확대

성명	1991	1995	1998	2002	2006	비고
최용규	인천시의원	부평구청장				16, 17대 국회의원 당선
홍미영	부평구의원	인천시의원	인천시의원			17대 국회의원 당선 (전국구)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평구청장		
고진섭	부평구의원	부평구의원	부평구의원	인천시의원	인천시의원	
이범성	부평구의원	부평구의원		인천시의원		
김덕희		부평구의원		인천시의원		

3. 부평구의회의 구성과 활동

1) 의회의 기능과 권한

(1) 의회의 기능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 · 결산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한다.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요약하면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감시 기능 등 세 가지이다.

(2) 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은 예 · 결산과 조례를 심의 · 확정하는 의결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 청원 처리권, 자율권, 기타 선거권과 승인권 등이 있다.

(3) 상임위별 소관 사항

부평구 의회는 출범 초기 5개 상임위로 출범하였으나 이를 점차 축소하여 2006년 제5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도시경제위원회는 경제환경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였다.



북구 의회 본회의 광경 (1992)

2) 의회의 구성과 현황

(1) 의장단

부평구의회는 의원의 임기가 3년이던 제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반기로 나누어 2년마다 장단을 선출하였다. 의장 또는 부의장은 대체로 2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찬구 의원은 4년 간 의장을 역임하였고, 이익성 의원의 경우는 연속해서 두 차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역임한 사람은 김재용이다. 인천시 의회의 경우 다선 의원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었으나, 부평구의회의 경우는 4선의 유수용이나 3선의 고진섭이 의장단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 당선 횟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부평구의회의 의장단 구성

구분	원 구성일	의장	부의장
초대 전반기	1991. 4. 15	한천길	문창원
(부의장 교체)	1993. 4. 12	한천길	강영택
초대 후반기	1993. 7. 20	성낙현	강영택
2대 전반기	1995. 7. 7	이복란	이언기
2대 후반기	1997. 1. 6	황충식	김재용
3대 전반기	1998. 7. 7	신현기	장헌식
3대 후반기	2000. 7. 6	이찬구	이기욱
4대 전반기	2002. 7. 9	이찬구	안원학
4대 후반기	2004. 7. 7	김재용	이익성
5대 전반기	2006. 7. 7	권상철	이익성

(2) 상임위원회

1991년 4월 15일 개원 당시 구의회는 5개 분과위원회와 4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1992년 2월 21일 5개 상임위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등 4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1995년 3월 1일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북구 의회가 부평구 의회로 개명되었고, 이에 따라 의원 정수도 줄어들었다.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초대의회 후반기: 1993. 7. 20 현재)			
명칭	위원장	간사	위원
운영위원회	서상대	황충식	문창원, 김봉하, 권효택, 장영호, 이종민, 정왕섭, 심수월
총무위원회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용	심수월	김종봉, 문창원, 조극상, 김갑준, 하창수, 황충식, 명윤식, 김유복, 최용남, 김규문, 홍미영, 백용현
도시위원회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홍성언, 김용헌

제2대 부평구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경우 전, 후반기에 의원 이동이 약간 있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임기 내내 한 위원회에 소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임기 중간에 위원장 또는 간사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다.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제2대 의회)				
명칭	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의회운영 위원회	전반기	장석리	장헌식	최용희, 권상철, 신현기, 홍성언, 고진섭, 두충근, 정상규
	후반기	최용희	임헌일	김갑준, 이찬구, 김학태, 이춘우, 강태기, 이기욱, 안원학
총무위원회	전반기	서상대	유수용	한병렬, 김재용, 오용세, 엄융진, 이종철, 강태기, 장헌식, 고진섭, 임헌일, 두충근, 김덕희
	후반기	유수용	강태기	
사회산업 위원회	전반기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후반기	박남수	신현기	
도시위원회	전반기	김학태	홍성언	임성호, 이범성, 최용희, 이찬구, 이춘우, 유재홍, 우준영, 최천만, 정상규
	후반기	홍성언	이춘우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 5호, 1996.

※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경우 전반기 위원만 수록하였음.

1998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3대 의회에서는 도시위원회가 폐지되어 상임위원회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제3대 의회)

명칭	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의회운영 위원회	전반기	안원학	정상규	노형진, 이찬구, 유수용, 김병환, 고진섭
	후반기	두충근	이복관	신은호, 유재홍, 배영선, 정상규, 이기욱, 장정석
총무위원회	전반기	두충근	이복관	황충식, 유재홍, 서상대, 이복관, 유수용,
	후반기	노형진	배영선	이기욱, 고진섭
사회산업 위원회	전반기	이기욱	장정석	최용희, 이찬구,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후반기	김병환	신은호	안원학, 고진섭, 정상규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 8호, 1999.



도시경제위원회 현장 방문 모습(2004)

2002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4대 의회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를 도시경제위원회 개편하였다.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제4대 의회)

명칭	기간	위원장	간사	위원
의회운영 위원회	전반기	이기본	안동목	이익성, 유수용, 최만용, 최화자, 박종혁, 강신봉
	후반기	배영선	변옥균	강문기, 이덕주,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이춘우
행정자치 위원회	전반기	노형진	최화자	이익성, 황충식, 김재용, 조재국, 최만용,
	후반기	최만용	박종혁	박종혁, 안원학
도시경제 위원회	전반기	이춘우	강신봉	안동목, 유재홍, 이언기, 배영선, 유수용,
	후반기	강신봉	이덕주	이기본, 변옥균, 권상철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 12호, 2003.

2006년 5월 31일 지방 선거에 따라 선출된 제5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회는 구의원 정수가 21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배정 인원도 함께 줄어들었다.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제5대 의회)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최병윤	김유순	최용복, 황정수, 김영희, 정재서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황정수	이익성, 최화자, 전현준, 유수용, 정재서, 김유순, 정문희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최용복	신은호, 이언기, 김영희, 이재승, 장숙자, 박종혁, 최병윤

3) 의정 활동

(1) 회의 개최 실적

연도별 구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99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80일의 회기 동안 의회를 개회하였다. 정기회의는 1999년까지는 연 1회 개최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례회로 이름을 바꾸어 연간 2회 개최되었다. 정기회의(정례회)는 보통 34~35일 간 개최하였는데, 1998년에는 29일 간만 열렸다. 회의 개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1대 의회에서 2대 의회로 임기가 넘어가는 1995년이다.

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 회수	회의 차수	회의 개최일 수 (정기 회의)	비고
1991	7	1-7	57(30)	
1992	10	8-17	60(30)	
1993	11	18-28	60(30)	
1994	10	29-38	79(35)	
1995	13	39-51	80(35)	
1996	8	52-59	79(34)	
1997	8	60-67	80(35)	
1998	8	48-75	80(29)	
1999	6	76-81	80(33)	
2000	8	82-89	80(35)	
2001	8	90-97	80(35)	
2002	8	98-105	80(34)	
2003	8	106-113	80(35)	
2004	10	114-123	80(35)	
2005	9	124-132	80(34)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 5호~15호

(2) 안건 처리 현황

부평구 의회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 의회의 연도별 자료 기록 방식에 일관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기는 하나, 매년 10건 내외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한 것은 역시 조례 제·개정과 폐지로서 매년 최소 30건 이상을 처리하였다.

안건 처리 현황

연도	예산	결산	감사	조례	규칙 · 규정	승인 (동의)	결의 · 건의	기타	청원	진정	의견 청취	공유 재산
1991~ 1994	17	4	4	139		39	32	44	2	95		
1995	4	1	1	52		2	7	31		15		
1996	4	1	1	47		2	2	3	16	28		
1997	3	1		47		1		24			8	3
1998	4	1		46		3	5	19	2			1
1999	3	1		46		3	15					1
2000	4	1		105		1	5	21				3
2001	3	1		30	1	2	1	13				4
2002	4	1		33		5	2	22	1			3
2003	3	1		58	1	1(3)	1	14	1		4	3
2004	3	1		56	2		4	15			2	7
2005	4	1		59	1	(2)	5	15			1	4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 5호~15호.

※ 1991~1994년 간 선임 · 선출(10)을 기타에 합산하였음.

(3)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1997)

구의회는 매년 2개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예산 · 결산 심사,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연간 2~3개 고정적으로 개설되었지만, 5개 년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타 특별위원회는 주로 조사 목적의 특별위원회가 대부분이었는데, 예외적으로 2004~2005년 간 해외 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 1991년의 공해방지특위와 1997년의 국공유재산관리조사특위 및 1999년의 세외수입조사특위 등은 의회의 일상적 활동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벌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연도	예결산 특위	기타특위	기타특별위원회 명칭(위원장)	활동기간
1991	3	3	공해대책특별위(이복란) 생활쓰레기조사특위(윤재웅)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김선태)	7. 1~12. 31 11. 11~11. 16 12. 2~12. 21
1992	3			
1993	3	1	불법시설물 실태 조사특위(이복란)	9. 10~11. 15
1994	2	2	생활쓰레기실태조사특위(조극상) 세무비리 진상조사특위(김선태)	1. 1~3. 31 9. 15~11. 18
1995	3	1	'93일반회계착오분 조사특별위(황충식)	95. 12. 31~96. 9. 30
1996	3	1	'93일반회계착오분 조사특별위(황충식)	95. 12. 31~96. 9. 30
1997	2	1	국공유지재산조사특위(두충근)	
1998	3			
1999	2	2	세외수입조사 특별위(류수용) 수해대책조사 특별위(정상규)	1. 1~6. 30 9. 11~12. 10
20003	2		조례정비조사 특별위(박남수) 청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장정석)	1999. 9. 11~2000. 9. 10 2. 1~12. 31
2001	2			
2002	3			
2003	3			
2004	2	2	조례정비조사특별위(최만용) 해외교류추진특위(권상철)	4. 18~12. 17 10. 18~2005. 6
2005	3	2	행정서비스헌장이행실태조사특위(조재국) 해외교류추진특위(권상철)	10. 18~2005. 4. 17

(4) 민원 처리 활동

부평구 의회에서 발간한 『의회보』를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을 기록하지 않은 해가 더 많으나 매년 수 건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였다. 접수된 민원은 그 취지를 달성하거나 미달성인 경우 또는 검토 중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민원이 철회된 경우도 있었다. 민원 가운데 청원은 그 수가 매우 적었고 대다수는 진정이었다. 진정의 경우는 집단 민원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았는데, 1) 복지시설 건립, 2) 행정서비스 확대, 3) 예산 또는 보상금 지원, 4) 건축이나 재산권 보호 요청 등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1995년의 경우 아파트 공사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한 진정, 공원 녹지 부지 개발을 요청하는 진정 등이 대표적인 집단 민원이었다. 교통, 도시가스 등 공공

재 공급에 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어 처리하였는데, 대중버스 노선 증설 요청, 도시 가스 배관 확장 요청 등 단순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5년에 접수된 지하도 상가 위 횡단보도 설치 반대 진정과 같이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고 첨예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는 민원들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았다.

(5) 연도별 주요 활동

① 제1대 의회

1991년,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들이 3개월 간 현장을 조사 방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1994년에는 세무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65일 간 활동하였다. 조사 특위는 세금 횡령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 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장기 근속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같은 사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② 제2대 의회

1996년 9월 16일, 제56회 임시회에서 부평미군부대(캠프 마켓)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7년에는 국공유지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유지 시 전산자료 대상 6,672건의 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43%인 3,773건을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점유와 제3자 임대 및 자료 누락 등의 사례를 밝혀내어 약 10억 원의 세외 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부평구의회 신청사 개청식 (1997)



③ 제3대 의회

1998년 9월 14일, 제 73회 임시회에서는 인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건의문에서 부평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660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더 이상의 감축이 불가하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1999년에는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98년 기준 부평구

의 지방세가 약 220억 원(21.3%)이고 세외수입이 353억 원(34.3%)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판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담당 공무원들과 연찬회를 벌였으며 세외수입 특별관리를 당부하였다. 2000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우선 82회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어 84회 임시회에서는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89회 정례회의에서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10월 23일 88회 임시회에서는 자치단체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98년의 건의문을 재확인하면서 공무원 정원 감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2001년 93회 정례회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문에서 구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할 것과 공무원 노조 직장협의회 대표 징계방침 보류를 요구하였다.

④ 제4대 의회

2002년 12월 16일,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 전국 공무원 노조 연가 투쟁 징계에 따른 건의문을 재차 채택하였다. 같은 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처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2003년 4월 19일에는 경차 기준을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려는 '경차 기준 규격 확대'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구의회는 지역 사회의 핵심 기업으로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겪우 면한 GM대우가 이 조치로 인해 개발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신명요양원 방문(2004)

2004년,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45건의 조례 중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44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2005년 8월 31일에는 제4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입하려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11월 3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중앙 정부의 기도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4)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갈등

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는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래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안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양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의회 회기조차 개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양자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기관대립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부에 다소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상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평구의 경우 1991년부터 2006년 사이 5대에 걸쳐 의회를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협력 사례들이 있었으나, 여론의 주목을 크게 끌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즉,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특기할 만한 협력과 갈등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협력 사례 : 아동복지 기금 설치

IMF 경제 난국으로 말미암아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자, 구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 1999년 구의회 주도 하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기금이 신설되어 결식아동 문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집행부도 적극 협력하였다. 이 기금은 2006년 현재 약 7억 원의 규모이며, 매년 2,7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으로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갈등 사례 : 농협건물 매입 부결

신복사거리 소재 부평농협 건물을 구에서 70억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의회 총무위원회 재산 매입 심의 과정에서 구청과 농협 간 유착 의혹 등 석연

치 않은 이유로 인해 부결되었다. IMF 사태 직후였던 당시 건물 가액이 매우 낮았고 국비 6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라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갈산1동사무소, 민방위 교육장, 정보화 교육장 등을 일거에 확보할 좋은 기회였으나, 위원회에서 가부 동수로 부결함에 따라 국비 지원금과 저리 융자금 25억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지방자치제도와 부평의 정치 발전 과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재개를 계기로 부평의 정치는 이전보다 대폭 활성화되었다. 선출직 구청장제도와 지방의원의 활동 등으로 인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여론형성 경로가 다양화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주민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부평의 각종 정치 주체들은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에서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활동 외에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부평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사와 재정 면에서 취약한 자주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인사 면에서 부평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700명 이상으로 같은 인구 규모의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1인당 주민 수가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구는 표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1995년 이래 꾸준히 노력하였고, 2000년 3월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되나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재정의 측면에서도 인구 56만의 부평구 예산은 약 2,000억 원 정도로서, 인근 부천시(인구 85만)의 8,000억 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부평구의 경우 인천시 예산 사업을 추가로 감안해야 하겠으나, 경제특구와 구도심 개발 등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서부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부평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지원 홀대론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구민들은 '부평시'로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 재정과 적정 수준의 공무원 인력 확보 문제는 2006년 현재 부평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인력과 재정 수준이 지속될 경우 부평구민들은 가장 열악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비전도 요원한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위 두 가지 개선 과제가 시급히 인천광역시 또는 전국적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모으는 것이 부평구가 당면한 주요 정치 발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제2절 산업구조

199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이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환위기(IMF)사태였으며, 기업 구조적 측면에서는 벤처기업의 열풍이었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외 여러 원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그 결과 IMF의 영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기도 하여 국민들이 금반지, 목걸이, 다이아몬드까지 팔아서 부채를 갚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금융 및 실물 경제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져 실업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억제가 되었다. 이에 비해 IMF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정부 지출은 급감했다. 따라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기업분할 매각, 부실기업 퇴출, 국내외 기업 간의 M&A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정부 지출의 삭감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선별적인 지원정책이 크게 축소되어,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위축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수출전선에 어려움이 많았고, 대외 신인도가 회복될 때까지 외화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단기원리금 상환을 위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MF 자금 지원을 받

※ 이 글은 진대현(인하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이 책 임집필하였음.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 (1998)

고도 외화공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환차손에 의한 부담이 커 원유,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 급등으로 원가 상승 압력까지 받게 되었다.

또한 금리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퇴출과 영업정지, M&A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시중의 자금이 압박을 받아 금리가 높아져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전반적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또 하나의 영향은 바로 벤처 열풍이었다. 벤처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생 기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한국 벤처의 태동기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기반을 구축하고 1998년을 지나 IMF의 위험을 견디며, 그동안 갖춰진 인프라에 IMF를 통한 모험심과 젊은 피의 풍부한 공급으로 인하여 한국 벤처의 도약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벤처에 대한 열풍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대전 및 충남 그리고 인천 순으로 주도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었다.

인천의 경우 벤처는 2001년도 말을 기준으로 567개로 전국 대비 5.5%로, 인천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벤처기업집적 시설이 주안동에 2000년에 설립한 효과빌딩을 시작으로 신현동에 훼스텍 벤처타운(2000. 4. 14), 논현동의 A.T.I 빌딩(2000. 5. 8), 주안동의 롯데 하이텔(2000. 5.8), 옥련동의 송도 벤처텔(2000. 15. 15)의 5개 시설과 부평구 관할의 청천동에 유테크 벤처빌딩(2000. 12. 19)을 포함하여 모두 6개로 4%의 집적시설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1. 재정

부평구의 재정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예산 현액과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 IMF의 영향으로 인해 1998년의 예산 현액이 조금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별예산현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평구의 예산 및 잉여금 변동 (단위 : 천 원)

연 별	예 산 현 액			잉 여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1997	121,464,383	111,202,035	10,262,348	22,940,509	18,930,795	4,009,714
1998	116,682,738	104,427,368	12,255,370	14,646,871	9,338,917	5,307,954
1999	134,420,729	119,082,031	15,338,698	21,495,809	14,958,216	6,537,593
2000	149,041,081	128,234,240	20,806,841	29,135,436	22,219,396	6,916,040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부평구의 세입 및 세출 변동 (단위 : 천 원)

연 별	세 입			세 출		
	계	일 반	특 별	계	일 반	특 별
1997	120,816,134	109,710,102	11,106,032	97,875,625	90,779,308	7,096,317
1998	117,276,891	103,152,770	14,124,121	102,630,020	93,813,852	8,816,168
1999	133,442,039	117,801,619	15,640,420	111,946,230	102,843,403	9,102,827
2000	148,403,677	127,558,327	20,845,350	119,268,240	105,338,930	13,929,310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부평구 내 지방세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직접세에 의존하고 있다. 년도별 지방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총 지방세액이 1,566억 9천4백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00년에는 1,639억 1천8백만 원으로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부담액은 거의 30만 원 정도에서 변동없이 유지되었으며, 세대당 부담액은 1997년 942,226원에서 2000년에는 927,153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평구의 지방세 변동 (단위: 백만원)

연별	지방세			1인당 부담액(원)	세대당 부담액(원)
	계	직접세	간접세		
1997	156,694	154,464	2,230	301,430	942,226
1998	156,694	154,228	2,466	296,578	922,592
1999	156,694	154,228	2,466	296,578	922,592
2000	163,918	160,736	3,182	299,930	927,153

출처 : 『부평구통계연보』, 부평구, 해당 년도.

2. 농업

부평구의 농업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 많은 농지가 택지나 공장 부지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규모 농업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 농가 및 농가 인구

IMF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의 농가 및 농가 인구는 나대지로 있던 유휴농지가 개간된 이후 갑작스런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IMF로 인하여 실직한 도시 근로자들이 귀농을 선택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었다.

한편, 2003년에도 농가 수가 전 해의 310가구에서 1,265가구로 갑작스럽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업 농가의 증가보다는 1종 겸업농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겸업 농가의 증가는 도심 근교의 주말농장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인구들이 주말에는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기도 하였고, 원예나 특수 작물과 같은 분야의 고소득 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수 작물 재배와 같은 겸업 농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부평구내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 (단위 : 가구, 명)

연 별	농 가				농 가 인 구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합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1997	169	92	24	53	561	269	92	200
1998	318	301	17	-	1,115	1,055	60	-
1999	381	294	36	51	1,271	981	120	170
2000	316	270	46	-	1,119	948	171	-
2001	316	270	46	-	1,110	940	170	-
2002	310	267	43	-	1,101	933	168	-
2003	1,265	378	887	-	1,265	378	887	-
2004	1,499	383	1,116	-	1,499	383	1,116	-

출처 : 『부평구 통계 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2) 경지 면적

부평구의 경지 면적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6ha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2000년도의 경작지 축소는 부평구 내 삼산지구의 택지 개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논은 2001년 60ha에서 2004년 47ha로 감소하였으나, 밭은 2001년 19ha에서 2004년 29ha로 오히려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농지보다는 산이나 나대지를 밭으로 경작하며 주말농장이나 소규모 특수 작물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구내 경지 면적 변동 추이 (단위 : ha)

연 별	합 계	논	밭
1997	170	159	11
1998	182	156	26
1999	182	156	26
2000	86	60	26
2001	79	60	19
2002	79	47	32
2003	76	47	29
2004	76	47	29

출처 : 『부평구 통계 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3. 사업체 현황

1) 외환 위기 이후 산업의 변화

부평구 내 4명 이하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는 1997년 IMF의 영향으로 21,472개 사업체와 종사자 37,791명에서 1998년 20,454개 사업체와 25,393명의 종사자로 줄었다가 2000년 23,048개 사업체와 39,868명의 종사자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24,883업체 43,456명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100명 미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연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5		0~99명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97	21,472	37,791	1,767	11,084	735	9,796	381	11,221	152	10,160
1998	20,454	35,393	1,421	8,890	621	8,381	359	10,495	133	9,262
1999	21,931	37,941	1,691	10,596	756	10,060	399	11,606	155	10,593
2000	23,048	39,868	1,920	12,139	881	11,669	451	13,281	161	10,940
2001	23,019	41,335	2,231	14,101	967	12,646	470	13,900	153	10,260
2002	24,024	43,432	2,462	15,535	994	12,984	493	14,538	158	10,710
2003	25,306	44,428	2,361	14,630	913	11,892	470	14,885	174	11,885
2004	25,517	44,858	2,255	13,999	814	10,715	473	14,079	164	10,987
2005	24,883	43,456	2,431	15,298	944	12,389	486	14,664	198	13,560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해당 년도.

이와 마찬가지로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규모의 사업체들 역시 IMF인 1997년 수준의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2000년에 전부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기업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업을 하였거나 또는 그 전보다 규모가 작아진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는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중규모 업체들의 수와 종업원 수가 1997년 이전보다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부평구 내 전체 사업체의 96%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비율도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부평구 재정의 원천인 기

업과 근로자들이 전부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평구에서의 기업지원 정책은 이런 100인 미만의 소형 기업들을 적극 활성화 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100명 이상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단위 : 개, 명)

연 별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97	69	11,220	11	4,234	4	2,616	5	6,870
1998	54	9,597	16	5,960	5	3,186	3	4,817
1999	54	9,496	12	4,663	4	2,666	4	18,788
2000	56	9,398	9	3,211	5	3,821	3	14,503
2001	62	10,003	11	3,696	4	2,758	3	10,127
2002	64	10,390	8	2,984	5	3,168	3	8,265
2003	67	9,640	13	4,890	3	1,862	3	8,767
2004	76	11,259	8	3,158	3	2,149	2	8,604
2005	74	11,960	7	2,974	3	2,119	1	8,823

출처 : 『부평구 통계 연보』, 부평구, 해당년도.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1997년 69개 업체 11,220명의 종사자에서 2000년에는 56개 업체 9,398명의 종사자로, 2001년 63개 업체 10,003명의 종사자에서 2005년에는 74개 업체 종사자 11,9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300~499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11개 업체 4,234명 종사자 규모에서 1998년 16개 업체로 증가 했다가 2000년에는 9개 업체 3,211명의 종사자로 줄어들며 다시 2005년에는 7개 업체에 종사자 2,97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00미만의 소규모 기업보다도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데, IMF의 여파를 가장 많은 받은 규모의 업체들은 이들 100인에서 500인 미만의 업체들이었기 때문이며, 이들 업체들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원 최적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을 통한 업체 생존에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평구에 존재하는 300인 이상 중, 대형 기업체 수와 종업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미치는 산업 내 영향도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1)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가 1997년 297개 업체에서 1998년 18개 업체로 급감하였다. 이는 음식료 제조업이 IMF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맞은 업체들이며, 대부분 5인 이하의 영세업체들이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였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는 2001년도에 28개 업체 989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 이르면 44개 업체가 1,002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 수가 16개 늘어난 데 반해 종업원 수는 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대규모 종업원보다는 소형 업체가 증가하고, 기존 기업들도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원 대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공장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음 식 료 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1997	297	1,534
1998	18	1,149
1999	19	1,010
2000	24	986
2001	28	989
2002	40	1,133
2003	36	827
2004	38	935
2005	44	1,002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2)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부평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던 섬유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업체 수나 인원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미 섬유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분야 역시 음식료품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IMF로 인한 금융위기로 주로 영세한 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부평 수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997년 240개 업체 2,125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8년 58개 업체 2,004명의 종업원, 2005년에는 74개 업체 1,37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의 경우 업체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의 변화가 적은 이유는 주로 4인 이하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컸기 때문이다.

섬유제품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도	섬 유 제 품		의복 및 모피제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40	1,549	240	2,125
1998	33	832	58	2,004
1999	40	1,061	56	2,103
2000	44	1,118	71	2,405
2001	47	1,152	85	2,394
2002	47	1,024	94	2,322
2003	41	1,081	84	1,778
2004	44	1,006	81	1,420
2005	38	712	74	1,375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 년도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1997년에는 40개 업체 998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며, 1998년 25개 업체 959명의 종업원, 1999년에는 22개 업체 931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2000년에는 24개 업체 1,074명이 종사함으로 종업원의 수는 IMF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2004년에는 21개 업체가 849명의 종업원을 보유하며 감소하였다. 이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위험성이 높은 3D업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3D 업종 기피 현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업체수가 1997년 133개에서 2000년에는 66개로 줄었고 종사자 수도 1997년 1,616명에서 2000년에는 1,01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3개사 1,304명에서 2005년 104개 2,094명으로 21개사 79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도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40	998	133	1,616
1998	25	959	52	874
1999	22	931	65	1,110
2000	24	1,074	66	1,016
2001	24	948	83	1,304
2002	19	771	88	1,424
2003	18	760	88	1,414
2004	19	809	96	1,542
2005	21	849	104	2,094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4) 비금속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의 변화

비금속 광물 제조업의 경우, 1997년 52개 업체 993명의 종업원에서 2000년에는 8개 업체 198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 이전부터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온 사업체로서 대부분 업체들이 IMF 이전에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해오던 사업이다.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의 경우, 1997년 41개 업체 345명의 종업원에서 2000년에는 23개 업체 218명의 종사자로 각각 56%와 63% 정도로 축소되었다.

비금속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도	비금속 광물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52	993	41	345
1998	10	305	15	259
1999	14	242	18	312
2000	8	198	23	218
2001	11	188	23	168
2002	13	198	27	209
2003	13	208	20	127
2004	14	209	21	146
2005	14	213	19	125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5)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1997년 73개 업체 283명의 종업원에서 2000년에는 14개 업체 288명의 종사자로 업체 수는 20% 수준 정도로 줄었지만 인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목재산업이 점점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펄프 및 종이제품은 1997년 37개 업체에서 1998년 13개 업체로 급속히 줄었으나 1999년 15개 업체, 2000년 19개 업체로 점차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도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및 기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73	283	257	4,210
1998	12	131	83	3,639
1999	16	207	89	3,273
2000	14	288	90	3,367
2001	10	120	87	3,199
2002	9	80	83	2,976
2003	9	113	75	2,243
2004	9	105	73	1,392
2005	8	80		

(6) 펄프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복제업

출판 인쇄 및 복제업은 전통적으로 1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이들 영세 업체들이 시장에서 많이 퇴출되며, 1997년 107개 업체 249명에서 2000년에는 14개 업체 154명의 종업원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펄프 및 종이제품의 경우 2001년 9개 업체 111명에서 2005년 14개 업체 142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환경의 자동화와 더불어 종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인쇄 및 복제업 역시 대규모 상가 등의 전단지나 지자체의 선거 등으로 인하여 인쇄매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1년 이후 종업원 수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복제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37	307	107	429
1998	13	133	6	100
1999	15	151	9	268
2000	19	171	14	154
2001	9	111	15	208
2002	17	159	14	347
2003	19	170	16	354
2004	16	149	20	355
2005	14	142	25	387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7)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

제 1차 금속산업은 1997년 77개 업체 596명의 종업원에서 1998년 19개 업체 316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30개 업체 404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은 1997년 462업체 2,998명에서 의 작업자가 종사하던 중 2000년에는 174개 업체 2,39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93개 업체 2,433명에서 2005년 293개 업체 3,825개 업체로 다소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이는 부평 국가수출산업단지가 2000년에 들어 주로 금속 제품 중심으로 개편하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늘은 것과 연관이 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1997년 502개 업체 5,343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201개 업체 4,52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07개 업체 4,422명의 종업원에서 186개 업체 3,42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 산업은 IMF로 인해 소형기업들이 정리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 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77	596	462	2,998	502	5,343
1998	19	316	136	2,557	135	2,877
1999	20	316	170	2,376	176	4,452
2000	21	258	174	2,395	201	4,522
2001	24	307	193	2,433	207	4,422
2002	26	315	251	2,822	188	3,678
2003	28	317	271	3,348	173	4,035
2004	30	335	290	3,502	189	3,621
2005	30	404	293	3,825	186	3,423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8) 사무용 기계, 기타 전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제조업의 경우 1997년 14개 업체 623명의 종업원에서 IMF의 영향으로 1998년 9개 업체 53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 16개 업체 65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8개 업체 63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용 기계 제조업은 주로 컴퓨터 관련 업체들에 해당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2002년까지 벤처 및 IT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급성장하였다가 이후 급격하게 시장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도산과 퇴출이 많이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 기계, 기타 전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의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4	623	154	1,163	163	5,410	68	925
1998	9	534	57	944	76	2,626	29	1,022
1999	16	655	64	1,078	102	3,027	30	992
2000	18	637	82	1,347	114	3,161	36	1,145
2001	14	640	87	1,447	121	2,952	43	989
2002	16	576	95	1,289	120	3,026	42	870
2003	15	454	100	1,281	121	3,431	39	819
2004	11	361	107	1,506	118	3,618	42	1,105
2005	13	455	109	1,566	121	3,366	43	738

출처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기타 전기 변환장치의 사업체 수는 1997년 154개 업체 1,163명에서 1998년 57개 업체 944명, 1999년 64개 업체 1,078명, 2000년에는 82개 업체 1,3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의 경우 1997년 163개 업체 5,410명에서 2000년 114개 업체 3,16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정밀 광학 기계 제조업에서는 68개 업체 925명에서 1998년 29개 업체 1,022명, 1999년에는 30개 업체 992명, 2000년에는 36개 업체 1,14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1997년 114개 업체 5,075명의 종업원에서 1998년 46개 업체 18,182명, 2000년에는 52개 업체 12,90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종사자 수가 1998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IMF 당시 자동차 산업이 기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었던데 반해, 1999년 하반기부터 대우사태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 이유이다. 2001년 40개 업체 8,708명의 종사자에서 2005년 33개 업체 9,126명으로 제조업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418명이 증가하였다. 이들 업종은 고용창출이 큰 업종으로 주로 GM 대우 자동차와 관련되어 구조조정을 통해 감소되었던 인원들이 GM 자동차의 정상화에 따라 재고용된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재생재료 가공처리 제조업 변화 (단위 : 개, 명)

연 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14	5,075	9	86	1	11
1998	46	18,182	5	102	–	–
1999	52	13,336	2	28	–	–
2000	52	12,907	4	74	–	–
2001	40	8,708	5	53	1	10
2002	30	13,845	4	83	1	10
2003	32	13,187	5	49	1	12
2004	33	11,811	3	39	–	–
2005	33	9,126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 년도 ; 『통계청 주요사업 통계연보』.

기타 운송장비 경우, 1997년 9개 업체 86명의 종업원에서 2000년에는 4개 업체 7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 및 기타 산업은 1997년 257개 업체 4,210명의 종업원에서 2000년에는 90개 업체 3,3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1997년 1개 업체 11명이 종사하다 1998년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개 업체 53명에서 2004년 3개 업체 39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2004년에는 퇴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평구 내 제조업들의 특징은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96.2%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밑바탕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생산 등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자금면이나 기술면, 경제면에서 약한 실정에 있어 이를 균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평구에서 실시한 2005년 지원 사업으로는 ① 중소기업 육성기금 66억 원 지원, ② ISO 9001 인증 획득 지원, ③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④ 산업기술 정보 지원, ⑤ 해외규격인증지원, ⑥ 중소기업인상 시상, ⑦ 경영컨설팅 지원, ⑧ 특허지원, ⑨국제통상 촉진 사업 추진 ⑩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등을 시행하였다.

4. 상업 및 유통

부평구의 상업은 1990년대 후반 밀어닥친 IMF의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주변 상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99년 하반기의 대우사태로 인해 대우 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이를 반대하던 대우 자동차 부평 공장 노조의 장기적인 노사분규는 부평경제의 상업활동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해고 근로자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인해 주변의 상권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IMF 이전의 부평상권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하도상가와 같은 도매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상권은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부평구의 시장 규모는 1997년 19개 소이던 것이 2000년 총 21개 소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형 할인점의 증설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

해 부지 면적 또한 1997년 88,598㎡에서 2000년 102,826㎡로 증가하였다.

부평구 시장 규모 변화 (단위 : 개소, ㎡)

연 별 동 별	개소	면 적	
		부 지	건 물
1997	19	88,598	206,798
1998	19	88,598	206,798
1999	21	102,826	295,697
2000	21	102,826	295,697

출처 : 『부평구통계 연보』, 부평구, 해당 년도.

2006년 현재 부평구에는 지하도상가 5개, 일반소매시장 11개, 백화점 1개, 대형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부평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현대화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평구에서는 2005년 2월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부평진흥종합시장과 십정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2005년 11월 완공하였으며, 구 공보관 자리에 공영주차장(185면)을 건축하여 고객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아지하도상가, 성일로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총 1,376개의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나 지하도상가 등 기존 상권들은 대형할인점의 개설과 함께 다소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부평시장 전경(2004)

우리나라 할인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킴스클럽의 경우나 외국계 할인점으로는 국내에 처음 들어온 마크로 같은 경우 초기 운영방식은 조합형식의 회원제 할인점이었으나, 이마트가 본격적인 할인점의 방향을 회원제에서 일반 소비자 층으로 바꾸면서 '백화점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은 재래시장 가격으로 경쟁' 이라는 슬로건 하에 운영되면서 그 뒤를 잇는 많은 대규모 할인점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많은 시장들과 도소매상들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부평구 관내 시장 및 백화점 현황 (2006현재)

시설명	소재지	층수(지상/지하)	건축연면적(㎡)	영업장면적(㎡)
롯데백화점	부평동 70-127	6(6/3)	28,193	28,163
롯데마트	부평동 738-21	3(3/0)	55,915	55,915
이마트(부평점)	갈산동 171	5(5/2)	36,931	32,984
현대부평몰	산곡동 311-151의 1필지	8(5/3)	33,965	25,598
부평건영상가	부평동 252-29	1(1/1)	11,768	11,768
대동상가	갈산동 361-4	4(4/1)	3,433	3,433
경남종합상가	산곡동 142-3	5(3/2)	10,864	10,864
동암프라자	십정동 406-3	5(5/1)	5,273	5,327
국제프라자	부평동 240-7	4(4/1)	14,086	14,076
아울렛아이즈빌	청천동 386외 2필지		40,563	36,990
부일종합시장	일신동 107	3(2/1)	2,800	2,800
부평자유시장	부평동 225-1	2(2/0)	1,874	1,874
십정종합시장	십정동 321-6	1(1/0)	2,743	2,743
진흥종합시장	부평동 252-52	1(1/0)	3,154	3,154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부평동 224-1	1(0/1)	6,164	5,095
대아지하도상가	부평동 224-1	1(0/1)	7,822	7,822
시장로타리 지하도상가	부평동 224-2	1(0/1)	5,158	5,158
신부평로 지하도상가	부평동 224-3	1(0/1)	3,408	3,408
부평역 지하도상가	부평동 224-4	1(0/1)	9,189	9,189
부평역사 쇼핑몰	부평동 738-21	1(0/1)	56,178	56,178
한남시티 프라자	부평동 192-6	10(10/4)	7,230.5	17,230

출처 : 부평구, 『구정백서』, 2006.



롯데백화점(2002)

또한 대형 할인점의 경우 부평구 갈산동에 1995년 12월에 처음 오픈을 한 이마트와 2000년 2월에 오픈한 롯데마트 부평역사점 등이 있다. 이마트 부평점은 1995년 12월 1일에 매장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의 4,525평 규모와 주차시설 600여 대 분을 갖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초대형 할인점이다. 지하1층부터 3층까지의 매장에 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가전, 의류, 잡화, 스포츠 등 38,0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여 ONE-STOP쇼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마트가 자체 개발한 자연주의, E-BASIC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객 편의시설로 동물병원, 치과, 병원, 약국, 네일존, 헤어샵, 여행사, 수선, 열쇠, 포토센타 코너가 있다.

또한 롯데마트 부평점은 인천시 부평역사 내에 자리잡은 국내 최초,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된 할인점으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사 내 의류, 잡화, 신선, 가공식품, 가전, 생활용품 등 25,0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과 멀티플랙스 영화관(5개 관), 웨딩홀, 뷔페, 종합클리닉, 지하식당가 등과 연계된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의 환승역이며, 인천시내버스의 교통거점으로서 십분 이용되고 있다.

5. 금융

1) 금융위기와 지역 금융산업의 붕괴

1990년대에 들어서 금융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전략을 대형화 · 겸업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종 금융기관은 물론 이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거대 금융기관이 탄생하는 등 세계금융시장이 급변하였다. 우리나라도 금융개혁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민족적 수난인 IMF를 자초하는 원인을 제공한 금융권은 정부의 주도 하에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을 감수해야만 했다.

IMF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주요 방향은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처리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강화 등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아래 은행권의 경우 BIS 비율을 기준으로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IMF 직후 부실이 심각했던 서울, 제일은행은 감자 후 정부 출자로 구제하고 동화, 경기, 동남, 대동, 충청 등 5개 은행은 우량 은행에 계약 이전 방식으로 퇴출시켰다. 이때 인천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인 경기은행도 함께 퇴출되었다.

정부는 지방은행, 지방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의 누적, 자산 운영의 실패 등으로 부실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

고 판단하여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은행의 퇴출과 피합병은 물론, 제2금융권도 지방종금사의 경우 IMF 이후 17개 지방종금사 중 70%인 12개 사가 퇴출되어 5개 지방종금사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지방생보사의 경우도 모두 부실 금융기관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 인천지역 상공인이 설립한 국제생명보험을 포함해 BYC, 태양생명이 퇴출되었으며 남아 있던 6개 지방생보사도 이행계획서나 이행각서 제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밖에 신세기투자신탁은 영업인가 취소, 한남투자신은 국민투신에 인수되었으며, 서민지역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도 금융사고와 부실채권 누적으로 상당수가 부실화되어 대신, 흥성, 정우 등 지역토착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가 잇따라 문을 닫았다.

2) 금융기관 현황

인천지역 시중 은행의 점포 동향 중 우선 주목할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로 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라, 1997년까지 점포수가 증가하던 추세가 반전되어, 98년에 일반 시중 은행의 점포 수가 20% 이상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포 수 감축에는 은행의 인수, 합병이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한미은행에 흡수된 인천지역 지방은행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한 점포 수의 감소가 전체 점포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에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인한 점포수가 감소, 공적자금투입과 더불어 자구노력의무가 부과된 서울은행의 지점의 지점 축소가 중요한 점포수 감소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천지역의 환경은 부평에 소재한 시중 은행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의 부평지역의 금융기관 현황은 1997년 총 54개 소에서 2000년 41개 소로 그 수가 줄어들었었다.

부평구 소재 시중 은행 점포 수 변화 (단위 : 개)

연 별	시 중 은 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주택은행
1997	4	3	1	2	2	5	2	1	1	3
1998	4	3	1	2	2	5	4	6	1	5
1999	4	3	1	2	2	4	3	4	1	5
2000	4	3	1	2	2	4	4	4	1	5
2001	3	6	1	2	3	10	4	3	1	–
2002	4	6	2	2	3	11	4	3	3	–
2003	4	7	2	–	3	11	4	3	3	–
2004	4	6	2	–	3	11	4	3	3	–
2005	4	6	2	–	3	12	5	3	3	–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 년도

부평구 내 소재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강원은행이 1997년과 1998년 존재하고 있었으나 1999년 은행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은행이 퇴출되어 지방 은행은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며, 한국주택은행은 이전에는 특수 은행이었으나 시중 일반은행으로 편입되어 특수 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광주은행 부평점 개소식
(1996, 부평4동)

금융기관현황은 2001년 총 33개 소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부평지역에 위치하였으나 2005년에는 총 49개의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지방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평구 소재 지방 및 특수은행 점포 수 변화 (단위 : 개)

연 별	지 방 은 행			특 수 은 행	
	강원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1997	1	–	–	2	6
1998	1	–	–	2	6
1999	–	–	–	2	6
2000	–	–	–	2	7
2001	–	–	–	2	6
2002	–	–	–	2	7
2003	–	–	–	3	7
2004	–	–	–	3	7
2005	–	–	–	4	7

자료 : 부평구 통계 연보

3) 새마을금고

부평 관내의 새마을금고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지점 수는 축소되고 있으나, 총 자산액은 증가 하고 있다. 이는 부실 금고의 정리와 시중은행의 낮은 금리로 인해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로 몰린 결과이다.

새마을 금고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별	금 고 수	자 산 액	예 금 액	대 출 액	회 원 수(명)
1997	19	328,316	247,491	173,657	185,898
1998	19	381,804	320,994	174,729	138,605
1999	16	377,324	338,580	142,048	151,350
2000	12	456,041	394,190	163,351	166,440
2001	11	518,128	453,171	218,360	198,268
2002	11	537,403	481,311	280,657	214,349
2003	11	548,857	475,663	311,696	216,542
2004	11	571,255	507,459	298,041	217,403
2005	11	609,194	534,824	314,414	234,674

새마을금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개의 새마을금고가 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산액은 2001년 518,128백만 원에서 2005년 609,19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예금액은 2001년 453,171백만 원 에서 2005년 534,82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액 또한 2001년 218,360백만 원에서 2004년 314,41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회원 수는 오히려 47,000여명이 줄어든 것은 IMF의 영향으로 제1금융권의 예금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로 몰렸으나, 대출에 대한 활동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며, 전체적으로 금고의 회원 수는 탈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2000년 IMF의 영향이 마무리 되며, 예금액은 3941억 9천만 원, 대출금은 1633억 5천1백만 원, 회원 수 166,440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제2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업을 들 수 있는데, 현재 보험회사의 지점 및 출장소는 생명보험사 11개 사 31지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5개 사 9개의 지점 및 출장소가 영업을 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명보험사의 특징으로는 외국계 회사의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기존 부실 생명보험사를 인수한 외국계회사들의 지점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개의 투신사가 1998년에 퇴출되어 현재는 운영 중인 투신사가 없으며, 5개의 증권사 지점이 부평 관내에서 운영 중이다.

부평구의 기타 제 2 금융 기관 현황

구분	회사수	회사명
생명보험사	11	SK생명보험, AIG생명보험, ING생명보험, 알리안츠 생명보험, LG생명보험, 푸르덴셜 생명보험, 동부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라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5	대한보증보험, 신동아화재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LG화재해상
보험증권회사	5	대신증권, 신한증권, 하나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6. 교통

1997년 이후 인천의 교통 분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인천지하철의 개통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인천지하철은 1999년 10월 6일 개통을 시작으로 인천이 전국에서 3번째의 지하철을 갖게 되며, 그동안 막혀 있던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총 길이 21.9km의 총 22개 역을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 지하철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6번 국도, 46번 국도 등 주로 인천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던 서울 중심의 교통을 인천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하며,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지역의 발전과 함께 이들 남북 간의 교통체증을 해결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부평구 차량등록 대수 (단위 : 대)

연 별 월 별	합 계			
	총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1997	99,011	191	96,654	2,166
1998	102,184	200	99,706	2,278
1999	105,335	383	102,926	2,430
2000	112,782	213	109,754	2,815
2001	134,601	202	130,498	3,901
2002	146,460	213	141,668	4,579
2003	149,656	222	144,806	4,628
2004	153,002	226	147,896	4,880
2005	156,396	241	151,164	4,991

부평구에 등록된 총 차량 대 수는 1997년 99,011대에서 2005년에는 156,396대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관용은 241대, 자가용은 151,164대, 영업용 4,991대로 등록되었는데, 이들 비중을 살펴보면 부평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차량에 대한 자가용 소유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역시 1997년 2,166대에서 2005년 4,991대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주차 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대규모 택지 아파트와 같이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보다는 단독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 등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부평구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의 확충, 내집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 거주자우선 주차제 등을 시행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부평구 내 주차장 현황 (단위 : 개, ㎡)

연 도	합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1997	3,735	49,316	146	8,056	45	2,336	3,544	38,924
1998	3,837	50,191	214	6,276	64	2,851	3,559	41,064
1999	3,861	50,706	214	6,259	49	3,303	3,598	41,144
2000	3,409	89,342	203	5,761	99	4,371	3,107	79,210
2001	4,179	88,232	205	4,925	112	5,204	3,862	78,103
2002	5,232	95,593	205	4,930	123	5,567	4,904	83,102
2003	5,794	102,567	397	7,547	133	6,360	5,230	88,405
2004	6,029	104,598	430	8,295	109	4,817	5,490	91,486
2005	6,229	111,041	431	98,776	82	5,105	5,715	96,662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년도

1997년 부평구의 주차장 총합은 3,735개 소 49,316㎡에서 2000년에는 3,409개소 89,342㎡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6,229개 소에 111,0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전체 주차장 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증가한 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인지 이는 택지개발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현재 부평구 내에서 운영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업체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가 현재 7개 회사가 있으며, 법인택시는 4개 사가 운행 중이고 개인택시는 1,265대가 등록되어 부평구민들의 발이 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부평구 내의 철도운송업은 200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인천지하철의 개통 및 확장으로 기존의 서울지하철 공사의 4개 역인 부개역,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과 함께 6개의 인천지하철 공사역인 갈산역, 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 부평역, 동수역, 부평삼거리역이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 내에 있는 6개 인천지하철 역사 시설물과 수송 점유율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 갈산역이 6.1%로 가장 높고, 부평삼거리역이 1.7%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6개 역사의 총합은 23.8%로 전체 22개 역사의 24% 정도를 6개 역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실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평역의 경우 경인선과의 환승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그 기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1995)

부평구 인천 지하철역 시설물 일반

역명	합계			2000년 수송 점유율
	형식	층 수	연면적(㎡)	
갈산역	상대식	지하 2 층	7,519	6.1%
부평구청	상대식	지하 2 층	9,190	5.3%
부평시장	상대식	지하 2 층	7,475	4.6%
부평	상대	식지하 4 층	20,435	3.9%
동수	상대식	지하 4 층	8,132	2.2%
부평삼거리	상대식	지하 4 층	8,229	1.7%

출처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2002

7. 기타 서비스 산업

부평구 내의 기타 서비스 산업으로는 관광산업과 우편, 통신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있다.

부평구 관내 여행업 및 관광 숙박업의 변화 (단위 : 개)

연 별	여 행 업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관광 극장 식당
	일 반	국 외	국 내	호텔수	객실수	
1997	-	12	14	2	63	-
1998	-	14	12	2	63	-
1999	-	20	21	2	63	-
2000	-	18	24	2	63	3
2001	1	24	30	2	63	3
2002	1	24	30	2	63	3
2003	-	27	29	2	63	3
2004	-	27	28	2	63	3
2005	1	31	31	2	61	-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해당 년도

부평구내 여행업은 해외여행 상대 업체가 1997년 12개에서 1998년 14개 업체, 1999년 20개 업체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18개 업체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국내 여행업은 1997년 14개 업체에서 1998년 12개 업체, 1999년 21개 업체, 2000년에는 23개 업체로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92년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쉬워진 영향이 컸다. 관광 숙박업은 주로 관광호텔이 맡고 있는데 1997년 이후 2개 업체 객실 수 6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평구는 인천의 관문으로서 수도권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005년 현재 부평구는 유형문화재 및 사적지가 없는 관광의 불모지로서 그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부평구는 문화 예술적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기초로 하여 부평의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의 거리, 조형물 거리, 특색 음식거리, 상품 구매 특구, 대단위 숙박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인천으로 유입되는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평관내 우체국 수는 일반국이 8개에서 9개 정도로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각 분국은 2개 군 우체국은 2개가 존재하며 우편취급소는 7개에서 2000년에 4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직원은 1997년 77명, 1998년 85명, 1999년 53명이 근무하다 2000년에 76명으로 늘었으며, 집배원 수는 6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체국 업무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체신 서비스업은 10개 우체국과 7개 우편 취급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신 서비스 기관 현황 (2005년 10월 현재)

구분		소재지
우체국	갈산동 우체국	갈산동 365-2
	동암우체국	십정2동 419-7
	부개동 우체국	부개3동 택지 3B/L
	부평공단 우체국	청천2동 408-12
	부평우체국	부평4동 442-15
	부평6동 우체국	부평6동 611-12
	부평현대아파트 우체국	산곡동 307
	산곡동 우체국	산곡1동 6-15
	산곡2동 우체국	산곡2동 145-9
	북인천 우체국	부평동 546-62
우편취급소	백운우편 취급소	십정2동 580-28
	부평 중앙 우편 취급소	부평4동 250-4
	부평 4동 우편 취급소	부평4동 993
	부평 5동 우편 취급소	부평5동 115-7
	인천 삼보 아파트 취급소	산곡1동 180-383
	삼산 우편 취급소	삼산동 168-5
	일신 풍림 우편 취급소	일신동 100-4

출처 : 부평구, 『구정백서』, 2005.

부평구 내의 개인 서비스 업소는 2005년 현재 총 5,315개가 성업 중이며, 음식업, 다방, 이미용, 목욕업, 세탁업, 비디오, 당구장, 수영장, 볼링장, 노래방, 사진관, 복사, 피아노 조율, 골프 연습장, 숙박업 등이 있다.

개인 서비스업소 현황 (2005년 10월 현재, 단위 : 개 소)							
음식업	다방	이미용	목욕업	세탁업	비디오	당구장	수영장
2,386	226	998	59	352	87	145	3
볼링장	노래방	사진관	복사	피아노 조율		골프장	숙박업
6	460	73	161	3		20	274

출처 : 부평구, 『구정백서』, 2005

8. 부평지역 소재 주요 경제 및 기업 지원 단체

1)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는 부평1동 439-2번지 한서상호저축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역(부평구, 계양구) 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각종민원 및 업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소된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는 무역증명서류와 같은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경제 현황 파악 및 정책 건의, 기업 간 지식 및 정보 교류 촉진, 체계적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이노 카페(Inno-Cafe)

이노 카페는 부평구 갈산동 152-22번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이노 카페는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간 비공식적 정보교류와 만남의 장을 제공 육성하여 지역내 혁신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부평구 경영자협의회

부평구 경영자협의회는 부평동 439-2번지 한서상호저축은행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지역 상공인들에게 구정 및 상의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업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 그룹별 자율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일지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부평구 경영자협의회 창립준비 모임(2003, 부평결혼회관)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는 청천동 440-17번지 부평라이온스밸리 A동 204호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에 개소하였으며, 인천 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 제조업체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하며,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천광역시의 균형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료 경영 · 지식산업 육성, 지원, 기술개발(R&D) 지원, 판로 · 수출 지원, 자금 · 투자 지원, 교육 · 인력 · 행정 지원, 북부 조재 중소기업의 특화지원 사업 개발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부평 디자인 센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인천기능대학(현 인천 폴리텍)과 함께 부평디자인센터를 설립하였다. 인천기능대학에서 연구 인력과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구에서 행정자치부의 미래전략사업비 9억 원과 구자체예산 등 10억 원을 지원하여 최첨단 디자인장비를 구축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하였다.


부평디자인센터(2005)

이곳에서는 디자인 관련 RP파트, 모델가공파트, 금형파트, 디자인파트 등 디자인에 관한 일련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중소기업체의 CEO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며,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6) 자동차동력계부품 생산기술혁신센터(TIC)

부평구의 산업발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의 기술향상과 시험검사기능을 지원하고 타 자치단체에 앞서 부평구 내 R&D기반을 구축하여 위하여, 인하대학교와 인천시, GM대우자동차, 자동차협력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생산기술혁신센터를 십정동 경인센터 내 276평을 확보하고 2004년 5월 개소하였다.

TIC사업은 향후 10년간 총 10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후 5년간은 산업자원부로부터 49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향토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 우림 라이온스 밸리

부평공단 등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서울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산업공단으로 변화되는 것을 모델로 하여 인천 최대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라이온스밸리를 유치함으로써 부평공단 일대 산업구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부평공단 내에 건립된 우림라이온스밸리는 연건평 4만 평(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이곳에는 약 300여 개의 IT 및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약 6,000여 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기존의 부평공단이라는 다소 낙후된 이미지를 쇄신하는 등 부평공단 변화의 새로운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림 라이온스 밸리 전경 (2006)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2분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지하철 및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교통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첨단 IT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입주하고 있는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는 취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한국산업단지 부평지부(청천동 409-7번지 구 공단청사 3층), 소상공인지원센터(부평1동 185-30번지 그랑프리빌딩 9층), 기술보증기금 부평지점(청천2동 409-2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3층),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부평4동 439-2번지 한서상호저축은행3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부평1동 549-3번지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3층) 등의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러한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거나 건립함으로써 경제부평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부평의 중소기업 산업발전을 기반으로 경제허브 또는 앵커역할을 하게 될 거점(우림 라이온스밸리, 부평시장 현대화 등)과 R&D 시설(부평디자인 센터, 자동차 동력계부품 기술혁신센터, GM대우자동차 디자인센터), 정부기관(중소기업청 부평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지원센터, 인천기술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부평구 내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보다 풍요로운 부평구와 부평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지역사회와 기업활동

부평구의 역세권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경인철도에 의해 지역이 단절되는 현상을 보이고 단절된 양 지역이 연계되지 못한 채,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문화적 차이, 부의 격차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즉, 북부지역은 생활환경이 좋지만 남부지역은 이에 못미치거나 개발이 미루어지는 등의 문제 를 보이고 있다.

부평구 인구의 이러한 사례는 부평만이 아니라 경인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히 부평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부평구의 인구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부평의 인구는 인천시의 평균인구나 가구수 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평 1동의 경우에는 인천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인구 구성이 비교적 젊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전국 도시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평균노령인구보다 2% 정도 낮아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세대당 인구로 미루어 보면 핵가족이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이룬다 할 수 있다.

부평구는 20대(구성비 16.88%로 인천시 15.57%보다 높다) 와 30대(19.13%), 40대(18.34%) 의 인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공단이 주요변수이고 새로운 주택 공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이 전국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취업을 위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부평이나 인천의 경우 취업을 위해 전입하는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대도시 중 인천의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교통량의 이동이나 주간인구 지수에서 보듯이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취침도시(bed town)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이 글은 이명운(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교수)이 책임집필하였음.

1. 동별 지역 특성

1) 부평1동


부평1동 전경(1996)

부평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굴포천변을 따라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구는 인천지역 평균과 부평구 관내 평균보다 많고20대~40대의 비중이 높다.

계층별로는 일반계층이 41.32%, 중산층이 36.08%를 자치하고 있으며, 월소득은 부평구 평균보다 낮다. 미디어 성향으로는 일간신문 구독률이 88%를 넘는 지역이다. 백화점보다는 수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자동차 미보유율이 22.36%로 부평구 평균보다 낮다.

2) 부평2동


부평2동 희망촌(2006)

북쪽으로는 경인철도, 남쪽으로는 부평공설묘지 일대의 산 중앙으로 경인국도와 인천지하철(동수역)이 관통하는 위치에 있으며, 신·구주택과 빌라단지로 형성된 복합주거 밀집 지역이며 대단위 공설묘지와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다.

인구 구성으로는 20~30대가 각각 20%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일반계층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약간 높다(56%). 월소득 평균은 인천시나 부평구 관내 보다 적은 편이며, 일간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이 39.61% 정도이다. 이지역은 사업체수가 부평5동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미보유율은 46.57%이다.

3) 부평3동

이 지역은 지금의 부평3동 사무소가 있는 부평동 283번지 일대에 새 마을이 생기면서 신촌이라고 불려왔다. 원래 경인철도 옆의 원통천 서쪽에 위치한 불모지였으나 1940년 부평조병창의 확장공사와 때를 같이하여 경인철도변에 히로나까란 군수업체 공장이 세워졌으며 이 공장 옆에 불모지땅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 마을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 마을이 신촌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백운역을 중심으로 신촌로, 경인로, 원통로로 관통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내 학교시설이 많으며, 신촌로를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지역이며, 군부대(80정비대)이전으로 부평공원 조성에 따른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및 주민휴식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며, 호봉산 주변에 산책로와 배트민턴장, 약수터가 소재하고 있다.

부평3동은 경원로 중심의 주상복합지역과 굴포천지류 복개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된 혼합지역으로 백운역을 중심으로 경원로, 경인로, 마장길로 관통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부평공원 조성에 따라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호봉산 주변에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및 약수터가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 활용이 용이한 지역이다. 인구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20대(18.97%)의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로는 일반계층이 55.33%, 월소득은 인천시 평균과 구내 평균에 못 미친다.

미디어 성향은 일간신문이 59.61%, 케이블TV가 50.91%를 차지하며, 쇼핑 성향은 슈퍼마켓,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순이다. 소득계층은 200만 원대와 100만 원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미보유율은 40.69%이다.

부평4동성당 담장허물기 시연회(2005)



4) 부평4동

부평 상권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상가, 주택 복합지역으로 상업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부평동 내에서 부평1동 다

음으로 인구가 많다.

인구 구성은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으며, 일반계층 비율이 55.33%를 차지한다. 미디어 성향은 케이블 TV 48.48%, 일간신문55.33%이고, 자동차 미보유율은 39.42%이다.

5) 부평5동

부평지역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며, 상가와 주택 복합 지역이다.

인구 구성비는 30대 (20.15%), 20대(19.62%), 40대(16.62%) 순이고, 일반계층(45.89%), 중산층(32.18%), 고소득층(12.43%), 저소득층(9.50%) 순이다. 월소득이 인천시 평균과 부평구 평균을 넘어서며 3백만 원대 이상이 45%를 넘어선다. 자동차 미보유율은 45.19%이다.



부평5동 해물탕 골목 (2006)

6) 부평6동

경인전철의 부평 남부역과 경인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와 상업지역의 복합지로 대부분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경찰종합학교 뒤편으로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로 200만 원대와 100만 원대의 비율이 28.02%, 27.31%로 50%를 넘어서고, 일반계층(55.33%), 중산층(21.54%),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의 분포를 보인다.

부평구 동별통계자료(부평 1~6동) (2005. 12. 31 기준)

구분		부평구 (평균)	인천 (평균)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인구 수		26,530	18,552	35,513	24,093	16,966	25,611	23,779	15,210
가구 수		9,193	6,537	12,068	9,184	6,666	9,767	9,155	6,148
10세 단위 구성비(%)	10대 미만	12.18	11.38	12.07	12.62	9.71	11.19	11.60	10.22
	10대	14.57	13.49	14.74	11.46	12.47	12.20	12.16	11.33
	20대	16.88	15.57	15.71	20.30	18.97	19.72	19.62	20.99
	30대	19.13	17.53	18.06	20.79	17.98	19.45	20.15	19.53
	40대	18.34	17.99	18.87	15.42	17.10	16.92	16.62	15.88

구분		부평구 (평균)	인천 (평균)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50대	9.39	10.45	9.81	9.47	10.93	10.21	9.90	10.30
	60대	5.90	7.88	6.32	6.42	7.95	6.67	6.57	7.71
	70대 이상	3.61	5.70	4.42	3.52	4.89	3.64	3.38	4.04
계층별 구성비	고소득층	9.43	8.65	14.09	7.51	7.96	7.96	12.43	7.96
	중산층	25.05	22.87	36.08	20.45	21.54	21.54	32.18	21.54
	일반계층	52.51	53.89	41.32	56.00	55.33	55.33	45.89	55.33
	저소득층	13.01	14.59	8.51	16.04	15.17	15.17	9.50	15.17
월소득(만원)		286	275	338	262	265	268	315	268
미디어 성향	케이블TV	45.65	42.67	53.80	33.79	50.91	48.48	49.05	50.49
	일간신문	66.14	59.34	88.02	39.61	59.61	61.34	50.75	61.23
	경제신문	4.66	4.25	8.81	3.56	2.27	2.11	4.23	2.33
	잡지	3.61	3.14	6.52	2.14	1.82	1.66	4.88	1.78
공연문화	영화	1.89	1.69	2.34	1.51	1.60	1.55	2.29	1.59
	공연	0.29	0.28	0.41	0.20	0.19	0.17	0.36	0.20
쇼핑 성향	대형할인점	2.79	2.57	3.04	2.68	2.46	2.50	3.06	2.49
	백화점	1.19	1.02	1.43	0.98	1.34	1.30	1.16	1.31
	재래시장	5.26	5.04	3.53	6.32	6.14	6.11	8.39	6.06
	슈퍼마켓	11.08	11.38	9.74	11.92	11.21	11.68	11.05	11.52
상업지수	사업체수	1,395	1,122	2,701	624	1,061	3,113	2,483	853
	근로자수	5,803	5,188	10,107	1,545	3,517	10,960	8,855	3,856
소득계층별 구성비(%)	5백만 원대	9.43	8.65	14.09	7.51	7.96	7.96	12.43	7.96
	4백만 원대	8.40	7.59	13.99	6.49	6.89	6.89	11.79	6.89
	3백만 원대	16.65	15.28	22.09	13.96	14.65	14.65	20.39	14.65
	2백만 원대	27.07	27.33	21.56	28.10	28.02	28.02	24.16	28.02
	1백만 원대	25.45	26.56	19.76	27.90	27.31	27.31	21.73	27.31
	1백만 원 미만	13.01	14.59	8.51	16.04	5.17	15.17	9.50	15.17
차량	미보유비율(%)	35.74	38.41	22.36	46.57	40.69	39.42	45.19	39.33

출처 : 인천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

* 10세 단위 구성비, 계층별 구성비, 차량, 미디어 성향 : %

* 문화 성향, 쇼핑 성향: 횟수, 월

7) 산곡1동

철마산 기슭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일제강점기 때 조병창 사택지구(7개통, 1,203가구)가 있던 곳

으로 노후주택이 현재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인구 구성은 40대(18.99%)의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17.79%), 20대, 10대 순이며, 60대 이상이 10%대에 육박한다. 일반계층이 48.93%, 중산층이 2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미보유율은 36.97%이다.

8) 산곡2동

철마산 기슭에 위치한 산곡2동은 주민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재건축 지역 1개소(화랑연립단지)와 재건축 예정지역 1개 소(한양아파트 1단지), 재개발 예정지역 1개 소가 있어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서구 및 인천 지역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교통망과 함께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와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위락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 지역의 장점과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원 등 녹지(휴식)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향후 녹지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 비중이 인천시와 부평구 평균보다 높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반계층이 53.31%로 대형 할인점을 한 달에 3.19회 정도 방문하고 있다. 월소득은 부평구 평균과 비슷하며, 자동차 미보유율은 29.57%이다.

9) 산곡3동

1980년대 이후 건축된 중산층 세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화랑농장으로 통칭되는 일반주택 지역과 현대아파트 중심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인구는 인천시 평균과 부평구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40대의 비중이 높은 편(20.45%)이다. 60대 이상 인구도 16.8%에 이른다. 소득면에서는 일반계층(48.93%), 중산층 소득(29.58%), 고소득층(9.31%) 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미보유율은 32.58%이다.

10) 산곡4동



산곡4동사무소(2004)

전형적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도 일부 상존하고 있다. 천마로 노선의 초입지로서 일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군부대가 인접해 있다.

인구는 각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50대 이상 인구는 5%를 넘어선다. 고소득층이 10% 이상, 중산층이 30%에 근접하고 있다. 월소득이 3백만 원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자동차 미보유 비율은 23.42% 정도이다.

11) 청천1동

한국수출 4공단 및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와 구계 접촉 지역이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청천농장과 같은 집단정착지역이 있던 곳이다. 월소득이 인천시나 부평구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대형할인점을 월 2.57회 이용하며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미보유 비율은 46.18%이다.

12) 청천2동

수출4공단 유치 지역이며, 대우자동차 영업 지역이다. 또한 준공업 지역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주민들 대다수는 기업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금호타운, 대우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밀도나 인구수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체수가 부평지역 내에서 가장 많다.

인구 구성에서 30대 비중이 21.52%로 가장 높고 미디어 성향은 케이블 TV(45.27%), 일간신문(68.23%), 경제신문(6.66%) 정도이다. 자동차 미보유 비율은 28.46%이다.

부평구 동별통계자료(산곡1~4동, 청천1·2동) (2005. 12. 31 기준)

구분		부평구 (평균)	인천 (평균)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인구 수		26,530	18,552	23,225	31,501	28,300	22,234	19,386	41,247
가구 수		9,193	6,537	8,430	9,385	8,970	6,858	7,585	13,625
인구밀도		2.87	2.76	2.75	3.35	3.15	3.24	2.56	3.03
10세 단위 구성비(%)	10대 미만	12.18	11.38	10.41	12.26	10.49	12.85	10.99	14.86
	10대	14.57	13.49	15.24	18.54	16.90	17.73	13.26	15.12
	20대	16.88	15.57	16.56	13.72	14.86	13.63	18.33	14.78
	30대	19.13	17.53	17.79	17.25	14.95	17.23	19.99	21.52
	40대	18.34	17.99	18.99	21.42	20.45	21.34	18.67	18.44
	50대	9.39	10.45	10.12	8.88	10.20	8.76	9.70	7.97
	60대	5.90	7.88	6.64	4.78	6.67	4.92	5.66	4.66
	70대 이상	3.61	5.70	4.25	3.15	5.48	3.54	3.40	2.65
계층별 구성비	고소득층	9.43	8.65	11.32	9.31	9.31	11.32	7.96	10.21
	중산층	25.05	22.87	29.58	24.80	24.80	29.58	21.54	26.97
	일반계층	52.51	53.89	48.93	53.31	53.31	48.93	55.3	51.97
	저소득층	13.01	14.59	10.17	12.58	12.58	10.17	15.17	10.85
월소득(만원)		286	275	305	286	285	305	272	295
미디어 성향	케이블TV	45.65	42.67	46.73	51.14	49.81	47.80	38.88	45.27
	일간신문	66.14	59.34	72.49	76.54	70.46	82.68	51.03	68.23
	경제신문	4.66	4.25	4.72	4.32	4.69	7.88	4.57	6.66
	잡지	3.61	3.14	3.43	5.08	4.75	6.43	3.13	5.36
공연문화	영화	1.89	1.69	1.72	2.04	1.96	2.26	1.52	2.04
	공연	0.29	0.28	0.37	0.35	0.34	0.37	0.24	0.36
쇼핑성향	대형할인점	2.79	2.57	2.35	3.19	3.04	3.25	2.57	3.18
	백화점	1.19	1.02	1.10	1.19	1.14	1.26	0.91	1.29
	재래시장	5.26	5.04	4.84	4.59	4.76	3.68	6.01	4.47
	슈퍼마켓	11.08	11.38	10.30	11.02	11.16	10.43	11.92	10.49
상업지수	사업체수	1,395	1,122	1,208	979	606	639	1,699	1,995
	근로자수	5,803	5,188	2,996	3,696	1,825	2,001	8,285	24,825
소득계층별 구성비(%)	5백만 원대	9.43	8.65	11.32	9.31	9.31	11.3	27.96	10.21
	4백만 원대	8.40	7.59	10.33	8.07	8.07	10.33	6.89	8.86
	3백만 원대	16.65	15.28	19.25	16.73	16.73	19.25	14.65	18.11
	2백만 원대	27.07	27.33	25.89	27.78	27.78	25.89	28.02	27.62
	1백만 원대	25.45	26.56	23.04	25.53	25.53	23.04	27.31	24.35
	1백만 원미만	13.01	14.59	10.17	12.58	12.58	10.17	15.17	10.85
차량	미보유비율(%)	35.74	38.41	36.97	29.57	32.58	23.42	46.18	28.46

출처 : 인천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

* 10세 단위 구성비, 계층별 구성비, 차량, 미디어 성향 : %. *문화 성향, 쇼핑 성향 : 횟수, 월.

13) 갈산1동

수출4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입지하여 있고, 부평정수장, 한국전력 변전소, 부평세관, 부평소방공사, 북부소방서 등 주요시설들이 있다.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상가, 중소공장, 주택(단독주택, 빌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구 구성비는 30대가 20.84%, 40대가 19.94%, 20대가 16.77%, 10대가 14.78%, 10대 미만이 13.35% 순이다.

소득 수준은 일반계층(54.66%), 중산층(29.58%), 고소득층(11.32%) 순이며, 자동차 미보유 비율은 37.28%이다.

14) 갈산2동



갈산2동 신축 청사 공사 현장(2001)

굴포천 통과 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12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으로 인구 구성 비율은 40대(20.52%), 10대(17.43%), 20대(17.06%), 30대(16.57%) 순이다. 자동차 미보유 비율 27.64%이다.

15) 삼산1동

삼산택지 개발로 미래형 도시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삼산택지구 1, 2지구 개발로 부평의 중심지로 상승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으로 부평구의 최대 인구밀집 및 농산물 유통지역으로 물류 중심지화되고 있다.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며, 일반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된 도농 복합지역이다.

택지 내 시립체육관, 운동장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등으로 부평구와 수도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의 착공으로 서울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른 지역이기도 하다. 굴포천 통과로 집중호우 시 수해 우려지역이며,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16) 삼산2동

택지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주거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개발된 계획도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공원 및 녹지공간이 확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지나고 있어 교통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삼산체육관 및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등으로 문화, 체육 기반시설도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다.



삼산2동사무소 전경(2006)

17) 십정1동

수출5공단 및 영세공장 집단 밀집 지역이며, 그린벨트가 동면적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철거 이주민 주거 지역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십정1동 철거민 시위 모습(2002)

18) 십정2동

빌라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경인전철 노선이 동 · 서로 지나가며 중앙을 횡단하고 있고, 동암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인구 구성비에서 각 10세 단위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중산층과 일반계층이 주를 이루고, 다른 동에 비해 미디어 성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월소득은 인천시와 부평구의 평균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며 자동차 미보유율은 44.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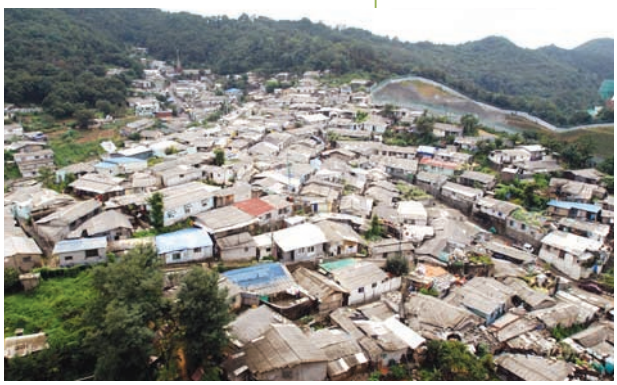
부평구 동별통계자료(갈산1 · 2동, 삼산동, 십정1 · 2동) (2005. 12. 31 기준)

구분		부평구 (평균)	인천 (평균)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십정1동	십정2동
인구수		26,530	18,552	20,149	26,316	49,619		21,193	31,670
가구수		9,193	6,537	6,878	8,647	16,058		7,942	12,099
10세 단위 구성비(%)	10대미만	12.18	11.38	13.35	10.97	17.12		11.35	11.68
	10대	14.57	13.49	14.78	17.43	15.76		13.08	13.62
	20대	16.88	15.57	16.77	17.06	12.09		17.64	18.48
	30대	19.13	17.53	20.84	16.57	22.50		19.07	19.96
	40대	18.34	17.99	17.94	20.52	18.00		17.57	17.99
	50대	9.39	10.45	8.52	9.47	6.71		10.29	9.37
	60대	5.90	7.88	5.18	4.53	4.45		7.17	5.45
	70대이상	3.61	5.70	2.62	3.45	3.37		3.83	3.45
계층별 구성비	고소득층	9.43	8.65	8.41	11.32	11.32		8.41	7.96
	중산층	25.05	22.87	22.63	29.58	29.58		22.63	21.54
	일반계층	52.51	53.89	54.66	48.93	48.93		54.66	55.33
	저소득층	13.01	14.59	14.30	10.17	10.17		14.30	15.17
월소득(만원)		286	275	276	307	308		278	272
미디어 성향	케이블TV	45.65	42.67	39.72	53.53	52.15		37.60	38.81
	일간신문	66.14	59.34	51.73	91.36	72.33		60.17	54.43
	경제신문	4.66	4.25	4.62	7.09	7.97		1.93	4.68
	잡지	3.61	3.14	2.89	3.30	5.83		1.40	3.22
공연문화	영화	1.89	1.69	1.93	2.16	2.56		1.20	1.60
	공연	0.29	0.28	0.31	0.29	0.33		0.25	0.26
쇼핑성향	대형할인점	2.79	2.57	2.93	3.06	3.16		2.09	2.62
	백화점	1.19	1.02	1.1	11.33	1.28		0.88	0.98
	재래시장	5.26	5.04	5.53	3.90	4.13		6.09	5.82
	슈퍼마켓	11.08	11.38	10.95	10.99	11.11		11.03	11.76
상업지수	사업체수	1,395	1,122	1,124	918	1,456		1,408	2,054
	근로자수	5,803	5,188	5,208	2,925	5,180		6,391	5,909
소득계층별 구성비(%)	5백만원대	9.43	8.65	8.41	11.32	11.32		8.41	7.96
	4백만원대	8.40	7.59	7.28	10.33	10.33		7.28	6.89
	3백만원대	16.65	15.28	15.35	19.25	19.25		15.35	14.65
	2백만원대	27.07	27.33	27.94	25.89	25.89		27.94	28.02
	1백만원대	25.45	26.56	26.72	23.04	23.04		26.72	27.31
	1백만원미만	13.01	14.59	14.30	10.17	10.171		4.301	5.17
차량	미보유비율(%)	35.74	38.41	37.28	27.64	32.75		44.77	44.28

출처 : 인천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

* 10세 단위 구성비, 계층별 구성비, 차량, 미디어 성향: % * 문화 성향, 쇼핑 성향: 횟수, 월

18) 부개1동


부개1동 희망촌 전경 (2003)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초입지로서 경인국도 및 경인전철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형성이 과거 자연부락 단위에서 출발하여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부개동 445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6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부평 평균보다 낮지만 인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소득은 인천과 부평 평균보다 낮고 일반계층이 55.33% 정도이다. 자동차 미보유비율 35.18%이다.

19) 부개2동

부개 2구역(부개동 120번지 일대)은 부개2동 복개천을 따라 단독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차량이 진입하면 다시 되돌려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동네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 구역에는 110여 가구가 모여살고 있으며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경인일보』 2006년 10월 2일자). 이곳은 경인전철 부개역 및 부평역의 연계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부평지역 최대 재래시장인 부평종합시장에 근접하고 있다.

부평송신소 북쪽 현 태산아파트 자리한 일대의 벌판 지역이며, 부천 상동지역과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다. 행정구역은 인천이지만 생활권은 상동 신도시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일제시대부터 자리잡고 있는 부평송신소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거나 보안지역으로 묶이는 등 철저하게 재산권 제약을 받았다. 경인전철과 불과 수백미터 정도에 있고, 부평송신소의 탈바꿈이 지역변화의 관건이다.

20) 부개3동

인천 부개3구역(부개동 191번지 일대)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도시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지만 사실상 상동 신도시 생활권이다. 따라서 상동 신도시의 잘 갖춰져 있는 문화 · 예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불과 200~300m 거리를 두고 있는 부개2구역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등 주변 환경 개발에 따른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총 37개 통 중 28개 통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전체의 75.7%) 되어 있다.

경로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접목해 부개3동 신복길 12번지 일원에 '효(孝) 실천거리'를 예정하고 있다. 부개3동 신복길 12번지 일대의 상인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효 실천거리'는 앞으로 이 거리의 상가를 찾는 노인들에게 가격 할인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1) 일신동


일신동 전경(2002)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공항, 서울 등과 쉽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개발지가 많아 미래의 청정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인천시의 관문이자 부평구의 얼굴로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 인하여 주민생활권이 분리되고 또한, 전면적의 약1/2이 군주둔지로서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속한 도시발전에 한계를 보인다.

도농공 혼합형도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과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를 꿈꾸는 지역이다.

부평구 동별 통계자료(부개1~3동, 일신동) (2005. 12. 31 기준)

구분		부평구(평균)	인천(평균)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인구 수		26,530	18,552	23,278	23,223	41,378	13,253
가구 수		9,193	6,537	8.326	7,943	13,042	4,283
인구 밀도		2.88	2.83	2.79	2.92	3.17	3.09
10세 단위 구성비(%)	10대 미만	12.18	11.38	10.75	12.371	5.94	12.95
	10대	14.57	13.49	13.03	14.02	17.64	15.31
	20대	16.88	15.57	19.05	17.51	12.13	16.57
	30대	19.13	17.53	18.61	19.60	21.87	18.04
	40대	18.34	17.99	17.29	17.39	19.51	18.81
	50대	9.39	10.45	10.85	9.75	6.39	9.49
	60대	5.90	7.88	6.92	5.79	3.81	5.65
	70대이상	3.61	5.70	3.50	3.39	2.71	3.18
계층별 구성비	고소득층	9.43	8.65	7.96	8.41	6.61	10.21
	중산층	25.05	22.87	21.54	22.63	18.29	26.97
	일반계층	52.51	53.89	55.33	54.66	57.35	51.97
	저소득층	13.01	14.59	15.17	14.30	17.75	10.85
월소득(만원)		286	275	273	281	251	303
미디어 성향	케이블TV	45.65	42.67	46.17	44.95	52.63	27.04
	일간신문	66.14	59.34	59.82	69.12	68.84	79.01
	경제신문	4.66	4.25	3.16	3.25	5.29	3.79
	잡지	3.61	3.14	2.70	2.59	4.29	2.64
공연문화	영화	1.89	1.69	1.95	1.96	2.17	1.66
	공연	0.29	0.28	0.21	0.33	0.22	0.39
쇼핑성향	대형할인점	2.79	2.57	2.69	2.58	3.29	2.31
	백화점	1.19	1.02	1.39	1.34	1.11	1.18
	재래시장	5.26	5.04	5.86	4.92	5.17	4.10
	슈퍼마켓	11.08	11.38	11.36	10.33	13.47	9.18
상업지수	사업체수	1,395	1,122	1,228	1,076	1,226	858
	근로자수	5,803	5,188	3,470	2,759	3,521	4,058
소득계층별 구성비(%)	5백만 원대	9.43	8.65	7.96	8.41	6.61	10.21
	4백만 원대	8.40	7.59	6.89	7.28	5.71	8.86
	3백만 원대	16.65	15.28	14.65	15.351	2.58	18.11
	2백만 원대	27.07	27.33	28.02	27.94	28.27	27.62
	1백만 원대	25.45	26.56	27.31	26.72	29.08	24.35
	1백만 원 미만	13.01	14.59	15.17	14.30	17.75	10.85
차량	미보유비율(%)	35.74	38.41	35.18	30.83	37.83	29.18

출처 : 인천중소기업청 소상공인센터

※ 10세단위구성비, 계층별구성비, 차량, 미디어 성향: %

※ 문화성향, 쇼핑 성향 : 횟수, 월

2. 동별 산업구조

부평구의 공업구조는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등과 같은 대표 업종은 없으나,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산업공단 4·5단지를 비롯하여 인천주물공단, 인천중소목재가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 목재 및 가구, 악기 업종 등 전 업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금속제품, 기계 제조업, 식음료품, 요업, 제재 목재품, 운수업 등 다양한 산업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본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동별로 나름대로 특화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2004년 기준에서 보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음식료품의 경우는 부평4동과 십정1동, 삼산동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사업체가 있다. 성장 첨단업종인 사무기기, 영상음향 통신장비 등의 산업은 1996년에는 산곡2·3동, 삼산동 등이 중심이었지만 2004년에는 청천 1.2동과 갈산 1동, 삼산동으로 특화·발전되어 있다. 청천1동의 경우, 화학, 고무, 비금속, 조립금속, 전기기기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부개1·3동의 경우 섬유·의류·가죽·신발업 등이 특화되어 있으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도심 부근의 부평2·6동, 일신동에는 의복·모피·가죽업 등의 도시형 경공업의 발달해 있다. 청천2동 일대에는 대우자동차가 입지해 있으며, 인근에는 관련산업인 자동차 관련산업과 기타운송 장비, 가구 및 기타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밖의 지역은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는 부평4동(15.9%), 부평1동(13.7%)가 발달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부평5동과 부평4동, 십정동에 몰려 있다. 부동산임대업도 부평1동과 십정2동이 100개 넘게 조사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부개3동이 89개로 8.8%, 산곡3동, 부평1동이 각각 88개와 87개였다.

부평구의 산업별 특화지역(업체수 기준)

업 종	특화지역 (동)1999년	2004년
음식료	십정 1동	부평4동, 십정1동, 삼산동
섬유가죽	청천1·2동, 부개1동	부평4·5동,청천1·2동, 부개1동
의복모피	부평2·6동, 산곡1동, 청천2동, 일신동	청천2동, 부평4동, 산곡1동
가죽신발	부평2동, 부개1·3동, 일신동	부개2동, 일신동
펄프종이	청천1동, 삼산, 부개3동, 일신동	청천1동, 십정1동
출판인쇄	갈산1동, 십정 1동	부평4동, 청천2동

업 종	특화지역 (동)1999년	2004년
화학제품	청천1동	청천1 · 2동
고무플라스틱	청천1동	청천1 · 2동
비금속	청천1동	청천1동 1
차금속	십정1동	청천1동
조립금속	청천1동, 십정1동	청천1 · 2동
기계장비	부개1동	
사무기기	산곡2동, 삼산동, 부개1동	청천2동
전기기기	산곡3동, 청천1동, 일신동	청천1 · 2동, 삼산동
영상통신장비	청천2동	청천1 · 2동, 삼산동
의료정밀	산곡4동, 청천1동, 삼산동	청천1 · 2동
자동차제조	청천2동, 갈산1동	청천1 · 2동 갈산1동
기타운송장비	청천1동	청천2동

출처 : 『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1996 · 2006.

3. 주택

(1) 주택공급현황

부평구와 계양구 분구 이전인 1994년도 주택보급율이 76%로 나타났지만 분구 이후 1995년도 주택보급율이 60.1%로 둔화되었으나 1996년도에 갈산택지 등 신흥주택이 5.4% 증가, 65.5%의 보급률을 넘어서고 삼산택지개발과 지역의 주택보급이 늘어나면서 2001년 80%를 넘어 2004년 말 현재 93.4%에 이르고 있다.

주택공급현황

연 도 별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율
1993	225,463	161,030	71.4%
1994	231,180	175,697	76%
1995	153,525	92,287	60.1%
1996	157,274	102,977	65.5%
1997	159,804	104,668	65.5%
1998	166,302	113,899	68.5%
1999	169,358	114,942	67.9%
2000	176,437	126,675	71.8%

연 도 별	가 구 수	주 택 수	보 급 율
2001	140,445	122,019	86.9%
2002	144,305	131,895	90.4%
2003	144,144	134,343	93.2%
2004	150,971	140,937	93.4 %

출처 : 『구정백서』, 부평구, 1997 · 2005.

(2) 주택건설 현황



산곡동 한신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2002)

토지이용의 고밀화 상태가 가속화 되어 아파트가 주택형태의 52.3%를 넘어서고 있으며 최대 주택 보급 동은 산곡4동(98.6%)이며 최저 주택 보급 동은 청천1동(40.5%)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경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새로운 삼산지구의 완성과 지하철 9호선의 개통예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당분간은 건설되는 신규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대단위 택지가 완성된 지역으로 신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4. 부평구 지역사회의 일반과제와 방향

260만 인천 시민의 22% 가량인 57만 명이 살고 있는 인천 최대 자치구 부평구이지만, 부평구에는 제대로 된 도로나 공원 그리고 문화 · 공연시설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2005년 인천 지역 8개 자치구의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 분석한 결과, 부평구는 사회보장예산 비율이 가장 높고 자체 사업비 비율은 가장 낮았다.

부평구의 일반회계 1천765억 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59억여 원으로

20.36%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동구의 9.16%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도로 개설이나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시설비)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 현황

구분	부평구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 구
일반회계	176,537	85,282	78,074	145,691	106,086	140,509	83,522	149,199
사회보장적	35,946	8,938	7,145	23,518	16,016	17,779	12,604	19,515
수혜료(비율)	(20.36%)	(10.48%)	(9.16%)	(16.14%)	(15.09%)	(12.65%)	(13.47%)	(13.08%)
시설비	18,251	18,494	11,492	18,195	11,706	18,649	27,681	33,667
(비율)	(10.33%)	(21.68%)	(14.71%)	(12.48%)	(11.03%)	(13.27%)	(29.59%)	(22.57%)

최근 연수구와 계양구 일대의 신시가지와 항만주변, 경인전철 주변, 경인고속도로 주변과 같이 1980년 이전에 시가지화된 지역간에는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재정, 중심기능의 격차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기성 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각 구별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나타나듯이 부평구는 남구(45개 지구) 다음으로 총 24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18개 구역), 주택재건축(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3개 구역) 등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자료』, 2006. 7).

이러한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때 자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재정자립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70% 이상으로 서울의 116%와 경기도 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부평구의 경우는 인천시의 구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가 가장 높고 부평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력 지수는 동구와 계양구가 가장 낮으며, 중구가 0.383으로 가장 높다. 모든 구가 과거보다 재정력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금으로 시정을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시 및 구군별 재정자립도									
연도	인천시	부평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1999	-	40.93	45.46	14.02	38.06	33.38	40.74	38.68	54.80
2000	-	41.86	41.78	20.04	38.20	39.23	46.49	36.59	53.51
2001	71.32	36.98	50.14	16.43	32.07	37.50	40.82	32.55	53.95
2002	78.05	34.61	47.02	19.12	35.64	37.45	39.19	38.30	51.09
2003	78.18	37.30	53.98	28.53	36.64	43.47	46.67	36.11	54.84
2004	72.04	33.11	53.06	38.05	34.95	40.87	44.04	34.75	47.01

출처 : 기윤환, 『인천광역시 도시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6, 62쪽.

구 · 군별 재정력 지수								
연도	부평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1999	0.412	0.321	0.203	0.444	0.388	0.412	0.460	0.615
2000	0.394	0.367	0.186	0.405	0.309	0.413	0.324	0.515
2001	0.346	0.444	0.143	0.324	0.266	0.339	0.260	0.523
2002	0.275	0.342	0.124	0.260	0.270	0.321	0.255	0.411
2003	0.216	0.326	0.090	0.208	0.211	0.249	0.203	0.338
2004	0.200	0.309	0.107	0.194	0.184	0.238	0.316	0.294
2005	0.223	0.383	0.118	0.223	0.201	0.289	0.197	0.343

출처 : 기윤환, 『인천광역시 도시관련 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6, 62쪽에서 재작성.

앞으로 인천의 도시기본계획(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도심 6부도심으로 구상하였던 공간적 배치를 1도심 5부도심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생활권을 8대권 11중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러한 계획속에서 부평은 부평대권(계양중권, 산곡중권(부평1 · 2 · 3동, 산곡1 · 2 · 3동, 청천1 · 2동)), 부평중권(부평4 · 5 · 6동, 갈산1 · 2동, 삼산동, 부개1 · 2 · 3동, 일신동)으로 분류되었다. 일부지역은 서북부 대권 중 가좌중권(십정1 · 2동)에 속하기도 하지만 부평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부평구는 도심기능을 문화 및 자동차 산업에 중심기능을 두고 부평대권에 따라 부평역 기능개선사업과 부평미군부대 공공시설 사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부평구에는 도시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은 도시기본계획상 문화 및 자동차 중심기능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인구 집중도는 인천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특화는 3차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3장 부평구민의 사회참여

제1절 시민사회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부평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양성과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었던 활동은 일상의 각 분야로 파급되어 퍼져나갔으며 '운동가'들이 선도하고 시민들이 동조하던 운동의 형태는 주민 주체의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 갔다. 계양산 살리기 운동과 부평미군부대 반환 운동은 이러한 운동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 운동이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로 분화·발전되어 가던 시민사회운동은 2000년대로 들어서며 낙천·낙선 운동이라는 새로운 이슈 하에서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결집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상의 개혁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도 주요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 단체들 간의 결합을 통해 역량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 계양산 살리기 운동의 재연과 부평미군부대 반환 결정

1990년대 이후 부평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역 현안 문제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은 계양산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였다. 1991년 계양산에 위락단지

※ 이 글은 김현석(부평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이 책임집필하였음

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1993년 결국 계양산 개발 계획을 반려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양산 개발은 계속 시도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 역시 계속 이어져 가며 현재까지 부평지역의 가장 큰 지역 현안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계양산 개발 계획은 골프장을 포함한 위락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는데, 개발 이외에도 1999년에는 경인화학상사에서 다남동 일대 2천여 평에 산업용 화약 20여 톤을 보관할 수 있는 화약고를 건설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고, 2000년에는 육군 모 부대가 계양산 정상 부근에 통신용 건물과 철탑을 세우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를 위해 나무 위 시위를 전개한 윤인중 목사

출처 : 인천시민위원회 홈페이지

가장 최근에 대두된 계양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2006년 5월 롯데그룹이 목상동 일대 5천여 평의 산림을 불법으로 파헤친 후 골프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 계획을 제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부평지역의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계양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2006년 8월 9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이하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40여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발족되었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체계적인 계양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인천시에 요구하였고, 뒤를 이어 종교인, 교사, 노동계 인사, 대학 총학생회, 각계 원로 등 각 개별 단체들의 선언문도 잇따라 발표되었다. 이들 선언문에서 계양산의 보전 가치에 대하여 제기하는 내용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계양산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영원히 보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쉼터일뿐만 아니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곳인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근복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계양산은 인천 내륙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천 녹지 생태축을 훼손하여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양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대 지정과 역사 · 문화 · 생태공원 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양산 개발 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가운데 10월 26일 녹색연합 소속 회원이 골프장 계획 부지에 있는 10m 높이의 소나무에 올라 56일간 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고, 윤인중 목사가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나무 위 시위를 이어 가기도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2007년 1월 23일 2기 활동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갖고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이하 시민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다. 인천시민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총 53개 단체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참여 단체 명단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남동시민모임,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부평시민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이주노동자인권센타,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생협연합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정보센타,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청소년그린봉사단,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청학환경운동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시민위원회는 이 날 발표한 '계양산 시민자연공원 추진 제안문'을 통해 계양산 북록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놓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남측은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계양산 북사면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발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러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계양산 북사면을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단신도시, 청라지구 등 향후 인천북부지역의 개발과 함께 계양산의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계양산은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바람직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측면에서 계양산은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해야합니다.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발족 기자회견(2007. 1. 23)

출처: 인천시민위원회 홈페이지

계양산 살리기 운동이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어 가는 와중에 부평미군부대 반환이 결정되었다. 2002년 3월 29일 인천시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 협상에서 부평미군기지가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부평미군부대 반환을 둘러싼 오랜 논의는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1996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시민사회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반환이 결정된 이후에도 부평지역의 시민사회는 반환 부지의 활용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는 반환 결정 이후 2008년 반환 약속 이행과 부대 내 환경조사 등을 요구하며 제2의 반환 운동을 추진해 갔고, '부평미군부대 공원화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공추협)는 토론회 등을 통해 부지활용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갔다. 한편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등 인천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반대를 요구하며 1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부지 활용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련 대학 분교나 학과, 신학교, 공원, 도서관, 초중고교, 대형병원, 문화시설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송병준의 후손이 부평미군부대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부평미군부대 반환 결정까지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역 공간의 회복을 목표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는 회복된 공간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하는 문제로 논의의 중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부평 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환경 · 경제 ·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도시 공간의 새로운 기획을 통해 시민들이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구조의 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반환 운동 돌입을 선언하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

출처 : 『부평신문』

부평지역의 시민사회는 과거의 선언적, 물리적 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점차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2. 낙천 · 낙선 운동과 시민 감시 체제

199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감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권자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낙천 · 낙선 운동이다. 제16대 총선부터 본격화된 낙천 · 낙선운동은 낙천대상자 발표, 선거법개정운동, 낙선대상자 낙선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낙선대상자의 2/3가 총선에서 낙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참여는 이미 1987년 대선 당시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단체는 1991년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라는 상설선거감시기구로 발전하였고, 부정선거고발센터를 통한 선거부정 감시, 후보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책캠페인, 시민후보 추대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공선협의 활동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얻지 못하였다.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2000년 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추진한 낙천·낙선운동은 공선협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한 대안이었다.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월 10일 경실련이 1차로 164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후보 바로 알기 정보공개운동'을 벌였던 경실련은 명단 발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000년 1월 24일에는 총선연대가 4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총선연대는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한 후 명단에 포함된 후보들이 출마한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해 갔으며,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함께 벌여나갔다. 한편 공선협 역시 총선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준수서약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제16대 총선에서 총선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자는 1차 발표 66명, 2차 발표 47명 등 모두 113명이었다. 이 중 52%가 낙천되었고, 총선연대는 공천된 사람들을 비롯해 모두 86명의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시작하였다.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는 2000년 1월 출범 당시 400여 개 단체에서 운동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1,000여개 단체로 확대되어 있었다.

총선연대는 제16대 총선의 낙천·낙선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이번 16대 총선은 부패, 무능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장이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들 중 68% 정도가 낙선하였고, 수도권에서는 95%의 낙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강세지역의 후보자들로 선정되었던 집중낙선운동대상자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전원이 낙선되는 등 22개 지역 중 15곳에서 낙선되어 68%에 이르는 낙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총선시민연대의 활동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열망과 의지 때문입니다.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퇴출의 요구를 공천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무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이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하여 그동안 방관자로 머물러왔던 유권자들은 화려하게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의 대장정을 끝내며」, 2000. 4. 14)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이후 선거 때마다 계속 진행되었고, 부평지역에서도 탈세, 금품 수수, 금품 살포, 당적 변경, 정책 평가 등을 근거로 낙천 대상자를 선정,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3.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1994년 발생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은 그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평구가 출범하기 몇 달 전인 1994년 9월, 북구청 전 세무2계장 안영휘가 구속되는 것을 시작으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범인 안영휘는 일부 세무과 직원 등과 함께 영수증 고무인을 위조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50~80%를 착복하였다.

지방세의 경우 납기가 지나면 은행이 아닌 관할 구청에 세금을 내는데 등록건 수가 수 십만 건에 달해 일일이 미납자와 미납액수를 대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범죄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들이 13개 항목의 지방세 중 횡령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였다. 다른 세금들에 비해 건 당 얻어낼 수 있는 수입이 높았기 때문이다.

주범인 안영휘는 1심에서 징역 22년 6월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 재산 헌납의사를 밝히고 벌금 없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5년 복역 중 재산헌납 의사를 번복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은 당시 부평지역이 신흥개발지로서 세원이 풍부했다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북구청 관내에는 재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를 행정 관청 및 감사 기관 등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담당공무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또한 전근대적인 지방세 징수 방법과 철저하지 못한 감사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세금 수납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납과 관리가 공무원들에게 모두 맡겨져 범죄가 가능할 수 있었다.

북구청의 세무비리가 드러나자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해당 세무 공원들만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감사계장이 관련 사범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충격은 더해갔다. 결국 1994년 9월 16일 부평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인천 경실련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1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더 이상 봐주기식 감사와 수사를 하지 말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광범위한 사정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과 인천시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구청 세무비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은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의 성과 이후 부평지역의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드러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더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 운동이 참여와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성을 정립해 가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4. 여성 단체의 활동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움직임 중 또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각종 여성 단체들의 활동이다.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갔고, 여성 스스로도 단체의 결성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평지역에서는 1988년 3월 16일 10개의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성매매현장상담소 개소식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과 함께 부평구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

2007)』에 근거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관내 여성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여성들의 권익증진 사업도 활발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를 위한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부평구 관내 여성 문제 상담소 현황 (2005년 현재)

시설명	설치 연월일	소재지	상담 및 처리 실적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1995. 6. 15	부평4동 417-40 (4층)	132건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998. 12. 28	부평4동 417-40 (4층)	1,248건
부평성폭력상담소	2005. 02. 14	부개2동 105-16	120건
인천가정사랑 성폭력상담소	2005. 02. 23	십정동 577-8	27건
인천가정사랑 가정폭력 상담소십정동	2005.02.23	577-8	115건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2004. 09. 03	부평4동 417-40(2층)	1,642건
(사)인천여성의전화부설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2004. 10. 02	부평5동	보호시설 이용인원 : 48명

제2절 환경운동

1. 환경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1988년 창립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으로부터 출발한다. 공추련은 1982년 창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거쳐 1987년 결성된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1986년에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가 통합하여 1988년에 만들어졌다.

공추련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 부산, 광주, 목포 등지에서도 공해추방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1989년 창립된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1989년 창립되어 1992년에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한 광주환경연구회, 1988년에 창립된 목포녹색연구회 등 피해주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기업과 정부에 맞서 싸우던 진보적 환경단체들을 비롯하여 1991년 3월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산 창원지역과 대구지역에서도 각각 환경단체가 결성되어 환경운동연합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환경회의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한 것도 지역 환경단체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사회의 환경위기의 급박한 흐름을 반영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창립된 대표적인 환경단체는 녹색연합(1991년 배달환경으로 출발), 환경정의시민연대(1992년 환경개발센터로 출발), 환경운동연합(1993년) 등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서울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남강을지키는 시민의모임,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들이 통합하여 전국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내 최대의 환경단체를 넘어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살리기, 시민 대

※ 이 글은 유종반(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책임집필하였음.

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현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조직이 52개에 이르고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환경교육센터, 월간 함께사는 길, 시민환경정보센터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속해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핵물질 이용 반대, 고래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2002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의 벗'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하여 '지구의 벗 한국'의 자격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배달환경연구소와 직장인들을 주축으로 1991년 창립하여 반핵 평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대안정치를 꿈꾸던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등이 모태가 되어 1994년 4월 통합하며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했다.

녹색연합은 생명과 평화 이념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녹색운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녹색연합 등 전국 광역단위에 10여 개 지역조직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백두대간 조사 및 보전지역 지정 활동, 미군부대 환경문제 대책 활동, 새만금 및 천성산 살리기 활동, 야생동물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직후 경실련의 산하기구인 '환경개발센터'로 출발했다. 1998년 단체명을 '환경정의시민연대'로 바꾸고 1999년에는 경실련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용인 난개발, 팔당상수원 난개발 대응, 경인운하 개발사업 반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도입 등 국토보전 활동과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의 친환경 먹거리 운동, 용인 난개발 반대운동(2002),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대책 활동(2003)을 실시하였다. 2004년 '환경정의'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토지, 대기, 물, 먹거리와 유해물질 등 기존 운동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운동, 세대 간 환경부정의 해결을 위한 아동환경권 확보 운동 등을 새로



서구 검암동 현장에서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서울과 인천지역 환경단체 회원들(2003)

이 모색하고 있다.

2. 인천 지역 시민환경운동

인천 지역 환경운동은 1994~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토대로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조직의 하나로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고, 가톨릭환경연대는 인천 지역에서 먼저 창립되어 최근 중앙조직이 설립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설립된 천주교 내 최초 환경단체로서 1993년 가톨릭환경연구소로 출발한 후, 1999년 가톨릭환경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밀살리기운동(1993), 1회 환경바자회(1994),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건설저지 운동(95), 아나바다 가정만들기(1997~), 인천녹지축잇기와 숲살리기(2000), 경인운하 건설반대 대책위 활동(2000), 인천항주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활동(2001~), 월미산 녹지생태학교(2002~), 월미산생태도감 발간(2003), 문학산 역사생태학교(2004~) 등이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1993년 5월 인천배달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배달환경연합의 지역조직으로 창립되었다가 1996년 7월 재창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활동(1994), 대만핵폐기물 북한저지 운동(1997), 인천시민행정존중 평가단활동(1998), 문학산군사시설 반대운동(1999), 문학산미군기지터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대책활동(2000~), 무의도 골프장 건설 · 반대운동(2001), 송전탑전자파 조사 및 대책활동(2002), 논현택지개발지구 환경문제 조사 및 대책활동(2002~2003), 자치단체장 환경공약 및 정책추진 사업평가활동(2003~), 인천앞바다 바다모래 채취 금지 및 인천섬살리기 운동(2004~), 자연안내자 양성 전문교육(2004~), 인천 하천생태계 조사 및 생물도감 발간(2005), 계양산골프장 건설반대 등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을 통하여

1994년 12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으로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영흥도화력발전소 건설반대(1997~98),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 운동(1997), 자전거도로 실태조사(1998), 송도매립지 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 조사 및 보전활동(1999~), 경인운하 대책위 활동(2000), 저어새 보호 캠페인 및 보전활동(2001~), 노랑부리백로 생태조사 및 보전활동(2002~), 동양화학폐석회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활동(2003~) 등이다.

이들 단체 외에 인천시에 등록된 인천지역 환경단체로는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자연보호 인천시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친환경생활운동국민운동 인천시지부', '청학환경운동인천본부',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등 29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계양산 목상동에서 계양산 골프장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인천녹색연합 회원과 시민들(2003)

3. 부평지역 시민환경운동

부평지역 시민환경운동은 특별한 조직이 없이 인천녹색연합이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2000년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의 경우 1996년부터 부평구 십정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여 3년간 부평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운동 범위가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평지역 환경단체라고 할 수 없고 부평지역에서 조직화된 시민환경운동단체는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는 아니지만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부녀회)과 종합복지관 등 부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단체에서 생태교육과 환경감시활동, 하천 및 도로청소 등 환경 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4년 민관기업이 모여 만든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가 출범하여 새로운 환경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1)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

부평지역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시민환경운동단체는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이 처음이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은 부평을 중심으로 지나는 굴포천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사랑하는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순수 민간단체이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은 2000년 하반기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동호에서 굴포천에 관련된 토론이 시작되면서 지역인사들이 굴포천 실태를 파악한 뒤 실무위원회(준비위원장 박남수)를 구성하고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설립을 결정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001년 2월 인천시장과의 대화에서 굴포천 건천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조감도 제작, 굴포천 청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창립행사(2001)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은 2001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창립식을 가졌는데 신종철 목사를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 죽어가는 굴포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생태환경조성 등 적극적인 시민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굴포천 조사 활동

굴포천과 농수로에 대한 답사와 자료수집을 시작한 이래 2002년부터 학계와 환경전문가들이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에 결합하면서 굴포천과 농수로에 대한 조사의 폭이 넓어졌다. 굴포천 조사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며, 시민이 직접 굴포천의 수질을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실시 중이다.

2003년에는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굴포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굴포천 관련 최초 보고서인 『굴포천 유역 특성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조사 사업을 통해 그 동안 환경부에서 3곳만 조사했던 굴포천 수질 측정 정보를 10여곳 이상 가지게 되었으며 서부간선수로에 대한 수질 측정도 함께 진행하여 농수로에 대한 수질 측정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2) 굴포천 청소 활동

2001년 10월 6일,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굴포천 청소의 날을 정하여 굴포천 청소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매월 지역주민과 단체, 학생들과 함께 굴포천과 농수로 청결 활동을 벌여왔다. 굴포천이 생활오수와 공장폐수가 흐르는 하천이라고 하여 불법 무단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운동 차원으로 굴포천 정화활동을 승화하여 시민 스스로 굴포천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였다.

(3) 서명운동 및 홍보 활동

2001년 창립후 '굴포천을 살립시다' 라는 주제로 대시민 거리홍보활동과 '굴포천살리기 시민서명운동' 을 벌여 나갔다. 그 결과 2001년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청에 전달하여 인천하천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서명운동과 함께 굴포천 사진전시회와 병행하여 굴포천 오염 현황을 보여주면서 차집관 공사로 인한 건천화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2년 8월에는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2회에 걸쳐 '굴포천을 살립시다' 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굴포천 홍보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03년에는 SBS '물은 생명이다', iTV 등 방송사에서 굴포천 현황과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 등을 집중 취재하여 방영하였다.

(4) 굴포천 정화대책 촉구 및 정책제안 활동

2001년부터 인천시청과 부평구청을 찾아가 인천시장과 물관리과장 등 관계당국과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굴포천 정화대책 수립을 촉구하

였다. 2002년에는 인천대와 경인여대 교수 등 학계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굴포천 살리기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굴포천 오니 제거를 위한 자체실험 등 하천복원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연구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생태하천 견학

2002년부터 시작된 생태하천 견학은 지역주민들에게 굴포천을 살려야 되는 이유와 굴포천 미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홍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아난 서울의 양재천과 경기도 수원천을 견학하면서 굴포천처럼 오염되었던 이들 하천이 어떻게 되살아났는가를 깨우쳐주는 소중한 비교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가 대상자들도 갈산중학교를 비롯하여 부평지역의 학교와 교회,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등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6) 주민참여 행사

2001년 8월 4일 굴포천 통일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굴포천 주변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세계물의 날 행사를 굴포천변에서 개최하였고, 정월대보름 행사와 낚시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4년에도 정월대보름 행사에 이어 '제12회 세계 물의 날' 인천시 행사도 굴포천에서 진행하였다.

(7) 연대 활동

2003년 인천시에서 굴포천을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는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물생태분과에 참여하여 2003년 6월 푸르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추진단 구성 간담회를 갖고 9월 민관합동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발족에 적극 참여하였다.

(8) 교육 활동

교육 활동으로는 '하천지기 및 안내자 양성을 위한 하천생태학교'(2004년 4월~12월), '생태하천투어'(2005년 7월~12월), '하천캠프' 등을 진행하였다.

하천생태학교는 굴포천 및 공촌천 인근 주민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 습지와 동식물 생태 등 총 12강좌를 실시하였고, 생태하천투어는 인천 관내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 견학 및 정화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생태하천투어에는 여름투어에 669명, 겨울투어에 44명 등 총 70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천생태학교 수료식 및 인천하천지기단 발대식 (2004)

하천캠프는 2005년 1월 12일~14일, 8월 17일~1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가평 수련원에서 학생 및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물놀이 및 물속곤충관찰, 레크레이션, 자연물 작품만들기 등의 교육활동을 펼쳤다.



여름하천캠프(2005)

2) 부평의제21 활동

'의제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 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성과가 의제21에 대한 실천결의이다.

'의제'란 모여서 주제를 논의하거나 또는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의제21'이라고 하면, 주민, 기업, 행정이 한데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의제21(agenda 21)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하였는 데 하나의 이정표를 이룩하였다.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또한 오늘날의 지구상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 강령을 담고 국가 및 지방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9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어그에서 개최되는 '리우+10' 회의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각 국 노력과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약 90%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의제21에 관해 작성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작성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힘입어 부평구에서도 2004년 6월 4일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인, 전문가 등 22명이 모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부평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의제 활동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형태와 생활방식 실현이 주요 목표인데 부평지역에서 의제의 필요성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나타난다. 부평지역은 유난히 평야가 많다. 지리적으로 인천 동북부에 위치하여 사실 바다와는 거리가 먼 지역적 특색을 안고 있어 예부터 인천과 분리 발전하여 왔다. 경인철도의 부평역과 미군부대, 수출공단의 영향으로 서민 중심의 밀집된 도시로 이루어 졌으며, 인구

밀도가 높아 도시문제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한편, 문화 · 체육 등의 기반시설과 공원이나 녹지가 취약해 도심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평의제21 탄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부평의제21은 추진대회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 선임을 마치고 실천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부평의제21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추진준비위원회를 가졌으며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명칭 공모를 통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꿈에그린부평21"을 부평의제21의 정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부평의제21 풍물축제 참가 행사(2006)

현재 분과위원회는 굴포와 자연분과, 경제와 사회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와 복지분과, 마을자치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 조직



3) 부평지역 사회단체 환경활동

부평구에서 활동해 온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굴포천이나 공원 정화활동,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주민 환경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부평구 새마을운동지부와 부녀회

새마을운동 부평구 지부에서는 1970년부터 부평지역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각 동별 내 집 앞 쓸기 사업, 부평공설묘지 불법 쓰레기수거와 환경정비 사업, 굴포천 정화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매년 5월,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3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재활용 환경교실운영 및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부평지회 부녀회에서는 1996년부터 매월 1회 시티백화점(현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월요 알뜰장터를 개설하여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을 실시하였다. 의류, 생활용품, 완구, 가전제품 등 중고 물품을 재활용품으로 교환하거나 물물교환, 알뜰판매 교환권을 증정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중고가전제품 판매 및 수리 활동도 실시하였다.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회원들의 부평구 관내 거리청소 활동(2005)

(2) 삼산 및 갈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운동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996년부터 환경사랑 자원봉사단체인 '무지개탐정단'을 만들어 환경지킴이 물사랑교실(굴포천, 공촌천 등의 오염조사, 물홍보관과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견학, 재생비누제작, 식물도감제작)과 환경탐사활동(인천대공원 체험학습, 철새탐조, 상아산 등 등산, 생태하천 견학, 여름과 겨울방학 때 생태학교 실시) 등을 실시하였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1년부터 녹색가게를 설립하여 재활용품 교환 등 아나바다운동을 통해 이웃사랑 및 녹색소비 실천운동, 자원절약 및 재사용문화 뿌리내리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위기 극

복에 일조하고 있다.

(3) 기타 단체 활동

그 밖에도 청개구리도서관, 아름드리도서관 등 지역주민도서관에서는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곡3동과 산곡4동에서는 아름다운 가게를 통한 재활용품 판매와 기증 사업 등을 진행하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인천생활협동조합 등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농촌살리기 운동,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의 하천 및 자연녹지 청결운동, 부평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늘푸른봉사단의 거리청소와 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주부교실 부평구지회, 한국부인회 부평구지회, 부평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평구 자유총연맹 등 각 사회단체들에서도 매년 거리청소 등의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평구 환경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에서 진행하는 자연환경체험이나 학술행사, 물아껴쓰기 홍보교육 등도 부평구 환경운동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4) 부평지역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

지구의 날 30주년을 맞는 2000년 전 지구인들의 바램을 모아 '지구의 날 2000' 행사를 세계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인천지역에서는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구의 날 2000 인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없는 거리', '숨쉬는 지구'라는 주제로 4월 22일 부평역 8차선도로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인천 최대 환경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제31회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2001, 부평대로)

이 축제는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하고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협의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환경○×퀴즈, 자전

거대행진, 대형환경걸게그림 공동작업, 어린이 지구반지 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 환경가장행렬, 옛날교통수단체험하기, 지구환경서약, 느림보자전타기 대회, 시민환경여론게시판 등이 있었고, 녹색지구 희망띄우기, 펭귄이 녹고 있어요, 우리지역 환경문제알리기 등의 전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2000년에 이어 2001년 제31회 지구의 날에도 부평대로에서 '되살아나는 지구', '지구를 살리는 환경월드컵'이라는 주제로 4월 20일 개최되었다.

제3절 체육 활동

1. 각종 구민 참여 체육행사



구민화합 동참 체육대회 (1993)

부평구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체육 행사는 크게 구민 체육 행사와 구청장기 체육 대회, 생활체육교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5년 부평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구민 체육 행사는 1996년의 구민화합 동참 체육대회와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으며, 참여 인원은 약 3,000여명이었다. 이들 행사는 북구 시절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을 부평구 출범 이후 이어간 것이다.

1996년 부평구 주최 체육행사

구 분	행 사 명	참여 인원
구민 체육 행사	구민화합 동참 체육대회	4종목 3,000여 명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	6개 부 54명
구청장기 대회	부평구청장기 축구대회	13개 팀
	부평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18개 팀
	부평구청장배 테니스대회	15개 팀
	부평구청장기 배구대회	12개 팀
	부평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국민학생, 중학생, 여중부 700여명

※ 이 글은 임고은(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원)이 책임 집필하였음.

1997년 이후에는, 구민화합 동참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구민 민속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생활체조발표회가 진행되었다. 구민민속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로만 구성하여, 단순히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1997년 처음 시도되었다. 또 개막행사로 주민들로 구성된 21개 동 풍물패의 풍물공연이 있었으며, 차전놀이, 오색단심줄감기, 굴렁쇠 굴리기, 게줄 땡기기, 사인교달리기, 민속놀이 등으로 행사가 구성되었다.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
(1997)

1997년 부평구 주최 체육행사

구 분	행 사 명
구민생활체육대회	민속생활체육대회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대회	부평구청장기 축구대회
	부평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부평구청장배 테니스대회
	부평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생활체조발표회생 활체조발표회

1998년, 99년을 거치면서 구청장기 대회는 수영, 등산, 체조 등이 추가되어 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구민민속생활체육대회가 부평풍물대축제와의 유사성 때문에 통합되면서 체육 행사로는 개최되지 않게 된다. 2000년 구청장기 대회로 족구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부평구 생활체조발표회
(1998)

2000년 부평구 주최 체육 행사	
구 분	행 사 명
민속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구청장기 배구대회
	구청장기 볼링대회
	구청장기 족구대회
	구청장기 등산대회
	구청장기 체조대회

2001년에는 구청장기 검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대신 구청장기 배구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2002년 이후에는 구청장기 바둑, 여자테니스, 농구, 탁구대회 등이 추가로 개최되었으며, 약 15개 종목에 5,000명 이상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2001년 부평구 주최 체육 행사	
구 분	행 사 명
민속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구청장기 검도대회
	구청장기 볼링대회
	구청장기 족구대회
	구청장기 등산대회
	구청장기 체조대회

한편, 1996년부터는 학교 또는 공원 등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1996년 14개 소에 그치던 건강체조교실은 1997년에는 16개 소, 1999년에는 22개 소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는 아침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교실이 가장 먼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에는 약 15,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2. 생활권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부평구에는 최근 대규모 체육관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와 삼산월드체육관이 신설되어 구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체육관이 설립되기 전, 부평구에는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동네 체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체육시설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평구가 인구 56만의 거대 자치구라는 점,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지난 2005년까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평구의 동네 체육시설 현황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9월 발표한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체육시설은 강화군, 남동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동네체육시설은 도시공원 형태가 가장 많았다. 또, 문학경기장이 위치해 있는 남동구를 제외하면, 동네 체육시설의 총 면적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동네 체육시설 현황 I (2006년 8월 현재)

구 별	시설 수(설치유형별)									시설 조성 면적(㎡)
	계(개소)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계	298	13	0	56	4	22	17	37	149	741,850
중 구	8			1	1			2	4	5,001
동 구	8	1		1				1	5	7,157
남 구	31	1				1		7	22	46,004
연수구	12	1							47	9,442
남동구	46	3			1	9	4	4	25	448,183
부평구	42	3		7		8	7	11	6	99,276
계양구	15	2		3		1	4	2	3	32,010
서 구	33	2		4	2	3	1	6	15	29,478
강화군	86			37					49	41,503
옹진군	17			3			1		13	23,796

동네 체육시설의 시설 내역을 보면 개별 시설의 수는 부평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간이 운동시설 중에서는 배드민턴장이 가장 많았다.

인천광역시 동네 체육시설 현황 II (2006년 8월 현재)

구별	시설내역														
	① 간이운동시설 (면)													② 체력단련시설(점)	③부대편익시설(점)
	계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운동광장	배드민턴장	체조장	로울러장	수영장	기타		
계	454	14	11	91	5	49	99	4	121	2	0	0	58	889	1870
중 구	8			4		2	1			1				28	50
동 구	10			5		1	2		1				1	15	46
남 구	63	2	2	25		4	8		10				12	85	131
연수구	23	1	1	9	1	1	1		4				5	31	22
남동구	70	2	2	14	3	8	5		17				19	177	498
부평구	98	5	2	9		6	13	3	50				10	282	611
계양구	42	4		7			5		23				3	60	112
서 구	37		3	8	1	5	9		11					132	193
강화군	86			8		17	52	1	3				5	65	146
옹진군	17		1	2		5	3		1	2			3	14	61

각 동별 동네체육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평2동 : 부남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부개산헬기장 공공체육시설, 철마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
부평3동 : 용포약수터 동네체육시설, 호봉산 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 백운게이트볼 공공체육시설, 부평공원
부평4동 : 신트리공원 동네체육시설, 부평고등학교 동네체육시설, 부평근린공원 공공체육시설
부평5동 : 부흥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중부동공원 동네체육시설, 부흥게이트볼 공공체육시설
부평6동 : 정상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 부남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
산곡1동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동네체육시설, 매곡약수터 공공체육시설, 철마약수터 공공체육시설, 부평1배수지 체육공원
산곡2동 : 산곡2동 동네체육시설
산곡3동 : 선포산 동네체육시설

산곡4동 : 부영공원
청천1동 : 삼천약수터 공공체육시설, 석천약수터 공공체육시설, 장수산 동네체육시설, 청천약수터 공공체육시설, 뫼골공원
청천2동 : 청천2동 동네체육시설
부개2동 : 대촌공원
부개3동 : 자원재활용센터 동네체육시설, 방촌공원, 청운공원
갈산2동 : 대월놀이공원 동네체육시설, 갈산공원 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
삼산동 : 삼산게이트볼 공공체육시설
일신동 : 일신동 동네체육시설, 백조약수터 공공체육시설, 일신게이트볼 공공체육시설
십정1동 : 열우물놀이공원 동네체육시설, 백운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은 총 58개 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공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제8회 부평구청장기 축구대회(1997)

대월놀이공원, 굴포공원, 사근공원, 마분놀이공원,
상꾸지놀이공원, 새갈놀이공원, 명월놀이공원, 새울놀이공원,
반월놀이공원, 쉼터놀이공원, 마당놀이공원, 비둘기놀이공원,
대갈놀이공원, 부개공원, 청운공원, 중부동놀이공원,
세영공원, 방촌공원, 대촌공원, 하촌놀이공원,
대동놀이공원, 신궁동공원, 개울놀이공원, 상상놀이공원,
동소정놀이공원, 등세이놀이공원, 새말놀이공원, 은행나무놀이공원,
일신놀이공원, 서부동공원, 부흥놀이공원, 수정놀이공원,
신트리공원, 고니샘놀이공원, 장마당놀이공원, 법성놀이공원,
후정공원, 영성공원, 꿈동산놀이공원, 열우물놀이공원,
동화놀이공원, 가족놀이공원, 도드리놀이공원, 뫼골놀이공원,
나래놀이공원, 백운공원, 애향놀이공원,
하정놀이공원, 샘터놀이공원, 석정놀이공원,
약산놀이공원, 동암놀이공원, 제일놀이공원,
하동놀이공원, 방죽놀이공원, 원적산공원,
부영공원

3. 체육 관련 단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부평구의 민간 체육단체는 협회 차원에서 크게 생활체육협의회와 부평체육회를 살펴볼 수 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1980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열기 고조와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생활체육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1년 1월 8일 창립되었다. 이어 동년 4월에는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되어 민간차원의 생활체육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 단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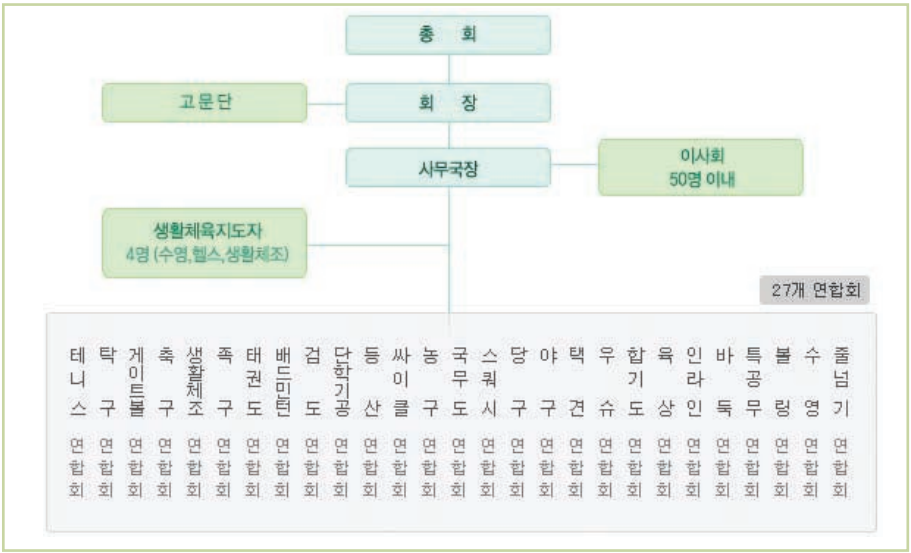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는 1993년 창립총회를 갖고 테니스연합회, 탁구연합회, 축구연합회, 배구연합회, 태권도협합회, 배드민턴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가 가입하여 구성되었다. 초대 설립 목적은 '범국민 체육생활화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담 실천, 국민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보장, 밝고 활기찬 생산적 사회분위기 조성'이었다. 1995년에는 생활체조연합회가 가입하였고, 1998년에는 스킨스쿠버연합회, 등산연합회가 가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씨름연합회, 싸이클연합회, 족구연합회, 단학기공연합회, 핸드볼연합회가 가입하였다. 2000년에는 2대 회장이 취임하였고, 검도연합회, 농구연합회가 가입하였고, 2001년에는 당구연합회가, 2002년에는 국무도연합회, 야구연합회, 스쿼시연합회, 택견연합회가, 2003년에는 우슈연합회가 가입하였다.



백운게이트경기장 본부석 준공 기념 게이트볼대회(1995)

1997년 3월 부평구 청사 내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체육 활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와 구민참여 행사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동하도록 하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조직도



이와 같이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증가는 부평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9년에서 2002년까지 다양한 종목의 연합회가 결성되고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해 온 점은 부평구민의 생활체육 참여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즐거운 주말리그'를 통해 년 5개 종목의 단체를 선정,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를 정착시킴으로써 주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종목별로 동호인 클럽을 조직, 시 및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각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고루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 복지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생활체육활동을 접목시키는 '장수 생활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면서 개인 및 가정, 노후생활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부평체육회는 1993년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대한체육회 설립 근거),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1994년에 설치되었다. 부평체육회는 현재 간부이사 14명과 운영이사 37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관내 체육운동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구민 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구민체육의 육성, 체육운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 계몽, 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향상 및 전문 지도자 육성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평체육회는 장학사업,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각종 대회 성적 우수자 육성 지원, 체육인상 시상 등을 통하여 부평구 체육의 기대주를 육성해 나가는 한편, 부평구 체육발전에 공헌이 있는 체육인들을 발굴, 시상하여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체육인의 밤' 행사를 마련하여 부평구 체육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향후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부평구 체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4. 부평구민의 문화 ·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난 10년간 부평구민의 체육 활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형식으로, 전문적 체육활동에서 생활권 체육활동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평구민의 체육활동은 다분히 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인구에 비해 부평구의 체육시설 현황도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족한 시설을 기반으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설에 기반을 둔 체육 활동은 그 내용 또한 획일적이고 상투적으로 정형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평구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구민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콘텐츠를 구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라 부평구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평구 내에 있는 체육 관련 동호회 및 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4절 구호자원봉사활동

1.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부평구는 2000년 이후 자원봉사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자원봉사의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4년 5월 14일 개소식을 가진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부평구 자원봉사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1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2004년 4월 민관혼합 운영 체제로 출범하였으며, 2005년 12월 현재 150개 단체 11,08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평구는 2005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원봉사관리자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자원봉사 리더 및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봉사단이 발족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2004년 8월 이미용봉사단을 시작으로, 미추홀도배봉사단, 부평국화(주부)봉사단, 어르신봉사단, 가족봉사단 등이 발대식을 개최하며 차량봉사, 장애인 휠체어 수리봉사, 이미용봉사, 벽화그리기 봉사, 집수리봉사, 간병봉사, 의료봉사, 외국어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재해구호봉사단이 구성되어 이듬해 전북 진안의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된 '두레마을 물결운동'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레마을 물결운동'은 '우리 동네 봉사는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각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은 두레마을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해복구나 독거노인 돌보기, 장애아동 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이 글은 김현석(부평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이 책임집필하였음.

부평4동 두레마을 운영모습(2007)

두레마을 물결운동과 병행하여 1+1운동, 3+1운동 등도 추진되었는데, 1+1운동은 한 사람 당 가로수 한 그루를 가꾸거나 한 단체가 한 공원을 관리하는 운동이고, 1+3운동은 독거노인 한 명을 세 명의 봉사자가 공동으로 보살피는 운동이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인천시로부터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16개 시·도 기초자원봉사센터 232개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15일에는 '제1회 부평구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하여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2005부평구자원봉사박람회&대축제'를 개최하여 1만3천명의 구민이 행사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2005 부평구자원봉사대상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경인여자대학, 경인교육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등과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학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1,500여 명의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부평구 자원봉사 박람회& 대축제(2005)

2003년 1월 21일 여성과 신설과 더불어 종전의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활동센터 등 일련의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792명의 등록자원봉사자 및 2,058명의 잠재적자원봉사자 등 총 2,850명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기본 및 전문)교육, 상해보험가입 지원, 자원봉사활동사항 홍보 및 출판,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평구여성자원봉사대의 경우 1990년 3월 30일 출범한 이후 현재 33명의 회원으로 구성 협성양로원, 한우리선교회, 쉴만한물가의 집 등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인 목욕 및 청소활동 등 가사적 봉사활동 및 재가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 2회 삼산동 거주 사할린 동포 어르신 야외나들이, 추석 및 설날에 즈음한 명절맞이 이웃돕기 성품과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등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12월 16일 2003 인천광역시자원봉사자대회

에 대한미용사회부평지회봉사대와 함께 유공 자원봉사단체로 선정 표창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는 16년간 38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등록 현황 (2005. 12. 31 현재, 단위 : 명)

구분	합계	종합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처 현황			상해보험 가입자
		소계	단체		개인	개인	합계	시설	개인	
부평구	11,083	11,043	155개	8,459	2,584	40	1,491	298개소	1,193	4,217

출처 : 『구정백서』, 부평구, 2006.

2. 각계의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이득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평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여성, 지역사회 분야에서 봉사활동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노인 분야의 경우, 현재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대안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의 경우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식사 제공, 세탁물 정리 등의 형태로 봉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유형은 대개 시각 · 청각 · 언어 등을 비롯한 신체 장애와 발달 장애 등의 정신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봉사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부평구 내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하거나 개별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해 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도 부평구 자원봉사활동의 주요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봉사회 부평지구협의회는 1987년 3월 결성되어 부평1동, 부평2동, 부평4동, 진달래봉사회 등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거주

할 곳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봉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 돕기 바자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활동, 관내 불우 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잠바 및 휠체어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해 왔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평지구협의회 세탁 봉사 현장(2007)

부평구 약사회는 그간 사랑의 도시락을 구입,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던 활동을 2006년부터 '1+사랑나누기' 결연사업으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1+사랑나누기'란 약사회 회원들이 1구좌(8000원)씩을 후원하던 것을 많게는 15구좌까지 늘려 후원하는 것으로, 부평구자원봉사센터와의 결연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의 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평에 본사를 두고 있는 GM대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지엠대우한마음재단'을 통해 회사 차원의 자원봉사 및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GM대우 사회봉사단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방문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하는 행사가 부평풍물대축제다. 2005년 제9회 축제 때는 모두 32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외국어 및 민원봉사 등을 포함한 일반 자원봉사자가 126명이었고, 학생자원봉사자 196명 등이었다.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등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많아진다. 이들은 외국어 통·번역, 축제 안내 및 운영, 장애인 안내 서비스, 각종 체험마당 행사 도우미로 활동하며, 교통정리, 무대 경호, 청소 등의 일도 맡아 진행한다. 사실상 부평풍물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4장 문화와 생활

제1절 문화자원 현황

1. 부평문화권의 문화자원 현황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로 서해와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중요시 되어 왔다. 계양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선사시대 이래 인류의 생활터전으로 적극 활용된 결과, 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으로는 서구 원당동과 당하동 등지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 되었고, 검단동에서는 신석기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곡동과 원당동에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와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역사시대의 유적으로는 부평도호부, 부평향교를 비롯하여 각종 고분과 계양산성, 중심성, 축곶봉수, 연희진 등의 유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삼국시대 이래 한강하류지역의 요충지였던 이 지역의 역사적 연원을 짐작케 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 계양산 일대의 과거 부평도호부 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근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학술조사에서 새로운 유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계양산 일대의 문화유적은 서구와 계양구 방면에 유적이 집중

※ 이 글은 견수찬(인하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이 책 임집필하였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개발이 이루어진 부평구에서는 개발 이전에 학술조사가 선행되지 못한 반면, 뒤늦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양구, 서구는 개발 이전에 문화재 법규에 따라 사전 학술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수치상의 불균형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이래 전략적 요충지로 중시되었고, 누대에 걸쳐 지역의 치소가 자리하였던 정황을 감안한다면 부평구에도 다양한 유적이 입지하였으나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비된 시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개발 이전에 충분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부평구 일대에서 개발과 관련해 실시된 일부 조사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던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선사유적

1) 대곡동 고인돌군[大谷洞 支石墓群]

가현산 북록에 산재해 있는 대곡동 고인돌군은 1977년 간행된 『문화유적총람』에 보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조사(1990)에서 총 9기로 보고되었으며, 1992년 발간된 『김포군지』에서는 A군과 B군으로 구분하여 서술되었고, 1999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김포시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동양고고학연구소(2001), 경기도박물관(2002),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4)에 의해서도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정밀조사(2005)에서 A, B, C, D, E군에 걸쳐 100여 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곡동 고인돌군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가현산 동쪽 자락인 안산과 쇄재산 사이의 평평한 경작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해발 100m 내외의 저산성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조사 지역의 앞쪽으로는 서구 둑실동에서 발원한 나진하천이 동북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A군은 서구 대곡동과 김포시 마산리의 경계에 자리한다. 가현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과 운휴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이 서로

연결되는 나지막한 구릉 능선 위에 위치한다. 현재 탁자식 지석묘 1기를 중심으로 25개의 석재가 널려있다. 모두 2m 이하의 소형으로 묘역 조성, 인공림 조성, 군사시설의 조성 등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B군은 A군에서 황곡마을로 가는 소로의 북편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가지능선의 말단에 위치한다. 모두 6기가 확인되었다. 성혈이 새겨진 2기(1호-12개, 2호-4개)를 제외한 나머지 4기는 지석묘로 단언할 증거는 없으나 지석묘의 부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C군은 B군에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왼편으로 공장건물이 보이고 오른편으로 곡간부가 드러나 있다. 유적은 가현산의 가지능선 사이의 곡간부에 자리하는데 곡간부의 새끼능선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능선마루를 따라서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유적의 서편으로는 군용 교통호가 지나며 남쪽의 말단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C군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모두 75기이다. 그 중에는 지석묘가 아니거나 단순한 암석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성혈과 채석흔이 확인되는 것이 12기 존재한다.

D군은 C군의 동쪽에 있는 남북방향으로 뻗은 구릉산에 위치한다. 이 지석묘군은 도로로 인해 북쪽과 남쪽으로 잘린 상태이다. 북쪽의 구릉에서 2기, 남쪽의 구릉에서 6기를 확인하였다.

E군은 D군에서 소로를 따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시 기념물 제33호로, 문화재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대곡동 지석묘군의 가장 동쪽에 해당되며, 가현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동서 방향으로 분포해 있다. 총 7기가 확인되었다.

2) 검단유적(黔丹遺蹟)

검단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서구 마전동 산150 일원에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1지구에서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2지구는 1, 2, 3 구역과 도로개설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2구역과 도로개설구간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회곽묘 2기, 토광묘 4기, 미상의 수혈유구 1기,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도로개설구간에서는 토광묘 4기, 유물포함층 2개 소가 확인되었다.

3) 불로동 유적(不老洞遺蹟)

서구 불로동 348-1번지, 410-10번지 일대의 불로동 유적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3~2004년에 걸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 조사된 유적이다. 1구역에서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구역은 군부대시설 구역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 3구역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1기와 소성유구, 구석기 문화층이, 4구역에서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9기, 회곽묘 2기가 확인되었다.

4) 원당동 고인돌(元堂洞 支石墓)



원당동 고인돌

서구 원당동 산11-1번지에 위치한 원당동 고인돌은 2003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원당동 지석묘'로 조사된 유적이다. 원당유적에서 남쪽 정면으로 보이는 구릉의 정상부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덮개돌의 남쪽 단면에는 돌을 쪼갠 흔적이 확인되며, 석질은 편마암계열로 추정된다. 크기는 개석이 265×130×30cm, 남쪽의 받침돌은 135×90×22cm, 북쪽의 받침돌은 165×110×200cm이다. 덮개돌의 상면에는 성혈이 관찰되지 않고, 쪼개져 패인 흔적만 관찰된다. 최초의 조사 당시에 고인돌이 위치한 구릉 주변에 유

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원당~불로지구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고인돌 인근에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5) 원당 유적(元堂遺蹟)

서구 원당동 산 118번지 일원의 원당유적은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조사·보고된 유적이다. 유적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1구역은 만수산의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석곽묘 1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소성유구 1기, 회곽묘 2기,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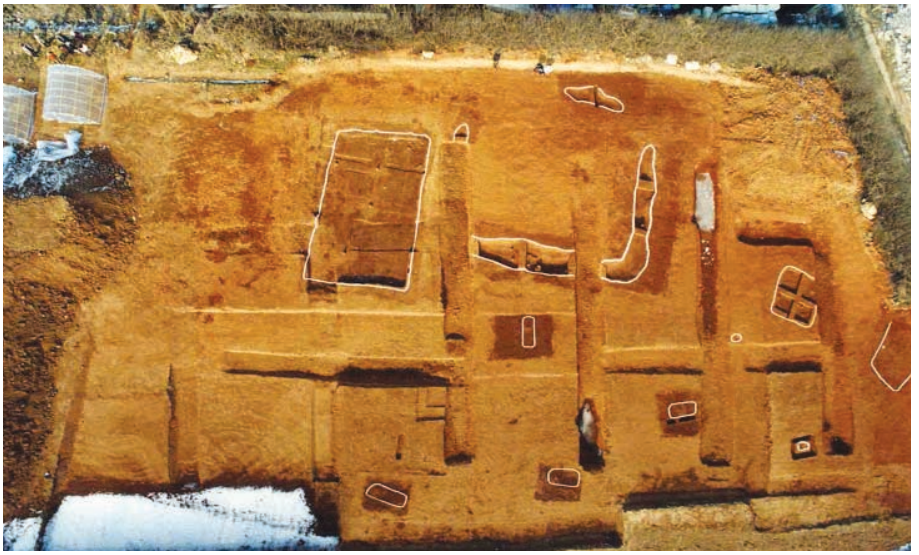
2구역에서는 소성유구 2기, 분묘유구 101기, 성격미상의 수혈 6기와 백자, 토기류, 청동합, 수저, 젓가락, 인골 등이 출토되었다.

4구역은 3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릉은 각각 가, 나, 라 지점으로 나뉜다. '가' 지점에서는 19기의 장방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3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나' 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수혈유구 4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라' 지점에서는 구석기와 고토양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6) 당하동 유적(堂下洞遺蹟)

서구 마전동 산179 일대의 당하동 유적은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이 시굴조사를 진행한 유적이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결과 Ⅰ·Ⅲ·Ⅳ구역에서는 특이할 만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Ⅱ구역에서 토광묘 1기와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7) 동양동 유적(東陽洞遺蹟)



동양동 유적

서구 동양동 153-2번지, 306번지 일대의 동양동 유적은 인하대학교박물관(2003)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3~2004)이 동양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2개 지구로 나누어 조사하면서 확인된 유적이다. 1지구는 해발 15~17m 정도의 낮은 구릉인데, 이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 3기, 삼국 시대의 주구묘 1기, 백제 시대의 토광묘 4기, 옹관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2지구에서는 성격 미상의 수혈 유구 6기가 확인되었다.

3. 관아와 향교

부평도호부청사



1) 부평도호부청사

부평도호부청사는 계양구 계산1동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동헌의 일부로 보이는 건물 1개동만이 현존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관아는 구한말까지 그 면모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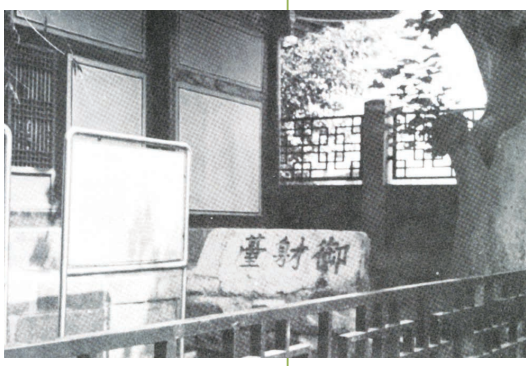
유지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학교 교사로의 개축 등으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다. 특히 관아 자리에 부평공립학교(현 부평초등학교)의 교사가 신축되면서 동헌의 모습이 'ㄱ' 자로 바뀌었고, 1968년 현재의 자리로 옮길 때 한쪽 건물을 없애고 '一' 자형 건물로 복원하였다. 현재 동헌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서 내부에는 3본의 내진주(內陣柱)가 놓여 실내를 구성하고 있다. 정면과 후면에 모두 창호가 설치되었고, 측면에는 전면칸에만 외짝 여닫이문이 설치되었다.

『부평부읍지』에 따르면 부평도호부의 공해 건물로는 객사(客舍), 아사(衙舍), 부창(府倉), 연무청(鍊武廳), 군기고(軍器庫), 향청(鄕廳), 장청(將廳), 이청(吏廳), 좌우익랑(左右翼廊), 동서책방(東西冊房) 등이 모두 해좌사향(亥坐巳向)하고 있으며, 부 서쪽 2리에 향교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객사에는 대청 7칸 반, 동헌 7칸, 서헌 7칸, 협방 2칸, 중문 2칸, 대문 3칸이 있었고, 아사에는 근민당 7칸, 사무헌 9칸, 내아 21칸, 공수 9칸, 공고 4칸, 호적고 2칸, 창방 3칸, 사령방 5칸, 중문 3칸, 대문 3칸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규모는 인천도호부를 능가하는 것으로, 부평지역이 고려시대 이후로 중요한 도호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평도호부 관아가 언제 축조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호부로의 승격이 1413년(태종 13)의 일이므로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2) 어사대(御射臺)

어사대는 계양구 계산1동 부평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부평도호부 동헌의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정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어사대 광서정해중수(御射臺光緖丁亥重修)」라고 새긴 표지석만이 놓여 있다.



어사대(1980년대)

어사대의 유래에 관해서는, 인조가 장릉을 참배할 때 부평부에 들러 이 곳에서 활을 쏜 곳이라는 설과, 정조가 융릉을 전배할 때 부평부에서 휴식을 취하며 활쏘기를 한 곳이라는 설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조가 공식적으로 부평도

호부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어사대는 정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797년(정조 21)에 정조는 김포의 장릉을 전배한 후, 수원에 위치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隆陵)에 전배하러 가기 위해 부평도호부를 지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15일 장릉을 들러 김포에서 휴식을 취하고, 16일 김포를 떠나 부평도호부사를 인견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안산으로 행하였는데, 이때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활쏘기를 즐겨하여 자신이 직접 활을 쏘고 신하들에게도 권하였으며, 백성들에게도 활쏘기를 시켜 시상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정조는 부평에 들러 점심 수라를 드시고 휴식할 때 활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사대 터는 1968년 부평도호부 관아를 옮길 때 정자는 없어지고 표지석만 남게 되어 이를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문화재 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욕은지(浴恩池)



욕은지

계산1동 부평초등학교 교정에 복원된 동헌 앞에 있는 방형(4방형)의 연못 터를 욕은지라고 하며, 연못의 동쪽 석축 가운데에 '욕은지광서정해(浴恩池光緖丁亥)'라고 음각된 석축을 욕은지 표지석이라 한다. 연못은 조선 시대 인조와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인조는 부평에 공식적으로 행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조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인다. 어사대에서 활쏘기를 한 정조가 이 연못에서 손을 씻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욕은지의 표지석에 나타나 있듯이 1887년(고종 24) 부평부사 정병하(鄭秉夏)가 보수한 것이다. 원래 동쪽에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옮겼는데 이 때 연못 가운데 둘레 7m 가량의 돌산을 축조하여 목초를 심고 서쪽으로 돌다리로 연결하여 출입을 하였다고 한다. 욕은지는 현재 남북 13.16m, 동서 15.45m 규모로 가운데 원형의 인공 섬이 조성되어 있다.

4) 부평향교(富平鄕校)



부평향교 명륜당(1980년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평향교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인근의 계양구 계산동 982-1번지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인 배치형태는 대성전(大成展) 10칸, 동무(東廡) 6칸, 서무(西廡) 6칸, 명륜당(明倫堂) 10칸, 동재(東齋) 7칸 반, 서재(西齋) 7칸 반, 전사청(典祀廳) 3칸, 공수고(公須庫) 10칸, 중문(中門) 3칸이 있었으나, 전사청과 공수고는 현존하지 않는다. 특히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거의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내삼문을 경계로 하여 대성전 일곽의 제향(祭享)공간과 명륜당 일곽의 강학(講學) 공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건물 배치를 보인다.

명륜당은 유학을 강의하고 배우는 학당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부연을 달지 않고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무는 대성전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규모와 건축양식이 동일하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양측 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동·서재는 유생들의 숙식과 독서를 하던 오늘날의 기숙사와 같은 곳이다. 동재는 양반 자제들이 묵던 기숙사로 정면 5칸 측면 1칸 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 칸에는 대청마루가 있고 양 옆 칸은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특한 평면 형태를 보인다. 지붕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서재는 서류(庶類) 자제들이 묵던 기숙사로 정면 5칸 측면 1칸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우대칭의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서재는 소실되었던 것을 1987년 복원하였다. 외삼문은 3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면구조를 보이고 있고 가운데 문이 가장 크고 솟을대문으로 하였다. 이것을 삼문이라 하는데 맞배지붕이고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다. 내삼문은 3칸 구조로 평면구조를 갖고 있다. 맞배지붕이고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다. 교직사는 외삼문에 우측이 붙어 이어져있고 'ㄱ' 자의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방과 부엌 건넛방과 헛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방에는 툇마루를 냈으며 팔작지붕의 홑처마로 되어 있다.

5) 자오당지(自娛堂址)



자오당지

자오당은 고려 중기 계양도호부 부사(府使)의 관사에 이규보가 붙인 이름이다. 부평향교 북쪽 계산1동 산52-3번지 계산배수지 내 양궁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건물 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1955년에 인천시에서 건립한 비석만이 놓여 있다. 『부평부읍지』 산천 조에 '북서쪽 3리에 중구봉(重九峰)이 있어 계양산 서쪽 기슭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봉우리를 이루었고, 그 봉우리 아래 자오당 터가 있으며 또한 냉천(冷泉)이 있다' 고 한 것과 일치한다.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는 1218년(고종 5) 좌사간(左司諫)으로 있으면서 지방수령들이 팔관회에 하표를 올리지 못한 것을 탄핵하려 하였으나, 김의(金儀)의 만류로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일이 권신 최충헌에게 알려지자 다음 해인 1219년 계양부사로 좌천되어 13개월 동안 계양부사로 있으면서 많은 시문을 짓기도 하였다.

4. 성곽과 관방


계양산성 내에서 발견된 목간 출토 모습

출처: 「인천 계양산성 동문지내 집수정 출토 목간 보존처리 결과보고」,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5.

1) 계양산성(桂陽山城)

계산동 산10-1 일원의 계양산에 부분적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계양산성은 테뫼식(山頂式) 산성으로, 1992년 인천광역시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계양산성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부평도호부 고적 조에 '계양산 고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1,937척으로 지금은 무너져 내렸다' 고 기록되어 있다. 계양산은 주봉의 높이가 해발 395m로 인천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며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진산이었다. 계양산의 서쪽은 서해에 닿고 있으며, 나머지 방향으로는 대부분 낮은 구릉이나 평지여서 탁 트인 시계(視界)를 갖는다. 따라서 한강하류 지역을 놓고 삼국이 쟁탈했던 삼국시대에는 관방의 주요 요충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계양산성은 계양산의 정상부가 아닌 동쪽 기슭의 표고 202m지점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이란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이는 산성의 축조목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쪽 해안가를 방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즉,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는 적을 막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나머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을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양산성은 석성을 먼저 쌓고 그 안쪽에 흙을 다져가며 쌓은 내탁식 공법에 의해 축조되었다. 현재 정자가 있는 곳에서 계양산 정상을 향해 150여 미터 되는 지점 왼쪽, 즉 산성 중간 되는 곳에 높이 210cm, 폭 356cm, 11단의 석축의 일부만 남아있다. 계양산성 내부에는 동쪽과 북쪽으로 두 개의 문지와 수구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내부에 헬기장과 체육공원, 정자 등이 들어서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목간과 집수정 등 계양산성의 연원을 설명해 줄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2) 중심성지(衆心城址)

중심성은 1883년(고종 20)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계양산 서남쪽의 경명현을 중심으로 계양산과 중구봉을 잇는 능선 위에 축조한 성이다.



중심성지 모습

공촌동 산1번지 일원의 중심성지는 원래 계양산 징맹이고개를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된 성이었는데 현재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부평 지역의 해안에서 서울까지 70여 리의 여정 중, 징맹이고개를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조차 없는 평지가 펼쳐져 부평 연안의 방비가 문제되었다. 이 때문에 중심성은 병인양요 이후 1883년 부평부사 박희방이 당시 동민의 의연으로 축조한 것인데 문주를 세워 경명(景明)문주

라 헌액하였다. 문주 옆에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1950년 인천시가 시립박물관에 향토자료로 진열 설치하였으나 함포사격으로 파손되고 사적비 초석도 도로 개설로 분실된 것을 현재 서구청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심성 사적비의 비문 내용

계양산 서쪽에 고개가 있으니 이르되 경명이며 연해관문이다. 내가 이 고을에 원으로 와서 관문의 방어를 마음먹었으나 이루지 못하였었다. 이해 9월 그믐에 조칙이 있어 성을 쌓을때 아전과 백성에게 관문을 막아야 고을이 편안한 점을 설명하였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에 응하여 주었다.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정 훈련하는 곳을 삼았다. 문은 지명을 따서 경명이라 부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방어토록 하게하고 망루의 이름을 공해라 하고 성의 이름을 중심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읍민의 마음으로써 성을 쌓은즉 이것을 우리말로 여럿이 마음과 힘을 모아 성을 만들었다고 함이다. 고로 이름을 중심성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때에 따라 군기를 중수하고 모든 나주에 포사들로 굳게 지키는 방법으로 했다. 성을 다 쌓은 날에 고을 사람들이 사적을 글도 잘 쓰지 못하는 나더러 역사의 개요를 간략히 쓸 것을 청하므로 특히 읍 상 · 하동에서 60금을 연출하여 성 쌓는 자금을 마련한 것을 갸륵하게 여기며 이 글을 쓰노라.

광서 9년 계미 10월
부사 박희방

3) 연희진지(連喜鎭址)

서구 연희동 753에 위치한 연희진은 조선후기의 군진으로 1879년(고종 16) 7월 1일의 부평 해안의 방비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수도의 관문이며 요충인 당시 부평의 연안이 개항지로 제시될 것에 대비하여 설치된 것이었는데, 그후 1882년 혁파되었다. 부평 연안에는 연희포대(일명 용두포대)와 원창동, 가좌동에 포대가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는 찾기가 어렵다. 운양호사건과 양요를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조정에서는 서해안의 방비를 서둘러 1879년에는 인천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부평에는 연희진을 설치하였다.

연희진지는 후에 인천시 서곶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계명공원으로 조성되어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연희 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4) 연희포대지(連喜砲臺址)

서구 연희동 산148번지 일대는 일명 '용의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우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대라 불리웠다고도 한다. 양쪽 끝의 돌출부분 사이로 약간의 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명로 초입으로 흘러드는 갯골의 방비를 위한 것이며, 포좌의 방향은 서북쪽을 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부에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으나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상부에는 군시설물(초소)이 설치되어 있다.

5) 가정포대지(佳亭砲臺址)

가정포대는 연희진에 소속되어 있던 6~8개의 포대 중 하나로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에 해당하고 현재 '연희포대(용두포대)'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해안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갯골(심곡천)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대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좌의 방향은 서남방을 향하여 인근의 포대와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 석축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석축은 남아있지 않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포대지

6) 축곶봉수대지(杻串烽燧址)

축곶봉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54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정상(해발 79.8m)에 위치하는 조선 시대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봉수에서 남쪽으로 약 350m의 거리를 두고 북망산(해발 101m)이 위치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발 100m 내의 나지막한 구릉이 남북으로 연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해발 225m의 철마산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다. 서쪽으로는 서해 연안에 인접한 까닭에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축곶봉수는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양지초등학교의 남쪽 정면에 위치하는데 북쪽 하단부의 송화학습장을 지나, 푸른농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현재는 이곳이 봉수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고, 석축이 남아 있다.

축곶봉수는 원래 고려시대 왜구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된 해안 연변 봉수인 까닭에 단봉의 석축 연대(煙臺)와 타원형 방호벽을 갖추고 있다. 연대 상부에서는 충청 · 경상지역 일부 봉수에서 확인되는 방형 연소실이 북쪽으로 치우쳐 잔존하고 있다. 방호벽 내 동북쪽으로는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봉수의 거화와 방호에 필요한 각종 비치물자를 보관하였을 창고로 추정되는 소규모의 평지가 있으나 현재는 다수의 무연고 민묘로 인해 관련 유구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5. 금석문과 묘역

1) 부평초등학교 선정비군(富平初等學校 善政碑群)

계산동 943번지 부평초등학교 교정 한편에는 조선시대 부평부사와 경기도관찰사 등의 선정비 21기가 세워져 있다. 이중 부평부사의 선정비는 18개이고 경기도 관찰사의 공덕비가 3개이다. 이 선정비군은 계양문화회관에 세워져 있던 것을 200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선정비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준(吳竣)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

* 설립일 : 1629년(인조 7) 7월

전면	行府使吳公竣淸德愛民碑
후면	崇禎二年己巳七月 日 立

② 이필달(李必達)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

* 설립일 : 1645년(인조 23) 11월

전면	行府使李公必達淸德愛民碑
후면	順治二年乙酉十一月 日 立

③ 김운장(金雲長)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

* 설립일 : 1676년(숙종 2) 2월

전면	行府使金公雲長淸德愛民碑
후면	康熙四十五年二月 日

④ 박시경(朴時璟)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687년(숙종 13) 2월

전면	行府使朴公時璟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康熙二十五年二月 日 立

⑤ 조위수(趙渭叟)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706년(숙종 32) 2월

전면	行府使趙公渭叟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康熙四十五年二月 日 立

⑥ 유상재(柳尙載)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706년(숙종 32) 2월

전면	行府使柳公尙載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康熙四十五年二月 日 立

⑦ 홍만선(洪萬選) 청덕애민선정비(精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713년(숙종 39) 8월

전면	行府使洪公萬選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康熙五十二年八月 日 立

⑧ 심정보(沈廷輔)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713년(숙종 39) 8월

전면	行府使沈公廷輔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康熙五十二年八月 日 立

⑨ 김상성(金尙星)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736년(영조 12) 3월

전면	府使金候尙星永世不忘碑
후면	乾隆元年丙辰三月 日 東面民人立

⑩ 김상우(金尙遇) 청덕애민비(淸德愛民碑)

* 설립일 : 1754년(영조 30) 12월

전면	府使金尙遇淸德愛民碑
후면	歲在丙戌十二月 日 立

⑪ 김응근(金應根)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 설립일 : 1746년(영조 22) 12월

전면	行府使金侯應根愛民善政碑
후면	道光二十六年五月 日 立

⑫ 김기묵(金箕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48년(헌종 14) 3월

전면	行府使金侯箕默永世不忘碑
후면	道光二十八年三月 日 立

⑬ 박준양(朴峻陽)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 설립일 : 1851년(철종 2) 5월

전면	行府使朴候峻陽愛民善政碑
후면	辛亥五月 日 立

⑭ 안응수(安膺壽)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59년(철종 10)

전면	行府使安侯膺壽永世不忘碑
후면	咸豊九年 月 日 立

⑮ 조병로(趙秉老)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67년(고종 4) 1월

전면	行府使趙侯秉老永世不忘碑
후면	同治六年正月 日

⑯ 이기조(李基祖) 청덕애민선정비(淸德愛民善政碑)

* 설립일 : 1872년(고종 9) 11월

전면	行府使李侯基祖淸德愛民善政碑
후면	同治十一年十月 日 立

⑰ 민석호(閔晳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85년(고종 22) 10월

전면	行府使閔侯晳鎬永世不忘碑
후면	光緖十一年十月 日

⑱ 정병하(鄭秉夏)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87년(고종 24) 9월

전면	行府使鄭侯秉夏永世不忘碑
후면	光緖十三年丁亥九月 日

⑲ 이재원 자혜애휼선정비(觀察使李公載元 宇惠愛恤善政碑)

* 설립일 : 1878년(고종 15) 3월

전면	觀察使李公載元宇惠愛恤善政碑
후면	光緖四年三月 日立

⑳ 민태호 포덕선화선정비(觀察使閔公 台鎬布德宣化善政碑)

* 설립일 : 1878년(고종 15) 2월

전면	觀察使閔公台鎬布德宣化善政碑
후면	光緖四年二月 日立

㉑ 김보현 영세불망비(觀察使金公 輔鉉永世不忘碑)

* 설립일 : 1880년(고종 17) 3월

전면	觀察使金公輔鉉永世不忘碑
후면	光緖六年三月 日立

2) 부평 이씨 묘역(富平 李氏 墓域)

부평 이씨 묘역은 계양구 효성동 산6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세영묘를 비롯하여 모두 15기의 봉분이 있다. 좌우측에 문인석이 있으나 우측의 문인석은 훼손된 상태이다.

이세영은 부평 이씨 시조 이희목의 18세 손으로 숙종 때의 문신이다. 1681년(숙종 7)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통정대부로서 승정원 우승지 겸 경연관이 되었고 춘추관의 수찬관을 맡았다.

3) 문화 류씨 묘역(文化 柳氏 墓域)

문화 류씨 묘역은 서구 경서동 산200-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6기의 묘가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묘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류사눌(柳思訥, 1375(우왕 1)~1440(세종 22))의 묘로 강릉 유씨와



문화 류씨 묘역

의 합분과 후처인 창녕 성씨의 묘가 함께 있는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에는 호석(護石)과 함께 1971년에 건립한 묘비와, 후대에 설치한 상석 · 문인석 각 1쌍, 장명등 등이 배치되어 있다.

류사눌은 문화 류씨 중시조로서 자는 이행(而行),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1393년(태조 2) 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합격하여 좌정언, 이조 · 병조의 정랑 등을 지냈고, 홍주목사, 경상도도관찰사, 경기도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후 1428년 한성부윤이 되었다. 후에 맹사성 · 박연 등과 함께 조선 초기의 악학정비에 공로한 바가 큰 인물이다.

류사눌 묘 바로 밑에는 두 개의 묘가 있다. 하나는 류사눌의 3자인 희생(喜生)의 묘인데, 묘갈은 마모가 심하여 '喜生之墓'라는 글자만 판독된다. 그 옆에는 갱생(更生)과 부인 인천 이씨의 합장묘가 있다.

4) 안동 권씨 묘역(安東 權氏 墓域)

계양구 임학동 산7-5번지에 위치한 안동 권씨 묘역에는 의금부부총관(義禁府副摠官)을 지낸 권환(權瑍)을 비롯하여 권병훈(權丙勳), 권세전(權世銓) 등 안동 권씨의 무덤이 다수 분포한다. 현재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묘 16기와 권환 묘갈, 권병훈 묘비, 권세전 묘비, 권인수 묘비 등 비석 4기, 상석 8기, 망부석 2기 등의 석물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5) 청송 심씨 묘역(靑松沈氏 墓域)

서구 공촌동 산8번지 일대에 위치한 청송 심씨 묘역은 본래 옛 시흥인 지금의 서울 금천(衿川) 흘리(屹里)에 있었으나, 근년에 현 위치인 서구 공촌동으로 이장하였다. 이때 신도비도 함께 옮겨왔다. 계양산의 소성사격장 입구에 심즙신도비(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8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청송 심씨 묘역에는 심우정(沈友正) 묘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의 묘 32기가 자리하고 있다.

6) 조서강 묘역(趙瑞康 墓域)



조서강 묘역

조선초기의 문신인 조서강(?~1444) 묘는 서구 석남동 산 119-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묘역에는 호석을 두른 전방후원(前方後圓) 형식의 봉분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옥개석에 비신과 기단이 일체형을 이루고 있는 묘비(가로 46cm, 세로 126cm, 두께 16.6cm)와 문인석 1쌍이 배치되어 있다. 묘는 장방형 기대석으로 돌려 있다. '가선대부이조참판조공지묘(嘉善大夫吏曹參判趙公之墓)'라고 새겨진 비의 후면에 새겨진 음기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멸되어 있다. 조서강 묘와 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 등은 조선 초기 분묘로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 유일의 예라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7) 숙의 문씨 묘역(淑儀 文氏 墓域)

문종의 후궁이었던 숙의 문씨(淑儀 文氏, 1426~1508)의 묘는 서구 심곡동 산 36번지 탁옥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 묘는 봉분이 퇴락하고 묘비조차 땅에 파묻혀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1947년에 류희진이 봉분을 모으고 비를 다시 세웠는데, 이 때 백자에 쓴 문숙의 '묘지명'이 발견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의 문씨 묘는 그 후 1974년에 다시 묘역을 확장 보수하여 철책을 둘러 놓았다.

묘지명에 의하면 그녀는 문민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세종조에 반중추원사를 지낸 문효정이고,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때 순평군으로 봉해진 문달한이다. 숙의 문씨는 평생 인후를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공검으로 몸을 다스리는데 힘썼으나 애석하게도 후사가 없었다고 한다. 중종 3년 9월 26일에 부평 가원을 택하여 장사지냈다. 묘에는 묘갈과 상석 그리고 문인석이 좌우에 1개씩 있다.

8) 영신군 이이 묘역(永新君 李怡 墓域)



영신군 이이 묘역

영신군 이이(1454~1526)는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의성군(誼城君) 채(寀)의 여섯째 아들이다. 자는 화보(和甫)로 정의대군 영신군에 봉해졌다. 현재 작전2동 산2번지 일대에 영신공원으로 조성된 묘역은 사패지지(賜牌之地 ; 임금이 하사한 땅)로 그의 묘를 비롯하여 둘째 아들 함원군(咸原君)의 묘 등 10기의 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각 묘에는 묘갈과 석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영신군 이이 부부의 묘는 쌍분으로 묘역 가운데 가장 위쪽에 조성되어 있다. 조선 왕조 전주 이씨 영신군파는 이 묘역에서 매년 음력 10월 8일 전국에서 참가한 후손들이 전통 의식에 따른 성대한 제례를 거행하고 있다. 영신군 봉분 앞에는 비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이 있다.

9) 이선봉 묘역(李善鳳 墓域)


이선봉 묘역

이선봉 묘역은 서구 동양동 152-43번지에 위치해 있다. 조선 성종의 증손자인 순평군 이선봉(順平君 李善鳳, 1578~1660)과 그 아들 판관 필협(必𩩲), 필협의 처 숙인 능성 구씨 등의 인물들이 묻혀 있는 전주 이씨 일가의 묘역이며, 총 3기의 무덤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선봉은 일찍이 부평도호부 동면(현재의 동양동)에 낙향하여 정착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의 아내 영월 엄씨와 며느리 구씨는 강화도로 피난하였는데, 강화성이 함락되자 둘 다 자결하여 고부가 열녀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구씨 무덤은 시체를 찾지 못하여 유서가 쓰인 치마폭과 신발만을 안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봉 부부의 동분합장묘 앞에는 묘비(높이 124㎝, 폭 49㎝)와 문인석 좌우 1쌍이 세워져 있으며, 필협 부부의 동분합장묘에는 묘비가 망실된 기단석과 문인석 좌우 1쌍이 남아 있다. 필협은 후처인 연안 이씨와 합장되었으며, 전처 구씨의 무덤은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10) 안동 권씨 묘역(安東 權氏 墓域)

안동 권씨 묘역은 계양구 임학동 산 7-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권환(權煥)을 비롯한 16기의 묘와 비석 4기, 상석 8기, 망부석 2기 등의 석물이 함께 있다. 권환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1658년(효종 9) 생원시에 합격한 후 1668년(현종 9) 문과에 급제하여 후에 황해도관찰사, 병조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냈고 1694년 갑술옥사로 파직되어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다.

6. 사찰

1) 봉일사지(奉日寺址)

봉일사는 계양구 계산동 산20번지 백룡사 일대에 있었던 사찰로 창건 및 폐사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481년(성종 12)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봉일사는 경기도 부평군 계양산에 있다' 고 되어 있고,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는 '지금은 없다' 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1949년 고적 조사 시 계양산 남록에서 고려 시대 늦어도 조선 초기라고 인정되는 높이 2m의 3층 석탑과 문지(門址), 법당지(法堂址), 강당지(講堂址) 등을 발견하여 이를 봉일사지로 추측한 바 있으며, 또한 조선 초기의 우수한 인동문이 있는 와편을 검출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1961년에 실시한 봉일사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지의 규모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우선 실측조사에 있어서 사지의 규모는 총 길이 50.6m, 폭 46.2m이며, 사지는 위로부터 삼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전지(本殿址)는 길이 9.50m, 폭 22m로 현존한 몇 개의 초석으로 미루어 3칸×5칸의 규모로 추정하였다. 중단과 하단 사이에는 약 2m 정도 깎여져 내려와서 길이 9.40m, 폭 46m의 하단 구내에는 강당과 같은 부속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동서양측에는 요사지라고 보이는 길이 50m, 폭 20m의 터 등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61년의 기록에서도 심한 사태로 새로운 계곡을 이루

어 태반이 깎여져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여 변모 소실됨을 우려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범문이 새겨진 고려상감자기를 비롯한 고려 및 조선시대의 자기 및 기와편 20여 점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현재 봉일사지는 1990년대 경인여자대학의 건물 신축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약 30년 전에 건립된 백룡사가 있다. 현재 백룡사에는 봉일사지에 있던 삼층석탑을 경내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이와 동시에 계양구 계산동 963번지 삼천리아파트자리 개울섶에 있던 미륵불도 같이 이전하여 놓고 있다.

2) 봉일사 삼층석탑(奉日寺址 三層石塔)



봉일사 삼층석탑

계양구 계산동 산20-5번지 백룡사 경내에 있는 봉일사 삼층석탑은 봉일사 원위치에 남아있던 유일한 탑이었는데, 1975년 백룡사를 건립하면서 탑을 현재 대웅전 앞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흑백사진에 의하면, 계양산 자락 봉일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의 기단위에 탑신과 3개의 옥개석이 나란히 올려져 있으며, 탑두부(塔頭部)는 없어지고 그 위에 자연석 하나를 올려놓은 형태이다. 하대지석은 한 돌로 만들었으며 중석을 올리기 위한 이단의 받침을 마련하였다. 중석 역시

한 개의 석재로 만들었는데 평면사각형으로 우주나 탱주 등이 모각되지 않았다. 그 위로 바로 탑신부를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기단갑석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신부는 1층 탑신으로 추정되는데 탱석은 없고 우주를 양각(陽刻) 하였다. 옥개석은 모두 삼단의 받침이 있다.

이 탑은 백룡사에 옮겨 복원하는 과정에서 화강석을 깎아 3층의 탑신부를 보완하고, 상층기단부를 마치 1층 탑신처럼 옥개석 밑에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3층의 규모로 만들었다.

3) 백룡사 미륵불(白龍寺 彌勒佛)

원래는 계양구 계산동 963번지 삼천리아파트 자리 개울섶에 있던 불상이었다고 하는데 1975년 백룡사를 건립하면서 계산동 산20-5번지 백룡사 경내로 이전하였다. 미륵불은 얼굴과 몸통을 한돌로 만들고 머리에 초립 같은 보관을 얹어 놓은 형태이다. 4등신의 어린아이 같은 구조로 기다란 얼굴과 커다란 귀에서 바로 어깨가 시작되어 바튼 모습을 하고 있다. 양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홀 같은 것을 쥐고 있으며 불상의 하단부에는 도식화된 이중연판문 위로 활짝 핀 연꽃과 연잎 등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정교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토속적인 형태로 조성 시기는 그리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룡사 미륵불

4) 석남사지(石南寺址)

석남사 터는 석남초등학교 뒷산에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골목길을 지나 절골 3길의 서구 석남동 111-1번지 민가에서 뒷산으로 5분 정도 올라가면 있다. 그러나 사찰터로 전하지만 창건이나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현재는 그 당시의 석축들로 추정되는 돌들이 일반 민묘들의 석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석남사지



7. 정자 터

1) 가정지(佳亭址)



가정지

가정지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반(趙胖, 1341~1401)의 별장 터로, 가정오거리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서부기동대 담장 우측에 있다. 원래는 마을 뒷동산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표지석을 세운 것이다.

조반은 본관은 배천(白川)으로, 호군 조세경(趙世卿)의 아들이다. 12세 때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한문과 몽고어를 배웠고, 원나라 승상 탈탈의 인정을 받아 중서성역사(中書省譯史)가 되었다. 1368년(공민왕 17) 귀국한 후, 1382년(우왕 8)에는 판도판서(版圖判書)로서 하정사겸 주청사가 되고 1385년(우왕11)에는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시호와 승습을 청하기도 하였다.

『부평부읍지』 고적 조에 '가정은 석곶면에 있는데 복흥군 조반의 별업(別業 : 별장)'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도로변에 표지석만 남아있다. 조반이 이곳에 별장을 지은 것은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경으로 추정된다.

2) 초정지

계양구 계산동 계산천변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초정지로 추측되는 곳은 계산1동 939-44번지와 계산동 974-23번지 두 곳이다. 『부평군읍지』(1899)에 있는 이규보의 기록에 따르면 초정은 이실충이라는 자가 물을 끌어서 늪을 만들어 처음 이곳에 정자를 지었는데 허물어져 있던 것을 다시 세웠다고 한다.

3) 허암지(虛庵址)



허암지

허암지는 서구 검암동 산5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산군 때의 문신 정희량(鄭希良)이 은둔하던 곳으로 험봉산 북쪽 기슭에 있으며 2005년 인하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집터와 우물터, 화강암 건축 부재, 다수의 도기편과 와편이 발견되었다. 작은 샘이 아직 있는데 정희량이 즐겨 마시던 샘이라 전한다.

1871년경에 제작된 『부평부읍지』에는 '허암구지(虛庵舊址)'라 하여, '모월곶면 허암산 밑에 있는데, 한림학사 정희량이 복거(卜居)하면서 호를 허암이라 하였고 뒤에 종적을 감추어 생을 마감한 곳을 알지 못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정희량의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 본관은 해주로 1469년(예종 1) 철원부사 정연경(鄭延慶)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1492년(성종 23)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한림학사가 되어 실록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의주와 김해 등지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풀려났지만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8. 무형문화자원

1) 강령탈춤 기능보유자 김실자

탈춤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신)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써 연극하는 것을 말한다. 탈춤은 조선 전기까지 각 지방에서 행해지던 가면놀이이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궁중의 관장하에 '산대'라 불리는 무대에서 공연되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형태로, 1634년(인종 12)에 궁중에서 상연이 폐지되자 민중에게 유입되어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강령탈춤은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데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밝힐만한 자료는 없으나, 늦어도 조선 후기까지는 성립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놀이는 사자춤 · 말뚝이춤 · 목중춤 · 상좌춤 · 양반과 말뚝이춤 · 노승과 취발이춤 · 영감과 할미광대춤의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에 앞서 탈과 의상을 갖추고 음악을 울리면서 공연장소까지 행렬하는 길놀이를 한다. 등장인물은 마부 · 사자 · 원숭이 · 말뚝이 · 목중 · 상좌 · 맏양반 · 둘째양반 · 재물대감 · 도령 · 영감 · 할미 · 용산삼개집 · 취발이 · 노승 · 소무 등 모두 20명이다. 파계승에 대한 풍자와 양반계급에 대한 모욕, 일부처첩의 삼각관계와 서민의 생활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춤은 느린 사위로 장삼소매를 고개 너머로 휘두르는 장삼춤이 주가 되며, 장단에는 도드리, 타령, 자진굿거리가 주로 쓰이지만 소리의 사설이 30여 가지나 되고 소리마다 장단이 특이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기능보유자 김실자는 1982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후 강령탈춤의 전수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황해도 강

령과 가까운 신천에서 태어나 1·4후퇴 후 인천에 정착, 당시 송림동에 국악학원을 운영하던 민천식 선생(작고)으로부터 탈춤을 배웠다. 모두 7과장으로 이뤄진 강령탈춤에서 주로 미얄할미춤을 담당하였다. 1963년도부터 부평시장 내 부평무용학원에서 40년 가까이 고전무용과 탈춤을 가르치고 있다.

2) 범패와 나비춤, 인천 수륙재 기능보유자 박치훈

부평6동 자원사에 거주하는 박치훈은 범패와 나비춤, 인천수륙재 2개 분야에 대한 기능보유자이다. 나비춤은 부처님의 정법을 상징하는 무용으로 일명 해탈무라 하며 인천의 나나니춤과 어우러져 민속무에도 영향을 준 춤으로 승속(僧俗)이 하나되어 예술성이 한층 승화된 춤이다. 이는 자비의 발견 및 참는 마음의 발견, 법보(法寶)의 발견을 위하여 추는 춤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법열에 도달하기 위하여 향화게(香花偈), 운심게(運心偈), 삼적의(三的依), 오공양(五供養) 등과 같은 범패(梵唄)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호적(胡笛), 징 등의 반주나 삼형육각(三絃六角)으로 연주하는 수도 있다. 2002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로 지정되었다.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으로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 국행수륙대재(國行水陸大齋), 수륙회(水陸會), 비재회(悲齋會), 시왕재(十王齋), 신중재(神衆齋), 재석재(宰釋齋)라고도 한다. 인천수륙재는 고려 명종(1171~1197년), 태종(1401년), 문종(1066년), 회종(1209년)에 이르기까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봉행한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불교의식인 '인천수륙재'는 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륙재보다 그 소리가 장중하며 법무(法舞)는 역동성이 뛰어나다. 의식 끝의 회심곡(回心曲)은 인천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기리는 곡절이 아주 특이하며 길가름 의식은 타 지역 수륙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인천수륙재(仁川水陸齋)'만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인천시 무형문화제 14호로 지정되었다.

3) 자수장 기능보유자 김계순

산곡동에 거주하는 자수장 기능보유자 김계순 씨는 우리나라 현대 자수계의 1세대이자 원로로써 오늘날 우리 자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궁중에서 성행하고 여인들의 규방에서 행하여진 관계로 문헌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작품을 분석 연구하여 도안과 작품 재현에 헌신하여 자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3년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9. 기타

1) 굴포천

인천교에서 원통고개에 이르는 인천5공단 수로와 원통고개 너머 부평동, 갈산동을 지나 김포군 고촌면에 이르는 굴포천에는 조선시대 인공수로 개착의 흔적이 남아 있다. 김포굴포는 손돌목을 회피하려는 운하계획으로 무신정권시대의 최우가 처음 계획하여 서해와 한강 사이에 운하를 굴착하여 연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내 중지되고 말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가 굴포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원통현에 이르러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의 굴포작업은 서해쪽과 한강쪽에서 동시에 시작되어 원통현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개착에 실패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굴포천은 해방 이후 급격한 현상 변경으로 말미암아 거의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2) 천일시험 염전지(天日試驗 鹽田址)

십정동 558-7번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있었다. 현재는 공단 중앙 2길 (주)새천년환경의 건설폐기물집하장 정문 바로 왼편에 있는데, 천일염전터 임을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 있을 뿐 이렇다 할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지로 1907년에 중

국으로부터 제염기술을 도입하여 이곳에 1정보(약 3,000평) 가량의 구역을 정해 제1염전 시험지를 만들었고, 1911년에는 99정보로 확장하였다.

3) 녹청자도요지(綠靑磁陶窯址)

인천 국제컨트리클럽 내 경서동 385번지에 위치한 녹청자 도요지는 1965년과 1966년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는데, 이 도요지의 자기는 비교적 정선된 청자계 얇은 태토 위에 조질의 녹청색 유역을 발라 구운 녹청자 도자기 이다. 녹청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고려전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서민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요지는 구릉을 타고 서남향으로 쌓은 요상의 길이가 7.3m 폭이 1.05m, 봉통(아궁이)의 폭 1.2m으로 보기 드문 소규모의 가마이다.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에서는 대접 · 접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배기 · 반구장경병 항아리가 출토되었고, 출토품은 모두가 문양이 없고, 유약을 긁어 장식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 눈길을 끈다. 유약은 녹갈색과 암록색으로 불투명하고 광택이 없으며, 표면에 반점같은 것이 있으나 이는 유약의 성분, 가마의 특수구조, 소성(燒成) 온도 등의 영향하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품의 모두가 문양이 없고, 유약을 긁어 장식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 눈길을 끌게 한다. 유약의 빛깔은 녹갈색과 암록색으로 불투명하고 광택이 없으며, 표면에 반점 같은 것이 있으나 이는 유약의 성분, 가마의 특수구조, 불의 온도 등의 영향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출토품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2002년 서구청에서 구 경서동동 사무소 건물에 경서동녹청자사료관을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녹청자에 대한 정보와 도자기 실습 등의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 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인천 최초의 문화재이다.

4) 금륜역지(金輪驛址)

현재 계양구 다남동 80-6번지 일대에 있던 역참으로 고려 시대에서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왕조는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도로 요지에 역(驛)을 설치하고 역제(驛制)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 역

로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병조였고, 그 밑에서 구체적 실무를 맡던 곳은 승여사(乘輿司)였다. 승여사의 관할 하의 각 역에는 역승(驛丞)을 두어 그 임무를 맡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종9품의 역승 외에 종6품의 찰방(察訪)을 함께 두어 교통행정을 책임지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종6품 찰방 23, 종9품 역승 18 등, 총 41개 역도(驛道)에 537개 역이 분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금륜역은 고려시대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역으로 계양구 다남동에 있었다. 『부평부읍지』와 『동국여지승람』 역원조(驛院條)에는 '북쪽 13리에 있다'고 되어 있고 『대동지지』에는 '북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다남동 대촌(大村)마을이다. 금륜역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대촌마을 논 한가운데에 고사한 측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 역사자리라고 구전되고 있다.

5) 황어장지(黃魚場址)

현재의 계양구 장기동 142번지 일원에 해당하는 황어장은 부평도호부의 황어면(黃魚面)에 있었던 전통 시장(5일장)으로 매달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장이 열렸다. 황어장에서는 곡물, 잡화 및 소가 거래되었는데, 특히 우시장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서도 올라와 거래를 할 만큼 유명하였다고 한다. 1987년 우시장이 철폐되면서 전통 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편 1919년 3·1운동 당시 장날을 이용해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장소로도 유명하다. 2004년 8월에 건립한 3·1만세운동 기념탑과 전시관이 남아있어 당시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6) 한들방죽

한들방죽은 서구 백석동 한들마을 앞에 한들벌을 만들기 위해 갯벌을 막아 만든 방죽을 말한다. 본래 갯벌이었던 이 지역은 구한말부터 간척을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던 것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송병준에 의해 1913년 완공되었다.

10. 부평문화권 문화유산의 의의와 과제

부평문화권의 문화유산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고인돌 등의 선사유적, 계양산성과 중심성을 비롯한 관방유적, 녹청자도요지와 각종 고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이르기까지 그 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문화적 가치 또한 높은 것이 많다. 이는 계양산 일대의 부평문화권이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의 생활의 터전이 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찌기 삼국시대 이래로 계양산 일대는 한강유역과 서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시되어 왔음이 각종 문헌기록에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각종 문화유산은 이러한 부평문화권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평구 일대는 그 개발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많은 유적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채 멸실되어 현전하는 문화유산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부평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양산 일대 문화권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근 · 현대의 각종 산업과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각종 개발에 있어서 문화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확인된 유적에 대한 보존에 더욱 힘을 기울여 부평의 역사적 · 문화적 자산을 더욱 풍부히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

제2절 문화공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문화공간은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유나 혹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그에 따르는 제반 활동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실체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문화공간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부평구민의 문화생활 단면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공간은 크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개념의 문화시설과 엄격히 '시설'의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주민의 문화활동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거리나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했을 때 부평구 내에 200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총 47개 소로, 공연시설이 8개 소, 전시시설이 6개 소, 도서시설이 18개 소, 지역문화복지시설이 14개 소, 문화보급전수시설이 1개 소이다.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문화공간 3곳을 합하면 모두 50개 소에 이른다.

※ 이 글은 김미옥(인천시청 문화관광체육국 전문위원)이 책임집필하였음.

부평구 내 문화시설 현황 (2006년 현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설명	주 소
시설 형태	공연시설	공연장	인천여성문화회관	부평구 부평동 542-1
			풍물패잔치마당 소극장	부평구 십정동 572 만원빌딩 지하1층
			부평문화사랑방 내 문화관람실	부평구 갈산동 365-1 갈산2동사무소 3층
			부평문화원 내 문화예술교육극장	부평구 부평4동 442-3
		영화상영관	대한극장	부평구 부평1동 534-27
			키넥스 5	부평구 부평동 738-21
			CGV부평	부평구 청천동 386
			롯데시네마	부평구 부평동 152-2
	전시시설	박물관	-	
		미술관	-	
		화 랑	인천여성문화회관	부평구 갈산2동 375-1
			구올담갤러리	부평구 부평동 185-1
		기 타	향토사료전시관	부평구청사 내 전시코너로 운영
			미술전시관	
			부평사진역사관	
			곤충사진전시관	
	도서시설	도서관	부평도서관	부평구 십정동 186-454
			북구도서관	부평구 부평4동 880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구 부개동 499-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설명	주 소
시설 형태	도서시설	문 고	부개 1동 자치센터문고	부평구 부개1동 259-10
			십정 1동 자치센터문고	부평구 십정1동 279-20
			산곡 4동 자치센터문고	부평구 산곡4동 284-13
			갈산2동 자치센터문고	부평구 갈산2동 365-1
			민들레도서실	부평구 부개3동 부개주공A.
			부평새빛문고	부평구 갈산동 391 1층
			늘푸른어린이문고	부평구 십정2동 362-70
			진달래어린이문고	부평구 부평5동 172-7
			청개구리어린이문 고	부평구 산곡3동 317-119
			사랑문고	부평구 부평6동 735-9
			맑은샘어린이문고	부평구 청천1동 81-11
			소망글사랑문고	부평구 갈산1동 73-1
			신나는어린이문고	부평구 삼산동 391-3
			달팽이어린이도서 관	부평구 청천동 18-4
			아름드리어린이문 고	부평구 부개1동 327-11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센터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구 갈산동 365-1 갈산2동사무소 3층
			롯데백화점문화센 터	부평구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평점
			풀잎문화센터 부평교실	부평구 부평동 212-13
		평생학습관	부평도서관	부평구 십정동 186-454
			북구도서관	부평구 부평4동 880
			부평장애인종합복 지관	부평구 일신동 62
			인천평생교육정보 센터	부평구 부평4동 880
		노인복지회관	부평구노인복지회 관	부평구 부평4동 914
		종합사회 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 관	부평구 갈산2동 360
			부평종합사회복지 관	부평구 산곡3동 370-71
			삼산종합사회복지 관	부평구 삼산동 157
			부평중부종합사회 복지관	부평구 부평1동 182-23
		문화체육센터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 갈산1동 149-3
			인천여성문회회관 실내수영장	부평구 갈산동 375-1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부평문화원	부평구 부평4동 442-3
오픈스페이스 형태			부평문화의거리	부평구 부평동 224-1 명신당 앞~ 시장로터리간 250m
			신트리공원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광장	부평구 부평동 224-1

그러나 우리가 소위 '문화시설'을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연시설(영화관, 공연장 등)과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그리고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주로 의미한다. 노인복지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 등이 법규상 문화시설에 속하긴 하나, 실질적인 기능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복지시설이나 혹은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의 세 가지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공연시설

1)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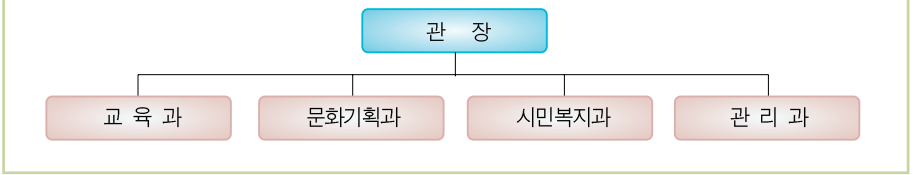
공연시설은 크게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부평구 내 공연장을 보면 인천여성문화회관 공연장, 그리고 '풍물패잔치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전용 소극장, 부평문화사랑방 내 문화관람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지만 부평문화원 내 문화예술교육극장 이렇게 네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2006년 초반까지 동아아트홀이라는 어린이극 ·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던 극장이 있었으나 최근 폐쇄되었다.

(1) 인천여성문화회관 공연장

인천여성문화회관은 1994년 2월 1일 개관한 이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성인적자원 계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단(합창단, 팝스오케스트라)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개최, 문화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문화생활에서 비교적 소외된 가정주부들에게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1일 여성자원금고 민간위탁을 거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인천 YWCA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대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여성문화회관 조직구성





인천여성문화회관 전경



인천여성문화회관 합창단 공연 장면



인천여성문화회관 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인천여성문화회관은 합창단과 팝스오케스트라, 이렇게 두 개의 자체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되었으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합창단은 1995년 창단되어 각종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팝스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밖에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동우회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외부기관으로부터 주로 초청을 받아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인천여성문화회관 공연장은 인천 YWCA에서 위탁 운영한 이래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대관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 예술단체의 기획공연보다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의 소소한 예술활동을 선보이는 장이나 기타 행사의 장으로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공연장 운영실적을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 공연 작품이라고 보기 힘든 피아노학원의 연주회나 학생음악경진대회, 혹은 단체의 정기총회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8월 이후 1년간 기획

공연 횟수는 11회며 총 3,85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2) 풍물패잔치마당 소극장

풍물패잔치마당 소극장은 십정동 572번지 만월빌딩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풍물전용극장으로, '잔치마당'이라는 풍물 단체의 역동적인 활동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공연장이다. 또한 풍물이 부평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공연장 자체가 가지는 의미나 이곳의 공연프로그램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잔치마당 강좌

이곳의 특징이라면 단순히 작품을 공연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공연장이 아니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풍물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으로, 결국 시설을 거점 삼아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일구어 나간다는 점에서 부평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총 60평의 면적에 15평 규모의 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객석은 80~100석 가량이다. 지난 1년간 총 3회의 기획공연을 24일간 진행하여 2,000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풍물패잔치마당 소극장 주요 공연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 용	비 고
풍물전용극장	잔치마당예술단 상설 타(打)락(樂) 두드림의 즐거움 공연	금요상설공연
명인 명창 국악인 초청공연	품바, 마당놀이, 한국무용, 개인발표회 등	월 1회
품앗이 공연	타 소극장 운영 예술단체와 주제별 품앗이 공연	
여성단체모임을 위한 타(打)락(樂) 공연	여성단체모임(계모임, 부녀회, 동창회 등)을 위한 공연, 점심식사 제공	
모셔오는 문화활동	단체 40명 이상이 공연을 원할 경우, 일시와 상관없이 상시공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천사랑 타(打)락(樂)공연	인천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시공연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가족사랑 타(打)락(樂) 콘서트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감상과 문화체험 한마당	

(3) 부평문화사랑방 내 문화관람실

부평문화사랑방은 지난 2004년 1월 1일에 문을 연 문화공간으로 부평구청에서 부평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부평구 갈산2동 동사무소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해 구민의 예술 수용능력을 함양하고, 발표 공간 제공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관내 일상적인 문화공간의 부족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곳도 역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아니지만, 200석 정도의 객석과 최신 장비를 갖춘 손색 없는 소규모 공연장이다. 2004년 2월 14일, 개관 기념 기획 초청공연인 '대한민국 풍물 명인전'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획공연 및 상설공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평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은 다른 공연장들과는 달리 공연장이면서도 주민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점은 공연 프로그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공연도 적지 않게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지역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게 되었다.



부평문화사랑방 전경

부평문화사랑방 내 문화관람실 연도별 주요 공연프로그램

연 도	공 연 명
2004	대한민국 풍물 명인전, 장사익과 김광석의 소리판, 익스프레션 초청공연, 가족극 '기차', 잔치마당 예술단 공연, 성심챔버앙상블 공연, 미추홀국악단 공연, 부평 유주희 무용단 공연, '뒤죽박죽 전래동화', 소도예술단 공연,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 서도소리보존회공연, 소리오름 소도예술단 공연, 예인금관앙상블 공연, 정정미 판소리 연구회 공연, 신선한 콘서트,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가온누리 소리오름 공연, 지구촌 평화기원콘서트, 우광혁 교수의 세계악기여행, 유심초와 백영규의 '추억 그리고...', 여성금관 오중주,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아동극 '늑대피터의눈물', 이영유 시인의 '시의숨결', 인천클라리넷 앙상블 공연
2005	미추홀어린이요들단 공연, 최규호의 클라운마임, 김대은의 벨리댄스, 인천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아름다운 무대 '꿈', 그림과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레이정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신명나는 한국, 문화콘텐츠 엠버서더' 초청강연, Pop rock bend Soul N Gene, 환상적인 비

연도	공 연 명
	누방울 세계, 콰르텟엑스 픽쳐쇼, 아카펠라 생쇼,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05 금요상설무대 전통타악예술원 공간, 2005금요상설무대 함현진 매직쇼, 2005 금요상설무대 풍물패 소르오름, 2005금요상설무대 벅스금관앙상블, 2005 금요상설무대 배틀러크루, 2005 금요상설무대 최규호의 클라운마임, 제1회 가족사랑 동요경연대회, 2005 금요상설무대 '스파크', 2005 금요상설무대 '타루', 영혼을 울리는 하모니카 '전제덕', 2005 신선한콘서트 '오! 부라더스'
2006	클라운 마임의 세계, 매직캐슬 코리아 매직콘서트, '삐에로는 내친구', '아기돼지 삼형제', '김치 꽃 만두', 2006 봄 금요상설무대 '천재피아니스트 진보라', 2006 봄 금요상설무대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제2회 가족사랑 동요경연대회, 국악그룹 팔음, MS클래식 금관5중주, 현악 4중주, 국악의 신소리 퓨전코리아, 아카펠라 '보이쳐' 공연, 인천시립무용단, 여름방학 특별공연-스타매직, 초청공연- '무암이와 섬 이야기', 기획공연 '신나는 동물'



부평문화사랑방 공연 모습
(리여석 기타아 오케스트라)

(4) 부평문화원 내 문화예술교육극장

인천의 8개 문화원 중 드물게 독립 원사(院舍)를 보유하고 있는 부평문화원은 건물 내 3층에 문화예술교육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극장도 「공연법」상의 공연장은 아니지만 367.15㎡의 규모에 무대와 객석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공연장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그 시설이나 장비 등이 노후하여 현재로선 실질적인 공연 시설로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평문화원 역시 구민들의 문화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곳 공연장 시설을 보강하여 지금보다 활발한 공연시설로 바꾸는 일도 부평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이곳은 공연활동이 그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1998년도부터 지난 2003년도까지 공연이 몇 차례 진행되다가, 2004년도 이후에는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설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부평문화원 내 문화예술교육극장 연도별 공연 실적

연 도	기 간	사업명	내 용
1998	9. 16~29	연극공연	어린이 교육극 '벌거벗은 임금님'
	10. 1~11. 1	〃	어린이교육극 '꼬마형사 데니스'
	10. 1~11. 1	가족극	가족극 상영 '각설이 블루스'
1999	3. 27	어린이교육극	초청공연 연극 '빛그림 이야기'
2000	10. 28~11. 4	기획초청공연	청소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연극축제 생떽쥐베리 100주년 기념 '어린왕자' 공연
	12. 29		전자사물놀이 타악 퍼포먼스 공연
2001	11. 12~16	늘푸른 부평	청소년들의 작은 연극 한마당
	11. 18	청소년 축제	극단 한강 '교실이데아' 초청공연 (2회)
2002	1. 19	어린이인형극	어린이 인형극 '빨간모자와 늑대 외 1편'
	3. 23		어린이 인형극 '아기돼지 삼형제 외 1편'
2003	12. 4	초청공연	연극 '팥죽 할멈과 호랑이'

2) 영화상영관

부평구 내 영화상영관은 총 4개 소로 나타나 있으나, 최근 영화관이 여러 개의 상영관으로 운영되는 소위 멀티플렉스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상영관의 개수를 따져보면 부평구에는 총 26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개관한 대한극장(2개 관), 2000년도에 부평역사 내에 개관한 키넥스 5(5개 관), 그리고 부평구 내에서 가장 많은 상영관을 보유한 CGV부평 10(10개 관), 그리고 올 2006년도에 개관한 롯데시네마(9개 관)가 있다.

2000년도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이동통신사(SK Telecom, LG Telecom, KTF 등) 멤버쉽 카드를 통한 영화관람료 할인(이동통신사 멤버쉽 카드를 통한 영화관람료 할인은 2006년도 7월 1일부로 모두 중단된 상태), 또한 엄청나게 신설되는 영화상영관,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시나 공연관람보다 영화

관람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영화상영관의 경우 멀티플렉스 형태가 생기기 시작한 2000년도 무렵을 계기로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띈다. 그간 운영되어오던 중소 규모의 영화관이 기업형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져 대부분이 폐쇄되었다는 점이다.

부평구 내 최근 10년간 영화관 수

연도(년)	영화관 수(관)	비 고
1996	6	
1997	6	
1998	5	
1999	6	
2000	7	키넥스 5(5개 상영관을 가진 멀티플렉스) 개관
2001	3	
2002	3	
2003	3	CGV부평(10개 상영관을 가진 멀티플렉스) 개관
2004	3	
2005	3	
2006	4	롯데시네마(9개 상영관을 가진 멀티플렉스) 개관

출처: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2006.

최근 10년간 연도별 영화관의 개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996년도와 1997년도에 6개 관이었던 것이 1998년에 들어서면서 한 관이 폐쇄되어 5개관으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도에는 다시 6개 관으로 늘어나고, 2000년도에도 또 7개 관으로 늘어났으나 2001년도에는 3개 관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년 사이에 총 4개의 상영관이 폐쇄된 것이다.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영화시장 독식이라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폐쇄되지 않고 살아남은 단 하나의 극장은 대한극장 뿐이다.

얼핏 보았을 때는 오히려 영화상영관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최근에는 한 영화관이 여러 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10년간 부평구 내 영화상영관의 개수는 폭발적으로 증가(2006년 현재 26개 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평구 내 영화상영관 현황

극장명	좌석 수	영화상영 편수(2005)	법인 및 단체명	소재지
대한극장 1관	230	24	대한극장	부평1동 534-27
대한극장 2관	174	24		
키넥스5 1관	258	42	(주)씨어터뱅크 부평지점	부평1동 738-21
키넥스5 2관	221	65		
키넥스5 3관	144	72		
키넥스5 4관	175	74		
키넥스5 5관	198	54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1관	92	80	아이즈빌 씨지브이부평 10	청천동 386, 381-1, 2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2관	258	35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3관	142	62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4관	154	50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5관	154	43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6관	92	74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7관	258	41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8관	142	59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9관	154	52		
아이즈빌씨지브이 부평10 10관	154	37		
롯데시네마부평 1관	238	미개관	롯데쇼핑 주식회사	부평동 152-1
롯데시네마부평 2관	222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3관	194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4관	180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5관	235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6관	180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7관	158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8관	147	미개관		
롯데시네마부평 9관	90	미개관		

2. 전시시설

2006년까지 부평구 내에는 전시시설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혀 없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해 놓는 창고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한 시대나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물적(物的)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그나마 이제라도 부평역사박물관이 올 2007년도에 개관한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미술관은 지역 내 미술인들의 전시공간임과 더불어 시각예술을 통한 구민 문화향유 차원, 그리고 공연장과 달리 상

시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부평구에는 전무하다.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내 전시시설로는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관과 구올담 치과병원 내에 있는 사립시설인 구올담갤러리가 있으며, 부평구청사 내에 마련된 향토사료전시관, 미술전시관, 부평사진역사관, 곤충사진전시관 등 총 6곳이다. 그러나 부평구청사 내에 마련된 4곳의 전시공간은 말 그대로 구청사의 로비나 복도, 혹은 지하공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곳으로서 온전한 의미의 전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여타의 문화시설에 비해 유독 전시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부평구가 이렇게나마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부평구의 전시시설 현황과 타 군 · 구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천시 내 10개 군 · 구 중에서 역사자원이 풍부한 곳인만큼 강화군이 11개로 가장 많고, 남구가 총 10개로 두 번째로 많다. 부평구도 6개의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타 군 · 구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6개 소 중 4개 소가 부평구청 내에서 전시코너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부평구의 전시시설은 타 군 · 구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1) 화 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화랑은 '회화 · 서예 · 사진 ·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 매매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로 매매를 목적으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부평구 내의 화랑들은 매매가 주 목적은 아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으로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의 전시실과 구올담갤러리가 있다.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의 전시실은 공공적 성격이 좀더 강하고, 구올담갤러리는 구올담 치과병원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갤러리라고 볼 수 있다.



제10회 한 · 일 여성 국제사진 교류전(2004,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실)

(1)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실

인천여성문화회관 1층에 41평 규모로 마

련되어 있는 전시실은 새로운 미술 담론 및 구조를 생산하는 적극적 의미의 전시활동보다는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공간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이는 동 시설의 공연장 성격과도 흡사하다.

2005년 8월 이후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800여 명에 이르며, 같은 기간 기획 전시는 총 두 차례 진행되었다.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실 주요 전시 활동

연 번	기 간			행 사 명
	년	월	일	
1	2004년 12월~2005년 6월			시설 개보수 공사 기간
2	2005	9	30	한국노총 인천본부 전시회
3		10	4~8	한국노청 인천본부 전시회
4			22~26	여성문화사진회 사진전
5		11	11~18	인천 민화(전통)협회전
6	2006	11	9~21	선생님과 학생들의 어울림전 (홍선생미술)
7		6	23~27	교육과 수채화반 정기 작품전시

(2) 구올담갤러리

구올담갤러리는 구올담 치과병원(부평1동 185-1)이 내원 고객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병원 내에 조성한 갤러리이다. 2002년 5월 병원 설립과 동시에 개관하여 현재 2개 전시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제1전시실은 건물 1층에, 제2전시실은 건물 계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구올담갤러리는 주로 역량있는 작가의 초대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내 부속된 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전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구올담갤러리 주요 전시 활동

년도	전시명	전시 기간
2005	상설전	1. 3~2. 5
	Scribble on the Sky	2. 15~28
	최영선 사진전	3. 2~22
	연제욱 개인전	3. 23~4. 15
	김병주 개인전	4. 19~28, 5. 25~31
	현대미술 소품전	4. 29~5.10
	Pratt 그룹전 G Train	5. 11~24
	김진희 개인전	6. 1~22 구

년도	전시명	전시 기간
2005	올담 어린이 공모전	5. 25~30
	전상면 개인전	7. 2~15
	청년작가초대전 1부 (서양화)	7. 16~30
	청년작가초대전 2부 (동양화)	8. 1~16
	청년작가초대전 3부 (조각)	8. 17~9. 38
	김형기 개인전	9. 10~30
	아름다운 청년전 연제욱	10. 1~14
	다리회 그룹전 양창석	10. 22~11. 8
	시각과 변화전	11. 16~12. 6
	원도희 개인전	12. 7~31
	고진한 작품전	
	김기용 개인전	

2) 기타 전시공간

(1) 부평구청 내 미술전시관

부평구 내에 미술관은 단 한 곳도 없으나, 부평구청사 내에 작게나마 미술전시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청 2층에 마련된 미술전시관은 1996년 11월 개관한 이후 미술인들의 창작물을 주로 전시하면서 동시에 구청을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휴식의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는데, 구청사 내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대관 및 관람이 가능하다. 대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가 확정되면 팜플렛 등을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번듯한 미술관 시설은 아니지만 부평구청을 방문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을 주 관람객으로 하는 일반적인 미술관보다 오히려 관객 계발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 달 평균 두세 차례의 새로운 전시가 마련될 정도로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 미술전시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작품전시의 장으로도 줄곧 활용된다는 점과 함께 부평구의 실질적 현안과 관련된 전시가 적잖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굴포천 사진공모전이나 부평풍물

축제 관련 전시, 아름다운 거리간판 사진전시회 등인데, 미술이라는 것이 현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특정 개인의 창작 세계가 아닌 현실과의 적극적인 연계성을 갖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전시는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향후에라도 부평구 단위의 미술관이 마련된다면 이곳 미술전시관의 성과와 의미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평구청 내 부평사진역사관

부평구청 3층 복도에 마련된 부평사진역사관은 부평의 역사를 사진을 통해 전시하는 곳이다. 변화하고 있는 부평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평의 과거와 현재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 부평지역의 역사성 등을 담아내고 있다. 2000년 개관하였다.

(3) 부평구청 내 곤충사진전시관

부평구청 7층에 마련된 곤충사진전시관은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인천에 생존하고 있는 꽃과 곤충 등 생태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개관하였다.

(4) 부평구청 내 향토사료전시관

부평구청 1층에 마련된 향토사료전시관은 농경 문화 이래 근대, 산업화, 도시화 전반을 아우르는 부평구의 역사적 유물을 약 1,000점 이상 보유하였다. 이러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상설전시를 운영하였으나 기획 전시는 거의 개최하지 못하였다. 1997년 7월 11일 개관하였으며, 부평역사박물관 개관과 함께 폐관되었다.

3. 도서시설

1) 도서관

부평구 내에는 지난 2006년 개관한 부평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하여 부평도서관, 북구도서관 이렇게 총 3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부평도서관과 북구도서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그리고 부평기적의도서관은 부평구청의 위탁을 받아 부평문화원이 운영하다가 부평구문화재단 출범 이후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새 문화관광정책』(1998)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인구 9만 명당 1관을 그 설립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부평구의 인구가 569,133명(2006년 9월 기준)이므로 최소 6개 관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 숫자 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군 · 구별 도서관 보유 현황

군 · 구	도서관 수	도서관 명
부평구	3	부평도서관, 북구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계양구	1	계양도서관
남 구	1	주안도서관
남동구	1	중앙도서관
동 구	1	화도진도서관
서 구	2	서구도서관, 한길도서관
연수구	1	연수도서관
중 구	1	시립도서관
강화군	1	강화군립도서관
옹진군	1	백령도도서관

현재 인천시에서는 각 군 · 구 별로 적어도 1개씩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부평구만 총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타 군 · 구에 비해 상황이 월등히 좋은 편이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기반시설 최소 설치 기준에 의하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부평구 내 도서관 일반 현황 연도별 추이				
연 도	도서관 좌석 수(개)	도서관 장서 수(권)	연간 이용자 수(명)	연간 이용책 수(권)
1996	2,244	133,880	713,166	793,139
1997	2,310	166,827	736,282	832,856
1998	1,866	184,016	1155,987	1,643,782
1999	2,640	195,535	2,011,686	1,358,265
2000	2,987	212,523	1,672,952	1,426,364
2001	2,871	236,169	1,281,068	1,407,902
2002	2,871	286,721	1,902,704	1,269,633
2003	2,871	310,035	2,051,007	2,600,140
2004	2,871	349,296	2,103,063	2,068,919
2005	2,871	381,804	2,048,150	2,558,735

출처 : 『부평구 통계연보』, 부평구, 2005.

※ 위의 집계는 부평구 관내 도서관(부평도서관과 북구도서관)의 수치를 모두 합산한 것임.

도서관의 좌석 수와 도서관의 장서 수, 그리고 도서관의 이용자 수 및 이용책 수는 도서관의 이용현황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부평구의 경우 각 항목의 모든 수치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부평구민의 문화생활도 증가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도서관 좌석 수는 계속 증가해 가다가 2001년부터 정체되고 있으나 대신 이동도서관(지역마다 직접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 서비스가 신설됨으로써 그 부족한 점을 상쇄시켜주고 있다. 장서 수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의 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이용자 수는 도서관을 통한 문화생활의 직접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형태이나 연도별로 증감의 추이를 다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인 1996년도 수치(713,166명)에 비해 2005년도 수치(2,048,150명)를 비교해보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이용책 수 역시 연도별 증감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증가되는 형태이며, 1996년도 수치(793,139권)에 비해 2005년도 수치(2,558,735권)를 비교해보면 3배 이상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1) 부평도서관



부평도서관 특허정보 지원 센터 개소식(2003)

부평도서관은 1981년 12월 14일 부평도서관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듬해 5월 18일 부평구 십정동 186-454번지에 개관하였고 1988년 본관 4층을 증축하였다. 2003년에는 부평지식재산센터로 지정되어 특허 정보의 보급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열람석은 총 1,116석이며 도서는 191,482권을 보유하고 있다.

부평도서관 도서 현황 (2006년 9월 현재, 단위 :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과학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합계
일반도서		8,575	6,834	4,816	24,471	5,168	12,223	7,618	4,843	35,068	9,484	119,100
아동도서		1,940	661	845	3,741	4,601	652	926	917	17,631	3,571	35,485
이동 도서	일반	456	1,035	401	1,488	176	1,262	475	140	14,388	750	20,571
	아동	381	394	381	1,968	1,739	311	365	215	9,205	1,367	16,326
계		11,352	8,924	6,443	31,668	11,684	14,448	9,384	6,115	76,292	15,172	191,482

부평도서관은 또한 1984년부터 이동도서관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동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의 자료를 지역 곳곳으로 이동시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유아, 주부 등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로, 도서관 존립의 목적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실천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동도서관은 A, B지역으로 나누어 격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A지역은 일신동 풍림아파트, 삼산주공 2단지, 부개주공 2단지가 해당되고, B지역은 삼산주공 6단지, 부평대림아파트, 삼산동 미래 4단지가 해당된다.

2006년 현재 부평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는 858,236명이며, 연간 이용책 수는 944,099권이다. 이동도서관은 연 86,183명이 이용하고 있다.

(2) 북구도서관

북구도서관은 1991년 9월 26일 부평4동 880번지에 개관하였고 2000년 신관을 증축하였다.

2000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관 당시의 북구도서관 (1991)

열람석은 1,755석이며 도서는 2006년 9월 현재 191,810권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 수는 1,189,914명, 연간 이용책 수는 1,614,636권이다.

북구도서관 도서 현황 (2006년 9월 현재, 단위 :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합계
일반도서		6,586	7,285	5,550	25,165	4,881	10,152	6,415	5,232	34,459	8,623	114,348
참고도서		1,256	53	146	2,296	325	1,006	664	504	104	1,283	7,637
아동도서		2,147	671	990	3,384	6,330	884	1,091	1,297	21,661	4,692	43,147
순회도서	일반	107	324	229	501	77	463	247	48	8,324	421	10,741
	아동	421	252	351	1,028	1,748	353	490	399	7,554	1,286	13,882
제본도서		876	0	0	549	99	141	192	0	198	0	2,055
계		11,393	8,585	7,266	32,923	13,460	12,999	9,099	7,480	72,300	16,305	191,810

(3)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은 2006년 3월 10일 부개동 499-1번지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아홉 번째이자 수도권에서는 최초의 개관이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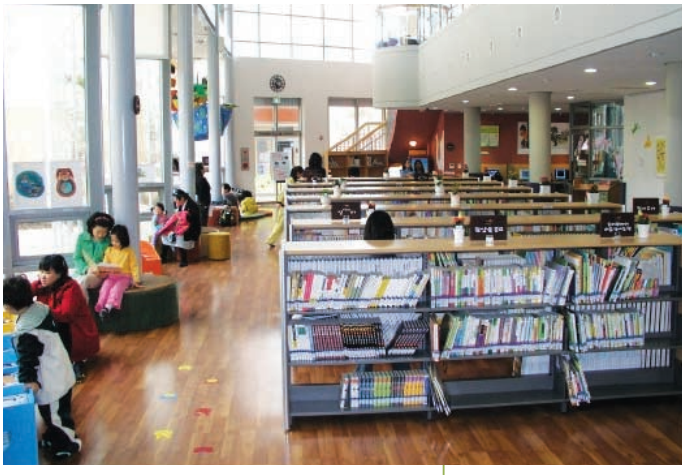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 환경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어린이 도서관을 제시한다는 취지 아래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부평구에서는 구민들의 서명을 받아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제출하는 등 2003년부터 기적의도서관 유치에 힘을 쏟아왔다.

부평기적의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책나라(열람실), 엄마랑 아가랑(유아방), 이야기숲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열람 좌석이 없이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2006년 현재 총 1만 8천여 권의 책과 비디오, CD 등 비도서 8천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층별 공간 구성

구 분	방 이 름	내 용
1층	괴나리봇짐	소지품과 신발을 보관하며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물음터	도서관 이용안내 및 도서열람, 대출 업무를 보는 장소
	이야기숲	여러 명의 아이를 모아놓고 동화를 들려주는 방
	책나라	비치된 책을 자유스럽게 보는 공간
	화장실	
	셈틀방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동화 등 전자도서를 보는 장소
	엄마랑아가랑	미취학 아동들이 엄마와 함께 책을 보는 방
	도움방도서관	시설관리 및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어울림	어린이 관련 공연 및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공간
	쉼터	간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
	도서관뜰	자연을 친구 삼아 휴식을 위할 수 있는 공간
2층	샘글방	소그룹이 모여 책을 이야기하는 동아리방
	샘늘방	소그룹이 모여 책을 이야기하는 동아리방
	서고	책과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우렁각시방	자원활동가방 책벌레방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도서검색대	원하는 책을 검색하는 공간
	물음터	도서관 이용안내 및 참고 봉사를 하는 장소
지하	기계실	기계실, 전기실

부평기적의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95%가 어린이 도서인데 다른 지역의 기적의도서관이 어린이에게만 도서를 대출하는 것과는 달리 부평구민 누구에게나 도서 대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 어린이 도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일 1천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일 대출 권수는 270여 권이다.



부평기적의도서관 내부

부평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놀며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40여 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나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방의 역할을 떠나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상설 프로그램 (2006년 현재)

행사명	일정	대상	내용
옹달샘	매주 화요일 늦은 3~4시	유치부 및 초등 저학년	동화구연, 노래, 율동, 만들기 등
책놀이 쿵~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여유아 및 유치부	책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시간
견학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유치원, 초등학교	사전에 신청을 받아 견학 프로그램 진행
동시 따먹기	매주 금요일 늦은 4~5시	초등학생	동시작가 김미혜 선생님의 동시 강의
영화상영	노는 토요일 늦은 3시	누구나	영화상영

2) 문 고

문고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동법 제5조 및 관련시행령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 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문고란, 그 규모는 다소 작으

나 엄연한 의미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고는 최근 들어 급속히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여러 기능들을 담당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문고는 공공자금이 아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출자 형식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를 띤다. 즉,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인 독서문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군 · 구보다 부평구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최근 3~4년 전부터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이들 문고들 중 대부분은 소위 '어린이도서관' 이라는 형태로 분류되곤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고' 라는 명칭이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 '어린이도서관' 이라는 명칭이 더욱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부평구 내 문고는 총 15곳에 달한다.

부평구 내 문고 현황

연 번	문 고 명	주소	운영형태
1	부개1동 자치센터문고	부개1동 259-10	공립
2	십정1동 자치센터문고	십정1동 279-20	공립
3	산곡4동 자치센터문고	산곡4동 284-13	공립
4	갈산2동 자치센터문고	갈산2동 365-1	공립
5	민들레도서실	부개3동 부개주공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동 2층	사립
6	부평새빛문고	갈산동 391 1층	사립
7	늘푸른어린이문고	십정2동 362-70	사립
8	진달래어린이문고	부평5동 172-7번지	사립
9	청개구리어린이문 고	산곡3동 317-119 2층	사립
10	사랑문고	부평6동 735-9 2/2	사립
11	맑은샘어린이문고	청천1동 81-11	사립
12	소망글사랑문고	갈산1동 73-1	사립
13	신나는 어린이문고	삼산동 391-3 미래타워 503호	사립
14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청천동 180-4 대우프라자 406호	사립
15	아름드리어린이문 고	부개1동 327-11 4층	

부평구 내 문고 현황을 타 군 · 구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인천시에는 부평구와 연수구가 각각 15개 소로 가장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고는 대부분 어린이도서관의 형태이고, 어린이도서관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심(구도심보다)에 주로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도

심인 동구나 남구에는 그 수가 매우 적고,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에는 문고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또한 '금곡하나아파트문고', '우성아파트마을문고', 주민자치센터문고' 등 각각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고는 지역 주민과 매우 밀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부평구에 최근 3~4년 간 이러한 문고들이 급속도로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평구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이 최근 들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문화보급전수시설

부평구에 있는 문화보급전수시설로는 대표적으로 부평문화원이 있다. 이러한 문화원들은 소위 '지방문화원'이라 불리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로,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인천시에 총 8개가 있는데, 부평문화원은 지난 1998년에 설립된 곳으로 인천시에서는 강화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문화보급전수시설에는 지방문화원 외에도 국악원, 전수회관 등이 속하지만 부평구에는 부평문화원 단 하나의 문화보급전수시설만이 운영되고 있다.

각 군 · 구별 문화보급전수시설 보유 현황		
군 · 구	문화보급전수시설 수	문화보급 전수시설 명
부평구	1	부평문화원
계양구	1	계양문화원
남 구	4	남구학산문화원, 은율탈춤전수관, 인천국악회관, 인천도호부청사
남동구	1	남동문화원
동 구	1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전수교육관
서 구	1	서구문화원
연수구	1	연수문화원
중 구	1	중구문화원, (문화원연합회인천 지회)
강화군	3	강화문화원, 외포리곶창굿전수 교육관, 금화당
옹진군	0	

각 군 · 구 별로 문화보급전수시설의 수를 살펴 보면, 남구가 가장 많아 총 4곳이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듯 강화군에도 3곳이나 된다. 그 외 부평구와 계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에는 문화원이 각각 1개씩, 그리고 동구에는 문화원이 없는 대신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전수교육관이 있으며, 옹진군에는 이러한 문화보급전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문화원 전경

지방문화원은 대개 각 군 · 구 단위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등 해당 군 · 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평문화원의 경우 다른 군 · 구에 비해 비교적 일찍 문을 열었으니, 부평구민은 타 구민들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좀더 일찍부터 누린 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부평문화원은 1998년 3월 27일 부평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후, 같은 해 7월 9일 개원식을 갖고 설립되었다. 초대원장은 조기준이 맡았으며, 2002년 7월 12일 제2대 원장으로 허문명이 취임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 운영, 아침문화강좌 개최, 『문화부평』 발간, 청소년 마당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토사 연구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부평구청의 위

탁을 받아 부평문화사랑방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5. 오픈스페이스

건물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화시설'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원, 거리, 광장, 혹은 동네의 한켠 등도 문화예술 활동을 담아내고 창작자와 일반 시민의 만남을 주선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부평구에도 이러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형태의 문화공간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부평문화의 거리, 신트리공원, 그리고 부평역광장 등이다.

1)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문화의 거리는 소위 부평의 1번가로 불리는 명신당~부평시장 로터리 구간(총 270m 구간)을 구민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꾸며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다.



부평문화의거리 공연 모습 (2003)

이곳은 지난 1996년 7월, 부평시장상가번영회가 부평구에 그 조성을 요구한 이래 1998년 3월 조성이 완료되었다. 거리 조성 이후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조각상, 가로등, 분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음악회, 영화상영, 노래자랑 등의 행사를 마련해 왔다. 특히 분수대는 주민의 자발적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이곳 거리는 어느 정도 미관을 갖추게 되었고, 소규모 문화행사들이 열려왔다.

부평문화의 거리는 상인들 스스로가 상업과 문화를 접목시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상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거리의 점포주와 노점상, 행정기관 등이 오랜 협상을 통해 현재와 같은 거

리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 신트리공원



부평신트리공원 전경

부평동 880 · 891번지에 위치한 신트리공원은 총 58,594.6㎡의 면적으로 부평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한 부평풍물축제의 주요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그 문화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곳이다. 간이체육시설 및 농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3) 부평역광장



부평역광장 전경

부평역은 부평구민 뿐 아니라 인천지하철1호선과 서울~인천 간 전철의 환승역으로서 인천시민 전체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중심지이다. 이곳 부평역 앞에 조성된 부평역광장은 2000년 12월 19일 준공된 이후 한 쪽에 마련된 소규모 야외무대 등에서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부평역광장 연도별 주요 사용 내역

구 분	사용 횟수	사용 목적
2001년	12회	공연 및 캠페인
2002년	7회	공연, 캠페인, 추모제 등
2003년	17회	공연, 캠페인, 추모제 등
2004년	11회	공연, 캠페인, 추모제 등
2005년	8회	공연, 캠페인, 추모제 등
계	51회	

제3절 문화행사의 현황과 참여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부평구는 생활권 문화시설 등을 크게 확충하고 구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1998년 부평문화원의 설립과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등은 부평구민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부평대축제(현 부평풍물대축제)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문화 행사가 없었던 부평구에 부평문화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 문화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부평구민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동호회 등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가 1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옴에 따라 부평구, 나아가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부평구 내에서는 동 풍물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정체성 강화 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 부평문화원과 시민 문화 활동

1997년 부평풍물대축제의 실시와 1998년 부평문화원의 설립은 부평구민의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를 통해 시민문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고, 부평 문화의 콘텐츠를 표현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사실 1998년 부평문화원 설립 이전까지 부평구민의 문화 활동은 부평풍물대축제 운영 및 참여, 동호회 활동 등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부평문화원은 문화센터 개념의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부평풍물대축제 기획 ·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 활동과 관련한 활동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시민문화향수,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이 글은 임고은(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원) · 조성돈(부평문화원 사무국장)이 책임집필하였음.

1) 문화 학교 운영



부평문화원 문화학교 수업 모습(한국무용)

문화 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부평구민들의 문화예술 창작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풍물, 한국무용, 서예, 시창작, 영어회화, 스포츠댄스, 요가, 다도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매년 말 문화가족 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해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2) 아침문화강좌



제11회 부평문화원 아침문화강좌

아침문화강좌는 친교와 교양 함양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4~5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부평문화원의 대표적인 문화강좌이다. 매회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17회가 개최되었다.

부평문화원 아침문화강좌 개최 현황

연도	회차	강사	제목
2002	1	김학준(동아일보사 사장)	21세기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2	김용래(전 서울시장)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의식 개혁
	3	하권익(전 삼성중앙병원 원장)	건강하게 사는 인생
	4	변우량(평택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
2003	5	홍철(인천대학교 총장)	세계 속의 인천, 인천의 미래발전과 전망
	6	이종태(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인천의 풍수지리와 명당

연도	회차	강사	제목
	7	남주홍(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휴전 50주년 회고와 전망
	8	이인석(인천발전연구원장)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의 발전방향
2004	9	홍일식(전 고려대학교 총장)	우리의 효 문화, 세계화가 가능한가
	10	안상수(인천광역시장)	인천의 미래 어떻게 변할 것인가?
	11	박재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선현들의 지혜를 듣는다
	12	박재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공자의 치열함, 노자의 여유 배워야
2005	13	신봉승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현대인의 삶과 역사
	14	신봉승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어제의 역사, 오늘의 현실
	15	박동규(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문학과 인생
	16	김연광(월간조선 편집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망
	17	지용택(새얼문화재단 이사장)	황해는 다시 떠오른다

3) 유스페스티벌



2004 Youth Festival

유스페스티발은 청소년들이 독립된 개인임과 동시에 공동체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2001년 '스무살, 나를 잡아봐' 라는 제목으로 처음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유스페스티발은 또한 청소년 힙합경연대회,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인천지역 직장인 밴드공연 등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해 주어 이후 청소년 축제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정통 성년식 재연 행사는 부평구민들뿐만 아니라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4) 정월대보름 행사

부평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매년 음력 1월 15일 신트리공원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풍물단의 길놀이, 지신밟기, 풍물한마당, 가훈써주기, 민속놀이체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고구마 구워먹기, 부럼먹기,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도시화 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며 구민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5) 찾아가는 문화 활동



제1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모습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일상 생활에서 공연장을 찾기 어려웠던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통해 일반인 및 문화소외계층에게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고 일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003년 5월 17일 갈산동 상꾸지공원에서 처음 진행된 이후 부평역 광장, 부평문화의거리, 은광원, 성동원, 삼산초등학교 등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풍물, 그룹사운드, 마임, 댄스 공연, 마술쇼 등의 공연을 펼쳤다.

2.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문화 · 체육 활동의 확대

정부의 동 기능 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 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돕기, 서먹했던 이웃 간의 대화나누기, 지역의 각종 대소사 의논 등 각박해져가는 도심 속에 여유와 나눔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설립되고, 이를 운영할 프로그램들이 대거 생산되면서 생활권 내에서 부평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은 또한 각 동마다 주민 스스로 동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 행사, 취미동호회, 생활체육 등
- 지역복지기능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공부방 등
-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정보센터, 자원재활용, 알뜰매장, 농산물직거래 등
- 시민교육기능 : 노인교실,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 사회진흥기능 : 내 집 앞 청소하기, 청소년지도 등



삼산2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요가)

이렇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각 동의 자치운영과 함께 주민들이 손쉽게 문화 · 정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담 없이 취미생활 및 문화 · 정보 자료 등을 교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 공간' 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부평구에는 현재 31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부평4동과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 7월에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2000년을 전후로 설치되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 문화 · 체육 관련 강좌는 평균 4개, 1일 평균 참여 인원은 평균 72명이었다. 문화 · 체육관련 강좌가 가장 많은 곳은 일신동으로, 강좌 수가 10개였고, 그 다음은 산곡2동, 산곡4동, 부개3동, 십정1동의 순이었다. 또 1일 평균 참여인원은 산곡2동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갈산2동이 176명, 부개3동이 158명의 순이었다. 반면 갈산 1동, 부평2동, 부평6동은 문화 · 체육 강좌 수가 1개로 가장 적었고, 이 가운데 갈산1동과 부평2동은 1일 평균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 · 체육 관련 강좌의 운영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문화 · 체육 강좌 운영 현황

주민자치센터	문화 · 체육 강좌 수	1일 평균 참여인원(명)	설립년월일
갈산1동	1	10	2000. 12. 27
갈산2동	4	176	2001. 11. 19
부개1동	2	28	2000. 12. 21
부개2동	2	106	2000. 12. 28
부개3동	5	158	2001. 1. 18
부평1동	4	90	2000. 12. 22
부평2동	1	10	2000. 12. 22
부평3동	4	74	2000. 12. 26
부평4동	3	50	1999. 7. 20
부평5동	2	27	2001. 1. 5
부평6동	1	15	2000. 12. 22
산곡1동	2	34	2000. 12. 28
산곡2동	7	19	22001. 1. 4
산곡3동	3	85	1999. 7. 20
산곡4동	6	87	2000. 12. 18
삼산동	4	30	2000. 12. 27
십정1동	5	90	2000. 12. 18
십정2동	3	72	2000. 12. 15
일신동	10	138	2000. 12. 23
청천1동	3	70	2002. 1. 15
청천2동	3	40	2000. 12. 14
평균	4	72	-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 ·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풍물교실, 동화구연, 고전무용, 현대무용, 노래교실, 피아노교실 등 악기 연주 강좌, 수채화교실, 서예교실 등의 문화예술 관련 강좌와 요가, 탁구교실, 스포츠댄스 등의 생활체육교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육관련 향유 및 창작 등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획일적이고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조직하고 참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평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 체육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획일성, 내용의 부실 등의 문제는 차차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민자치에 의한 동 축제 활성화

부평구 내의 축제는 부평풍물대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부평풍물대축제는 이제 10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인천광역시의 대표축제이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기로에 서 있다.

부평구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각 동마다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부평구의 동 축제는 2002년을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 축제 개최의 목적은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 지역주민이 서로 돕고 참여하며 사랑하는 주민화합을 적극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동 축제의 개최 및 지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축제 지원조례' 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동 축제위원회이다. 동 축제위원회는 동별로 구성된 주민 주도의 단체이며, 관련 단체와 주민으로 구성되고, 특정 단체 단독으로 구성되는 것은 불가하고 있어 철저히 주민주도의 축제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동 축제 지원의 범위는 축제를 위한 물품 구매, 공사, 역무 제공 등이며, 이외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부평구의 동 축제는 동마다 축제 개최 몇 달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자생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축제위원회는 프로그램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축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동 축제를 진행한다. 동 축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문화 · 체육 강좌를 통해 배운 실력을 선보이는 작품발표회,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동 축제가 열리는 장소도 근처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부평6동 동수축제(2007)

현재 부평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 축제는 총 19개이다. 가장 역사가 깊은 동 축제는 부평6동의 동수축제와 십정동의 열우물호봉축제로 1997년에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평구의 동 축제는 대체로 각 동의 특성 있는 장소나 문화 유산을 테마로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노래자랑 등을 중심으로 하는 등 대체로 주민 화합 축제의 형태로 각 동마다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평구 동 축제 현황

동명	출제명	개최년도
갈산1동	갈월축제	2003
갈산2동	사근다리대축제	2002
부개1동	마분축제	2002
부개2동	효사랑 어울림축제	2005
부개3동	길주축제	2002
부평1동	서부동 한마당축제	2001
부평2동	주민화합축제	2001
부평3동	신촌한마당축제	2003
부평4동	신트리축제	2004
부평5동	한마음대축제	2004
부평6동	동수축제	1997
산곡1동	백마고을 한마당축제	2003
산곡2동	마장축제	2001
산곡3동	선포축제	2002
산곡4동	묏골축제	2004
삼산동	후정어울림축제	2003
십정동	열우물호봉축제	1997
일신동	일신동한마음축제	2002
청천동	청풍21 한마음축제	2001

2006년에는 전체 22개 동 가운데 16개 동이 동 축제를 개최하였다. 삼산2동의 경우는 분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07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동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동이 2007년에 개

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동 축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였으며, 최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동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와 같이 동 축제가 각 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예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 마다 의미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각 동 예산에서 해마다 500만 원이 동 축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축제 하나 당 평균 소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축제위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동 축제는 지원금 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민간 단체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상가나 지역 주민이 일정정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에게는 동 축제의 예산을 조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제3회 산곡2동 마장축제 (2003)

이러한 문제는 동 축제의 프로그램이 부실할 경우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내용적으로 풍요롭고, 전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때 동 축제는 그 의의가 살아나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미흡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면, 동 축제는 그 존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 축제의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 축제가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 동 풍물단 활동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30여 년 전에는 부평동초등학교 등에서 매년 농악경연대회가 개최되는 등 부평구는 풍물(농악)이 매우 성행한 지역이었으며, 현재는 이를 되살리기 위해 1997년부터 동풍물경연대회 및 전국학생풍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800여 명에 달하는 동 풍물단의 존재는 한편으론 대중적인 저변의 확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는 풍물이 대중 속으로 충분히 스며들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풍물의 대중적 확산과 풍물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 풍물단 내부를 보더라도, 참여 시기, 연령대, 성별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이 10년째 풍물대축제에 참여하고 또 일상적으로 풍물활동을 벌이면서 풍물 및 축제, 지역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견해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평가 작업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동 풍물단이 풍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 단순한 친목단체의 수준을 넘어 풍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아야 한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이라는 지역에서 풍물을 기축으로 생명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일상적 삶 속에서 풍물을 사랑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부평풍물대축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4편
부평의 오늘과 내일

제5장 부평의 미래상

부평구는 2002년 7월 비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자문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3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1년 단위로 이를 수정·보완해 가고 있다.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5년 후의 중기계획과 10년 후의 장기 미래비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평구가 또한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라는 비전 하에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격높은 문화·예술 구현
- 첨단산업 및 테크노밸리 구축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도시 조성
- 선진화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 도시 균형 개발
- 유비쿼터스 정보화 도시 실현
-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
- 안전하고 자발적인 공동체 '자치경찰제' 시행

※ 이 글은 윤승준(인하대 사학과 교수)이 책임집필 하였음.

부평구는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준년도를 2004년도로 하고 중기 계획년도를 2009년, 장기 계획년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제 · 환경 분야, 문화 · 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도시관리 분야, 자치행정 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있다.

1. 경제 · 환경 분야

경제 · 환경 분야에서는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제환경 조성'이라는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조성', '지역상권의 활력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1) 지식기반산업 조성

지식기반산업 조성을 위해서는 '21세기 도시형 첨단산업 집적', '지역산업 기반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21세기 도시형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해 2003~2006년간에 걸쳐 갈산동 152-22번지 일대에 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를 구축하여 IT 분야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3~2007년간에 걸쳐서는 청천농장 구조개선 작업을 벌여 청천동 58-57번지 일대에 간선도로 정비, 산업기반시설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산업 기반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인천기능대학 내에 있는 부평디자인센터의 교류협력과 인천중소기업지원센터 부평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갈산동이나 청천동 등 부평공단 인근 지역에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업종 간 교류나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으며, 2012년까지 지역생산품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있고 특화된 시장을 형성해갈 예정이다.

(2) 활력있는 도심상권 형성

활력있는 지역상권의 구축을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부평상권 활력화'가 목표로 설정되었다.

부평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장 현대화사업에 이은 상거래 현대화 사업과 e-비지니스 사업기반 구축, 상인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부평역 주변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을 펼쳐나가고 지하도상가의 구간을 연장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특화거리를 육성하여 부평상권의 활력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거리 육성 계획(2004~2012)

가로구간	특화품목(예시)	비고
부평시장역~부평역	문화, 풍물 공연, 전시	
문화로 1번지	패션, 악세사리, 귀금속	
시장로타리~부흥로타리	먹자거리(해물탕)	완료
부평시장역~부평농협	가구, 생활공구	
부평역~시장로타리	호프타운, 칵테일, 라이브 카페	젊음의 거리
시장로타리~부흥로타리	생활가전	

(3)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부평구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도까지 주택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벌여 부평구 전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2006년까지 완료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말검사나 자연보호운동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단속 모습(1995)

(4)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 구축

부평구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 교통문화 정립 사업과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선진 교통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버스정차선 및 버스승강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은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삼산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교통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2. 문화·체육 분야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체육·예술의 도시 건설'이라는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역량 강화',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2006 부평구 신년음악회



1)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역량 강화

부평구는 지역 내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평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평문화재단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앞으로 부평 풍물 복원, 부평사 발간, 명예의 전당 확충, 꿈나무 지역학습지 발간, 부평역사 탐방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까지 부평문화예술회관을 십정동 186-

411번지 일원에 건립 · 운영하고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부평역과 부평공원에 걸치는 문화벨트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부평풍물대축제로 대표되는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 지역별 쌈지문화 축제, The Old Festival, 신년음악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문화사랑방 문화공연, 기획초대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며 부평풍물대축제 역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2012년까지 아시아권 주요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도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



부평국민체육센터(2004)

구민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다양한 체육 · 여가활동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우선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부평국민체육센터와 삼산1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된 체육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이러한 시설을 기반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평구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부평구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며 축구의 고장 부평의 이미지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3. 사회복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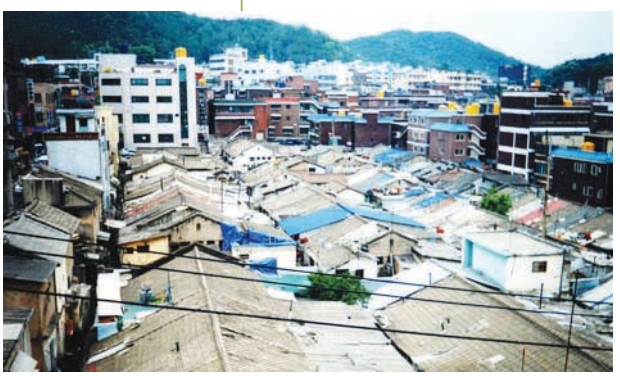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건강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여성의 능력 개발', '선진 복지시스템 실현',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우선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가며 노인 일거리 제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사업을 창출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에는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각 동별로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진 복지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보호센터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는 한편 2009년까지 '사랑의 장애인 학교'를 개설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토요 사회체험교실 등을 개설할 계획이며 부평 한사랑 운동, 사랑의 네트워크 등의 이웃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갈 예정이다.

4. 도시관리 분야



삼능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전경(2000)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의 균형 건설'이라는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해 '균형있는 쾌적한 자족도시 구현', '살기좋은 자연생태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우선 균형있는 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2003~2007),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등 도시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군부대 이전 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리고 2012년을 목표로 군부대의 단계적인 이전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해 2011년을 목표로 부평구청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개발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미개발 토지 택지개발 사업 현황 (2006년 2월 현재)			
구역	위치	내용	사업기간
삼산1택지개발	삼산동, 부개동 일원	1,189,269㎡, 주택 9,218호, 시설 55.4%	1997~2005 (완료)
삼산3택지개발	삼산동 113 일원	175,000㎡, 공공주택 1,750세대	2003~
삼산4구역	삼산 생산녹지	732,000㎡, 주거 · 상업도시 기본계획반영 중으로 2004년 4/4분기 건교부 승인 신청	2006~2010
삼산도시개발	삼산동 62-3 일원	49,888㎡, 주택 828세대	2004~2008
구산도시개발	구산동 90 일원	87,964㎡, 주택 731호, 환지방식	2004~2008

또한 2021년까지 부평묘지공원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납골당, 수목장 등과 더불어 생태하천, 소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신 · 구도심권 균형개발사업을 2010년을 목표로 진행하여 도심을 6개 생활권역(부평권, 산곡권, 청천권, 갈산삼산권, 부평남부권, 십정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생활편의시설 및 도심기반시설의 균형을 도모해갈 계획이다.

한편 자연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 굴포천 자연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자연학습체험장(생태 숲) 조성 사업(2005~2008), 산림 단절 구간 복원 사업(2005~2010),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사업(2006~2015)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굴포천 자연하천 복원 사업 개요(2003~2021)				
구분	구간	규모	사업예산	추진기간
1단계	부평구청~갈산펌프장	2.4㎞	232억 원	2003~2008
2단계	부평구청~롯데백화점	1.7㎞	-	2009~2014
3단계	롯데백화점~미군기지	0.8㎞	-	2015~2019

5. 자치행정 분야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구민 만족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 하기 위해 '공직내부 혁신역량 제고', '유비쿼터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개관 기념 게임대회(2005)

스 지향의 디지털 자치구정 실현',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부평구는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 미약,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 관리 시스템,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 부족 등을 취약점으로 분석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과 구정종합주민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경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평구는 유비쿼터스 지향의 자치구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부평3동사무소 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 '토탈서비스' 정보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등의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구민들이 쉽게 인터넷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 및 보존시스템 등을 통해 공문서처리 전 과정을 2008년까지 전자화 시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민원행정서비스를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사업도 2013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1단계(2004)와 2단계(2005~2006) 사업에서는 사랑의 PC고쳐주기 사업 및 중고 PC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고 3단계(2007~2008) 사업에서는 소외 주민을 위한 토탈 정보시스템 구축을, 4단계(2009~2013) 사업에서는 U-부평 구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 부평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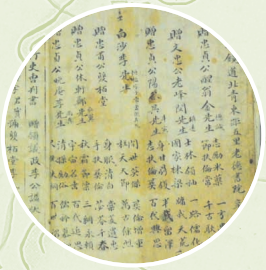
부평구는 현재 서울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 특히 문화예술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씩 부상해 가고 있다.

앞으로 부평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최대 자치구로 경인지역의 핵심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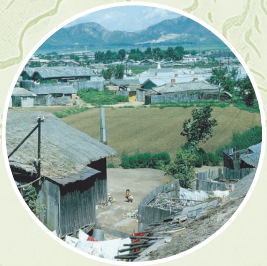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일류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부평구는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 · 스포츠 테마가 있는 도시, 첨단 IT 벤처, 자동차산업 등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성장하는 도시, 편리한 교통망과 쇼핑, 안락한 주거공간의 도시, 자원봉사와 평생교육, 사회복지 등 하나되는 도시, 푸른 숲과 공원, 맑은 하천이 흐르는 자연 친화형 도시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 특성있는 비전을 갖추어 갈산2동, 삼산동, 부개2 · 3동은 체육 · 역사 · 문화권, 산곡1동, 청천1 · 2동, 갈산1동은 첨단 · 산업권, 부평1 · 4 · 5동은 금융 · 유통권, 부평3동, 산곡2 · 3 · 4동, 십정1 · 2동은 문화 · 예술 · 교유권, 부평2 · 6동, 일신동, 부개1동은 산학연구권으로 구분하여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부평구는 머지 않은 장래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자료편







구술증언자료
부평지역의 설화
문학 자료
부평 옛 고을 이름의 유래와 변천사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부평
신문에 기록된 부평의 근현대사
연 표

자 료 편

구술증언자료

[좌담]

부평 상인들이 말하는 부평의 상업활동

일시 2007년 3월 7일 오후 6시

장소 부평시장 내 음식점 한우장

대담자 |
김원곤(자영업)
이호현(자영업)
안용석(전 대우자동차 이사)
장성훈(자영업)
황우혁(자영업)

정 리 | 이세기(시인)

본 좌담은 부평에서 태어나 선친에 이어 오랫동안 부평지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한 분들과의 대담이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부평의 상업활동은 생생한 부평의 상업사이며, 부평의 상업활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보고이자, 구체적인 부평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김원곤(59세) 씨는 1949년 부평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부평시장에서 의류관련 자영업을 하였으며, 전 부평 상가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에 힘썼다. 현재는 부평문화원 운영위원, 부평구 풍물축제위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스프리스'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호현(62세) 씨는 1946년 부평에서 태어났다. 선친 대에 부평으로 이주해서 재건복을 만들던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양복 일을 배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양복기술을 배워 부평시장에서 명동양복점, 명동상회, 그리고 후에 명동가구점 등을 운영하였다. 현재 부평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장성훈(61세) 씨는 1947년 부평에 태어났다. 부평에서 목재업, 연탄공장, 기와공장, 운수사업체, 건축회사 등을 운영하던 선친의 사업을 물려 받아 문화주택을

짓는 건축업을 하다가 가구공장, 전자대리점 등을 운영하였다. 부평 청년회의소(JC)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광노인대학 학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우혁(61세) 씨는 1947년 친가인 남동구 구월동에서 태어나 부평에서 성장했고, 선친은 부평에서 미곡상을 하다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양키물건을 판매했다. 계양구 오류동에서 목장을 운영하였고, 부평에서 당구장, 음식점 등을 하였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부평4동 천주교회 연령회장을 맡고 있다.

대담의 사회를 맡은 안용석(64세) 씨는 전 대우자동차 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부평사편찬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부평의 상업활동에 대해서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현, 황우혁, 장성훈, 한 사람 건너서 김원곤, 안용석 씨.

어린시절 부평에 대한 기억

안용석 : 세월이 참 빠르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부평 상업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 할 정도의 나이가 됐네. 좀 일찍 했어야 하는데 이제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늙은이 소리를 듣는데 뭐. 장성훈 씨는 '명신당' 바로 옆에서 부친 때부터 쭈욱 장사를 하셨고, 이호현 씨는 길 건너 시장로터리 쪽에서 했고. 황우혁 씨는 선대부터 이곳 부평에서 자리를 잡고 상업에 종사했고, 김원곤 씨는 문화의 거리 사무국장도 지내고, 지금도 사업을 해요. 이 양반들은 아버님 때부터 이곳에서 자리 잡고 일으키신 거지. 이호현 씨는 양복점과 가구점을 오래했지?

이호현 : 그렇죠. 오래했죠. 작년에 치앙마이(Chiang Mai) 가서 환갑 치렀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 다들 같은 연배에요. 제가 한 살 많고 안용석 씨가 우리 선배 되죠.

황우혁 : 지금 저는 봉사활동을 해요. 부평4동 성당에서 '연령회' 회장을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었으니 이것저것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래저래 까먹고 안한 것 없어요. 오락실도 해봤고 당구장도 탁구장도 해봤고…….

안용석 : 아버지 때 시장이 처음 생겼어요. 시장이 여기서 활성화되서 자리를 잡은 게 서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가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쪽에 시장을 차렸는데 그쪽이 잘 안 됐어요.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있고 이쪽 양반들이 뺏어간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튼 이쪽으로 옮겼죠.

황우혁 : 지금 영복이네 자리였지? 그러니까 우리 집 자리가 깡 사무실 자리였고 영복이네가 깡이야, '깡시장'. 망치로 이렇게 산소통 두드리고, 빨간칠 해가지고 팔던 시장이었지.

이호현 : 원래는 부평시장에 '하꼬방(はこ房)'이 많이 있다가 그 후에 큰길이 생겼어요. 상권이 그쪽으로 쭈욱 나가면서 '금성극장' 앞쪽으로. 처음에는 목욕탕부터 그렇게 됐죠. 이 자리가 그 자리죠. '평양 포목점' 자리야.

황우혁 : 그때는 여기가 저쪽 큰길 있던 '명신당' 앞길 보다는 먼저 일어섰어. 그래서 여기가 일어서면서 부평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지. 그때는 저기 분수대 있는 앞까지가 시장이었어요.



명신당 건물 모습(2002)

이호현 : 그리고 옛날 공보관 자리가 도살장, 우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50년대였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6·25때 부평역에 나가니까 미군

들이 도열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C-레이션 박스를 집어오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전에는 경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귀엽다고 안아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안용석 : 경인선은 1899년도에 개통되었죠?

황우혁 : 그렇죠. 그러니까 부평이 원래 계산동에 있다가 철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옮겨왔죠.

안용석 :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되고 여기 동초등학교 생긴 게 1940년도 근방이에요. 제가 1956년 졸업했는데 16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다는 얘기라고. 초등학교가 적었으니까. 6 · 25 바로 전부터 여기가 북적북적해진거죠.

이호현 : 그리고 지금 대우자동차 있는 곳은 다 논이었지. 그 당시 백마장에는 비행장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경비행기 내리는 거 보러 자주 갔었지.

황우혁 :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굴포천에서 다 멱 감고 그랬죠.

안용석 :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철이 없었는데 1958년도 정도에 생겼죠. 그때만 해도 1시간에 1대씩 다니고 그랬어. 아무튼 그 후에 상권이 이쪽으로 옮겨왔지.

동아시티백화점(1994)



황우혁 : 롯데백화점 쪽이 미군부대였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옆이 굴포천이었고.

이호현 : 십정동 쪽에 나병환자들이 양계장하고 살았는데, 그 개천이 거기서부터 흘러왔죠.

황우혁 : 신촌, 백마장 쪽에는 양색시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호현 : 어른들이 쭉 앉아있으면 양색시들이 뾰족구두를 신고와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저런, 저런 것들을 봤나' 그랬어요.

미군부대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되기도 했죠. '문화의 거리' 다음 골목에 '양키시장' 이라고 있었어요.

황우혁 : 우리 어머니도 거기서 장사를 하셨어. 그 전엔 몸빼를 많이 입었잖아. 어머니가 몸빼에 이렇게 담배를 넣은 다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차에서 한 번도 앉지를 못하는 거야. 앉으면 담배가 찌그러지니까.

이호현 : 또 하나 특이한건 저기 부천, 지금은 부천이지만 옛날엔 소사였지. 그런데 부평에 유일하게 '부평극장' 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영화 하나 보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평극장' 에 가서 못된 애들이 좀 텃세도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아주 부천이 엄청 커졌죠.

오늘이 보름인데, 보름이 되면 그때 불놀이를 했어요. 쥐불놀이를 하면 여기 근처에 '신광산업사' 라고 거기에서 각목을 끊어 와요. 거의가 훔쳐오죠. 그러면 하천에 가면 거기 고아원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싸움도 나고 했어요. 고아원 애들은 패거리를 지어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

장성훈 : 여기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군부대를 보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들어와 보니 미군부대가 있었던 거지.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연도별로 잘라서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막 섞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대여섯 살 유치원 다닐 때부터예요. 그때는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소천횟집' 있잖아요. 거기에 '근화유치원' 이라고 우리가 다니던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하는 '명신당' 옆 가게에 살았는데, 거기서 유치원을 가려면 큰길을 건너가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총격전이 있었어요. 지방에 남아 있던 빨갱이들하고 미군들하고 총격전이 주로 이 '굴포천' 에서 많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다보면 '두두두' 총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 집에나 막 뛰어 들어가면 주인들이 무조건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불 속에 들어가서 총격전 끝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아무 소리 안 나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나와서 유치원 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놀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는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에 공산 조직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겁나서 거길 못 건너가죠. 아마 6살 때였을 거예요. 그 유치원은 부평 '중앙장로교회'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이었어요. 그 후에 그게 중국학교로 바뀌었죠. 그게 위치가 '김정문 설렁탕' 그 위죠. 한국전쟁 직후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만해도 여기가 일제시대 건물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황우혁 : 공설시장 뒤 큰 가게가 13평, 14평 정도밖에 안 됐지. 가게는 단층이고.

이호현 : 저희가 있던 가게가 33평이었는데 그게 두 집을 합친 거였어요.

장성훈 : 그렇다고 그 당시 가게들이 허름하긴 했지만 천막을 치고 하지는 않았어요. 미군부대 천막 외에는 천막이란 재질이 없었을 거예요. 일제시대 허름한 집들이었어요. 밖에 시멘트 뿌려서 외벽을 만들고, 루핑(roofing) 같은 거 하고.

롯데백화점 지나가다가는 말마차가 많이 다녔고 집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또 탈곡기공장도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돌아가는 것만 봐도 신기해하고 그랬었는데.

안용석 : 미군부대에서 목재 같은 쓰레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합판 같은 거 뚜드려 붙여서 짓기도 하고. 그래서 목조건물이 많았어요.

장성훈 :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목재를 미송(美松)이라 그래요. 미국소나무라서 미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육송(陸松)이라 그러고.

황우혁 : 인천에서 '대성목재'가 젤로 처음 목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인천 쪽에서 처음 시작한 거고, 여기 쪽에서는 '금남제재소'가 목재를 제일 먼저 했죠. 장성훈 씨 아버님이 '금남제재소'를 했어요.

장성훈 : 비단 금(錦) 자에다가 남녘 남(南) 자. 금남제재소 이후에 들어온 것이 '대림산업' 이었죠.

황우혁 : '대림산업' 이 부평 굴지의 공장이었죠. '대림' 이 부평에서 커서 나갔죠.

장성훈 : 저희 아버님이나 '대림산업' 이나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했던 '금남제재소' 가 규모는 그때 당시 가장 컸죠. 저기 보루네오나 이쪽에서 원목이 수입되기 전이니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집을 수리하는 거잖아요. 집들이 총탄을 맞아 다 허물어졌으니까 급한 게 집수리였죠. 비라도 가리고 살아야 하니까. 지붕을 임시변통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걸 창업을 하신 거예요.

황우혁 : 제가 지금 사는 집도 장성훈 씨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야.(웃음)

장성훈 : 저희가 건축업도 하고 기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대림산업' 이 큰 이유가 그때는 나무를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요. 국내산은 여섯 자 정도 밖에 안됐어요. 짤막짤막했어요. 전쟁 때문에 큰 나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육송이라 그러는데,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않고 삐뚤삐뚤 자라는 것들은 큰 나무재목이 안 돼. 그래서 다 수입해서 썼는데 그런 큰 나무가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저기 수원의 용주사에 있었어요. 적송을 홍송이라고 그러죠. 빨간 소나무가 많았어요. 그게 천년을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 목재를 최고로 쳐주는 건데 용주사가 학 똥하고 낙엽이 쌓여가지고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대림' 에서, 그것을 일본총독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벌목허가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걸 전후 복구하는 원자재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좀 흠이 됐어요.

이호현 : 지금은 땔감들이 좋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소나무를 받아서 땠어요. 마차가 오면 솔방울 많은 거 받아가지고 땠고. 그러다가 연탄이 들어왔죠. 우리 어릴 때는 굴뚝 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똥 푸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사람들이 지게 당 얼마씩 받아서 조금씩 푸고 그러면 싸

움도 나고 그랬죠. 또 심부름으로 동구 밖에서 마차 기다리다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솔방울 많이 안 달린 땔감 실은 마차 불러 가면 어머니한테 혼이 났어요.

황우혁 : 우리는 계양산 그쪽에서 아침이면 원목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원목 껍데기 받아다가 땠어.

장성훈 : 저희 집 원목 껍데기도 동네 사람들이 벗겨다 때고 했어요. 그리고 변 얘기 나왔으니까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학년 때였는데 옆에 큰 형들이 살았었어요. '명신당' 그 사이에. 근데 뭘 우리한테 가리켰느냐면 그 당시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하고 그랬었어요. 지나가면 그냥 두드려 패고 그랬는데,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그 형들이 굉장히 장난이 심했어요. 지금의 인도지. 인도에 구덩이를 삽으로 이만큼 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걸 채워.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살살 뿌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소쿠리를 덮어요. 옛날에 새 잡는다고 소쿠리를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받쳐놓고 그 밑에 쌀을 살살 뿌려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생략하고 소쿠리를 엎어놓고 어벙한 애가 한명 지나가면 거기다 새를 잡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내가 이거 열건데 여기 새 잡았으니까 새도망가면 죽는다' 고 겁을 주는 거지. 그러면 형들이 그거를 살짝 열면 애가 그걸 안 놓치려고 그냥 확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애들을 그렇게 골탕 먹이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황우혁 : 예전에 명신당 그 근처에 헌병대가 있었을 거야.

이호현 : 그렇지. 그 위에 양조장이 있었고.

미군부대와 부평의 상권형성

장성훈 : 중학교 들어갔을 때 5 · 16혁명이 났을 거야. 그때에 혁명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동아아파트' 앞이 산이었어요. 조그만 고사포부대가 있는 산이었는데 오르락내리락 야트막한 산이 역전 있는 데까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극장' 있는 데가 다 산이었어요. 그 꼭대기에 고사포부

대가 침투해 있었는데 5 · 16이 나면서 '깡시장', 지금 부평시장 로터리 있는 거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어. 그 당시 포클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건대가 삽으로 퍼서 산을 다 깎아서 저 밑을 다 메운 거예요.

이호현 : 그래서 그 길을 '국토개발길'이라고 했지.

장성훈 : 그때는 깡패 데려다가 한 것은 아니고 동네 사람들 시료사업 비슷하게 한 거야. 그래서 티켓을 줘서 몇 구르마 했는지 세서 주고 그랬다고. 개미부대처럼 저 끝에서부터 시장로터리까지 구르마 줄이 죽 있었어요.

이호현 : 우리는 어려서 주전부리가 없으니까 깜부기나 콩밭에다가 볏단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선 다음날 와서 콩을 까먹는 거예요. 콩이 불이 잘 붙거든요.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고 용서도 받았겠지만.

안용석 : 몰라. 우린 그런 짓은 안했어요.(웃음)

장성훈 : 저 친구만 그랬구만.(모두 웃음)

황우혁 : 시장 밑엔 다 잡화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땐 창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박이 나오면 수박을 다 가져다 놓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요. 그러니까 식구 중에 하나가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하나 건드려서 굴러 떨어지면 난리가 나지. 추석이나 명절이면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게는 13평인데 어디다 놔. 쌓아놓지. 그래도 도둑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게 한 1960년도, 61년도쯤 됐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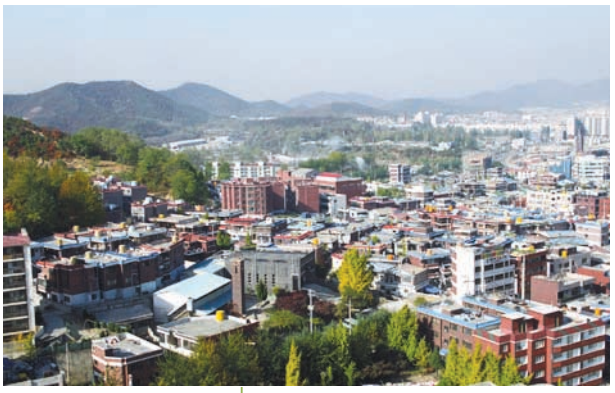
장성훈 : 그 당시에는 정전이 잘 됐어요. 집 앞에 자전거들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전과 동시에 자전거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호현 : 성결교회 아세요? 거기에도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학교가다 보면 미국사람들 와서 자석놀이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미군

들한테 껌도 달라고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성훈 : 미군부대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생각난다. '누가 한사람 안 아프나' 그거 맨날 생각했어, 그때는. 미군부대 들어가면 무인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먹을 것을 가져올 수는 없어도 먹는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땐 뭐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파서 거기 입원하면, 신분증만 맡기고 들어가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지. 부대 나올 때는 다 이렇게 온몸을 뒤져요. 그런데, 가지고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배탈 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오면 되는 거야. 초콜릿이든 뭐든 미군들이 먹는 C-레이션이든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좋았지. 한국 사람들이 문병 다녀가면 그거 채워 넣기 바빠. 계속 없어지니까. 미군부대 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군 병원이 있었어요. 원투원병원(121병원)이라고.

이호현 : 그게 지금 현대아파트에 있는 2001 아울렛 매장이라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화랑농장 일대 모습(1994)

장성훈 : 그게 젤 큰 병원이니까 뭐 큰 병 걸리면 거길 다 가는 거예요. 대민봉사도 했기 때문에요.

이호현 :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치인도 갔었으니까.

장성훈 : 그런데 그 옆에가 '화랑농장'이라고 간장공장이 있었어요. 상이용사들 자립을 위해서 간장공장을 내줬는데 그 근처에 가면 간장냄새가 나고 그랬어요. 그 위에는 '협성원'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복지관이 있었고요.

황우혁 : 잡아다 넣으면 거기서 기술 배워서 나가고.

장성훈 : 제 동생이 '명신당'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미군 차에

치어가지고 '121병원'에 한 4년 입원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보상은 전혀 못 받았죠. 한미협정 그런 게 아예 없던 때라서 치료만 받는 걸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도 사람들은 미군부대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 얘기들 하죠. 지금 같으면 뭐 촛불시위하고 그러는데(웃음). 그래도 아직 SOFA가 개정이 안됐잖아요. 당시에 대통령도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느 유명 정치인도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봐야죠.

지금 현대아파트 3단지 그 자리에 그 병원이 있었어요. '8057부대'인가 그랬어요. 그 부대 안에 '121병원'이 있어서 부대 정문을 통과해야만 병원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다 군의관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의료시설도 없었고 부평에는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 자리에 있던 '경인병원', 지금 국민은행 자리가 '부평연합병원'(당시 부평병원)이었고. 전후에 생긴 병원은 '경인병원' 하나고 '부평병원'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121병원'은 1960~70년대까지 있다가 왜관이 생긴 다음(1974년) 용산으로 옮긴 거죠. '푸에블로 사건'이 났을 때 그 사람들도 거기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푸에블로 사건'은 동해바다에서 북한에서 강제 납치했다가 배는 안 보내고 사람들만 보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기자들 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안용석 : 지금 '대우자동차'는 우리 어렸을 때 '새나라자동차'였었지.

장성훈 : '새나라 자동차'였었고, '신진'은 그 다음이었고. '시발'이 '신진'에서 나왔었나, 그래요. '시발' 택시라는 건, 우리도 그때 자동차공장을 했거든. 미군부대에서 엔진을 사다가 그것을 길거리에 나가 자빠져 있는 것 다 수거해서 한군데다가 야적을 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열 대고 스무 대고 돈 되는 대로 주면 그 사람들이 가격 매겨놓은 대로 사 와요. 그래서 거기서 부품을 떼어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망치로 때려서 만들고 속에 엔진은 다 보링을 해서 차를 만들었어요.

이호현 : 시발자동차 그런 것 만들지 않았었나?

황우혁 : 그건 나중이고, 그건 기아에서 나온 거고.

장성훈 : 그 당시에는 '이스스', '도요다' 그런 화물차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생겼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안용석 : 6 · 25 났을 때 군납을 일본 '이스스', '도요다'가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스스', '도요다' 차가 많았던 거고 '시발(始發)' 차는 전국 각지 서비스공장에서 다 망치로 두드려서 손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적으로 양산한 거는 구로의 최용성 씨라고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평에서 시발택시를 처음 만들었다' 그런 건 거짓말이고, 전국에서 그거 비슷하게 만든 거는 그러니까 전부 '시발'이야. (웃음)

장성훈 : 옛날에 여기서 백씨 이런 사람들이 보링이나 그런 거 하는 양반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요. 열 대씩 스무 대씩 불하를 받아다가 자동차를 조립했죠.

안용석 : 그때는 자동차 승인 내주는 걸 경찰서에서 했었다고. 운송 수단이 거의 자동차 밖에 없었으니까.

장성훈 : 아버님이 6 · 25 전후에 막 시작한 것은 목재였어요. 목재소도 하고 재제소도 하고 연탄공장도 하고 기와공장도 하고 또 철물도 했죠. 저희가 소규모로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물은 좀 크게 했어요. 차도 만들었고요.

돌아가신 선친이 인천에 '한국기계공작소'인가, 일본사람이 하던 거, 거기에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오셨는데 어려서 서울에 와서 전찻길도 깔고 그런 데서 인부도 하셨고 그랬다 그래요. 자수성가하신 예죠.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제재소는 계속 했었고 가구공장도 했고.

안용석 : 그 당시 주종산업이 주로 철물점, 쌀가게, 포목점, 양복점 등이었죠.

장성훈 : 50년대에 지금의 '명신당' 은 조그만 가게정도였고, 그 당시 크게 가게를 일으켰던 분들은 목재 하셨던 분들이죠. 60년대에는 그 상권이 성장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게 조금 변두리로 상권이 분산되기 시작한 것이 전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죠. 지하도 공사하면서 여기가 막히니까 '금성극장' 쪽으로 상권이 바깥쪽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계속 중심 상권이었어요.

안용석 : 부평시장이 60년대 후반부터 많이 형성되었죠. 부천, 뭐 그런 데서도 다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김포에서도 여기 왔었어요. 지금도 아마 전국 4대 시장에 하나로 들어갈 걸요.

장성훈 : 상권의 집중력이 가장 강한 데가 여기 부평상권이었죠.

이호현 :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면 여기 부평에서 팔고 갔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도 못 팔고 갔어. 그 정도로 상권이 좋았어요.

안용석 : 그때 뭐 야채든 일반 잡화든 뭐 다 좋았어.

장성훈 : 부평시장이 1961년도에 승인이 났고 그 이듬해에 '화폐개혁' 이 일어났는데 부평에서 현찰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 당시엔 여기 '농협' 하나 밖에 없었고, 부천에 '조흥은행' 이 하나 있었어요. 부평에서 화물차 타고 갈 만큼 알부자들이 많았어요.

상인들이 유치한 부평공단

장성훈 :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부평시장의 특색을 말하자면 농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도 많이 났고, 공단이 형성되면서 '여공' 들이 많았고, 공수부대가 있었으니까 군인들도 있었고 미군부대도 있었고요. 하나 큰 획을 긋는 것은 부평이 기지촌의 성격에서 상권이 바뀌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부대가 철수하면서부터죠. 이곳 상권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곳은 소비도

시지, 생산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기업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부평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구사업을 했는데 미군부대 주변 신촌이나 백마장에 있는 양색시들 상대로 소파를 팔았었죠. 그 사람들은 미군들이 반드시 소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파는 필수예요. 또 전에 쓰던 것은 다음 미군이 절대 안 쓰고 이사를 오면 가구를 전체를 바꿔요. 그러니까 로열 고객이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색, 검은색 같은 색의 가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색적인 가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연두색, 노란색 등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기지촌에서, 물론 시장은 좀 벗어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장 경제권 안에 계속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큰일 났다' 해서 회의를 한 결과 '그럼 부평에 공단을 유치하자' 고 한 거죠. 그래서 4공단, 5공단이 들어온 거야. 그래 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돈을 걷어서 무상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 일단 부지를 준비해 줄 테니까 먼저 들어와서 공장을 일단 만들어라. 그래서 4공단, 5공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상권 변화의 큰 획을 그었지. 그래서 여기가 변한 것은 그 때문에 변한 거예요. 미군부대가 있었을 때는 양키물건 장사들이 많았고 '깡시장' 그런 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별 볼일 없었죠. 그런데 공단이 생기면서 대규모 인력이 들어오니까 이 일대가 다 로스구이집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십 명 오십 명씩 단체로 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먹었단 말이에요.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를 부리면서 먹었어요. 호황을 누렸죠.

4공단, 5공단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한일국교정상회담이 맺어지면서 그 보상으로 만든 공단이거든요.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가 생겼을 때하고 거의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부지매입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가 논밭이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가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 유지들이 만들어서 유치하게 된 거죠. 왜냐면 국가에서 당시에 어디에 유치를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역에서 먼저 땅을 사서 여기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부평 경제가 죽겠다는 생각에 돈을 각출해서 개인기금으로 그걸 한 거였죠. 거긴 다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공단조성 이후 유지들이 경기도청을 부평으로 이전시키려고 했어요.

이호현 : 그런데 그때 수원 국회의원이 공화당 이정희 씨인데, 그 양반한테 경기도청 유치를 빼앗긴 거예요. 아무튼 그때 부평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많이 한 거죠.

장성훈 : 부평이 전통적으로 야당 도시 아니에요? 아무나 야당으로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당선이 되었죠. 그러다가 김숙현 씨가 한 번 되었던 거죠. 하도 야당만 찍으니까 도대체 발전을 안 하잖아. 택시를 타도 인천에서 부평으로 오면 시외요금 받았어요. 시장이 타도 시외요금을 받았어. 말하자면 학력 차별도 심하고 그만큼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안용석 : 어디를 가도, 군대를 가도 부평 사람은 부평 사람이라고 하지 인천 사람이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오류동, 장기리까지 다 부평이었어요. 김포에서 차를 타도 다 시내요금 적용받았어요. 시외요금 적용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무슨 광복절 기념식 같은 거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부평에서 온 학교는 저 뒤에 꽁무니에 가서 있었어. 그렇게 괄시를 했어요. 인천 사람들이.

장성훈 : 나는 이제까지 한번도 '모'를 심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넌 부평에서 왔으니까 모를 잘 심을 거래. 그러면서 나보고 '모'를 같이 심으러 가자는 거야.

안용석 : 과거에 부평이 인천에 붙었다가 부천에 붙었다가 했거든요. 전통적으로 인천은 고기잡던 사람들이고 여기는 농사짓던 사람들이거든요.

철마산 터널 공사 현장 (2003)



이호현 : 지정학적으로도 철마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인천하고 일체감을 주지는 않지요.

장성훈 : 부평이 50년대는 미군부대 영향을 받았고 60년대는 공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좀 더 풍요로운 것은 있

었어요. 솔직히 50년대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부대 주변에는 일자리 창출되고 먹을 게 있었죠. 미군부대 다녔던 사람들이 가장 풍요했어요.

이호현 : 아마 그 당시에 양색시들이 타고 다니던 일제 자전거가 지금 승용차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안용석 : 그리고 여기(장성훈 씨) 부친께서 운영하던 다쿠시(택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타고 다니다가 내리면 올라타서 운전대도 잡아보고 그랬다고. 그 때 코로나 한 대 값이 신입사원들이 3년치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었어요.

장성훈 : 제가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가지고 자랑하려고 뒤에 여자를 한 명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많이 달려봐야 100km야. 뒤를 돌아보면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어. 역주행을 한 거지. 가운데 가드레일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다행히 고속도로 처음 개통했을 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이호현 : 여기가 신작로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여가 그렇게 자주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장성훈 :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저쪽에 있으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나갔지.

안용석 : 그런데 신기한 게 부평대로 있잖아요. 역에서 백마장 입구까지 가는 길이 옛날부터 그렇게 넓었어요.

이호현 : 조병창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갔다 부평역에 내리면 마음이 탁 트였어요. 그래서 부평의 자랑거리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지. 보통은 답답하게 막혀있는데 부평역에 내려서 보면 계양산이 딱 보이잖아요.

장성훈 : 우리는 어려서 놀 데가 없어서 철길 따라서 주안염전에 가서 놀고

는 했는데 거기 가서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또 그때는 기차에 연탄 칸이 있었어요. 무임으로 승차해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역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소사, 부평, 주안, 인천 말고는 허허벌판이었지요, 뭐. 연탄공장들이 많았어요.

안용석 : 70년대 공단 사람들이 부평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죠. 그리고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우자동차'가 있었을 때 경기가 가장 좋았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졌죠.

장성훈 : '대우자동차'가 있던 그 시절이 전국적으로 알아줬어요. 김포고, 강화고 모두 이쪽으로 왔죠.

50년대 60년대는 저희들이 어릴 때였는데,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길에서 파는 아이스깨끼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산에 모여서 쥐잡기놀이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돼지감자 캐먹고 토마토 따먹고 그랬죠. 중국집에서 재배하던 가지 캐먹다가 곡괭이에 맞아죽을 뻔도 하고.

안용석 : 부흥로터리 있는 거기가 중국 사람들 야채밭이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 유치원 옆에 화교학교가 있었거든요.

장성훈 : '복화루'라고 지금도 그 2세가 중국집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저하고 동갑내기죠. 중국집들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했어요.

이호현 : 그 당시에 먹는 건 모두 중국식 문화하고 다방문화였죠. 유다방, 금석다방, 구월다방, 북경아가씨 아주 향수에 젖어 있는 다방이죠. 그 당시에 2층은 웬만하면 다 다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던 가게들이 거의 없어졌죠.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끈질기게 살고 있는 거네. (웃음)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50년대 초에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서 자라 와서 부평에서 상업을 하는데 우리 아래 세대들은 거의 없어요.

장성훈 : 부평은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아쉬운 부분의 하나가 여기가 부평시가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

요. 그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인천시에서 안 해줘요. 오히려 부천이 시 계획했던 거 보다 부평이 시 계획한 게 먼저일 거예요. 처음에 부천시 포함해서 김포까지 부평시로 만들려고 계속 시도했었죠. 부천에서는 부평시로 만드는 걸 싫어하고, 인천에서는 세수가 많고 경제활동이 많은 데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죠. 다른 데서는 세금이 많이 나올 데가 없었어요. 큰 기업들이 없었으니까.

이호현 : 언젠가 월미도에 40분정도 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인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부평은 아주 불야성이었죠. 버스기사가 하는 말이 부평은 10시, 11시가 돼도 차 끌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인천서부터 신포동, 경동, 배다리 이쪽에는 한두 가구만 살았잖아요. 상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안 상권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산동부터 상권이 형성돼서 부평, 부천까지 이어지잖아요.

장성훈 : 미군부대 문화를 제일 밀착해서 받아들인 데예요. 남대문 도깨비시장도 다 여기서 건너간 물건이었어요. 그쪽 상권의 원천도 부평이죠. 여기서 물건을 빼내서 도깨비시장이 생긴 거니까.

안용석 : 보급품이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부평에 부려놓고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장성훈 : 여기 애스컴(ASCOM) 지하벙커가 다 그런 보급 창고였어요. 부대 안에 지하벙커가 있었는데 거기 핵무기도 있다 뭐다 얘기가 많았죠. 아마 거기가 공원이 되면서 그게 다 나타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를 파는 걸 봤는데 미군부대 철수하면서 지하로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왜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못한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열려서 굴삭기가 나와요. 50톤짜리 굴삭기가 나와서 큰길을 지나가면 무슨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부평의 미래, 문화의 거리

이호현 : 지금은 부평 경기가 아주 훨훨 날아다녀요. 그래도 세금만 옛날보다 조금 더 낸다, 이정도예요. 지금도 부평 아파트 값이 싸잖아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불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싸게 살잖아요, 주거를.

장성훈 : '문화의 거리'를 당초에 기획할 때 차 없는 거리로 할 거냐, 일방통행으로 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김원곤 : 그거는 솔직히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처음 기획하면서는 1차선으로 차 다니는 것으로 기획했는데 우리 뜻하고는 달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죠. 노점상도 철거시키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시장로터리에서 차가 정체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매장 앞에서 차가 하루 종일 빵빵거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못 지나다니고 노점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장 상인들을 조직해서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변화를 시켜 달라. 그리고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달라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자꾸만 변질이 됐어요.

이호현 : 여기 굴포천에 노점상들 자리를 줬는데 다 팔아먹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김원곤 : 그러다보니까 차가 안 다니게 되고 말이 많았죠.

장성훈 : 나는 어떻게든 차가 지나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돼서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그때부터 상권이 죽은 거예요. 상권이 이동한 것은 지하도 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하도를 파는 바람에 차들이 다 우회해서 다녔단 말예요.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내리잖아요. 시장도 문화의 거리를 통과해서 갔는데 여기를 못 다니게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차 내리는 데서 시장을 봤던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차가 그리로 다녀서 그쪽이 차를 타는데 가까운데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다녔어요. 꼭

이쪽에서 내려서 저희 집 앞쪽으로 해서 시장을 봤어요. 명절 때 보면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다녔어요.

김원곤 : 우리들은 일방통행을 원했던 건데. 그리고 노점상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정치와 연결되잖아요. 민선 구청장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어영부영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반쪽짜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된 거예요.



문화의 거리 노점상 단속 모습(1997)

이호현 : 그러니까 거기 상권이 죽은 건 괜찮은데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요새 조금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

장성훈 : 그런데 한전에서 변압기를 도로 한가운데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장애물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땅 밑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서 사람의 흐름을 다 끊었어요. 사람들을 상업적으로 보면 '물고기 같다' 고 하잖아요. 일직선으로 가야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호현 : 청주 같은데 보면 변압기 같은 걸 관공서 옆에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공사를 했어요.

장성훈 :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주부들이 과연 재래시장에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부평시장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면 나와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주부들은 다 백화점으로 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이 시장이, 저기에 차가 다니든 차가 안다니든, 도태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돼요. 저는 차라리 젊은 쪽이 안 낫겠나 생각해요.

이호현 : 저는 문화의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사실 말만 문화의 거리지 극장이 하나 있습니까?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근처에 가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극장, 음악당, 미술관 같은 것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요.

장성훈 : 그것도 안 되는 게 저기 지하 로터리에 있잖아요. 장사도 잘 안 되는 곳인데 그곳에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호현 :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무슨 문화야. 노점문화만 있지.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가 있죠.

장성훈 : 그래도 민선 구청장이 부평에서 잘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호현 : 영화관, 음악당, 미술관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어가요.

장성훈 : 부평의 변천사를 보자면 부평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체육관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그랬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러갈 때가 있습니까. 뭐 공원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여기에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건 슬로건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구청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볼 문제예요. 아니면 이걸 기획도시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 해요. 그래서 집을 몇 채씩 묶어서 한꺼번에 옮겨 줘야 하거든. 그렇게 누구 통합하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말만 문화의 거리 만들고, 분수대나 만들고 조각 몇 개 놔두었다고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것만 만들어 놓고 내용은 전혀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던 대로 옷장사는 옷장사하고 빵장사는 빵장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용석 : 여기가 필지가 적잖아. 서울 종로를 보라구. 종로가 발전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있는 가게가 전부 필지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땅을 팔면 한 사람은 팔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팔아요. 그래서 큰 건물이 못 선다니까 종로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글쎄 여기도 53명의 공유지분이예요. 여기서 측량을 하면 저기서 땅이 모자란다고 해요.

장성훈 : 문화의 거리에 있는 우리 가게 뒤쪽이 말하자면 공유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은 건물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여기가 작업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고층건물이 설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현재 이런 평수로는 되지도 않아. 30~40평가지고는 10~20층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몇 채만 모으면 몇 백 평이 되니까, 그렇게 부지를 조성해야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이호현 : 서울 인사동 거리를 보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는 여기 살다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정치든 경제든 말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50여년을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먹는 거, 커피숍 아니면 술집이나 뭐 그런 곳 밖에 없잖아요. 무슨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죠. 건전한 공간으로 아이들을 키울 만한 공간이 없지.

장성훈 : 그래서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헌책이라도 싸들고 와서 책도 팔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구에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안용석 :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부평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를 말한 것 같구만. 부평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쁘네. 어쩌거나 부평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다들 바쁜 시간 내줘서 고맙네.

3대에 걸쳐 부평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이호현 씨

구술자 | 이호현

채록자 | 이세기(시인)

구술자 이호현(李浩鉉) 씨는 올해 예순두 살이며, 1946년 인천 부평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뒤 한 번도 부평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다. 선친 대에 부평으로 이주해서 재건복을 만들던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양복 일을 배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양복기술을 배워 부평시장에서 명동양복점, 명동상회, 그리고 후에 명동가구점 등을 운영하였다.

60년대 말부터 부평의 애스컴(ASCOM) 미군을 상대로 맞춤양복을 운영하다가 기성복에 밀려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당시 4공단이 만들어지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바지를 팔았다. 그 후 업종을 변경하여 가구점을 열어 찬장과 미니장 등을 팔았다. 이를 통해 부평시장에서 기반을 만들어 터를 잡고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부평이야말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라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조병창을 시작으로 미군부대와 한국군이 주둔하는 군사도시로서의 특성과 함께 각지에서 몰려오는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부평평야 등의 발달, 그리고 4공단과 대우자동차가 들어서면서 물밀듯이 많은 유입인구가 형성되면서, 여러모로 부평이 수도권에서 명실상부한 제일의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한다.

장사가 천직이라는 이씨는 손님과의 신용이 최고의 상술이자, 장사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덕목이라고 한다. 장사는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깎는 맛이 있어야 상거래가 이뤄지듯 사람과의 정이 바로 재래시장의 맛이자, 장사의 맛이라고 한다. 부인과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부평지역에서 선친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씨,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걸쳐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호현씨



출생과 한국전쟁에서 다친 손가락

제 이름은 이호현이고, 한자로는 넓을 호(浩) 솥귀 현(鉉) 자를 써요. 저는 1946년에 여기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해방 다음 해죠. 학교는 여기 부평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올해 한국나이로는 예순둘이고 만나이로는 예순

하나, 개띠예요. 어린시절 부평에서 살면서 6 · 25를 겪었어요. 6 · 25가 나던 해에 제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때 그 치열한 인천상륙작전이 있었어요. 그 포성 속에 제가 있었지요.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그때 다쳤어요. 총알 맞은 거예요. 다섯 살 때. 전쟁 과정에서 총알을 맞아서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언젠가는 제가 6 · 25 때 손가락에 총알을 맞은 얘기를 친구한테 했어요. 그 친구가, MBC 아나운서 최창섭 씨였는데, 인천고등학교 나온 제 친구예요. 친구가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작가 이병주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 그 분한테 가서 구술을 해라, 자기가 부탁을 하면 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미국이 쏜 총에 맞은 거예요. 그때가 5살 때죠. 희망촌(부평2동 삼릉사택에서 경인국도를 따라 인천 쪽인 부평삼거리로 가자면 호명사(虎鳴寺) 언덕고개를 막 넘자마자 남쪽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마을)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지만, 미국이 서울 수복을 하려고 인천상륙작전하는 그 와중에 있었던 거예요. 인민군 탱크가 부평삼거리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이에 미군과 붙었어요. 지금도 그때 봤던 그 총을 잊지 못해요. 앞에 삼발이가 달린 총을 들고 쏘더라고요. 누나하고 저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키가 저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 총을 맞으면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누나 피 흘리는 거 보니까 그제야 아프더라고요. 어머니가 큰댁이 함포 맞았다고 걱정이 돼서 넘어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요즘은 옷들도 좋지만 그때는 무명이나 베 조각으로 반바지 비슷한 헐렁한 거 입었었죠. 누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엄마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미군이 구덩이를 파서 인민군 시체하고 우리 누나하고 거기다 같이 묻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작으셨는데 미군들한테 대롱대롱 매달려서 할퀴면서 우리 딸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손이 가려워요. 피가 엉겨붙어가지고 손가락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당시 부평에 의원이 있었는데, 봉의(奉醫)였어요. 봉의라는 것은 나라에서 봉급 받으면서 응급처치 해주고 하는 봉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세림병원, 그 전에는 안병원이었어요. 그분 아버님이신 안형범이라는 선생님이 바로 봉의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손가락이 대롱대롱 달렸으니까 잘라달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손가락이니까 놔두면 쓸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군이 이걸 보더니 우리 하드 먹고 나면 막대기 나오잖아요? 그걸 손가락에 대더니 지프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밑엔 인민군 시체가 널려 있는데 뭐 대갈통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밟고 덩컹덜컹 막 지나가요. 여기 한국 전쟁사는요, 미국 전쟁사에도 남아있어요. 9 · 28수복 과정에 벌어진 교전에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병사가 탱크를 8대를 부셨대요. 그래서 미국 전쟁사에도 남아있어요. 이제 전쟁나면 6 · 25하고는 비교도 못할 거예요, 피난도 못 가고…….

그래도 글씨는 잘 써요. 서예를 배웠다면 안중근 의사처럼 손으로 낙관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요(웃음). 이건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선 안 돼요. 저야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소리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부평으로 이주해서 재건복을 만드셨던 선친

아버지는 8 · 15해방 이후에 경기도 안성에서 바로 부평으로 올라오셨죠. 뭐 우리 가족사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부끄러운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조그맣게 양복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복점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제가 좀 자라서는 우리 모든 생계를 어머님이 이끌어나가셨죠. 어머님이 조그만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녔는데, 50년대 60년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침 잘 잡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하고 인사드린 게 그때는 진짜로 아침 굶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아침을 굶고 다녔어요.

그 양반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은 여기에 조병창이 있었어요. 부평의 역사를 보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조병창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에 가면 뭔가를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 일용직을 해서라도, 노가다를 해서라도 먹고 살겠다 해서 각처에서 부평으로 인구가 밀려든 거예요. 그래서 부평의 뿌리나 정체성이 거기에서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부평 읍내가 사실은 부평 사람들의 분포가 그리 많지 않아요. 부평 이씨가 있는데 여기 부평시장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속된 말로 미군부

대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벌이가 괜찮다더라, 해서 미국 서부 개척시대 골드러시같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었던 거예요. 조병창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지가 있던 곳이라서 조병창이거든요. 여기 60경비대대 옆이 '미쯔비시(三稜, 지금의 부평2동 일대)'였어요. 삼릉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미쯔비시잖아요. 여기는 1800년대 말(1899년)에 경인선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이 좋고, 부평평야가 있어서 곡창지대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지리적 · 경제적 여건이 좋았죠.

그 양반도 안성에서 일루 오셔가지고 저희도 다 태어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왜정 때 양복 기술을 배우신 분이죠. 부평 처음 와서는 양복점이라고 볼 수 없었고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사지쓰봉(미군장교들이 입는 바지 순모)이나 군복 같은 거 염색해서 고쳐서 입고, 해방 됐을 때 보면 흰 바지저고리에다가 나까오리(중절모), 중절모를 쓰고 다녔지, 새비로 양복(고급양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운 양복은 못 입고 다녔어요. 그 양반은 그런 걸 만드는 기술자였지만 여기에 오셨을 때는 미군 작업복을 수선해서 평복을 만들어서 입게 했죠. 또 뭘 잘 하셨나하면 혁명이 나고 나서 재건복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재건복이 유행했을 때 그 양반이 재건복을 잘 만드셨어요. 재건복이 뭐냐면 지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입는 것처럼, 깃이 이래서 포켓 달리고. 요즘도 공무원들이 민방공할 때 보면 누리끼리한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그 양반이 잘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겨울 되면 요즘엔 오리털 파카다 해서 재질이 좋은 것들 잘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엔 고리땡, 골덴 잠바, 당시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군대 내피 털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잘 만들었어요. 나중엔 연세가 있으시고 영세하다 보니까 기지(복지, 원단)라고 하죠? 기지. 몇 벌 안 걸어놓고 장사하시곤 했죠.

심부름도 많이 다녔어요. 샘플 조그만 거 잘라주고 그거 받아와라 그러면 전철 타고 동대문에서 그거 받아다가 몇 마, 몇 마……. 한 마에 일 야드 정도 될 거에요. 옷의 변천사도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학생복도 잘 만드셨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복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쑥색에다가 위에 하얀 거, 겨울에는 차이나포크(차이니즈 룩 Chinese look, 중국의 전통복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로 중국 복식 특유의 스탠드 칼라, 중국식 장식 단추, 깊이 파인 사이드 슬릿 등이 특징적인 디테일이다) 그런 거 많이 입었고, 어른들은 결

혼할 때 양복을 많이 입었고.

당시에는 양복점이 참 많았어요. 인천시 고위 관리도 지내시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사람이 당시에는 신신양복점을 했어요. 양복점이 많다는 것은 그 동네가 번화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잣집이란 개념은 쌀가게, 쌀집 애들이 부잣집이었어요. 그 담에 과자가게가 있었어요. 꽈배기라든가 옥고시(강정), 사탕 같은 거 파는 과자가게가 부잣집이고. 그다음에 술 도매상이 부잣집이고. 그다음은 옷가게, 옷가게가 지금은 시장가면 많잖아요. 그 땐 부잣집이었어요. 또 하나는 문방구도 잘 살았어요. 그다음에 신발가게, 신발가게도 부잣집이었어요. 포목점, 이런 업종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 상권이었지. 큰 상권은 정미소를 한다거나 양조장을 한다거나 재목점, 그러니까 목재소를 한다거나 했고……. 그 양반들 전기톱으로 긴 목재 자르는 거 구경도 하고는 했어요.

어려서 구경 가면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 앉아서 조갑지(조개)도 까시고 콩나물도 내다 파시고, 그분들 중에 지금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김포에서 특산품 실은 차가 오면 아주머니들이 막 차에 매달렸어요. 거기서 오는 김포 쌀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특산품 타서 중간도매상 하는 분들도 있었고. 마차공장이랑 탈곡기공장이 있었어요. 그거 하셨던 분들도 부자예요.

비교적 우리가 살던 데는 괜찮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선친께서 우리 집 가훈이 뭐다, 뭐 지켜라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행동으로 굉장히 양심적이었고 성실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자랐죠.

어깨너머로 배운 양복기술과 명동양복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것만 말씀드리는데, 학교를 나와서 보니까 양복 기술이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복일을 했어요. 디자인이나 그런 데 제가 취미도 있고, 어려서부터 양복 일하는 걸 어깨너머로 본 것도 있고 해서 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는데도 금방 배워서 금방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직공으로 들어가도 몇 년씩 걸렸는데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본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양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그분들을 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라도 나와서 빨리 배워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괜찮게 됐죠.

명동양복점이라고 그거를 하면서 양복점은 자꾸만 사양업종이 되더라고요.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죠. 언젠가는 내가 이걸 접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청바지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했어요. 명신당 뒷길에서. 부평에 장사가 잘 됐는데 4공단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순이, 공돌이들이 청바지라면 사죽을 못 썼어요. 요즘도 젊은 사람들 보면 청바지 안 입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게 70년대 초반부터 75년 정도에 제가 장사를 했는데 반짝 돈 좀 벌었어요. 청바지, 남방 같은 걸로. 서울 가서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받아다가 청바지 장사를 했죠. 그러다가 양복점을 걷어버렸어요. 양복점은 완전 사양업종이었어요.

라사하고 양복점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원래 의미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라사는 좀 더 고급스러웠고 신사복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양복점은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었고. 우리는 명동라사라는 말이 좋아서 양복점도 쓰고 라사도 쓰고 둘 다 썼어요. 혹시라도 누가 도용할까봐, 유사상표 비슷하게 (웃음).

제가 명동라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복장 기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배운 것과 실제 나와서 하는 일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기술자 보조로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명동양복점을 하셨어요. 마침 그 양반이 그 양복점을 치(우)시는 바람에 그 상호를 제가 인계를 받아서 명동양복점으로 했다가 청바지를 팔면서 명동상회로 했다가……. 명동이라는 소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료 사업할 때만 다른 타이틀을 조금 했지요. 그러다가 가구도 다시 명동가구로 했어요.

부평에서 명동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데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내가 양복점을 치(우)니까 내 밑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명동양복점이라는 이름을 다시 썼어요. 명동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명동이라는 상호를 썼던 거고. 여기서는 내가 명동가구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 배웠던 선생님이 제일 먼저 명동이라는 상호를 쓰셨죠. 그분은 강원도 춘천에서 부평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부평에서 상업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부평이 제 고향이지만요, 제가 객지생활 한다고 나가 봤는데, 부평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부평이란 말의 뜻은 부자들이 편안하게 사는 데가 부평이다, 그래서 부평에서는 진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먹고살고 자기 노력의 대가(代價)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평이에요. 여기서 크게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고향이고 해서 그런지 여기가 아주 좋아요. 어딜 가도 내키질 않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국제적인 도시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선친께서 상업을 해라 권유하신 적은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때는 가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굳이 대학을 가겠다, 또 내 생각이 공부하겠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장이 뭐가 필요 하냐, 일류 대학을 꼭 나와야 되냐, 어디 대학을 나와야 되냐, 공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뭐라 그럴까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대한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점을 맞는다거나 학교에서 말썽피우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저 공부 안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서 뭐하느냐, 기술이나 배워서 안정을 갖자, 나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이 뭐 양복을 해라, 이걸 이어가라 해서 양복일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양복이라는 일이 그렇게 중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하고 괜찮은 직업인 거 같았어요. 그래서 기술 배우러 들어간 거예요.

사양업종이 된 맞춤양복에서 가구점으로

어쨌든 그게 양복점에서 쓰는 다리미가 역사를 말해줘요. 처음에 선친께서 양복점을 하실 때는 숯다리미를 썼어요. 숯불다리미. 숯불을 넣고서는 풍구라고 있는데 그걸로 불을 파악, 하면 밤에는 그냥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활활 했어요. 그다음에 연탄이 나와 가지고 무쇠다리미를 연탄에다가 달궈가지고 쓰다가 그 후에는 전기다리미가 나왔어요. 특히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다리미를 많이 쓰죠, 기술자들이. 지금은 양복점이 많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또 스팀을 많이 쓰더라구요. 이게 양복점의 변천사예요.

그런데 이제 양복이 거의 사양업종이에요. 기계화시킬 수 있는 것도 너무 쓸데없이 수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미국으로 고용계약이 돼 가지고 애틀랜타 조지아에 가서 선진국 기술을 배워 오려고 했어요. 양복을 만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양복을 맞추러 가서 양복 맞추고 가공하고 다 만들어서 주는 게 최대한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이것은 너무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였는데 슈퍼컴퓨터 같은 거. 요즘엔 컴퓨터가 조그맣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아니면 패턴(pattern)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이미 쿼터(quantity)가 죽어가지고 못 갔죠. 1974년에 월남이 망했죠? 그때 P6라고 해서 취업이민으로 가려다가 미국을 안 가고 여기서 살았어요.

양복은 이제 사양 업종이에요. 기성복 시대가 됐고, 기성복이 핸드메이드 못지않게 싸게 잘 나오고. 이제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고 공부해서 더 좋은 일 하지 뭐 하러 힘든 양복 기술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안 들어와요. 일은 시키는 대로 하고 매는 때리는 대로 맞고 봉급은 주는 대로 받고. 그런데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그래도 저는 어려서 부모님 밑에서 봐 와서 기술을 배웠지만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세끼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고생하면서 기술을 배우겠어요. 기술자들이 곤조(根性)가 좀 있어요. 험악하게 다루고 그러니까 기술 배우려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만둔 거예요. 그거 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장인정신이나, 우리나라 양복계의 화석으로 남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안목이 필요하죠. 어려서부터 기술 배워서 양복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친목계 만들어서 모이고 그러는데, 저는 독특하게 배운 입장이라 그들도 저를 좀 이상하게 보고 저도 좀 그렇고.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정통파가 아니죠. 돌연변이죠.

당시의 일화 하나를 말하면, 기술자들이 곤조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누가 장가를 간다고 양복을 맞췄어. 그러면 거기에 바지를 만드는 사람하고 윗도리 만드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본말로는 시다몽이다, 우에몽이다

하는데 스다몽은 바지 만드는 사람, 우에몽은 윗도리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지는 하루에 두 개씩도 만드는데 윗도리는 작업해서 완성하는 데 이틀이 걸려요. 근데 신랑이 입고 나갈 옷 일을 잡아놓고 기술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 뛰는 거죠. '신랑 입장' 하고 나가야 하는데……. 뭐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죠. 그래도 그 양반이 기술자라 밤을 새서 만드신 걸 봤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그런 사업도 못하는 거죠.

4공단이 들어서면서 날개 돋친 듯 팔린 미니장

또 그러다 누가 그래요. 사료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료대리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영세업자가 사료업계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왜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사료회사에서 직접 대다 가지고 가고, 영세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몇 포대씩 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료를 해서 될 만한 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료장사는 좀 손해를 봤어요.

그러던 차에 가구 계통에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가게를 와서 보더니 여기서 가구 같은 거 갖다 놓고 팔면 괜찮겠다, 그래요. 시장 로터리 자하상가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거 막 공사할 때. 부흥실업의 돌아가신 한천길 회장님이 하셨는데 그 옆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장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부평시장이 상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유입인구들이 많잖아요. 공단에 계신 분들, 미군부대 양색시들, 또 군인들도 있으니까 유입인구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했던 장사가 딱 들어맞았어요. 뭐냐면 조그만 미니장들, 지금은 싱크대지만 예전엔 찬장이 있었어요. 찬장이 하루에 보통 큰 차로 30대씩 있었는데 30대를 다 팔고 그랬어요. 공장에 아침에 가서 미니장이고 뭐고 미리 주문을 해서 다 마르지도 않은 것을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브리사 픽업(BRISA PICKUP B-1000; 기아자동차가 제작한 최초의 승용차 타입의 소형트럭. 1973년부터 81년까지 56,770대가 생산됨)을 두 대 가져왔었어요. 바빴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빴고 아무튼 찬장장사를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부평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 저기도 내가 뭘 팔아먹었는데,

저 집에 뭘 팔아먹었는데……' 하고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웃음). 가구를 한 게 이십 년 됐나? 여보? 십오 년? 한 십오 년 됐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아들한테 우리가 힘들고 그러다가 치우고 업종을 변경했어요. 뭐냐면 공장이 많이 들어서니까 가정용 가구에서 사무용 가구로 품목을 바꿔줬어요. 고용이 창출되고 공장이 생기다 보니까 의자, 책상 이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업태를 바꿔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오래도 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꾀도 나고.

가구점은 우리가 1978년도인가에 냈어요. 그 전엔 이것저것도 좀 해보고. 사료장사하고 나서도 양복점 다시 했었어요. 사료장사를 하다가 손해가 나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하고 그만뒀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옷을 해 달래요. 그래서 다시 양복점을 하다가 또 때려 치웠죠. 1978년도엔가 제가 가구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명동상회는 불과 얼마 안 했어요. 한 4, 5년 했는데 그때에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게 기반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집이 없었고 임대를 해서 살았어요. 명동상회하면서 돈을 버니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게 된 거죠. 집을 장만하고 기반이 잡히다보니까 평탄대로였어요. 저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본업에 충실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여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님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이 최우선

지금도 내 나름대로는 부평시장에 돈 안 가지고 가도 돼요. 급하니까 돈 좀 꿔줘, 밥 좀 먹자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제가 신용을 쌓았어요. 장사는 첫째도 둘째도 신용이에요. 특히 저는 가구장사 하잖아요. 공산품 아닙니까. 첨 시작할 땐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져서 힘들었어요. 만약 책상을 하나 샀는데 다음 날 가니까 옆에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그걸 바꿔준다는 건 보통 용단으론 못해요. 하지만 전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공장들한테도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내가 전부 다 반품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속으론 싫어은 다 바꿔줬어요. 이 사람들이 책상을 내보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다 잘된 줄 알아요. 그만큼 신용이 첫째 중요하다. 그걸로 이제껏 먹고 산 것 같아요. 지금도 입바른 소리 때문에 욕도 좀 먹지만요. 우리 같은 성질은 회장감

은 못 돼도 총무감은 돼요(웃음). 그래서 비결이라면 신용 하나. 그거 하나면 다 됩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함, 근면. 하지만 부지런함도 신용이 먼저 돼야 하거든요.

내가 1997년도에 가구점을 그만 뒀으니까 근 20년 했나. 아들까지 하면 한 2000년도 까지 했고. 그 후에 내가 삼성화재를 했어요. 보험설계사로 들어갔어요. 아는 양반이 보험 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람 좀 데려오라는데 체면 봐서 시험만 봐줘' 그래서 제가 1993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사흘 공부하고 갔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겸업으로 했어요. 장사하면서. 근데 그게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거예요. 한 5년을 하다보니까 결국엔 남한테 피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원이 거의 고갈되더라고. 그래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보험에 관한 것들. 배울 겸해서 갔었는데 뭐 큰 걸 배운 건 아니고.

가구점을 한 20년 하면서 첨에는 가져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진 모르지만 내 나름대론 부평이 산업화가 되고 회사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무용 가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후반기에는 사무용 가구를 했었어요. 3, 4층 다가구가 들어서다 보니까 가정용 가구들은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요즘엔 기계차가 많지만 그땐 그렇지가 않았거든.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용, 오에이(OA) 가구로 바꿨어요. 그러다 힘이 부쳐서 못 하겠더라구. 왜냐면 그 가구 재질이 집성목(集成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 공장에 얘길 했더니 그걸 알아가지고 넉다운(knock-down, 해체 분해)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스에 가구를 넣어 5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사무용 가구회사인 '인퍼스' 라던가 '한샘' 이라던가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손을 뗀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이가 장성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해서 가업을 이어줬어요. 그 친구가 그것을, 아버지 때는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면서 장사를 하고 돈 버는 맛에 살았는데 집안이 넉넉하다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고생을 싫어해요.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아서 안하겠다고 그래서 그만 두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주안에다 자동차 매매상사를 내줬어요. 그것도 경험이 없어 손해를 좀 보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하던 업소는 다 세를 주고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또 재미 못 본 것도 있죠. 한참 주식이 한번 널뛰기 하길래 거기 들어가서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도 봤어요. 지금은 임대사업해서 먹고살고.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원래 동아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 부평 신트리공원 쪽에 임대소득이 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여기서 3대에 걸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 아들, 손자는 아직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3대죠. 아들은 이제 자동차 매매상사 치우고 지금은 퓨전포차를 해요. 젊은이들 많이 오는 실내에서 하는 포장마찬데, 맥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진선미예식장 뒷길, 옛날 인천으로 말하면 신포동이나 중앙시장 상권이 주안으로 갔다가 부평으로 왔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사람한테 밀려다닐 정도에요. 젊은 남녀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제 영업원칙이 있다면 글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종업원들한테도 말하지만 사람은 첫째 내 할 일을 하고 주장을 해야 한다. 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판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요즘으로 말하면 AS죠. 손님들이 불만족해 하면 교환해주고 환불해준다, 손님과의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다 믿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한테 가게를 넘기면서했더니 아이가 그거를 안 해.

미군부대와 부평상권의 활성화

부평에 살면서 내가 부평지역 상업 활동에 대한 기억을 말하자면 참 긴 얘긴데, 예전에는 부평이 삭막한 곳이었어요. 전쟁이 있었던 1950년 전후 시절은 제가 12살, 13살이었으니까 기억날 게 없지만 삭막했죠. '문화의 거리'는 나중에 생성된 것이고 원래 부평 중심가는 한우장 골목을 중심으로 그 앞 골목, 뒷골목이 부평 상권의 최고 중심가였어요. 다른 곳은 다 초가집이었는데 그곳만 거의 기와집이었죠. 50년대만 하더라도 이층집이 드물었잖아요. 이층 있는 집 애들이 부잣집이었는데 거기만 이층집으로 현대식 건물들이 있었어요. 서초등학교 뒤가 그전에 공설시장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를 사거리라 그랬어요. 부평역 앞에 조금 집이 있었고, 진선미예식장 있는 데는 전부 포도밭 중국인들 양배추밭이었고, 시장로터리 있는 쪽은 다 논이었어요. 메뚜기 잡고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당시에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미군 물자, 그게 좀 괜찮았죠. 미군부대 상권은 명인시장 뒷골목이었는데, 거기를 양키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1960년대 초 부평 거리 풍경(부평역사박물관 소장)

다음 골목에는 옷가게, 고무신 가게, 방앗간 뭐 올망졸망 다 모여 있었죠. 문화의 거리는 나중에 형성된 거예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였어요. 땅값도 비싸고 도로가 넓어지면서 양키시장 상권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버스가 와서 서면 한우장 이쪽에서 서요. 부평시장 버스정류장, 롯데백화점도 나중에 생긴 거지, 예전에 그 자리는 개천이 흘렀어요. 굴포천. 서초등학교 있는 데죠. 저는 문화원 옆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러니까 부평시장 정류소 옆이 중심가였어요. 그리고 신촌에는 현대백화점 있는 데가 121병원, 이동외과병원이 있었어요.

1965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때 내 나이가 열아홉 살쯤 됐었겠네요. 여기는 고등학교가 없었으니까 인천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성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컴퓨터로도 만나지만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여학생한테 사인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데가 주로 제과점이었죠. 제과점에서 소보로 빵을 먹거나 했죠. 그게 아주 큰 인심을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뮤지컬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DJ 이종환 씨가 하는 스타일로 하는 거였죠. 거리에서는 아이스깨끼가 있었고 퍼모스트 아이스크림(미국 퍼모스트 맥킨슨사와 기술 제휴해 1974년 출시된 아이스크림. 1982년 기업인식 작업으로 현재의 '빙그레'로 바뀜)이 처음 나왔어요. 그게 나중에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된 거예요.

우리 나이가 우리 경제 밑바닥부터 다 섭렵하면서 산 거예요. 1972년인가 73년인가에 '여로'가 방영됐는데 테레비 한 대 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고. 라디오 연속극들 들으면 라디오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놓고 라디오를 틀어줬었어요.

1965년에 졸업하고 방위를 받아서 군대를 길게 안 갔기 때문에 상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배웠던 거죠. 부평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 생긴 다음이에요. 서울하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부평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서

구, 계양구 다 부평이었으니까요. 그러면 100만 인구권이라고 보는 거죠. 서구, 계양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서구 산다, 계양구 산다 안 그러고 부평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70년대 호황을 누린 부평 상권

처음에 양복점에 대한 개념이 남방도 만들고 신사복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죠. 조그맣게 재봉틀 하나 놓고 종업원 하나 둘 놓고 아니면 자기 혼자 하고. 거기는 장사들이 잘 됐어요. 위에는 완구점도 잘 됐고 철물점도 잘 됐고 약국도 잘 됐고.

1968년에 4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물밀 듯이 밀려왔어요. 명절 때는 돈을 바구니에서 셀 수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7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명동상회, 청바지 가게를 운영했었죠. 그날그날 팔면은 재고 파악해서 평화시장 가서 물건 띠어오고, 새벽같이 기차 타고 동대문시장 가서 띠어다가 손질해서 진열해 놓고 팔고 그랬죠. 대게 손님들이 공단의 여공들이 시장에 나오면 뭐 명절 때다 그러면 아주 무너져서 내려와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부평극장에 와서 영화 보고 시장 보고 특정지역에 있는 아가씨들, 그러니까 양색시들 몸 파는 여자들, 공수부대 군인들, 미군부대 다니는 카추샤들, 또 한국군인들 다 어우러져 나오니까 장사들이 잘 되죠.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 남진이나 나훈아, 이미자, 패티킴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표를 못 살 정도였어요.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배우 같은 사람들이 오면 여공들이 나와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를 조사해 보면 외지인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돈 벌어서 그때부터 건물다운 건물도 짓고 그랬어요. 경상도, 충청도, 호남에서도 오고 그래서, 각 지역 향우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가 본토가 된 거죠.

당시에 미군부대 주변에도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2002아울렛이 있는 자리, 그게 옛날에는 현대백화점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신촌이라 해서 특정구역이 있었는데, 미군 GI(Government Issued; 미국 육군병사의 속칭) 들한테 이자 놀이하는 론머니(Loan money, 대부업), 파운샵

(pawnshop, 전당포)이라고 소품 같은 거 파는 데였어요. 당시에 미군들 중심으로 맞춤양복이 유행이었죠.

제가 처음 선생님한테 기술을 배웠는데, 양복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주 고유의 신사복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 디자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입는 신사복 말고 턱시도, 슐칼라라던가 모닝코트라든가 디너재킷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섭렵하기 위해서 신촌에 빅토리 시크스포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죠. 더블브레스트(double breasted), 싱글브레스트(single-breasted)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웠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입는 것들이죠.

그 당시에 신촌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요. 그래서 아가씨들하고 데이트도 하고 술도 먹고 하니까 살롱들도 많았죠. 그 때는 거기도 아주 성황이었어요. 상권들이 좋았어요. 장사들도 잘 되고. 부대에서 먹고 자니까 밖에 나와서 돈을 썼던 거죠. 그리고 흔히 양색시라 그러잖아요? 술집, 여성복, 뷰티샵, 미장원, 다방들이 잘 됐죠. 나머지는 한국 사람들 상대로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있었고요.

백마장에도 상권이 많이 형성됐었어요. 그러니까 부평시장, 삼릉, 신촌 등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부르는 것도 부평을 부평시장이라고 통틀어 말했어요. 부평시장 산다고 하면 부평역 일대에 산다는 거고, 삼릉 산다고 하면 부평2동, 신촌 살아 그러면 부평3동하고 산곡3동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 전에 얘기했던 121병원 있던 자리가 부평3동이 됐어요. 백마장, 계산동, 백마장에도 신촌과 같은 상권이 있었죠.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미군이 주둔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군인들 옷 같은 거, 쩸, 시레이션(C ration), 양말, 모자, 워커 같은 거 파는 데가 양키시장. 모포 같은 것도 있고 뭐 군수품이 많았죠. 옛날에는 환전을 달러장사 하는 아줌마들이 했었죠.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여기 와서 돈이나 벌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요. 양색시들이나 있고, 특정지역 여성들 많고, 군인들도 많고, 여기서 애들 키우고 살겠어요? 그래서 돈 벌면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은 충청도로 내려가고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은 전라도로 내려가고 했죠. 돈 벌려는 수단으로 왔던 거예요. 여기가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같이 몰려 왔던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살던 분들은 전통적인 농업을 하던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해방 이후에도 왜정 때도 군사기지였으니까. 여기 김포 일대, 부평평야가 안개가 많이 끼던 지역이에요. 미군 폭격기가 와도 안개가 많이 껴서 보호가 될 것이다 해서 중요한 군사시설이 많이 들어섰죠. 병창이 많이 들어서서 조병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군부대가 들어선 거고 부평에 미군문화가 들어온 거죠. 지금도 여기 지명을 보면 다다구미(多田組; 지금의 동아아파트 입구에서 북인천우체국 앞 큰길까지의 지역, 조병창 확장공사 때 하청업자인 다다구미의 현장사무소가 있었던 자리였고 8·15해방 때 철수함)란 곳이 있어요. 고니새말, 도두머리, 이런 건 다 일본사람들이 지은 지명이에요. 고니새말이라는 데는 고니라는 일본사람이 살았다 해서 고니새말이었어요. 다다구미에서 구미는 일본 말로 '조(組)'예요. 다다는 뭐냐면 현대백화점에서 오다보면 다리가 하나 있고 노무자들이 조를 짜서 일일 근로자들이 나 안 써주나 하고 나가서 기다렸는데 그 인력 시장이지. 그게 왜정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부평1동 350번지 정도 될 거예요. 신촌은 부평3동 284번지 정도 될 거구요. 삼릉 쪽은 760 단위로 나가고 그래요. 도두머리는 저기 서운동이었고요.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멀리까지 보이니까 저기가 도두머리야, 고니새말이야 했죠. 디젤사택(현재 부평고등학교 근방, 조병창 확장 공사를 하면서 4만여 평의 디젤자동차 부평공장 부지가 확정 되었고, 그 사택들이 들어섰던 곳을 디젤사택이라 불렀는데 1955년 지젤방(志節坊)이라 개칭했으나 계속해서 디젤사택으로 불렸다)이라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세운 디젤공장이 거기 있었데요. 제가 학교 입학을 그 공장 있는 데서 했었는데, 그 말이 와전되다 보니까 지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부평6동 굴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있는 데를 굴재미라고 했어요. 어릴 때 거기 친구들하고 가서 서바이벌 게임 비슷하게 막 숨어서 총 쏘는 시늉하고 뛰어 다니고 잡으러 다니면서 놀던 동산이었어요.

부평 상권은 비교적 경제가 좋았어요. 안용수 씨가 선거에 나오셨었잖아요. 그 어르신이 은행 금융인이에요. 부평농협에 계셨는데 돈을 바꿔야 한다니까 무효화시킨다고 하니까 숨은 돈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은행이 없었고 인천에 가야 상업은행 있고 조흥은행 있고, 부평에는 농협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보니까 부평이

굉장하거든. 알짜배기들도 많고 돈도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상업은행 들어오고 한일은행 들어오고 했죠. 그때부터 금융권이 부평에 와서 막 지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도 여기는 잘 살았어요. 소비적인 도시니까 장사 잘 됐죠. 아무 업종이나 잘 됐어요. 장사한다고 그러면 다 먹고살고. 부평시장에 한창균 회장이 처음으로 부흥실업이란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전엔 깡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구태를 벗지 못하고 체계도 없고 법인체도 없었어요. 체계가 없다보니 생선, 포목, 고춧가루, 방앗간, 세탁소 같은 것들, 업종은 다 있었죠. 여기가 상권이 얼마나 좋았냐면 김포, 서곶, 옛날 소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부천, 이런 곳에서 다 부평시장을 보고 갔어요. 여기가 물건이 많고 선택의 폭이 큰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나 이러면 부평시장 와서 장 보고 가요. 지금도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살게 있으면 동대문,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는 것처럼, 여기 주변에선 부평시장이 그런 곳이었어요.


부평공원 풍경(2006)

그러니까 부평 상권이 가진 특징은 군사도시라는 거죠. 부평은 주한미군도 있었지만 한국군들도 많이 주둔해 있었어요. 여기가 군사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수부대가 다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5공수, 9공수가 다 이곳에 있었죠. 그리고 33사단, 부평공원 자리에 있던 60정비대대, 74부대 한국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도시이면서 천연자원이라면, 평야라서 쌀농사도 많이 지었죠. 그것이 다 혼합이 돼가지고 김포나 이런 외지 사람들은 못 보던 것도 부평가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은 자기네 것 팔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발전하게 된 것은 4공단이 들어오면서죠. 특히 대우자동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도 부평의 경제적 힘은 어떻게 보면 대우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협력업체가 남동공단이나 외부로 빠져 있지만 예전엔 이 주변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베드타운(bed town)화 된다는 거예요. 대우자동차도 나간다고 그러고. 사실 대우자동차 나가고 여기서 잠이나 자는 사람들하고 뭐해요. 다 외지에 나가서 돈 벌고 여기서는 잠만 자

고 아침에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부평의 문제도 자손들한테는 큰 문제로 부각이 돼 있어요. 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긴지도 모르지만 공장 있던 효성동, 청천동, 가정동, 가좌동, 계산동을 전부 다른 행정구역으로 떼어 준 거죠.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이상하게 다른 동네사람들이 돼요. 계산동이나 가좌동이나 이런 데 살던 동창들 만나면, 예전에는 다 같은 부평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만나면 걔네들이 다 마인드가 바뀐 거야(웃음). 아무튼 80년대는 부평 경제를 주도했던 것은 아무래도 4공단과 대우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못 벗어났죠.

상전벽해로 변화된 부평지역

부평시장은 범위가 크고 다양해요. 삼산동 농수산물시장도 부평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너무 크다 보니까 포화상태였고, 조금 현대화하고 크게 하자 한 것이 처음에 구월동으로 갔죠. 그러다가 다시 부평으로 왔어요. 원래 모체가 부평시장이었던 거죠. 계산동도 나름대로 시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석남동에도 석남동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서구니까 관계가 없고. 그런데 부평의 역사를 말하다보면 서구와 계양구를 빼놓고는 또 얘기가 안돼요. 지금은 부평에 일신동시장이 있어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죠. 그 담에 부평시장, 백마장시장, 청천시장도 있더라고요. 신촌에는 시장이 없어요. 지리가 가까우니까. 버스로 한 정거장이니까 다 부평시장으로 오죠. 대형마켓이 생기니까 시장의 개념도 사라져요. 동네 구멍가게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부평시장은 한마디로 크다는 거예요.

부평재래시장(1996)



또 하나 부평 상권의 특징이 있다면 소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동 인구가 워낙 많고 쌀이 좋은 게 나온다, 인삼이 좋은 게 나온다,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을 법도 한데 여기는 뭐, 누가 뭘 해서 왕창 벌었다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망한 사람도 없어요. 그

냥 꾸준하게 벌었어요. 성실하게. 자기가 와서 노력만 하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80년대 와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게 뭐냐면 야! 여기도 살만하다, 여기도 내 고향이야, 자리 잡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조금씩 큰 건물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살기는 좋았지만 부천에 비해선 큰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애들도 제물포고등학교 애들만 서울대학교 많이 갔지만 이제 부평 애들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고등학교도 별로 없었어요. 80년대부터 고등학교도 많이 짓고, 여기 괜찮다 해서 애들도 많이 키우고 그랬죠. 여기가 사실 혜택 받은 도시예요. 재래시장이라고 해도 대형 화재도 발생한 적도 없고 괜찮은 동네죠.

원래 부평이라는 곳은 죄다 논이었어요. 80년대 후반에 지금의 시가지가 다 형성됐어요.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여기가 바다야. 그 후에 막 들어선 거죠. 60년대 중반 넘어서까지 부평역에서부터 동부웨딩홀 거기까지 다 논이야. 거기다 땅을 파가지고 하천을 뚫었어요. 그게 재건 도로예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부흥초등학교가 생기고. 그러다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메뚜기, 미꾸라지 잡고 개구리 뒷다리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명동양복점을 할 당시에 부평4동 1동 1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도시화는 되고 여기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건너다니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했어요. 민방공 차원에서라도 지하도를 파자. 그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상가를 조성해라, 지하상가. 수익성이라든가 공사비도 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동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이름 있던 분들이 우리 동에 살았어요. 돌아가신 장래복 씨라든가. 그 다음에 명신당 안상재 씨. 신성양화점의 신성근 씨. 거기가 부평에서 젤 비싼 땅이야. 또 재목점 하셨던 박상현 씨. 그런 분들이 사셨던 곳이라서 된 거야. 그래서 지하상가를 뚫고 장사도 잘 됐어요. 부평역에서 연계하자고 해서 통과가 된 거죠. 성일로지하상가(현, 부평중앙지하상가; 경인국철과 인천지하철1호선의 환승역하여 교통의 요충지이며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50만 명)라고 된 거야. 주안도 잘 만들어놨지만 여기만큼 잘 되는 곳이 없어요. 거기가면 초석이라고 그러나? 거기 내 이름은 없지. 쫄따구니까(웃음). 동·서·중부동(현재의 부평1동은 서부동, 부평4동은 동부동, 부평5동은 중부동, 6동은 동수동)이라고 했던 시절인데 누가 와서는 반장 몇 년씩 했던 사람들을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떫어서 그만 뒀지.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재래시장 살려야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부평역 근처에 들어섰어요. 결국 소비자들은 싸게 산다고 해서 좋겠지만 하지만 서민들을 다 잡는 거예요. 예전엔 구멍가게, 연탄가게 해서 애들 공부시켰는데 그런 상권 다 죽어요. 동네 상권 다 죽고 결국엔 고용을 한다고 하지만,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다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땐 부평시장은 그래도 튼튼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트 가는 사람은 마트가고 부평시장 오는 사람은 여전히 또 오거든요.

부평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 1킬로에 3, 4만 원이라면 부평은 1, 2만원이거든요.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되니까요. 영세민들도 먹고 살아야죠. 너무 재벌들이 서민의 영역까지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난 그렇게 봐요. 자기들이 생산 업체들이라고 불공정한 행위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시장원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재래시장은 살려놔야죠.

오랫동안 상업 활동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부평 상권도 특화시켜서 쌀가게면 쌀가게, 어물전이면 어물전, 포목점이라면 포목점 등이 분업화 돼서 상권이 분산되면, 임대료도 내릴 것이고요. 앞으로는 주차문제가 더 커질 텐데 재래시장도 이 주차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문화의 거리 오늘 가니까 노점상 다 치웠더라고요. 거기도 차가 좀 다니면 장사가 나아요.

예전엔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갔던 곳인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 해물탕거리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잖아요. 뭐 아구찜, 거기도 장사가 잘 되는데 주차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도 이제는 특화돼서, 뭐 어딜 가면 곱창이 맛있더라, 어딜 가면 이천 쌀도 있고 김포 쌀도 있다더라, 그렇게 특화되어야 해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 돼야 하고.

그래야 대형마트가 들어서도 부평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부평시장에 대한 향수와 단골 고객들을 지키는 거죠. 선택의 폭도 크고 사람 사는 맛도 느끼고. 마트는 뭐 깎아줘요? 안 깎아주지. 하나 더 주시오, 그래도 여긴 밑지는 것 같으면서도 주잖아. 그것도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살려 줘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 장사를 할 터

선친부터 아들까지 삼대를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역시 제일 쉬운 게 상업이죠. 상업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아이엠에프(IMF) 때도 회사에서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사업하다 망해서 장사하고……. 그나마 일해서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장사밖에 더 있어요? 100원에 띠어다가 120원에 파는 거죠. 그리고 남들 100원에 띠어 오는 거, 자기가 90원에 띠어 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100원에 파는 거죠. 단순하고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장사밖에 더 있느냐고요.

우리 아들한텐 항상 그 얘기 하죠. '자기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까만 걸 보고 하얗다고 하는 거, 하얀 걸 보고 까맣다고 하는 거. 그래도 좋다. 그러나 저것이 까만 건지 하얀 건지 모른다.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게는 살지 마라. 기왕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쳐 놓는 거야.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이게 좋은 말 같아도요, 참 나쁜 얘기예요. 경우 것 살아야죠. 왜 불의를 보고서 그것도 왜 둥글게 살라고 그러냐고. 그건 불의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깔려 있으니까 상업하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안 팔아.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 보고 또 와.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당장은 못 팔아도 나중에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신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무법자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무법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무법자, 유법자 다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요. 분명하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내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라. 근데 어떤 때는 내 도가 지나쳐서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적도 있어요. 인간이니까(웃음).

상업에 종사하면서 회한은 없지만 이런 마음은 들어요. 나를 키워주고 우리 집 물건을 팔아준 손님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세상에 태어나 살아도 저는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어요. 장사처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장사를 하다보면 상하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공무원 해봐요. 며칠 안 가서 잘려요. 공무원 노조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도 장사를 할 거고요. 회한은 없어요. 크게 매점매석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죠.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하늘에서 내려준 천복이죠(웃음).

허허벌판에서 일군 이시경 할아버지의 삶



구술자 | 이시경 · 권정수 부부

채록자 | 홍인기(소설가)

구술자 이시경(李時卿) 할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일흔 여덟이며, 1929년 부평구 작전동 187번지에서 태어난 뒤 한 번도 마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지 않은 토박이다. 평생 한학에 전념하여 노동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부친(이연인)의 3남1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나 스무 살에 이웃 용정마을 출신의 부인 권정수와 결혼하여 슬하에 오남매를 두었다. 자녀들은 모두 인천에 살고 있으며, 큰 아들 후진(厚搢) 씨는 부평구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시경 할아버지는 스물한 살에 맏딸을 낳은 뒤 입대하여 포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 소금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적들에게 수많은 포탄을 쏘아 그 화약연기로 인해 폐질환을 얻기도 했다. 제대 뒤 약 6년 동안 큰 형님이 차주로 있던 인천과 김포를 오가는 버스회사 대한여객에 취직하여 조수부터 운전기사까지 일을 하기도 했던 이시경 할아버지는 사실 소학교를 졸업한 16살부터 큰집의 농사일을 거들어 보통사람의 두 배의 몫을 하는 일꾼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나 그때 자기의 몫은 어디에도 없었다. 글을 더 배워 어디에 쓰겠는가, 라는 회의로 공부를 중단한 이시경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어디에서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시경 할아버지는 그 뒤 세간(분가)을 나와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을 사서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젊음을 몸 아끼지 않고 살았다.

해방 뒤, 부평이 급격히 도시화 되면서 농사의 기반인 땅이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이 되어 이시경 할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 또한 땅을 근본으로 하는 그의 삶 철학과 결코 지나치지 않은 절제로 이룬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십여 년 전에 얻은 당뇨로 인해 다소 쇠약한 편이지만 하루에 두어 시간은 활을 쏠 정도로 건강하다. 기억력은 좋은 편이어서 해방 전의 마을의 일들을 소문에 기대기는 하나 대체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마적단이 마을에 자주 출몰하던 이야기와 구한말 주로 나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죽이던 곳이 계양산이라는 증언은 귀담아 듣기에 충분했다.

채록자는 지난봄부터 계양산 활터 연무정과 자택에서 이시경 할아버지를 여러 차례 만나 채록하였다. 큰 아들은 부친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채록자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마땅찮게 여기기도 했으나, 이시경 할아버지는 끝까지 기록에 도움을 주었으며 죽기 전에 남은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으면 하는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농사일 그거 참 힘들어요.

농사일 그거 참 힘들어. 남들은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나 농사지을 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저 내가 혼자 알아서 일하는 거지. 그래서 난 농사지으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줬어. 농사지어서 일년에 몇 번 씩 어려운 사람한테 쌀을 줬어. 작전동이 처음엔 6개 통밖에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 통에 쌀 20킬로짜리 한 포대씩 갖다 줬어. 그런데 자꾸 통 수가 늘어나더라고. 인구가 막 느는 거지. 일년에 두 번, 그러니까 팔월에 한 번, 섣달에 한 번씩 그렇게 떡 해먹으라고. 나중엔 엄청 많아지더라고. 56개 통이 되더라고. 한 번에 20킬로그램짜리 쌀 56포대까지 나눠줘 본 적이 있어. 그래도 난 먹고살 만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이 나중에 구의원에 나왔어. 됐지. 그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야. 내가 남들한테 그랬지. 그거 내가 준 건데 아들이 덕을 보네, 하고 말이야. 하하하……. 그런데 그게 나중엔 눈치가 뵈더라고. 뭐 아들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서 말이야. 법에도 걸리는가 봐. 그래서 끊어졌어. 그렇게 7~8년을 하던 걸 끊었어. 하지만 지금도 맘은 변한 게 없어.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올해는 다시 시작해도 되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저 몸이 괜찮으면 뭐라도 더해서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요즘엔 몸이 안 좋아.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난 먹고 살만하니까. 그전엔 재산 다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랬어.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 안 해. 다 소용없어. 지들 다 공부시키고 먹고살만큼 한데, 뭘 더 줘. 옛날 사람들, 옛날엔 그랬잖아. 자식들 끔찍하게 생각했잖아. 다 줬지 뭐. 다 물려줬어. 그런데 요즘엔 안 그래. 다 줬다간 자식들한테 쫓겨나. 그렇지 않아? 시국이 아주 못된 시국이 됐어.

농사?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해. 그래도 어떡해, 하는 거야. 자식들 기르고 가르치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농사에만 매달리지 않았어. 농

사철이 아닐 때나 겨울철엔 소마차를 끌었어. 여기서 부평까지 짐을 싣고 가면 그때 돈 오백 원을 받았어. 하루에 천 원은 벌어. 그 때 쌀 한 가마니 값이 삼천 원에서 사천 원 했으니까 사나흘 하면 쌀 한 가마닌 버는 거지. 새벽 두 시에 일어나 쇠죽을 끓여 먹이고 인천까지 짐을 싣고 갔다 오면 밤 열 시가 넘어. 그땐 힘든 줄 몰랐어. 뭘 해도 그땐 그랬어.

된밭 마을의 옛 풍경

부평도 참 많이 번화해졌어. 내가 잘 알지. 내가 여기서 태어나 자랐거든. 옛날엔 계산동 여기, 저 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었어. 뭐 있었나. 허허 벌판이야. 요기 저쪽 작은 개울이 있고……. 거기 조금 돌아가면, 거, 거기…… 계산동 학교 옆, 연못이 있고 우체국 자리……. 그곳에 비석도 있었어. 지금은 그 비석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고속도로 옆이라던가, 거기 있어. 나쁜 사람들을 거기서 죽인 거야. 옛날엔 그랬어. 옛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무서워. 아마 해방 전뿐 아니라, 조선시대 말 얘기인가 봐. 나라에서 역적질을 하거나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와서 죽였대. 그러니까 사형장이겠지 뭐. 그래서 이 동네가 사연이 깊어. 터도 세고. 조 아래 보면 뭐가 있나하면, 마적단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들어와서 다 털어가는 거야. 해방 전이니까 어른들한테 들은 거야. 소문으로도 늘 접했고. 옛날엔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 동네였어.


이시경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옛날엔 저 계양산에 나무가 없었어. 땔나무와 토목공사 때문에 맨 돌덩이만 있었어. 어른들이 그랬어. 돌뫼산이라고도 하고, 어디 딴 데서 떠온 산, 떠밀려 온 산이라고.

그 무렵에 된밭(작전2동)에 약 30가구가 살았고 까치말(작전3동)에 50여 가구, 그리고 갈게 가현리(작전 1동)에 24가구, 이렇게 한 백여 가구 좀 넘게 사람이 살았는데, 그중에 부평 이씨가 31가구였지. 작전동,

옛날엔 까치말(작전3동) 신대리, 나 살던 데 된밭(작전2동), 갈게 가현리(작전1동)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세 개동으로 나뉘었어.

그리고 해방이 되고 6 · 25가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땐 초가집이 많았어. 시골 풍경이 대부분 그랬잖아. 어디나 마찬가지였지 뭐. 그런데 이상하게 계산동엔 빈집이 많이 있었어. 살기가 어려워 집안이 몽땅 다른 데로 떠나버려 흉가가 된 집들이나 팔고 가버려 그냥 남은 것들, 그런 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사람이나 다른 데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그 빈집을 헐어다가 불을 땠어. 그땐 땔 것도 많지 않아서 너도나도 마구 뜯어갔어.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 그래서 나중엔 계산동 사람들이 막 말렸어. 계산동 다 망하겠으니 그만 뜯어가라고.

해방과 벽돌공장

태평양 전쟁 때, 그러니까 해방 바로 전에 나도 일본 군대에 끌려갈 뻔 했어. 그때 내 나이가 열 일고여덟 때였는데 운이 좋게 빠졌어. 해방이 조금만 늦었어도 꼼짝없이 끌려간 거여. 하지만 바로 해방이 되어 살았지.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은 금방 알았어. 여기가 시골이라도 그런 소문은 빨랐어. 일본이 망해서 죄다 쫓겨 갔잖아. 그때 여기 작전동이나 계산동에는 일본사람이 살지 않았고 저기 왜 조병창이라고 지금 미군부대 있는 데 있잖아. 그때 거기에 일본놈들이 태평양 전쟁 때 쓰려고 만들었던 총탄이니 뭐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었어. 그때 친구랑 거기 가서 뭐 가져올 거 없나 하고 많이 돌아다녔어. 옛날엔 그곳을 삼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평성모병원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인천 쪽으로 이어진 언덕배기 위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었어, 그리고 백마장 쪽으로도 있었고. 구사택 신사택 하면서 꽤 있었던 거 같아. 전부 조병창에서 일하던 일본 사람들이 살았어. 그곳에 쌀이며 옷가지와 가구들, 그리고 급히 도망가서 그런지 하물며 반찬 같은 것도 남겨져 있었어. 그런데 우린 그런 건 눈에 별로 들지 않았고, 거 왜 불 끄는 거 있지? 소방차 같은 거. 그게 조병창 안에 있었는데, 그게 맘에 들더라고. 그거 가져가면 동네에 불이 나더라도 쉽게 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같이 간 친구와 둘이서 그걸 끌어오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 그런데 도저히 둘이서는 끌고 올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어떡해, 그것도 포기했지

뭐. 하하하……. 다른 사람들도 한동안 그거 왜놈들이 버리고 간 거 주워오느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어.

아, 그래 또 있어. 거기 벽돌공장 말이야. 그게 어디 있었냐 하면, 백마장 저쪽 미군부대 들어가는 데, 기찻길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왜놈들이 운영하던 벽돌공장이 있었어. 그때 개네들이 쫓겨 가자, 언젠가 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얘, 그 벽돌 좀 가져오면 집 지을 때 좋겠구나,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뭐. 그까짓 거 가져오지요 뭐, 하하하……. 그때 내가 마차로 한 이십 여 마차 실어왔을 거야. 그거 나중에 우리 형님네 집 지을 때 요긴하게 썼어. 다른 사람들 집짓는 거 보면 왜 기소를 만들고 기둥을 세울 때, 하방 중방 밑구녕엔 흙이나 돌멩이를 거지반 쌓았어. 그런데 형님네 집엔 그것까지 벽돌로 쌓았어. 아주 튼튼했지 뭐. 그 벽돌은 개네들이 불로 구워서 만들어서 아주 튼튼했어. 빨간 벽돌 그거 말이야.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 왜놈이 물러가자, 미군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미군들이 나다니는 사람들을 사진기로 막 찍어대는 거야. 내가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실어오는데도 찍더라고. 뭐가 잘못돼서 찍는 건가,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상관 않고 막 실어왔어. 하루에 세 번씩 실어 날랐어. 그런데 어느 날 미군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는 벽돌공장의 굴뚝을 부술 거니까 낼 모레에는 오지 말라는 거야. 통역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벽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공장 굴뚝처럼 높기는 높았어. 뭔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 저 굴뚝이 무너지면 금덩이가 많이 나올 거라고. 굴뚝이 무너지면 가서 그거 주워오려고 다들 별렀어. 그런데 그게 차지가 돌아오나. 그리고 금덩이가 정말 있기나 했는지도 모르고, 하하하…….

거기가 결국 나중엔 미군부대가 됐어.

대한여객 버스를 몰다

한 6년간 했지. 조수부터 차 고치는 거 운전까지 다했어. 군대 갔다 와서도 한참을 했는데, 그거 해서 돈 많이 못 벌었어. 큰 형님이 버스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밑에서 일을 했던 거야.

그때 대한여객이라고 인천에 처음 생긴 버스회사야. 상인천에서 강화나루,

나중엔 배를 타고 건너 강화도를 한바퀴 돌아 나왔어. 아침에 일찍 상인천을 출발하면 털털거리는 길을 달려 저녁 늦게 목적지에 닿아. 그러면 거기서 자고 다음날 다시 출발했어. 손님 한 두 명 태우고 털털거리며 달리는 거야. 그 때 큰 형님이 대한여객 말고도 서울하고 강화를 오가는 경기여객, 그리고 나중에 시내버스인 인항여객에도 버스를 가지고 있었어. 차주였지. 사람들이 그랬어. 농사짓는 것보다 버스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말이야. 나 고생 참 많이 했어. 며칠씩 잠도 못자고 차 수리를 하곤 했어. 그 무거운 엔진도 혼자 뜯었다가 넣곤 했으니까. 언젠가, 아 그땐 내가 버스 일을 그만두었을 때야. 정비공장에 버스를 맡겼는데 애먼 조수 애 머리가 깨진 일이 있었어. 내가 가보니 그 버스 엔진을 분해해서 고치곤 다시 버스에 얹다가 그만 실수로 조수 애 머리빡을 깨놓은 거야. 내가 그때 혼자서 시범을 보였지. 정비공장 사장이 놀랬지 뭐. 어떻게 저렇게 작고 약해보이는 사람이 그 크고 무거운 엔진을 혼자 귀신처럼 힘들이지 않고 다루냐고 말이야. 나중엔 날 찾아와 도와달라고도 했어. 아무튼 그땐 맨날 기름강아지처럼 살았어.

운전면허증? 그럼 있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시험을 치러야 해. 그런데 난 솔직히 시험 안 보았어. 내가 버스회사에서 워낙 차도 잘 고치고 조수일도 잘 해서 소문이 나니까 순경이 알아서 해주더라고. 순경이 면허증을 갖다 줬어, 시험장에도 안가고. 허허허.

그러다가 어느 날 환갑이 넘은 노인이 운전하는 걸 봤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도 마냥 저 노인네처럼 저 나이 들도록 기름강아지로 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안되겠다 싶어서 형님한테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어. 형님보고도 버스 팔고 땅을 사라고 했어. 아무튼 내가 버스를 그만 두니까 형님도 운수업에서 손을 놓으시더라고. 나 그때 형님한테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했어. 내가 막내인데 그때 아버님은 이미 모든 경제권을 큰 형님에 맡기셨거든. 나 그때에서야 세간을 났어. 형님이 땅을 조금 주더라고. 논 약 천 평하고 밭 약 오백 평.

한국전쟁, 포병으로 참전하다

군대? 나 결혼하고 그 다음해, 딸 하나 낳고 갔어. 스물두 살이었지. 6 · 25 전쟁 중에 논산으로 끌려갔어. 포병병과를 받고 광주 가서 포 훈련을 받았어.

그때가 전쟁 중이어서 나는 이왕이면 전방에 가려고 했어. 결국 금산 금화 전선까지 가서 싸웠어. 수도여단 61대대.

그런데 정말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별별 고생 다했어. 부대에 쌀은 있는데 반찬은 둘째 치고 소금이 없는 거야. 보급 대에서 소금이 안와. 포탄에 맞아 죽을까봐 그런대나. 암튼 고생 많았어. 보병부대와 쌀을 주고 소금을 바꿔 먹기도 했어. 주먹밥, 주먹밥 하지? 그거 간이 없으면 도저히 못 먹어. 다른 보급품도 다 마찬가지였어. 판초우의니 뭐니, 다 중간에서 빼먹는지 말이야. 그건 제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제대복도 못 받아 입고 나왔어. 나 군대병원에서 제대했어. 내가 포병이어서 워낙 포를 많이 쏴서 그 화약 때문에 폐병이 걸린 거야. 하루 저녁에 850발을 쐈어. 그거 상상이나 가? 산 밑에서 포신을 하늘로 겨냥하고 쏴대는 거야. 포 소리가 좀 커? 또 화약연기는 어떻고. 포 방아쇠 당기는 놈은 나중에 옆구리를 부여잡고 나자빠져. 늑막염이 걸려 후송되곤 해. 화약연기에 숨을 못 쉬고 귀먹는 건 보통이야. 나도 그때 귀가 먹었어. 작은 소리는 듣지를 못해. 그래서 내 목소리가 평상시에도 커. 105미리 곡사포. 그거 보통 때는 삼발이를 두 사람이 들어 옮기는 건데, 전쟁 땐 그게 어디 있어, 바쁜데. 혼자 막 잡아 돌리는 거야. 그러니 성한 놈이 있겠어? 몸이 다 망가져.

어느 날 기절을 했어. 죽은 거지 뭐. 바로 후송됐어. 군의관이 그러더라고, 폐가 안 좋다고. 그때 나 같이 포 쏘는 군인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 대전 유성에 있는 군인휴양소에 가 있었는데, 그거 또 군대약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 좀체 낫지를 않아. 군대가 그래. 치료약이 아니라 소화제를 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거지. 엉터리야 엉터리, 하하하……. 어느 날 말똥을 단 군의관이 묻더라니, 제대처리 해 주겠다고. 그런데 상이용사증을 받으려면 좀 더 기다리라네. 에이라, 더 있다간 꼭 죽을 것 같더라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왔어. 제대복도 받으려면 마찬가지래. 기다리라는데, 다 포기했어. 집에 와서 아내가 수소문해서 지어온 한약 두 첩 먹고 나았어.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땐 웬만하면 거의 상이용사가 됐어. 분명히 지나친 데가 있어. 멀쩡한 놈들도 용사증이 있어. 지금은 너도나도 국가유공자가 되었잖아.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나 데모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상받는 거 보면 나도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 나는 이런 소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해.

그런데 군대 안간 놈들은 더 나빠. 빨갱이보다도 더 질이 안 좋은 놈들이야. 빨갱이들이야 하늘에다 총을 쏘는데, 그놈들은 눈 감고 머리 위로 쏘는 놈들이야.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 군대 가지 않고 높은 데 줄을 대고 빠진 것들, 그들 죄다 말이야.

군대가기 전 얘기 좀 할게. 6 · 25가 터지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야. 얘기가 좀 그래. 나는 전쟁 중에 군대를 가서 앞뒤가 조금은 이상할지도 몰라. 그래도 본 거와 들은 거 합하면 대충 정확할 거야, 하하하……. 그때 여기도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어. 그쪽 사람들이 가을에 전쟁식량을 확보하려고 집집마다 곡물 수확을 미리 계산했어. 그러기 위해 벼나 콩이나 팥 등 낱알을 세어 보고하라고 들볶았어.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세느냐고 난리들이었지. 그래도 가을이면 계산한 게 다 틀려. 그들이 뽑아낸 통계가 엉터리인지라 있는 거 다 털어 줘도 모자라. 걔네들 다 주면 뭘 먹고 살아. 나중엔 좁쌀알을 세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세고 있나. 죽을 일이지, 하하하……. 그런데 그때 수복이 된 거야,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다들 좋아라, 했어. 좁쌀을 세지 않아도 돼서 말이야. 하하하…….

응? 여기 사람들 다 좋아서 서로 죽이진 않았어. 저 쪽 계산동이나 서운동, 그리고 갈산동, 거기선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해. 서로들 죽였어. 무서운 일이야. 우리 동넨 깨끗했어. 그 무렵은 아닌데, 이런 일이 있기는 했어. 반공청년단이라고 밤마다 무섭게 돌아다니며 사람들 붙잡아 패고 하던 단체가 있었어. 거기서도 더 유별나게 활동하는 감찰대라는 게 있었어.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그 감찰대 사람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 나중엔 다 잘 안됐어.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그때가 아마 전쟁 뒤일 거야. 여기 농악대가 아주 잘 놀았거든. 그래서 그때 부평에 자주 놀러 나갔어. 그때가 부평에 시장이 막 생길 무렵인데, 우리 농악대가 잘 놀기로 유명하니까 곧잘 불러내기도 했어. 그날은 무슨 대회가 있었어. 여러 패가 참석했을 거야. 그런데 우연히도 나는 그날 우리 동네에 초상이 생겨서 나가지 못했어. 헌데 한 열시쯤 됐나. 농악대 패거리가 죄다 죽기 살기로 도망쳐 오는 거야. 그게 그랬던 거야. 우리 먼 집안사람인데, 그 양반이 왜정 때부터 사상이 좀 그랬어요. 그 양반이 농악대 깃발에 쓴 글이 문제가 되어 다들 빨갱이로 몰려 혼비백산 도망을 쳐온 거여. 사실 대원들이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한 건데 말이야.

하여튼 끔찍했던 시절이었어. 물론 이북 쪽의 일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크게 심하지 않으면 대체로 무사했어. 들어가 문초 정도 받았지 뭐. 하지만 심하면 가족까지 다 죽기도 했대. 아주 무서웠고 끔찍했어. 내가 알기론 이북으로 간 사람도 예닐곱은 돼. 아마 그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세간(분가)을 나다

결혼하니까 형님이 땅을 조금 주더라고. 아니 처음엔 아니었어. 그때 큰형님이 버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했잖아. 군대에 갔다 와서도 한참을 더 버스운전을 했으니까 거의 서른이 다 되어서 내 땅을 받아 농사를 짓게 됐어. 정확히 말하면 논이 1,050평이고 밭이 573평이었어. 큰 형님이 주셨지. 아버님은 연세가 높으시고 또 원체 농사일에 관심이 없어서 형님에게 일찍부터 집안 경제권이며 대소사를 맡겼던 거야. 그래서 그런 권한이 죄다 큰 형님에게 있었어.

내가 어릴 적에는 큰 집에 들어가 살았어. 뭐라고 할까, 밥 얻어먹고 큰집 일을 해 줬다고 할까. 그때는 대개가 다 그랬어. 결혼을 해야 자기 몫의 재산(땅)을 받아 독립하는 거지. 아버님도 형제가 많은 부평 이씨 집안의 막내이셔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거의 없으셨다고 해. 아버님은 일을 잘 안하셨어. 매일 책만 끼고 살았어. 어머니께서 주로 농사일을 많이 하셨어. 대부분 어머니가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그나마 조금 농사지을 기반을 마련한 거야.

원래 난 소학교를 졸업(16세)하고부터 농사일을 배웠어. 그 무렵 부평에 일본 놈들 자식이 많이 다니던 서국민학교가 있었고 동국민학교 그리고 여기 계산국민학교가 있었는데 나는 계산국민학교를 나왔어. 나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우리 아버님이 일은 하지 않으시고 맨날 책만 옆구리에 끼고 사셨거든. 나는 그걸 보고 느꼈어. 그까짓 공부가 옷을 주나 쌀을 주나, 다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난 다른 사람 두 몫의 일을 했어. 나보고 다들 일 잘한다고 그랬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어디 아프거나 힘든 줄 몰랐어.

결혼은 내가 스무 살 집사람이 열아홉 때 했어. 아내는 용정리 사람이야.

아들 둘하고 딸 셋을 낳아 길렀어. 부모님은 내가 서른둘을 먹었을 때 돌아가셨어. 장인 장모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지. 한꺼번에 당한 일이라서 그때 참 많이 안타까웠어. 한 분만이라도 살아계셔서 손자들 장가가고 아이들 낳는 거까지 보셨으면 했는데 말이야.

나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땐 술 담배도 하지 않았어. 무엇이든 열심히 했어. 농사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지었어. 일 잘한다고 시청에서 주는 상도 받았어. 아마 그때 받은 게 양단이불 겉감이었을 거야. 비싸고 좋은 거야. 인천에서 세 명만 탔어. 그거 말고도 상 많이 받았어. 퇴비 많이 했다고도 받고 농사 잘 짓는다고 받고 말이야.

농사지을 때 나는 참 악착같이 했어. 주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랬어.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누구에게도 지는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야.

이곳이 농촌이라도 환경이 참 좋지 않았어. 저 위쪽으로는 땅이 건해. 척박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뭐라도 심을 수 있어. 천수답이야. 그런데 요 아래쪽은 좀 달라. 물이 좀 흔한 편이야. 그게 왜정 땐데, 수리조합에서 수로를 만들고부터는 사정이 좋아졌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수리조합에서 받아가는 물세가, 논 일 단보(300평, 두 마지기)에 약 벼 한 가마니 정도였던 거 같아. 그거 왜정 때 수리조합, 해방 뒤에는 그걸 민간이 맡아 운영했을 거야. 들리는 얘기로는 그 수리조합이 나중에 엄청 크게 수지가 맞았다더군. 왜냐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수로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는 거야. 물길이 지나간 자리를 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덩치가 크겠어. 그 수로가 저 산곡동까지 뻗어 있었거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벌었다는군.

똥 마차 끄는 이씨

어쨌든 그땐 농사짓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 논에 주는 비료도 무척 비쌌어. 흔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누구도 그런 화학비료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 타산이 맞아야지. 그러니 논에서 벼가 많이 나올 리가 없었지.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저 인천까지 가서 뒷간 똥재를 실어다가 논에 주었어. 소마차를 가지고 틈만 나면 갔어. 여기서 인천까지 거리가 30리가 넘어. 그 먼 길을 거의 매일 똥마차를 끌고 다녔어. 만석동까지 갔었어. 그때는 인천에도 초가집이 많았거든. 거기서는 돈 안주고 똥을 치우니 좋다고 했지. 길거리에서 사람

들이 쳐다보고 비웃기도 했어.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버스를 몰던 사람이 허름한 행색으로 똥마차를 끄니, 안 그렇겠어? 하하하……. 그럴 때 나는 그랬어. 이거들 보쇼, 나 이래봬도 그런 자동차는 서너 대 충분히 끌 수 있는 사람이요, 우습게보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 나이 때에도 이런 일을 계속 하는가 지켜나 보시오.

그것뿐이 아니었어. 그때 부평에 있는 동초등학교 하나를 맡아서 거기 화장실을 내가 도맡아 치웠어. 그 똥을 가져다 내 논에 뿌린 거야. 그런데 그 시절엔 너나없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똥간에 똥이 없는 거야. 애들이 맨날 된 똥은 누지 않고 멀건 오줌만 깔기는 거야. 그러니 영양가가 있어야지. 어떡해. 그래도 그거라도 가져와야지. 어쨌든 그게 그래도 거름이 되더라고. 하하하……. 남들은 논 한 마지기에서 겨우 벼 세 가마니 수확할 때, 나는 대여섯 가마니씩 소출을 올렸으니 그게 어디야.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도 난 가리지 않고 다른 많은 일을 했어. 쌀 상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정미소를 다니며 우마차에 쌀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장날이면 마을 사람들을 부평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내가 농사를 짓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7·80년대야. 그땐 방앗간, 정미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 된밭에도 있고, 까치말, 계산동, 서운 등 마을에 하나 둘은 있었어.

가을엔 볏짚을 실어다 팔기도 했어. 그때 인천에 매끼공장(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끈을 만들거나, 가마니 따위의 농자재를 만들었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가 가져오는 볏짚은 언제나 최고로 쳐줬어. 볏짚이 질이 좋아서 값도 항상 후하게 쳐주었어.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 저러면서 농사는 언제 짓느냐고, 허허허……. 하지만 난 그러면서도 다 했어.

우계돌이라는 게 있어. 농사철에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 내가 남의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일을 하는 품앗이나, 패를 이뤄 공동체 농사를 짓는 두레하고는 좀 다른 거지. 우계돌이는 그야말로 순전히 그때그때 품삯만 받고 일을 하는 패거리를 말해. 대부분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약 7~8명이 한 팀이 되어 다녀. 모내기철이나 가을걷이를 할 때면 농촌에 돌아다니며 일을 해. 어느 집 몇 마지기의 논을 얼마에 맡아서 일을 하는 거야. 먹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농토가 없어. 해마다 농사철에 그런 식으로 품을 팔아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 농사일엔 다들 선

수야. 그러니까 나 같은 논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된 품삯만 주면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남는 게 더 있더라고. 그 시간에 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렇게 2년을 일하니까 돈이 되더라고. 한 해 쌀이 한 오십 가마니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땅을 사기 시작했어. 내 돈도 있었지만 부족한 건 대부분 지역 유지들에게 빌려서 샀어. 내가 부평 이씨이기도 하고 일을 잘하니까 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웬만한 지역 어른들이며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잘 보았어. 나, 신용은 철저히 지켰어. 약속한 날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물론 일년 뒤 농사를 지어서 갚는 조건이기도 했지만 말이야.

우리 집사람 그때 말도 못하게 고생 많이 했지.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을 거지어멈이라고 불렀겠어. 아녀자가 집안에서 살림만 해도 힘들 것인데, 지독한 나 따라서 매일 흙구덩이에서 살았으니 그 행색이 어떠했겠어. 말이 아니지, 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겠나, 꾸미길 했나…….

농사로는 웬만큼 해선 돈을 모으지 못해. 먹고 살기에도 언제나 빠듯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냥 그 턱일 수밖에 없어.

지금 부평공단이 있는 데가 옛날엔 다 산이었어. 말미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수도국 옆으로 갈라져서 길이 났잖아. 거기가 그때는 몇 만 평 되는 밭이었어. 하루는 구청 직원이 찾아와 나보고 거길 그냥 공짜로 부처 먹으라는 거야. 이거 잘됐다 싶어 대들었지. 나까지 포함해서 여섯이 모였어. 거기에 고구마며 콩이며 메밀을 심었지. 그리고 그 뒤쪽, 지금은 자동차 공장 자리야. 그 안에 논이 있었어. 회사 땅일 텐데, 거기 관계자가 그것도 하라는 거야. 마다하지 않았어. 그 밭과 논에서 얻은 거, 그거 우습게 볼게 아니야. 밭에서 수확한 팥 메밀 콩의 일부를 구청에 종자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 여섯이, 아니 소까지 일곱을 쳐서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 그거 많은 품 안들이고 얻은 거치고는 엄청났어. 한 사람당 쌀이 다섯 가마니가 넘었고, 콩이며 팥도 그 정도가 됐으니 말이야. 하하하…….

이건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언젠가 나라에서 한창 퇴비 장려운동을 벌일 때야. 아까 얘기했지? 나 어떤 일에도 남한테 지기 싫어한다는 거. 나 우리 동네에서 퇴비 제일 많이 했어.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일등이 돌아간 거야. 난 인정할 수가 없었어. 막 따졌지. 나와서 제대로 보라고. 구청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허~ 나 원 참, 무언가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다음 해엔 기를 쓰고 더 했어. 퇴비 더미 면적도 더 늘려서 말이야. 그 다음부턴 구청이나 시청 사람들 나랑 친해졌어. 그래서 해마다 모낼 때나 벼 벨 때 그 직원들 우리 집으로 왔어. 물론 밥 해 먹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4~50명이 나와 일을 도와주면 한결 도움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집엔 항상 낫이 50가락이 넘게 있었어.

땅이 사람을 바꾸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니까 농사일의 재미와 땅을 사모아 가는, 재산을 불려가는 맛을 느낄 수 있었어. 제법 돈의 흐름이나 또 투자의 의미를 나름대로 터득했다고나 할까. 땅을 곳곳에 많이 샀어. 한번은 인천에 있는 벽돌공장에서 내 논의 흙을 팔라는 거야. 우리 흙이 질이 좋아 벽돌을 만드는 데에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야.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 흙만 팔았는데도 그 돈으로 다른 데다 또 땅을 샀을 정도니까. 농사로 버는 거보다 몇 배는 이익을 얻은 거야. 그때부턴 여기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어. 그야말로 부자가 됐지 뭐. 버스 하던 우리 큰 형님도 내 말을 듣고 버스를 처분해서 땅을 샀는데 수지맞았어. 내 덕이지 내 덕이야, 하하하…….

내가 그런 머리는 있었던 셈이야. 한번은 내가 아버님께 주안에 가서 한 이 년만 살다가 오겠다고 그랬어. 그쪽에 땅을 사놓으면 여기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거야.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거냐며 말이야. 고향을 떠나면 큰일이 나는 줄 아셨어. 그렇게 먼 데로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막 따졌어. 아버님은 모르신다고. 지금은 아버님이 사셨던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다, 여기서 십 년에 벌 수 있는 거 거기다가 땅을 사면 이 년이면 충분히 벌고도 남는다, 라고 말이야. 그런데 아버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어. 난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몰라. 책만 끼고 사셨던 분이라서 돈에는 관심이 적으셨던 거 같아.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용을 쓰냐고 가끔 나한테 말씀을 하셨거든. 아무튼 나는 그때 아버님 뜻을 꺾지 못했어. 내가 말했잖아. 난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서른두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 무렵에 장인 장모도 세상을 떠나셨고.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 조금 더 사셔서 내가 사는 거와 손자들 크는 거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 말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했어. 물론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다 끊었지만 말이야.

내가 일을 할 땐 참 악착같이 했어. 그렇게 일을 마흔 여섯 살까지 했어. 그동안 땅도 많이 장만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일은 그만 하자, 평생을 이렇게 흙구덩이에서 일만 할 수는 없잖은가,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더라고. 재산이라는 게 그래요. 터무니없이 덩치만 커져도 그것이 크게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작전동 사람들 중에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은 집에 쌀을 주기 시작했어. 많이 주지는 못했어. 해마다 팔월 추석하고 설밑에 내 논에서 나온 쌀 20킬로그램짜리를 한 포대씩 주었어. 처음엔 남들이 모르게 몰래 주었다가 나중에 그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때부턴 내가 직접 실어다 주었지. 지금도 그때 내가 준 쌀을 받아먹은 사람들을 만나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 그게 뭐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야. 그저 난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그 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말이야.

연무정(鍊武亭) 사두(射頭)에 오르다

농사일을 그만두고 활을 쏘기 시작했어. 마흔 여섯 살이었으니까, 젊었을 때야. 그땐 내가 제일 어렸지 뭐. 원래 활쏘기는 마흔 넷부터 했어. 그러다가 농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했어. 편장도 하고 교장 부사두 그리고 사두(射頭-사정을 대표하는 사람)를 했지. 내가 16대(1993~94)를 했어. 그때 대회장도 하고.


활을 들고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이시경 할아버지

옛날 일제 땐 활을 몰래 쐈어. 옛날 활은 둥그렇게 크게 휘어져 있어서 그걸 어깨에 멘 채로 화살하고 같이 두루마기 속에 감추어가지고 다니면서 몰래 쏜 거야. 일본 놈들이 쏘지 못하

게 했어. 그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되잖아. 옛날 어른들 말로는 그래.

원래 궁도(弓道)는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전통무예야. 옛날 과거 시험에 무과 과목으로도 채택되었던 무예잖아. 그런 게 일제 치하에서 제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어?

원래 연무정은 부평초등학교 동남쪽 담장 밖 부근에 있었다고 해.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부평도호부 연무청 산하에서는 으뜸가는 수사정(首射亭)이었고. 그 정신과 전통이 남아 일제 때에도 1930년대까지는 여기서 편사(사정(射亭—활터에 세운 정각)과 사정이 평소 닦은 기량을 서로 비교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것) 대회를 했대.

해방이 된 뒤에 처음엔 부평사람들 몇이 주축이 돼서 연무정을 다시 세우려고 그랬어.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 뭐. 지금 여기 연무정이 세워질 때까지 돌아다녔어. 처음엔 저 산곡동 백마장 벌판 논바닥에서 시작했다가 작전동 고속도로 너머에 정각을 세웠다가 철거되기도 하고, 또 계산동 망동산에서 다시 지래굴로 옮겨가기도 하고……. 지금의 계양산 무겁터에 자리 잡은 게 네 번째 만인가 그래. 내가 사두를 하고 다음 해부터인가 인천시에서 관리도 다 해줘.

내가 사두를 맡았을 때 연무정에서 전국대회를 처음 치렀는데, 그때 전국에서 엄청 많이 참가했어. 참가규모로 말하면 전국에서 제일이었어. 상금도 다른 데보다 두 배를 더 주었고. 시에서 지원도 해 주었지만, 그때 내 돈도 많이 들어갔어, 하하하…….

해방 뒤에 인천에 사정이 네 개였는데, 지금은 아홉 개나 돼. 남구 수봉공원에 있는 무덕정(武德亭),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에 있는 남수정(南壽亭), 구월동에 있는 구월정(九月亭), 그리고 남호정(南虎亭)과 문학정(文鶴亭), 서무정(西武亭), 청룡정(靑龍亭), 현무정(峴武亭) 그리고 연무정. 이렇게 해서 아홉 개의 정이 있는 거야. 한 개 정에 사원(射員—사정에 소속되어 활을 쏘는 사람)이 4~50명은 되니까, 전부 500여명은 돼. 한 70명이 넘는 적도 있으니까.

활 쏘는 거 이게 양반놀음이야. 한량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누구나 다 쏠 수 있어. 지금 양반 상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건 그래. 지금도 사선에서 활을 쏠 때 반바지 차림이나 양말을 신지 않고는 활을 쏠 수가 없어. 그러면 뒤에서 어른들이 자기가 입거나 신고 있던 것을 벗어 줘. 그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활을 쏘지 않아, 하하하……. 저 아래 지방은 아직도 그런 규율이 심해. 아무나 활을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여긴 안 그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신분을 따지고 그러나. 그런데 돈은 좀 들어.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편장을 맡아 편사대회 하나 하려면 돈이 꽤 들어.

연무정이 올해 23대 사두를 냈으니 해방 뒤에 정식으로 45년을 쏜 거야. 오래 됐지 뭐.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활터에 나가. 인천에 여러 사정(射亭)이 있지만, 여기 연무정은 사원(射員)들의 궁도(弓道)에 대한 자긍심이 다들 대단해.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그 정신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면 해.

아내의 일기-피난과 시집살이, 그리고 보람



권정수
(77세, 이시경 할아버지의 부인)

나 산 애기요?



이시경 · 권정수 부부

죽을 뻔 했어요. 시집온 지 얼마 안돼서 6 · 25전쟁이 터졌어요. 이 양반은 군대를 가고 우린 피난을 갔어요. 시어른은 집에 그냥 계시고 큰 동서 둘하고 나랑, 그렇게 셋이서 피난을 갔어요. 저 아래 안산 밑에 있는 야목이라는 데 그것도 겨울에요. 아주 정말 죽을 뻔 했어요. 거기서 남의 사랑채 툇마루에서 내가 애를 낳았어요. 이 이는 군대가고, 남자들은 다 나갔고 우리 여자들만 간 건데……. 애를 낳고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큰 동서가 하루 세끼를 김치죽만 쑤어서 주는데, 다 밥으로 보이더라고요. 온통 죄다 먹을 거,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금반지를 팔아서 가지고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그거 아끼느라고. 아유~ 정말 끔찍했어요. 굶어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일주일 만에 애를 업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애가 첫딸인데 지금 쉰여덟이 됐어요. 차라리 그때 피난을 가지 말고 집에나 있었으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열아홉에 어린 조카들만 일곱이 있는 집에 시집을 와서 팔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결혼 일년 만에 군대에 가버리고 저 혼자였어요. 시집오기 전엔 일이라고는 해보질 않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 딸하고 조카들 건사하랴, 그 많은 식구들 빨래를 하랴, 그리고 농사일하랴, 손새 발새가 다 물러 터져 말

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자 같으면 다 도망갔어요. 가을에 고추를 말려서 절구로 찧는데, 엄청 많았어요. 아무리 얼굴을 싸매도 그 매운 고춧가루에 눈물콧물이 범벅이 돼요. 그걸 다시 여러 차례 체로 걸러내야 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일이 아주 시(세) 었어요. 버스가 두 대 있지, 소 있지, 돼지 있지, 닭 있지, 개 있지, 머슴이 다섯이나 있지,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러니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죽을 뻔 했어요. 도망을 가려고도 여러 번 맘을 먹었어요. 한 발은 문간 너머에 놓고 한 발은 안에 놓고서 집을 나가려고 수도 없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땐 솔직히 길을 몰랐어요. 친정집에만 있다가 시집을 왔으니 어떻게 주위의 지리를 알겠어요. 옛날엔 처녀가 나다니지를 않아서 길을 몰랐어요. 바깥이라는 데를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오라비가 외아들인데 무서웠어요. 우리 친정이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안동 권씨. 그때 어디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요. 가문 흐리는 거고 수치이지요. 결국 그게 무서워서 결행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삼년 반 만인가 지나서 제대를 했어요. 그 뒤에도 오랫동안 세간을 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세간 날 땐요 조그만 방 한 칸에 마루가 있고……. 그리고 사과궤짝 하나에 사발 두개 숟가락 젓가락 두개 항아리 하나 동이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았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조그만 집하고 논과 밭을 떼어 주셨어요. 남보다는 형편이 좋은 거였어요. 그때 누가 그렇게 집도 지어서 주고 재산도 나누어 주었겠어요? 물론 남편이나 제가 오랫동안 큰집 일을 해주긴 했지만요. 우리 큰 아주버님이 스무 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물려받으셨대요. 시아버님이 원래 공부만 하셔서 일하시는 데엔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큰 아주버님이 일찍부터 집안일 책임을 맡았대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거지 어멈?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들을 만 했어요. 우리 시어른과 친정 부모님이 거의 몇 년 사이에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세가 높으시긴 했지만 우연 같았어요. 그땐 삼년상을 치를 때여서 계속해서 흰 소복을 네 번이나 삼년씩 입었어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온갖 일하면서 때가 묻어 정말 볼품이 없었지요. 그땐 수도가 있었나, 세탁기가 있었나. 일일이 물을 길어 와서 먹고 빨래를……. 뚜드리고 삶고, 참 힘들었어요. 살림해야죠, 뒷간 재 쳐내야지요, 밭에 나가서 농사일 해야지요. 옷이 깨끗할 날이 없었어요. 거상을 네 번 치르니 옷이 깨끗할 리 없지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게 양반네 풍습이니

따라야지요.

애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해요.

싸움이요?

우린 안 싸워요. 싸우려고 하면, 아이고~ 이 양반은 도망을 가요. 나가서 안 들어와요. 욕하는 것도 없어요. 평생 나 험한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여태껏 화 한 번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애들도 내가 때리고 욕하지, 이 양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아들이나 손자들 야단 안쳐요. 말을 듣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 끔찍하게 생각해요. 어딜 갔다가 늦게 와도 꼭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보고 가서 자요.

손주요?

우리 큰 아들 손주가 아들만 둘, 큰 딸네가 딸만 셋, 작은 아들네가 딸 둘하고 아들 하나, 둘째 딸네가 아들만 둘, 그리고 막내 딸네가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우리 손주가 외손주까지 열 셋이에요. 이 양반이나 나, 이젠 그 보람으로 살아요. 다들 착하게 잘 컸어요.

이 양반, 마흔 여섯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일 참 열심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손에서 일을 딱 그만두었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도 좀 편해졌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입때 활만 쏜 거예요. 돈도 엄청 버렸어요. 아마 집 몇 채 값은 버렸을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전국을 누비니까. 활 쏘러 강원도고 제주도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편사를 하잖아요? 한번에 돈이 한 삼사백 만원은 들어가요. 참석한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먹여야 하니까요. 밥을 시루에 쪄서 두 시루, 세 시루, 그렇게 실어 올려요. 그러니 고기며 부침이며 요리는 어떻고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잘 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해도 출장 뷔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죽도록 일만 했어요.

건강이요? 나이가 들었는데 좋을 리 있나요. 안 좋아요. 그저 손주들 자라서 잘 사는 거 보는 재미, 그 보람으로 살아요. 요즘엔 며느리가 공부를 하러 다녀서 집안 살림도 하고요.

한평생 흙과 함께한 삼산동 이상열 할아버지의 삶



구술자 | 이상열 · 정연임 부부

채록자 | 홍인기(소설가)

구술자 이상열 할아버지(전주 이씨, 덕평군 14대 손)는 올해 연세가 일흔이며, 1938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후정리) 234번지에서 태어나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고향을 떠나 살아본 적이 한번도 없는 토박이다. 또 이상열 할아버지는 안면도 출신의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부친과 삼산동 출신의 평산 신 씨 어머니 사이에서 사남매의 맏이로 태어나 한평생 오로지 농사일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해보지 않고 오늘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통에는 어머니를 미군트럭의 사고로 인해 잃는 등 불우한 유년을 보냈으며, 열여섯의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했다.

그 무렵의 생활은 너무도 빈한하여 밭 한 뙈기 없이 외가에 얹혀살며 일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는데,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이상열 할아버지의 부인 정연임 할머니의 증언에 이르러서는 채록자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 정도였다. 스무 살에 강화 출신 동갑내기 정연임과 결혼한 이상열 할아버지는 슬하에 1녀 2남을 두어 결혼과 분가를 모두 시키고 지금은 옛 집터에 연립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주위에 더러는 이상열 할아버지를 가리켜 부자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에 이상열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그럼 부자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여, 하며 흘려 넘긴다. 농촌이 도시화 되면서 필연처럼 일어난 부동산의 가치상승 탓이다. 그러나 이상열 할아버지에게는 그 의미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물론 삼산동이 개발되면서 얻은 이윤은 분명히 있었다. 농토가 도시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인근에 또 다른 농토를 구할 수 있었고, 나머지로는 자식들 결혼비용이나 부모님의 산소를 모신 작은 산을 구했다.

그러나 그건 소학교 2학년의 교육을 끝으로 들로 나가 몸을 연장처럼 써가며 한 뙈기 한 뙈기 땅을 장만하여 식구들의 배고픔과 따뜻함을 위해 평생 동안 온몸을 사른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없이 시작한 농부가 한 평생 일해서 고작 논 열댓 마지기 정도를 마련한 것,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땅 투기를 통해 쉽게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재에 밝지 못한 고지식함이 더 드러나 보인다.

한평생 처절하게 가난과 싸워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게 해준 땅은 그러기에 여전히 고맙고 소중한 것이어서 여태껏 붙들고 있다는 노부부의 말은 어떤 위대한 예술보다도 한층 더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상열 할아버지는 현재 몸이 성치 않으시다. 같은 연배의 여느 어른들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상열 할아버지는 오늘도 채록자와의 시간이 끝나자, 논과 밭이 있는 박촌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

부평구 삼산동(후정리)에서 태어나다

이상열:

이 동넨 오래전부터 평산 신씨들이 많이 산 집성촌인데, 나는 전주 이씨야. 우리 아버님이 해방 전에 이곳으로 오셨어. 아버님은 원래 안면도 출신인데, 이곳으로 오기 전엔 거기서 쭉 사셨다고 하더군. 아버님은 원래 형제분이 없으셨대. 사고무친이셨지. 이곳에 정착하시게 된 이유는 어머님 친정이 여기였기 때문이라고 해. 어머님이 평산 신씨였거든. 지금은 많이들 외지로 떠났지만 아직도 평산 신씨 일가가 이곳에 더러 있어. 나는 사남매 중에 맏이야. 아우가 몇 해 전에 죽었고 손아래 누이가 군자에 살고 있지.

그때 아버님은 가진 거 없이 맨몸으로 이곳으로 오셨어. 그러니 농토가 있을 리 없었지. 처가를 믿고 여기서 사신 거야. 그때가 왜정 땐데, 일제가 이곳에 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냥 준 게 아니고 그걸 분배농사라고 해. 농사를 짓게 해서 세를 걷어간 거야. 우리는 일곱 마지기, 약 1000평 정도를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세가 장난이 아니었다는군. 땅세로 벼 한 가마니, 물세로 벼 한 가마니 해서, 한 마지기에 벼 두 가마 씩 가져갔대. 그땐 논 한 마지기에서 겨우 벼 세 가마니 정도 나올 땐데, 일년 꼬박 힘들여 농사지어서 그놈들 주고 나면 뭐가 남아? 그래서 맨날 배고팠지. 그땐 거름이 없어서 소출이 그것밖에 나질 않았대. 거름이라곤 뒷간에서 나온 재가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오줌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없고, 똥덩이만 불 때고 남은 재에 버무려서 못자리도 하고 남는 걸로 논에도 조금 뿌린 거야. 기껏 비료라고 해야 그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벼들도 지금처럼 키가 크지 않았어. 농토도 풍족하게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주지도 않았고. 어려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론 일본 사람들이 여길 개간해서 논을 만들고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물길)를 만드는 일에 중국인들을 동원했다고 해.



이상열 할아버지는 한평생 고향인 삼산동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토박이다.

홍수; 부평강

이상열:

내가 기억하기에도 후정리(삼산지구) 여기 이곳은 온통 묵어빠진 갈대숲이었어. 부평 바닥이 거지반 그랬어. 그렇다고 농사짓기에 풍족한 물이 흐르는 곳도 아니었고. 그러기에 왜놈들이 한강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겠지. 하지만 비가 조금만 많이 오거나 장마철엔 이곳 대부분이 물바다가 되곤 했어. 해마다 7·8월이면 여기를 부평강이라고 불렀어. 여기서 저쪽 부개동까지 물바다가 됐어. 한강에서 여기까지 배가 다 들어왔다고 해. 그렇게 이 동네는 고인 물이 제때에 빠지질 않았어.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워낙 좁아 그런 일을 해마다 겪었어. 그런 일이 해방 뒤 한참 나중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됐어. 어떤 때는 5일 이상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어. 그러니 벼나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뿐이 아니었어. 부개동 넘어가는 양편으로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럴 땐 그것도 다 망쳤어.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거지……. 그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던 해도 있었어.

보상? 그런 게 어디 있어. 한참 나중엔 조금 있었던 거 같아. 서너 해를 겹쳐서 그런 수해를 당하면 우리 같은 농사꾼은 거의 굶어죽을 지경이 돼. 홍수 피해라는 게 그래. 홍수가 끝날 때면 거의 가을이 다될 무렵이거든. 그때 무

슨 다른 작물을 심어 대신 수확을 하겠어. 그런 피해를 연거푸 몇 년을 겪어 봐. 어떻게 살겠어? 맨날 풀죽으로 사는 거지 뭐. 무척 힘들었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 그런데 벼라는 작물이 그래. 어떤 해는 그런 큰 장마가 조금 일찍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면 벼가 꽃이 피기 전이야. 물에 며칠 잠겼다가도 그것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거야. 꽃도 틔우고. 반 거리, 반 수확을 하곤 했어. 하여튼 배곯는 데 이력이 났었어.

그러다가 또 한 해 농사가 잘되면 조금씩 비축하곤 했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홍수대책? 그게 또 그래. 정부나 정치인? 항상 말뿐이야, 그때뿐이야. 금방 해결해줄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해. 하지만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통장을 했는데, 하도 홍수피해 때문에 죽을 지경이어서 구청에 들어가 막 따졌어. 와서 봐라! 매년 비가 오면 농토가 바다가 되니,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는가. 물이 확확 빠져나가게 물길을 넓혀 달라! 수도 없이 요구했어. 그런데 그들이 그래.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부천, 김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렵다나, 허허허……. 행정구역 탓만 해. 어떻게 보면 농사꾼들을 얕잡아 봐서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래. 국회의원 선거, 뭐 그런 선거 때나 되면 좀 관심을 갖고 금방 해결해 줄 것처럼 공약을 외쳐대. 그게 그런 거 같아. 여기 삼산이 그렇잖아. 요즘 개발이 돼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 여긴 촌이나 마찬가지였지 뭐. 여기가 더 일찍 개발되어 도시가 됐으면 그 지긋지긋한 홍수피해도 일찍 벗어났을 거야. 물론 나라 경제가 발전해서 그랬겠지만 이젠 옛날 같은 홍수피해는 사라졌잖아. 계양산을 뚫어 물길을 냈잖아. 굴포천 운하니 뭐니 해서 뚫고. 이젠 물이 고여 넘치면 자동으로 기계가 물을 뽑아 퍼 올려 빼내잖아. 진작 저렇게 해서 농사짓는 데 수월했다면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래 농사꾼이 그래. 겨우 먹고 산 거야. 남들만큼? 그럴까? 그건 아닌 거 같아. 겨우 입에 풀칠했고, 자식들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겨우 기본적인 교육 정도 시켰고…….



삼산동에 펼쳐져 있는 농토. 장마철이면 며칠씩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었다.

산과 나무, 참게 새우 송사리 뛰노는 개울

이상열: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지금은 죄다 개발되어 상가나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땐 바로 이 앞과 저곳이 오래된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이 서 있던 산이었어. 저 뒤는 어른 아름으로도 두세 아름이나 되는 가시돋은 엄나무가 우거져 있었지. 그리고 저 끄트머리, 주공아파트 아래로, 지금은 복개되어 숨어버렸지만, 그곳에 새개울이라고 있었어. 지금 저 뒤로 곧게 뚫린 개울(수로) 말고, 된밭(작전동) 쪽에서 흘러와 우리 동네를 지나 굴포천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 그거 말이야. 가을이면 외할아버지나 어른들을 따라서 참게와 새우, 그리고 송사리 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참게가 참 많았어. 망태기(새끼를 꼬아 만든)로 물 속을 훑어 올라가면 뭉텅이로 잡혀. 그걸 끓여먹으면 참 맛있었어.

마을이 드문드문 있었어. 여기 약 60호 정도 있었고, 저쪽 된밭(작전동)에 조금, 그리고 군 지서가 있는 계산동에 조금 있었고, 또 저 편에 몇 집, 그런 식으로 벌판에 마을이 뜨문뜨문 했어. 그땐 모두 걸어 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녔어.

해방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6 · 25

이상열:

여덟 살 때 초등학교(계산동소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해방을 맞았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아. 그런데 학교는 그걸로 끝이었어. 더 배우지 못했어. 아, 천자문은 떼었지. 그때 마을 어른 한 분이 글방을 열고 계셔서 한 일년 다녔어. 마을 아이들 예닐곱이 매일 가서 한문을 배웠어. 아마 그땐 월사금 같은 것도 없었을 거야. 일년에 한두 번 쌀 한 말 정도 주었을까. 모두가 어려웠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늘 배가 고팠던 기억뿐이야. 해방이 되었다고 형편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공부도 더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전쟁이 났는데, 부모님을 따라 걸어서 피난을 갔었어. 무척 힘들었지 뭐. 그때 내가 열세 살이었는데, 아마 아산쯤이었을 거야. 한참을

가다보니, 인민군이 앞질러 가는 거야. 하하하……. 에라, 이럴 바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침묵)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1·4후퇴 무렵이었는데, 매우 추운 겨울이었어. 어머니가 땔나무를 해서 지고 산을 내려와 길을 건너다가 미군 트럭에 치이신 거야. 연락을 받고 영등포 어딘가에 있는 미군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고를 당한 곳이 지금은 고속도론데, 옛날엔 국방도로라고도 했지. 거기가 그러니까 서부사료공장 있는 데, 갈산동 사거리께야. 한참 젊으실 때지……. 내가 열 넷인가 먹었고 막내가 세 살이었는데……. 뭐 그때가 지금 같았나. 전쟁 때니 보상이고 뭐가 있었나, 하나 없었어. 그냥 병원에서 시신 찾아다가 장사지내고 말았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 뒤부터 외할머니가 우릴 길러주신 거야.

정연임 할머니:

나도 시집와서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얘긴데, 그때 이 이네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울먹이며 눈물을 글썽임) 그날도 이 양반 어머닌 며칠째 굶으시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일을 당하신 거래요. (한참 침묵,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림)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지 동네사람이 다 알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뵙지 못해서 잘 몰라요. 다 시집와서 동네사람한테 들은 얘기에요. 언젠가는, 이 양반 생일이 5월이거든요, 그런데 양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 어디선가 쌀을 꾸어서, 그것도 창피하니까 감춰가지고 오셔서 몰래 이 양반만 밥을 지어 주기도 했대요. 남편도 안 해주고.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요. 그땐 뭐 모두 너나없이 그랬대요.

언젠가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하고 이 사람 들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 밥시간이 늦은 거예요. 참 일도 죽어라 했어요, 맨날. 몸이 부서질 정도로 했어요……. 그땐 시누가 시집가기 전이어서 집에서 밥을 해 줄 때였는데 그런데 어린 우리 애들이 밥이 적었는지 남겨둔 우리 밥을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그때 시아버님이 화를 버럭 내시며, 아니, 니 핼미도 맨날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굶기만 하다가 죽었는데 니들 에미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면서 호통을 치셨대요.

이상열:

전쟁 통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어.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어린 동생들 보살피던 것, 그런 거뿐. 전쟁이 끝나고 나선 한동안 동네분위기가 좀 안 좋기도 했어.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여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 전쟁 때 여기도 인민군이 들어왔었잖아. 그때 그쪽에 협력한 사람도 더러 있었대. 죽은 사람도 있고. 아, 그때 내가 열세 살, 열넷인가 일 땐데, 옆 동네 사람 누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명단을 다 만들어 놓았었다나.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 명단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했다고 해. 나야 소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상륙작전이 삼 일만 늦었어도 엄청난 학살이 있을 뻔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름도 기억나, 그 사람 그 명단을 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죽었어, 항진이라고……. 아마 그 뒤에도 그쪽에 몸을 담았던 사람은 죽거나 이북으로 넘어갔다나. 하지만 이 동네엔 사람들이 좋아서 그 이상 큰 문제는 더 없었다고 해.

그리고 그 몇 해 뒤 난 농사일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열여섯 먹던 해 가을부터니까, 처음엔 그저 심부름 하는 정도였지. 우리 농토는 그때까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 그래서 동네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거, 그게 대부분이었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어머니도 안 계신데……. 마을에서 농사철 이외에는 그런 일마저도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님은 동네 어떤 사람 소개로 미군부대에 나가시게 됐어. 농사나 품일로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가 없었던 거야. 미군부대, 왜 거길 조병창이라고도 하잖아. 일본놈들이 무기도 만들고 하던 데. 거기서 아버님은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대. 아버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건 휴전이 되고난 뒤부터였을 거야. 군무원? 아니야, 아무 일이나 막 하는, 청소도 하고 뭐 미군이 시키는 건 다 했대. 미군병원에서도 일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형제들 공부도 조금 하고 그랬지. 하지만 그때부터 난 농사만 지었어. 처음엔 어른들 따라다니며 심부름 정도 하다가 열일곱, 열여덟 살 때부턴 품앗이도 댕기며 어른 장정 몫의 대접을 받고 일했어. 쟁기질 써레질도 배웠지.

두레패에 들다.

이상열:

떵, 떵, 떵, 떵떠더더덩……, 떵, 떵, 떵, 떵떠더더덩…….

새벽 한 여섯 시 쯤, 식전이면 마을의 제일 큰 어른, 영좌님이 뒷산에 올라가 북을 치셨어. 영좌 어른이라 하면, 마을의 제일 어른을 가리켰어. 그 분 명령이면 모두 다 꼼짝 못하고 따랐어. 북소리가 떵, 떵, 떵, 떵떠더더덩……, 마을에 울려 퍼지면 죄다 일어나 마을 공터에 모여. 그렇게 모여 북을 두드리고 꽹과리를 치며 들로 가는 거야. 두레는 네 꺼 내 꺼 없이 다 같이 일하는 공동체 농업이야. 단순하게 품을 지고 갚는 행위의 품앗이와는 다르지. 합동 품앗이라고 할까. 모두 함께,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가진 농토의 차이에 따라 나중에 품값을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열 마지기 가진 사람과 닷 마지기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해 농사를 다 지은 뒤에 닷 마지기 가진 사람은 열 마지기 가진 사람보다 일을 더 했으니, 차이가 나는 닷 마지기만큼 일한 값을 더 받는 것이지. 그렇게 공평하게 품삯을 나누는 거야.

마을의 농기구도 마찬가지야. 공동으로 관리를 해.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모두가 나서서 고쳐놓는 거야. 나도 그렇게 일을 배웠어. 쟁기질 써레질 다 했지. 직접 농기구도 만들어 보고, 송아지 새끼도 내보고…….

그런데 사실 두레패 농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1970년대인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라진 거 같아. 물론 그 뒤에도 두레 비슷한 건 있었지만. 그때 옛날 처음에 내가 농사일 배우고 그럴 땐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시작된 거거든. 그런데 그 뒤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농지도를 했어. 그때부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면 돼.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분들인데. 때맞춰 퇴비며, 거름이며, 논갈이, 논에 약치는 거, 그런 거 지도해 줬어. 요소비료니, 질소비료니, 뭐 또, 농약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때부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우린 넉넉하지 않았어. 겨우 일곱 마지기 논에서 쌀이 얼마나 나겠어. 식구들 먹는 양식도 빠듯했어. 저축?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땐 나 혼자 농사를 지을 땐데, 그래도 그때 아버님이 미군부대로 일을 다니셔서 무척 도움이 됐지. 어쨌든 나중에 그 땅을 불하 받긴 했어. 해방 뒤부터 우리가 부치던 논을 정부에서 사라고 해서 한 십 년인가, 꼬박 갚았어. 해마다 농살 지어서.

결혼과 군대

이상열:

결혼? 허허, 날짜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스무 살 나던 해 가을에 결혼을 했지. 동네 결혼이야. 동네 아주머니가 중매를 섰어. 강화에서 이사 온 집 색시였어. 강화에서 이사 온지 삼 년인가 됐을 땐데, 어떻게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해줬어. 정연임이라고, 저 사람 고생 많이 했어.

젊은 시절엔 나나 그 사람 맨날 흙구덩이에서 살았어. 시골 농사란 게 그렇잖아? 바쁜 농사철엔 애 · 어른이 어디 있어. 하다못해 부지깽이도 제 일을 해야 하잖아. 아녀잔 더하지 뭐. 살림 하랴, 애들 건사하랴, 농사일 하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

나이는 동갑이야. 아직 건강해. 다시 생각해도 그 사람, 고생 참 많았어. 애들 다 키워 내보내고 이젠 우리 둘이 살아.

군대?

애 하나 낳고 갔어. 1960년에 입대해서 1963년에 제대했어. 물론 병장 제대지. 육군 보병 27사단이었지. 처음엔 송도에 있던 유류탱크 관리부대에서 경비를 봤었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처음 배치 받은 데가 인천이었어. 훈련소를 출발할 땐 몰랐어. 기차를 타고 왔는데, 도착해 보니 송도역인 거야, 허허. 그땐 좋았어. 졸병인데도 아주 자주 집에 오곤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선 겨우 육 개월 근무했어. 그러다가 전방 강원도 화천 백암산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나머지를 보냈어. 힘든 일? 그때 군대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건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평생 집에서 아니, 이 동네, 삼산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건 그때뿐이었네, 허허허……. 한평생 들에서 살았지 뭐.

정연임:

결혼? 속았지 뭐. 강화에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동네를 잘 모를 때야. 혼삿말이 오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들에서 이 양반 외할머니를 뵙고 정했대요. 원체 조용하시고 인품이 좋으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질 않으셨대요. 어이구, 내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을 거야. 그때 이 양반 어머니는 안 계셨고……. 이 양반이 사남맨데 밑으로 어린 것들이 줄줄이 있

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그것도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집은 한 두어 평 되었나. 그것도 외가에 얹혀살다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처가를 나와 근처에다 손으로 뚜드려 대강 만든 집이었어요. 거기서 어린 것들 데리고 홀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시집올 때 가져온 장롱을 가운데 놓고 머리맡에 요강 놓고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잤어요, 우리 식구들이. 농토? 농토가 어디 있어요. 아마 왜정 때부터 부치던 나라 땅 조금 있었어요. 그것 갖고는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 많이 했어요. 품도 팔고 하면서……. 마을 사람 도움도 많이 받았지 뭐.

그리고 이듬핸가, 어이구~ 이 양반이 군댈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때 아버님은 미군부대에 일을 나가셨어요. 내가 농사도 짓고 시누 시동생들 다 키우고 했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밭도 쪼끄만 텃밭 정도밖에 없어서 거기다 채소 같은 거 길러서 걸어서 백마장까지 머리에 이고 가서 팔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김장배추 길러서 그거 속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시래기 같은 거만 무쳐먹고 좋은 건 내다팔고 그랬어요. 그래야 애들 학용품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부평에 자동차공장이 막 생길 땐데, 나 거기 공장 짓는 데, 벽돌 쌓는 일 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시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그런 데 나가면 바람난다고 하면서……. 참, 별일 다 겪었어요.



사진을 찍을때마다 고개를 돌리던 정연임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한다.

평생 농사만 지은 거, 그거 자랑 아니에요.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뭐. 나만 고생시키고……. 나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십 원 한 장 드려보지 못했어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을 잇지 못함. 한참 격정을 누른 뒤 다시 말을 이음) 가까이 살면서, 한번도……. 농사꾼이 어디 회사 댕기는 사람처럼 돈이 있어야지요. 회사 댕기는 사람은 매달 그래도 쌀 몇 가마씩의 돈을 만지잖아요. 우린 안 그래요.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 수확을 해야 그나마 돈을 조금 만져요. 우린 우리 먹고 살기에도 참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지어온 힘겨운 농사, 그래도 보람이나 즐거웠던 기억

이상열: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거 같아. 늘 넉넉지 않아서였겠지. 일찍부터 일이나 했고. 가정환경이 그래서였을 거야. 아하, 그래 그런 건 있었어. 해마다 팔월 추석 무렵이면, 동별로 부평 어느 학교 마당에 모여 두레패 풍물대회를 벌였어. 장구며 꽹과리 장구 피리, 치고 불며 놀았어. 요즘 말로 풍물경연 같은 거지 뭐. 그래서 어쩌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신나게 놀았던 거 같아. 나? 난 어려서 못 쳤어. 재주도 없고. 그냥 따라다녔지 뭐. 그땐 정말 애였어.

정연임:

농사지으면서 즐거웠던 게 뭐가 있어요? 쌈이나 하는 게 재밌으면 재미있을까. 지겨워 죽겠어요. 일 하기 힘드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고. 기껏 해놓으면 잘했니, 못 했니, 하고. 밭은 내 차지고 저 양반은 논 담당인데……. 암튼 그래요, 아무래도 난 여자라서 밭농사에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밭은 마른 땅이고 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쩌다 고구마나 고추 모 심은 게 잘못되면 아주 날 잡아요. 난 하느냐고 한 건데, 그럼 어떡해요. 또 사다가 죽어서 빈 데 심으면, 그 솜씨가 그 솜씨지 사다 심으면 돈만 버리는 거라며 또 구박을 줘요. 그래도 어떡해요. 혼자하면 힘들고…….

이상열:

그래서 기계를 샀어. 아마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먼저 샀을 거야. 경운기며 트랙터며 콤바인이며 이앙기, 그런 거. 그 전까진 소로 다 했는데, 그거 사람이나 소 다 골병만 들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소 팔아서 경운기를 산거야. 그런데 그게 값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기계도 중곤데 소 판 게 모자라서 더 보태갖고 샀어. 참 편하더라고. 아무래도 소나 사람이 하던 거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동네 몇 사람과 어울려 나머지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그리고 벼 말리는 건조기까지 다 샀어. 다 빚이었지 뭐, 농협 융자. 그거……, 그 빚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 한 해 꼬박 벌어 그거 갚는 거여. 맨날 허덕이는 거지 뭐. 농사가 그래,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 내가 그 기계를 이십 년 동안 썼어.

고치는 거도 아주 잘했어.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훤히 알아.

정연임:

어이구, 그거 다 빚으로 산거예요. 더 힘들었어요. 첨엔 사람들이 나와 다 구경했어요. 커다란 기계가 논도 갈고 로타리도 치고 또 비행기 같은 게 모를 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심은 거 같지 않고 모가 물속에 쏙 들어가 박혀서 첨엔 저게 벼가 될까, 했어요. 그런데 모를 심고 한 달이 지나도 자란 거 같지 않고 그대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 놈이 농사 다 폐농(망친다) 친다고. 돈 처들여서 기계를 사더니, 남의 논은 벌써 시퍼렇게 벼가 자라 키가 산 같은데, 우리 논엔 벼는 없고 훤하게 바다 같은 하늘만 떠 있다는 거예요. 막 성화를 부리셨어요. 논에서도 우리 아버님만 나타나면 같이 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죄다 피했어요. 그러면 집에 오셔서 애들한테 성화를 부리셔요. 나한테도 그러시고…….

언젠가 우리 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만하시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농사는 사람이 지은 거보다 더 잘됐어요.

이상열:

허허허……. 그러셨어, 우리 아버님. 벼를 말리려고 건조기에 넣고 연탄을 피워대니까, 뭐 벼를 볶아놓느니 태우니 하며 대단하셨어.

정연임:

그런데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 일이 더 많아져요. 남의 농사까지 짓게 되고 동네일까지 다 해야 하니 사람이 남아나요? 나중엔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저러다 사람 잡겠더라고요. 일이 끝이 없어요. 그래도 빚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이 양반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더 고생했어요.

어이구, 지겨워요. 지금은 전화나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땐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일하려면 새벽에 내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사람을 불렀어요. 심부름은 내가 다 했어요.

우리 애들 참 착해요. 누구 하나 큰소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농사지으며 남

만큼 잘 먹이고 잘 입혀 키우진 못했어도 다 잘 커줬어요. 그게 보람이면 보람이지요.

이상열: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중에 농사짓는 놈은 없어. 2남 1녀인데, 요즘 누가 그런 힘들고 타산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나. 시키지도 않지만. 큰 애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작은 애는 컴퓨턴가 뭔가 가게를 하는데, 신통치 않은가봐. 다 근처에 살아. 작전동하고 계산동. 딸애도 출가했고. 다들 사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가봐. 그 애들도 어렸을 땐 고생 많았어. 그땐 중·고등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저 너머 계산동, 부평까지 가야했어. 버스도 여기선 1970년대 말쯤에 강화로 다니는 노선이 생겼어. 그리고 얼마 뒤 부평으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는 시내버스가 들어왔지. 그전엔 차라는 게 어디 있어, 걸어서 학교를 다녔지 뭐. 둘째부턴 여기 삼산초등학교가 생겨서 댕기고. 그전엔 초등학교도 계산동이나 부평으로 다녔어. 여기서 부평까지 십리, 4킬로미터니까 어른 걸음으로 한 40분 걸렸어. 그러니 애들 걸음으론 한 시간이 더 걸렸던 거리야.

옛날엔 홍역이나 돌림병으로 애들을 잃기도 했어. 애들이 아프면 지금처럼 병원을 빨리 갈 수가 없었어. 부평이나 인천까지 나가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는 게 그러니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 정도로 치료하다가 애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 그래도 난 복이 있었던 거야. 애들이 건강하게 컸어. 그리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 터울이 꼭 5년씩이야. 없고 어려운 형편에 그것도 큰 덕이지. 한 녀석이 다섯 살이 되고 난 뒤에 동생을 봤으니 엄마가 애들 기르는데 조금 수월했지. 애가 다섯 살쯤 되면 간단한 심부름 정도는 할줄 알거든. 그리고 또 오년 뒤에 막내가 생기니 남들 보단 편하게 키운 셈이고……, 허허허. 그땐 애 엄마도 일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어. 맨날 흙바닥에서 살았거든. 흙 속에서 살고 흙바닥에서 자고……. 동네에 나보다 늦게 장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은 애가 여섯이야. 나보다 배는 더 낳았어, 허허허.

우리 애들, 착해. 다 건강하게 자랐고. 이날 입때껏 속 한 번 썩인 적 없어. 참 고마운 일이야. 늘 감사하고 있지.

손주들도 벌써 다 컸어. 대학생도 있고 제일 어린 녀석이 중학생이야. 요즘

엔 애들 가르키는 게 다 돈인데, 다들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가봐. 그래서 내가 그러지 손자들한테. 할애비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공부만 열심히 잘해라. 땅이라도 팔아 뒤를 대겠다, 라고 말이야. 하하하…….



이상열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흙구덩이에 묻혀 고생을 함께해 온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이상열:

아무튼 아버님이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재혼도 하지 않으셨지. 자식들을 위해 사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린 조금씩 땅을 사 모을 수 있었어. 땅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농사도 점점 재미있어졌어. 열여섯 살부터 한 사십 년 농사를 지어서 이제 동네에서 농사꾼으로서 아주 쳐지지는 않을 정도가 된 거지. 그렇다고 엄청 많은 농토를 장만한 건 아니고, 이젠 농사지을 만 하다, 할 정도지. 겨우 일곱 마지기, 땅 천 평 가지고 그것도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십 년 만에 삼천여 평의 내 땅을 만들었으니 엄청 성공한 거지. 내 자식들 크게는 아니지만, 웬만히 공부도 시켰고. 여기 내가 살아온 땅은 내 땀이 떨어져 스민 곳이야. 그렇게 땅은 나한테 고맙고 소중해.

그런데 농사를 지을 만 하니까, 개발이다, 뭐다, 하는 거야. 말은 있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땅을 내놓으라니,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에겐 참 안 좋더라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거 완전히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냐? 보상이야 물론 있었지. 하지만 그게 엄청 후하게 쳐

준 것도 아니야.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정도였지. 그러면 뭐해. 우리 같은 사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다른데 가서 대신 땅을 사면, 땅에서 저절로 농사가 지어지나?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몇 배의 힘이 들어가는지 아시나? 아무튼 이젠 보다시피 마을이 다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변했잖아.

1980년대부터 얘기가 되더니, 1990년대 초부터 개발되더라고. 여기 삼산지구는 부평의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좀 늦은 편이지. 그때까지 여긴 촌이었지 뭐, 진짜. 나도 여기 저기 서너 군데 논이 있었어. 조금씩 형편이 될 때마다 장만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내줬어. 처음엔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더니 나중엔 주변 땅값이 치솟으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낮게 보상해 주더라고. 허허, 참.

집 한 채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상열:

저 너머 박촌에 논을 샀어. 세 차례에 걸쳐서 논 삼천 평과 밭 천이백 평을 샀어. 그리고 강화에 자그마한 선산도 마련하고. 거기에 아버님을 모셨어.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 마련한 것이라 그래도 마음 한 군데 편하긴 해.

재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한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사시다가 가셨어.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자식들하고만 사셨지 뭐. 재혼하면 애들 고생한다고.

정연임:

뭐가 있어야지 재혼을 하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시집을 와요. 다 도망치고 말지. 뻔하잖아요. 어린 자식들 딸리고 재산 없는데 누가 뭘 보고 시집을 오겠어요. 지금도 재혼하려면 억대가 든다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내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제가 삼십 년을 모셨어요. 시집올 때 시아버님이 쉰이었는데 팔십에 돌아가셨으니.

이상열:

응? 그래, 건강하셨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셨어. 언젠가 담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은 좀 있어. 그때 한 번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얘, 인제 병원엔 다

시 안 간다, 하시더라고. 하하하.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나봐. 저희들 생각만 하지 노인네를 응급실 침대에다 담요 한 장 안 덮어드리고 놔두었었나봐. 굉장히 추우셨대. 그 뒤론 병원이라면 끔찍해 해셨어. 건강하신 편이었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식사를 잘 못 하시더라고. 식사 양이 갑자기 줄더니 나중엔 겨우 우유 몇 모금 넘기시는 거야. 내가 우유를 드리니까 간신히 몇 모금 목으로 넘기시더라고. ……그날은 우리 모를 내는 날이었어. 내가 나가면서, 저 우리 오늘 모 내요. 하니까, 어, 그러냐? 하시면서 잘하고 오라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그날 옆집 할머니가 논으로 급하게 날 찾아온 거야. 아버님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달려가보니까 아직 정신은 있으셔. 그래서 동생들을 다 불렀지 뭐. 내 형제들 모두 임종했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더라고.

강화에 모셨어. 응, 강화에 있는 산. 뭐 선산이라기보다는, 그거 토지공사에서 보상받은 거 갖고 사두었던 거야, 900평. 언젠가 아버님이 동네 초상집에 가셨다가 아마 화장장하는 걸 보고 오셨나봐. 하루는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애야, 난 화장하지 마라. 그거 좋아 보이지 않더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을 사놓았던 거야.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지. 좋아하시더라고. 산을 사고 몇 해 뒤에 이 근처에 있던 어머니 묘를 그쪽으로 옮겼어. 그때 아버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

1992년까지는 내가 농사를 지었어. 처음엔 쟁기 써레질 손모내기부터 시작해서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로 하는 기계농사까지 다 해봤어. 농사에 관한 건 안 해본 거 없어. 그런데 여기 삼산동 땅을 토지개발공사에 넘겨주고 박천에 논을 구해서 옮긴 뒤부턴 논농사는 남을 줬어. 이 동네에 전문적으로 농사만 짓는 사람이 있거든.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인데, 아주 잘해. 남의 논을 수만 평 짓고 있어. 그래서 나도 1992년부턴 그이에게 논농사를 줬어. 요즘 누가 그런 힘든 일 하나. 더군다나 나이 먹어 힘도 부치고 한데.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줘버렸어. 논 한마지기에서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받는 건데, 우리 식구 애들과 함께 한 해 나눠 먹는 양식은 돼. 여기선 논 한 마지기를 일백오십 평치니까, 삼천 평이면 이십 마지기가 되는 거지. 다른 데서는 이백 평치는 데도 있어. 내 논에서 삼분지 일만 받는다는 게 일년 도지인데, 논 삼백 평에서 쌀을 세 가마니 받으니까 전체에서 쌀 삼십 가마니 받는 거야. 쌀 삼십 가마니래야 오백 만원도 안돼. 그게 일년에 버는 거야.

아, 그 사람들. 남의 농사를 짓는 거, 그거 힘들지. 그렇지만 다 기계로 하는 거니까, 옛날처럼 육체적으로 크게 고단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알기로 그이 네가 한 해 농사짓는 것만 해도 삼만 평은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을 거야. 한 만 평정도 가지고는 기계 값도 못 뽑아. 기계 값이 웬만해야지.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왜 가끔 길에서 보잖아. 커다란 거. 짐도 실을 수 있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하는 거 말이야. 트랙터라는 건데, 그게 좀 크다 하면, 오천 만 원 일억이 넘어요. 농사지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걸 사겠어. 그러다가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꼼짝없이 손해 보는 거야. 나도 경운기부터 트랙터까지 다 만져보았지만, 순수하게 다 내 기계는 아니었거든.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관리했어. 마을의 농사를 공동으로 다 짓고 난 뒤에 집집마다 똑 같이 가진 농토만큼 사용료니, 기계고장수리비니, 기름값이니, 해서 관리비를 분담했어. 그렇게 하니까 농사도 짓고 기계도 굴렸던 거야.

그거 지금은 다 팔아치웠어. 그때 농사짓던 사람들 지금은 거지반 다 손을 놓았어. 땅 값 보상 받아서 건물 사가지고 세받아 먹는 사람, 어디 딴 동네로 이사 간 사람 등, 여럿 있지. 나 같은 사람이나 미련스럽게 또 농사지으려고 논을 샀지. 그래도 여기 삼산동에 우리 또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물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여기 남은 또래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매일 노인정에 나가는 거지.

박촌의 논들을 영농 전문 회사에 맡기다

이상열:

지금은 박촌에서 밭농사만 해. 그것도 처음엔 논이었어. 그런데 언젠가 어떤 건축업자가 와서 논에 흙을 퍼다 붓는 거야. 아마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이었겠지. 마침 바로 옆 논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주변을 흙으로 메워서 화훼단지를 만든다나. 해서 나도 엉겁결에 승낙해버린 거야. 물론 그들이 토지용도를 밭으로 해놓았어. 큰 길에 붙은 땅은 점점 그렇게 용도가 바뀌어 가. 벌써 화원이 그쪽에 엄청 많아. 땅 주인들이 세를 놓는 거야. 내 밭은 큰 길에 붙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있어. 해마다 콩이나 팥이나 뭐 그런 거 심어. 하하하, 혼자 심심해서 소일하는 거야. 평생 하던 거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

은 없어.

논이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회사에 맡겼다지만, 밭이야 어떡해. 삼산동 여기서 매일 차를 끌고 거기까지 다니는 거야.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 사실 집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논밭이 있는 박촌으로 옮겨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 평생 동안 살던 삼산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

왜 아파트 같은 데로 이사하지 않느냐고? 허허허, 난 애초에 아파트에서 살 마음이 없었어. 농사를 지으려면 아파트는 불편해. 삽이며 괭이 호미 낫 같은 걸 어디에다 놓아두나. 기계나 수확한 곡식들을 보관하려면 창고 같은 걸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농사지어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그게 말이 돼?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지금 사는 집도 마찬가지이긴 해. 몇 해 전에 원래 있던 집 뒤 공터에 옛날 집은 헐어버리고 집을 새로 지었어. 그게 연립주택 같은 거야. 총 10가구인데 죄다 세를 주고 우린 꼭대기 층에 살아. 그래서 자잘한 농사 도구들을 둘 데가 없어. 뭐 농사 잘 그만 두었지 뭐.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이상열 할아버지 부부에게 농사일은 여전히 기쁨이고 희망이었다.

밭농사도 그래. 이젠 힘들어.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외사촌 하나가 저 너머 임학동에 사는데, 밭을 반으로 뚝 잘라서 아무거나 부쳐 먹으라고 떼 주었어. 몇 해 동안은 잘 됐어. 팥도 심고 콩도 심어서 재미가 있었어. 집에서 먹는 푸성귀 정도는 기본으로 심었고. 허허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 얼마나 가물었는지……. 죄다 말라비틀어져버렸어. 조금이라도 건지려

면 매일 양수기로 물을 퍼주어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경운기를 돌려서 양수기를 돌려야 하는데, 기름값이 만만하지 않아. 논은 그나마 수로 시설이 되어 가뭄 때에도 논바닥에 물이 마르지는 않았어. 결국 밭에선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래도 논밭엘 안 나가면 금방 죽을 거 같아. 그래서 하루 한번은 들에 나가. 차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차가 있거든. 논에 다니려고 산거야, 늦게.

운전면허? 있지. 환갑 때 땄어. 박촌이 멀어 도저히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잖아, 하하하…….

논과 밭, 땅의 말

이상열:

박촌도 머지않아 금방 개발될 거 같아. 자, 보라구. 벌써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큰 길이 뚫리고 여기 저기 큰 아파트가 들어서잖아. 정신없어. 농사지을 땅은 자꾸 줄어들어. 참 이상해. 옛날엔 농토가 많으면 얼마나 든든했어? 부자지, 진짜 부자. 그땐 먹을 게 가장 중요했어. 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래? 농사를 옛날만큼 짓지 않아도 먹을 게 넘쳐나. 해마다 쌀이 남아 돈대잖아. 농사꾼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알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가.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 땅값은 오르겠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 남들은 나보고 부자라고 해. 허허허……. 여기 박촌에 있는 논밭도 아마 머지않아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변하겠지 뭐. 그래, 솔직히 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한평생 농사나 짓고 살았어. 그래서 겨우 논밭 몇 마지기 남겼어. 그래도 그거 뭐 서운할 것도 없어. 내 자식들 내가 못나서 남만치 많이 가르치지도 못했고 넉넉하게 먹여 기르지 못했으니 땅 조금 남겨줘도 괜찮다고 생각해.

정연임:

이 사람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뚱뚱하지 않고 호리호리 했어요. 힘도 좋고 얼마나 날랬는데요. 지금은 병이 들어서 몸이 이래요. 신장도 안 좋다, 심장도 안 좋다, 뭐 좋은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오늘도 병원 예약하고 왔어요. 그

런데도 자꾸 밭에 나가려고 해요. 그래봐야 일은 한나절도 못해요. 논농사야 작년처럼 영농회사에 맡겼지만, 밭은 아직도 직접 하려고 해요. 몸도 옛날 같지 않은데……. 올해도 고구마, 감자, 콩을 심었어요. 애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줘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몸에 흙 묻히는 거 좋아 하나요? 이 양반은 애들 고생한다고 웬만해선 부르지 않아요. 먹는 건 저희들이 더 먹는데요.

이 양반 평생 농사만 지었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주변머리 없고 어떤 딴 생각도 할 줄 모르고, 바보 같죠 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 동네에서 우리만큼 여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다 팔고 다른 데로 떠나거나 없앤 이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농토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저 농사 아니면 할 게 없는 줄 알고 자칫하면 평생 모은 거 연기처럼 없어져버릴 것 같아서 바보처럼 악착같이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이 양반 다른 데서 돈 주고 뭐 사드시질 않아요. 그냥 굶어요. 돈을 쓸 줄 몰라요. 나도 그렇지만요. 그건 우리 딸도 그런가 봐요. 그 애 처음 시집을 가서, 지금은 요 근처에 살지만, 서울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내가 얼마만에 딸네를 갔는데, 그때 그 집 쥔 여자가 그래요. 따님이 얼마나 알뜰한지 그런 새댁 난생 처음 보았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불 한번 켜놓고 나오는 걸 보지 못했대요. 그런 걸 우리 사위가 아는지 몰라. (대견함과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움이 밴 웃음)

이상열:

몸 아픈 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더 없어 바랄 거. 아이들, 나 그 애들에게 특별히 남보다 더 가르치고 잘 입혀 키우지 못했어도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더 바랄 게 있나.

그런데 밭에 약을 쳐야 하는데 날이 흐렸네. 그래도 나가 볼까.

부평구의 "노른자위" –부평 미군기지

구술자 | 이광희
채록자 | 홍명진(소설가)

이광희 씨는 현재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부평지부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1968년부터 이곳에 몸담아 일해 온 지 벌써 40여 년이다. 한국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때 병참기지인 조병창 자리에 주둔한 부평지구의 미군부대는 1960~70년대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신촌 지역에 기지촌을 형성하며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1970년 중후반부터 주요 부대인 애스컴 총사령부와 20지원사령부가 대구 왜관 지역으로 부대를 이전해가면서부터 미군부대는 서서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군들과 한국인 종업원 등의 군속들을 모두 합쳐 몇백 명밖엔 남아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전국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보급창이 건재하며 부평구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자리에서부터 화랑농장을 거쳐 산곡동 일대까지 예전에 미군부대가 앉았던 지역을 일일이 답사하며 이광희 씨의 구술을 채록했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959년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군부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게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허락하지를 않았고 특히 미군 측에서도 노동조합을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한국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설립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때는 외국기업체가 별로 없었을뿐더러 우리 같이 미군을 상대하는 노동조합은 없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체는 기업체가 생긴 것과 동시에 얼마 안 되어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인천만 해도 한국유리, 대성목재, 대우중공업, 인천제철도 노동조합이 있었거든요. 또 지금 항운노동조합으로 바뀐 부두노동조합도 있었고 운수 노동조합도 있었고 훨씬 나중에 인천시청 노동조합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인천에서는 신흥동인가 해변가 그쪽에 있는 제일제당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안 됐어요. 또 동일방직 노동조합도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노사분규 나가지고 여종업원들의 똥물투척사건도 있었고 부평 반도가발인가, 거기서는 여자들이 옷 벗고서 시위까지 하고 대단했었잖아요.

부평에 발을 들여놓다

내가 여기 부평에 처음 왔을 때가 총각 때였어요. 스물여섯 살 땐가부터 이쪽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때가 68년도였어요. 내가 43년생이니까 한 40년 된 거죠. 송림동에 살면서 이리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는 큰 버스가 없고 시발택시같이 버스도 쬐끄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뚜드려서 만든 그런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부평 삼거리에서 넘어오는 백운고가도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백운고가가 없었고 일반 철도 건널목만 있었어요. 건널목에 철도청 직원이 나와서 전차가 지나가면 차나 사람이 못 건너가게 수신호를 보내는데 따르르릉 소리가 울리면 사람도 기다리고 차도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옛날부터도 지대가 좀 높았어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땐 데 차가 그 언덕길을 쉽게 올라오질 못했어요.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요. 겨우, 부르르릉거리면서 힘겹게 언덕을 겨우 넘을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교통사정이 어려웠어요. 연료도 그렇지만, 차의 상태도 썩 좋지를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땐 또 택시도 흔치 않았지만 일반인들은 타기도 어려웠어요. 68년도에 내가 여기서 일할 때만 해도 지금 부평시장이고 뭐고 전부 다 논밭이었어요. 그때 논 한 평에 내가 물어보니까 천 원짜리면 좋은 거 사고 오백 원짜리면 좀 떨어지는 데 살 정도였으니까. 쌀 한 가마니가 그 당시에 삼천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땐 행정구역이 부천이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시에 편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평구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부천이 따로 떨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엔 부평이 인천시 북구였는데 지금 서구, 중구 이것이 부평하고 같이 전부 다 북구였어요. 그 인구가 15만 명 내지 한 20만 명 고기서 왔다갔다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부평은 특히나 미군부대 주변이 주축이 돼가지고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 같은 걸 만들어서 파는 상점이라든가, 세탁소, 술집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미군들을 상대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내가 처음 부평으로 왔을 때는 대우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저 큰 공장이래면 백마장 저쪽에 한국베어링이라고 있었구요. 그 외에는 기업체가 거의 업다시피 했어요. 부평 여기 미군부대에 한국 종업원이 한 사천 몇백 명이 있을 땐 데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미군부대를 토대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전부가 다 미군부대를 근거지로 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 부평지부의 설립

미군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세계 제2차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쪽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미군들이 일부 들어왔고 한국전쟁이 나면서 이 기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아마 53년도쯤일 거예요. 여기 미군 군사기지가 된 이 자리가 일제 때 일본 병기창이었어요. 지금 신촌 쪽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부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다 일본 병기창 자리거든요. 20지원사령부와 애스컴댓보 사령부가 있던 곳이 바로 조병창 자리예요. 일본 놈들이 들어가고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조병창 건물을 헐고 지은 게 아니라 조병창 건물도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굴뚝이 높이 솟아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새로 지은 거지만 전에 있던 베이커리공장 건물이 조병창이 썼던 바로 그 건물이라구요. 얘길 들어보니깐 여기에 미군부대가 형성이 된 것이 지리적으로 조건이 좋았던 모양이더만요. 안개도 잘 끼고 그래서 적군이 탐색할 적에 탐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해가지고 여기 부대가 형성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부대에서 직접 노무자로 일한 적은 없어요. 바로 여기로 와서 노동조합 일을 봤으니까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게 한국노총 인천본부에 근무하고 있을 땐데, 그 당시 부평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 지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하나 더 쓰게 된다 해서 오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가 월급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하하하. 그 당시 은행 지점장이 삼만 얼마 받는데 그거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부대도 들어갈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안 놔줘요. 안 된다고, 같이 일해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부대에 취업도 못했었죠. 지금 내 생각에는 그때 부대로 들어갔으면 돈도 더 벌었을 텐데. 하하하.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쭈욱 이 일을 해오면서 우리 한국 종업원들하고 미군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일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 같은 거는 거의 다 파악하고 있죠.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무하잖아요. 말하자면 미군부대의 한국종업원들이 그 식이란 말예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미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왔을 적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가 한 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노동조합은 있었어도 정부에서 군무 관계니깐

인정을 안 해주고 또 미군 측에서도 인정을 안 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은 많지만 미군들한테 탄압을 받아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지킬 만한 뭐가 없었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조건 미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땐 미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 부대 앞에 매일 나가서 혹시 불러줄까 하구선 기다리는 그런 식이었다고요. 그렇게 부대 앞에서 기다리면 미군들이 너, 너, 너, 이렇게 몇 명 들어와 지목을 해서 채용해서 썼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 종업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자 해가지고 미군 노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비도 직접 거둬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정식 노동조합 설립 받은 거는 62년이에요. 그때 명칭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이 아니고, 전국 외국기관 노동조합이었어요. 전국 외기노조 부평지부라고 그랬죠.

4 · 19때도 그렇고 5 · 16때도 미군부대 안에선 일절 파업의 움직임 같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군부대 여기는 우선은 안보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사실상 파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미군들하고의 충돌도 크게 없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사건이 많이 났었지만 그게 크게 이슈화되고 그러진 못했죠. 사건이라고 해봐야 뭐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 빼서 쓰는 것, 그런 정도였지만 그건 미군들도 일부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이 생산이 되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엑스 계통을 통해서 전자제품들 몰래 빼서 팔아먹고 했는데 그게 다 미제, 일제 그런 제품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제품이 없었어요. 깡시장 있잖아요. 깡시장에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은 미군들 상대로 양색시들이 사서 나른 거고, 도둑질을 해서 먹다가 걸리면 퇴직금 몰수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거 알면서도 증거 없이 해고시키지 말라, 미군들하고 노사회의 열어가지고 증거가 없지 않느냐, 뭘 가지고 우릴 도둑질을 했다고 하느냐, 물건 없어진 걸 어디서 없어진지 모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구제도 하고 그랬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우리 한국종업원들 마음대로 해고 못 시키고 옛날에 노동조합 없을 적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문에서 미군들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만둬 하면

그만두고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미군 측에서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암묵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밀어줬어요. 왜 밀어줬냐면 우리 애로사항을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파업 같은 거 강력하게 하더라도 눈감아 달라. 겉에서는 제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국익 차원에서 조금 봐달라 하면 눈감아 주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초에는 왜 파업을 했느냐면 권익이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호를 못 받았어요. 단체 각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였으니까.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인사규정이 생기고 임금 협정이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고생들 많이 했죠. 선배들이. 왜냐면 아부해가지고 벌어먹을라고. 그런 여자들도 있었어요. 60년대 초서부터 70년대 초까지는 분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업 같은 건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그 당시엔 파업의 권한이 없었다니까요. 국내 기업체 파업은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도 15일 냉각기간을 둬서 노사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냉각기간이 70일이었고, 지금도 70일이에요. 그것도 노동조합에서 투쟁해서 만든 게 그래요. 70일 냉각기간이 지나도 파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또 조정기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뤄져서 안 될 시에 파업을 하되 소방원, 전공, 주요부서는 또 파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식당, 좌우지간 그런 데는 파업을 또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깐 우리는 파업을 하게 되면 경비원들부터 파업을 할라 그랬는데 안보관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고 그랬죠. 그 이후, 70년대 후반에서부터는 노사 간의 안정,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투쟁을 해봐야 국익차원에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로 거 괜히 불편만 하고. 미군들 왜냐면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식사관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송기로 먹는 음식을 날라야 되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파업하면 미군들이 먹는 음식들까지 올 스톱 되요. 그러니 파업을 못하게 해놨고 우리도 파업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군하고 근로자들하고 관계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노동조합이 역할을 하면서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미군들도 우리 한국 종업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현 우리 노동조합의 지부장도 최근에 상도 받고 그랬지만 도리어 미군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줘요. 옛날에

는 뭐 아주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불법 파업을 했을라고요. 지금은 미군들하고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일도 거의 없어요. 싸움하는 건 술집에서, 미군들 나간 바깥에서 트러블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 종업원하고 트러블 있는 건 없었어요.

미군부대에 카츄샤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았어요. 여기 부평 미군부대에도 예전엔 카추샤가 많이 있었어요. 카추샤들도 인기가 그 당시엔 많아가지고 시험보고 들어올라고 그랬어요. 카추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면 미군부대에 들어가면 미군들하고 상대하니까 영어를 배울려고. 그 사람들은 노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같은 한국 사람이고, 도리어 동포애 같은 걸 느껴서 카추샤들이 뭐 하나 더 주면 줬지, 적대관계는 아니었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 있는 데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뭉쳐요. 뭉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지 고자질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고자질하면 몰매 맞아요. 옛날엔 카추샤는 미군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대우를 받되 미군들이 카츄샤들 월급을 우리나라 정부한테 줬어요. 정부한테 줘가지고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군에 맞춰서 지급을 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미군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렇게 맺었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하다가 미군 측에서 카추샤는 너희 정부에서 맡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맡게 된 거예요. 지금은 카추샤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 수가 훨씬 줄어서 얼마 없어요.

사실 미군부대가 형성이 되면서 부평이 발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땐 기업체고 뭐고 없었으니까요. 5 · 16혁명 나고 나서 부평에 4공단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발공장이니 뭐니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부평이 자꾸만 공업단지가 조성된 거예요. 4공단 생겨나면서 여기 공단이 들어앉았는데 그때 대우자동차가 들어오죠. 대우자동차 전에는 신진자동차라고 있었는데 좌우간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다른 회사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덩달아 부평 지역이 아주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돈이 상당히 부평 경제에 활력소가 되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6 · 25 사변 겪고 나서 살기가 힘들 때, 그땐 연탄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때고, 그렇잖으면 나무를 시장에서 사다가 방도 뎁히고 끼니도 끓여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땔감

도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생활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가스가 있고 석유난로가 있고 그렇지만 그땐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옛날에는 갈탄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전부 다 그런 걸 땠어요. 갈탄 아니면 연탄을 때기 시작한 것이 전쟁 나고도 한참 후였어요. 계산동이니 산곡동 이 일대가 다 옛날엔 농사를 짓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돈이 흘러나올 데가 없었다고요. 부대가 들어서면서 공업도 발달이 되고 한 거예요. 예전엔 저기 화랑농장 가는 길에 있는 저쪽 산 밑의 한국군부대, 거기도 전부가 미군부대였고, 대우자동차 있는데도 미군부대였고, 그 앞에도 미군부대, 아파트가 들어선 백마장 쪽 거기도 전부 다 미군부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축소가 되고 남아 있는 게 12만평 내지 13만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부대가 단일부대가 아니라 요기는 무슨 부대, 요기는 무슨 부대, 이렇게 부대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은 그 당시에, 요기 부평역 앞으로 쭉 뻗은 대로에 한미은행 있죠. 농협 바로 길 건너 지금 씨티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때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이 개인 건물에 세 들어 있었는데 이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고 일층에 국민은행이 있었고요. 요기 동아아파트하고 롯데백화점 있죠. 거기가 다 부대였으니까, 뭐 이렇게 걸어 다녀도 됐을 정도였는데요. 부평의 가장 큰 노른자위를 미군부대가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부평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미군부대

지금 롯데백화점 정문, 거기에 애스컴댓보 정문이 있었어요. 롯데백화점 지금 정문 자리, 거기는 애스컴댓보의 메인 정문이었고요. 애스컴댓보 안에 20지원사령부가 있었고 댓보사령부가 있었고요. 댓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미군들이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통 털어서 애스컴댓보라고 했는데, 부르기 좋게 애스컴이라고 불렀다고요. 애스컴댓보 옆에 있던 20지원사령부 후문은 또 저쪽 백마장 입구까지 철조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20지원사령부 후문 이쪽도 하수가 흐르고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20지원사령부도 컸지만 미군부대 중에서 덩치는 애스컴댓보가 제일 컸어요. 애스컴 메인 정문 앞은 전부 하천이었다구요. 하천을 복개해서 백화점 정문 앞길이 되었지만 그 전엔 애스컴 정문 앞에 쪼끄만 시멘트 다리가 있었어요. 정문도 그렇게 크

지를 않았어요. 애스컴이나 20지원사령부 종업원들이 전부 출퇴근하면서 드나들던 문이에요. 문도 쪼끄맣게 내놓고 철조망으로 이어졌는데 정문을 지키던 한국 종업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55경비부대라고 거기서 나온 한국인 경비대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미군 헌병도 같이 서 있었고요. 애스컴댓보 정문 앞에 있는 하천 바로 위로는 철조망이 쭉 쳐져 있었어요. 그땐 부대와 주택을 사이에 둔 하천이 꽤 넓었어요. 그리고 물이 오염이 안 되어서 깨끗했다고요. 그때 내가 하천에서 손도 닦고 그랬거든요. 물이 맑으니까 가재도 많이 살고 그랬어요. 미군부대 주위로 흐르는 하천들의 시원지는 어디냐면 지금 부평화장터 아래, 은광탄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물이 다 이쪽으로 흘러왔으니까, 물이 풍부했었죠. 하천 건너편 저쪽은 그저 낡고 허름한 판잣집들인데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쪽으로는 미군들이 드나드는 가게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가게는 신촌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아아파트 부지가 전부 20지원사령분데 후문이 애스컴댓보 정문과 같은 쪽에 있었어요. 시장을 가려면 그냥 하천 건너편 판잣집들을 쭈욱 따라가면 시장이 있었어요. 지금 문화의 거리가 옛날엔 노점상들이 쫙 있던 부평시장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미군부대 주변을 하천이 감싸고 있는 형상이에요. 지금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담들도 옛날엔 철조망이었어요. 철조망 앞으로는 전부가 다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요. 동아아파트 나와서 철로가 지나고 있는 데 거기에 조그만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하천을 메워서 만든 거잖아요. 그 하천 밑으로도 철조망이 쭉 쳐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20지원사령부 정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문 앞에 기차가 들어오는 철로가 있고 차단기가 있었어요. 이 철로가 부평역에서 들어와서 댓보사령부 안을 통과하는데 백마장 저쪽까지 길게 이어져요. 일제시대 때 쓸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철로를 그대로 사용했던 걸 거예요. 이 철로를 통해서 미군부대 안으로 각종 물건들을 수송하던 미군부대 전용철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20지원사령부 정문 길 건너 지금 두산아파트 자리에 대림산업이 있었어요. 숟갈이니 그릇 같은 걸 만들던 공장말예요.

미군부대 주변 풍경

애스컴댓보가 쭉 이어져 오면서 부대 길 건너가 신촌이잖아요. 신촌이 그 때 아주 대단했었어요. 신촌 이 일대가 전부 다 먹는 음식장사, 아니면 술집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면 미군들이 부대 밖으로 나오면 가는 데가 주로 가까운 신촌 쪽이었으니까요. 옛날 신촌에 있던 양복점들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군들이 자기들 나라에 들어갈 적에 양복을 몇 벌씩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요. 값도 싸고 그러니깐. 선물코너니 뭐 이런저런 가게들이 있었지만 가장 번창한 게 술집이었어요. 신촌 앞에 술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 일대가 전부 미군들이 다니던 술집이었어요. 또 미군들하고 방 얻어서 사는 양색시들도 많고 그랬어요. 양색시들한테 방을 놔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양색시들이 재래식 주택, 방 많은데 얻어들어가서 거기서 살림하면서 미군들하고 살았던 거죠. 그때는 뭐 술집이나 다방 같은 데 나가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다방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곳에 나가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미군들하고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리기가 십상이었어요. 양색시들이 생활하는 게 미군들한테 뭐 좀 갖다 달래서 그걸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고 그랬지요. 그렇게 살다가 운이 좋으면 본국으로 들어가는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80년대 말에 가서는 결혼은 하질 않고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살자 그러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땐 미군들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조건이 아니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많이들 조심했겠죠. 혼혈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애요. 애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미군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6, 70프로는 데리고 간다구요, 미군들이.

또 신촌 이 일대에는 사고가 날까봐 미군 헌병들이 순회를 자주 했어요. 좌우지간 미군들이 나와 있으면 미군 엠피차가 나와 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왔다갔다하고 그랬어요. 미군들이 난동부릴까 봐 관리를 하는 거죠. 신촌 쪽 클럽들은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출입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미군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 특별히 통제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는 게 풍부하지 않았으니깐 그런 덴 그렇게 드나들지를 않았어요. 거긴 일반 술집들보다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깐요. 미군부대

안에는 미군들 전용 클럽이 세 개나 있었어요. 미군부대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클럽인데 거긴 일반인들은 아예 못 들어가죠. 지금도 클럽이 하나 남아 있는데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인 종업원들도 대여섯 명은 남아 있을 거예요. 옛날엔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많았어요. 그땐 정말로 클럽이 대단했으니까요. 우리 부평지부 노동조합에서도 클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엔 클럽에서 일하는 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팁 나오는 게 또 있었으니까. 배호씨 같은 우리 한국 가수들도 옛날에 미8군에서 노래 부르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있는 데 클럽에서도 배호도 들어와서 노래하고 한국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랬는데요 뭐.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옛날에 가수고 뭐고 밴드마스터 초청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적자운영이 되니까. 그 전엔 클럽 안에 극장도 있었거든요.

부대가 있던 롯데백화점 정문 앞으로 하천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천 아래 이쪽, 지금 부평 우체국이 있는 그쪽은 좋지 않은 생활기질을 가지고 있던 생활터전이라고 소문이 안 좋았어요. 일반인들은 그쪽에 잘 안 다녔다구요. 그러니깐 전부 다 매춘 관계 그런 일들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물론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였죠. 그러던 것이 애스컴댓보하고 20지원사령부가 대구 왜관으로 떠나면서 기지가 철수되고 미군들을 상대로 하던 술집이니 뭐니 이런 생활터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정화가 된 거예요. 1974년서부터 기지가 폐쇄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닉슨이 대통령일 때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라, 해가지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됐다고요. 그러면서 부평 여기도 미군기지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부대가 일부는 인천항만, 해변가에 있던 보급창이 이리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항만이 발전되다 보니까 새 도크가 생기잖았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자연히 자리를 내줘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마침 20지원사령부하고 댓보사령부가 철수하니까 그 빈 공간에 다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있던 거는 베이커리 공장이 있었던 거고, 클럽 그 다음에 소방서, 공병 계통, 그 다음에 미 재산관리처라고 폐품 처리하는 피디오 그게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도 그것들은 남아 있어요.

1960~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군들이랑 한국인 노무자들이 가장 많았

어요. 부평 기지 안에 미군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우글우글할 정도로 전부 미군들뿐이었어요. 지금은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미군들보다 훨씬 많지만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군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 시장 앞이요, 밤이 되면 미군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나와서 술집에 와서 술도 먹고 장사하는 데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미군이었어요. 그때 미군부대에 있던 미군들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자기네들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도 않고 미군들 떠날 때는 말도 없이 떠나요. 내일 떠나면서도 그동안 너하고 참 즐거웠다 그런 인사도 없어요.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그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놈들 그렇게 냉정해요. 부대 안에서 종사하는 우리 한국 종업원들은 우리 노동조합 소속만 해도 한 300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케이에스시라고 있어요. 또 하청 종업원까지 하면 한 오백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케이에스시도 주한미군 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한국인 종업원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원래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종업원들의 보조,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충원해줘서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탄환도 나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 목숨 거는 위험한 일을 했었다고요. 케이에스시도 오래된 거죠. 부대 안에는 직종이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어 용접공도 있었고 전공도 있고 배관공도 있고 좌우지간 전 직종이 골고루 다 있어요. 워낙 부대가 크고 부대가 제대로 돌아가자면 군인들이 생활이 되게끔 뒷받침이 되는 종업원이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병기창에 근무하셨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애요. 일본이 항복하고 들어갈 적에 전부 다 없어지고, 또 미군부대가 조병창 시스템을 인수받아서 들어온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뭘. 내가 왔을 적부터 근무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였으니깐 나보다 나이가 많은 30대, 40대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나이로 따져봐요, 나이가 얼마나 되나. 그러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한 3, 40년씩 일한 사람은 드물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충원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엔 10대 학생들은 미군부대에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10대 어린 애들이 들어와서 일할만 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월급은 처음에 할 적에 달러로 받았어요. 달러로 받다가 나

중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환전해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줬어요.

그때 미군부대 주변의 생활이란 게 어려웠어요. 미군이 없이는 뭐 벌어먹고 살 만한 게 없었으니까요. 농사를 짓거나 항구라고 있지만 부평과는 떨어져서 저기 멀리 있고 큰돈이 흘러나올 데가 없잖아요. 부평역도 그땐 쬐끄맸어요. 시골 역사 모양으로 크지 않고 아주 자그맣게 있었다고요. 위치는 지금 있는 데 고 자리에 있었죠. 그 당시에는 전철이 다니지 않았고 무연탄 때는 기차가 다녔어요. 오래됐죠. 부천 그쪽은 소사라 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그 일대가 복숭아 밭이었을 때에요. 처음에는 역전이 좀 작았는데 다시 지었다가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지금 이 모습을 가진 게 80년대 중반쯤부터일 거예요. 부평역에선 지방으로 못 내려가고 영등포 아니면 서울에서 표 사가지고 이렇게 갔지 여기서 직접 못 끊었어요. 군용열차가 별도로 여기 있었는데 부평역 옆에 군용열차 담당하는 미군부대가 따로 주둔하고 있었어요.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물자를 부평역으로 해서 기차로 실어 나르고 또 배로도 실어 나르고 비행기로도 오고 했었어요. 부대 옆에 철로가 있는 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미군부대가 유지가 되면서 부평역사 주변이 주거 지역이 되고 여기가 중심지가 된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외국인 노동조합 사무실 빌딩 옆에 그 당시 큰 목재소가 있었는데, 목재소도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베니어합판이니 뭐니 그걸 가지고 목재소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우리나라가 베니어합판도 없었다고요. 왜냐면 합판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그거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천 대성목재가 생기고부터예요. 대성목재가 인천에서 맨 처음 생긴 목재공장일 거예요.

그 당시 인천도 보면 미군부대가 있는 그 지역이 우선 발전이 되었어요. 미군부대가 중심 지역이 돼 버렸거든요. 항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미군부대 근방이니까 그쪽이 먼저 발전했다는 얘기죠. 미군부대와 떨어진 만석동이니 화수동이니 그쪽은 낙후된 지역이 돼 버렸고요. 용현동에 송도 나가는 그쪽에도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그게 유류주류창이었거든요. 큰 드럼통 있잖아요, 유류 드럼통을 거기서 차로 실어서 여기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럼통으로 실어다가 날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평도 미군기지에 기름을 대기 위해서 저짝 백마장 저 산 위에 큰 탱크를 만들었다고요. 거기 탱크에서 기름을 뽑아서 이

제 부대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엔 미군부대에 기름을 실어 나르는 하청업체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PLO라고 했어요. PLO가 미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기름만 전문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PLO 종업원도 미군부대에 소속돼 있는 외국기관 노동조합이었고 PLO 지부들이 있었다고요. 그 산하 종업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PLO가 부대 명칭을 따라서 PLO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송도 나가는 데 거기 근처에 지부 사무실이 있었고 부평에도 PLO 분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분회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길가에 그 당시 이층인가 건물을 지어서 있었다구요. 그 업체에서 미군 기름을 그 당시에 많이 빼 썼어요. 그러니깐 PLO는 우리와 달리 돈이 좀 있어가지고 PLO 노동조합이 자체 건물도 지어가지고 사무실도 갖고 있었거든요. 송도 나가는 데 거기 삼층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은 목욕탕을 해서 노동조합에서 운영했었고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도 애스컴댓보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쪽 출입문을 통해서 위로 쭈욱 올라가면 원투원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었어요. 현대 아파트 안쪽의 언덕이 좀 높아지는 그 지점, 지금 현대아파트 118동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원래는 거기가 산인데 다 깎아서 한 거거든요. 원투원(121)병원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라 컨테이너로 해서 몇 동이 있었는데 군인들 입원실도 있고 했으니까 클 수밖에 없죠. 전방에서 다친 미군병사들도 헬리콥터로 날라서 치료를 했으니까. 원투원병원은 미국군병원이니까 의사들은 다 군의관들이었죠. 그 병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여기 부평의 성모자애병원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병원, 그 병원들이 원투원병원의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약 같은 거 우리나라에선 생산도 안 되고 어려운 약을 원투원병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기독병원이나 성모자애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면 30프로 혜택을 봤어요. 원투원병원에서는 미군 측에서 배려해줘서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여기 종사하는 노무자들도 아무나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또 원투원병원 안에 식스(6)메디칼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군이 운영하는 건데, 주로 미군들하고 미군 가족들 환자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환자 진료해서 입원할 사람 입원하고 치료할 사람 치료해주고 하던 거였죠. 이 부대가 얼마나 넓으냐면 말이에요.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넓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요. 에스캄댓보가 총사령부예

요. 댓보사령부라고 하잖아요. 식스메디칼 옆에가 티엠피(TMP) 자리에요. TMP가 뭐냐면 미군 군용차량들을 수리하고 보급하는 곳이거든요. 댓보사령부 안에 보급 관리부대, 저장 관리부대가 있었고, 50보급소가 있었고 티엠피, 엠에이치, 에이디 수송부대가 있었고 공병대 본부, 소방서 본부, 미사일 기지 부대도 있었어요. 헬리콥터 부대도 저 안쪽에 있었는데 그 부대도 에스캄댓보 안에 있는데 철조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에스캄댓보 총사령부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지요. 그 안에 댓보 보급창도 있었어요. 미8군에 각종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곳이죠. 그리고 미8군 인사처도 있었고요. 거기서 모든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관계 등 인사관리를 다 총괄하는 거죠. 또 피디오라고 그게 미 재산관리 및 처리처라고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미군들 숙소, 사무실 모든 게 다 현대아파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부근에 원래 물탱크가 큰 게 있었어요. 지금은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물탱크가 부대 안으로 옮겨갔는데 원래 그쪽에 있던 거거든요. 그 물탱크에서 식수를 받아가지고 부대에서 쓸 수 있게 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운고가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백운도서관 있는데 그리고 백운주택 있는데, 거기도 미군부대 자리예요. 거기서 화랑농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그쪽도 전부 미군부대 자리고요. 백운역 고가다리 있는 데서부터 주택단지 거기에 512부대가 있었어요. 옛날 백운고가다리가 없을 때였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화랑농장 가는 길로 이어지잖아요. 거기까지가 전부 다 미군부대 자리예요. 512부대 옆이 제1공병대, 제2공병대가 있었는데 화랑농장 가는 길이 지금과는 달리 아주 좁았어요. 현대아파트서부터 부대를 따라가면서 쭉 철조망으로 쳐져 있었고 일반 도로 쪼끄만 게 있었고요. 공병대 본부는 애스컴댓보 안에 있었죠. 공병대 지나서 화랑농장 넘어가는 쪽에 있는 성포산은 옛날에도 그냥 산으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산 밑쪽으로는 주택들도 없었고 산골짜기였다고요. 그러니깐 애스컴댓보가 롯데백화점 있는 데 거기서부터 현대아파트 이 안쪽, 성포산 밑에까지 빙 둘러가면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화랑농장은 그땐 밭이고 공터였어요. 그쪽은 집들이나 상가 같은 것들도 드물었고 농사짓는 집들이 좀 있고 논이고 밭이고 그랬다니까요.

백마장 입구 근처에 505항공부대라 해서 헬리곱터 부대가 있어요. 지금 한화아파트 들어선 데 거기가 한국베어링자린데 그 자리가 505항공부대 헬

기장이었어요. 한국베어링 옆으로 들어가서는 전남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쪽까지 헬리콥터부대가 이어진 거예요. 대우자동차 앞에 거기도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지금 대우자동차 거기도 옛날 신진자동차 들어오기 전에 미군부대 자리였는데 내가 여기 첨 왔을 적에는 공터였거든요. 나중에 대우자동차가 들어온 거죠. 항공대도 정문이 큰 게 있었는데 전부 다 철조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항공대 앞으로도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화랑농장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었거든요. 하천은 부대를 감싸면서 외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철조망은 안으로 쳐져 있고요. 하천도 복개되어서 모습을 감췄지만 복개되기 전에는 전부다 그 안쪽으로 505항공단 헬기장이었어요. 대우자동차 건너편으로는 단층으로 해서 가게들이고, 여기도 신촌하고는 규모로는 비교도 안 되지만 술집 양복점 뭐 이런 가게들이 종류별로 있어서 미군들이 왔다갔다 했어요. 헬기부대는 20지원사령부, 댓보사령부하고도 같이 붙어 있는데 도로나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철조망만 있고 딱 붙어 있는 거죠. 백마장 이쪽엔 우리나라 초창기에 자동차 만들기 전에 오토바이 공장이 먼저 생겼다고요. 혼단가 오토바이 조립하던 공장이 있었다구요.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걸 팔아서 딴 데로 옮겨갔지만, 오토바이 회사가 그때 잘 됐다구요. 한국베어링도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잖아요. 한국베어링은 90년대 초까지 있었을 거예요. 미군들 활성화됐을 당시에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신촌이 가장 번화한 상권이었고 백마장 쪽 상권하고, 그 다음에 부평시장 이쪽도 미군들이 많이 다녔고요. 시장 안에는 옷도 팔고 뭐 생필품 이런 것들 파는 상가들, 노점상도 있으니까 미군들이 구경도 하고 뭘 사먹느라고 많이 왔다갔다했어요. 공보관 자리 그쪽에 옛날엔 부평시장이 번창했고 현재 문화의거리가 전부다 노점상들이 점령하고 있었다구요. 지금 시장이 있는 로터리 쪽은 옛날은 로터리도 없었고 별로 번창하지 않았다구요. 로터리 그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 논밭이었으니까.

철마산 밑에까지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부평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랑농장 빙 둘러서 산곡동 라인까지, 그 다음에 백마장 다 들어가서 대우자동차 앞에 대우아파트 들어앉은 거기가 미335부대, 마지막으로 부대가 있던 자리는 철마산 밑이에요. 철마산 그 밑에 미군 아파트가 있었어요. 고기서 미군부대가 끝나는 거죠. 철마산 바로 밑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부근이 베이커리공장 자리예요. 그 곁에 공병대 하고 안에 군부대가 또 같

이 있었다구요. 원래 거기 있던 베이커리하고 댓보사령부 안에 있던 미8군 빵공장하고 베이커리가 두 군덴데 댓보사령부가 떠나면서 빵 공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베이커리 있는 그쪽에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옛날엔 빵공장 두 군데에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빵을 전부 만들었어요. 여기서 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빵을 다 보급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 물량이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빵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데 한 백사오십 명이나 되었다고요. 공병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명이었으니까 베이커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엄청났다니까요. 베이커리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종업원들은 많이 줄었지만 미군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미군에 빵을 보급하는 게 여기 베이커리거든요. 지금 부평 캠프마켓 안에 남아 있는 게 소방서, 베이커리, 공병대, 교육처 보급창인데 교육처 보급창이 제일 커요. 교육처 보급창에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전부를 상대로 해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을 다 보급하고 있거든요. 빵이니 뭐니 이런 것들. 옛날에는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물자들을 전부 본국에서 실어다 날랐지만 지금은 필수품서부터 먹는 것까지 다 우리나라 제품이 공급이 되요. 여기 들어오는 우리나라 제품이 삼성, 엘지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생수까지 납품해요. 생수는 다이아몬든가 뭐 그런 게 들어오든데요.

캠프마켓 안에 지금 잘해야 미군하고 그 가족들인 민간인하고 합쳐서 한 30명 정도? 얼마 안 돼요. 여기는 전투부대가 아니니까 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웬만한 부서는 다 미군들이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다 맡아가지고 있어요. 책임자급만 미군들이 있지 그 외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종업원들은 부평지구 소속은 한 300명 조금 넘고 고 다음에 케이에스시,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500명 정도 남아 있어요. 월급은 미8군사령부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미군 정부에서 돈이 지급된 거나 마찬가진데, 지금은 거의 70프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건비는 보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증액이 돼 가지고 70프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 시설, 도로 시설, 땅 사용료, 물, 그런 거 전부 다 방위비 지원금이거든요. 전부 다 미군들 쓰는 걸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일 년에 얼마, 우리나라 정

부에서 부담을 해요. 일본 같은 데는 90프로 정도 일본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70프로 정도. 그래서 미군 측에서 자꾸만 방위비 증액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서독이나 일본보다 못 사니까 조금 덜 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종업원들 가운데 근무 연한이 오래된 분들은 사십 칠팔 년 됐죠. 70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60살까지 근문데 65세까지 우리가 정년을 연장해놨어요. 65세 이상은 미군 측에서 네가 알아서 근무시킬라면 시켜라, 그래서 70세 넘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 양반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총 미군 책임자 바로 밑에서 총괄하는 감독직이 많죠. 예를 들어서 교육처 보급창장 같으면 한국 사람이지만 부창장 자리를 줘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한국 종업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공장 돌아가는 거 훤히 꿰고 있으니까 미군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군들이 다 빠져나가서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미군부대가 별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전시 같으면 여기도 적다는 거예요. 물건 수송관계 때문에. 지금도 물건 많이 들어올 땐 바깥에도 막 쌓아놓잖아요.

지금 부평에 미군부대가 깔고 앉은 땅만 해도 13만평이 넘는다고요. 옛날엔 직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디 취직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래도 일터가 많이 생긴 거죠. 그 주변 환경이, 먹고 사는 생활기반이 됐기 때문에 부평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를 중요시 생각했죠.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전부 돈이었으니까. 깡통이니 고철, 구리, 전부 다 돈 아니에요. 하다못해 옛날에 부평 여기 주유소도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가지고 운영이 됐다는데.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래도 따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깐 부대 주변에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된 거예요. 댓보사령부하고 20지원사령부하고 떠날 적에 신촌 앞에 건물 값이 폭락했다니깐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때 사놓은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한국군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거라. 20지원사령부 저쪽 있죠. 거기 미군이 나가고 한국군이 들어왔잖아요. 동아아파트 단지는 한국군이 들어오지 않고 현

대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은 거죠. 현대가 한국군이 들어온 부대 땅을 사서 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해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거든요. 그게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였죠. 좌우간 지금 롯데백화점, 동아아파트에서부터 철마산 저 밑에까지 이 거대한 노른자위 땅이 전부 미군부대 차지였었어요. 70년대 말에 미군부대가 대거 떠나면서 전부 다 주택이 됐건 아파트 단지가 됐건 일반 주거지역이 된 거예요. 요 앞에, 신촌 가는 쪽으로 부평 공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대자리를 인수해서 시민들을 위해 공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문화시설이니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면 시민들한테는 좋으니까. 이런 땅을 중심지에 가지고 있는 지역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런 땅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석재 옹의 제2의 고향 부평구 신촌



구술자 | 이석재 옹

채록자 | 홍명진(소설가)

1920년생인 이석재 옹은 올해로 여든여덟이다. 서울 뚝섬에서 태어나 열여덟 살 때, 조부모를 따라 일가가 신촌으로 이주해왔다. 70여 년 전 신촌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외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 당시 새마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후 신촌으로 바뀌었다. 뚝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이석재 옹은 부평으로 온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현 부평 미군부대 자리에 있던 병기제조 공장인 조병창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이십대의 청년 시절이었고 일제 군사 시설인 조병창에서 근무하며 징용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한국전쟁 전후에는 부평 애스컴 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는 대한청년단 활동을 했다. 그 당시 대한청년단은 부평에 지회가 있었고 마을 동마다 대한청년단 사무실이 있었으며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빨갱이라고 의심받았던 것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한다. 나이 서른이 넘어 자월도 출신의 부인을 만나 중매로 결혼했다. 늦은 결혼이었다. 열 살 아래인 부인과의 사이에 네 명의 자녀를 보았으나 어려서 둘을 잃고 얼마 전에는 아들을 앞세웠다. 젊은 시절에 조병창과 미군부대, 부평3동 동사무소에서 월급 생활을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이것저것 해왔다는 이석재 옹은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삶의 무력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미군부대 앞을 거쳐 백운역 굴다리

밑을 흐르던 개천이 복개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촌의 예전 모습은 간데없이 변했지만 이석재 옹의 눈엔 개천이 흐르던 철로변과 조부가 밭을 일궈 농사를 지어먹던 옛 모습이 눈앞에 보이듯 환하다.

채록자와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는 현재 살고 있는 부평3동 '신촌중앙길'에 위치한 백운아트빌라 지하 전셋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재래식 주택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부인이 집값이 싸다는 다른 동네로 집을 구하러 다녔지만 이석재 옹은 웬만하면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한다. 20여 년 전부터 부인과 함께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몸이 불편해져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생계보조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뚝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부평에 정착한 뒤로 70여 년을 한결같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석재 옹은 신촌이 태어난 곳이나 다름없는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뚝섬에서의 어린 시절


중년 시절의 이석재 옹

뭐 산 거야 한 70년 됐거든요. 여기 산 것이. 난 나이 많습니다. 내가 1920년 2월 23일 생이요. 그러니까 (올해) 여든여덟 됐지. 고향은 뚝섬이에요. 나 뚝섬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광나루라고 아시는지. 광나루 저 너머 남한산성 있는 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거기서 사셨거든요. 사암면이라고 이러든가, 거기서 사시다가 여기 뚝섬으로 와가지고 몇 십 년 사시고. 나 어릴 땐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뚝섬에 한강 너머로 이렇게 흙물이 져서요. 을축년 장마라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장마가 지면 뚝섬이 아주 바닥이 나고 이랬거든요. 다 물에 잠기고 이랬어요. 그때가 내가 다섯 살 때거든요. 물난리 났을 때가요. 그게 을축년 장마라고 유명하죠. 그때 피해 많이 봤죠. 할아버지가 정미소를 조끄맣게 했는데, 규모도 크지 않은데 쌀이 뭐 몇 백 석 떠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또 저희 집이 그게 사십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게 유실됐어요. 그때 그 나무때기로 이렇게 지은 것이라 그거이 뭐 물에 잠겨서 떠내려간 거죠. 그때 뭐 밭이래는 것이 한 평에 몇 푼 안 갔었어요. 지금이야 밭이 비싸지만 그때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꾼이라고 대접도 못 받

았죠. 거기서 인제 마장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 외갓집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삼 년 살다가 부평으로 왔죠. 내가 열여덟 살에 여기 왔어요. 어렸을 땐데 뚝섬에 공원이 있어요. 그 너머가 뽕이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언저리가 상당히 크죠. 근데 뚝섬 강이 유원지가 있고 우에서 이렇게 수영허는 것 높이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장난은 여름에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서울에서 한 번 무슨 신문사에서 수박을 말이죠. 이렇게 물에다 그냥 던져가지고서는 그걸 헤엄쳐 와 가지고 모두 거둬가고 이랬거든요. 그걸 배 위에서 건져서 또 헤엄치고 가서 건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배가 뒤집히고 이랬거든요. 그래 뭐 며칠 동안을 사람이 죽은 시체를 찾고 이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강에 다리가 둘밖에 없었어요. 노량진으로 가는 다리허고 저기 광나루 다리허고 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한 서른 개 되지요. 옛날에는 배 타고 건너가고 건너오고 그랬죠. 겨울엔 강이 얼어요. 뚝섬 강에 가서 얼음 지치다가 말이죠. 얼음이 깨지니까 멀리는 못 나가고 가장자리에서 요렇게 노는데 빠지면은 요만큼(손으로 장딴지 부위를 가리키신다) 들어가거든요. 솜바진데 옷도 버리고 그랬어요. 얼음지치다가 말이죠.

국민학교를 뚝섬에서 댕겼죠. 그때는 말이죠. 지금 성수동, 철도가 있는데 거기 있던 성수동 뚝섬공립보통학교거든요. 그때는 뚝섬의 보철소가 있는데, 뚝섬을 뚝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뚝'자 를 한자로 쓰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이 '뚝'자가 혹이 많거든요. 국민학교는 거기서 졸업했죠. 그땐 말이죠. 중학교 댕겨도 돈 가진 사람이나 댕겼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원체 집안이 넉넉지를 못허고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국민학교도 일부러 집에서 안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수동이 1가, 2가가 있는데 1가가 서축돌이거든요. 2가가 동축돌이고요. 뚝섬이 그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서축돌이, 동축돌보다 그래도 거기가 행정기관들이 앉아 있고 그러거든요. 기관이래는 것이 별로 없죠.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면사무소라고 하면 그래도 알아줬거든요. 면사무소가 서축돌에 있었거든요. 가구는 3천여 가구가 됐구요.

그땐 학교에서 일본말로 공부하셨어요? 일본말로 공부한 것은 그 훨씬 몇 년 뒤죠. 입학한 지는 여덟 살에 했죠. 그땐 일곱 살이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여덟 살에 들어간 아이들이 많거든요. 일본어 교육은 5학년, 6학년 때 일

본말로 많이 했죠. 국어래는 것이 가령 한국 사람의 인물, 왜놈들 인물 이런 거 (배웠죠). 국어가 그런 거였어요. 산술은 일 더하기 일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공부는 잘 못했어요. 하하하. 시험이라고 뭐 똑똑히 봤어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으이, 학생들 많았어요. 전교 학생이 한 몇 백 명 됐죠. 육학년까지 있으니까. 일본 애들은 저쪽에서 따로 배웠구요. 왜놈의 학교에 가서. 뚝섬이 뭐 왜놈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 소학교가 쪼금 했었어요.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아유, 내 공부할 땐 여자들하고 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여든여덟이니까 팔십 년이나 됐는데, 거 팔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이나 같은 거지 뭐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수학여행을 멀리 개성으로 간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선죽교니 뭐니. 정몽주가 이방원인가 누구한테 맞아 죽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3학년 땐가 이랬죠. 거 왕십리에서 말이죠. 저기 저 용산으로 해서 서울로 가거든요. 거기서 개성으로 기차 타고 갔어요. 푹푹거리는 기차 말이에요.

북한으로 여행 가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요? 그렇죠. 박연폭포는 멀어서 못 가고요. 소풍은 또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3년 정도 살았어요. 아버지가 마장리가 좋은지 처갓집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아버님이 처가살이를 하신 거예요? 아니죠. 집을 따로 사서 살았죠. 우리가 식구가 몇인데요. 열 식구가 넘는데요. 뚝섬이랑 마장이랑 아, 거리가 떨어졌죠. 옛날에 십오 리만 되도 멀다고 이럴 때거든요. 마장리야 지금 도시가 됐지만 그땐 형편없는 동네였어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마장리에서 글방 훈장으로 계셨었죠. 집 안에서 학생들, 동네 아이들 들앉혀놓고 글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것도 돈으로 받지 않았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이나 곡식 같은 걸로 고맙다는 사례로 하니까 그걸로 인제 받았죠. 쪼끄만 방에서 가르치니 몇 명이나 가르쳤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학자세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허고 우리 어머니하고 말이죠. 나이가 열두 살 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맏딸이에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학잔데 말이죠. 아들 딸 앉혀놓고 글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머니, 외삼촌 뭐 무식하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이런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공자가 아들을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공자가 우리가 다 아는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그때야 사실 살래야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외할머니가 무슨 일을 해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고생하고 그러고 컸죠. 글공부도 못하고.

외할아버님은 훈장을 하셨으니까 마장리에서 존경 받는 분이셨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죠. 훈장이 무슨. 외할아버지가 한문 같은 거 아시긴 많이 아시겠지만 마장리라고 동네라고 집 같은 집이 있어요, 모두가 초가집이고. 그런데 거기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장리가 어디냐면 청량리로 가는 철도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사이에 있죠. 왕십리역에서 마장리가 가깝고 청량리역에서는 마장리가 좀 멀죠. 왕십리에서 청량리까지 다니던 전차가 있었잖아요. 그 기차가 원산, 함흥 이런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경주 김간데 양반이죠. 지금이야 오래돼서 외삼촌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외할아버지 존함도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광나루 이가예요. 넓을 광자를 써서 거기를 광주라고 이러거든요. 저 밑은 빛 광자 광주구요.

70여 년 전 조부를 따라 일가가 신촌에 정착

인천으로 오실 때가 열여덟 살 때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때 집안이 다 왔죠. 서울에서 이리로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동생이 모두 아홉이에요. 옛날에는 뭐 산아제한이 있었습니까. 아홉이 돼서 내가 제일 맏이거든요. 올 때는 다 함께 왔죠.

조부님은 뭘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야 옛날 뚝섬이 거기가 다 논이고 밭이거든요. 뽕나무니 뭐 이런 거 심고 그래가지고 거기선 그게 뭐 돈이 됐습니까. 호박 같은 거 심어서 그거 인제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랬죠.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요. 우리 땅이거든요. 이래니깐 일꾼을 데리고 나가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가지고 품삯을 얼마씩 주고 이랬죠. 할아버지도 손수 거들어주시고 이랬어요.

주로 무슨 농사를 지으셨어요? 밭농사요. 보리도 짓고 밀도 심고 또 뽕나무 그것도 좀 심어서. 그때 뽕나무는 실패를 봤다고 그러데요.

부친께서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뭐 양반 모양으로 여름에도 버

선 신고 이러고 양반행세를 허셨어요. 글공부허셨어.

여기 오실 때 부친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때에, 내가 여기 신촌 올 때 열여덟 살 때 왔으니까, 나이가 많았었죠. 아버지가 스물네 살 때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닌 옛날 노인이라서요. 아버지보다 네 살이 많으셨어요. 어머닌 부평서, 저 십정동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여든일곱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님은 시집오셔서 자식을 아홉이나 낳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모두 열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현재 아홉이 있다가 둘째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홉 아니에요. 내 우로 원제라고 있어요. 원제가 나한테 형님이죠. 어려서 돌아갔죠. 그리고 또 아주 나한테 손아래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도 죽고요. 그러니 열하나에서 둘이 죽으니까 아홉이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죠. 거 왜놈 밑에서 한국 사람들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고생하시던 가슴 아픈 일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가슴 아픈 일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죠. 돈 벌어서 드리지 못한 것이. 어머니는 여기 와서도 살림만 했죠. 구식노인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어머니가 뭘 아시는 게 있나요. 옛날 노인이라 뭐 (앨범을 뒤져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시며) 비녀 꽂고 옷은 한복 입고 이랬었죠. 흰색을 많이 입었어요. 옷도 집에서 만들어 입고요. 사진은 이게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 때 고생들 많이 했죠. 그때는 그저 끼니 끓여 먹는 것도 굶다시피 했죠. 먹기야 주로 쌀을 먹었지만 보리쌀도 그때 귀할 때였어요.

조부님은 왜 농사지으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거 뭐 농사래는 것이요. 그게 지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때 그거 다 처분한 것이, 지금 돈으론 큰 게지만요, 그때 돈에 2전, 3전, 평당 말이죠. 그거 받고 땅을 팔았었어요. 우리가 땅이 이만 평이 있었어요. 뚝섬에. 소작이 아니고 우리 땅인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몇십 년 동안 밥을 굶지 않고 이제 그걸로 끄니 이은 거죠.

조부께서 식솔들을 끌고 부평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거기 뚝섬이래는 데 살아봐야 뭐 할 것이 그거밖에 없고 허니까 아버지가 일로 오자고 이래가지고서는. 여기 또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좀 의지해보자 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별로 한 건 없는데, 신촌에 이쪽으로 밭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거 붙여 잡숫고 이랬죠.


이석재 옹의 어머니

친척분이면 어떻게 되세요? 내 오촌 아주머니, 할아버지로 따지면 동생의 딸이니까, 할아버지의 조카딸이죠. 조카딸의 남편 되는 분이 여기서 농사짓고 또 저기 삼릉공장이라고 시루라까라고 하는 델 댕겼거든요. 여기에 오니까 그때는 삼릉공장밖에 없었어요. 시루라까라는 게 뭐냐면 공장인데 왜놈들이 일본에 공장 시루라까 크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여기다가 지부 자격도 안 되죠. 그런 걸 세웠는데 삼릉이라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공장이. 그게 신촌 여기는 3동이고 거긴 2동으로 들어가요. 2동에 삼릉사택이라고 일본놈들이 지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택이 모두 없어졌죠. 사택이래는 것이 뭐 방이라고 쪼끄맣고 이렇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살았죠. 그 더러운데 말이죠. 어디든지 왜놈들이야 위에서 지시나 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밑에서 어려운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랬죠. 친척어른이 거기 드나들고 이래가지고 뭐 가지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먹을 것 말예요. 그래서 일로 오셔서 사시면은 어떠시냐고 이래서 그렇게 타협이 돼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땐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마장리에서 말이죠. 마차꾼 있잖습니까. 그걸루 왔죠. 장이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 말이죠.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하지만요. 요기, (방에 있는) 네 칸짜리 옷 넣는 장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마장리에서 아버지한테로 어머니가 시집을 열아홉 살에 오신 거거든요. 마차꾼이 동네 사람인데 마장리에서 백리가 넘는 길인데 그러니 그걸 싣고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서는 저녁때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여기서 쭈욱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지으신 옛날 집이 있었거든요. 그땐 여기가 조병창도 생기기 전이고 아무 것도 없을 때 허허벌판이었을 때예요. 지금 여기 요 골목 말고, 우에 가면은 셋째 골목 있어요. 거기 지금 연희 브릿지 있는데 거기서 살았었죠. 할아버지가 먼첨 와서 집을 짓고 그러고 나서 식구들이 다 왔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미리 오셨으니까 뒤에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내려왔죠. 첨엔 집이 열 채밖에 없었는데 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동리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한자로 하면 신촌인 거죠. 열여덟 살 때 이 동네 와서 70여 년, 지금까지 이 신촌을 떠나지 않고 이 동네서 사는 거예요.

조병창에서 보낸 청년시절

열여덟 살 때면 왜정 땐데 일본 사람들이 심하게 구박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여기 삼릉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저 군수물자 만드는, 병기에 관한 거겠죠. 그 후에 이게 아마 십 몇 년 되어가(지나가지고), 조병창이 지어진 거거든요.

삼릉공장 있던 자리가 병기창이 있던 자린가요? 삼릉은 이쪽에 있던 거고. 이쪽 공원이 삼릉 공장 자리고. 처음 여기 왔을 때 삼릉공장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살고 나서 몇 해, 한 3, 4년 있으니까 조병창을 지은 거죠. 조병창을 병기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삼십 몇 년에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자세한 건 몰라요. 지금 미군부대 있는 데 거기가, 그 자리가 조병창이에요. 조병창 들어서기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지. 나는 이제 조병창이 생기니까 걸루 들어간 거구요. 그건 여기 온 지 몇 해 후에 조병창에 들어가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했지. 여러 해 일했어요. 스물 몇 살 때 거기 댕기기 시작했거든요. 해방되기까지, 왜놈들 쫓겨 들어갈 때까지 조병창에서 일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일하러 들어갔거든요. 8월 15일 날 왜놈의 임금이 항복했다는 걸 육성으로 말로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고 한 보름 있다가 조병창에서 일하고 있던 왜놈이, 왜놈이니까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기차 타고 가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조병창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는 사무실에서 심부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반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쇠 이런 거 모두 그걸로 깎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야지 총에 맞도록 해가지고 여기 조병창이 총 맹글고 이랬던 곳이에요. 또 총을 맨든 걸 일선 방면으로 보내고 이랬거든요.

관리자, 공장주는 일본인이에요? 아, 물론 일본이죠. 그땐 왜정 때니까. 아 여기 저 조병창 책임자가 육군 소장이에요. 그땐 조병창 들어가기가 좋았죠. 왜 그러냐고 헐 거 같으면 거기 처음 공장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뽑았죠. 왜놈들은 군주, 그러니까 뭐 일등 상차 이런 것들 모두 공장 안에서 책임 맡고 한국 사람을 막 부리고 이랬었죠. 뭐 저들 수틀리면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왜놈들이 그렇게 악독했었어요.

그때 징병은 안 나갔어요? 조병창 다니는 사람은 징병 안 나갔어요. 조병창이 군에서 허는 거 아닙니까.

조병창 안에는 공장이 나눠져 있었나요? 그렇죠.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었어요. 1공장이래는 것이 뭐냐면은 설계를 하는 곳이거든요. 2공장은 내가 있던 던데 거기는 인제 선반이거든. 그걸 인제 1공장에서 그려가지고 오면 고걸 갖다가 자를 이렇게 대구선 해가지고 깎는데 3공장은 뭐냐면은 대장간이거든요. 기계 대장간이에요. 사람이 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 군수물자라고 총 속에 이런 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맨들고 이러던 데예요. 그 이상은 나도 잘 몰라요.

월급은 받고 일했나요? 거기서야 월급 주죠. 그런데 그 월급이래는 것이 뭐 몇 푼 되나요. 그때 만 몇천 원 이렇게 받았어요. 만 몇천 원이래도 그땐 큰돈이죠. 쌀 한 가마에 6원 50전이니까. 그런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놈들은 월급을 타면 3만원, 4만원 타는 데 그 1만 원 정도 타가지고. 그게 말이죠. 그땐 왜놈들이 전부 왜놈과 한국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 거기서 차별하는 거예요. 혹시 저기 채병덕이라고 아시는지 몰라. 그 사람이 소좌라 이랬거든요. 3공장 대장간 책임으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책임자였어요. 대장간 책임자를 소좌라고 불렀는데 계급이 소령이에요. 한국 군인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얘길 들어보니깐 그렇대요. 지금 조병창에서 소령이니 중령이니 이런 사람들은 기술 소령이니 기술 중령이니 이렇게 따지고 조병창 원소장은 그 저 이 당당한 군인이죠. 채병덕이래는 사람은 군인의 신분이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조병창 책임자로 있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나이는 나보담도 훨씬 많았죠. 그때 왜정 땐 데 아 소좌만 돼도 굉장했었어요. 왜놈들 산하에서. 그이는 들은 얘기지만 저 육군이 말이죠. 병기창 육군이 있고 말이죠. 또 전투 나가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전투 나가는 군인들을 더 쳐줬거든요. 기술 있는 거보다. 전투병은 이런 데 들어오지 않고 기술 소좌, 개자라는 게 대좌, 중좌, 소좌 이러고. 그러고 전투병들은 대위, 중위, 소위, 그리고 준위라고 있죠. 이 준위가 인제 기술 소좌가 되는 거죠.

채병덕 소좌처럼 한국 관리자들이 많았어요? 채병덕이 말고는 없었어요. 공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그랬죠. 다 공원으로 가서 일들 했지 뭐. 아, 그이야 소좌인데 소좌는 높죠. 소좌가 공장장이면 굉장하지 뭐, 공장

책임자니까.

해방될 땐 어땠어요? 조병창에 남아 있던 일본 사람들이야 들어갈 때 여기 뭣하러 붙어 있습니까. 일본으로 다 들어갔죠. 공장 기계 이런 거, 그런 거는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은 인천으로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 양반은 여기 오셔서도 양반 노릇을 했어요. 이런 말 할 거는 아니지만 어이, 한 번은 내가 혼났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 일본이 꼭 망한다고 말이지. 아 이 계란으로 큰 왕바우를 치는 격이지 미국하고 잘 되겠냐고. 그래도 머릿속은 사상이 있었더만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여기 와서도 직업 같은 거도 그렇고 뭐 하신 게 없어요. 아는 게 많으시고 그래도 동네에서 이장 보라고 그래도 안 보시구, 어렵다고 동회에서 뭘 준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러고 안 받으시고. 그렇게 꼿꼿하셨다고요.

조부님은 여기서도 농사를 지으시고요? 그렇죠. 여기 와서도 저기 백운역 있죠. 그쪽이 쭈욱 올라가면서 이런 땅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 그걸 파가지구서는 호박이니 뭐니 이런 거 심어서 그거 따서 여름에 먹고 이랬거든요.

대한청년단 활동과 한국전쟁

해방되고 나서는 뭐하셨어요? 해방되고 나서는 직업이 그때 없었어요. 옛날에는 나는 군대 안 갔어요. 대한청년단에서 일을 했죠. 제2국민병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간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동리서도 많이 나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죽기도, 다른 동리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여기선 별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이 여기도 말이죠. 군인은 군인대로 자체 뽑아가지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2국민병인데, 뭐냐 할 거 같으면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대한청년단이라고 있지 않아요. 저 이북에 함경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내려온 사람들은 서북청년단, 나는 원 고향이 처지가 여기 남한이니까 대한청년단에 들어갔죠. 대한청년단 사무실이요 동리마다 있었거든요. 저기 저 시장에도 청년단 단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랬거든요. 여기 부평3동에도.

단장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 모르죠, 오래 됐는데. 여기 김석기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말도 잘하고 이래

요. 근데 그이는 대한 무슨무슨 회에 있고, 김재준이라고 있어요. 저 제일산업 사장을 했던 그이가 단장으로 있었거든요. 내가 있던 이 동네는 아니고, 이 동네는 소위 말깨나 하고 이러컨 사람이 허고. 저 김재준 그 사람은 부평시장의 거기 대한청년단에서 단장했죠. 대한청년단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지부거든요. 대한청년단에서 정기적으로 무슨 상의헐 일이 있으면 지부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한청년단은 동네 사람들 다 들어갔었다구요. 안 들어간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김일성이 편 사람이고. 서로가 막 때리고 인제 그랬죠.

대한 청년단과 맞서 싸우는 단체가 또 하나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구,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걸 서북청년단이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 대한청년단하고 합쳐졌고. 좌익계열은 김일성이 패라고, 빨갱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단체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김일성이 패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서울 와서 인민군 기 꽂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래가지구서는 뭐야 그때 이 동네 빨갱이들이 기승을 떤 거죠. 사람을 막 때리고. 그때는 서울로, 저놈들이 이북에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다 달아났죠. 대한청년단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다 달아났단 말이죠. 달아나지 않으면 아 그놈들한테 죽지.

대한청년단에서는 주로 무슨 일하셨어요? 난 그러니깐 대한청년단의 회원이죠. 그냥 매일 대한청년단 사무실에 나가죠. 뭐 다른 일 크게 한 것 없습니다. 거기 동네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다가 6 · 25 나가지고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이북으로 끌려간 사람도 더러 있었다구요.

전쟁 났을 때 피난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일사후퇴 전에는 못 갔고. 일사 때 김일성이가 내려왔으니까 미군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야. 총가지고 막 대항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김일성이가 쫓겨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왔었죠. 중공군들이. 저기 뭐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그때 피난을 가기는 내가 대구로 갔어요.

식구들 다 함께 갔나요? 아니요. 식구들이야 어떻게 다 갑니까. 나 혼자. 아니 나 혼자가 아니죠. 동네 청년단 허든 그런 동기들이 인제 다섯 명이 간 일이 있어요. 여기서 갈 때 한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낙오병이라고 말이죠. 군인 나갔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는 걸 알리지 않고 가고 이래서 낙오병이라고 이래가지고 기(태극기)를 이렇게, 이런 저 딱공총 있거든

요.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태극기를) 딱공총에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우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저기 어딘가 가니까 여기서 한 십리 정도밖에 안 되는 덴데 어유 그냥 대우를 잘해요. 국군 낙오병이라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도망 온 게 아니고 부대를 찾지 못해서 헐 수 없이 빨갱이들이 막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군인을 나갔는데 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들 생각이 몹시 난다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뜨뜻하게 잠도 자고. 여기서 일사후퇴 때 피난 가던 사람들이 밖에서 자고 이랬거든요. 겨울에.

대구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한 육 개월 정도 있다가 여기가 완전히 수복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와서 대통령으로 집무를 보게 되고 이래니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이 동네는 피해가 없었나요? 피난을 갔다 오니까 여기는 피해가 없었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서울이 많이 피해가 있었죠. 이 동네 그거 뭐 피해를 볼 게 뭐 있었습니까. 나무때기 집들인데. 집이래야 뭐 지푸라기로 지붕을 잇고 그랬는데. 아 집이나 좋아야 때려 부수고 그러지. 여기 이쪽에 빨갱이들 많이 죽었어요. 저기 약산 있죠. 그쪽으로 모두 빨갱이들이 달아나고 이래서 거기서 많이 빨갱이들 총 맞아 죽었습니다. 내가 말이죠. 이 빨갱이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독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 거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갱이들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지. 사람 보면 막 잡아가고 이랬는데. 물 붓고 이런 독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전쟁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고 대구에서 6개월 만에 여기 오니까 내가 그때 서른 한 살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나는 대구 가가지고 말이죠. 이 신촌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랑 미군을 쫓아서 갔거든요. 여기 미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거 미군들이 식당도 있고 뭐 이런 통조림 같은 거 말이에요 창고에다 집어넣는 통조림을 어느 부대에서 훔쳐서 가져가고 이랬었거든요. 나는 대구 사범학교로 피난 가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대여섯이 됐거든요. 근데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나서 그 찌꺼기 얻어먹는 거죠. 고기니 뭐니 배불리. 고생은 안 했어요. 6개월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국민병 나간 사람들은 고생 무척 했어요. 거 추운데 뭐 거적을 덮어쓰고 이랬던 모양인데 제2국민병들은 걸어서 피난가고 그랬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랬데요. 추운 겨울에 말이죠. 우리는 호강을 했죠. 대구 사범대학교를 갖다가 미군이 접수해가지고 거기 식당을 했거든요.

대구에서 피난 가셨다가 신촌으로 오시니까 미군부대가 있었어요? 미군부댄 그땐 없었죠. 그땐 미군들이 저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게요. 김일성이가 총으로 대항을 하니까 군인들이야 총에 맞아 죽지야 않겠지만, 미군들은 겁이 많은 놈들이라서. 해방되고 나서 전쟁 나기 전에 조병창이 들어왔고. 조병창이 나가고 그 자리에 미군들이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미군부대를 근거로 살았던 시절

옛날엔 미군부대에 미군들이 많았죠? 많았죠. 양색시들이 한 육백 명이나 되고 이랬었는데. 여기는 조병창 자리에 미군부대가 있었고, 서울 같은 데는 왜놈 군인들이 있던 자리가 미8군부대가 됐다고. 저 밑에 어디야, 삼각지 이쪽으로 이태원 고 밑이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양색시들은 동네에 있었어요. 술집은 없고 양색시들이 양색시 생활이래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땐 항구에 무슨 돈이 있었어요? 양색시들의 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양놈들을 꼬셔가지고 물건들을 좀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담배니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양색시들이 그걸 받아서 팔아요. 이런 데서 파는 담배 그런 것보담 가격이 높죠. 양키 담배니깐. 양키 담배래도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좋다, 뭐 저 이렇게 값을 붙이게 되면 저희들 팔러 다니는 곳이 있거든요. 양색시들은 주로 이 동네에 확산돼 있었다니까요. 한 육백 명 정도 되는데요 뭐.

가게를 내고 장사를 했나요? 가게를 내기는요.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세를 얻어서 사는데, 양색시들은 저 아랫녘에서, 지방 같은 데서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순 양색시촌이었어요. 여기 군인들이 많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여자들이 모아서 방 얻어놓고 미군 받고 그런 거지.

그때 동네에 집이 늘면서 발전했겠네요? 그렇죠. 요쪽 줄 두 줄밖에 집이 없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발전을 했죠. 신촌은 새마을 동이라고 그러다가 그걸 한문으로 고치니까 '새 신 자' 에 '마을 촌' 이래서 신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제 해방되고 나서 요쪽이 집 몇 채 있었고, 그리고 미군부대 들어와서 좀 집 수효가 늘었죠.

전쟁 끝나고 그때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랬죠. 나도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미군부대 좀 댕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포크레인으로 뭘 이렇

게 올리고 이러면 괜히 따라댕기는 거죠. 거 미군들이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다구요. 따라만 가요. 뭐 포크레인으로 다 하지. 그놈들이 이렇게 물건 쌓는 데는 기가 막혀요. 아주 쩍 허면 아 거 큰놈의 것을 한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미군들이 포크레인으로 물건 내리면 한국 사람들이 창고에 넣고 쌓는 일을 했어요. 다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깡통, 먹는 거, 식료품요. 식료품은 그거 쌓는 창고가 따로 있고요. 이런저런 것 별 거 다 있어요. 식당은 따로 있고. 그래야 미군이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미군들은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미군이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아유, 그 뭐 미군들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꿀꿀이죽도 왜 그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꿀꿀이죽이요. 양키는요. 한 부대 안에 말이죠. 거기 큰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미군들이 한 소대가 있잖아요. 한 이백 명 되고 중대가 한 삼백 명 된다면요. 물건을 애낄 줄을 몰라요. 외출하는 군인들이 양색시들을 보러 일요일 날 같은 때도 나가니까 뭐 어떤 때는 부대 안이 텅 비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양색시들하고 놀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그러는데. 거기 삼백 명이든 이백 명이든 말이죠. 많이 나가는 걸 알면서도 음식은 3백 명 분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남고 이러는 거 고기니 뭐니 이런 것이 다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간다구요. 지금 여기 시장가면 부대찌개니 뭐 이런 거 써 붙이지 않았어요. 그거요. 꿀꿀이죽이라는 게. 통 속에다 덩어리 고기를 넣고 이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한국 사람들이 다시 잘 폼 있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술안주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 닷새면 닷새 동안밖에 보관을 안 해요. 남은 것이 산더미같이 남았다고 하더래도 그냥 그 물건을 다 버려요. 날짜 지내지 않아도 한 닷새만 되면은 그냥 버려요. 내가 식당에 있었는데, 계란 하나가 깨졌어요. 깨졌으니까 속 것이, 계란이 보일 거 아닙니까. 뭐냐 아 이거 나쁘다고. 나는 알아듣진 못했지만 위생상 나쁘니깐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쌓아 놓은 계란을 그냥 그 채로 버리더군요. 위생상 나쁘다고, 버리는 목적이 아마 그런 목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미군부대가 집과는 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집에서 걸어서 다녔어요. 그거 뭐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군부대요, 그때 우리 집이 지금 이 집 있는 요기에 집 골목이 있었거든요. 두 골목 걸어가면 초가집 있었거든요. 울타리를 수수깡으로 했구요. 마당이 좁지는 않았죠, 넓었죠. 부평 이 동네 사람

들만 댕긴 게 아니라, 먼 데서 댕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찍 좀 출근하거든요.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다 생활이 어렵잖습니까. 미군부대 아니면 한국사람 많이 생활에 쩔쩔매다가 밥도 굶고 이런 판이거든요. 군화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훔치고 별 거 다 훔치고 그랬죠. 군화도 새 거죠. 한국 사람은 그런 군화 같은 거,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질기고 좋죠. 지금처럼 꺼먼 거 이런 것이 아니고 뻘건 거 좋은 거 있어요. 미군들이 신을 거죠. 오죽하면 미군이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도둑질을 얼마나 하는지 배로 말이죠. 세 배를 실어오면 두 배가 없어진데요. 배 두 개가 없어지고 건질 것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구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는 건 가지고 나오죠. 미군들이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가령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 창 부대에 말이죠. 고 부대가 무슨 부대 무슨 부대 이래가지고 여러 부대가 있고 식당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인제 한 부대가 350명이다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이나 일을 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연 이틀을 놀지만 그때는 토요일은 일찍 작업을 하다가 끝내거든요. 일요일 날은 놀고 이랬는데, 근데 350명이 있다 허면요. 미군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밖에 나가서 양색시하고 자다가 들어오고 이래는 걸 알긴 알지만 350명을 다 해요 그냥, 그러니깐 일요일 날은 많이 음식이 남죠. 그래 한국 종업원들이 깡통에다가 그걸 담아 가지고 나오고 그랬죠. 미군들이 그건 인정을 해요.

미군부대에서 일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야 30대죠. 그 후에도 식당에 좀 있었고. 거 미군부대는 오래 댕기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댕기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댕긴 것이 모두 합쳐서 한 7개월, 8개월 댕겼어요. 대구에서 피난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동네 대한청년단 사무실에 가서 놀고 이랬었죠. 그때 사람들은 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도 대한청년단에 왕래하지 않고 이래면은 저 빨갱이 같다고 이러구 지적을 받는다구요. 대한청년단은 60년대라고 이럴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해제되지 않았어요.

부대 안에 병원도 있었다면서요? 왜놈들도 병원을 크게 지었거든요. 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미군부대가 여기 점령하기 전에 말이죠. 왜놈들 조병창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 규모가 상당히 컸었어요. 아마 거기 책임자가 대령인가 그렇죠. 조병창이 없어지고 미군부대 됐을 때, 조병창에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넓으니까 점령을 한 거죠. 그게 아마 폭격인

가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흔적만 몇 개 남았거든요. 그 저 미군이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병원을 설치해가지고 미군도 환자진료 했죠. 군인들이 다쳐가지고 오면 그 병원에선 이제 치료해주고 이랬죠. 조병창에 병원 있을 때는 군조라고 있거든요. 특무상사나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인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이랬지 한국 사람들은 뭐 치료를 해주나요. 조병창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은 (치료를) 안 해줘요.

내 돈으로 막으면서 일했던 동사무소 임시직

미군부대에서 나오셔서는 무슨 일하셨어요? 식당에도 좀 다니고, 포크레인 가지고서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그랬죠. 그리고 동사무소 임시직원으로 좀 댕겼죠. 신촌3동 동사무소요. 청소비를 지금은 따로 내지만 그때는 개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았어요. 청소비 받는다구 하구선 돈 번다고 한 게 아니라 돈 더 찔러 넣느라고 고생했죠. 청소비를 받으면 구청에는 얼마 들어가야 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잘 걷히지 않거나 그러면 그걸 월급으로 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일할 때 동장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무서운 데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박정희 때, 최고로 높은 기관, 나는 새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앙정보부라고. 경찰서 서장도 중앙정보부 다닌다고 하면 쩔쩔매던 시절이었다니까요. 나중에 중앙정보부 파견대 계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동사무소 동장으로 있을 땐데 이걸 (쓰레기 청소비) 받으면은요 아 용돈 없으니 자기 용돈 쓴다고 좀 달라고. 한 번 쓰자면 돈을 몇백 원씩 달라고 이래가지고 몇 번씩 뜯어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한테서 용돈 쓴다고 돈 뜯어간 동장이 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력한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 주면 거기다 적어야지 않아요. 전표에다가. 나중엔 그걸 갖다가 내 돈으로 매꿔서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처음엔 부평 출장소라 이랬었어요. 지금 부평구청이 말이죠. 북구청이라 해서 여기 북구를 다 관리한다고요. 그래 나중에는 권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놈의 영감도 돈 달라고 이래가지고. 용돈 쓰겠다고 해서 돈을 뜯어 가면 그 돈을 다 채워 넣어야 하니까. 2천 원이면 지금 돈으론 큰돈인데 그놈의 돈을 내가 물어내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청소비가 얼마였어요? 20전인가 30전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거 몇 푼 받고, 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치워주고 나서 돈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때야 뭐 청소비라고 얼마 받질 못했죠. 동네 쓰레기 같은 거 대문 밖에다 내놓잖아요. 그럼 조랑말로 치우고 그랬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이럴 땝니까. 조랑말 끄는 그 사람 한 달 되면 그걸 조랑말 끈 인건비 주고 이랬잖아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거두러 다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용돈 좀 달래는데 어떡 헙니까. 집(그 사람이)이가 동장이니 말이야. 그놈의 동사무소 일 오래했었죠. 오래 일하고도 뭐 아무 것도 없어요.

결혼하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그거 뭐. 흐흐흐. 아이고, 결혼은 해방되고 나서 했죠. 그땐 해방되기 전에는 스물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 일찍 못했어요. 6·25 전쟁 나기 전이죠. 해방되고 한 거니까 늦게 갔어요. 한 서른 넘어서.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설움 많이 받았습니다. 왜놈들한테요. 밥도 굶고.

할머님은 어디 분이세요? 할머니가 어디 사람이냐면요. 저기 인천 소월미도라고 있어요. 자월도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인천으로 와서 살다가 중매로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은 구식 결혼으로 했어요.


이석재 옹의 부인

그때 찍은 결혼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나하고 10살 차이에요. 올해 일흔여덟이죠. 얼굴은 못 생겨도 부지런은 해요. 하하하. 옛날에는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고 이랬는데 그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진은 몇 장 남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찍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사진사들)이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출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면 돈은 사진관 가서 찍는 거보다 더 받죠. 여기 이쪽에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엔 고려예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예식장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주인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아드님이 고려예식장을 물려받았죠.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사진관으로 시작한 것이 그렇게 발전을 헌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기 신촌시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입구 그 맞은짝에 있었죠. 제일교회 있는데.

내가 말이죠. 옛날 얘기 하나 하께요. 저 철로둑 그 밑에 굴다리 있잖습니까. 그 너머가 모두 밭이에요. 그게 한 만 몇천 평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거기 버드나무가 있는데 말이죠. 집이서 누가 앓거나 이러면 거기다 줄을 매거든요. 새끼줄을 매요. 뻘건 천 같은 거 달아놓고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랬던 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땐 철로가 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인천까지 가는 철로둑인데. 그리고 그 옆에 원탱이 고개가 있어요. 일루 갈 거 같으면 백운역 있죠. 백운역에서 조금 가면 그게 아주 험재예요. 거기가 말이죠. 옛날에 산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헐어내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거기가 도둑놈들이 많고 이런 데예요. 근데 이렇게 쭈욱 가면서 가장머리에 버드나무를 몇 채 심었는데 그것이 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조그만 것이 몇십 년이 돼서 아름드리로 자랐거든요. 삼릉 쪽에서 이렇게 오는 데 말이죠. 저쪽에서 말이죠. 요기 쪽다리가 있어요. 지금 쪽다리, 철로둑 다리 말이에요.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이랬죠. 그런데 거기서 이러케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흔들흔들거리데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얘길 들어봤더니 여기 무슨 도깨빈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저건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주저물러 앉아 있었거든요. 철로선을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영 그놈의 것이 다른 데로 가질 않고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서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흔들흔들거리더라구요. 그렇게 앉아 있길 20분 동안이나 앉아 있었어요. 나도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싸아 하고, 늦은 가을인데 아 그 놈의 것이 저 낭구에서 바람이 불 거 같으면 그 층난 것이 어떤 거는 헐은 것이 있으니까 무서웠죠. 그러니 이십 분이 넘어서 철로둑 그 밑으로, 요만한 쪽다리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밟구서는 말이죠. 그제서야 그것이 요렇게 요렇게 흔들흔들거리더니 없어졌어요. 지금도 말이죠. 그것이 도깨비불이라고 난 인정하거든요. 남들이 세상에 이런 광명 천지에 도깨비불이 어디 있겠냐고 하겠지만 내 눈으로 실제 봤으니깐 말이죠. 그것이 공중에 왜 있습니까. 그래 나중에 가보니깐, 그땐 사람이 안 댕길 때였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아마 그것이 50년대였을 거예요. 철로둑 한가운데 물 흐르는 요기 요렇게 폭 이만하게 나무들이 있는, 그 밑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전기가 그러고 나서도 몇십 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도깨비불이 아니고 뭐였겠어요. 캄캄한 밤에 불이 공중에 매달려서 흔들거렸는데요. 여기 온 지 10년도 안 돼서 그걸 봤으니까, 그땐 조병창이고 뭐고 없었어요.

정부에서 생활보조금 받으며 사시는 말년의 쓸쓸함

지금 형제분들은 다 딴 데 사세요? 네. 둘은 미국 가 있어요. 누이동생이 미국 가 있고, 또 남동생도 가 있고, 걔가 제일막내죠. 둘째는 죽고요. 암으로 해서요. 부모님들은 아버님은 여든여섯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고 동생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내 둘째 아우가 말이죠, 미군부대에 댕겼거든요. 미군부대에 컴퓨터 이런 거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탔었죠. 그때 백 몇십 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큰아들이 돈벌이가 시원찮고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모시고 갔거든요. 부평 여기 애스컴 부대에 다녔던 동생이 아버질 모시고 갔는데 그땐 일산에서 살았죠.

동생분은 미군부대에 오래 다녔나요? 나중에 미군부대 많이들 떠나고 이럴 때, 대구니 부산이니, 왜관으로도 가고 그럴 때 내 아우는 고만두고 일산으로 간 거죠.

형제분들하고는 자주 뵈세요? 형제라고 말이죠. 하나는 미국 가 있는 누이가 있고 그리고 내 막내 동생이 미국 가 있고 호주 가서 내 누이가 살고 부산 가서 살고 그리고 저기 서구 큰누이가 사는데 큰누이가 나보다 세 살이 아래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든다섯이죠. 만나지 못해요. 엊그저께 누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서구 사는 누이가요. 죄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 자주 못 보니까요. 서구서 사는 누이가 한 이삼 년 동안 날 못 봐서 죄송하다고 한 열 번이나 전화를 붙잡고 말하잖아요.

명절 때도 두 분만 계시겠네요? 그렇죠. 둘이만 있죠.

여기 연립주택 지하로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로 이사 온 게 올 정월에 왔어요. 앞서 살던 집은 한옥이 돼서 어떻게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우풍이 세요. 저쪽 집에서 3년밖에 안 살았어요. 3년 살다가 이리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저 십정동으로 집사람이 방을 보러 갔다고 그래요. 여기가 난 좋은데 걸루 왜 간다고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방값이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 난 싫다고 말이지. 내가 여기 와서 말이지 여기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진데 신촌을 떠날 맘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집이 사람이 남의 얘길 듣고 여길 얻었거든요. 나한텐 여기가 고향 겉죠. 그 전에는 우리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장가들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하고 10살 차인데 말이죠. 아버지가 장가 밑천을 만들래니까 돈을 얻었었거든요.

그래 그것이 채권자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은 집은 거기서 몇십 년 살았고 그리고 나서 동생 장가들이느라고 아버지가 돈 얻어 쓴 것이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하니까 집을 그냥 판 거죠. 팔았어야 그때 돈으로 얼마 안 됐어요. 빚 갚느라고 팔았으니까.

동사무소 일을 그만두시고는 뭐하셨어요? 동사무소를 그만두고 뭐 한 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노인 회관 총무 일을 봤죠. 노인 회관에서도 나같이 이렇게 와서 사는 지가 오래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옛날에 학교 댕기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 맡은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한 40년 50년씩 살았어야지 내가 이 신촌에 지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이, 오래 산 사람들이 30년, 40년 채 못 된 사람들이 수북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 좀 오래 산 사람들, 여기서 기와집, 초가집 짓고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한다고 땅을 팔아라 이래 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저기 저 현대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있거든요. 거기로 이사 간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내가 동네에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동네 청첩장 같은 거, 집을 잘 아니까 그런 거 써달라고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그랬어요. 그걸 돌릴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돌리는가 허면, 주소를 쓰고 할래면 서투니깐 쩔쩔매거든요. 난 그저 앉아서도 얼굴을 다 알고 이러니깐 말이죠. 옛날에 청첩장 써주고 요새로 말하자면 3만 원씩 찬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한 집에 식구들이 여럿 있고 환갑이다 뭐다 허고 이래서 최고 한 집에 일곱 번 일봐준 일이 있고요. 일을 봐주고 부좃돈을 허고 그랬는데 우리는 일곱 번 한 집도 하나도 못 받고 말았죠.

저쪽 집에 사실 때 폐지 수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했죠. 한 달에 뭐 그저 20만원 정도, 30만원까지 수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깐 생활에 쪼끔 보태 쓴 거죠. 또 그거 나이가 먹고 이래니깐 많이 못 해요. 60 후반서부터 했거든요. 한 뭐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깐 동네에서 박스 같은 거, 병, 종이 이런 거 수집하고 이랬죠. 그런 거 고물상에다가 연락을 하면 와서 다 달아서 가져가요. 종이는 그때 1킬로에 30원 할 때도 있고 소주병은 하나에 25원, 맥주병은 35원. 고철이래는 것이 시세는 좀 나은데 그게 하도 여러 사람들이 다 주서들이니깐 없어. 나와도 얼마 나오지 않으니깐. 맨 첨에 그걸 어떻게 허게 됐냐면 동회에서 인제 총무일을 보면서 그걸 해보자 해가지고 시

작이 돼가지고 동회에서 해서 지금 그거 하는 사람 노인회관이 돈 좀 모았죠. 그러다가 노인회관에서 총무일 안 하고 따로 나오면서 심심하니깐 쪼끔씩 집에서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노인회관 총무일 보신 데는 어디에요? 우리 신촌 노인회관요. 저기 저 슈퍼 있죠. 성문유통이라고 고 꼭대기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노인회관이에요. 이제 내가 처음에는 그 집에 방이 있어서 거기서 살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총무일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 산 것이 몇 해 살았냐면 10년 이상 살았지.

자제분은 몇 명이나 두셨어요? 자식들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금 간 지가 한 일 년 넘었어요. 원래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둘은 어려서 태어나서 며칠 안 있다 죽고 죽고 이래서 둘을 잃고 아들이 마흔 몇 살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인가, 이제 일 년밖에 안 되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다른 데 있어요. 시집가라니까 해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아유 시집가서 뭘 하냐고. 그러니 저희가 지금 정부 덕을 보고 있어요.



이석재 옹의 자제들

1990년대 이후 부평의 공업 활동과 부평 사람들

많은 세월이 흘러 해방 이전의 부평 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체적인 모습을 증언해줄 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해방 이후 부평지역이 다시 공업도시로 재구축되면서 부평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한 구술채록을 통해 담아보려고 한다. 이는 비단 부평지역 공업사에 대한 보완을 넘어서 공업을 중심으로 했던 부평지역 사람들의 삶과 그 풍속사적 측면을 기억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각기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평에서 각기 다른 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부평에서 새로운 삶을 이룬 과정을 엿보기 위하여 세 분의 구술자의 증언을 각기 개별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술자 |
주명식(37세, 맥스테크 영업직, 군산 출신)
나성규(36세, 맥스테크 현장직, 부평 출신)
손준식(33세, 맥스테크 현장직, 부여 출신)

대 담 |
윤승준(인하대 사학과 교수)

채록 · 정리 |
이희환(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1. 정보통신회사 영업 담당 주명식 씨

질 문 :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주명식 : 맥스테크에 다니는 주명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서른 살까지 고향 전북에서 살다가, 지금 서른 이후부터 인천에 잠깐 와서 직장 관계로 다시 안양을 갔다가, 다시 재작년 2005년도에 인천에 다시 왔습니다.

질 문 : 고향은 구체적으로 어디신지, 그리고 학교 다니신 건?

주명식 : 고향은 전북 군산입니다.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질 문 : 어떤 계기로 부평에 와서 살게 되셨나요?

주명식 : IMF로 인해서 지방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깐 찾다가 수도권 쪽으로 찾아서 왔는데, 그게 인천이었습니다. 처음에 전자 회사 쪽에 다니다가 제가 친척, 아는 사람 통해서 건설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친척분이 조금 안 좋아서, 인천으로 왔는데, 부평으로 왔는데, 온 계기는 처남 소개로 맥스테크를 소개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1년 한 6개월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주명식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다 완성이 되면 후처리를 하고, 후처리 후에는 다시 납품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가족관계, 특히 부모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명식 : 지금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칠십이 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냥, 저희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질 문 :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요?

주명식 : 전북 군산입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고요.

질 문 : 부평의 첫인상은 어떠했습니까?

주명식 : 부평에 와서 처음 본 인상은, 그냥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깐 많이 화려하고, 화려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 문 : 언제 오셨나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주명식 : 부평에 올라온 거는 2005년 정도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90년도에 졸업을 해서 90년도에 전문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행정과를 진학을 해서 공무원 쪽으로 많이 택하려고 했는데, 많이 모자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힘들었고…….

질 문 : 사회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는지요?

주명식 : 아는 분을 통해서 제조회사 일을 했습니다. 저쪽 공장,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군산에 있는 제품 재질하는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쭉 하다가 거기에서 IMF 때문에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때 하면서 많이 사원 감축을 하게 되서 그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됐고요. 거기서 정부 지원 쪽으로 해서 산업안전관리공단 쪽 그 학교, 그 학생들 모집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서, 정보통신 쪽을 공부했거든요. 그쪽이 그때 정보통신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땄는데, 그쪽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 이후에 계속 직장을 얻지 못하니깐, 직장을 얻지 못해서 수도권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쪽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인천 쪽에... 마침 전자회사 쪽에 정보통신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다 보니깐, 그쪽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그 계기로 취직을 해서 인천으로 부평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질 문 : 부평에 오게 된 계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명식 : 그 계기는, 일단 저기 정보통신을 공부를 해서 그쪽이 전자 쪽하고 맞았거든요. 저는 인천 쪽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개는, 처남이 맥스테크를 다녔기 때문에, 다니면서 어떤 계기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남이)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대신 여기 사람이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를 소개시켜 갖고, 그때 오게 되었습니다.

질 문 : 원래 정보통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일이 처음에 낯설지 않았습니까?

주명식 : 전혀 너무 관계가 없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놀고만, 그때 결혼을 한 상태라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일단 일을 하고, 일단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 계통 일이 사람도 없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리고 처남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자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질 문 : 지금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휴일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오락, 여가 생활은?

주명식 : 예. 1남 2녀 중에 막내고요. 지금 와이프하고 딸 있습니다. 딸은 두 살이구요. 지금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질 문 : 부인은 어디 출신인가요?

주명식 : 인천 부평 출신입니다. 원래 계속,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질 문 :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나요?

주명식 : 인천에 처음 올라 왔을 때, 부평에 처음 올라 왔을 때,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질 문 : 지금 다니는 회사?

주명식 : 아니요. 전자회사 쪽에 있을 때.

질 문 : 전자회사는 어떻게 다니게 됐나요?

주명식 : 주야 2교대 근무다 보니깐, 너무 체력이,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체력이 너무나 힘들어서…….

질 문 : 지금 직장은 괜찮습니까?

주명식 : 예, 괜찮습니다.

질 문 : 휴일은 주로 어떻게 지내나요?

주명식 : 휴일은 인제 보통, 토요일 날은 많이 처갓집을 가고요, 일요일 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집사람하고 좀 자주 외부를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피곤하면, 주로 한 4주 중에 2주는 집에서 쉬는 편이고, 2주 정도는 어디 잠깐 외부라도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고향에 그 부모님들은 찾아뵙나요? 아님, 올라오시나요, 어떤가요? 부모님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주명식 : 어, 부모님한테는 자주 못 찾아뵙는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뵈려고 하는데……. 보통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두 달은 아닌 것 같고, 일이 있으면 내려가고, 일이 없으면, 한 세 달 정도도 되는 것 같고, 뭐 어느 때는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도 하고.

질 문 :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주명식 :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저희 누나 둘하고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질 문 : 다른 형제분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주명식 : 누나 두 분이 있는데, 누나 두 분은 다 전북 군산에 살고 계십니다.

질 문 : 가끔 누나들이 안부를 전하나요? 안부는 잘 전하고 사나요?

주명식 : 누나들이 제 걱정을 좀 많이 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한,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전화가 온다고 봐야죠.

질 문 : 지금 부평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지?

주명식 : 생활은 제가 조금 힘들고요, 처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어디서나 만족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직장에 들어 온 거는 한 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현재 다니는 직장에 와서 기술이나 일을 새로 배운 것이 많습니까?

주명식 : 일단 제가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없고요, 일단 사람을 저는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좀 사람 상대하는 법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인문계를 나왔다 보니깐, 공업 쪽이나 이쪽 현장 쪽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안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한 상태라 조금 업무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질 문 : 지금 거래하는 곳들은 지금 인천에 있나요, 아니면 부평이나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주명식 : 주로 다 외부에 있습니다. 보통 안양 쪽이나 아니면 서울, 구로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요새 주로 납품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주명식 : 저희가 통신부품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의료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그러면 인제 아들 자식이 한 명인데, 외지 부평에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명식 : 어, 지금 집사람이 부평 토박이고 하다보니깐, 이쪽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안하시는데, 그래도 외아들이다 보고, 장남이다 보니깐, 부모님으로서는 내려와서 살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문 : 본인의 계획은 어떠세요?

주명식 : 제가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서 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업종에 종사하다보면 거의 인천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질 문 : 부평에 살면서, 고향에 대해 그리움이 느껴지거나, 언제가 제일 그렇습니까?

주명식 : 고향 그리울 때 진짜 많죠. 하하하! 일단 기분이 좀 울적하면 고향에서는 딱 나가면 자연 환경에 뚫려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옆에 금강 지나가고, 강을 보고, 기러기 철새들보고 봄 되면 벚꽃 피고, 그 주위에 자연 환경이 참 너무 좋기 때문에 제일 여기 와서 답답하게 느낀 것도 너무 삭막하다!, 외부로 남들은 주말되면 외부로 나가서, 그것도 시간 내야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골 고향에 내려가면 그게 평상시기 때문에 심심하면, 아니면 저기 직장 끝나고, 퇴근하고, 외부 딱 나가면 자연환경에 뻥 뚫리고, 그러니깐 최고로, 지금은 여기 올라오면, 그때가 제일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요.

질 문 : 부인은 부평에서 자란 토박인데, 부인하고 문화적인 출동이나 갈등, 뭐 아이들 키우는 문제라든가 노후의 삶, 이런 것과 관계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을 빚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문화적인, 관습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명식 : 처음에 집사람 선택을 한 경우도 그 집사람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면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어른들 모시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에 와서 자식을 키울 때, 저는 이렇게 외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외아들이지만 막내로 자라다보니깐, 제 뜻대로 많이 자라다 보니깐, 제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 말고는 많이 특별하게 충돌은 없습니다.

질 문 : 아주머니가 많이 터프한가요?

주명식 : 예, 터프해요.

질 문 : 아주머니가 지금 전업주부라고 그랬죠? 어떤 직장을 갖는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명식 : 집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암으로 두 군데나 수술을 해갖고요. 인제 30살인데, 자궁암하고, 여기 갑상선암 쪽으로 해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해버려서 지금 현재는 아직 생각은 못하고요.

질 문 : 열심히 돌봐줘야겠네요.

주명식 : 예. 가장 그게 힘들어요.

질 문 : 앞으로의 본인의 인생계획이라든가, 가족과 관련한 계획, 희망, 부평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명식 : 제 계획은 일단 가정의 화목이겠죠. 가정에 잘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이 계통에 와 있으니깐, 이 계통에서 일을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잘 되는 만큼 자식들 잘 되는 게 그게 그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질 문 : 고향이 군산인데, 아직도 군산사람으로 느끼나요? 아니면, 부평사람이 됐다고 느끼는지, 어떤 때 나도 부평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지요?

주명식 : 아직은 부평사람이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고향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질 문 : 부평에 지도자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주명식 : 제가 집사람이 아프다 보니깐, 많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면을 동사무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저소득층으로 한번 생각을 받아 보려고, 혜택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실소득이, 수령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 세금 떼기 전에 월급이 9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느 회사 가나 첫 월급이 아무리 못해도 90만 원인데, 일 년만 지나도 그러고, 요즘 세상에는 자동차 안 끌고는 생활을 못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 아니고는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안 되는데,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월급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안 받는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집사람 아프면, 갑자기 아프면 어디라도 가야하는데……. 택시 안 잡힐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동차 때문에도 안 된다! 그게 조금 많이 모순되는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지금 그래도 혜택을 받은 건 있습니다. 암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병원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약값도, 의료 보험법이 바뀌어서 약값도 채 몇 천 원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 이외에 그래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 갑자기 아팠다던가,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수술비도 있고, 항암치료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자동차나 월급 때문에 아예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수술을 받을 때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2. 부평토박이 노동자 나성규 대리

질　문 :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나성규 : 저는 맥스테크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나성규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부평에서 태어나 지금 36년 동안 살았는데요. 부평에 36년 동안 살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질　문 :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가족관계는?

나성규 : 저는 1972년도 9월 20날 찬란한 햇빛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은 3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지금은 정년퇴직해서 집에 계시지만 저 키우실 때는 옛날에 삼천리자전거회사에 다니셨고요.

질　문 :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성규 : 그거는 저기 쉽게 얘기하자면 부평에 백마장 입구 있는데 거기서 직장생활 하셨고요, 저는 초등학교는 부평동초등학교를 거쳐서, 부평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는 정석항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석항공 나와서 원대한 꿈을 갖고, 취업을 나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실업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뭐요?

질　문 : 그러면 정석항공의 무슨 과?

나성규 : 저는 정석항공고등학교에 항공정비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서 형제들은 다 결혼하고, 저는 지금 판금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도면을, 제품을 갖다 주면, 그 도면에서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끔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나성규 : 예.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질　문 : 그 기계 입력하는 거?

나성규 : 예, 금형을, 무슨 물건을 갖다 주면 저희들이 맞게끔 금형을 입혀주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먼저 제일 먼저 할 수 있죠.

질　문 :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일을 좀 더 현장에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까?

나성규 : 아니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대는 육군항공학교를 나와서 대한항공, 뭐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제 별로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서요. 그냥 이 판금일이 재미있고 배울 때는 진짜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질 문 :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첫발을 내딛었을 때, 어느 직장에 갔나요?

나성규 : 근데 학교는 항공정비를 배웠는데 취업은 그러니깐, 취업은 전혀 상관없는 전자회사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질 문 : 어디에 있는?

나성규 : 그, 주안, 주안공단에 있는, 그 1991년도 주안공단에 있는 데를 처음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질 문 : 거기서는 몇 년 근무를 했나요?

나성규 : 거기는 그냥 저희 취업생이라 졸업할 때까지만 그냥 단기간에 실습기간으로만 다니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질 문 : 그 뒤에는 어떻게?

나성규 : 그 뒤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저희가 알아봐서 임금이 좋은 회사를 골라서,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좋은 데를 골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직장이, 인제 제가 첫 직장이 주안공단에 있는 평국전자라는 스티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질 문 : 몇 년도 입사해서, 몇 년 가량?

나성규 : 그거는 저희가 92년도에 8월달에 취업을 나가서 93년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단순하게 취업의무로만 나간 겁니다. 아, 졸업한 뒤에는, 그 때는 가구점 회사를 다녔었는데, 검단에 있는, 검단에 있는 그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두 평국산업이라고, 그냥 뭐, 침대 깔판을 만드는 데거든요. 침대 매트리스에 그 까는 깔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진짜 말 그대로 소기업, 완전 소기업…….

질 문 : 거기서 뭘 했나요?

나성규 : 거기서 인제 뭐, 나무 자르고 뭐, 나무와 합판과 나무를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기계에서 롤러를 날라줘야 돼요.

질 문 :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은 전혀 관계없나요?

나성규 : 전혀 관계없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군대 가서 좀 배운 거요.

질 문 : 군대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나성규 :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군대 들어가서, 군대에서 훈련소를 거쳐서 제2학기가 있어요. 어, 주특기 교육이라는 육군항공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조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돼서 거기서는 진짜 일병, 일병 때까지는 정비사로만 일을 하다가 상병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헬리콥터, 월남전에서 많이 쓰는 유이티원에스라고, 헬리콥터 승무원을 하고 또 일부는 정비병으로 일하고 일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요.

질 문 : 군대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는 도움이 됐나요?

나성규 : 군대에서 배워, 근데, 계통이 그런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질 문 : 회사는 언제쯤,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요?

나성규 : 아, 지금 제가 2003년도에 맥스테크라는 회사를 처음 입사했는데, 친구 소개로 들어왔고, 지금은 저는 처음 입사부터 현장에서 고생을 하다가 기계를 만지고, 엘씨티라는 기계를 만지고, 4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지금은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질 문 : 그 친구도 같은 업종인가요?

나성규 : 예. 같은 업종이고, 저랑 같은 거래처 쪽에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친구 소개로 맥스테크라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어릴 적에 부평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풍경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추억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나성규 : 아, 제가 부평에서 어렸을 때는 부평시장에서 자랐거든요. 부평시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불알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불알친구 3명이 있어요. 세 명이서 인제 부평시장에서 동네가 시장이다 보니깐 놀 거리가 인제, 부평시장에서 약장수들, 약장수들 오면 쪼그려서 구경하다가 회충약 먹고,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엉덩이에서 그 회충 나오면 500원씩 늘 줬거든요. 500원 주고, 그거를 좋아해서 친구 3명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거기는 또 시장은, 시장은 잼 있는 게 뭐냐면, 전기선에 전구를 딱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어디선가 단전돼서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꺼지는 거 타이밍에 맞춰서 맛있는 거 훔쳐 먹고 막 사과 같은 거 훔쳐 가고, 막 그럴 때가 추억에 남고, 지금은 시장에 중반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는데, 딱

보기가 언발런스 한 것 같아요. 딱 안 맞는 것 같은데…….

질 문 : 시장, 깡마당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나성규 : 예. 깡마당, 깡시장.

질 문 : 약장수는 주로 어디 있었어요? 금성극장 쪽 아니에요?

나성규 : 아, 그쪽 아니구요. 그쪽이 아니라, 천주교회가 있는데, 부평 4동 천주교회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그쪽이 깡시장이고, 부평 로타리 거기는 구시장이기 때문에 약장수 같은 거는 인제 그 깡시장 있는데, 부평 4동 천주교회 있는데 그쪽이 그때가 넓은 공터들이 많아서 그때는 약장수들이 그때는 참 재미있게 추억도 많고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했습니다.

질 문 : 그때 주로 친구들하고 놀러가던 곳은 어딘가요?

나성규 : 저희가 놀러 간 데는, 어렸을 때 놀러간 거는 제가 자랄 때는 다 논이어서 뭐 대우자동차 있는 데 논바닥에, 논바닥에 짚으로 뭐 보통 가을쯤이 되면 이렇게 벼 지푸라기로 많이 쌓아 놓잖아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뒹굴고 레슬링하고 신발 숨기고 신발 찾기 하고, 그때가 그러고 많이 놀은 것 같아요.

질 문 : 현재 부평에 살면서 옛날하고 부평의 모습이라든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든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성규 : 아, 수준 같은 거는, 수준은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랬는데, 근데, 부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평은 토박이도 많겠지만 타 지역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애요. 타 지역 사람들도 엄청 많고, 너무 부산한 것 같애요. 부평공원이라고 공원 하나를 좋은 걸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아침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가거든요. 겨울에는 차타고 다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걸어 다니는데, 아침에 보면은 공원에 최대한 남들이 먹다가 남은 술병, 그런 게 눈에 가시가 되더라구요. 남들이 봤을 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애요. 그리고 너무 10대들의 문화가 막 너무 많아진 것 같애요. 부평에는 어디처럼 뭐 부평의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 놨다고 그래도, 사실상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에 대한 거리가, 오히려 10대들한테 더 놀기 좋고 오히려 탈선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게 문화의 거리인 것 같애요. 그러니깐 뭐, 나이 있고 점잖은 사람들한테 놀만한 거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행사도 없고…….

질 문 :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결혼 계획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계획

은 어떠신지?

나성규 : 아, 저는 36살이구여. 결혼은 내년, 음……, 올 가을 쯤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 부평에서 살고 싶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실 부평에서 태어났지만 부평에서 살고 싶은데, 뭐 상황이 틀려지면 부평에서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부평이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질 문 : 부평이 좋은 점을 하나 든다면은?

나성규 : 부평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많은 것 같애요. 공용단지, 부평에서 관리하는 부평공용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이 많은 것 같애요. 주차할 데가 많은 것 같애요. 거기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질 문 :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 직장 업종 전체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또는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나성규 : 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만족하고요. 만족하고 배울 것도 아주 많은 같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꿈이 있다면 설계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건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인천에서 이름나는 거죠. 이름나는 거.

질 문 : 부평에 그 옛날에 공단이 많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부평에서 공업 노동자로서의 삶이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성규 : 별로, 제 생각에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애요, 부평에는…….

질 문 : 그 이유가 뭔가요?

나성규 : 쉽게 얘기해서, 저희 공장에 있는 공단만 해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문 닫고 막 그러니깐,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너무, 부평에는 큰 기업이 대우자동차만 있고 웬만한 큰 기업, 큰 회사가 있겠지만은 그래두 다 소기업만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쉽게 다 망가지는 것 같애요.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질 문 : 주위에 공업에 종사하는데 부평이나 다른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나성규 : 아니, 저는 없는데요. 친구들이 다 같은 업종에 있어서, 남동공단 그 지역, 그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은 뭐 어떤 회사가 이렇게 되면 금방 금방 연락을 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회사가 문 닫고, 어느 회사가 문

닫는 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애요.

질 문 : 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평구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성규 : 저는, 근데 그거는, 누가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 선거 때만 얼굴 비추고 그 이후로는 뭐, 사실 선거 때는 공단에 와요. 근데, 당선되면 무슨 개선점이 있으면 와서 해결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이라든가 뭐 구의원이라도 와서 한번이라도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진짜 그런 거 없거든요. 단지 누구나 느끼겠지만, 선거 때만 선거 때만 와서 뭐, 우리들은 뭐 점심시간에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말, 얘기 하는 거 연설하는 거 들어보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 당첨되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4년 동안 부평공단에 다니면서 한 번도 찾아온 사람들이 없거든요. 수고한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바쁘니깐 뭐 안 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가식적으로 그때만, 그때뿐인 것만 같습니다.

질 문 : 끝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주위에 친구나 가족들이 계속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어떤가요?

나성규 : 어, 저는 계속 하고 싶고요. 가족들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고, 저도 이 일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친구들은, 한 7, 8년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다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4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친구들은 7, 8년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한테 배울 것도 많고 저희 동료나 과장한테도 배울 것도 많고…….

질 문 : 부평에서 어디나 비슷하겠지만은, 연봉 같은 경제적 대가라든가 회사에서 받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 본인이나 주위의 같은 업종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불만이 훨씬 많은 편입니까?

나성규 : 불만이 많은 것 같애요, 이런 일은, 우리 같은 계통은 좀 뭐 얘기하자면 철판 같은 거, 쇠 같은 거를 들고 다니고, 들고 옮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보이는,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안 보이는 몸의 상처들이 조금씩 나요. 우리들한테는 뭐 일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얘기 하지만, 근데 뭐 너무 환경이 저희 업체의 판금 일 하는 업종들한테는 개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별로, 현장이 일하기에는 별로 안 좋고, 그런 거를 관리 공단에서 좀 신경을 써줘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저희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사고가 있어갖고 사고 때문에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사고가 2, 3번 나니깐 온 거에요. 안전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깐 그 산업 안전에 대해 그거 났을 때만 그 공무원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주지 안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저기하고 환경이 좋고 나쁘건 간에 상관없이 안 찾아 주는 거예요.

질 문 : 어렸을 때부터 부평에 살았는데, 동네라든가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품격 있는, 문화적인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성규 : 바라는 거는, 저기를 많이, 뭐 교육을 많이 추천해줬음 좋겠어요. 무료 교육 같은 거, 뭐, 돈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컴퓨터라든가, 뭐 노인 저기하면은, 그 무료 그, 뭐라고 얘기하나, 그 무료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구요, 환경에서, 저희가 부평에서 별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풍물놀이라는 거, 그거를 좀 부평을 대표적으로 해서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거 했음 좋겠어요.

질 문 : 이러한 공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상업계라든가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성규 : 근데, 저희는 서비스업에서는 좀 많이 받는다고 봐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래도 큰 기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술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좀 페이(pay) 같은 거는 좀 높게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질 문 : 그럼 지금 봉급 수준이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흡해도 자부심으로 감수한다는 것인지?

나성규 : 그러니깐, 페이가, 저희 업종에서는 자기가 실력이 좋으면 딴 데 가서 이 회사 다녔다가 좀 저기 되면은 딴 데 가서 페이도 올려 받을 수 있거든요. 올려 받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어느 업종이나 다 똑같애요.

질 문 :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성규 : 예. 자기 능력에 따라서 페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같애요.

질 문 : 그러면 현재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건가요?

나성규 : 예. 불만은 없고요. 불만은 없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이 회사 다녔다가 이 회사에서 얼마 받았다가 저 회사 갈 때는 좀 더 페이를 높여서…….

질 문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간에 공업계가 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성규 : 예. 나중에 이거를 기술로 삼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저도 한 회사를 차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3. 신세대 공업인 손준식 씨

질 문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손준식 : 저는 손준식이라고 합니다. 1975년 1월 27일에 태어났고, 충청남도 부여에서 1남 2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서울에 잠깐 있다가 인천으로 왔습니다.

질 문 : 태어나서 얼마쯤 후에, 어떤 계기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셨나요?

손준식 :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 백일도 안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을 듣기로 백일도 안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왜 오게 되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질 문 : 부평에 오신 뒤에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손준식 : 부평 와서, 1995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초등학교는 산곡동에서, 인천 산곡초등학교 다녔고, 중학교는 산곡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는 인천세일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질 문 :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손준식 : 그때는 꿈이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질 문 : 아무 사장이나?

손준식 :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깐, 부모님을 좀 편하게 해 드리려고.

질 문 : 그러면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손준식 : 아버님이 95년도, 제가 20살일 때…….

질 문 : 그 때 인생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었는지요?

손준식 : 199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군

대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군대 가서 사고도 쳤고, 쉬운 생활을 안 하고 좀 어려운 길을 많이 택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자마자 15일도 안 되서 일을 하고, 생활은, 어머니한테 용돈 받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모아서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입장이라,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뭐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노는 게 좋아서 이상하게 돈을 못 모았어요. 백화점 갔더니, 일을 하고 좀 있다가 이것 저거를 했지만 맘에 드는 일이 없었는데, 사촌이 외국에서 일을 하자고 그래갖고 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중국에서 1년 일을 하면서 세상을 넓게 보려고 외국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친척네 집에 있다 보니깐 배신을 당해서, 안 좋아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일도 해보고, 대우자동차에서 1년 동안 일도 해보고, 참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아직도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년도는?

손준식 : 2005년 4월에 멕시코에서 첫 입사를 했고요. 예, 지금의 회사는 95년 4월 첫 입사를 했고, 저랑 고등학교는 다른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지금 다니는 맥스테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질 문 : 그 친구는 맥스테크랑 어떤 관계인가요?

손준식 : 그건 모르겠는데, 일을 했어요. 이 회사에서, 맥스테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대우에서 있을 때 대우자동차 다니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질 문 : 어떤 분위기?

손준식 : 그냥 짤리는 분위기 있잖아요.

질 문 : IMF?

손준식 : IMF가 아니고……,

질 문 : 구조조정?

손준식 : 예. 제가 하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대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두 친구 때문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친구는 상황이 안 좋아서 먼저 나왔었고, 제가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나오게 됐는데, 맥스테크에 그 친구가 있으면서 저도 이쪽에서 맥스테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질 문 :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손준식 :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철, 그러니깐 철 일을 하게 되니깐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이런 쪽에서는 근데, 그 처음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석 달 만에 기계를 하나 만지게 됐습니다. 절곡기라는 기계를 만지게 됐는데, 지금도 만지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인정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서 많이 노력도 많이 했었고, 배우려고 많이 했었고, 지금은 직책은 없지만 이 일 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 · · · · ·.

질 문 :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손준식 : 물건이 있으면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절곡하는 절곡기 부분, 절곡기 벤딩 기계를 만지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배우면 쉬운 일이에요.

질 문 : 고등학교서부터 배우기는 힘든 거고?

손준식 : 예.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질 문 :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손준식 : 예. 그런 일입니다.

질 문 : 회사에서 기계 혼자하고 있어요, 아님 같이 하고 있어요?

손준식 : 나 과장하고 같이 하는데, 나 과장은 종합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현장 책임자고 저는 인제 그 일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 과장이 없어도 혼자는 알아서 해야 되니깐, 근데, 그만큼은 인제 됐으니깐.

질 문 : 일감은 많은 편인가요?

손준식 : 이번 달은 많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줄었어요.

질 문 : 평균적으로 일이 많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얼마나 일하나요?

손준식 : 거의 똑같이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일이 많던 적던, 일이 오히려 일이 더 많으면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질 문 : 8시쯤 출근하나요?

손준식 : 9시에, 9시까지 출근해서 9시까지 거의 일을 합니다.

질 문 : 그러면 식사는 다 회사에서 하고?

손준식 : 예.

질 문 : 아침도?

손준식 : 아침은 집에서 하고 나옵니다.

질 문 : 그럼 거기는 산재 위험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손준식 : 예. 다 됩니다.

질 문 : 그러니깐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

손준식 : 아, 그런 거는, 자기만 솔직히, 저는 일만큼은, 일할 때 사고 나는 거만큼은 자기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조금만 더 주의하면은?

손준식 : 예, 다 기계를 여기 와서 왜, 그러니깐, 뭐라고 해야 되나, 다루기 힘들고 지겹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만져 보니깐 그 지겨운 거보다 말고는 자기 부주의가 아니면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회사에서 회식이나 술자리는 대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공식적인 것이나 직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들은…….

손준식 : 공식적인 거는, 인제 사장님 하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많이 어렵다고 보고, 비공식적으로는 인제 김문서 과장 하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질 문 : 그럼 그 회식비는 누가 냅니까?

손준식 : 그게 회사 카드가 있기 때문에 회사 카드에서 한두 번 내고, 김문서 과장 카드에서 한두 번 내고, 그런 식으로 인제 냅니다. 그니깐 일방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두 번은 김 과장이 내도, 한 번은 인제 뭐 나 과장이 내든 직원들끼리 나눠서 해결을 합니다.

질 문 : 직장 생활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손준식 : 일은 만족을 합니다. 제가 원해서 들어갔었고, 친구한테 많이 들어서 무슨, 무슨 일이라 들었는데, 제가 원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도 많이, 인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인제 들어갔었고, 사장님도 많이 챙겨주시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인제 결혼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제가 하죠. 아직은 크게 인제, 크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사장님 말씀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페이 문제로 한두 번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그걸 챙겨주셨고,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질 문 : 그럼 이 일을 대략 언제까지 할 거다, 이런 작심이 있습니까?

손준식 : 지금은 계속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은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

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페이 문제 쪽에서 중간에 결혼할 상황도 생겼고, 페이 문제 쪽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질 문 : 주위에 다른 공장들이 많은데, 요새 몇 년간 사정은 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손준식 : 갈수록, 요즘에 갈수록 요즘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점점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 문 : 문 닫는 공장들도 있나요?

손준식 : 예.

질 문 : 이사가 아니라 공업 활동이 안 되서?

손준식 : 예. 문 닫는... 여기 있으면서 몇 달, 그러니깐 두서 달 전 얘기 들은 상황에서는 서너 곳이 막 무너지고, 문 닫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질 문 : 문화생활은 좀 하는 편인가요?

손준식 : 저는 거의 매주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다른 직원들은 어떤가요?

손준식 : 지금 나 과장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나 대리도 요즘, 상대방이 시간 내서 영화를 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요즘 어떤지는 얘기를 잘 안 해서 모르겠고, 와이프가 있는 사람은, 와이프하고 애하고 인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맞춰서 하는 거, 김문서 과장 같은 경우는 전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질 문 : 부평에서 죽 살아 왔는데, 옛날하고 지금의 부평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을 하나 꼽자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손준식 : 저 어렸을 때는 도랑이랑 뛰어놀 공간이 많았었는데, 개천도 많았었고, 근데 클수록 아파트나 도로나, 자꾸 공해도 심해지고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애요. 요즘에 부평에서 공원도 생기고,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인제 마트나, 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 보면 마트도 생기고, 거 공원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아파트만 생기고 거기서 뭐 마트 생겨서 음식점, 술집 같은 거나 생기고, 인제 그러다 보니깐 휴식 공간이 아니고 인제 노는 쪽으로 많이 변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평 상인들의 삶

채록 · 정리 | 이해선(소설가)

전형적인 농업형태의 삶에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미군부대 주둔, 한국전쟁의 혼란기, 수출산업공단 조성 시기를 거치며 부평의 상업 활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과 동시 생활권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한때 서울 상권에 흡수되기도 했으나 경인철도,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전철화, 인천지하철 개통 등의 원활한 교통여건과 인구팽창, 소득 증가 등으로 부평역세권은 상거래 중심지로 확대되어 갔다.

그뿐만 아니라 부평은 서울 · 인천 공항 · 김포 · 강화 등 각 방면으로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인천시 여러 상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활발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

부평지역에서 오랫동안 상업활동에 종사해 온 상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정착민으로서 상업적 근성(안상재 : 1920년 생, 명신당 대표)



명신당 대표 안상재 옹

부평의 '명신당'하면 거의 고유명사처럼 불리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70여년간 귀금속 거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지켜온 '명신당'. 일부 사람들은 '명신당' 주인을 토박이로 생각할 정도다.

올해 나이 여든 일곱인 '명신당' 대표 안상재 옹은 1920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황해도 명문인 명신중학에 입학했으나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열네 살 때 만주 봉천으로 가 포목점 점원으로 있다가 1937년 무렵 부평으로 내려와 세공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안상재 옹의 구술은 고령으로 인한 기력과 기억력 감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장소, 한 직종에 평생을 보낸 노옹의 상업적 근성은 생생했다.

안상재 : "내가 지금 87살인데, 부평에 온 것이 17살 때였으니 70년 됐지.

황해도 재령땅이 내 고향인데, 명신중학교 입학시험에 붙어놓고 아버지가 뺑을 해서 다 망해먹었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14살에 만주 봉천으로 가서 포목점 점원으로 있다가 부평으로 오게 됐어. 그때 부평은 허허벌판이었어. 역전 앞 대한극장 있는 데가 조그만 동산이었는데, 땅 한 평에 일전씩 했어.

일제 때 한국 사람들은 전부 거지처럼 생활 했어. 일본놈들은 다 잘 살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며 일본놈들이 군수품 만드는 조병창을 세우고, 철로변에 미쓰비시가 들어오고 그랬어. 그때 사람들이 부평으로 많이들 왔어. 김석기가 미쓰비시 노무과장으로 있었지. 미쓰비시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병창은 시험 봐야 들어갔어. 강한성이가 정미소하고, 연탄공장하고 그럴 때야. 이재준이는 나무를 잘라 일본에 갖다 팔어 곱장사를 했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이재준이 하고는 밤낮 치고 받고 했지.

내가 처음 부평에 와 자리잡은 곳은 부평극장 옆이었어. 그때 세공 기술자한테 기술을 배워 시계와 은제품 위주로 명신당 점포를 차리게 됐지. 금은 취급할 수가 없었어. 왜놈들이 다 뺏어가. 금 거래하다 걸리면 영창가고, 압수당하고, 몇백 배씩 벌금 물리고 하는데 할 수가 있어? 해방 되고 나서야 금반지를 했지.

해방 되던 해 도둑이 들어 돌거지가 되고, 다시 좀 할 만하니까 6 · 25가 터졌어. 그리고 또 1 · 4 후퇴 터졌지, 그동안 몇 번이나 일어섰다 망하고를 했는지 몰라. 내가 워낙 악바리라 밥을 굶어가며 해 왔어. 종업원은 멕여도 나는 굶었어.

미군부대 있을 때는 양색시들이 많이 왔어. 반지, 목걸이를 많이 해 갔지. 그때부터 쭉 좋았어. 요새는 IMF 때보다도 못해. 다른 점포와 경쟁해야지, 경기 안 좋지, 돈을 못 벌어.

미군부대 이전할 무렵 내가 라이온스를 했는데, 그때 김석기, 김숙현, 강한성, 윤병일, 장래복 등 라이온스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부평경제가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에 공단을 부평에 유치하자는 얘기들을 했어. 그래서 우리들이 형편껏 돈을 모아 부지를 먼저 마련하고, 입주 업체들에게 무이자로 몇 년에 나눠 갚게 했어. 그래서 공단이 들어오게 된 거야.

명신당(明信堂)이라는 상호를 짓게 된 것은, 내가 황해도의 일류학교인 명신중학을 입학하고도 돈이 없어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게 한이 맺혀서 명신, 명신, 밝을 명(明), 믿을 신(信), 하다 이거다 하면서 짓게 되었어.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자 한 거지. 지금은 내가 나이 먹고 힘이 들어 거의 집사람과 아들이 맡아 하고 있어."

2. 토박이로서 겪은 상업활동의 곤고함(홍종광 : 1942년 생, 생선 도매업)


홍종광 씨

홍종광씨(1942년생)는 부평토박이이다. 선조 때부터 계산동에서 살았으나 6.25 전쟁을 겪으며, 부모를 따라 잠시 대전으로 피난 갔다가 종전 후 다시 올라 와 부모가 부평시장에서 쌀장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부평시장에서의 생활이 청년기까지 이어졌다.

여러 식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찍부터 여러 형제들과 부모의 일을 거들어 온 홍종광씨는 장사의 고달픔을 겪느라, 대학(한양대)까지 포기해야 하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후 군대를 마치고,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는 등 상업활동에서 손을 떼고 지내다 최근 부평으로 다시 내려 와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 함경도 원산 양복 공작창에서 양복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계산동으로 오셔서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조그맣게 국수가게를 했는데, 이걸 반죽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물하고 소금하고 비율을 잘 맞춰 반죽을 해서 널어야 안 부러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신문지에 싸서 팔고 했는데, 하두 떨어지고 그러는 게 많으니까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 질리는 거지.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는 그걸 싸 들고 이웃집에 가서 밥이랑 바꿔 먹고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 · 25가 터져 가지고 부평으로 나오게 됐는데, 왜 이리로 나왔냐면 계산동에 동네 빨갱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웃동네 아랫동네 할 것 없이.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대한청년단의 일을 보신 게 있었어요. 그래 붙들려가지고 인천으로 끌려가서 죽을 뻔 하셨어요. 그냥 다 죽는 거지 뭐. 인천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다 죽는다고 그럴 때 탱큰지 뭐가 올라오는 바람에 빨갱이들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으신 거예요. 그래 집에 오자마자 짐

을 쌌어요. 계양산 아래 읍내를 지나 작전동 논밭을 거쳐 갈산동 신트리 공원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굴포천 되부뚝 갈대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러고는 무서워서 거길 가 보나. 아버지는 계양산 밑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으니, 그 동네 계양산만 쳐다보면 치가 떨린대요. 그런데 부평으로 이사 와서 얼마 안 있다 또 1·4후퇴가 터진 거예요. 아버지는 귤현리 고모네로 잠시 피해 가셨다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피난을 가게 됐지요. 대전 어느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는데, 입에 풀칠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밥풀떼기 장사를 나가면 나는 동생들 돌보며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동안에도 전시 중이라 보급대(탄약 나르는 일)에 끌려가지 않을려고 숨어 다니셨어요. 숨어 다니면서 먹고는 살아야 하고 산고생을 한 거죠.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부평으로 올라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 뭘 했냐 하면 쌀장사 비슷한 건데 쌀이 없었으니까 밀기울, 쌀겨가루 이런 걸 가지고 개떡을 해 먹을 때였어요. 그런 걸 어디서 조금씩 얻어다가 노점상 비슷하게 팔았어요. 장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쌀두 갖다 팔고 했어요. 5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러면서 부평극장 근처 깡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게 됐어요. 부평극장 밑에, 거기가 235번지, 지금은 222번지로 바뀌었지. 지금은 부평극장도 없어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딴 걸로 만들었대요.

내가 7남매 중 셋째인데, 형들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일을 거들었어요. 넷째까지도 그 일을 했어요. 그때 오스텡이라고, 일제 때 쓰던 차를 수리해가지고 만든 짐차가 있었는데, 동해안 산지에서 생선을 싣고 대관령을 넘어 밤새 달려오면 사람들이 먼저 골라 가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또 물건이 딸리고 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예요. 수백 짝이나 쌓아놓은 생선 궤짝 앞에서 그거 지키느라고 밤낮 학교도 지각하고. 석탄 때서 가는 증기기관차가 부개동 쪽에서 삑삑 소리를 내고 달려오면 뛰어가곤 했어요.

그때 우리 작은 형 머리가 아주 비상했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딱 쳐다보면 누가 몇 짝 가져갔는지 다 알아.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다 알더라구요. 그리고 삼능, 신천, 백마장, 청천동은 물론 주안까지 배달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전엔 자전거지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지. 자전거로 백마장 꼭대기 신한제분 있는 데를 올라가자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보통 힘 드는 게 아니었어요. 춥기도 추웠고.

그전엔 구멍가게가 크지들이 않았잖아요. 조그맣게 하는 집집마다 배달하고 저녁엔 수금하러 다니고. 그때는 모두들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안 도와 줄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돼요. 당시 생선 한 차가 오면 그날로 한 차 다 팔리고 그랬어요. 대관령에 눈만 오면 차가 못 오기도 하구요.

그때 우리가 하던 데가 부평에서 유일한 시장이었고, 시계탑 로터리 그 쪽은 미나리깡이었요. 시커먼 진흙땅이 전부 미나리밭이었어요. 명신당 뒷골목 옛날 경찰서 옆에 부일옥이 있었고, 그 뒤쪽 골목으로 쭉 내려가면 포목가게들이 있고, 거기 우측으로 양키물건 장사들이 퍽 많았어요. 거기가 번화하던 시기야.

그렇게 하다가 새 시장이 지어지면서 우리는 그리로 왔어요. 지금은 복개공사해서 그렇지 그 쪽이 개천이었어요. 거기가 옛날엔 노점상들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 좌판 쫙 깔아놓고, 좌판이랄 것도 없이 그냥 보자기에 싸온 그대로 바닥에다 농산물을 펼쳐 놓고 파는 시골 장터 수준이었어요. 먼지 풀풀 날리는 길바닥에 오이 몇 개, 가지 몇 개, 호박 몇 개, 나물 몇 무더기 늘어놓고 파는 정도였어요. 김포, 강화 쪽에서 소쿠리에 이고들 와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장세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땅 주인도 아닌 건달 같은 사람이 시골서 온 노인 할머니들한테 장세랍시고 받아 챙기는 거예요. 안 주면 발길로 차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니까 안 주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 노인네들 냉이 나물 꾸러미 많지도 않아요. 쬐끔 싸들고 와서 파는데, 그나마도 얼마씩 뜯기는 거죠.

우리집은 내가 한양대 2학년 때인 62년도까지 생선도매업을 했어요. 큰형이 차 사고 나서 일찍 죽고, 작은형이 지금 형수하고 바람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대학 3학년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거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군대 가고 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접고 다른 거를 했어요. 고추 방앗간도 하고. 나는 군대 가면서 아예 손을 뗐어요. 아주 지겹지. 장사라는 게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거를 극복 했으면 지금쯤 성공 한 거지. 그 후 작은형이 돌아와서 식품가게를 열고 안아지고개 부대에 납품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 무렵부터 부평시장은 번성기였던 거 같아요. 미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잘 됐어요. 미군부대가 아니었으면 부평이 그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에 농사 짓다가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외지 사람들 많이 들

어오지, 신트리 사람, 고니새말 사람, 부개동 사람들이 주로 미군부대 많이 다녔어요. 수입이 좋았죠.

쌀겨로 개떡 해 먹던 시절에, 여기 부평은 꿀꿀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놈들 먹던 짬뽕통,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 먹고 자란 사람 많아요. 그게 영양가도 많고 고급이었지. 담배꽁초도 주워서 막 먹을 판인데, 배고프니까. 어릴 때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죠. 겨우 당원, 사카린 같은 거 구경할 땐데, 우리는 이 동네에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커피 맛도 일찌감치 알았어요. 처음 계산동 살 때 양놈차가 지나가면서 커피하고 껌 이런 봉지를 막 던져 주는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아나, 뭐가 뭔지도 모르죠. 껍데기 뒤집어 가지고 먹으니 단 우유가루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프림이었던 것 같아요. 설탕 있고, 나중에 시커먼 게 나오는데 커피인지도 모르고 막 먹다가 쓰니까 그냥 뱉어내고 했어요. 아마 요새 우리 믹스커피 같은 거였어요. 그런 미군부대 때문에 그래도 부평이 살은 거예요. 양색시들도 많았고.

제일 처음 깡시장이 지금의 한남빌딩 자리였어요. 과일 채소 같은 거 파는데 손가락으로 막 부르잖아요. 그때 당시 농사꾼들은 한국사람이 드물어요. 거진 화교였다구요. 천주교성당, 그 쪽이 전부 당근밭, 양배추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농장을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쿠리 같은 정도의 소규모였고.

그런데 어느 땐가 희한하게 다 없어지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사람들이 돈은 많이 가졌는데 돈은 안 쓰고 하니까 걔네들 돈을 뺏기 위해 화폐개혁 하면서 걔네들한테 땅 소유권도 안 주고 하니까 그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발을 못 붙이게 했잖아요. 중국집도 꽤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명신당에서 내려와 뒷골목으로 복화루라고 유명한 데 그 집 정도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천안상회라고 우리 친구네 과일가게가 있었는데, 걔도 나와 같이 배달 다니고 했어요. 그땐 다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천안상회 자리에 수입품 코너가 들어섰더라구요.

어느 날 천안상회에 수박이 들어왔는데, 삼륜차에 싣고 오면 일꾼이 어딨습니까? 우리 애들이 가서 거드는 거죠. 하나는 위에서 던지고 하나는 밑에서 받고. 그러면 힘들고 먹고는 싶은 데 안 주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수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엔 점포가 제대로 갖춰지

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다 쌓아놓고 가마때기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도둑이 또 좀 많아요. 주인들이 그 속에서 잠을 자며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때 친구들과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천안상회 앞에서 수박 하나를 훔쳐 먹을려고, 쌓아놓은 데서 그냥 아무거나 들고 오면 되는데, 잘 익은 거 고른다고 전기불도 없는 컴컴한데 손끝으로 톡톡 두들기다 그만 친구 아버지 머리를 두들기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통치는 바람에 그만 줄행랑을 놓고 만 기억도 있어요. 친구 있을 때 가면 가끔 과일을 얻어먹기도 했는데, 줘도 꼭 썩은 것만 줘요. 좋은 것은 안 주고. 그땐 썩은 것도 좋았지 뭐. 먹을 게 뭐 있었나요?

수출공단 들어오면서부터 부평시장이 한층 번창했어요. 먹는 거 식료품 위주로 형성됐던 시장이 공단 들어서고 나서는 옷가게, 가방가게 같은 걸로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건가게, 옷가게, 가방가게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때 시장이 많이 컸을 거예요. 70년대는 추석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사오일 전부터 상점마다 물건을 쌓아놓는 거야. 대목 볼라구. 엄청났어요. 노점상도 여기가 제일 잘 됐어요.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영등포에서 새벽에 구루마를 끌고 와 자리 다툼을 벌이고 했대요. 문화의 거리 중앙로에 옷가게 노점상이 쭉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그렇게 잘 됐대요.

지금은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장사를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지. 난 이해가 안 간다구요. 젊은 애들 뭐 진선미 쪽으로 다 뺏겼죠. 거기가 진짜 문화의 거리지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거기 프리미엄이 삼천, 오천 이래요. 명신당 주변 땅값은 비싸도 이제 상권은 많이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3. 부모세대로부터 이어진 상업활동

1) 남창문구 임갑선 씨(1939년 생)와 부인 조광자(1943년 생) 씨

부평에서 '남창문구' 하면 '명신당' 만큼이나 잘 알려진 상호다. 60여 년이나 되는 역사를 안고 부평시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창문구'는 선친(임덕용, 1986년 작고)대부터 남다른 성실함과 근면성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아들 임갑선 씨가 가업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부인 조광자 씨는 부평 향토사학자로 유명한 조기준 선생의 딸이기도 한데, 아직도 왕성한 활동력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두 며느리가 요즈음 문구점 일을 거들고 있어, 남창문구 3대로 이어지는 탄탄한 가업 전승이 기대되었다. 인터뷰는 조광자 여사와 이루어졌다.



남창문구

"남창문구의 시작은 원래 시아버님이 해방 직후 충청도에서 올라 오셔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데서 일하시다가 해방되고 직업을 잃으니까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옛 부평경찰서 부근에 그때는 남창상회로 시작하셨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종합적으로 파는 실, 단추 등 만물상을 하셨어요. 문구만으론 생계가 안 되니까. 시부모님이 아들이 하나였어요. 그 아들에게 시집을 오니 시아버님이 장사하신 지 20년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나는 장사는 장 자(字) 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노인네가 연세도 잡숫고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워낙 고생하셔서.

내가 애기 하나 낳고 거들다 보니까 그럭저럭 하겠더라구요. 지금보다 규모는 적었지만 도소매를 다 하면서 우리 집 아저씬 배달 다니고. 옛날엔 배달이 많았어요. 시집와서 10년쯤 되니까 그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문이 안 닫혀요. 그래 여기로 옮기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맨날 빚이지. 이 집을 샀지, 지었지. 대형화되기 시작하니까 대형화해야지.

옛날엔 물건이 쌓여 있으면 일일이 집어줘야 했어요. 지금은 물건 진열이 잘 돼 있어서 손님이 필요한 거 고르면 계산만 하면 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문 닫고 먹고 자고 맨날 이거죠. 옛날에는 노는 날 하나 없이 정월 초하루하고 추석밖에 안 쉬었어요. 여름에 아침 여섯시면 문 열고 열한 시에 문 닫고. 뭐 일 원이라도 남으면 하고 그냥. 근데 뭐 이게 뭐 남아요? 공책 팔아서 뭐 돈이 되냐구요.

그전엔 경쟁이 참 심했어요. 와리깡도 하고 그랬는데도, 빠른 사람은 경쟁이 되니까 노트 장수를 빼서 어쩌고, 싸게 팔고. 그런데 싸게 팔았다 하면 장수가 적어요. 나는 같은 백 원짜리라도 장수를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오라 해요. 원고지가 많이 나갔는데 다른 집들은 원고지 장수를 적게 해다가 맞추는

거야. 나는 장수를 더 많이 넣어 오라고 그래요. 노트도 장수 적은 건 안 쓰고. 노트 한두 장 빼면 같은 이십 원, 지금 말하면 이백 원짜리래두 장수가 적으면 마진이 커지잖아요. 근데 나는 장수를 더 많이 넣었어요. 역으로. 써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궁핍하니까 모두 알뜰하잖아요.

단가 천 원짜리가 육백 원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오백 원으로 백 원을 더 남기고 했는데, 나는 특별히 따로 만들라는 식으로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신용으로 무너지지 않고 유지해온 것 같아요. 문구점 열 개가 더 부도가 나고 난리 치고 해도 우리는 버티고 하다 보니, 안 될 적도 있고 될 적도 있고. 바쁠 적도 있고 한가할 적도 있고.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사가 쉬우면 내 차례가 와? 장사가 잘 되면 한 집 걸러 생기겠지. 우리 소신대로 힘든 거를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위로 삼아서 해 왔어요.

초창기 우리 시아버님이 하실 적에는 서울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떼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 여섯 시에 집을 나서서 종로에 가서 물건을 해가지고 오다보면 오류동에서 해가 넘어간대요. 하룻밤을 여인숙에서 주무시고 오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체구도 자그마한 분이. 그전에는 공장에다 돈을 갖다 싸다 줘야 물건을 주었어요. 신학기 때가 되면 돈을 맡기고 물건을 맞추는 거야. 신용을 딱딱 지켜야 하는 거야, 아버님이. 그 생각하면 지금은 물건을 주문만 하면 직접 오는데 힘들다고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1986년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결혼하고 이십 년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전에 이 가게를 물려받았지. 결혼할 때 52살이셨는데, 환갑 되니까 몸이 힘들어서 절대 안 하신다며 결제를 맡아서 하래요. 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 속이 타는 거예요. 직원들 봉급 줄 돈도 안 나와요, 팔아보면. 우리 애들 대학 들어가고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지. 물건이 9,000원에 들어오면 8,800원에 파는 거예요. 경쟁들이 세어서. 어떻게 하면 안 먹고, 참기름도 안 사 먹고, 콜라도 안 사먹고 하는 거야. 아까워서. 이집 짓고 콜라를 처음 사 먹었어요. 아이스케키도 사 먹고. 200원이란 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 애들도 반찬 먹다 남기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커피도 없었어요. 가게 일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뒀는데, 이 사람이 커피 먹는 게 취미래요. 그래 나는 내가 먹기 위해 커피를 산 게 아니라 밥하는 사람 위해서 커피를 샀어요. 별나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올해 내가 65세예요, 우리 아저씨가 69세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42살이고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아파트 사 줘서 살고 있고, 우리 부부가 이 건물에 살아요. 아침에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노트도 안 쓰는 세상이 됐어요. 난 이 직업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복사기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노트가 안 팔리네. 97년인가 6년에는 완전히 고전을 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IMF 터졌지, 세상 변하지, 고만둘까 정리해야 되나부다 하는 단계에 IMF 터지니까 그만 두면 누가 여길 들어오겠어요. 그래 다시 이걸 수리 다 해가지고 용기 있게 나갔지요. 수리하는 데 6개월 걸렸어요. 펜시용품으로 바꿔가지고 크게는 돈을 못 벌어도 어린 애들 좋아하는 실내화, 가방, 쇼핑백 등 물품이 더 많아졌어요. 컴퓨터 제품 잉크 갖다놓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손님이 뭘 찾나 항상 메모 하라. 철저하게 일 년에 한 번을 찾더라도 갖다 놓으라고 해요. 여기 남창문구 하면 거기 다 있다 하게. 우리 친정 엄마가 태극기 살려고 동네방네 다 다녔는데 없더래요. 우리 집에 오니까 바로 우리 집에서 파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팔죠.

처음에 잡화랑 같이 시작해서 그 다음엔 문구만 팔다가 지금은 다시 사무용품 모든 일체를 해요. 이층은 그냥 창고로 쓰고요. 매장 늘리면 사람 쓰기도 힘들다구. 욕심 안 부리고 쌀이나 팔아먹고 사는 그 정도지. 1994년 그때가 제일 잘 됐어요. 노트 무척 많이 팔았어요.

아들 셋, 딸 하나 자식이 사남매인데 셋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가업을 물려받을지는 글쎄 지들이 안 한다니까 뭐. 근데 며느리들이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 며느리들이 교대로 나와서 봐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아저씨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아픈 뒤로는 남편을 위해 사는 걸로, 한 오륙 년 됐어요. 지금도 내가 나가 있으면 이 자리로 불러요, 나를. 나이가 몇인데 놀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못 본 척하고 놀러 나가기도 하고.

나는 계산동, 작전동에서 나서 살다가 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저씨 만났어요. 원래 부유하게 자라서 이런 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워낙 호강하다 와서 이런 거 하며 힘들게 살아야 되나보다 그러죠. 이제 우리 아저씨는 골치 아파서 나한테 맡기고 건강 관리나 하고 지내요. 어려서부터 장사해서 질린 거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보시던 책이 워낙 많았는데, 내 맘에는 그 책을 다 문화

원에 기증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아버지 훌륭했어요.

이 주판은 우리 시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품이지요. 시아버님이 이걸로 돈을 버셨는데, 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해요. 남들은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지만. 우리 애들은 이걸 안 쓰고 계산기로 하잖아요.


조광자 씨

가장 기뻤던 일은 93,4년 때인가. 신학기 때 물건이 막 쌓여있고, 손님이 한 이백 명쯤 들어와 있었어요. 머릿수를 다 세어 봤다니까. 일주일 동안 오글오글 한 거예요. 십만 권 팔아야 얼마 남아. 오십 원 띠기 하면 얼마야, 오백만 원인가. 찾아주시는 손님이 너무 고맙고. 그렇게 이삼 년 하더니 막을 내리더라구요. 절정이었지요.

어릴 적 왔던 손님이 기억하고 찾아주면 정말 오래되긴 오래됐나보다 해요. 가끔 결혼하고 애기 업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고 뭐라도 주고 싶고. 우리 물건 사 가지고 가서 공부 잘 해서 서울대 가고 그러면 더욱 좋고.

잃어버리기도 많이 하죠. 우리 집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가면 니네 집 가면 훔쳐 올 거 많아, 그런대요. 그래도 그 물건이 얼마나 좋으면 가져가나 싶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생들도 카드들 가져오고 난리예요. 카드를 쓰는 건 애들이 외상을 쓴다는 거예요. 나도 긁다보면 경제관념이 없어지는데, 나라에서 카드를 마구 쓰게 한 건 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국민 개인 빚이 얼마 전엔 사백인가 했는데, 지금은 삼천인가 얼마라잖아요. 카드 쓰면 깎아주고 그러는데 카드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에서는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내 일이 바쁘니까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깨우고 보냈어요. 늦어도 알아서 해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나를 안 믿어요. 지각도 하고 달음박질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것 저것 너무 강요하는데, 그릇이 다 있지. 능력대로 가는 거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돈을 안 들였어도 사년제 대학 다 나왔어요. 둘 결혼하고 둘 남았어요. 막내가 먼저 가

고 이번에 셋째가 갈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거둬요. 나는 외며느리라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안 그러면 딴 며느리 얻어 쫓아낸다고 해서요.

우리 시아버님은 문방구 해도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피난 가실 때도 노트만 싸 가지고 가셨대요. 대구로 가셨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트 연필 싸들고 가셔서 1년 살다 오셔서 해 먹을 건 문방구밖에 없다고 다시 차리신 거죠. 다른 거 크게 하시죠 하면 난 이게 좋아 하셨어요.

돌아가신지 오래 됐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시아버님이 꼭 꿈에 나타나요. 그럼 하라는 건가보다 하고 다시 또 하고. 내가 지금 몇 년을 한 거야, 아버님의 따블을 한 거지. 사십 년이 넘었으니. 이제 물건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정이 가는지 요렇게도 만들 수 있나, 보기에도 좋고 그저 아까운 거예요. 인천시내 전체에서도 이렇게 오래 된 문방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조카가 SBS에 있어요. 방송 한 번 내주겠다고 하는 데도 싫어, 뭐 잘났다고 그러냐, 더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일도 많이 못 하고 나 벌어 나 먹고 살기 바빴는데 뭘 그러냐 했지요. 돈 벌기 힘들고 바쁘니까 좋은 일 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지금도 아직 내 욕심이 많아서. 이거 하다보면 골병 다 들어요. 종이가 얼마나 무거워요. 문방구 하는 사람들이 고스톱을 하면 오백원만 잃어도 간대잖아요. 부도도 안 내고 지독하게 해야지 꾸려나가니까.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애들이 그대로 잘 해주면, 일본처럼 전통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거예요. 큰 욕심 없어요. 지금은 며느리들이 살림 해가며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늙은 얼굴 보면 흉해서 젊게 보이려고 해요. 티비 봐도 노래 잘하면 좋지만 얼굴 보면 그렇잖아요. 고객분들 위해서 그런 면은 피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2) 전 동부약국 약사 서동수씨(1937년 생)

서동수씨는 부평시장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활동하였다.

1943년 친척의 권유로 부모와 함께 서울 신당동에서 부개동으로 이사를 와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후 부친이 부평시장에 의류와 신발, 잡화 등을 파는 가게를 열면서 어린 시절을 부평시장에서 보냈다.

1960년 약대를 졸업하고, 부친이 하는 가게 옆자리에 약국(동부약국)을 열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나 약국 도매업으로 전환하면서 사기를 당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산곡동에 다시 약국을 열어 활동하다 딸에게 넘겨주고, 한때 전원생활을 꿈꾸며 충청도에 내려가 살기도 했던 서동수씨는 다시 부평으로 올라와 최근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아 상인들 상호간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틈틈이 테니스로 건강도 챙기고 있다.

서동수 씨네 집안은 며느리를 비롯하여 두 딸, 여동생이 모두 약사인 집안이다.


서동수 씨

"나는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로, 1937년에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는 무일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 쫓아 함흥 질소비료공장에도 갔고, 함흥 갔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할 게 없었어요. 사람 사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야미장사라 해서 백화점에서 담요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왔는데, 그걸 사기만 하면, 밖에다 팔면 곱절은 더 남아요. 그런 거 하는 등, 사다가 이익 많이 남기고 팔고. 1942~43년 정도 될 거에요. 비행기들이 오고 폭격을 하고 방공 훈련이 심했던 때였어요.

그때 신당동에 살았는데, 쌀을 구해 먹기가 어려운 때라 배급을 줬어요. 친척분이 부개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분이 아버지를 잘 봐 가지고 장사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부개동에다 집하고 살 자리 마련해줄테니깐 오라고 해서 1943년도에 부개동에 와 가지고 이삼십 평짜리 집을 한 채 사고, 논 한 이십 마지기, 밭 한 이십 마지기 사고 그랬는데, 굉장히 큰 거였죠.

그 당시 여기 오니깐 완전히 시골이더라고요. 부평은 역전 하나 있고, 주변에 집 몇 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료도 없고 하니까 여기 시장에서 똥을 퍼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몇 인분이나 했는지 몰라. 그걸 거름으로 쓸려고 시장에서 퍼서 부개동까지 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당시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머리가 빠르신 분이예요.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 가게 앞을 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철물점이었어요. 그 앞을 조금 빌려줘서 고무신 장사를 시작했어요. 명신당 뒷골목 거기서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장사에 눈이 밝으시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할 만 하다 싶어 부개동 논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명신당 뒷골목 코너 이층집을 사서 의류 잡화 고무신 장사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 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던지, 왜 잘 되냐 하면 딴 데가 없기 때문이예요. 계산동, 부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김포, 강화, 부천에서 다 이리 왔어요. 섣달 대목이나 팔월 대목 때가 되면 물건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나중에 보면 물건이 하나두 없어. 그때 반은 잃어버리고 반은 파는 거예요. 손님이 하두 많으니깐 정말로 반은 잃어버리는 것 같애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권이 차츰 이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문화의 거리 쪽) 그래 여기가 신상가가 시작되니깐 그대로 있다가는 망하겠구나 해서 그걸 팔고 여기 문화의 거리 쪽 건물을 사게 됐지요. 그런 뒤 내가 1960년에 약대를 졸업하고 아버님 가게 옆에다 약국을 처음 열었어요. 동부약국이라고. 그때 부평에는 약국이 수보당약국과 수도약국 정도 있었어요.

약국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계산동 부천은 말할 것도 없고 강화에서도 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구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정기적으로 드러누웠어요. 헌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아이큐, 아이큐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민도가 얕았어요. 우리도 돈 벌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관리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손님이 많이 오니깐 바쁜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겠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오로지 그거 하나였지요.

옛날에는 나무로 돈 궤짝을 짰는데 요만했어요. 약국 문 닫고 식구들이 모여서 돈을 한 시간 정도 세야 해요. 물론 화폐 가치가 지금 같지 않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1년이면 인플레가 200% 300%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약 회사에서 약을 갖다주면 나는 외상지는 거 싫어하니깐 외상으로 안 사요. 약을 갖다 놓고 질질 끄는 사람들은 최후가 나빠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오면 일단 수금을 해 주고 이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양주가 귀한 땐데 양주를 한 잔 대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잘 주지, 대우받고 가지 그러니깐 약을 은연중에 싸게 주는 거예요. 할증 같은 것도 딴 데는 안 주는데 나한테는 10%를 주기도 하고, 20%도 갖다 주고, 혜택이 있으면 막 주는 거

예요. 그러니깐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장사 시간도 길었어요. 당시는 도둑도 심했어요. 밤에 야경 도는 사람들이 나무막대기를 딱 딱 치고 다녔어요. 그게 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새벽 날 새기 전에 약국 문을 열어요. 지금 문은 샷단데 그때는 문 하나하나 여는 거지요. 밤 12시 넘어 문 닫고 1시 2시 넘어야 잠을 잤어요. 잠도 별로 못 자는 거지요. 그렇게 자리가 좋고 잘 되고 하니까 내 평생 하다가 아들 주면 아들도 잘 될 거고, 그 아들 손자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197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어느 땐가 모르게 손님이 없어지는 줄 모르게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했는데, 약사들이 도매를 하라고 권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기 하천에다(부개동 자리)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의약품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가 약사로서 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까지는 알았는데, 도매업을 하자면 직원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처음에는 30명이었다 나중에는 70명이나 됐어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에서 오토바이 타고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한 1년 2년 되다 보니까 내가 한계에 와서 못 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대화를 해보니 얼마나 똑똑하고 모든 걸 너무나 잘 아는지, 그 사람한테 홀딱 반해 가지고 그럴 것 없이 내가 사장하고 네가 총무하자, 그래가지고 이익 남는 것 넌 기술만 대고 난 자본 몽땅 대고 절반씩 나눠먹자 했어요.

우리가 신용이 엄청 좋으니깐 자가어음을 발행하면 시중에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돈 못 받아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화재가 나기도 했었어요. 화재가 나면 그 집이 되나 안 되나, 제약회사에서 신경을 썼어요. 먹고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부도내고 도망가는 건 아닌가, 고의적인 것은 아닌가 전부 다 보는 때였어요. 그 당시 화재가 나 물건이 싹 타 버렸는데, 유한양행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유한양행 약이 다 떨어지고 화재가 났는데 약 좀 보내주쇼 했더니 유한양행에서 한 트럭을 싣고 왔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직원을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깐 완전히 빈 갑, 약을 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 사람이 장기 끊고 창고에 상품 수거 하고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고 돈 들어온

것 우리가 지불하니깐 이거 다 된 거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창고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약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외부하고 교품을 한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교품을 한다면서 한 트럭 싣고 나가 반 트럭 가져 오고 하는 걸 관리를 안 했어요. 나중에서야 저는 거기서 실패를 본 걸 알았지요. 81년에서 83년도 때에요.

엄청 큰 타격을 받고 나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내 죽어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는 걸 어떻게 죽을까. 쥐약을 먹을까, 염산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차를 몰고 가다가 꽝 받을까 하면서. 쥐약을 먹으려니 고통스럽고, 또 딴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도 하려니깐 못 하겠어요. 죽기가 싫은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죽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죽기가 싫은 거야.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사업 실패를 겪고 났는데 웬 소문이 악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루머가 생겼냐하면 집사람이 바람이 나서 돈을 6억 원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 다른 거 돈 잃어버린 거는 괜찮은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깐 더욱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집사람을 옆에 태우고 시장을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마누라가 내 옆에 있다, 도망 안 갔다 하고 사뭇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걸 말로 해야 안 들을 거 아니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우리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평서는 살지 말자, 삼천만 원 받은 거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조금 있으니깐 간석동 헌 집을 몇 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세를 주고 살다 결국 다시 부평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던 자리에 다시 약국을 냈지요. 85~6년도 일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한 10년 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그리고 산곡동 경남아파트로 이사 가서 거기서 조금 하다가 며느리한테 넘겨주고, 두 딸들에게도 하나씩 차려줬지요. 우리 집에 약사가 여동생까지 다섯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약사 이름만 가지면 돈 벌 때였어요. 요새는 약국도 힘들어요. 약사들도 많고, 의약분업도 생기고, 장단점이 있지요.

당시 부평에는 옛날 경찰서 근처에 부일옥이라고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었는데, 요새같이 아주 정제되고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 할머니이 분이 갈비를 사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샀어요. 요새는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걸 가지고 해 내지만 그 당시에는 소 잡는 델 가서 직접 한우를, 지금으

로 말하면 한우 중에 한우를 좋은 걸 사다가 갈비를 굽고 설렁탕을 해주고 했어요. 옛날에 교통편도 나쁜데 수원까지 가서 사오자면 서너 시간은 걸렸어요.


부평시장 골목

그렇게 해서 물건을 대다 보니깐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도 그 집 맛을 따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냉동해서 끓여 놓은 것 재탕으로 끓여주는 것 먹고사는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을 땐대 그렇게 해서 해주니깐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힘들고 지쳐 몸살기가 있다 할 때도 가서 갈비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면 병도 다 떨어져요.

지금도 충청도 같은 데 장날 가면 돼지고기 국밥 같은 걸 해주면 이런 데서 암만 맛있는 거 해 줘도 그게 좋아요. 바로 잡은 고기 고 놈을 가마솥에 고아 가지고 고기 덩어리 숭숭숭 썰어 놓은 데다 국수 말아 주면 참 맛있어요. 지금은 우리 음식 문화가 형편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맛이 없잖아요.

부일옥이 몇 년도인지 난 박대통령을 본적도 없지만, 가끔 들리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천에 시찰 왔다가 올라가실 때는 꼭 들려서 먹고 간다 하고, 또 워낙 맛있게 하니깐 유명해졌어요. 영화배우들도 와서 갈비를 먹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그것을 며느리가 맡아서 그런대로 곧잘 했어요. 거기 골목이 좁아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하기사 그 전에는 음식 먹으러 차 몰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지요. 그냥 걸어오고 버스타고 와서 걸어오는 때였죠.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나 차 타고 왔지, 일반 사람들은 차 타고 다니던 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걸어다녔지요. 90년대까지 하다가 나중에 주인도 바뀌고, 고기부페로 바뀐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딸이 금성극장 근방에 금강옥이란 설렁탕 집을 차렸는데, 부일옥에서 하는 맛보다는 못해도 맛있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도 한 십년 간 금강옥 갈비 하면 최고라고 했어요. 결혼식 피로연도 거기서 많이 했지요.

내가 약국 할 당시 우리 건물 뒤편엔 깡이 있었어요. 지금 부평백화점이라고 지어 놓은 데도 깡마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랬어

요. 한때는 여기 부평시장이 아주 유명했지요. 요 근래 한 십여 년 내지 십 오 년 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저 쪽을 새 시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여기 번성기 때는 아주 촌구석이었어요. 이쪽은 깨끗하고 이런 것만 취급하고 저쪽은 청과나 수산물 그런 것을 취급했는데, 여기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거기가 더 커졌어요. 요 근래 손님이 그리 몰리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은 약간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 부평 세 개 시장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그 전에는 시장 이 골목 저 골목 사람이 미어져 다니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걸로도 버텼는데, 시장 골목에 사람이 없어 되질 않아요.

이 건물 구역 내 안으로 들어가면 포목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한참 번창했었는데, 지금은 가게가 다 비어서 엉망진창이예요. 안 비어 있어도 장사가 잘 되질 않아요. 이 지역도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가게 주인들이 80년대 90년대 호황기 때 꼼짝 안하고 안주해서 상권이 다 붕괴 해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저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노래가 좋고, 또 일하면 일하는 만큼 돈이 벌려지니깐 좋았는데.

1996년 명신당에서 시장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길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문화의 거리 기공식을 1997년 10월 1일날 하게 됐지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나서 2000년도에 이민 간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관여했던 친목회도 정리하고 나는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시골에 정착해 살아 볼까 했는데, 거기서 사기도 당하고 여의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부평으로 올라와 조용히 살겠다 했는데, 문화의 거리 친목회원들이 나를 다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업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데 뭐 들어갈 필요가 있냐 했지만,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에 이끌려 다시 그 속에서 활동하며 지내고 있지요."

4. 이방인으로서 부평 정착 과정(복화루(福華樓) 사장 이본위, 1947년생)

부평에 중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항기 때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부평역 주변을 비롯한 부평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중국 음식점을 하거나 대규모 채소밭을 경작하였다. 오정희의 소설 『중국인 거리』의 작품무대인 북성동 일대에 버금가는 중국인들이 부평에서 생활하였으나 1960년대 국가에서 실시한 화폐개혁과 화교 토지소유 불가 등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 지금은 극소수의 중국인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중 하나인 부평시장 골목 중국 전통 음식점 '복화루(福華樓)' 주인 이본위(1947년 생) 씨와 부인 왕수영(1952년 생) 씨는 이방인으로서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곳에서 나고 자란 부평사람의 일원으로 다가왔다. 북성동의 가장 오래 된 중국 전통 음식점 '풍미(豊味)' 사장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이본위 씨가 가업인 '복화루'를 2대째 꿋꿋이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중국 음식 맛과 한국인 입맛의 조화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복화루 주인 이본위 씨

"해방 전 왜정 때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한국에 오신 나이가 15살 때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89세 정도 되셨어요. 그 전에 외할아버지가 먼저 중국 산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와 경상북도 상주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거기에 친척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 당시 한국이 살기 좋다고, 중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일찌감치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북으로 해서 넘어 오셔서 상주에서 같이 사셨대요. 화교들 대부분이 그때 많이 왔어요.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부평으로 들어오고 그랬죠.

예전에 부평에는 복흥원이라고 아주 큰 중국요리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부평 중국집 원조예요. 우리 집안 친척분이 하던 중국요리집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때 부평으로 오셔서 거기서 일하다가 복화루를 차리게 된 거죠. 당시 복흥원, 복성원, 용화원 등이 유명했는데, 중국요리집에 복자가 들어간 집은 다

우리 이씨 집안이예요. 중국사람들이 원래 복자를 좋아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이 건물 맞은편 제일포목상회 자리에서 복화루를 시작했어요. 그 후 이 건물로 이전해 온 거죠. 지금은 복흥원도 없어지고, 복성원도 없어지고, 친척들도 다 대만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은 우리 복화루만 남았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나는 1947년도에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평 서초등학교 옆에 있던 화교학교를 다녔어요. 당시 부평 화교 학교는 4학년밖에 없어서 5학년 6학년은 인천 북성동 화교학교로 다녔어요.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서울 한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일을 도우며 요리사 면허증도 일찍 땄고,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전라도 순천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순천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화교학교를 다니고 나를 만나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부평에 오게 된 거죠. 애들은 3남매를 뒀는데, 큰딸은 지금 목동에서 학원선생이고, 둘째 딸은 한성 화교학교 선생님, 셋째가 아들인데, 성균관대 컴퓨터 공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장사는 6,70년대가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미군부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부평공단 들어오고 대우자동차 들어오고 할 때 바글바글 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평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뭐든지 다 잘 됐어요. 계산동 그쪽이야 지금은 잘 되지만 예전에는 잘 안 됐어요. 우리 가게도 그때는 옆에까지 이어져 했었는데, 1980년대 초 가게를 반으로 줄이고 세를 놓았어요. 종업원도 여덟, 아홉명 씩 되니까, 종업원 관리도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반으로 줄이고, 배달도 없애고, 주방장 하나만 두고 우리 내외가 해나오고 있죠.

우리집은 어떤 요리든 다 좋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우선 짜장면부터 먹어보고 맛있다고 다른 요리도 먹고 해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그래도 단골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와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갈 때, 그때가 제일 기쁘고 좋죠.

8남매 중 둘째인 내가 복화루를 물려받아 여기서 살고, 다른 형제들은 국내에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대만에도 살고, 제 각각 다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나는 시간도 없고, 형제들이 가끔 들어오면 보고 하죠.

요즘은 주변 여기저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골목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들도 한번 세 들었다 하면 다들 오랫동안 살고 그러더라고요. 상인들과 친목 활동도 하고 동네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문화의 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노점상도 있고,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해서 더 잘 됐는데, 아무래도 노점상도 없애고, 차도 못 다니게 하니까 손님이 줄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 풍미(豐味) 사장이 우리 화교학교 2년 선배예요. 시간나면 가끔 그 쪽에 놀러가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거기도 그 사람 외에는 원토박이 중국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중국인 거리가 새롭게 꾸며져서 좋은데, 그렇다고 그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타고 들어가는 거리가 좁은 게 아쉬워요. 일본 오키나와 중국인 거리를 가 봤는데, 도로도 쭉 뻗은 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평에 들어온 화교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채소농장을 경작하는 사람들과 중국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농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 농장 규모가 아주 컸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땅 문제와 화폐개혁 때문에 그 당시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땅 소유를 못하게 하고 그대로 뺏기니까 돈도 바꾸지 못하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떠나면서 돈 가마를 다 불 질러 버렸다고 해요. 지나간 하나의 역사죠.

이 복화루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자식들이 안 할려고 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게 워낙 자기 시간도 없고 힘들고 해서 그런지 싫어하더라고요. 아들이 컴퓨터 공부하니까 그거 마치면 아마 자기 길 찾아 가겠죠. 우리는 한 달에 3번 노는데, 밀린 일도 하고 좀 쉬고 하죠. 이 건물 3층에 살림집이 있는데, 애들 키우고 가르치느라 돈도 많이 못 모으고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거죠."

5. 부모세대 이후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

1) '비너스' 대표 김세훈 씨(1950년 생)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이며 (주)부평역 지하상가 대표인 김세훈(1950년생) 씨는 부친이 김해에서 올라와 조병창, 미군부대를 다니

던 시절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부친은 미군부대를 그만두고 시장로터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 작고하였다.

유년의 기억이 쌓여갈 무렵, 서울 영등포로 출가한 누님댁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학창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군대 가기 전, 학창시절 연마한 태권도 실기로 부평 관내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군대를 마치고는 본격적으로 상업 활동에 뛰어들었다.

맨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생길 때였다. 품목은 잡화였는데,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당시 번성했던 동인천역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1987년 부평역 지하상가가 분양되면서 옮겨와 지금까지 '비너스' 라는 여성 속옷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훈 씨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2001년 7월 인천시 소유의 지하상가 기부 채납 임대 만료를 앞두고, 부평역 지하상가 개보수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배기와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하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들로부터 63억원을 모아 인천시에 다시 기부 채납해 유상 사용 기간을 10년 늘리는데 앞장섰다.

또한 판매 기법,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교육하는 상인 대학을 운영해 2007년 5월에는 중앙지하상가에 이어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에 따른 시범시장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상인 교육, 이벤트 사업, 온라인매장 입점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었다.


김세훈 씨

"저는 김세훈입니다. 1950년생이니까 쉰여섯 살이지요. 나이 꽤 먹었어요. 부모님들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해 쪽에서 올라오셔서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했어요. 저의 아버지가 조병창이라고 하는 데에 근무하실려고 오셨다고 해요.

저희 일가족은 형제 남매들이 칠남매, 팔남매, 옛날엔 식구들이 대개 많았잖아요. 그중 제가 막내예요. 형제들은 지금 청천동에 사시는 형님도 계시고, 또 서울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해요.

아버님은 조병창에 근무하시다가 그 다음 해방되고는 조병창이 없어지고 미군부대가 들어오니까 미군부대 근무하셨는데, 뭐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러니깐 잘 모르지요. 나중에는 요기, 내가 보기에는 가나오피스텔 자리 같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발소를 하셨어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50년생이니깐 한 50년대로 기억이 나요. 이발소를 쭉 하시다가 나이가 있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부평은 우체국 자리는 돌산이었고, 지금 전화국자리 앞에는 연탄공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전부 중국인들 밭이었어요. 부평 4동 성당 뒤쪽으로도 중국인 밭이 엄청 컸어요. 부흥로터리에는 미나리깡이 아주 지저분하고 미나리가 마구 자라고, 그 건너편에는 벽돌막이라고 해서 아주 황토밭이었지요.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영등포 쪽에 누님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며 거기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중 ·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는 지금 한전 있던 자리 있어요. 보건소 하던 자리에 거기에 태권도 도장이 있어서 거기 좀 있다가 동중학교, 부평중학교 운동코치를 꽤 오래했어요. 부평 서여중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태권도를 즐겨 했어요. 아버님을 거들어 드리거나 이런 건 없고, 알아서 자수성가 하고 그랬으니깐요.

부평은 1979년도에 신부평로에 처음으로 지하상가가 생겼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것은 1981년 시장로터리에 두 번째 지하상가가 생기면서부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하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 지하상가를 분양한다고 해서 그때 들어오게 됐죠. 잡화를 하다가 모자 전문점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가지고 동인천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1987년도에 부평역 지하상가가 분양되면서 오게 된 거죠.

'비너스' 라고 하는 여성 속옷 전문점을 차려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상권이 그때보다 많이 활성화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2000년 부평역에 인천지하철 환승역이 생김으로 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가도 많이 늘어나면서 부평역 지하상가는 꾸준해요. 다른 데 비해서.

부평 지하상가가 전국에서 톱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지하상가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규모면이나 뭐나 전국 최대예요. 조금만 경기가 활성화 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건이 많이 좋으니깐요.

부평이 분구로 서구나 계양구로 잘려 나갔어도 사람들이 어차피 부평역을 통해서 가야 하니깐 크게 영향은 없어요. 다른 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게 생겨서 저쪽 재래시장은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을 많이 뺏기고 하는데, 어차피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손님들이 오게끔 해야지, 오게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평역 지하상가는 원체 크고 넓다 보니깐 점포 숫자가 많아요. 천여 개가 넘어요. 품목도 애기용품에서부터 노인용품까지 다양한데, 이쪽 지하상가 고객들은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가운데도 젊은 층 대상 품목이 많지요.

작년에 상인대학이라 해서 각 상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상인들 의식교육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전에 지하상가라고 하면은 환불도 안 해 주고, 교환 안 해 주고, 불친절하고 그랬어요. 그게 무서워 가지고 손님이 끊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하상가 환경이 열악해서 공기가 나쁘고 하니까 2001년도에 63억을 들여 리모델링 하고 아주 깨끗하게 했죠. 급수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상인들의 의식을 자꾸자꾸 바꿔줬어요. 우리가 이걸 지켜갈려면 소비자들한테 잘 해줘야 한다 하고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환불이나 교환을 안 해주고 그러면 사무실로 오시면 다 해줘요. 네 개 지하상가 관리를 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입주할 때 그걸 써요. 수행 규칙. 상가 내부의 운영규칙이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잘 하고 관리사무실 관리업무에 잘 따라달라는. 읽어보고 거기다 서명을 받아요. 거기에는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잘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손님과 다투면은 영업 정지예요. 한 번은 경고인데, 또 말 안 듣고 두 번씩이나 분쟁이 생기면 영업 정지예요. 상인들이 손님하고 불화가 있다가도 사무실에 오면 얼른 환불해줘요. 여기 오면 어차피 교환이나 환불이 되니깐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사무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손님과 싸우고 나서 손님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동네 어느 자리는 못 쓴다고 소문 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깐 아예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해야죠.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과예요. 상가마다 사이트가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요. 누구네 가게 불친철 하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해결해 드리고 그래요.

여기 하루 유동 인구가 대략 8만 정도 돼요. 일요일 같은 때는 15만에서 20만 명도 잡더라구요. 역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분들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요. 저희가 잘 해야지요.

그리고 휴게실도 쉴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옷 갈아 입는 데도 화장실 앞에다 해 놓고, 현금인출기도 설치하고 편의 시설은 다 해놨어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인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수도권 사람들도 많이 와요. 김포, 강화, 일산, 시흥, 안성 등에서도 소문을 듣고 여기가 좋다고 많이 와요. 부평이 휴대폰, 옷, 악세사리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부평 지하상가는 전국의 명물이 되어 갖고 지방을 다녀보면 대우자동차보다 우리 부평 지하상가를 더 많이 알아요. 지방에 있는 상인들이나 공무원들도 견학차 오고 해요. 인천시에서 여기로 보내셔서 그런지 많이 와요.

지금껏 장사를 해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2001년도 지하상가 리모델링 할 때였어요. IMF이후 상인들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돈 들여서 뭘 그걸 하냐, 대충 하지 그랬거든요.

그 때 리모델링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 87년도에 우리가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면서 15년 무상사용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7월 31일로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 해서 다시 기부채납권을 받아야 하잖아요. 인천시 소유니깐. 그 때 일부 상인들이 뭣하러 돈을 내고 하냐, 시에서 돈 내고 하게 내버려 두지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상가니까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게 정상인데, 선뜻 누가 자기 돈 내고 할려고 해요? 남이 해주면 할려고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걸 왜 꺼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지하상가 2,800평을 공사하는 데 공무원들이 하면 1년 잡는데, 우리는 85일 정도 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총 공사비 63억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1년 잡고 하면 백이삼십 억은 들어가요. 그 당시에 상인들이 나와서 노역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일당은 받았지만.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90일 잡았는데, 5일이나 땡긴 거예요. 그 때 상인들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때 공사비를 한 점포당 1,500만 원씩 냈거든요. 쉽지가 않지요. 1,500만원을 내라고 하면은 쉽게 내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깐 상인들도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다른 데서

돈 대서 해주면 상가에 애착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언제든 떠난다는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부평이 뜨내기 상권이니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구요. 그래서 장사하러 오면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집어넣어요.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전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장사할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고 와야 장사를 시키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뜨내기예요.

이건 잠깐 엉터리 물건 갖고 와서 엉터리로 하고 나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사업자 등록을 정식으로 내고 영업할 수 있게끔 해요. 돌팔이 영업점들은 아예 여기를 못 들어오지요. 그래야 부평에 애착을 갖고 정착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인천에는 전체 15개 지하도상가가 있는데, 제가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직을 5년째 맡고 있어요. 상가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며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일 년에 두 번씩 '다님길'이라는 홍보 안내 소식지도 발행하고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 우리 부평역 지하상가 대표직도 맡아 상가 운영 관리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시범지하상가로 선정이 되어 지원받게 되었는데, 상인교육, 시설 투자 등 더 열심히 해서 연말의 재래시장 박람회 때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요. 그리고 가게도 경영인데, 상인대학도 더 활성화해서 상인들을 자꾸 교육 시켜서 의식을 바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협동해서 부평상권을 다져나가야지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하철 7호선이 2010년인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그것 땜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은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부평역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평에는 뭐 먹거리가 없다고 해서 계양구 아니면 상동, 중동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도 있다가 상동으로 가 버리고 이게 참 걱정이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존상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손님들이 한 번 이동하면 안 오거든요.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지금 이 점을 대비해서 정책마련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용역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 지하상가하고 바깥 상권하고 지금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론 그게 안 되니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준비가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용역을 줘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식을 둘 두었는데, 저의 애들이 제가 하는 것을 이어서 하겠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런데 할려고 그러겠어요. 요즈음은 더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취미에 맞고 적성에 맞는 걸로 하라고 해야죠.

장사가 어느 때 가장 잘 되었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기가 있어요. 전두환 씨가 정권 잡았을 때 교복 자율화가 되고 그 때가 최고 호황기였다고 봐요. 그런 시기는 다시는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부평 지하상가뿐만 아니고 다른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였죠. 그 때는 신부평 지하상가 하고 부평역 지하상가 하고 두 개였어요. 몇 년간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당시는 동인천으로 다 갈 때였죠. 여기보다는 동인천이 활성화 됐었고, 여기는 상업음식을 못했기 때문에 뭐 만나자고 해도 다 동인천, 큰일 하자면 동인천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 이후, 부평역 지하상가가 생기고 또 연수구가 생기고 이러면서 시청도 나가고 하니까 동인천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주안이 한때는 성하다가 인천지하철이 뚫리면서 부평으로 상권 이동이 됐어요. 그 때부터 여기가 인천의 중심 상권 역할을 해요.

동인천이나 주안 등 다른 상권은 다 내려가고 있는 데, 여기가 계속 번창하는 것은 상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끼고 나와야 하잖아요.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유아시설이나 놀이방 같은 것이 있으면 애도 많이 낳을 것 아니예요.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조하다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부평역전 쪽에 시설 하나 해 놓으면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이도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부평 재래시장보다 여기 지하상가는 나중에 생겼지만 지금은 부평 상권을 거의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형국이예요. 주변 상인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모임 같은 게 없어요. 어느 한 부분으로 움직이기보다 서로 교류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첫째, 셋째 화요일날 쉬어요. 두 개 상가씩 나눠서요. 왜냐하면 네 개 지하상가가 한꺼번에 쉬면 소비자들이 나왔다가 갈 데 없고 헛걸음 하는 거니깐요.

저희 지하상가는 한 번 입점하면 잘 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십 년 넘게, 정확히 22년째, 올 칠월이면 만 22년입니다. 여기 초창기 멤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류는 못해요. 왜냐하면 유행을 못 보니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옷이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다 찢어지고 아주 헌옷 같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옷이라고 보질 않는데, 그러니 우리가 상가에 옛날 정장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팔면 팔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해요. 그런 의류는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해요. 상가 주인도 젊은 층으로 거의가 바뀌었어요. 이용하는 층이나 상가주인들이 젊은 층으로 많은 바뀌었어요.

여기 있다 보면 아주 희한한 일들도 많이 생겨요. 재미있고 멋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하상가 중앙에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입을 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가고. 지금은 그러지 말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심한 사람은 야단도 치고 뭐라고 하지요.

경비도 수시로 돌고 우리 사무실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대담해요. 대담하고 개방적이고 한 세상이니까 그 흐름을 타줘야 하기도 하고요.

상가도 젊은 상인들로 바뀌면서 뭐 머리를 딴 남자애들이 없나, 머리를 상투 비슷하게 따서 올리질 않았나, 장삿꾼들이 온 몸에 문신을 하지 않았나, 특히 휴대폰 가게에서 장사하는 애들 보면은요, 오히려 그런 집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해요.

더워 주겠는데 여름에도 꼭 빵모자를 쓰고 있고, 안경을 머리에다 걸치고, 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있는 애들, 그런 집에만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장사하러 나온 놈들이 세수도 안 한 것 같애요.

우리 매장은 '비너스'라고 여성 속옷을 파니까 그런 거 하고는 상관 없지만, 어떤 매장 보면 옛날에 미국에서 온 구제품보다도 더 낡고 허름한 옷을 진열해 놔요. 근데 그게 또 비싸요. 찢어지고 낡고 그런 것들이. 세상이 많이

변해 가지고 참.

간판도 아주 희한해요. '똥싼바지' 도 있고…. 처음엔 그 간판 못 부치게 할려고 했어요. '똥싼바지' 가 뭐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출도 많이 올리고 톱이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06년도 우수상인으로 해서 표창장을 줬어요. 상가에서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감이 많이 처진 거예요. 재미있어요.

시장로타리 지하상가 거기는 좀 빨리 개발을 해 줘야 하는데, 거기하고 이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을 할 수 없는 게 지하상가는 전에는 상가를 그냥 팔면 되는데, 지금은 상가를 팔면은 지하 주차장을 필히 해야 해요. 상가 통로가 그 전에는 5m 였는데, 지금은 또 6m, 7m로 늘어났어요. 그러니 누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점포 평수가 안 나오니깐 못하는 거예요. 그쪽 상가들이 요새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도와 줄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시민들한테 되게 고맙죠. 그분들이 와서 팔아주니깐 상권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인들도 그분들이 하는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요.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하면 다 같이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동이나 시설 같은 데서 바자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해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거는 안 해주잖아요. 언제가 9개 동인가 회원들께서 오셨더라구요. 도와달라고요.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겠냐 하니깐 고춧가루나 양념을 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동에 80~90만 원씩 지원해 드렸어요. 여기 상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부개동에 은혜학교인가요. 장애인 학교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그 내용을 돌렸더니 물품을 준비해서 내놓더라구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두 차 반 정도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군데서 부탁이 오니깐 조금씩 준비해놨다가 지금은 나눠서 다 보내고 그래요. 상인들이 팔던 물건이니까 못 쓰는 게 아니니까. 상인들이 내 놓으라고 하면 잘 내놓아요.

저는 상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소신이 있다면, 뭐 소신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이 고맙고, 그 분들이 어려운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우리 지역 부평풍물 축제 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요. 부

평풍물축제 할 때 우리 지하상가도 공연에 참여해서 많이 알리기도 하고요. 그네뛰기 같은 거 우리가 전부 다 준비해 뒀다가 우리 몫이니까 몇년 째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유도를 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도태가 아니라 퇴출 시켜요.

얼마 전에 부평역사박물관엘 가봤더니, 조병창, 일본인 사택 등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부평은 제일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장 찾기 쉬운 곳이 바로 여기 같애요. 역전 근처는 변한 게 없어요. 미군부대 떠나고 그 자리에 동아아파트 들어온 것 말고는 별로 없어요. 길도 그대로고요.

계양구나 서구나 이런 쪽은 자꾸 개발되고 그러는데, 부평역 주변은 크게 변한 게 없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도 인천에서 제일 중심지라고 보는데 발전이 너무 늦어요".

2) PAT 의류매장 인태연 씨(1962년 생)

인태연 씨는 경상북도 상주 출신인 부친이 1950년대 말 단신으로 부평으로 올라와 장사를 시작함으로써 부평에서의 삶이 예고되었다. 1962년 부평시장에서 만화가게를 하던 부모님의 맏아들로 태어나 깡시장 주변을 놀이터 삼아 놀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후 부평서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 덕수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일찌감치 통학생 노릇을 경험했다.

대학시절 운동권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올곧은 사회 실현에 앞장서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부친이 건강악화로 쓰러지는 바람에 부모님이 운영하던 그릇가게(동양주방)를 맡아 하다 침구점, 독일식 레스토랑 '올리오'로 바꿨다가 지금은 PAT 의류매장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명신당 중앙로의 난립한 노점상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며, 지금도'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일을 맡아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부평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1962년 부평시장에서 3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난 인태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두 살 때 집을 나오셔가지고 남의 집



인태연 씨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그때 큰아버님이 옆 마을 건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잡히지 않을려고 어디로 튀셨냐 하면 부산으로 튀셨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조그만 공장 같은 데를 다니셨나 봐요. 공장 주인이 잘 해 주셨대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벌어놨던 돈을 공장 주인에게 다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군대 제대를 하고 딱 오니까 공장이 망해 버렸다네요. 아버님이 맡겨 놓은 돈은커녕 쫄딱 망해 가지고 거지 신세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군대에서 월급 받은 게 얼마나 됐겠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공장 주인에게 쌀을 한 가마 사주고 오셨대요. 그러고는 부평으로 오신거지요. 1950년대 말쯤이예요.

군대 막 제대하고 올라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노점이에요. 어디냐 하면 요 근처 깡시장 가는 골목 남의 처마 밑에서 뽑기 같은 걸 하셨대요. 돈이 조금 돼가지고 그 다음 남의 집 담벼락에 만화책을 걸어놓고 만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대요. 그게 만화가게의 시작이지요. 그렇게 몇 년 하시다가 어머니랑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 사시던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에 사셨던 어머니는 중매쟁이가 우리 아버지가 도시에서 집도 있고, 뭐 가게도 있다고 뻥을 쳐 가지고 그것만 믿고 시집을 오셨대요. 옛날엔 도시에 산다고 그러면 시골사람들은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 당시 도시 자체가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보다 더 정보가 어두웠던 거지요. 결혼을 하고 보니깐 집도 없고, 가게라고 해도 가게도 아닌 노점이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집안 살림을 아버지 혼자 일궜다기보다 어머니가 같이 일군 거지요. 어느 때는 처마 밑에서 주무신 적도 있고, 그때 얘기를 하면 우실려고 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악착같은 데가 있으시고, 아버님은 정직하시고 두 분이 그렇게 사시니깐 근처에 조그만 만화방 가게를 하나 얻게 됐대요. 부평극장 근처 만화가게로요. 그때부터 꼴이 제대로 갖춰진 만화가게를 한 거죠. 텔리비전도 갖다 놓고 김일이 뭐 하면 보여줬다고 하더라구요. 티켓 끊어가지고. 저도 그때 네 살인가 다섯 살 때인데, 텔레비전이 있던 만화가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화면조정시간 할 때 바이올린 소리 듣고 울었던 기억도 나고, 높이 꽂혀 있던 만화책을 꺼내달라고 해서 읽었던 기억도 나고 해요. 우리 어머니 말로 제가 그때 만화책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하더라구요. 만화책 보면서 글을 자꾸 읽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꽤 똘똘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 당시에 또 기억나는 게 만화가게에 커튼을 쳐 놓고 그랬어요. 커튼을 쳐서 김일 레슬링 하는 날 돈을 낸 놈과 티켓을 끊은 놈들은 커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김일을 보고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지고 어느 자리로 왔냐면, 지금 이 가게(PAT) 옆자리에다 옷을 놓고 팔면서 뒤에서 살림을 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여동생을 거기서 낳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벌어가지고 맞은편 캡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사셨대요.

거기 단칸방, 빛도 안 들어오는 방이었는데, 그때 제가 볼 때 아버지 표정이라든가 어머니의 얼굴에 안정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약간의 여유가 생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위쪽 옥상에 마루가 두 개 있던 전세집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빛이 들어오는 집에 처음으로 살아본 거예요. 그때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고때쯤이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부평서초등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서울 덕수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 당시 서울로 전학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바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이층이 살림집이었는데 대궐이었어요. 대궐. 이층 살림집에 딱 들어왔는데 바닥이 왜 도끼다시라고 하잖아요. 도끼다시 집에 산다는 건 꿈도 못 꿀 땐데, 목욕탕이 있었고, 옛날 좁은 부엌이 아니라 주방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이야! 참 좋다' 하면서 그랬죠. 빚을 내서 사시긴 했지만, 그때 살림이 막 불어나면서 빚을 빨리 갚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가용을 사셨고, 살림이 많이 핀 거죠.

그 무렵,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나태해지는 사람도 생기고, 거만해지는 사람도 생기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아버지는 노시는 쪽으로 빠지셨지요. 하하하.

아버지는 돈을 더 벌어서 부를 채운다는 건 인생에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하시며 노시는 쪽으로 빠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하고 대척점이 생기셨죠.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더 벌어야 한다.' 하시고, 아버지는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애들 교육시킬 정도면 됐지 뭘 그러냐.' 하는데, 두 분 다 맞는 거지요. 저는 두 분 생각이 다 나름대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우리는 옷가게에서 가방가게로 업종을 바꿨어요. 70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 얘기로 수출공단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셨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중간고사 보고 집에 오면 중학교 교복 입은 채로 그냥 책가방을 가게 방에다 던져놓고 거들어야 할 정도로 바빴으니까요.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공단 사람들이 귀향길 가느라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공장노동자들이 똑같은 가방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내려갈 때 옷 담아가지고 갈 가방, 선물 해갈 가방, 자기 폼 잡고 들고 내려가야 되는 가방, 그 다음 가는 동안에 허드레 물건 넣어야 하는 쇼핑백, 이래 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돈 궤짝이 나무로 5센치 두께에 가로 세로 50센치 정도 되는 거였는데, 돈을 꽉꽉 눌러가면서 넣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러다가 수퍼마켓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수퍼가 마진도 작고 일은 많고 번잡스러우니까 대학 다닐 때 다시 그릇전문 가게로 바꾸셨어요. 그릇 전문가게로 바꿀 땐 잘 몰랐어요. 언제 바꾼지. 왜냐하면 대학 때, 저는 학생운동한다고 뛰어다니고 집이 뭘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집에 들어오는 게 일주일에 한 4일 들어오고 3일 안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들어와도 저녁 늦게 밤 11시, 12시쯤 오니까 가게가 열려있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그릇가게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따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했던 게 아버지 세대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달리는 세대로 태어난 거죠. 그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내 새끼가 저렇게 똘똘하다, 똑똑하다,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아나가는 것에 대해 신뢰를 많이 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상도 분이라 일반적으로 전라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 제가 옥상에서 수박 먹으며 세상에 반쪽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동서가 나뉘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타당하냐고 옳지 않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단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때 확실히 아들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들이 이 놈이 남다르구나, 똑똑하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공부를 안 해도 믿고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하시길래 배운 놈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기억도 나요. 아버지는 답답하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는데, 배운 놈이 얘기하니깐. 사리분별력을 잃지 않고 앞뒤 말이 논리가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죠. 따뜻하고, 사람에 대해서 애처로워 하는 마음이 많고.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먹고 사느라고 독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분이 제가 철들고 먹고살 만한 시절이 오니깐, 그 양반이 가지고 계셨던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게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안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그 독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만들었던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 번의 회오리가 없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잘 모르셨어요. 데모 정도는 참여를 하겠지 라는 느낌만 있었지, 주동자 급이고 이런 것은 모르셨어요. 그러다 제가 운동하면서 감옥 가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믿어줬어요. 옳은 일을 하다 간 거라고.

학교에서 데모 주동하고 있을 때 청량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셨더라구요. 서클룸에 있는데, 우리 막내가 그 다음날 대입시험 봐야 하는데, 아버지가 데모 며칠만 연기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힘듭니다 했더니 한숨 푹 쉬시더라구요. 아버지 그냥 가세요 했지요. 그날 운동장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선동이었잖아요. 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계시더라구요. '그래, 너 갈 길 간다', 이런 표정, '이왕 할 것 잘 해라'. 이런 표정이시더라구요.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말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래요. 폼을 보니까. 눈을 보니깐.

그런 모습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늙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저도 아들이 셋이지만 대부분 자식 일에 부모들이 노심초사 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논리 그것이 옳다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많이 모자라지요. 고맙죠. 아버지한테.

그러다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사는 절대 안하려고 했는데, 생리에 맞지도 않고 스타일도 싫고, 장사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됐다가는 장사 논리에 휘말려서 그대로 사라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쓰러지시니까 장남으로 어쩌겠어요. 동생이 둘이나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릇가게를 맡아 하다 집이 안정되고 해서 또 안하려고 회사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또 제가 안 나간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앓아 누우신 거예요. 다시 나와 가지고 이불가게를 했어요. 그 당시 백화점에서 그릇 가지고 장난을 쳐서 '동양상회'라고 하는 이불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불가게를 하면서 1995년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쪽에 노점상이 108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만들자고 2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1997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걸맞는 문화적인 패턴에 맞는 장사를 내가 선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구요. 제가 장사꾼이 못 돼요. 돈을 벌겠다 이런 것 보다 번 돈 털어가지고 '올리오'라는 독일식 레스토랑을 차렸죠. 여기 이 마루 바닥이 그때 인테리어 한 거예요.

그랬는데 2년 하는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일이 새벽에 끝나고 하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구요. 음식장사를 처음 하니까 막 터지고 맞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음식장사는 만 삼천 원 팔면 3,000원 남는 건데 3,000원을 깎아 준단 말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불 장사 할 때 단위가 몇 백만 원이고 하니까 보통 몇만 원씩 깎아 줘요. 백십오만 원, 백십삼만 원 이러면 삼만원 빼 준단 말이에요.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몇 천원 이러면 이걸 빼주는 거예요. 돈도 안 남고 힘만 들고 해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의류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7년째 PAT 의류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걸 선도해서 사람들에게 문화의 거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마크가 되고, 사람들한테 어려서 문화의 거리

에서 사람을 만난 기억, 문화의 거리 분수대에서 놀던 기억, 이런 추억들을 주는데 마당에서만 놀 수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추억이 생겨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추억거리를 만들라고 '올리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만나 연애한 애들이 결혼해서 자식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다 하는 공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 괜찮은 곳이었는데, 너무 장사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어요. 장사만 잘됐으면 10년, 20년 계속했을 거예요. 그게 원래 내 꿈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추억거리를.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뭐. 장사는 돼야 하니까.

제가 유년시절 여기 부평시장에서 놀았던 것을 기억하면 제가 철이 들어서 봤던 미군부대 주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던 혼혈아, 양색시들이 많았던 신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던 부평시장, 이런 광경이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뒷골목이 술집들이었고, 주로 요새는 룸살롱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색시집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뒷골목에 많았죠. 그리고 지금 이 문화의 거리 뒷골목 한 골목 넘어가면 양키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렸을 때 봤던 물품들이 지금도 보여요. 수통, 미군군복 등 미군들이 썼던 각종 용품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미군 PX에서 몰래 빼낸 물건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들 중에서도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하여튼 이 동네는 좀 그랬어요.

이쪽 부평상권의 특색이라면 역세권이라 해서 지하상가, 재래상가, 지상상권 그러는데 한 마디로 다양하다는 거죠. 지하상권이 이렇게 큰 동네도 없고, 또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이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먹자 유흥가도 갖춰져 있고, 7, 80년대 작업복 파는 데도 있고, 5, 60년대부터 있었던 포목점도 있는데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돼요. 옛날 깡시장도 있고, 돼지머리 파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통 다 한 군데 몰려 있어서 2, 30분이면 장을 다 볼 수 있는 동네가 아마 전국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평상권이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옛날부터 여기 와서 정착해서 수십 년 동안 장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물들 사고, 그 1세대가 주로 임대를 하고, 2세대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옆집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갈

정도로 점점 해체되면서 변해가고 있어요. 초기에 자리 잡았던 분들은 연세들이 70, 80 연로해지니까 자식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임대를 주게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낯선 동네가 되어버리는 거죠. 장사를 해도 벌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뜨내기 상권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더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로 도시가 가득 채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평지역이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평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자기 색깔도 없어지고 정체성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전주 같은데 가면 비빔밥이 그렇게 싸고 맛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하고 똑같다잖아요. 그게 이동해가지고 서로 다 뒤섞여 버리면서 지역적인 장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화되고 죽어버리는 쪽으로 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한때는 부평시장 사람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객지에서 왔지만 경기는 계속 상승국면이었고, 밥 먹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긴 거죠. 그 당시 부부들이 시장에서 가루가 되게 일을 해도 그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해요. 저처럼 2대에 걸쳐 장사하는 집안에서 보면은요. 우리 대로 넘어오면서 그 호황기가 이어지던 상황 속에서 건방을 떨 정도로 중산층화 되어버린 측면도 있고, 골프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차도 재벌애가 타면 나도 타야 되는 이런 현상도 보이고 했죠. 그런데 IMF 겪고 그런 것들이 거품이었다 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되면서 재래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지는 모습을 봐요.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겪을 때도 부평 상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았어요. IMF가 1차 타격을 주었지요. 왜냐하면 IMF 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런대로 견딜 만 했어요. 조금 덜 버는 거지 했거든요.

결정타는 재벌들의 유통업 진출이예요. 대형마트가 결정타예요. 그전에도 시장 분산은 있어왔어요. 조그만 시장들이 전국에 많이 생겨났어요. 나눠먹

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그럭저럭 견뎌요. 왜냐하면 조금씩 벌면 되니까. 그런데 복지제도라든가 실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재교육을 시킬 거냐, 재교육을 시켜서 또 다시 들여보낼 산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붕괴되어버린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안전망이 없어진 거죠. 국가가 상대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힘든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나서 가장 큰 결정타는 바로 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예요.

그것 때문에 전국의 재래시장들이 헤어날 길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직도 유통재벌들은 멈추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장사는 그냥 꾸준해요. 그런데 갈수록 이 주변의 상가는 어려워져요. 서민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나가고 좋은 것 사고 이러는 중산층들 경기는 좋아지는데, 양극화 되면서 서민 쪽은 이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무서워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고 비는 가게도 생기고 공치는 일이 생겨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부평의 비극이예요. 왜 이런 비극이 생기냐 하면, 지역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는 동네 주민집단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지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못 느끼고 부담도 안 느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속으로 철저한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 나가는 거예요.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요. 그런 싸움을 하는데 뭐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부평시장 살려내라 해도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개념도 없고,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면 삼산동에 대형마트가 또 생기는데,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겠어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재래시장, 재래시장 육성한다 그러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출발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십 년 뒤에 시장 환경이 변할 것 같다, 대형 마트 때문에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되게 빨랐지요.

그런 위기감을 감지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 마을이 너무 막 주인도 없이 노점상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행정하는 사람들도 노점상 편만 들고 이러는 현실 속에서 어 이거는 문제 있다, 했고, 경제적인 측면

과 마을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측면에서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주인이 누구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변화해야지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측면이었지요. 그러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노점상들이 좀 장사 안 할 때는 들어가던지, 정리 좀 해라,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출발했던 거지요.

정리 좀 해라,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손님들 차 좀 대놓게 장사하는 사람들 차 좀 대놓지 마라, 했는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노점상들이 큰 소리 치며 행정당국도 노점상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예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뭐 우리의 독창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지역 문화를 기획하고, 외국에 가도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막 던져 놓은 거예요. 점포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 그럼 우리도 그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지요.

그때 마침 부산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국제영화제를 열면서 부산 극장가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든 거예요. 가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게끔 다 해 놓았더라구요. 됐다, 우리도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딱 시작을 했더니, 지역 상인들이 이렇게 나서면 행정 당국에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싫어해.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귀찮은 거죠. 일 만들지 마라.

그래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구청장이 노점상연합회 법률고문이라.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외 정치인을 만나봐도 나는 중립이니까 이런 걸로 찾아오지 마라는 식이었고, 어떤 구의원은 오히려 왜 노점상 몰아낼려고 하냐며 더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저랑 개인적으로 싸움도 하고, 진정서 넣고, 민원 넣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도 안되더라구요. 그때 알았죠. 노점상이 부평에서는 권력이구나, 그럼 싸워야지.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야 할 문제지만 권력이 되면 타협이 안 돼요. 그러면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적법한 것인지 행정소송을 걸겠다 했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구청장이 결정을 내리더라구요. 초

대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부담이 됐지만, 잘 해야 되는 그리고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되는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노점상 문제를 비롯해 시장을 개선하자는 말이 나오고 2년 후, 1997년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가 들어갔어요. 가는 과정에 노점상들한테 습격도 당하고 50명에게 둘러싸여 배 째겠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회원들이 대피 시키고, 그 와중에 우리 상인모임 청년 회장네 가게 사백만원짜리 통유리가 해머로 깨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을 못 놨어요. 하기로 하고 몇 개월 동안 내부 실랑이도 있었고.

저는 할 거면 똑바로 하자 했어요. 왜냐하면 노점상도 오고, 상인도 오고, 시민단체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문화단체나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이게 하자,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원까지 탄생하는 올바른 경로를 만들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의 전형을 보여주자, 그것이 제 입장이었어요. 전문가들 불러 공청회도 하자, 이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구청에서 뚝딱하고 해치우는 방식이 돼 버렸죠. 왜 그러냐면 행정당국에서 노점상들의 반발 이걸 감당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만들어놓자, 그 입장이었고 저는 이왕 하기로 한 거면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도 동의하게 하고, 우리도 동의해서 공공 공간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이것이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자, 궁극적으로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상인이든 노점이든 룰에 따라서 가는 걸로 하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못 벌고는 자기 책임이다, 이게 제 논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 버렸던 거예요.

기준도 저는 먹고 살만하고 건물 가진 노점은 다 나가라, 못 사는 사람들만 남아라, 그리고 우리 동네에 못 사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노인네들 중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몇 년 기한으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렇게 공공 공간을 써야 되는 거다, 돈도 많고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왜 공공 공간을 점유하게 하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지요.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세 5~6만 원 이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 했어요. 그 당시 재산세 20만 원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동아아파트 43평이 재산세 9만 8천 원 나올 때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셔서 알아요. 그거 두 채 이상 있

는 사람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점상 중 못 사는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때 노점상 중 재산세 제일 많이 낸 사람이 76만 원을 냈어요. 뭐 여기 저기다 압력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4층짜리 빌딩 가진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왜 내쫓냐고 항의하더라구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는 4층짜리 건물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돌아버릴 일이지요. 하하하.

부의 기준이란 게 참 천차만별이예요. 욕심의 기준에 따라 부가 틀린 거니깐. 얼마 전에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도시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75세 되시는 강병기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셨대요. 자네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낮은 곳을 보면 행복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래요. 완전히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화두 하나 던져 놓듯이. 그런 것처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사실 자기가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저도 옷가게 하면서 조그만 빌라 사시면서 십만 원, 이십만 원짜리 옷을 재밌게 가족들끼리 웃으시며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 아줌마들이 와서 질질 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줌마들 보면 '부잣집 할머니들이 더 해?' 그래요. 굉장히 인색해요.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보면 해외여행은 잘 다녀. 그런데 콩나물 값은 깎어. 나누어 줄줄도 몰라. 잘못 된 문화이고 잘못 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장삿꾼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나눠주면서 얻자, 장삿꾼이 나눠주는 방식은 돈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어차피 힘들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 돈을 잘 나눠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처럼 문화의 거리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학생들 오면 시간 내서 걔네들한테 설명 해주는 코스도 같이 하고 해서 사회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돌려주는 일만 해도 돈으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라고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알아듣고 뒤에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는 장사는 잘 못하지만, 장사하는 비법이 있다면 꾸준하게 시스템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그래도 장사가 되겠다 하는 큰 흐름만 잡고, 그 다음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다 알아서 해요. 우리 직원들은 여기 계신지

가 7년째가 돼가요. 제가 시작하고 1년 있다 들어오신 분들이예요. 딴 데는 몇 개월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직원 처음에 왔을 때, 실수도 하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제가 뽑았어요. 제 입장은 뭐냐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잘해질 수 있고, 근데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나올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딴 것 안 바라고 당신이 그럴 거면 다녀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녀라, 아 나는 여기 오면 그 자체가 좋다, 이런 마음으로 와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불러서 물어봤더니, 처음엔 직원 얼굴이 어두웠는데, 그 다음부터 확 달라지더니 모든 게 적극적인 거예요. 지금은 반품정리 서류정리까지 다 하고, 지금은 오히려 저 야단치러 오잖아요. 똑바로 안 한다고. 그게 비결이예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챙겨요. 책임감 있게 매장 챙기고 우리 집사람까지 챙겨줘요. 집사람이 직원들을 언니, 언니 해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언니예요. 제가 워낙 좌우는 있어도 상하가 없는 그런 정서니깐 집사람도 전염이 되는 거죠. 제게 개인적으로 선배님, 형 하는 여자 후배한테도 저보다 나이 많으면 언니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깐. 서로 삭막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상인 친목 모임은 지속적으로 잘 돼 가고 있어요. 1세대 상인 조직으로 '번영회'라는 건물주 중심 모임이 있고, '문발추'라는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 조직 두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던 상가 번영회가 그 후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고민하다 몇 사람이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라는 상인 조직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2세대 상인과 새로 외지에서 온 상인들, 임대인들 모두 뭉뚱그려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중간에 갈등이 없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2층에서 술집이나 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가 2층, 3층은 생각 안 해 주고 1층 위주로만 일을 벌인다, 이래서 일을 그만두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가 나타날 때마다 제가 끈질기게 앉혀 놓고 설득을 하죠. 패 가르지 말라고. 좋게도 말하고, 협박도 하고, 계속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가만 안 놔둔다고

(웃음). 그런 것도 있고, 블럭마다 생기는 갈등도 있고, 왜 분수대를 그 쪽에 만드느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수대 같은 경우 상인 건물주들 수십 명한테 200만원씩 걷어가지고 제가 디자인도 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왜 그 자리에 만들었냐면 그 아래가 낙후하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 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구청에서 설계하다 예산이 없다고 안 한 자리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저한테 예산이 없는데 인사장이 나서서 해 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인들한테 자기 마을이라고 한다면, 상인들 스스로 돈도 내고 힘도 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했어요. 그래서 건물주들을 설득해서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전국 최초 민간 차원의 문화의 거리 조성, 이건 하나의 역사예요.

다른 지역에서 엄청 보러 와요. 지난 겨울에도 속초 시청 관계자하고 속초시 상가 사람들이 고속버스 대절해서 왔어요. 둘러보고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해 줬더니, 가고 나서 다시 속초로 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기 못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 해 줘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거기까지 가서 강연을 하느냐 주제넘다고 했더니, 공무원 두 사람, 상인 두 사람이 번갈아 5일 동안 전화를 하는 데 한 20통을 해요. 미안해서 안 갈 수가 없더라구요. 내가 뭐 잘났다고 튕기나 싶어서 할 수 없이 갔지요. 그러고 나자 건물주들이 또 얘기를 못 들었다고, 버스 한 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시간 동안 얘기했죠.

경남 창원에서도 이런 것 만든다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 창원 상인들이 와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주제넘게 장삿꾼이 자리 안 지키고 그런 데 자꾸 쫓아다니면 헛바람 들까봐요. 제 나이 사십 대가 되다보니 헛바람 들어가는 것 싫잖아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도 상인들과 노점상들의 신경전이 참 컸어요. 장사가 한창인 저녁 7~8시에 철시하는 노점이 상가 앞에 노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거든요. 퇴근할 때 노점을 이동시켜라, 못한다 6, 7년을 끌어오다 최근에 극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인근에 주차장도 구하고, 우리 상인들이 2인 1조로 일주일간 옮겨줘 보기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 이걸 좀 쉬운 방법으로 하자 해서 건물주들하고 문발추에서 반씩 부담해 오백만원을 걷었어요. 그리고 노점상 이동용 차량을 샀어요. 문화의 거리

한가운데 조그만 하얀차가 그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나자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노점상 이동이 현실화 되었어요. 우리 상인들이 기가 막히죠. 오랫동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하나 되니까.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보행권이 제공되고, 젊은 층들 발길이 잦아지고. 그러자 분수대 밑에 있던 먹자노점도 자기네도 한군데로 정리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저 위 로타리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분수대 밑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 아까 얘기했던 도시연대라는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평 공원을 만들자, 여기서의 한 평은 진짜 한 평이 아니라 쓸모없는 한 평처럼 여겨지는 빈 공간을 쓸모있게 커뮤니티 공간이든, 쉼터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그거를 얘기했더니 받아들이더라구요. 원래는 좀 못사는 동네만 해 주던 거예요. 그런데 부평 문화의 거리가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끌고 왔는지 그 자체를 아니까 여기는 도와줄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채택이 됐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 후 KBS-TV에서 한 평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난 달 문화의 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큐멘타리 3일이라는 프로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한 시간짜리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민 참여 사업이냐, 아니면 도시연대가 그냥 하는 거냐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도시연대에서 한 평 공원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가면 한, 두 사람 떠들다 마는데, 이십여 명의 주민들이 왔는데 한 열 명 정도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이대 놓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이 동네 참 희한한 동네네, 이 동네가 살아 있는 동네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방송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더라구요.

제가 동네 주민들이나 그 마을 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지렁이처럼 꿈틀거리자, 꿈틀거리다 보면 뭐가 돼도 된다, 지렁이처럼 살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게 거름도 되고, 메뚜기처럼 움직이면 다 흩어놓고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꿈틀거리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저는 부회장이지만, 우리 모임 회장도 많이 바뀌고, 열심히 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자체가 유기적으로 거름 노릇을 하고

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도 저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떠나더라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자기 동네 살리겠다고 몇 년씩 뛰어다니고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복이죠.

최근에는 제가 먼저 가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전거 도시와 관련해서 자리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저의 총체적인 개념,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공유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 누구라도 자리를 마련하면,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교회도 갈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은 못하더라도 구체성을 가지니까 일단.

저는 제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시, 남의 애들도 세 발 자전거 타고 동네에 기어 나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혼자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예요. 부평에서 가능하겠냐고 묻는다면 그럼 어디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디도 가능한 데는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디든 가능한 거죠. 그거 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그만이죠, 뭐. 안 하다 죽는 것보다 하다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좋긴 한데 어렵겠지요, 해요. 그러면 좋긴 한데라고 얘기하지 마, 좋으면 하자, 라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해 보는 거죠. 그런데 보여요, 저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안 서면 못하죠. 근데 확신대로 다는 안 되니까 여분은 남겨놓는 거죠. 가다가 쓰러질 수 있겠지만.

자전거 도시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자는 모임이 아니라 자전거가 편히 다닐 수 있는, 약자가 존중받는, 도시 보행자가 존중받는다는 상징성을 갖자는 거예요. '자전거 도시'는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호회랑 틀리죠.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못 타는 노인 가족들에게도 회비를 받았어요. 만 원씩. 자전거 도시를 도와달라고, 그런 도시를 만들 거라고. 각 요소 요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한 평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들을 만들어 동네 공동체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로를 만들어야겠다고요.

자동차를 타고 만나는 사람들은 전투예요. 전쟁터로 가는 전사들이예요. 왜냐면 부딪히는 순간 욕부터 나와야 되거든. 손해가 많으니까. 그건 그 사람

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나쁜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만나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만날 수 밖에 없어요. 타고 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하면서 세워놓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차는 세우지 못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눈 앞에 있어도 못 세우는 게 차문화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속도를 내고 달려야 하니까. 속도와 공간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간들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속도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사나운 폐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꿈이죠. 결국은 도시적인 삶이 생태적인 삶을 공격하는 거니까 생태적인 삶을 공격하는 배후 거점 도시를 바꿔버리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예요.

자식들을 보며 문득 어떤 느낌이 들던 때가 있었어요. 분수대 앞 동판에 보면 분수대 만든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글도 내가 써 논 건데, 여섯 살짜리 막내아들이 딱 보고 "아빠! 이 분수대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빠 이름이 있는데." 해요. 그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또 그래요. "그렇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놈이 밤 9시경 생태현장 갔다 오다 부평구청 앞에 내렸다길래 자전거 타고 데리러 갔더니, 자전거 뒤에 타고 오며 "이 길이 좀 평탄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빨리 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너는 이제 5학년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알어? 너는 나중에 행정 관리하는 공무원이 돼도 손색이 없겠다." 했더니 "아빠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잘 알지요."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들이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구요. 제가 만약 아파트나 사고 팔러 다니고 그랬으면 우리 애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 거 아니예요.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제 소원이 있다면 마을 촌장이 되는 거예요. 촌장의 의미는 이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되는 거다, 지혜로운 노인. 그래서 역사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뭐가 옳고 그른지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죽어갈 수 있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도를 닦아야 생기지. 하하하."

인천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부도심의 기능도 수행하는 부평은 서울 · 인천공항 · 부천 · 김포 · 강화 등 각 방면으로 통하는 버스가 통과하는 교통 요지이다. 260만 명이 넘는 인천광역시 여러 상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오간다. 명실공히 인천 최대 상권인 셈이다.

부평역 상권의 특징은 역세권으로 지하상가, 재래시장, 지상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재래시장인 부평종합시장은 대형 유통매장과 구월동 농수산물 시장, 삼산동 농수산물 시장이 생기면서 최근 침체 국면이나, 명신당 중앙로 중심 지상상권은 노점상이 정비되고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쇼핑공간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지하상가의 활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직선 길이 500m를 넘는 4개의 지하상가가 사통팔달로 지상과 연결돼 있다. 철도청이 운영하는 민자역사 쇼핑몰을 제외한 1,000여 개 점포를 부평역 · 신부평 · 부평중앙 · 대아 등 4개 법인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휴대폰, 의류, 가방, 액세서리, 모자, 신발 등 다양한 패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인천 지역 소비자들의 중저가 패션 수요를 감당하는 보루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음식업, 오락문화가 발달한 진선미 빌딩 뒷편은 젊은 층들이 로데오 거리를 형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평 상권은 역세권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부평의 농업과 농민

※ 이 글은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이 책임집필하였음

부평지역은 김포와 더불어 인천,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평야 지역으로, 농민들은 부평지역 일대의 농토를 '부평평야'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부평구에서는 1997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를 매년 열고 있는데, 이것은 부평지역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였음을 알려주는 농경민의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다. GM대우를 비롯한 공단 등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된 현재의 부평구의 모습을 보면, 부평지역은 농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평 외곽 지역에서는 농업이 성행

하였고, 당시에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부평구 십정동과 삼산동의 일부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농법은 과거와 달리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당수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다. 부평지역에는 천수답도 있지만 일찍이 수리시설이 발달하였다. 부평지역의 수리공사는 1922년 부평수리조합이 설립되어 근대적인 치수사업을 시작하였고, 해방 직후 미곡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리공사가 지속으로 이루어지면서 부평지역에서도 수리시설 공사 진행되고 있었다(『서울신문』 1946년 6월 9일자). 한편, 해방 후에는 33인의 유가족동지회가 신한공사로부터 9만 평의 토지를 대부 받고, 식산은행의 자금융통을 받아 생활이 곤란한 유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 영농으로써 생로를 이어주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9월 7일자).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 부평 지역으로 집단 이주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부평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50년대만 하더라도 부평지역은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하던 지역이었다. 부평역 근방에도 집이 몇 채 있지 않았고, 과거 진선미 예식장 근방은 포도밭과 중국인들이 경작하는 양배추 밭이 있었고, 로터리 근처는 논이었다. 부평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며 교통이 발전하면서부터였다. 또한 4공단이 형성되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부평시장, 백마장, 신촌 등지에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평에 대우자동차가 들어서면서 부평이 농촌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부평구와 계양구, 그리고 서구의 토박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일대를 흔히 '부평'이라 부른다. 또한, 어느 일본인 교사가 부평역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부평평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내용도 부평의 들이 넓었음을 의미한다.

1) 십정동 장금석 씨(74세)


장금석 씨

'열우물'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금석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장씨는 3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에 마을 앞 대한염전에 다니다가 염전이 폐하자, 부평미군부대에서 경비 업무를 10년간 하였다.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다. 현재 장씨는 1,000평의 땅을 임대받아 부인 권재분 씨(70세)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야채, 포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장씨의 부친은 논 1천 평, 밭 1천 5백 평 정도의 농사를 지었으나 7남매나 되는 대식구인지라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장씨가 분가를 했을 때도 토지 상속을 받지 못했고, 형님과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에 도움을 주어야 했다.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열우물 동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토지를 특정 몇 명이 소유를 하였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을 지었다. 당시 십정동의 토지는 성씨 성을 가진 사람이 소유를 하였고, 사방 30리가 성씨의 땅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성씨 후손들이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장금석 씨의 십정동 비닐하우스

장씨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30년 전에는 마을의 토지 3천 평을 임대받아 꽃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화꽃을 재배하였으나 장씨는 처음에는 국화꽃을 재배하다가 장미로 바꾸어 많은 수익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생일, 졸업 등 특정한 기념일에 장미를 구입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화훼농사를 지으면서 2남 3녀를 넉넉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수입도 많고 마음도 편해서 좋았다고 한다. 자식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하고 출가를 하였다.

재배를 해서 수확한 장미는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도매상가에 넘겼으며, 꽃 시세가 그때그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결재를 해주

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꽃을 키우는 화훼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 돈벌이가 괜찮았으나 한때 주식에 손을 대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토지 임대료는 1마지기(2백 평)에 쌀 1가마를 도지세로 내었으며, 지금도 그 가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 동네에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라 주인이 선뜻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도 토지를 남이 대신 관리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한편, 장씨는 당시에 토지를 구입할 생각도 있었으나 농사에 소질이 없다고 여겨 땅을 사지는 않았다고 한다.



포도밭 건물을 제거하고 있는 장금석 씨 부인

자식들이 출가한 후(막내의 나이 36세)에는 임대 토지를 절반으로 줄였고, 근래에는 1천 평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화훼농사는 일정 기간 계속하다가, 1988년부터는 꽃에서 과일과 채소 재배로 업종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화훼농장이 증가하였고, 또한 온습도를 갖춘 선진적인 재배장이 보급되면서 자신의 화훼농사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과일로는 포도를 재배하고, 야채는 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배추와 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야채는 땅을 갈고, 파종하고, 키우고, 채취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작물에 따라 여러 차례 거듭하여야 하기 때문에 꽃을 키우는 일보다 힘이 든다. 그렇지만 시장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 포도 농사는 10년 전부터 지었으나 대부도나 영흥도, 화성 등지의 포도 시세에 눌려 올해 포도나무를 뽑아 버리고 그곳에 야채를 심을 예정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간 4월 초에 장씨 부부는 포도나무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비닐하우스 한쪽에는 거름이 쌓여 있다.

재배된 야채는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부평농협에 도매로 넘기기도 한다. 장씨는 현재 부평농협 조합원이자 야채작목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야채작목반은 농협에 야채를 위탁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나 판매리스트 등을 주로 관리하고, 공동작업이나 판매 등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 야채작목반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한 쪽에 쌓여있는 거름더미

농사에 쓰이는 농기구는 밭을 갈기 위해 '관리기'


장금석 씨 부인 권재분 씨

라고 부르는 경운기에 밭을 갈 수 있는 바퀴를 부착한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고, 배추 등 야채를 운반하기 위한 세발 손수레, 밭의 골을 내기 위한 괭이, 포도 가지나 풀을 베기 위한 낫, 건풀을 모으기 위한 갈퀴, 거름 등을 담기 위한 삽 등을 주로 사용한다.

열우물에는 공동노동조직인 두레는 없었다고 한다. 단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 품앗이를 구성하여 제 시기에 해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을 서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소를 이용한 품앗이 또한 하였는데, 사람이 와서 쟁기질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3목을 쳐주었다고 한다. 한목은 쟁기질 하는 사람, 두목은 소가 노동해주는 댓가이다. 소는 농기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수 농가에서 키웠으며, 부를 축척하기 위해 소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사를 적게 짓는 가난한 농가에서는 소를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한, 1960년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등장하면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장씨는 70살 중반을 넘었지만 힘이 되는 날까지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농사는 혼자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의 도움이 절실함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2) 삼산2지구 송대춘 씨(76세)


송대춘 씨

송대춘 씨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지낸 토박이이다. 삼산동은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른 들판을 가진 평야지역이었으나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삼산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상당수의 논이 아파트로 변모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이 사라진 상태이다. 현재 농사를 짓는 가구 수는 6가구이며, 그 중 농기계를 소유한 가정은 2가구에 불과하다. 송씨는 자신의 많은 논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갔고, 지금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삼산2지구 노인회장이기도 한 송씨는 아파트 앞 예전의 마을에 위치한 노인회관에서 주로 생활을 한다. 한편, 삼산동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이 위치하고 있어 부평지역 일대의 채소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기도 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고속도로

송씨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산동에서 농사를 손수 지었다. 논 10마지를 소유하였는데, 이는 7남매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토지였다고 한다. 송씨는 농사 이외에도 많은 노동을 하였음을 그의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삼산동에서 보통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정도라면 논을 30마지기는 소유해야 한다. 삼산동에서 한 마지는 150평을 가리키는데,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논의 1마지기는 150평이고, 그렇지 않으면 200평을 친다고 한다. 삼산동은 일제강점기에 수리시설이 조성되어 수량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송씨는 지금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동양동에 토지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서 논 천 평을 구입하여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 물론 농사는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지어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모판에 볍씨를 키우거나 수확한 낟알을 방아 찧는 일은 본인이 맡아서 한다. 못자리는 논에 비닐을 씌워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못자리

삼산동 일대의 농토는 일제강점기에는 지주회사가 운영하고 삼산동 농민들은 소작을 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소작농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더불어 두레패가 생기기도 하였다. 두레패는 각 집마다 한 사람씩 가입을 하였고, 풍물을 치는 사람들만도 15~2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두레패는 나이가 많고 농사일을 잘 아는 '영좌'와 영좌를 보좌하는 나이 어린 사람인 '조사', 그리고 '두레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좌는 날짜를 정해 김매기 순서를 정하고, 백중놀이와 연말 결산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백중 때는 힘든 논의 김매기가 끝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막걸리와 밥 등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었다. 백중날 돼지를 잡는 일 등은 가난한 농가에서 꿈도 꾸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매기 등 두레풍속은 농약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소멸되었지만, 풍물꾼들은 근래까지 악기를 치면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지신밟기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기를 치는 노인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사라질 위기에 빠져 있다.

삼산동에는 두레는 물론, 품앗이의 형태도 이루어졌다. 모내기나 김매기, 벼를 수확할 때 이루었고, 소도 그 대상이었다. 소를 부리는 사람과 소가 오면 4사람 목으로 치고, 소만 빌려오면 2사람 목으로 쳤다. 결국 소 한 마리는 사람 2목으로 친 셈이 된다. 쟁기부리는 사람도 2목으로 친 것은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쟁기를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왜쟁기인데, 여기서 왜쟁기는 일본에서 들어온 쟁기를 가리킨다. 소가 없는 가정에서는 골을 타는데 사람이 끄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삼산동 어느 주민은 말을 전한다. 소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송아지를 구입해 키우다가 팔기도 하였다. 타작도 품앗이로 많이 하였다. 품앗이꾼 사이에는 서로 타작을 해주고, 다른 집에 타작을 해주는 경우에는 벼로 품을 받았다. 정해진 탈곡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타작 품앗이꾼들끼리 그 이득을 나누어 가졌다. 타작은 하루 종일 휴식 없이 일을 하기에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타작 품앗이는 방앗간과 탈곡기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어린 머슴이 상머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송씨에 따르면 보통 20살은 되어야 성인으로 품을 받았고, 쟁기 부리는 기술이나 방석 짜는 일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다. 농사 일중에 힘든 일은 김을 매거나 벼를 베는 일인데, 그것은 허리에 많은 통증이 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논농사는 농기계와 농약의 보급으로 농사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지게 지는 일도 힘든 노동이었다고 한다.

농기구는 손수 만드는 것보다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송씨는 자신은 농기구를 만들지 못하고, 지게도 마을에서 잘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구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입한 농기구를 손보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한다. 농기구들은 5일장에 나가 주로 구입을 하였는데, 주로 오정동 5일장이나 김포장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쓰고 있는 농기구로는 삽, 호미, 소시랑, 낫 등이 있으며, 낫은 조선낫과 왜낫이 있는데 조선낫은 나무를 자르는데, 왜낫은 주로 벼를 베는데 사용하였다.

23세에 결혼한 송씨는 평생 농사일만 하였는데, 젊었을 당시에 특별히 취직할 자리가 없어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부평에는 미군부대 등이 들어왔지만 삼산동과는 먼 이야기이다.

3) 부평4동 신트리 최용길 씨(77세)


최용길 씨

부평4동은 '신트리'라고 불린다. 신트리의 논은 물이 안 닿아서 농사를 짓기 힘들고 밭은 습기가 많아 못쓰는 땅이 많은데, 해방 후 빈한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 자리를 잡아 몇 해 안되어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이곳으로 이주한 한학자 백낙환(白樂煥)이라는 사람이 마을 이름을 '새로 터전을 이루었다.'는 뜻을 담아 '신터리(新基里 · 新垈里)'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신트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부평4동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논농사를 지었으며, 현재 부평교회 앞쪽 대로에 있었던 개천의 물을 이용하였다. 개천은 현재는 복개하여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1975년부터는 농지가 국민주택으로 잠식되기 시작하여 농토는 서서히 사라지고, 10년 전에 농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신트리 마을은 부평의 다른 어느 마을보다도 농업에서 공업으로 생업이 바뀌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여겨진다. 농민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겸업 형태를 많이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 때문에 현지인보다는 외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생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근래에는 점을 보는 집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텃밭(신트리)



최씨의 고향은 공주로, 43년 전에 이곳 부평4동에 정착하였으며, 현재 신트리마을의 노인회장이다. 그가 인천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인천과 충남 사이에 정기여객선이 있었고, 부평구 일대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조병창(造兵廠)이 있어 많은 부속품 매매가 이루어져 상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최씨가 부평4동 신트리 마을에 1960년대에 정착하였을 때는 이미 농업보다는 상업이 발달한 시기였다고 한다. 실제로

인근 부평3동 신촌 일대는 1940년대 조병창과 홍중공장(弘中工場)이란 군수공장이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들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최씨가 30대 중반에 신트리 마을에 정착하였을 때는 논은 1평에 100원, 밭은 50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쌀 1가마의 가격이 2,000원인 점을 생각하면, 전답의 시세는 상당히 싼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씨는 부여에서 판 전답과 대전에서 사업을 하다 남은 돈을 가지고서 논 3천 평을 구입하고, 미곡상회를 열었다. 당시 미곡상을 하면 큰 부자로 인정받았다. 농사는 사람을 사고, 소를 빌려서 지었다고 한다. 한편, 신트리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최씨는 미곡상을 1995년까지 하였다. 신트리 마을의 쟁기는 1960년대 경운기가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신트리는 해방 이후에 한강수리조합의 수로를 통해 물을 받아 물이 풍족하였으며, 어릴 적 아이들이 놀다가 수로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였다고 한다. '신트리 사람이 수로에 빠지지 않으면 신트리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의 땅을 임대하여 짓는 경우가 있었으며, 임대료로는 사전에 계약한대로 쌀을 주었다고 한다.

신트리 마을은 부평구 내에서 부평역과 더불어 미군부대, 병기부대와 관련된 식품과 기계부속품 매매가 성행하던 지역으로 자연스레 상업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농업이 일찍 사라진 지역이다. 부평구 내에서도 처해진 환경에 따라 농경지가 사라지는 시기가 달라졌음을 알게 해준다.

현재 신트리 주민들은 집 주변의 토지를 텃밭으로 삼고, 화분에 파, 배추, 고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인천의 불량주택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방축동 개천



4) 계양구 방축동 당병권 씨(77세)

방축동(防築洞)은 마을 앞에 방죽을 막아 놓은 데서 유래하여 '방죽말이' 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이 방죽물을 가지고 논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방축마을은 김포로 가는 옛길에서 계양산으로

올라가는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목상동과 다남동 주민들이 부평으로 나올 때 통과하는 마을이다.

현재 방축동은 자동차공업사, 구멍가게, 최근 지은 빌라 한 동과 전통가옥 10여 채 정도가 모여 있고, 마을 앞에는 계양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이 있다. 방축마을에서 계양산 쪽으로 가면 흑염소, 돼지, 오리, 개, 닭 등을 기르는 농장들이 길가에 드문드문 분포되어 있고, 젖소를 기르는 목장도 두세 군데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방축동에는 임대한 땅에 세운 비닐하우스에서 파, 시금치, 상추, 도라지, 무 등의 야채를 재배하며, 거름으로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거름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방축동의 한 비닐하우스

방축동은 밀양 당씨 집성촌이다. 면장과 농협장을 지낸 당병권 씨에 따르면, 선대가 이곳에 정착한지는 16대가 넘었다고 한다. 당씨는 관직과 농사를 병행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1930년생인 당씨는 결혼을 한 후 군대에 입대하였고, 1952년 부상으로 군대를 제대한 후 방축동에서 새마을운동위원, 재향군인회장, 민병대장, 농협장(1975~1978년), 면장(1978~1981년) 등을 역임했다. 1981년 면장직을 그만둔 후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촌 계몽운동가로서 여러 지역의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선진 농법을 마을에 소개하곤 하였다. 이 마을에서 볍씨 파종을 모판에 시작한 것도 그에 의한 것이었다.

당씨는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였고, 19살에 장가를 들어 현재 6남매를 두었다. 당씨가 장가를 들었을 당시에는 논 4천 평, 밭 2천 평을 지었다. 당시로는 부농은 아니었지만 중농으로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한다. 당씨는 현재 논 1천 2백 평, 밭 6백 평을 가지고 있는데, 논은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박촌에, 밭은 집 앞에 위치하고 있다. 논농사는 농기계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탁비는 평당으로 계산한다. 가령, 논갈이는 평당 150원, 벼를 베는 것은 180원, 농약을 치는 것은 50원, 건조 작업은 120원을 지불하는 식이다. 건조된 쌀은 정미소로 보내지고, 이는 정미소 차량으로 운반한다. 쌀은 2마지(300평)에 5가마 정도가 생산되는데, 당씨의 논에서 나오는 쌀은 20가마 정도


당병권 씨

가 된다. 수확한 쌀의 일부는 자식들의 양식으로 보내지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추곡수매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곡 대상인 추청 종자 대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대한 벼를 주로 파종한다.

과거 타작은 볏단을 논에서 건조시킨 후 논에서 '논타작'을 하는 방식이었다. 볏단을 옮기는 번거로움과 노동력을 덜기 위해서이다. 베어낸 볏단은 세워두었다가 입동 즈음에 타작을 한다. 논타작을 '들타작'이라고도 하며, 바닥에 멍석을 깔고 낟알을 가마니에 담아 손수레나 우마차로 운반하였다.

타작한 낟알은 망에 말렸는데, 짚단을 깔고 그 위에 망을 씌우고 낟알을 일주일 정도 건조시킨다. 중간 중간에 낟알을 뒤집어 잘 건조되도록 한다. 건조된 쌀은 정미소로 운반되는데, 운반비로 쌀 1가마에 반되를 준다.

해방 이후 부농에서는 고정 일꾼을 두기도 하였는데, 1947~1948년에는 일년에 쌀 8가마를 일꾼 품삯으로 주었다. '달품'이라고 하여 임시고용직을 1달 정도 쓰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는 쌀 1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정 일꾼은 1970년대 초에 경운기, 탈곡기, 농약 등이 등장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당씨는 14세 때부터 쟁기질을 할 정도로 남들보다 농사일을 일찍 배웠다. 쟁기질을 하면서 품을 팔수도 있었다. 소도 품앗이의 대상이었는데, 사람과 소는 1:1 비율로, 부평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의 품값이 싼 편이다. 한 마을이 동족촌을 이루다보니 소에 대한 품값을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씨는 소 2마리를 사육하기도 하였는데,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 농기계가 들어오면서 소를 키우지 않았는데, 소의 매매는 방축동 인근 황어장 우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왜쟁기'를 사용하였다.

당병권 씨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인 농기계



벼품종은 해방 후에는 일본 품종을 많이 심었고 밭에는 '올벼' 품종을 심기도 하였는데, 밭이 논보다 거름지지 않기 때문에 일찍 수확하는 올벼를 심는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일벼, 밀양벼 등을 심었으나 밥맛이 떨어져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일본에서 들어온 아키바레(추청) 품종을 선호하였다. 현재 추곡수매대상 품종도 추청만을

고집하고 있다. 볍씨 품종에 대한 정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책자를 많이 참고로 한다. 책자에 소개되는 품종은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등 각각 20여 가지가 넘으며, 그 가운데 높은 라이신 함량을 가진 '영안벼', 당뇨병에 좋은 '고아미', aba 함량이 높은 '큰눈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방축동에서는 추청을 80%, 대한벼를 20% 비율로 재배하고 있다.

당씨는 밭농사를 직접 경작 한다. 집 앞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 안에서 종자를 재배하고, 일부 공간은 농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농기계로는 밭갈이에 쓰이는 경운기를 비롯해 손수레, 낫, 호미, 삽, 도리깨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 쓰인 대나무 가지가 놓여져 있다. 지게는 80년대 이후에 사라졌고, 도리깨는 콩을 털어내는데 쓰이며, 절구는 된장을 만드는데 여전히 이용된다.


당병권 씨 소유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하는 품종은 배추, 무, 상추 등 야채 등을 주로 재배하며, 가정에서 주로 소비한다. 당씨는 1960년대에는 토마토와 오이 등을 재배하여 인천 원협에 판매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방축동은 도로가 소로인지라 원협 화물차가 대로까지 오면, 농민들은 지게에 작물을 지고 화물차 있는 곳까지 운반하였다고 한다. 1975년 농협장으로 가면서 원예농사는 그만 두었다. 당시 배추 1포기 값이 오늘날 시세로 1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 수익이 더욱 많았다고 한다.

일제시기에 방죽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을 지었다. 수리조합 구역의 땅은 반전(半田)농장의 소유였으며, 수리조합 밖 땅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양용환과 계산동에 사는 박용재 씨의 소유였다. 박용재 씨는 계산동 최고 갑부로 계산동과 방축동 일대에 땅이 많았다. 박용재 씨는 논을 많이 소유하였고, 양용환씨는 밭이 많았다. 논을 소작할 경우에 소작료는 삼칠제로 지주가 수확량의 7할, 작인이 3할을 가졌다. 농지개혁으로 작인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때는 지주가 4할, 작인이 6할을 가졌다. 양용환 씨와 박용재 씨는 둘 다 마름을 따로 두어서 작인을 관리 했다. 그러나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논을 떼야 할 경우에는



당병권 씨 집 앞에 쌓여있는 거름 더미

지주가 직접 와서 작인을 새로 선정했다.

망종 무렵에 내는 모는 '조양', 하지 무렵에 내는 모는 '중모'라 하였으며, 하지가 지나면 '마냥'이라고 하였다. 당병권 씨는 양력 7월 15일에 모내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삭이 더러 폈다고 한다. 마냥으로 모를 내게 되면 일이 더디고 힘이 든다. 조양으로 모를 낼 때는 모판에서 모를 뽑을 때 한 손가락으로 대여섯 침을 뽑으나 마냥일 때는 한 침 뽑기도 힘이 들었다. 보통 논 한마지기에 모침이 70~80침 들어가는데, 마냥으로 내게 되면 못자리가 말라서 모찌기 할 때 한 시간에 열 침 밖에 뽑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냥일 때는 급하게 일을 해야 해서 밤에 모를 찌고, 새벽 네다섯 시에 써래질을 했다. 때로는 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계양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7월 15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논에 밭에서 메밀을 심기도 했다.

근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당씨는 자신이 손수 밭작물을 키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수시로 자신이 만든 비닐하우스 내부를 살피곤 한다. 자신이 거둔 야채와 곡식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가지고 있다. 집 앞에는 거름 포대가 쌓여 있다.

5) 계양구 목상동 아랫마을 이화영 씨(59세)

목상동(木霜洞)은 윗말과 아랫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랫마을이 1997년 굴포천 2차 공사(1992년 1차 공사) 때 솔밭 쪽으로 이주하면서 '아랫마을'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아랫마을 사람들이 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마을 이름이 '이주마을'이 되었다.

굴포천



이주마을 주택은 개량형이지만 마을 주민들의 생활방식은 아직도 농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령, 길가의 평상, 한데부엌, 땅에 묻은 김칫독, 마을회관 내의 새마을 관련

상장, 기장 및 도서, 이앙기와 트랙터 등의 농기구, 비닐하우스 재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주마을은 솔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솔밭'은 소나무가 길 양측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솔밭 입구 좌측에 이주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주마을에는 현재 12가구의 현대식 가옥들이 '이주 단지길'을 사이에 두고 모여 있다. 이곳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목상동으로 다남동과 함께 계양1동에 속하며, 마을 앞에는 공항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있고, 한참 굴포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랫마을은 본래 45가구, 약 100여 명이었는데, 일부는 이웃마을인 다남동으로 이사를 갔다. 현재 이주마을 12가구 중 5~6집만 토박이이고, 나머지는 집 매매 등을 통해 새로 이사해왔거나, 이주 당시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윗마을의 경우도 이주마을과 마찬가지로 토박이가 거의 없고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다. 1997년 이곳으로 이주를 할 때 이주 주민들은 산자락인 이곳을 1평당 15만 원씩 주고 구입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사업체에서 해주었다. 당시 건축비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지었으며, 한 집 당 50~60평 정도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공사업체가 그 이상은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 당시 토지는 평당 8만원씩 보상받았으며, 약간의 이주 정착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주마을 이화영씨(59세)에 따르면 12가구 중 3가구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운수업(개인택시)을 하거나 회사 등에 다니고 있다. 본인은 2만 평 정도의 땅을 부치고 있는데, 농토는 아랫마을에 있어 그곳으로 농사를 지으러 다닌다고 한다. 논 2만 평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을 하면 주인에게는 3할을 준다. 이것은 모든 농사를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토지 원소유자도 이러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찰은 없다.


밭작물을 재배 중인 아주머니

텃밭에서는 고추, 파, 마늘 등의 작물과 참외, 토마토, 배추, 무 등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여 가정용으로 사용한다. 고추는 농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종목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고



수출용 고추(이주마을)



목상동 이주마을 노인회관 안에 보관 중인 1960~70년대 새마을 관련 책자들

추는 평년에는 20가마 정도 수확하는데, 2006년에는 탄저병이 돌아, 절반인 10가마만 수확하였다고 한다.

이주마을에는 '목상동 아버님 어머님 사랑방'이라는 현판이 걸린 노인회관이 있다. 이 회관은 마을공동자금으로 마을에서 직접 건축하였다. 노인회관은 넓은 마루와 작은 방과 부엌, 창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넓은 마루는 주로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할아버지들은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한다. 노인회관의 주 이용자는 50~60대이며, 일요일에는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거나 외지로 놀러 나가 이용자는 많지 않다. 주로 화투 등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며,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효도여행을 간다.

노인회관에는 1차 굴포천 공사 전에 제작된 운하 건설 조감도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부천구 새마을 사업에서 우승을 하여 받은 표창,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계양구 동 대항 축구대회에서 받은 올해의 우승기 등이 놓여 있다. 운하건설 조감도는 마을회관 건축 후 굴포천 공사업체가 걸어준 것이라고 한다. 책 서고에는 1960~70년대 새마을 관련 책자들이 꽂혀 있으며, 일부는 분실되었다.

6) 서구 백석동 농민들

백석동은 본래 부평군 모월곶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부천군 서곶면 백석리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인천시 관할로 들어왔다.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1987. 12. 29 공포)에 의거 서구로 편입되어 현재 이루고 있다. 백석동 주변에는 백석초등학교, 백석고등학교, 한진실업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마을에는 마을회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회사, 한약방 등이 있다.

백석동은 한들, 넘말, 골말 등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들은

3개의 자연부락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이고, 풍산 심씨, 남양 홍씨, 청송 심씨, 성주 이씨 등의 원주민들이 주로 산다. 그 가운데 풍산 심씨는 가장 늦게 들어왔으나 후손들이 가장 많으며, 12세 심극효(沈克孝)가 입향조이고 9대째 세거해오고 있다. 남양 홍씨는 백석동에 가장 먼저 정착하였으며, 홍제(洪濟)가 입향조로 12대가 살고 있고, 청송 심씨는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외가인 남양 홍씨 집안에 의지하려고 내려왔다가 정착하게 되었다. 심지문(沈之汶)이 입향하여 10여 대가 살고 있다. 성주 이씨는 이지원이 입향하여 6대가 살고 있으나 현재 5가구 정도만이 남았다. 골말은 성주 이씨와 풍산 심씨가 몇 집 살고 있으며,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다. 현재 호수는 12호 정도이다. 골말 한쪽에는 천태종 황룡사가 세워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다.

백석동에는 농사를 위한 큰 방죽인 '한돌방죽'이 있다. 한돌방죽은 '백석방죽', '흰돌방죽', '거지방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방죽은 앞의 청대방죽보다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방죽'이라고 한다. 한돌방죽은 구한말에 착공하다가 실패하고 1919년에 송병준이 완공하였고, 1960년대에 노선재라는 사람이 이것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노선재 방죽'이라고도 부른다. 구한말과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를 보면, 바깥에 있는 방죽과 안 방죽 사이에 갯고랑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며, 이 방죽안의 토지는 노전(蘆田)으로 바깥 방죽 안의 토지는 니지(泥地)로 표시되어 있다.

한돌방죽을 거지방죽이라고 별칭이 붙게 된 사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이곳은 지난날 수백 정보나 되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서울의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둑을 막고 간척을 하려했으나 벌이 깊어 번번이 실패하였다. 썰물 때 간신히 갯벌을 파놓으면 밀물이 밀려와 모두 덮어 버렸다. 결국 마지막에 돈을 대며 덤벼든 것이 송병준이었다. 송병준은 친일파로써 일본정부로부터 거액의 은사금을 받은 재력가였는데, 한들방죽을 완성한 것은 1913년의 일이다. 그가 방죽을 만들기 시작할 때 제방이 거듭 터져서 몇 달 째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마침 거지가 공사장으로 구걸을 하러 왔다. 사람들은 거지에게 한 상을 차려주고, 정신없이 밥을 먹을 때 그를 밀어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개흙으로 생매장했다. 그런 인신공희를 한 뒤에야 갯골의 제방이 터지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 사람들이 거지방죽이라고 불렀다.

일제시기 백석동은 몇 명의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서울에 사는 노선재씨, 행주에 사는 김상준 씨, 경서동에 사는 정행선 씨 등이 있었다. 토지 가운데 방죽논은 가물면 논바닥에 간기가 올라 벼가 타죽는 일이 많아, 방죽 안에는 갯고랑을 저수지로 만들어 용두레나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용두레 물을 퍼 올리는 시기에는 두 턱 높이의 논에는 용두레로 물을 퍼 올릴 수 있었지만 이보다 높은 논에는 물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작농 가운데에서도 수문관리를 하는 마름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저수지 가까운 논을 구할 수 있었다.

한 마지기(150평)에서 생산되는 양석은 쌀 두 가마 정도이지만, 방죽논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절반인 한 가마 정도이다. 논이 좋은 논에서는 벼 4가마가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죽논에는 특별히 퇴비나 거름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생산된 쌀은 지주와 소작농이 5:5로 나누어 가졌으나, 일제 말기에는 공출이 심해서 탈곡할 때 남은 뒷목만이 소작인의 몫이었다.

모내기는 하지(夏至)를 기점으로 전후 3일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논에 물이 없는 경우에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모내기를 한다. 이것을 '마냥'이라고 하며, 소서에도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양석 생산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말뚝으로 논바닥을 파서 모를 심는 '말뚝모'를 내기도 하였다.

모내기는 줄모로 심었는데, 양쪽에 줄을 잡은 사람이 서고 일곱 치마다 눈금이 매겨져 있는 줄에 맞추어 모를 심었다. 모를 심을 때에는 좌우의 양쪽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하다가 다시 등을 맞대고 바깥쪽으로 노를 심는다. 보통 한 사람이 다섯 개의 모를 심는 셈인데, 모를 잘 심는 사람의 경우는 옆 사람의 일을 거들어준다.

논 김매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벌 김매기를 하며, 보통 애벌과 두벌은 논호미로, 세벌은 손으로 한다. 논의 김매기는 남자들의 몫으로, 호미가 밭호미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넓고 크다. 과거에 논매기는 두레를 만들어 작업을 하였는데, 백석동의 경우 한들, 넘말, 골말에 하나의 두레패를 두어 모내기를 한 순서대로 김매기를 하였다. 백석동의 다른 마을인 거월과 독정에는 각각의 두레패가 있었다. 두레패들 간에는 김매기를 하러 이동할 때 다른 마을 두레패와 마주치기도 하는데, 이때 한쪽에서 기세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레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두레싸움의 승패는 두레기 상단에 있는

꿩장목을 뺏는 편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 진편은 이긴 편에게 자신들의 두레기를 내려 예의를 갖추는데, 이것을 '기세배' 라고 한다. 한들 두레패는 거월 두레패와 두레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레싸움이 끝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에 화해하고 헤어진다.

모내기가 끝나는 백중 때면 두레패들은 '호미걸이' 라고 하여 하루를 즐긴다. 인근마을의 두레패들도 초청하여 서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자주 싸움이 일어나므로 다른 동네의 두레패는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타작은 타작관이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타작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마당' 에서 하였다. 타작관은 지주네 집안사람들이나 마름이 하는데, 이는 지주와 소작농이 5:5로 생산된 양식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이다. 소작농은 타작관에게 소고기나 닭 등을 대접하여, 잘 보이도록 하였다. 타작한 배는 노씨네 창고가 있는 도마배로 옮겼고, 그곳에서 배에 실어 서울 등지로 나갔다. 백석동과 인근 지역에서 공출한 벼는 도마배를 거쳐 갔다.

오늘날의 벼농사는 과거와 달리 기계와 화학비료를 통해 재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손이 필요 없게 되었다. 현재 집집마다 벼내기에 쓸 볍씨를 물에 담가두고, 그리고 모판에 쓸 흙을 사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근 주변에서 황토를 구해서 사용하였다.

밭농사는 주로 가정에서 소비하는 배추, 상추, 오이 등의 채소류와 마늘, 파, 고추 등의 양념류, 고구마, 감자, 콩 등의 식용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특용작물로 한때 참나무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배추의 경우는 일명 '밭떼기' 라고 하여 상인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였다. 과거에는 보리도 심었으나 지금은 재배하지 않는다.



감자는 보통 씨를 사다가 심는데, 3월 중순경에 밭갈이를 하여 이랑과 고랑을 만든 후 이랑에 구멍을 내어 씨감자를 넣는다. 그런 다음 비닐을 덮고 감자 순이 나올 곳에 구멍을 뚫어준다. 또는 비닐을 먼저 밭에 씌운 후 구멍을 뚫고 감자 씨를 심기도 한다. 밭거름은 사슴 농장에서 나온 똥과 두부공장에서 나온 비지 등을 사

용한다.

현재 마을사람들의 생업은 주로 농사와 사슴농장, 개사육 등이다. 농사는 주로 밭농사가 많으며, 과거에는 논농사도 많이 경작하였지만 지금은 마을 내에는 작은 논이 조금 있을 뿐이다. 현재 논과 밭의 비율은 7:3정도이다.

백석동에서 전통농기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낫 · 호미 · 괭이 · 삽 · 절구 · 발 · 체 · 키 · 소쿠리 · 광주리 등은 요긴하게 쓰여 지고 있다. 경운기가 1962년 국내기업에 의해 국산화되면서 갈이 연장, 삶는 연장, 물대는 연장, 운반 연장 등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이 등장하면서 매는 연장, 거름주는 연장, 탈곡기가 들어오면서 터는 연장, 건조기와 비닐이 등장하면서 말리는 연장, 콤바인이 등장하면서 알곡 및 가루 내는 연장, 화학섬유 포대가 등장하면서 갈무리 연장 등이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경운기(백석동)

농기계의 사용은 전통농기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노동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두레와 같은 공동작업으로 모내기 · 관개(灌溉) · 김매기 · 수확 등이 이루어졌고, 농민의 노동력을 상호 교환하는 품앗이도 사라지게 되었다. 농민들이 말하듯이 '논농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트랙터로 논을 갈고 삶고, 이양기로 벼를 심고, 제초제 농약을 뿌리고, 콤바인으로 거두어 들이면 된다. 무더운 여름에 품앗이를 통해 김을 맬 필요도 없어졌고, 더불어 '호미씻기' 라는 세시풍속도 자리를 감추고 말았다.

2. 수리조합과 부평지역 농민

부평지역 주민들 가운데에는 수리조합에 대한 역사와 그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부평수리조합 수로는 일제시기에 수로를 건설할 때 중국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 수리조합을 만들기 전에 일대 벌판은 갈대밭이었으나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논이 되었다.

일제시기에 수리조합의 조합장은 일본인이었으며 해방 이후에야 한국인이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일제시기에 소

작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추수 후 물 사용료로 조합비를 냈다. 조합비는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 평당 벼 몇 가마씩 냈고, 수리조합비로 내는 벼는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황어장에 있는 정부 창고로 가서 검사를 받고 쌓아놓았다. 수리조합비는 작인이 직접 수리조합본부가 있는 소사까지 가서 돈으로 납부했다.

수리조합에는 수문을 감독하는 간사가 있어서, 식전에 수문을 열고 저녁 6시에는 닫았다. 이렇게 밤 동안 수문을 닫는 이유는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물을 낭비해서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것을 '객수'라 부르기도 하였다. 간선수로마다 지선이 모두 따로 있었는데 수리조합 간사는 간선수로에서 지선으로 나가는 수문만 관리하였고, 지선 안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관리했다. 그래서 한창 가물 때는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끼리도 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였다. 깊은 논을 '깊두리'라 하고 높은 곳에 있는 논을 '높두리'라 하는데 높두리 논을 가진 사람이 가물어서 물이 잘 공급되지 않을 때 밤중에 몰래 깊두리로 가는 수로를 막아버리면 물싸움이 나게 되었다.

작인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소작료 이외에도 비료 값이나 융자금을 갚아야 했고, 또 수리조합비까지 따로 내야 했기 때문에 "타작이 끝나면 빗자루만 들고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양력으로 4월 15일이 되면 수리조합에서 물을 퍼 올려 못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추수 전에 논을 말리기 위해 물 공급을 끊는 것을 '낙수(落水)'라 했는데, 이는 양력 9월 10일에 했다.

목상동의 논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모를 내는 천수답이었으나 1960년대 한강농지개량조합(구 부평수리조합) 이단수리조합이 결성되면서 수리안전답이 되었다. 이단수리조합의 수로는 동아건설에서 공사하였으며 동네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며칠씩 가서 일을 했다. 이단수리조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내는 시기가 5월 10일경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모를 일찍 내게 되자 수확도 늘어서, 평당 벼 두 근에서 두 근 반을 생산하던 논에서 평당 서 근 반의 소출이 났다. 조합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조합비를 냈으나 한강농지개량조합 자산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있다.

박촌동의 농지는 대부분 부평수리조합구역 안에 있어서 농지의 대부분이 논이었다. 밭은 부평에서 김포로 가는 도로 동편에 조금 있었다. 60년대 한



목상동의 논

강농조 이단수리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박촌동의 밭도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일제시기에 박촌동에서는 논 한 마지기를 150평으로 쳤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으나, 요즘은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치고 있다. 방죽안 주민들이 경작하는 농지는 계양산자락과 부평에서 김포로 가는 길 동편으로 조금 있었으며, 부평수리조합 구역 내에도 일부 경작지가 있었다.

일제시기 부평수리조합 구역 밖에 있는 논은 모두 천수답이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옛날에 방죽이 있던 자리에 둑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몇 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용종동과 임학동 경계 지역에 한강농조 삼단양수장이 생기고 방축동이 몽리 지역이 되면서 방죽안의 대부분의 논은 수리안전답이 되었다. 그러나 산자락에 있는 논은 수리조합 용수로가 닿지 않아서 여전히 천수답으로 남아있었다. 당시 방죽 안의 전체 논 면적이 3만 평가량 되었는데, 이후 목장이 들어서고 근래에 들어 논을 매립해서 밭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일이 많아서 현재 남아있는 논의 면적은 대략 2~3천 평이 될 것이라고 한다. 수리조합의 물도 2003년까지는 사용하였으나 주변의 논을 밭으로 매립하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이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한 곳에서는 대부분 근교원예를 하고 있다.

수리안전답에서는 망종(양력 6월 6 · 7일) 때 모를 냈으나 천수답인 경우는 보통 양력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장마가 닥쳐야 모를 낼 수 있었다. 방축마을 앞으로 개울이 흘렀지만 물이 귀해서 모내기 때는 물 때문에 싸움이 나서 서로 삽질을 하고 난리였다고 한다. 개울물을 논으로 받기 위해 가마와 흙으로 개울물을 가로질러 동[논도랑]을 막는데 하류에 논이 있는 사람이 자기 논에 물을 받기 위해 밤에 몰래 가서 동 막은 것을 터버리면 물싸움이 나는 것이었다. 개울물이 부족했던 것은 계양산에 나무가 없어서 "봄에 땡땡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 그냥 쑥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양구 벌말(상야동 · 평동 · 하야동)은 부평수리조합 구역 내에 있고, 농지 대부분의 논이었다. 일제시기에 벌말 일대의 지주는 반전(半田)이었다. 해방 이후에 부평수리조합은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되었다. 이때 한강농조 조합원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은 자립조합으로 조합 재산이 많았고, 조합원들은 그 재산을 다 뺏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었다.

서구 가정동 봉오재 마을의 논은 거의 다 방죽을 막아서 만든 것으로, 들 이름에 모두 방죽이 들어가 있다. 방죽의 수문관리는 수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했다. 수문관리는 새벽에도 물때가 되면 수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는데, 수문관리를 게을리 하면 수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수문계가 따로 있지는 않았으나 "그 방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수문지기에게 수고비로 일 년에 벼 얼마씩을 걷어주었다.

방죽논은 물이 없으면 논바닥에서 염분이 솟아서 벼가 타 죽었다. 방죽논의 대부분인 봉오재 마을에서는 한강농조 물을 끌어다 쓰기 전까지는 저수시설이 따로 있지 않아서 가뭄 피해를 많이 입었다.

서구 경서동 고잔은 한강농조에 편입되기 전까지 고잔 마을에는 밭이 논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렇게 밭이 많았던 것은 고잔 마을이 지대가 높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고잔 마을에서는 한강농조의 몽리구역이 되면서 대부분의 밭을 논으로 개간하게 되었으나 요즘은 논자리를 다시 밭으로 만들고 있다.

50년 전까지 고잔 마을에서는 수리조합구역인 계산동 살나리 쪽으로 모품을 팔러 많이 다녔다. 여기는 비가 와야 모를 내기 때문에 모내는 시기가 늦었고 농사도 적었으나, 그 쪽은 수리안전답이어서 모내기 시기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많았다. 이삼십 년 전에는 전라도에서 여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동네에 들어와 모품을 팔았다.

고잔 마을에는 5인조방죽, 6인조방죽, 오영근방죽, 채제동방죽, 이명수방죽이라 불리는 방죽들이 있었다. 이 방죽들이 만들어진 것은 모두 40년 전 일이다. 5인조방죽과 6인조방죽은 한국전쟁 이후 마을 사람들 몇 명이서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만든 것으로,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따라 방죽 이름을 붙였다.

서구 금곡동 좌동의 가장 큰 방죽은 방죽머리 방죽으로 이 방죽 안에 속하는 땅이 검단 4거리까지 있었으며, 방죽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수문을 관리하는 수문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수문계는 '수문통계'라고도

한다. 방죽머리 방죽의 규모가 큰 까닭에 수문계에는 좌동(금곡동), 오류동, 대촌(오류동), 황포(대포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문계에는 계장, 총무, 간사가 있으며, 총무가 수문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수문계에서는 일 년에 한 번 가을에 크게 모임을 갖는다. 수문계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은 방죽 보수 등의 일로, 이는 매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죽이 터질 때마다 한다. 방죽머리 방죽이 터지면 좌동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죽을 잘 관리해야 했다. 방죽 보수를 할 때는 방죽 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했다. 또한 방죽을 개축할 때마다 수문고사를 지냈다.

3. 부평지역 농업의 특징


오류동 마을 전경

부평지역의 농업은 부평지역의 공업과 상업, 택지개발에 따라 변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이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 경제개발과 부평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부평 중심 지역의 농지는 사라지게 되었고, 농민들의 생활방식도 달라진다. 1980년대 이후에는 상점,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부평 중심 근교의 농지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택지가 자리를 잡았으며 1990년대 말에는 부평 외곽의 농토가 아파트단지로 바뀌게 되었다.

농지의 감소는 자연스레 농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실업자나 도시의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부평지역의 공장이나 상점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가난한 농가의 자식들은 부평지역의 불량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게 되었다.

농지의 감소는 전통 농기구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고, 농업과 관련된 세시풍속이나 민간신앙도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부평지역 일대에서도 두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 악기를 다루던 노인들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어 단지 풍물은 흥을 돋우는 악기로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악기를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생업 이전은 전통가족체계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는 대가족단위에서 핵가족단위로 변화되며 점차 생활 패턴의 변모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인근 도시보다 일찍 형성된 부평만의 특색이었다.

부평지역의 농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밭농사 보다 논농사 중심이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여 지지만, 예부터 농사하면 으레 밭농사보다는 벼농사를 가리키는 것이 사실이다. 논이 천수답인 경우에는 비가 와야 모를 낼 수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물을 파서 모를 내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내기를 하지 안에 내면 '조양', 하지를 지나면 '마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논농사 보다 비닐하우스를 통한 원예농사를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평지역의 논은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논의 질이 판가름 났다. 수리시설 인근에 논들은 벼 생산량이 많은 반면, 비를 기다려 농사를 짓는 천수답의 경우는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비가 늦어 파종이 늦어 생산량도 절반으로 감소하기도 하여, 아예 밀 같은 작물로 재배를 하였다. 1마지 평수의 좋은 논은 1마지기에 150평으로 산정하였고, 일반적인 논은 200평으로 쳤다. 또한 좋은 논[양석논] 1마지에서는 벼가 2~3가마가 생산되는 반면 나쁜 논에서는 2가마도 생산하기 힘들었다.

모내기 시기도 수리조합 구역 내의 논에서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보통 양력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모를 냈으나 천수답의 경우는 비가 오기를 기다려서 모내기를 했다. 그래서 수리조합 논에서는 '마냥'으로 모를 내는 일은 없었으나 천수답에서는 하지(양력 6월 21일 경) 지나서 모를 내면 마냥모라고 불렀다. 비가 계속 오지 않았을 때는 호미모나 말뚝모를 심거나 벼 대신 메밀을 심기도 하였다. 호미모나 말뚝모는 호미나 말뚝으로 땅바닥을 파서 모를 심는 것으로, 벼가 한 동 이미 올라와 있어도 시기를 봐서 소출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을 때 했던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부평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을 지었다.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은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대부분 한두 명의 지주가 농토를 대부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주인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마름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후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토지개혁 때이다.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6:4로 생산량을 나누어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소작농민들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비료나 볍씨 등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만 했다. 당시에는 벼가 어떠한 작물보다도 중요했다.

가난한 소작농들은 쌀을 빌어다가 쌀로 갚는 '장례쌀'(長利-)을 행하였다. 보통 한 가마 반을 빌어다 먹으면 그 해 가을에 가마 반으로 갚았다. 말로 꿔먹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일로 갚아야 했다. 이렇게 빚을 내면서 쌀을 얻었기 때문에 김치죽으로 연명하는 일이 많았다.

넷째, 부평지역에서는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와 품앗이가 성행하였다. 특히 두레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김매기는 세벌매기를 하였다. 이때 두 벌은 호미로 매고, 세 번째는 손으로 훔친다. 초벌은 모내고 보름 정도 지나서 하며 다시 보름 있다가 두 벌을 맸다. 마지막에 손으로 훔치는 것은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두레의 조직에서 우두머리는 '영좌'라고 불렀고, 보통 농사일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맡았다.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영좌라고 한다. 또한 그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조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았으며 좌상이라고도 불렀다. 두레패에서는 농사일 중 김매기가 가장 중요한데, 작업 순서는 "오늘은 누구네 논, 내일은 누구네 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을 보면 영좌의 지시에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레로 김매기를 할 때 일꾼들은 각자 집에서 아침을 먹고 정해진 장소로 나왔다. 그날 작업하는 논의 임자가 하루 식사를 준비하는데 새참, 점심, 저녁새참, '곁끼리'[곁두리: 일꾼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끼니 밖에 때때로 먹는 음식] 등 총 네 번을 준비하였다. 네 번의 식사는 모두 한 집에서 장만하는 것은 아니며 그날 농사짓는 집이 여럿이면 나누어서 하였다. 새참으로는 오전 10시경 국수와 막걸리 등을 먹었다.

일제시기에는 모내기를 할 때 일손이 모자라면 인천 항구 같은 데서 품팔이꾼을 사오는 일도 있었다. 인천 항구에서 일을 하는 '노가다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 품을 팔았다. 이들은 대개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주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이 품팔이꾼을 썼는데 보통 열댓 명씩 불러서 자기 집 사랑채에 재우면서 일을 시켰다. 해방되고 나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품을 팔러 왔다. 전라도 사람들이 인천에 벌이를 왔다가 마땅치 않으면 모품을 팔았던 것이다.

다섯째, 부평은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리 농업이 발달하였다. 해방 이전부터 오이나 토마토, 고추,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부평시장이나 동인천역 참외전거리에 판매를 하였다. 또는 위탁상인에게 넘기는 판매를 실시하였다. 지금도 부평은 비닐하우스를 통한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것이 밭농사의 주류를 이룬다.

여섯째, 소는 농가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소는 잘 사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소와 사람의 품앗이는 소를 하루 빌리면 사람이 이틀이나 삼일 가서 일해주어 갚는 방식이었다. 소를 일 년 동안 빌리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는데, 이를 '도지소'라고 한다. 도지는 소에 따라 달라서 '잘 부리는 소'는 도지를 더 내야했다. 또한 송아지 주인 대신 소를 키워서 팔고, 그 돈을 소 임자와 소를 키운 사람이 반반씩 나누는 풍속도 있었는데, 그것을 '얼이로 키운다'고 하였다. 또한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게 되면 이것은 소주인에게 되돌려 준다.

지금까지 부평지역 농민들의 개별적인 증언들을 통해 부평의 농경민의 삶과 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농경사이지만 부평지역 전체의 농경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하는 농민들에게는 크게 차별화된 특징이 보이지 않으며 비슷한 생활양식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은 세시(歲時)의 패턴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농업은 마을 전체의 농업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부평의 농업지는 중심 지역으로부터 외곽으로 점차 시대에 따라 소멸되어 갔다. 부평 외곽의 농경지마저 택지로 잠식된 것도 10년이 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농경지도 점차 공업과 택지가 개발되면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평은 그 생업방식이 농업에서 공업과 상업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생업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락만한 토지만 있다면 본능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습성을 지금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평지역에 남아있는 농경문화에 대한 연구와 재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텃밭을 개간하는 모습



자 료 편

부평지역의 설화

1. 계양산 이야기

계양산(桂陽山)은 해발 표고가 395m로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그리고 부평 사람들의 정신적 귀의처이다. 부평 문화권 사람들은 타국이나 타향에 머물 때 고향이 그리워지면 이 산을 떠올린다.

계양산은 수주악(樹州岳), 안남산(安南山), 아남산(阿南山), 노적봉(露積峰), 환여금(環如金), 용장자산(鏞獐子山) 등의 별칭을 갖고 있었다.

이 산은 멀리서 떠돌아왔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떠올랐다는 전설도 있다. 옛날에 부평평야는 바닷물과 강물이 혼합되어 드나드는 간석지였다. 계양산의 한 줄기는 북으로 뻗어가 거의 한강에 이르는데, 한강은 그 주위를 둥글게 휘어감아 흐르면서 서해로 흐르니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전설이 생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강화 마니산(摩尼山)의 반 조각이 갈라져서 떠돌아왔다는 전설도 있다. 그래서 마니산을 형 산(兄山), 계양산을 아우 산[弟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계양산의 이름은 계수나무와 회양목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수나무는 열대수목이니 설득력이 약하다. 회양목은 계양산에 매우 많았다.

고려시대에 부평 일대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의 명칭을 계양도호부로 붙이고 그것이 일제 때 부천군 계양면으로까지 이어오면서 대표성을 갖게 된 것

※ 이 글은 이원규(소설가·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가 책임집필하였음.

으로 보인다. 부평에서 태어나 50년 이상을 산 원주민들에게는 유년시절 기억에 안남산 명칭이 선연하게 남아 있다. 사람들은 "안남산 불여우 같은 녀석"이라든지, "포수들이 안남산에서 노루를 세 마리나 잡았다"라든지, "안남산으로 도롱뇽 알 찾아 먹으러 가세"하는 식으로 이름을 사용했다.

계양산에는 세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표고 395m에 달하는 주봉을 군자봉 또는 명장군봉이라 부르고, 그 봉우리와 나란히 선 것을 옥녀봉이라 부른다. 두 봉오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봉우리를 꽃뫼봉[花山峰]이라 부른다. 그런 봉우리들 이름 때문인지 옛 사람들은 이곳을 비범하고 용감한 장군이 아름다운 미녀(옥녀)와 더불어 꽃밭에서 노니는 명승지라고 여겨 왔다.

계양산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 통하는 큰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삼국시대에 이미 민가 5백여 호가 살았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계양산 북쪽 산록이 삼남지방과 왕도 개성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다.

조선왕조의 건국과 한양 천도 이후에는 계양산의 또 다른 산록을 거쳐 곧장 부평으로 넘어오는 큰 고갯길인 경명현(景明峴)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고갯길이 물론 이 때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존속했던 것이지만 관아가 있는 부평을 거쳐 서울로 가기에는 최단거리 교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개에는 도둑떼가 끊이지 않았다.

계양산은 옛날에 도둑떼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이며, 아름드리 수목이 우거져 은신하기가 좋고, 산의 동서남북 아래에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한테서 빼앗을 것이 많았다. 게다가 산의 허리에 걸쳐진 경명현은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 고개는 삼국시대 이래로 개성과 인천, 안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으며 길이가 8km에 달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경명원서십리석곶로(景明院西十里石串路)'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한국 소설의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도 나온다.

경명현은 '징매고개', 또는 '징맹이고개'라고도 불렀는데 그 명칭은 고려 때 이 곳에 매사냥을 하기 위한 국영 매방[鷹房]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징발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붙여졌다. '천명고개'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그것은 도둑이 많아 천 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계양산에는 이 경명현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도둑이 끓었다.

옛날에 충청과 호남에서 범선을 타고 와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나 짐은 이 고개를 지나야 했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 있는 정부 세곡창고에서 세곡(남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싣고 가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도둑 떼가 자리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계양산에는 사찰이 열두 개가 있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산에 올라가 보면 여러 곳에서 그 자취들을 찾을 수 있다. 남록인 부평 쪽에 두 곳, 동쪽인 계양 방향에 한 곳, 북쪽인 서곶 방향에 세 개가 뚜렷이 남아 있다. 그것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전하는 사찰들은 서록의 만일사(萬日寺), 북록의 명월사(明月寺), 동록의 봉일사(奉日寺)이다.

계양산이 강서 지역의 가장 저명한 지형지물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접근하면서 우뚝 솟은 이 산을 보며 방위를 찾는다고 한다.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곶의 해안은 남파간첩의 상륙루트로 자주 이용되었는데, 그들의 회고담에 의하면 해안 상륙 즉시 나침반으로 계양산의 방위를 재고 그것으로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는 침투로를 잡았다고 했다.

계양산에는 3~4부 능선에 회양목이 지천으로 많았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마구잡이 채취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만 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인부들이 수십 명씩 트럭에서 내려 산록으로 올라가 마구 캐서 가마니에 담아 트럭에 가득 쌓아 올리고 떠나는 것을 무수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천으로 많던 회양목도 거의 멸종되어 갔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남아 있던 회양목 군락은 그 뒤 주택 건축경기가 일어나면서 마구 캐서 멸종되어 버렸다.

도롱뇽도 그러했다. 이른 봄이면 수십 명씩 몰려가 맑은 시냇물에서 그것을 잡아다가 몸보신을 했다. 그러나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 마구 잡아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있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계양산에 살고 있는 도롱뇽

출처 : 홍미영의원실

2. 충렬왕과 계양산 매사냥

고려시대에는 매사냥이 성행했고 26대 충렬왕도 태자 시절부터 그것을 즐겼다. 그의 매사냥은 부평과 인연이 깊었다. 태자 시절에 그는 원나라에서 파견된 집정관인 다루가치(達魯花赤)와 함께 부평에 와서 매사냥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수행해 온 이접(李摺)은 다루가치와 태자에게 아부하려고 고니와 따오기의 날개털을 뽑은 뒤 언덕에서 날리게 하여 매사냥을 쉽게 만들었다.

그 뒤 태자는 원나라에 볼모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매사냥을 즐겼다. 그는 원나라 세조(世祖)의 딸 홀도로계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 공주와 결혼했고 부왕이 죽자 공주와 함께 귀국해 왕위에 올랐다. 고려에서는 몽고 공주 출신의 왕비를 원성(元成) 공주라고 불렀으며 죽은 뒤에는 제국대장(齊國大長) 공주라고 불렀다.

원나라와의 왕실 혼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고려는 역사의 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양국의 우호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권신들의 세력에 억눌려 오던 왕실의 지위도 회복,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성을 잃은 종속국으로 전락하여 이후 원나라의 많은 간섭을 받게 되었다.

충렬왕은 매사냥을 하고 싶어 못견뎌했다. 국영 매방은 서울인 개경에 있었다. 그런데 사육하는 매가 민가의 닭이나 오리를 공격하여 피해가 커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백성들 피해가 없는 한적한 곳에 매사냥터를 만들어라."

충렬왕은 명령하였다.

임무를 받은 신하들은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부평에 와서 계양산을 보고 만족했다. 사냥감인 꿩과 비둘기와 토끼가 많고, 멀리 서해가 바라보이는 훌륭한 경치가 왕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왕이 태자 시절에 다녀간 곳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몇 달 만에 계양산에 국영 매방이 생겼다.

왕은 다섯 차례에 걸쳐 이곳에 왔다.

"참 좋은 곳에 사냥터를 만들었군. 내 마음에 쏙 드네."

왕은 몹시 기뻐하였다.

어느 해 가을, 왕은 왕비인 원성공주를 동반하였는데 왕비는 사냥을 싫어

하였다. 그런데도 따라나선 것은 왕이 후궁 무비를 사랑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임진강을 건너고 김포 통진에 도착해 하루를 묵었는데 공주는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하다며 노여움을 터뜨렸다.

"전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임무인데 어찌 사냥만을 즐기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 불편한 곳까지 데려와 고생시킵니까."

왕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계양산 큰 고개에 도착하고서도 왕비는 매방 책임자를 꾸짖었다.

"이 곳에는 꿩은커녕 거위 한 마리 없는데 왜 전하에게 사냥을 권하여 나까지 험한 길을 오게 한 것이냐?"

그리고 충렬왕에게 또다시 쏘아붙였다.

"전하가 사냥꾼 두목입니까? 왜 제왕이 왕도를 놓아두고 이런데 나온단 말입니까?"

충렬왕은 분하여 서리가 하얗게 깔린 풀밭에 그냥 주저앉았다.

"그래도 내가 고려 땅에서는 제왕인데 공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왕비가 왕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합니다."

걸핏하면 제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는 공주 앞에서 충렬왕은 힘이 없었다. 공주가 돌아가면 원나라 황제는 책임을 물어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거나, 군대를 보내 제압할 것이었다.

왕은 묵묵히 앉아서 풀밭을 들여다보았다.

충렬왕은 왕비인 공주와 다투면서도 그 뒤에도 기어이 계양산에 왔다.

"나는 매사냥을 안 하면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어. 왕비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어."

그는 수행해온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자랑스러워해서 원나라 사신을 데리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지명 계양을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그 뒤 매방이 있던 곳의 고갯길이 경명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계양산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한자 지명보다는 '징맹이고개'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다. 충렬왕이 매를 징발했다 하여 징매[徵鷹]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

3. 부평부사와 경명현의 도둑 두목

옛날 부평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왔다. 관아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을 먹으려 할 때였다. 고을의 방범 경찰 업무를 맡은 병방(兵房)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나리, 털렸습니다요."

"이놈아, 뭐가 털렸다는 것이냐. 똑바로 말해라."

사또는 숟가락을 놓으며 낯을 찡그렸다.

"징맹이고개에서 도둑떼가 행인의 짐을 털었습니다요."

"뭣이라구? 그 도둑놈들이 내가 부임한 첫날부터 털었단 말이냐?"

사또는 발을 구르며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 들었다. 그는 기가 막혔다. 부평부사로 제수되던 날, 그는 조정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터였다. 계양산 경명현의 도둑떼를 말끔히 토벌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쯤 단단히 준비를 해서 토벌대를 이끌고 나서려던 참이었다.

"내 이놈들을 요절내고야 말겠노라."

그는 아침 먹는 일도 거르고 수십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계양산으로 갔다.

징맹이고개



이 산은 군도(群盜)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인데다, 수목이 무성하여 몸을 숨기기 쉬웠다. 그리고 산 아래로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이 많고 빼앗을 것이 많았다. 도둑 떼가 자리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이 고개는 도적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 일행이 천 명이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천명고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경명현의 도둑 두목은 키가 작고 날렵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임사또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벌에 나섰지만 두목의 그림자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또도 그렇지만 조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계양산 도둑떼의 두목이 마치 의적(義賊)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었다. 고개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조용히 가난한 집 담장 안에 던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도둑이 민심을 얻고 조정에서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통치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였다.

사또는 경명현을 샅샅이 순찰했으나 도둑은 흔적도 없었다.

사또는 도둑에게 주는 경고장을 붙였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아 너를 토벌하러 왔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감히 의적인 양 하다니, 참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수한다면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니 자수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산 아래 나졸들을 배치하고 행인을 서른 명 또는 쉰 명으로 묶어 고개에 오르게 했다. 마을에는 청년들을 시켜 야경을 돌게 했다. 재물을 가난한 집에 던져 놓는 자를 무조건 붙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다음날 아침 다시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그가 순찰을 끝내고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둑이 행인들의 짐을 털었고 그것을 즉시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집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었다.

관아로 붙잡혀 온 나졸들이 말했다.

"갑자기 주먹 만한 돌이 날아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행인들의 짐이 다 털린 뒤였습니다."

나졸들은 이마에 돌멩이를 맞아 상처가 나고 퉁퉁 부어 있었다.

"이 미련하고 둔한 놈들아, 그래도 너희가 아전이라고 나랏밥을 먹는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나서 나졸들에게 볼기를 스무 대씩 맞는 장형(杖刑)을 내렸다.

마을에서 야경을 한 청년들도 끌려와서 말했다.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요. 정말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 청년들도 장형 10대씩을 맞고 돌아갔다.

사흘 뒤, 사또는 60명의 나졸과 포졸을 이끌고 징맹이고개로 갔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키가 작고 땅딸하게 생긴 자가 홀딱홀딱 재주를 넘으며 사또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큰소리로 호통 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사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말하는 투가 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부사를 수행한 포교가 꾸짖었다.

"이 무엄한 놈, 어느 어른 앞인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포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땅딸보 도둑은 잽싸게 몸을 날려 큰 바위 위로 사뿐 올라앉았다. 그러고는 하하하하 배꼽을 잡으며 호기롭게 웃었다.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잡아? 어서 너희들 패랭이나 살펴보아라."

포졸들이 패랭이를 벗어보니 패랭이 꼭지가 모두 잘려 땅에 떨어져 있었다. 포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는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포졸과 나졸들이 마지못해 칼을 뽑아들고 나섰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 도둑은 포졸과 나졸들의 절반 정도 인원이었으나 이리저리 휙휙 날아다니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포졸과 나졸들은 뒤통수와 어깨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사또 혼자만 얻어맞지 않고 온전했다.

사또는 체면이 잔뜩 구겼으나 칼을 뽑아들었다.

"땅딸보 두목놈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땅딸보 두목은 아까처럼 훌떡훌떡 재주를 넘으며 나타났다. 그러더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외쳤다.

"사또, 혼자 남았는데 어쩌시려구요. 정말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표검을 뽑아 휙휙 던졌다. 표검들은 사또 곁에 있는 키 큰 소나무 둥치에 탁탁탁 소리를 내며 연속적으로 꽂혔다. 부하들은 다 쓰러졌고, 도둑은 한 놈도 잡지 못했고, 표검은 무섭게 날아와 꽂히니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관아로 내려왔다.

계양산 경명현은 옛날부터 도둑떼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도 이 고개는 등장한다. 계양산의 군도를 토벌하려다가 실패한 사또는 1560년(명종 15) 부평도호부 부사로 부임한 신건(申健)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경명현은 1930년대까지 서해 포구에서 부평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러나 서곶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리고, 가정동에서 부평으로 가는 안아지길이 자동차 도로로 확장된 뒤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옛 고갯길 옆으로 계양산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

계산동의 계양산 서록에서 시작해서 계양산 기슭을 스치면서 서해 쪽으로 뻗어나간 그 길은 지금 부천과 인천의 북부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통로가 되어 차량 통행으로 항상 붐빈다.

4. 화승총의 필수품 계양산 부싯돌

임진왜란에서 참패한 조선 조정이 화승총을 만들고 화약과 함께 신속히 불을 일으켜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을 연구하게 되었다. 거기 열심히 매달린 사람으로 정두원(鄭斗源)이라는 무관이 있었다.

정두원은 광주 정씨(光州鄭氏)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병서와 경서를 읽고 무예를 닦은 뒤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므로 그는 하급 지휘관으로서 혹독하게 전쟁을 치렀다.

전란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부하 정효길(鄭孝吉), 박무길(朴武吉)과 더불어 지나간 전쟁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가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정신적인 무장이 덜 되어 왜놈들한테 짓밟혔지만 그보다 큰 건 무기가 왜놈들한테 뒤진 때문이네. 백성들의 정신적인 무장은 나라님이나 정승님들이 고심할 내용이네. 우리는 무관으로서 무기개발을 힘써야 하네. 왜놈들 조총보다 훨씬 좋은 총과 화약을 만들어야 하네."

정효길이 말했다.

"총이야 군기도감에서 단단히 벼르며 만들려고 애쓰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총을 발사시키는 심지나 점화장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두원은 그게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전국의 부싯돌 생산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평 땅 계양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여름에 부평 저자에 온 정효길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피할 겸 빈 속도 채울 겸 주막으로 들어갔다. 술손님이 없어 하품을 하고 있던 주모가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정효길은 마루에 앉았다.

"배도 출출하고 하니 알아서 주시게."

"계양산에서 잡은 꿩고기 안주와 계양산 약수로 만든 약주가 있습니다."

"그걸 주시게."

비에 젖은 갓을 털던 그는 주모가 부싯돌을 툭툭 쳐서 손쉽게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순간 벌떡 일어섰다.

충충하게 어두운 구석에서 부싯돌은 번쩍번쩍 섬광을 일으키며 단 두 번만에 부싯깃에 불이 붙었다. 부싯깃은 보통의 마른 약쑥이었다.

"주모, 그 부싯돌 나 좀 보여주게."

정효길은 부싯돌을 받아 들었다. 주방에서 쓰는 것이라 손때가 묻어 있지만 그는 그것이 티 하나 없는 순백의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부딪쳐 보았다. 번쩍번쩍 불이 일어나는데 몇 번 반복하자 허공에서 잠깐 불길이 일어나 일렁거리다가 꺼졌다. 전국 각지를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싯돌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이걸 어디서 났는가?"

그의 물음에 주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주정뱅이 박판돌이가 줬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다고 들었는가?"

"안남산에서 주웠다고 들은 걸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

"안남산 아래 살지요."

"날 좀 만나게 해주게. 아주 중요한 일이네."

주모는 술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 박판돌을 데려 왔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자네 석 달 마실 술값을 대겠네. 주모가 가진 부싯돌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게나."

"알았습니다. 당장 모시고 갈 수 있지요."

"내가 마음이 바쁘지만 비가 그친 뒤 가세."

정효길은 다음날 박판돌을 데리고 계양산으로 갔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매우 큰 석영 원석을 발견하였다. 부싯돌로서는 최고라 할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돌이었다.

정효길의 보고에 따라 정두원은 현장에 와 보고, 군사들이 휴대할 수 있는 부싯돌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술주정뱅이가 발견한 원석을 확보함으로써 이때부터 계양산 부싯돌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 후 원석은 계양산과 주변에서 또 다시 발견되었고 군사용뿐만 아니라 총을 쏘는 포수들에게 애용되었다. 그리고 대궐이나 사대부 집은 물론 백성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전국의 저자에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부싯돌, 부평 안남산 부싯돌이오." 하는 한 마디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전국으로 행상을 나갔다. 그들은 근방의 바로뫼 고개(현재의 서구 검암동 소재)의 특산물인 숫돌과 함께 부싯돌을 지고 나가 팔았다.

"부평 안남산의 부싯돌, 부평 바로뫼의 숫돌을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더구나 몇십 년 지난 뒤 담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부싯돌의 인기는 더 커졌다.

계양산 부싯돌은 개항과 동시에 인천에 진출한 외국 회사 세창양행이 성냥을 수입하고, 뒷날 성냥공장을 인천에 세우면서 인기를 잃었다.

부싯돌은 옥수(玉髓)와 석영(石英)으로 구성된 차고 단단한 암석을 말한다. 회색 · 갈색 · 흑색 등 여러 가지 빛깔이 있으며 반투명 또는 불투명하다. 두 개의 부싯돌을 잡고 부딪치면 불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 마른 쑥 같은 부싯깃을 놓아 불을 붙였다.

※ 참고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5. 수십 번 쓰러진 중심성 사적비

계양산 경명현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길게 이어진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중심성(衆心城)이다.

이 성은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이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해 쌓았다. 조선조 말기, 이양선이 자주 출현하자 고종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교시를 내렸고 박희방은 1883년(고종 20) 9월에 쌓기 시작하여 한 달 만에 완공했다.

경명현은 한반도 남북을 가로지르던 옛 중심 교통로의 한 요충이었고 이곳을 통과해 70리를 가면 한양에 이를 수 있었다. 서해안을 지키는 수비군이 무너지면 2~3km 떨어진 이곳에서 적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종은 이 고개에 성을 쌓게 하였다.

축성을 끝내고 박희방은 성문 옆에 축성의 경위를 기록한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다. 그는 고을의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사적비는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오랑캐를 막아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을 길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석을 세우고는 중심성을 감회어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백성들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는 악전고투해서 이 성을 쌓았던 것이다.

"신식 총을 가졌다는 서양 오랑캐들이 바다에서 상륙해 서울로 가려면 여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건곤일척의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고을 원로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사적비는 엉뚱한 속설 때문에 수십 번을 쓰러지고 다시 세워졌다. 이곳에서 가까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것이 서 있으면 자기 집안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부정한 행실을 한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산 아래 박첨지네 며느리가 옆 마을 홀아비와 정분이 나서 내쫓겼다지 않은가. 중심성 비석이 여자들로 하여금 외간남자의 품속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네."

그의 벗이 말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네. 최근 수년간 우리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젊은 여자가 탈선하는 일이 몇 차례나 생기기 않았나. 그게 모두 그 비석 때문이라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우리들 모르게 마누라가 바람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속설이 퍼져 나가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사적비를 쓰러뜨렸다.

부평부사 박희방은 비석을 다시 세우며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했다.

"어리석은 백성들 같으니라구. 걸핏하면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때가 아닌가. 그걸 막기 위해 성곽을 쌓고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자고 한 비석에 웬 부정한 여자들을 거기 끌어다 붙이는가."

그리고 그는 명령하였다.

"널리 알려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만든 자는 투옥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는 장형(杖刑) 서른 대, 구경하고 들은 자도 열 대에 처하겠노라."

그러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경험 많고 판별력이 높은 관장이었으나 귓속말로 퍼지는 유언비어를 차단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적비를 누군가가 또 쓰러뜨렸다.

박부사는 명령하였다.

"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거기 경비병을 세우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다. 언제 경비병의 눈을 속였는지 사적비는 또 쓰러졌다. 그렇게 쓰러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자 박부사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포기하였고 다음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갔다.

박부사가 전출되어 갔지만 중심성 사적비는 쓰러지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했다. 박부사 대신에 누군가가 열심히 다시 세웠는데 그것은 마을의 여인들이 정절을 잃기를 바라는 짓궂은 한량들이었다.

그들은 밤에 키득거리며 성으로 갔다.

"허무맹랑한 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그리되지 않았는가. 지난 삼년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정분이 났는가 말일세."

"그러게 말일세. 비석이 다시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자들은 외간남자의 거시기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 스스로 눕혀지고 싶은가 보이."

"우리 같은 한량들에게 여자들이 눕혀지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

마운 일인가 말이야."

그들은 사적비를 세우고 산을 내려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쓰러뜨렸다. 그들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쓰러지고 세워짐을 끝없이 반복한 중심성 사적비는 광복 후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성문인 공해루(控海樓)도 무너져 자취가 사라지고 중심성도 거의 다 무너진 채 그 비석만 덩그러니 누워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인천상륙작전 때 폭격으로 박물관이 파괴되면서 사적비는 없어졌다.

어떤 사람은 미군의 함포를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박물관에서 누군가가 꺼내서 계단이나 담장을 쌓는 재료로 썼을 것이라고 말한다.

6. 중심성 공해루에 걸렸던 한시 '부평팔경'

계양산 경명현에 중심성을 쌓은 부평부사 박희방은 축성이 끝난 뒤 성문 누각 공해루에 「부평팔경(富平八景)」이라는 사언고시(四言古詩)의 한시를 써서 걸었다. 이것이 박부사의 자작시인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8개소를 부평 관내 최고의 절승이라고 한 것이 그의 생각인지, 당시에 일반화된 인식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로부터 비롯되어 인천과 부평 사람들은 물론 부평 관아에 오는 묵객 시인들은 부평팔경을 즐겨 찾았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다.

桂陽孤鐘(계양고종) 계양산의 외로운 종이라는 뜻이다. 계양산 중심성 공해루에 걸렸던 종을 말한다.

蘭浦歸帆(난포귀범) 경서동 난지도 포구에 돌아오는 돛단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大橋漁火(대교어화) 한다리에서 밤에 고기잡이하는 불빛을 말한다. 한다리는 계양구에 있다.

景明落照(경명낙조) 경명현에 지는 해라는 뜻으로 계양산의 유명한 경명현, 일명 징맹이 고개로 지는 저녁해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溫洞瀑布(온동폭포) 온수동의 쏟아지는 폭포를 표현했다. 부천의 온수가 옛날에는 부평 관내였다.
古城牧笛(고성목적) 옛 성에서 부는 목동의 피리 소리라는 표현으로 계양산 고성의 정취를 담았다.
遠積暮雨(원적모우) 원적산에 내리는 저녁비를 표현했다. 원적산은 서구와 인접해 부평구 일부에 자리잡고 있다.
西川院沙(서천원사) 서쪽 시내에 쌓인 모래라는 표현으로 아마도 서곶 빈정천의 모래밭 정경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계양팔경」이라는 제목을 가진 정지석(鄭芝錫)의 시가 있다. 이 시도 8구의 사언고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로들 일부가 박희방의 「부평팔경」 시와 혼동하거나 두 사람의 시를 뒤섞어 기억하고 있어 자료를 찾아 옮겨 본다. 그리고 부평향교를 지낸 정영근(鄭英根)의 「서곶팔경(西串八景)」이라는 시가 있어 그것도 옮겨 싣는다. 두 지역은 지난날 부평 문화권에 속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桂陽八景(계양팔경)
虛庵冷井(허암냉정) 검암동 허암산에 있는 찬 우물
雷岩宿雲(뇌암숙운) 벼락바위에 머무는 구름
蘭浦靈葉(난포영엽) 난지도의 신비한 난지초 잎
桂山懸瀑(계산현폭) 계양산 절벽에 내걸린 폭포
尾島落照(미도낙조) 서해의 꼬리섬에 지는 해
鷹峯朝輝(응봉조휘) 매봉재의 빛나는 아침빛
琢玉成文(탁옥성문) 탁옥봉에서 수도하여 문장을 이룸
天馬皇瑞(천마황서) 천마산의 상서스러운 기운

西串八景(서곶팔경)
桂陽輪月(계양윤월) 계양산에 떠오른 둥근 달
虎島落照(호도낙조) 범섬으로 떨어지는 저녁 낙조
銀波沈月(은파침월) 서해 만조의 파도 위에 잠긴 달
蘭浦歸帆(난포귀범) 난지도 포구에 돌아오는 돛단배
北川細柳(북천세류) 북쪽 냇가에 늘어진 수양버들

西湖垂釣(서호수조) 서쪽 호수에서 낚시하는 모습
虛岩古跡(허암고적) 검암동 허암산에 남은 옛 모습
黑岩龜形(흑암구형) 검암동의 거북 모습의 검은 바위

7. 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안남산 불여우'라는, 계양산 근방 사람들에게 통하는 관용구가 있었다. 불여우란 불빛처럼 털 색깔이 붉은 여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산에 서식하는 여우들이 거의 그러했다. 안남산의 불여우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약을 대로 악아 빠져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았다.

옛날에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올라온 선비가 서곶 해안에 내린 뒤 부평읍을 거쳐 한양으로 가려고 계양산 경명현을 넘고 있었다. 도둑이 많은 고개라 일행 50명이 같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배탈이 나서 산속에서 일을 보았다. 커다란 떡갈나무 잎으로 밑을 닦고 고의춤을 올려 매며 바라보니 일행은 가버리고 없었다.

"경기 지방은 인심들도 나쁘군. 나 혼자만 남기고 먼저 가 버리다니. 어서 가야지. 도둑이 나올지도 몰라."

그는 발에 불이 나도록 고갯길을 달려 올라갔다. 그러나 경사가 급해 이내 숨이 턱턱 막혔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캐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몸집 작은 여우들이었다.

그놈들은 그가 일행에서 떨어졌으며 몹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대여섯 마리가 깡충거리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재주를 넘고 까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우를 몇 번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수를 본 적도 없었다.

"비켜라, 이놈들아!"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지팡이를 물어 가로채더니 캥캥거리며 풀숲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을 신호로 여우들은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물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발뒤꿈치를 물어 짚신짝을 벗기고, 머리 위로 날아올라 갓을 벗겼다. 그리고 등 뒤로 뛰어올라 괴나리봇짐의 어깨 멜빵을 이빨로 끊으려 했다.

백 년 묵은 여우가 둔갑한다더니 그런 놈들이 몰려온 듯싶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는 단단히 다짐하였지만 여우들이 난리를 치는 통에 옆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마음이 불안하여 마구 달리다 보니 길이 좁아지고 바위들이 앞을 막았다.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거꾸로 달려 나왔으나 큰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해가 꼬박 넘어갔다.

다행히도 여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 때 그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였다. 거기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립문 앞에서 목을 뽑고 들여다보았다. 거기 묘령의 처녀가 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여우한테 홀려 있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나 의지와는 달리, 여우가 나오는 흔한 옛날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사립문을 열고 들어갔다.

"고갯길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소이다.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시오."

처녀가 얌전하게 말했다.

"여기는 산도둑들이 있는데다가 불여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천 명이 모여서 넘으라고 천명고개라 하는데 왜 혼자 길을 떠났습니까?"

그는 배탈이 나서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우물거렸다.

"혹시 여우를 보셨나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다.

"사실은 여우 몇 마리가 나타나 어찌나 까부는지 경황 중에 길을 잃었소이다."

처녀는 놀라는 얼굴을 했다.

"큰일 날 뻔했군요."

처녀는 조용조용 움직여 밥상을 차려서는 툇마루 위에 올려주었다. 몸매와 행동이 매우 부드럽고 고왔다.

선비가 물었다.

"왜 처녀는 혼자 산 속에 살지요?"

처녀는 머뭇머뭇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소녀는 경명현의 산 도둑 부두목의 딸입니다. 두목

과 아버지와 부하들은 먼 고장으로 부잣집을 털러 갔지요."

선비는 처녀의 솔직하고 소박한 말에 호감이 갔다.

처녀가 다시 말했다.

"부끄럽지만 선비님께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그는 숟갈을 든 채 처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비록 도둑이지만 저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양반 댁을 털 때는 책도 갖고 오십니다. 덕분에 소녀는 글을 깨쳤사옵니다. 지금은 『소학』을 읽는데 어렵습니다."

선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산중에서 혼자 책을 읽다니요?"

"겨우 시늉만 할 뿐이옵니다. 아버지나 아버지 동료들은 모두 까막눈이고 아무에게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풀어 주실 수 있는지요?"

선비는 선선히 승낙했다.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고, 끝내 과거시험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사서와 삼경은 읽은 터였다. 『소학』 따위는 식은 죽 먹기처럼 자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선비는 처녀에게 『소학』의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처녀는 방안에 눕고 선비는 툇마루에 누웠다. 밤 뻐꾸기가 울고 부엉이도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는 처녀가 손을 잡는 바람에 눈을 떴다.

"산중이라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자 처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평생에 선비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소원이었사옵니다."

선비는 처녀와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감회가 컸다. 그리고 산 속에서 보내는 밤이 행복했다. 전라도에서 보름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웬 행운이냐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에 그는 자신이 붉은여우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다가 잠에서 깨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는 마른 나무 삭정이를 안고 숲속에 발가벗고 누워 있었다.

허무하고 아쉽고 얼떨떨한 느낌으로 일어나 옷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는 어젯밤 일이 아쉬워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처녀가 있던 초막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벌거벗은 채로 큰길을 찾아 걸어가는데 여우들이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저놈들한테 홀렸었군."

그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한참만에 그는 고갯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 살려요!"

그는 한 손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소리쳤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말 잔등에 얹는 낡은 누비헝겊으로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쯧쯧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겼구려."

"아니오. 여우에게 홀렸었지요."

그는 울상을 하고 말했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8. 계양산의 장사굴

계양산 남록에 장사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굴이 있었다. 입구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다가 앞에 소나무와 관목들이 무성해서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웠다. 입구가 좁아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만 안에 들어서면 바람이 없이 아늑하고 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예닐곱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옛날에 사냥꾼 세 사람이 계양산에 올랐다가 비를 만나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이 굴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비바람이 전혀 들이치지 않고 그리 컴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방안에 들어온 듯 편안하였다.

한 포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긴 주인이 있네. 여기 포대기와 물그릇과 도기로 만든 잔이 있어."

그 때였다. 빗소리에 섞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들은 여차하면 당길 생각으로 활에 화살을 재었다. 한 사람이 굴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목소리는 앳되게 느껴졌으나 워낙 커서 사냥꾼들은 그가 소년 거인이거나 소년 장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우리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냥꾼들이네. 우리는 비를 그으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는 굴인지는 몰랐네."

굴의 주인은 끙 소리를 내며 배를 깔고 안으로 들어왔다. 열두 살쯤으로 짐작되나 키가 육척이 넘게 컸으며 온몸이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도 사냥을 하며 사는지 몸에는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고 막 잡아온 듯 노루 한 마리를 피 묻은 창과 함께 구석에 던졌다.

"행색을 보니 아저씨들은 사냥꾼들인 모양인데 배고파 보이는구려."

"그렇네. 사흘 동안 거의 먹지 못했네."

소년장사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킨 뒤 잡아온 노루를 쭉쭉 찢어 꼬챙이에 꿰어 구워 권했다.

배고픔을 면한 사냥꾼들이 물었다.

"너는 어떤 연유로 혼자 이 굴속에 살게 되었느냐?"

소년 장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너는 철룡 장군의 아들이다, 그분은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 날 사냥꾼들이 소년 장사와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달 뒤에 그들이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는 소년 장사가 머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 장사가 계양산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근방 사람들은 간혹 소년 장사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던 것이다. 절구만한 바위를 핑핑 집어던지며 노루를 잡는 모습도 보았고 지름이 한 뼘은 될 나무를 뚝뚝 분지르는 모습도 보았다. 아마도 근처의 다른 굴속에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소년 장사는 어른이 되었을 때 거인처럼 컸으며 바위를 밟았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바위 위에 패인 발자국이 남았다. 그는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땅이 쿵쿵 울리고 놀란 짐승들이 사방에서 뛰었다. 그를 본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이런 전설을 간직한 장사굴은 1970년대에 뜻밖의 이유로 없어졌다. 무장남파간첩이 은신처로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군부대에서 폭파해 버린 것이다.

9. 병자호란과 부평향교의 위패들

병자호란 때 일이다. 청나라 군대는 임진왜란 때의 왜군처럼 포악하지는 않았지만 닥치는 대로 불을 질렀다.

부평 유림에 송윤(宋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양 태생으로 관직에서 은퇴한 뒤 낙향하여 부평 향교에서 유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성격이 강직하고 확신에 찬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호란이 일어나 가족과 이웃이 모두 피난 짐을 꾸리는데 그는 초연하게 선언했다.

"모두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나는 향교를 지킬 것이야."

자식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했다.

"청나라 군대는 유교를 숭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교에 불을 지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향교를 어떻게 지킵니까? 아버지 목숨이나 가족 목숨보다 향교가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나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렇다. 나는 향교가 목숨처럼 중요하다."

가족이 떠나고 그는 의관을 정제하고 향교를 지켰다.

설마 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부평부 관아와 향교에 불을 질렀다. 청나라 군대는 강화를 침공하려다가 포기하고 선조가 피신해 있는 남한산성으로 진공하다가 부평 땅을 거쳐 갔다. 그리고 방화를 한 것이었다.



부평향교(1991)

"아, 공자님의 위패가 불타면 안 돼!"

송윤은 불타는 향고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가 공자를 비롯한 명현들의 위패를 안고 나와 계양산 경명현으로 올라갔다. 거기 있는 바위틈에 그것들을 숨겼다.

전란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유림들은 불타 버린 향교를 보며 대성통곡했다.

"건물이 탄 것도 큰일이지만 성현님들의 위패를 태웠으니 이런 황공할 일이 또 어디 있어!"

송윤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양산으로 올라가 위패들을 모시고 내려왔다.

그리고 불탄 향교 재건운동을 벌여 향교를 복원했고 거기 위패들을 모셨다. 그리하여 그는 부평 유림의 대표 인물이 되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부평 유림 명부에 제1호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조정이 내리는 중추부사라는 벼슬을 받았으며 90세까지 장수하였다.

그가 명현들의 위패를 숨긴 계양산의 바위틈을 부평 사람들은 '공자지원(孔子之原. 공자의 언덕)'이라고 불렀다.

※ 참고문헌 : 계양구, 『계양사』, 2001.

10. 정조대왕의 행차와 당좌수의 권세

조선 정조 때의 일이다. 임금이 부평에 거둥하신다는 통보가 왔다. 부평부사 윤광석(尹光碩)은 긴장하여 영접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부평평야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거부가 된 당씨(唐氏)를 불러 의논하였다.

"전하의 행차는 우리 고을의 영광이지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하고 적지 않은 경비를 들여야 합니다."

당씨는 늙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부사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선뜻 입을 열었다.

"사또, 걱정 마십시오. 나라님을 모시는 경비는 제가 모두 내겠습니다. 사또 나리는 다른 일이나 준비하십시오."

그는 부자로서 마땅히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기회에 충성을 다하면 벼슬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정조는 이듬해 8월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김포의 이궁(離宮)을 떠나 장모루와 계양산 경명현을 거쳐 부평부 관아에 도착했다.

완벽한 준비를 한 터라 정조 대왕과 수행해온 조정 대신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왕은 시회를 열고 친히 시를 지었으며, 윤부사의 간청을 받아들여 조정의 대여곡을 탕감해 주는 심정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대왕은 자신을 맞는 일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당씨에게 좌수 벼슬을 내렸다. 당씨는 고관들에게 귀한 물건들을 준비해 선물로 바치고 그들로부터 한양으로 오라는 약조를 얻어냈다.

그 뒤 당좌수는 두둑하게 돈을 싸 들고 빈번하게 한양을 왕래했다. 그가 조정 고관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얻은 것은 권력과 세도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의 권세는 부평부사를 넘어섰다. 부사도 조정에서 해결할 일이 있으면 그를 통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우리 부평 땅의 문제는 모두 당좌수를 통하면 해결되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네."

고을의 원로들은 그에게 겸손하고 자중하기를 권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허욕은 점점 커지고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저자의 골목에서 아이들은 노래하였다.

좌수 좌수 권좌수, 부평 땅의 당좌수, 임금님에게 잘 보인 덕으로 안하무인되었네.

그러나 그의 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허욕이 지나쳐 그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권세도 끊어졌다.

"부귀영화는 덧없는 것이야. 내가 조금만 겸손하고 자중했으면 존경받는 부자로 죽을 수 있었는데 그걸 미리 깨닫지 못했어."

죽을 무렵에 빈손이 된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그는 결국 평범한 사람으로 죽었고 그의 일생은 부평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었다.

※ 참고문헌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

11. 천마와 아기장수

계양산에서 큰 활기가 서쪽으로 뻗쳐와 형성된 철마산의 원래 이름은 천마산(天馬山)이었다. 이곳에 천마가 살았다는 전설, 그리고 이 산의 남쪽 아래에 아기장수가 태어났었다는 전설이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산 속에는 양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마가 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깝게 보인 적은 없었다. 이따금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이 터 오는 새벽하늘에 날개를 힘차게 저으며 날아가는 말을 멀리서 본 사람은 더러 있었다. 사람들은 구태여 찾아 올라가 천마를 보려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고 극성스런 청년들이 온 산을 헤매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근처에 영웅이 태어나고, 그 말을 타고 출정할 것이라는 신령스러운 전설 때문이었다.

조선 중기, 남쪽 아랫마을에 사람들이 몇 가구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천마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며 살았다. 그들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건강하고 착했으며 아내도 부지런하고 얌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부부였으나 결혼 십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호랑이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꾼 꿈인데다 몽롱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에 느껴졌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새벽에 길몽을 꿨어요. 아기를 가지려나 봐요."

꿈 내용을 들은 남편은 희색이 만면했다.

"태몽이면 얼마나 좋겠소?"

부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여쭈었다. 모두들 아들을 얻을 좋은 태몽이라고 했다.

아내는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지냈고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남편은 아내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길쌈을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그것은 조용히 새벽 공기를 흔들며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압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울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고 품격이 높게 느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서스

러운 소리였다.

그 날 낮, 젊은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산파역을 맡은 할머니가 말했다.

"고추예요. 튼실한 고추를 달고 나왔다구요."

아기 엄마와 아버지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삼신할머니,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점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기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총명해 보였으며 어깨도 넓었다. 아기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일가친척들도 달려와 늦게 아들을 얻은 부부를 축하했다.

아기의 몸을 씻고 배내옷을 입히던 산파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를 좀 봐요. 아기 등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징조로만 여기고 미소를 교환했다.

아기는 범상하지 않았다. 열흘 만에 걸었으며 한 달 만에 뛰어다녔다. 그리고 백일이 되자 맷돌을 번쩍번쩍 들어올렸다. 몸도 민첩해서 방바닥에서 벽을 타고 달려 올라가 천장을 타고 뛰다가 반대편 벽을 타고 뛰어내려왔다. 초가지붕 위로 휙휙 날아올랐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천마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하였다.

"아아, 우리 마을에 아기장수가 태어났구나!"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다. 고을 사또는 몸소 가마를 타고 마을로 와서 아기를 보고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아기장수가 나오면 역적이 되어 나라를 해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는 아기장수가 콩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병사가 되고 팥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모두 군마가 되어 막강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기의 친척 중 가장 나이가 든 어른에게 말하였다.

"아기를 광에 가두어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하면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만약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일가가 능지처참당할 것이다."

사또가 돌아간 뒤 아기장수의 부모는 아기를 광에 가두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아기장수를 죽이기 위해 서울에서 관군이 달려온다는 것이었다. 아기장수와 함께 일가를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말도 들렸다.

아기장수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야, 나를 용서해라. 네가 관군에게 잡혀 죽고 일가가 몰살당하느니 너의 목숨을 내가 끊는 게 낫다."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저를 묻을 때 콩 다섯 섬과 팥 다섯 섬을 같이 묻어 주세요."

아버지는 아기장수를 다듬잇돌로 눌러 죽이고 땅에 묻으며 콩과 팥을 함께 묻었다.

이튿날 관군이 도착했다.

"어서 아기를 내놓아라."

아기장수의 집안 어른들은 관군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였습니다요. 나라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하여 아비가 돌로 눌러 죽이고 묻었습니다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후환을 없애고 우리 관군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잘한 일이도다.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관군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고, 아기와 함께 묻은 콩은 군사가 되고 팥은 군마가 되어 막 아기장수를 호위하여 일어나려는 것이었다.

관군 장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서 진압하라. 어서 저 역적들을 죽여라!"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나를 역적이라 하십니까. 머지않아 조국에 쳐들어올 적군을 맞아 싸우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관군은 칼을 내리쳐 아기장수를 죽였다.

그 때였다. 천마산 골짜기에서 천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흔들며 들려왔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다. 천마가 힘차게 날개를 휘저으며 달려와 아기장수의 무덤 위를 선회하는 것을. 천마는 한나절 동안 그렇게 하늘을 날며 슬피 울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장수의 무덤 옆에 천마를 묻어 주었다.

몇 해 뒤, 왜군이 쳐들어왔다. 조선의 군대는 왜군을 당하지 못해 수많은 목숨과 조선의 강토가 그들의 발굽에 유린되었다. 사람들은 탄식하였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었으면 천마를 타고 날아다니며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

을 것이라고.

천마산이 철마산으로 바뀐 것은 강제합방 직후 일제가 전국을 측량할 때 이곳에 온 일본인 측량기사가 '천마'를 '철마'로 잘못 듣고 무심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산 중턱 암석에 하늘을 향해 비상한 듯한 말발굽이 많이 새겨져 있다. 인위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형상인데, 힘차게 달려 도약하는 듯한 자국이고 허공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천마산이라는 지명이 붙었었고 그런 전설을 뒷받침했다.

천마설화는 지상의 인간이 하늘로 오르고 내리는 신성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한민족에게 말은 제왕 출현의 징표로 신성시되었으며 천마는 날개를 움직여 하늘로 날아올라 하늘과 교통하는 상상 속의 신령한 동물이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혁거세 신화에도 나타나며, 동명왕 신화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경주의 천마총의 천마도는 한민족의 그런 신성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철마산의 암벽 위의 패인 말발굽 형상을 보고 천마에 대한 상상력을 넣어 지명을 붙인 것은 우리 조상의 길고 오랜 의식에서 유래한다. 철마산의 아기장수 설화는 비슷한 유형으로 전국에 분포된 한민족 고유의 신이담(神異談)의 하나이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12. 안아지고개

안아지고개는 부평구 청천동과 서구 가정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의 이름에 관해서는 그럴 듯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첫째는 이곳의 지형이 마치 기러기가 날아드는 모습이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청천동 동쪽에서 바라보면 서구 가정동 앞바다에서 기러기가 날아드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기러기가 날아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군."

그 때부터 한자의 기러기 안(雁)자를 써서 '기러기가 내려앉는다'는 뜻으로 안하지(雁下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이다.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정하려고 무학대사를 시켜 적당한 장소를 찾게 하였다. 무학대사는 한양을 거쳐 부평에 왔다.

"이 곳은 들이 넓고 비옥하여 새 나라의 수도로 삼을 만하군."

무학대사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곧 탄식했다.

"아, 참으로 아깝군. 풍수의 이론으로 보면 이곳에 백 개의 고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아흔 아홉 개밖에 없지 않은가."

그의 말에 따라 그 때부터 아흔아홉 번째 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이 안하지로 바뀌었다.

인천과 부평을 경계하는 원통현(圓通峴)도 이 전설과 연관하여 또 다른 뜻이 있다.

무학대사는 탄식하였다.

"아, 고개가 아흔아홉 개밖에 없으니 원통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원통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김안로(金安老)의 운하 사업과 관련된 전설이다. 그 때 운하를 만들면서 세 번째 시도로 굴포천에서 현재의 청천동 청천천(淸川川)과 연결시켜 수로를 깊이 팠다.

"여기도 실패하면 그 때는 끝이야. 어떻게든 성공해서 전하와 조정의 걱정을 덜어야 해."

그는 일꾼들을 독촉해 청천천을 깊이 팠다.

그 때 깊이 판 청천천이 고개 안에 있는 형상이 되었던 터라 '고개 안에 있는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내하지(內河地)'라 했는데 그 말 중 한자의 안내(內)자가 우리말로 변해 안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주막에서 술을 파는 여인의 이름과 관련된 전설이다. 1884년 조선 조정은 현재의 원창동 갯말(한자음을 빌어 포리(浦里)라고도 했다)에 큰 배가 닿을 수 있는 포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전조창이라는 세곡 보관창고를 지어 세곡을 보관하였다가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 우마차에 싣고 한양으

로 갔다.

우마차 짐꾼들은 현재의 가정동과 청천동 사이에 있는 고갯길을 넘으면서 한 번씩 쉬며 지친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자신들도 막걸리로 목을 축였다. 그들이 쉬고 간 주막에 '안아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어서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세요."

그녀가 반색하여 외치면 우마차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마차를 세웠다.

"안아지, 그대는 참 아름답소. 그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준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오."

사람들은 땀을 닦으며, 막걸리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아지라는 여인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주막 밖으로 나와 노래를 불러 주었다.

우마차꾼들은 그렇게 한숨을 돌린 뒤 다시 정부 세곡을 실은 우마차를 끌고 서울로 향했다.

한 곳의 땅이름을 두고 이렇게 네 가지 전설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개였던 것이 분명하다.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조선시대의 관립 도서관인 규장각 도서 중에 옛 지도가 있는데 그것에는 안하지 고개가 '구십현(九十峴)'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실려 있다.

안아지고개는 천마산 기슭을 스쳐 해발 165m의 원적산(元績山) 북록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 태조가 새 도읍지를 찾으려 할 때, 이 고개 너머 피네미 골짜기가 아흔아홉 번째 골짜기가 되어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전한다. 가정동에서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가좌동의 철마산 관통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인천 동구 방향에서 부평지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물론 서구 공촌동의 계양산 관통도로(경명로)가 뚫리기 전 서곶에서 자동차를 타고 부평지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13. 안아지고개의 도둑

조선 고종 때에는 원적산의 안아지고개에 도둑이 끓었다. 그들은 고개를

넘는 행인들만 터는 것이 아니라 계양산과 천마산 주변 마을까지 이동하며 재물이 있다고 알려진 민가를 털었다.

그들이 20리나 되는 한들 마을(현재의 서구 백석동)까지 진출해 민가를 털자, 마침 고향집에 와 있던 조정의 감역(監役) 벼슬을 하고 있는 심씨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 불쌍한 민초들의 재물을 털다니 너희가 사람이냐?"

그러자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심 감역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아났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은 대책을 논의했다.

"누가 그 도둑들을 토벌할 것인가?"

임금이 근심하자 조병하(趙秉夏)가 나섰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도둑을 토벌해 전하의 근심을 덜겠습니다."

조정은 부평부사를 면직시키고 그를 후임자로 제수했다.

조병하 부사는 부평부사로 취임하자마자 안아지 고개의 도둑 두목을 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장이어서 섣부르게 나서지 않고 미리 두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지난날 안아지고개에서 졸개 노릇을 한 자를 붙잡아 심문했다.

졸개는 이마를 땅바닥에 박고 목숨을 애걸했다.

"사또 나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대로 답한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그리고 네 공로로 두목을 잡는다면 죄를 용서하고 상금을 내릴 것이니라."

부사의 말에 졸개는 머리를 조아렸다.

"물으시는 대로 사뢰겠사옵니다."

"두목의 용모에 대해 말해 보아라."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요. 저희 수하들이 딴 생각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립니다요. 마치 가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요."

"그럼 네놈이 사로잡혀서 지금쯤 심문당하는 것도 알아차리겠구나."

"그렇습니다요."

"그놈이 축지법을 쓴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립니다요. 자기 말로는 하루에 오백리 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요."

"자, 모든 것을 말하여라. 그놈이 걷는 버릇, 밥 먹을 때의 행동,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는 졸개로부터 들은 것을 샅샅이 기록해 두었다. 그는 수하에 많은 나졸을 거느리고 있었고, 서해안에 배치된 군사기지에 병력을 요청할 권리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치밀했다.

그가 부임한 뒤에도 안아지고개 산적의 민가 털이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두목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진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그자가 이 마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위망을 치면 산 너머 엉뚱한 곳에 나타났다.

조병하 부사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목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생포당해 오는 도둑들을 치밀하게 심문했다.

그는 도둑 잡는 일에 거듭 실패하여 파직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여 찾아온 형에게 말했다.

"형님, 그놈은 여우처럼 영악합니다. 이건 물속에 그물을 던져 목적한 한 마리 고기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하지만 어부가 이골이 나면 물고기의 모든 버릇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지요."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생포한 졸개로부터 들었다. 두목의 이상한 버릇이었다.

졸개가 말했다.

"두목은 도둑질 나가는 걸 출행이라고 합니다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안다. 출행 나갈 때 하는 버릇이라도 있느냐?"

"있습니다요."

"그게 뭐냐?"

"손에 참기름을 바릅니다요."

"무슨 기름이냐?"

"모릅니다요. 작은 호리병에서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 손 전체를 문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조병하 부사의 서기(書記)는 그것도 낱낱이 기록하였지만 부사는 그냥 웃

어 넘겼다.

"하하하, 참기름을 손에 바르면 민첩해진다고? 참으로 엉뚱한 놈이로구나."

조병하 부사는 다시 한 달 이상을 도둑 두목과 머리싸움을 벌였다. 그는 예감이 있는 곳에 미리 나졸을 배치하고 어떤 때는 예감이 전혀 없는 곳에 배치하여 두목을 혼란시켰다.

결국 안아지고개 두목은 눈이 내린 날 붙잡혔다. 부사의 명으로 나졸들이 일부러 눈 위에 계략적으로 거짓처럼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그 곳을 통과하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조병하 부사는 도둑 두목을 대면하는 순간 혀를 찼다.

"과연 민첩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같은 자가 병사가 되어 복무한다면 나라 일이 오늘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깝구나."

도둑 두목은 형틀에 묵힌 채 고개를 들었다.

"사또 나리, 아까울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초들이란 벌레만도 못합니다요. 부모가 굶어죽고, 아내는 양반에게 겁탈당해 자결했는데 이 한 목숨이 어찌 아깝습니까?"

"네놈이 죽음을 앞에 두고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죽을 몸이니 마지막 소원이나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가 말했다.

"고아가 되어 외가에 맡겨져 있는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와 있다. 만나 보아라."

아들을 만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둑 두목에게 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다.

"네놈이 출행할 때 손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무슨 기름이냐?"

"쥐 기름입니다요."

"왜 쥐 기름이냐."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니까요. 저는 제가 늘 쥐라고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그랬겠구나. 너는 정말 쥐처럼 민첩하고 영리했지."

조병하 부사가 두목을 잡아 처단하자 안아지고개의 도둑떼는 사라졌다.

계양산 경명현보다 안아지고개에 도둑이 창궐한 것은 까닭이 있다. 조선 후기에 서곶 경서동의 난지도, 청라도, 원창동에 세곡의 중간 보관소가 세워졌다. 이곳에서 육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안아지고개를 지나야 했다. 그리고 1883년에 인천이 개항된 뒤에 부평으로 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했던 것이다.

14. 굴포천과 원통이고개

부평지역의 중요한 지명으로 남아 있는 굴포천과 원통현은 옛날부터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된 이름이다.

굴포천은 좁은 의미로는 옛 부평의 벌말에서부터 한강까지 물이 통하도록 사람의 힘으로 뚫은 하천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것과 연결된 대교천, 북포, 직포까지 포함하여 옛 운하사업을 할 때 연결되었던 부평지역의 하천을 통틀어 말한다.

옛날에는 남부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업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서울까지 가면 매우 편리하지만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에 흐르는 해협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곳에 소용돌이 급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조선 중종대왕은 낙심하여 크게 탄식하였다.

"또 거기서 세곡선이 침몰했다는 말이오? 버린 곡식이 삼천 석이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중신들이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국가 재정이 거의 그 세곡에 달렸는데 나라 살림에 큰 주름이 잡히게 되었사옵니다."

중종대왕은 한숨을 쉬었다.

"나라 살림도 살림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배를 주리며 납부한 세곡을 그렇게 버리니 면목이 없는 일이오. 경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

그 때 권신 김안로가 아뢰었다.

김안로는 아들 희(禧)가 중종의 부마가 됨으로써 왕실과 인척이 되어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이었지만 두뇌가 비상하다고 열려진 터였다.

그는 이미 경인운하를 계획하고 있었다.

"전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오?"

"그 손돌목을 피해 운하를 파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고려 때 실패한 것이옵니다."

"자세히 말해 보오."

대왕이 말했다.

"고려 시대 최충헌의 아들 최이는 김포 굴포천을 한강과 연락하는 수로를 개척하여 한강물을 서해로 돌리려다가 계양산맥의 큰 고개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사옵니다."

신하들은 며칠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중종 대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김안로에게 운하를 파라는 왕명을 내렸다.

김안로는 고려시대에 실패한 곳을 그대로 뚫고 나가려 했다. 그는 한강 입구인 연사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부평의 굴포천을 깊이 파서 부평평야를 횡단하여 계양산맥의 원통현까지 나아가고, 또 한편 번지기 마을(현재의 가좌동)의 갯골 포구에서 시작하여 동암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김안로는 감독관에게 호통을 쳤다.

"나라의 경제가 여기 달렸는데 왜 못 판단 말이냐!"

감독관은 무릎을 꿇었다.

"산 전체가 단단한 돌이옵니다."

김안로는 다시 호통을 쳤다.

"그래도 파라. 돌산을 부수란 말이다."

그러나 워낙 단단한 돌이라 곡괭이 끝이 번쩍번쩍 불꽃을 내며 튀었다. 횃불을 켜고 수백 명이 한 달이 넘도록 돌산에 달라붙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결국 암벽을 관통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김안로는 다른 방향을 찾으려 했다. 현재의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소래산맥 옆 수월현으로 방향을 돌려 인천 장수천을 깊이 파고자 했으나 이번에는 수월현의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했다.

"그래도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그는 세 번째 시도에 나섰다. 이번에는 굴포천에서 현재의 청천동 청천천과 연결시켜 수로를 깊이 파고 안하지 고개를 우회하면서 가정천으로부터 서해로 운하를 뚫으려 하였으나 철마산맥의 암벽을 뚫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김안로는 암벽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저희의 정성을 외면하십니까."

세 번의 노력이 실패하자 중종 임금은 단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오. 이제는 다른 수송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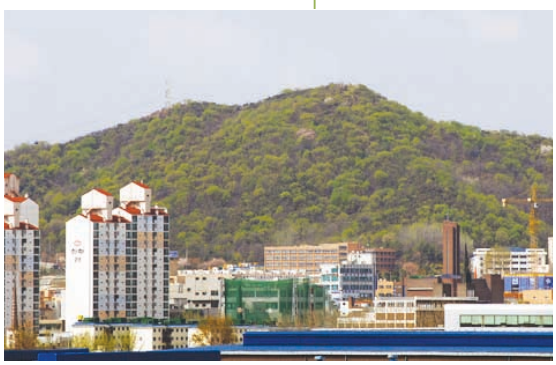
그래서 경인운하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에는 몇 개 지명이 생겼다. 결국 운하를 파지 못하여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라 한 것이 원통현(圓通峴)으로 변하였고, 물을 넘기려 하였다가 해서 무넘이고개라 했는데 그것이 한자 뜻 그대로 수월(水越峴)이란 지명이 되었다.

당시 김안로는 운하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현재의 작전동 새대 마을에 정자를 짓고 자기 호를 붙여 희락당(喜樂堂)이라 하였다. 그뒤 많은 세월이 지나 그 정자는 헐렸고 그 자리에 김해 김씨 가문의 효자 김광계(金光啓)의 정려(旌閭)가 세워졌는데 일제강점기에 헐렸다. 김광계가 어떻게 효행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5.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석남동 사이에 뻗어 내린 계양산의 지맥이 봉우리로 우뚝 솟은 것이 원적산이다.


원적산

이 산에 원적사(元積寺)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풍광이 좋은 숲속에 들어앉은데다가 도량에 있는 샘물이 맛이 좋았다. 스님들도 불심이 깊고 신자들에게 친절했다.

어느 해부터인가 빈대가 생기더니 점점 늘어났다. 수천 수만 마리가 법당의 마루 틈과 기둥 틈에 들끓었다. 그러다가 스님이나 신도가 들어오면 한

꺼번에 진군하는 병사들처럼 쏟아져 나와 몸으로 기어올라 마구 물었다.

절을 찾아왔던 신도들이 몸을 긁으며 울상을 했다.

"주지 스님, 빈대에 수십 군데를 물렸어요. 빈대를 끝까지 안 잡을 건가요?"

주지 스님은 미안한 표정을 했다.

"빈대도 생명인 것을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신도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신도가 줄어드니 절 살림이 어려워지고 스님들은 예불을 해도 신바람이 나지 않았다. 민가로 탁발을 하러 가면 개구쟁이들이 놀려댔다.

"빈대절에서 온 스님, 빈대처럼 생겼네!"

절을 싫어하는 어른들은 쏘아붙였다.

"빈대나 잡아먹으면 배부를 텐데 무슨 탁발을 해욧!"

탁발 스님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지친 몸을 눕히면 빈대가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듯이 덤벼들었다.

참지 못한 젊은 스님들은 볼멘소리를 했다.

"주지 스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주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모두 우리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부처님이 주는 시련이네. 참고 이기면 빨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네. 사명당 유정대사님은 임진왜란 직후 왜국에 갔을 때 왜의 왕이 쇠로 만든 방에 가두고 펄펄 끓게 불을 땠으나 참으셨네."

주지 스님은 절에 빈대가 많아진 것이 부처님이 자신과 젊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불심이 깊던 주지스님도 두 손을 들었다.

"나도 못 참겠네. 어서 빈대를 잡으세."

주지스님은 젊은 스님들과 함께 빈대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데다가 빈대란 놈들이 사람이 잡는다고 없어질 놈들이 아니었다. 잡을수록 더 늘어나니 어쩔 수가 없었다.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빈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곳이 불도의 도량으로 적당치 않다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빈대가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 한 말(斗)씩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절을 옮기라는 부처님의 계시라고.

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말 한 마리는 남아 있었다. 스님들은 말 등에 길마를 얹고 불상과 중요한 기물을 실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움막이라도 짓고 시작하세."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짐을 가득 실은 말은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실족해 골짜기로 굴러 죽어버렸다.

주지 스님은 거꾸로 처박힌 불상을 내려 반듯이 모셔놓고 울먹였다.

"부처님, 도대체 저한테 어쩌라는 겁니까?"

스님들은 불상과 기물들을 죽은 말과 함께 산기슭에 묻었다. 사람의 무덤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들었다.

그 뒤 주지스님과 젊은 스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 년이나 2백 년이 흐른 뒤에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원적사의 말무덤' 또는 '원적사의 부처무덤'이라고 불렀다.

더 많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른 스님들이 불상을 찾아 새 절을 세우려고 그 봉분을 파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16.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다

계양산과 천마산과 원적산이 한남정맥으로 이어져 조선후기에 부평지역에 호랑이가 이따금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소나 염소를 물어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을 해쳤다. 호환의 전설이 하나 있다.

대여섯 살에 부모를 잃은 고아 형제가 원적산 아래에서 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이 16세 되던 해 결혼했는데, 외숙은 오막살이 초가집을 하나 지어 조카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형은 아름답고 착한 아내와 아우를 부양하기 위

해 남의 집 암소를 맡아 키웠다. 그 소로 절반은 주인집 농사일을 거들고 절반은 남의 집 소품팔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첫 한 마리는 주인이 갖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소머슴이라고 했다.

초가을 어느 날이었다. 계양산 너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소를 물고 간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해진 뒤에 밤길에 나서지 않고 외진 산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새신랑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호랑이에게 빼앗길까 봐 소를 끌고 풀이 있는 산기슭에 가지 못해 암소가 어제 하루를 굶은 터였다. 소가 자기 소유인 사람들은 소를 끌고 산에 갔다. 소와 사람이 함께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나도 소를 물고 가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새신랑은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

"안 되겠어. 내가 쇠풀을 베어 와야지."

그가 낫과 지게를 챙기고 나서자 새색시가 걱정스런 얼굴을 했다.

"여보, 간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앞 논둑에서 아무 풀이나 베어다 먹이면 안돼요?"

새신랑은 어제 저녁에 소 주인이 와서 소가 야위었다고 걱정하던 얼굴을 떠올렸다.

"걱정 말아요. 깊은 산에는 안 갈 테니."

그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켰다.

그는 쇠풀이 좋은 원적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좋은 풀을 베어 지게에 올리고 칡넝쿨로 만들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울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라보니 큰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새신랑은 지게작대기와 낫을 꼬나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산중호걸 호랑이님, 나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어린 아내와 아우가 있소이다. 나를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없는지요?"

호랑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발을 멈칫했으나 도저히 배가 고파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날려 덤벼들었다. 새신랑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내 뛰기 시작했으나 소용없었다. 겨우 세 걸음을 달리고 그

는 호랑이에게 물려 숨이 끊어졌다.

해가 져도 새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새색시는 시외숙에게 알렸다.

"외삼촌님, 그 사람이 풀 베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외숙은 놀란 얼굴을 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데 왜 산에 갔단 말이냐?"

"소를 굶길 수 없어서요."

새색시가 울면서 대답했다.

외숙은 날이 밝자 관아에 고변한 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조카를 찾아 나섰다. 한나절을 찾은 끝에 낫과 지게를 찾고 다시 한 나절을 찾은 끝에 새신랑의 피 묻은 옷 조각을 발견하였다.

"새아기야, 어쩌면 좋으냐. 네 남편이 호환을 당했구나."

외숙은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했다.

새색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호환이 일어나자 부평부사는 포수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였다.

천하의 포수들은 이 글을 읽을지어다. 원적산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라. 본관은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여 임금님에게 충성하고자 현상금을 거노라.

호랑이를 잡는 포수에게 상급(賞給)으로 천 냥을 주겠노라. 호랑이 가죽도 총을 명중시켜 쓰러뜨린 포수에게 주겠노라. 그밖에 천 냥을 또 내놓겠노라. 이건 나머지 포수들에게 도운 공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분배할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이 천하의 최고 포수라고 생각하는 호걸들이여, 어서 부평 땅에 와서 호랑이를 잡아라.

부평부사의 포고를 보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포수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는 노랑 두건을 머리에 매고 달린다 하여 '노랑포수'라고 불리는 저 북방의 강계 포수들도 있었다.

닷새 뒤, 천마산 골짜기에서 총성이 울렸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 나는 강계포수 강만수다. 내가 이 곳 부평 땅까지 와서, 사람을 해친 호랑이를 잡았노라."

그는 호랑이 몸뚱이를 밟고 서서 소리쳤다.

강계포수에 의해 사살된 호랑이는 우마차에 실려 부평 관아로 갔다. 우마차 앞에는 강계포수가 늠름한 모습을 하고, 부평부사가 보낸 말을 타고 갔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 온 그의 동료들이 따라 걸었다.

부평부사는 약속한 상급을 주고 칭찬하였다.

"그대가 우리 임금님과 본관과 우리 고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상급과 함께 호랑이 가죽을 받은 포수는 의기양양하여 북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는 길에 원적산 아랫마을에 들러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새색시에게 호랑이 가죽을 판 돈을 주고 위로했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17. 십정동 대장바위

십정동의 옛 마을 동구 밖에 서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 왼편 산중턱에 큰 무덤이 있고 그 앞에 검은 바위가 하나 있다. 이 곳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옛날부터 대장바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대장바위 앞에다 무덤을 쓰면 후손 중에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대장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저기 내 무덤을 쓰고 내 자손이 장군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일세. 그런데 아직 묘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건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괜히 두렵고 외경스러운 마음을 먹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전설을 알면서도 망설였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 전설을 철석같이 믿어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대장바위 곁에다 무덤을 쓰라고 유언을 했다. 자식들은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 뒤 그 집안에서 대장이 나왔으나 군대의 장군이 아니라 대장간의 대장장이였다.

"대장장이도 대장은 대장이지. 전설을 들어맞았어. 하지만 아무나 대장이 되는 건 아냐. 대장이 될 만한 아들을 가진 사람이 거기 묻혀야 그 아들이 대

장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대장바위에 관한 또 다른 전설도 있는데, 거기 무덤을 쓴 어떤 이의 아들이 군대의 대장이 아니라 군도(群盜)를 이끄는 도둑대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



십정동 전경(2001)

18. 코박굴 코바위의 전설

지금의 부개동은 옛 지명이 마분리(馬墳里)였다. 아마도 큰 말 무덤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부평동 일대는 대정리(大井里)였는데 그 뜻으로 보면 큰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정리에 코박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 뒷산에 마치 사람의 코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대정리 사람 하나가 비에 젖은 멍석을 말리려고 코바위를 덮었는데 그 때 마을에 남자들이 죽어 젊은 과부들이 생기고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 현상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무당이 말하였다.

"코바위는 남자들의 생식기를 뜻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걸 덮으니까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져 여자들이 바람이 난 것이야."

사람들은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꺼림칙하여 멍석말린 사람에게 얼른 그것을 치우게 했다.

"불행한 일 더 일어나기 전에 어서 그걸 치우게."

"알았어요. 나는 멋모르고 한 일이지만 정말 그 때문에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멍석말린 사람은 당장 그것을 걷었다.

그런데 이 미신에 빠진 근거 없는 말은 뜻밖의 사태를 불러왔다. 어느 날 밤중에 누군가가 이엉으로 다시 코바위를 덮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걸 덮었단 말인가."

대정리 마을 남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얼른 그것을 걷었다. 그런데 사흘 뒤 밤중에 누군가가 또 이엉으로 코바위를 덮은 것이었다.

대정리 마을 남자들은 화가 났다.

"우리 마을에 불행이 덮치기를 바라는 나쁜 놈들이 한 짓이 분명해."

그들은 밤중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세상을 비추는데 지게에 이엉을 얹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대정리 남자들은 살금살금 그들 뒤를 따라 갔다. 이엉을 지고 온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코바위에 이엉을 덮으면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니 우리 마분리 남자들한테는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어서 가서 덮으세. 그리고 이 마을 여자들이 바람나기를 기다리세."

대정리 사람들은 그들을 덮쳤다.

"이놈들, 우리는 마분리가 이웃이라 친목과 우애를 지켜 왔는데 코바우를 덮다니. 우리 마을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바람나는 게 그렇게 좋단 말이냐!"

"아이쿠, 장난삼아 한 것이외다."

마분리 사람들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사과했지만 속절없이 대정리 남자들에게 매를 맞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사이좋게 살아 온 두 마을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다. 마분리 사람들은 대정리 사람들이 마을을 관통하는 한길을 걸으면 통행세를 내라고 트집을 잡았고, 대정리 사람들은 논의 물꼬를 막아 물이 마분리로 흘러가지 않게 하였다.

두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가서도 눈을 흘겼고 연날리기 하는 소년들도 마주치면 서로 붙잡고 싸움을 했다.

"너희 마을은 남의 불행에 좋아서 춤추는 나쁜 마을이야. 네놈들도 속셈이 그럴 거야."

"물꼬를 막아 버리는 마을은 더 나쁜 마을이야. 네놈들도 그런 욕심쟁이일 거야."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오랜 세월 우정을 지켜온 두 마을의 원로들이 만났다. 자기 마을에서 현명하고 선량하다는 평판을 듣는 노인들이었다.

마분리 노인이 말했다.

"여보게,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대정리 노인이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을 안고 살아."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 먼저 사단을 일으킨 마분리 사람들이 음식을 마련해 두 마을이 모두 모이는 잔치를 마련했던 것이다.

"아무리 장난이었지만 우리가 잘못했네."

"아닐세. 그랬다고 심하게 때린 우리가 더 잘못이네. 사실은 근거 없는 미신 이야기였는데 말일세."

두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서로 권하며 마음을 풀었다. 아이들도 어깨동무를 하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우정을 되찾았다.

그 뒤 두 마을은 어느 곳보다도 더 우애 있게 지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부평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그 코바위도 불도저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 참고 문헌 : 이훈익, 『인천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연합회, 1987.

19. 굴포천의 명물 한다리와 구렁이

지금은 사라져 없지만 부평평야 가운데 '한다리'라고 부르던 무지개 모양의 큰 다리가 있었다. 그것은 부평의 명물로 평야를 가로 지르던 큰 개천인 굴포천에 놓여 있었다. 서곶의 포리(지금의 서구 원창동) 부두에서 조정으로 가는 세곡을 한양으로 실어가기 위해 우마차가 통과하게 만든 것이었다. 조선 선조 후기에 만들어진 이 다리는 조선 최고의 석공이 설계했다고 하는데 무지개형 아치가 세 개나 있고 그 형상이 아름다운데다가 매우 견고하여 전국의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이 다리는 2백 년쯤 사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경인 간 국방도로를 개설할 때 철거되었는데 교두보의 난간에서 건설 당시 사용한 석공의 연장들과 함께 이상한 서류 한 장이 나왔다. 그것을 읽어보니 이 다리가 언제쯤 헐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 한다리가 조선 후기에 부평을 지킨 명물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전설도 생겼다.

계산동의 계양산 가까운 곳에 심일(深逸)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옛날에 이 마을의 류(柳) 씨 집안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 장사가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대범하여 장차 큰 군대를 이끌 장군이 될 듯하여 사람들은 그를 '류장사' 또는 '류장군'이라고 불렀다.

"이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마을을 빛내고 부평 고을을 빛내고 나라를 빛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무관을 뽑는 과거시험에 나가려고 열심히 병서를 읽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무예를 다듬었다. 청년이 되어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무과 시험에 응시하려고 큰 활을 메고 한양으로 떠났다.

"아버님 어머님, 과거에 급제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다.

"오냐. 어서 가거라."

부모는 여비를 넉넉히 주어 보냈다.

그는 집을 떠나 드넓은 부평평야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가 무지개 모양의 한다리를 막 건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았다.

"나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 보러 가는데 네가 길을 막느냐."

류장사는 활을 쏘아 명중시켰다.

구렁이는 허리를 비틀다가 화살을 몸에 박은 채 간신히 기어갔다. 혀를 날름거리며 이따금 그를 돌아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왔다.

"나를 원망하는 듯하구나. 내가 큰일을 앞두고 부정 탈 일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류장사는, 오래된 구렁이는 영물이며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활을 재어 쏘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옛날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까치를 잡아먹는 구렁이를 죽인 사람이 밤중에 깨어보니 자신이 죽인 구렁이의 아내 구렁이에 친친 감겨 있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까치가 은혜를 갚아 절의 종을 울림으로써 살아났다는 전설이었다.

류장사는 한양에 도착해 무과 시험에 응했다. 그러나 검을 갖고 하는 시험

도, 활을 쏘는 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휘두르는 검은 엉뚱하게 목표를 빗나갔으며 쏘는 화살은 과녁까지 가지도 못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아아, 경솔한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는 탄식하며 터덜터덜 실망한 채로 귀향길에 올랐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불면증이 심했다. 그는 몸이 점점 야위어 갔다.

류장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실패해 실망해 몸이 야위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들을 불러 앉혔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씩씩하고 대범하던 네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느냐. 왜 깜짝 깜짝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느냐. 어서 말을 해 보아라."

류장사는 뱀을 쏜 사실을 말했다.

"저런, 네가 큰 잘못을 했구나. 어서 그 구렁이를 찾아가 보아라."

어머니는 아들을 재촉했다.

류장사는 지난번 과것길에 구렁이를 쏜 자리에 가 보았다. 구렁이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의 주변을 빙빙 돌았다.

"구렁이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류장사는 구렁이의 몸에 박힌 화살을 빼주며 말했다.

조금 안심한 채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방이며 헛간이며 마당이며 장독대며 온통 화살 박힌 구렁이가 가득했다.

"저기 저 구렁이들, 무서워요."

류장사는 소리치며 눈을 감았다.

이상한 것은 그 구렁이 무리들이 다른 가족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몇 달이 그렇게 지나가고, 용감했던 류장사는 실성하여 집을 떠났고 어딘가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사람들은 구렁이를 외경스러운 동물로 보고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나이 많은 이 마을 어른들에게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

20. 우물을 파지 못한 항굴마을

일신동에 항동 마을이 있었다. 현재 부개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었다. 형세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항동 또는 항굴로 불리웠다.


일신동 전경

이 마을은 우물을 파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50호 이상이 살면서 우물이 없는 마을. 그 이유는 마을 형세가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밑을 뚫으면 침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구 밖에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다.

마을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곳이 남향이라 따뜻하고 아늑하여 살기 좋다고 여겨 찾아온 사람들은 우물을 팔 수 없다는 말에 눈을 둥그렇게 떴다.

"엉터리 핑계를 대고 외지 사람들을 거부하는 마을이군."

그들은 투덜거리며 떠나갔다.

참지 못하는 것은 마을 젊은이들이었다.

"근거도 없는 미신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는 격이지요. 나는 불편을 참고 살 수 없어요."

마을 원로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닐세. 예로부터 전해오는 금기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일세. 우물을 파서는 안 되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

그러나 청년들이 점점 더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몰래 자기 집에 우물을 팠다.

"참으로 물맛이 좋군. 이렇게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공연히 어리석게 살았지."

그것이 조용히 입소문으로 퍼지고 또다른 사람이 우물을 팠다. 그리고 마침 일제에 의해 나라가 강제 합방이 되고 미신타파라 하여 전통 신앙을 억압하게 되었다. 그런 바람을 타고 사람들은 앞 다투어 우물을 팠다.

"아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이 마을이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고 말 텐데."

원로들이 탄식했으나 소용없었다.

몇 년 뒤 뜻밖의 일이 들이닥쳤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일본인 직원이 와서 말하였다.

"이 마을은 모두 이사 가시오. 총독부 명령이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인데 왜 떠나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일본인 면서기는 들고 온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서부터 무넘이고개 너머까지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됐소.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할 거요."

"농사짓던 땅은 어쩌구요?"

"총독부 명령이니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항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모여 앉았다.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모두 이사 가라니 어쩝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살던 땅에 군대가 온다니 이를 어찌합니까."

사람들의 탄식을 듣고 원로들은 한숨을 쉬었다.

"힘없는 백성들이 어찌하는가. 왜놈들 감옥에 끌려가면 죽도록 맞아 살아나오지 못한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이삿짐을 쌌다. 나라는 망했고 침략자 일본 군대가 주둔한다는데 저항할 사람은 없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그리고 적당히 이사 비용을 주고 어디든 가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달구지와 손수레에 이삿짐을 싣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은 정든 마을을 떠났다.

"정든 고향아, 잘 있어라."

그들은 고향집과 텃밭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때 누군가가 말하였다.

"혹시 그 때문일까요? 우물을 파선 안 된다고 했는데 앞 다투어 팠기 때문일까요?"

그러자 또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옛날의 전설에서 금하는 것처럼 우물을 팠고, 몇 년 만에 마을이 침몰하는 배처럼 사라지게 됐으니 말일세."

※ 참고문헌 :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담』,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0.

자 료 편

문학 자료

부평문학사 자료선

1. 한시, 한문수필

1) 이규보(李奎報)

이규보(1168~1241)는 좌사간(左司諫)으로 있던 때 팔관회 하표(賀表) 문제로 탄핵을 받고 면직된 후 1219년(고종 6) 4월부터 1220년(고종 7) 6월까지 계양도호부부사(桂陽都護府副使)로 좌천되어 재직한 바 있다. 이규보는 계양도호부에 머무는 동안 계양 고을의 실상과 풍경을 수십 편의 글로 남겨두어 당시 부평지역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기묘년 사월에 계양 군수가 되어 조강을 건널 때 길제사를 지내면서 짓다 [기묘사월일 득계양수 장도조강유작(己卯四月日 得桂陽守 將渡祖江有作)]

저문 산 어두운 연기에 물은 길기도 해　晩山煙暝水漫漫
험한 여울 미친 바람에 건너기도 어렵구나　灘險風狂得渡難
천박한 운명 이제 또 귀양살이 가는 길이지만　命薄如今遭謫去
그래도 임금님 향한 마음 버리기 어렵다오　尙難拚却望長安

–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 14.

※ 이 글은 김창수(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가 책임집필 하였음

고을에 도착하여 안찰사에게 올리는 장 [초도관상안찰사장(初到官上按察使狀)]

저습(低濕)한 고장에 귀양살이 오고 보니 아득히 허공에 떨어진 듯하여, 고명(高明) 우러르기를 마치 태산에 의지하듯 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안부 사신(按部使臣)께서는 재질이 우월하여 경략(經略)이 원대하고 덕이 순후하여 부박(浮薄)을 진정시키는데, 일찍이 성상(聖上)의 알아주심을 받아 한전(漢殿 : 궁중)에서 일광(日光 : 임금)에 의지하였고, 천사(天使 : 중국 가는 사신)로 나가서는 성채(星彩 : 사신의 풍채)를 촉도(蜀都 : 중국의 수도)에 날리셨으며, 온정은 봄처럼 온온(溫溫)하고, 위엄은 써늘하지 않으면서도 늠름하십니다. 저는 분수에 넘치게 중한 책임을 맡아, 다행히 인자한 비호에 의탁하고 있으니, 진실로 정헌(征軒 : 안찰사의 관아)으로 가 뵈올 수만 있다면, 어찌 발 부르틀 것을 사양하겠습니까마는, 돌아보건대 소염에 구애되어 분연히 나서지 못합니다.

謫來卑濕 茫若墮空 仰止高明 確如倚岳 恭惟按部使臣 長才經遠 淳德鎭浮 夙荷聖知 依日光於漢殿 出爲天使 流星彩於蜀都 恩如春之溫溫 威不寒而凜凜 某謬分憂寄 幸託仁庥 苟可謁於征軒 豈辭重繭 顧有拘於官守 未得奮飛

– 『동국이상국집』 권 32.

계양자오당기(桂陽自娛堂記)

정우(貞祐 금 선종(金宣宗)의 연호) 7년 초여름에 나는 좌사간 지제고(左司諫知制誥)에서 계양(桂陽)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산기슭의 갈대 사이에 있는, 마치 달팽이의 깨어진 껍질 같은 다 쓰러진 집을 태수(太守)의 거실이라고 하였다.

그 구조를 살펴보니, 휘어진 들보를 마룻대에 걸쳐놓고 억지로 집이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위로는 머리를 들 수 없고 아래로는 다리를 뻗을 수 없다. 더운 때를 당하여 여기에 거처하면 마치 깊은 시루 속에 들어가서 찌고 지짐을 당하는 것 같다. 처자와 종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모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홀로 즐거워하여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당(堂)의 이름을 '자오(自娛 자신만이 즐긴다는 뜻)'라고 써붙였더니, 손님 중에 그 이름의 연유를 힐문하는 이가 말하기를,

"지금의 태수는 옛날의 방백(邦伯)이라 빈객이 만나 뵙기를 청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당(堂)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관원 중의 준수한 인물이며, 선비

나 승려(僧侶)의 우두머리인 뛰어난 자들로서 태수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수께서 자오라고 당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것은 앞에 든 손님들을 사람 축에 넣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 사람에게 도량이 넓지 않는 것을 보입니까?"

하였다. 나는 웃으며 말하기를,

"손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문하성(門下省)의 낭관(郎官)으로 있을 때에는 나가면 누른 옷을 입고 하례(下隷)가 앞에서 갈도(喝道)하고, 들어오면 맛좋은 음식이 앞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고량자(膏粱子 부귀한 집에서 맛좋은 음식만 먹고 고생 없이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나에게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詩人)은 운명이 박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한 것이어서, 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사(有司)의 무고를 입어 이 유황(幽荒)하고 비습(卑濕)한 곳에 오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시키는 일이고 사람이 작위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집이 크고 호화로우며 거처하는 것이 화려하여 스스로 폄손(貶損)된 것을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처우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더욱 화를 부르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의 누추한 것은, 홀로 나만이 즐거워할 바이고 여러 사람들은 매우 이맛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어찌 나 자신의 편벽된 기호(嗜好)로써 남에게 같이하기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향연(享宴)의 설비가 있고 풍악과 여색(女色)의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나 역시 무슨 마음으로 혼자만이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손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을에 살고 이 당에 거처하는 동안에 즐거움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니, 손님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따라서 이것을 기록하였으니, 때는 기묘년(1219, 고종 6) 6월 24일이다.

貞祐七年孟夏 予自左司諫知制誥 謫守桂陽 州之人 以深山之側菴葦之間一頹然如蝸之破殼者 爲大守之居 觀其制度 則抛梁架棟 强名屋耳 仰不足以搔頭 俯不足以橫膝 當暑處之 如入深甑中而遭蒸灼也 妻兒臧獲暪之皆不欲就居 予獨喜焉 灑掃而處之 因榜其堂曰自娛 客有詰其由者曰 今之太守 古之邦伯 賓客請謁 日相踵繼 登是堂者 皆官曹之俊秀 儒釋之魁奇 無不與太守享其樂者 而太守遽稱之曰自娛 則其不以向之賓客 置人品中耶 何示人以不廣歟 予笑而應之曰 客安有是言哉 方僕之爲省郎也 出則黃裾喝道 入則方丈滿前 當是之時 在膏粱之子 則雖若不足 於僕則大過矣 然詩人命薄 自古而然 忽一旦被有司所誣枉 而落此幽荒卑濕之地者 殆天也 非人

也 若屋宇宏傑 居處華靡 不痛自貶損 則非天所以處我之意 而祇益招禍耳 然則玆陋也 獨予之所自娛 而衆人之所深瞎也 豈可以己之所偏嗜 而欲强人以同之哉 如或有簞豆之設 聲色之歡 則予亦何心獨享其樂 而忍不與賓客共之耶 然居是州處是堂 其無此樂也審矣 又何疑哉 客慙而退 因以誌之 時己卯六月二十四日也

-『동국이상국집』 권 24.

통판 정군에게 보이다(示通判鄭君)

사람 순박하고 일 적어 기쁘기는 하나 人淳事簡雖堪喜
땅 박하고 백성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네 地瘠民殘不忍看
공무를 마치고 관아에 앉아 아무 일 없으니 公退坐衙無一事
관인은 무사하나 더욱 편안하기 어렵네 官人無事益難安

-『동국이상국집』 권 15.

계양형승시(桂陽形勝詩)

동남쪽에 연한 들은 거칠고 비습한 땅이고, 東南沿野 幽荒卑濕之地
서쪽은 바다에 연하고 북은 산간지대로 땅이 척박하다. 西濱海 北山間土瘠

우중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보고 서기에게 증정하다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건 민력에 달렸고 一國瘠肥民力內
만인의 생사는 벼 싹에 매였네 萬人生死稻芽中
다른 날 옥 같은 곡식이 일천 창고에 쌓이리니 他時玉粒堆千廩
청컨대 땀 흘린 오늘의 공을 기록하소 請記今朝汗滴功

-「우중관경자 증서기(雨中觀耕者 贈書記)」(『동국이상국전집』 권15)

현 상인과 만일사에 놀면서 벽상운에 차하다[여현상인유만일사 차벽상운(與玄上人遊萬日寺 次壁上韻)] (1)

먼 산봉우리는 털끝같이 가늘고 遙峯毫較細
먼 배는 겨자씨처럼 작구려 遠舶芥分微

저녁 장기(瘴氣)는 더위를 더하고 夕瘴尤添熱
가을 구름은 해 가리니 좋네 秋雲好鬖暉
바위 높아 원숭이 오르기 괴롭고 巖高猿易苦
숲이 고요하니 새도 드무네 林靜鳥猶稀
오래 읊조리다가 말 돌릴 줄 모르니 吟久難迴馬
이슬이 옷만 적시네 從敎露濕衣

–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 권 15.

현 상인과 만일사에 놀면서 벽상운에 차하다[여현상인유만일사 차벽상운(與玄上人遊萬日寺 次壁上韻)](2)

그대는 강호가 멀리 보이지 않음을 한해 君恨江湖遠未明
머리 들어 저문 하늘 바라보지 않는구나 不曾翹首暮天平
내 아득하게 길이 흐르는 물 어여쁘게 여겨 我憐杳杳長流色
생각하며 시끄러운 물결소리 듣네 想聽喧喧打浪聲
고깃배 불 까물거리니 사람은 자고 漁火微時人正宿
장삿배 돌아오는 곳에 노 소리만 나네 賈船歸處櫓應鳴
찾아올 때 만일 술병을 잊는다면 訪來若也忘攜榼
결코 오두*의 잔치에 크게 정 부족하리 決笑遨頭大寡情

– 『동국이상국집』 권 15.

* 오두(遨頭) : 1월부터 4월 사이에 태수(太守)가 들놀이 하는 것을 말한다.

요우 제군과 명월사에서 놀다

–이규보

거친 개암나무 헤치기 어려우나 荒榛撥難開
돌길은 조금 평평하고 넓도다 石徑少平曠
말에 내려 걷다가 엎어져 下馬行且顚
내 석자 지팡이가 부러졌네 折我三尺杖
박쥐는 사람에 익숙지 않아 幽鼯不慣人
우뚝 서서 멍하니 있네 拱立形惘惘
주린 호랑이 너는 으르렁대지 말라 飢虎爾莫嗥
나의 소신은 충과 신뿐이란다 忠信吾是仗

나무 끝에 아련히 절이 서 있고 木末得招提
가옥은 암벽에 의지하였네 架屋依巖崿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 何人命其名
명월이라 표방하였나 明月以標榜
장차 달같이 마음을 맑히고자 함이지 欲將月澄心
어찌 달을 바라보려고만 해서겠는가 豈爲月可望
장실은 누보다 높아 丈室高於樓
멀리 넓은 창해를 굽어보네 迥壓蒼海廣
예부터 하늘에 오르기 어렵다 들었는데 舊聞天難昇
홀연히 하늘 위에 올랐구려 忽已在天上
물빛은 저 멀리 희고 水色遠逾白
서리는 베를 펴 놓은 듯 일색으로 깔렸네 霜練鋪一樣
검은 구름과 갠 놀은 陰雲與霽霞
경각에 천태 만상 짓누나 頃刻千萬狀
큰 배가 창파 가운데 떠가니 大舶點波心
가볍기가 마치 갈매기 모양일세 麼若輕鷗漾
어부에게 한 말 부탁하노니 寄語漁舟子
유의하여 상앗대를 저으소 着意好搖槳
너의 한유하는 형상을 將爾閑遊形
나의 시에 넣어 견주리라 入我詩比況
슬프다 내 사무에 몰두하여 嗟予醉簿書
맑은 감상 저버린 지 오랠세 久矣負淸賞
이 고을 온 지 이 년이 되었으나 到郡侵二年
아직 이곳을 한가로이 찾지 못했네 尙未此閑訪
오늘 아침에 말 타고 오니 今朝駕言來
크게 숙원을 이룩했도다 大副夙心想
청컨대 그대는 다시 머물게 請君更留連
여기야말로 하늘이 준 곳일세 此是天所餉

-「여료우제군 유명월사(與寮友諸君 遊明月寺)」(『동국이상국전집』 권15)

이규보는 고려 때 중앙직에서 계양부사로 좌천하여 초정정자를 복원하였다. 원래 이 정자 자리는 전임 수령 허상국이 계양부사로 도임하여 정자 자리를 만들었고 후임으로 도임한 이태수(李太守)가 정자터에 초정을 세웠다. 그가 전근하니 이 정자를 헐어치웠다. 계양부사로 도임한 이규보가 이를 다시 복원하고 「초정기(草亭記)」라는 시문을 지었다.

계양초정기(桂陽草亭記)

계양(桂陽)이란 곳은 다북쑥 우거진 사이에 궁벽하게 자리잡고 있다. 가서 놀 만한 경치 좋은 숲이나 샘물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남산(南山) 곁에 정자 한 채가 있는데, 늙은이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고(故) 상국(相國) 허공 홍재(許公洪才)가 일찍이 이 고을을 맡았을 때 그 땅에 터를 잡고 돌을 쌓아서 대(臺)를 만들었으며, 고 태수 이실충(李實忠)이 물을 끌어 못을 만들고 그 위에 걸쳐서 정자를 지을 적에 한 칸에 서까래 10개를 걸치고 속새 이엉으로 덮은 것은 검소한 것을 보이는 것이요, 길이와 너비가 8자에 지나지 않고 앉을 자리도 8명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제도를 줄인 것이다."

하였다.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매우 차고 맑아서 얼음과 같다. 비록 한여름일지라도 들어가 목욕하면 추워서 머리털이 일어설 정도여서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반송(盤松)과 무성한 나무들이 그늘을 펴고 서늘함을 낳아서 맑은 바람이 저절로 오니, 따가운 햇볕이 가까이하지 못하여 피서하기에 가장 좋다. 그런 까닭에 '척서(滌暑 더위를 씻는다는 뜻)'라는 현액(懸額)이 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초정(草亭)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곳은 기이한 지형과 뛰어난 지세가 있어서 고을의 수령이 된 자에게는 더욱 이롭다."

한다. 이 따위 무당이나 박수의 허망한 말은 선비된 자가 마땅히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속담과 항간의 이야기도 때로는 맞는 것이 있으니,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다. 내가 오기 전에 이 정자는 뜻밖에 '거문고를 불태우고 학(鶴)을 굽는 자'에게 헐리게 되어 황폐하고 쓸쓸한 옛터만 남았을 뿐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슬프게 여겨 고을의 아전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정자는 이 태수(李太守)가 창건한 것인데, 무엇이 너희 고을에 해롭기에 감히 헐어버렸는가? 옛사람은 그 사람을 사모하여 감당(甘棠)을 베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너희 고을에서는 감히 정자를 헐었느냐?"

하였더니, 아전은 묵묵히 물러가 옛 재목을 찾아 모아서 잠깐 동안에 다시 세우고 이튿날 일을 마쳤다고 내게 와서 보고하였다. 내가 동료들과 더불어 주연(酒宴)을 베풀고 낙성식을 하였다.

아, 작년 초여름에 내가 보궐(補闕 사간(司諫))에서 외직으로 나와서 이 고을의 원이 되었는데, 금년 6월에 이르러 예부낭중 기거주 지제고(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에 제배(除拜)되어 장차 궁궐에 나아가게 되었다. 동료들이 말하기를,

"이 정자는 태수가 중건한 것인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뒷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다."

하므로, 나도 그렇게 여기고 따라서 대략을 적으니, 뒤에 오는 자에게 가볍게 허는 일이 없기를 부탁하고, 또 이 태수를 위하여 불후(不朽)의 자취를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진년(1220, 고종 7) 7월 일에 늙은 태수 예부 원외랑 이모(李某)는 적는다.

桂陽 僻在蓬艾之間 無一林泉勝境可以遊踐者 唯南山之側 有一亭焉 父老相傳云 故相國許公洪才嘗典是州 初相其地 築石而臺之 故太守李諱實忠 疏水作沼 跨亭於其上也 一間十椽 覆之以茅 示儉也 縱廣不過八尺 坐不過八人 殺其度也 水出巖罅極寒冽如氷 雖盛夏入浴 毛髮立豎 不可奈久 加以盤松茂樹 布陰庭涼 淸風自來 畏景不逼 最愜於避暑 故有額曰滌暑 然州人猶以草亭呼之 或曰 此地有奇形勝勢 尤利於爲州者 斯類巫瞽不經之說 儒者所宜愼導 然俚言野語 有時而中 亦不可不信也 先僕之未到 忽爲燒琴煮鶴者所毁 荒涼舊地而已 予見而傷之 召州吏謂曰 亭是李太守所創 庸害汝州 而乃敢毁耶 古人有思其人 不翦甘棠者 敢毁亭耶 吏默然而退 尋拾舊材 啀喍更搆 明日 以畢事來告 予與僚友置酒落之 噫 予以去歲孟炎 自補闕出守是州 至今年六月 除拜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 將詣天闕 僚友諸君曰 此亭 太守所重開也 不留誌 無以使後者知之 予然之 因書大槩 囑後來者之無輕廢毁 且爲李太守存不朽之迹耳 時庚辰七月日 老守禮部員外郎李某記

– 『동국이상국집』 권 24.

계양에서 성황에 비를 비는 제문(桂陽祈雨城隍文)

운운. 무능한 내가 이 고을의 원이 되었으나, 본래가 서생(書生)이라 정사에 익숙하지 못해 그 늦추거나 당김에 있어 백성들과 어긋나기가 일쑤입니다. 한 지방의 가뭄이 곧 나의 탓이기 때문에 무릇 죄책(罪責)이 있다면 차라리 나에게 따질 일이지 백성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혹독한 가뭄을 만나 내가 들에 가서 저 벼싹

을 살펴본즉 10에 8~9는 대개 다 말랐고, 흙덩이에 넘어진 것은 마치 침(針)이 꺾어진 듯했으니, 당장 아침에나 저녁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금년은 추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내가 부끄럽고도 한탄스러워 땀이 물 흐르듯 하는가 하면,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서서 달갑게 천벌을 기다릴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을 주장하는 자는 신(神)이요, 백성을 먹이는 자는 원이라, 고을이 가뭄을 만난 것이 비록 원의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백성이 만약 굶주린다면 신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원으로서 고을에 거주하는 건 3년뿐이지만, 신은 이 고을 것을 먹는 것이 앞으로 끝이 없으리니, 이 백성들이 다 죽으면 신은 다시 누구를 믿을 것이며,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원에 비해 누가 더할 것입니까. 만약 운우(雲雨)의 권리가 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원의 하소연을 대신 하늘에 전할 수 있으리니, 그럴 경우 하늘이 어찌 모른 체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왕(大王)은 기운을 타고 허공에 달려가서 상제 궁궐에 호소하여 우레와 번개 채찍을 재촉해 사흘의 흐뭇한 비를 내려서 우리 곡식들을 적시어 가을의 수확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원으로서 신에게도 당연히 그 보답이 있을 테니 식언(食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云云 予以無能 尹于玆土 本是書生 不閑綏撫 其所弛張 動與民忤 一方旱暵 職予之故 凡有罪責 寧丁我軀 生民何知 遭此旱枯 我行于野 省彼稻苗 十分八九 大抵皆焦 黏塊而仆 如屈針腰 朝夕不雨 卽無今秋 我慙且嘆 有泚如流 拱手以立 甘俟天劉 然主郡者神 牧民者吏 郡之遭旱 雖吏之恥 民若荐飢 神亦乏祀 況吏之居郡 但三年耳 神食玆邑 無有窮已 斯民暴殄 神復何恃 憂民之心 與吏孰至 若雲雨之權 非神所專 以吏之訴 傳訴于天 天豈茫然而不矜憐 惟冀大王 馭氣寥廓 馳訴于大微紫極 促雷鞭與電策 賜三日之澤 潤我黍稷 俾克有穫 則吏之報於神 亦固其職 言不可食

– 『동국이상국집』 권 37.

아래의 시는 이규보가 계양부사로 있을 때 공청에서 퇴근하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은 것이다.

퇴근하여 아무 일도 없다 [퇴공무일사(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退公無一事
적막하기 고촌 같구나	寂寞似孤村

머리엔 녹태책*을 비스듬히 쓰고　頭岸鹿胎幘
몸에는 독비곤**을 입었네　身遮犢鼻褌
호랑이는 오히려 대낮에 나타나고　虎來猶白日
모기는 해 지기 전에 무누나　蚊嚚未黃昏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笑矣殘城守
부질없이 궁궐만 꿈꾸네　徒勞夢掖垣

* 녹태책(鹿胎幘) : 은자(隱者)가 쓰는 녹비(鹿皮)로 만든 건(巾).
** 독비곤(犢鼻褌) : 쇠코잠방이. 베로 허리 전면을 덮고 뒤로 돌려 매었다.

– 『동국이상국집』 권 15.

고을을 떠나면서 시를 지어 전송객에게 보이다[발주유작 시전객(發州有作 示餞客)]

태수가 처음 올 때엔　太守初來時
부로들이 도로를 메웠고　父老夾道邊
그 사이 부녀자들도　其間婦與女
머리 나란히하여 울타리에 서 엿보았네　駢首窺藩偏
내 모양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非欲苟觀貌
은혜를 얻고자 원함이었지　庶幾沐恩憐
이 고을 와서 만약 혹독히 하였다면　到郡若酷暴
그 눈을 씻고자 하였으리라　其眼願洗前
내 생각건대 아무 일도 한 것 없어　我今理無狀
떠나려 하니 와전(瓦全)이 두렵네　欲去畏懷甎
어찌하여 길을 가로막는고　胡爲尙遮擁
가는 수레 앞에 누우려는 듯　似欲臥轍前
잘 가리니 멀리 따라오지 말라　好去莫遠來
내 행차 닫는 냇물처럼 빠르네　我行疾奔川
너의 고을이 나를 괴롭게 하여　爾邑誠困我
두 해가 백 년 같구려　二年如百年

– 『동국이상국집』권 15.

아래는 이규보가 계양부사로 좌천되었다가 2년만에 중앙직인 문하성 낭관으로 부임하게 된 후 부평일대를 유람하며 쓴 글이다.

계양망해지(桂陽望海志)

길이 계양(桂陽)의 변두리에 사방으로 나 있으나 한 면만 육지에 통하고 삼면은 다 물이다. 처음 내가 이 고을 수령으로 좌천되어 올 때 망망대해의 푸른 물을 돌아보니 섬 가운데 들어온 듯하므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보려 하지 않았다.

2년 후 6월에 문하성의 낭관에 제배되어 장차 날짜를 정하여 서울로 가게 되니, 전일에 보던 망망대해의 푸른 물이 다 좋게만 보였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모두 놀러 가 보았다.

처음 만일사(萬日寺)의 누대(樓臺) 위에 올라가 바라보니, 큰 배가 파도 가운데 떠 있는 것이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과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드러낸 것과 같으며, 돛대가 가는 것이 사람이 우뚝 솟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과 같고, 뭇 산과 여러 섬은 묘연하게 마주 대하여 우뚝한 것, 벗어진 것, 추켜든 것, 엎드린 것, 등척이 나온 것, 상투처럼 솟은 것, 구멍처럼 가운데가 뚫린 것, 일산처럼 머리가 둥근 것 등등이 있다. 사승(寺僧)이 와서 바라보는 일을 돕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섬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것은 자연도(紫燕島)·고연도(高燕島)·기린도(麒麟島)입니다."

하고,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것은 경도(京都)의 곡령(鵠嶺), 저것은 승천부(昇天府)의 진산(鎭山)·용산(龍山), 인주(仁州)의 망산(望山), 통진(通津)의 망산입니다."

하며, 역력히 잘 가르쳐 주었다. 이날 내가 매우 즐거워서 함께 놀러 온 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왔다.

며칠 후에 명월사(明月寺)에 가서 앞서와 같이 놀았다. 그러나 명월사는 많은 산들이 가려서 만일사의 툭 트인 것만 못하였다.

며칠 후에 다시 산을 따라 북으로 바다를 끼고 동으로 향하여 조수가 밀려오는 것과 해시(海市)의 변괴를 구경하는데,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다가 피곤한 뒤에야 돌아오니, 함께 놀던 자 모모인이 모두 술병을 가지고 따랐다.

아, 저 물은 전일의 물이요 마음도 전일의 마음인데, 전일에 보기 싫던 것을 지금은 도리어 즐거운 구경거리로 삼으니, 그것은 구구한 한 벼슬을 얻은 때문일까? 마음은 나의 마음이거늘 능히 자제하지 못하고 이처럼 때를 따라 바뀌게 하니, 그

사생을 동일하게 하고 득실을 동등하게 하기를 바랄 수 있으랴? 후일에 경계할 만한 것이기에 적는다.

路四出桂之徽 唯一面得通於陸 三面皆水也 始予謫守是州 環顧水之蒼然浩然者 疑入島嶼中 悁悁然不樂 輒低首閉眼不欲見也 及二年夏六月 除拜省郎 將計日上道 以復于京師 則向之蒼然浩然者 皆可樂也 於是凡可以望海者 無不遊踐 始於萬日寺樓上望之 大舶點波心 僅若鳧鴨之游泳者 小舟則如人入水微露其頭者 帆蓆之去 僅類人揷高帽而行者 群山衆島 杳然相望 有屺者岐者 跂者伏者 脊出者鬣擢者 中穿如穴者 首凸如傘頭者 寺僧來佐望 輒以手指點之 島曰 彼紫燕也 高燕也 麒麟也 山曰 彼京都之鵠嶺也 彼昇天府之鎭也 龍山也 仁州之望也 通津之望也 歷歷而數 如指諸掌 是日予甚樂焉 與與遊者觴之 乘醉而反 後數日 遊明月寺亦如之 然明月頗有山之掩翳者 不若萬日之豁敞也 後數日 復循山而北 竝海而東 觀潮水之激薄與海市之變怪 或乘馬 或步行 稍憊而後還焉 與遊者某某人 皆携壺縱之 嗚呼 水向者之水也 心向者之心也 以向之所忌見者 今反爲嗜觀 豈以得區區一官之故歟 心吾心也 不能自制 使因時貿易之如此 其於一死生齊得喪 得可冀乎 後尙可警故志之

– 『동국이상국집』 권 24.

2) 이언척(李言惕)

이언척은 부평동 가좌동 출신의 무관이다. 그는 무관으로 일생동안 국경방위사령관과 수령으로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자기집 가까이 지나며 눈을 맞으며 지은 시이다.

안남 도중에서 눈을 만나다 [안남도중우설(安南途中遇雪)]

안남부라 겨울해 저물었는데	日暮安南府
바람 차고 눈은 옷에 가득하여라	風寒雪滿衣
길은 갈라져 가면 묻혀 버리고	路岐行欲沒
마을 숲은 가까워도 도로 희미해	村樹近還微
오며 가며 삼년이 지나고 보니	來往三年過
승제하면 만사가 그를 수밖에	乘除萬事非
어느 때나 행역을 다 마치고서	何時行役了
우장 삿갓 낚시터에 올라를 보나	簑笠上漁磯

– 『삼봉집(三峯集)』 권2.

3) 이식(李湜)

세종의 손자 부림군(富林君) 이식은 부평에 살면서 조선시대 부평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시에 담아내었다. 이는 부림군이 수천도정(秀川都正) 이정은(李貞恩)에게 보낸 시로서 부평군이 자신의 별서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부림군은 부평의 시인이라 할 만큼 부평을 소재로 한 많은 시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별서를 도연명의 서호(西湖)와 소동파의 백학봉(白鶴峯)이라 자부한 바도 있다. 왕족이지만 그의 부평 별서 생활은 참으로 담백했던 듯하다.

정중에게 부치다[기정중(寄正中)]

내게 몇 칸 집이 있으니
부평 서산 서쪽이라네 — 我有數椽廬 富平西崦西
느티나무 버드나무 절로 마을을 이루고
마을에 집이 줄지어 서 있네 — 槐柳自成村 洞戶分角圭
한적한 부락은 고요한데
낮은 담 너머 채마밭이 있다네 — 閒寂墟落靜 短籬過蔬畦
높은 사람 행차 이르지 않고
땅이 외져서 먼지가 없다네 — 車馬絶不到 境僻無塵泥
산은 옥으로 만든 연꽃 같은데
강물은 푸른 유리 같다네 — 山如玉芙蓉 水似靑琉璃
남쪽 포구는 삿대가 잠길 만큼 깊은데
노니는 물고기가 물소처럼 크다네 — 南浦半篙深 游魚大如犀
낚시 와서 흰 회를 뜨고
부초로 나물을 만든다네 — 釣來爲玉膾 芣萍爲香虀
순박한 별천지라
술병을 다투어 차고 온다네 — 淳朴別乾坤 臺酒爭携提
세상사람들 벼슬에 매여
조롱에 갇힌 새 꼴이라네 — 世人縶簪纓 如鳥籠中栖
어찌 내 사는 이곳에서
서로 이끌어 노닐며 읊조리는 것 알리요 — 那知此中間 遊咏相扶携
동쪽에 개화사 있어

시 한 수 남기지 않을 수 있으랴? 東有開花寺 不可無留題?
그대 시명 높다 들었으니
나란히 시를 읊을 수 있을지? 聞君以詩名 可得吟肩齊
내 그대와 함께 귀거래하여
지팡이 들고 산에서 노닐고 싶네 我欲與之歸 遊山偕杖藜

–『사우정집(四雨亭集)』 권상.

부평 시골집에 쓰다[제부평촌장(題富平村莊)]

안개 낀 마을에 두서 집 보일 듯 말듯
끊어진 벼랑과 평평한 제방이 길 하나 굽어 있다
벼슬길 10년에 근심을 금치 못하겠더니
농가의 생활 반나절에 흥이 자못 많구나
작은 며늘아기 물을 길어 향긋한 밥을 짓는데
아이는 숲을 뒤지며 이슬 맞은 외를 딴다네
성상의 큰 은혜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태평세월 술 취해 노래 부르노라

煙村出沒兩三家 斷礧平堤一逕斜
宦路十年愁不禁 田家半日興何多
小姑汲井炊香粳 稚子搜林摘露苽
聖主鴻恩無遠邇 太平佳節醉酣歌

–『사우정집(四雨亭集)』 권상.

배를 타고 부평 시골집으로 돌아가면서[승주귀부평촌장(乘舟歸富平村莊)]

홀연 농가의 취미가 있어
돌아갈 생각하니 흥이 더욱 진하네 忽有田家趣 懷歸發興濃
기러기는 가을 그림자 속에 비껴 있고
배는 거울 같은 물 위에 떠 있네 雁橫秋影裏 舟泛鏡光中
이슬 맞은 국화는 찬데
서리에 취한 단풍잎 붉구나 露邑菊花冷 霜酣楓葉紅
거문고 당겨 한 곡을 타노라니

깊은 골짜기에 숨은 용이 춤추네　　抱琴彈一曲 幽壑舞潛龍

– 『사우정집』 권 하.

부림군은 서울에 있다가 부평으로 돌아가면 무척이나 즐거웠던 모양이다. 그는 뱃길로 부평으로 가면서 수많은 시를 남겨 촌서로 돌아가는 흥취를 그렸다. 농삿일에 재미를 부쳐 아름다운 산하에서 즐거이 사는 그의 모습이 선하다.

4) 정희량

허암 정희량은 천재로 문과에 급제하고 왕자 연산(燕山)의 스승이 되어 엄하게 왕자를 훈육하였다. 연산이 왕위에 오르자 스승을 박해하니 그는 벼슬을 내던지고 은거하였다. 그 후 그는 방랑생활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서구 검암동(黔岩洞)의 허암봉(虛庵峰)에 일시 은거하였다가 부지거처가 된 것이다. 그때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소상팔경(瀟湘八景)

넓은 모래 사장에 기러기 내려앉고　　平沙落雁
멀리 떠났던 배가 포구로 돌아오고　　遠浦歸帆
어촌 마을에 해가 떨어지고　　漁村落照
들과 산에는 아지랑이 오르네　　山市晴嵐
마을과 들에는 가을달이 밝고　　洞庭秋月
용상에 해는 저문데 비가 내리네　　瀟湘暮雨
절에는 연기가 끼고 어두운데 종소리 들리네　　煙寺暮鍾
강촌에는 어두운데 비가 내리네　　江村暮雪

– 『허암선생유집(虛庵先生遺集)』 권1.

허암산 은거시(虛庵山隱居詩)

해는 저물어 강 위는 푸른데　　日暮滄江山
날씨가 차니 물결도 스스로 일더라　　天寒水自波
외로운 배는 일찍이 매어 놓았는데　　孤舟宜早泊
풍랑은 밤을 타서 더욱 많이 일더라　　風浪初應多

5) 신흠(申欽)

1613년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호를 부탁 받은 유교칠신(遺敎七臣) 중의 한 사람인 신흠은 옥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신흠은 선영이 있던 가현산으로 물러나 살게 되었다. 이 시는 그의 집(何陋庵) 주변에 있는 못을 보면서 지은 것이다.

신흠은 감지와에 칩거하면서 살았기에 서재를 초연제(超然齊)라 하고 좌우에 책을 쌓아두고 살았다. 주로 소강절(邵康節)의 책을 읽었다.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갈림에서도 벗어나 초연하게 살고자 하였다.

못가에서[지상(池上)]

길 하나 풀숲을 뚫고 나 있는데
높은 벼랑에 작은 초가 있다네　　一逕穿蒙密懸厓有小茨
난초를 심어 밭을 일구려 하고
달을 담으려 못을 만들려 하였지　　蘞蘭仍作畝 貯月欲成池
대밭에 부는 바람 비파소리 같은데
등불 아래에서 문득 바둑판을 대한다　　竹塢還聽瑟 香燈却對碁
산속의 집은 맑은 흥치 많아서
차를 끓이고 다시 시를 짓노라　　山家淸事足 煮茗又題詩

– 『상촌집』 권10.

새집을 짓고 나서[신구거성(新構居成)]

작은 정자가 낀 물가에 우뚝 솟아 있는데
유월에도 찬바람이 돌문을 흔드네
밤은 주먹만큼 커서 가을걷이 걱정 없는데
생선은 한 자나 되어 손님상에 생선을 올리겠네
누가 내 관상보고 제후의 골격 아니라 했나
기쁘게도 장수를 누릴 팔자까지 타고 났는데
베개에 기대 지겹도록 잠을 자며 소일하는데
온 산에 솔바람 소리 들어보니 시원하다

小亭高絶壓煙汀 六月寒風撼石扃
園栗過拳秋計足 海魚盈尺客盤腥
誰言相法無侯骨 自喜生年有壽星
欹枕倦眠消白日 萬山松籟聽泠泠

– 『상촌고(象村稿)』 권 15

6) 정지석(鄭芝錫)

정지석은 검암동 출신으로 한말 예학관이 되어 객지학교에 있었다. '옛집을 찾아서' 는 반년 만에 집에 와서 감회를 읊은 시이다.

옛집을 찾아서 [방구옥(訪舊屋)]

반년이나 집을 비웠으니 오신 손님 별로 없었고,
뜰에 가득한 물색은 예와 다름이 없구나.
몇포기 작약과 두어 그루 소나무를 심으니,
자주 주인 오기를 가다렸는 듯 하여 감회가 깊구나.

半歲門扉客亦稀 滿庭物色依依
數叢芍葯雙松樹 待主人深興歸

계양팔경(桂陽八景)

허무봉에 있는 찬우물	虛庵冷井
벼락바위에 머무는 구름	雷岩宿雲
난지 포구의 푸른 잎 영엽	蘭浦靈葉
계양산에 있는 폭포	桂山懸瀑
꼬리 섬에 지는 해	尾島落照
매바위의 아침 햇살	鷹峰朝輝
탁옥봉 도사의 글공부	琢玉成文
천마산의 상서로운 바위	天馬呈瑞

7) 유사눌(柳思訥)

문숙공(文肅公) 유사눌은 고아로 자라서 만일사(萬日寺)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관직에서 물러나 이 절을 탐방하여 그 옛날을 회상하며 지은 글이다. 시 제목의 망월사(望月寺)라 함은 만일사(萬日寺)를 말한다.

망월사시(望月寺詩)

일찍이 이 절에서 동몽선습 익혔거니	曾於此寺解童蒙
이처럼 늙으리라 생각이나 했던가	豈意如今成老翁
대웅전 부처님은 홀로 옛날 그대론데	殿佛猶存前日態
스님들은 어이 다 옛날 얼굴 아니네	居僧非是昔用容
바다는 낙조를 머금어 황금같이 곱고	海含落照黃金嫩
산들은 백옥같은 아지랑이 둘렀구나	山帶浮雲白玉濃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아득하고	薄暮欲歸歸未得
다락에 기대어서 만감 수심 그지 없다	倚樓愁思誥無窮

8) 류지익(柳之翊)

계은 류지익 선생은 시천동 명문가 출신으로 조선조 철종 때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을 지내고 낙향하여 천수(千首)나 되는 시를 남겼다. 그의 자손들도 학자가 수없이 배출되었다.

계양산시(桂陽山詩)

내 산림일세 그 곳에 묻혀살며	吾家經濟卽泉林
한가하면 산에 올라 회포를 푸네	暇日登臨暢素襟
난석과 층대는 옛날 자취 그대로요	亂石層台千古跡
뜬구름 흐르는 물은 이 산의 마음일세	浮雲流水一山心
돌위에 모여앉은 이 서로 우리 동지일세	坐來石上人同志
마침내 꽃 앞의 가려 술 한잔 올린다	會向花前妓棧酒
숨결조차 상제께는 상통하는 법이오며	呼吸想應通帝座

하늘 보고 머리 긁적 가락 낮춘다　　看天撩首未高吟

명월사시(明月寺詩)

명월이 어느 해로부터 절 이름이 되었는고　　明月何年寺似名
절은 이제 없어지고 달만 유독 밝도다　　寺今不在月猶明
쫓아 알겠노라 불력은 수난을 지탱하였지만　　從知佛力終雖持
비로소 천리를 깨닫고 정은 홀로 있도다　　始覺天生獨有情
거친 대에 돌 틈에는 두더지가 숨어있고　　石立黃堂藏鼢鼠
이끼 낀 옛 우물에는 섬섬이가 엎드렸도다　　苔生古井伏狸狸
들위에 여러 고총은 누구 집의 건가　　原頭累累誰家塚
나무에는 낙엽지고 산은 비었는데　　木落山空野狸鳴
들새만 지저귀도다

화산시(花山詩)

계양산 북쪽에 화산을 얻으니　　桂陽北落得花山
산공은 여자같고 내는 검은머리 봉 같구나　　山似蟬妍溪黛髮
일면으로는 비껴 창해 위에 임하고　　一面橫臨滄海上
천길이나 높아 두우간에 꽂았더라　　千尋高押斗牛間
당당히 돋는 해는 징을 건듯하고　　朣朣出日如鉦掛
겹겹이 흐르는 샘은 사당문에 비쳐 돌아가더라　　決決流泉映華環
부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물은 밀치니　　不得招邀排戶澗
서로 보며 이 고인의 얼굴인가 의심할네라　　相看疑是故人顔

아래는 류지익이 국구(國舅) 김조순(金祖淳)의 부름을 거절하고 지은 시이다.

계양산 서쪽에다 집을 짓고서

계양산 서쪽에다 집을 짓고서
육십평생 두고두고 바다를 거닐었는데,
뱃속에 채운 글은 어이 다 쓸고
걸칠 옷이 없어도 근심치 않네.

벼슬도 어이하며 조복을 사양하고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갈매기와 벗하도다.
딴 길을 걷자하니 마음이 부끄럽고
일생에 어쩌다가 세도할가 두렵다.

吾家知在桂西頭 湖海倘祥六十秋
腹儲讀書何處用 身無表褐不層愁
慢盧窩業辭金貫 脫落長江一笛聲
渡了畿人舟白泛 噪殘孤處島猶鳴
碭來深得江湖興 忽起尊鱸方里情

9) 부평시

부평시(富平詩)

– 허성(許誠),

인가는 뽕나무 그림 속이고　　人家桑影裡
관도는 버들 그늘 가운데로다　　官道柳陰中

허성은 조선 세종 때의 정치가이다. 그는 1433년에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아마도 그때 부평 땅에 들러 지은 시로 여겨진다.

부평시(富平詩)

– 안숭선(安崇善)

백성이 조밀하니 오래된 고을인 것을 알겠고　　民稠知古郡
풍습이 후하니 순박한 바람을 보겠도다　　俗厚見淳風

안숭선은 순흥 안씨이며 세종 때의 대학자로서 대제학을 지냈다. 그는 1440년대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다. 아마도 이 시는 부평 고을을 순시하고 지은 시로 여겨진다.

부평고시(富平古詩)

–박장환(朴章煥)

계양산이 우뚝함이여	桂山嶄嶄兮
아래에 연기 덮혀 있네	下有霧阡芝
난포가 당당함이여	蘭浦洋洋兮
위에 구슬같은 약물이 있네	上有玉液泉

박장환이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학자인 그가 부평 고을에 들러 지은 시로 여겨진다.

부평부치 주정호운(富平府治 晝停呼韻)

– 정조대왕(正祖大王)

계양산색의 그 모습은 그지없이 곱고	桂陽山色極嬋姸
백리들판엔 풍년이 들었구나	百里秋登上上田
백성들이 넉넉하고 정사가 공평하니	民富政平斯可矣
누가 무성현을 다시 이어받을고	誰能更續武城絃

–『홍제전서(弘齋全書)』권 7.

이는 정조 21년 8월 15일 정조 임금이 김포장릉을 참배하면서 김포에서 하루를 쉬고 8월 16일 계양산 경명현(景明峴)을 넘어서 부평땅에 행행할 때 지은 시이다.

산 이름은 계양산인데

–유희창(柳熙昌)

산 이름은 계양산인데 결국 계수나무는 없고나	山名桂岾曾無桂
물은 도원 같은데 도원을 찾을 길 있겠지	水似桃原欲訪桃

유희창은 시천동 출신으로 학자였다. 그가 계양산을 보고 지은 시이다.

우리 만남이 어려웠는데

-송영진(宋永鎭)

우리 만남이 어려웠는데 이별은 어찌하였는고, 逢何難色別何景
조각달은 두 고을에 미쳐 우리들의 먼 꿈을 위로하였네. 殘月兩鄕勞遠夢
지난 날 우리가 생을 함께 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恨末當年共此生
그대가 주신 한 폭의 글에는 진정이 남아있었네. 惠詩一幅寫眞情
작은 배는 무심하게 해국으로 돌아가고, 水舟無心歸海國
멀리 계양산 서북쪽에서 생겨난 일들을 회상해 보노라네. 遙想桂陽西北衣
차분히 내린 백설은 유정한 듯 온 산성을 가득 덮었는데, 雪如有意鎭山城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뿐. 某處某友正不明

송영진은 일제시대 초기 유명한 학자이다. 이는 배를 타고 연천(連川)으로 이사할 때 고향을 바라다보며 지은 시이다.

10) 가정(佳亭)을 읊은 시

(1) 조서강(趙瑞康)

조서강은 조선 개국공신 조반(趙胖)의 아들이다. 조반이 가정(佳亭)을 짓고 은거하다가 늙고 병들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조서강은 벼슬을 사퇴하고 가정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그때 이 시를 지었다.

한적한 좋은 날씨 두메 집 찾아오니 乘閒勝日到村家
한가로운 십리 뜰은 꽃에 덮였네 十里芳郊萬樹花
거나하여 나귀에 탄 한가한 나그네 半醉騎驢無事客
좋구나 봄철이라 흥이 절로 나누나 太平春興自堪誇

(2) 안평대군(安平大君)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로 명필이자 학자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조참판 조서강이 벼슬을 버리고 없어지니 세종은 그에게 새로 벼슬을 내리고 취임하라 하였으나 불응하니 아들 안평대군 및 여러 신하를 가정에 내려 보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이를 석호가정별업도라 이름을 지어 세종께 바쳤다.

산기슭 떼로 엮은 오두막	依山某屋裏
두루 주인의 마음씨가 좋기만 하네	偏好主人心
아침엔 해뜨고 저물면 날 밝는	日月自朝暮
이 강산 어찌 다를 수 있으랴	江山無古今
문밖에 꽃향기로 술을 빚고	軒外花薰酒
창가에 바람소리 거문고로다	窓前風入琴
비로소 알았노라 티끌세상에서	始知塵世上
자연 속에 깃들인 참다운 멋을	眞樂在泉林

(2) 정인지(鄭麟趾)

정인지는 조선 초 문신이고 학자이다.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이 되고 하동부원군이 되었다. 그 후 영의정이 되었다. 세종 때 안평대군과 같이 가정에 내려와 시를 지었다.

그림 위에 좋은 경치 다시 살펴 바라보니	圖畵依然更就看
장제의 별장이 청산을 대했구나	長堤別墅對靑山
서리 덮인 감과 밤이 가을은 저무는데	霜添柿栗三秋暮
비에 젖은 전원은 밭 사이에 널려있네	雨浥桑麻十畝間
남포로 떠나오는 배 눈길을 스치는데	南浦歸帆堪從目
뒷동산 성기대가 주름살을 펴는듯	後園疎竹足開顔
예부터 그대 심정 산촌에만 쏠렸더니	知君早有江湖往
일찌감치 물러나서 한가함을 즐기는도다	乞退他年自在閑

(3) 황정혹(黃廷或)

황정혹은 문장과 서예에 능한 인물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지내고 호조, 병조판서를 지내고 임진난에는 임해군, 순화군을 모시고 도중에 적에게 잡혀 토굴에 강금되기도 하였다. 벼슬할 당시 가정에 들러 시를 남겼다.

흰 비단에 묵은 먼지 쓸어버리니	拂拭霜紈古
놀랍구나 좋은 경치 여기에 쏠렸으니	驚疑勝境偏
당집터에 이제는 알맞은 집자리 잡고	堂基還相宅
배를 매둔 언덕엔 풋돈쟁이 뿐이구나	舟壑只裳錢
물결은 아득히 바다 위에 먼데	萬里波濤遠
송죽은 몇천년 곱게만 서 있구나	千秋松竹姸
이 경치 칼로서 도려낼 길 없어서	竝刀難剪取
도로 맡아 보내려니 마음 허전하구나	卷送意茫然

(4) 이경석(李景奭)

이경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송시열 등 명분을 앞세우는 인물들에 의해 삼전도 비문 작성과 같은 현실적인 자세가 비판받기도 했다. 그가 고관재임중 안평대군과 같이 가정 정자에 내려와 지은 시이다.

높은 바람은 한나라 상산에 못지 않고	高風下滅漢商山
옛 자취가 수석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	舊蹟猶存水石間
비위빛을 둘러보니 새로 그린 그림같고	岩色環如新就畵
시내 흐르는 물은 구불구불 맑은 구비를 만드는구나	溪流曲作幾澄灣
장군이 일찍이 굴레를 벗어나 의심하였더니	將軍早疑拋金鞿
평안하고 넉넉한 것이 무슨 까닭인고	
벼슬길 떠난 여유로다	逸足何由出帝閑
나 또한 돌아가고 싶으나 고이 물러갈 수 없고	我亦思歸身未退
돌이켜보니 멋대로 날아서 돌아가는 새가 부럽구나	回首空羨倦禽還

11) 조서강의 집을 두고 노래한 시

조서강은 만년에 부평에 머물러 살면서 여러 번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유방선의 『태제집』 서문에 따르면 조서강이 이 시를 지어 도성에 보내어 화답을 구했다 한다.

조서강의 집을 두고 노래한 시(1)

– 안평대군(安平大軍)

산에 기댄 초가집 속에
주인이 마음이 그저 좋구나
해와 달 떠고 져서 세월을 흐르는데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네
난간 너머 꽃에는 술기운이 젖고
창 앞 바람에 거문고 소리 실려 온다
이제야 알겠네, 속세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밤나무 숲에 있다는 것을

依山茅屋裏 偏好主人心
日月自朝暮 江山無古今
軒外花薰酒 窓前風入琴
始知塵世上 眞樂在栗林

– 『부평읍지』(『경기도읍지』, 서울대규장각영인본)

조서강의 은거를 두고 당시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하였는지 『부평읍지』에 의하면 세종 때 화가를 보내어 그가 살던 집을 그림으로 그려오게 하였다고 한다. 안평대군은 조서강과 절친하였으나 부평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듯하다. 조서강의 집을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서강의 집을 두고 노래한 시(2)

– 정인수(鄭麟壽)

뚜렷한 그림에서 다시 나아가 보니
긴 제방의 별서가 청산을 마주하였네
저문 가을 서리가 감과 밤에 내렸는데
조그만 땅 뽕과 마가 비에 촉촉하구나
남녘 포구에서 떠가는 배를 마음껏 보고
뒷동산에 성긴 대나무는 얼굴을 펴게 하네
자네는 일찍부터 산수에 마음을 두었으니
훗날 물러나서 한가하게 지내겠네

圖書依然更就看 長堤別墅對靑山
霜添柿栗三秋暮 雨過桑麻十畝間
南浦歸帆堪縱目 後園疎竹足開顔
知君早有江湖性 乞退他年自在閒

–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전장과 그 제영』.

조서강의 집을 두고 노래한 시(3)

– 유의손(柳義孫)

반폭의 비단에 수묵이 희미한데
한 구역 시골집이 더욱 가물거리네
들판에는 바람에 보리밭이 물결치는데
물가의 모래톱에는 달빛이 가득하네
숲 너머 목동의 피리소리에 봄비는 그쳤는데
강 언덕의 상선에 저녁 안개가 흩날린다
앉은 자리에서 전원의 흥취를 실컷 누리니
하필 급작스럽게 귀거래할 것 있겠나

半幅鵝紈水墨微 一區村墅轉依俙
風飜麥浪莘耕野 月滿蘋洲渭釣磯
牧笛隔林春雨歇 商帆傍岸暮煙霏

坐間剩得田園興 何必匆匆欲退歸

–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전장과 그 제영』.

12) 기로재를 읊은 시[기로재시(棄老齋詩)]

(1) 김시국(金蓍國)

김시국은 광해군때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 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다. 그 후 대사성, 대사간까지 지냈다. 남하도중이 기노재에 들러서 지은 시이다.

고요하게 접한 집땅에 지은 기노재	棄老幽接地
여러분이 즐겨 노는 집이다	多君肯構堂
소나무를 심었더니 다 자라서 차일을 하고	種松皆偃盖
옮겨심은 버드나무 이미 줄지어졌더라	移柳已成行
마을이 멀어 사람과 연기가 적고	村逈人烟少
몸이 한가하니 세월이 길기만 하다	身閑歲月長
봄이 오매 즐거운 흥이 극진한데	春來佳興極
꽃마음은 한때요 향기가 짧기만 하구나	花鳥知節香

(2) 이경전(李慶全)

이경전은 영의정 이산해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한 그는 관찰사를 역임하고 한평군에 봉해 졌으며 예조판사를 지냈다. 문필에 뛰어난 학자이다. 어느 날 기노재를 방문하여 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시내 건너 또 시내 산너머 또 산	溪在於溪山在山
이 사이에 촌노인 집짓고 사네	野翁來住卽中間
비 바람 연기 구름 누우면 달라지고	烟雲風雨臥爲變
갈매기 갈대숲에 넘노는 포구	鷗鷺菰浦爭戲灣
늙어서 이 경치가 정말 좋아서	己老天遊眞得意
숱한 사람 고달픔에 지쳐있던가	幾人形役未投閑
지나가는 청성에도 시첩을 남겨	靑城古酬猶留帖

눈물겨워 말못하고 돌아섰노라 淚濕仍敎偶語還

(3) 최명길(崔鳴吉)

최명길은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정랑이 되었으며 인조반정때 공을 세워 성사 공시 1동이 되고 완성군에 봉해졌으며 부제학 한성판윤을 지낸 뒤에 영의정에 올랐다. 이 시는 1620년경에 이곳을 지나다 지은 시로 여겨진다.

선생이 쉬었던 곳 바다와 산 四老幽棲傍海山
그 시절에 멋진 일 길이 떨치리 當時勝事播人間
봄샘은 가는 줄기 연못에 흘러 春泉細細通蓮沼
나무배 가물가물 숨는 버들가 野艇依依渡柳灣
물려준 이 세업은 길이 누리어 世業靑氈眞不墜
흰머리 휘날리며 마음껏 즐기소 龍驤白首占餘閑
그대 따라 나도 함께 이웃이 되면 從公倘得謀隣社
달빛 아래 젖대 불고 오가며 놀리 月笛烟簑空往還

(4) 이자선(李子善)

이자선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형조좌랑, 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진주부사(陳奏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기노재를 방문하여 이 시를 남긴 것으로 여겨진다.

신선 늙은이들이 산을 의지하여 지은 집에 仙翁遺構依孤山
네 늙은이 높은 이름은 백중간이더라 四皓高名伯仲間
상공들이 앉은 자리에는 바람과 빛이 책상과 자리를 왕래하며 復昇風光來凡席
돈 보낸다는 서신을 시내 굽이에서 받았다 投金湖信接溪灣
소나무와 대밭이 한눈에 가득한데 바람 솔솔 불고 松篁滿目餘風在
고기와 새같이 세상사를 잊고 종일 한가히 지내노라 魚鳥忘機盡日閑
편안히 그대와 즐겁게 놀다가 安得從君分半華
한밤 으스름 달밤에 노래하며 춤추고 돌아오다 一區烟月踏歌還

13) 저자 미상

과거길의 경계시[과거행경계시(科擧行警戒詩)]

계양산 아래 사는 구처녀를 사귀면　　桂陽山下侵具女
기유년 이월 초에는 원망한들 소용이 없다　　配年鵬頭怨無心

이 시는 고려말에 씌여졌다고 한다. 전라도 어느 고을 대가집 자제가 과거를 보러 송도서울로 떠났다. 그는 계양산 북쪽에 있는 여관에 머물다가 그 마을에 사는 구처녀와 사랑을 맺어 과거날짜가 다 되었는데도 계속 머무르다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떠났다. 간신히 과거에 응시는 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낙방 원인이 구처녀와의 사랑 때문이라 여기고 이 시를 지었다. 훗날 이 시는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갈 때는 의례히 써주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런 행위는 수백 년간 존속되었다고 한다.

2. 시조

시조로는 신흠, 변영만, 변영로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 중 변영만은 구한말 부평땅 오정면 고강리 출신으로 법관(검사)으로 재임 중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한 학자요 법률가이기도 하였다. 그의 아우로 국무총리를 지낸 변영태가 있고, 시인 변영로가 있다. 수주 변영로는 고강리(古康里) 출신으로 수필과 시에 능한 문인이었다.

산촌에 눈이오니

– 신흠(申欽)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 셰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추 즈리 뉘이 시리
밤즁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긔 벗인가 ᄒᆞ노라

– 『방옹시여(放翁詩餘)』.

몽중미인(1)

– 변영만(卞榮晩)

침침한 초당(草堂)에 홀연간(忽然間) 밝으라니
딸같은 고운 한분 온적없이 오셨서라
무어라 부를 길 없네 알면 알 뜻하여라

몽중미인(2)

– 변영만

오백년 지난 풍류기억(風流記憶)조차 미진(微盡)된 것
가고 온 말없는데 양인심리양인지(兩人心理兩人知)를
두 숨결 뇌성(雷聲) 맛방매질 되거라

몽중미인(3)

–변영만

수류(垂柳)냥숙이시라 낮빛처럼 처드실 때
곱고도 엄한 상호(相好) 본능 눈을 분분(紛紛)할 뜻
묵은 죄 일시에 생각해 울며불며 했어라

생시에 못 본 임을

–변영로(卞榮魯)

생시에 못 본 임을 꿈에나 볼까하여
꿈 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리고 흔들려서
그립던 그 때가 가까울 뜻 멀어라

머리엔 하늘이고

–변영로

머리엔 하늘이고 발은 땅을 디뎠건만
아득코 허전할사 가는 그곳 어느맨지
발뿌리 내치는 대로 진동한동 갈거다

가다 해 저물면

-변영로

가다 해 저물면 산궁수진(山窮水盡) 압박하여
길가에 쓰러진채 찬 이슬에 얼지언정
그렇다 한번 떠난 길 돌려짐이 있으랴

3. 현대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령도 사랑보다 강하고
아- 강낭콩보다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아유(餓有) 높게 흔들리며
그 석류(石榴)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이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마음 흘러라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임진란 때 왜장을 껴안고 진주 촉석루에서 강물에 뛰어내려 숨진 의기(義妓) 논개를 찬양하는 시이다.

봄비

-변영로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 보니
주름살 잔득 실은 듯한 젖빛 구름만이 무척이나 가쁜듯이
한없이 게으르게 푸른 하늘 위를 거닌다

아~ 이를 것 없이 서운한 나의 마음
나죽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하렴풋이 나는 지난 날의 회상같이 떨리는
보이지 않는 꽃에 입김만이
그의 향기로운 사랑 안에 지저기 거리노나
아~ 꺼림없이 아픔 나의 가슴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 보니
아~ 나아가 보니
이제는 젖빛 구름도 꽃의 입김도 자취없고
다만 비둘기 발목만 붉히는 은실같이 봄비만이
소리 없이 근심같이 내리는구나 아~ 안올 사람 기다리는 마음

유시

– 변영로

오– 고달픈 심장이여, 너는 길이길이 쉬어라
나는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크나큰 망상도 사라졌나니

변영로가 임종시(1961년 3월 14일 9시 40분)에 지은 유시이다.

할미꽃 시

–유성규(柳聖圭)

뉘 있어 기다림에 목마르랴
한 조각 사금파리 발치에 하고
구천(九泉)을 핏줄에 이은 아– 너는 검은 그림자

뻐꾹새 길길이 천심(天心)에 울고
먼 산에 진달래 아른거린다
한나절 밝은 햇살에 눈도 멀고 싶어라

다만 저승으로 뿌리한 네발가락은
나비 수염이 와 닫는 양명(陽明)한 허리
흰구름 스쳐 흐르다 오늘 하늘이 또 무겁네

유성규는 조선조 말기에 대학자이자 시를 천여 수(千余首)나 남긴 유지익(柳之翊)의 후손이다.

계양장군

–이훈익

계양산 북록엔 장군봉 있고
장군봉 기슭기엔 옥녀봉 있네
두 봉 사이는 화산봉도 있다오

용감한 천하장사 계양 대장군
아릿 따운 여자 껴안고서
화산 꽃밭에서 애정 즐기네

이 가요는 장군봉, 옥녀봉, 화산봉을 상상하며 지은 가요이다.

계양산 고성

– 이훈익

내고장 지켜준 이성아 폐허되었구나
성은 무너져 내려 초목을 덮치고
시들어진 성벽풀 감로수 기다리네
희미한 막사터엔 와편만이 뒹굴고
아– 영혼 깃든 단장의 계양산 고성

이천년 흥망담긴 유적 그 누가 알랴
넓은 산 곳곳마다 유적은 자리했건만
늙은 내몸 지팽이 집고 찾아가련다
허물어진 계양폭포 마냥 그립네

아- 산 귀신 우글대는 단장리 하누래고개

이는 이훈익이 인천향토사를 연구하고 있을 때인 1991년에 인천 시장으로부터 계양산 고성의 보존여부에 대한 조사의뢰를 받고 성을 실측하고 나서 지은 글이다.

4. 민요

1) 부평가요

부평가요

- 저자미상

계양산 상상봉 구름 뜨면 비내리고
해서풍 몰아치면 날이 개는 내 고장
넓은 뜰 곳곳마다 옥토 이루고
가을이면 풍년들어 황금물결치네
아- 살기좋은 내 고장 부평

이는 1925년대 누군가가 지어 부평학교 학생은 물론 부평 주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 2절은 알 수 없다.

2) 모내기, 김매기 노래

모내기, 김매기 노래

- 저자미상

에에렐 에에렐 상사도야
아라랄 아라랄 상사로구나
에헤렐 에헤렐 상사도야
상사도산을 동지사라
이 논배미를 걷는 매면

술도 나고 밥도 나네

일릴 일릴 일릴 상사도야
아랄 아랄 아랄 상사로구나
이 논배미를 얼른 찔구
자리뜀으로 넘어가네
얼릴 얼릴 얼릴 상사도야
상사소리를 제짓혀며는
술도 나고 밥도 나네
에랠에랠 상사로구나

아랄 아랄 아랄 상사도야
일일 일일 일일 상사도야
상사도산은 동지사라
일릴 일릴 일릴 상사도야
이 논배미를 얼른 찔구
저 논배미로 넘어가세

사오월이 되면 논에 모를 심고 논을 매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를 이앙가라 한다. 이앙가를 부를 때는 가끔 농악대를 조직하여 장단을 맞추기도 하는데, 목청 좋은 사람이 선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밭갈이 노래

–저자미상

어찌나 하니 일시에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강경활에 감돌아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박연하니 띠는 입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까운 청춘 다 늙었구랴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딸있거든 사위 삼고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딸은 있네만 어려서 안되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이구머니 그만 마우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홍단잎에 나돌아든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평택 같이 흘러 가는
물이라두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간데 족족 정들여 놓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굼실굼실 잘도 도는데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이내 신세 어이하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영틀리구 다틀렸구랴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아서요 말어요 그리를 말어요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이제 가면 언제나 오나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참새는 작아두 알만까구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제비는 작아두 강남을 가요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아서야 말어야 괄세를 마소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어떤 사람 팔자좋아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고대광실 높은 집에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서산에 해는 지구싶어 지나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막걸리 생각이 절로나 난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막걸리두 좋지만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마누라도 봐야 겠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집 떠난 지 여러 날일세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경기도 일경에 돈풍년 들거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오시는 날을 일러를 주오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가다가)기 한숨 쉬면
나는 다시 오리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손길 맞춰 밭갈이 하세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아서요 말어요 그리를 말어요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일락 서산 해 떨어지고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월출동녘에 달 솟는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서해바다 만시춘하니
어기어차 밭갈이하세

가지가지 봄빛이로다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궤돈 짝돈 바리 바릿돈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은자보물에 녹수천량
어기어차 차산에 새로다

밭갈이 하세 밭갈이 하세
어기어차 밭갈이 하세

부평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노동의 괴로움이나 일의 지루함을 유희적인 민요로 풀었다. 그래서 부평의 밭갈이 민요는 신세타령이나 인생무상과 같은 운명론적인 내용이 많고,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

3) 장례 의식요

부평의 장례 의식요로는 「상여 소리」와 「달구질 소리」가 있다. 상여 소리는 장례 때 시신을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운반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만가(1)

-저자미상

가네 가네 나는 간다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대궐 같은 이내 집은 빈절 같이 비어놓고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내 자식아 잘있거라 내 자식아 잘있거라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북망산천 마라해도 북망산천 마라해도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삼짝박이 북맹일세 삼짝박이 북망일세
에헤-에헤 에헤-에헤-(어-허 어-허)
인제 가면 언제 올까 인제 가면 언제 오리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처자식아 잘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가네 가네 나는가네 나는가요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삼짝 밖에 나는 가네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북만산천 머다해도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삼짝밖이 북망일세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질있거라 나는간다
에헤 -에헤 에헤 -에헤 -(어 -허 어 -허)

만가(2)

-저자미상

너호호 너혜호 너화넘차 너호호이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요 슬프던고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이 세월 견고한줄 알았더니 백년가업 못다하고 백발되어 슬프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여보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마소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다같이 가는 세월 넨들 아니 늙을 쏜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적으듯 늙는 것이 한심하고 슬프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오늘 백발 급할손가 오늘 백발 급할손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목을 하여 거절하면 노염되여 아니올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드는칼로 내리치면 혼이나서 아니올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억만재물 인적쓰면 아니 올까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만잔진수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가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삼천갑자 동방석은 전후생전 초문일세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부운같은 이 세상 초로같은 우리 세상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칠팔십을 살었다하대 일장춘몽 꿈이로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이내 몸은 늙어지면 다시 젊기 어렵도다
오-호호 오-호호 나화넘차 너 호호

달구질 노래(1)

-저자미상

에야라 지경아
지경소리 인붓난다
제일 명당터를 닦아
입口字로 집을 짓고
안팍중문 줄행랑에
소술대문 뚜렷하다
이집진지 삼년만에
삼태복을 담아오네
아들나면 효자나고
딸을나면 열녀로구나
에야라 지경아
심으로 닦아주세

달구질 노래(2)

-저자미상

이어라 지경일세 이어라 지경이요

지경지경지경인데 이어라 지경이요
이집 짓고 삼년만에 부자 장자되여집소서
이어라 지경이요 이어라 지경이요
아남산 밑 양지터에 이어라 지경이요
이집 짓고 삼년만에 이어라 지경이요
아들 나면 효자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낳고
에해여라 지경이요 에해여라 지경일세

4) 물 푸는 노래

부평 들판 굴포천 변에서는 두레로 물을 끌어들이는 일이 많아 물을 퍼 올릴 때 노래를 곧잘 불렀다. 서구 서곶에서도 영업이 성하여 물을 떠 올리는 일이 많았다.

물 푸는 노래(1)

– 저자미상

물 넘어 갑니다 물 넘어 갑니다
강산에 청산에 가자
나의 갈길이 어디메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짜 일러를 주오
언제나 또다시 만나를 볼이거나
노다가지 노다를 가지
아이 좋쿠 어른도 좋아요
이구십팔 열여덜인데
사위도 수물 딸두 수물
노다가세 노다가요
한평생 좋은 세월 어디다가 다 버리구
(두손이 젓갈이 되두룩) 소금섬을 부여 잡았나
섰으나 앉았으나 생각하면 장탄식이요
네놈에 꾐이나 내놈에 우둔이냐
다소간에 식솔들을 띠어놓쿠

염밭에 찾아들어 이 고생이 웬말이냐
보고지고 보고지고 일가친척 보고지고
팔팔한 세월이 반여든이 되었구나
구만리같은 우리 청춘 허송세월 하질 말고
열심히 일을 하여 만금쥐고 귀향 하세

"자주 자주 해보세. 이러다간 해 넘어 가겠네. 그러세."

물 푸는 노래(2)

– 저자미상

일곱이요(일곱이로구나)
일구월심 그립구나
여덟이요(여덟이로구나)
팔년 대한 가뭄날에
아홉이요(아홉이로구나)
구년지수 장마비에
열이요(열이로구나)
장부 가슴 다 놓는다.

하나요(하나로구나)
한 평생을 살잤더니
둘이요(둘이로구나)
이별 이짜가 웬말이냐
셋이요(셋이로구나)
삼월 춘풍에 꽃피듯이
넷이요(넷이로구나)
사월부터 녹음 지듯
다섯이요(다섯이로구나)
오손 도손 살잤떠니
여섯이요(여섯이로구나)
욱갑에 동티가 났다.
"새참때 늦어지겠네. 수소리로 막 세어 넘기게나.

그럼 주워 섬길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손길 맞추게나."

물 푸는 노래(3)

– 저자미상

하나는 둘이요 둘에는 서힌데
너희 다섯에 여섯
에 – 일굽이구나 일구여덟 여덟아홉
희득번득이 넘어가네
「중략」
쉰하나 쉰둘이요 쉰셋에
쉰넷이 쉰다섯 여섯이구나
네 – 일곱이구나 여덟아홉에
인간 육십은 한갑나일세
예순하나 예순 둘이요 예순세히
예순 네희다 예순다섯에 예순여섯다
에 – 일굽이구나 일구여덟에 여덟 아홉
인간 칠십은 고래희 일세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에
일흔넷다 일흔다섯 여섯이구나
에 – 일굽일다 여덟 아홉에
여든하구 아홉일세
팔도강산은 금강산이요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에
여든너희 다섯일구나 여섯일세
에 – 일굽에 여덟 여덟에 아홉은
구월단풍이 단풍이 들었네
아흔에 하나 아흔에 둘일세 아흔셋에
아흔너힐다 다섯이구나 여섯일세
일굽에 여덟은
시들단풍이 다 떨어지네(낙엽진다)
새루 하나 새루 둘다 새루 셋에
새루 넷은 다섯일구나 여섯일세
백이로구나

5) 투전 불림 노래

부평지방에서 행해졌던 투전 불림은 일명"곱새치기"라고도 한다. 투전 불림은 승부의 과정에서 불림(노래)을 주고 받으면서 신명을 돋구어 놀음 쪽보다는 풍류적인 면이 강하여"돈을 잃고 웃는다"는 양반놀음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름소리

– 저자미상

어디 보자 무슨 자를 내야 산단 말이냐
응엔 응엔 여파난등 여파난등
에야 내구내구 물구 떨구 이건 잡구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느냐
어쿠야 꽃본듯이 반갑구나
매구맨다 물구뗀다 여산
그대 불림 잘못냈네(냈구나)
어서 어서 떨어라 왜 아니 떠느냐
어따 벽상에 걸구나 보자(걸구 보잔다)
에구 에구 여과난등
에야 있건 잡아라 없건 내구
방친다 방 때린다
뒤돌렸다(뒤돌렸구나)

–『부평사(1997)』

불림

– 저자미상

일것골라 내낭군이요 화령도 꼽은 길일쎄
일자무식 전무식이 아는 척은 잘도나 한다.
알났다 봉산가자
학두 뗬다 봉두뗬다
일월영천 뜬구름

일년난득 재봉춘
일어나거라 다밝았다
통진을 십일면
봉숭아 맨드라미
봉학이 금각졌다
봉두난발 잡객꾼
일색같은 이내몸이 총각품에 놀아난다
일구월심 그린 님을 어느 때나 만나볼까
일자 한 장을 뜨고 보니 정월 초하루 당했네
일광단에 월광단을 굽이굽이 감아보세
남아장부 일언은 중천금이요
일년은 삼백예순날 하루만 같이 놀아보세

6) 소금장수 노래

1907년 천일염전이 생기기 이전 조선 초기 말기까지 현재 서구의 서곶 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은 바닷물을 퍼 올려 염밭에 넣었다가 염도가 높아진 다음 가마솥에 조려서 소금을 생산했다. 소금이 완성되면 환희의 흥에 취해 노래를 불렀다. 한편 등짐 소금장수들도 한두 섬씩 사서 지고 떠나며 등짐 장수 소리로 염부들을 즐겁게 하여 염밭은 흥겨운 한때를 가졌다.

소금담기 수불림

– 저자미상

하나는 하나로구나
하나하면은 둘이로다
두둘에는 셋이 되구요
서희는 너희로다
너희는 다섯 하구요
다섯인가설라무네 여섯이요
여섯에는 일곱이란다
일곱은 여덟이 되구요

여허덟은 아홉이요
아홉에는 여헐이로구나

소금장수의 노래(1)

– 저자미상

어느 장으로 가려느냐 어느 장으로 가려느냐
장에 장사 황에 장사 앉았다섰다 선창장
오줌찔끔 지린내장 방구한탕 구린내장
비거버벅 버그내장 보는 천장 대추장
새우젓에 마초장 조기민어에 제무장
금은패물 하양장 비단필육에 노들장
맞춤유기 안성장 어백미라 여주이천장
건과어과 평택장 화문석에 강화장
서울장안 벳겨먹는 경기도라 수원장
수원사람 제껴놓고 강원도라 춘천장
춘천장을 타고앉은 원주장에 횡성장
임삼쌓은 개성장 녹아나는 피양장
우걱떼걱 함흥장 얼어드는 진남포장
소만사리 연평장 영감많은 황가장
버들거리 천아장 바람 불었다 청풍장
예산 틀리는 예산장 껑충뛰는 제천장
참죽오죽 단양장 백통전은 금천장
세모시에 한산장 합죽선에 전주장
황진이에 진주장 엄벙중천 충주장
황색연초 황주장 성춘향에 남원장
칠기유전 나전장 명치칼치 남해장
제칩국에 토성장 말총머리 제주장
어화지화 김화장 이강저강 평강장
굽이굽이 정선장 화목쌓인 화천장
한자두자 삼척장 울퉁불퉁 울진장
헐떡헐떡 철원장 해태미역 강릉장
이장저장 다버리구 요장으로 왔소이다

서방님에 밥을 푸듯 인심좋은 소금이요
헐값으로 막팔아요 말만 잘하면
거저도 줘요
"영틀렸네 영틀렸구면
그렇게 청승을 떨구 다니면
누가 내다나 보겠나?
오뉴월 땡볕에 등짝엔 간수국 흘러 두부집에서
목물하구 가라겠다
나 같이 주워 섬겨야 안장백이라두
궁둥이 들썩하며 나오지
자 들어가보세."

소금장수의 노래(2)

– 저자미상

어제장에 천량이요 오늘 장에두 천량이요
한달육장 매장해두 수천량씩 재수있소
소금장수 소금장사 간곳마다 짭짭하네
싸파는 소금이요 인심좋은 소금이요
상감님에 숙수나인 소금없인 속절없소
일년양식 젓갈에두 소금없인 다틀려요
오사리육젓, 추젓 동백젓, 이름 많은 새우젓에
조개젓이며, 어리굴젓, 증아젓에, 곤쟁이젓,
홍합젓이며, 꼴뚜기젓에 황새기젓, 밴댕이젓에
창난젓, 명란젓이며 소라젓에 갈치젓이
이 소금이 없다보면 이 세상이 생겼을까
반년농사 평생양식 건건치는 어떠한가
배추김치 나박지에 석박지며 깍두기요
외소배기 꼬들배기 채김치에 겉절이며
동치미는 어떠한가 소금없이 된다든가
장모시겐들 소금없이 집안가풍 이을손가
막된장에 간장이요 고추장에 청국장이요
짠짠지며 장아치는 마늘쫑에 더덕짠지

외장아치 물말랭이 들깻잎에 고추잎은
된장족에 고추장에 간장독에 박아놓세
서해바다 뉜조기 남해동해 서해어물
내 소금없이 다틀려요 소금사려 소금을 사요
아들 못난 아주머니 내 소금을 사시오면
떡두꺼비 쌍쌍으로만 년년으로 보시리다
음식솜씨 없는 이는 감칠맛으로 되어지다
싸게 팔아요 막싸게 팔아요
말만 잘하면 거저로도 줘요
한되 듬뿍 헌말가득 한섬 선뜩 사신님네
험한 노정에 몸수편안 가내안녕 하시오며
재수대통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십시다

7) 베틀 노래

부평지역의 베틀 노래는 타 지역의 노래가 장편 서사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형적인 것이 특징이다. 베틀가는 부모의 옷을 짓거나, 남편의 조복을 짓거나, 자녀의 혼인 시옷을 지을 때 불렀다.

베틀 노래(1)

-저자미상

월당에 놀던 선녀가 할 일이 전혀 없어
인간에 하강하야 옥난간에 베틀 놓고
금주틀 짜랴하고 앉은 깨를 돋아놓고
임앗대는 삼형제요 사치밋대 형제로다
노리깃대 외독신은 위심구에 던졌는 듯
북드라드는 양은 춘풍제 꾀꼬리가 세류강산에 나는 듯
부티의 두른양은 북두칠성 돌렸는듯
도투마리 넘는 양은 벽해에 용놀듯
바디집치는 양은 벽력이 자주난다

베틀 노래(2)

-저자미상

아기딸아 문열어라 비단짜는 구경하자
놓고짜면 공닥이요 둘고 짜면 대단이라
열쇠 없어 못열겠네 장자집맛 딸에게
키 모자라 못열겠네 장자집 일 당나귀
빌여다가 몰나서서 속히속히 여러주게
열어왓네열어왓네 딸각딸각 열어왓네
대단짜선 뭘하고기나 오라버니 장가갈제
도포바침 해주겠네

8) 정요, 부정요, 첩요

부평의 민요에서 부정요와 첩요가 드러난 점이 특이하다. 아래의 부정요에서 보듯 아내의 부정에 대한 공격은 원색적이다. 그리고 첩요는 비유를 동원하여 직설적인 표현을 우회하고 있다.

정요

- 저자미상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가 비친 달아
님 홀로 누었더냐 거는 남군 품었더냐
저 달이 본래로 일러라고 사생결단

부정요

- 저자미상

을년아 발길년아 대전통련에 목빌년아
야밤이라도 오라하면 병든 남군 홀로 두고
어린 자식 잠드려놓고 활등같이 이룹은 길로
쏜살같이 달아난 것

첩요

– 저자미상

해는지고 저무신 날에 옷갓을 하고 어디를 가오
첩에 집엘 가시려거던 나 죽는 것을 보고 가오
첩에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한철인데 연못의 금붕어는 사시절이라

9) 기타

당좌수의 비방시문

– 저자미상

座首 座首 唐座首
富平땅의 唐座首
나랏님 모신 권세로
眼下無人 되었네
付託 請託 하려면
當身宅 가야하네

– 고증인 : 신현동 이기석 옹.

당좌수란 1797년 부평에 온 정조(正祖)와 수행 고관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사례금까지 바침으로써 좌수가 된 당문보(唐文輔)를 가리킨다. 당문보는 부자일 뿐 아니라 권세도 대단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일부 선비들은 비위가 상하여 위의 시를 지어 그를 간접적으로 비방하였다고 한다.

고사반 노래

저자미상

건모차일 시바시객
남수은부 조로구나
하동육군 조선국 삼십육관
대모관금 명허천

거지가 근명은 모싯대
근명은 최씨댁에
근국은명에 양회에부쳐
효자상담에 여장에 집에
효자중남에 여장액이 무릎아래
성우동자 무릎위에
길은동자 줄줄칭칭
자라는 여장액이
몸수대사를 들어주자
살풀었나 거린
몸수대살은 정성쌀
부모돌아가면 몽상쌀
장인장모에 복세쌀
바깥마당에 텡이쌀
안마당에는 벼락쌀
문간뒤에 수문대장
마루위에 성수쌀
마루대청에 성수쌀
안방건너방 제석쌀
횃대끝에는 녹마쌀
부엌그늘은 꾸황쌀
아궁에 금덕귀
사롱밑에 땡그랑쌀
물독에 넘어보니
물독팔독푸레 장군쌀
쌀독에 씨부려
이쌀저쌀 다모아서
금일고사 도약허고
만전은 위리리요
소원성취 발언(발원)합니다
건국은면에 천시댁에
호구역사 풀어주자
호구역사 풀어주자

강남은		소한국
우리나라에		대한국
손님마다		쉰세분
나오실 때	어떤손님이	나오시나
말잘하는		호방손님
글잘하는		문무손님
삼세분이		나오실 때
앞강두		열두깡(강)
뒷강두		열두깡(강)
이십사강을		건너실때
실루다		갓줄허구
수저로		노를저어
제꺽제꺽		나오실제
조선국에		최씨가중에
호구역사		풀어주자
최씨가중에	달길이두	풀어주자
정월에		드는액은
이월한식		막어내구
이월에		드는액은
삼월삼질		막어내구
삼월에		드는액은
사월파일에		막어내구
사월에		드는액은
오월단오로		막어내구
오월에		드는액은
유월유두		막어내구
유월에		드는액은
칠월칠석에		막어내구
칠월에		드는액은
팔월한가위		막어내구
팔월에		드는액은
구월구일로		막어내구
구월에		드는액은

시월상달에	막어내구
시월에	드는액은
동지팥죽으로	막어내구
동지달에	드는액은
섣달애평(납향)에	막어내구
섣달에	드는액은
정월이라	대보름날을
시루고사로	막어내니
어째 아니가	좋을소냐
축언(축원)가오	축언가오
최씨가중으로	축언이가오
헤라	헤이로다
자손창생	하옵시고
부기공생	하옵시기를
배문허여	비나이다

– 제보자 : 노정봉, 『한국구비문학대계』 I –8

1982년 8월 17일에 성기열, 최명동, 김세훈이 인천 북구 경서동에서 채록하였다. 이 노래는 동네에서 당제가 있는 날에 당에 올라가서 자기네 마을 주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할 때 부른다고 한다.

5. 가사

아래의 노래는 1920년대 부천군수 강원달이 농업장려의 한 방책으로 지어 부르게 한 것으로서 아동들까지 모르는 자가 없었다.

1) 신농가

우리 겨레 삼천만이 칠할이상 농업일세
사농공상(士農工商) 직업중에 농사만이 으뜸이다

단청 묘대(苗代) 피뽑기와 퇴비 증산 시행하여
정조식(正條式) 모내어서 식량증산 이룩하세

산에 나무 남벌말자 황폐산야 못 보는고
십년지계 치산치수 이룩하세

근검저축 말만 말고 한푼두푼 저축하세
사랑하는 아들딸들 교육보급 시켜보세

(후렴)
신성하다 노동이여 나의 직업은 이 뿐이로다

2) 양잠가

조선반도 삼천리땅 잠아형상(蠶蛾形狀) 천연하다
기후풍토 세계중에 잠업발전 유망하다

오묘지택(五畝之宅) 상원(桑原)하고 수칸 온돌 잠실(蠶室)삼아
잠종소립(蠶種掃立) 사십일에 백옥수견(白玉手絹) 신기하다

우리 양잠 아니하면 보릿고개 어찌되나
지성이면 감천이요 농가부업 제일일세
거름주고 밭갈이는 장정남자 능하지만
누에치기 뽕주기는 섬섬옥수 민첩하다

(후렴)
신성하다 노동이여 나의 쾌락은 이 뿐이오다

6. 현대소설

해방기(1945~1950)의 격동하는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리문학』10호(1948.9)에 게재되었던 작품을 재수록 전재한다. 이 작품은 해방직후 부평 지역에 위치한 군수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일본인 관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혼란과 파괴적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었으나, 작품내의 선진노동자들은 중요한 생산시설을 노동자 중심의 공장자주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지로 만들어 나가려는 운동을 전개해나간다.

파촌(巴村)이란 호를 쓴 작가 이규원은 경기도 궁촌(宮村)에서 1911년에 출생한 작가로 1929년『학생』지에 시「동방의 용자」「깨어진 나팔」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식민지 시대에는 주로『동광』지에 시를 발표하다가 1939년 7월『문장』지에 소설「슬픈 점경」을 발표한 뒤 해방기에는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소설을 발표할 무렵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한국전쟁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표기는 발표지에 게재된 원본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해방공장」

이규원

우렁우렁우렁 흉물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천정기중기(天井起重機)는 주강(鑄鋼) 공장 복판으로 미끄러져 간다. 이천도의 고열로 끓고 있던 전기로(電氣爐)가 시방 아가리를 벌리고 그 쇳물을 내어뿜으랴는 것이다.

"비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포리 사람들 모양으로 제가금 팔과 머리로 신호를 한다. 전기로에서 풍기는 푸른 광채와 정오 가까운 햇살이 교차되는 공간(空間) 속에 사련기(砂鍊機) 사락기(沙洛機) 연마기(研磨機) 송풍기(送風機) 등을 맞붓잡아 맨 피대(皮帶)와 고무줄이 각가지 모양으로 선과 곡선을 그리면서 흔들리고 있다. 탁, 탁, 탁, 뜨르르, 뜨르르, 삐이, 삐이, 헉, 헉, 헉, 헉, 아 모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없는 속에 몬지도 검뎅이도 아닌 잿빛 분말을 뽀얗게 뒤집어쓴 주물공(鑄物工)들이 여기저기 서성거린다.

일천구백사십오년 팔월 십오일. 정오. 서울과 인천을 이어놓은 식민도로

(殖民道路)—말하기를 산업도로를 앞에 끼고 부평평야(富平平野)에 풍덩 주저앉은 이 군수공장은 거무하에 들려올 역사적 통곡도 모르고 압박과 착취의 고역을 계속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오늘 아침 조회시간까지 공장장은 종업원 앞에서 제일선의 장병들은 보수를 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이들은 풍부한 보수를 받고 풍부한 배급을 받고 용접사라는 명예를 가졌는 데도 왜 성심성의것 작업을 못하고 제국신민으로써의 명예를 훼손시키느냐, 너이들이 일하는 그 한시간이 대동아전쟁의 승부를 결단하는데 큰 영향을 및인다는 것을 웨 모르느냐, 딱딱거리면서 성실치 못하게 불합격품을 깎었다는 포탄직장(砲彈職場)의 레—쓰공(旋盤工) 한 명을 수위실에 넘겨 사형(私刑)을 가하고 심상치 않은 점이 있다 하야 바오락지로 묶은 채 헌병대에 끌고 간 것이다.

그러나 저 전기로의 끓는 쇳물이 미처 흘러나오기도 전에 천황폐하가 울면서 항복했다는 소식이 짝 퍼졌다고 사락공(沙落工) 한 사람이 밖에서 뛰어드러오면서

"전쟁이 끝났다!"

하고 소리를 쳤다. 아모도 기계잡음에 가로채어 듣지 못했다.

"일본이 항복했다. 천황이 중대방송……"

여럿은 그의 앞으로 쭉 모였다. 그는 커다란 죄나 저질른 듯이 눈이 둥굴하야 어찌할 줄 몰라 주춤거리더니 자신의 얼골만 쳐다보는 여럿의 시선을 뚜루루 살펴보자 살쾡이처럼 날래게 도망쳐 버렸다. 조곰 있더니 공장장(工場長)이 매맞은 사람 모양으로 축 느러트리고 드러오고 뒤따라 직장(職長) 조장(組長) 오장(伍長)들이 더러는 원숭이 볼기짝 같은 빨간 얼골로, 더러는 식덕식덕거리며, 더러는 아모러치도 않은 듯 줄줄 따라드러왔다. 그러고 보니 어느 틈엔가 웃대리들은 중대방송 드르러 빠저나갔다 오는 것이다. 호시노란 공장장은 침통한 구조로 몰켜드는 여러 사람들에게

"로서아에 선전포고하는 줄 알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따라오란 줄 알었더니 그 따윗 말이야 치엣……스윗칠 끊어라!"

소리질르고 쇠형틀 우에 주저앉다가 양복 엉뎅이를 부욱 찢기우고 다시 모래 우에 다리를 뻗었다. 직장 조장 오장들의 쫄갱이 책임자들도 밑불 식은 나무때기처럼 그 앞에 풀썩풀썩 주저앉았다. 누가 배전실에 뛰어갔는지 일시에 기계소리는 멈추고 말었다. 전기로 정수리를 뚫고 내려가던 카—봉(炭

素棒)의 빛이 무광해지고 기중기는 흙냄새를 드리운 채 움직이지 않고 전조실에 드러가던 구루마가 문앞에 우뚝 섰고, 사락기의 바서기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굼뱅이 속도로 꿈질거리던 기게, 바람갑이 모양 까불던 기게, 죄담 숨이 끊어져 버렸다. 침묵, 무서운 침묵만이 흘러갔다. 서로서로 얼골만 처다볼 뿐 누구 한 사람 지절대는 소리가 없는 허공에 회색 가루만이 자옥이 뜨고 있다. 이런 속에서 공장장의 숨결 소리만 거세게 높아갔다. 먼길을 달리는 것처럼 헐떡거리더니 급기야 자기 숨소리에 스스로 놀랜듯

"빠가야로"

벽력같은 고함을 치고 벌떡 이러나며

"어떤 놈이냐? 기겔 멈춘 놈이! 전쟁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정말 전쟁이다. 스위칠 넣어! 스위칠!"

부르짖으면서 배전실 쪽으로 뛰어갔다. 아모도 그의 말에 공명하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에-몇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불 속에 뛰어들라 하면 뛰어 들 듯하고 불덩이를 만지라하면 만질 듯하던 충실한 부하들도 그의 뒷모양을 우둑허니 바라볼 뿐이다. 그는 배전실의 문을 박차고

"스윗칠 잡은 놈 누구냐? 스파이! 스파이!"

하면서 자기 손으로 스위치를 꽂을랴고 떨었다. 그러자

"고-ㅊ쪼-상 안 되어"

하고 그의 거문 손목을 억세게 잡는 더 식컴언 손이 있었다. 용해공(溶解工) 김용갑이었다. 그는 갈구리처럼 허번적거리는 공장장의 손목을 으스러질듯이 비틀어 떼치면서

"안 되오 당신 맘대루 기겔 돌릴 수 없소 오늘부터 이 공장에서 당신 명령은 통하질 않소 명령할 권리는 우리들에게 있소"

하고 흥분된 어조로 똑똑 떼어 말했다. 청천벽력같이 대담무쌍한 말에 공장장은 어안이 벙벙하야 한참 동안 사시나무 떨듯하며 노려보기만 하다가

"빠가야로! 스파이!"

소리지르면서 주저앉아 버렸다.

×××

이런 일은 각 직장에서 죄다 이러나다싶이 했다. 차량(車輛) 공장, 제관(製

罐) 공장, 기계(機械)공장, 목형(木型) 공장, 포탄(砲彈) 공장, 도장(塗裝) 공장, 그러고 창고(倉庫), 사무실 등을 통하야 이 군수공장 전반에 걸처 비등하게 생겼던 일이다.

사장 전무 공장장을 비롯한 회사 중역들은 즉각으로 밀회를 하고 군부(軍部) 대회사 은행 등에 연락을 취하야 돈을 끌어 일본으로 송금할 방법과 설계도면(設計圖面) 기밀문서 등을 불태울 방법과 또 공장 중요 부분을 폭발시킬 방법과 중요물품을 팔아 버릴 공론으로 밤을 새웠다. 일본인 종업원들은 저이들끼리 저녁부터 비밀회의를 열고 둘 셋만 만나도 쑥덕공론이었다.

사흘되던 날 몇몇 사람이 게양탑 꼭댁이에 태극기를 달았더니 헌병들이 칼을 휘둘으며 달려들어 숙직원 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 도망질쳤다. 밤새에 '조선독립 만세' 라고 커다란 액판에 써서 문앞에 붙인 것을 보고 헌병은 두 눈에 불꽃을 반사하면서 독기로 찍어 버렸다.

북방의 해방군이 야루강을 건느고 백두산을 넘어왔다. 겸이포일철(兼二浦日鐵)이 어찌되었느니 고주파공장이 어찌되었느니 질소(窒素)회사가 어찌되었느니 소문나면서부터 회사측의 발악은 사그라저서 헌병들의 출입도 경찰서원들의 감시도 뜨음했다. 그 동안 징용을 피하노라고 억지로 직공이 된 종업원들은 굴레벗은 말 모양으로 간다 온다 말없이 자최를 감추어 버리고 더러는 이 통에 일본놈들 가구장사래도 해야지 해방이 됐는데 공장생활이 뭐냐고 뿔뿔이 도라다니고 더러는 공장 트럭을 끌어내다가 태극기를 달고 학교 운동장으로 종로거리로 경인도로로 밤 늦게까지 쏘다니었다.

"무장해제만 끝내봐라!"

제각금 별르면서 그 인색한 사장의 복수를 그 범같은 공장장의 복수를 그 원숭이같은 점무의 복수를 별러 보았으나 오늘 내일 하는 연합군의 진주도 없을뿐더러 우리 나라 대통령도 육군대신도 말만 자자했지 그리되지 않았다.

"어찌된 셈일까?"

용해공 김용갑(金用甲)은 오늘 모일 종업원대회의 계획을 꾸미고 나서 기재개를 켜면서 혼자 뇌인다. 그는 레-쓰공 이달관(李達觀), 전공(電工) 장노야(張老野), 제관공(製罐工) 조억만(趙憶萬) 같은 여러 동무들과 십육일부터 지금까지 하로도 집에 돌아간 일이 없이 공장 목재 건조실에 진을 치고 일본인 종업원들의 파괴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조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았다. 인저는 우리들의 공장이다 하는 꿈

같기도 하고 생시같기도 한 사실 앞에서 그들은 얼사안고 뒹굴었고 만세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외부의 소식과 집안 연락과 음식물은 다른 패들이 맡아 보아주었다. 국호는 무엇무엇이라는 둥 무슨무슨 박사들이 입국한다는 둥, 무슨무슨 장군들이 개선하다는 둥, 정계의 소문을 비롯하야 어느 철공소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협박을 받어 단도로 자살했는데 예편네는 일본으로 가버리고 시체가 아직까지 다다미 우에서 썩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치워 주지 않는다는 말이며 어느 공작소 중역들은 해산금을 지불치 못하야 뭇매를 맞고 뻗으러졌고 어느 회사 일본인 종업원들은 공장을 파괴하려다 들켜서 창고 속에 사흘 나흘채 감금을 당하였다는 정보가 시간시간 들어왔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두 팔을 높이 처들고 만세만세 만세를 불렀다.

종업원대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을 받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정각을 앞두고 몰려들었다. 정치운동하노라고 없어졌던 더벅머리 패들도 오고 가구장사 포목장사 하노라고 없어졌던 싸구려 패도 오고 헌변오장인가한 공무주임 족하한테서 권총을 사가지고 일본사람 집으로 한목 보러 다니던 삽팔티기까지 왔다.

집회 장소인 차량현촌장(現寸場)에는 벌서 드러설 자리가 없이 빽빽이 찼다. 작업복에 기름이 새감맣게 옷을 그대로 걸친 사람 물쑥한 양복을 입은 사람 웃동을 벗어제친 사람 그 중에는 낮술을 건아하게 올라서 까닭없이 흥분하는 자도 있었다. 더러는 벽에 기대어 스고 더러는 아모렇게나 늘어놓은 의자에 앉고 더러는 유리창 밖에 얼골을 내밀고 더러는 흙발채 철마루에 주저앉어 있다. 유리같이 갈아놓고 그 우에 정밀도본의 최고 기술로 아로삭여 놓은 이 도판(圖板) 철마루가 삽시간에 무지스러운 발자욱으로 더렵혀졌다.

김용갑을 위주한 임시 소집위원들과 각 직장 대표들은 무시로 구수회의를 하고 테불을 중심으로 몇 차례씩 왔다갔다한다. 연설할 테불은 절반찜 삐뚜러졌고 그우에 커다란 주전자와 물보시기가 놓여 있다. 오늘 토의할 중심문제는 일본인 중역회에 회사해산금(會社解散金) 과동금(過冬金) 추후작업이 계속되리라고 추측되는 삼개월간의 임금(賃金)을 요구할 것과 일본인들의 파괴행동을 적극적 방지키위한 공장 자위대(自衛隊) 조직, 그러고 공장 관리위원(管理委員) 선정 등이었다.

이윽고 김용갑이 두 다리를 약간 떨면서 단상에 올라서서 개회를 선언하자 장내는 우레같은 박수 소리로 진동했다.

"여러분! 친애하는 노동자 여러분!"

그는 말머리를 떼기도 전에 한쪽 주먹을 쥐고 누구를 때릴 듯이 노린다. 본래가 키가 크고 얼골이 험상지고 눈이 크고 아모데서나 뚝 떼어다가 붙어 놓은 듯한 주먹코가 오랫동안 불쇳물에 타고 달아서 검붉은 무쇠빛갈을 발산하는데다가 주먹을 쥐고 성을 내었으니 도모디 이 세상 사람 같이 않고 무섭다.

"친해하는 노동자 여러분……여러분!"

두 번째 말머리를 토했으나 뒷말이 탁 맥혀 버려서 불끈 쥔 주먹을 쑥 내밀었다. 몇일을 두고 생각했던 말이 막상 연단에 올라서고 보니 한마듸도 혀 끝에 오르지 않는다. 용갑의 얼골만 처다보던 청중은 물 끼얹은 듯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용갑이가 주먹을 쑥 내밀 때 무의식 중 마조 내밀었다가 움추려트렸다. 심초 이십초……용갑은 마침내 체게있는 연설하기는 틀린 줄 알고 예라 닥치는 대루 말 나가는 대루 부르짖으리라 했다.

"나는 용해공이오 십여 년 동안 각 공장의 전기로만 쫓아다니면서 불과 싸왔오. 무엇 때문에? 밥을 먹기 위해선가? 물론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다른 재줄 밴게 없어선가? 그렇소. 그것도 한 원인이오. 하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이오?"

눈을 한층더 부라리고 침을 꿀덕 삼켰다가

"저 잔악한 일본놈들 때문입니다. 이 공장 사장 야마니시! 호시노 공장장! 노야끼 전무 이런 제국주의자들이 등 뒤에서 챗죽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놈들의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그 놈들의 침략을 위해서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말소같이 일해 주어야 했습니다."

할 때 옳소! 옳소! 소리가 여기저기 연발한다.

"친애하는 노동자 여러분! 이 뭉쳤던 원한을 설욕할 때가 기어히 도라오고 말었습니다. 용감한 우리들의 민주주의 연합군은 악착한 세계 팟쇼의 팔을 잘르로 다리를 잘르고 허리를 잘르고 급기야는 그 인후를 물어뜯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약소민족을 해방하고야 말었습니다."

하는 것은 준비해 두었던 말이 풀려나온 것이다.

"폿담선언은 우리들에게 복수할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조선민족의 해방! 노동자의 해방! 이것이 정의의 승리를 말하는 역사의 필연적 귀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 위대한 사실을 어찌 원자폭탄이라는 무기의 힘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전기로의 쇳물을 딸으면서 이번 전쟁이 지기를 빌었습니다. 짐방을 돌리면서 시갈반을 돌리면

서 일본이 패하기를 빌었습니다. 저 진저리 나는 열두 시 묵도를 할 때마다 이 전쟁이 어서 망하기를 빌었습니다."

할 때 박수가 끝을 줄 모르게 계속되고 옳고 소리가 연달아 일는다. 용갑은 기고만장이었다. 입에는 게거품을 물고 경동맥이 푸르게 노창했다. 그는 주전자의 냉수를 한 보시기 딸아 꿀컥 마시고

"여러분! 이 강도 회사 중역들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우리를 착취해서 저축했던 막대한 금액을 몰래 일본으로 돌려빼는 모양입니다."

별안간 장내는 소란해졌다. 그런 죽일 놈들이 어듸 있느냐는 듯이 얼골 근육을 오만상으로 찌푸리고 입술을 깨무는 자도 있었다. 용갑은 설레는 군중을 진정시키고

"그럼으로 당 회사 해산금으로 백만원을 요구한다!"

할 때 흥분했던 종업원들은 아우성을 쳤다.

"당분간 실직을 면치 못할 터인즉 과동준비금으로 또 백만원을 요구한다!"

두 번째 선언할 때 아우성은 수십 배 높아지고 휘파람 소리까지 휙휙 이렀다.

"십일월말 결산기인 이번 기(期)의 잔여 임금으로 백만원을 또다시 요구한다!"

마지막 선언할 때 이번에는 청중 속에서 만세소리까지 연달아 나왔다. 용갑은 박수소리에 날러갈 듯한 환영을 받으며 득의양양하게 연단에서 내려왔다. 한참 동안 장내는 것잡을 새 없이 수선스러운 속에 둘째번의 레-쓰공 이달관이 등단했다. 달관은 바로 십오일날 아침 폭탄의 불합격품을 고의로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까지 끌려갔다가 그 날 오정 전에 풀려나온 사나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요구한 금액이 망하는 놈들의 약점을 잡고 무리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라는 것을 증명할랍니다. 여러분! 이 손을 보시오!"

달관은 왼편쪽 손을 쭉 펴서 한참 동안 보였다. 하나! 둘! 셋! 분명히 손꼬락은 세 개밖에 없었다. 여럿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의아해 하다가 한참 만에야 육체의 일부분이 그 놈들 때문에 병신이 되었다는 뜻인 줄 알았다. 맨 앞에 앉었든 귀먹어리 제관공이

"나도 귀먹어리가 됐소!"

고함치며 벌떡 이러나서 자기의 한쪽 귀를 잡아 흔들자 장내는 와르르르 웃음밭이 되었다. 달관은 더 말을 계속하지 않고 내려왔다. 여기저기서 한마

디씩 웨치랴고 연단을 향하야 뛰여올라갔다. 그들은 모다 얼골빛이 붉으락푸르락했고 몇햇동안 가슴속에 뭉쳐 두었던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라는듯 도도한 기세였다.

웃통을 벗고 연단에 뛰어올라가

"이 문둥이처럼 벗겨진 몸을 보시오!"

하면서 뻘건 빛 퍼런 빛 검은 빛 흰 빛으로 쭈글쭈글해지고 여기저기 찢어진 자리를 꼬어맨 끔찍스러운 억개와 잔 등이를 보이는 주물공도 있었다.

체인부록의 쇠물이 끊어지는 바람에 무쇳덩어리에 잘리어 왼편쪽 팔 하나를 잃어버린 운반공(運搬工)도 올라갔다. 그는 벌서 해고당한 지 오래지만 종업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타났던 것이다.

"놈들은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도 아모런 생활에 대한 보상이 없이 거러지 동냥주듯 몇푼 안 되는 돈을 던져 주고 쫓아냈읍니다."

차량공 리뱃트공, 텔-공, 잡역(雜役)이 속속 등단한다. 제관공 조억만이가 여태껏 한편 구석에 서서 입속으로만 외이던 말을 장내가 바서질 듯 웨쳤다.

"노동자 여러분! 이 공장은 오늘부터 우리 노동자들의 공장이 됐소. 큰 놈이 뻗어지고 적은 놈이 이러나니 이 역사적 순간 우리의 힘은 오직 단결뿐입니다. 그놈들은 뻗어졌다치드래도 아직도 남아 있는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 분명하니 최후의 단결력을 발휘합시다. 힘과 힘의 싸움이오! 아직도 무서워할텐가?"

벽력같이 소리치고 평소에 쇳메를 때리던 억센 주먹으로 책상을 탕 쳤다. 책상우에 놓였던 물종지가 굴러떠러졌다. 그러나 아모도 여기에는 주의가 안간듯 억만이 눈과 오백여 명의 눈이 불꽃을 이르킬듯 부듸치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야 그 교섭위원으로 각 공장에서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하고, 공장 설비 비품 재료 등의 손실이 없이 책임 관리하기 위한 관리위원으로 역시 각 공장에서 두 사람씩 선출하였다. 자위대 조직에 있어서는 전 종업원이 순번으로 삼십 명씩 교대 철야하되 무보수임은 물론 관리위원회에서 인원을 배치하야 명령하기로 했다. 그러고 요구 교섭의 결과도 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발표하고 그 개인별 금액의 사정까지 일임하였다.

(중략)

×××

관리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사했고 그 대신 공장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종래의 관리뿐인데서 범위를 넓혀 각 부문을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기술자 송찬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송찬은 학식 경력 기술이 대외적으로 공장을 대표할 역량이 있었고 김용갑은 주강공장 생산책임자로 선발되었다. 조억만은 제판공장 생산책임, 이달관은 기계공장 생산책임, 장노야는 전기부 기술책임, 그 밖에 업무경리 노무 등 사무계통과 공무 설계 등 기술계통의 책임자와 인원을 각각 선발하였다. 대개가 종전의 기구를 축소 또는 합병하야 가장 능률적으로 편성하고 그 부문에 있던 조선인 종업원이 최고 책임을 지기로 했고 그 책임자는 자치위원회 회원이 제풀로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 십 명, 기술자 오 명, 사무원 삼 명의 비례다. 제각기 합리화를 도모하야 별개로 기술위원회를 편성해서 주문품에 대한 재료 설계 공정 원가 같은 것을 치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합평하기로 했고 감찰위원을 편성하야 경리회계에 부당 지출 유무를 시시로 감시하도록 했다. 특무위원은 작업 중 무시로 현장을 비밀 순회하면서 노동정신을 상실한 노동자와 사제품으로 내직하고 공장물품을 훔쳐가는 옳지 못한 분자를 적발하야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계몽위원은 노동자들의 직위 향상을 위하야 국문 역사 같은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재조직함에 있어 자연히 문제되는 일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말을 쓰고 조선옷을 입고 조선사람 처자가 사는 집으로 드나들면서도 오늘날까지 같은 조선인 종업원을 배반해 온 몇몇 분자들이었다. 이들은 팔월 십오일 공장에서 흔연히 자최를 감추었다가 해산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등장했을뿐더러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삼는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불평을 토하며 선동했다. 현재의 종업원들이란 대개가 일본사람 밑에서 기계적으로 일해 온 말단 인물들임으로 이렇게 복잡한 기관을 운영할 능률이 없다. 양심적이고 실력있는 새로운 자본주를 등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비앙거리었다. 그러다가 결국 자치위원회가 틀을 잡고 자기들의 방해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자 이번에는 자치위원회 인원편성을 공격하고 일도 해 보기 전에 무능자니 무경험자니 하고 힐란했다.

"무엇 때문에 수두룩하게 있는 자본가를 구허잖구 전 종업원들의 장랠 망치려는 겔까 정부가 선다면 이런 기구편성을 인정할라구?"

노무게에서 충성을 부리던 박이란 자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책임자가 된 것을 아니꼽게 여기며 불평이다. 그는 어느 지방 관리를 다니다가 공장 노무계에 굴러드러오더니 조선사람으론 얻어 하기 어려운 수석사원이 되었고 저 창씨령이 내리자 누구보담 먼저 호자와라고 떠들어 창씨 안한 종업원을 불러다가 파면을 시키느니 불온분자로 취급하느니 협박했다. 복무규칙을 위반하면 불러다가 제손으로 뺨도 쳤고 그런 종업원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자랑으로 알았다. 형사나 경관들과 어울려 술취할 쩍마다 자기는 종업원 전부를 스파이라고 인정하고 사무를 처리하노라고 하면서 그 교활한 웃음소리를 킥킥킥 내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팔월 십오일이 되자 누구보담도 먼저 호자 화란 문패를 박으로 고쳐 달고 어듸 가서 정치운동을 한다고 숨어 있더니 지금 낱아나서 누구보담도 열열히 종업원의 장래를 론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편성허는 겐가 종래의 계급대로 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공산주의 새끼들아……"

"이건 막 파괼세! 호자와상을 빼놓고 저이들이 멀 안다구"

사택계(私宅係)의 오가란 사람이 맛장구를 쳐 주었다. 오가는 주로 사택의 식료품 구입을 맡아했지만 생선이며 설탕이며 진귀한 것이 생길 때마다 밤중 몰래 일본인 사택에만 갔다 받히고 그들의 비위 마치기에 일반종업원 사택에서는 배추 한 포기 성한 것을 못 얻어먹었다. 웬놈의 김장을 일본사람들이 야단스레 담그는지 후생전원(厚生田園)이라고 명칭만 좋게 불르는 사택 공동채마원에서 걷우는 파며 고추며 생이며 갓이며 무 배추 속에서 싱싱한 포기는 이 오가 농간으로 전부 일본 사택에만 분배되었다. 그의 회사 지위도 보잘 것 없어 이번에도 뒤에서만 눈치를 보았지만 박처럼 이전에 지위 높던 사람을 한 목 넣지 않는데는 박가 못지않게 불평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치더라도 이런 류의 종업원이 각 직장 각 부문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대개가 자기자신의 과거 행동과 현재 자치위원 편성하는 눈치를 보아 기리 이 공장에 일자리를 가지지 못할 것을 알지마는 응당 자기 몫으로 분배될 이삼천원을 운영자금이니 무어니 하고 지불하지 않는데 끌리어 이러쿵저러쿵 빙아를 찢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사택분배가 남았기 때문에 행여나 하고 출근하는 자도 있었다.

"자치위원들끼리만 좋은 집을 논흐련다."

하고 미리붙어 떠돌던 풍성은 분배 방법이 발표된 뒤에 없어져 버렸다. 사

장 이하 중역들이 있던 방 많고 큰 집들은 전부 독신 노동자 합숙으로 정했고 그밖에 집은 가족수효와 재직연수와 종래의 지위를 종합하야 분배했고 부족되는 수효는 추첨으로 들게 되어서 미리붙어 자기의 문패를 턱턱 붙여놓은 사람들도 말없이 떼어 버렸든 것이다.

"피! 정부에서 정해 줄 껀데 저이들이 머라구, 그 땐 죄 쫓겨날 테니 두구 보세"

박은 종래의 계급으로 누진적 분배를 한다면 자기가 과장사택에 들 것인데 기대가 이그러진 것이 분했다.

하여튼 이런 불순분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종업원으로 인정하야 금후 손을 맞잡느냐 그렇잖으면 과거의 책임을 지워 이 새로운 출발에서 제가하느냐 자치위언들의 의견은 분분하였다.

해산금을 몰수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택을 빼앗은 후 공장에서 아조 추방하여 버려야 한다는 강경론자가 있었다. 김용갑 조어만 등의 의견이었다. 그들의 소위는 일본인들이나 다름없을 뿐더러 동료를 배반한 죄악은 그 이상 더 흉악한 것이며 이런 흉악을 지금 용서한다 치더라도 후일 어떤 방법으로 또 배반할 위험성이 있은즉 일즉암치 암을 뽑아 버려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덮어놓고 함께 일해 보자는 무조건 온건파가 있다. 송찬 장노야 사무계통의 위원들이었다. 그들의 배반도 결국 일본놈들이 맨들어 놓은 일이오 또 새로 발족하는데 그런 시끄러운 문제를 끄집어내면 것잡을 새 없을 뿐더러 일본놈에 협력했단 것이야 직접간접 먹기 위해서 하지 않은 놈이 없으니 우선 함께 일해서 공장붙어 움직여 놓고 그들의 참회 여부를 주목하자는 지론이었다.

"안 되네 그놈들을 그냥두면 첫째 공장을 움직일 수가 없네 보게나 그놈들이 해방 직후엔 꼬리도 보이잖더니 우리가 일을 이만큼 맨들어 놓니까 쓰윽 나와서 새 자본갈 등장시키잖는다구 종업원들을 충동허구 있잖나?"

용갑이는 책상을 치며 반대했으나 좀체로 결정 지을 수가 없어서 결국 종업원대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종업원대회에서 가리산지리산하며 시간 보낼 꺼리도 못되었다.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 언제할 테요 우리는 그런 분자들과 일할 수 없으니 우리 신성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 제거해 버리길 긴급동의하오"

하고 기중기전공(起重機電工)의 동의는 만장일치로가결되어 버렸던 것이다.

배반자로 규정된 박 이하 열세 명은 공장에서 추방되었다. 열세 명 중에는

자위대가 밤을 밝히면서 수비하는데도 불고하고 자기 직장의 소형기계들 뜯어내다가 팔아먹은 팔월 십오일 이후의 배반자도 섞이었고 일본계집을 데리고 살든 창고계원도 섞이었다. 이들은 모다 세세한 증거와 행동 기록과 더부러 임시 편성한 공장재판에서 엄밀히 심사한 후 추방명령을 받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순분자를 제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분산되어 버린 기술자와 숙연공들을 불러 내리기에 바뻤다. 급격한 해방에 흥분되어 직장을 버리고 군중 속에 드러가 헤매는 동무들, 자기의 기능을 포기하고 얼토당토 않은 직업을 설계하던 동무들 중에서 속속 옛 직장을 찾어드러오는 열성자들이 생겨났다.

불필요한 직장은 정비하여 다른 직장에 합류시켰다. 포탄공장 빠ㅡ카 공장 같은 것은 전부 평화산업 생산장으로 설비를 개조할 때까지 소상인원을 기계 공장 같은 데로 이동했고 사무실 게통의 불필요한 종업원들은 전부 현장으로 전출되었다. 이들은 초보적인 견습공으로부터 재출발하겠노라 맹세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평을 품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불건전한 경제 상태에서 아직 확고한 공업정책도 표시하지 않은 군정하에서 방대한 군수공업장을 평화산업으로 급전시키랴는 모험 도중에 사무원 운반공 잡공 영선공 얼치기 기술자 등 간접비(間接費) 적 존재는 최저 한도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직접생산면에 전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

"팔월공장(八月工場)"

새로 이름지은 공장명칭도 장하게 주먹같은 먹글시로 된 간판이 정문에 덩그렇게 달렸다. 팔월의 태양 팔월의 정열 팔월의 해방을 상징하는 위대한 이름과 더부러 일천구백사십오년 십월 일일 송장과같이 죽어 있던 수많은 기계들은 다시 움지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벌서 무쇳덩어리로 된 기계라니보담 노동자들의 열과 땀이 통하야 움지기는 생물(生物)이리라.

-「해방공장」 제1부, 『우리문학』 10호(1948.9)

자 료 편

부평 옛 고을 이름의 유래와 변천사

1. 옛 읍호(邑號)의 유래

부평지역의 옛 지명이 최초로 등장하는 공신력 있는 문헌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경덕왕 17년(757)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체 행정구역을 개편한 결과를 기록한 『삼국사기』 지리지이다. 이후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문헌들에 기록된 부평의 읍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신라	고려초	의종 4년	고종 2년
주부토군 (主夫吐郡)	장제군 (長堤郡)	수주 (樹州)	안남도호부 (安南都護府)	계양도호부 (桂陽都護府)
충렬왕 4년	충선왕 2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신증)	『여지도서』
길주목 (吉州牧)	부평부 (富平府)	부평부 (富平府)	부평도호부 (富平都護府)	부평부 (富平府)

이 글에서 한자음은 karlgren의 『Ano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1966)와 주법고(周法高)의 『한자고금음휘(漢字古今音彙)』의 재구음을 참고하였고, 재구음은 해당 어휘 앞에 '*cvcvcv...'(c-자음, v-모음)와 같이 가술하였다.

※ 이 글은 김병욱(인천대학교 국문과 교수)이 책임 집필하였음.

1) 주부토(主夫吐) · 장제(長堤) · 수주(樹州)

우선 위의 지명들에서 읍호(邑號)인 '군, 주'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고구려의 지명 주부토(主夫吐)는 '주부(主夫 – 훈차) + 토(吐 – 음차)'로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주부(主夫)'를 음차로 분석하면, 이들의 고대한자음은 다음과 같다.

ㄱ) 主 (tiu), 夫(piu)

이들 두 음절을 합한 고대한자음은 '*tiu-piu'에 가깝게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발음과 유사한 고대어나 중세국어 어휘는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은 훈차로 이해되고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주(主)는 '임금, 주인[主], 어른[長], 대(大)'의 뜻이었다.

ㄴ) 수만리 니미(님이)어시니(『용비어천가』31장)
ㄷ) 主 님쥬(『훈몽자회』 中1)
ㄹ) 이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왕을 따라 출생'(사미인곡)
ㅁ) 君 님군군(『훈몽자회』 中1)

위의 ㄴ)~ㅁ)의 예들은 한글로 표기된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 나타난 예들로 '주(主)'가 '임금', '주인', '어른' 등의 의미장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부(夫)'는 공자(孔子)를 높여 부를 때 '공부자(孔夫子)'로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존경 접미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부(主夫)'를 신라시대의 개정에 '장(長)'으로 바꾼 의미를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국어는 폐음절어, 곧 '님'으로 발음하지 않았으므로 '부(夫)'를 존경접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바, 고려 초에 '장(長) > 수(樹)'로 개정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수(樹)'는 현대국어의 훈으로 '나무'지만 15세기의 문헌에는 '나모ㄱ(namug)'였다.

ㅂ) 불휘 기픈 남ᄀᆞᆫ (『용비어천가』1장)

'나모ㄱ'의 형태는 현대어에도 '나무로 만든 신'을 '나막신'이라 하여, 고

대어의 자취가 남아있으니 'ㄱ'은 예로부터 약하게 발음해온 까닭에 단어 속에 화석(化石-고어의 일부가 단어 속에 굳어 있으면서 변치 않는 음, 음절, 형태소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방언을 제외하고는 탈락하였다. 따라서 앞의 '주부(主夫)'가 '*nimu' 또는 '*nama'와 유사한 발음의 표기로 '*nimu > *nibu'의 변천, 곧 'm > b' 음운변천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천은 '납'의 고대어 등에서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다.

ㅅ) 내물(乃勿), 나물(那勿) ~ 연(鉛) > '납' 연(鉛)

위의 경우, '*namur > *nama > *nabu > *nap'의 변천 곧, 'ㄹ' 탈락과 'm ~b(p)' 교체의 과정으로 추정되며, 'm>b(p)' 변천을 겪은 것을 고대어로부터 변천에서 알 수 있다. 결국 같은 입술소리이므로 '*m ~b(p)'의 교체가 가능했고, '*nimu ~*nibu ~*nama ~*nabu'의 교체형을 고려 초에 '*나무[樹]'로 훈차해 '수주(樹州)'가 된 것이다.

한편 *namu ~*nabu가 '장(長)'으로 대역된 예는 '내미홀일운지성일운장성(內米忽一云地城一云長城' 『삼국사기』 지리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초의 지명에서 주부(主夫)는 '*nimu(*namu) ~*nibu(*nabu)'로 재구될 수 있고, 그 지명소는 '임금, 어른, 주인'의 의미장을 가졌었다.

다음 '토(吐) > 제(堤)'를 분석한다.

ㅇ) 칠제현본칠토현(漆堤縣本漆吐縣) 『사기』 권 34
ㅈ) 내토군일운대제(奈吐郡一云大堤) 『사기』 권 37
ㅊ) 김제군본벽골군(金堤郡本碧骨郡) 『사기』 권 34

위의 지명들에서 '토(吐) ~제(堤)'의 대응이 부평의 옛 지명과 같게 나타나며, 고대 지명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제방이 특징인 고을'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지명의 후부요소(後部要素)로 '곡(谷), 천(川), 포(浦), 산(山)' 등과 같이 사용되던 지명소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전제에서 말했듯이 고대어에는 유기음(有氣音-거센소리)이 분명히 분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으므로 토(吐)는 '*도'와

유사한 음이었을 것이며, 그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중세국어의 'ᄃᆞ, ᄃᆡ'와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ㅋ) 아모 ᄃᆞ라셔 (『월인석보』 2:25)
ㅌ) 아모 ᄃᆡ나 (『월인석보』 1:26)

이런 경우의 'ᄃᆞ, ᄃᆡ'는 장소[處]를 나타내는 중세국어로 앞의 '*도(tu)'도 유사한 발음과 의미를 가진 지명소로 해석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을 이름을 '장제(長堤)'가 아닌 '시제(是堤)'로 기록되어 있는 바, 장제(長堤)와 글자가 유사해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ㅊ)에서는 '골(骨)~제(堤)'로 대응하는 경우로서 '골(骨)'의 고대한자음은 '*kuət'이었고, 이 지명소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용비어천가』 26장의 '이 곧 뎌 고데(곧에)', '처(處)는 고디(곧이)라' (『석보상절』 13:12) 등에서 현대어의 '곳'으로 변천한 단어이다. 이상에서 볼 때 '토(吐)~제(堤)'의 대응은 원래의 의미가 '제방'이지만 중세국어와 대내적 비교를 통해 볼 때 '~한 땅'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부(主夫)~장(長)~수(樹)'의 변천은 '음차>훈차>훈차'의 과정을 거쳐 개정된 지명소로서 대략 '*nima(nama)>*nibu(nabu)'로 읽혔을 것이며, '임금, 주인, 어른'의 의미장을 가졌고, '토(吐)~제(堤)'는 '음차>훈차'로의 변천을 거쳤고, 의미는 '~한 땅'이므로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다고 추정된다.

지명소 대응	해 석	의미
주부(主夫)~	음차-*nima~*nibu~*nama~nabu	임금,
장(長)~	훈차	주인,
수(樹)	훈차-*nama(nima)~*nabu(*nibu)	어른
토(吐)~	음차~*도[tu]	
제(堤)	훈차~*도, ᄃᆞ	장소, 땅, 고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평의 옛 지명, 곧 '주부토(主夫吐), 장제(長州堤), 수주(樹州)'는 모두 '임금, 주인, 어른', 즉 '존장자(尊長者)가 다스리는 땅(고을)'의 의미로 이해되며, 이것은 옛 마한의 소국 중 한 나라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명으로 추정된다.

2) 안남도호부 · 계양도호부 · 길주목

(1) 안남도호부

'안남(安南)' 에서 '안(安')은 고대국어 시기에는 *'아나' (ana) 또는 'ㄴ→ㄹ' 로 변동한 *'아라(ara)' 의 고유어 표기였을 것이다. 고대국어는 개음절로 발음했기 때문이며, 'ㄴ→ㄹ' 의 변동은 고대 인명, 지명에서 자주 교체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 안시성구안촌홀혹운환도성(安市城舊安寸忽或云丸都城) 『삼국사기』 지리4
ㄴ) 중반군본고구려식성군경덕왕개명금안주(重盤郡本高句麗息城郡景德王改名今安州) 『삼국사기』 지리 2
ㄷ) 백성군본고구려내혜홀경덕왕개명금안성군(白城郡本高句麗奈兮忽景德王改名今安城郡) 『삼국사기』 지리 2
ㄹ) 현진현본아동호현경덕왕개명금안읍현(縣眞縣本阿冬號縣景德王改名今安邑縣) 『삼국사기』 지리지 2

ㄱ) 의 안시(安市) ~환도(丸都) 의 대응에서 '환(丸')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알' 이었지만 고대국어 시기에는 개음절로 발음하는 '*아라' 였을 것이다. 이것이 '안(安)' 과 대응하고 '안' 은 '*아나' 로 발음했을 것이며, 도성(都城) 을 뜻하는 지명의 전접요소로 '대(大), 왕(王)' 의 뜻이었을 것이 분명하며, 'ㄴ~ㄹ' 의 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런 음운 교체였던 듯하다. 결국 '안(安)' 은 '*아나→*아라' 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고, '대(大), 왕(王)' 의 의미였다.

ㄴ) 의 '식성(息城) ~안주(安州)' 의 대응에서는 다음의 지명이 참고가 된다. 즉, 한성군일운한홀일운식성일운내홀(漢城郡一云息城一云乃忽) 『삼국사기』 지리 4의 기사에서 '한(漢) ~식(息)' 으로 대응한다. '한(漢)' 은 고유어 표기에서 '한(翰) ~간(干) ~홍(鴻)' 등과 함께 '크다, 길다' 의 뜻으로 차

자(借字) 되었다.

ㅁ) ①한산현본백제대산현경덕왕개명금홍산현(翰山縣本百濟大山縣景德王改名今鴻山縣) 『삼국사기』 지리 3

위의 지명 변천에서 '한(翰)~대(大)~홍(鴻)'으로 대응하고, 이들의 뜻은 '대(大)'이며 고유어 '*가라~*거러'의 표기였을 것이며 이것이 ㄴ)의 '식(息)'에 대응한다. '식(息)'의 중세국어 훈은 '긏, 그드', '내(乃)'의 훈은 '곧'이므로 이들에서 'ㄷ~ㄹ'의 교체로 '가라~거러'의 대응을 추출할 수 있고, 의미는 '대(大)'로 ㄱ)과 같이 '안(安)'과 대응함을 이해할 수 있다.

ㄷ)에서는 '내(奈)~안(安)'으로 대응하고 '내(奈)'의 중세 국어 훈은 '엇더, 엇디'였고, 고대어로는 '*ətə'를 재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ㄷ~ㄹ'의 교체를 고려하면 'ətə~ərə'가 되고, 이것은 ㄱ)의 '안(安)'이 '*아나~*아라'였던 것과 대비되어 같은 계열의 지명어였다.

제천군의 옛 이름 '내토군일운대제(奈吐郡一云大堤)' 『삼국사기』 지리 2에서도 '내(奈)~대(大)'의 대응으로 의미가 '대(大)'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안(安)'에 대응하므로 이 지명에서도 '안(安)~대(大)'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다.

ㄹ)의 변천에서는 '아동(阿冬)~안(安)'으로 대응하며 '아동(阿冬)'에서 '동(冬)'은 고대어로부터 근대어에 이르기까지 '*ᄃᆞ~더'를 표기하는데 차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전남 강진군의 옛 이름 '동음(冬音)현이 탐진(耽津)현'으로 바뀌었는데 '동음(冬音)'의 두 글자는 '*담~*돔'을 표기한 것이며, 조선 영조 때의 『여지도서』통진부 편에 '동을산(冬乙山)'은 '달뫼'를 표기한 것으로, 현재 그곳 주민들은 '들미'로 부른다. 따라서 '아동(阿冬)'은 '*아ᄃᆞ~*아더'로 ㄷ)의 경우와 같이 이 지명이 '안(安)'과 대응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안(安)'은 '*아나~아라~어더~어러'의 교체를 보인 고대어였고, 그 의미는 '대(大)'였으므로 '주(主)~장(長)~대(大)'로 변천해온 일관성을 가진 지명소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南)'에 대하여 고찰한다. '남(南)'의 중세국어 훈은 '앒(『훈몽자회』中 4, 『석봉천자문(石峰千字文)』 28)이었다. ' 앒앞'으로 변천해 왔

왔거니와, 남향으로 집을 짓고 살던 우리의 주거, 생활 관습이 잘 표현된 단어로 '북(北)'의 중세국어 훈·음은 '뒤 북(北)'이었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남(南)'의 훈(訓) '앒'은 '안남'의 해석에 참고가 되지 못한다. '남(南)'을 고대국어시기에는 개음절로 발음했을 것이므로 '*나마~나무~나무~니무' 등의 교체형을 가졌던 '주부토(主夫吐)'의 '주부(主夫)'나 '수주(樹州)'의 '수(樹)' 곧 '나무'와 유사한 어형을 표기하고자 한 것이고 '남(南)'도 결국 이들과 유사한 어형을 가졌고 의미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님[主, 王], 어른[長], 대(大)'의 뜻을 가진 '안(安)'과 '남(南)'은 같은 뜻을 중복 표기한 것이며, 옛 지명에서 이러한 의미의 중복은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옛 '마한(馬韓)'은 '한산현본백제마산현신라인지(漢山縣本百濟馬山縣新羅因之)『고려사』56, 지리1에서 '한(韓)'과 '마(馬)'가 대응하고, '한주(韓州)~아주(鵝主)'의 대응은 『동국여지승람』17의 '아주현본거로현(鵝州縣本巨老縣)' 기사를 비교하면, '한(韓)~아(鵝)~거로(巨老)'가 대응한다. 한편, '마(馬')의 고유어가 '걸(윷놀이')과 '말(몽골어 morin의 차용)'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가라~거러'의 표기로 마한(馬韓)은 '*가라~*거러'의 중복표기이다.

(2) 계양도호부

부평의 지명을 다룬 향토지들에서 '계양(桂陽)'의 의미가 '계양산에 계수나무와 회양목이 많아서'라고 했다. 그러나, 향신료, 약재로 쓰이는 계수나무는 열대식물이다. 한편 회양목이란 식물명에서 '회'의 한자는 없고, '계양산'의 '양'은 '언덕 양(陽)'이지만, 회양목의 '양(楊)'은 억지로 쓴 글자이므로 위의 해석에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계(桂)'는 지명에 많이 사용된 글자는 아니다. '계(桂)'를 『설문해자(說文解字)』등 큰 자전에서 찾으면, '달[月]'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 설명함과 동시에 달이 가장 가까이서 빛나는 8월을 '계월(桂月)', '달'을 '계륜(桂輪)'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계(桂)~월[月]'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달[月]'과 같은 음을 가진 '달(達)'은 '고목근현일운달을참(高木根一云達乙斬 : 교동의 옛 이름,『삼국사기』지리 2), '고창현본모량부리현(高

做縣本毛良夫里縣 : 고창군의 옛 이름, 『삼국사기』 지리 2), '대구현본달구화현(大邱縣本達句火縣 『삼국사기』 지리 2) 등의 지명에서 '달(達)' 이 지명의 제1음절일 때는 ,고(高), 대(大),의 뜻이 된다. '고(高) ~모량(毛良)' 의 대응에서 '모량(毛良)' 은 음차한 글자로 현대국어의 '털' 과 유사한 '*더러~*다라' 의 표기였다.

한편 제2음절 이하에 올 때, 예를 들면 '아사달우명궁홀산(阿斯達又名弓忽山, 『삼국사기』 지리 2) 같은 경우는 ' 달(達) ~산(山) '으로 대응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계(桂)' 는 '달[月]' 의 이칭이므로 이 글자를 통해 '고(高), 대(大)' 의 의미를 갖는 '달[月] ~달(達)' 을 표기 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도처에 '계룡산' 처럼 '계(鷄)' 자를 쓰는 산이름이 많거니와, 이 글자는 '닭' 의 훈을 갖지만 '달' 과 유사하여 '고(高)' 의 의미를 갖는 산이름으로 사용되어 왔고, 전국적인 분포를 갖는다.

다음으로 '양(陽)' 의 변 '좌부 방' 은 '언덕[阜]' 의 뜻이므로 '양(陽)' 의 본 뜻은 '높고 탁 트인 언덕(陽高)' 이다. 고양군(高陽郡) 은 예전 '고봉(高峰) 현과 덕양(德陽) 현' 을 합친 것으로 '북한산을 끼고 있는 고을' 이므로 이런 지명을 갖게 되었고, 모두 '높은 산 고을', 또는 단순히 '땅 양(陽)' 의 뜻도 된다. 따라서 '계양(桂陽)' 은 '높은[高, 大]산' 또는 '높은 땅' 으로 '계양산' 이 '한강 서편 경인지역에서 높은 산' 이므로 그러한 작명을 했을 수도 있으나, 앞의 고대지명으로부터 연관성을 생각하면 '높은, 큰 고을' 의 의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게 된다.

(3) 길주

1308년(고려 충렬왕 34) 계양도호부는 길주목으로 승격된다. 『인천의 지명 유래』에는 '임금이 좋아하는 고을이므로 길주(吉州)라 했다' 고 기술되어 있다.

'길(吉)' 자가 지명으로 사용된 예는 매우 드물다.

ㄱ) 영동군본길동군(永同郡本吉同郡) 『삼국사기』 지리 2
ㄴ) 영풍현본고구려대곡군(永豊縣本高句麗大谷郡) 『삼국사기』 지리 2

ㄱ)에서는 '길(吉)'이 '영(永)'과 음과 훈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ㄴ)에서는 '영(永)~대(大)'로 대응하여, 이들 사이에 '길(吉)~영(永)~대(大)'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ㄷ) 강양군본대양군(江陽郡本大良郡) 『삼국사기』 지리 1
ㄹ) 대두산성본비달홀(大豆山城本非達忽) 『삼국사기』 지리 4

ㄷ)에서 '강(江)'의 중세국어가 'ᄀᆞᄅᆞᆷ'이고 '대양(大良)'도 'ᄀᆞᄅᆞᆷ'과 유사하게 음차된 것이며, ㄹ)에서 '대(大)'가 '비(非)'의 중세국어 훈(訓) 곧 '그르'로 대응한다. 이 관계에서 '대(大)'가 '*그르~*거러~*가라'와 유사한 음으로 읽혔을 것이고, 그것이 '강(江)'의 'ᄀᆞᄅᆞᆷ'과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시기의 어휘들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추가할 수 있다.

ㅁ) 다 기릐 두어자로ᄃᆡ (皆長尺) 『능엄경언해』 9:108
ㅂ) ᄃᆞᆫ 고리(頭) 『월인석보』 2:55

ㅁ), ㅂ)에서 비슷한 음상을 가진 '기릐[長]'와 'ᄃᆡ고리'의 '고리'가 모두 앞의 ㄷ), ㄹ)과 대응한다.

따라서 '길(吉)'은 '*기르~*그르~*거러~*가라~*고리' 등의 유사한 음차를 통해 '대(大), 장(長), 두(頭)' 등의 의미를 가진 고유어를 표기한 것이며, '길주(吉州)'는 '큰(어른,머리) 고을'의 뜻이 되므로, 이전 시대의 지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4) 부평부(富平府)

앞의 길주목이 1310년(충선왕 2) 부평부로 읍호가 강등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부평구에 이르기까지 '부평(富平)'이란 이름이 700여 년 긴 생명을 이어왔고, 또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부평이란 지명은 금화(金化)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ㄱ) 금화현본고구려부여현…부평군(金化縣本高句麗夫如縣…富平郡)『삼국사기』지리 2

ㄴ) 평주본고구려대곡군…영풍군(平州本高句麗大谷郡…永豊郡)『삼국사기』지리 2

ㄷ) 통진현본고구려평회압현…분진현(通津縣本高句麗平淮押縣…分津縣)『삼국사기』지리 2

ㄹ) 평해군본고구려근을어(平海郡本高句麗斤乙於)『삼국사기』지리 2

ㄱ)에서 '부평(富平)'이 '금화(金化)'에 대응하거니와 '금화'에서 '화(化)'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지명 접미사로 볼 수 있다.

'금(金)'은 고대어의 왕명, 인명, 지명 등에 다수 나타나는 '*검'계의 지명으로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경우와 그의 변형인 '*감, *금, *거무, *가무, *거물' 등 우리나라 전역에 무수한 지명에 나타나며, 일본어의 'Kami(神)', 터키어의 'gam(王)'들도 모두 같은 뜻이다. 따라서 '부(富)'는 이전 시대의 지명들과 같은 의미를 가진 지명소로 '부자의 뜻이 아니라', '왕(王)', 제정일치시대의 '신(神)'의 뜻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평(平)'에 대하여, ㄴ)에서는 '평(平)~대(大)'로, ㄷ)에서는 '평(平)~분(分)'으로 ㄹ)에서는 '평(平)~근을(斤乙)'로 대응한다. 앞의 '길주'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르~*거러' 등이 '대(大)'의 뜻이었고, '분(分)'은 '가르'의 훈을 가지며, '근을(斤乙)'은 '*그르'를 표기한 것이다. 고대국어에서 한자 '음(音)'은 고유어 받침 'ㅁ', '을(乙)'은 'ㄹ', '은(隱)'은 'ㄴ'을 표기하는데 사용된 글자들이다. 또한 '평(平)'의 훈도 '*고라~고르'이므로 이들이 모두 유사하게 '*거러~*가라~*고르~*고라'를 표기한 것이다.

앞의 '안남(安南)'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라~*거러~*고라' 등의 대응이 '대(大)'의 뜻이었으므로 '평(平)'도 음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한자로만 해석하면, 지명소의 하나인 '벌(伐), 곡(谷)' 등과 같은 정도로 이해하거나 '넓은 들' 어느 편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전부터 '수원(水源)이 부족한 부평들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을 것이고, 결코 '부자의 땅'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평'은 '왕(王), 신(神)의 고을' 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 최초의 읍호인 '주부토(主夫吐)'는 음차(音借)를 통해 '*니마도~*니마드~*나마도~*나마드'를 표기했고, '님의 고을' 즉 '왕이 다르시는 고을'의 의미로 재구할 수 있다.

경덕왕 때 고친 읍호 '장제(長堤)'는 이전의 읍호를 '훈차+음차'로 변경했고, 의미는 '어른의 땅', '어른 고을'이므로 '주부토'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고려 초의 '수주(樹州)'는 훈차 수(樹)와 행정 단위 주(州)로 형성된 읍호로 '수(樹)'는 최초의 읍호를 신라와 다른 방법으로 훈차한 것인 바, '*나마도~*나마드'를 나타낸 것이며 의미는 변함이 없었다.

고려 의종 때 고친 읍호 '안남(安南)도호부'에서 '안남'은 음차로 '*아나~*아라'와 '*나마~*나부~*나부' 등의 앞시대의 계승형이 중복표기된 읍호로 재구될 수 있고, 의미는 '대(大), 왕(王), 주(主), 장(長)'였으므로 이전의 의미를 계승한 것이다.

고려 고종 때 고친 읍호 '계양(桂陽)도호부'에서 '계양'만 고유지명인 바, '고(高)'의 뜻이었고, '양(陽)'은 '산, 땅'의 뜻이므로 전체적으로는 '훈차+훈차'된 읍호로 '높은 산(땅)', 또는 단순히 '높은 고을'이므로 이전 시대의 읍호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고려 충렬 때 개정된 읍호인 길주(吉州)에서 '길(吉)'은 고대지명에서 '영(永)~대(大)'로 대응하였던 바, '*기르~*거러~*가라~*고리' 등으로 교체되는 음차로 표기된 것이며 '큰(어른) 고을'의 뜻이었다.

고려 후반 충선왕 때 '부평(富平)'이란 읍호가 출현했고, 그것은 '검[神]'계의 지명으로 '왕(王), 신(神)'의 뜻이었고, '주부토(主夫吐)'로부터 '장제(長堤)', '수주(樹州)', '안남(安南)', '계양(桂陽)', '길주(吉州')'로 읍호가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연면히 계승된 것이다.

2. 조선 후기의 지명 변천

『여지도서』 방리(坊里) 조에 면의 명칭과 방(坊)의 수, 호구를 기록하고 기묘장적(己卯帳籍)을 따랐다고 명기하였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면의 이름은 부내면(府內面), 동면(東面), 당산면(堂山面), 주화곶면(注火串面), 상오정면(上梧亭面), 하오정면(下梧亭面), 수탄면(水呑面), 옥모면(玉毛

面), 석천면(石川面), 동소정면(同所井面), 서면(西面), 마장면(馬場面), 모월곶면(毛月串面) 등이다. 한편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부평 편에는 원호(元戶) 3169, 구(口) 11,589(남 6,109, 여 5,480)명의 호구(戶口)와 함께 15개 면(面), 76리(里), 3도(島)가 기록되어 있는데, 면 · 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읍내면(邑內面) : 상리(上里)
동면(東面) : 이막동(里幕洞), 용종리(龍宗里)
방축리(坊築里), 광정리(廣井里)
당산면(堂山面) : 야리(野里), 굴현리(掘峴里)
양지리(陽之里), 동리(東里)
주화곶면(注火串面) : 장산리(章山里), 오곡리(五谷里)
오금리(五金里), 대장리(大壯里)
상오정면(上梧亭面) : 약대리(若大里), 삼정리(三井里)
내촌리(內村里), 두지촌(斗之村)
도당리(都堂里), 와우리(臥牛里)
마오정리(馬梧亭里)
하오정면(下梧亭面) : 화력리(禾力里), 고리동리(古里洞里)
언담리(彦淡里), 성곡리(成谷里)
여월리(余月里), 작동리(鵲洞里)
수탄면(水呑面) : 온수동리(溫水洞里), 궁리(宮里)
오류동리(梧柳洞里), 천왕리(天旺里)
여사리(如沙里), 백사리(栢寺里)
고척리(高尺里), 한봉리(閒峯里)
옥산면(玉山面) : 소사리(素沙里), 당하리(堂下里)
조종리(曹宗里), 범박동리(凡朴洞里)
과안리(果安里), 벌응절리(伐應節里)
석천면(石川面) : 상리(上里), 중리(中里)
구지리(仇之里), 검대리(儉垈里)
목자리(木子里), 심곡리(深谷里)
동소정면(同所井面) : 귀산리(龜山里), 항동리(項洞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

서면(西面) : 가현리(佳峴里), 화전리(化田里)
갈월리(葛月里), 후정리(後井里)
마장면(馬場面) : 효성리(曉星里), 청천리(淸川里)
석곶면(石串面) : 봉현리(熢峴里), 가정리(佳亭里)
신현리(新峴里),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동(加佐洞)
율도(栗島)

조선시대부터의 지명, 특히 방리의 명칭들은 고유어로 예전의 음차, 훈차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으나, 대개 의미가 상서로운 한자로 새로 작명됐기 때문에 그러한 한자의 해석은 당해 지역과 별 유연성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하에서는 옛 부평 읍지들인 앞에 든 『여지도서』, 『호구총수』, 『부평읍지』에 등재된 방리들 중에서 의도적 작명이 아니고 현지와 유연성이 있는 것들을 살피되 『여지도서』로부터 시작하여 『부평읍지』까지 중복을 피하면서 고찰할 것이다.

1) 『여지도서』 방리의 유래

(1) 부내면(府內面)

『여지도서』 부평부 편의 지도에 계양산 바로 남쪽에 '부내(府內)'라 기록했다. 이전 시대의 편제와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이 시대의 부평은 도호부 시절이었으므로 상 · 하 두 방(坊)을 둔 도호부청 인근이었다.

(2) 동면(東面)

도호부청을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한 면으로 현재의 계양구 임학동 쪽이다.

(3) 당산면(堂山面)

동면의 동쪽 동양동, 귤현동 일대였고 당제(堂祭)를 지내던 산이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4) 주화곶면(注火串面)

현재의 부천시 오쇠동 일대로 '주(注), 화(火)'의 훈이 '불'이다. 고유어 '불, 북'은 같은 의미장을 가졌고 '불거지다, 불두렁, 북달다, 북돋다' 등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거니와, '곶(串)'과 유사한 의미이다. 이 곳의 지형을 따라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화곶(注火串)'은 같은 의미를 중복하여 작명된 것이다.

(5) 상·하 오정면(上·下 梧亭面)

현재 부천시 오정동 일대였다. 정(亭, 井, 丁)들은 옛 마을이름에 자주 사용된 후부요소(後部要素)들로 단순히 마을의 뜻이다. 오정(梧亭)은 상서로운 이름으로 작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6) 수탄면(水呑面)

현재 서울로 편입된 개봉동, 온수동 일대로 12방을 편제한 것을 보면 광범한 관할구역을 가졌던 듯하다.

'수탄(水呑)'에서 '탄(呑)'은 『삼국사기』로부터 사용된 지명소로서 고대국어시기에는 유기음이 분화되지 않았었으므로 '단(旦), 탄(呑)'은 같은 발음 '*tan-v'(v는 모음)로 추정되며, 이는 '곡(谷)'의 뜻이었고, 일본어의 'tani(谷)'와도 대응된다.

(ㄱ) 수곡성현일운매단홀(水谷城縣一云買旦忽) 『삼국사기』 지리4
(ㄴ) 어지탄일운익곡(於支呑一云翼谷) 『삼국사기』 지리4

위의 예에서 보듯이 '곡(谷)~단(旦)~탄(呑)'이 대응하며, '수탄(水呑)은 수곡(水谷)'의 뜻이다.

(7) 옥모면(玉毛面)

『여지도서』 지도에는 대략 현재의 부천시 역곡 일대에 '옥모면'이라 기재되어 있다.

지명에서 '옥(玉)'은 옥의 산지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동사 '옥다~욱다'의 의미장을 한자로 명사화하여 지명에 써서 후대인들은 혼동케 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송도의 옥련동과 같이 '옥은 골', 곧 '해안, 들판이 휘어든 곳에 있는 마을'의 뜻이다. '모(毛)'는 알 수 없는 지명소의 하나이다. 대개 훈을 좇아 '털~덜~들'의 변이로 추정하여 '들[野]'로 추정하면 '옥모'는 '옥은 들'로 볼 수 있다.

(8) 석천면(石川面)

앞에 든 지도에 현재 부천시 심곡동으로부터 서쪽 상동, 중동 인근을 석천면으로 표기했다.

'석천(石川)'은 '돌이 많은 내'이거나 '물이 돌아 흐르는 내', 곧 곡천(曲川)의 경우 자주 명명되었다.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9) 동소정면(同所井面)

앞의 지도에 현재 부평 서남쪽 끝 일대에 표기되어 있고 부평역 남서쪽 일대였다.

'동(同)'이 『호구총수』에서는 '동녘 동(東)'으로 바뀐 바, 한자의 해석으로나, 고유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명이다.

(10) 서면(西面)

서면은 현재의 작전동, 갈산동 지역이었다. 『여지도서』에 서면을 '관문 남 5리'라 기록한 바, 방위를 따라 정확히 명명하지 못한 것을 보면 여타의 면보다 늦게 편제되었던 듯하다.

(11) 마장면(馬場面)

현재의 산곡동, 청천동과 계양구 효성동 일대였다. 경기 인근의 대표적 마장은 강화의 길상목장, 진강목장이 있었고 김포의 섬에도 목장이 있었다는 읍지들의 기록이 있다. 이곳에도 마장이 있었던 듯하나, 『여지도서』 옛 읍지들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2) 모월곶면(毛月串面)

모월곶은 현재의 검단 지역을 제외한 서구 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모월곶(毛月串)은 고유어 지명의 취음(取音)인 듯하나 쉽게 알 수 없다. '물'이 현대국어 직전까지 '믈'이었으므로 이것을 '모월(毛月)'로 취음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서구의 서쪽 해안에 제방을 쌓기 전에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런 지명을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 『호구총수』의 방리

『호구총수』와 앞의 『여지도서』는 30년 정도의 차이로 작성된 문헌이다. 그 사이 부평부의 방리 중에서 면은 '부내면>읍내면'과 신설 '황어면(黃魚面)'이 다를 뿐 그 이외의 면은 『여지도서』와 같되, 방(坊)이 리(里)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 항에서는 신설된 면과 현재의 부평구 지역에 해당하는 리(里)의 명칭만 고찰한다.

(1) 황어면(黃魚面)

'황어면'은 계양구의 둑실, 목상, 이화동 등 근세에 김포와 인천을 오가며 편제되던 경계 지역에 있었고, 예전에 장이 섰기 때문에 '황어장터', 쉽게 발음해서 '황해장터'로 불리던 지역이다.

한강 제방을 일제 강점기에 축조했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곳까지 조수와 한강물이 함께 드나들었을 것이므로, '황어(黃魚)'는 이 지역에서 잡히던 어류와 관련된 지명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늘어지다[連]'의 '늘어-'를 '연(連), 황(黃)'이란 한자 지명어로 사용해 왔다.

예를들면, '황산군…금연산군 (黃山郡…今連山郡)' 『삼국사기』 지리3에서처럼 '긴 산줄기에 형성된 마을, 고을'의 뜻이며, 계양산의 북편 낮은 구릉이 이어진 현재의 계양구 장기동 일대의 지형과 유연성이 있다.

(2) 마장면의 리(里)

청천리(淸川里)와 효성리가 있었다. 효성리는 계양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청천리만 기술한다.

① 청천(淸川)

한문 그대로 '맑은 내 마을'이다.

(3) 동소정(東所井)면의 리

『여지도서』에는 이 면의 한자가 '같을 동(同)'이었으나, 이 문헌에는 '동(東)'으로 바뀌었고,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② 귀산(龜山)리

산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서로운 동물 거북을 숭상하는 샤마니즘의 표현일 수 있다.

③ 항동(項洞)리

'항(項)'이 '목'의 훈을 가지므로 '길목', '관문'의 의미를 가진 마을로 이해된다.

④ 마분(馬墳)리

'말무덤'의 뜻으로 '말'은 '마루[宗]'와 같은 의미장을 가진 고유어로 '크다'의 뜻이다. '말매미, 말잠자리' 등에 화석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큰 무덤', 곧 '고분(古墳)', 또는 '지체 높은 분의 묘'가 있는 마을 정도의 뜻이다.

⑤ 대정(大井)리

'큰 우물'이 있어서 명명된 마을인 듯하다. 조기준의 『부평사 연구』와 조찬석의 『인천의 지명유래』에서는 '큰 우물'과 연관시켜 기술하였다.

(4) 서면(西面)의 리

① 가현(佳峴)리

한자 해석으로 '아름다운 고개'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없다. 좋은 의미를 가진 글자로 명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화전(化田)리

일제 강점기 초인 1914년 당시 조선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목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필사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 부평군 편에는 마을, 산, 골짜기, 들의 명칭들이 한자와 함께 고유어로 기록되어 있다.

앞의 문헌에 '화전(化田)-된 밧'으로 기록했다. '밧'은 '밭'을 관습대로 적은 것이므로 논외지만 '화(化)'의 훈인 '되-'의 관형형 '된'은 '되다' 즉, '건조한, 마른'의 뜻으로 명명된 듯하므로 '건조한 밭'의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갈월(葛月)리

대개의 지명에서 '갈(葛)'은 '칡'의 의미보다는 '크다, 높다'의 뜻을 가진 고대어의 화석형이다. '낱가리', 인간의 머리인 '대가리'나 '터주가리' 등과 산 이름에 '갈뫼(메)'가 많은 바, 모두 같은 뜻이다. '월(月)'도 앞의 '계양도호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명의 전접요소인 때에는 '고(高)' 후접요소일 때는 '산(山)'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므로 '갈월'은 '높은 산'의 뜻이었을 것이다.

④ 후정(後井)리

한자 풀이로 '뒤 우물' 그 이상의 뜻이 없다. 『조선지지자료』에도 '뒤우물'로 기록되어 있다. 『호수총수』 이후 1842년의 『부평부읍지』에는 10개 면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나 '리(里)'의 명칭 대신 『여지도서』에 있던 방(坊)의 수만 기록되어 있다.

3) 일제강점기의 변천

앞에 든 『조선지지자료』의 부평군 편에도 앞의 면 명칭은 예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리(里)의 수가 대폭 증가한다.

동소정(同所井) 소속의 동리(洞里) 편제로 항동(航洞), 구산리(九山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 서면 소속의 가현리, 화전리, 신대리(新岱里), 갈월리, 후정리, 작정리(鵲井里), 도두리(道頭里)와 마장면의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山谷里) 등이 있는 바, 앞의 리(里) 중에서 한자를 병기한 면·리는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거나 신설된 명칭들이다.

1914년 일제가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부평, 인천 지역의 판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편제되었다. 이때부터 부평~서울 서부 지역까지의 관할구역을 자랑하던 '부평'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부평(富平), 인천(仁川)'의 머리글자를 잘라낸 '부천(富川)'이란 기이한 명칭이 탄생했다. 개편 결과를 정리한 월지유칠(越智唯七)의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부천군은 면 수 15, 동리 수 160과 군 소재지를 문학면 관교리에 둔 거대한 군으로 개편되었다.

당시의 군의 명칭만 하더라도 다주(多朱), 문학(文鶴), 소래(蘇來), 남동(南洞), 부내(府內), 계양(桂陽), 오정(吾丁), 계남(桂南), 서곶(西串)과 도서지역 북도(北島), 대부(大阜), 영흥(靈興), 영종(永宗), 용유(龍游), 덕적(德積)으로 내륙과 도서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 후 일제는 1936년 부천군 문학면, 다주면의 일부를 다시 인천부에 환원하였고, 1940년 4월 1일부터는 인천부 소속 부평 출장소와 서곶 출장소를 두고, 옛 수탄, 주화곶, 상하오정, 옥산 석천면을 서울과 부천군으로 이관하였고, 종래의 동·리를 모두 일본식 정(町)으로 바꾸었다.

3. 부평구의 지명 유래

1) 부평동(富平洞)

'부평'이란 명칭은 1310년(고려 충선왕 2) 이전의 '길주목'을 '부평부'로 읍호를 바꿀 때 처음 등장한다. 원래 부평지역은 부평도호부 '부내면(府內面)' 지역으로 도호부청사가 있었으므로 '부평읍내'라 하였고, 현재의 '계산동'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금의 부평지역은 당시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大井里)'로, 옛 부평읍내 지역은 부내면 '부평리'가 되었다. 1940년 제2차 인천부역 확장으로 이 지역은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각 리(里)의 명칭은 모두 일본식으로 변경된 바, '대정리'는 '소화정(昭和町)', '부평리'는 '대정정(大正町)'이 되었다.

광복 후 1945년 인천부고시 제62호에 따라 소화정은 부평동, 대정정은 계산동이 되었다. 1968년 인천시 북구에 속했다가 1995년 인천직할시가 광역시가 됨에 따라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불리게 되었고, 여러 차례 통폐합을 거쳐 2006년 말 현재 부평1~6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부평'이란 지명에 대하여는 앞의 옛 고을의 유래에서 밝혔으므로 생략하겠다. 단순히 한자를 해석하여 '부유한(넉넉한) 벌판'의 뜻일 수 있지만, 한강 제방이 축조된 것은 일제강점기때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부평평야는 불모지였을 것이다. 또한, 해안에 제방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도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였다. 1842년(헌종 8)의 『부평부읍지』에 5개의 제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소정면의 '혜기제(鞋機堤) 금폐(今廢)'라 한 것을 보면, 수원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문헌의 토산(土産) 조에도 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부유'의 의미는 적합하지 못하다.

(1) 대정리(大井里)

큰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서 생긴 지명이라 한다. 이 우물은 지금의 우리은행 앞 부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부평역에서 부평읍으로 가는 행길 좌측으로 길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며, 이 밖에 길 오른편쪽으로 윗마을 동네 한가운데에 또 하나의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로터리 속으로 파묻혔다고 전한다.

옛 지명에서 정(井, 丁, 亭)은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쓰는 후접요소(後接要素)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정리'의 '대정(大井)이나 대정(大丁)'은 반드시 어떤 우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은 아닐수 있다. 옛날에는 아랫마을이 대정리의 원마을로서 가장 큰 대촌(大村)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마을에 큰 우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개 '큰 마을'이란 뜻에서 마을 이름을 대정리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리는 현 부평동의 옛 이름이다.

(2) 동수동(東樹洞)

쌍굴다리를 지나 경인국도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동수동에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부평6동으로 분동되기 전에 '부평2동 동수동'이었기 때문이다. 동수동은 현재의 부평동 대부분이 영조 때의 『여지도서』부터 '동소정면(同所井面)'으로서 흔히 '동수재이'로 불러왔다. 그러나 '동소'가 언제 '동수', 또한 한자로 '동수(東樹)'라 표기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전거(典據)는 없다.

(3) 백운주택

1970년을 전후하여 철로를 따라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름을 '백운주택'이라 하였다. 유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부평사람들이 볼 때, 이 고개(산)에 구름이 하얗게 끼면 비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백운(白雲)'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후에 생겨난 전철역 이름도 '백운역'이 되었다.

(4) 부영주택(府營住宅)

부평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아래쪽에 집을 지어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처음에는 인천부에서 지었기 때문에 '부영주택'이라 하였다.

(5) 부평삼거리 · 부평사거리

경인국도와 마장길이 만나는 삼거리를 '부평삼거리'라 하나 지금은 부평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포함하여 부평삼거리라 한다. 이렇게 볼

때, 부평삼거리는 교차로라기보다는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시내를 복개하여 주안산 고갯길을 따라 만수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 '부평삼거리'가 '사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평사거리'라고 고쳐야 하나 지금까지의 관습대로 '부평삼거리'로 부른다.

(6) 산곡동입구(백마장입구)

지금의 산곡4동을 '백마장'이라 부르기도 하거니와, 부평로(富平路)에서 원적산길(옛 천마로)로 꺾어지는 삼거리 일대를 '백마장 입구'라고 불렀다. 이것은 1940년 4월 1일 당시 산곡리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일본식 이름으로 백마정(白馬町)이 되었는데, 이 백마정이 백마장으로 바뀌고 그 입구가 '백마장 입구'가 된 것이다. 백마장은 일본지명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산곡동 입구'라고 고쳐 부르고 있다.

(7) 삼능 · 삼능사택(三菱舍宅) · 홍중사택(弘中舍宅)

지금의 부평2동 전체를 '홍중사택' 또는 일본말로 '히로나까' 사택이라고 불러왔다. 이것은 지금의 동아아파트 남쪽 건너편 철로변에 모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현재 '부평공원'이 된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홍중(弘中)이라는 군수공장이 있었고, 이 군수공장의 종업원 사택이 지금의 부평2동에 수십 채가 있었으므로, 이 사택을 '홍중사택' 또는 '히로나까사택'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 후 '히로나까'가 '미쓰비시(三菱)'로 바뀌므로 사택이름도 '히로나까사택'에서 '미쓰비시사택' 또는 '삼능사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삼능사택을 그 후 '삼능'으로 줄여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능'은 '삼능사택'에서 유래된 것으로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이다.

(8) 소반재 · 소반재말

일제 때 삼능사택을 지을 당시 일인들은 현 감리교회가 있는 앞쪽에 최신식 높은 소방서를 지었다. 이 소방서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으므로 이 언덕을 '소방재'라 부르게 되었고, 이 후 이곳에 마을이 조성되니 '소방재말'이 된 것이며, '소방재말이, 소반재말'로 음운변화한 것이다.

(9) 신복동(新福洞) · 고니새말 · 고니시말

1930년대만 해도 부평에 인가라고는 원마을인 하촌에 약 30여 호, 부평역전(윗마을)에 10여 호, 수도사거리에 5~6 호, 그리고 신트리에 서너 집뿐이었다. 부평역과 수도사거리 동쪽 벌판은 거의 불모지였는데, 일본인 고니시(小西)라는 사람이 이곳에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사고, 지금의 천주교 성당이 있는 근처에 직경 50m가 넘는 큰 저수지를 파고, 그 옆에서 살았다. 그 후 이 곳에 고니시와 더불어 대여섯 집이 모여 살게 되니 '고니시말(小西村)'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 후 이 마을의 유지 최규헌, 원유본, 유상목 등이 '고니새말'이란 이름이 못마땅하여 새로운 이름, 곧 '새로 복을 받는 마을'이란 뜻으로 '신복동'이라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10) 신부동(新富洞)

일제강점기에 동사무소 자리(현재는 옛 북구청이 있던 근처)를 광복 후 교회로 사용한 적이 있어 '예배당촌'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인가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새로이 부(富)해가는 마을, 또는 새로운 부평동'이라는 뜻으로 '신부동'이라 부르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

(11) 신트리 · 윗신트리

부평구청 뒤 근린공원의 남쪽 일대의 주택지를 일제강점기 초에 필사로 작성된 『조선지지자료』에 '신대리(新垈里) – 신트리'라 불렀다. 이곳은 척박한 불모의 땅인데, 광복 후 차츰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그 후 20여 호의 마을이 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먼저 생긴 신트리를 '윗신트리'라 하고 나중에 생긴 근린공원 북쪽의 신트리를 '아랫신트리'(갈산동에 속함)라 구별하여 불렀다.

(12) 아랫마을 · 하촌(下村) · 동수재이

'아랫마을'은 과거 대정리 시절 동수재이의 원마을로서 윗마을보다 규모가 큰 대촌(大村)을 이루었다. 로터리에 파묻힌 '윗마을보다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랫말' 또는 '하촌'이라 불렀다. 하촌에서 동쪽 일대는 인가도

없는 농경지였으나, 그 후 도시화로 상가와 주택지로 변했다.

(13) 아랫신촌 · 윗신촌

도로변 신촌교(新村橋)에 가까운 쪽을 '아랫신촌', 그 위쪽(서편)을 '윗신촌'이라 했다

(14) 윗마을

윗마을은 부평역이 생김으로써 부평역 앞쪽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인데, 대정리의 원마을인 아랫말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윗마을'이라 하였다. 이후 윗마을이 대정리의 중심마을이 되었으나 1940년 이후 일제에 의한 도시계획에 따라 윗마을은 모두 로터리가 되었고, 대신에 로터리 아래(전 부평극장 위)로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여 나갔다.

(15) 자가밭말

'자가밭말'은 윗마을 길 건너에 이웃해 있었으며, 현 계산동으로 가는 길에서 신촌방향으로 꺾어지는 모퉁이 앞 부근에서 문화오피스텔앞 부근까지로, 역시 모두 로터리와 신작로로 들어가고 말았다. 자가밭말은 이곳에서 '자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자가밭'은 '자갈밭'이 음운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나 국어 음운규칙에서 'ㅂ' 앞의 'ㄹ' 탈락규칙은 없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6) 평화촌 · 다다구미

지금의 롯데백화점 앞 원통천 복개변 개울가 일대를 '다다구미'라 했다. 이곳은 부평조병창 확장공사 때, 하청업자인 다다구미(多田組)의 현장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다. 해방을 전후하여 다다구미는 철수하고 빈터만 남아 있었는데 그 곳에 무허가 판잣집을 다닥다닥 붙여 짓고 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마을을 다다구미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계속 다다구미하고 부르게 되었는데, 1960년대 초반 경, 마을 이름을 '평화촌'이라 고쳐짓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으나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17) 희망촌

삼능사택에서 경인국도를 따라 부평삼거리쪽 도로상에 '원통이고개'를 만나게 된다.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남쪽(공동묘지 쪽)에 '작은 골짜기에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희망촌'이라 한다. 이 곳은 1950년 경까지만 하여도 인가가 없는 골짜기였는데, 1960년 경부터 몇 가구가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 모두 앞날에 희망을 갖고 살자 하여 '희망촌'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한다.

(18) 부평로(富平路)·김포로·신작로(新作路)

부평역에서 부평읍내를 거쳐 '김포로 가는 도로'를 '김포로(金浦路)'라 하였다. 부평에서 김포로 가는 길이란 뜻이다. 1940년 부평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되고 조병창을 건설할 때, 그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평역전 일대의 도시계획을 수립, 현재와 같은 큰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초기에는 부평역에서 수도사거리까지 길을 넓혔는데 이 길을 새로 만든 길이라 하여 '신작로'라 불렀다. 광복 후, 이 도로를 '부평로'라 하고 계산동까지 크게 넓혔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나뉘었으므로 현재의 '부평로'는 부평역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를 뜻하게 되었다. '부평로'는 '부평의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19) 경인로(京仁路)·경인도로·경인국도

부평2동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이 길은 '서울-인천 간을 연결하는 국도(國道)'이기 때문에 '경인로, 경인도로' 혹은 '경인국도'라고 한다. 가톨릭성가병원 앞쪽으로 가는 것이 원래의 경인도로였고, 지금의 길은 새로 만들어 넓힌 것이다.

(20) 경원로(慶源路)·신촌로(新村路)·원통로(元通路)

옛 신촌로는 쌍굴다리오거리에서 부평역을 거쳐 부평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부평역에서 신촌까지는 조병창을 건설할 때 만든 신작로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에서는 이 길을 원통로(元通路)와 연결시켜 '경원로'로 개칭하였다. 경원로는 남동구 경계를 지나 저 멀리 외암도사거리까

지 연결되는데, 이것은 '인천의 옛 이름 경원군(慶源郡)'에서 딴 것이다. 한편 원통로는 부평서여중에서 부평도서관 앞을 지나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새로 생긴 큰 길로, (작은) 원통고개를 넘는 길이므로 이름을 '원통로'라 하였던 것인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원로'로 바뀌었다. 그리고 옛 신촌로인 부평삼거리에서 신촌사거리까지는 '마장길'이다.

(21) ⑨장제로(長堤路) · 부흥로(富興路)

굴다리오거리에서 계산동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부평5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길은 본래 부흥시장의 이름을 따 '부흥로'라 하였는데 최근에 김포시계까지 연장하여 '장제로'로 바꾸었다. 장제로는 신라시대 부평의 이름 '장제군(長堤郡)'에서 딴 것이다.

(22) 동수로

동수역에서 가톨릭성가병원 쪽으로 가는 옛 경인국도로, 옛 경인국도가 송신고가교를 넘어 길주로 교차점까지 이르는 길과 합쳐서 '동수로'로 명명하였다. '동수로'는 예전에 대정리, 마분리, 항동, 구산동 일대가 '동소정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부평6동을 부평2동 '동수동'이라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린 것이다

(23) 대정로(大井路)

시장역오거리에서 굴다리오거리 사이의 길을 '대정로'라 한다. 부평역전 일대가 옛날에는 대정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 '대정로'로 하였다.

(24) 부원로(富元路)

부원중학교가 있는 경원로와 원적산길 교차점을 연결한 도로로 부평1동과 산곡4동(산곡3동 일부 포함)과의 경계를 이루고, 동아아파트, 주안장로교회, 욱일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로 '부원로'는 부원중학교의 이름을 딴 것이다.

(25) 시장길

부평역사거리에서 부흥오거리 사이의 길로 부평5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길은 부평시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길'로 하였다.

(26) 원적산길 · 철마로(鐵馬路)

산곡동 입구(옛 백마장 입구)에서부터 산곡동을 거쳐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길로서, 산곡동까지는 역시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다. 산곡동에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산은 본래 원적산(元積山)인데, 그 동안 철마산(혹은 천마산)으로 잘못 알고 이 관통로를 '철마산관통로'라 하고, 이 길 전체를 '철마로'라 이름하여 왔는데, 최근에 '원적산길'로 바로잡았다. '원적산길'은 '원적산을 넘어가는 길'이란 뜻이다.

(27) 장고개길

부평로와 부원로 사이를 최근에 연결시킨 도로이다. 이 길은 장차 서구와 경계인 '장고개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장고개길'이라 하였다. 동으로는 부흥오거리를 지나 부천시계와 만난다.

(28) 부평역사거리

부평지역이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된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매우 큰 로터리로서 옛 대정리의 중심 마을인 윗마을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부평역 앞에 있기 때문에 '역전로타리, 부평로타리, 부평역로타리, 부평역광장로타리' 등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어 이름도 '부평역사거리'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29) 굴다리오거리 · 쌍굴다리로타리 · 농협로타리

부평역에서 서울방향으로 부평1동의 동경계(洞境界)를 이루는 곳에 있는데 위에 쌍굴다리가 있기 때문에 '쌍굴다리로타리'라 하였다. 그 후 로터리에 농협이 생김으로써 부개동 사람들은 '농협로타리'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로터리 대신에 오거리가 되어, '굴다리오거리'라 부른다.

(30) 대정사거리

장제로 상의 굴다리오거리 다음에 있는 사거리이다. 부평5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평동 일대가 예전에는 '대정리' 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 '대정사거리' 라 하였다.

(31) 동소정사거리

경인로에서 부평 굴다리오거리로 꺾어지는 사거리로 예전의 '동소정면' 을 좇아 '동소정사거리' 로 하였다. 남쪽으로는 남동구와 바로 연결되는 '만월산터널' 로 이어진다.

(32) 동수(東樹)역사거리 · 삼능사거리

가톨릭성가병원 쪽으로 가는 옛 경인국도와 지금의 경인도로가 갈라지는 사거리를 삼능에 있는 사거리라 하여 전에는 '삼능사거리' 라 불러왔으나, 이곳에 지하철 동수역이 생겨 '동수역사거리' 라 부른다. '동수(東樹)' 는 『여지도서』부터 '동소(同所)' 였으나, 글자가 모두 바뀌었다.

(33) 문화사거리

부평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꺾어지는 사거리를 '문화사거리' 라 한다. 명신당이 있는 쪽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사거리' 가 된 것이다.

(34) 부흥오거리 · 부흥로타리

부흥로타리도 부흥시장 앞에 새로 생긴 로터리이기 때문에 '부흥로타리' 라 해왔으나 이곳에 로터리는 없고 오거리가 되어 지금은 '부흥오거리' 라 부른다.

(35) 신촌사거리

경원로와 마장길이 만나는 교차로로 인근에 부인고가교가 있다. 이 일대가

신촌에 해당하므로 '신촌사거리'라 한다.

(36) 수도사거리

부평대로(富平大路) 옆 부평동 439번지 일대에 상수도 가압 펌프장이 있다. 인천에 처음 상수도가 개설되어 노량진 정수장에서 인천 송림동 수도국산까지 송수되는 5백 밀리 상수도 관이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 수도관 지상에는 4미터 폭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그래서 이곳이 옛 김포국도와 사거리를 이루게 되었으며, 인가도 없던 빈터에 1930년을 전후하여 인가가 생기기 시작하여 마을이 되니, 이곳을 '수도사거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37) 부평역전 · 역전 · 역전앞

부평역은 1900년 9월 18일에 건설되었으며, 애초에는 조그마하였으나, 현재에는 경인전철, 인천지하철1호선과의 환승역으로서 지하 4층, 지상 4층의 큰 건물로 웅장하게 서 있다. 부평역이 생겨서 자연히 역 앞에 상가, 인가가 들어서게 되니 이곳을 '역전' 또는 '역전앞'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윗마을과 같이 로터리에 파묻혀 없어진 상태다.

(38) 백운역

경인전철 부평역과 동암역 사이 백운주택 인근 '백운고가교 밑에 개설한 전철역'이다.

(39) 부개역

경인전철 부평역과 부천의 송내역 중간 '부개동'에 개설한 전철역으로, 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인근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40) 시장역

옛 북구청 입구 사거리에 인천지하철1호선 역이 생겼는데, '부평시장이 가깝다' 하여 이 역 이름을 '시장역'으로 하였다.

(41) 시장로타리

시장길과 대정로가 만나는 교차로인데, 자유시장에 연이어 길 건너에 부흥시장이 생기고 시장 사이에 있는 로터리이므로 '시장로타리'로 부른다.

(42) 남부고가교

이 고가교는 옛 신촌로에서 삼능으로 가기 위해 철로 위로 건설된 고가교로 1978년에 준공된 것으로 최근에는 차가 다니기에 너무 협소해서 2006년 부평공원 위로 새 고가교를 가설하였다. 부평의 남쪽과 연결되므로 '남부고가교'라 하였다.

(43) 부인고가교(富人高架橋) · 부안고가교

백운역 위에 있었으나 역을 인천 쪽으로 옮겨 역사와 동서로 100여 미터 떨어진 신촌에서 부평삼거리 쪽으로 전철길을 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가교를 말한다. '부평과 인천을 잇는 고가다리'라 해서 '부인고가교'라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안고가교'로 잘못 쓰고 있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다.

(44) 부흥시장 · 새시장

1960년대 이후, 자유시장 길 건너에 크게 시장을 만들고 '크게 잘 되라는 뜻'으로 '부흥시장'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부흥시장 전신을 '새시장'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 만든 시장'이므로 붙인 이름이다.

(45) 공설시장

해방 직후 인천시에서는 부평지구 공설시장을 세우기로 하고, 지금의 북부교육청 북쪽 주택지대를 선정하여 구획정리를 하고 상가를 조성하여 '부평공설시장'이라 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상인들이 입주하였을 뿐,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반면 길 건너 부평4동 현 명신당(明信堂) 뒤편으로 상인들이 모여 상가를 조성하고, 점차 번성하였고, 후에 '자유시장(自由市場)'이 되니

공설시장은 주택가로 변했다.

(46) 백마교(白馬橋)

부평로에서 원적산길로 꺾어져서 산곡동 입구, 부평1동 62-11에 있다. 이것은 원통천(元通川)을 건너기 위해 가설된 것으로서 일제시대부터 있었다. '백마교'는 옛 '백마장 입구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7) 신촌교(新村橋)

부평3동 270번지에 있으며, 원통천을 건너는 다리로 신촌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48) 신촌2교

'신촌2교'는 부평1동 315-3번지에 있는 것으로 조병창을 건설할 때 원통천을 건너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은 경원로(옛 신촌로)와 원적산길을 잇는 대로로 확장 되었다. 신촌(부평3동)과 경계하고 있으며, 그 위쪽 신촌에 있는 것이 '신촌교'(또는 신촌1교)이기 때문에 이 다리는 '신촌2교'라 명명한 것이다.

(49) 원통산(元通山)

『여지도서』에는 원통산이 기재되지 않았고, 1842년, 1871년의 『부평부읍지』의 지도에 부평 서남 끝에 원통산(元通山)을 기재했다. 그러나 앞의 시기에 작성된 『인천부읍지』에는 당해 산에 각각 주안산(朱雁山), 원통산(元通山)이라 기재했다. 어느 산이 원통산인지 정확하게 전해오지 않는다. 지금의 약사사(藥師寺)가 있는 주안산(朱雁山)을 원통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지금의 맹아학교 뒷산을 원통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도상에서 볼 때, '주안산'을 부평에서 원통산으로 부른 듯하다.

(50) 당산

부평남부역으로 나가면, 대련연립주택 서쪽 끝 산 정상 부근을 '당산'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서 동제를 지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일본인들이 이 위에 신사(神社)를 짓고 강제로 참배케 한 아픈 역사도 있었다.

(51) 원통고개 (元通峴) · 원통이고개

부평삼거리에서 간석오거리에 이르는 고개를 '원통고개' 또는 '원통이고개'라 부르는데 '원통산을 따라 명명'된 것이다. 이 원통고개에 대하여 몇 개의 전설이 있다.

예로부터 삼남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는 대동미(大同米)의 운송을 험난한 강화 '손돌목'을 지나 한강을 거슬러 경창(京倉)으로 보내는데 항상 손돌목을 지나기가 위험하여 이 뱃길을 단축하고자 굴포(掘浦)를 착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고종 때 권신 최충헌의 아들 최이(崔怡)가 먼저 구상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또 조선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가 한강에서 인천 북항을 잇는 수로를 뚫는 굴포작업을 시작하여 한강에서 부평 뜰을 거쳐 원통이고개 앞까지 이르렀다 한다. 그런데 이 고개(산)가 전부 암반이므로 뚫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니 그간 '큰 고생이 허사로 돌아간 것이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가 새로이 도읍지를 물색할 때, 무학대사가 부평에 와서 살펴보니 계양 명산에 한강을 끼고, 들이 넓어 도읍지에 적격일 뿐 아니라, 산골짜기도 꼭 백 개라 돌아가 이성계에게 그 사실을 품계 하였다. 그런데 그후 이성계가 백관을 거느리고 다시 와서 자세히 세어보니 산골짜기가 한 골이 모자라는 99개밖에 안되어 그만 도읍지를 단념하게 되었다. 그 연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이 원통이에 봉우리가 있어 본래 골이 깊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얕은 언덕으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아! 원통하고 원통한지고! 봉우리가 언덕으로 변하다니!" 하고 탄식하게 되어, 이 때부터 이 산을 '원통산'이라 부르고 또 이 고개를 '원통이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전설도 산이름, 곧 원통산에 이끌려 그럴듯하게 윤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것이다.

『대동지지』 김포 편에 "최이와 조선 중종조의 김안로가 도랑을 파서 바다와 통하게 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조가 '개경이 아닌 서울로 통하는 물길을 뚫을 까닭이 없고', 김안로도 '사전에

지형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굴포천 하류는 유속이 완만한 곡천(曲川)이므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 공사를 했던 것을 후대에 산이름 원통산과 함께 윤색한 듯하다.

(52) 작은원통이고개 · 원통이고개

부평3동에서 철로변을 따라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작은원통이고개'이다. 그런데 십정동 사람들은 이 고개를 그냥 '원통이고개'라 하기도 한다. 마을의 전설로 "일제강점기에 경인철로를 놓기 위하여 산을 폭파할 때 이곳에 묻혀 있던 장사의 목이 잘려나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장사는 삼일만 더 있었으면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삼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어 매우 원통하고 안타깝게 되었다" 하여 '원통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작은원통고개'는 '본래의 원통고개가 경인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3) 부평공원

신촌과 남부고가교 사이에 신설한 공원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군수공장, 광복 후에는 국군부대가 주둔하던 터에 현재는 '부평공원'이 조성되어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54) 원통천(元通川)

굴포천의 상류를 흔히 '원통천'이라 한다. 원통천의 발원지는 부평공동묘지 내에 있는 칠성약수(七星藥水)와 부령약수(富嶺藥水)가 있는 곳이다. 현재는 상당부분이 복개되어 롯데백화점이 있는 쪽은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통천'의 '원통'은 '원통산'에서 유래된 것이다. 1842년, 1871년 작성된 『부평부읍지』에 원통산의 한자 표기가 모두 '으뜸 원(元)'으로 되어 있다.

(55) 큰우물

우리은행 앞 부근에 직경 5m나 되는 '큰 우물'이 있어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면 이름이 '동소정면'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전언에 의하면 윗마을 가운데에 큰 우물이 또 있었고, 윗마을에서는 보통 그것을 '큰우물'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56) 쌍굴다리

'쌍굴다리'는 부평역에서 서울방향으로 부평1동의 동경계(洞境界)를 이루는 곳에 있는 '철로 다리'이다. 부평역 방향에서 경인도로로 넘어가는 본래의 길이 있었으나, 길이 좁고 또 위험하여 이곳에 철길 밑으로 굴다리를 크게 파고 서울로 가는 새 길을 놓았다. 그런데 이 굴다리는 너무 폭이 넓어 가운데에 기둥을 세웠으므로 '쌍굴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굴다리'로 부르게 된 것이다.

(57) 부평공동묘지

부평2동 '큰골' 안에 있으며, 인천에서 제일 큰 시립공동묘지이다. 부평에 있기 때문에 '부평공동묘지'라고 부른다.

(58) 부평조병창(富平造兵廠)

지금의 부평1동 동아, 대림, 욱일아파트 자리와 산곡3동과 4동의 미군부대, 현대, 우성, 동남, 삼일아파트 지역, 그리고 화랑농장이 들어서 있는 일대를 '조병창' 또는 '부평조병창'이라 했는데 이것은 일제 때 이 지역이 무기를 제조하던 군수기지였기 때문이다.

광복을 맞이하여 이 조병창 자리 일대에 미군 '애스컴(ASCOM)'이 들어와 주둔하였으며, 이후 미군기지가 축소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단지, 학교가 건설된 것이다.

2) 산곡동(山谷洞)

현재의 '산곡동(山谷洞)' 은 1914년 개편 때는 부천군 마장면 '산곡리' 였고, 일제강점기 초에 필사로 작성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산곡리-뫼골말' 로 기록되어 있다. '뫼끝말' 로도 불러왔는데, '원적산의 남쪽 줄기가 휘어돈 골 끝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 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곡리는 예전 방리(坊里-면.리) 시절 산곡동의 명칭이었다. 2006년 말 현재, 산곡동은 1~4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1) 뫼끝말 · 뫼꼴말 · 뫼꼬지 · 뫼꽃말[山花村] · 꽃밭골[花田谷]

'뫼끝말' 은 마을 서쪽 뒷산인 '원적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린 끝에 마을이 형성'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뫼끝말' 을 '뫼꼴말' 이라고도 하는데 '뫼꼴말' 은 뫼의 남쪽은 작은 골짜기이고 북쪽은 큰 골짜기를 이룬 곳에 마을이 있어 '산골짝의 마을' 이란 뜻으로 '뫼꼴(산골)말 혹은 산곡리' 라 부르게 된 것이다. '뫼꼬지' 는 '뫼끝말' 이 '뫼의 끝' 이기 때문에 '뫼의 곶(串)이 되므로 뫼꼬지' 가 되었다. '뫼꽃말' 에서 '꽃' 의 중세국어가 '곶' 이므로 '뫼곶말>뫼꽃말' 의 자연스런 변천을 겪게된 것이지만 '꽃[花]' 의 뜻은 아니며, '꽃밭골' 은 새롭게 조어(造語) 된 것으로 원래의 지명과 거리가 있다.

(2) 검정사택 · 도깨비시장

검정사택은 '집 벽을 콜탈을 먹인 종이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 으로 지금의 '도깨비시장 일대' 를 말한다. 도깨비시장은 옛날 미군부대 유출 물건을 팔 때 단속이 나오면 게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3) 백마장(白馬場)

신곡동 부근 사택 밀집지대를 흔히 '백마장' 이라 부른다. 그러나 백마장은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을 백마정(白馬町) 이라 했던 것이 변천한 것이다.

(4) 양성골 · 안성굴 · 성안골 · 성안굴

현재 한일초등학교가 자리한 골짜기로 그 생김이 마치 '성을 쌓아 놓은 듯' 하여 '성안골' 또는 '성안굴' 이라 하던 것이 반대로 '안성골' 이 된 것이며, 이것이 후에 '양성골' 이 된 것이다.

(5) 장끝말[場末村]

장말고개 동쪽 밑에 약 20여 호의 마을을 '장끝말' 이라 하였다. '장끝말' 은 '마장뜰의 끝' 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1935년경 일제가 이곳에 조병창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용령을 내리고 징발해서 마을이 없어졌고, 지금 이곳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6) 큰골 · 꽃뫼초큰골

뫼끝말과 마재이(청천동) 사이에는 원적산에서 흐르는 큰 시내가 있어(이것은 청천이 아님) 이것을 따라 올라 가면, 산 중턱에 넓은 벌판이 나오는데 이곳을 '넓은 골' 이라 '큰골' 이라 불렀다. 그리고 '꽃뫼초큰골' 이란 '산곡동에 있는 큰골' 이란 뜻이다.

(7) 화랑농장

지금의 현대아파트와 부광고, 약수터가 있는 '언덕 넘어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을 '화랑농장' 이라 부른다. 화랑농장은 1950년대 초에 상이용사 출신이며 제2대 시의원을 지낸 김국환과 진상구 등이 이곳에 농장을 설치하고 이름을 '화랑농장' 이라 한데서 연유한 것이다.

(8) 안남로(安南路), 백마로(白馬路)

산곡2동과 산곡4동을 경계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본래는 '백마장(산곡동)에 있다 하여 백마로' 라 불러 왔으나 최근에 동수역사거리까지(현재는 산곡남중학교까지 밖에 길이 나지 않음) 연결시켜 '안남로' 로 개칭하였다. 안남로는 '부평의 옛 이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에서 따 온 것이다.

(9) 경원로

2001아울렛 앞을 지나가는 길을 원래 '신촌로'라 하였는데 최근 이 길을 원통로와 연결시켜 '경원로'로 개칭하였다. 경원로는 남동구 경계를 지나 저 멀리 외암도사거리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은 인천의 옛 이름 '경원군(慶源郡)'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10) 원적산길

'산곡동 입구(옛 백마장 입구)에서부터 산곡동을 거쳐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길'로서 산곡동까지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길이이지만 4차선으로 확장하였다. '원적산길'은 '원적산을 넘어가는 길'이란 뜻이다.

(11) 장고개길

서구 경계인 '장고개'를 넘어 서구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장고개길'이라 하였다. 이 길은 동으로는 시장오거리, 부흥오거리를 지나 부천시계에까지 이른다.

(12) 마장길 · 청천로(淸川路)

산곡3동을 관통하는 길로 부평삼거리에서 신촌사거리, 원적산사거리를 지나 새벼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새로 생긴 큰 길이다. 이 길은 지금까지 청천동을 관통하는 길이라 하여 '청천로'라 했다가 '마장길'로 바뀌었다. 이것은 옛날에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일대를 '마장면(馬場面)이라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3) 마장사거리

마장길과 길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마장뜰에 있다 하여 '마장사거리'로 하였다.

(14) 부평전화국사거리

안남로와 원적산길이 만나는 사거리를 말하는데 '인근에 부평전화국'이 있어 '부평전화국사거리'라 한다.

(15) 산곡사거리

안남로와 길주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산곡동에 있다' 하여 '산곡사거리'로 하였다.

(16) 원적산사거리

마장길과 원적산길이 만나는 사거리로 원적산의 이름을 따서 원적산사거리로 하였다.

(17) 원적산(元積山)

옛 읍지들의 지도에 의하면, 부평부(富平府) 남쪽 15리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쪽으로는 안하지고개에서 천마산에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장고개에서 원통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는 옛 마장면과 석곶면을 경계한 산이었고 지금도 부평구와 서구를 경계하는 산이다. 『여지도서』 이후 옛 부평부 읍지들에 모두 같은 한자인 원통산(元通山)로 기록되어 왔다. 한 때 부평 지도, 행정적으로 철마산, 천마산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바로잡았다.

(18) 서산(西山)

화랑농장 서쪽에 있는 산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서쪽에 있다' 하여 '서산'이라 부른다. 함봉산의 북쪽 줄기이다

(19) 함봉산

부평도서관 뒷산을 함봉산이라 한다. 옛날 이 산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호랑이가 살았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함봉산이란 호랑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산이란 뜻인데 이것은 한자 풀이일 뿐 확실치 못하다. 함봉산을 호봉산

(虎峰山)으로도 부르는데, '함'자가 '호(虎)변'에 '함(咸)'을 쓴 글자인 바, 이 글자를 호(虎)자로 잘못 읽은 결과다.

(20) 원통천(元通川)

원통천은 '원통산에서 발원한 시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1) 청천(淸川)

큰골에서 뫼끝말과 마재이 사이로 흐르는 이름 없는 이 개울을 청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오십년 전만 해도 이 개울물이 아주 맑았기 때문이다.

(22) 구루지고개[九老峴]·구르지고개·서산고개[西山峴]

화랑농장에서 서쪽 산을 넘어 서구 '가좌동이나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구르지고개는한국전쟁 이후, 생선장수나 소금장수 등이 많이 넘어 다녔는데, 경사가 급하여 그만 '굴러 넘어지지'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한다. 또는 일제 때 이 산에 군용으로 굴을 많이 파 놓았기 때문에 연유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이 산에 굴이 서너개 남아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새우젓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구로현(九老峴)이란 한자 지명은 구르지고개를 억지로 한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산고개'는 '마을 서쪽에 있는 산을 넘는 고개', 또는 '서산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23) 밤재·밤고개[栗峴]·밤나무고개

뫼끝말 남쪽 지금의 마곡초등학교 남쪽 골짜기를 '밤나무골'이라 하는데 이 골짜기로 넘어 들어가는 작은 고개가 '밤나무고개'이다. 밤나무골에 있는 고개이기에 '밤재, 밤고개, 혹은 밤나무고개'라 한 것이다.

(24) 장끝고개[場末村]·장고개·장현(場峴, 長峴)

원적산 줄기가 남으로 뻗어 원통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장끝고개'가 있다. 효성동에서 남쪽으로 저 멀리 부평조병창까지의 초지 무성한 넓은 벌판을 옛날에는 '마장뜰'이라 불렀는데, 장끝고개는 이 '마장뜰의 끝'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장고개'는 '장끝고개'의 준말이지만, 장현(長峴)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장끝고개는 부평에 있는 고개 중에서 가장 낮은 고개였기 때문에 1906년 인천에 수도국을 설치할 때 노량진 수원지에서 송현동 배수지까지 구경 500mm나 되는 수도관을 이 고개를 넘어 설치 공사하였다.

(25) 백마2교

산곡4동 135번지에 위치한 이 다리는 본래 조병창 안으로 흐르던 원통천 위에 놓인 다리로 원적산길에 있다. 백마2교의 '백마'는 '백마장'에서 유래되었으며, 지금의 '원통천 위에 놓인 다리가 백마교'이기 때문에 '백마2교'라 한 것이다.

(26) 밤나무골

뫼끝말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7) 마장뜰[馬場坪] · 마쟁이들

새별이에서 남쪽 저 멀리 부평조병창까지의 초지 무성한 넓은 벌판을 '마장뜰 또는 마쟁이들'이라 하였다. 이곳이 옛날에 말을 기르던 말 목장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전해오나 읍지들에는 그런 기록은 없다.

3) 청천동(淸川洞)

청천동은 『호구총수』부터 마창면 청천리로 편제되어 있었고, 그후의 부평부 읍지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마장면 '청천리－말근내'라 기록되어 있다. 원적산에서 발원한 냇물이 맑았기 때문에 '맑은내' 또는 '청천'이라 불러 왔고, 이 청천 시내 인근의 마을을 '청천리'라 하였다. 청천동은 2006년 말 현재 1 · 2동으로 나뉘어 있다.

(1) 마제이 · 마장뜰 · 맑은내 · 청천리

지금의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일대를 옛날에는 '마장뜰' 또는 '마제이'라 했다. '마장뜰'은 이곳이 억새풀만 우거진 초지였기 때문이며, 고려시대부터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장면(馬場面)의 사무소'가 '청천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장뜰' 하면 주로 '청천리'를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마장면을 '마제이'라고도 부른 것은 우리말에서 'ㅇ'을 탈락시키고 쓰는 관습, 곧 '독정→독제이, 완정→완제이' 등에서 볼 수 있다.

(2) 양계마을

마제이[淸川里]에서 '안하지고개' 사이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곳이 옛 안하지(雁下池)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원적산 골짜기로 올라가면 산중턱에 넓은 산골마을이 나온다. 지금의 청천동농장이 있는 일대로서 1961년 12월부터 이곳에 음성나환자를 집단 수용하여 양계업(養鷄業)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양계마을, 큰골, 양계골'로 불렀다.

(3) 부평로

대우자동차 앞의 큰길로 갈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부평역에서 계산동으로 뻗은 부평에서 제일 큰 주도로'이기 때문에 '부평로'라 한다.

(4) 경인고속도로 · 국방도로(國防路) · 인영도로(仁永道路)

'경인고속도로'는 일제강점 말기에 조병창을 조성하면서 소위 국방도로로 건설한 것을 박대통령 시절 확장하여 우리나라 '제1호 고속도로'가 된것이다. 초기에는 이 도로를 국방도로라 불렀으며, 또 인천과 영등포를 연결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인영도로'라 하기도 하였다.

(5) 안남로(安南路)

대우자동차 뒤쪽에 있는 도로로 본래는 백마장에 있다 하여 '백마로'라 불러 왔으나 최근에 동수역사거리까지 연결시켜 '안남로'로 개칭하였다. '안

남로' 는 '부평의 옛 이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에서 따 온 것' 이다.

(6) 길주로(吉州路)

'대우자동차 공장 남쪽으로 부평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도로' 를 '길주로' 라 한다. 이 도로는 동쪽으로 부천시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서구경계를 넘어 염곡로 교차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고려 충렬왕 때 '부평을 길주라 하였기 때문' 에 이 이름을 살려 '길주로' 라 하였다.

(7) 갈월로(葛月路)

'서구 경계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삼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 로, 청천동에 있으나 갈산동으로도 통과해 '갈산동의 옛 이름' 인 '갈월리' 를 좇아 '갈월로' 로 하였다.

(8) 부평IC사거리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직전에 있는 사거리' 이므로 '부평IC사거리' 이다.

(9) 새벼리사거리

'마장길과 갈월로가 만나는 사거리' 로 청천1동에서 효성동으로 넘어갈 때 고속도로 직전에 있는 사거리이다. 예전에는 '효성동' 을 고유어로 '새벼리' 라 불렀기 때문' 에 그 이름을 살린 것이다.

(10) 수출공단오거리

'안남로와 청천로가 만나는 오거리' 로 대우자동차공장을 비롯해서 이 일대가 '수출공단이기 때문에 수출공단오거리' 라 명명했다.

(11) 청수사거리

'마장길과 청천로가 만나는 사거리' 이다. 청천로는 청천을 복개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 '청수사거리' 라 하였다.

(12) 청천사거리

마장로에 있으며 청천2동 사무소를 끼고 돌아 대우자동차공장 북측에 있는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사거리이다. 청천동에 있다하여 '청천사거리'로 하였다.

(13) 효성굴다리사거리

'안남로와 갈월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청천2동에서 효성동으로 갈 때 고속도로 직전에 있는 사거리이다.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굴다리가 효성굴다리이기 때문에 사거리 이름을 '효성굴다리사거리'라 하였다.

(14) 장수산 · 깎은산 · 깎까산 · 장수산헬기장

원적산의 한 줄기가 청천1동의 뒷산을 이루고 있는 바, 이것은 현 청천초등학교 뒷산으로 '장수산, 깎은산, 깎까산' 또는 '헬기장'이라 부른다. 깎은산이나 깎까산은 일제 때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산봉우리를 평평하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한국전쟁 후 이곳을 미군들이 헬기장으로 사용해 헬기장으로 부르게 되었고, 깎은산의 원봉우리에 최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장수산(長壽山)이라 부르고, 정자도 지었다.

(15) 눈다리개천[黃魚川] · 윤다리개천

예전에는 맑은내가 현 대우자동차 공장 안으로 내려가다가 원통천과 합류하였는데 특히 '사근대리 일대의 개울'을 '눈다리개천'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유어, 한자어가 일치하지 않고, 그 의미도 알 수 없다. '윤다리개천'은 '눈다리개천'의 음운변화로 파생된 지명이다.

(16) 맑은내, 청천(淸川)

원적산과에서 발원해 마을 앞으로 흐르는 이 냇물은 '시냇물이 맑기 때문'에 '맑은내 또는 청천'이라 불렀다.

(17) 청천교

서부간선수로를 건너는 다리로 안병원 앞쪽에 있는데, 최근에 지하철공사로 크게 개축되었다. 청천동에 있으므로 청천교라 명명했다. 그런데 이 다리는 현재 갈산동에 있는 서부2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전에는 갈월동으로 넘어 가는 다리로 청천동으로부터 흐른다 하여 청천교라 하였다.

(18) 제1효성교 · 제2효성교 · 제3효성교

청천동에서 효성동 쪽으로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도록 만든 굴다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 청천1동에 있는 것이 '제1효성교'이다.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지역이 효성동에 속해 효성교라 하였다. 그 다음 동쪽 것을 '제2효성교', 제일 동쪽의 다리를 '제3효성교', 또는 '효성굴다리'라 부른다.

(19) 효성차도육교

청천동에서 효성동 쪽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 가도록 만들어진 다리이다. 부평구가 생기기 전에는 이곳이 효성동에 속해 '효성차도육교'로 한 것이다.

(20) 신노개들[神路野] · 신너게들

대우자동차공장 부지 일대로 예전 이곳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신노개들 신너게들'이라 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하늘의 비와 신을 연관시켜 붙인 이름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4) 갈산동

1789년 작성된 『호구총수』 방리에 부평부 서면 소속의 '갈월리(葛月里)'가 있었고, 1914년의 『조선전도부군면리총람』에도 부천군 소속의 같은 이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1946년 새로운 동을 편제할 때, '갈산동'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 · 2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지금의 정수장 자리가 갈산이라고 하는 바, 갈산은 산 전체가 '칡으로 뒤덮여 어찌나 오래 묵고 굵은지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칡대들보'를 쓸 정도였다고 전해온다. 이 칡넝쿨이 우거진 갈산에 비추는 밝은 달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어 '갈산명월(葛山明月)'이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갈월, 또는 갈월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의 '갈산'은 구릉에 지나지 않지만 '주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붙인 지명으로 추정된다. '갈'은 '낱가리, 터주가리, 짚가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높다'의 뜻을 가진 고대어의 화석이며, 우리나라 산천에 지천인 칡을 마을 이름에 쓴 것은 대개는 전설로 윤색된 경우가 많다. '갈(葛)' 계의 지명은 칡과 별 관계가 없이 '높다'의 뜻으로 지명에 사용되어 왔는 바, 검단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215m)인 '가현산'을 전통적으로는 '가린산'이라 부르는 데서 '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006년 말 현재, 갈산동은 1 · 2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1) 아랫신트리

지금의 여성회관 동쪽, 근린공원 북쪽이다. 본래 근린공원 남쪽 일대를 '신트리'라 불러 왔다. 이곳에서 약 100m쯤 북쪽인 부평동과 갈산동의 경계 부근에 논을 일구기 위한 넓은 뚝이 있었고, 그곳에 한두 채, 인가가 늘기 시작해 약 20호의 마을이 생겼다. 그리하여 먼저 생긴 신트리를 '윗신트리'라 하고 나중에 생긴 곳을 '아랫신트리'라 하여 구별하여 불렀다.

(2) 새갈

일제강점기 말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소위 국방도로를 건설할 때, 갈산동 마을 북쪽 등성이의 흙을 파다가 썼다. 이 토취장(土取場) 자리가 수천 평이나 되었는데, 광복 후 이곳에 집을 지어 수십 호의 마을을 이루니 '새로 생긴 갈월리'라 해서 '새갈'이라 하였다.

(3) 부평로

청천2동과 갈산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부평역에서 계양구로 통하는 부평을 대표하는제일 큰 '주도로'이기 때문에 '부평로'라 명명했다.

(4) 주부토길 · 작전로(鵲田路)

부평에서 계산동으로 가던 옛 김포로(金浦路)로 갈산동, 작전동을 관통해 '작전로'라 불렀으나, 지금은 '주부토길'로 바꾸었다. 주부토(主夫吐)란 고구려시대에 부평을 '주부토군'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기려 붙인 이름이다.

(5) 장제로(長堤路)

굴다리오거리에서 계산동 쪽으로 직선으로 이어지는 길로 삼산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길은 본래 부평동에 있는 부흥시장의 이름을 따 '부흥로'라 하였으나, 최근에 김포시계까지 연장되어 '장제로'로 바꾸었다. 장제로는 부평의 신라 때 고을이름인 '장제군(長堤郡)'에서 딴 것이다.

(6) 청천로

청천1동 인항아파트에서부터 청천을 복개하여 만든 도로로, 갈산동을 관통하여 삼산동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청천(맑은내)'을 좇아 '청천로'로 하였다.

(7) 갈월사거리

장제로와 갈월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갈산동의 옛 이름인 '갈월리'의 이름을 따서 '갈월사거리'라 하였다.

(8) 북부소방서앞삼거리

북부소방서 앞에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서앞삼거리'라 한다.

(9) 굴포천(掘浦川)

굴포천은 '흙을 파낸 하천'란 뜻으로 '대교천 하류 김포시 지역(벌말에서 한강까지)으로 지반이 높아 한강까지 통수가 잘 되도록 깊이 뚫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벌말에서 목수통까지 꾸불꾸불한 하천을 일직선으로 곧게 뚫어서 이를 '직포(直浦) 또는 직천(直川)'이라 했던 것인데, '이들 하천 전체를 굴포천'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다 같은 직포인데 한다리

[大橋]가 있는 곳을 대교천(大橋川)이라 불렀고, 벌말 근처의 양천지역을 '북포(北浦)'라 하였다. 따라서 '대교천이나 직포, 북포, 굴포천'은 다 같은 '굴포천'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갈산동에 있는 이 하천은 굴포천의 여러 개 큰 지류 중의 하나지만, 굴포천보다는 '원통천'이 타당하다. 이 원통천은 본래 서부간선수로를 따라 더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의 여성회관 뒤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10) 굴포1교 · 굴포2교 · 굴포3교 · 굴포4교

여성회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굴포천(원통천)을 넘는 다리 네 개 중 제일 서쪽에 있다. 서울-김포시의 경계인 굴포천을 넘는 다리가 원래의 '굴포교(판개다리 · 팽개다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굴포천을 넘는 다리를 '굴포1교'라 하였고, 주부토길을 넘는 다리는 '굴포2교' 차례로 동쪽으로 가면서 '굴포3,4교'로 부른다.

(11) 사근다리

사근다리는 오늘날의 부평세관 근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전에는 갈산동에서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김포국도(부평로)가 한강토지개량조합의 서부용수로(西部用水路) 간선 둑을 겸용하였다. 이 서부용수로는 원통천과 연결되었던 바, 물이 넘치면 여수토교(餘水吐橋)에서 수위조절을 하였으나, 그곳이 약간 높은 지대여서 인가가 하나 둘 늘어났다. 이 인근에 농경에 이용하는 허술한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으나, 인적도 드물고 오랜 세월 방치하여 '삭았기 때문'에 이 다리를 '삭은다리(사근다리)'라 불렀고, 이것이 바로 '이 마을의 이름'이 된 것이다.

(12) 서부1교 · 서부2교 · 서부3교

장제로 상에 있으며 서부간선수로를 넘는 다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 제일 동쪽에 위치하여 첫 번째가 되므로 '서부1교'라 하였다. 이 서부간선수로가 갈산1동과 갈산2동의 경계선이 된다. 계속 서쪽으로 오면서 서부2교(부평-갈산동), 서부3교(대우차 정문 앞)가 있다.

(13) 천대고가교

장제로 상에 있으며 '갈산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 작전동으로 가는 고가교'이다.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다.

(14) 작전차도육교

갈산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 '작전동으로 가는 옛 도로 상에 있는 차도'이다. 전에는 이곳이 작전동에 속하였기 때문에 '작전차도육교'라 한 것이다.

(15) 서부간선수로(西部幹線水路)

1923년 한강토지개량조합(한강수리조합)에서 만든 '농업용수로'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낸 것을 동부간선수로(東部幹線水路)라 하였고, '갈산동 쪽으로 올라온 것은 서쪽으로 흐른다 하여 서부간선수로'라 하였다. 옛 사근다리 근처(지금은 안병원 근처)에서 원통천과 만난다.

(16) 여수토교(餘水吐橋)

사근다리 근처에서 전의 서부용수로는 원통천과 연결되어 있었고, '넘치는 물을 토해내기 위한 여수토(餘水吐)'를 만들어 '수위조절을 하였고, 그곳에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여수토교'라 했다.

5) 삼산동

1789년(정조 17) 작성된 『호구총수』의 방리에 부평부 서면 소속 '삼산'이란 지명은 없었고, 필사본인 『조선지지자료』와 일제강점 초의 『조선전도부군면리명칭총람』에도 기재된 바 없다. 1940년 일제가 왜식 정(町)을 둘 때, '삼립정(三笠町)'이 등장한다. 광복 후 '삼산동(三山洞)'이 편제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삼산'이란 명칭의 정체성에 의문점이 있다.

조선조 말까지 없던 '삼산(三山)이란 지명은 일제의 잔재'로 추정된다. 일본식 정명(町名) '삼립(三笠)'은 러·일 전쟁 때, 일본 전함이었던 '미가사

마루[三笠丸]'의 '삼립(三笠)'에서 '삼(三)'을 광복 후, 동이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산동'은 예전 부평군 서면 '후정리(後井里)' 지역으로 '뒤우물, 또는 후정동(後井洞)'이라고도 하였다. 삼산동은 이 마을에 '산이 셋'이 있다는 뜻인데, 영성산(靈成山)과 장수못은 이곳에 있으나, 조산(造山)은 계산동에 있으며, 장수못(장도못)은 산이 아니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1924년 부평수리조합(한강수리조합)을 설치할 때, 갈산(葛山)에서 영성산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뚫고 '서부간선수로란 용수로(用水路)'를 건설한 바, 그 때 파내 쌓은 흙더미를 흔히 '흙터머지'라고 불렀다. 이 '흙터머지'를 소위 '조산(造山)'으로 보고, 이에 '영성산'과 '갈산'을 합하여 '삼산(三山)'이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삼산'은 '영성산과 갈산, 그리고 금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금산'은 저 멀리 청천동에 있어서 이 역시 삼산이란 지명에 이끌리어 지형을 견강부회한 것이다.

삼산동에는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조성 되어, 2006년 말 현재 1·2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1) 후정리(後井里)·뒤우물

후정리는 앞의 『호구총수』(1789) 시절부터 있던 마을이름이다. 갈산의 동쪽 줄기가 길게 흘러 영성산으로 이어져 갔는데, 갈산 밑에 갈월리마을이 있고, 그 동쪽으로 너머에 삼태안 같이 된 곳에 우물을 파고 마을이 생겼다. 등성이 '뒤에 큰우물'로 인하여 마을이 생겼다 하여, '뒤우물 또는 후정리(後井里)'라 하게 된 것이다.

(2) 영성미·벼락바위·흙터머지·흙더미·2구

후정마을 동쪽500m 정도인 삼산동 90번지 일대에 표고 100m에 불과한 산이 영성산(靈成山)이다. 이 산과 인근 상황에 대한 기록은 1842년 『부평부읍지』부터 등장한다. 이 영성산에 대하여 앞의 읍지에 "이 산 우편의 바위는 강암(舡巖)"이라 했다. 남쪽으로 마을을 지나 방죽머리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상부가 모두 부서져 이곳 사람들은 '벼락바위'라 불렀고 그것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되기도 했다.

1924년 한강수리조합을 설치할 당시, 갈산에서 영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끊고 서부간선수로를 팠는데, 이 때 흙을 파서 제방을 쌓고 남는 흙을 마을 입구인 삼산동 76번지 일대에 높이 쌓아 놓았다. 여기에 마을이 형성돼 '흙터머지, 또는 흙더미'라 부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곳 '전체의 마을이름'이 되기도 했다.

전에는 후정리 본동을 '1구(區)'로 하고, 영성미를 '2구(區)'라 하여 '2구'라고도 불렀다. 그리하여 '영성미, 벼락바위, 흙더미, 2구' 등은 다 이 마을의 이칭들이다.

(3) 삼산월드체육관

2006년 10월 삼산동에 신축,개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규모의 체육관이다.

(4) 삼산사거리

장제로와 청천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삼산동의 이름을 따서 '삼산사거리'로 하였다.

(5) 영성산(靈成山) · 영성뫼

후정마을 동쪽 500m쯤인 삼산동 90번지 일대에 표고 100m쯤 되는 곳에 잘 생긴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영성산', '영성뫼'라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성산은 1842년 『부평부읍지』부터 기재되어온 산이지만,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의 건설 때 토취장이었기 때문에 산의 형태가 없어지고 지금은 산 밑둥만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6) 목숙통(苜蓿通) · 목수통

목숙교가 있는 근방으로, 이곳이 지대가 높아 세 하천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곳의 물을 앞의 『읍지』에는 '장도지(長陶池-큰 질그릇 형상의 못)'라 했다. 이곳에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직포(直浦)로 통수시켰다. '목숙'이란 콩과에 속하는 월년초로서 목초로 많이 사용되는 거여목(개자리)이 자생하는

지역이라서 붙인 이름이다. '목숙통→목수통'의 음운 탈락형도 같이 씌었다.

(7) 목숙교(蝗隆橋)

원통천, 청천, 석천의 세 하천이 모인 장제(長堤)의 물은 직포천(直浦川)으로 입류하고, 이 '직포에 가설된 나무다리'를 '목숙교'라 불렀다. 지금은 이곳의 물길을 크게 확장하고 다리도 콘크리트로 새로 놓았다.

(8) 삼산교(三山橋)

서부간선수로를 건너 주공임대아파트 입구에 새로 생긴 큰 다리로, 삼산동에 있으므로 삼산교라 한 것이다.

(9) 서부간선수로

1924년 한강수리조합을 설치할 당시 갈산에서 영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끊고 서부간선수로란 용수로를 팠다. 김포공항쪽의 동부간선수로와 반대로 서쪽으로 난 수로이기 때문에 서부간선수로라 한다. 삼산동을 지나오기 때문에 삼산동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

(10) 데부뚝

서부간선수로의 둑을 흔히 '데부뚝'이라 한다. '데부뚝'은 '대보(大洑) 둑'이 음운변천한 것으로 역시 '큰 둑'이란 뜻이다. 그러나 영성미 앞 차씨네뚝(약 10정보)이나 더 남쪽으로 있는 천일농장뚝(약 60정보)이나, 북쪽의 도두머리방죽뚝(약 180정보)도 모두 '데부뚝'이라 불렀다.

(11) 장제(長堤)·장성제(長省堤)

영성미 동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을 '영성미들'이라 하고, 그 앞으로 지금의 삼산동, 중동, 상동의 경계를 이루는 삼산동 141번지 일대에 '원통천과 맑은내, 돌내[石川]' 등의 세 하천이 한 데 모여 큰 못을 이룬다. 이 물을 막기 위한 긴 둑들이 '목숙교'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제방뚝이 길어' 이를 '장제, 또는 장성제'라 했다.

(12) 벼락바위 · 배바위 · 배다리 · 강암(舡巖)

『부평부읍지』 산천조에 "영성산은 부평부 동남쪽 넓은 벌판 가운데 1,600m쯤 되는 곳에 있고, 그 오른쪽에 큰 돌이 있어 배바위, 즉 강암(舡巖)"이라 하였다. 이 바위는 세 하천이 합류하는 삼산동 148번지의 '바다 같은 넓은 물 가운데에 홀로 우뚝 서 있어서 마치 항해 중인 돛을 단 배와 같다' 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또 이 바위 하부에는 다리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배다리'라고도 하며, '그 구멍사이로 배가 드나들었다' 고 전해오기도 한다. 이 바위 상부는 모두 부서져 있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벼락이 떨어져 그리 되었다고 '벼락바위'라고도 부른다. 지금 그 바위는 흔적만 남아 있다.

(13) 장두못[長頭池] · 장수못 · 장도지(長陶池)

장두못이란 못이 도두머리 앞쪽에 있었는데 도두머리와 까치말 사이의 '곤논틀 물이 이 장두못으로 흘러들었고', 이 물은 다시 장성제 밖으로 흘러 목숙통에서 직포로 입류되었다. 1924년 부평수리조합이 생겨 이곳에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못은 없어지고, 지하통수로의 물이 솟아 웅덩이가 되었다. 장두못의 '장(長)과 두(頭)'는 모두 '크다'는 뜻으로 '매우 큰 못' 또는 '중요한 못'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앞의 『읍지』에 기재되어 있는 '장도지(長陶池)의 도(陶)는 질그릇으로서 매우 큰 질그릇 형상을 한 못'인 듯하다. 가뭄이 심할 때에는 이 장두못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므로, 장두못은 영성산(靈成山)과 함께 예전부터 신성한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장천이개[長川溪] · 장천이내

장두못에 연결되는 시내로 영성산에서 시작했다. 장도못이 큰 못이므로 이와 연결된 조그마한 개천도 큰 개울로 생각하고 긴 장(長)자를 써서 '장천이개'라 한 듯하다. 한편 앞의 원통천이 매우 '긴 하천'이므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이 하천을 '장천이내'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15) 직포 · 직포천(直逋川)

목수통에서 벌말까지 이르는 개울을 '곧게 팠기 때문'에 '직포 또는 직포

천' 이라 따로 부른다.

6) 부개동

부개동은 본래 부평군 동소정면 마분리(馬墳里) 지역으로 '말무덤' 이 있어 '말무덤, 마분' 이라 하였다. 부개동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올 때, '부평이 처음 시작되는 곳(열리는 곳)이라서 부개동' 이라 하였다는 설과, 마을 뒷산인 '부개봉(富開峯, 復蓋峯)' 에서, 또는 '산 위에서 볼 때 산 앞이 넓게 열려 있어서 부개동' 이라 하였다고 한다.

부개동은 2006년 말 현재 1 · 2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1) 마분리(馬墳里) · 마분 · 마분이 · 말무덤

이곳에 '말무덤' 이 있어 '말무덤, 마분, 마분리(이)' 라 하였다. 원래 우리 민족은 말고기를 먹지 않아 말이 죽으면 매장을 하였다고 한다. 전언에 의하면, 예전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던 때의 '대야원, 오류원, 구슬원, 오류역' 이 모두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말이 죽으면 이곳 말무덤으로 왔다고 한다. 가까운 '마장뜰' 도 말을 사육한 국영목장이었으니, 죽은 말은 모두 이곳에 매장하여 '말무덤, 마분(馬墳)' 이라 한 것이 이후 마을이름이 된 것이라 한다.

고어(古語)에 '말' 은 '크다' 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무덤' 이 말을 묻은 무덤이 아니라 많은 시신을 묻은 '큰 무덤' 으로 풀이 할 수도 있다. 병자호란 때에 청의 군대가 마분이에 주둔하였다는 이야기는 이를 더욱 뒷받침 해준다

(2) 굴재미 · 굴째미

쌍굴철로다리에서 서울 쪽으로 오른쪽에 삼태안 같이 우묵한 마을이 '굴재미' 이다. 이곳은 원래 금마산(錦馬山)의 북맥이 등잔산(燈盞山)이란 조그마한 구릉을 이루고 이것이 계속 북으로 이어져 이곳에서 끝을 맺는 한 산줄기의 끝뿌리였다. 1899년 경인철도 부설공사 때 철둑을 쌓아 우묵한 골이 생기게 되고, 또 여기에 마을이 생기니 '굴재미' 라 했 다. '뫼(산)>미' 로 변천했고 '마을이란 의미의 지명소' 의 하나이다.

(3) 등세이

안말 뒤쪽(북쪽) 등성이에 경인국도가 뚫리어 일신동 쪽으로 활처럼 크게 휘어 내려가도록 되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집이 하나 둘 생기니 안말에서 볼 때 '등성이에 있는 마을'이라서 '등세이'라 불렀다.

(4) 신궁동(新宮洞) · 새굴재미 · 새굴 · 새말

굴재미 옆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 신궁동이다. 1940년경 일제는 부평 조병창 확장공사에 이어 일신 · 구산동 일대의 땅을 강제 수용하여 부평에 제2의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이 때 이곳의 물자 수송을 위하여 경인철로의 인입선(引入線)을 부설하였는데, 지대가 낮아 굴재미의 산줄기 흙을 파다가 철로 뚝을 쌓으니 이곳이 철로 분기점이 되고, 토취장 자리는 집터로 변하여 '또 하나의 굴재미 마을'이 생겼다. 그리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서 '새말, 새굴 또는 새굴재미'하다가 광복 후 사람들이 마을 형국이 궁궐같이 감싸였다고 하여 '신궁동(新宮洞)'이라 하였는데 널리 쓰이지를 못하였다.

(5) 산동네

한국아파트가 있는 쪽에서 부개산 북쪽 골짜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마을이 생겼다 해서 '산동네'라 한다.

(6) 새말

원래 벌판이었으나 개간하여 새로 마을이 형성되니 '새말'이라 불렀는데 현재 부평동중학교 근처이다.

(7) 신복동(新福洞) · 고니새말

1920년 경 일본사람 고시니[小西]가 방죽을 막고 개간하여, 마을이 생기게 되니 '고니시말'하던 것이 나중에 고니새말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 1950년대에 마을 유지들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고니새말을 '신복동'이라 고쳐 부르기로 하였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8) 안말

'마분리의 원마을'을 '안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마을이 '양지바른 안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말이라 하였다.

(9) 장고개길

부개2동과 부개3동의 경계를 이루는 길을 '장고개길'이라 한다. 장차 이 길은 서쪽으로는 서구와 경계인 장고개를 넘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장고개길이라 하였다.

(10) 신복사거리

'장제로와 길주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주민들이 고니새말 쪽을 신복동이라 고쳐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린 것이다.

(11) 등잔산(燈盞山)

부개산 북쪽 줄기의 작은 봉우리가 '등잔산'인데 이 산 구릉이 경인철도에서 끊겨 굴재미를 이루었으며 이 산줄기가 부개동과 부평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조그마한 등성이 산이 '등잔불을 켜는 접시 모양'이라서 '등잔산'이라 한다. 그런데 이곳에 변전소가 생겼고 지금은 한국전력공사 부평지점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은 등잔산이란 이름이 변전소가 들어올 것을 예감한 이름이라 신통히 여기고 있다.

(12) 부개산(富開山 · 復蓋山)

부개동에 있는 산으로, 1946년 일본식 동명을 청산할 때 부개산(富開山)의 이름을 따서 부개동이라 하였다. 현재 이 부개산의 줄기에 부개정(富開亭)이 있다.

(13) 가자골 · 가재골

일신동과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로, '가[邊]'의 고어가 'ᄀᆞᄉᆞ'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음상을 가진 '가재'에 유추(類推)되어 '가재가 많기 때문'에 '가재골'이라 하였다고 전해오는 곳이 많다. '가재울, 가작골, 가정' 등이 그런 지명들이다.

(14) 송장굴 · 송장골

산동네가 있는 골짜기가 '송장굴(골)'이다. 원래 이곳은 으슥한 골짜기인데다 무덤이 더러 있어서 송장굴이라 불렀다.

(15) 호박굴 · 호박골

송장굴과 가자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호박밭이 있었다 하여 호박굴이라 부른다.

(16) 길등성이고개 · 길재 · 긴재

경인도로가 일신동 쪽으로 활처럼 크게 휘어져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이 길을 '길 등성이에 있는 고개'라 하여 '길등성이고개', 혹은 '길재'라 하였다. '긴재'도 긴 등성이의 뜻으로 '길재'와 같다.

(17) 송신고가교

경인도로에서 경인전철로를 넘어 부개2동에 있는 부평통신소로 가는 '고가다리'로. 근처에 '송신소가 있어서 송신고가교'라 하였다.

(18) 길무지들 · 길우지

현재 부개역에서 부평 쪽으로 '전철로와 경인도로 사이에 있는 들'을 '길우지, 또는 길무지들'이라고 했는데 '긴 들의 뜻'으로 추정된다.

(19) 뱃들 · 벳들

부평송신소 동쪽에 있는 들로 상당부분은 송내(부천)에 포함된다. 이곳은 '홍수 때 물이 차면 배를 띄워야 했기 때문'에 '뱃들'이라 하게 되었다.

7) 일신동

현재의 '일신동'은 『호구총수』 방리의 부평군 동소정면 항동(航洞)과 구산리(龜山里, 九山里) 지역 일대이다. 일신동이란 광복 후 일제 지명을 버리고 '갈수록 점점 새로워진다'는 좋은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1) 항동(航洞)·황굴·항굴

이 마을은 현 부개초등학교가 있는 마을(마분리 안말)에서 남쪽으로 등성이 너머 남향으로 '배 모양같이 길게 자리한 부개산록의 마을'로서 철거되기 전에는 50여 호나 되는 큰 마을이었다.

중세국어시기(14~17세기 말) 이후의 고어(古語)에서는 '크다'는 의미의 단어가 '하다'였으며, 이것의 관형사형이 '한'이었다. 따라서 현대어의 '큰골'은 '한골'이 되고, 이 '한골'이 역행동화(逆行同化)되어 '항골'도 되고 또 '황골'도 된다. 중세국어 이후 '한쇼>황소, 한새>황새'가 색에 의해 명명된 단어가 아니라 '큰소, 큰새' 뜻이다. 실제로 '항동리' 지역은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항동은 배가 항해하는 것 같은 마을이 아니라', 단지 '큰 마을, 또는 큰 골짜기마을'를 뜻한다.

(2) 구산동(九山洞)·귀산리(龜山里)

구산동은 예전의 부평군 동소정면 귀산리(龜山里)지역이다. '귀산리(龜山里)'가 『조선지지자료』에는 '구산리(九山里)'로 표기되었다. 예전 리(里)의 편제에서 광복과 함께 일신동이 되었다.

(3) 군부안

현재 주공아파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군부대 안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안'이라 부른다.

(4) 귀(구)산(龜山, 九山)

성주산(부천에 있음)의 서봉(西峯)에서 북쪽으로 뻗은 형상이 마치 '거북

등' 같아서 '귀산(龜山)'이라 하였다.

(5) 금마산(錦馬山)

금마산은 부개봉 위에 있는 산으로 '산의 형국이 고운 말등 같아서 붙인 이름'이라 한다. 이 금마산도 원적산과 같이 지도상에는 철마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고쳐야 한다. 한편, 이 산을 '만수산(萬壽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만수동으로 뻗은 금마산 줄기의 한 봉우리를 가리키며, 북쪽의 부개봉과 같이 최근에 생긴 명칭이다.

(6) 용봉산(龍鳳山)

'무네미고개 서쪽에 있는 산'으로 현 수현(水現)마을의 북쪽 뒷산이다. 장수동과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고 상서로운 뜻으로 작명한 것이다.

(7) 상아굴 · 상마굴

외곽순환도로 밑의 중앙병원에서 남쪽으로 군부대 입구가 있는 골짜기 일대로, 큰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노인들은 '코끼리와 말의 형상'이라 하여 '상마굴' 또는 '상아굴'이 된 것이라도 한다.

(8) 범골 · 범굴 · 벙굴

금마산 동남쪽으로 있는 깊은 골짜기로 옛날에 '범이 살았다'고 하여 '범골'이라 하였다.

(9) 여우골

금마산 동쪽 골짜기로 '여우가 산다'고 하여 '여우골'이라 했다.

(10) 구산천(九山川)

'상아굴과 무넘이골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로, '구산동을 관통'해 '구산

천' 이라 한다.

(11) 항동교(航洞橋)

'항동리에 있던 다리이기 때문에 항동교' 라 한다.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장무두들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범굴고개 · 범고개

범골로 해서 만수동으로 넘어 다녔던 고개로 '범굴고개 또는 범고개' 라 한다.

(13) 무네미고개 · 무넘이고개[水越峴, 水峴] · 무네미길

구산(龜山)과 용봉산(龍鳳山) 사이, 곧 구산동에서 장수동으로 넘어다니는 고개이다. 지금은 8차선 도로로 크게 확장되었고, 또 위로는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송내지하차도에서 장수동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 밑의 길을 '무네미길' 로 부른다.

우리나라 전역에 '무넘이, 무네미' 또는 한자로 '수유(水踰)' 계의 지명이 산재하거니와 모두 '물넘이' 에 근원을 두고 있고, 대개는 분수령(分水嶺)과 관계가 있는 지명소(地名素)이다.

(14) 비루고개 · 별리고개[別離峴] · 별고개 · 성현(星峴)

비루고개는 '황굴에서 지금의 만수동 만부(萬富)마을 쪽으로 넘어다니는 고개' 이다. 이 고개는 한양에서 배 타러 갈 때 서해바다로 통하는 길목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한 길은 '오달기주막거리(구월초등학교부근) -황토꼬지(시청부근) -관교동-문학동을 거쳐 사모지고개[三呼峴] -능허대' 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한 길은 중국의 무역선이 닿았던 수산동(壽山洞) 포구에 이르렀다.

한양에서 험난한 먼 뱃길을 전송 나온 가족과 친지가 이곳에서 '작별을 나눔' 으로써 '별리고개[別離峴]' 라 부르던 것이 '비루고개' 로 변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별리고개' 가 '별고개' 가 되고, '별고개를 한자로 성현(星峴)이라 잘못 표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온조(溫祚)와 비류(沸流) 형제는 고구려를 등지고 남하하여 삼각산에 올랐는데, 온조는 한산(漢

山)에 도읍하고, 비류는 온조와 헤어져 미추홀에 비류국을 도읍할 때 '비류가 이 고개를 넘었다' 해서 '비류고개'라 한 것이 후에 '비루고개'로 변했다는 전설도 있다.

'벼랑'의 중세국어가 '벼ᄅᆞ~벼로'였고, 이들이 '벼루, 비리, 벼랑' 등으로 다양한 변천을 겪었다. '비루고개'는 '벼랑고개', 곧 '가파른 고개'의 뜻이지만, 지명에 이끌리어 후대에 '별리(別離)의 전설이 윤색'되거나, '벼ᄅᆞ'를 '별'로 유추하여 변형된 곳이 대부분으로 1842년 『부평부읍지』에도 성현(星峴)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십정동

십정동(十井洞)은 예로부터 인천부 소속이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다소면(多所面) '하십정리-아ᄅᆡ말'로 기재되어 있고, 1914년 일제의 개편 때에는 부천군 다주면(多朱面-다소·주안면을 합한 면) 십정리(상·하)라 했고, 1940년에는 인천부 소속, 광복 후 1946년에는 십정동고개 동편만 부평출장소 관내로 변경되었고, 1968년부터는 북구 소속, 1995년부터는 부평구 소속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에 '우물이 열, 또는 더운(열)물이 나는 우물이 있으므로', '열우물, 또는 십정(十井), 십정리'라 하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십정동은 원마을인 함봉산 서편 골의 '윗열우물'로 음지편, 양지편, 구석말로 구성되어 있고, 수출5공단 일대의 '아랫열우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말 현재, 십정1·2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1) 구석말

동향사 절이 있는 일대로서 양짓말과 음짓말 사이 북서방향으로 '쑥 들어가 있어', '구석말'이라 한다.

(2) 양짓말·양지편

윗열우물 62번지 일대로서 마을 동편이며, '해가 잘 드는 양지편'에 있는 마을이므로 '양지편, 또는 양짓말'이라 한다.

(3) 음짓말 · 음지편

윗열우물 22번지와 144번지 일대로서, '함봉산 줄기의 서쪽 산 밑이라 겨울에는 해가 짧아' 응달이어서 '음지편, 또는 음짓말' 이라 부른다.

(4) 잿말

현 이학식당이 있는 곳에서 윗열우물 쪽으로 등성이가 있고, 예전에는 이곳에 집이 두 채 정도 있었다고 한다. 이곳이 등성이에 있는 마을이라, 고개의 고어인 '재' 를 지명어로 한 '잿말' 이라 하였다.

(5) 참새미 · 삼새미

현 십정공원 입구 부근으로 예전에 집이 다섯 채 정도 있었으며, 이곳에 물좋은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을 '참샘' 이라 불렀고, 이 마을을 '참새미' 라 하였다. 한편 이곳에 집이 세 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삼새미' 라 불렀다고도 한다.

(6) 큰말 · 넘말

서구 방향으로 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아랫열우물' 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쪽 편 마을은 크고 동쪽 마을은 작았다. 그래서 큰 쪽을 '큰말' 이라 하고 작은 쪽을 '작은말' 이라 불렀다. 또한 작은말 쪽에서는 큰말이 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넘말' 이라 불렀고, 큰말쪽에서는 작은말을 마찬가지 이유로 '넘말' 이라 하였다.

(7) 작은말 · 넘말

아랫열우물에서 길을 사이에 두고 동쪽마을은 '마을이 작기 때문' 에 '작은말' 이라 한다. 또한 큰마을 쪽에서는 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넘말' 이라고도 불렀다.

(8) 백범로(白凡路) · 장수로(長壽路)

십정사거리에서 서쪽으로는 서구 경계를 넘어 가좌사거리 방향, 동쪽으로

는 간석오거리를 지나 수원 방향으로 시흥시 경계에까지 이르는 길이 백범로(白凡路)이다. 이 길은 장수동을 지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장수로'라 이름하였으나, 인천에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백범 김구(金九)'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백범로'로 개칭하였다.

(9) 열우물길

열우물사거리에서 서쪽으로는 서구 경계를 넘어 가좌동, 동쪽으로는 동암역을 거쳐 농촌지도소에 이르는 길을 '열우물길'이라 한다.

(10) 벽돌막사거리

백범로와 중앙공원길이 만나는 사거리로, 남동구와 경계를 이룬다. 전에 이 근처에 '벽돌공장'이 있어서 '벽돌막사거리'로 하였다.

(11) 십정사거리

'백범로와 경원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십정동에 있으므로 '십정사거리'로 했다.

(12) 열우물사거리

'열우물길과 경원로가 만나는 사거리'를 말한다. 예전부터 '십정동을 열우물'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 '열우물사거리'로 하였다.

(13) 동암역

경인전철역 중에서 백운~주안역 사이의 역으로 예전에 이 일대를 '쇠골'이라 불러왔고, 이곳에(주안산 일대) 동(銅)을 캐는 광산이 있어 붙인 이름이다.

(14) 선내뜰다리[仙來橋] · 선래다리

현재 농촌지도소 앞에 있었으며, 선내개울을 건너 서구로 가도록 놓인 다

리이다. '선내뜰에 있기 때문' 에 '선내뜰다리' 라 했다.

사래골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을 '선래개울' 이라 한다. 선래개울은 원래 이곳에 배가 들어왔었다는 뜻인데 한자를 '배 선(船) 자에서 신선 선(仙)' 자로 바꾸어 쓴 것으로 추정된다. 반래천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이것은 '선래천(船來川)' 의 잘못이다.

(15) 장수굴다리

십정동 십정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 장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장수로(長壽路)' 라 하였고, 이 도로가 경인전철도 밑을 지나가므로 그 굴다리를 '장수굴다리' 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장수로를 백범로로 개칭' 하였기 때문에 '장수굴다리는 백범굴다리' 로 하거나 아니면 '십정굴다리' 로 바꾸어야 한다.

(16) 뒷산

'구석말의 뒤' 에 있기 때문에 '뒷산' 이라 부른다. 서구의 가좌동과 부평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17) 배꼬지고개

현재 새시장이 있는 등성이(주안변전소 쪽)로 염전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에 배가 들어 왔던 배곶[船串]이었기 때문에 '배꼬지고개' 라고 불러왔다.

(18) 한가지고개 · 서낭고개 · 열우물고개

열우물사거리에서 동암역 쪽으로 치닫는 가파른 고개이다. '한가지산에 있는 고개' 이기 때문에 '한가지고개' 라 한다. 이곳에도 서낭당이 있어 '서낭고개' 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은 이 고개를 '열우물고개[十井峴]' 로 부르기도 한다.

(19) 서낭당고개

'양짓말에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로 지금도 '성황당나무' 가 있다.

(20) 열우물고개 · 십정현(十井峴)

백운역에서 동암역 사이의 고개를 '십정현(十井現), 열우물고개'라 하고, 이 고개 너머 산중턱에 있는 마을을 '열우물'이라 한다.

(21) 뒷고개

구석말에서 가좌동 변전소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마을 뒤에 있는 고개'이기 때문에 '뒷고개'라 부른다.

(22) 열우물고개[十井峴] · 우물목고개[井項峴]

1899년에 발행된 『부평부읍지』지도에는 '십정현(十井峴)'으로 나와 있고, 1842년(현종 8)에 편찬된 읍지 지도에는 '정항현(井項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고개는 부평삼거리에서 경인도로를 따라 동암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암초등학교 직전에서 우편 십정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열우물로 가는 고개 또는 열우물에 있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우물목고개'는 '부평에서 열우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열우물고개'와 '원통이고개'가 같은 고개가 되는 셈이나, 사실은 고개가 둘이 있어서 부평쪽의 고개는 '원통이고개'이고 십정동 쪽의 그것은 '열우물고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십정동 사람들은 '한가지 고개'를 '열우물고개'라 한다.

(23) 긴골

'아랫열우물 쪽에서 윗열우물 쪽으로 깊이 나 있는 골짜기'를 '긴골'이라 한다.

(24) 사래골[土來谷] · 사리골[沙利谷] · 성지골

부평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는 쪽에서부터 선래개울[仙來川]이 흐르던 계곡을 말한다. 이 골짜기는 모래가 많이 흘러 내려왔다 해서 사래골[沙來谷]로 불렀으나, 사래골[土來谷], 사리곡(沙利谷)이란 변한 명칭도 써 왔다. 또한 이 골짜기를 '성지골'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자 료 편

자료와 사진으로 보는 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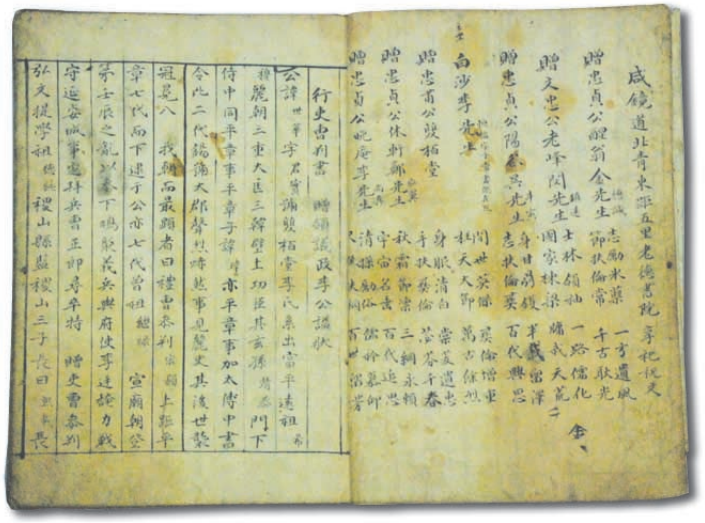
조사 · 정리
이범호
(부평구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정훈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경(사진작가)

사진 촬영 및 보정
김영경(사진작가)

부평 이씨 세보

부평 이씨의 세보이다. 부평지역의 대표적인 관향(貫鄕)으로는 부평 이씨가 있는데, 지명 변천에 따라 수주 이씨, 안남 이씨, 계양 이씨로도 불렸다. 부평 이씨는 나말여초에 부평지방의 호족으로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시조는 이희목(李希穆)으로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을 제수받고 세거하여 대대로 충신, 효자가문으로 발전하였다.

(소장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쌍백당(雙栢堂) 이세화 시장(諡狀)

이세화는 부평 이씨로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30~1701)이다.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이다. 황해도·평안도·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인현 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 귀양을 갔다. 시장(諡狀)은 재상이나 유교에 밝은 사람들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임금에게 건의할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일들을 적어 올리던 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평역사박물관 2층 회랑에는 남구만이 찬한 신도비탁본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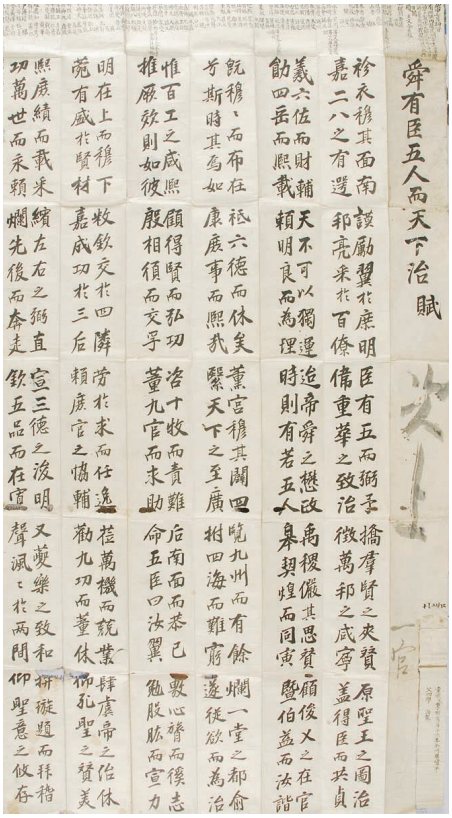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전주 이씨 족보(全州李氏族譜)



전주 이씨 족보이다. 전주 이씨는 조선 중기부터 이 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한 부평지역의 대성이다. 특히 세종의 넷째아들인 임영대군의 후손으로 일파를 형성하여 갈산동에 오래전부터 세거하였다. 이찰·이율 형제의 정려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이빈수(李彬秀) 과거답안지

이빈수는 부평에 살고 있는 전주 이씨 집안 사람이다.

이 문서는 이빈수가 과거시험에 나아가 답안을 작성하고 차상(次上)의 등급을 받은 과거시험 답안지이다. 과지의 우측 하단에는 자신의 성명과 나이, 본관과 주거지역을 명기하였고, 부친의 직위와 이름을 썼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군호적(富平郡戶籍)

부평군에 거주하는 본관이 경주인 37세 김인열(金仁烈)의 신식 호적이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반상이 타파되면서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는데, 이 문서와 같은 양식이었다. 1901년(광무 5)에 작성된 것으로 맨 위에 주소지를 기입하고, 두 번째 줄에 존속을 명기했다. 다음에는 동거인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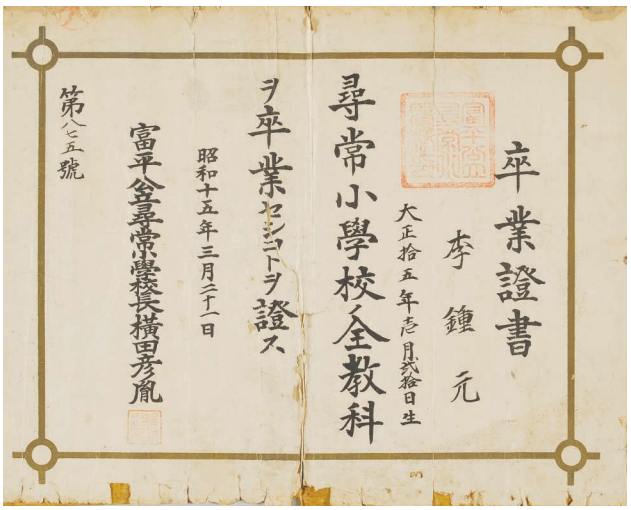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공립심상소학교 졸업 앨범

1940년 부평공립심상소학교 졸업앨범이다. 부평지역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초등교육의 시작은 1899년 부평공립보통학교(부평초등학교 전신)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보통학교령이 소학교령으로 바뀌면서 교명이 부평심상소학교로 바뀌었다. 다시 국민학교령에 의해 부평국민학교로, 후에 부평초등학교로 교명이 개칭되었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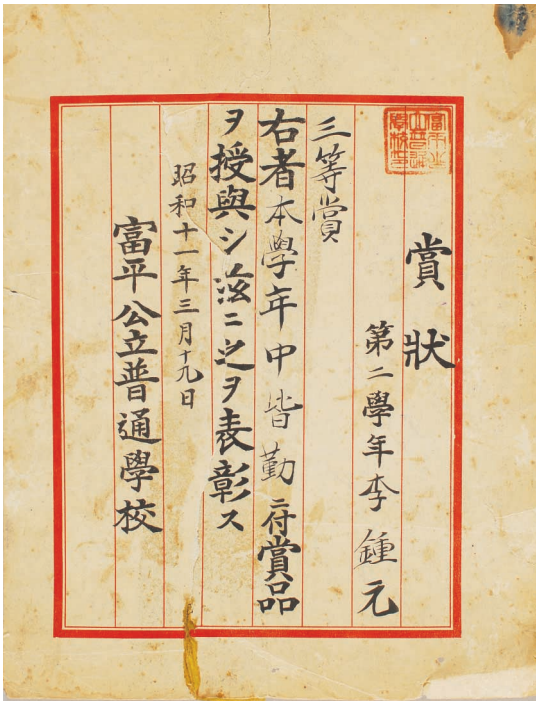


부평공립심상소학교 졸업증서

현 부평초등학교의 전신인 부평공립심상소학교 학생 이종원의 졸업증서이다. 일제 말기인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발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기존의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소학교는 다시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로 구분되었다. 위의 졸업증서는 1940년 3월 21일 발행된 것으로 '심상소학교 전교과를 졸업함을 증명함'이라고 적혀있다. 당시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서, 수공, 창가, 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여자아동을 위해서는 가사 및 재봉을 덧붙일 수 있었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이었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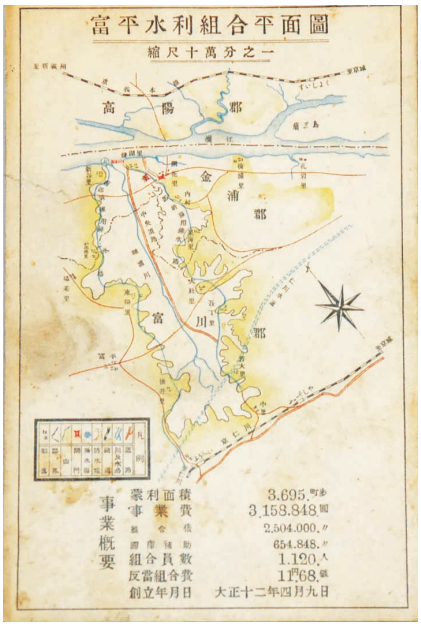
부평공립보통학교 개근상장


賞狀
第二學年李鍾元
三等賞
右者本學年中皆勤ヲ以テ賞品ヲ授與シ茲ニ之ヲ表彰ス
昭和十一年三月十九日
富平公立普通學校

현 부평초등학교의 전신인 부평공립보통학교 학생 이종원의 개근상장이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을 겪은 후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확장되었고(지방의 경우 사정에 따라 4~5년으로 단축 가능), 교육에 있어 차별대우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조선어가 필수과목으로 더해졌으며,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공학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위의 개근상장은 1936년 3월 19일 발행된 것으로 2학년 과정 학생에게 수여된 개근상장인데, 당시 6년제 보통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매주 수신 1시간, 국어(일본어) 12시간, 조선어 5시간, 산술 5시간, 창가 3시간 등 26시간 가량의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 외 도서와 수공 과목이 별도로 1시간씩 부과될 수 있었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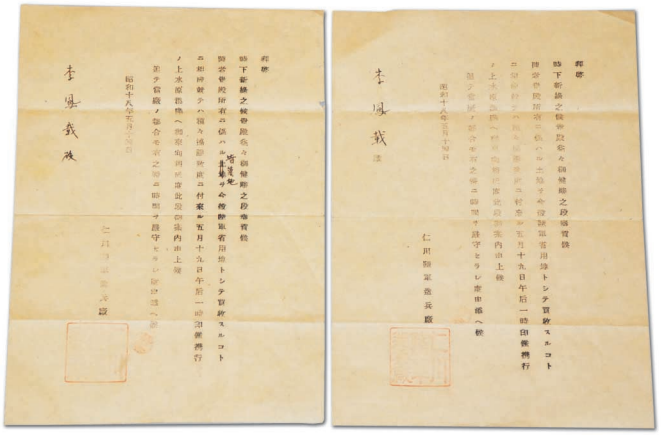
부평수리조합 평면도 엽서



이 엽서는 부평수리조합의 10만분의 1 축척의 평면도를 그려 넣은 것으로 1923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엽서에는 부평수리조합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업면적 3,695정보, 사업비 3,158,848원(조합채 2,504,000원, 국고보조 654,848원), 조합원 수 1,120인를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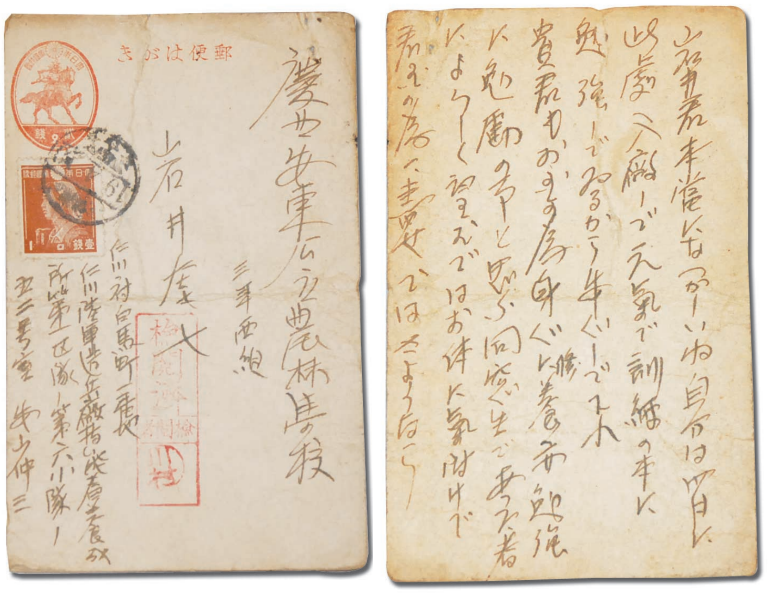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인천육군조병창 관련문서
(仁川陸軍造兵廠 關聯文書)

1930년대 들어 대륙침략에 나선 일제는 한반도 병참기지화의 일환으로 부평에 인천육군공창(仁川陸軍工廠)을 설립하였다. 부평조병창에서는 일제의 패망까지 주로 소총, 탄약, 소구경 화포 탄약, 총검, 수류탄, 경차량 등을 제작하였고 만석동의 인천기계제작소에 하청하여 잠수정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조병창에는 수천 명의 군속과 군인이 종사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징용당한 한국인 노무자도 상당수였다. 이 문서는 1943년에 인천육군조병창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조병창에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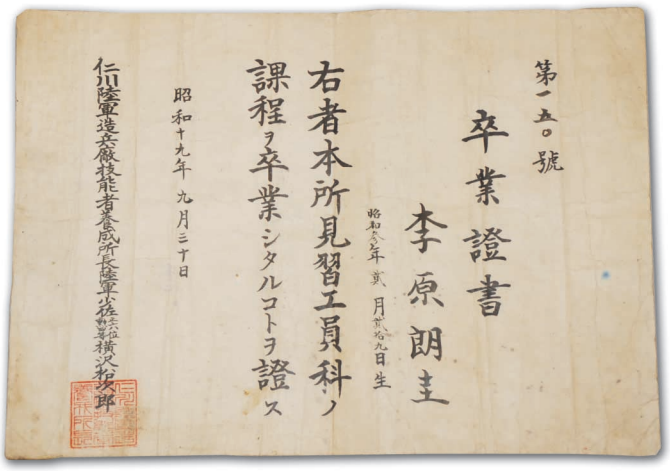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조병창 병사가 쓴 엽서

이 엽서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장병인 안산중삼(安山仲三)이 경북안동공립보통학교 3학년 암정규칠(巖井奎七)에게 보낸 엽서이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第一五〇號
卒業證書
李原朗圭
昭和六年 貳 月貳拾九日 生
右者本所見習工員科ノ
課程ヲ卒業シタルコトヲ證ス
昭和十九年 九月三十日
仁川陸軍造兵廠技能者養成所長陸軍少佐 横沢和次郎

인천육군조병창 기능자양성소 졸업증서

1944년 일본육군조병창기능자양성소의 견습공원과를 졸업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인천육군조병창 기능자양성소 수첩

1944년 일본육군조병창 기능자양성소의 견습생들에게 제공되었던 수첩이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공출보국명사기그릇
(供出報國銘砂器鉢)

백색의 사기그릇으로 바깥면에 '공출보국(供出報國)'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무기 제조를 위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등의 점령지역에서 쇠붙이들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다. 거두어들인 금속물들은 조병창으로 이전되어 무기제조에 사용되었다. 이 그릇은 금속기물의 공출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산곡동 87-95번지 주택



부평구 조선주택영단은 단지 안에 많은 주택을 쉽게 건설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주택형 표준설계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갑(甲)형과 을(乙)형은 일본인들을 위한 단독주택이었고, 병(丙)형 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연립주택이었다. 새싹길 일대의 노동자 집단주택단지는 좁은 거리와 연속문, 기와지붕의 일체형으로 이곳의 주민들이 군수물자 노동자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애스컴지도(ASCOM 地圖)



광복과 함께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미8군 보급창인 애스컴(ASCOM) 등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미군부대의 주둔과 풍부한 물자유통으로 인해 미군을 상대로 일시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미군에 의해 교육과 문화시설 원조도 이루어졌다. 이 지도는 광복 후 또는 한국전쟁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새한노보』 제13호



노동력은 국력이다 보호하고 육성하자 1978년 5월 18일 발행

새한勞報

노조 창립 7주년 기념호 제 31 호

전국금속노동조합 새한자동차 경인지부 발행/발행인·편집인 : 이 성 균/소재지 : 인천시 북구 정서동 145번지

<1971년 5월 18일 신진자동차 분회 결성 대회장경 (분회장 : 김장수) >

목 차

인 사 말 ····· 3
노조 창립 기념식 ····· 5
한국노동운동 어디까지 왔나 ····· 6
임금인상 교섭 경위 ····· 8
노사협의회 협의사항보고 ····· 12
상집회의 회의사항 보고 ····· 14
노동 교실 ····· 16
종합 소식 ····· 18
한국을 움직인 인물들 ····· 19
광복! 그후의 희비사 ····· 20
쿠폰 제도에 관하여 ····· 21
신정신작을 다녀와서 ····· 22
노동조합 연혁 ····· 23
현장투기 · 광고 ····· 24

『새한노보』 제13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새한자동차 경인지부에서 1978년 5월 18일자로 발행한 『새한노보』 제13호이다. 총 2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인상 교섭경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보고' 등의 노조관련 기사와 '한국을 움직인 인물들', '광복! 그 후의 희비사' 등 읽을거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처 : 부평역사박물관)



1950년대의 어사대



과거의 욕은지



옮기기 이전의 부평도호부 관아 건물



백룡사 경내로 이전하기 이전의 봉일사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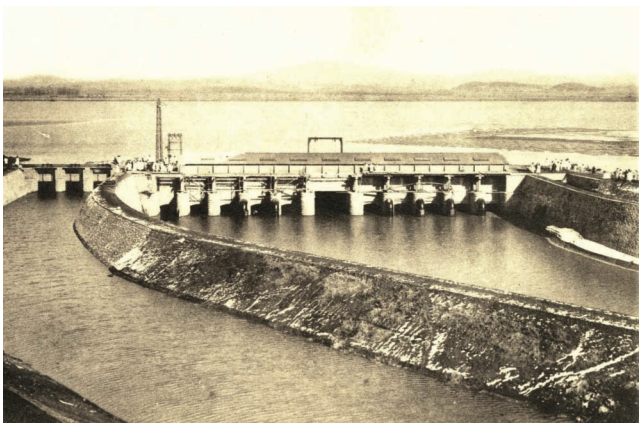
선정비군



과거의 조산



부평수리조합 동부 배수 갑문



부평수리조합 양수장 전경



조병창 공출 기념 사진



1940년대 초 산곡동의 한 가족 사진



부평제일교회 두 번째 건립 예배당과 성도들 (1941년 3월)



애스컴(ASCOM) 일대 항공사진



애스컴(ASCOM) 일대 항공사진



애스컴(ASCOM) 일대 항공사진



1960년대 애스컴(ASCOM) 일부 모습



1960년대 애스컴(ASCOM) 부대 내 미군들의 사열 모습



1960년대 초의 애스컴(ASCOM)



1960년대 초 애스컴(ASCOM) 주변 상가



1960년대 초 애스컴(ASCOM) 앞 굴포천 풍경



1960년대 초 애스컴(ASCOM) 앞 굴포천 풍경



1960년대 미군부대 앞의 한국인 근로자들



1960년대 미군부대 앞의 한국인 근로자들



1960년대 초 거리 풍경



1960년대 초 마을 풍경



인천에서 부평으로 가는 길목 풍경(1962. 1. 28)



1950년대 부평극장



부평출장소 야유회 모습(1956)



부평 미군부대
(6.25참전유공자회 김종구 회장님 제공)



부평의 어느 집 앞



산곡초등학교 개교축하운동회(1953)



부평동초등학교 운동회 모습(1964)



부평미군부대 앞에서 작업 중인 부원학원 학생들(1960년대)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 부원학원 학생들
(1960년대)



북구 민방위 훈련 모습(1975)



산곡2동사무소 불우이웃 쌀 배부 모습(1976)



청천농장 넘어가는 길(1978)

자 료 편

신문에 기록된 부평의 근현대사

189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독립신문	5. 27(2)	경기도 가호와 인구 : 부평군, 가호 2,021호, 인구 11,573명
독립신문	10. 16(3)	부평군 사는 병든 계집, 한 여인이 종현 교당으로 인도
독립신문	11. 20	부평군 사는 윤사영이 서울로 오는 중 다락원 부근에서 도적에게 습격
대한매일신보	11. 27	인천, 부평, 양천, 시흥 경내 철도선계에 범한 인민들의 집 허는 것과 전답 산림 작벌하는데 값을 주지 않아 백성들 원망

189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3. 13(3)	(미친군수) 부평군수 신씨가 갈월리 사는 리민을 잡아가두고 3만냥을 달라 하며 악형 가해
대한매일신보	9. 16(3)	(화륜 왕림시간) 매일 오전 7시에 인천을 떠나서 부평에 7시 36분, 오후 1시에 인천을 떠나서 부평에 1시 36분에 당도

190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11. 7(3)	부평군에 의병이 봉기하여 형세가 점점 창궐하는 모양

190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1. 14(2)	(오군수청원) 부평군수 전국환 등 내부에 사직 청원
대한매일신보	1. 28(3)	(일인전답조사) 경기도 각군 일인 소유 재산과 외국인 거주하는 것을 조사하여 내부에 보고
대한매일신보	2. 14(2)	(길이막혀) 양천, 부평 등지에는 근일에도 적이 대치하여 오후가 되면 행인이 다니지 못해
대한매일신보	4. 28(1)	(부평학교) 부평군 사립계창학교 학도 50여명에 이르러
대한매일신보	5. 20(3)	(전씨불법) 부평군수 전국환, 가산을 내어 학교를 설립한 한여공씨를 구금하고 보조금을 내라고 강요
대한매일신보	6. 12(3)	(본월팔일) 부평군 근처에서 의병 30명이 분견대와 접전
대한매일신보	8. 12(2)	(사린학회발기) 김포, 통진, 양천, 부평 등 4군에 사는 유지신사들이 사린흥학회 조직
대한매일신보	9. 16(3)	(계창학교흥왕) 부평군에 설립된 계창학교 학생 70여명에 이르러
대한매일신보	10. 2(2)	(관속삭발) 양천군 · 부평군, 수서기 및 모든 관속과 면장이 일체 단발

190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3. 7(2)	(부평군수사직) 부평군수 전국환씨 관찰사에게 사직청원서 내고 상경
대한매일신보	4. 3(2)	(부평군수면관) 부평군수 전국환씨가 불법행위가 많아 면관하고 경기도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내부에 보고
대한매일신보	7. 20(1)	(이씨선심) 부평읍 이희빈씨, 노비를 방송하여 사람들이 칭송
대한매일신보	9. 24(2)	(말되느냐) 의병에게 피살된 부평군 인민 2명에게 지급한 구휼금을 전 군수 전국환이 건몰
대한매일신보	11. 20(2)	(인천화적) 부평군 동양리 권승규씨 집에 화적이 위협편지 보내

191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2. 4(2)	(측량기수파송) 탁지부, 측량기사 40여명을 부평 등지에 파송
대한매일신보	2. 20(2)	(측량기수소환) 탁지부, 실지견습키 위해 부평 등지에 파송한 측량기수 20여명 소환하여 시무케 함
대한매일신보	3. 8(2)	(진씨봉적) 부평군 마장면 면장 진성택씨 부평정거장 부근에서 강도 만나 면 세납액 오백여환 뺏겨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대한매일신보	3. 23(2)	(실지시험하려고) 탁지부, 측량기수 오십여인 부평등지로 파송
대한매일신보	3. 23(2)	(총검있단다고) 부평군 이용규 집에 일헌병사령부에서 총검 수색
대한매일신보	4. 6(1)	(계산학교 설립) 부평군 당산면 강인규 등 계산학교 설립
대한매일신보	4. 6(3)	(김씨기소) 전 판서 김만수, 부평군 초평 백여평을 일인에게 빼앗긴 사건을 변호사 변영만에게 위임하여 재판
대한매일신보	5. 10(3)	(우역발생) 지난달 20일 이후로 부평등지에 우역 발생
대한매일신보	5. 26(2)	(경기한재) 김포, 통진, 부평, 시흥, 양평 등 한재가 극심하여 민심이 소동
대한매일신보	5. 31(2)	(실지조사착수) 탁지부 토지조사국, 한인 · 일인기사 부평, 통진 등 파견하여 실지조사 착수
대한매일신보	6. 3(2)	(이씨효행) 부평군 석곶면 이교선씨, 16년간 시묘
대한매일신보	6. 14(2)	(기수휴가) 부평군에 파견한 토지조사국 기수들 휴가차 서울 입성

191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신한민보	7. 22(2)	부평 오류골 궁민의 참상 : 용산헌병분대장 아라기 시찰

192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동아일보	6. 12(2)	부평평야 3천 5백정보에 대한 수리사업 실측

192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동아일보	4. 13(2)	경기도 부천군 부평수리조합, 4월 9일부로 설립인가

192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동아일보	7. 4(4)	부평수리조합, 지난달 29일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수원지에서 기공식 거행

192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시대일보	5. 29(4)	부평공립보통학교, 25일 망동산운동장에서 춘계대운동회 개최
시대일보	6. 26(2)	부평수리조합, 자금 3분의 2융통

192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시대일보	7. 25(2)	수재삽화(水災揷話) : 부천군 계양면 박촌리 박인원의 처 이씨(李氏), 물난리에 남편 잃고 길에서 순산
시대일보	7. 27(3)	대홍수가 물러난 후 수난(水難)의 참적(慘跡)을 답사 : 인천지국 기자 고일

192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시대일보	6. 28(3)	부평수리조합, 28일 경기 황금정 화월식당에서 임시평의원회 개최
중외일보	11. 16(6)	부평수리조합 구역 내 소작인, 수리조합과 지주측에 대항하고자 부평소작조합 창립
중외일보	12. 9(2)	부평수리조합 몽리구역 내 지주 1,230여명, 수리조합비의 부당한 부과에 대하여 대책 협의

192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시대일보	1. 17(5)	김포군 3개 수리조합공사에 대한 불평 : 매일 10시간 노동에 최고임금 50전, 그나마 태반은 중국인 사용
시대일보	7. 7(2)	부천군 오정면 오곡리 공동묘지 앞 부평수리조합 간선에 시흥군 군자면 한기서 집 머슴 장석동이 익사체로 발견
중외일보	8. 26(2)	부평수리조합 부정공사 사건과 관련, 소사공립보통학교에서 지주총대회(地主總代會) 개최
중외일보	11. 16(6)	부평수리조합의 추잡한 부정사건이 9월에 이르러서야 발로
중외일보	12. 24(2)	부평수리조합 몽리구역 내 지주대표들 실행위원 선출하여 도 당국과 교섭 중

192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외일보	5. 19(2)	부평수리조합 구역확장 무망(無望), 단념한 모양

192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외일보	4. 14(4)	부평수리조합 보강공사 완성
중외일보	5. 18(4)	농사(農事) 전화(電化) 개황

193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외일보	4. 5(3)	부평수리조합 조합비 관련, 위원이 경기도와 총독부에 진정서 제출
중외일보	4. 7(2)	부평수리조합 구역 지주대회 실행위원들, 당국으로부터 3조건 언명 받아
중외일보	4. 15(9)	부평수리조합 지주대회 결의사항, 조합평의회 평의원들도 합의

193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4. 4(3)	경인선 부평, 주안 사이에서 자동차 추락 4명 중상
중앙일보	11. 23(4)	부평수리조합, 21일 갑자구락부에서 임시총회 개최

193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중앙일보	5. 17(5)	부천군 부내면 사무소 부평역 이전 문제로 구읍민(舊邑民) 궐기

194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국민보	8. 15	조선의 근래 정황 : 인천, 소사, 부평 등지의 군수공장 조선공인 100여명이 폭력단을 조직하여 적의 기관을 파괴할 폭탄과 화약을 밀장하였다가 검거

194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4. 1(조간2)	서울지방체신국 인천부평출장소, 해외무전방송 복구
조선일보	4. 11(조간2)	전재(戰災)동포 구제위해 부평, 노량진에 농장건설 계획
조선일보	4. 13(조간2)	무전(無電) 조선의 기염(氣焰) : 광장리 수신소와 부평송신소 방문기
조선일보	4. 28(조간2)	전(前) 부평조병창에서 고무원료 1만톤 발견

194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8. 10(조간2)	부평평야 수해 심각, 한강수리조합 구역 중 300여 정보 전멸

194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1. 17(조간2)	부평주둔 국군 군기대, 부평주둔 국군부대에서 불온병사 80여 명 체포 발표

194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24(조간1)	한위(韓委) 부평조병창 시찰
조선일보	4. 20(조간2)	부평에 수원지(水源地) 건설 계획, 인천의 수도문제 해결 위해 2개년 계획으로 합의
조선일보	5. 5(조간1)	한위(韓委) 부평 소재 베아링공장 시찰

195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1. 3(조간2)	부평 변전소 고장, 당분간 송전(送電) 제한

195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3. 19(2)	전(前) 부평서장 등 고철을 사물(私物)로 유용, 금품 수리한 혐의로 서울 지검에 송청(送廳)

195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인천공보	4. 1(1)	시의원 프로필 김영길
인천공보	5. 20(1)	인천시조례 제69호 –인천시 부평 공회당 사용 조례–
조선일보	6. 18(조간2)	부평포로수용소 반공포로 800여 명, 즉시 석방 등 요구 시위

195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 19(조간1)	1월 15일 애스컴에 반공 중국인 포로 수용을 위한 수용소 설치 완성

195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3. 7(조간2)	부평 상이군인 화랑농장, 11채 건물 낙성식 거행 : AFAK 원조 자재로 미 제8057부대에서 지어 제공
조선일보	3. 11(조간4)	부평출장소 관내 부개동에서 디프테리아 발생
조선일보	6. 28(조간3)	장마비 연일 계속, 부평이 3백미리로 최고 강우량
조선일보	8. 6(조간3)	부평서 송유관 터져 판자집 4동 전소

195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5. 5(조간2)	미군 제8057부대 소속 한국군인 2명, 신촌에서 통행인에 칼부림
조선일보	10. 16(석간3)	지난 10월 1일 부평역사 신축공사 착수, 오는 12월 중순 단층 역사 준공 예정
조선일보	10. 16(석간3)	미군 2명과 카츄사 2명이 합세하여 부평서 민간인 3명 구타 치상
조선일보	11. 23(조간2)	부평서국민학교에서 아동도덕교육연구회개최
조선일보	12. 11(조간2)	부평 부근에서 한국인 6명 태운 미군 트럭 전복, 3명 사상
조선일보	12. 12(조간2)	부평형무소 작업과장 등 납품량 부족 묵인 대가로 80만 환 수뢰혐의로 구속

195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9. 30(조간2)	미8군 69수송대대 소속 상등병이 몰던 트레라가 부평시장 입구에서 어린이 치어 2명 사상
조선일보	11. 11(석간3)	이리의 생약시험장 부평으로 옮길 계획, 농지 및 청사 이미 마련

195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4(조간4)	산곡동 노상에서 군인과 노무자 백여 명 집단 난투, 상점 다수 파괴
조선일보	4. 22(석간3)	부평동 노상에서 미8군 제2공병단 소속 트럭 전복, 16명 사상
조선일보	6. 9(조간4)	애국노인동지회, 부평에서 10~14일 그네대회 개최
조선일보	11. 18(조간4)	부평지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난 13일 부평공회당에서 결성식 거행

196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3(조간3)	인천의 이학길씨, 작년말 1백여만 환의 사재들여 부평에 종합체육관 건립
조선일보	7. 9(석간3)	미 제8057부대 보충대 식당에서 전선 합선으로 큰 불
조선일보	8. 9(조간2)	일본명전사(日本明電社) 기술자들, 부평변전소 변압기 계속 사용 무방 결론
조선일보	11. 16(조간3)	부평경찰서 수사계 16년 근속 경찰관, 생활고 못이겨 음독자살

196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3. 17(석간3)	육군, 부평에서 폭동진압시범훈련 실시, 부평경찰전문학교에서 1개 중대 헌병 동원

196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2. 25(조간8)	밥 호프, 라나터너 일행 주한 유엔군 일선장병 위문차 내한, 부평노천무대서 열연

196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9. 25(조간2)	건설부, 수출산업시범공업 단지 부평에 연내 착공, 국유지 22만 평, 사유지 1백만 평 매수 계획

196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0. 20(조간7)	부평에서 발생한 의사 콜레라 진성으로 판명
조선일보	11. 19(조간7)	중앙방역당국, 18일 상오를 기해 콜레라 오염지구서 부평지구 해제

196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4(조간6)	횃불은 흐른다(33) – 남과 북의 비극 6 · 25 : 당시 부평지구 헌병대장 한필동(韓弼東)씨 인터뷰
조선일보	10. 17(조간7)	외기(外機) 노조 부평지부 건물관리분회, 거양기업회사 상대로 무기한 총파업 결의
조선일보	10. 19(조간7)	미 애스컴보급기지창 소속 DMM보급행정부근무 종업원 5백여 명, 무기한 파업 돌입
조선일보	10. 20(조간3)	외기(外機) 노조 부평지부 조합원 6천여 명 전원 총파업 결의

196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2(조간3)	대전~부평간 송전선 고장, 한때 정전 소동
조선일보	3. 4(조간3)	2인조 미군 택시 강도, 부평~영등포 2곳에서 발생
조선일보	11. 13(조간7)	외기노조 인천PLO특수지부 산하 부평지구 경비분회 조합원 3백 16명 전면 파업

196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3. 17(조간3)	한미행정협정 재판권 행사 2호, 미8군 애스컴 보급중대 소속 2명에 대해 부평서 현장검증
조선일보	7. 23(조간7)	전국규모 우표위조단 적발, 부평 소재 전용인쇄소에서 인쇄

196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7(조간3)	푸에블로호 부상환자 이송 소문 : 부평121미군후송병원, 한국인 귀가조치
조선일보	12. 24(조간1)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 귀환, 부평에서 1박

196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13(조간8)	미육군 태평양지구 배구선수권대회 18일 부평보급기지창 쉬필드하우스에서 개최
조선일보	4. 12(조간1)	박정희 대통령 부평지구공업단지 시찰
조선일보	5. 22(조간8)	부평에 장유공장 기공, 9월 준공 예정

197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2. 21(호외1)	20일 새벽 인천수출산업공단 내 반도상사 부평가발공장 기숙사에서 불, 30여명 부상

197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6. 12(조간7)	부평 미121후송병원, 용산 8군 영내로 이전
조선일보	7. 24(조간7)	17개 산별노조간부, 전국금속노조에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두개 노조 인정 항의
조선일보	8. 17(조간7)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2백8명 해고 발표에 반발 농성
조선일보	10. 16(조간6)	부평농협 공금유용의 전말 : 부천농협 부평지소의 1천6백만원 예금횡령사건
조선일보	12. 3(조간7)	부평 · 소사 전화 인천 시내전화로 편입

197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3. 8(조간7)	부평 위안부 살해 미군, 원심깨고 무죄
조선일보	12. 19(조간7)	부평 애스컴 한인종업원 4백16명 해고통보

197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22(조간7)	21일 부평국민학교에 원인모를 불

197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 25(조간7)	부평수출산업공단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화재 위험
조선일보	4. 11(조간7)	부평 소상인협동조합장, 횡령혐의로 구속

197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9. 24(조간2)	건설부, 부평 도시계획 변경 고시 · 부평공원묘지 축소 고시
조선일보	11. 26(조간1)	박정희 대통령, 부평 중앙직업훈련원 방문

197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6. 1(조간6)	부평 양계업자, 닭 소매 · 밀도살행위 완화 건의, 값 폭락, 판로 막혀 도산 위기

197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2. 19(2)	울산 · 부평에 '개스 · 터빈' 발전소 25만kw 규모 설치
조선일보	4. 1(조간2)	부평 가스터빈발전소 앞당겨 4월 착공
조선일보	9. 15(조간2)	정부, 수도권 지역 공장 신 · 증축 규제조처 일부 완화, 부평지구 공장신축, 용수(用水) 해결하면 허가
조선일보	10. 25(조간2)	부평화력발전소 준공, 25일부터 본격 가동
중앙일보	12. 10(7)	경찰대학 본관 준공

197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2. 7(2)	새한자동차, 중형자동차 레코드 디젤화 위해 부평에 승용차용 디젤엔진공장 건설 계획
중앙일보	2. 16(2)	동아건설 부평공장 확장, 공산학원에 기증키로
중앙일보	8. 27(2)	새한자동차, 사무직원 소득세 경감분을 공원들에 돌려

198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5. 7(조간7)	서울전자, 동양나일론, 반도상사 등 부평수출4공단 내 5개 업체 '임금 인상' 단식 농성
중앙일보	5. 29(2)	새한자동차, 자본금을 1백 85억 원에서 2배로 증자 ; 부평공장에서 '로열디젤' 제1호차 생산기념식 개최

198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 21(조간6)	부평경찰서, 서울~인천 무대 택시강도 셋 구속
중앙일보	3. 5(8)	(즐거운 우리직장) 전방(全紡) 주식회사 부평공장
조선일보	7. 9(조간2)	진도산업, 국내최초로 부평에 알루미늄 컨테이너공장 완공, 8일부터 생산 착수

198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11. 16(4)	한국후지카공업, 12월 중 본사사옥 및 공장을 인천에서 부평으로 신축, 이전

198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8. 28(조간2)	고려시스템(마이크로 컴퓨터 생산업체), 부평제2공장 준공

198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8. 15(2)	국민은행 부평지점, 옛 연합병원 건물로 이전

198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4. 3(7)	인천 일본군 병기공장자리서 '보물찾기' 소동
조선일보	6. 22(조간2)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 23일 북구 부평동 217의 44로 이전 예정
중앙일보	9. 3(2)	대우자동차, 르망제조공장 준공식 거행

198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 10(조간2)	동방유량, 부평에 기술연구소 준공, 10일 개소식
중앙일보	5. 25(11)	6개재야단체가 주관하는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시민대회'가 24일 부평역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사전봉쇄로 무산
조선일보	5. 26(조간11)	부평서 '광주추모회' 1백 49명 한때 연행, 6개 재야단체 주관, 부평역광장 시민대회 무산
중앙일보	6. 11(7)	한밤 시위 열기 도심 마비, 부평1동 · 부평공단 · 청천파출소는 화염병 · 투석 공격 받아
동아일보	6. 20(6)	19일 오전, 대학생과 공단 근로자 등 500여 명이 부평경찰서 청천파출소에 화염병 15개와 돌을 던져 집기 파손
중앙일보	6. 23(6)	22일 부평고 입구에서 인하대생 1백여명이 '장쾌한 시민의 투쟁, 군부파쇼의 예봉을 꺾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뿌리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저지로 해산
중앙일보	6. 27(6)	대학생 · 시민 등 3천여 명, 26일 하오 6시부터 부평1동 · 부평4동 · 산곡동 · 청천 동 등 부평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27일 0시 25분쯤 해산
조선일보	9. 3(조간11)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근로자 1천 5백여 명 어용노조퇴진 등 요구 격렬시위
중앙일보	9. 30(7)	부평서장 직무관련 수뢰혐의로 직위해제
조선일보	9. 4(조간11)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기존노조-민주노조쟁취위 간 대표권 문제로 9일째 농성
중앙일보	11. 30(10)	대우차 부평공장 창고에 불, 제품 백억 소실

198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2. 13(14)	노조 와해위해 32명 무더기 해고, 부평 신립섬유 대표 구속

198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5. 12(14)	대경여상 점거농성사건 관련, 학생회장 등 구속
중앙일보	6. 3(14)	명신여고 농성반대 교사 21명, 교장퇴진 등 요구하는 학생 및 교사협의회 가입교사들 농성으로 인해 수업진행 불가하다며 사표 제출
중앙일보	6. 6(14)	대우자동차 파업 결의

199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1. 6(19)	부평경찰서, 인천마이크로전자 출근투쟁 54명 연행
서울신문	3. 16(18)	부평경찰서, 15일 오후 부평동 376 '노동자대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갑오농민전쟁' 등 책 2백 12종 3백 82권과 각종 유인물 압수
조선일보	4. 2(15)	실종된 상업은행 부평지점 차장 천마산 중턱서 7달만에 변사체로 발견
조선일보	4. 3(17)	경인고속도로 중 신월~부평간 확장사업 92년까지 완공
서울신문	4. 17(18)	명신여고, 학생들의 수업거부 농성을 주도하다 퇴학당한 학생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발
서울신문	6. 27(01)	김하경 전 철도청장, 부평역 민자역사 신축 등 관련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부평역사주식회사 이사 권순옥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조선일보	9. 12(2)	집중호우로 구로 · 부평 · 성남공단 등 침수, 부평5단지 원사 20t 침수
조선일보	10. 12(23)	부평1동 신용협동조합 후문 앞길에서 직원이 1억여 원 날치기 당해
조선일보	10. 27(23)	민자역사 수뢰관련 전철도청장 징역 5년 구형

199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10. 21(19)	계양산 민자개발 시비
서울신문	10. 24(7)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간 11.7km 8차선 확장공사,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내년 7월까지 조기 완공
중앙일보	11. 5(22)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부천~부평 구간 신설, 한 곳만 운영
중앙일보	11. 29(7)	경인고속도로, 12월 2일부터 서울~부천, 부평~인천 간 무료
중앙일보	12. 12(19)	굴포천 방수로 착공

199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1. 14(22)	전방 부평공장에 불, 야근 여사원 2명 숨져, 기계과열 3억피해
서울신문	3. 25(17)	구산동 육군 모부대 수류탄 투척훈련장에서 불발수류탄을 갖고 놀던 어린이 4명 폭사
중앙일보	4. 1(19)	계양산 산림 훼손 말썽
중앙일보	6. 15(19)	굴포 · 승기천 역류, 침수 되풀이
서울신문	7. 23(17)	국내 네 번째로 민자로 건설되는 부평역사 22일 착공, 95년 6월 완공 예정 : 지하 3층 지상 8층
중앙일보	8. 13(19)	인천 갈산동 등 4곳 분동

199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4. 2(21)	부평여공고 내년 개교
중앙일보	5. 25(21)	인천시, 북구 분구 추진
중앙일보	5. 28(21)	부평공설묘지 전국 최대로 확장
서울신문	6. 15(21)	경인고속도로 부평~서인천 간 3.8km 구간 8차선 확장공사 마무리, 15일 개통
서울신문	7. 2(21)	이용기 북구청장 뇌물수뢰혐의로 조사중
중앙일보	7. 5(21)	인천 지하철 착공
중앙일보	7. 10(21)	인천 부평 정수장 '5등급'
서울신문	8. 12(22)	북인천세무서 전산실 여직원이 과세자료를 파기 · 변조해 5억 2천여만 원 탈세 공모

199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서울신문	2. 6(11)	천주교 평신도들만으로 구성된 '우리 신학연구소' 출범, 부평4동 천주교회에 연구실 마련
중앙일보	4. 16(21)	철마산 · 만월산 · 문학산 터널 건설
중앙일보	5. 12(20)	인천 굴포천 등 3곳 복개 주차장 건설
중앙일보	7. 22(26)	대우그룹, 부평공장으로 사무실 이전
중앙일보	8. 23(27)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환경오염방지설비 완공
중앙일보	9. 6(23)	세무공무원이 돈받고 납세영수증 위조해줘 : 2명 긴급 구속
중앙일보	9. 12(23)	구청세무담당 8년된 9급여직원 아파트 네채 등 10억대 치부
중앙일보	9. 16(23)	전(前) 평가계장 20여개 계좌추적 : 인천 북구청 안영휘씨
중앙일보	9. 21(23)	영수증철 8월 이미 빼돌려 : 인천 세금횡령 사건
중앙일보	9. 23(22)	눈덩이처럼 커지는 횡령규모 : 인천 북구청 얼마나 착복했나
중앙일보	9. 23(23)	세금횡령 총액 백억 원 넘을듯 :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중앙일보	9. 24(22)	묘수 안보이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환수
중앙일보	9. 24(23)	고위직에 상납 집중추궁 :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중앙일보	9. 25(19)	(심층취재)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 사건발단, 범죄수법
중앙일보	9. 25(23)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영수증철 은닉 세무과 8명이 공범
중앙일보	9. 27(23)	대기업 세금횡령 수법 밝혀져 : 인천 북구청 비리
중앙일보	9. 29(22)	가짜 영수증 관계자 전원소환 : 인천 북구청 수사
중앙일보	10. 1(22)	가짜 세금영수증 4백여장 또 발견 : 인천 북구청 수사
중앙일보	10. 3(23)	가짜영수증 또 65장 발견 : 인천 세금횡령사건
서울신문	10. 5(23)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관련 공무원 22명 파면
중앙일보	10. 9(23)	세금횡령수사 인천 전구청 확대
중앙일보	11. 1(19)	서울 3곳 · 인천 2곳 내년 3월 분구

199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1. 20(19)	인천 북부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중앙일보	2. 17(19)	부평역광장 지하철 공사위해 97년 말까지 잠정 폐쇄
중앙일보	5. 4(19)	부평 청천천 화물주차장 준공, 굴포천 주차장도 이달 착공
중앙일보	7. 4(19)	부평 명신당 금은방자리 평당 3,300만 원 최고
중앙일보	7. 13(19)	부평삼거리~부평농장 우회로 개설-내달 착공 연내개통
중앙일보	8. 18(47)	(이렇게 달라진다) 부평구청~가좌동 도로개설

1996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서울신문	1. 26(21)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압류 불가 판결, 횡령당한 세액 74억 원 중 현재 36억 환수
중앙일보	2. 7(19)	부평 삼산동 종합운동장 건립 : 2001년까지 만5천명 규모
중앙일보	2. 22(17)	부평에 농산물 도매시장 3만평 부지에 98년 완공
중앙일보	2. 26(19)	인천 만월산 터널공사 사업자 6월 최종 결정
중앙일보	3. 7(19)	부평, 담배자판기 철거 방침
중앙일보	3. 21(17)	부평 공동묘지 재조성 무연고자 묘역정비도
서울신문	3. 23(21)	경인전철 부개역, 28일 낮 12시부터 영업 시작
중앙일보	7. 10(19)	인천 제2농산물시장 부지 삼산동 확정
중앙일보	8. 21(17)	부평묘지공원 민간위탁

1997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3. 9(27)	산곡동에 근로자복지회관 : 지상 1층, 지하 5층
서울신문	5. 21(22)	서울고법,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주범 안영휘씨 부인 등이 가족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부당하다며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은 환수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밝혀
서울신문	6. 24(22)	80년 당시 부평경찰서 형사반장이었던 황용하씨, 시민을 전과자로 조작하여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킨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7. 3(19)	부평역 광장 대대적 정비 : 부평구, 연말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 상가 신축
중앙일보	7. 19(19)	부평 미군부대 관통도로 미군과 협의후 내년 착공
중앙일보	10. 4(19)	인천 삼산2지구 3천1백가구 분양
서울신문	10. 12(18)	청천2동 · 부개2동 등지에서 북한 김정일 찬양 유인물 잇따라 발견
서울신문	10. 17(23)	부평1동 인천지하철 17공구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작업 중 슬래브가 무너져 인부 1명 사망
중앙일보	11. 4(18)	(공무원파이팅) 부평 갈산동사무소 소식지 '갈월리' 화제
중앙일보	11. 6(21)	을사오적 송병준 땅 국가귀속 판결
중앙일보	11. 18(19)	산곡동 미군부대 부지에 근로자 위한 휴양소 건립
중앙일보	11. 26(19)	인천시 삼산2지구 주공 1천 7백46가구 분양
중앙일보	12. 9(19)	삼산동 2백58가구, 주공 펌프장공사로 주택 균열
중앙일보	12. 10(19)	삼산1지구 98년 택지조성
중앙일보	12. 16(19)	산곡동 주민들, 복개천 주차장신설 혼잡 극심 불편 호소
중앙일보	12. 19(32)	한화마트 1호 부평점 문열어

1998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중앙일보	1. 21(19)	부평에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
조선일보	5. 13(22)	형편어려운 아동의 '방과후 놀이터' 부평 '인표 어린이도서관'
조선일보	6. 2(19)	인천 부평 로터리 주변 '해물탕 특색 음식 거리'로 지정
조선일보	11. 14(26)	경인전철 복복선 부평~구로 구간 내년 1월 개통, 현재 98% 공정

1999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서울신문	1. 7(21)	부평구, 부평동 286에 주둔해 있던 육군 80정비부대 자리에 부평공원 조성 방침
중앙일보	1. 21(17)	경인선 구로~부평 복복선 개통
서울신문	2. 4(25)	인천시, 부평동 육군 80정비부대 자리에 부평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해 미니어처 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서울신문	2. 6(24)	부평구, 구산하 6급 공무원에게 구정운영과 관련된 논문을 연 1편 이상 제출하도록 의무화
중앙일보	3. 29(22)	부평 삼산지구 4만평 스포츠타운 조성
중앙일보	5. 13(23)	부평 삼산지구 4만평 대형 스포츠타운 조성
서울신문	7. 6(2)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인천시가 올린 '인천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안' 통과, 삼산동 일원에 인구 2만 5천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 조성

2000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2(23)	부평2동 성동원 앞 사거리 안전지대 부분 도로 지반 1.5m쯤 침하
서울신문	2. 11(29)	부평구, 공무원 표준정원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
중앙일보	2. 21(25)	인천 부평공설묘지에 새 시립 화장장
조선일보	2. 24(51)	마그넷 부평점 오늘 문 열어
서울신문	3. 1(31)	부평구,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공무원 표준정원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 행정자치부 고시가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4. 17(25)	(인천인터뷰) 부평을 최용규 당선자
서울신문	5. 8(27)	부평공원, 오는 8월 초 개장
조선일보	5. 9(25)	(민원의 현장) 인천 산곡1동 88 일대, 당국 측량 잘못에 주민들 '40년 고생'
조선일보	5. 31(25)	인천시의회, 6월 10일 부평 미군부대 반환 요구 결의문 채택 예정
조선일보	6. 2(32)	(문화가 인물) '잔치마당' 서광일 씨
조선일보	6. 13(25)	부평구직장협의회, 구청장 판공비 공개 요구
조선일보	7. 7(32)	'부평시민모임' 등 인천지역 16개 사회단체, 경인여대 사태 해결 촉구
조선일보	8. 7(22)	(민원현장) 부평 송신소 터 분쟁
조선일보	9. 7(23)	'부평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추진본부', 부평 미군부대 주변서 인간띠 잇기 행사 예정
조선일보	9. 23(31)	'2000년 소파(SOFA ·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부평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간띠 잇기 대회 추진본부',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부평 미군기지 이전 촉구 서한 보내
조선일보	9. 25(14)	대우차는 어디로, 부평공장 현지 르포
조선일보	10. 11(25)	부평역 민원실 설치
중앙일보	10. 13(25)	부평역에 현장민원실 개설
조선일보	10. 16(25)	(인천인터뷰) 부평문화원장 조기준 씨
조선일보	11. 8(25)	철마산 터널 공사 시작
조선일보	11. 10(2)	대우차 부평공장 가동 중단, 협력업체서 부품공급 거부
조선일보	11. 14(13)	대우차 부평공장 3일째 '스톱', 부품공급 중단 장기화
조선일보	11. 14(25)	(민원현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분쟁
조선일보	11. 21(25)	네티즌, '대우차 살리기' 26일 집단 행진 행사
조선일보	12. 4(29)	인천 정안과 병원 정규형 박사, 시각장애인 182명 무료 · 감면 시술
조선일보	12. 5(25)	인천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많아, 부평구 715명으로 대구 달서구에 이어 전국 두번째
조선일보	12. 26(25)	(민원현장) 삼산동 주공 미래타운 도로 문제

2001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조선일보	2. 6(13)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한달 가동 중단
서울신문	2. 8(21)	박수묵 부평구청장, 구정홍보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선일보	2. 13(25)	표기법 개정 따라 부평은 'Pupyong'에서 'Bupyeong'으로 바뀌어
조신일보	3. 15(25)	북구도서관 새 이름 공모
서울신문	4. 14(19)	민주노총, 부평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관련 경찰청장 등 관계자 4명을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
서울신문	4. 28(6)	(대한광장) '부평사태'와 대통령
조선일보	5. 4(25)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오는 9일 정식 개장
조선일보	6. 29(25)	'부평권리선언 운동본부' 등 부평 미군부대 땅 반환 촉구
중앙일보	8. 1(23)	경기도 굴포천 방수로 1일 착공
중앙일보	8. 2(23)	부평 산곡동 군부대 터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
중앙일보	8. 16(35)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지난달 첫 51억 흑자
조선일보	9. 17(25)	부평풍물대축제 22~23일 부평역 광장서 열려
조선일보	9. 20(23)	미 GM사, 대우차 부평공장 '6년간 위탁생산' 키로
중앙일보	9. 22(27)	인천 구월 · 삼산 농산물시장 연장 영업
조선일보	10. 22(25)	부평지역 주부들설문 조사, "나를 무시할때, 남편이 가장미워"
조선일보	11. 6(25)	부평 신촌사거리 인천에서 가장 위험, 작년 교통사고 57건
서울신문	11. 12(24)	부평구 십정동 부평여상 인근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
조선일보	12. 25(25)	부개지구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2002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서울신문	1. 5(17)	부평구, 구의회가 제정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조례'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
중앙일보	3. 14(23)	부평~주안 복복선 내일 개통
중앙일보	3. 21(1)	부평서 3층 다세대 가스폭발, 6명 사망
서울신문	3. 26(27)	부평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사건 가스판매업체, 사고당일 가스판매 기록일지 조작
중앙일보	3. 27(27)	부평 가스폭발 가스통 잘못 연결탓
중앙일보	4. 11(35)	GM행에 생기 찾은 대우차 부평공장
중앙일보	4. 12(22)	반환 앞둔 미군기지 어떻게 활용하나
서울신문	8. 1(26)	부개2동 옛 송신소 부지에 학교, 통신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서울신문	8. 8(27)	부평구, 부평1동과 부평2동을 연결하는 남부고가교 재가설할 계획
서울신문	12. 19(27)	부평구의회, 전국 최초로 사생활 문란한 구의원 제명
중앙일보	12. 21(30)	인천대공원 · 계양산 일대 수목원 삼림욕장 추진

2003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인천일보	1. 3(21)	부평구, 이마트 부평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인천일보	1. 7(17)	부평구, 4국체제 조직 개편, 문화복지국 신설
인천일보	1. 8(6)	부평관광호텔, 시설 고급화 컨벤션센터 새단장 9일 오픈
인천일보	1. 13(17)	(인터뷰) 부평구의회 이찬구 의장
인천일보	1. 16(10)	(우리학교 최고) 부평여자공업고
인천일보	1. 22(14)	(의정초대석) 최용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인천일보	1. 23(10)	부평도서관, 공공도서관 국내최초로 '부평지역특허정보 지원센터' 지정
중앙일보	2. 19(10)	인천 철마산에 시민공원
인천일보	3. 7(18)	부평경찰서, 인천에서 최초로 마약전담수사반 신설
인천일보	3. 15(13)	부평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인천일보	3. 19(17)	부평2동 경인전철 남부고가교 사고 위험
인천일보	3. 20(1)	인천지역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협의회, GM대우자동차 부평본사 홍보관에서 'GM대우차사랑 범시민대회' 개최
인천일보	3. 22(11)	중국 산동성 쩌우난시 대표, 부평구 방문
인천일보	3. 25(17)	인천시, 부평묘지공원 정비계획 확정 · 발표
인천일보	3. 28(17)	부평구, '바이오디젤' 보급 팔걷어
인천일보	3. 31(10)	부평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는 '한국도서관상' 수상
중앙일보	4. 15(10)	부평 미군부대 자리에 테마공원
중앙일보	4. 24(10)	굴포천 인천시내 구간 공원형 하천으로
인천일보	5. 3(7)	(핫 이슈) 재건축 추진 산곡 한양1차 아파트
인천일보	5. 3(5)	인천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중 부평구 농협중앙회 부평지점 3층에 지점 설치
인천일보	5. 12(17)	(핫 이슈) 새국면 산곡1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인천일보	5. 13(7)	부평공단 '디지털단지' 변신 중
인천일보	5. 13(17)	부평구, 부개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추진
인천일보	5. 13(19)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민관합동 '인수특위' 구성 제안
인천일보	5. 14(11)	부평도서관, 부평지역특허지역 정보센터 개소식
인천일보	5. 14(17)	부평구,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산출방식에 반발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인천일보	5. 15(14)	부평구의회 조례정비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인천일보	5. 15(17)	부평구, '구민행정수요조사' 실시
인천일보	5. 15(17)	'2003 부평풍물대축제' 6월 3~8일 개최
중앙일보	5. 20(12)	인천 구산동 2만여 평 주거단지로
중앙일보	7. 18(W19)	굴포천 복원계획 진단
중앙일보	8. 14(E3)	옛 대우차 부평공장 2교대생산 재개, GM 인수작업 빨라질 듯
중앙일보	10. 28(33)	부평역 지하도 밥수레 위험천만

2004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경인일보	1. 3(23)	(토요화제) 전국 최초로 문여는 '이주 여성 쉼터'
경인일보	1. 3(17)	부평 디자인센터 · GM대우 디자인센터 전문디자인 산실 '뜬다'
경인일보	1. 7(4)	(NGO칼럼) 친일파후손들 뻔뻔한 땅소송
중앙일보	1. 12(12)	인천 서구청 · 부평↔신 촌 삼화고속 새 노선 운행
경인일보	1. 14(15)	13일 보건소 3층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행복의 집' 현판식
경인일보	1. 27(17)	(이젠 구도심이다) ④ 북부권역 : '수출 1번지' 화려한 명성 '옛말'
경인일보	1. 29(17)	부평구, 부평구 상징캐릭터 '부디' · '부니' 발표
조선일보	5. 1(A12)	러시아 공연 떠나는 부평 풍물패 '잔치마당'
중앙일보	5. 12(12)	부평풍물대축제 '한마당'
조선일보	5. 17(A14)	부평풍물축제 19일 막 올라
중앙일보	6. 1(10)	애국지사 · 친일파 후손 '땅 결투', 민영환씨 5대손 · 송병준 후손 땅 소유권 다툼
중앙일보	6. 8(11)	인천 천마산 터널 23일 개통
조선일보	6. 22(A13)	(이 사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기능직 공무원 정충호 씨
조선일보	7. 2(A14)	부평역 앞대광당 안경점 앞 평당 3305만 8천원으로 인천 최고
조선일보	7. 16(A16)	부평 미군부대 터 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 기존 아파트 건설 계획은 폐지
조선일보	8. 21(A12)	삼산지구 내년 6월까지 버스 9개 노선 신 · 증설 추진
조선일보	10. 27(A14)	삼산동에 문화 · 체육공간 생긴다, 시립체육관 2006년 문 열어
조선일보	11. 20(A13)	'악취' 굴포천 휴식공간 된다
중앙일보	11. 23(14)	인천시,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
조선일보	11. 24(A15)	인천지역 '파업' 공무원 총 79명 징계 처분, 부평구 36명 최다
조선일보	12. 21(A16)	(집중취재) 이달 말 시작되는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

2005년

신문명	발행일(면)	내 용
인천일보	1. 3(17)	부평구, 인천시가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천일보	1. 3(17)	부평역사박물관, 삼산1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 내에 내년 초 건립
인천일보	1. 7(12)	(맛 속으로) 부평 해물탕거리
한국일보	1. 8(1)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송병준 · 이완용 보유 토지가 100만평에 달한다는 조사결과 공개
인천일보	1. 11(17)	부평구 갈산동 166일원에 건립된 부평국민체육센터 다음달 개장
인천일보	1. 13(6)	대우자동차 신용협동조합 출신, 부평지역 신협 주도
인천일보	1. 17(17)	부평구, 인재풀(pool) 구성, 지역 발전 활용
인천일보	1. 20(1)	부평문화예술회관 12월 착공, 송학사 부지에 건립
인천일보	1. 22(6)	(인천지역 상권분석) 부평 : 유동인구 50만 명, 지역최대 번화가
인천일보	1. 29(13)	부평구, 출생신고 우편 접수
인천일보	1. 29(15)	십정동 빨래방에서 불, 6개 업소 옮겨 붙어
인천일보	1. 31(18)	부평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인천일보	3. 22(17)	으뜸부서 으뜸직원 : 부평구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한국일보	4. 19(14)	계양산에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중앙일보	5. 14(10)	친일파 송병준 후손 수천억 땅찾기 대법원서 패소
중앙일보	5. 17(15)	인천 '굴포천 방수로' 19일 착공
한국일보	5. 28(12)	(제2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천 부평구 : 하천 · 숲 등 살려 생태도시로
중앙일보	6. 28(11)	국내서 가장 오래된 목간(木簡) 발굴
한국일보	7. 20(8)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 소속 미군, 부평동 호프집에서 종업원 폭행
한국일보	8. 31(10)	2008년 이전 부평 미군부대 땅 공공시설 조성계획 차질
한국일보	10. 4(17)	GM서 인수 대우인천차 부평공장 현지 르포

자 료 편

연 표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함에 따라 부평지역이 고구려 영토에 속하게 됨. 이때 부평지역에 주부토군(主夫吐郡) 설치.

757년(신라 경덕왕 16)

주부토군을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

940년(고려 태조 23)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개칭.

1150년(의종 4)

수주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

1215년(고종 2년)

안남도호부를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개칭.

1219년(고종 6)

이규보가 계양도호부 부사로 좌천되어 부임해 옴.

1308년(충렬왕 34)
계양도호부를 길주목으로 승격

1310년(충선왕 2)
길주목을 부평부로 변경.

1395년(조선 태조 4)
부평부가 경기좌도에 속하게 됨.

1413년(태종 13)
부평부를 전례에 따라 부평도호부로 승격.

1438년(세종 20)
온천은닉죄로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446년(세종 28)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455년(세조 원년)
부평에 중익진 설영, 병마첨절제사가 부사를 겸임함.

1505년(연산군 11)
환관 김순손의 고향이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506년(중종 원년)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698년(숙종 24)
장릉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의 출생지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706년(숙종 13)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853년(철종 4)

부평향교 명륜당, 대성전 등 대보수.

1871년

1. 25. 부평부에 포수 3백명 배치.

1879년

7. 1. 부평에 연희진, 인천에 화도진 신설.

1883년

9월 초 부평부사 박희방, 주민을 동원하여 중심성 축조.

1884년

1. 31. 부평부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고 연희진 폐지.

1887년

12. 29. 부평부사가 토포사를 겸임함.

1895년

5. 26.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 시행, 기존의 목부군현(牧府郡縣)을 모두 군(郡)으로 통일함. 부평군은 이 때 인천부 관할이 됨.

1899년

3. 15.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 설립.

1909년

1. 4.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를 부평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꿈.

1919년

3. 24. 황어장에서 심혁성 주도 하에 만세운동 전개.

1922년

5. 22. 부평수리조합 설립 신청.

1923년

4. 9. 부평수리조합, 총독부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아 창설. 위치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6번지.

6. 29. 부평수리조합,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수원지에서 기공식 거행.

1940년

3. 15. 부평역전우편소 개소.

1941년

10. 24. 부평역전우편소, 청사를 신축하고 부평우편소로 개칭.

1942년

6. 1. 부평변전소 건립.

10. 1. 부평에 공회당 건립.

12. 20. 부평우편소 전화교환 업무 개시.

1943년

3. 5. 황장연, 일본육군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 조직. 1945. 2. 17. 조선군법회의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 언도 받음. 1945. 8. 15. 해방과 함께 출옥함.

1944년

1. 8. 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부평 제1공원 등 23개소 결정.

1945년

1. 15. 부평 소재 육군자동차 학교, 육군병기학교로 개편.
8. 16. 부평출장소 2층 부평공회당에서 치안대 조직.
9. 10. 미제24군수지원사령부, 부평지역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 시설을 접수, 주둔 시작.
10. 10. 인천군정청,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고 제물포시장에 임홍재, 부평지구장에 김석기, 남동지구장에 오혁근, 서곶지구장에 정원용을 임명함.

1946년

1. 1.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환원 · 개정.
2월 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부평지부 발기인 대회 개최.
4. 1. 서울지방체신국 인천부평출장소에서 해외무전방송 시작.
7. 14.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평지부, 소화고녀(昭和高女, 현 경찰학교 자리) 교정에서 '독립전취 시민대회 개최.
9. 1. 인천부평서초등학교(부평1동 542-18) 개교.

1947년

10. 15. 대동청년단 부평지부 결단식 거행. 단장에 이재준, 부단장에 김영길 · 김건룡 선출.

1949년

4. 5. 인천부평서초등학교 산곡분교장 설립(후에 인천산곡초등학교로 개교).
7. 6. 대한부인회 부평지회 결성.
11. 25. 부평우편소를 부평우체국으로 승격.

1950년

6. 27. 일본육군조병창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 시작.
9. 17. 원통이고개 전투 발발.

1952년

5. 26. 부평지역 최초의 사회복지 시설인 신명보육원(십정동 185) 설립.

10. 5. 부개초등학교(부개1동 356), 부평동초등학교 부개분실로 문을 엶, 1955. 5. 1 인천부개국민학교로 개교.

1953년

6. 14. 부평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 800여 명이 즉시 석방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에 걸쳐 시위.

6. 18. 전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 부평 제10수용소에서는 560명이 탈출하고 860명 잔류.

9. 30. 청각언어장애자 생활시설인 성동원(부평동 756) 개원.

10. 10. 산곡초등학교(산곡1동 87-236) 개교.

1954년

1. 15. 부평 애스컴에 중국인 포로 수용을 위한 수용소 완성.

4. 1. 부평송신소, 광장수신소를 부평 · 광장무선전신전화 건설국으로 개편.

12. 20. 청각장애자 수용시설인 성동원(부평동 756) 설립.

1955년

3. 5. 화랑농장 신축건물 11채 낙성식 거행.

3. 27. 국립경찰전문학교(현 경찰종합학교), 부평에 있는 전(前) 박문여자중학교 자리로 교사 이전.

5. 1. 인천부개초등학교 (부개1동 356) 개교.

5. 5. 성모자애병원 낙성식 거행.

6. 17. 부평정미소(부평동 100)에서 화재 발생, 재산피해 7백 50만 4천 환.

8. 5. 부평파출소 신축.

10. 1. 일신동과 구산동을 합병하여 부개일신구산동이 됨.

1956년

11. 23. 인천시 조례 제44호 '인천시출장소설치조례'에 따라 본청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 부평, 서곶, 남동, 문학 등 5개 출장소 설치.

1957년

2. 4. 부평2동에서 부평3동과 십정2동이 분동.
10. 1. 부평역 역사 신축공사 착수.
12. 12. 부평동 357번지 경인병원 2층에서 화재 발생.

1958년

1. 7. 시각장애자 생활시설인 광명원(십정동 185) 개원.

1959년

3. 1. 정신지체아 생활시설인 예림원(부평동 633) 개원.
11. 13. 부평지구 청소년지도위원회 결성.

1961년

10. 2. 부평·광장 무선전화건설국을 서울 국제전신전화국 부평송신소, 광장수신소로 개칭.

1962년

1. 29. 새나라자동차 창업.
11. 5. 부평남초등학교(부평2동 747) 개교.

1963년

1. 4. 신진자동차, 마이크로버스 양산 개시.
2. 1. 국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9) 개점.
2. 21.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 제2공구(인천시 부평동, 부개동 일대) 시행.
5. 28.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 부평지부 발족.
6. 8. 신진자동차, 대형버스 양산 개시.

8. 7. 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직할시 북구 분회 및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회 인천 북구 분회 결성.
11. 5. 신진자동차, 소형승용차 신성호 제작.

1964년

1. 11. 대한극장 개관.
3. 13. 부흥초등학교(부평5동 171) 개교.
4. 22. 부평라이온스클럽 창립.
10. 23.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1965년

3. 1. 부평한일초등학교 설립 인가.
6. 16. 부평지역(효성동 · 갈산동 · 작전동)을 건설부공고 제141호에 의해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
8. 7. 신진공업주식회사, 초대형 버스 '파이오니어' 제작.
11. 19. 신진공업주식회사,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 인수.
11. 23. 상공부장관, '인천수출산업공단' 정식 인가.

1966년

1. 16. 신진공업주식회사,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 28.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도요타(豊田)자동차공업과 기술 제휴.
4. 8. 부평공업단지 기공식.
7. 5.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부평공업단지 최초 입주 기업체로 지정.
11. 11. 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PLO특수지부 산하 부평지구 경비분회 조합원 3백16명 전면 파업.
12. 6. 인천간정초등학교 개교(십정2동 501).

1967년

3. 24. 경인고속도로 착공.
4. 23. 부평급수장 신규공사 착공.
5. 10. 부평정수장 기공.

12. 20. 부평 내연발전소(갈산동 90) 착공.

1968년

1. 1. 구제(區制) 실시. 북구, 중구, 남구, 동구 4개 구청 개청. 종래의 9개 출장소는 폐지되고 남구와 북구에만 출장소를 둠. 북구에는 서곶출장소 설치.
3. 1. 부평북초등학교(갈산1동 10) 개교.
3. 5. 부평중학교(부평4동 136) 개교.
9. 30. 부평디젤발전소 준공.
12. 21. 경인고속도로 개통(제1차 준공).

1969년

1. 8. 북구 부평동에 제2공보관 설치.
7. 20. 경인고속도로 제2차 개통.
12. 1. 부평우체국, 국제전화 취급 개시.
12. 22. 한일은행 부평지점 개설(부평동 357-36).

1970년

1. 28. 부평수리조합이 한강농지개량조합으로 개편, 1975. 7. 1. 김포군으로 이전함.
3. 1. 부평동중학교(부개2동 120-6) 개교.
3. 30. 부평여자중학교(부개2동 120-21) 개교.
4. 21. 인천은행(경기은행 전신) 부평지점(부평동 199-24) 개점.
5. 6. 부평청년회의소 창립.
7. 1. 부평2동이 부평2동과 동수동으로 분동. 산곡동이 산곡1동과 산곡2동으로 분동. 부평4공단 내에 소방관 파견소 설치. 소방차 1대와 소방관 5명 배치.
11. 24. 산곡2·4동 새마을금고 설치.
12. 20. 북구 효성동 인천수출산업공단 내 반도상사 부평가발공장 기숙사에서 화재 발생.

1971년

2. 22.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 폐쇄.
3. 4.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산곡동 180-147) 개교, 1987년 명신여자고등학교(일반계)로 교명 변경.
5. 6. 부평자유시장 설립.
6. 14. 미121후송병원, 서울 용산 미8군 영내로 이전 개원.
8. 16. 동암역 신설.
8. 17. 부평진흥자유시장 설립.
8. 20. 부평정수사업소 개소.
8. 30. 부평정수장 준공.
11. 26.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작. 1972. 6. 20. 준공.
12. 12. 부평 · 소사 전화 인천시내 전화로 편입.

1972년

3. 2. 부평고등학교(부평4동 10-312) 개교.
3. 3. 경기도 소방서조직규칙 개정(규칙 646호)에 따라 부평출장소를 부평 파견소로 승격.
6. 1. 인천은행, 경기은행으로 상호 변경.
8. 2. 부평3동 새마을금고 설치.
12. 30. 부평2동 · 부평1동 · 산곡동 신용협동조합 인가, 설치.

1973년

2. 21. 부평초등학교 화재, 12개 교실 전소.
3. 1. 청천초등학교(청천1동 34-6) 개교.
6. 5. 부평5동 새마을금고 개점.
6. 30. 애스컴(ASCOM) 공식적으로 해체.

1974년

10. 9. 산곡1동 새마을금고 설치.

1976년

6. 1. 지체장애자 생활시설인 은광원(부개동 347) 개원.
6. 7. 지체장애자 생활시설인 성린원(십정동 586-2) 개원.

1977년

5. 10. 부개일신구산동을 부개동으로 명칭 변경.
8. 6. 부흥어린이공원 준공.
8. 10. 부평 부안교 개통.
10. 25. 부평화력발전소 준공, '가스터빈' 발전 개시.

1978년

3. 10. 부평서여자중학교(십정동 186-519) 개교.
6. 22. 부평백화점 개점.
12. 22. 대도백화점 개점.

1979년

1. 16. 부평종합상가 설립.
9. 1. 산곡1동청사 신축.
11. 26. 중소기업은행 부평출장소 개점.
12. 15. 부평로지하상가 설립.

1980년

3. 5. 부평서중학교(십정동 186-79) 개교.
4. 28. 갈월종합시장 설립.
5. 28. 새한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로열디젤' 제1호차 생산기념식 개최.
7. 8. 시·군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 제9950호)에 따라 부평북부소방서 신설.
8. 1. 부평정수사업소 가청사에서 인천북부소방서 개서, 부평·가좌·효성 3개 파출소 편입.
10. 25. 부평향교, 유림회관 개관식 거행.
12. 26. 조흥은행 부평예금취급소(부평동 204-12, 14, 15) 개점. 1981.

7. 7. 조흥은행 부평지점으로 승격.
12. 28. 부평 전신전화국 산곡분국, 자동식 전화 5천회선 개통.

1981년

2. 13. 청천종합시장(청천동 178-9) 개설.
4. 28. 인천북부소방서 신축 이전.
5. 20. 부평 청과도매시장(부평동 252) 개설.
6. 5.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부평동 224-1) 개설.
6. 25.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부평1동 464-28) 창립.
7. 8. 진도산업, 부평에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컨테이너 공장 완공, 생산 시작.

1982년

3. 1. 세일고등학교(산곡동 179-79) 개교.
5. 18. 부평도서관(십정동 186-454) 개관.
6. 26. 부평역 앞 JC공원 내 육각정 건립 기공.
9. 1. 부개동이 부개동과 일신동으로 분동. 신촌초등학교 개교(십정동 186).
10. 2. 부원초등학교(부평1동 65-16) 개교.
11. 17. 부일종합시장(일신동 107) 개설.
11. 23. 부평역사를 현대식 건물로 준공.

1983년

3. 1. 부개서초등학교(부개2동 155-1) 개교.
3. 7. 산곡북초등학교(산곡1동 39-1) 설립 인가.

1984년

3. 1. 부광초등학교(부개3동 69-6), 산곡북초등학교(산곡동 39-1), 산곡중학교(산곡1동 180) 개교.
3. 5. 부일여자중학교(부평2동 677-1) 개교.
4. 1. 십정초등학교(십정1동 298-1) 개교.

1985년

2. 20. 부평 남부역사 기공.
3. 4. 청천중학교(청천2동 190-58) 개교.
9. 1. 일신초등학교(일신동 112-3) 개교.
11. 15. 부개동이 부개1동과 부개2동으로 분동. 십정동이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

1986년

3. 1. 산곡남초등학교(산곡3동 232-1), 삼산초등학교(삼산동 58-2), 부광중학교(부개3동 22-1) 개교.
7. 30. 북인천우체국 개국.
9. 3. 대우자동차, 르망제조공장 준공식 거행.
11. 11. 인천북부소방서 부평파출소 증축.

1987년

3. 1. 대정초등학교(산곡3동 311-150) 개교.
3. 5. 부흥중학교(부개3동 13-73) 개교.
9. 25.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출범.

1988년

9. 1. 마곡초등학교(산곡1동 70-1) 개교.

1989년

3. 1. 상정초등학교(십정1동 198) 개교.
9. 1. 마곡초등학교(산곡1동 70-1) 개교.

1990년

1. 1. 부평3동이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
1. 17.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산곡2동 99-15) 개점.
3. 1. 산곡여자중학교(산곡2동 235-4) 개교.
3. 23. 대동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2-14) 개점.

4. 19. 서울신탁은행 갈산동출장소(갈산동 73-10) 개점.
4. 26. 경기은행 동암지점(십정동 356-4) 개점.
5. 1. 청천동이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분동.
5. 3. 한국상업은행 산곡동출장소(산곡동 182) 개점.
5. 29. 주택은행 동암출장소(십정동 293-10) 개점.

1991년

1. 5. 부평전신전화국을 부평전화국으로 개칭.
3. 1. 부일중학교(삼산동 388-5) 개교.
3. 9. 부원중학교(부평1동 70-131) 개교.
4. 15. 초대 인천직할시 북구 의회 개원(5개 분과 위원회 45명).
5. 1. 하정초등학교(십정2동 393) 개교.
5. 17. 한미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2-1) 개점.
9. 1. 동수초등학교(부개1동 442-23) 개교.
9. 26. 북구도서관(부평4동 880) 개관.
10. 11.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발족.
10. 26. 동아시티백화점(부평동 70-127) 개점.

1992년

1. 24.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2. 16. 협성양로원(산곡3동 370-71) 개원.
9. 1. 갈산동에서 삼산동 분동. 부개2동이 부개2동과 부개3동으로 분동.

1993년

3. 1. 갈산초등학교(갈산2동 360-1) 개교.
5. 4. 개흥초등학교(부평4동 905) 개교.
12. 1. 산곡2동이 산곡2동과 산곡4동으로 분동.

1994년

2. 1. 인천여성문화회관 개관.
3. 5. 부평공업고등학교(갈산동 360-2) 개교.

7. 1. 갈산동이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분동.

1995년

1. 1. 인천직할시 북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북구의회로 명칭 변경.
3. 1.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
3. 3. 부광고등학교(산곡동 310-33) 개교.
6. 15.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설.
6. 27. 제1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 최용규 후보 당선.
9. 1. 부곡초등학교(산곡2동 148-5) 개교.
12. 1. 부평구 갈산동에 이마트 부평점 개장.
12. 19. 협성요양원(산곡3동 370-86) 개원.

1996년

3. 4.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개교.
3. 5. 부개여자고등학교(부개3동 장고개길 655) 개교.
3. 28. 경인선 부개역 영업 개시.
5. 17. 부평역 광장에서 '5·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 개최. 이 기념식에서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이 공식적으로 선포됨.
9. 1. 구산초등학교 개교.
9. 20.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1997년

3. 1. 구산중학교(부개3동 497-4) 개교.
3. 10.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발족.
5. 14.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와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부평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개최.
9. 30. '1997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9. 30~10. 5).

1998년

3. 1. 부내초등학교(부개3동 501-12) 개교.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수묵 후보 당선.
7. 13.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산곡3동 370-34) 개원.
9. 25. '1998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9. 25~9. 27).
12. 28.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1999년

1. 29. 철도청, 경인전철 복복선 부평~구로 간 개통.
3. 1. 부일초등학교(부개3동 499-85) 개교.
7. 10. 부평4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7. 20.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9. 1. 용마초등학교(청천2동 176-4) 개교.
9. 29. 부평구, '대우차 살리기' 가두캠페인 실시.
10. 6. 인천지하철 개통(환승역은 부평역).
10. 8. '1999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10. 8~10. 12).

2000년

1. 1.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삼산동 157) 개원.
2. 24. 부평역사에 롯데 마그넷 부평점 개장
3. 1. 부마초등학교(산곡2동 124-106) 개교.
4. 22. '지구의 날 2000' 행사의 일환으로 부평대로에서 차없는 거리 행사 개최.
9. 1. 백운초등학교(십정2동 산37), 한길초등학교(삼산동 393-1) 개교.
9. 29. '2000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9. 29~10. 1).
12. 14.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15.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18. 산곡4동 ·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1. 부개1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2. 부평1동 · 부평2동 · 부평6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3. 일신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6. 부평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7. 갈산1동 · 삼산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12. 28. 산곡1동 · 부개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2001년

1. 4. 부평5동 · 산곡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3. 1. 갈월초등학교(갈산2동 373), 미산초등학교(산곡4동 128-60) 개교.
3. 5. 삼산고등학교(삼산동 391-2) 개교.
6. 5.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창립식 개최.
9. 16. '2001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9. 16~9. 23).

2002년

3. 5. 부원여자중학교(부평동 70-128) 개교.
3. 29. '캠프마켓' 2008년까지 이전 결정.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윤배 후보 당선.
9. 9. 신명요양원(십정동 577-4) 개원.
9. 30. '2002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9. 30~10. 6).

2003년

6. 3. '2003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6. 3~6. 8).
9. 1. 후정초등학교(삼산동 390-1) 개교.
9. 5.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2004년

1. 1. 부평문화사랑방 개관.
3. 3. 부개고등학교(부개2동 120-546) 개교.
5. 19. '2004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5. 19~5. 23).
7. 22. 부평구 현충시설물설치위원회 발족.
9. 1. 굴포초등학교(삼산동 454-1), 진산초등학교(삼산2동 456-1) 개교.
9. 3.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개설.

10. 2.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개설.
12. 15. 제1회 부평구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2005년

2. 14. 부평성폭력상담소 개설.
2. 23. 인천가정사랑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3. 2. 진산중학교(삼산동 445-1) 개교.
3. 3. 부흥고등학교(부개동 120-547) 개교.
4. 16. 십정2동 청사 증축.
5. 25. '2005부평풍물대축제' 개최(행사기간 : 5. 25~5. 29).
8. 18. 부평재가노인복지센터(십정동 282-10) 개원.
9. 1. 영선초등학교(삼산2동 438-7) 개교.
10. 17. 삼산노인주간보호센터(삼산동 157) 개원.

2006년

3. 1. 진산고등학교(삼산동 456-6) 개교.
3. 2. 영선고등학교 개교.
3. 3. 산곡고등학교(산곡동 137-2) 개교.
3. 10. 부평기적의도서관(부개동 499-1) 개관.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윤배 후보 당선.

참고문헌

자 료

H.Q. USAFIK, G-2 Periodic Report(미군정 주간정기보고).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활동보고서」,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2004 · 2005.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내부경무국, 『민적통계표』, 1910년 5월 조사.
大橋淸三郞, 『朝鮮産業指針』, 開發社, 19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3 · 1운동 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3 · 1운동사자료집).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대회의사록』, 조선정판사, 1946.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연보』, 문우인서관, 1946.
서울시스템(주), 『CD-Rom 조선왕조실록(국역 증보판)』, 1998.
越智唯七,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정부재정고문본부, 『한국호구표』, 1907년 5월 조사.
조선총독부, 1912, 「인천상공업조사」.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 - 경기도, 1930.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8.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18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測地課業務顚末書』 제1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군면폐합관계서류』, 191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제152호, 1947. 9. 26.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편찬자료 10, 1985.
『대동지지(大東地志)』.
『대전회통(大典會通)』.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42).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71).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경제연보』, 1940년판.
『조선왕조실록』.
『토지조사부』, 부천군.
『토지조사참고서』 제4호, 토지조사시행보고(土地調査試行報告), 1910년 4월 28일.
『한국세계계획안(韓國歲計計劃案)』(참고자료), 1906년 6월.
『한국토지조사계획서(韓國土地調査計劃書)』, 탁지부, 1910년 1월.
『한말근대법령자료집』.
『호구총수(戶口總數)』,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영인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지 도

경기도,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2005.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
『1872년 군현도(郡縣圖)』, 『조선후기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광여도(廣輿圖)』(19세기 전반).
『동국여도(東國輿圖)』(19세기 전반).
『해동지도(海東地圖)』
『청구도(靑丘圖)』, 김정호, 1834.

1:50,000 지형도

1.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 1890년대
한성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 · 발행 /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과천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 · 발행 /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제물포 1895년 측도(추정) 1911년 인쇄 · 발행 /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부평 1895년 측도 1899년 제판 1911년 인쇄 · 발행(추정) / 일본 육군참모부 육지측량부

2. 일제시기 : 1910년대
김포 1916년 측도 1917년 제판 1919년 인쇄 · 발행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경성 1918년 측도 1918년 제판 1919년 인쇄 · 발행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인천 1917년 측도 1918년 제판 1918년 인쇄 · 발행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군포장 1917년 측도 1918년 제판 1919년 인쇄 · 발행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조선총독부, 『1: 50,000지형도』(관련도엽), 1918.

3. 1970년 전후
김포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서울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인천 1968년 편집, 1969년 발행
안양 1974년 편집, 1975년 발행

4. 2000년대
김포 1975년 편집 1994년 수정 2002년 인쇄
서울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인천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안양 1987년 편집 2001년 수정 2002년 인쇄

행정지도

동아지도, 『초정밀 1: 50,000지도』, 랜덤하우스중앙, 2005.
행정자치부, 『전국행정지도』 권 Ⅰ, 부평구행정지도, 2001, 제작:(주)동서지도정보.
행정자치부, 『전국행정지도』 권 Ⅰ, 인천광역시행정지도, 2001, 제작:(주)동서지도정보.

신 문

『경기매일신문』, 『경인일보』, 『경향신문』, 『대중일보』,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평사람들』(부평구 발간), 『서울신문』, 『영남일보』, 『인천공보』, 『인천신보』, 『인천일보』, 『조선독

립신문』(천도교 발행),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황성신문』

단행본

C.L.호그 지음, 신복룡 · 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1992.
『2005년 환경백서』, 인천시, 2005
강화사편찬위원회, 『增補 江華史』, 강화문화원, 1994.
건설교통부, 『한국의 홍수통제30년사』, 건설교통부, 2005.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건설교통부, 2004.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가람 길라잡이』, 건설교통부 · 한국수자원공사, 2002.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1: 서울, 인천, 경기」,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경기도, 『경기도지』, 경기도, 195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편, 『富平史』, 부평구, 1997.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상 · 하, 다인아트, 2001.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 편, 『桂陽史』, 계양구, 2001.
국가보훈처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편, 『독립운동사』 2 · 3,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1, 1969.
권혁재, 『자연지리학』, 법문사, 2003.
권혁재, 『한국지리[지방편]』, 법문사, 2004.
권혁재, 『한국지리[총론편]』, 법문사, 2005.
김금수, 『한국노동운동사』 6, 2004.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김동춘, 『한국사회노동자연구 –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김영일, 『격동기의 인천』, 동아사, 1986.
김장한,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내무부 지방국, 『지방행정구역일람』.
내무부, 『지방행정구역발전사』, 휘문인쇄주식회사, 1979.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증보 한국토양총설』, 1982.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2002.

미국무성 비밀외교문서 · 김국태 옮김, 『해방3년과 미국 Ⅰ : 미국의 대한정책 1945~1948』, 돌베개, 1984.
부천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 부천시, 2002.
森田芳夫, 『朝鮮終の戰記錄』, 巖南堂書店, 196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2.
손봉숙, 『한국지방자치연구』, 삼영사, 1987.
손일 · 최정권, 『인간과 자연환경-환경변화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신학사, 1986.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송남헌, 『해방1년사』, 까치, 1985.
여운홍, 『夢陽 呂運亨』, 청하각, 1967.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기후변화협약』, 유넵프레스, 2002.
유태용,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2003.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 2003.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이승호 · 이현영, 『기후학의 기초』, 두솔, 2005.
이원규 편저, 『인천 서구지역의 설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3.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2004.
이훈익, 『인천의 성씨 · 인물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1.
이훈익, 『인천지명고』,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3.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경제백서』, 20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통계연보』 각 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회보』각 년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산과 하천』,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최고』,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사자료집(Ⅰ)』, 2003.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산과 하천』, 2005.
인천광역시 편, 『인천의 사회지표』, 2005.
인천광역시 편, 『인천통계연보』, 각 년도.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3)』, 2002.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1~6권, 2002.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사』, 2005.
인천발전연구원 편, 『한권으로 읽는 인천』, 다인아트, 2005.
인천발전연구원편, 『인천 재발견』, 상 · 하, 2001.

인천부, 『인천부사』, 인천부, 1933.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120년사』, 200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100년사』, 1986.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110년사』, 1996.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90년사』, 1979.
인천시, 『시세일람(市勢一覽)』, 인천시, 1958.
인천시민대토론회 준비위원회엮음, 『왜 다시 인천인가-인천 · 삶 그리고 대안』, 다인아트, 2000.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상 · 하, 1973.
인천직할시, 「인천시사」, 1993.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개항100년사』, 1983.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권)』, 1993.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7), 『전노협백서』, 제1권.
정일섭, 『인천지역의 이해』, 인하대 출판부, 1999.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조기준, 「부평사연구」,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조기준, 『부평사 연구』(증보판), 백아문집간행위원회, 1995.
조기준, 『한국자본주의발전사』, 대왕사, 19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1948.5.10 ~ 1972.10.16)』, 1973.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 未來社, 1986.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대우자동차 파업 · 농성』, 1985.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한국의 도시』, 인천광역시, 1999.
한국법제연구회 편, 『미군정법령총람』.
한국수자원학회, 『건설교통부 승인 하천설계 기준 · 해설』, 2005.
한국수출산업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1994.
한국은행, 『경제연감』, 1955.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68.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산업 2006』.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 50년사』.
한국자원연구소, 『김포-인천도폭 지질조사보고서』, 1995.
한국토양조사사업기구 ·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개략토양도-서울 및 경기도』, 197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상), 198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경기 · 인천편/하), 1986.

한형숙,「인천 공업지역의 현황」.

연구논문

곽한왕,「인천에서의 6월항쟁」,『황해문화』, 1997 여름, 새얼문화재단, 1997.

권병두 · 황희승,「부평 칼데라의 중력연구」,『한국지구과학학회지』제12권 3호, 1991.

김기원,「미군정기의 사회경제」,『한국사』18, 한길사, 1994.

김동찬 · 임동민,「역세권의 토지이용 및 이용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국토계획」34권 4호, 1999.

김무용,「해방직후 인천지역 사회주의운동」,『한국근현대 경기지역 사회운동연구』, 관악사, 1998.

김석훈,「강화도의 선사문화」,『박물관지』3,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3.

김정기,「청동기 시대의 유적」,『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97.

김정인,「임정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김종혁,「조선시대 행정구역의 변동과 복원」,『문화역사지리』15(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김호동,「계양도호부사 이규보의 활동을 통해 본 고려 군현통치의 실상」,『한국중세사연구』14, 한국중세사학회, 2003.

박용안,「한국 황해(서해)의 제4기 후기 및 홀로세(현세)의 해수면과 기후」,『황해 해안의 환경과 문화』, 학연문화사, 1994.

범선규,「강화도의 수리시설과 수리체계」,『인천학연구』2-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범선규,「강화도의 해안선과 해안지형」,『인천학연구』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범선규,「법령과 자연지리 용어-지형관련 용어를 중심으로」,『한국지형학회지』제9권 1호, 2002.

서규우 · 허준행 · 조원철,「굴포천 상류의 도시화에 따른 유출영향분석 및 침수저감대책에 관한 연구」,『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16권 제II-5호, 1996.

小谷益次郎 著 · 윤해연 역,「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상 · 하)」,『황해문화』30~31, 새얼문화재단, 2001.

孫艷紅,「해방후 중국 화북지역의 한인귀환에 관한 자료」,『한국근현대사연구』26, 한울, 2003.

송종헌,「부평의 지역성 고찰」,『기전문화연구』25 · 26합집, 1998.

신숙정,「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생업경제 -경기도를 중심으로한 시론」,『한국상고사학보』35, 한국상고사학회, 2001.

신태범 증언,『원로를 찾아서① 신태범 박사』,『황해문화』1, 새얼문화재단, 1993.

유경순,「6월항쟁 속의 노동자투쟁 돌아보기」,『민주노동과 대안』제70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4.

윤승준,「부평역에 대한 단상 -부평의 문화적 갱생을 소망하며」,『황해문화』12(96년 가을호),

새얼문화재단, 1996.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1992.
이갑영, 「일제하 인천의 노동운동」, 『교수논총』 3-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이갑영, 「해방직후 인천 노동운동의 성격」, 『인천학연구』 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6.
이경성, 「석기시대의 인천」, 『기전문화연구』 3, 1973.
이동영, 「제4기 지질학과 고고학의 공동연구」, 『선사문화』 2, 충북대 선사문화연구소, 1994.
이동영, 「지질학적 자료의 분석」, 『고고학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선복, 「임진강 유역 구석기 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1996.
이영민, 「개항 이후 경인지역의 역사지리적 변화와 경인선 철도의 역할」, 『지리교육논집』 49, 2005.
이영민, 「경인선 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연구」 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
이영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의 재구성: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권 2호, 2001.
이영민, 「후기산업사회 도시문화지리학의 연구과제와 한국도시경관 연구에의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2000.
이영호,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문제」,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이용선, 「급진적 노동운동의 메카」, 『황해문화』 1999년 가을호, 새얼문화재단, 1999.
이우재, 「5·3인천사태를 뒤돌아보며」, 『5·3에서 미래로』,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
이우재, 「5·3항쟁의 개요」, 『5·3에서 미래로』,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
이윤희, 「미군정기 인천에서의 좌·우투쟁의 전개」, 『역사비평』 1989년 봄호, 1989.
이주철, 「통일후 월남인의 북쪽 토지처리를 생각한다」, 『역사비평』 33(1996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6.
이헌종,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석기제작기법의 변화」, 『우리나라의 구석기 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이현주,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가로지른 '남로당의 2인자'」, 『황해문화』 5, 새얼문화재단, 1994.
이현주, 「해방후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제헌의회 선거—인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30, 새얼문화재단, 2001.
임명방, 「인중 시절과 태극기에 대한 기억」, 『황해문화』 5, 새얼문화재단, 1994.
임병윤, 「산미증식계획 - 그 추진주체의 성격규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1.
임효재, 「편년」, 『한국사론』 12(하), 국사편찬위원회, 1983.
장시원, 「부평수리조합의 창설과정」·「부평수리조합의 직원구성」,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전종한,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 경관의 근대적 변형 –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 『대한지리학회지』 39(3), 2004.

전진삼, 「주안역과 그 주변의 문화적 접근 – 주안역 주변, 그 비무장지대를 위한 담론」, 「황해문화」 12, 새얼문화재단, 1996.

정맹석, 「인천시의 공업발달과 공업지역 구조」, 「동국지리」 4, 1983.

정성기, 「8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전개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제1호, 한울, 1988.

정영태, 「개발연대의 노동자계급 형성: 인천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종구외, 『1960-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자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4.

조성면, 「철도와 문학」, 『인천학연구』 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5.

조우성,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를…" – 반민특위」, 『인천이야기 100장면』, 다인아트, 2004.

조찬석, 「부평지역의 행정구역 변천과 각동의 유래」, 『기전문화연구』 21,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92.

조찬석, 「옛 부평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연구 – 특히 부평구를 중심으로 –」, 『기전문화연구』, 1999.

조찬석,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의 땅이름에 관한 조사연구」, 『기전문화연구』 29 · 30합집, 2003.

조현연, 「5 · 3에서 미래로 : 1986년 5 · 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 『5 · 3에서 미래로』,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

지건길, 「묘제 II」, 『한국사론』 13, 국사편찬위원회, 1983.

지건길,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7.

지종덕, 「경기지역의 토지와 지적」,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최영준, 「개항기 인천의 도시화와 경관의 변화」,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1997.

최원식, 「경인선의 역사문화지리 –동인천역의 상상적 복원」, 『황해문화』 12, 1996.

홍인숙,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학위논문

김광섭, 「지하철 역세권내 공공 · 편익시설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윤명수, 「1980년대 한국노동운동에 관한 일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991.

이현아,「서울-인천 도시회랑의 지리학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0.
임정희,「서울시 지하철 환승역세권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논문.
최원규,『한말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연세대 사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보고서

과학기술부,『서울-남천점 지질도폭 보고서』, 2000.
김석훈, 1994.『인천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지표조사보고-선사부문-』
김용하,『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김용하 · 이인재,『부평역 지하공간 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남진 · 김광중,『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관한 서울시 정책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이병기 · 김종업,『인천광역시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 2003.
인천시 서구청 · 인하대 박물관,『대곡동 지석묘-인천대곡동지석묘 정밀지표조사』(조사보고 55책), 2005.
인천시립박물관,『仁川北部綜合學術調査』, 2004.
조상운,『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조상운,『경인철도변 지역단절 개선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외,『인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2003.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천 동양택지개발사업지구(1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천 원당지구 4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1차지도위원회자료), 2002.

색 인

6 · 25참전유공자회 _ 126, 127

ㄱ

가정포대지 _ 261
갈산1동 _ 204
갈산2동 _ 204
갈산중학교 _ 76
갈산초등학교 _ 57
갈월초등학교 _ 57
개흥초등학교 _ 58
계양산 _ 90
계양산성 _ 258. 259
구산중학교 _ 77
구산초등학교 _ 58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_ 228
굴포초등학교 _ 59

ㄷ

대정초등학교 _ 59
동수초등학교 _ 59
동암중학교 _ 77
동암초등학교 _ 60

ㅁ

마곡초등학교 _ 60
마장초등학교 _ 61
명신여자고등학교 _ 87
무공수훈자회 _ 126
미산초등학교 _ 61

ㅂ

박희방 _ 259, 260
백운초등학교 _ 61
부개1동 _ 207
부개2동 _ 207
부개3동 _ 208
부개고등학교 _ 88
부개서초등학교 _ 63
부개여자고등학교 _ 89
부개초등학교 _ 62
부곡초등학교 _ 63
부광고등학교 _ 88
부광여자고등학교 _ 89
부광중학교 _ 78
부광초등학교 _ 63
부내초등학교 _ 64
부마초등학교 _ 64
부원여자중학교 _ 79
부원중학교 _ 79
부원초등학교 _ 65
부일여자중학교_ 80
부일중학교 _ 79
부일초등학교 _ 65
부평 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_ 219
부평 장애인 복지관 _ 109
부평1동 _ 197
부평2동 _ 197
부평3동 _ 198
부평4동 _ 198
부평5동 _ 199
부평6동 _ 199
부평고등학교 _ 89
부평공업고등학교 _ 89
부평구 경영자협의회 _ 192
부평구 현충시설물설치위원회 _ 127
부평기적의도서관 _ 296, 299, 300, 301

부평남초등학교 _ 66
부평도서관 _ 296, 298
부평도호부청사 _ 254
부평동중학교 _ 81
부평동초등학교 _ 66
부평디자인센터 _ 193
부평문화사랑방 _ 287
부평문화원 _ 288, 303, 304, 307
부평문화의 거리 _ 305
부평북초등학교 _ 67
부평서여자중학교 _ 82
부평서중학교 _ 81
부평서초등학교 _ 67
부평여자고등학교 _ 90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_ 91
부평여자중학교 _ 83
부평역 _ 306
부평의제21 _ 232, 233
부평정보고등학교 _ 90
부평중학교 _ 82
부평향교 _ 257
부흥고등학교 _ 91
부흥중학교 _ 83
부흥초등학교 _ 68
북구도서관 _ 296, 299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_ 221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_ 91

ㅅ

산곡1동 _ 200
산곡2동 _ 201
산곡3동 _ 201
산곡4동 _ 202
산곡고등학교 _ 92
산곡남중학교 _ 85
산곡남초등학교 _ 69
산곡북초등학교 _ 70
산곡여자중학교 _ 85
산곡중학교 _ 84
산곡초등학교 _ 69
삼산1동 _ 204
삼산2동 _ 205
삼산고등학교 _ 92
삼산중학교 _ 86
삼산초등학교 _ 70
상이군경회 _ 126
상정초등학교 _ 70
세일고등학교 _ 93
신명요양원 _ 116
신촌초등학교 _ 71
신트리공원 _ 306
십정1동 _ 205
십정2동 _ 205
십정초등학교 _ 71

ㅇ

어사대 _ 255
연희진지 _ 260, 261
연희포대지 _ 261
영선고등학교 _ 93
영선초등학교 _ 72
욕은지 _ 256
용마초등학교 _ 72
우림 라이온스 밸리 _ 19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센터 부평사무소 _ 193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 _ 192

인천여성문화회관 _ 284, 285
인천외국어고등학교 _ 94
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_ 94
일신동 _ 208
일신초등학교 _ 73

ㅈ

자동차동력계부품 생산기술혁신센터(TIC) _ 194
재향군인회 _ 126
전몰군경미망인회 _ 126
전몰군경유족회 _ 126
제일고등학교 _ 95
중심성사적비 _ 260
중심성지 _ 259
진산고등학교 _ 95
진산중학교 _ 86
진산초등학교 _ 73

ㅊ

청천1동 _ 202
청천2동 _ 202
청천중학교 _ 86
청천초등학교 _74

ㅎ

하정초등학교 _ 74
한국폴리텍 II인천대학 _ 96
한길초등학교 _ 75
한일초등학교 _ 75
협성요양원 _ 116
후정초등학교 _ 76

부평사 2 부평의 오늘과 내일 자료편

발행일
2007년 11월 16일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42-3 부평문화원
전화 (032)505-9030

디자인/편집/인쇄
(주) 인천신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2
전화 (032) 451-4510~8, 팩스 (032) 451-4519
www.i-today.co.kr

ⓒ 부평사 전 2권



富平史編纂委員會